城北區誌

서울特別市 城北區

路區

平昌洞

北安國民小學

스타광장

國民大學校

青德國民學校

三陽洞

三陽國民學校

三陽市場

水源女中校

水源中校

城北洞

城北國民學校

城北中學校

明倫洞一街

明倫洞二街

明倫洞三街

明倫洞四街

國立科學館

植物園

惠化國民學校

惠化女高校

惠化洞

重建洞

東善洞

城北洞二街

東小門洞一街

東小門洞二街

東小門洞三街

東小門洞四街

東小門洞五街

東小門洞六街

東小門洞七街

三仙中校

三仙洞一街

三仙洞二街

三仙洞三街

三仙洞四街

三仙洞五街

東仙洞一街

東仙洞四街

東仙洞五街

普門洞一街

普門洞二街

普門洞三街

普門洞四街

普門洞六街

安岩洞

敦義洞

敦義國民學校

敦義女中校

東信國民學校

東明國民學校

東明女高校

東福國民學校

東福女中校

東福女高校

東光國民學校

東光女中校

東光女高校

東仙國民學校

東仙女中校

東仙女高校

東安國民學校

東安女中校

東安女高校

東善國民學校

東善女中校

東善女高校

東門國民學校

東門女中校

東門女高校

東大門國民學校

東大門女中校

東大門女高校

東大門中學校

東大門女中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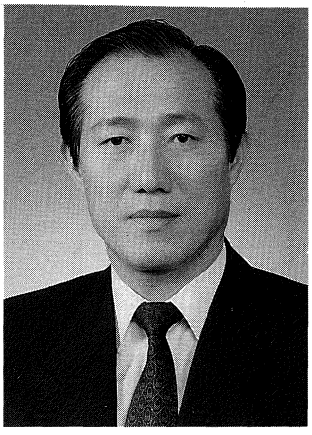
東大門女高校

東大門中


月溪洞
仁德工高校
月溪中校
仁德專門大學
德光女中商高校
信倉中校
信一中高校
月溪라이프아파트
德阿電話局
성바오르修女院
華溪國校
서울드림랜드
光雲電子工高校
光雲大學校
미륭아파트
성북역
漢川國校
月溪아파트
新東亞아파트
선곡국교
大韓通運
月溪國校
楠大門中校
德光男中商高校
長位洞
미아아파트
永興中校
永興國校
昌文女中校
미아삼거리역
北區
上月谷洞
月谷國校
長位國校
장석시장
석계역
石串國校
石串高校
石串洞
崇仁國校
同德女大
月谷中校
石串郵遞局
서울北中工高校
聖家病院
月岩橋
下月谷洞
三益타운아파트
里門國校
里門洞
서라벌中高校
鍾岩洞
岩洞
鍾岩區
慶熙國校
慶熙大學校
외경역
外國語大學校
徽慶洞
崇體國校
서울師大附中校
月谷아파트
서울師大附屬高校
慶熙女中高校
慶熙醫療院
清涼國校
回基洞
鍾岩女中校
鍾岩大橋
世宗大王記念館
洪陵國校
東大門區
高麗大學校
현대아파트
三育國校
清涼中高校
서조사
서울適生病院
第2祭基橋
清涼里洞
祭基洞
徽慶中校
徽慶國校
典農中校
貢和女中商高校
清涼里醫病院
安岩洞五街
祭基國校
라이프빌주아파트
典農女中
典東中校
典農洞
청량리역
清涼郵遞局
安岩洞四街
成一中校

〈題字 一中 金忠顯〉

祝　刊　辭



내년에 定都 600년을 맞이할 首都 서울은 이제 世界속의 大都市로 성장하였고 계속 그 內實을 다지며 눈부신 發展을 거듭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서울의 發展된 모습은 각 時代別로 그 時代에 알맞는 市民의 意志와 市政의 꾸준한 勞力의 結果라고 생각됩니다만 동시에 서울市를 구성하는 22개의 區가 제각기 그 地域的 特性에 맞게 알찬 行政을 해 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서울定都 600년에 맞추어 여러 區에서 區誌를 발간하고 있고 이번에는 城北區誌가 발간된다니 충심으로 반가운 마음 禁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 시민 모두가 인정하듯이 성북구는 秀麗한 環境을 지닌 고장이고 百濟 建國 초기 河北慰禮城의 立地 이래로 수많은 歷史와 傳統이 축적된 고장이기 때문에 文化의 香氣로 가득찬 곳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城北區誌는 매우 소중하고 現代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만이 아니라 먼 후세에 전해질 귀중한 遺産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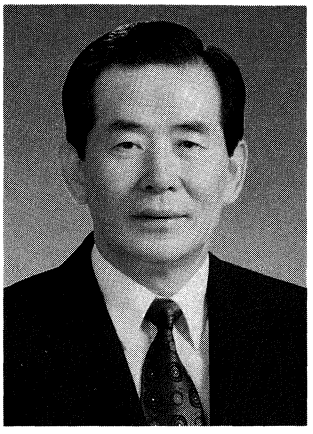
비록 한 개 區의 발자취와 현재의 모습을 정리한 것이기는 하나 지난날의 施行錯誤와 問題點도 기록되었을 것이니 이를 거울삼아 앞으로 地域社會의 건전한 발전과 公共福利 증진을 위한 밑거름이 됨은 물론, 보다 발전된 區行政의 디딤돌이 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 동안 區誌發刊을 위해 적극 支援해 주신 城北區議會 議員 여러분, 또 자료수집에 협조해 주신 區民 여러분과 機關들, 그리고 집필·편집 등에 勞苦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市長으로서 깊은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1993년 7월

서울特別市長　이 원 종

發　刊　辭



城北區의 발자취와 현재의 모습을 담은 區誌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60만 區民이 區政發展을 위해 쏟아온 정성과 바램의 一端이 이 한 권의 책자로 結實된 것입니다.

서울의 鎭山인 北漢山 아래 자리한 城北區는 바로 그 위치의 重要性 때문에 일찍이 河北慰禮城의 故地로 알려져 있고 高麗時代에는 漢陽遷都의 후보지로 거론되기까지 했으며 朝鮮王朝時代에는 東小門 밖, 交通 및 軍事的 要衝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大韓民國政府가 수립된 후 地方行政 區域改編의 제1호로 1949년 8월에 城北區가 창설되었고 다음해인 1950년의 6·25 사변 때에는 彌阿里 戰鬪, 斷腸의 미아리고개로 7천만 韓民族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恨」의 고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區政 발족후 40여 星霜이 흐르는 동안 성북지역은 엄청나게 변화했고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가장 秀麗한 山川은 그대로 이어져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子孫萬代에 이어져 갈 것입니다. 이 환경의 아름다움 때문에 현재 城北區內에는 綜合大學校가 6개나 자리하고 있고 서울市內에 소재하는 國寶·寶物의 약 4분의 1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區誌의 일부분을 집필한 전문가는 오늘날의 城北區를 가리켜 「知性과 敎養이 가득한 고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區民들은 文化水準·知識水準이 높기 때문에 地域社會에 대한 강한 矜持를 지니게 되었으며 그와 같은 矜持가 모여서 이렇게 內實있는 區誌가 발간되게 되었습니다. 이 區誌는 城北地域이 걸어온 지난 날을 省察하고 현재를 정리함과 아울러 21세기를 향한 跳躍의 발판이 되게 하기 위해 꾸며졌습니다.

기록으로 전해지는 자료가 充分치를 못하여 完璧한 것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마는 앞으로도 꾸준히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10년후 20년후에 더욱 補完된 區誌가 발간될 수 있도록 勞力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資料를 제공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여러 機關들, 그리고 집필·편집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區議會 議員 여러분에게도 깊이 感謝를 드립니다.

1993년 7월

城北區廳長 田 燦 明

目　次

祝　刊　辭

發　刊　辭

第1章　總　說

Ⅰ. 서울에서 가장 아름답고 文化로 충만한 고장 城北이여 …… 27

1. 서울의 東北關門인 城北區 …… 27
2. 知性과 敎養이 가득찬 고장으로 …… 28

Ⅱ. 自然環境 …… 30

1. 位置와 面積 …… 30
2. 地　質 …… 34
3. 地　形 …… 37
4. 土　壤 …… 42
5. 氣　候 …… 47

第2章　城北區의 발자취

Ⅰ. 甲午改革 以前 …… 53

1. 先史文化와 城北地域 …… 53
2. 統一新羅 以前의 城北地域 …… 55

3. 高麗時代의 城北地域 ····· 67
4. 朝鮮時代의 城北地域 ····· 74

II. 甲午改革(1895년)에서 大韓帝國末까지의 城北地域 ····· 107

1. 漢城府 行政區域 개편과 城北地域 ····· 107
2. 安岩洞「日韓神宮奉敬會」전말 ····· 111

III. 日帝下의 城北地域 ····· 115

1. 日帝强占 초기의 行政區域 개편과 城北地域의 高陽郡 편입 ····· 115
2. 京城府 區域擴張, 崇仁面 일부 京城府 편입, 出張所·區 설치의 과정 ····· 119
3. 日帝下의 城北地域 變化에 영향을 미친 사건들 ····· 124
4. 日帝下 城北地域의 土幕部落들 ····· 138
5. 敦岩地區 區劃整理事業 ····· 141

IV. 光復後의 급격한 變化 ····· 147

1. 光復, 政府樹立, 城北區의 탄생 ····· 147
2. 6·25事變과 城北區, 그리고 彌阿里고개 ····· 156
3. 6.·25事變後의 급격한 변화 ····· 174

第3章 政 治

I. 日帝强占期 ····· 179

1. 高陽郡 時代의 政治 ····· 179

2. 京城府 편입 이후의 政治 …… 191

II. 8·15 光復後 …… 198

1. 美軍政期의 서울市 …… 198
2. 政府樹立과 城北區의 탄생 …… 200
3. 初代 市議會와 城北區 …… 202
4. 제2대 市議會와 城北區 …… 207
5. 國會議員 선출 …… 210

第4章 行 政

I. 行政組織의 變遷 …… 213

1. 區制의 沿革 …… 213
2. 區廳의 職制와 變遷 …… 221

II. 行政區域의 變遷 …… 260

1. 行政區域의 槪念과 意義 …… 260
2. 城北區의 行政區域 變遷 …… 263

第5章 都市計劃

I. 日帝强占期의 都市計劃 …… 293

1. 市街地計劃令 이전의 움직임 …… 293
2. 朝鮮市街地 計劃令과 京城市街地計劃 …… 298
3. 서울 최초의 敦岩地區 區劃整理事業 …… 308

II. 光復後의 都市計劃 ····· 323

1. 光復後 서울 都市計劃과 城北區 ····· 323
2. 城北區 都市計劃의 現況 ····· 325

第6章 建 設

I. 人口의 集積 ····· 333

1. 人口의 集積推移 ····· 333
2. 各 洞別 人口集積 推移 ····· 334

II. 日帝強占期의 建設 ····· 340

1. 道 路 ····· 340
2. 住 宅 ····· 342
3. 上 水 道 ····· 346
4. 下 水 道 ····· 347

III. 光復 이후의 建設 ····· 348

1. 道 路 ····· 348
2. 橋 梁 ····· 358
3. 住 宅 ····· 359
4. 上 水 道 ····· 375
5. 下 水 道 ····· 378
6. 河 川 ····· 383

第 7 章　産業・經濟

Ⅰ. 前近代社會의 産業・經濟 …… 389

1. 産業・經濟의 立地條件 …… 389
2. 農耕生活 …… 395
3. 製造業 …… 406
4. 流通經濟 …… 408

II. 日帝下의 産業・經濟 …… 428

1. 農 林 業 …… 428
2. 商 工 業 …… 432

III. 光復後의 産業・經濟 …… 436

1. 農・畜産業 …… 436
2. 商　　業 …… 437
3. 製 造 業 …… 439
4. 運輸業・土建業 …… 443
5. 韓國科學技術研究院의 立地와 發達 …… 444

第 8 章　教　　育

Ⅰ. 教育의 發展과 教育行政 槪觀 …… 451

1. 서울 教育의 發展 …… 451
2. 教育行政機關 …… 458

II. 城北區 教育機關 現況 …… 461

1. 대학(교)·전문대학 ····· 461
2. 고등학교 ····· 476
3. 중 학 교 ····· 485
4. 각종학교－中央僧伽大學 ····· 485
5. 국민학교 ····· 487
6. 특수학교－서울명수학교 ····· 487
7. 유치원 ····· 488
8. 사회교육시설 ····· 489

第9章 社會·文化

Ⅰ. 社 會 ····· 493

1. 人口動態 ····· 493
2. 社會福祉 ····· 504
3. 保健衛生 ····· 531
4. 生活體育 ····· 540

Ⅱ. 文 化 ····· 548

1. 김중자 여성 국악단 ····· 548
2. 윤철섭 악극단 ····· 550
3. 澗松 美術館 ····· 550
4. 기타 문화단체 현황 ····· 551

第10章 交通·通信

Ⅰ. 交 通 ····· 553

1. 道　　路 …… 553
2. 電　　車 …… 559
3. 自 動 車 …… 563
4. 地 下 鐵 …… 572

II. 通　　信 …… 576

1. 近代 이전의 通信 …… 576
2. 郵　　便 …… 579
3. 電氣通信 …… 584

第 11 章　宗敎와 民俗

I. 宗　　敎 …… 589

1. 佛　　敎 …… 589
2. 天 主 敎 …… 608
3. 改 新 敎 …… 614
4. 巫俗信仰 …… 620

II. 民　　俗 …… 625

1. 傳說과 民譚 …… 625
2. 民間信仰 …… 635
3. 民俗놀이 …… 639

第 12 章　文化遺蹟 및 名勝

I. 國寶 및 寶物 …… 645

1. 國　　寶 …… 645
2. 寶　　物 …… 661

II. 史蹟 및 有·無形文化財 …… 685

1. 史　　蹟 …… 685
2. 重要 無形文化財 …… 694
3. 重要 民俗資料 …… 703
4. 서울特別市 有形文化財 …… 704
5. 서울特別市 民俗資料 …… 711
6. 서울特別市 記念物 …… 715
7. 기　　타 …… 717

III. 名　　勝 …… 723

1. 北 漢 山 …… 723
2. 貞陵溪谷 …… 726

第 13 章　人　　物 …… 729

第 14 章　各洞의 발자취와 現況 …… 759

附　　錄 …… 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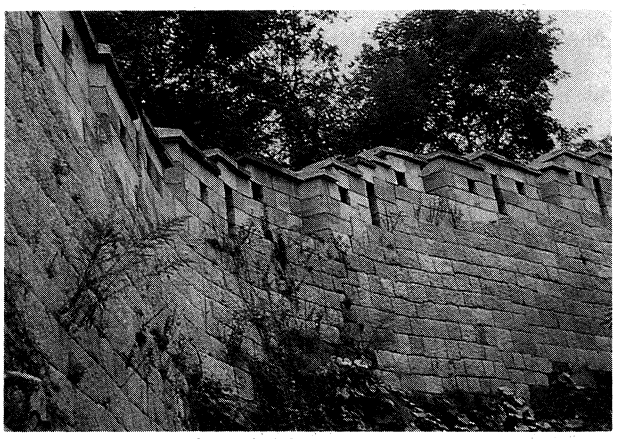
第1章 總 說

Ⅰ. 서울에서 가장 아름답고 文化로 충만한 고장 城北이여

1. 서울의 東北關門인 城北區

서울風水의 宗山이며 동시에 鎭山이기도 한 北漢山의 東南 기슭, 朝鮮王朝時代의 초기만 하더라도 山林이 우거져 호랑이(虎)와 豹범의 출몰이 잦아 親히 國王이 이끄는 호랑이사냥이 자주 이루어졌다는 일대의 지역, 멀리 百濟王朝의 초기에는 王都인 河北 慰禮城의 故地였으며 朝鮮王朝 500년간에는 이른바 城底十里에 속하여 崇信坊내 鍾岩里契·敦岩里契·安岩里契·沙里契·陵洞契 등으로 호칭되었던 일대의 지역은 바로 서울 東北의 大關門이었다.

北漢山에 山城이 축성된 것은 아득한 2세기의 초반이었다. 高句麗·百濟·新羅가 각축을 벌이고 있을 때 北漢山城은 百濟가 北方을 방위하기 위한 前進基地였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北漢山城은 朝鮮王朝 後期 肅宗 37년(1711)에 착공한 것으로 一夫當關 萬夫莫開(한 사람의 병사로 능히 이곳을 지킬 수 있고 1만 명의 敵兵이 쳐들어 올지라도 감히 공략할 수 없다)의 要害處인 이곳을 더욱 튼튼히 할 필요성이 인식된 때문이었다.



서울 성곽(사적 제10호)

성벽에 따라 13개의 門을 마련하고 大東門·大西門·大南門·北門 등의 이름을 붙였는데 大東門의 남쪽에 위치한 門은 특별히 輔國門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이곳이 要害中에서도 특히 要地였으니 이곳을 守禦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輔國)라는 인식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北漢山城 輔國門을 따라 前面에 전개되는 일대가 바로 貞陵洞·吉音洞이며 미아리고개를 넘어 西南進하면 敦岩洞·普門洞·三仙洞·城北洞이고 東南進하면 鍾岩洞·安岩洞인 것이다.

朝鮮王朝가 개국하여 王都를 開城에서 서울로 옮기자 宮闕을 짓고 宗廟·社稷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城郭을 둘러 都城으로 하고 여덟개의 門을 설치하였다. 正東의 門은 東大門이고 東北의 門은 東小門이었다.

步行交通의 時代에도 서울에서 地方으로, 地方에서 서울로의 내왕이 잦았다. 서울을 떠나 江原道 西北部를 거쳐 咸鏡道로 가려면 東小門으로 나가 敦岩洞을 거쳐 미아리고개를 넘거나 東大門으로 나가 新設洞에서 安岩洞·鍾岩洞을 거쳐 미아리고개를 넘어야 했다. 다락골(樓院)·파발막(抱川)·金化·鐵嶺·永興·咸興·北青·慶興을 거쳐 西水羅까지에 이르는 머나먼 길의 시발점이 바로 東小門이었다. 이 東小門 —— 咸鏡道의 길은 수많은 兵馬가 왕래한 길이고 동시에 숱한 물자가 운반된 길이었다. 서울에서 日用雜貨가 실려나갔고 거꾸로 江原道·咸鏡道의 海産物, 주로 北漁라는 이름의 乾明太를 비롯하여 많은 乾魚物이 실려들어 왔었다.

東小門을 나서면 작은 언덕이 있었고 그 언덕을 넘으면 平地가 있었다. 그 平地의 넓이가 三千坪이었다고 하여 三仙坪이란 이름이 붙었고 이곳은 兵卒들의 練武場이었다. 鍾岩洞 北半部도 三仙坪과 동일한 練武場이었다. 오늘날 城北區 관내가 되는 이 두개의 장소에 朝鮮王朝의 練兵場이 있었다는 것은 이곳이 都城 東北의 제1 關門이었기 때문이고 오늘날에도 그 지위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다.

2. 知性과 敎養이 가득찬 고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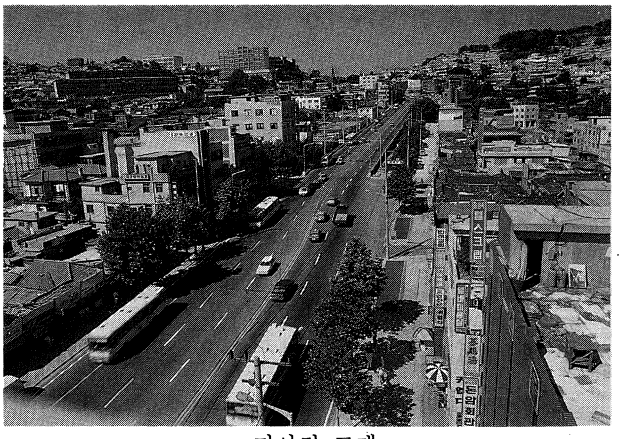
城北區가 탄생한 것은 1949년 8월 13일이었고 그것은 大韓民國 政府수립후 單位 行政區域 창설의 제1호였다. 그후 45년, 실로 엄청난 哀와 歡이 이 고장을

거쳐갔고 그에따라 엄청나게 변하고 발전도 하였다. 6·25사변때의 미아리 戰鬪, 그리고 斷腸의 미아리고개. 지금 그 일대는 서울의 새로운 副都心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그 地下에는 地下鐵 4호선이 달리고 있다. 地下鐵 4호선 吉音驛 입구에 서서 45년전 바로 이곳에서 肉彈으로 탱크에 뛰어드는 血鬪가 전개되었고 수 없는 著名人士들이 납치되어 北으로 끌려갔음을 敢히 누가 實感할 수 있을 것인가.

6·25사변이 일어났던 당시 城北區의 인구는 15만 정도였지만 사변이 끝난 후 급격히 人口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行政區域도 확장되어 1972년 말 현재로 인구수가 91만, 면적은 106.49km²였다. 즉 이 때의 城北區는 인구수에 있어 서울특별시 전체의 18.3%, 면적은 17.6%를 점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미아리고개 북쪽의 대부분이 분리되어 道峰區가 되었으며 道峰區는 그후에 다시 나뉘어져 盧原區가 탄생되었다.

오늘날의 城北區 면적은 24.3km²로서 지난날 城北區가 처음 창설되었을 때의 넓이와 비슷해졌고 1991년 말 현재의 인구수는 54만명을 약간 넘고 있다. 서울특별시를 형성하는 22개의 區중에서 면적은 약 25분의 1, 인구수는 20분의 1이다. 인구수는 區 평균을 넘지만 면적에 있어서는 결코 큰 區가 아니다. 그러나 城北區만큼 아름답고 살기좋은 고장은 없다. 관내에 北漢山 國立公園을 지니고 있을만큼 風致가 아름다움은 예나 지금이나 서울에서 으뜸이고 文化面에서도 뛰어나다. 管內에 6개의 綜合大學校가 있고 國寶·寶物數에 있어서도 국립중앙박물관이 있는 鐘路區 다음자리에 城北區가 차지한다. 아마 寺刹의 質과 量에 있어서도 가장 으뜸의 자리에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54만 全 區民이 강한 區民意識을 지니고 知性과 敎養과 충만한, 그리고 보다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의 노력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子孫萬代에 계승해 나갈 것이다.

〈孫 禎 睦〉



미아리 고개

II. 自然環境

1. 位置와 面積

1) 서울특별시의 위치와 면적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 4대 하천의 하나인 한강의 하류지역을 끼고 한반도의 거의 중앙부에 위치한다. 서울특별시로부터 약 500km권 내에는 한반도의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부산까지의 거리는 445.6km, 신의주까지는 496.5km에 달하여 서울이 부산, 신의주 사이의 거리 중앙의 위치에 해당된다.

이같은 서울특별시의 중심적 위치는 조선시대 이래로 서울이 우리나라의 정치·경제·문화·교통의 중심적 지위를 담당하기에 알맞는 지리적 기초를 이루어 오늘날 서울은 이른바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모든 면의 중추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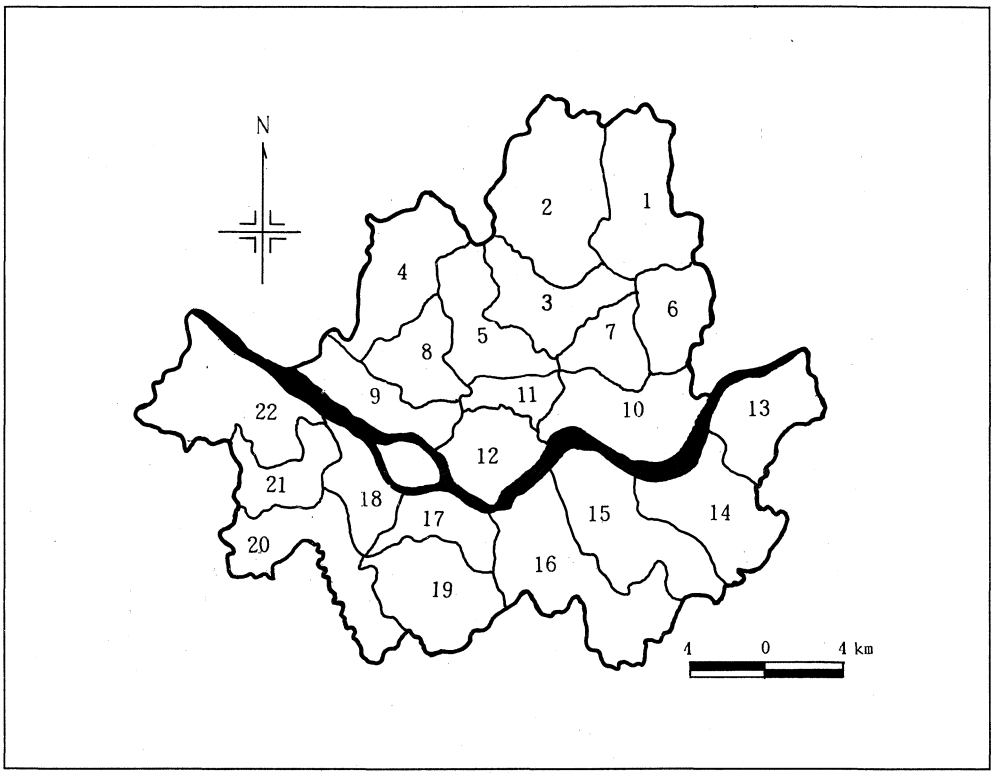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의 數理的 位置는 東端이 강동구 상일동 산 12 북위 37° 32′ 56″ 725, 동경 127° 11′ 06″ 475이고, 西端이 강서구 오곡동 654 북위 37° 33′ 15″ 884, 동경 126° 45′ 55″ 137로 동서간 거리가 36.78km이며, 南端이 강남구 원지동 산 4의 62 북위 37° 00′ 32″ 301, 동경 127° 03′ 25″ 222, 北端이 도봉구 도봉동 산 29의 1 북위 37° 41′ 55″ 237, 동경 127° 01′ 03″ 071로 남북간 거리는 30.3km이다.

관계적 위치로 보면, 서울은 경인지역의 거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서쪽은 서울의 외항 역할을 하는 인천직할시와 부천시에 인접하여 이른바 경인공업지대와 연결되고, 남쪽은 경기도의 도청소재지인 수원, 서울의 위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성남시와 접하며, 북동쪽은 내륙산간농업지대로 연결되는 양주군과 역시 서울의 위성도시의 역할을 하는 의정부시와 연접한다. 북서쪽은 경기평야의 주요 곡

창지인 김포군과 고양군이 인접한다. 서울은 이들 인접된 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을 기점으로 발달한 철도, 고속도로, 각종 도로망을 바탕으로 수도권 제지역 및 전국의 주요 지역과도 밀접한 관계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면적은 1987년 7월 1일 현재 605.42km^{2}로써 남한 전체면적인 99,173.26km^{2}의 0.6%에 불과하다.

〈그림 1〉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



番號	區 名	番號	區 名	番號	區 名
1	蘆 原 區	9	麻 浦 區	17	銅 雀 區
2	道 峰 區	10	城 東 區	18	永 登 浦 區
3	**城 北 區**	11	中 區	19	冠 岳 區
4	恩 平 區	12	龍 山 區	20	九 老 區
5	鍾 路 區	13	江 東 區	21	陽 川 區
6	中 浪 區	14	松 坡 區	22	江 西 區
7	東 大 門 区	15	江 南 區		
8	西 大 門 區	16	瑞 草 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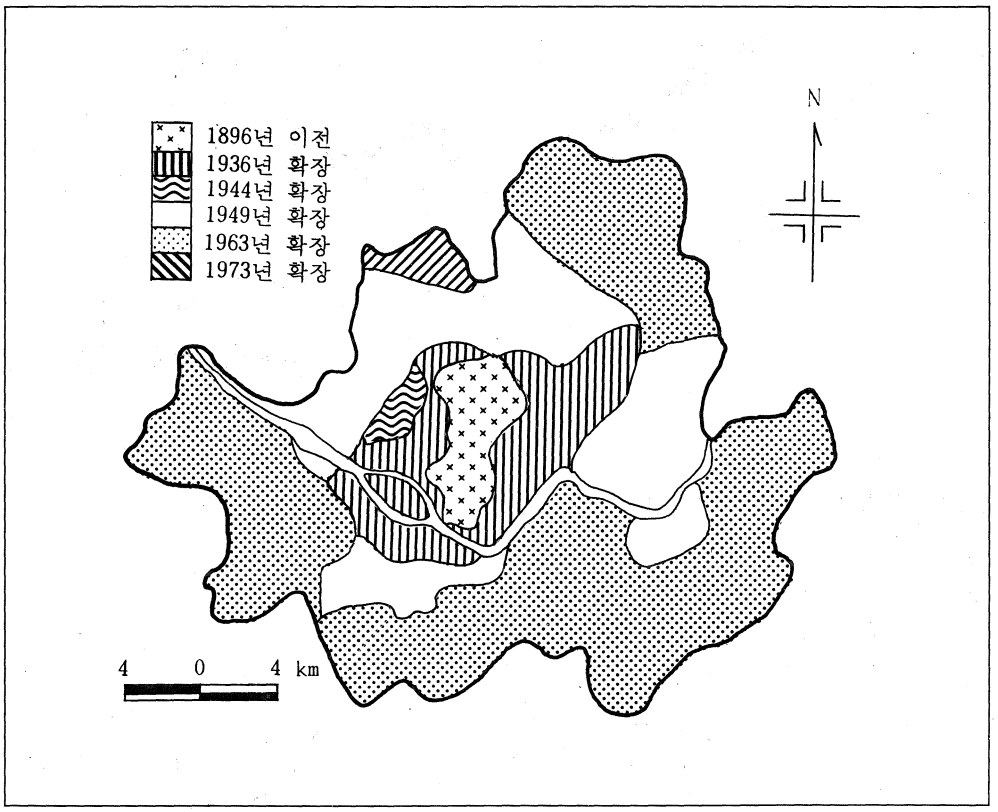
2) 성북구의 위치와 면적

성북구는 서울의 북동부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 중 비교적 새로운 구의 하나이다. 1943년 京城府制 개편으로 동대문구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가 1949년 성북구가 분리 신설되었고 1973년에는 성북구에서 도봉구가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성북구의 極東은 中浪川을 경계로 中浪區 墨洞과 인접해 있는 石串洞이며, 極南은 신설동 로터리에서 종로구와 경계를 이루는 普門洞, 極北은 북한산의 여러 城門들 중의 하나인 貞陵洞의 輔國門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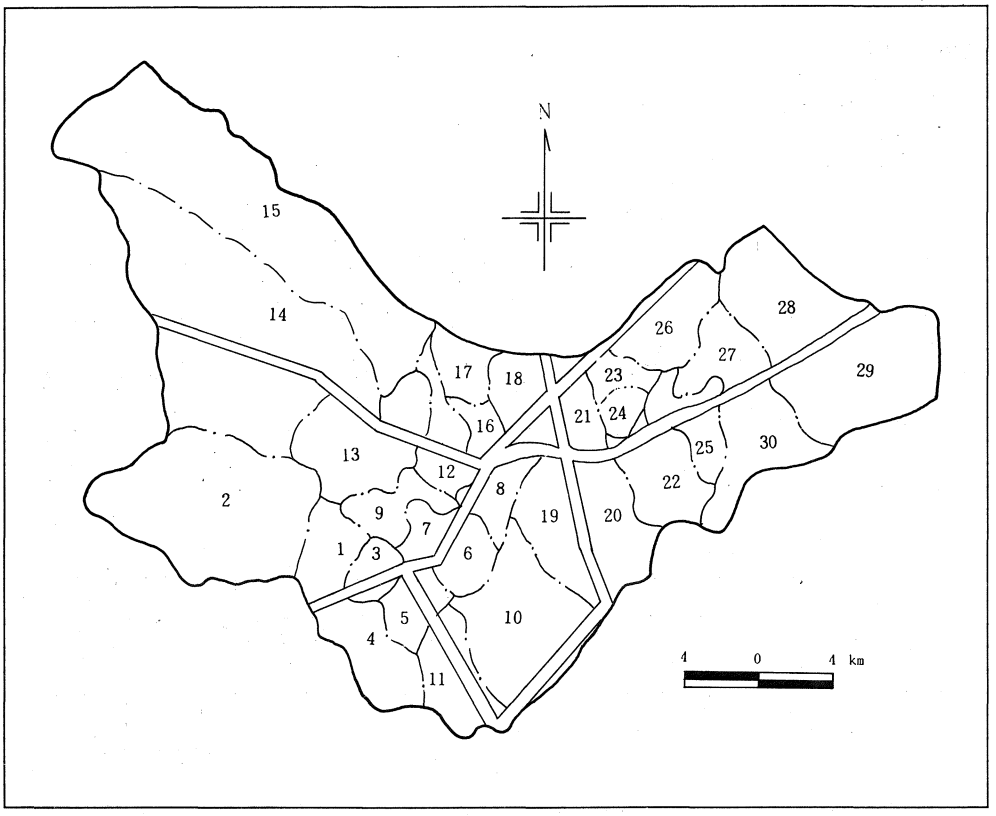
성북구의 남서지역은 한성대학교 뒷편에서 삼청터널까지 이어지는 옛 성벽을

〈그림 2〉 서울특별시의 확장



경계로 종로구와 인접해 있으며, 북서지역은 북한산의 주능선을 따라 종로구,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그리고 도봉구 수유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북동지역에는 牛耳川을 경계로 蘆原區 月溪洞과 인접해 있는 長位洞이 있다.

〈그림 3〉 성북구의 행정구역



番號	區 名	番號	區 名	番號	區 名
1	城北第1洞	11	普門洞	21	月谷第1洞
2	城北第2洞	12	貞陵第1洞	22	月谷第2洞
3	東小門洞	13	貞陵第2洞	23	月谷第3洞
4	三仙第1洞	14	貞陵第3洞	24	月谷第4洞
5	三仙第2洞	15	貞陵第4洞	25	上月谷洞
6	東仙第1洞	16	吉音第1洞	26	長位第1洞
7	東仙第2洞	17	吉音第2洞	27	長位第2洞
8	敦岩第1洞	18	吉音第3洞	28	長位第3洞
9	敦岩第2洞	19	鍾岩第1洞	29	石串第1洞
10	安岩洞	20	鍾岩第2洞	30	石串第2洞

성북구가 가지고 있는 위치적 특성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도심에서 약 5km권내에 있어 도심에서 가까운 안정된 주거지역으로서의 위치이다.

성북구의 면적은 24.29km^{2}로서 서울특별시 전체면적인 605.42km^{2}의 4%에 불과하다.

2. 地 質

1) 서울특별시 부근의 지질

여기에서 서울특별시 부근이란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兩水里에서 京畿道 高陽郡 中面 山鹽에 이르는 한강 하류지역을 의미한다. 본 지역의 지질은 대부분 先캄브리아紀 漣川系의 片岩類와 准片麻岩類에다 中生代 末期의 佛國寺統에 속하는 花崗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岩層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時 代	堆 積 岩 類	火 成 岩 類
第 四 紀	沖積層 不整合	斑岩類 流紋岩類貫入花崗岩
中 生 代	慶尙系 大同系 不整合	
先캄브리아紀	漣川系 准片麻岩類 片岩類	

암층의 분포를 한강을 중심으로 하여 구분하면 한강 이남지역과 한강 이북지역으로 양분되는데, 한강이남지역은 다시 동남부와 서남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한강 이북지역

본 지역의 연천계는 岩相에 따라 편암류와 준편마암류로 구분된다. 이들은 한강 이남지역에까지 동북방향으로 연장된 지층들이다. 본 지역 중앙부에는 편마암이 넓게 분포하고 연천계는 이로 인하여 서부와 남부로 분리되어 분포하고 있다.

편암류는 서부에서는 汶山~金村 부근, 汶山郡 廣灘面, 楊州郡 白石面, 양수리 상류 북한강 연안에 분포되어 있으며 기타 지역에서는 준편마암이 분포되어 있다. 이 지역에서는 중생대 지층으로서는 대동계와 경상계가 국부적으로 분포하고 있

다. 대동계는 연천계 지층을 부정합으로 덮으며 金浦郡 通津 부근에 국한되어 소규모로 분포한다.

경상계 지층은 양수리 부근인 楊州郡 瓦阜面 陵內里에 국한되어 분포한다. 이들 중생대 지층과 화강암과의 층위관계는 이 지역 내에서는 직접 접하는 곳이 없으나 타 지역과의 관계로 보아 화강암이 후기인 것으로 추측된다. 본 지역의 화성암류의 중요한 것은 화강암이고 기타 석영반암, 유문암 등이 다소 있는 정도이다.

이 지역에서의 화강암은 북한산을 중심으로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斜交하며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기타 남서지역에서는 분산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석영반암과 유문암은 부천시 일대에 분포되며 연천계와 화강암을 관입하고 있다.

② 한강 이남지역

㉠ 동남부

이 지역의 암석은 연천계의 편암류와 준편마암이 주를 이룬다. 前者는 結晶片岩類로서 이에는 흑운모편암을 주로 하여 石灰岩·滑石片岩·綠泥石片麻岩·石墨片岩이 협재하고 있다. 본 암층은 한강 지류인 良才川 以西와 남한산성 동측에 있는 斷層 以東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 지역의 서부에서는 흑운모편암이 주요 암석이고 관악산 부근에서는 화강암이 관입되고 있다.

前述한 단층 이동에서는 녹니석편암이 주를 이루며, 이에는 석회암·석묵편암이 협재하고 있다. 縞狀片麻岩은 양재천·廣州·慶安川 西部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眼球狀片麻岩은 중앙에 분포되어 서쪽으로 갈수록 石榴石을 포함하고 있고 塊狀片麻岩은 곳곳에서 편암류를 관통하고 있다. 전자는 正片麻岩인 화강편마암이고 후자는 준편마암이다.

㉡ 서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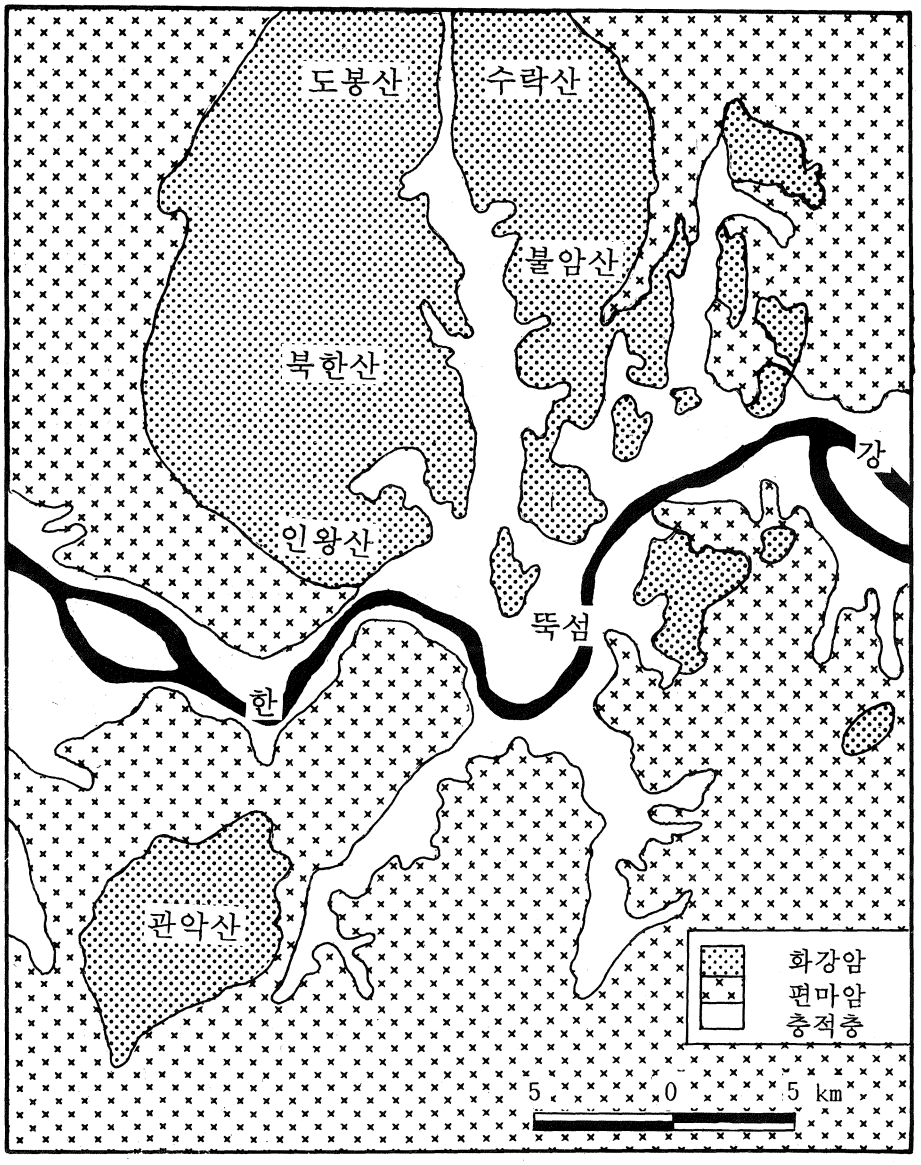
이 지역의 편암류는 炭坪里片岩, 道德山과 라임서리케이트, 安養硅岩層으로 준편마암은 흑운모편마암으로 구분된다. 이것을 동부지구와 비교하면 편암류는 결정편암류이며, 흑운모편마암은 편마암류에 대비된다.

탄평리편암은 주로 흑운모편마암으로 구성되고 도덕산과 라임서리케이트는 간혹 석회암을 협재하고 있으며 시흥 서부 도덕산 부근에 분포되어 있다. 안양규암층은 전술한 암층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으며, 안양 서부에 있어서는 북북동 방향

으로 帶狀分布를 보이고 있다. 흑운모편마암은 안양 남부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안구상편마암 등으로 구성되며 간혹 편암류를 관입한 곳도 있다.

한편, 한강 본류 및 지류 연안의 충적층에는 礫·細砂·粗砂·粘土·실트(silt) 등의 瓦層으로 된 범람원이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약 10m의 두께로 침식된 기반암을 피복하고 있으며 이 퇴적층에는 주위 산지의 화강암·편암·편마

〈그림 4〉 서울특별시 부근의 지질



암 등에서 공급된 圓礫 또는 亞圓礫과 砂礫이 퇴적되어 있다.[1)]

서울특별시내의 기반암은 주로 편마암과 쥐라기의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북지역의 서부에는 주로 호상편마암, 강북지역의 동부에는 대보화강암이 분포하며, 강남지역의 동부는 대체적으로 호상편마암, 서부는 대보화강암 내지 화강암질 편마암과 편암이 널리 분포한다. 강남지역의 지질상태는 강북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복잡하다.

2) 성북구의 지질

성북구의 지질은 주로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화강암은 우리나라 최대의 지각변동이라고 할 수 있는 중생대 쥐라기의 대보조산운동(一名 後大同紀造山運動)에 의해 형성된 대보화강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화강편마암과 호상편마암 등이 국지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지역 즉, 정릉천·중랑천·안암천 등 하천 연안에서는 국지적으로 충적층이 분포하고 있다.

3. 地 形

1) 서울특별시의 지형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되는 한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는 오랜 기간 동안의 침식으로 삭박되어 丘陵化된 廣州山脈 중 일부 지역에 해당된다.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을 경계로 강북과 강남으로 양분되며, 강북에는 北漢山(836.5m)·道峰山(739.5m)·水洛山(637.7m)·佛岩山(507m)·仁旺山(338.2m)·鞍山(295m)·南山(木覓山·232.1m), 강남에는 冠岳山(632m) 등이 광주산맥 중의 花崗岩殘丘로 암석의 절리에 의해 돔(dome) 형태의 圓峰이 형성되어 있다.[2)] 이들 산 및 구릉들은 능선

1)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漢江史, 1985, pp.53~54.
2) 박노식, 「한강하류지형면의 분류와 지형발달에 관한 연구」, 경희대박사 학위논문, 1967, pp.10~11.

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U자형의 개방형 분지를 이루고 있다.[3]

서울의 북서부는 고도 150~250m 내외의 낮은 구릉이 분포하며 한강이 가까운 곳에는 넓은 하천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다. 북동부는 동대문구에서 도봉구를 지나 의정부에 이르는 단층선을 따라 하천이 흐르는데 이는 中浪川으로 흘러 한강으로 유입한다. 남서부나 남동부는 충적지 내지 낮은 구릉지로 거의 평탄하지만 남부의 중앙부에는 관악산·淸溪山(546m) 등 비교적 고도가 높은 산들이 있다. 이러한 산지 사이를 安養川·炭川·良才川 등이 흘러 좁은 충적지를 형성하면서 한강으로 유입한다.[4]

한강은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금대산 북쪽계곡(곰추나무골)에서 발원하는 남한강과 금강산에서 발원한 북한강이 합류하여 서울특별시를 관통하면서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 보구곶리에서 서해로 유입되는 497.5km의 하천이다.[5] 이 길이는 한국에서는 압록강(790km), 낙동강(525.5km), 두만강(521km) 다음가는 것이다. 流域面積은 26,218.9km^{2}로서 압록강(317,739km^2) 다음으로 넓은 유역을 가지는 하천이다. 평균경사는 31/10000이지만 하류에서는 5/10000으로 거의 수평을 이루어 평형하천에 달하고 있다.[6]

한강유역의 山系는 대체로 북북동에서 남남서로 향하여 있으며 해발고도 300~400m의 저산성 구릉지에 속하는 지형이다. 지형의 고도는 서에서 동으로 가면서 점점 높아지고, 1700m 이상에 달하는 곳도 있다. 한강의 유로를 중심으로 보면 下部가 충적층으로 된 내륙부와 해안에 인접한 간석지로 구분된다.

한강의 河系網은 전체적으로 樹枝狀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청평·가평·춘천·평내 등지에서는 일부 直角狀의 형태를 보이는 곳도 있다.[7]

한강의 年平均 流量은 538cm^3/sec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한강, 낙동강(476), 금강(216), 영산강(52) 등 4대강 중에서 가장 많다. 또한 연간 총유출량은 17,000×10^{6}m^{3}이며 이 중에서 64.7%가 홍수시에 유출된다.

3) 장재훈, 「한국의 산간분지에 관한 지형연구」, 성신연구논문집 25집, 성신여대, 1987, pp.137~149.
4) 건설부 국립지리원, 한국지지, 지방편 I, 1984, p.153.
5) 한국하천연구소, 한강 대탐사 결과보고서, 1989, p.33.
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한강사, 1985, pp.28~29.
7) 윤석희, 「한강의 경관 및 기능변화」, 녹우회보, 제28호, 1987, 이화여대 사회생활과, pp.32~34.

이와 같이 한강의 流況이 극히 불안정한 이유는 강수현상이 豪雨性인데다가 식물피복이 적고 거의 화강암지대로 不透水層이기 때문인데, 이러한 현상은 충적지형의 발달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8)]

한강 연안에 인접하고 있는 지형을 보면 兩水里 부근에서 陵內里까지는 漣川系의 변성암인 편암류 지대이며 연안에는 다소의 충적지가 있으나 양수리에서 팔당부근은 동일 계통의 편마암으로 된 산지가 연안까지 임박하여 하도의 峽攻地帶를 형성하고 있고, 창우리에서 광장동 아차산까지는 편암의 구릉지대이며 이 지역은 하천의 곡류가 심한 지역으로 하중도·하적호·자연제방이 교차된 넓은 범람원의 충적평야가 전개되어 있다.

〈표 1〉 한강의 발원지와 길이

문 헌 명	발 원 지	길 이	비 고
世宗實錄地理誌	오대산 금강연	미기재	1973, 문아사
東國輿地勝覽	오대산 우통수	〃	1978, 민족문화추진회
擇理誌	오대산 우통수	〃	盧道陽, 1985, 명지대출판부
國譯星湖僿說	오대산	〃	1978, 민족문화추진회
關東地理誌	오대산 우통수	〃	
江原道誌	오대산 우통수	〃	1941
輿地圖書	오대산 우통수	〃	1973, 국사편찬위
朝鮮八道祕密地誌	오대산 우통수	〃	李重煥, 1974, 성진문화사
국역연려실기술	오대산 우통수	〃	1977, 민족문화추진회
한국지명사전	대덕산 북쪽	514km	손성우, 1977, 경인문화사
한국지명요람	태백시 오대산	469.7km	건설부, 1982, 교학사
한국하천유역도	정선군 북면	469.7km	건설부, 1979
세계백과대사전	대덕산 북쪽	514km	1978, 서문당
세계백과대사전	대덕산	〃	1969, 학원사
학생대백과사전	오대산	〃	1975, 선문출판사
새학습백과사전	대덕산	〃	1976, 국민서관
대세계백과사전	강원 삼척군	〃	1976, 태극출판사
새우리말큰사전	태백산맥 서쪽	〃	1976, 삼성출판사
큰사전	삼척군 하장면	514.4km	한글학회, 1957, 을유문화사
국어대사전	태백산맥 서쪽	514km	남광우 외, 1980, 현문사
국어대사전	대덕산	〃	이희승, 1976, 민중서관

출처 : 한강하천연구소, 한강 대탐사 결과보고서, 1989

8) 오은규, 「한강하류의 충적지형」, 동국지리 제1호, 동국지리학회, 1980, pp.25~26.

아차산에서 서강까지의 지역은 화강암·편암이 주된 암석이고 편마암이 다소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는 암사동 對岸의 워커힐과 뚝섬 부근이며, 서빙고 對岸의 동작동과 서강에는 편암의 고립구릉이 공격사면을 형성하고 있다.

난지도 이하는 편마암의 구릉지대로 한강이북은 편암, 행주산성의 고립구릉 이남은 鐵山(화강암), 高村(편암)의 고립구릉이 역시 공격사면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창우리에서 행주 신평리까지는 하도의 변천이 가장 심한 亂流地域으로 고립구릉의 공격사면과 저평한 평지의 활주사면의 위치관계로 하천의 곡류에 따라서 堂亭·渼沙里·蠶室·汝矣島 등의 하중도는 강남쪽에, 石島·뚝섬·蘭芝島는 강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경기도 양수리에서 합류하여 광주산맥을 횡단하면서 서울특별시 권역으로 들어오면 河谷이 갑자기 넓어지고 그 연안에 넓은 충적지인 범람원을 형성한다.[9] 그리고 한강은 운반물질이 많은 관계로 하상퇴적이 왕성하기 때문에 河道의 중앙에 뚝섬, 中之島, 汝矣島, 蘭芝島 등의 河中島가 형성되어 있으나 인공적인 변형으로 원래의 형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10]

2) 성북구의 지형

서쪽에는 북한산의 南藏臺(715.7m)를 主峰으로 하여 북악터널을 지나 北岳山(342.4m)에 이르는 비교적 험준한 능선으로 모래내(砂川)와 분수령을 이루면서 安岩川과 貞陵川이 區內를 관류한다. 이들 하천들은 침식을 잘 받는 화강암질과 아울러 천정천을 이루어 자주 범람했으나 근년에는 거의 복개되어 도로로 변하였다.

동쪽에는 소위 楸哥嶺構造谷이라고 부르는 저지를 중랑천이 남류하며, 장위동 부근에는 도봉동에서 연속되는 넓은 충적지를 형성하고 있다. 중앙에는 天藏山(141.8m)에서 고려대학교의 뒷산, 즉 開運山(131)에 이르는 구릉이 남아서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들 능선 사이를 정릉천이 개석된 침식곡을 형성하면서 남류한다.[11]

9)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전게서, 1985, p.57.
10) 건설부 국립지리원, 전게서, p.153.
11) 이영택, 한국지명요람, 건설부 국립지리원, 1982, p.40.

성북구는 지형적으로 山地와 低地로 대별할 수 있다. 산지는 주로 區 西部地域에 해당된다. 서부의 산지는 태백산맥 鐵嶺 부근에서 갈라져 남서쪽으로 향하는 廣州山脈의 일부이다. 이 광주산맥이 서울 부근에 달하면 그 높이가 낮아져서 500 m 내외의 잔구성 산지가 된다.

서울의 鎭山이라고 할 수 있는 北漢山(836.5m)은 일명, 三角山·華山이라고도 하며 서울 일대의 최고봉이다. 북한산에서 도봉구 북단의 道峰山(739.5m)까지 사이에는 露積峰(716m), 白雲臺(810.5m), 仁壽峰(604m), 만장봉(739.5m) 등의 암봉이 솟아 있다.

이들 산봉을 이루는 화강암은 중생대 쥐라기의 大寶造山運動에 의해 형성된 대보화강암이다. 이들 암봉은 화강암의 돔(dome)으로 해발 약 400~500m 이상의 고도에서 평균 200~300m 내외의 첨봉을 이루며 솟아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능선과 사면에 토어(tor)라는 특수한 미지형이 발달하고 있다. 토어는 독립된 암괴지형으로서 소위 "흔들바위"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이에 속한다. 북악터널 위 능선에 있는 소위 "해골바위"라 하는 것도 대표적인 토어에 해당되는 것이다. 토어의 규모는 높이 약 5~10m가 가장 일반적이다. 토어를 이루는 블록(block)은 절리 블록(joint block)의 형태를 유지하며 모서리가 둥글게 풍화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下段블록보다는 上段블록이 더 둥글게 풍화되어 있다.[12] 이 밖에 볼 수 있는 미지형으로는 타포니(tafoni)가 있다. 이 지형은 암석의 수직면에 발달하는 구멍으로서 벌집모양의 형태를 갖는 것에서부터 독립된 하나의 구멍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북악산 등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지형이다.[13]

이 일대의 낮은 부분은 개발되어 정릉·성북동 등을 이루지만 높은 부분은 수도권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어 삼림이 보존되어 있다.

북한산에서 남쪽으로 남장대(712m)·북악산·駱山으로 뻗은 산릉은 종로구와 성북구를 갈라 놓는다. 여기에서 성북천과 정릉천이 흘러 내려 성북천 계곡과 정릉계곡을 이루고 있으나 현재는 거의 택지화되어 심산유곡의 옛 풍치는 찾아 볼

12) 권동희, 「서울 근교 화강암 지역에 발달한 tor 현상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13) 김혜자, 「서울 부근의 tafoni현상에 관한 연구」, 상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82.

수 없다. 이 산릉을 정릉에서 횡단하여 북악산 북면을 통하여 북악터널과 성북동에서 횡단하는 삼청터널은 약 200m 높이에서 성북구와 종로구를 연결한다.

이 산릉이 더욱 남쪽으로 내려와 낙산이 되며, 이 낙산과의 사이는 혜화문이 있었던 혜화동 고개를 이룬다. 정릉계곡 동쪽을 남쪽으로 뻗어 내리는 산릉은 미아·길음·고려대학교 뒷산인 개운산(131m)에 이르는 구릉을 만들고 있다. 돈암동에서 정릉천으로 빠지는 아리랑고개와 돈암동에서 길음·미아동으로 통하는 미아리고개는 이 산릉을 넘는 주요한 고개이다. 특히 미아리고개는 경원 가도의 요지에 있어, 옛날에는 되너미 재(狄踰嶺)라고도 불렀으며, 6·25 동란시 격전지가 되었던 곳이다. 이 두 산릉 사이를 흐르는 성북천과 정릉천은 구릉 사이에 저지대를 이루어 먼저 시가지가 되었다. 성북천은 동남류하여 안암천이 되어 신설동을 지나 청계천으로 유입한다. 정릉천도 동남류하다가 하월곡동 부근에서 남쪽으로 돌아 제기천이 되어 청계천에 유입한다. 이들 하천은 복개되어 시가지로 변한 부분도 있다.

장위동·월곡동의 구릉지를 제외하면 중앙부는 낮은 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중앙 저지는 추가령구조곡 남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거의 남북으로 직선상으로 의정부와 연속된다.[14]

4. 土 壤

1) 서울특별시의 토양

서울특별시역내의 토양은 지형특색에 따라 구분할 경우 주로 하천범람지토양, 내륙평탄지토양, 구릉 및 산악곡간지토양, 저구릉곡간지토양, 저구릉지토양, 산록지토양, 구릉지토양, 산악지토양 등 8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천범람지토양은 한강과 그 지류연안에 형성된 토양으로서 이러한 지역은 현재 대부분 주택지화하였다. 내륙평탄지토양은 하천범람지토양과 연속된 경우가 많

14) 박동원, 한국지지-지방편 I, 건설부 국립지리원, pp.295~296.

〈그림 5〉 성북구의 지형



으며 강남지역에 이 토양이 널리 분포한다. 현재는 대부분 택지화하였다. 기타의 토양은 구릉 및 산지, 그리고 산록에 형성된 토양으로서, 주택지화한 곳도 많으나 아직 자연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서울특별시내에 형성된 대토양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충적토 : 한강연변과 한강의 소지류연변에 형성된 토양으로서 토층의 발달은 약하고 토성이 砂壤質 내지 微砂壤質 또는 埴壤質이다. 이들 토양의 비옥도는 보통 내지 약간 높은 편이며 약한 산성 내지 중성을 나타내고, 염기치환용량은 보통이며 염기포화도는 높은 편이다. 이 토양은 현재 대부분 주택지화 하였지만 아직 주택지화 하지 않은 변두리 지역에서는 대부분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나. 적황색토 : 이 토양은 서울 주변의 산록에 부분적으로 분포하며 토양배수는 양호하고 토성은 식질 내지 식양질이다. 표토는 적갈색·적황색·황적색을 띠며 입상구조를 갖는다. 이 토양의 대부분은 밭으로 이용되거나 택지화하였지만 임야나 초지로 남아 있는 곳도 있다.

다. 퇴적토 : 이 토양은 붕적 및 충적작용이 복합되어 이루어졌으며 서울 주변의 산록에 좁은 규모로 형성되어 있다. 토양배수는 양호하며 토성은 사양질 내지 식양질이다. 이 토양의 반은 약산성 내지 강산성이고, 염기포화도 및 염기치환용량은 보통 내지 약간 높다. 이 토양의 비옥도는 비교적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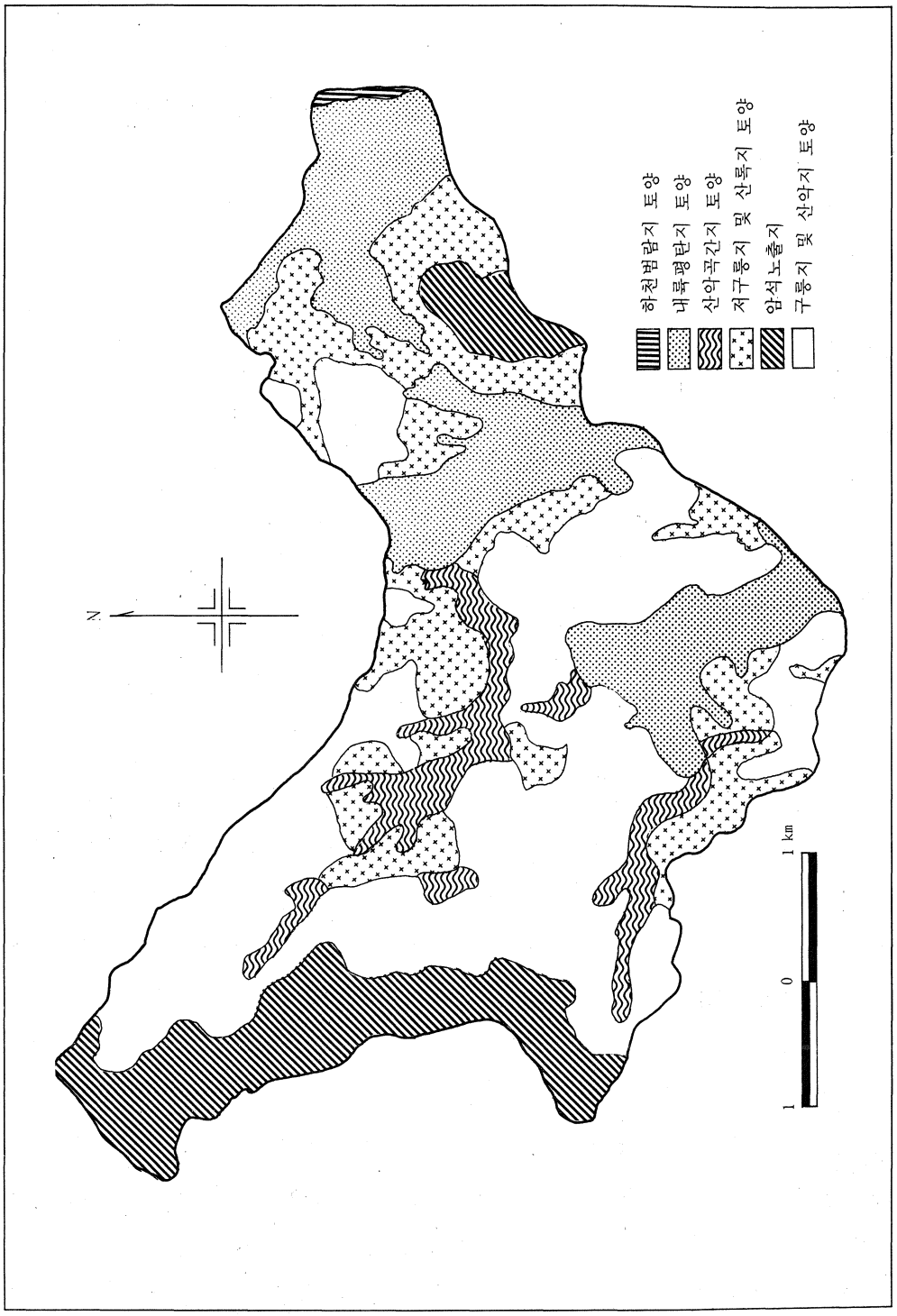
라. 암쇄토 : 이 토양은 서울 주변의 구릉이나 산악지에 생성되어 있으며 토양배수는 매우 양호하고 토성은 사양질 내지 식양질이다. 토층의 발달은 미약하고 토층의 두께도 매우 얇다. 이 토양의 비옥도 및 유기물 함량은 낮고, 토양반응은 약산성 내지 강산성이며 염기포화도 및 염기치환용량은 모두 낮다. 이 토양의 대부분은 임야지이다.

2) 성북구의 토양

성북구의 토양은 주로 河川氾濫地土壤과 內陸平垣地土壤 그리고 山岳谷間地土壤·低丘陸地 및 山麓地土壤·丘陵地 및 山岳地土壤 등으로 구분된다.

하천범람지토양은 本 區 동부지역에 해당되는 석관 제1동의 중랑천 부근에 국지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 토양은 범람지 및 충적토로서 배수는 약간 양호 내

〈그림 6〉 성북구의 토양분포



지 매우 양호하며, 砂質 내지 砂壤質의 토성을 가지고 있다.

내륙평탄지의 토양은 장위 제 2·3동과 석관 제1동 그리고 종암 제2동, 월곡 제1·3·4동, 안암동, 동선 제1·2동, 돈암 제1동 등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 토양은 회색토 및 충적토로서 배수 정도는 약간 불량하며 微砂埴壤質 내지 埴質의 토성을 가지고 있다.

산악곡간지토양은 충적토 및 회색토로서 배수가 약간 양호 내지 약간 불량하며 자갈이 있는 사양질의 토양과 퇴적토로서 배수가 약간 양호 내지 양호하며 사양질 내지 식질의 토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前者의 토양은 성북 제1동과 동소문동, 삼선 제2동, 돈암 제2동, 길음 제1·2·3동, 정릉 제1·2·3·4동 등에 국지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後者의 토양은 성북 제2동과 정릉 제3·4동에 분포하지만 그 비율은 극히 낮은 상태이다.

저구릉지 및 산록지토양은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각각의 토성을 가지며 분포하고 있다. 즉 장위 제2·3동과 안암동, 길음 제2동, 정릉 제1·4동, 성북 제1동 등에서 적황색토 및 암쇄토가 분포하고 있다. 이 토양은 저구릉지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산성암이 풍화된 결과 형성되었으며, 배수는 양호하고 식양질 내지 사양질의 토성을 가지고 있다. 장위 제1·2동과 월곡 제2동, 종암 제1동, 길음 제2·3동, 정릉 제1·2동, 삼선 제1동 등 비교적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하는 토양은 암쇄토로서 저구릉지에 나타난다. 산성암이 풍화되어 형성된 토양으로 배수는 매우 양호하다. 식양질 내지 사질의 토성을 가지며 침식토에 해당된다. 반면에 장위 제1·2·3동과 석관 제2동, 월곡 제2동, 안암동, 종암 제2동, 길음 제2동, 보문동 지역에서는 회색토 및 충적토로서 저구릉지 谷間에서 형성된 토양이 분포하고 있다. 이 토양의 배수상태는 불량하거나 약간 양호하며, 식양질 내지 식질의 토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월곡 제3·4동과 장위 제1동, 돈암 제1·2동, 길음 제1·2·3동, 안암동, 삼선 제1·2동, 보문동, 정릉 제1·2·3·4동 등 구내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고르게 분포하는 토양은 구릉에서 발달하고 있는 토양으로 암쇄토이다. 이 토양 또한 산성암에서 비롯된 것으로 배수는 매우 양호한 상태이며 사양질 내지 식양질의 토성을 가지고 있다. 산악지에 분포하고 암쇄토로서 배수가 매우 양호한 상태이며

사양질 내지 식양질의 토성을 가지는 토양은 주로 구 서부지역에 해당되는 성북 제1·2동과 정릉 제2·3·4동 그리고 동소문동, 동선 제2동, 돈암 제2동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종로구와 북악산 능선을 따라 경계를 이루는 정릉 제3·4동, 성북 제2동에는 암석노출지가 분포하기도 한다.

5. 氣 候

1) 서울특별시의 기후

서울특별시는 한반도의 중앙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기후에 있어서도 중간적인 점이기후를 이룬다. 즉, 제주도와 남해안이 난대성기후, 개마고원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방이 냉대의 한랭한 기후를 이루는데 대하여, 서울은 그 중간적인 성격의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은 지형적으로 겨울철의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동위도의 타지역에 비하여 기온의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를 이루며, 특히 겨울 기온은 동위도의 동해안보다 2~3℃나 낮은 기온을 이룬다. 그러므로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지배를 받는 盛夏에는 열대기후에 못지않은 고온이 나타나고, 한랭건조한 시베리아기단의 지배를 받는 한겨울에는 한대기후에 못지않은 저온이 나타나는 점은 한반도 기후의 그것과 동일하다. 강수량에 있어서도 장마철이 나타나 장마전선의 북상에 따라 우계가 형성되고, 때에 따라서는 태풍의 영향도 받아 수해를 입기도 한다.

서울은 조선 세종이래 세계적으로 드문 기상관측기록 특히 강수량의 정량적인 관측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근대기상관측도 1907년 이래 시작되어, 서울의 기후자료는 역사시대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후를 연구하는데 대표적인 자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기후는 세계의 다른 대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 1000만명 이상의 대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특유한 도시기후가 나타나 열섬(heat island)을 비롯

하여, 도시바람의 구조에 있어 배후지역(background area)의 기후와는 다른 도시기후가 형성되고 있다.

도시의 기후가 주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도시는 도로가 포장되어 있고 많은 주택과 고층빌딩들로 빽빽히 들어차 있다. 그래서 검은 색깔의 아스팔트는 말할 것도 없고 어두운 색깔의 콘크리트 건물의 벽과 지붕이 많은 양의 태양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밤에 방출한다. 도심의 기온이 밤늦도록 떨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때문이다.

도심의 열섬현상은 사람에서 나오는 열기 뿐만 아니라 주택·자동차·쓰레기 소각장·공장 등에서 내뿜는 人工熱도 문제가 된다. 주위에 강과 호수·산이 없는 평야에 건설된 도심의 열섬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물은 태양에너지를 반사하고 증발하면서 주위의 열기를 뽑아가며 산의 나무는 태양에너지를 흡수함으로서 탄소동화작용에 사용한다. 따라서 강과 호수·산이 없으면 태양에너지는 도심에 그만큼 많은 양의 열기를 남겨 놓게 된다.

도심의 열섬현상은 도시의 규모와 특징·지리적인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기후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인구 1백만 이상의 도시에서 도심과 교외는 여름에 0.5~3.0℃, 겨울에 1.0~3.0℃ 정도의 온도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도심과 교외의 온도차는 시간과 요일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시간으로는 상오 6시쯤이 가장 뚜렷한데 심한 경우 10℃의 온도차를 나타내기도 한다. 요일은 토요일과 일요일 같은 휴일에 기온차가 작고 주중에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의 경우 상오 6시 도심과 교외의 최대온도차는 2~6℃에 이른다는 것이 기상청의 조사 결과이다. 열섬현상이 가장 뚜렷한 곳은 종로와 서울역 그리고 영등포역 일대로 나타났다. 고온현상은 큰 길을 따라서도 나타나 0.9~1.1℃의 차를 나타냈다.

한편, 열섬현상은 도시의 규모와 비례해서 커지게 된다. 일본의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의 경우 도시가 팽창해짐에 따라 지난 1백년 동안 1℃의 온도상승이 있었다. 이에 반해, 서울은 1908년부터 1931년까지 연평균기온이 10.9℃였으나 1931~1960년에 11.1℃를 거쳐 1961~1990년에 11.8℃를 기록하여 꾸준한 기온상승

을 보이고 있다. 지난 82년 동안 0.9℃의 상승을 나타낸 셈이다. 이러한 기온상승은 서울 뿐 아니라 대구·울산·인천·광주 등 대도시 및 공업도시에서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포항·부산·목포·여수 등 해안도시에서는 비교적 낮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울릉도는 0.1℃로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도시의 기온은 이밖에도 바람과 대기의 오염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대체로 풍속이 초속 4m 이상이면 열섬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 중의 탄산가스 양이 증가하면 그만큼 온실효과에 의해 온도가 상승하고 대기 중의 부유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태양에너지를 차단하여 온도상승을 가로막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대기 중의 부유물질은 강수량을 늘리며, 갑작스런 소나기와 우박·천둥과 번개를 일으키기도 한다.[15]

서울의 도시기후적 변화경향을 기후요소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온적 측면을 살펴보면, 연평균기온, 일최고기온, 일최저기온의 평균치가 상승경향을 계속 나타내고 있으며, 그 상승률은 일최저기온의 경우가 가장 크며 일최고기온의 그것은 작다.

도시기온외에도 도시의 일사량, 일조시간, 습도, 강수량 등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사량은 도시내의 대기오염물질 등의 증가와 함께 1965년 이래 수평면 직달일사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aerosol 입자의 증가는 안개·도시구름의 발생을 증가시켜 이로 인한 일사량감소 또한 가중되고 있다. 도시내부에서는 일사량감소 뿐만 아니라 일조시간도 감소되어, 최근 15년간의 일조시간과 일조율이 특히 서울과 부산에서 가장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 최근 5~10년간에는 1931~1960년 평균치보다 일조시간의 경우는 10.0~18.2%, 일조율의 경우는 11.1~18.2%나 감소하고 있다.

도시기온의 상승과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나 하천의 복개 등의 나지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지표로부터의 수분공급을 차단함은 물론 강수량의 우수유실을 촉진하므로 도시습도의 감소를 증신시킨다. 서울의 경우 1950년대~1970년대 사이 약 2.6%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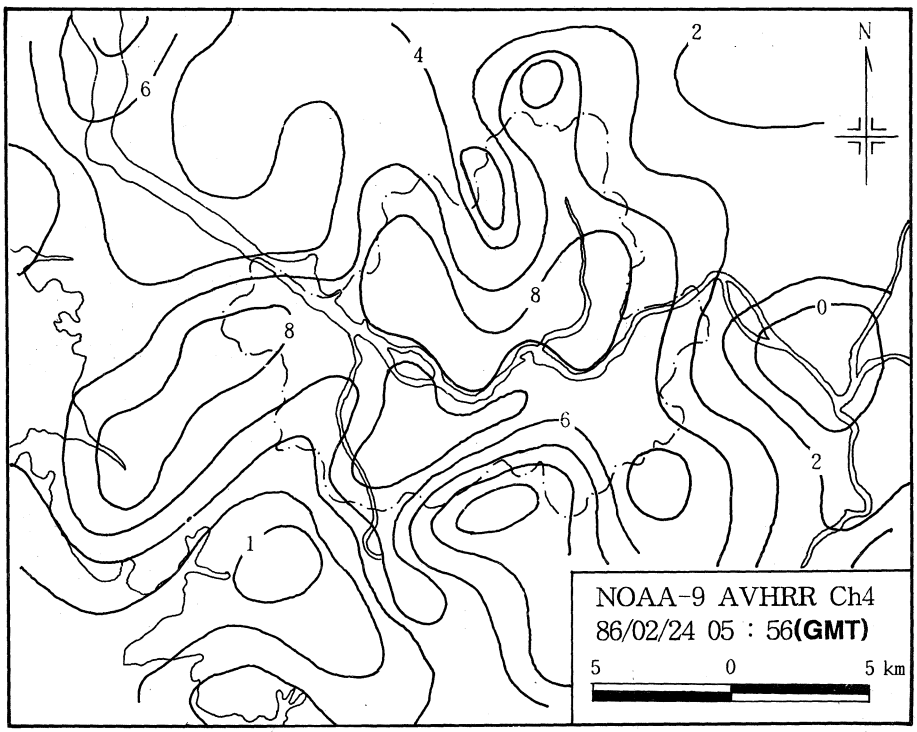
15) 韓國日報, 1991年 8月 23日字.

도시지역에서는 강수현상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여 도시에 따라서는 비가 여름철에는 자주 오는 반면 겨울철에는 강설빈도가 줄어드는 경향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지역에 있어서 최근 15년간의 평균강수량이 평균치보다 7.1%~11.8%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기타 지역의 강수량의 증가율(2.0%~6.6%)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2) 성북구의 기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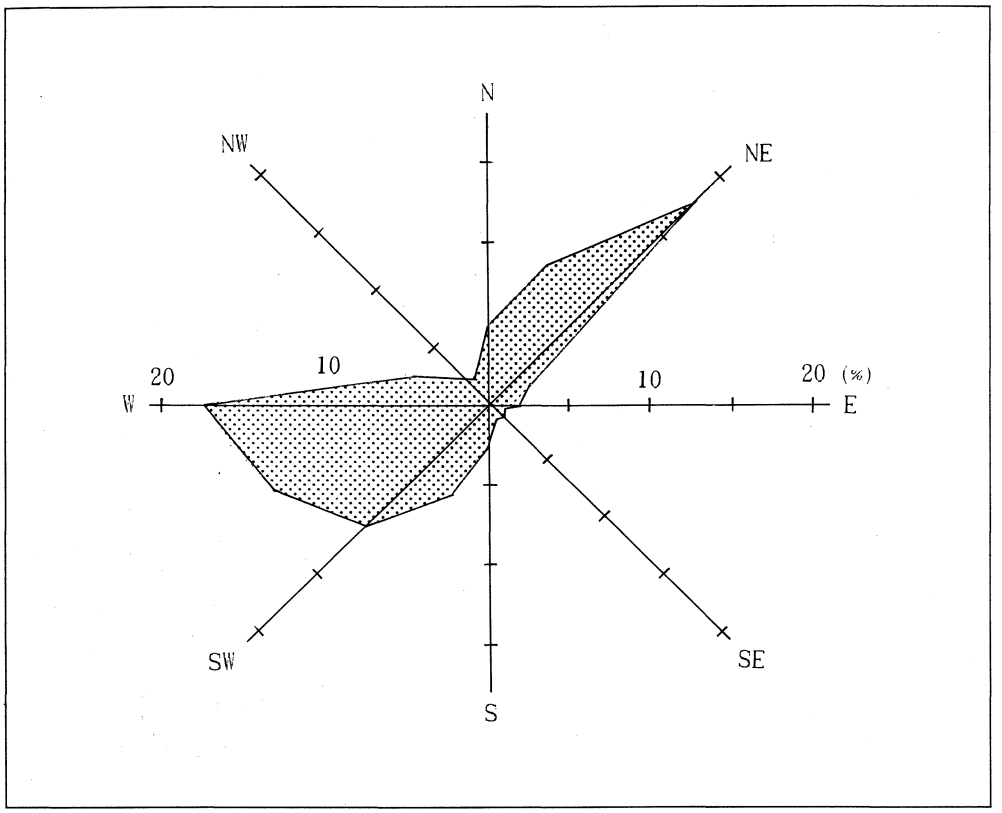
성북구의 기후는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서울특별시의 기후적 특색과 크게 다른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즉, 냉대와 온대의 점이적 기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강수량에 있어서도 서울특별시의 연평균강수량과 큰 차이가 없다.

〈그림 7〉 서울특별시 부근의 지표면 온도 분포



그러나 미기후적 측면 즉, 서울특별시 전체의 도시기후로 볼 때, 성북구는 도시 교외적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여름철 맑은 날 도심 最高溫地와 기온차를 비교할 때 성북구내에서 비교적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길음 제1동은 0.6～1.2℃, 돈암 제

〈그림 8〉 서울특별시의 바람배치



〈표 2〉 맑은날 도심 최고온지와의 기온차

시각	새벽			오후		
위치 / 연월일	1982. 6. 9	1982. 7. 18	1982. 8. 11	1982. 6. 9	1982. 7. 18	1982. 8. 11
도봉 1동	2.7	1.7	2.3	2.3	1.6	1.2
방학 1동	2.9	1.5	1.8	2.2	1.4	0.8
수유 3동	1.7	1.1	1.1	1.3	1.2	0.0
미아 3동	1.4	1.3	1.5	0.7	0.2	0.0
길음 1동	1.2	0.9	0.9	1.1	1.2	0.6
돈암 1동	1.1	0.6	0.6	0.7	0.2	0.0

1동은 0～1.1℃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16]

돈암 제1동이 도심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은 교통량이 많고 지하철역이나 인구의 유동량이 많은 관계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근의 도봉구와 비교해 보면 성북구는 도심과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교통량이 많으며 인구밀도가 높은 관계로 도심과의 기온차가 작게 나타난다. 즉 도봉 1동은 1.2～2.7℃, 방학 1동은 0.8～2.9℃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도심과의 기온차를 유발하는 원인은 이미 기술하였으며 이 원인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대기의 오염도가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성북동이나 정릉동의 고지대는 성북구 중 가장 좋은 기후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金 周 煥〉

16) 박혜숙, 「서울 하계기온의 도시기후학적 연구－간선도로에 따른 관측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第 2 章　城北區의 발자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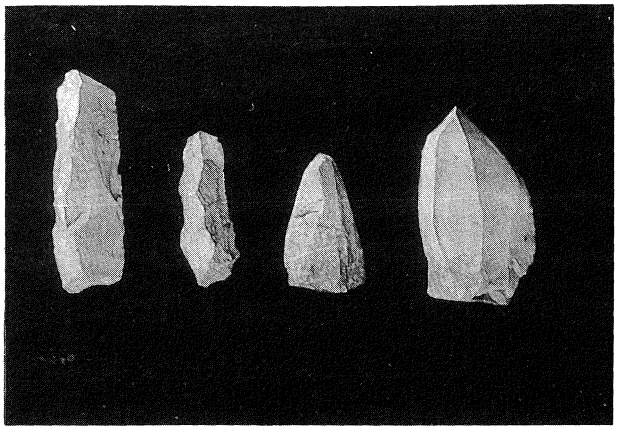
Ⅰ. 甲午改革 以前

1. 先史文化와 城北地域

城北地域 일대에 우리 조상들이 정착하여 문화생활을 시작한 것은 歷史時代 이전으로 생각된다.

즉, 성북지역은 北漢山 줄기가 서남방으로 뻗어 龍岩峰·柴丹峰을 지나 大東門과 普國門 어간에서 갈라진 칼바위능선을 동쪽으로 하고, 이어 北漢山城의 능선을 따라 普賢峰에서 兄弟峰을 잇는 능선을 따라 북악터널 위를 가로질러 北岳山 鷹峰에서 都城을 따라 내려오는 山勢를 북쪽으로 하여, 그 사이 계곡을 흘러 淸溪川·中浪川에 이어 漢江으로 들어가는 貞陵川·安岩川·牛耳川을 끼고 그 산록의 동남방에 자리잡고 있다. 이렇게 背山臨水의 천연의 생활터전을 바탕으로 先史文化 이래 오늘날까지 주거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북구지역은 넓은 의미에서 漢江流域의 서울지역의 일부라는 지리적 여건을 가지며 漢江邊 先史文化圈에 포함되는 일반 생활문화권이라는 개연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성북구지역 일대에서 舊石器·新石器·青銅器의 文化遺跡이 발굴되지는 않았지만 江東區 岩寺洞 先史住居址, 城東區 鷹峰遺跡, 松坡區 可樂遺跡, 江南區 驛三遺跡 등 한강변 선사문화유적을 통하여 보다 넓은 한강유역문화권에 城北區地域을 포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즉, 성북구지역의 先史時代 이래 古代의 역사적 발자취는 성북구지역의 독자적인 범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한강변 서울유적이라는 보다 넓은 자연지리적 여건속에서 전개된 동질의


돌날몸돌과 배모양 석기(후기 구석기시대)

문화를 공통으로 영위한 일반적인 생활터전을 바탕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人類는 대개 地質學的인 시대로 볼 때 新生代 3期末에 출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고고학적으로 발굴하여 알 수 있는 가장 오랜 舊石器遺物은 그보다 훨씬 후인 신생대 4기 洪積世 기간의 인류활동의 결과로 남은 것이다. 따라서 인류사에 있어서는 약 200만년 전에 시작된 홍적세를 흔히 구석기시대와 동일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들은 홍적세를 지나 冲積世에 살고 있으며, 충적세의 시작은 대개 지금부터 약 1만년 전쯤으로 보고있다.

이러한 홍적세·충적세 시기에 전개된 구석기·신석기시대의 주민들은 혈연공동체인 씨족사회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주로 漁撈·狩獵 및 자연물 採集에 의한 經濟生活을 영위하였으며, 신석기시대 후기에 이르러 定着農耕生活을 시작하면서 牧畜生活과 食糧生産經濟를 이룩하였다. 이러한 식량채집단계에서 식량생산단계로의 발전을 新石器革命이라 부르고 있는데 이는 生産力 증가를 통해 인류생활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강변의 신석기인의 주거지는 움집·동굴주거·부석주거 등이 있었으며, 난방과 요리를 위한 화덕자리와 계단시설을 갖춘 출입문, 그리고 주거지 외곽에 貯藏孔을 만들어 비축식량을 보관하였다. 아울러 짐승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였으며, 식포기술의 개발로 직물을 이용한 衣類生活을 하였다.

한편 靑銅器遺跡은 대개 구릉지대나 산의 경사면에 위치하였으며, 農耕生活을 주업으로 하였다. 청동기인들은 주위의 하천과 깊은 관련을 가지며 生活用水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잡곡농경과 후기에 들어 벼농사를 시작하였다.

벼농사의 시작은 청동기문화의 대표적인 경제생활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生産力의 증가와 人口의 증가를 바탕으로 새로운0사회발전을 이룩하는 轉期를 마

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農耕의 발전과 金屬器의 사용은 原始共産體社會의 평등사회를 탈피하여 私有財産制에 따른 재산상의 貧富 차이와 지배·피지배의 階級關係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富와 權力을 가진 지배계층이 등장함으로써 政治組織이 형성되고 나아가 君長社會·古代国家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2. 統一新羅 以前의 城北地域

목축과 농경을 통한 생산력의 증가는 인구증가와 더불어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分業을 발생케 하였으며, 이것은 社會組織과 政治組織을 이루는 변화토대가 되었다. 즉, 氏族社會의 族長勢力을 점차 剩餘生産物을 독점하고 金屬器文明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향유함으로써 支配階級으로 정착하였으며, 下部族員들은 생산담당자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社會分化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회분야는 씨족사회를 벗어나 部族社會 내지 部族聯盟體社會로 발전하였는데, 사회 내부적으로는 일정한 身分體制를 구축하여 이 체제를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統治組織을 이룩하였으며 외부의 다른 사회·통치조직과 경쟁·대립하여 생존키 위한 공동체로서의 政治組織을 형성케 하였다. 즉, 軍隊·法律·監獄·租稅·官僚組織·政治理念 등을 내용으로 하는 国家體의 등장이 이루어졌다.

우리 역사에서 城北區地域을 포함한 漢江流域을 무대로 최초의 정치세력이 등장한 것은 辰國과 馬韓 그리고 初期 百濟이었다.

한강유역의 政治勢力의 존재는 이 지방에 支石墓가 발달한 것과 때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석묘의 존재는 族長權 즉, 君長의 정치세력이 그만큼 컸던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지석묘 건립을 위한 노동력의 동원체제를 구축했던 정치조직의 실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滿洲地方에 古朝鮮·扶餘·高句麗가 국가체제의 정치조직으로 발전하고 있을 때 한강유역 이남에서도 일찍이 문화적 통일성을 가진 정치세력이 성장하고 있었다. 즉, 辰國의 존재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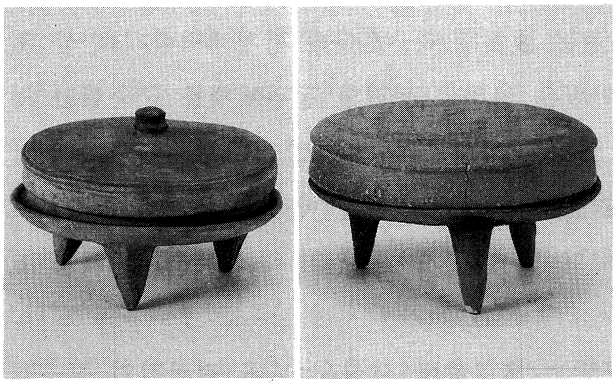
기원 전 2세기 후반의 기록에 辰國은 漢나라에 서신을 보내 직접적인 通交를 하고자 하였으나 衛氏朝鮮의 방해로 저지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辰國을 포

함한 한강이남 사회에는 기원 전 2세기 초 衛滿에게 쫓겨 海路로 南下한 準王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들을 통해 金屬文化가 일반화되어 갔다. 또 衛氏朝鮮의 멸망 후 漢郡縣의 설치로 古朝鮮 지방으로부터 수많은 流移民集團이 쉬지않고 辰國社會로 유입되었다.

따라서 이들 유이민들을 통해 발달된 鐵器文化의 혜택을 받은 辰國社會는 더욱 분화 발전하여 한강유역 이남지역에 馬韓·辰韓·弁韓의 三韓聯盟體가 등장하였다. 그 가운데 오늘날의 京畿·忠清·全羅地域을 중심으로 馬韓이 형성되었다. 馬韓은 54개 城邑國家의 연맹체로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큰 나라는 1萬餘家, 작은 나라는 数千家로 총 10萬戶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 가운데 한 나라인 目支國을 辰王이 다스렸으며, 여러 국가에는 각각 長帥가 있어 다스렸는데 큰 것은 臣智, 다음은 邑借라 하였다. 그런데 目支國의 辰王은 三韓세력을 대표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상징적인 존재로 주로 宗教行事나 戰爭 때의 통솔자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辰王은 스스로 古代國家의 王으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이후 三韓社會는 2세경에 들어 北方流移民의 흡수에 따라 유력한 정치세력이 등장하는데 馬韓의 目支國을 비롯하여 伯濟國, 辰韓의 斯盧國, 弁韓의 狗耶國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城北區地域과 후에 관련되는 伯濟國은 馬韓 54개국의 하나로 북방유이민들이 현 서울지방인 한강유역에 자리잡은 君長社會였다.

여기서 백제국의 세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辰王이 맹주가 되었던 馬韓聯盟體는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화되었고 종국에는 백제국이 마한을 정복하고 초기 고대국가인 百濟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초기 정치세력의 성장과정 속에서 성북구지역은 辰國·馬韓의 伯濟·고대국가 百濟의 영역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백제 5~6세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세발 토기

百濟가 漢江流域을 중심으로 古代國家로 성장 발전함으로써 城北區 일대는 백제세력권에 편

입되었다. 백제의 고대국가로의 성장은 한강변의 지리적 여건과 鐵器農耕文化에 의한 생산력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회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政治主體集團이 성립됨으로써 가능하다.

三國史記 百濟本紀 溫祚王紀에 따르면 기원 전 1세기경 앞선 유이민들의 南下를 뒤이어 夫餘系 高句麗流移民 집단이 황해도지방을 거쳐 漢江流域에 정착하고 있다. 이는 크게 沸流系와 溫祚系로 나타나는데 百濟建國說話에서 보는 바대로 비류집단은 彌鄒忽(인천지방)에 온조집단은 현재 서울지방인 慰禮城에 정착하고 있다.

이들은 한강유역의 경제성을 이용하여 보다 많은 생산활동과 인구의 증가에 따라 보다 큰 정치집단을 형성하였다. 아우인 온조집단에 의해 형인 비류집단이 통합되고 국호가 十濟에서 百濟로 고쳐졌으며 그 통치범위가 서해안까지 확장되었다. 그리고 域北區地域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北部의 解婁集團과 眞氏集團, 그리고 東部의 屹于集團 등은 독자적인 세력권은 가지면서 온조집단에 편제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한강유역의 여러 유이민집단들은 초기에 각기 연맹체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 연맹체들은 온조집단을 중심으로 통일된 국가체로 발전하였다.[1)]

한편 百濟의 도읍지를 말할 때 慰禮城이라 칭하여 河北慰禮城과 河南慰禮城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城北區地域과 관련하여 北漢山東麓의 河北慰禮城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三國史記의 백제 건국설화를 통해 백제 시조의 계보와 그들의 정착지 즉, 都邑地와 그곳의 지리적 형세를 살펴볼 수 있다.

高句麗의 시조 朱蒙은 東夫餘에 있을 때 瑠璃를 낳고 卒本扶餘로 남하한다. 이곳에서 다시 沸流와 溫祚를 낳았는데 뒷날 유리가 졸본부여로 남하하여 주몽의 태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비류와 온조는 10臣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浿水(예성강)와 帶水(임진강)을 건너 남하하여 漢江(서울)에 이르고 이곳에서 慰禮城에 도읍하게 된다.

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 1978, pp.168~169.

그러나 10여년 뒤에는 형인 沸流가 미추홀로 분파되어 가고 溫祚는 河南慰禮城으로 도읍을 옮기고 있다. 즉 기원 전 18년 河北의 위례성에서 河南의 위례성으로 천도하고 그곳에 정착하여 百濟國을 건국하고 있다.

이와 같이 溫祚集團이 첫 근거지로 한 慰禮城은 한강 북쪽에 있었으며, 10여년 후에 河南으로 도읍을 옮기니 河北·河南慰禮城의 존재가 등장된 것이다. 그럼 河北慰禮城의 위치에 대해 三角山東麓說과 관련지어 그곳이 城北區·道峰區地域에 비정되기에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學說的인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2)]

河北慰禮城은 비류·온조집단이 처음 정착한 곳이다. 그러나 위례성이 도읍지로서의 명칭인지 城邑國家로서의 國號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慰禮'라는 명칭이 城柵에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위례'는 방언에 사방을 둘러친 것을 '圍哩'라고 하는데 '위례'와 '위리'는 그 말소리가 비슷하며, 또 나무로 울타리를 하고 흙을 쌓아 匡郭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慰禮'라고 한 것으로 풀이하였다. 또, 위례성이 성책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초기의 도읍지인 위례성은 '慰禮國' 또는 '慰禮城'으로서 성읍국가를 지칭한 일반명사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河北의 慰禮는 夫餘氏 남하이래 오랫동안 기초를 다져오던 곳으로, 이를 중심으로 一國을 개창하게 되었으므로 당시의 국호를 慰禮라 하였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河北慰禮城의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종래에 慰禮城이 忠淸南道 稷山에 있다는 稷山說과 漢江北岸說, 그리고 河南慰禮城의 廣州說 등이 있어 왔다. 또 漢江以北說은 다시 三角山東麓說과 洗劍亭一帶說이 제기되어 있다.

朝鮮時代의 官撰 地理志들은 위례성을 忠淸道 稷山縣이라 하였다. 즉, 東國輿地勝覽에 보면 그 위치는 직산현 聖居山 북쪽 5里쯤에 있고, 土築으로 된 城이라 하고 있다. 직산현의 郡名이 본래 위례성이며 온조가 남하하여 이곳에 도읍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직산설의 始源을 보면 三國遺事 王曆 溫祚王條에 '…都慰禮城 一云蛇川 今稷山'이라 한 것이 가장 오랜 기록인데, 이와 같은 高麗時代 이

2)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제1권, 1977, pp.84~92.

래의 인식이 조선시대까지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朝鮮後期에 들어 申景濬·柳馨遠 등 實學者들에 의해 稷山說이 비판·부인되었다. 특히 茶山 丁若鏞은 백제의 첫 도읍지인 慰禮城은 稷山이 아니라 漢江北岸임을 명쾌하게 논증하였다. 즉, 그 절대위치는 惠化門 밖 10里 지점인 三角山東麓의 漢陽洞이 그곳이라 하고, 그 증거로 옛성의 흔적이 있으며, 또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곳을 가리켜 漢陽古縣이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당시의 城이란 다만 나무울타리를 하고(樹柵) 흙을 쌓았기(築土) 때문에 흔적은 있지만 돌은 없다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혜화문 밖 10리 지점이 곧 성북구·도봉구 일대로 비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러한 丁若鏞의 견해는 조선말기 古山子 金正浩의 大東地志에 이어져 위례성이 한강 이북에 존재한다는 것을 논증함으로써 한강 이북설은 정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丁若鏞·金正浩의 三角山東麓說은 근년에 이르러 그 견해를 달리하여 백제초기의 위례성은 洗劍洞一帶로 비정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아뭏든 많은 異說로 분명한 위치가 정립되지 않았지만 한강북안이나 삼각산동록·세검동일대 등 모두 오늘날의 서울 江北地域이었던 점은 틀림이 없다고 하겠다.

한편 최근에 이르러 河南慰禮城에 대해서도 여러 說이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慰禮城의 位置比定과 初期 遷都過程

比定者	河北慰禮城	河南慰禮城	遷都過程
丁若鏞	三角山東麓	慶州古邑	河北慰禮城－河南慰禮城－漢城
李丙燾	洗劍洞溪谷一帶	春宮里一帶	河北慰禮城－河南慰禮城(漢城)
金廷鶴		風納里土城	河南慰禮城－漢城
尹武炳		二聖山城	
李基白		夢村土城	
千寬宇	江北서울	廣州古邑	河北慰禮城－河南慰禮城(漢城)
成周鐸		夢村土城	河北慰禮城－河南慰禮城－漢山－河南慰禮城(漢城)
車勇杰	中浪川一帶	夢村～二聖山사이	河北慰禮城－河南慰禮城(漢城)－漢山－江南慰禮城
金龍國	三角山東麓	春宮里一帶	
金元龍		夢村土城이 主城	
崔夢龍	中浪川一帶	夢村土城	河北慰禮城－河南慰禮城－漢山－漢城
權五榮			

※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民族文化大百科辭典 16, 1990.

한편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정치제제를 구축하고 그 세력을 성장시켜 나간 百濟는 가장 먼저 馬韓과의 관계를 맺었다. 백제의 온조집단이 처음 남하하였을 때 마한이 한강유역 100리의 땅을 이들에게 할애해 줌으로써 백제가 정착할 수 있었다. 따라서 溫祚王은 사냥한 神鹿을 마한에 보내고, 또 포로가 된 靺鞨의 추장을 마한에 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百濟初期에 馬韓에 대해 朝貢關係를 맺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백제세력이 팽창되면서 상대적으로 마한은 쇠퇴하였으며, 마침내 百濟는 마한 중심세력을 악화시키고 영토의 확장을 가져왔으며, 溫祚王 때에는 이미 북으로 浿河(예성강), 남으로 熊川(안성천 혹은 금강), 서는 大海(서해), 동은 走壤(춘천) 지방에 이르는 영역을 통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역의 확보와 더불어 이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고자 王都 이외 지역에 東·西·南·北의 四部가 설치되어 지방통치체제를 구축하였다.[3]

이와 같은 馬韓의 공멸과 행정구역의 편제 등 급속한 정치공작에 대하여 마한의 잔존세력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고 百濟는 한반도 서남부의 최대세력으로 성장하여 古代 통일국가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아울러 4部體制를 설정하고 國內 民戶를 분정하여 稻田作을 장려하는 등 확대된 영토를 배경으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단계적으로 이룩하였다.

한편 百濟初期 4部 편제속에서 河北慰禮城의 위치가 어떠했는가는 자세치 않지만, 百濟가 475년 公州로 천도하기 이전까지 하북위례성이 보수되고 있고, 또 漢江 북쪽의 주요 거점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1部의 한 중심성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比流王 24년(327) 內臣佐平 優福이 北漢城을 거점으로 모반을 하는데 이는 한강이북의 한 중심성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북위례성이 百濟의 兩京制 조직처럼 인식하는 견해도 있다.[4] 이렇게 볼 때 하북의 慰禮城은 초기의 도읍지였으며, 또 그 만큼의 비중이 있었던 것으로 兩京制의 가능성이 전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4部體制의 중심성의 하나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온조왕 17년(B.C 2) 위례성은 樂浪의 침입으로 불태워졌고, 온조왕 41년(23)

3) 南北部 설치는 온조왕 13년, 東部는 온조왕 33년에 이루어졌다.
4) 金正浩. 大東地志 漢城府條.

에 漢水 東北部 제부락의 15세 이상 民戶들을 징발하여 修營하고 있다. 즉, 위례성이 한강 북쪽의 중심성이었음을 방증하고 있다. 한편 蓋婁王 5년(132)에는 北漢山城을 축성하고 있다.

여기서 北漢山城을 慰禮城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5] 그런데 위례성은 平地(구릉 포함)에 이루어진 성이라 하면 북한산성은 명실공히 山城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兩城은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같은 2원적인 城의 확보는 平時에는 平地城에, 戰時에는 山城에 入保하는 시대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北漢山城이 축조된 이후로는 北漢城이란 명칭이 보이게 되며(比流王 24년 : 327), 江南의 도읍지는 漢城으로 불리고 있다. 어쨌든 慰禮城이란 '樹柵築土'한 平地城으로 따로이 保障之地로서의 山城인 北漢山城의 축조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責稽王 원년(286) 하북위례성을 高句麗의 침입에 대비하여 수축하고 있는 데, 이는 북한산성과 밀착되어 있어 民戶의 안정을 도모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百濟는 漢郡縣의 세력인 樂浪과 처음에는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先進文化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전쟁을 치루는 적대관계에 들어갔으며 이에 따라 백제는 한강이남으로 도읍을 옮겼으며, 낙랑과 통하는 길을 봉쇄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볼 때 城北區 지역의 위치는 한강 이북에서 백제세력이 낙랑지역으로의 진출과 방어의 길목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百濟가 中央集權的 통치체제를 정비한 것은 대체로 3세기 중엽 제8대 古爾王(234~286) 때이다. 즉, 고이왕 27년(260) 6佐平과 16官等制를 마련하고 公服制度를 정비하였다.[6] 이듬해 왕이 南堂에서 정사를 보았으며, 律令을 반포하고 官吏로서 재물을 받거나 도적질 한 자는 3배의 배상을 물리게 하는 동시에 종신토록 금고에 처하였다. 이러한 통치체제의 정비는 온조왕이래 진행되어온 왕권의 강화와 중앙집권을 위한 제도적 조치였던 것이다.

이렇게 국가체제를 정비한 백제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4세기 초 낙랑·대방을 계속 공략하면서 크게 팽창하였으며, 比流王 34년(337)에는 新羅에서 사신이

5) 李丙燾,「慰禮考」. 學術院論文集 제3집, 1974.
6)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 第2 古爾王 27年條.

파견되자 수교를 하기도 하였다. 이어 漢城에 도읍한 백제는 4세기 중엽 近肖古王(346~375) 때에 이르러 전성시대를 이루었다. 근초고왕은 남으로 馬韓 여러나라를 쳐서 369년경에는 전라도 남해안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가야국에도 압력을 가했으며, 북으로는 옛 대방땅에 진출하여 고구려군대를 격파하였으며, 371년에는 太子와 함께 고구려 평양성을 점령하고 故國原王을 전사케 하여 남진하는 고구려세력을 저지하고 대방군 대부분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百濟는 한반도의 서반부인 경기·충청·전라의 전부와 낙동강중류역·강원·황해도 일부를 차지하는 領域國家로 발전하였다. 아울러 372년에는 東晉에 사신을 보내 중국대륙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倭와도 통하여 국제적 지위를 확고히 하였다.

또, 백제는 西海의 해상권을 장악하여 중국 遼西地方에 진출하여 상업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전략적 가치를 지닌 해안식민지와 같은 성격을 지닌 遼西·晉平郡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7] 그리고 일본지역에는 이미 한반도에서 일본열도에 진출했던 고구려계·백제계·가야계 등 이주민이 건설한 식민국가가 있어 백제의 고대해상세력이 용이하게 倭 지역에 진출할 수 있었다. 이로써 백제는 중국과 왜를 연결하는 국제무대의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高句麗는 4세기 후반 백제의 평양성 공격으로 왕이 전사를 당하는 시련을 맞이하여, 대외적인 팽창을 지양하고 대내적인 체제정비와 국력신장을 꾀하였다.

小獸林王은 372년 佛敎文化를 수용하고, 太學을 세워 귀족자제를 교육하였으며, 373년에는 律令을 반포하여 중앙집권적 귀족국가로서의 통치질서를 새롭게 하였다. 이러한 국력신장을 배경으로 391년 이후 廣開土王·長壽王 때를 거쳐 南下政策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니, 백제의 도읍지였던 城北區 지역을 포함한 서울지역은 兩國의 각축장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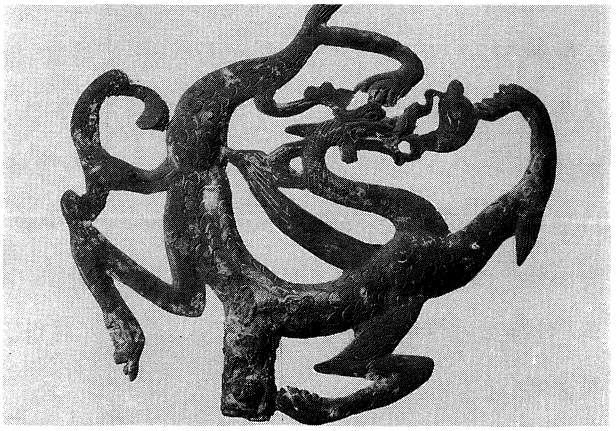
광개토왕 이전 375년~390년 사이에 고구려가 백제를 침공한 것이 4회, 백제가 고구려를 침공한 것이 3회였다. 이러한 양국의 공방전에 이어 광개토왕의 백제침공은 그 즉위년부터 시작되었다. 광개토왕 원년(391) 왕이 직접 4만군을 이끌고

7) 金庠基,「百濟의 遼西經略에 대하여」, 白山學報 3, 1967.

백제의 石峴城 등 10여성을 공격하여 한강 이북의 여러 부락을 함락시켰으며 關彌城(강화 교동)을 공략하였다.

한편 '廣開土王碑文'을 보면 永樂 6년(396) 王은 水軍을 이끌고 海路를 통하여 관미성과 彌鄒城(인천)을 장악하고, 阿旦城(성동구 아차산성)·大山韓城(한성 혹은 북한산성) 등 58城과 그 주위 700村을 공략하여 漢江北岸을 점령하였다. 이때 백제 阿莘王이 항복하지 않고 항전하자 광개토왕은 阿利水(한강)를 건너 精兵으로 백제의 도읍인 漢城을 육박하니 아신왕은 세력이 궁하여 남녀 1千口와 細布 1천필을 바치고 항복하였다. 이에 광개토왕은 백제의 王弟와 大臣 10인을 인질로 하여 돌아왔다. 이후 백제의 아신왕은 고구려에 설욕하고자 397년 太子 腆支를 倭에 보내어 화의를 맺고, 399년 任那加羅·倭와 연합하여 고구려에 대항하는 등 군사를 일으켰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광개토왕의 백제정벌은 故國原王의 전사에 대한 설욕으로 보복의 의미가 컸던 것이며, 漢城을 포함한 한강유역에 대한 지배권은 여전히 百濟에 있었다.

그후 高句麗는 長壽王(413~492)이 즉위하여 427년 도읍을 國內城에서 平壤城으로 옮기고 본격적인 南進政策을 추진하여 영토확장과 지배권의 팽창을 꾀하였다. 이에 百濟는 毘有王 7년(433) 新羅에 사신을 보내어 화의를 청하고 羅濟同盟을 맺어 고구려의 남진에 대응하였다. 그러나 장수왕은 475년 군사 3만명으로 漢城을 공략하여 백제의 蓋鹵王을 살해하였다. 이로써 百濟는 漢江流域을 고구려에게 내주고 熊津으로 천도하기에 이르렀다. 향후 77년간 城北區 지역을 포함한 서울지방은 고구려의 통치하에 들게 되었는데, 때로는 백제의 반격으로 그 영향력이 미치기도 하는 접경지역이 되기도 하였다. 이때 高句麗는 서울지방을 중심으로 北漢山郡을 설치하고 北漢城에 南平壤이라는 別都를



힘찬 율동미를 보이는 고구려의 장신구

두었다.[8]

그리고 新羅는 6세기초 智證王·法興王代에 이르러 古代國家體制를 완성하고, 眞興王 때에 이르러 征服國家로 발전하였으며 漢江流域으로의 진출이 시작되었다.

이때 百濟 聖王(523~553)이 고구려에 빼앗긴 한강유역 옛 영토를 회복하고자 함에 따라 진흥왕은 성왕과 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그리하여 550년 경 백제 성왕은 道薩城(천안)을 공취하고, 金峴城(진천)에서 혈전을 벌였으며, 551년에는 신라와 함께 북진하여 漢江流域의 6郡을 점령 수복하였다. 이때 新羅는 南漢江을 따라 내려오면서 竹嶺 이북 高峴(鐵嶺) 이남의 한강 상류지역 10郡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9] 따라서 城北區 지역을 포함한 서울지역은 百濟의 영역이 되는 듯하였으나, 新羅가 그 2년 후인 553년 고구려부터 수복한 백제의 한강유역을 기습공격하여 한강유역을 독점함으로써 이 지역의 새로운 패자가 되었다.

이러한 眞興王의 한강유역 진출은 北漢山의 碑峰에 세워졌던 眞興王巡狩碑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어 진흥왕은 한강유역에 軍事體制의 행정구획인 新州를 설치하고 州治는 廣州에 두었다. 따라서 이후 서울지방의 한강유역은 新羅의 삼국통일의 전진기지가 되었다. 즉, 신라는 한강유역을 장악함으로써 人的·物的 자원의 비약적 증가가 있었고, 백제·고구려에 대한 효과적 제압을 위해 지리적 잇점을 확보하였으며, 南陽灣의 黨項城을 문호로 하여 적극적인 對中國外交를 펼칠 수 있게 되었다.

眞興王은 그 16년(555) 北漢山을 순행하고 돌아온 2년 후 서울지방을 포함한 한강유역의 넓은 지역을 관할하기 위하여 우선 國原城(충주)을 小京으로 하는 한편 新州를 폐지하고 지금의 한강 이북 서울지방에 北漢山州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약 11년 뒤인 진흥왕 29년에는 다시 북한산주를 폐지하고 훨씬 남쪽으로 후퇴하여 南川州(이천)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북한산주 설치에 따른 한강유역에 편중된 軍民의 이동으로 백제나 가야의 군사행동에 대한 배후 안정을 위한 후퇴와 고구려의 침공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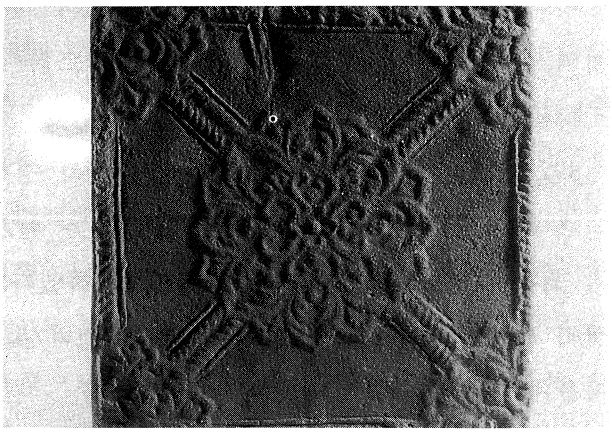
8)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漢江史, 1985, pp.316~322.
9) 三國史記 卷 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12年條.

즉, 603년 고구려 장군 溫達이 한강유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차산성을 공격하였으며, 이때 眞平王은 군사 1만명을 거느리고 고구려 군사를 물리쳤는데 고구려의 침공은 그후에도 계속되었다. 이 무렵 신라의 서북국경은 임진강을 사이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북한산주는 신라 서북지방의 행정·군사의 중심지가 되어 성북구 지역을 포함한 서울지방을 관할하였다.

이어 7세기에 들어 삼국간의 공방전은 더욱 치열하였는데, 고구려는 백제와 동맹하여 한강유역 회복을 꾀하였으며, 백제는 주로 신라의 서쪽 국경을 공격하였다. 이러한 전쟁상황 속에서 新羅는 文武王 2년(662) 北漢山州 지방에 南川州를 다시 설치하고, 664년 북한산주를 漢山州로 개칭하였으며 治所를 廣州에 두었다.

이러한 한강유역을 둘러싼 삼국간의 공방전은 660년 百濟가, 668년 高句麗가 羅唐聯合軍에게 멸망되고, 676년 신라가 唐을 축출함으로써 한반도에는 新羅의 통일국가가 출현하였다.

신라는 새로이 갖게된 옛 백제 땅과 고구려 영토의 일부를 포함하여 神文王 5년(685)에 새로운 지방행정조직을 편성하였는데, 신라 본토에 3州 백제 옛땅에 3州 고구려 옛땅에 3州 등 전국을 9州로 나누고 5小京을 설치하였다. 이때 성북구 지역을 포함한 서울지방은 漢山州에 편입되었다. 한산주는 그 州治인 廣州를 중심으로 경기도·충청북도·황해도에 걸치는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였다. 그후 景德王 16년(757)에 漢山州를 漢州로 개칭하였고, 지금의 서울지방에는 漢陽郡을 설치하여 太守와 小守의 지방장관을 두었다. 그리고 漢陽郡의 領縣으로 荒壤(豊壤 : 楊州)과 遇王縣(幸州)을 두었으니 이때 성북구지역을 포함한 서울·양주군·고양군 일대가 漢陽郡에 속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울지방의 별칭인 漢陽이란 이름이 바로 신라의 漢陽郡에서 유



통일신라기의 보상화 무늬 바닥벽돌

래되었음을 볼 수 있다.[10]

이와 같이 백제의 도읍지였던 오늘날 서울지방인 北漢山城과 漢城 일대는 고구려가 점령했을 때는 南別都로서 주요 군사기지였으며, 新羅가 차지하면서는 對高句麗 전쟁의 요충이 되었다. 그러나 신라의 영역이 大同江流域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漢陽郡은 변방적 성격을 벗어났으며, 宣德王 3년(782) 신라 서북방면인 황해도 일대에 浿江鎭이라는 막강한 군사기지가 설치됨에 따라 漢陽郡은 이제 명실공히 군사기지에서 民事行政 지역으로 편제되었다. 그리하여 漢陽郡은 景德王 16년 이후 신라 하대까지 漢州의 관할구역으로 지속되었으며, 高麗 太祖 23년 楊州로 개칭되기까지 그 軍號와 治所는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漢陽郡에서는 新羅 下代에 金凡文이 반란을 일으켜 서울지방에 도읍을 정하려고 北漢山城을 치다가 패하여 잡혀 죽은 사건이 있었다. 이전에 憲德王代 熊津都督이었던 金憲昌이 일찍이 그의 부친인 金周元이 왕위계승에 유력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822년 熊州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國號를 長安, 年號를 慶雲이라 하여 한때 충청·경기 일대를 장악하는 기세를 떨쳤으나 곧 진압되고 官軍에게 패멸하였다. 이에 김헌창의 아들 凡文은 憲德王 17년(825) 高達山(여주)의 賊 壽神 등 100여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지금의 서울지방에 도읍을 정하려고 北漢山城을 치다가 都督 聰明에게 敗死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金憲昌父子의 반란은 新羅下代의 지방세력 출현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며, 특히 9세기 말기 眞聖女王 때에 이르러 정국은 더욱 혼란에 빠져 급기야 後三國時代를 맞게 된다.

892년 甄萱이 完山에 웅거하여 後百濟라 칭하였고, 北原·溟州를 거쳐 鐵圓 등 인근 70여 郡縣을 공략한 弓裔는 浿西地方 勢力의 항복과 896년 開城의 王建父子가 귀부해옴으로써 그 세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898년 궁예의 휘하인 王建이 楊州와 見州地域을 공략하고 浿西道와 漢州 관할 30餘城을 장악하니 지금의 서울지역은 弓裔의 세력권에 들게 되었다.

---

10) 註 2) p.106.

이어 901년 弓裔는 王을 칭하고 국호를 高麗라 하였다가 摩震·泰封 등으로 고쳤다. 그러다가 918년 궁예가 추방되고 王建이 국왕에 추대되어 高麗王朝를 개창함에 따라 漢陽郡은 고려에 편입되었으며, 太祖 23년(940) 전국의 행정구역을 재편성하고 郡縣號를 개칭함에 따라 漢陽郡은 楊州로, 漢州는 廣州로 개편되었다.

3. 高麗時代의 城北地域

高麗時代에 城北地域을 포함한 서울지방은 대체로 靖宗(1035~1046) 때까지는 楊州, 文宗 이후 忠烈王(1275~1308) 때까지는 南京, 忠宣王 이후 高麗末까지는 漢陽府로 불리웠다.

고려 건국 초 楊州로 불리웠던 서울지방은 成宗 2년(983)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楊州牧으로 승격되었다. 당시 각 지방은 대부분 地方豪族들에 의해 통치되었는데 楊州地方은 뚜렷한 豪族이 나타나지 않고 王建의 공략에 의해 점령된 지역으로 왕권의 직할지 성격을 띄었다 하겠다. 그런 인근 廣州는 太祖를 섬겨 高麗王朝의 창업을 도운 王規의 세력판도였다. 왕규는 廣州를 기반으로 한 豪族出身으로 지위가 大匡에까지 이른 사람으로 자기의 두 딸을 太祖의 妃로 들이고 또 한 딸은 惠宗의 妃로 들여 그의 外孫으로 왕위를 계승케 하기 위한 책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또 始興地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衿州姜氏를 중심으로 한 豪族勢力이 존재하였다. 姜邯贊은 5代祖 이래 시흥(서울 봉천동 낙성대)에 살면서 그의 아버지 弓珍이 고려 건국 초기 太祖를 도와 三韓壁上功臣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姜邯贊家는 신라 말 고려 초에 시흥을 중심으로 호족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강 이북의 서울지역인 楊州地方에는 당시 어떤 호족세력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양주는 898년 王建이 弓裔 휘하에서 점령한 지역으로 泰封의 직할지가 되었다가 高麗에 계승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935년 後百濟王 甄萱이 고려에 항복해 오자 왕건이 견훤에게 楊州를 食邑으로 준 것으로 보아[11] 당시 양주지방에 웅

11) 高麗史 卷 1 太祖 18年 3月條.

거하고 있던 토착적인 호족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고려 건국 초에 王權强化와 豪族勢力의 中央官僚로의 편제 및 중앙집권정책에 따라 地方制度가 정비되어 갔다. 즉, 光宗 때의 각종 제도의 정비는 호족세력을 누르고 왕권중심의 통치체제를 구축했으며, 이를 배경으로 成宗 때에 이르러 지방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成宗 2년(983) 2월에 처음으로 지방에 12牧을 설치하고 地方官을 파견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 12牧은 楊州를 비롯하여 廣州·忠州·淸州·公州·尙州·晉州·羅州·全州·昇州·海州·黃州였다. 이렇게 고려 초 단순히 楊州로 불리우던 城北區 지역을 포함한 서울지방은 최고의 지방행정단위의 하나인 楊州牧이 되어 중앙정부로부터 常駐官인 牧使가 파견되었으며 戶長 이하 여러 鄕職을 지휘 감독하게 되었다. 이어 成宗 6년에는 楊州牧에 經學博士·醫學博士 각 1명이 보내져 地方敎育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어 成宗 14년(995) 州府郡縣의 칭호를 고치고 전국을 10道로 나누었으며, 12牧에 節度使를 두었다. 절도사를 둔 것은 종래의 民事行政 성격의 지방제도에서 軍事行政的인 성격으로 전환된 것으로[12] 12州의 牧을 폐지하여 軍으로 개편하였다. 이때 楊州는 左神策軍이 되어 右神策軍 海州와 더불어 開京의 左右二輔가 되었다. 그리고 楊州는 廣州·黃州·海州 등과 함께 關內道에 속하였다.

이어 穆宗 8년(1005) 3월에 觀察使·都團練使·團練使·刺使 등 外官을 모두 도태시키고, 다만 12節度·4都護·東西北界 防禦鎭使·縣令·鎭將 만을 남기었다. 즉, 기존의 100여 고을의 地方官이 거의 도태되어 民事的 성격이 위축되고 軍事的 성격을 띤 지방관제만 남게 되었다.

그러니 顯宗 때에 이르러 地方制度의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된다. 顯宗 3년(1012) 楊州를 비롯하여 廣州·忠州·晉州·吉州·黃州 등에 節度使를 대신하여 按撫使가 설치되었다. 이어 顯宗 9년(1018)에 안무사를 폐지하고 전국을 4都護·8牧·56知州郡事·28鎭將·20縣令을 설치하여 民事行政 중심의 고려시대 지방관제의 기

12) 成宗 14년 전후한 시기는 안으로 중앙집권적 이상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펴나가고, 밖으로는 契丹軍의 침입을 방비하고 故土回復을 꾀하던 시기였다.

부틀을 마련하였다. 한편 이러한 개편에 따라 按撫使의 지위에 있던 楊州는 牧으로 환원되지 못하고 楊州知事 즉, 知州事로 격하되었다. 그리고 顯宗 이후 5道兩界의 지방편제 속에 城北區地域을 포괄하고 있던 楊州는 楊廣道의 관내에 들게되었다.

이어 楊州는 文宗 21년(1067) 일약 南京으로 승격되어 高麗 三京制의 하나로 운영되었다. 南京의 官制로 留守 이하 副留守·判官(少尹)·司錄參軍事·掌書記·法曹·醫師·文師 등을 두고 1068년 궁궐을 창건하여 南京의 면모를 갖추었다.[13]

南京의 설치는 군사·정치·경제적인 중요성의 대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國家基業의 연장을 위한 地理圖讖思想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14] 그런데 이때 설치된 南京의 규모나 위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며 단지 東國文獻備考에 '文宗이 창건한 南京의 新官이 肅宗 때 이루어진 宮地와 같은 것'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대략 지금의 景福宮 부근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문종 때 설치된 南京은 그 개창 이후 이렇다 할 吉應이 없게 되자 그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머지않아 楊州로 환원된 것으로 보이는데, 개창 이후 9년째 되는 문종 30년 이후의 일로 추정된다. 그리고 문종 23년(1069) 京畿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新京畿가 만들어지자 城北區地域을 포함한 南京地方은 楊廣道·交州道·西海道의 일부와 함께 新京畿地域에 편입되기도 하였다.


고려청자

이렇게 南京에서 楊州로 환원된 서울지방은 肅宗 때에 이르러 다시 南京으로 승격하여 3京의 하나로 면모를 갖추었다. 숙종 때 南京으로의 재승격은 地理圖讖說과 더불어 肅宗의 즉위과정에서 있었던 불합리한 왕위계승과 政

13) 高麗史 卷 77 百官志 2 南京留守官條.
14) 李丙燾, 高麗時代의 硏究, 1980년 개정판, pp.146~151.

敵 숙청 등에 의한 심리적 갈등이 정치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숙종은 나이어린 조카 獻宗으로부터 禪讓의 형식을 빌기는 했으나 찬탈이나 다름없이 왕위를 물려받았던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肅宗은 權臣들을 살해하고 어린조카들을 귀양보내고 있다. 이어 숙종이 즉위한 이듬해 3·4월에 開京 부근에 때아닌 서리와 우박이 내리는 천재지변이 있게 되자 인심이 크게 동요되었고 中書省에서는 이번 天災가 지난번의 政變과 살육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하여 형벌을 삼가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때 陰陽術의 대가인 衛尉丞同正 金謂磾는 〈道詵記〉〈道詵踏山歌〉〈三角山名堂記〉〈神誌秘詞〉 등 地理圖讖書를 인용하여 南京設置를 건의하였다.[15] 즉, 남경을 설치하면 四海에서 朝貢해 올 것이며, 地勢가 明堂이니 태평성대를 누릴 것이며 國家社稷이 홍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정 신하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南京建都는 일단 보류되었다. 그러다가 숙종 4년에 가뭄·장마·우박 등 天災地變이 유난히 많이 일어나자 숙종은 移都할 것을 결심하여, 이해 9월 정식으로 南京建都를 논의하게 되었다. 숙종은 왕비·왕자·군신·승려들을 이끌고 三角山 僧伽窟을 거쳐 楊州地方을 行幸하여 도읍지로서의 지형을 살폈다. 이어 숙종 6년 9월에 南京開創都監이라는 임시기구를 설치하고 崔思諏를 相地官으로 하여 尹瓘·文象·陰德全과 함께 楊州로 가서 도읍에 마땅한 지역을 살피게 하였다. 이들 相地官 일행은 10월에 돌아와 南京候補地로 지금 서울 동대문 밖의 蘆原驛, 도봉산 아래의 海村方面, 漢江 연안의 龍山方面, 面岳 남쪽인 지금의 景福宮 부근 등을 돌아보고 그중 面岳 남쪽의 지금 서울지방이 적당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오늘날 城北區에서 分區된 道峰區地域이 이때 南京의 후보지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肅宗은 명을 내려 肅宗 6년 10월 宗廟·社稷·山川에 南京建都를 고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때의 궁궐위치는 景福宮 神武門 밖의 오늘날 청와대 자리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규모는 경복궁 크기보다 훨씬 적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로부터 2년 8개월간에 걸친 大役事 끝에 숙종 9년 5월에 낙성을 보게 되었으며

15) 高麗史 卷 122 列傳 35 金謂磾傳.

延興殿에서 百官의 朝賀를 받았다. 당시 南京地域은 東西로는 大峰 즉, 오늘날의 駱山으로부터 岐峰 즉 鞍山에 이르고 있으며, 南北으로는 沙里 즉, 龍山 한강변으로부터 北岳山에 이르는 지역이었다. 따라서 城北區地域은 南京의 동북쪽 인근지역이었으며 당시 남경의 크기는 지금의 서울도심지역을 합한 것 만큼의 큰 규모였다. 그리고 南京은 留守府 직할로 3郡·6縣의 속현과 領縣管轄地로 1府·2州郡·1縣이 있어[16] 오늘날 경기도 서북부 절반을 관할구역으로 하였다.

이렇게 숙종 때 재건된 南京은 文宗 때와는 달리 이후 忠烈王 말기까지 약 2세기간에 걸쳐 지속되었다. 숙종 이후 고려왕조는 女眞의 북방침입과 金의 건국에 따른 압력, 李資謙의 亂과 妙淸의 亂, 武人政權의 성립, 蒙古의 침입과 江華遷都 등 많은 정치·사회적 변동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地理圖讖思想에 의한 吉凶禍福에 의지하려는 사회풍조를 지속시켰다. 숙종의 뒤를 이은 睿宗은 음양설·지리도참설의 혹신으로 南京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예종 3년 이후 네차례에 걸쳐 親幸을 하였다. 또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을 겪은 仁宗은 이러한 변란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지리도참설로써 구제받으려 하여 南京에 行幸하였다. 그러나 同王 6년 2월 南京의 궁궐이 화재를 입게 되자 왕의 南京行幸은 중지되었다. 그후 南京의 궁궐이 언제 복구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毅宗 4년(1150)과 同 21년에 왕이 南京에 行幸하였던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복구된 것으로 보인다.

武人政權 성립 이후 왕의 南京行幸의 기록이 보이지 않다가 高宗 21년(1234) 7월에 왕이 內侍 李白全을 보내어 御衣를 南京 假闕에 안치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이때 한 승려가 도참설을 인용하여 옛 양주 땅에 궁궐을 짓고 왕이 이곳에 거처하면 국운이 800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말을 따른 것이다. 이때 高宗은 江都에 피난하고 있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던 까닭에 御衣로서 대신한 것이다. 그리고 南京의 假闕은 正宮에 대한 難宮 또는 別宮의 뜻으로 지금의 昌慶宮 부근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高宗 22년에는 太祖의 神位를 開京 壽昌宮으로부터 이곳에 옮겨 안치하는 한편 어의안치를 3기로 나누어 南京宮闕과 開京 康安殿에 안치하도록 하였다.

16) 註 13)과 同.

그후 忠烈王 34년(1308) 즉위한 忠宣王은 중앙과 지방의 관제를 개편하면서 南京을 漢陽府로 개편함과 동시에 府尹·判官·司錄의 官制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漢陽府는 交河郡과 見州·抱州·幸州·峰城縣·高峰縣·深嶽縣·豊壤縣·沙川縣 등 3屬郡·6屬縣 만을 관할하게 되어 종래 南京의 관할구역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다. 즉, 이때부터 漢陽府는 高陽·楊州·抱川 등 현재 한강이북 서울지방과 그 주변일대를 관할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漢陽府는 다른 府와 마찬가지로 王의 巡駐와 御衣安置 등은 사라지고 開京과 가깝기 때문에 국왕의 遊幸과 사냥터가 되고 말았다.

그후 恭愍王 때에 이르러 다시 漢陽府가 南京으로 환원되고 또다시 漢陽府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지리도참설에 따른 國基延長思想에 따라 漢陽遷都計劃이 논의되고 南京宮闕의 중수가 단행되기도 하였다. 이어 禑王 때는 遷都論이 더욱 고조되어 우왕 7년(1381) 9월 드디어 漢陽遷都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천도는 變異를 피하기 위한 임시 천도였던 것으로 6개월만에 다시 開京으로 돌아왔으며 개경에서 항구적인 천도계획을 구상하였다. 이러한 漢陽遷都論은 恭讓王 때에 와서 한층 더 고조되어 儒臣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양왕 2년(1390) 9월 漢陽遷都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한양천도는 開京의 地德을 쉬게 하고 變異를 피하기 위한 천도였으나 천도한지 며칠만에 虎患이 생기고, 그해 11월에는 金宗衍·趙裕 등이 李成桂를 도모하려는 사건이 일어나 왕위보존이 어려워지는 등 극히 불안한 정세에 휩싸였다. 그리하여 開京遷都가 논의되고 결국 6개월만에 다시 開京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한편 恭讓王 2년 京畿를 左道·右道로 分定하였는데 漢陽은 京畿左道에 편입되어 科田과 功臣田 등의 반급지역이 되었다. 이후 서울지방은 朝鮮王朝가 개창되어 首都로서 漢城府가 되기까지는 漢陽府로 존속되었다.

그리고 城北地域에는 高麗時代의 南京의 榮華를 말해주는 듯 普門寺·彌陀寺·慶國寺 등 고려시대로부터 전승된 유명사찰이 건재하고 있다.

慶國寺는 정릉3동에 위치해 있는데 애초 忠肅王 12년(1325)에 律師 淨慈가 창건하여 靑巖寺라 하였던 사찰로 1330년경에 無奇가 머물면서 天台宗의 교풍을 크게

떨쳤으며, 1331년에 居士 蔡洪哲이 禪房을 증축하여 禪僧들의 수도를 적극 후원하였다. 1352년 금강산 法起道場을 참배하고 남하한 印度僧 指空이 住錫한 뒤로 고승대덕의 수도처이자 호국안민을 위한 기도도량으로써 전승되었다.[17]

그리고 보문동 3가에 위치한 普門寺는 睿宗 10년(1115)에 國師 曇眞이 비구니의 수련장으로 창건하여 전승된 사찰로 창건 당시 조그만 암자로 탑골에 있었으므로 탑골승방이라 하였다. 그런데 보문사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탑골승방의 역사를 말하는 女僧房으로 彌陀寺가 있다. 이 사찰은 光宗 원년(950)에 惠居國師가 처음 창건하였으며, 文宗 원년(1047)에는 石塔을 조성하여 탑골승방이라고 불리어졌다. 다시 忠肅王 원년(1314)에 彗鑑國師에 의해 중건되어 전승되고 있다.[18] 그런데 탑골승방은 1927년 獨鵑 崔象德이 중편소설 「僧房悲曲」[19]을 이곳에서 집필하여 그 연고성을 더욱 깊게 하였다.

한편 高麗時代 驛站制度에 따라 開城에서 楊州를 교통하는 靑郊道에 蘆原驛이 있어, 오늘날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迎曙驛·淸波驛이 상호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城北區地域은 蘆原驛과 연결되는 교통로 역할을 하였다. 고려시대 驛站制는 매우 발달하여 전국에 걸쳐 驛傳系統이 펼쳐 있었다. 역참은 政令과 公報의 전달, 변경의 중요한 군사정보, 사신 왕래에 따른 迎送과 접대, 지방파견 관원의 遞送과 물자수송 등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역참은 군사·


미타사(탑골승방)

17) 權相老, 全國寺刹全書 上, 東國大學校出版部, 1979.

18)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洞名沿革改(Ⅷ) 城北區篇, 1983, pp112~113.

19) 핵심내용은 東京 음악학교 졸업 여학생과 스님 동경불교대학 학생인 두 주인공의 애틋한 사랑을 그리면서 여학생의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뒤 어머니가 자살하여 유서로 이들은 서로 남매간임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남매간의 비극적인 출생과 사회적 고통 및 사랑을 표현하였다.

외교면에서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중앙집권국가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역참에는 驛田·驛丁·驛馬를 두었으며 교통량과 군사·경제적 중요성에 따라 大·中·小路의 3등급으로 구별하여 토지지급의 차등을 두었으며, 이로써 역참의 경비와 客館의 식료공급 등의 재원을 삼게 하였다.

이러한 驛站의 계통으로 고려시대에는 驛路의 幹線이 22個道였으며 驛의 수는 525개의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20] 이중 城北區地域을 지나는 靑郊道에 蘆原驛 등 15개역이 계통지어 있었다. 즉, 靑郊(개성), 通波(통진), 馬山(봉성), 碧池(고봉), 迎曙(남경), 平里(덕수), 橡林, 丹棗(적성), 淸波(남경), 蘆原(남경), 幸州驛, 從繩(수안), 金輪(수주), 重林(인주), 綠楊(견주) 등이다. 그리고 靑郊道는 春州道·平丘道로 이어져 오늘날 서울의 동북·동남방으로 연결되었다.

4. 朝鮮時代의 城北地域

朝鮮時代에 들어 漢陽遷都가 실현되자 城北地域은 수도 漢城府의 城底十里 지역으로 편제되었다. 약 18km의 都城이 수축됨과 더불어 4大門 가운데 하나인 肅淸門(후에 肅靖門) 즉, 北大門이 건립됨으로써 도성의 북쪽지역이라는 지리적 위치에서 그 지명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城北區地域은 서울 漢城府의 定都와 都城修築 및 肅淸門·惠化門(東小門) 등의 건립과 더불어 일련의 역사성을 가진다. 또한 서울지방의 保障之地로서 쌓은 北漢山城 역시 城北區의 북쪽 경계를 이루어 북한산성의 築城 또한 城北區 역사의 상징적인 일면을 장식하게 되었다.

아울러 惠化門을 지나 元山에 이르는 서울 동북방의 간선도로가 城北區地域을 관통하고 있어 女眞과의 교통로가 되었으며, 나아가 丙子胡亂의 浸寇路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朝鮮後期에 들어서는 私商이 발달하여 樓院店의 都賈가 활약하는 등 상업활동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하기도 하였으며 東活人署 등 빈민구제기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기도 하였다.

한편 三仙坪에서는 軍事의 조련이 실시되었고 城郭守備를 위한 御營廳의 北倉

20) 金庠基, 高麗時代史, 東國文化社, 1961, pp.316~320.

이 이곳에 있어 漢城府의 안보·치안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또 貞陵·懿陵 등이 위치하여 王室의 安葬地로서의 기능도 하였으며, 先蠶壇·靈星壇이 있고 北屯桃花의 명승지로서 시민의 휴식터가 되기도 하였다.

1) 漢陽定都

1392년 7월 17일 開京에서 왕위에 오른 太祖 李成桂는 8월 13일에 都評議使司에 하교하여 漢陽으로 천도할 것을 명하였으며, 15일에는 三司右僕射 李恬을 한양으로 보내 궁궐을 수리하는 실제적인 천도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그해 9월 3일 侍中 裵克廉·趙浚 등이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고 겨울철 백성의 안위를 들어 그 시기를 궁실과 성곽의 축성 및 官衙의 배열이 이루어진 후에 천도할 것을 청하여 한양천도계획이 일시 늦추어졌다. 이러한 한양천도의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新王朝 개창에 따른 새 정부의 면모를 새롭게 하고자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당시 풍미했던 風水地理說에 따라 지력이 쇠한 開京을 대신하여 漢陽이 주목되었으며, 특히나 조선왕조 개창에 따른 고려 말의 어지러웠던 정치현장을 떠나고자 했던 太祖 이하 開國功臣들의 심리가 크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高麗朝의 世臣巨族은 물론 南誾 등 新王朝의 일부 중심인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천도가 실현되었던 것이다.[21]

한편 王命으로 王室安胎地를 찾아 楊廣·慶尙·全羅道에 나갔던 政堂文學 權仲和가 태조 2년 1월에 돌아와 胎室의 吉地로 全羅道 珍同縣 지방의 山勢形勢圖를 헌상하고, 楊廣道 鷄龍山都邑圖도 함께 바치었다. 太祖는 여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룡산을 실지 답사키로 하고 安宗源·金士衡·李之蘭·南誾 등과 함께 계룡산으로 떠났으며, 도중에 楊州 檜岩寺에 들려 王師 自超를 동반하고 2월 8일에 新都候補地에 도착하였다.

太祖는 이곳에 5일간 머물면서 山水形勢를 살펴보고 이곳에 도읍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漕運의 便否와 險易關係를 조사하고 성곽의 형편을 살펴보게 하였으며, 新都에 건설할 종묘·사직·궁궐·朝市의 형세도를 작성하고 실지를 측정

21) 金龍國, 「서울 奠都의 動機와 顚末」, 鄕土서울 1, 1957, pp.53~56.

하는 등 구체적인 新都建設 문제가 결정되었다. 또 그해 3월에는 新都 畿內에 속할 州縣·部曲·鄕·所 등 81개소를 정하고, 8월에는 京畿內 田地를 고쳐 측량하여 民丁을 나누어 주는 등 건설공사와 함께 여러 조치도 진행되었다.

그런데 1393년 3월 新都建設工事를 착수하여 12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된 鷄龍山 신도건설공사는 중지되고 말았다.[22] 이는 당시 풍수지리에 권위자였던 京畿左右道 觀察使 河崙이 계룡산 도읍지 불가를 말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河崙은 '도읍은 나라 중앙에 있어야 하는데, 계룡산은 지역이 남쪽에 치우쳐 있어 東·西·北面과 거리가 멀며, 계룡산의 지형이 山은 乾方(동북방)에서 왔는데 水는 巽方(동남방)으로 흘러가니 이는 宋朝의 風水家 胡舜臣의 이른바 「水破長生, 衰敗立至」의 불길한 땅'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河崙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계룡산 신도공사는 중지되고 이후 新都 후보지로 毋岳이 등장되었다.

太祖는 河崙에게 명하여 書雲觀에 소장된 祕錄文書를 모두 살펴 다시 천도할 만한 곳을 찾아 아뢰게 하니, 河崙은 毋岳, 즉 鞍山 남쪽 오늘날 新村·延禧洞 일대를 신도후보지로 지목하여 아뢰었다. 그러나 太祖는 趙浚·權仲和 등으로 書雲觀의 관원들과 함께 현지를 답사케 하였는데, 그 결과 그 곳은 지역이 좁아 새로운 도읍지로는 불가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太祖는 그 3년 7월 陰陽刪定都監을 두고 新都邑地를 고르게 하는 한편 친히 毋岳 현지를 살피기도 하였다. 이때 鄭道傳의 천도 반대의견이 있었다. 즉, 새나라를 세운지 얼마 안되어 국가의 근본이 확립되지 못하여 民生은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기에 천도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니 시기를 기다리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太祖는 천도의지를 꺾지않고 北岳山 남쪽 고려 南京宮闕 터를 다시 살피고 尹莘達 등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리하여 '國內에서는 松京이 제일이요, 다음이 이곳이나 乾方(동북방)이 낮고 水泉이 메마른 것이 유감'이라는 의견을 듣고 王師 自起와 중신들의 동의에 따라 이곳을 도읍지로 정하였다. 이렇게 太祖는 한양을 신도의 후보지로 정하고 귀로에 다시 積城郡 廣實院의 동쪽과 都羅山 및 長湍

22) 太祖實錄 卷 4 太祖 2年 12月 壬午條.

郡 白鶴山 등지를 둘러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開京에 돌아온 太祖는 즉시, 左政丞 趙浚·右政丞 金士衡 등의 상소에 따라 漢陽을 새도읍지로 확정하였다.


성저오리정계비

이어 한양을 도읍지로 정한 太祖는 1394년 9월 1일 新都宮闕造成都監을 설치하고 沈德符·金湊·李恬·李稷을 그 判事로 임명하여 새도읍지 한양의 건설공사를 급속히 추진하게 하였으며, 9일에는 여러 중신들을 한양에 보내어 宗廟·社稷·宮闕·官衙·市廛·道路의 基地를 선정·구획하고 沈德符·金湊로 하여금 현지에 남아 한양도읍지 營建事業을 감독 시행케 하였다. 그 한달 후인 10월 25일 松京에 있는 각 정부기관에 두 사람씩 남겨두고 門下侍郎 贊成事 崔永址, 商議門下府事 禹仁烈 등으로 分都評議使司를 삼아 松京의 모든 일을 관장하게 하고 新都 漢陽으로 遷都를 단행하였다. 王室·政府 일행이 28일 新都에 도착하여 예전 漢陽府의 客舍를 임시왕궁으로 정하고 계속적인 신도건설을 추진하였다. 1395년 9월 宗廟와 景福宮이 이루어지고 12월에 왕이 新宮에 入御하게 되는 新都의 면모가 차츰 갖추어지고 또한 관아·시가·도성·궁성 등이 차례로 이루어졌다. 이어 漢陽府를 漢城府로 고치고 判事·副判事·尹·少尹·判官·參軍 등의 관직을 두었다. 다음해 漢城府의 행정구역을 東·西·南·北·中의 5部 52坊을 구획하고 都城과 門樓를 완성하니 한성부는 일국의 수도로서 내용과 외모를 구비하게 되었다. 이때 城北區地域은 城底十里 지역으로 肅淸門 밖의 계곡과 惠化門 밖의 구릉과 평지에 자연부락을 이룬 형편에 불과하였으며 이곳에 東部 崇信坊(城外)이 설치되었다. 그후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으로 다시 開京으로 천도하였다가, 제2차 왕자의 난 이후 太宗 4년(1404)에 다시 漢陽遷都가 확정되어 이듬해 漢陽離宮 즉 昌德宮이 완성되어 입궁하니 이후 漢陽은 다시 조선의 도읍지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23]

23)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제1권, 1977, pp.163～173.

2) 都城의 築造와 肅淸門·惠化門 建立

都城은 천도와 더불어 동시에 쌓기로 하였으나, 궁궐·종묘·사직 등의 건립이 우선하였던 것으로 곧 착공하지 못하였다. 太祖 4년(1395) 9월 궁궐과 종묘의 공사가 거의 끝나게 되자 太祖는 都城築造令을 내렸다. 즉, 9월 26일 左政丞 趙浚과 右政丞 金士衡에게 다음해 정월부터 각 道의 民丁을 동원하여 도성 쌓을 것을 명하고, 閏 9월 3일 都城築造都監을 설치함과 동시에 判事·副判事·使·副使·判官·錄事를 두었으며 判三司事 鄭道傳으로 하여금 城基를 정하도록 하였다. 城基 결정에 대하여 혹은 無學大師가 잡았느니, 혹은 겨울에 눈이 온 후 눈녹은 자리를 보고 결정하였다는 여러가지 전설이 있으나 모두 사리에 맞지않는 것이다. 城基는 아직 눈이 오지않는 閏 9月에 鄭道傳이 白岳·駱山·南山·仁旺山에 올라가 실측한 것으로 四山을 연결한 총거리는 59,500尺이었다.

이렇게 1395년에 도성축조계획을 세우고 다음해 태조 5년 정월부터 城을 쌓기 시작하였다.[24] 工事는 봄과 가을 두차례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1차공사는 1월 9일 白岳神과 五方神에게 도성축조를 고하고 開基祭를 거행함으로써 시작하여 2월 28일까지 49일간 慶尙道·全羅道·江原道 및 西北面의 安州以南과 東北面의 咸州以南의 丁壯 118,070명을 징집하여 全長 59,500尺의 都城을 쌓았다. 이때 공사의 총지휘는 領三司事 沈德符와 平壤伯 趙浚 등이었다. 이해의 음력 1월 9일은 양력으로 2월 26일에 해당하여 혹한은 지났으나 아직 일기가 추울 때였다. 이와 같이 추울 때 인민을 동원하여 중노동인 築城工事를 실시한 것은 農閑期를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공사에 징집당하지 않은 지방의 民丁은 前年에 이미 宮役에 동원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압록강·두만강 방면의 국방에 종사하였기 때문이다.

축성공사의 진행방법을 보면 全長 59,500尺의 城基를 600尺을 1區로 정하여 97個區로 나누고, 각 구마다 天字文으로 字號를 표시하였는데 白岳山頂으로부터 동쪽으로 天字로 시작하여 駱山·南山·仁旺山을 거쳐 白岳山 서쪽에 이르러 吊字로 마쳤다. 59,500尺의 城基를 600尺씩 97區로 나누면 1,300尺의 여유가 있게 되

24) 都城의 축조내용과 규모에 관해서는 註 23)의 pp.275~289와 서울特別市, 서울城廓, 1976에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는데 이것은 仁旺山頂에 城을 쌓지 않아도 좋은 石嶺 즉, 자연의 石城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전체의 城基를 600尺씩 97字區로 나누어 1字區를 다시 100尺씩 6號로 나누어 各道·郡의 인구비례에 의해 공사구역을 배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道名	天字文	區間	區數
東北面	天~日	白岳山頂~肅清門	9
江原道	月~寒	肅清門~東小門	8
慶尙道	來~珍	東小門~南大門	41
全羅道	李~龍	南大門~舊西大門	15
西北面	師~吊	舊西大門~白岳山頂	24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城北區 서북 경계지역의 축성은 江原道와 慶尙道의 人丁이 담당하였다. 이렇게 各道에 字區를 배정하고 두 字區에 判事·副判事 각 1명과 使·副使·判官 등 12명의 감독관을 두어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城壁外側 各面에 字號와 감독관의 姓名 및 담당 郡名을 새겼다.

공사는 예정대로 마쳤는데 감독관이 공사를 서둘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시켰다. 1·2월의 추운 날씨에 城을 쌓는 일은 매우 고된 일일 뿐만 아니라 이때 서울은 천도한지 1년밖에 되지않아 11만 8천명의 인부를 재울만한 집도 없어 露宿하는 실정이었다. 게다가 야간작업으로 病者와 負傷者·死亡者가 속출하니, 太祖는 밤일을 시키지 못하게 하고 사망자를 위하여 水陸齋를 올려 명복을 비는 동시에 그 가족에게는 3년간 復戶하여 요역을 면제시켰다. 그리하여 공사는 예정대로 2월 28일 완료되었으며 그 축성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높고 험한 산에는 石城을 쌓았는데 높이가 15尺, 총길이가 19,200尺이다. 石材는 인공을 가하지 아니한 自然石을 이용하였는데 基礎石이 長大하고 城壁은 수직이며 돌과 돌사이에 작은 돌로 메꾸워 쌓은 것이 특색이다.

둘째, 平地와 平山에는 土城을 쌓았는데 下層의 넓이가 25尺, 上層이 18尺, 높이가 25尺, 총길이가 43,000尺이다.

세째, 東大門 부근 淸溪川 水口에는 구름다리를 만들고 양편에 石城을 쌓았는데

높이가 16尺, 총길이가 1,050尺이다. 여기서 都城의 총길이를 합하면 63,250尺으로 처음 鄭道傳이 측정한 59,500尺보다 3,750尺이 더 많은데 이는 城의 중심부가 아니라 성곽의 外面을 측량하였기 때문이다.

요컨대 태조 5년 1차 도성공사는 東大門을 제외하고 약 40里의 도성을 쌓았으나 土城이 2/3이상을 차지하고 城門도 만들어지지 않은 불완전한 성곽이었다.

이렇게 제1차 공사로 쌓은 도성은 완성하지 못한 곳이 많을 뿐만 아니라 49일간의 단기간에 쌓은 것이기 때문에 부실한 곳도 많았으며, 또 그해 7월의 장마로 水口 2間이 무너지고 土城도 여러곳 붕괴되었으므로 補修工事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太祖는 慶尙道·全羅道·江原道 인부 79,400명을 징발하여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역시 49일간 제2차 공사를 실시하였다. 그 공사내용을 보면 첫째 봄에 완성하지 못한 東大門 부근의 城을 완전히 쌓고, 둘째 장마로 무너진 水口의 구름다리를 다시 쌓는 동시에 雲梯 한곳을 더 설치하였다. 세째, 장마로 무너진 土城을 石城으로 개축하였으며 네째, 石城 가운데 낮은 곳을 더 높게 쌓았다. 끝으로 都城 8大門의 月圍(아치)과 門樓를 만들고 門名을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正北	肅淸門		
東北	弘化門	俗　稱	東小門
正東	興仁門	〃	東大門
東南	光熙門	〃	水口門
正西	崇禮門	〃	南大門
西南	昭德門	〃	西小門
正南	敦義門		西大門
西北	彰義門		

한편 2차공사로서도 都城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門樓는 기술이 요하는 것으로 그중 가장 규모가 큰 南大門樓는 2년 후인 太祖 7년 2월에 준공되었다. 그리고 都城도 수차례의 보수공사가 있었으며 宮城工事의 완료와 더불어 서울의 都城과 宮城은 太祖 5년 정월부터 7년 3월까지 약 2년간에 완성되었다.

그러나 왕자의 난을 계기로 開京으로 遷都하여 7년간 漢陽을 비워두게 되었기

때문에 新都 서울의 시설은 크게 황폐하였다. 그러므로 太宗은 漢城還都 후 昌德宮을 짓고 景福宮과 각 官衙를 수리하고 道路와 開川을 크게 정리하고, 市中의 행랑과 기타 都市施設을 신설 또는 확장하였으며 太宗 13년과 16년에 걸쳐서 領議政府事 河崙의 건의에 의하여 都城補修를 결정하고 京城補修都監 또는 都城修築都監을 설치하고 각 道의 인부까지 배정하였다. 그러나 太宗은 民力의 휴양을 위하여 이를 중지하였으며 世宗 4년(1422)에 이르러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세종은 처음에 백성의 괴로움을 염려하여 우선 급한 것만 수리하고 전면적 보수는 풍년을 기다려 실시하려 하였으나 太上王 太宗의 특명으로 1422년 봄에 都城을 수축하기로 하여 都城修築都監을 설치하고 都提調, 提調, 使, 副使, 判官, 錄事 등의 실무자를 선정하였다.

이어 세종 4년 정월 14일 白岳·木覓 兩神祠에 告祠하여 기공식을 올리고 15일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공사기간은 40일로 정하였으며 담당구역을 다 쌓으면 그 이전에라도 돌아가게 하였으며 견실하게 쌓지 아니하면 감독한 提調와 守令·摠牌·頭目 등을 처벌하고, 개축된 뒤 기울거나 무너지면 이것을 쌓은 고을에서 다시 쌓을 것을 규정하고 각 字區마다 修築한 고을의 이름을 石面에 새기게 하였다.

이때 城北區地域의 도성수축공사는 咸吉(鏡) 道·江原道의 人丁과 京畿道·忠淸道의 일부 人丁이 담당하였는데 공사는 예정보다 2일 앞당겨져 38일만인 2월 23일에 완공되었다. 그 공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城은 모두 石城으로 쌓았는데 높이가 험한 곳은 16尺, 다음은 20尺, 平地가 23尺이었다. 당초의 공사계획은 土城 무너진 곳 24,535尺과 石城 무너진 곳 3,952尺을 보수하기로 한 것인데 공사결과 성곽 전체가 石城으로 되었다.

둘째 城堞과 女牆을 쌓았는데 성첩은 일정한 간격과 일정한 높이로 全 城上에 쌓은 것이며 女牆은 적이 침입하기 쉬운 門樓 좌우와 기타 요소에 한길 정도 높게 쌓은 城上 城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적을 사격할 수 있는 구멍을 내어 놓았다.

세째 동대문 부근에 水門 2間을 증설하였다.

네째 西箭門을 막고 敦義門을 移建하였다. 太祖 때 건축된 돈의문 즉 서대문은 지금 사직동 고개길에 세운 듯 하다. 그런데 태종 13년에 風水學生 崔揚善이 上書

하여 돈의문을 막고 중앙기상대쪽에 새문을 내어 西箭門이라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세종 4년 都城을 수축할 때 특히 平安道 軍丁 1000명을 뽑아 서전문을 조금 남쪽인 지금 서대문 고개로 이전하여 敦義門이라 하였다.

다섯째 城 안팎에 15尺의 도로를 내어 순찰에 편하도록 하고 城門都監을 설치하였다.

여섯째 城基가 60,892尺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土城을 모두 石城으로 개축한 뒤의 성주위로 이후 변화가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都城은 짜임새를 갖추었으며 그후 壬辰倭亂, 李适의 亂, 丙子胡亂을 겪은 후 숙종 30년(1704)에 이르러 다시 修築하기에 이르른다.

숙종 30년 2월 都城修築令을 내리고 漢城左尹 尹就商과 韓城君 李基夏에게 명하여 城基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3월 25일 三角山에 先祭하고 都城修築工事를 착수하였다. 이때는 8道의 民丁을 징집하지 아니하고 訓練都監·御營廳·摠戎廳·守禦廳·禁衛營 등 五營軍門의 군인을 동원하여 분담 수축케 하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서서히 수축하게 하였다.

이때 五軍門의 분담구역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東西兩邊을 五軍門이 분담하여 32년 10월에 완료하고, 다시 남북면의 도성을 수축하기 시작하여 33년 7월에 肅靖門 서쪽 城牒의 수축이 완료 되었으며, 36년 2월에 나머지 공사인 女墻을 수축하게 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여기서 太祖·世宗·肅宗 때의 倉築 혹은 修築城廓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太祖 때의 것은 1尺 정도의 方形의 작은 돌로 쌓은 것이며, 세종 때의 것은 2尺×4尺 정도의 長方形의 긴 돌로 쌓은 것이고 肅宗 때의 것은 正方形의 돌로 쌓은 것이다. 태조·세종때의 돌은 규격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사이 사이에 잔돌을 사용하였으나 숙종 때의 것은 규격이 일정하고 수직으



혜화문의 옛모습

로 쌓아 올린 것이 특징이다.

다음 英祖 21년과 22년에 都城의 補修가 있었다. 이때 訓練都監·禁衛營·御營廳의 三軍門이 분담하여 40여곳의 무너진 곳과 城堞을 보수하였으며, 아울러 惠化門·昭德門(西小門)·彰義門의 문루를 改建하였다.

이와 같이 도성을 보수한 다음 英祖는 守城節目을 제정하고 五部 坊民으로 하여금 三軍門에 分屬하여 城을 지키게 하고, 27년에 守城綸音을 내려 都城死守를 말하고 都民은 一心合力하여 城을 굳게 지킬 것을 당부하였으며《守城册全》를 간행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都城의 수비와 보수는 三軍門에서 부담하는데 肅靖門에서 光熙門까지는 御營廳에서, 光熙門에서 西大門까지는 禁衛營에서, 西大門에서 肅靖門까지는 訓練都監에서 담당하고, 각 軍門은 다시 前後左右中의 5停으로 나누어 분담하였다. 둘째, 五部 各契의 民戶를 各營·各停에 배속시키고 국가유사시에는 男女老少를 막론하고 모두 城에 올라 軍人과 함께 지키게 하였다. 세째 五部 各契는 그 소속을 밝히기 위해 小旗를 만들게 하였다. 네째, 유사시에는 각 軍門에서 소속 部에 연락하고 각 部에서는 領將이 部民을 인솔하여 城에 올라가는데, 鳥銃이나 弓矢를 가진 사람은 이것을 휴대하고 없는 사람은 돌을 가지고 오르도록 하였다.

1864년 大院君執政 이후 景福宮을 중건할 때 지대가 낮아 기울어져 가는 東大門을 중건함과 동시에 都城 무너진 곳도 보수하였으나 開港 이후 서울의 都城은 파괴 일로를 걷게 되었다.

肅淸門은 景福宮의 主山인 白嶽山의 동쪽 마루턱에 위치하고 있는 都城의 北門으로서 이 門도 다른 都城의 문과 같이 太祖 5년(1396)에 창건되었다. 그러나 그 18년 후인 太宗 13년(1413)에 風水學生 崔揚善이 白嶽山 東嶺과 西嶺은 景福宮의 양 팔과 같으므로 東嶺에 있는 肅淸門과 西嶺에 있는 彰義門을 함께 폐쇄해야 한다고 上言하여 이에 따라서 肅淸門은 항상 닫아놓고 통행을 금지하였던 것이다. 사실 이 肅淸門은 崔揚善의 건의가 아니더라도 자연적으로 폐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니 그것은 肅淸門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白嶽山의 山脈으로 山이 높고 험해서 통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山을 넘으면 또 北漢山脈이 앞을 막고 있으므로 이 門을 통과하여 다른 데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었다. 이 門을 통과하여

오른쪽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면 京元街道로 연결이 되나 京元街道는 肅淸門에서 훨씬 남쪽에 있는 惠化門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惠化門은 거의 평지에 위치하고 있으니 京元街道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고 편리한 惠化門을 이용하지 않고 불편한 肅淸門을 이용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폐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만 旱災가 심할 때는 肅淸門을 열고 崇禮門을 닫았으며 장마가 심하면 이 門을 닫고 崇禮門을 여는 풍속이 전하였으니 그것은 太宗 16년(1416) 禮曹에서 마련한 祈雨節目에 의하여 시작된 것으로서, 旱災가 심하면 먼저 宗廟·社稷과 名山·大川에 祈雨祭를 거행하고, 그래도 비가 오지 아니하면 崇禮門을 닫고 肅淸門을 열며 市場을 옮기고 人定과 罷漏를 알리는 鐘樓의 종을 치지 않고 錚을 치고, 비가오면 崇禮門을 열고 肅淸門을 닫으며 그 외의 모든 것을 환원하였다. 이것은 北은 陰이요 南은 陽인 까닭에 旱災 때 陽을 억제하고 陰을 부양하는 陰陽五行思想에서 나온 것이다.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에 의하면 肅淸門을 열어 놓으면 長安의 여자가 음란해지므로 항상 문을 닫았다는 俗說이 있는데 이것도 肅淸門이 陰方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이 있었던 듯하다. 그리고 肅淸門은 燕山君 10년(1504)에 본래의 위치에서 약간 동쪽으로 移建하였는데 이 때에는 石門만 세우고 門樓는 세우지 아니한 듯 하다. 그러나 1975년 서울特別市에서 門樓를 복원할 때에 虹霓로 된 石門만 있었느냐, 아니면 門樓도 있었으냐 하는 문제로 수차에 걸쳐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太祖 때 건축할 때는 있었다는 것에 의하여 門樓를 복원하였다. 그런데 이 肅淸門이 어느 때 肅靖門으로 기록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中宗實錄 이후에는 모두 肅靖門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새로 세운 門樓에는 肅靖門이라는 懸板을 걸었다.

惠化門은 都城의 동북쪽에 위치한 都城 4小門中의 하나로서 太祖 5년(1396) 9월 都城의 創築과 함께 건설되었는데 이 때의 門名은 弘化門이었다. 그러나 成宗 14년(1483)에 세운 昌慶宮의 東門을 弘化門이라고 命名하였으므로 이 昌慶宮의 東門 이름과 같은 것을 피하기 위하여 中宗 6년(1511)에 弘化門을 惠化門이라고 개칭하였다. 그리고 英祖實錄에 英祖 20년(1744) 8월 庚戌條에 「惠化門」은 전에는 門樓가 없었는데 御營廳에 命하여 건립하였다」라고 한 것을 보면 惠化門도 처음 건립

당시의 門樓는 언제인가 없어졌고 石門만 남았던 것을 英祖 20년에 御營廳에 下命하여 門樓를 건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惠化門은 都城의 小門中의 하나이지만 都城의 大門에 못지 않은 기능을 갖고 있었으니 그것은 京元街道가 이 문과 연결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으로 통행했으며 또한 北大門인 肅淸門이 항상 폐문되어 있었으므로 東小門인 惠化門이 北大門의 역할까지 하였다. 현재의 위치로는 惠化洞 로터리에서 城北洞으로 넘어가는 언덕에 있었는데 日帝의 都市計劃이라는 명목으로 日本人들 손에 의하여 門樓는 1928년에 헐리었으며 虹霓로 된 石門마저 1939년에 헐리어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혜화문은 서울市의 문화재 복원계획에 따라 1992년말에 門樓와 성곽·옹벽 등 복원공사를 착공하여 1994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인근 성곽복원과 함께 공사가 진행되어 머지않아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3) 北漢山城의 築造와 普國門·大成門 建立

北漢山은 일명 三角山·華山·負兒岳으로 불리는데 古代로부터 중요한 국방상의 요충지였다. 북한산의 지세는 매우 험준하며 방어처로써 제기능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였다. 따라서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을 겪은 후 대외적인 국방의식이 고조된 朝鮮後期의 관리들은 북한산 지세의 유리함을 들어 山城을 축조할 것을 건의하였다. 孝宗 때의 北伐論이 실패로 돌아가고 肅宗 때에 와서도 북벌론은 대두되지만, 이와 아울러 국내에서의 군사상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책으로서 北漢山城의 축조가 제기되었다.

물론 北漢山城은 조선 숙종 때 처음으로 축성된 것은 아니다. 삼국시대 초기부터 이미 北漢城이 쌓여 삼국간의 각축장이 되었다. 百濟의 蓋婁王이 처음으로 북한성을 쌓았고, 이어 고구려의 수중에 넘어갔으며 新羅 眞興王 때는 신라가 점령하여 진흥왕의 巡狩碑가 碑峰에 세워져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高麗時代에 와서도 重興山城이 이곳에 위치하는 등 몇차례 古城을 수축한 일이 있었으며, 지금 존재하는 山城의 형태는 朝鮮 肅宗 37년(1711)에 축조된 것으로 道峰區·城北區·鍾路區·恩平區와 京畿道 高陽市에 걸쳐있다.

한편 北漢山城의 築城論은 肅宗 초기부터 제기되어 숙종 28년(1702)에 그 논의

가 성숙되었고 숙종 자신도 축성의 결의를 보였다. 그러나 강경한 築城反對論과 都城修築論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 의지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숙종 36년(1710) 都城의 수축이 일단락되자 北漢山城築城論이 다시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그 해 10월 北漢山의 형세를 답사하고 돌아온 李基夏가 北城築城을 주장한 이래 문의·논의·답사 등을 거듭하였다. 그리하여 肅宗 37년(1711) 2월 5일 肅宗은 大臣들과 備局堂上을 인견하는 자리에서 北漢山의 城地를 답사하고 돌아온 摠戎使 金重器와 司直 李宇恒의 보고를 듣고 북한산성의 수축을 결정하였다. 이어 4월에 공사를 착수하고 10월 25일에 완공을 보게 되었다.[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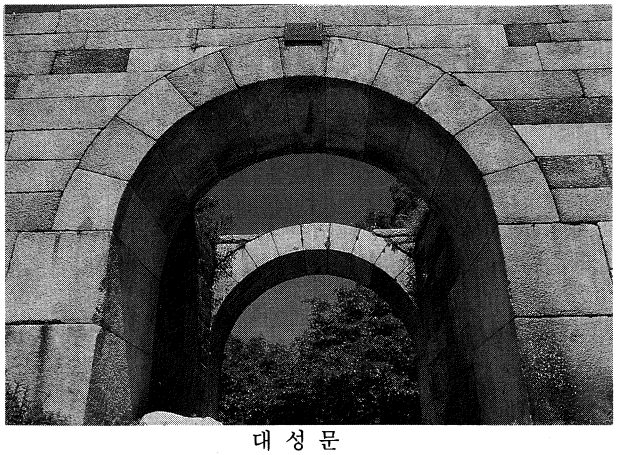
여기서 이같이 北漢山城의 축성이 肅宗 29년 이전의 논의와 달리 都城修築이 끝난 뒤 1년만에 공사를 할 수 있었던 몇가지 중요한 배경을 살펴보자. 첫째, 都城의 修築이 前年인 숙종 36년(1710)에 완공되었고 둘째, 清나라에 海寇의 침입이 있어 朝鮮에서도 방어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清에서 보내온 咨文 중에서도 海寇의 침입에 대한 방어시설에 유의하도록 요청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肅宗 37년 2월에 北漢山城의 축성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으며, 3월에는 各部署가 결정되고 4월 3일에는 공사를 착수하였다. 이 공사는 訓鍊都監·禁衛營·御營廳의 3軍門이 담당하였다. 축성 책임자로는 前判書 關鎭厚, 戶曹判書 金宇杭, 行訓鍊院都正 摠戎使 金重器가 임명되었고, 그 아래 각 軍門에는 책임감독관으로 郎廳을 두었으며, 또 그 아래에 內策應·外策應·督策將을 두었고, 工事別로 浮石牌將·築城牌將·水口牌將·運石牌將·治道牌將과 泥匠邊首·冶匠邊首·石手邊首·木手邊首 등의 감독원을 두어 공사의 철저를 기하였다.

그리고 城基는 高麗 이래의 基址에 따라 普賢峰·萬景臺·白雲臺·元曉峰·大西門·義湘峰·甑炊峰·羅漢峰·文殊峰 등을 연결하는 선으로서 지금 현존하는 北漢山城의 基址 그대로인 것이다. 그 길이는 총 7,620步 즉 21里 60步가 된다. 그 가운데 大西門 북쪽 옆에 있는 水門北邊에서 龍岩까지의 2,292步는 訓鍊都監에서 담당하였고, 龍岩南邊에서 普賢峰까지의 2,821步는 禁衛營에서, 普賢峰에서 水門南邊까지의 2,507步는 御營廳에서 각각 담당하여 쌓았다. 따라서 城北區 북쪽

25) 北漢山城의 수축내용과 규모·시설 등에 대해서는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제2권, 1978, pp.197～200과 同 文化史蹟篇, 1987, pp.477～499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경계의 북한산성은 禁衛營의 군사들이 축조한 것이 된다. 그리고 금위영에서 담당한 지역은 高築 474步, 半築 1,836步, 半半築 511步(女墻合 1,107堞)의 축성공사가 이루어졌다.


대 성 문

한편 築城에 필요한 노동력은 3軍門의 軍士는 물론 서울의 坊民이 동원되었고, 그밖에 役軍과 각종 工匠이 동원되었다. 漢城府의 坊民은 卿相家 이하 各戶를 大·中·小로 구분하여 大戶는 3명, 中戶는 2명, 小戶는 1명씩 식량을 지참하고 就役하였으며, 募役軍은 한달에 쌀 9斗와 면포 2疋씩이 지급되었다.

그리고 山城의 성문을 모두 13개로 水門北邊에서 龍岩 사이에 水門·北門·西暗門·白雲峰暗門이 있고, 龍岩北邊에서 普賢峰 사이에는 龍岩峰暗門·大東門·輔國門·大成門이 있으며, 普賢峰에서 水門南邊 사이에는 大南門·架婆洞暗門·扶王洞暗門·清水洞暗門·大西門이 있었다. 따라서 城北區 북쪽 경계에는 높이 6尺6寸 폭 6尺5寸의 輔國門과 높이 13尺 폭 14尺의 大成門이 있게 되었다.

한편 城廓과 아울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將臺인데, 북한산성에는 東將臺·南將臺·北將臺의 세 지휘소가 있었다. 이중 성북구 지역의 산성에 해당되지 않지만 輔國門 바로 북쪽에 있는 東將臺는 최고지휘관이 있는 곳으로 柴丹峰 위에 자리잡고 있다. 肅宗 37년(1711) 7월에 右副承旨 韓配周가 將臺의 工役은 財力이 있는 摠戎廳에 맡기자고 건의하여 肅宗이 摠戎使 金重器에게 형편을 물어 공사를 맡기었다. 그리하여 將臺의 축조는 다음 해인 1712년 4월경에 완공되었다. 이때 숙종이 北漢山城에 親幸하여 柴丹峰까지 올라가서 大臣·承旨·史官 및 山城主管堂上·侍衛將士 등을 入侍하게 하여 山城에 관한 일을 의논하였으며 北漢山의 형세를 보고 감탄하여 즉시로 6편의 詩를 짓기도 하였다.

그런데 山城의 修築論이 전개되었을 때 反對論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것은 水泉問題였다. 이에 숙종은 都提調 李頤命과 提調 趙泰耆 등이 저수지와 우물을

팔 것을 건의하자 즉시 井池를 팔 것을 명하였다. 우물의 굴착은 3軍門에서 각기 담당구역 내에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숙종 38년 10월에 완성되었다. 그리하여 訓鍊都監 11개소 御營廳, 12개소, 禁衛營 3개소 등 모두 26개소의 貯水池를 확보하였으며 우물은 모두 99개소에 달하였다.

이러한 北漢山城의 축조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첫째, 都城과 연결되어 首都를 보호하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朝鮮王朝는 유사시에 종종 都城을 버리고 御駕가 멀리까지 피난하는 일이 있었으며, 북한산성의 축성은 이러한 일을 방비할 수 있었던 것이다. 山城築城 이후 국가적인 큰 전쟁이나 정변이 없어 北漢山城의 역할을 실험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朝鮮의 전략상 상당히 진전된 것만은 사실이다. 둘째로 古蹟의 보존을 들 수 있다. 北漢山에 있는 많은 史蹟들이 보호될 수 있었으며 古代로부터 각축장이었던 이곳이 그대로 보존되었다. 세째로 수려한 자연을 보호하여 지금까지 좋은 휴양처로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山城의 수축으로 樹林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자연의 훼손도 막을 수 있었다. 이상의 북한산성의 중요성은 국가에서 1968년 12월 5일 북한산성일대 16만 8,989평을 史蹟 제162호로 지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에서는 문화재복원계획에 따라 1992년 大南門과 大成門의 문루를 복원하고 輔國門 또한 1993년의 보수계획에 포함하고 있다.

4) 都城守備와 御營廳

漢京識略에 보면 城北洞 일대는 北倉洞이라 소개되어 있다. 이는 朝鮮後期 御營廳의 北屯 뿐 아니라 北倉이 이곳에 두어졌기 때문이다. 城北洞 260번지 水月庵 남쪽일대가 北倉터로 알려져 있다.

御營廳은 都城守備와 王의 侍衛를 위해 설치된 조선후기 五軍營의 하나이다. 1623년 仁祖反正 이후 後金에 대하여 강경책을 표방한 仁祖는 親征計劃 아래 開城으로 나아갈 것을 대비하여 開城留守 李貴를 御戎使로 임명하여 260여명의 火砲軍을 골라 훈련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御營軍의 시초였다.

어영군은 그 직후 李适의 난을 맞아 국왕이 公州로 몽진하는데 호종하였으며 그곳에서 각지의 山尺砲手를 뽑아 충원하여 600여명으로 늘어났고 還都 후에는

1,000명에 달하였다. 이로써 御營軍은 당시 수도방어에 책임을 맡고 있던 訓鍊都監과 더불어 中央軍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훈련도감처럼 서울에 常駐시키지 못하고 그 교대로 500명씩 番上하게 하고 번상시의 경비를 제공하는 保人을 두었다.

御營軍은 잠시 摠戎使에 소속되기도 하였으나 丁卯胡亂 직후인 1628년 12월에는 그 수가 5,000명으로 늘어나 처음으로 廳으로서의 官府를 가지고 御營大將을 정점으로 하는 軍營體制를 갖추었다. 丙子胡亂 이후에는 약 7,000명으로 늘어나 8번으로 나누어 겨울철에만 번상하였다.

御營軍은 이후 孝宗의 北伐政策의 일환으로 크게 확장되었다. 효종은 그 3년(1652) 군사전문가인 李浣을 御營大將으로 삼아 군비확충의 일차적인 사업의 하나로 어영군을 21,000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6번으로 나누되 21개 집단으로 편성하여 두달씩 1,000명이 번상하게 하여 종래 겨울 결빙 때만 번상하던 것을 지양하여 1,000명의 병력이 군영에 상주하는 체제로 바꾸었다. 그러나 효종 이후 국가재정에 의한 운영체제의 유지가 어렵게 되자 지금까지 모병에 의해 유지되던 것을 平安·咸鏡道를 제외한 6道 鄕軍이 의무적으로 번상하게 하는 체제로 바꾸는 동시에 이를 돕는 保人의 수를 대폭 늘리게 되었다. 이들 鄕軍은 25番으로 나누어 5哨씩 번상하여 두달동안 복무하게 하였는데 약 700명이 서울에 상주하였다.

그동안 어영군은 束伍法에 의해 5部·別三司·別中哨로 편제되었으나 肅宗 30년(1704) 12월에 1營을 5部, 1부를 5司, 1사를 5哨로 편제하여 모두 125哨, 16,300명으로 정비되었으며, 속오법의 기본단위인 哨의 軍摠은 127명으로 편제되었다. 그리고 기본 병종인 鄕軍 이외에 騎士·別破陣·京標下軍·守門軍·軍鋪守直·本牙兵·懸錄牙兵·輜重卜馬軍·楊花津牙兵·敎師·兼別破陣·鄕騎士·標下軍 등 잡다한 병종이 鄕軍보다 더 많았다.


무관의 복장

한편 御營廳의 본영은 漢城府 東部 蓮花坊에 설치되었으며, 소속 진영으로는 南小營이 남부 明哲坊 남소문 동쪽에 있고 東營이 宣仁門 밖에 위치하였으며 北二營이 社稷洞에 있었다. 그 외에 集春營은 集春門 밖에 있었고 糧餉을 저장한 南倉은 南小洞에 있었다. 그리고 어영청의 지휘부에는 정상적인 지휘계통 이외에 군무를 관장하는 郎廳, 군사훈련 담당관인 敎鍊官, 旗牌官·本廳軍官·出身軍官·駕前別抄·別武士·馬醫·在京軍官 등이 있었으며, 西海의 永宗鎭이 그 屬營으로 있어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을 지키게 하였다.

純祖 이후 御營廳은 將禦營·總禦營 등으로 개편되었다가 高宗 31년(1894)에 폐지되었다.[26]

5) 漢城府 治安과 捕盜廳

城北區 돈암동 512번지 160호에 舊捕盜廳舍가 위치하여 서울특별시 지방유형문화재 제37호로 지정되어 있다. 물론 이 건물은 원래 漢城府 西部 瑞麟坊 惠政橋 남쪽(종로1가 89번지 동아일보사 일대)에 있는 右捕廳 건물이지만 일제 때 이곳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城北區와 관련되어 조선시대의 치안관계를 살펴본다.

捕盜廳은 朝鮮時代 죄인의 신문이나 捕盜·巡邏 등의 일을 맡았던 관청으로 일명 捕廳이라고도 한다. 앞서 언급한 右捕廳과 漢城府 中部 貞善坊 把子橋 동북쪽(종로구 수은동 56번지 團成社 일대)에 위치한 左捕廳이 있었다. 포도청의 설치시기는 續大典에 보면 經國大典 이후 창설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명확히는 알 수 없으나 成宗 때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文宗 때 이미 捕盜專擔官을 설치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成宗 초에는 捕盜主將·捕盜將의 임용기록이 보이는 것으로 常設職으로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1481년 3월에는 捕盜事目을 제정하여 漢城과 京畿를 左右로 나누고 2인의 捕盜將이 책임을 맡게 하였다. 일시적으로 漢城五部에 1인씩의 포도장을 두기로 하였지만 대체로 2인의 捕盜將制는 계속되었다.

26) 車文燮,「朝鮮後期 中央軍制의 再編」, 韓國史論 9, 1981 및 崔孝軾「御營廳研究」, 韓國史研究 40, 1983 참조.

捕盜廳의 조직과 기능을 보면 續大典에는 좌·우포청에 각각 종2품의 大將과 從事官·部長·無料部長·架設部將·書員이 두어졌으며 시대에 따라 인원의 증감이 있었다. 포도대장은 포도청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 다른 군사지휘관을 겸할 수 없으며 왕의 행차 때 수행하였고 大典會通에 보면 左·右尹을 지낸 사람으로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從事官은 文武堂下官(종6품)으로 임명하여 포도대장을 보좌하고 죄인의 신문을 주관하는 등 실무를 담당하였다. 부장·무료부장·가설부장은 군사를 지휘하여 捕盜나 巡邏에 임하였고, 書員은 中人身分으로 사무기록을 담당하였다.

高宗 31년(1894) 갑오개혁 때 좌·우포청을 폐합하여 警務廳을 설치하고 內務衙門에 소속시켰으며, 그 책임자인 警務使는 왕과 직결되어 있어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였다.[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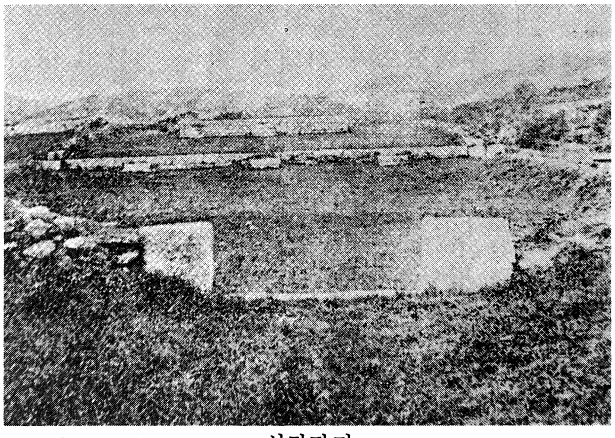
6) 先蠶壇과 靈星壇

조선시대에 현 城北區 城北洞 64의 1에는 누에치기를 장려하기 위한 先蠶壇이 위치해 있었으며, 성북동 75번지에는 별에게 제사를 올리던 靈星壇이 있었다. 朝鮮時代의 治産 가운데 養蠶은 농업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겨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여성들이 누에를 길러 실을 뽑아 옷감을 짜는 일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생산활동이었다. 이에 王室에서는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王妃의 소임 중의 하나로 曆代王室에서 親蠶禮를 거행하였다.

先蠶壇은 국가에서 누에농사의 풍년을 위해 단을 쌓고 蠶神 西陵氏(중국 3皇 가운데 1인인 黃帝의 왕후)를 제사지내던 곳이다. 東國輿地備攷에 보면 先蠶壇은 東郊 惠化門 밖에 있는데 제도가 南壇과 같고 西陵氏를 제사지내는데 神座는 北에 있어 南方이다. 매년 늦은 봄(3월) 吉한 巳日에 제사 지낸다고 하였다.

한편 養蠶의 기원은 아득한 上古時代부터 시작하여 3국을 거쳐 高麗時代에는 先蠶壇을 쌓고 역대 國王이 農桑을 장려하였다. 朝鮮時代에 들어 世宗·成宗·中

27) 李相寔,「捕盜廳의 설치에 대한 考察」, 歷史學研究 7, 1977 및 앞의「서울六百年史」제3권, 1979, pp.354~357.


선잠단지

宗·英祖 때에 養蠶이 성황을 이루었다. 한편 先蠶禮의 의식은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곳 先蠶壇은 조선 成宗 2년(1471)에 만들어졌다. 국가에서 양잠을 널리 권장하기 위해 成宗 9년(1478) 봄에 昌德宮 後園에 단을 쌓고 王妃가 친히 內命婦·外命婦를 거느리고 親蠶의 禮를 거행하였다. 이때 궁궐 후원에 쌓은 단의 제도는 風雲雷雨壇과 같다고 하니 단의 규모가 둘레 2丈 3尺, 높이 2尺 7寸, 사방에 섬돌을 놓고 두 낮은 담이 25步였을 것이다.

따라서 先蠶禮는 성 밖인 이곳 선잠단에서 베풀고, 궁중에 뽕나무밭을 가꾸어 王妃가 親蠶禮를 거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친잠례에 관한 기록을 보면 成宗 때 3번, 中宗 때 2번, 宣祖 때 1번 거행하였다. 그후 英祖 때 이에 관한 문헌이 산실되어 고증할 사람이 없자 江華에 소장된 實錄을 조사한 다음 영조 43년(1767) 2월 26일 王世孫 이하 宗親·文武百官을 거느리고 親耕儀式을 거행하고 이어 3월 10일에 親蠶禮를 거행하였다. 현재도 昌德宮 祕苑 宙合樓 서편에 親蠶室이 남아 있어서 純宗王后 尹妃는 최근까지 前例에 따라 이곳에서 親蠶禮를 거행하였다. 한편 先蠶禮를 행한 뒤에는 왕비의 採桑儀가 있었는데 採桑壇은 선잠단 서쪽에 있었으며 뽕나무는 각 단의 동쪽에 심었다. 이때 嬪宮·世孫嬪宮·內外命婦에게 각각 소임을 맡겼고 內執事 이하에게 茶食을 내렸으며 蠶母에게는 棉布를 하사하였다. 또 8道나 서울의 죄인들에게 特赦를 내렸으며 英祖는 궁중의 養蠶所에서 키운 누에고치를 여러 대신들과 각도 지방관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이곳 先蠶壇 남쪽에는 한 段 낮은 댓돌이 있고 그 앞쪽 뜰에는 상징적인 뽕나무를 심고 궁중의 蠶室에서 키우는 누에를 먹이게 하였다. 이 의식은 매년 3월에 거행하였는데 1908년 7월 이 단은 先農壇의 神位와 함께 社稷壇으로 옮겨 그 遺址만 남게 되었으며 1939년 10월 18일 史蹟 제83호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는데 1961년

11월 10일에 「先蠶壇址」라는 표지를 하였고 1963년 철책을 세워 보호하고 있다.[28]

한편 靈星壇은 일명 星壇이라고 불렀으며, 祈雨를 할 때는 龍壇이라고 지칭되었다. 靈星이 곧 龍星이기 때문이며, 또, 龍의 왼쪽 뿔이 天田星으로 稼穡(농사)을 관장하는 神이라 하여 이 天神을 致祭하기 위해 설치된 壇이다. 즉 새해 풍년을 기원하며 곡식을 맡은 별과 농사를 맡은 별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처음에는 漢南洞 402번지에 있는 龍壇으로 추측되는 南郊에 설치되었다가 다시 惠化門 밖에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靈星壇의 설치는 고려 때 처음 시작된 것이며 조선에서도 그 遺制에 따라 漢陽遷都 후 南郊에 설치하고 入秋 후에 辰日을 정일로 하여 제사를 지냈다. 또한 太祖의 고향인 咸興에 조선 개창을 감사하는 뜻에서 영성단을 설치하고 해마다 祭官을 파견하여 치제하기도 하였다. 영성단의 神座는 북쪽에 있어 南向하고 있으며 단의 규모는 정사각형 한변 길이가 2丈 1尺(6.3m), 높이는 2尺 5寸(0.75m) 정도이며 사면으로 섬돌이 있고 담장안은 사방이 25步였으며 단의 남쪽으로 출입문이 있었다.

光武 元年(1897)에 五星과 28宿을 圜丘壇에 從享 제사하고 星壇은 폐지되었다.[29]

7) 王室陵과 願刹

城北區 自然環境은 명승지로 조선시대 王室의 주목을 받아 그 墓域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근에 願刹이 위치하게 되었다. 일찍이 貞陵洞은 太祖 李成桂의 神德王后 康氏의 능인 貞陵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며, 石串洞에는 조선왕조 제20대왕인 景宗과 繼妃 宣懿王后 魚氏의 雙陵인 懿陵이 자리잡고 있으며, 下月谷洞에는 高宗의 長子였던 完王의 애기 陵과 高宗의 後宮인 內安堂 貴人 李氏墓도 이곳에 있다가 西五陵域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翼宗의 單陵인 追綏陵도 純祖 때 석관동의 懿陵 左岡에 위치해 있다가 哲宗 때 東九陵域으로 遷奉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陵을 수호하고 주인공의 명복을 기원하는 新興寺(興天寺)·奉國寺·蓮花寺 등 願刹이 인근에 자리하였으며 開運寺와 같은 사찰도 자리잡게 되었다.

---

28) 앞의 서울六百年史 文化史蹟篇, 1987, pp.223~230.

29) 上同 pp.345~348.



정　　릉(사적208호)

貞陵은 史蹟 제20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太祖妃 神德王后 康氏(?～1396)의 單陵이다. 처음 都城 안인 지금의 中區 貞洞에 있었으며 太宗 9년(1409)에 이곳 城北區 貞陵洞으로 移葬하였다. 神德王后는 黃海道 谷山 출신인데 判三司事 贈象山府院君 康之成의 딸이다. 康氏는 어려서부터 비범한 자질을 보여주었고 장성하면서도 정숙하고 지혜가 있어 인근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나아가 太祖를 도와 朝鮮王朝를 창건할 때 內助의 공이 컸던 것이다. 더구나 왕조 개창 때는 제1왕비인 神懿王后 韓氏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라 重臣과 太祖와의 사이에서 開國 始政을 하는 데에 神德王后가 교량의 역할을 하였던 만큼 태조의 신임과 重臣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神德王后가 太祖 5년 8월 13일 세상을 떠나자 太祖는 매우 슬퍼하여 朝會와 市廛을 10일간이나 정지하고 白衣로 친히 나가 陵地를 구하였다. 처음 능지를 정한 곳은 安岩洞이었으나 開基의 山役을 시작할 때 물이 솟아 나오므로 皇華坊 北原 지금의 중구 정동에 자리(정동 4번지)를 정하였다.

太祖는 5년 8월부터 제2차 都城修築이 있을 때 9월 9일에 친히 축성을 독려하면서 顯妃의 능침 꾸미기를 감독까지 하였다. 그리하여 10월 10일에는 左議政 趙浚, 判中樞院事 李勳 등에 명하여 현비의 諡册을 받들게 하여 神德王后라 하였고 다음해 1월 3일 마침내 皇華坊 북쪽에 장사지내고 능호를 貞陵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 동편에다 齋宮으로 興天寺를 세우고 자주 行幸하였다.

이러한 貞陵이 지금의 위치로 옮겨진 것은 太祖가 세상을 떠난 불과 9개월 후인 太宗 9년(1409) 2월 23일이었다. 이때 遷陵의 이유로 議政府 상소에 보면 '옛날의 帝王 陵墳이 모두 都城 밖에 있는데 지금 貞陵은 유독 城內에 있으니 불편합니다. 이곳은 또한 중국의 使臣이 머무는 太平館이 가까우니 城外 沙乙閑里로 옮기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여 이를 실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상의 이유

에 불과하였다. 太祖 제1비인 神懿王后 韓氏 소생의 왕자가 6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비인 神德王后 康氏의 소생인 芳碩이 世子로 책봉되자 靖安君 芳遠은 私感이 컸던 것이다. 이때 鄭道傳·南誾 등의 개국공신이 芳碩을 지지하게 되자 방원은 태조 7년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芳碩·芳蕃과 정도전·남은을 숙청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太宗 6년(1406)에는 議政府의 啓請에 의해 都城 안에 있는 貞陵의 塋域이 너무 광대하다 하여 陵에서 100步 거리 밖에 있는 지역은 전부 철거하여 住家를 짓게 하였다. 또한 태종은 神德王后를 太廟에 配享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貞陵이 옮겨진 뒤 한달이 지난 그해 4월에는 陵의 丁字閣을 헐어서 太平館의 北樓 3間을 짓고, 貞陵의 옛자리를 평지로 만들어 흔적을 없앴으며, 石物을 모두 묻어버리게 하였다. 太宗 10년 여름에 큰 장마가 져서 도성 안 종로거리가 모두 침수되고, 廣橋에 있던 흙다리가 무너졌을 때에는 貞陵舊墓의 石物을 실어다 돌다리를 만들게 하였다. 이때 石橋에 사용한 12支神像을 새긴 石材 등은 상당한 美術品으로 文化財 가치가 높은 것이었으나 청계천 복개공사로 지하에 묻히게 되었다.

太宗 9년 2월 貞陵을 沙乙閑里의 산록으로 옮길 때는 왕명으로 각 관청 관원들의 반수로 白衣·黑角帶·烏紗帽의 복장을 하고 靈柩를 시위하여 행상하게 하였으며 2월과 10월 이름있는 날에는 2品官員을 보내어 제사드리는 것을 恒式으로 삼게 하였다.

그러나 그후 宗廟에는 太祖神位와 함께 神懿王后 韓氏의 신위만을 配位로 모시고, 陵에 관원을 보내어 제사드리는 의례마저 폐지되니 墳墓는 자연 황폐하여지고 石物은 무너져 그 자리조차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다가 宣祖 14년(1581), 貞陵을 沙乙閑里로 옮긴지 170년이 지나 貞陵奉審의 논의가 조정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돌보지 않은지 오래되어 현재의 廣壯洞에 있는 峨嵯山 일대까지 지목하고 찾다가 마침내 卞季良이 지은 春亭集 중에 「貞陵告遷祭文」을 발견하여 서울 동북쪽 계곡에 誌石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諸侯는 再娶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陵寢을 修封하고 寒食에 제사드리는 것만으로 그쳤다. 그리고 이때 國陵으로 다시 봉하여 定宗의 왕비 安氏의 厚陵의 제도에 따라 建閣하고 관리를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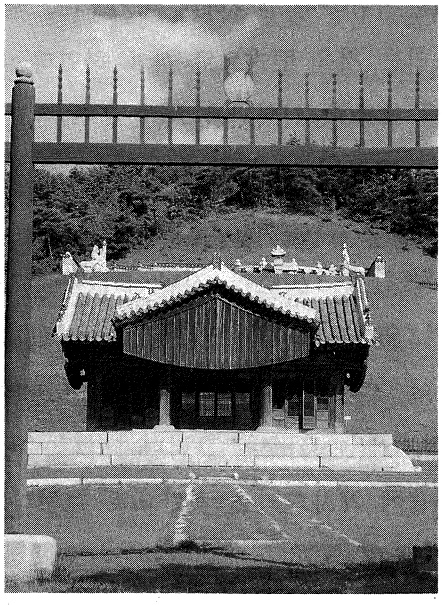
그후 顯宗 10년(1669), 宋時烈의 啓請에 의해 神德王后를 宗廟에 配享하고 陵墓는 奉審하기에 이르렀다. 봉심 보고와 함께 능의 보수는 물론 丁字閣·安香廳·典禮廳 등을

세우고 守護軍을 定給하게 하였다. 이어 宋時烈 鄭太和 등 중신·문관들의 상소와 庭請에 의하여 왕후에게 順元·顯敬의 徽號를 올리고 그해 종묘에 신위를 배향하니 沙乙閑里 遷移 후 260년이 지나 貞陵은 비로소 본연의 면모와 예우를 갖추게 되었다.[30]

다음 懿陵은 城北區 石串洞 산1번지 5호에 현재 능역 114,658坪을 범위로 하며 史蹟 제204호로 지정되어 전하고 있다. 懿陵은 조선왕조 제20대 왕인 景宗과 繼妃 宣懿王后 魚氏를 모신 雙陵으로 申坐寅向에 同原上下封이다.

景宗은 肅宗의 長子로 禧嬪 張氏의 소생이며, 숙종 14년(1688)년 10월 28일 昌慶宮 就善堂에서 탄생하여 3세 때 世子가 되었고 숙종 43년(1717)에 세자로서 代理聽政을 하기도 하였다. 1720년 숙종이 세상을 떠난 후 慶熙宮 崇政門에서 즉위하였고 元年 8月에 延礽君(후의 英祖)을 世弟로 봉하였으며 재위 4년만인 37세를 일기로 昌慶宮 環翠亭에서 승하하니 1724년 12월 16일 漢城府 東部 仁昌坊(城外) 石串里에 葬陵하였다.

繼妃 宣懿王后 魚氏는 咸原府院君 領敦寧府事 有龜의 딸로서 숙종 31년(1705) 10월 29일 탄생하여 숙종 44년에 15세로 世子嬪이 되었고, 景宗 즉위와 함께 왕비에 진봉되었으며, 英祖 6년(1730) 6월 29일 慶熙宮 魚藻堂에서 26세로 소생없이 세상을 떠나 同年 10월 19일에 景宗과 같은 장소에 陵域을 조성하였다.


의 릉

이 懿陵을 서울에 위치해 있는 陵基中 유일하게 같은 언덕에 앞뒤로 조성되어 있는데, 이는 曲墻 3面內에 왕릉을 奉陵한지 6년 후 그 앞에 后陵을 영조한 것이다. 陵은 왕릉과 왕비능이 前後로 비껴 雙陵의 형태를 띠며 象設은 單陵의 모습을 갖추었다. 陵의 石物 배치와 石物의 양식은 작으만 하고 厚陵의 石物制度를 채택하여 肅宗의 明陵과 같은 양식을 취하고 있다. 형식은 雙陵이며 玄室은 灰隔으로 되어 있으며 屛風石은 없고 方位의 표현은 12支로서 欄干石柱에 표시되어 있다.[31]

30) 上同 pp.788～790, 앞의 洞名沿革攷, pp.119～123, 앞의 서울명소고적 pp.235～238.
31) 앞의 서울大百年史 文化史蹟篇, pp.802～.804, 앞의 洞名沿革攷 p.165.

한편 城北區 下月谷2洞에는 高宗의 長子인 完王의 墓와 그 右岡 남쪽에 고종의 후궁인 永保堂 貴人李氏·內安堂 貴人李氏·福寧堂 貴人梁氏의 묘소가 있었으며 현재는 西三陵 경내의 貴人·淑儀墓域에 이장되어 있다.[32]

永保堂 귀인 이씨는 完王의 생모로 본관은 慶州이며 通德郎 元泰의 딸이다. 헌종 14년(1848)에 입궁하여 고종 5년(1868) 완왕을 낳아 貴人에 봉해지고 영보당의 광호를 하사받았다.

內安堂 귀인 이씨는 헌종 13년에 출생하여 어려서 입궁한 후 귀인에 봉해지고 고종과의 사이에 1女를 두었다.

福寧堂 귀인 梁氏는 본관이 忠州이며 嘉喜大夫 彦煥의 딸로 이름은 春基이다. 고종 30년(1893)에 입궁하여 1912년에 貴人에 봉해졌다.

다음으로 願刹이라 함은 王이나 王后가 승하하면 陵의 가까운 곳에 있는 寺刹을 정하여 그의 명복을 비는 願堂으로 陵域內外의 관리와 祭享時에 두부를 공급하는데 이를 造泡寺·豆泡寺라 부른다. 貞陵의 願刹인 興天寺는 太祖 5년(1396) 왕실 발원으로 漢陽 西部에 창건한 170여간의 大寺刹이었다. 당시 極樂寶殿에는 王室의 宮中願佛인 明國普陀落伽山의 42수 觀世音菩薩像을 봉안하고 國泰民安을 기원하였다. 또한 사찰의 서쪽에 神德王后의 陵을 奉安하고 가람을 증축하였으며 國齋를 거행하며 修道行者를 정진케 하였으며 왕실에서 나라의 名刹이라 하여 曹溪宗의 本寺로 命名하였다. 그러나 太宗 9년(1409) 신덕왕후의 貞陵을 옮김과 동시에 능 옆에 小庵을 만들고 新興寺라 개칭하였으며, 그후 능침과 너무 가깝다고 하여 顯宗 10년(1669) 合翠亭遺址로 이건하였다가 正祖 18년(1794) 현재의 성북구 돈암2동 595번지에 자리잡았으며 高宗 2년(1865)에 다시 興天寺라 하였다. 이때 大房에는 興宣大院君의 휘호로 된 '興天寺'라는 현판을 걸었다.[33]

그리고 성북구 정릉2동 637번지에는 奉國寺가 자리하고 있다. 太祖 4년(1395) 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당시 王師였던 無學大師의 지시에 의해 창건된 護國寺刹로 처음에는 法堂에 藥師如來를 봉인한 관계로 藥師寺라 하였다. 顯宗 10년

32) 앞의 서울六百年史 文化史蹟篇, p.875.

33) 앞의 서울六百年史 文化史蹟篇 p.644, 앞의 洞名沿革攷 pp.90~91, 앞의 서울명소고적 pp.234~235.

(1669) 神德王后의 貞陵을 修封하고 太廟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서 정릉의 沙草를 새로 하는 동시에 丁字閣·安香廳·典禮廳 등을 새로 세웠는데 이때 이 절을 願刹 즉 造泡寺로 하여 이름을 奉國寺로 고쳤다.[34]

또 성북구 安岩洞 5가 157번지에는 開運寺가 자리하고 있다. 이 절은 본래 太祖 5년(1396) 王師인 無學大師가 동대문 밖 5리쯤 되는 安岩山 기슭에 창건한 永導寺였다. 그런데 正祖 3년(1779) 元嬪 洪氏의 묘소인 仁明園이 절 옆에 자리하게 됨에 따라 人波竺洪大師가 동쪽으로 몇리 떨어진 현재의 자리로 절을 옮겨 짓고 그 이름마저 開運寺라고 바꾸었으며 그후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절 뒤에는 큰 바위에 조각된 거대한 大白石佛觀音坐像이 있는데 이는 고려시대의 양식을 띠고 있다고 한다.[35]

그리고 안암동 3가에는 '궁말'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廣平大君 一家의 사당이 있어 사당말로 불리워지는 宮里 또는 中里라 하였다. 이곳은 世宗의 5子인 廣平大君家의 世居地였으며, 太祖의 7子인 撫安大君 芳蕃과 그 부인 王氏, 광평대군과 그 부인 申氏, 광평대군의 아들 永順君과 그 부인 崔氏의 3世를 奉祀하는 사당이 있었다. 즉, 世宗은 왕자의 난에 희생당한 芳蕃의 後嗣를 광평대군으로 잇게 하고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내게 하여 안암동 중심 마을에 사당골이 형성되었다.[36] 지금은 강남구 수서동 일원에 광평대군 일가의 묘역이 자리잡고 있으며 世葬記碑와 더불어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8) 城北區의 行政區域과 城底五里碑

城北區地域이 구체적인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것은 朝鮮時代에 들어와서 였다. 漢陽에 도읍을 정한 朝鮮王朝는 漢陽府를 漢城府로 개칭하고, 1396년 白岳山·駱山·木覓山·仁旺山을 잇는 약 18km의 都城과 4大門·4小門의 문루를 수축하였다. 그리고 城內의 행정구역을 분할하여 東部·西部·南部·北部·中部의 5部를 정하는 동시에 이를 다시 52坊으로 분할하여 坊名表를 세웠다.

---

34) 앞의 서울六百年史 文化史蹟篇, p.652, 앞의 洞名沿革攷 pp.128～129.
35) 앞의 서울명소고적 pp.232～233.
36) 앞의 洞名沿革攷 pp.106～109.

5部 52坊은 대체로 淸溪川을 중심으로 北岳山·仁旺山·南山 등에서 내려오는 細川으로 경계를 삼았다. 여기서 城北區의 행정구역은 지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都城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바로 5部中 東部에 崇信坊과 仁昌坊이 설치되었다.

한편《世宗實錄》地理志를 보면 한성부 관할구역이 49坊으로 축소되고 都城 안과 성 밖 5里~10里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경계는 대개 산능선과 하천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았다. 대체로 城底十里 지역을 살펴보면 동쪽은 楊州 松溪院과 大峴을 연결하는 선이며, 서쪽으로는 楊花渡와 高陽 德水院까지이고, 남쪽은 漢江과 露渡까지 였으며 북쪽은 언급이 없으나 北漢山까지로 추정된다. 따라서 오늘날 城北區地域은 東部의 城底十里 지역에 포함되었으며 구체적인 행정구역으로는 東部(城外) 崇信坊과 仁昌坊이 설치되었다. 아울러 貞陵洞 408번지 淸水莊 유원지로 올라가는 큰 길가에 史蹟 제110호로 정해진 '城底五里定界碑'가 서 있었다. 이 碑는 漢陽定都 후 城內 城外의 坊里境界 및 거리 등을 표시해서 세웠던 것으로 地上 높이 2尺 5寸, 폭 1尺 4寸, 두께 8寸의 크기인데 그 정면에 '城底五里 定界立標 康寅三月 日'이라 새겨 있다. 따라서 비를 세운 해의 干支 庚寅은 太宗 10년(1410)의 庚寅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立標物은 도성 주위 사방에 세워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城底五里定界標만이 오직 하나 남아 있을 뿐이며 이 표석도 현재는 景福宮 勤政殿 廻廊에 옮겨져 전시되어 있다.[37]


성저오리정계비

한편 成宗 때 완성된《經國大典》에 漢城府의 하부조직으로 部·坊 밑에 契와 統이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살필 수가 없다. 따라서 성저10리에 속하였던 성북구지역이 언제 東部 崇信坊과 仁昌坊에 속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필 수가 없으나 英祖 27년(1751)에 반포된《守城册全》의〈都城三軍門分界總錄〉에 보면 43坊 328契의 명칭이 보이는데 이때 성북구지역에 해당하는 部·坊·契의 명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7) 앞의 서울명소고적, pp.240~241, 앞의 洞名沿革攷, pp.130~131.

〈東部〉

- 崇信坊(城外) : 崇信坊契 · 陵洞契 · 加五里契 · 長位里契 · 安岩契 · 牛耳契 · 水踰村契 · 新設契
- 仁昌坊(城外) : 仁昌坊契 · 祭基里契 · 典農里契 · 馬場里契 · 踏十里契 · 往十里契 · 私契 · 伏里契 · 中梁浦契 · 沙阿里契 · 往十里驛契

이어 正祖 13년(1789)에 간행된《戶口總數》에 보면 漢城府는 47坊 378契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때의 성북구와 관련있는 東部 崇信坊과 仁昌坊의 契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東部〉

- 崇信坊 : 崇信洞契 · 新設契 · 鍾岩里契 · 伐里契 · 加五里契 · 水踰村契 · 安岩洞契 · 陵洞契 · 沙阿里契 · 御倉契 · 牛耳契
- 仁昌坊 : 仁昌洞契 · 往十里一契 · 往十里二契 · 私契 · 清涼里契 · 踏十里契 · 祭基里契 · 長位里契 · 中浪浦契 · 典農里契 · 馬場里契

이렇게 볼 때 1751년에서 1789년 사이에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契의 증가와 坊 사이의 조정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때 崇信坊의 戶口数는 1,241戶에 인구 3,886명으로 남자 2,192명, 여자 1,694명이었다. 仁昌坊은 2,511戶에 인구 7,683명으로 남자 4,526명 여자 3,157명이었다.[38]

그리고 高宗 4년(1867)에 반포된《六典條例》에 보면 漢城府를 5部 · 47坊 · 340契로 분할하고 있다. 이때의 성북구 해당지역은 東部 崇信坊 지역으로 국한되었는데 崇信洞契 · 月谷里契 · 沙阿里契 · 安岩洞契 · 鍾岩洞契 · 長位里契 · 陵洞契 · 水逾村契 · 加五里契 · 牛耳里契 · 御倉契 · 新設契 · 伐里契 등이 있었다. 이어 1894년 甲午改革 때에는 漢城府 5部를 5署로 고치고 坊은 그대로 47坊으로 하였으며 契를 줄이고 洞을 새로이 두어 47坊, 228契, 775洞으로 하였다. 이때 성북구 지역은 東署 崇信坊(城外) 東門外契와 東小門外契, 그리고 仁昌坊(城外) 東小門外契 지역에 해당되었다.

38)《戶口總數》서울대학교 고전총서, 1972, pp.10~11.

9) 城北의 名勝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城北區 地域은 유구한 歷史性을 가지고 있으며 北漢山 남쪽 기슭에 위치하여 背山臨水의 지형으로 계곡과 구릉 및 시냇물과 평지가 있어 명승지를 곳곳에 만들어 詩人·墨客과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그치지 않는 곳이었다. 특히나 朝鮮時代 北屯桃花·北郊牧馬의 풍광은 더욱 돋보이며 王陵의 존재는 성북지역이 교외 명당자리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옛부터 惠化門과 肅靖門 사이의 都城 밖 계곡을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水石이 어울려 있으며 도성이 부채꼴모양으로 감싼 이 마을에는 복숭아·앵두나무를 많이 심었다. 따라서 근래에 건물이 밀집되기 전까지만 해도 삼청터널 입구주변에는 앵두나무가 많이 있었다. 《漢京識略》 名勝條에 의하면 이곳을 일컫기를

> '맑은 계곡과 언덕을 끼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복숭아를 심어 생업을 삼고 있다. 매년 늦은 봄이면 놀이를 나온 사람들과 車馬가 두 줄을 지어 가득하게 산계곡 사이를 메우고 깨끗한 초가집이 많다'

고 하였다.

또 《東國輿地備攷》 漢城府 名勝條에 보면 城北洞을 北渚洞이라 칭하고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北渚洞은 惠化門 밖 북쪽에 있는데, 洞里 안에 복숭아나무를 벌여 심어서 봄철이 되어 복숭아꽃이 한창 피면 도성사람들이 다투어 나가서 놀면서 구경한다. 민간에서는 桃花洞이라 부르며, 御營廳의 城北屯이 있다. 또 北寺洞이라고도 하며 옛날에 墨寺가 있었기 때문에 墨寺洞이라고도 한다. 맑은 시내의 언덕을 따라 주민들이 복숭아나무를 심어서 생활을 한다. 늦은 봄철마다 노는 사람들과 車馬가 들에 밀린다.

正祖 때 漢城府의 城市를 그린 〈城市全圖〉를 보고 임금이 시를 짓게 하였던 바 實學者 楚亭 朴齊家(1750~1815)는

> 내가 사랑하는 것은 城北屯 주변의 풍속으로,
> 복숭아나무를 심지 않으면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다.(最憐城北屯邊俗 不種桃花以爲恥)

라 하였고 雅亭 李德懋(1741~1793)는

혜화문 밖에서는 무엇을 보겠는가
푸른 숲이 흰 모래밭에 연하여 있네
北屯의 복사꽃 천하에서 가장 붉고
푸른 시냇가에는 집집마다 짧은 울타리
(惠化門外何所見 點綴有林白沙嘴 北屯桃花天下紅 短籬家家碧溪沚)

라 읊었으며 羅巖 朴周大(1836~1912)는

동소문 밖의 城北洞에는
언제나 풍류객 끊이지 않고 이곳으로 몰려오네
백보 밖에서 활쏘는 사람 과녁 맞추는 소리 딱딱하고
시냇물 따라 빨래하는 방망이 소리 요란하다
(東城之北城北西 遊人陸續恒來此 百道穿堋射侯正 一水緣谿漂聲遝)

라고 노래하였다.[39] 이와 같이 城北洞에는 복숭아나무가 많았으므로 紅桃洞·桃花洞·복사동이란 자연마을 명칭이 남아있다. 조선시대 都城民들은 봄철이면 인왕산 아래 살구꽃(弼雲臺杏花), 서대문 밖 西池의 연꽃(天然亭荷花), 동대문 밖 수양버드나무(興仁門外楊柳), 세검정 부근 계곡(蕩春臺水石)과 함께 이곳 성북동의 복숭아꽃(北屯桃花)을 구경하기 위해 나드리하였던 것이다.

한편 城北洞은 봄철 복숭아꽃빛이 계곡일대를 물들여 그 勝景을 탐미하기 위해 觀賞客들의 물결이 끊이지 않았고, 여름철에는 北漢山 連峰 아래 자리한 까닭에 水石이 좋아 피서지로 알맞았으며, 가을철의 단풍 또한 절경이었다. 이에 政界의 혼란을 피해 이곳의 자연풍경을 즐기려는 文人·詩客들이 은거 수양터로 삼아 草堂을 짓고 이곳의 경치를 노래하기도 했다.

朝鮮末期 高宗 때 西波 黃壽延은 온 세상이 혼탁해도 자신은 청렴하게 지내는 것을 나타내는 '臥城北洞'이란 詩를 이곳에서 짓기도 했다.

10년 동안 긴 휴가 얻어 北城 아래 누어있네
山水 풍경 모두 내것이라 마음대로 노니는데
어느사이 귀밑 털 백발이 되어있네

한가하게 졸음 즐기고

39)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鄕土서울》제43호 資料 城市全圖.

술이 있으면 친구 불러 마신다.
萬餘 골짜기에 구름 덮이는데
이내 樓臺에는 가을 달빛이 밝구나
(聖朝乞長暇 十年臥城北 唐突煙霞癖 於焉鬢髮生
無事恒多睡 有酒即相傾 萬壑雲俱黑 一樓秋獨明)

이러한 은거의 기상은 3·1운동으로 獄苦를 치른 偶丁 林圭의 이곳에 자리잡은 절과 암자의 청아한 운치와 그윽한 풍경을 읊은 '北山散稿'라는 詩에서도 엿볼 수 있다.

10년간 긴 세월을 城北 모퉁이에서 지내니,
靑龍庵 彌勒堂이 큰 거리같이 환하다.

高僧이 세상을 떠나니 佛經책 거두어 간직하고,
좋은 친구 찾아 오니 술병을 끌어 당긴다.

떠다니는 버들개지 눈보다 가벼운 것이,
살이 오른 살구알은 구슬알보다 크다.

산에 사는 운치를 늙어가며 깨달으니,
날마다 흐뭇한 마음으로 혼자서 즐긴다.
(十載光陰城北隅 靑龍彌勒定通街
高僧去後收經卷 好友來時引酒壺
無定楊花輕勝雲 欲肥杏子大於珠
老僧漸覽山居趣 日日欣然獨自娛)

다음으로 東小門(惠化門) 밖을 나가면 城北洞에서 동쪽으로 흘러 淸溪川에 합류되는 개천이 있다. 城北川·安岩川이라 불리우는 이 개천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맑은 물이 흘러 물놀이를 즐기고 빨래하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혜화문 밖 安岩川의 구부러져 동쪽으로 흘러가는 남쪽과 북쪽에 山地가 서로 통해 古松이 울창하였다. 이 부근의 底地를 三仙坪이라 칭하였으며 이곳은 평평한 모래사장 같은 개울바닥이었기 때문에 朝鮮時代에는 軍隊의 연병장으로 사용되었다. 즉, 삼선평의 안암동쪽에 訓鍊院의 연무장이 있어 訓局의 군마들의 재주를 시험하였다. 이곳은 조선시대 어느 때부터 연무장으로 쓰였는지 확실치 않지만 뚝섬

의 살곶이벌 閱武場이 성안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곳 넓은 들이 자주 열무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삼선평 남쪽에 있는 오똑만한 지대는 용산 새남터와 같이 死刑場으로 쓰이기도 하였다.[40]

한편 朝鮮初期 漢城의 대표적인 모습을 읊은 漢都八詠을 통해 城北區의 모습을 보자. 한도8영은 조선조 三峰 鄭道傳이 선정하여 읊은 것으로 다른 文人들도 이를 칭송하여 詩를 짓기도 하였다.[41] 즉 漢道八詠은 畿甸山河・都城宮苑・列署星拱・諸坊碁布・東門教場・西江漕泊・南渡行人・北郊牧馬로 이중 北郊牧馬의 모습에서 城北地域을 견주어 볼 수 있다.

鄭道傳의 詩를 보면

저 북쪽 들 펀펀하기 숫돌 같은데
봄철되면 풀 무성하고 샘물 좋다네.
일만 말 구름처럼 몰리고 까치처럼 뛰는데
목자들 마음대로 서쪽 남쪽 서성이네

라 하였다.

權近은

무성한 풀은 긴 들 저 밖인데,
맑은 냇물은 꿇어진 언덕가로 흐르네
용마 일만 필 다투어 높이 뛰는데
저멀리 오색 꽃 잇달았네.

언덕에서 뛰놀 적에 발굽에서 번개나고
바람에 울음우니 갈기에서 연기 출렁이네
사특함 없는 그 생각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詩傳의 駉詩 한 편 우리 임께 드리려네.

라 하였다. 그리고 權遇는

들이 넓으니 푸른 연기 덮여 있고
봄이 깊으니 푸른 풀 가지런히 자랐네

40) 앞의《서울명소고적》pp.229～230.
4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 漢城府 題詠條.

닫고 뛰는 군마들 동쪽으로 서쪽으로
번갯불 번쩍 가볍게 굽놀리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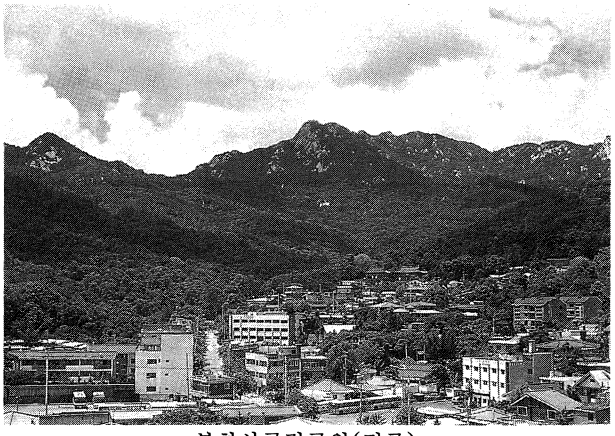
물을 건너며 무리지어 마시고
바람 향해 서서 짝을 찾아 울음 우네
목자들 하루종일 긴 언덕에 오르내리니
도롱이 삿갓에 비 젖어 쓸쓸하여라.

라고 읊고 있다.

한편 고종 때 文人 淮山 李濟九는 어느 늦은 가을 東小門을 벗어나 城北洞을 찾아 나서 길을 걸으며 다음과 같이 그 풍광을 읊고 있다.

小靑門 밖 나가니 城市 티끌 볼 수 없고
나귀 등엔 붉은 夕陽이 이글거린다.
들판의 국화 시냇가의 단풍 가을 빛
서로 어울려 한폭의 그림 이루었구나
(小靑門外市虛空 驢背斜陽冉冉紀
野菊溪風霜意近 十分秋色畫圖中)

다음 성북구 정릉동 일대는 北漢山 南麓에 위치하여 普賢峰·釋迦峰·聖德峰·化龍峰·潛龍峰·兄弟峰 등의 여러 봉우리가 높이 솟아 있고, 남쪽을 향하여 크고 작은 능선이 뻗어 내려오면서 그 사이로 깊은 골짜기 맑은 시냇물이 곁들여서 가는 곳마다 산수풍경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도 오랜 옛날부터 시냇물이 맑고 좋다하여 淸水라는 이름이 생겨나 마을 이름이 되었다. 이곳은 여름철이면 피서·淸遊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찾아 들고 있다. 3·1운동 때 48인의 한 사람으로 만년에 세상을 등지고 山水를 찾아 불평의


북한산국립공원(정릉)

심회를 달래던 偶丁 林圭는 정릉계곡을 찾아 이런 詩를 읊고 있다.

한 그릇 물을 마시며 童子의 예절을 생각하고
나무 그늘에 앉아 옛사람 은혜 감사한다.
간신히 걸어서 정릉골짜기에 이르니
숲 속의 서늘한 바람불어 정신을 상쾌하게 한다.
勺水深知童子禮 樹陰偏感古人恩
辛勤行到貞陵谷 林吹淸涼淨返魂

또 淸水洞 위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登山路가 北漢山城의 大成門·輔國門을 지나 북한산 정상인 白雲臺에 이르고, 보국문을 넘어서면 동북쪽으로 露積峰·萬景臺·白雲臺·仁壽峰 등 북한산의 웅장하고 기묘한 봉우리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심봉사·영추사 등 사찰이 계곡 사이에 있어 풍광을 더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산 즉 삼각산을 읊은 詩 한 수를 살펴보자.[42]

공중에 높이 솟은 세 송이 푸른 연꽃
아득한 구름안개 몇만 겹인고
전년에 樓臺에 올랐던 곳 추억하니
날저문 절간에 종소리 두어번 울리네
聳空三朶碧芙蓉 縹緲煙霞幾萬重
却憶當年倚樓處 日沈蕭寺數聲鍾

이 시는 高麗 때 吳洵이 지은 시이다. 또 李存吾는 다음과 같이 북한산을 읊고 있다.

세 송이 기이한 봉우리 멀리 하늘에 닿는데,
아득한 大氣에 구름연기 쌓였네
쳐다보니 날카로운 모습, 長劒이 꽂혔는데

가로 보니 엇비슷 푸른 연꽃 솟았네

42) 上同 山川條.

언젠가 두어해 동안 절간에서 글 읽을제,
2년간 한강가에 머무렀네
누가 있어 산천이 무정타고 말하던가
이제 와서 서로 보니 피차가 처량하네
三朶奇峰迥接天 虛無元氣積雲烟
仰看廉利攙長劒 橫似參差聳碧蓮
數載讀書蕭寺裏 二年留滯漢江邊
孰云造物無情者 今日相看兩慘然

〈羅 恪 淳〉

II. 甲午改革(1895년)에서 大韓帝國 末까지의 城北地域

1. 漢城府 行政區域 개편과 城北地域

1) 甲午·乙未年의 地方制度 개혁과 漢城府

朝鮮時代의 地方行政制度는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500년을 이어오는 동안에 쌓이고 쌓인 여러가지 폐단의 누적으로 조만간에 근본적인 개혁을 보아야 할 불가피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각 고을마다 한 두 사람의 官員이 專制王權의 대행자로 앉아, 그 고을의 일반행정·경찰·사법·세무·군사 등 國政 전체에 걸친 권한을 자행할 수 있었으며 그 직위도 중앙의 몇몇 세도가에 의해 매매가 될 만큼 문란해져 있었다. 그리하여 지방마다 貪官汚吏가 횡행하고 백성에 대한 苛斂誅求가 성행하였으니 백성들의 불만은 충만하여, 계기만 있으면 폭발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런 불만에 불을 지르고 이를 조직화한 것이 東學이었고 東學革命에 원인하여 甲午年 內政改革이 거론되었으니 지방제도의 개혁은 내정개혁의 우선순위에 매우 앞서 있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甲午年 6월 8일에 大鳥公使가 老人亭에서 제안한 內政改革方案綱目 5개조 26개항에는 그 제1조에서 「중앙정부의 제도 및 지방제도를 개정하고 아울러 인재를

채용할 것」이라 하고 그것을 풀이한 제4항에 「현재의 府·郡·縣治는 그 數가 과다하므로 마땅히 이를 酌量·廢合하여 民治에 무방하도록 少數로 할 것」이라 했으며 제10항에서 「지방관리의 情弊를 矯正하는 法을 설정할 것」이라 권고하고 있다.

東學革命의 직접적인 원인이 古阜郡守의 虐政에 있었다는 점에서도 지방제도의 개혁은 다른 모든 개혁에 우선해야 될 성질의 것이었지만 지방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중앙의 관제를 바꾸는 것에 비해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郡·縣 하나를 줄이는 데도 지방마다의 이해가 갈리고 土豪 儒林들의 세력판도에 관계되어 소위 지역감정이라는 것이 동원되기 쉬울 뿐 아니라 地形, 地勢 등에 관한 조사도 선행되어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甲午年 개혁 때는 中央官制의 개혁에 따르는 지방관서의 관장기구와 首都 漢城府의 직급조정, 首都治安을 담당하는 警務廳의 설치 및 지방정부에 근무하는 文武官들의 임용제도의 개혁이 있었음에 그쳤으니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甲午年 6월 28일 議政府案(議案)으로 中央 各衙門官制를 정하여 內務·外務·度支·法務·學務·工務·軍務·農商務의 8개로 나누고 지방의 일반행정은 內務衙門의 州縣局에서 관장케 하였다. 지방의 稅務는 度支衙門 主稅局에서, 그리고 驛遞·電信·鐵道·鑛山·建築·土木 기타 국내의 모든 工作·營繕事務는 工務衙門에서, 전국의 陸海軍政은 軍務衙門에서, 農業·商業·藝術·漁獵·營業社會 등은 農商衙門에서 각각 관장하여 각 지방관서를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19세기말 동소문이 있던 돈암리

중앙관제를 이렇게 바꾸어 놓고 보니 당장에 문제되는 것이 漢城府의 직제였다. 이제까지 漢城判尹은 지방행정의 책임자이면서 京官職이었고 그 직급도 六曹의 判書와 동급인 正二品이었다. 그러므로 종전까지 漢城判尹은 조정에서의 모든 정책결정에 六曹의 判書와 같은 자격으로 참여

했는데, 새 中央官制下에서는 편제상 漢城判尹을 각 衙門大臣과 동급으로 다룰 수는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각 衙門大臣이 종일품 勅任官이 되고 각 아문의 協辦(차관)과 警務使가 종이품의 勅任官이 된 데 대하여 한성부는 종전까지 보조자였던 少尹을 三品 奏任官인 府尹으로 개칭하여 한성부 행정책임자로 하는 격하를 단행하였다. 또 종전에 있던 左尹·右尹의 자리도 없애버리고 종전의 判官·主簿는 主事로 개칭하였다.

漢城府의 지위를 이렇게 격하한 대신에 首都治安을 위해서는 甲午年 7월 14일에 「警務廳官制職掌」을 제정·공포하여, 종전의 左·右捕盜廳을 없애는 대신에 警務廳을 두어 首都의 경찰행정 일체를 관장하게 했다. 경무청은 관제상 內務衙門에 소속되었고 他 衙門의 대신은 각기 자기의 관장사무에 관하여 직권으로 警務使를 명령·지휘할 수 있었으나 그 사실상의 기능은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신설된 강력한 독립관청으로서, 長官인 警務使는 중대한 업무는 總理大臣에게 직접 품의하고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함으로써 사실상은 어느 平 大臣보다도 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甲午年의 大改革 때는 지방제도를 바꾸지 못했는데 乙未年 개혁 때는 內閣官制가 나온 후 한 달이 훨씬 넘어, 대단한 難産으로 5월 26일에야 이것을 발표한다. 국왕은 이날 특히 詔勅을 발하여 「……本朝의 지방제도가 盡善치 못하므로 州縣이 고르지 못하고 冗員이 많아 苛稅重斂하는 폐해가 自出하야 上惠가 下究치 못하고 下情이 상달치 못하니 오호라 금슬이 不調하면 更張함을 요하니 行政하는 道는 時를 인하여 宜를 制함이니 今에 監司·留守 등의 舊制를 폐하고 府와 郡의 신규를 정하야 弊源을 防杜하야 兆民으로 더불어 태평한 복을 共享코저 함이니 汝百執事와 庶民은 朕意를 체하라」하는 유시를 내린다.

地方制度改編의 내용은 ① 전국을 23개의 府로 나누어 전국 337개의 郡을 23개 府의 관할하에 소속시켰고 ② 종래 留守府·府·牧·大都護府·都護府·郡·縣으로 되어 있던 고을을 일률적으로 모두 郡으로 하고 府에는 觀察使를, 郡에는 郡守를 두어 행정사무를 총괄토록 한 것이다.

이때 漢城府도 23府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그 아래에 다음의 11개 郡을 두었다.

漢城府

漢城・楊州・廣州・積城・抱川・永平・加平・漣川・高陽・坡州・交河 (11)

이 乙未年 지방제도 개혁은 여러가지 특징을 지녔는데 그 중의 하나가 首都 漢城의 지위의 격하였다. 즉 甲午年 개혁에서도 判尹을 없애는 대신 少尹을 府尹으로 바꾸고 左・右尹을 없애는 등 대폭적인 격하가 있었음은 전술하였다. 그런데 乙未年 개혁에서는 京畿道를 없애는 대신 漢城府를 두고 종전의 한성부는 漢城郡으로 낮추어 주변의 10개군과 더불어 한성부 관할에 소속시킨 것이다. 한 가지 특색은 한성군에는 당초부터 郡守를 두지 않고 漢城府觀察使가 직접 漢城郡내 5署를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전국 337개군을 5등급으로 나누어 군수의 봉급급수를 구분하는 작업에서 한성군은 처음부터 5등급의 어느 급에도 분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알 수가 있다.

2) 建陽・光武年間의 改革과 漢城府

전국을 23府로 나눈 지방제도의 개혁은 王妃弑害와 斷髮令을 계기로 적지 않은 고역을 치러야 했다. 즉 왕비시해가 일어나고 그것이 일본인들이 주동이 되었음을 알고 난 전국의 민심은 그 원한을 新任觀察使와 新任郡守들에게 퍼붓기 시작했다. 관찰사와 군수가 開花派內閣에 의해 임명된 개화 동조자들이며 개화파의 배경에 일본이 있고 일본이 왕비를 죽였으니 관찰사와 군수들이 곧 國母弑害의 원수들과 통한다는 논리의 귀결이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倭 觀察使・倭 郡守라 불려지게 되고 그들의 威令을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도리어 거센 저항과 반발에 봉착하게 된다. 八道制下에서 500년을 이어온 백성들, 특히 지배세력인 토호・유림들에게는 府制度 자체가 마땅하지 않았으니 그들의 관념으로는 八道制만이 옳을 뿐이었다.

斷髮令이 내린 후 관찰사와 군수는 그 직책상 솔선해서 단발해야 했고 단발의 독려에도 나섰으니 그동안 백성들간에 쌓이고 쌓였던 불만——일본에 대한 복수심, 개화파에 대한 울분, 갑오년 이후 잇달은 개혁에 대한 불만 등이 마침내 폭발

하였다. 각지에서 義兵이 일어나고 난동이 일어나자 우선 그 응징의 대상이 된 것은 군수와 관찰사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백성들의 손에 타살되거나 포로가 되는 비운을 겪어야 했고 민정이 소요하고 朝令이 불통해진 형세하에서는 관찰사나 군수의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사직의 상소가 줄을 이었다.

국왕이 俄館에 있으면서 정부는 우선 단발의 강행을 취소한 데 이어, 23府制에서 1府 13道制로 후퇴하는 칙령을 발하였는데 建陽 원년(1896) 8월 4일이었다. 이것은 내각을 고쳐 議政府라고 후퇴하기 한 달 전의 일이니 建陽·光武年間에 이룩된 왕권회복 통치체제의 시작이었다. 지방제도만이라도 옛것(舊)에 돌아감으로써 혼란의 극에 처한 지방민정을 수습하는 방안으로 생각한 정책이었다.

建陽 원년(1896) 8월 4일 勅令 제36호 地方制度改正에 의한 1府 13道는 종전의 8道중 지역이 좁거나, 호수·결수가 적은 京畿·黃海·江原의 3도는 예전대로 한 개 道로 하고 나머지 5개 도를 남북으로 나누어 두 개 도로 한 형태를 취했으며 한성부 5서구역에는 특별히 1개 府를 두어 首府로서 독립시키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전년의 23府 개혁에서 수도의 지위를 한성군으로 격하한 것이 일부의 비난을 샀던 탓인지 이번 개혁에서는 한성군을 府로 승격하고 漢城判尹과 각 道 관찰사를 동격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道에는 관찰사 밑에 6명의 主事만을 두었는데 漢城府에는 판윤의 보좌관으로 少尹을 두고 그 밑에 5인의 주사를 두었음이 특색이었다.

이때의 개혁으로 漢城判尹은 內部大臣의 일반적인 지휘감독과 各部大臣의 소관별 감독을 받고 관내의 5署를 지휘감독한 것이다.[43]

2. 安岩洞「日韓神宮奉敬會」전말

安岩洞의 옛 소속은 高陽郡 崇仁面 安巖里였으며 大韓帝國時代에는 漢城府 東部 崇信坊 安巖洞이었다.

1905년 11월에 서울에 統監府라는 것이 설치되어 이른바 保護政治라는 것이 시작되자 당시 서울에 와있던 일부 日本人들은 제1급 親日派들을 종용하여「이제

43) 이상 孫禎睦 저, 韓國地方制度·自治史研究(上), 一志社, 1992, 제1장에서 발췌하였다.

韓國은 어차피 日本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런데 앞으로 일본과 한국은 一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神社를 만들기로 하자. 그 神社에는 조선의 始祖인 檀君과 일본의 始祖인 天照大神 그리고 朝鮮王朝를 건국한 太祖의 3柱로 하고 神社의 이름은 日韓神宮이라고 하자. 이 神宮建立에는 조선사람들이 앞장서서 함으로써 日本政府에 충성심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부추긴다. 당시 日本人들에게 붙어서 榮譽와 權力·金力을 얻으려고 血眼이 되었던 親日人士들이 여기에 앞장서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神宮의 위치와 면적

神宮造營의 예정지는 漢城府 崇信坊 安巖洞 中里의 御座峰이며 현 安岩洞 124번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으로 그 면적은 1,608평 6합이었다. 이 땅은 제22대 王 正祖의 後宮이었던 元嬪 洪氏의 묘였던 元嬪墓가 있던 작은 언덕 西端의 중턱이었으며 훗날 敦岩地區 구획정리사업으로 부지의 西半에는 새 道路가 났고 도로의 서쪽은 주택지로 개발된 곳이다.

당시에 이 일대는 松林이 우거져 保安林指定地였는데 神宮地域 예정지 일부가 保安林에 속하고 있었기때문에 당시의 農商工部 大臣 趙重應은 隆熙 3년(1909년) 9월 4일에 이 保安林중에서 692평을 해제하고 같은 해 10월 6일자 官報에 이를 告示하였다. 당시의 한국정부는 保護政治의 후기였기 때문에 모든 政務는 일본인으로 배치된 次官들이 거의 전행하였고 이 日本人 次官을 통하여 사전에 統監府의 지도를 받거나 양해를 얻은 후에 시행된 것이므로 10월 6일자 官報의 기사가 9월 4일 날짜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日韓神宮 造營의 件은 미리 統監과 日本人 次官들 그리고 舊韓國政府의 各 大臣사이에서 公式으로 논의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官報에 게재된 告示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農商工部 告示 제30호

漢城府 東部 踏十里 安巖洞 民有森林 面積 貳反參畝貳步 右 保安林을 解除함
隆熙 3년 9월 4일 農商工部大臣 趙重應

2) 神殿의 設計와 神位

神殿설계의 개요는 우선 本殿으로서 오른쪽(東方)부터 檀君天皇 正殿, 天照皇 正殿, 太祖高皇帝 正殿의 三殿을 배치하고 다음에 神殿 앞뜰의 오른쪽에 移安殿을, 그리고 왼쪽 排設廳을, 그 前面(南方) 오른쪽에 札殿, 왼쪽에 守僕廳, 正面에 三門을 건립하도록 예정하였다. 그 밖에 檀君碑閣·天照皇碑閣·太祖碑閣·世宗王碑閣 등 4개의 기념비각, 神宮事務所·神宮婦人事務所 등의 건립을 예정하고 조선에 있어서의 廟殿으로서의 體制를 완비한 것이었다. 그리고 神位는 다음의 세개가 예정되었다.

大朝鮮開國 大始祖 檀君天皇 神位
大日本開國 大始祖 天照大神 神位
大韓開國太祖至仁啓運應天肇統廣勳永命聖文神武正義光德高皇帝 神位

3) 上棟文과 諸規定

神宮내 3개 本殿의 上棟文 草案도 아주 長文으로 작성하였고 焚香式의 순서도 정했으며 祭享의 禮式은 四時의 大祭는 太廟의 禮에 따르고 春秋의 大亨은 文廟(成均館)의 例에 따라 매년 3월·9월의 上丁日에 거행하도록 하고 祭日 당일의 初獻官·終獻官·執禮·大祝·典祀官 기타 등등의 制度도 모두 정했으며 祭器라든가 일반 亨需는 太廟(宗廟)의 例를 따르도록 하였다. 또 隆熙 3년(1909년) 8월 21일자로 3章 24개 조문으로 된 神宮奉敬會建築所 規則, 9개조문으로 된 別錄建築規則, 2개 조문으로 된 編輯規則 그리고 婦人入許門碑規則 등을 제정하였다.

4) 事業發起人

이 사업의 발기인은 아래와 같으며 이밖에 監督·監董 등을 합하여 216명을 선정했다고 한다.

總 議 長　李 埈 鎔
總 副 議 長　李 址 鎔

上 議 長　閔泳徽
上副議長　尹逈求
公事議長　金昇圭
副公事議長　尹震求　趙鼎衍
贊成議長　高橋久司　尹　璶　閔丙漢　李奎鎭　沈九澤
總務監督長　韓成奎
總監督長　鄭殷采
副總監督長　鄭秉源
會計監督長　張英喆
掌財監督長　許起龍
財務監督長　金興演
基址監督長　金泰淵
副監督長　韓殷奎
編輯監督長　金大圭
編輯副監督長　田文珏

또 이 神宮 건립에 관한 附帶事業도 계획하여 總務部·禮典部·敎育部·實業部·財務部의 5부를 설치하여 총 92명으로 이를 조직하였다.

이상은 당시의 日韓神宮奉敬會建築所가 발행한 「神宮建築誌」에 기재되어 있는 계획의 개요인데 그후 이 계획은 어느 정도까지 진척된 채 중단되었으니 그것이 중단되어 버린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훗날(1941년) 京城府가 京城府史 제3권을 발행하면서 당시 安岩町 122번지에 거주하여 당시의 상황을 실지로 목격했다는 洪春成이란 노인(1939년 당시 75세)에게 물어보았더니 「神宮建築을 위해서 많은 量의 石材·木材가 운반되어 와서 이곳에 퇴적되어 있었으나 資金의 不足으로 중지했다고 들었다」는 대답이었다는 것이다. 위의 직책에 거명된 자는 1939년 당시에는 모두 作故하였는데 오직 贊成議長이었던 閔丙漢만은 신장병으로 다년간 病中에 있었으나 아직 생존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문의한 즉 「資金이 달려서 중지했담」고

만 답변했다는 것이다.[44] 그러나 城北區誌의 일부를 집필중인 필자의 추측으로는 이 神宮에 奉祠될 3神位중에 日本神은 天照大神 뿐이고 나머지 2개의 神位가 檀君과 朝鮮國의 太祖였다는 점에 일본의 神社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대하였고 伊藤博文 統監 등을 통하여 공사진행을 중지시켰을 것으로 생각한다.

위에 거명된 자들은 당시에 모두 일급 親日派였고 또 개중에는 李埈鎔(興宣大院君의 손자)과 같이 그 이름만 빌려준 자도 있겠으나 거의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日帝에 아부하여 權勢의 언저리에 있고자 한 자들이었다.

1910년에 韓日合邦이 되자 그해 10월 7일자로 다수의 조선인이 貴族이 되었으나 乙巳五賊의 하나였던 李祉鎔은 伯爵 勳一等을 받았고 閔泳徽는 子爵을 받았으며 그외에도 合邦功勞者로서 모두가 日本政府로 부터 이른바 「恩賜金」이라는 多額의 돈을 받아 日帝초기에 好衣好食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Ⅲ. 日帝下의 城北地域

1. 日帝强占 초기의 行政區域 개편과 城北地域의 高陽郡 편입

1910년 8월에 韓半島를 자기네의 식민지로 하는데 성공한 일제는 그해 10월 1일자 總督府令 제1호로써 「府·郡의 명칭 및 管轄區域」을 공포하였다. 이것은 그에 앞서 발표된 地方官官制 제17조에 의한 것이며 京城府의[45] 위치·명칭은 다음과 같다.

명칭	위치	관할구역
京城府	京城	종래의 漢城府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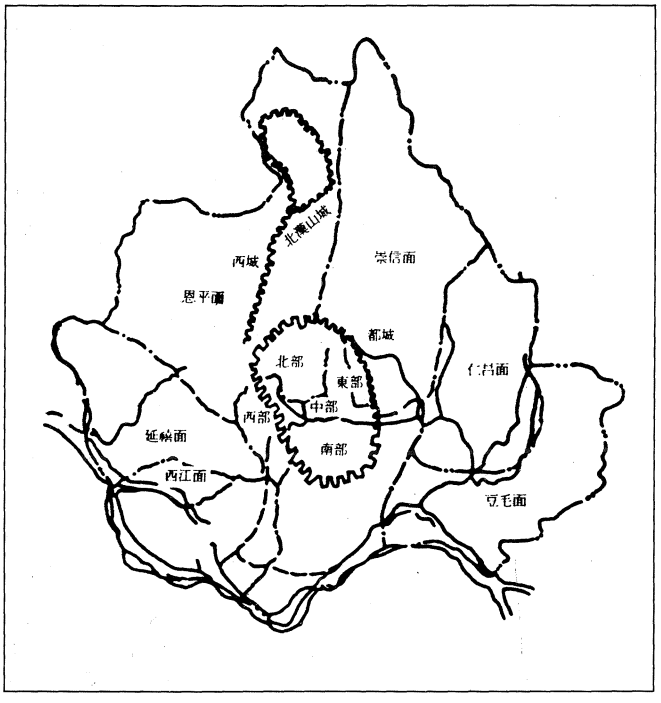
이어 1911년 4월 1일에 京畿道는 道令 제3호로써 京城府와 그 관내의 面의 명칭 및 구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同日字로 시행하였다.[46] 이른바 5部 8面制의 실

44) 이상 京城府史 3권, 京城府 1941년 발행 pp.842~845.
45) 漢城府가 京城府로 개칭된 것은 1906년 2월에 朝鮮統監府를 설치한 때부터의 일이다.
46) 京城府史 2권, pp.520~521.

시였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都城內와 都城外의 일부는 동·서·남·북·중의 5부로 하고 동부에 蓮花·建德·昌善·崇敎의 4방, 서부에 積善·養生·仁達·皇華·餘慶·盤石·盤松의 7방, 남부에 明哲·太平·樂善·明禮·誠明·會賢·薰陶·廣通의 8방, 북부에 廣化·觀光·陽德·俊秀·嘉會·鎭長·安國·順化·通義의 9방, 중부에 貞善·慶幸·長通·瑞麟·壽進·堅平·澄淸의 7방으로 하여 5부 35방으로 하였으며, 都城外는 과거의 龍山坊을 龍山面(31個 洞·里)으로, 西江坊을 西江面(10個 洞·里)으로, 崇信坊을 崇信面(40個 洞·里)으로, 豆毛坊을 豆毛面(11個 洞·里)으로, 漢江坊과 芚芝坊을 합하여 漢芝面(9個 洞·里)으로, 延恩坊과 常平坊을 합하여 恩平面(36個 洞·里)으로, 仁昌坊을 仁昌面(40個 洞·里)으로, 延禧坊을 延禧面(30個 洞·里)으로 하여 8面 207개 동·리로 하였다. 이리하여 京城府는 5부 35방, 8면 661洞·里가 되었으며 그 면적은 약 16方里로 되었고 部에는 부장을, 面에는 면장을 두었으며 이들은 모

〈그림 1〉　　5部 8面圖



두 判任官 대우로 하였고 府尹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部·面의 업무를 담당케 하였다.[47]

總督統治가 처음의 3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혀가자 조선총독부는 1913년 10월에서 14년 4월에 걸쳐 대대적인 지방제도 개혁을 단행하고 1914년 3월 1일과 4월 1일을 기하여 일제히 실시에 옮긴다. 이 지방제도 개혁이 기도한 것은

첫째, 종래의 府郡制를 폐하여 府를 都市行政의 기본단위로 하고 日本居留民團과 各國共同租界를 폐지하여 지방행정의 일원화를 기하였으며

둘째, 종전에 일본거류민단이 가지고 있던 재산중 收益性이 있고 實利的인 것은 모두 일본인 교육을 위한 學校組合에 승계하고 居留民團이 안고 있던 부채 중의 많은 부분을 府에 승계케 함으로써 일본인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한편 이를 한국인의 부담으로 전가하였으며

세째, 郡과 面의 대대적인 廢置分合을 통하여 郡·面의 수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통제력의 강화, 경비의 절감을 기한 점이었었다.

즉 朝鮮總督府는

1913년 10월 30일자	制令	제 7 호	府制
1913년 12월 29일자	總督府令	제111호	道의 위치·관할구역 및 府郡의 명칭·위치·관할구역
1914년 1월 25일자	總督府令	제 2 호	府制 및 學校組合令 시행에 관한 件
동일자	總督府令	제 3 호	府制 施行規則
1914년 3월 31일자	總督府令	제 28 호	府制 및 學校組合令 施行期日

등등 일련의 법령으로 1914년 4월 1일을 기하여 경성·인천·군산·목포·대구·부산·마산·평양·신의주·원산·청진의 12개 지역에 府制를 실시한다. 여기서의 府制는 1910년 10월 1일의 12府制와는 달라 그 관하에 面을 가지지 않는 지방행정의 기초단위로서의 府이며 허울만은 自治行政을 표방하는 公法人인 것이 특색이다. 이때의 府制가 기도한 것은 여러가지가 있었으나 그 첫째는 종전까지 12府가 관하에 두고 있던 農村面을 분리하여 별도의 郡으로 독립시키고 나머지 市街地지역으로 새로운 府를 창설하였으니 새 府는 지방행정상 순전한 도시지역만을

47) 同 上.

관할하는 기초단위가 된 것이다. 따라서 그 면적은 넓을 수가 없어 京城의 약 36 km^2를 필두로 木浦의 2.4km^2까지 있어 12개 府의 평균면적은 11.7km^2밖에 되지 않았다(참고로 1980년말 현재 전국 40개 市의 평균면적은 116.8km^2이며 204개 邑의 평균면적은 67.68km^2이니 당시의 府域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다).[48]

이 새로운 府制의 실시로 종전까지 항상 漢城府 또는 京城府 행정구역내에 포함되었던 城外 8개面 중 龍山面을 제외한 거의 모든 面部가 高陽郡에 편입하게 된다.

京畿道는 1914년 3월 13일 다시 道令 제3호로 道內 各面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때에 京城府 8면중에서 일부는 京城府로 편입하고 일부는 京畿道 高陽郡에 편입시켰다. 따라서 京城府 5부 8면제도는 시행한지 3년만에 폐지되었다. 이 때에 高陽郡으로 편입된 지역은 龍江面·延禧面·恩平面·崇仁面·纛島面·漢芝面 등 6개 面이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49]

① 龍江面 : 龍山面 일원, 西江面 일원, 延禧面 汝矣島 일원

② 延禧面 : 延禧面(汝矣島 제외) 일원, 下道面 德陰里 일부(蘭芝島)

③ 恩平面 : 恩平面 중에서 神道面구역에 속하지 않은 지역.

④ 崇仁面 : 崇信面 일원과 仁昌面의 徽慶園·踏十里·典農里·清涼里·回基里·餠店里·長位里·石串里·上月谷里·祭基里·龍頭里

⑤ 纛島面 : 豆毛面 중에서 漢芝面에 속하지 않은 지역, 古陽州郡 일원

⑥ 漢芝面 : 漢芝面 일원, 豆毛面의 豆毛浦·水鐵里·新村里·新堂里·杏堂里·箭串洞·餘契洞·舞鶴洞·瑞池洞, 仁昌面 중에서 崇仁面구역에 속하지 않은 지역

즉 새로 생긴 崇仁面은 종전의 崇信面 일원과 仁昌面 중에서 漢芝面에 속하게 된 上往十里·下往十里·馬場里·沙斤里를 제외한 지역으로 형성되었으며 崇信面의 「崇」字와 仁昌面의 「仁」字를 따서 崇仁面으로 한 것이다. 새로 崇仁面을 이루게 된 洞里名과 그 洞里들의 종전 소속을 보면 다음과 같다.

48) 이상 孫禎睦 저, 韓國地方制度·自治史研究(上), pp.116~124.

49) 朝鮮總督府官報 1914년 3월 13일자 號外.

崇仁面(22개 洞里)

城北里(京城府 崇信面 城北洞)
新設里(〃 〃 新設契 塔洞 遇仙里 安岩新里)
安岩里(〃 〃 安岩里 剖石洞 宮里 園里)
鍾岩里(〃 〃 大鍾岩 小鍾岩)
彌阿里(〃 〃 彌阿里 佛堂洞)
敦岩里(〃 〃 敦岩里 三仙坪)
貞陵里(〃 〃 大貞陵洞 小貞陵洞 清水洞 孫可亭)
樊 里(〃 〃 樊 里)
水踰里(〃 〃 大水踰里 小水踰里 加五里 華溪洞)
牛耳里(〃 〃 牛耳里)
踏十里(京城府 仁昌面 踏十里)
典農里(〃 〃 典農里)
清涼里(〃 〃 清涼里)
回基里(〃 〃 回基洞 餠店里)
徽慶里(〃 〃 徽慶園)
里門里(〃 〃 里門洞)
長位里(〃 〃 長位里)
石串里(〃 〃 石串里)
上月谷里(〃 〃 上月谷)
下月谷里(〃 〃 下月谷)
祭基里(〃 〃 祭基里)
龍頭里(〃 〃 龍頭里)

그리고 이때 崇仁面 面事務所는 祭基里에 있었고 훗날 新設里 87번지로 옮긴다.

2. 京城府 區域擴張, 崇仁面 일부 京城府 편입, 出張所·區 설치의 과정

1914년의 府制실시 이래로 京城府는 겨우 3,648.4町步(약 36.18km²)의 좁은 구역

내에 40만이 넘는 大人口를 수용하여 매우 어려운 행정을 22년간이나 지탱하여야 했었다. 이리하여 京城府의 區域擴張은 總督府·京畿道廳 당국자들에 의하여 1930년대의 초부터 진지하게 논의된 듯하며 그것이 보다 구체화된 것은 1934년 6월 20일자 制令 제18호로 朝鮮市街地計劃令이 발포되고 이 법령에 의해 경성부에도 대대적인 市街地計劃이 수립될 것이 전망되면서부터의 일이었던 것 같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京城府 구역확장에 관한 책임있는 발언의 시초는 1932년 12월 27일에 있었던 府尹의 기자회견에서였다. 이날의 定例 기자회견에서 井上 清 京城府尹은 「都市計劃令의 시행과 함께 京城府의 구역을 크게 확장하겠음」을 밝히고 있다.[50] 그리고 京城府는 아마 1933년 초부터 구역확장에 수반한 여러가지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府議會에도 그 구체안을 상정하여 隱密裡에 그 내용을 협의하였고 편입될 高陽郡·始興郡·金浦郡 관계자들도 회합을 가지면서 착착 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51]

처음에는 1934년 7월 1일, 또는 늦어도 1935년 초에는 구역확장이 실현되리라는 생각에서 만반의 준비를 진행하였으나 그렇게 쉽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京畿道와 편입될 西部를 가지는 始興郡·高陽郡의 저항이 강했던 것이든지 아니면 동시에 단행될 예정되었던 市街地計劃의 준비가 늦었던 것이 그 이유였을 것 같다.

京城府의 구역확장이 실현된 것은 1936년 2월 14일자 總督府令 제8호로 그해 4월 1일부터의 일이었다. 이때 京城府의 구역은 동쪽으로 高陽郡 崇仁面내의 中浪川 右岸의 지역, 서쪽으로 弘濟川 左岸 즉 高陽郡 延禧面의 일부와 龍江面 전역, 남쪽으로 漢芝面 일원 및 漢江對岸의 始興郡내 永登浦邑 전역과 北面중 上道川 右岸의 지역과 道林川 右岸의 지역, 東面중 上道里, 金浦郡 陽東面에서 安養川 右岸의 지역(오늘날의 楊花洞) 등이 편입되었고, 북쪽으로 高陽郡 恩平面내 弘濟內里·弘濟外里의 弘濟川 左岸의 지역과 付岩里·弘智里·新營里 그리고 崇仁面 貞陵川 以南의 지역이었다. 즉 종전까지 崇仁面 관내였던 지역중에서 일부는 京城府

50) 東亞日報 1932년 12월 29일자 2면 4단 기사.
51) 同上 34년 3월 14일자 朝刊 2면 7단, 동 5월 9일자 2면 7단, 동 5월 21일자 2면 5단, 5월 30일자 朝刊 2면 8단 기사 등.

에 편입되고 나머지 일부는 그대로 崇仁面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편입된 지역과 崇仁面으로 남게된 지역은 아래와 같다.[52]

京城府로 편입된 지역

城北里·敦岩里·新設里·安岩里·鍾岩里·踏十里·典農里·清涼里·祭基里·龍頭里·回基里·里門里·徽慶里·貞陵里의 일부(이때부터 敦岩洞에 편입된다.)

高陽郡 崇仁面으로 남게 된 지역

貞陵里·彌阿里·長位里·石串里·樊里·牛耳里·水踰里·上月谷里·下月谷里

1936년의 이 구역확장으로 京城府의 면적은 종전의 36.18km의 약 3.7배에 달하는 136km²가 되었으며 인구수도 23만 2천여를 더하여 일약 63만 6,800인을 넘게 되어 日本國內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大都市가 되었는데 京城府는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2,000명을 초대한 대 축하연, 5만 아동을 동원한 祝賀 旗行列 행사를 벌였고 京城電氣(株)에서는 꽃電車를 만들어 운행하는 등으로 祝賀一色을 이루었다.[53]

이 구역확장에 따라 京城府는 條例 제6호로 龍山·東部·永登浦의 세 출장소를 설치, 4월 1일부터 개설했는데 종전 漢芝面에 속했던 梨泰院·漢江(漢南町으로 개칭)·普光·鑄城·東氷庫·西氷庫·屯芝의 각 洞里는 龍山出張所에 속하고 往十里·馬場 등 9개 동리는 종전까지 崇仁面에 속했던 여러 동리와 합쳐져서 東部出張所 관할에 속한다. 이때 東部出張所 청사는 종전까지 崇仁面事務所였던 新設里 87번지 자리였으며 관내의 洞里名은 아래와 같다(京城府에 편입하면서 종전까지의 里는 町으로 개칭된다).



1930년대말 돈암리 일대

52) 1936년 2월 14일자 總督府令 제8호, 官報 1936년 2월 14일자 제2724호.
53) 同上 36년 4월 1일자 4면 1단 기사.

敦岩町・昌信町・崇仁町・新設町・安岩町・祭基町・清涼里町・回基町・里門町・徽慶町・典農町・踏十里町・沙芹町・馬場町・杏堂町・鷹峰町・金湖町・下往十里町・上往十里町・新堂町・玉水町

※ 崇仁面에서 같은 날자로 京城府에 편입된 城北町은 이때 東部出張所 관내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本廳 관할이 되었고 1943년에 區制를 실시할 때에는 鐘路區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각 출장소의 직제와 업무는 아래와 같았다.

① 庶務係 : 文書의 接受發送과 보관・통계보고・공고・숙직・廳中取締・町會・商工・農林・水産・기타 産業・救恤慈善・衛生傳染病・屠畜・道路・下水・撒水・上水給水 등에 관한 사항과 他係에서 주관하지 않는 사항.

② 戶籍係 : 戶籍과 居住・印鑑・入學願書의 受理, 身分과 기타 諸證明 埋葬・改葬・火葬 등의 認許, 墓地(家族墓地, 團體墓地, 弘濟院墓地는 제외), 火葬場의 使用許可 등에 관한 사항.

③ 稅務係 : 府稅, 雜種稅(電柱, 金庫 제외) 稅外收入의 賦果徵收, 車輛과 犬의 鑑札交付, 公課・營業・기타 諸證明・歲入歲出 등에 관한 사항.[54]

그런데 1937년 7월 7일에 中日戰爭이 일어나자 地方行政 여러 분야의 사무가 폭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府 本廳 및 각 출장소의 직원 증원, 출장소의 증설(1940년 7월 1일자로 西部出張所를 하나 더 신설한다) 등의 방안으로 대처해간다. 그러나 1941년 12월 8일에 일본이 美・英에 선전포고하여 이른바 太平洋戰爭을 일으키게 되자 행정사무는 보다 더 폭주한다. 즉 종전의 일반 행정사무에다가 이른바 時局事務라는 것, 糧穀 供出・金屬類 공출・食糧統制 및 配給, 兵力動員・勞務動員・防空練習・愛國班組織運營 등의 신규사무가 폭주하게 된 것이다. 사무가 폭주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은 人口增加에 있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늘기 시작한 인구는 1936년의 구역확장 이래로 더욱 더 늘어나 1940년에는 이미 인구 100만의 선에 도달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朝鮮總督府・京畿道・京城府가 합의한 끝에

54) 서울특별시조직변천사, 서울특별시, 1987, p.92.

1943년 6월 9일자 總督府令 163호「京城府 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발하여 동년 6월 10일을 기하여 區制를 실시한다. 즉 종전의 4개(龍山·東部·西部·永登浦) 출장소를 폐지, 東部出張所 관내를 東大門區와 城東區로, 그 외를 각각 龍山區, 西大門區, 永登浦區로 하였으며 都城內에 鐘路區와 中區를 신설하여 모두 7개 區로 한 것이다.

이 區制 실시에서 東部出張所 관내는 다시 두개로 갈라져 종전 漢芝面 관내는 城東區가 되고 崇仁面 관내는 東大門區가 되는데 東大門區가 된 12개 町名은 아래와 같으며[55] 區役所의 위치는 종전 그대로 新設町 87번지 였다.

敦岩·昌信·崇仁·新設·安岩·祭基·淸涼里·回基·里門·徽慶·典農·踏十里

※ 참고로 1944년 10월 23일자 總督府令 제350호로 西大門區 인접지역인 延禧面의 일부를 京城府로 편입했는데 이때 西大門區와 龍山區의 각 일부를 분할하여 麻浦區를 신설한다. 이렇게 해서 이룩된 8區制度는 8·15광복 때까지 계속된다.

區에는 區長을 두어 업무를 담당토록 하였는데 區를 설치할 당시에는 구장이 모두 일본인이었으며 이들의 업무는 法令에 의한 國家事務와 府制에 의한 府尹의 委任事務를 관장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法令에 의한 國家事務

戶籍과 寄留事務, 地稅令에 의한 각종사무, 納稅施設令에 의한 각종사무, 埋葬과 火葬에 대한 각종사무

② 府令에 의한 府尹의 委任事務

區소속 吏員이하의 指揮監督, 國稅의 徵收事務, 道稅와 府稅의 賦課·徵收事務, 使用料·手數料·負擔金·其他 諸收入의 徵收事務, 각종 證明事務, 墓地와 火葬場의 사용허가, 營造物(특정한 것은 제외)의 사용허가, 令達한 府費豫算의 집행사무 등

③ 府尹의 內部委任에 의하여 집행하는 國家事務와 團體事務

國民貯蓄組合에 관한 것, 糧穀配給에 관한 것, 行旅病人과 同 死亡人 등의 취급에 관한 것, 方面事業에 관한 것, 軍事扶助에 관한 것, 種痘에 관한 것, 府의 公

55) 1943년 6월 9일자 官報 기타.

用財産의 관리에 관한 것, 물품의 출납 보관에 관한 것 등이며,

④ 府尹의 보조기관으로서의 區長이 집행할 國家事務와 團體事務

總力運動에 관한 것, 防空防護에 관한 것, 貯蓄運動과 國債消化에 관한 것, 金屬回收에 관한 것, 保健衛生에 관한 것, 商工業의 장려에 관한 것, 기타사무 등이었다.[56]

3. 日帝下의 城北地域 變化에 영향을 미친 사건들

1) 城北地域 學校設立의 과정

城北지역에 최초로 설립된 근대적 학교는 私立 三山學校였으며 1909년 3월에 城北里에 입지하였다. 이어 崇仁公立普通學校가 1922년 6월 8일에 鍾岩里에 설립되었고 1924년 11월에 私立 仁昌普通學校가 설립되었다.

1933년 4월 1일 현재의 조사에 의하면 위의 3개 學校중 城北里에 있었던 私立三山學校는 4년제 보통학교로서 1·2학년이 각 1학급씩 그리고 3·4학년이 합쳐져서 1개 학급, 합계 3개 학급으로써 총 학생수는 약 48명 정도였다고 한다. 종암리에 있었던 崇仁公立普通學校는 男子가 1~6학년에 각각 1개 학급씩, 女子가 1~4학년 합쳐서 1개 학급, 5·6학년 합쳐서 1개 학급, 그리고 별도로 남자 3·4학년 합쳐서 또 1개 학급, 합계 9개 학급에 전교의 총 학생수는 63명이었다고 한다. 미아리에 있었던 私立 仁昌學校는 6년제 보통학교로서 각 학년 각 1개 학급씩, 총 학생수는 70명이었다.[57]

이렇게 1930년대 전반기까지의 학교설립은 실로 미미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지만 30년대 中半이후가 되면 그 양상을 달리해간다. 즉 1934년의 普成專門學校(현 高麗大學校)의 이전·개교, 1939년에는 京城高等商業學校(훗날 서울大學校 商科大學)의 鍾岩洞 이전·개교, 그리고 1940년에는 순 日本人 中學校인 旭丘公立中學校가 현 三仙洞 3가 50번지에 위치하게 된다.

---

56) 서울특별시조직변천사, 서울특별시, 1987, p.93.

57) 京城府行政區域擴張調査書, 京城府 1934년 발행, 제7장 敎育.

그리고 이상과 같은 日帝下의 學校立地가 오늘날 城北區 관내에 6개의 綜合大學校, 한 개의 專門大學 그리고 14개의 高等學校, 한개의 특수대학(中央僧伽大學)을 입지케 함으로써 可히 學校王國을 형성하게 된 기틀이 된 것이다.

2) 彌阿里·里門里 共同墓地 설치

崇仁面民들을 위한 공동묘지가 彌阿里와 里門里에 설치된 것은 각각 1913년 6월이었고 그 면적은 각각 19,944평과 35,420평이었다. 당시는 각 面別로 공동묘지가 있었으며 예컨대 오늘날의 龍山區 普光洞과 漢南洞에는 漢芝面의 공동묘지가, 城東區 廣壯里·九宜里에는 纛島面의 공동묘지가 있었던 것이 그 例이었다. 그런데 미아리에 崇仁面 공동묘지를 설치한 다음해인 1914년 4월에 京城府가 15만 5천평이나 되는 넓은 땅을 구입하여 이곳에 京城府 공동묘지를 조성한다. 일제시대 京城府 공동묘지는 崇仁面 彌阿里, 漢芝面 水鐵里(현 城東區 玉水洞), 恩平面 新寺里(현 恩平區 신사동), 漢芝面 梨泰院里(현 용산구 이태원동), 九里面 忘憂里(현 中浪區 망우리) 등 5개처에 있었는데 마지막의 九里面 忘憂里 공동묘지는 1933년 9월에 설치 개시되었고 나머지의 4개소는 모두 1914년 4월에 동시에 설치 개시된 것이다. 그리고 이들 공동묘지는 모두 조선인 전용이었고 일본인들은 火葬을 해서 유골만 보관하였다. 그리고 이 화장장은 恩平面 弘濟內里(현 西大門區 홍제동)에 있었으며 1929년 8월에 설치되었다.

당시의 공동묘지가 이렇게 시가지에 가깝게 입지한 것은 당시의 교통사정과 장례행사 때문이었다. 오늘날과 같이 葬儀車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喪輿를 꾸며 步行으로 이른바 行喪을 했기 때문에 너무 거리가 멀면 運柩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미아리에 설치되었던 공동묘지는 1950년대의 중반기에 모두 철거 이장되었고 그 자리는 무허가 건물 철거민 이주단지 등으로 이용되었다. 이 서울시 공동묘지가 있었던 자리는 지금은 거의가 道峰區 관내가 되어 있다.

3) 李壽興事件과 城北地域 住民의 受難

1926년 7월 10일 밤 10시 50분경에 어떤 조선인 청년 하나가 권총을 휴대하고 惠化洞 소재 東小門警察官 派出所를 습격하여 그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던 德永勝次란 일본인 순사를 亂射하여 重傷을 입힌 후 자취를 감춰버린 사건이 일어났었다. 당시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그것은 「近來에 드문 大事件」이었고 경찰의 체면이 말이 아닌 일이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간에는 아직도 사람의 往來가 빈번했었고 파출소 숙직실에는 非番인 韓·日人 두명의 경찰관이 드러누워 있었는데 범인은 이 일을 저지르고 난 뒤에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鐘路 5가에 있던 東大門警察署에 수사본부를 설치한 경찰은 市內 全 경찰관을 비상소집하여 범인체포에 총력을 기울이고 수사본부에는 2명의 현직 檢事와 京畿道 警察部 刑事課長과 高等課長이 직접 나와서 加藤 東大門署長과 협력하여 陣頭지휘를 할 정도였다.

이 사건으로 서울시내 家家戶戶가 수색되었지만 특히 城밖, 城北地域 주민들의 피해는 대단한 것이었다. 犯人이 北漢山쪽으로 잠적했을 것이라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城北洞·敦岩洞·미아리·貞陵洞의 家家戶戶와 林野는 구석구석까지 수색되었다. 당시의 경찰수색 내용을 신문은 아래와 같이 보도하고 있다.[58]

> **刑事 戶別調査 住民은 戰戰兢兢**
> 형사의 호별조사가 엄중해 일반부녀는 전전긍긍하다.……前略……東大門署員은 殺氣가 등등하여 戶口調査를 빙자하고 각호를 일일이 조사하여 主人없는 집 부녀들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하며 밤 12시만 지나면 걸어가든지 車를 타고 가든지 일일히 정지시키고 수색을 하고 訊問을 하는 등 (흡사) 戒嚴令이 내린 것 같은데 戶別調査를 하는 수색대는 권총을 휴대하고 다니므로 主人없는 집의 일반 부녀자들은 두려워하기를 마지 않는다더라

城北地域 주민들에 대한 수색이 약간 완화된 것은 그후에도 同一犯人의 소행으로 보이는 권총발사사건이 安城·利川 그리고 授恩洞(현 종로구 廟洞)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범인의 은신처가 北漢山 기슭이 아니라는 心證이 생겼기 때문이다.

安城事件이 일어난 것은 같은 해(1926년) 9월 9일 밤 8시경이며 安城郡 邑內面

58) 동아일보 1926년 7월 15일자 2면 7단 기사.

의 장남 朴泰秉을 死殺하고 마침 그 집에 와 있던 두사람에 重軽傷을 입히고 도주한 사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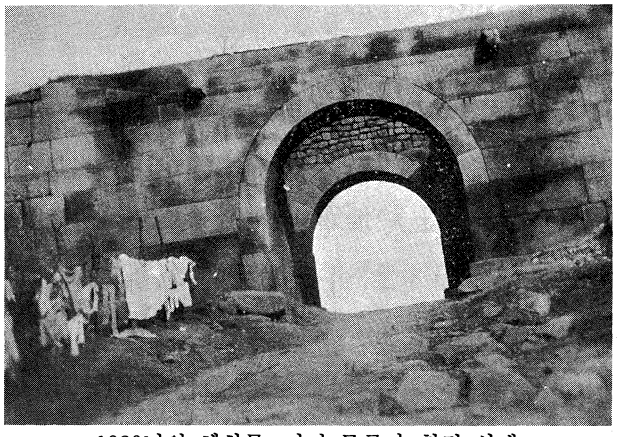
東小門사건과 安城사건의 범인을 잡지못하여 잔뜩 긴장하고 있던 같은 해(26년) 10월 20일 오후 3시반 경에 利川郡 栢沙面 玄方里에 권총을 휴대한 청년이 나타나 마침 길가에 나와 있던 現地 公立普通學校 日本人 교장의 妻와 日本人 小使에게 권총을 발사, 교장의 妻에 중상을 입힌 후 그 길로 이웃에 있는 栢沙面警察官駐在所를 습격했는데 권총소리를 들었던 일본인 駐在所長과 조선인 순경이 피신해 버리자 그 앞에 있던 栢沙面事務所를 습격, 마침 면사무소내에서 사무를 보고 있던 面書記 宋天儀의 복부에 권총을 발사하여 卽死케 한 것이다.

그리고 5일후인 10월 25일 저녁 7시 20분~25분 사이에 鐘路3가 授恩洞(현 廟洞) 大路邊에 소재한 「大成號」라는 전당포에 한 青年이 들어가 主人 李基榮에게 獨立運動 자금을 달라고 요구, 이를 거절하자 가지고 있던 권총을 꺼내어 단 한발에 李基榮의 심장을 맞춰 즉사케 한 후 유유히 도주해 버린다. 초저녁, 그것도 오늘날 團成社 극장의 위치에 바로 이웃한 大路邊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니 警察·檢察·總督府의 체면과 위신은 만신창이가 된 사건이었다. 수없이 많은 容疑者가 붙들려 가서 문초당하고 고문을 당했고 京城 안팎의 모든 家口들이 수색·조사당하는 전율의 나날이었다.

授恩洞 사건이 보도된 1926년 10월 27일부터는 이 사건에 관한 신문보도 자체가 금지되었는데 그것이 풀린 것은 다음달인 11월 17일이었다. 東小門·利川·安城의 세 사건은 主犯인 李壽興의 단독 범행이었고 授恩洞 사건은 李의 사주를 받은 共犯 柳澤秀의 범행이었으며 兩人이 모두 체포되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主犯 李壽興은 당시 22세, 大韓臨時政府 駐滿參議部 第2中隊 特務正士의 신분으로 朝鮮에 내려와 바로 東小門事件을 일으킨 후 北漢山으로 도피한 후 고향인 利川에 가서 柳澤秀·柳南秀 형제를 만나 安城·利川·授恩洞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재판결과 死刑言渡를 받은 李壽興과 柳澤秀가 絞首刑을 당한 것은 1929년 2월 27일이었고 3월 2일에 火葬되어 각각 安城과 利川에 매장되었다.[59]

59) 당시의 民族紙인 東亞日報·朝鮮日報 기사를 추적·조사하였다.


1928년의 혜화문. 이미 문루가 헐린 상태

4) 東小門(惠化門)의 철거

朝鮮王朝實錄 太祖 5년(1405) 9월 24일 條를 보면「各 門의 月團 樓閣을 지었는데, 正北을 肅淸門, 東北을 弘化門 俗稱 東小門, 正東을 興仁門 俗稱 東大門, 東南을 光熙門 俗稱 水口門, 正南을 崇禮門 俗稱 南大門, 南西를 昭德門 俗稱 西小門, 正西를 敦義門, 西北을 彰義門이라 하였다」고 하여, 40餘里 주위의 都城에는 東西南北의 4大門과 그 사이 사이에 4小門 合 8門이 있었음을 말하였다.

그런데 이 8개 城門의 규모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없지만「又作各門月團樓閣」이라고 적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創築 당시 8개門에는 모두 아취와 門樓가 設置되어 通行과 觀望에 좋게 되어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都城 自體도 25년 후인 世宗 4년에 벌써 일대 改築이 있은 것처럼 城門도 대개는 改築이 많고, 위치와 名稱의 변동도 있었다. 都城의 東北間에 있던 小門의 원래 이름은 弘化門이었고 東小門으로 속칭되었다. 興仁之門이 東大門으로, 崇禮門이 南大門으로 불려진 것과 같았다. 그런데 成宗 24년(1493)에 落成한 昌慶宮의 동편문을 弘化門으로 命名한 탓으로 두개의 弘化門이 있게되어 中宗 6년(1511)에 東小門의 이름을 惠化門으로 개칭하였다.[60]

그리고 王朝實錄 英祖 20년 8월 庚戌條에「惠化門은 전에는 門樓가 없었는데 御營廳에 命하여 건립하였다」[61]라고 한 것을 보면 惠化門도 門樓가 없이 石門만 있던 것을 英祖 20년 8월에 御營廳에 하명하여 건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惠化門 즉 東小門을 나서면 三仙坪·敦岩里·미아리를 거쳐 水踰峴을 지나 議政府에 도달하고 거기서부터 파발막(抱川)－金化－淮陽－鐵嶺－永興－咸興－北靑－西水羅를 잇는 이땅안 최대의 幹線道路의 첫번째 關門이었다.

朝鮮王朝時代 서울에 세워졌던 8개의 大·小門중에 나머지 7개의 門은 月團(아

60) 大東地誌 京都 都城條.
61) 英祖實錄 卷 60 英祖 20년 8월 庚戌條.

아취) 천정 즉 다락의 늘바닥에는 모두 龍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 東小門만은 鳳凰을 그려넣었다고 한다. 그 까닭인즉 이 東小門밖 지금의 城北·三仙·敦岩洞 일대에 새가 많이 모여 그 피해가 막심했으므로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새의 王格인 봉황을 다락에 그려 놓았다는 것이다.[62]

日帝가 이땅을 강제 점거한 1906년 이후 이땅안 각 고을의 邑城들은 하나씩 둘씩 헐려나갔다. 우선 1907년에 南大門의 左右城堞이 헐렸고 1914년에는 西小門(昭德門)이 헐렸고 다음 해인 1915년에 西大門(敦義門)이 헐렸다. 光化門이 헐린 것은 1926년이었다. 電車를 놓는다고 헐고 도로를 확장한다고 헐었으며 건물과 石壁이 퇴락하여 미관이 좋지 않다고 헐었다. 남기려는 힘은 약하고 헐려는 힘은 강했으니 버티고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도 東小門은 꽤 오래 버틸 수 있어 1928년에 헐렸다. 헐리기 전까지 전혀 수리도 않고 버려져 두었으니 그 퇴락의 정도가 말이 아니었다. 이 문의 門樓가 헐리기 직전인 1928년 4월 22일자 동아일보 2면에는 퇴락한 이 門의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이 이 門을 소개한 글이 실려있는데 그 전문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東小門：破落한 今日殘骸 三仙坪鼓聲도 幻滅

영문장졸의 추격하던 곳도 온데간데 물터로 모여가는 부녀만 오락가락 해

어린애들 수수께끼에 탈 달린 문이 어느 문이냐 하는 문이 즉 바로 나입니다. 속칭은 동소문이라 부르나 官名은 惠化門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世上에 나오던 李太祖 5년 丙子에는 弘化門으로 門籍에 등록되었습니다. 燕山君 10년에 原門을 폐쇄되어 버리고 원문에서 조금 右便으로 자리를 정해 옮아 앉고 中宗 6년 昌慶宮의 重修가 落成되자 내 본 이름이 그렇게 좋았던지 그리로 떼어다가 弘化門이라고 이름해버렸으므로 나는 세력에 밀려 惠化門이라고 改名을 하게 되었지요.

英祖 20년 8월에 門上醮樓를 新建

그러나 그때까지도 冠 아니쓴 사람같이 醮樓는 없이 내려오다가 훨씬 세월이 흘러버린 英祖 20년 8월에 御營廳에서 초루를 건설하였으니 불과 184년이지요, 180년이 무궁한 세월로 보아서는 짧다고 할 수 있으나 人生의 一生을 50년이라 하면 三代를 살았다고 볼 수 있지요. 三代가 어찌 짧다고 하오리까 내 머리를 좀 보시오. 성한 기왓장은 하나도 없을만치 傷하지 않았습니까.

62) 서울의 傳統과 文化, p.309.

門稅徵收의 始初 北道貨物 總集合

내야 8大門중의 한 小門으로 태어났으니 東大門 같이 큰 소리야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나도 내 자랑이야 남만 못하지 않지요. 지금은 稅關이라는 것이 있어 들어오는 貨物에 대하여 稅金을 징수하지마는 서울에 아직 그런 法이 없었던 옛적 正祖때에 맨 처음으로 北道에서 들어오는 物貨에 대하여 門稅라는 것을 바치게 했지요. 유명한 吉布니 썩어가는 明太니 할 것 없이 咸鏡道 물건은 내 문으로 들어왔음으로 門안에는 굉장이 큰 旅閣까지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高宗 甲子에 이르러서야 各門이 일제히 나를 본받아 門稅를 받게 되었지요. 이를테면 門稅의 시초는 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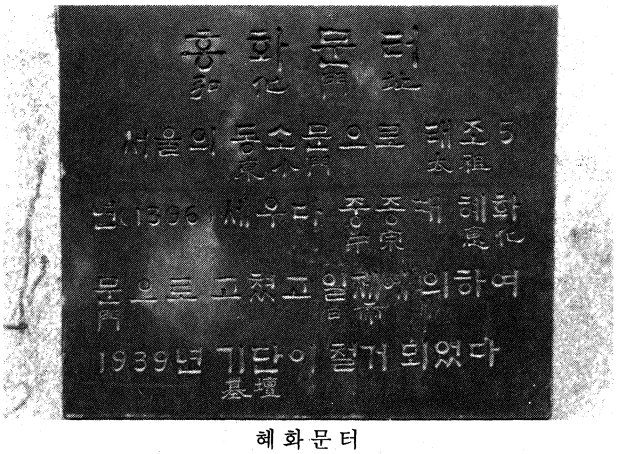
沙阿坪 大平原에 数千將卒 大追擊

문밖에는 유명한 三仙坪이 있지 않습니까. 三仙坪이라는 이름은 최근에 된 것이고 옛날에는 沙阿坪이라고 하였지요. 옛날에는 沙阿坪에서 五營將卒이 물결같이 모여나가 요새 말로 하면 陸軍大演習이라고 할까요. 追擊을 하던 곳이요. 최근으로 말하면 癸巳年에 各 營門 將卒이 나가서 추격을 하였는데 상감께서 親閱을 하셨답니다. 그때의 삼엄한 光景을 무어라 形容할 수가 없었지요. 五色의 찬란한 깃발은 바람에 날리고 창검은 日光을 희롱하여 창검 旗幟에 天地가 무색하고 북소리 나팔소리는 땅을 움직이어 그 으리으리한 광경이 참으로 장엄하였습니다.

門外処処 名勝地 花雲裡에 人花發

서울의 景致가 좋은 곳은 의례히 門밖에 있지만은 東小門밖에는 더욱 좋는 곳이 많답니다. 멀리 牛耳洞에는 지금 한창 벚꽃이 난만하였을 터이요. 城北洞 북적골(北楮谷)에는 桃花滿發로 名勝地였습지요. 멀리 華溪寺가 있어 三伏더위의 좋은 놀이터임은 長安이 다 아는바이지만 可히 新興寺는 조선의 大刹로 神貞王后의 願寺이며 왕후의 貞陵은 물터로 유명하야 찌는 여름철에는 물맞는 부녀들이 하얗게 모여듭니다. 그뿐 아니라 宮中 나인들의 祭도 많아 여름은 實로 女人國같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봄에는 벚꽃 복숭아꽃, 여름에는 사람꽃, 꽃으로 반년은 보내는데 꽃이 많으니 만큼 꽃을 탐하는 蜂도 자연히 많아 아늑한 놀이터로 여러가지 폐단이 없지 않는 모양 같습니다.



혜화문터

東小門의 門樓는 1928년의 下半期에 퇴락했다는 이유로 헐려 버렸고 月團石門(아아취 부분)만 남아 있었는데 1939년에 惠化洞에서 敦岩洞 버스종점까지 電車 선로를 연장할 때 그 공사를 이

유로 이 石門마저 헐려버리고 만다.

5) 普成專門學校(현 高麗大學校)의 立地

普成專門學校 즉 오늘날 高麗大學校의 前身이 安岩洞 1·2번지 자리에 立地한 것은 1934년의 일이다.

이 학교는 1905년 5월에 당시 大韓帝國 內藏院卿이던 李容翊이 礪洞(현 종로구 수송동)에 있던 전 俄語學校 건물을 사용하여 설립한 普成專門學校로 출발하였다. 이용익은 일본에 납치되어 체류하던 중 일본의 근대 교육기관을 두루 살펴보고 귀국하여 敎育救國의 이념 아래 신 교육기관으로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설립 당시 기존의 사립학교들은 대부분 외국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반면, 보성전문학교는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근대적 고등교육기관이었던 것이다.

초대교장은 申海永이었으며 초기에는 수업연한 2년제의 法律學專門科와 理財學專門科를 두었는데, 1905년 9월에 漢城法學校 학생을 인수하여 법률학전문야학과를 신설하였다. 이어 1907년 1월에 법률학전문과·이재학전문과를 각각 법학과·경제과로 개칭하고 수업연한을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2월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용익이 해외로 망명하였다가 1907년 3월에 憤死하자, 그의 손자 李鍾浩가 학교경영을 인수하였으나, 1909년 이종호가 다시 안중근의사 사건에 연루되어 구금됨으로써 학교는 경영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1910년 제1회 졸업생인 尹益善이 孫秉熙와 의논하여 학교경영을 천도교에 인계하였다. 1915년 4월에는 일제의 「전문학교규칙시행령」에 따라 재단법인을 조직해야만 전문학교의 인가를 얻을 수 있게 되어 교명을 사립 보성법률상업학교로 격하, 개칭하고 3년제의 법률과와 실업과를 두었다.

3·1운동 직후 손병희가 일본경찰에 피검되어 다시 학교운영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교장 高元勳은 총독부에 전문학교 승격에 관한 타진을 거듭하는 한편, 金炳魯 등이 재단법인 기성회를 조직하여 사회독지가들에게 호소하였다. 이에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의 민간독지가 58명의 공동명의로 1921년 재단법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하여, 1922년 「조선교육령」에 의해 정식으로 전문학교 인가를 받게 되었다.

그뒤 총독부의 간섭과 재단 경영의 부진 등으로 학교가 재정난에 빠지게 되자,

1932년 金性洙가 보성전문학교를 재단법인 중앙학원으로 인수하고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이때 김성수는 3·1운동 직후 거족적으로 일어났던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일제의 압력으로 실패하자 자력으로라도 민립대학을 설립하려던 뜻을 가지고 있던 차에, 보성전문학교의 경영난을 보고 사재를 기부하여 인수하게 된 것이다. 곧이어 1934년에는 안암동 현 위치에 교사를 신축·이전하였고 1937년에는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제반시설이 갖추어서 민족교육의 대표기관으로서 자리를 굳히는 동시에 본격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하여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총독부의 압력은 가중되어 農科의 신설계획을 거부하는 등 각종 탄압을 가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법과 및 문과교육을 전폐하고 실과교육을 강조하여 1944년 4월에는 학교명을 京城拓殖經濟專門學校로 변경하여 경제과·척식과만을 두게 하는 등의 시련을 겪었으나 꾸준히 민족교육의 맥을 이어왔다.

광복과 더불어 재단이사회가 개최되어 교명과 학사규정을 보성전문학교 당시로 환원시켰다가, 1946년 8월에는 정법·경상·문과의 3개 단과대학 8개 학과로 편성된 종합대학으로 승격, 개편하여 高麗大學校를 창립하게 되었고 초대총장에 玄相允이 취임하였다. 1947년 제1회 고려대학교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대학원을 개설하였다.[63]

보성전문학교 본관건물의 설계자는 朴東鎭이었다. 그는 1926년에 京城高等工業學校 건축과를 졸업한 후 곧 바로 조선총독부 건축과에 들어가서 각종 공공건물의 설계에 종사했는데 1933년에 순전히 개인자격으로 그것도 단독으로 普專 本館 건물을 설계하였고 이어 1935년에는 普專 圖書館 건물도 설계하였다.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 본관

박동진의 설계를 받아 일본인 藤田幸次郎가 施工한 本館건물의 당초의 바닥면적은 3,223m²(975평)였고 3층 石造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다.

평면은 H자형으로 중앙에 고딕성관(Gothic 城館)과 같은 모습의 탑

63) 高麗大學校 70年誌, 고려대학교 1975년 발행 기타.

부를 두고 이의 1층을 현관과 현관 홀로 하였다. 북측에 편복도를 두고, 복도의 남측에 큰방들을 배치, 총장실을 비롯한 대학행정부서의 사무실로 사용한다. 또 평면의 좌우 돌출된 곳에는 큰방을 두어 대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다.

정면 중앙탑부의 창호와 현관개구부는 뾰죽아취(Pointed arch)로 고딕양식을 취하고 또 2층의 창호를 대부분은 뾰죽아취로 처리하였으나 1층과 3층의 나머지 창호들은 수평아취(Flat arch)로 하여 변화를 얻고 있다. 중앙탑부의 네모서리에는 플랫버트레스(Flat buttress)를 붙여 고딕적인 성격을 더하였다. 지붕은 박공지붕이고 삼각형 도머(Dormer)를 두었고, 스레이트로 마감하였었으나 최근의 보수공사때 동판마감으로 하였다. 당시 19만원의 공사비를 소요하였다고 한다. 1981년 9월 5일에 史蹟 제285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35년 5월에 착공, 37년 9월에 준공한 普專 圖書館 건물은 설계자가 朴東鎭이라는 것은 확실하나 시공자가 누구였는지는 확실치가 않다. 바닥면적이 4,089m^2(1,237평)인 이 건물은 일부는 4층이고 일부는 5층이며 石造 및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건물의 평면은 L자형으로 모서리에 현관을 가진 고딕성관(Gothic 城館) 모양의 탑(塔)부를 두었다. 출입구와 탑부의 창호들과 남측면의 창호들은 뾰죽아취(Pointed arch)로 나머지 서측 창호들은 수평아취(Flat arch)로 마감하였다. 특히 동남측 끝단 돌출부에는 네모서리에 고딕성당에서의 튜레트(Turret)를 두고, 남측 창들 사이에는 플랫버트레스(Flat buttress)를 두어 한층 더 고딕적인 모습을 이루고 있다.

준공당시 1층에 교수연구실 32개, 2층에는 250석의 열람실을 마련하였는데 각 책상마다 스탠드와 가죽의자를 비치하였으며, 3층에는 20만권의 장서를 보관하고, 3층 이상은 민속자료, 미술품을 진열할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 고려대학교는 중앙도서관을 신축하고, 이건물은 대학원동과 교수연구실로 이용하고 있다. 이 건물도 本館과 함께 1981년 9월 25일에 史蹟 제286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64]

6) 市內버스의 運行과 電車 敦岩洞線 開通

1931년 당시 京城府內의 인구수는 36만 5천인이었고 자동차 보유대수는 200대

64) 文化財大觀 史蹟篇(下), 문화재관리국, 1976 및 尹一柱저, 韓國洋式建築 80年史.

도 안되었다. 또 1934년 현재로 高陽郡 崇仁面내에는 한대의 자동차도 없었으니 당시의 이곳 주민이 서울市內로 가려면 徒步가 아니면 하루에 한 두번씩 밖에 안다니는 市外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1930년대 전반기, 京城을 출발하는 市外버스가 華溪寺와 安岩洞의 開運寺까지 다녔는데 하루에 2차례 왕복 정도였다. 요금은 화계사까지가 56전, 개운사까지가 20전이었다.[65]

가장 손쉬운 교통수단은 자전거였는데 1932년 12월 말 현재의 자전거 대수는 城北里 45대, 安岩里 75대, 鍾岩里 33대, 敦岩里 112대, 貞陵里 58대, 里門里 14대, 長位里 39대, 石串里 6대, 上月谷 4대, 下月谷 18대였으니[66] 일반 대중들에게는 자전거를 탄다는 것도 하나의 꿈이었던 것이다.

京城府內에 市內버스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28년 4월이었고 겨우 10대의 차량으로 시내 중심부를 30분 간격 정도로 운행하다가 점차 차량수가 늘어나서 東小門까지 또는 西大門밖 靈泉까지, 弘濟內里에 있던 火葬場까지, 용산의 三角地까지 등으로 노선이 연장되었는데 그래도 安岩洞이나 鍾岩洞 또는 敦岩洞까지의 확장은 30년대 전반기까지는 실현되지 않는다.

市內버스가 敦岩洞까지, 安岩洞을 거쳐 鍾岩洞까지 들어간 것은 1930년대의 후반기가 되면서 즉 1935년에서 36년에 걸쳐서였다. 城北地域으로 봐서는 실로 하나의 空間革命이었다. 이와같은 空間革命이 일어난데는 몇가지 要因이 있었다.

그 첫째는 人口의 증가 즉 交通需要의 증가였다. 1928년 당시 4,593호 22,185명이었던 崇仁面 인구수는 1933년에는 7,416호 36,797명이어서 戶数에 있어 61.4%, 인구수에 있어 65.8%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敦岩里의 경우는 28년의 406호 2,059명이 33년에는 861호 4,199명으로 戶数에 있어 112%, 인구수에 있어서는 103.9%의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67]

둘째는 1934년에 普成專門學校가 安岩洞 1번지에 입지한 것과 같은 각종 시설의 입지였었다. 1939년에는 종전까지 明倫洞(당시는 崇洞)에 있던 京城高等商業學校(훗날 서울大學校 商科大學)도 鍾岩洞으로 이전 입지하고 있다.

---

65) 乘合自動車運轉狀況, 總督府 警務局.
66) 前揭 京城府行政區域擴張調查書 제4장 交通 4. 陸上運搬具表에 의함.
67) 前揭 京城府行政區域擴張調查書 제3장 戶口 3. 戶口累年表.

세째는 서울의 行政區域 확장과 市街地計劃令의 시행이었다. 서울의 區域擴張으로 새롭게 京城府에 편입된 지역주민의 교통문제는 京城府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 과제였던 것이다. 그리고 京城府市街地計劃중의 가장 주된 戰略事業으로 敦岩地區 구획정리사업이 포함되게 되었는데 구획정리가 되어 많은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주민의 교통문제가 시급한 과제가 되는 터였고 또 市內버스가 다녀야 그곳 땅을 사서 주택을 건축하겠다는 희망자도 나서게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市內버스 운영이 시급해진 것이다.

네번째의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市內버스 운영권이 京城府에서 京城電氣株式會社로 이양되었다는 점이다. 市內버스를 京城府가 운영할 때에는 그 路線선정이나 운영방식이 官僚的 姑息的이었을 뿐 아니라 市內電車와의 경쟁을 의식하여 電車가 다니는 길을 버스도 다니게 했으므로 兩者간의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었으며 결국은 兩者의 영업성적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府營버스의 경우 1930년도의 收支決算이 겨우 1원 48전, 31년에는 14원 63전이 되어 減價償却은 염두에도 못두는, 사실상 缺損 상태에 빠지게 된다. 31년 1월말의 新聞記事는 「京城府營버스 成績不良 存廢論 조차 대두, 그 대책을 철저 강구중, 2년간 缺損 近 3만圓」이라고 보도한데 이어[68] 31년 8월에는 「府營버스의 損害額 10만圓」이란 기사도 게재하고 있다.[69]

電車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상세히 설명했듯이 府營버스가 이렇게 經營難에 허덕이고 存廢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府營버스와 競合關係에 있던 京城電氣株式會社는 이 時期를 포착해서 府營버스 운영의 讓受를 획책한다.

監督官廳인 總督府·京畿道가 개입하여 府內外 교통 전반문제를 토의한 결과 드디어 1933년 3월 10일자로 京電이 21만 8천圓을 京城府에 지불하고 府營버스 運營難을 京電에 양도한다는 假契約을 체결, 버스 54대, 貨物車 1대, 車庫·事務所·工場·倉庫 등 24개棟 447평餘, 기타 機械工具類, 主任 기타 事務員 4명, 現業員 188명 등 일체를 京電에 인계하고 33년 4월 1일을 期하여 새로 銀色으로 바꾸어 칠한 京電버스가 운행을 개시한다.

市內버스를 인수한 京電은 電車 및 버스의 經營合理化를 위하여 버스노선을 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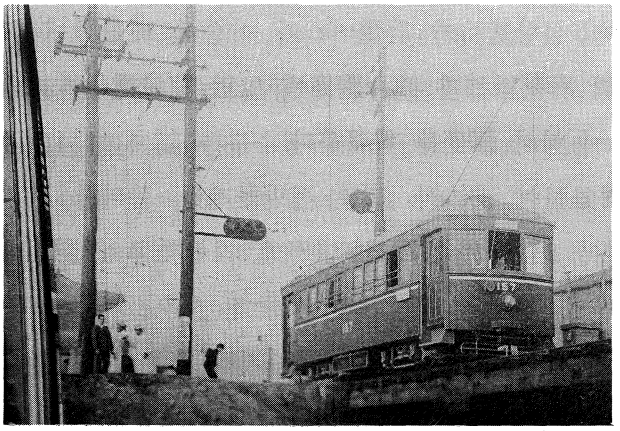
68) 東亞日報 1931년 1월 31일자 2면 11단 기사.
69) 同上 1931년 8월 4일자 2면 9단 기사.

車노선과 병행시키지 않았으며 원칙적으로는 전차가 다니지 않는 區間을 택함으로써 버스를 전차의 보조수단으로 하였다. 즉 電車를 내리면 버스를 탈 수 있게 하여 하나의 표(票)로써 兩者의 환승이 가능하도록 하고 料金은 종전대로 5전 균일로 하였다. 電車·버스 환승자유, 요금 5전 균일은 당시 日本國內에도 그 유례가 없었다고 자랑하고 있다.[70]

敦岩洞·鍾岩洞 등에 京電이 운영하는 市內버스가 들어간 정확한 일자는 찾을 수가 없으나 아마도 1934년 또는 35년경이었다고 추측하는 바이다.

서울에 電車가 처음 개통된 것은 1899년(光武 3) 5월 17일이었다. 당초 서울 電車의 운행노선은 西大門 — 鐘路 — 淸凉里와 鐘路 — 南大門 — 龍山이었는데 그후 그 선로는 점점 더 늘어나서 1930년대에는 西大門 — 麻浦 — 舊龍山선, 鐘路 4가 — 昌慶苑선, 乙支路 1가~6가 — 往十里선, 光化門 — 義州路선, 南大門 — 孝子洞, 新龍山 — 漢江人道橋선, 西大門 — 靈泉선 등이 운행되고 있었다.

서울電車를 운영하는 京城電氣株式會社가 鐘路4가 — 昌慶苑 — 惠化洞 까지 다니던 電車路線을 敦岩洞버스 종점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것은 1937년 11월 중순이었다. 즉 鐘路 4가에서 昌慶苑까지 다녔던 전차노선을 연장하여 惠化洞을 거쳐 敦岩洞까지 운행하겠다는 것이었고, 敦岩洞 구획정리사업에 맞추어 준공이 될 수 있게 1938년 3월에 着工하겠다는 것이었다.[71] 전차부설공사는 1939년 3월 8일에 시작하였으며 月餘가 약간 넘은 4월 15일에는 이미 東小門로타리까지는 개통되었다.[72]



1920년대 서울의 전차

敦岩洞 버스 종점까지의 공사

70) 孫禎睦「日帝强點期 道路와 自動車에 관한 硏究」, 서울市立大學校 발행 都市行政硏究 제4집, 1989년, pp.75~76.

71) 동아일보 1937년 11월 19일자 2면 7단 기사.

72) 同上 1939년 4월 14일자 2면 7단, 동 4월 15일자 2면 7단 기사.

는 쉽게 진척되지 않았다. 그때는 이미 모든 물자가 귀해져서 電車레일 놓기도 힘들었고 또 中日戰爭으로 많은 壯丁이 전선으로 끌려가서 토목공사의 노동력 공급도 어려웠던 때문이다. 그 어려운 공사가 끝나서 敦岩洞에 전차가 들어간 것은 1941년 7월 12일이었다.[73] 정말 엄청난 공간혁명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전차개통을 보도한 신문 기사는 다음과 같다.

버스 增發을 懇請 — 崇仁面民 代表, 京電에

今 12일부터 敦岩町버스終點까지 電車가 개통되게 되어 그 부근일대의 교통은 상당히 편하게 되었는데 高陽郡 崇仁面은 戶数가 5천여에 인구가 3만이나 되며 또 그 주민 대부분이 市內에 있는 관청·회사 등에 통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버스가 매일 6회밖에 다니지 아니하여 교통상 많은 곤란을 받게 되므로 面民일동은 面協議會員을 대표로 하여 京電當局에 전차선 개통으로 여유가 있게되는 버스를 이용하여 牛耳洞까지 버스 운행회수를 늘려 달라고 진정하였다고 한다.

7) 京城高等商業學校의 鍾岩洞 立地

京城高等商業學校, 오늘의 서울大學校 商科大學이라는 학교만큼 수다한 경력을 지닌 학교는 아마 이땅안에서도 매우 희귀할 것 같다.

이 학교는 日帝에 의해서 强占되기 2년 전 즉 1908년 10월에 「在東京 東洋協會專門學校 京城分校」라는 이름으로 오늘날의 中區 筆洞 1가 24번지에 설립되었다가 1915년에 학교이름을 「東洋協會植民專門學校 京城分校」라 고친다. 그리고 1918년 4월에 在東京 東洋協會植民專門學校와 분리하여 東洋協會 京城專門學校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독립하게 된다. 그리고 1920년에 校名을 私立 京城高等商業學校로 바꾸었으며 그때까지도 日本에 있던 東洋協會라는 단체의 경영아래 있었다. 東洋協會라는 단체는 당시 일본 최대의 俠客團體를 이끌던 頭山 滿등이 중심이 되어 日本의 右翼 및 貴族·財産家들이 출자하여 만든 대만·조선·만주 등지의 日本植民地 관리대책을 연구·지원하는 단체였었다.[74]

1922년에 朝鮮總督府 學務局이 편찬한 「朝鮮諸學校一覽」이라는 책자에 의하면

73) 每日新報 1941년 7월 12일자 中東版 1단 기사.
74) 이상 朝鮮教育大觀, 教育大觀社, 1930년 발행에 의함.

1921년 5월 현재 이 私立 京城高等商業學校는 현재의 明倫 2가洞(당시는 崇仁洞)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학생은 1학년 80명, 2학년 60명, 3학년 25명 합계 165명이었으며 직원수는 교수가 6명, 일반 사무직원이 15명이었는데 전원이 일본인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이 私立專門學校가 官立(國立)으로 바뀐 것은 1922년 4월 1일자 朝鮮總督府令 제53호로 京城高等商業學校規程이 發布되고 부터의 일이다. 이 規程의 附則에 「本令 施行 당시에 私立 京城高等商業學校에 在學하는 生徒는 試驗에 의하지 않고 本校의 相當學年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私立 京城高商과 이 學校를 운영하였던 財團法人은 1922년 3월 31일에 해산되었고 그 財産일체와 學生·敎職員은 새로운 官立 京城高商에 편입된 것이다.

현재의 鐘路區 明倫洞에 위치하고 있던 京城高等商業學校가 현재의 성북구 鍾岩洞 19번지의 자리에 새 校舍를 건설하여 이전한 것은 1939년이었다. 앞서 普成專門學校가 安岩洞에 입지한데 이어 京城高等商業學校가 鍾岩洞에 입지하였다는 것은 安岩洞 — 鍾岩洞으로 이어지는 이 일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이 京城高等商業學校는 1943년 즉 太平洋戰爭下에서 京城經濟專門學校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리고 光復後 美軍政下였던 1946년 8월 22일에 공포된 軍政法令 제102호 「國立 서울大學校 設立에 관한 法令」에 의하여 서울大學校 商科大學이 되었으며 학생과 교수의 수가 많아지면서 이 일대의 지역개발에 기여한 바가 컸었다.

그때까지 각처에 흩어져 있던 서울大學校의 각 單科大學을 묶어 冠岳山 北麓에 거대한 캠퍼스를 지어 이사할 때 鍾岩洞의 商科大學도 관악산으로 이전해갔고 그 뒷자리에는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附屬中·高等學校가 자리하고 있다.

4. 日帝下 城北地域의 土幕部落들

일제하 서울근교에 생긴 土幕 즉 無許可 不良住宅에 관해서는 1930년대의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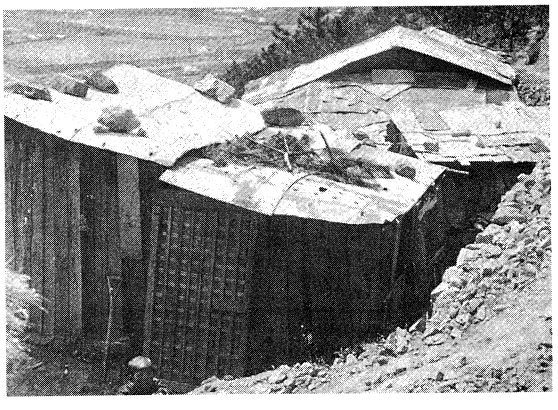
에 京城帝國大學 衛生調査部에서 조사하여 1942년에 발간한 「土幕民の生活と衛生」이라는 책자에 가장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책에서 다룬 토막과 토막민의 정의 및 그 분포상태에 관한 글을 소개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75]

요컨대 土幕民은 朝鮮人 貧窮階級이 都市의 一隅에 群居하여 비참한 빈민굴을 형성하게 된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도시영세민에 불과한 그들에게 무엇 때문에 토막민이라는 특수한 명칭을 붙이게 되었는가. 이처럼 굴욕적인 명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밝히기는 어려우나 토막민을 朝鮮의 다른 都市零細民과 구별하는 유일한 相異點은 그들 토막민이 토지를 不法占據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시내이건 교외이건을 불문하고 제방·강바닥(河原)·다리밑(橋下)·山林 등의 游閑地를, 官有地·私有地를 가릴것 없이 무단으로 점거하여 특유의 극히 초라한 움막을 지어 살고 있으며 날마다 달마다 그 수가 늘어나서 마침내는 비참과 혼잡과 불결을 특색으로 하는 이른바 土幕部落에까지 발전하는 것이 상례가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토지의 불법점거는 오로지 그들의 절박한 빈곤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당국으로서는 해마다 증가하는 土幕家屋의 그칠줄 모르는 범람이 都市美觀上 및 都市衛生上 커다란 문제라 생각하고,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영세민을 土幕民이라는 이름으로 호칭하게 되고 이 명칭이 점차 일반에게도 사용되어지고 있다.

* 京城府에서는 토막민을 「河川敷地나 林野 등 官有地·私有地를 무단점거하여 거주하는 者」라고 정의하고 있다. 土幕의 어원은 「幕」은 朝鮮語의 「막」에 해당하는 字이며 酒幕·원두막·오막살이들의 幕과 어원이 같으며 「土」는 土壁 또는 荒壁이라는 정도의 뜻일 것이다. 요컨대 「土幕」은 허술한 움막을 가르키는 말이고 「土幕民」은 그 속에 거주하는 자라는 뜻이다.



가장 標本的인 土幕집의 모습

京城府 안팎에 있어서 최근 10년간의 토막민 호구수의 변동은 〈표 1〉과 같은데 대체로 累年增加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1939년

75) 京城帝國大學 衛生調査部 편, 「土幕民の生活と衛生」, 岩波書店, 1942년, pp.60～61 및 pp.62～64.

에 두드러지고 있다. 이것은 그 해에 일어난 전국적인 大旱魃에 의하여 離村向都하는 貧農이 많았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935년에서 1937년에 걸쳐 약간 감소한 것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京城府가 교외지역인 弘濟町·敦岩町·阿峴町 등에 土幕收容地를 설정하여 府內에 산재하는 토막민을 수용한 때문이었다. 이들 收容地의 토막민은 (이렇게) 府가 지정하는 토지에 살게 됨으로써 不法居住 상태는 소실되었지만은 그들의 생활상태는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른 일반의 토막민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고 (따라서) 이들의 숫자까지 가산한다면 토막민의 수는 지난 10년내로 (항상) 증가일로에 있었다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1939년 현재의 土幕의 수는 4,292호 20,911인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현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府가 제시한 숫자는 대체로 실수보다는 적은 것 같이 생각된다. 토막은 피동적 또는 자발적인 요인에 의하여 이동이 심한 것이다. 거기에다가 土幕家屋은 종횡으로 무질서하게 서로 연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土幕家屋內에서도 셋방이나 셋집(貸家)의 관계가 지극히 복잡하여 各 戶別로 정확한 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에 속하는 일이니 京城府의 조사가 정확할 수 없었음은 당연한 일이다.……(中略)……

京城府 社會課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收容土幕民은 弘濟町 4,710인, 敦岩町 4,266인, 阿峴町 3,708인(이상 1940년말 현재) 합계 16,344인에 달한다(그러므로 수용·비수용 토막민의 총계는 36,000명이 넘는 셈이다).

이들 약 36,000명의 토막민은 京城府內의 구석구석, 산림·강바닥·다리밑 등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인데……(中略)……대체로 土幕의 大部落은 교외에 많으며, 시내에서는 당국의 단속이 엄중하기 때문에 부락을 이룰 만큼 발전하는 일은 적으며 다리밑이나 강바닥, 성벽의 그늘, 언덕밑 같은 곳에 몇 집씩 모여 살고 있다.

阿峴町·新堂町은 시내에 있어서의 土幕 大部落의 대표적인 것이며 弘濟町·敦岩町·阿峴町은 이른바 府營의 土幕收容地이다.

서울교외에 이렇게 토막집과 土幕部落들이 생겨나자 京城府는 이들을 철거하는

〈표 1〉　京城府內 土幕民 增加狀態

년　도	호　수	인　구	년　도	호　수	인　구
1931	1,538	5,092	1936	—	—
1932	—	—	1937	3,248	14,993
1933	2,870	12,478	1938	3,316	16,644
1934	2,902	14,179	1939	4,292	20,911
1935	3,576	17,320			

자료 : 土幕民の生活と衛生 p.62

대신에 府가 佛敎財團등에 보조금을 주어 이른바 토막집 집단 수용시설을 만들기로 한다.

1933년에 日本佛敎 淨土宗 開敎院이 개설한 社會事業團體, 和光敎團에 보조금을 주어 현 麻浦區 阿峴洞 山 7번지의 3개 필지의 토지 18,798평을 매수케 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호당 평균 12~15평의 토지를 토막민에게 대여한 것이 그 첫째요, 다음해인 1934년에 府外 동북의 **貞陵里**와 서북의 弘濟外里 등 두곳에 日本佛敎 眞宗 大谷派의 사회사업단체인 向上會館이란 단체를 시켜 龍山警察署 및 西大門警察署 관내의 토막민 약 1,000명을 수용하는 向上臺라는 이름의 토막민 집단 수용시설을 개설하게 한 것이 그 둘째였다.[76]

그러나 敦岩洞·貞陵里를 위시하여 城北地域일대 뿐만이 아니라 京城府 內外에 그렇게도 많았던 토막민들은 1942년을 고비로 그 자취를 감추게 된다. 즉 총독부는 太平洋戰爭으로 일본본토의 노동력이 크게 부족하게 되자 서울시내에 산재했던 토막민들을 강제로 붙잡아 北海道 등지의 철도·토목공사장으로 파송하게 한 것이다.

당시의 정확한 통계가 없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이렇게 强制派送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아마 적지않은 숫자가 이때 北海道나 사할린 등지로 家口主는 물론 家族들까지 함께 강제파송된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강제파송이 시작되자 많은 토막민은 토막을 부수어버렸거나 그대로 남겨둔 채로 가족과 더불어 혹은 시내의 셋방으로, 혹은 버리고 나온 고향땅으로, 혹은 만주 등지로 갔을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8·15 광복 당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都市에 토막의 자취는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다.[77]

5. 敦岩地區 區劃整理事業

오늘날의 城北地域을 일약 서울의 前面에 表出시킨 것은 서울市內 최초의 구획

76) 孫禎睦, 「日帝下의 都市住宅問題와 그 對策」, 都市行政硏究 제1집, 서울市立大學校 1986년, pp. 159~160.

77) 孫禎睦 前揭論文 pp.142~143.

정리사업지구로 永登浦와 더불어 敦岩洞지구가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本書 제5장 都市計劃에서 詳論될 것이므로 부분적으로 중복이 되기는 하나 城北의 발자취를 다루는데 빠뜨릴 수 없는 重大事임으로 일부 중복이 되더라도 그 개요를 소개해 두기로 한다.

1) 京城市街地計劃과 區劃整理

朝鮮總督府는 京城府의 市街地計劃 區域을 고시한 9개월 후인 1936년 12월 26일자 總督府告示 제722호로 街路網計劃과 더불어 52,266,900m²(약 15,816,800평)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土地區劃整理地區로 확정·발표한다. 그들의 표현을 빌면 이「土地區劃整理 시행구역은 주로 교외지의 비교적 가옥이 밀집되지 않은 곳이며 장래 시가지 또는 주택지로 이용될 약 1,600만평의 토지를 골라 國策으로써 이를 시행키로 하고 地形 기타의 상황에 따라 대체로 이를 30개 지구로 나누어 비교적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서부터 순차로 실시 착공하는 방침으로써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이 때 그들이 정한 30개 지구와 그 사업예정 연도는 〈표 2〉와 같다.[78]

〈표 2〉　京城市街地計劃 土地區劃整理 施行豫定 年次表

年　次	地區數	施行面積(평)	地　區　別　面　積(평)
1차년도	3	2,790,300	永登浦 1,577,900 敦岩 713,900 大峴 498,500
2차년도	3	1,909,500	新堂 426,300 漢南 829,500 龍頭 308,400 清涼里 345,300
3차년도	3	1,566,200	馬場 588,800 孔德 198,800 永登浦驛뒤 778,600
4차년도	5	2,060,000	祭基 722,900 踏十里 775,000 往十里驛뒤 231,700
			新設 166,300 大興 163,600
5차년도	3	1,950,000	徽慶 515,100 東橋 507,600 番大方 927,300
6차년도	3	977,300	新村驛뒤 237,800 上水 248,300 番大方 491,200
7차년도	3	1,238,700	弘濟 409,200 黑石 342,500 上道 487,000
8차년도	4	2,076,300	里門 537,200 金湖 455,800 延禧 687,200 上道 396,100
9차년도	2	1,068,700	望遠 789,500 銅雀 270,200
10차년도	1	180,000	銅雀 180,000
합　계	30	15,817,000	

78) 高木春太郎「京城府に於ける土地區劃整理の狀況」, 都市計劃の基本問題(上), 全國都市問題會議事務局 1938년 발행, pp.355~356.

그들이 토지구획정리로 시가지를 조성하겠다던 30개 지구의 합계는 당시 경성부시가지계획 구역면적 135,355,032m²에 대해 38.6%에 해당하는 광역이었으며 그들이 市區改正으로 가로망을 정비·확장한 舊 경성시역 면적 36,009,616m²의 실로 1.45배에 해당하는 넓이였었다. 즉 그들은 京城府 市街地計劃 구역내에 포함된 전 구역 중에서 市區改正事業區域(舊 市域)과 산림 또는 하천으로써 住居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의 거의 전역을 토지구획정리로 처리할 구상을 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1937년 3월 24일자 總督府告示 195호로 行政廳인 京城府尹으로 하여금 敦岩·永登浦 兩 地區의 施行命令을 한 것을 시발로 40년 3월까지에 모두 10개지구의 施行命令을 내리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표 3〉과 같다.

行政區域 확정 전인 1935년 10월 1일 현재의 국세조사인구가 444,099인, 행정구역을 확장하고 市街地計劃을 고시한 후인 36년 10월 1일 현재가 677,241인이었던 京城府 인구수는 37년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서 40년 10월 1일 현재로 실시한 국세조사 결과는 935,464인으로 껑충 뛰올랐을 뿐 아니라[79] 그 후에도 계속 상승하

〈표 3〉 京城府 土地區劃整理 시행명령 내용

地區名	面積 (m²)	施行命令日字	工事完了期限	工事費(圓)	總督府告示號數
永登浦	3,223,000	1937. 3. 24	1940. 3. 31	3,450,000	제284호
敦岩	2,363,000	〃	〃	2,342,000	〃
大峴	1,650,000	37. 11. 10	41. 3. 31	1,086,000	제787호
番大方	1,242,320	39. 3. 22	43. 3. 31	840,000	제236호
漢南	364,576	〃	〃	654,000	〃
沙斤	1,587,776	〃	〃	652,000	〃
龍頭	1,364,304	〃	44. 3. 31	1,494,000	〃
清涼里	1,105,363	40. 3. 14	45. 3. 31	1,711,000	제221호
新堂	1,501,697	〃	〃	1,891,000	〃
孔德	1,478,190	〃	〃	2,206,000	〃
計	15,880,226			16,326,000	

79) 1935년 國勢調査人口는 國勢調査結果報告書, 40년의 그것은 41년 4월 18일자 官報 號外에 실린 總督府告示 제555호, 36년 인구수는 統計年報 36년도판에 의함.

는 추세에 있었으니 택지조성도 시급하였고 무엇보다도 도로 기타의 공공시설 확보가 급선무였던 것이다.

京城府의 職制는 구역확장 하루 전날인 1936년 3월 30일자 訓令 제4호로 京城府處務規定을 개정하여 8개의 課로 하고 土木課에 都市計劃係를 신설하여 약 20~30명의 직원이 도시계획 업무를 보고 있었으나 1937년 이후로 토지구획정리 업무가 이렇게 폭주하게 되자 직원의 수는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 1938년에 府 직제가 또 한차례 개편되어 部制가 실시되자 土木課 都市計劃係는 工營部 都市計劃課로 승격되고 都市計劃課 전직원이 350명, 그중에서 토지구획정리 사무에 종사한 직원이 근 300명이었다고 한다.[80]

1938년 현재 京城府 재정규모는 세입이 1,765만원, 세출이 1,665만원이었고 직원 총수가 3,500명이었다고 한다.[81] 토지구획정리 10개지구 공사비 규모가 府의 1년간 총재정규모와 비슷하고 도시계획과 직원의 수가 府 전체 직원수의 10분의 1을 점하고 있었으니 그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얼마나 힘을 기울인 것인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당시의 京城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정을, 그 업무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일본인 직원 하나가 本國에서 발행되던 잡지 「區劃整理」에 寄稿한 글에 의하면 당시의 敦岩地區·永登浦地區 구획정리사업이 「官獨善으로 우쭐대는」 일이고 또 대단히 「没人情한 일」이었다는 것이다.[82] 그러나 그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이 事業의 성패 특히 정리공사를 마친 후에도 그것이 시내중심에서 떨어진 교외지역이기 때문에 입주희망자가 없어서 황무지로 남을까 하는 점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리하여 1939년 4월에는 京城府 都市計劃課 주최로 都市計劃展覽會라는 것을 개최하고 京城市街地計劃의 내용소개 특히 區劃整理事業의 利點, 구획정리지구의 택지로서의 매력 등을 선전하고 있다. 이 선전에서는 「大地는 미소짓는다」(大地は 微笑む)라는 全 10景의 종이 演劇(紙芝居)[83]을 만들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80) 葱 青公「區劃整理遍路記(4)」잡지 區劃整理, 1939년 9월호, p.70.
81) 大森 茂「初めて見る京城區劃整理」잡지 區劃整理, 1939년 9월호, p.73.
82) 前揭 葱 青公「區劃整理遍路記(4), pp.71~72.
83) 연극의 줄거리를 그림에 그려서 한장한장 뒤지면서 演士가 말로 설명을 한 것이며 日帝下에서 성행하였다.

남편들끼리 한 회사의 동료이고 친구사이인 두쌍의 신혼부부중 한쌍은 교외의 구획정리지구내의 땅을 싼 값으로 사서 신축이주하여 행복하게 살게 되었고 다른 한쌍은 都心의 셋집에 그대로 남아 부인은 병들고 남편은 술주정뱅이가 되었다고 하는 줄거리였고 10매의 그림은 도시계획과의 젊은 기술자가 그렸다고 한다.[84]

당시 京城府 도시계획과의 高木春太朗이 1938년에 京城에서 개최된 전국 도시문제회의 제6회 총회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永登浦·敦岩·大峴 등 3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것은 3개 지구내에 도합 4,300동에 달하는 기존가옥과 묘지·전주·지하매설물 등 지장물의 이전과 그 보상비의 결정이었으며 특히 보상비를 지급할 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무단점유 무허가 건물 즉 소위 土幕民 部落의 정리를 위해서는 경찰서의 협력을 얻어서 설득했다고 한다.[85]

2) 敦岩地區 區劃整理事業의 추진과정과 結果

공사 착수가 빨랐던 敦岩·永登浦의 兩 地區는 공사의 진척도 빨랐다. 정지공사가 거의 70%정도에 도달했던 1939년 봄부터 兩 지구의 지주들은 정지완료된 토지를 매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토지구획정리 자체가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서 토지의 양도·양수측 모두가 負擔金을 어떻게 내는 것인지, 減步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淸算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 地主측은 빨리 비싼 값으로 토지를 처분하고 싶어했고 京城府에서는 실 수요자에게 값싸게 공정하게 처분되기를 바랐다.

이 양도·양수에도 官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京城府는 도시계획과 서무계에 토지상담소라는 것을 설치하여 오늘날의 복덕방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고 토지의 양도를 희망하는 지주들에게 土地分讓組合이라는 것을 구성하게 하였다.

---

84) 葱 靑公「區劃整理物語—大地は 微笑む」잡지 區劃整理, 1940년 1월호, pp.50~60.

85) 前揭 高木春太朗 論文, pp.363~365. 日帝下의 土幕집과 土幕民에 대해서는 孫禎睦「日帝下의 都市住宅問題와 그 對策」, 서울市立大學校 都市行政硏究 1986 참조.

6개 조문으로 된 執務內規까지 갖추어서 발족한 京城府 토지상담소는 우선 永登浦地區 土地分讓組合, 敦岩地區 土地分讓組合 지도조성방침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 방침에 따라 兩 지구조합은 27개 조문에 달하는 組合規約을 작성하였다. 상담소와 兩 조합이 처음으로 한 일은 각 필지마다의 양도가격 협정이었다. 즉 적정한 토지가격이라는 것이 京城府 직원의 지도하에 작성된 것이다. 이른바 협정가격이었다. 이 협정가격은 당시의 市價보다는 훨씬 싼 것이었다고 한다. 여기에도 일종의 官에 의한 강요가 작용된 것이며 大地主들은 거의가 日本人들이었고 또 당시는 中日戰爭이 한창 진행중에 있었으니 시국·국책이라는 구호아래 어느 정도의 강제가 먹혀들었던 것 같다. 물론 府와 分讓組合간에는 3·4차례의 회합이 있었고 그 때마다 쌍방간에 격렬한 토론이 되풀이된 끝에 필지마다의 가격이 정해졌다고 한다. 토지가격 결정기준은 整理前 評價額＋減步損＋負擔金＋利子＋一般 地價上昇率 등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각 필지마다의 매출가격이 결정되자 京城府는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팜플렛·포스터·입간판·신문광고·전차내 광고, 구획정리전람회 개최, 종이演劇(紙芝居) 상연, 그리고 당시 都市計劃의 최고 권위자였고 日本 內務省의 技師로 있던 石川榮耀를 불러 강연회까지 개최하였다. 또 양도·양수자간의 매매계약에는 京城府가 작성한 所定의 계약서가 사용되었으며 「상담소에 있어서 알선에 관한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일일이 도시계획) 課長까지 경유한 후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매매가 완료된 것은 그 경과를 갖추어(도시계획) 課長에게 보고할 것」(執務內規 제6조)으로 되어 있었으니 복덕방치고는 철저하고 면밀·주도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敦岩地區는 永登浦地區에 比해 비교적 빨리 매매가 되었는데 공업지역이었던 영등포지구보다 住宅地域이었던 敦岩地區의 필지의 넓이가 작었던 때문도 있었다. 敦岩地區의 宅地분양은 주로 府內 관청·회사·은행·학교·공장 기타 각종단체의 中流 이상 근무자를 목표로 선전을 전개하여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86]

86) 이상 根岸情治「京城の區劃整理と土地の處分(1) (2)」잡지 區劃整理 1940년 11, 12월호.

京城府 營繕課의 吉田正夫라는 직원이 잡지「朝鮮と 建築」1941년 4월호에 寄稿한「住宅政策에 관한 一考察」이란 글에 1940년 12월말 현재 京城府內 10개 區劃整理地區의 工事進陟度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敦岩地區의 정지공사는 96%로 소개되어 있고 동시에 시작한 永登浦地區의 90%보다 6%나 더 앞서고 있다.[87] 사실상에 있어 敦岩地區 구획정리사업은 日帝下에서 거의 마무리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敦岩地區중의 일부는 광복 다음해인 1946년 8월 16일자 서울市 公告 제49호로 換地處分 公告가 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1949년 5월 13일자 서울市 公告 제34호로 換地處分이 公告되었다. 6·25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환지처분이 완료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었고 日帝下에 시행된 나머지 지역이 60년대 중반기에 가서야 사업종료된 것과는 크게 차이가 있었다.

오늘날 다행하게도 서울 최초의 구획정리사업인 敦岩地區 계획도면이 原型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이것은 西大門의 大峴地區 도면과 더불어 全國的으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귀중한 것이나 제5장 都市計劃에서 소개할 것이니 여기서는 생략한다.

Ⅳ. 光復後의 급격한 變化

1. 光復, 政府樹立, 城北區의 탄생

1) 光復과 城北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시작한 日皇의 항복방송은 약 30분 가량 계속되었다. 이 방송이 끝나자 마자 일본 항복, 한국 독립의 소식은 순식간에 온 시내에 퍼졌고 감격에 들뜬 군중들은 거리로 뛰쳐 나왔다. 광화문과 종로네거리와 서울역전

87) 잡지 朝鮮と建築 1941년 4월호 소재「住宅政策に關する 一考察」, p.3. 필자는 京城府 營繕課 吉田正夫.

은 이들 군중들로 메워졌고 특정의 선창자도 없이 독립만세 소리가 간단없이 되풀이되었다. 그리고 이 군중의 행렬은 다음 날에도 또 다음 날에도 계속되었다. 35년간의 그 지긋지긋했던 질곡의 나날, 황민화운동·징병제도·강제공출·창씨개명·조선어 사용금지·방공훈련·근로봉사 등등의 모든 것에서 해방된 100만 서울시민의 한결같은 감격과 기쁨이 하나의 도가니가 된 것이었다.

그러나 일은 결코 순조롭지 않았고 행복된 미래만을 기약해 주지 않았다. 한반도가 북위 38도선으로 분단되어 남반부는 미군, 북반부는 소련군의 점령하에 들어간 것이었다. 태평양 미육군총사령부 포고 제1·2·3호라는 것이 발포된 것은 9월 9일이었고 아놀드소장을 장관으로 하는 미군정청이 정식으로 조직·발족한 것은 9월 20일이었다. 한민족이 그렇게도 갈구하던 조국의 독립과 통일이 이룩되기에는 아직도 험난한 우여곡절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광복 당시 한반도 전역에는 약 71만 3천여명의 일본 민간인과 34만 7천명의 일본군인이 있었으며, 그 중 서울에는 민간인 16만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고 군인 3만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었다. 서울에 있던 이들 일본인들은 일반인·군인을 가릴 것 없이 1946년 4월경까지는 거의 모두가 떠나갔다. 그러나 그 대신 일본·만주·중국 등지에서 거주하던 120만명의 동포가 환국하여 주로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지역에 정착하게 되고 거의 50만명에 가까운 북한주민들이 공산체제를 벗어나 남하·정착한 때문에 서울·부산·대구 등지의 인구수는 갑자기 늘어났다.

1944년 5월에 조선총독부가 조사한 인구통계에 의하면 서울의 인구수는 988,537명(그 중 일본인 158,710명)이었는데 그간에 일본인이 모두 떠나 갔음에도 불구하고 1946년 11월 30일 현재의 조사로는 124만 5천명에 달하고 있었다.


해방의 기쁨으로 거리를 가득 메운 서울시민들

광복 후의 3·4년간 온 나라 안이 모두 그러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은 정말 숨가쁜 혼란의 나날이었다. 떠나가는 조

선총독부의 조선은행권 남발이 원인이 된 심각한 물가앙등, 극도의 쌀(米) 부족 등의 경제적인 혼란과 더불어 신탁통치의 반대와 찬성으로 첨예화한 좌우익 투쟁,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國大案 반대와 찬성, 철도노조의 파업에 의한 철도운행 정지, 京電勞組의 파업에 의한 시내전차의 운행정지 등등의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서울시민은 꿋꿋이 견뎌갔고 시민의 수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다.

모두 7장 58조로 된 서울시헌장이 미군정에 의하여 발포된 것은 광복 1주년을 맞는 1946년 8월 15일이었고 이 헌장의 정신을 받아 그 해 9월 18일자로 「서울특별시 설치」에 관한 군정법령 제106호가 발포되었다. 즉 그때까지 경기도 관할하의 普通市였던 것이 道와 같은 지위로 승격된 것이다. 참고로 이 법령의 제1조는 「서울시를 경기도 관할로부터 분리함」이었고 제2조는 「서울시는 조선의 수도로서 특별시로 함. 서울시는 도와 동등한 기능 및 권한이 유함」이었다. 이 법령의 발효일은 1946년 9월 28일이었으니 바로 서울특별시 시대의 출발이었다.

그리고 이어 이 해의 10월 1일부터는 종전의 일본식 洞里名이 모두 유서 깊은 우리의 동명으로 개칭되게 된다. 初音町이 五壯洞으로, 花園町이 藝館洞으로, 大和町이 筆洞으로 바뀌는 등이 그것이었다. 이 때 몇몇 先人의 諡號도 사용케 되었으니 本町이 忠武路, 黃金町이 乙支路, 竹添町이 忠正路, 元町이 元曉路로 개칭된 것이다.

그러나 城北地域의 경우는 1936년에 崇仁面이 京城府에 편입될 때 그들은 일부러 日本式 이름을 붙이지 않았고 城北里는 城北町으로, 敦岩里·安岩里·鍾岩里도 각각 町으로 그 끝 글자를 바꾸는데 그쳤으므로 町을 洞으로 바꾸는 작업만이 이루어졌다. 즉 城北町이 城北洞으로, 敦岩町이 敦岩洞으로 등의 개정이었다. 그리고 당시에 아직도 崇仁面 관내에 그대로 남아있던 長位里·牛耳里·水踰里 등의 명칭은 광복 후에도 종전 그대로의 명칭을 답습하고 있다.

2) 穴居部族

8·15 광복이 이루어지기 이전, 즉 1944년 경부터 조선총독부와 경성부는 城北洞·敦岩洞 등 일대의 林野地帶에 굉장히 규모가 큰 防空壕를 구축하였다. 美軍의

本土 上陸作戰에 앞서 대규모 공습이 있을 것에 대비, 만약에 총독부 건물이나 京城府廳 등의 공공건물이 잦은 공습등으로 執務하기가 곤란해지면 이들 防空壕에서 起居하면서 집무를 볼 그런 心算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퇴락하여 그 자취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지만 光復 직후만 하더라도 이들 방공호는 쉽게 눈에 띄었고 그 규모도 크고 그 수도 대단히 많았다. 필자도 6·25 사변 직전에 지금의 京東高等學校(城北區 三仙洞 3가 50번지) 북쪽 담 맞은 켠 산허리에 몇개의 방공호를 보았고 그 규모의 크기에 놀란 일이 있다.

그런데 이들 日帝가 파 놓은 방공호에 만주에서 또는 일본 등지에서 돌아온 피난민들이 들어가서 살게된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土幕民이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런 방공호가 서울市內에 몇개나 있었는가. 그리고 광복후에 이 방공호 안에서 생활한 家口数가 얼마나 되었는가에 관한 公式統計나 자료는 전혀 전해지지 않는다. 아마 당시의 서울市 본청 또는 區役所·區廳 직원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두고 조사할 그런 정신적 또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에 관한 자료가 실로 어이없게 희한한 형태로 남아 있으니 하나는 小說의 형태로 또 하나는 戲曲의 형태로 전해진 것이다.

광복후에서 1980년대 말까지 이 나라 小說文學의 巨頭였던 金東里가 잡지「白民」1947년 3월호에 발표한 소설「穴居部族」이 전자이고 그 무대는「三仙橋와 敦岩洞 사이의 丘陵」이었다. 후자는 戲曲作家 金永壽가 쓴「血脈」이라는 희곡이었는데 그 무대는 城北洞이었다. 1950년 봄, 이 희곡을 당시 乙支路 4가에 있던 국제극장에서 上演했을 때는 모여든 관객으로 人山人海를 이루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바로 위의 두 작품이 혼돈의 극에 처해있던 당시의 時代相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소설「穴居部族」과 희곡「血脈」을 요약하면 각각 아래와 같다.

〈穴居部族의 줄거리〉

三仙橋와 敦岩橋 사이의 그다지 높지 않은 구릉 옆을 뚫은 10여개의 구멍들, 그앞은 앞 가릴 만한 것도 없이 허연 신작로가 지나가고 있다. 거적대기로 굴 앞을 막고 지내기 때문에 여름철은 그럭저럭 명랑하고 화창한 편이기도 하지만 길고 지루한 겨울을 바람막아 줄 것

없이 지내자면 거적대기로는 지낼 수 없어 나무 판대기를 대야 하는데 그것조차 이곳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여름에는 동소문 쪽에서 산들산들 바람이 불어오고 가끔 미국 비행기가 공중에서 소독약을 살포해 주기 때문에 모기의 극성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순녀는 반년전 이웃집(굴) 할머니의 안내로 이곳 혈거부족의 일원이 되었다. 옥희라는 어린아리를 등에 업고 온종일 서서 양담배 장사를 하고 있는데 끼니가 시원치 않아 아이에게 먹일 젖도 잘 나오지 않아서 아이는 늘 칭얼댄다. 경상도 출신으로 日帝下 조금이라도 잘 살아 보려고 만주로 갔지만, 출세해서 돌아가자던 남편은 병이 나고 해방이 되자 고향에 가서 죽고 싶어한다. 봉천·안동·신의주·평양 등지를 거치며 냄비 하나와 숫가락 셋, 아기 기저귀만 남긴 채 그나마 갖고 나왔던 물건 다 팔고 구걸도 하며 내려 오던 중 남편은 죽어 버리고 고마운 할머니의 정으로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녀가 들게 된 방공굴에는 거적과 궤짝까지 전부 마련되어 있어서 순녀는 가지고 온 보퉁이와 빗자루와 간장병을 놓으면 그대로 살림을 들게되는, 그런 방공굴이건만 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 黃生員은 이미 들기로 한 사람이 있다고 여러번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을 고르다가 순녀네가 오게 된 것이다.

순녀를 이곳으로 안내한 할머니는 평안도에서 내려온 사람으로 喪妻한 아들 黃生員과 같이 살며 삶은 고구마를 팔고 있는데, 순녀에게 큰 도움 줄 처지는 못되지만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며 아들과 순녀를 결혼시키고자 한다. 이들은 모두가 인정있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독립만 되면 이런 곳에서 고생할 리는 없을 거라고 믿고 있다.

애꾸눈 윤성달은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말 뿐이며 내 욕심만 채우고 싶어하는 음흉한 사람이다. 순녀에게 흑심을 품고 밤에 침입했다가 들키자, 황금정(을지로)에서 같이 지게품팔이를 하면서 살 곳을 걱정하는 가난한 사람(박서방)에게 없는 사람끼리 서로 도와야 하니 싸게 천원에 준다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집(굴)에 들도록 하려는 것을, 박서방은 깍아서 칠백환에 들어온다. 방공굴을 칠백환에 들어와서도 그만한 가치는 있다고 위로할 만큼 당시의 생활을 비참했다. 그들에게는 이곳 아니면 길거리 신세였기 때문이다.

어느 부슬비가 내리는 날 밤에 이웃의 굴 하나가 무너져 자고 있던, 일가족 중 마흔한살된 남자와 어린 여자아이가 흙속에 묻혀 죽고 어머니와 아들아이만 살아남는다.

이곳 사람들도 역시 독립을 기다린다. 독립만 되면 이런 고생스런 생활은 안 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소박하고 선량한 사람들이다.

〈血脈의 줄거리〉

血脈의 배경은 1947년의 이른 여름, 서울 성북동 근방의 비탈 언덕, 저 멀리로 도심지대

의 높은 건물이 보이고 밤이면 그 도심지대의 불빛이 별같이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 비탈 언덕 아래로는 3개의 방공호가 나란히 뚫려 있다. 이 언덕 위에는 밑에 사람이 살고 있으니 소변을 금지해 달라는 팻말이 서 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상을 간략히 소개하면

깡통영감은 후처 玉梅와 딸 福順을 데리고 살고 있다.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으로서 그들이 살고 있는 방공호는 좌편 구석에 장독대를 만들어 몇개의 독·항아리·방구리 등을 놓고 우편에는 거적을 덮은 헛간을 만들어 폐품 깡통을 이용하여 대야·두레박·남포 등을 만드는 작업장으로 쓰고 있다. 딸 복순은 셔츠·양말·타올 등을 보재기에 싸들고 行商하는데, 계모 玉梅는 딸을 기생 만들고자 애쓴다.

崔元八은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니와 병든 부인 韓氏, 동생 元七과 살고 있는 사람으로 고향은 평양이지만, 일제하에 쓰데가와 광산에 元七과 함께 징용 끌려갔다가 해방이 되자 귀환한 동포이다. 그들이 사는 굴은 옆 위에 미군 텐트조각으로 지붕을 만들고 아래에 평상을 놓은 마루가 있어 밥도 먹고, 낮잠도 자며, 한 옆으로는 빨랫줄을 달아 해진 셔츠·양말 등을 너저분하게 걸어 놓았으며, 또 한 옆으로는 풍로·독·항아리 등 세간살이를 을씨년스럽게 놓아 두었다. 원팔은 양담배·사탕·초코렛 등 木板 행상을 하는데, 폐병 걸린 아내와 일본서 대학 2년까지 다녔고 의식이 있다고 자처하면서 생활에는 전혀 보탬을 주지 않고 있는 동생(元七)을 거느리고 지치고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원칠은 조국 전체가 힘을 길러 서로 서로 협력하여 이런 거지 움(乞人 窟) 같은 생활을 다같이 벗어나야 한다고 자주 말하지만, 지금 당장의 생활이 고달픈 형에게는 못마땅하기만 하여 늘 갈등이 있지만 결국 가족애를 외면할 수 없어 인근 공사장에 나가 막노동을 하다가 다친다.

홀애비 털보는 以北에서 내려온 피난민으로서 셔츠·양말 등을 싸들고 복순과 함께 행상을 다니는 아들 거북이를 데리고 살면서 본인은 복덕방을 한다. 그의 방공호는 위에 「福德房」이라 쓴 벼(布) 포장을 걸어 놓았고, 옆에는 냄비 얹힌 풍로 하나, 그 옆에는 푼거리 장작 몇개피를 놓았으며 그 굴 옆쪽으로 조그마한 배추밭을 만들어 놓았다. 그는 힘들여 아들을 시흥 미군부대에 넣어서 거기서 나오는 찌꺼기를 팔아 아들도 출세시키고 그 덕분에 자신도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고자 하지만 막상 아들은 그렇게 살기를 거부한다.

이런 門牌도 없는 거지 움같은 땅굴의 살림살이건만, 姜哥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이 집들은 자신이 일제시대 그 언덕 위에 있던 공장에 사무원으로 다닐 때 뇌물 써 가며 힘겹게 접수를 하였다고 하며, 3천원의 권리금(당시 다른곳의 셋방은 만원 정도였다)을 내든지 아니면 집을 내놓고 행길로 나 앉을 것을 요구한다. 姜哥는 일본 패망후 적산가옥에 들어가서 자기 문패를 달아 내집을 마련한 사람이다. 그에 맞서 털보는 권리금을 안내고자 자신의 문패를 방공굴에 만들어 붙이고 이젠 내집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이것도 집에 속하냐고 항의하기도 한다.

털보와 玉梅는 자식을 시흥 미군부대에 넣거나 기생을 만들어 출세시키고 그 덕으로 이

방공굴을 벗어나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소망에 강요도 애원도 하지만, 거북이와 복순은 도망쳐서 소문으로만 듣던 영등포에 있는 제약공장에 취직한다. 생활비가 없어 팔만한 것은 다 팔고 그날 그날의 끼니를 걱정하며 양말등을 덧대고 덧대어 기워 신으며 살아가지만, 그 와중에도 도망간 자식들을 위하여 잘 살기를 빌어주고 형제가 잘 되기를 바라며, 독립이 빨리 되어 다 같이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눈물겨운 인정을 가지고 살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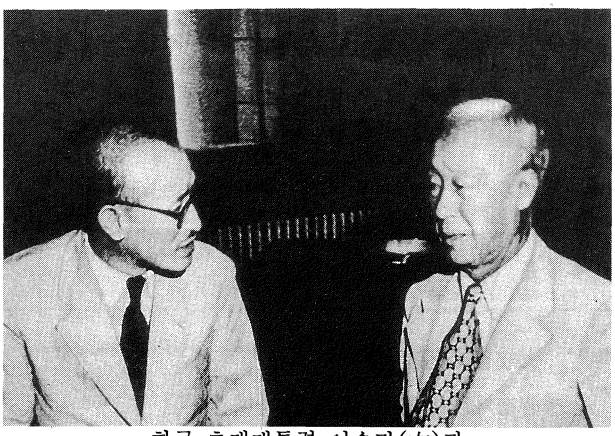
* 위에서 독립이라 함은 미군철수·남북통일 그리고 조선사람에 의한 정부수립 등을 총칭하는 뜻이다.

3) 大韓民國 政府수립, 서울의 區域擴張, 城北區의 탄생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것은 1948년 5월 10일이었고 이 선거결과 전국에서 200명, 서울은 10개 선거구에서 10명의 제헌의원이 당선되었다. 그리고 이 의회에서 이 나라 최초의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은 그 해 7월 17일이었고 이 의회에서 선출된 대통령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은 8월 15일이었다. 이와 함께 미군정은 종지부를 찍는다.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국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아무런 조사·통계도 정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1949년 5월 1일자로 전국에 걸친 인구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이 조사결과 서울의 인구수는 144만 6천명으로 밝혀졌으며 전국인구 2,019만명에 대한 서울인구의 비율은 7.16%였다.

이해(1949년) 8월 13일자 大統領令 제159호로 8월 15일부터 그 때까지 京畿道 高陽郡에 속했던 纛島面·崇仁面·恩平面의 전역과 始興郡 東面에 속했던 道林里·九老里·番大方里 등이 서울市 구역으로 편입되었다. 이렇게 서울시의 관할구역이 크게 확장됨에 따라 인구수도 약 15만명이나 더 늘어났으며 따라서 종전의



한국 초대대통령 이승만(右)과
초대 국무총리겸 국방부장관 이범석(左)

東大門區 관내 일부와 새로 편입된 崇仁面지역을 합쳐 城北區가 새로 생겨 서울은 종전까지의 8개 區에서 9개 區로 바뀐다. 城北區의 탄생과 관계된 大統領令 제159호와 崇仁出張所의 설립을 규정한 同 제160호를 全文 그대로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大統領令 第159號

市, 道의 管轄區域 및 區, 郡의 名稱, 位置, 管轄區域邊境의 件

서울市에 아래의 區를 설치한다.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城 北 區	東大門區 敦 岩 洞	東大門區 敦岩洞, 安岩洞 1가, 安岩洞 2가, 安岩洞 3가 安岩洞 4가, 安岩洞 5가, 鍾岩洞, 城北洞 京畿道 高陽郡 崇仁面

동 東大門區 管轄區域중 아래의 지역을 제외한다.

敦岩洞, 安岩洞 1가, 安岩洞 2가, 安岩洞 3가, 安岩洞4가, 安岩洞 5가, 鍾岩洞, 城北洞

동 城東區의 管轄區域에 아래의 지역을 加한다.

京畿道 高陽郡 纛島面

동 西大門區의 管轄區域에 아래의 지역을 加한다.

京畿道 高陽郡 恩平面

동 永登浦區의 管轄區域에 아래의 지역을 加한다.

京畿道 始興郡 東面 九老里, 道林里, 番大方里

京畿道 高陽郡의 管轄區域중 아래의 지역을 제외한다.

崇仁面, 纛道面, 恩平面

동 始興郡의 管轄區域중 아래의 지구를 제외한다.

東面 九老里, 道林里, 番大方里

附　　則

本令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大統領令 第160號

서울市 區 出張所 설치에 관한 件

서울市에 아래의 區 出張所를 설치한다.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西大門區 恩平面 出張所	西大門區 碌磻 里	碌磻里, 鷹岩里, 弘濟外里, 北加佐里, 南加佐里, 城山里, 中里, 水色里, 上岩里, 甑山里, 新寺里, 龜山里, 驛村里, 大棗里, 佛光里, 葛峴里, 平倉里, 舊基里
城東區 蠶島 出張所	城 東 區 西蠶島面	西蠶島里, 東蠶島里, 松亭里, 華陽里, 毛陳里, 陵里, 君子里, 中谷里, 面牧里, 九宜里, 廣壯里, 新川里, 蠶室里, 雌馬場里
城北區 崇仁 出張所	城 北 區 彌 阿 里	石串里, 長位里, 樊里, 牛耳里, 水踰里, 上月谷里, 下月谷里, 彌阿里, 貞陵里

附　　則

本令은 1949년 8월 14일부터 施行한다.

그리고 이때 종전의 崇仁面에서 城北區에 편입된 인구수와 土地關係調書 그리고 총면적과 居住可能面積은 다음과 같았다.[88]

人 口 와 土 地 關 係 調 書

地區	洞 名		人 口	空 地	道 路	田	畓	林 野
崇		貞陵一洞 貞陵二洞	17,622	166,647	17,667	42,951	123,487	2,054,524
		彌阿一洞						
		彌阿二洞	31,835					
		彌阿三洞						
仁	長洞	長 位 洞	5,880	36,957	16,894	96,403	341,970	271,155
	石	石 串 洞						
	華	樊 洞	4,743	54,200	35,663	326,438	970,097	670,097
地	溪	牛 耳 洞						
	洞	水 踰 洞						
區	月洞	上月谷洞	8,251	49,760	10,478	61,593	54,787	376,089
	谷	下月谷洞						
小 計			68,331					

88) 서울市市史資料 II, 서울特別市市史編纂委員會, 1982년 발행, pp.544～545.

洞 名		鐵道用地	河川敷地	堤 防	溝渠敷地	墓 地	其 他	1人當 占有面積
	貞陵一洞				19,718		1,729	79.2
	貞陵二洞							
	彌阿一洞							
	彌阿二洞							125.6
	彌阿三洞							
洞	長位洞	16,206	64,510	7,323	878	14,879		544.0
	石串洞							
崔	樊 洞		39,675		34,978	5,909	4,093	1,302
發	牛耳洞							
司	水踰洞							
洞	上月谷洞	7,746	9,928		5,977			229.0
	下月谷洞							
小 計								243.5

總面積과 居住可能面積調書

洞 名		總 面 積		居住可能面積	
		m^2	坪	m^2	坪
長	貞陵一二洞	8,839,013	2,673,801	1,397,348	422,698
一	彌阿一二三洞	5,582,037	1,688,566	3,915,372	1,184,440
司	長位洞	1,745,000	527,863	1,535,000	464,338
	石串洞	1,872,052	566,296	1,742,052	526,971
崔	樊 洞	2,945,000	890,863	2,403,335	727,009
發	牛耳洞	6,535,000	1,976,838	596,050	180,305
司	水踰洞	7,495,000	2,267,238	3,152,285	953,566
洞	上月谷洞	575,850	174,195	392,550	118,746
	下月谷洞	1,724,326	521,609	1,502,661	454,555
計		37,313,278	11,287,269	16,636,653	5,032,628

25事變과 城北區, 그리고 彌阿里 고개

25事變과 城北區 그리고 彌阿里

6월 25일 未明에 北韓의 일제공격으로 시작된 6·25事變 즉 韓國戰爭

은 韓半島 전역에 걸쳐 엄청난 상처와 피해를 입혔으며 동시에 숱한 副産物을 낳기도 하였다. 그런 부산물 중의 하나로 이 전쟁은 城北區 특히 「미아리」라는 지명을 온 나라안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에 널리 알리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이다. 우선 6·25사변은 3년 동안에 99만에 달하는 民間人의 死傷者와 모두 7만 9천여 棟의 住宅被害, 延建坪으로 따져 11,911,855평의 주택을 잿더미로 만들었거나 使用不能의 상태로 만들었다.

전국의 19개 市廳中 14개 市廳이 被害를 입었고 144개의 區·郡廳 중에서 80개의 區·郡廳이 戰災를 입었으며 각급학교의 교실 3만개, 銀行店鋪(金融組合 포함) 443개가 잿더미가 되었고 國內 全企業體의 70%가 넘는 1만 4백개의 企業體가 피해를 입었는데 4,673개의 工場(건평 11,181천 평)이 戰災를 입어 거의 모든 生産施設이 稼動不能의 상태에 빠졌다.[89]

戰災被害에도 지역차가 있어 農村보다는 都市에서 더 큰 피해를 입었고 都市중에서도 서울·인천·천안·대전·김천·진주·춘천·원주·포항 등은 거의 全市街가 灰燼되었으며 평택·성주·왜관·하동 등의 군청소재지도 크게 피해를 입었다. 서울의 경우 6·25전에 191,260동의 주택이 있었으나 事變으로 34,742동이 全燒되고 20,340동이 半燒된 외에 32,802동이 全破 또는 半破됨으로써 被害家屋이 46.9%에 달했으며 9개 區廳中 2개 區廳이 全燒되고 나머지 7개 區廳이 半燒 또는 半破되었고 277개의 洞事務所中 62개가 全燒破되고 205개가 半燒破되었으며 각급학교 교실 1,802개가 全燒破되고 514개가 半燒破됨으로써 被害 延建坪이 17,383坪에 달했다. 또 各種工場 1,139개가 파괴되어 이를 복구하는데 당시의 화폐가치로 792억원이 소요되어야 했다.[90]

이상에 6·25의 피해를 대체로 요약하였는데 城北地域 그중에서 특히 「미아리」라는 이름을 온 나라 안팎에 떨치게 한 것은 1950년 6월 26~28일에 걸친 彌阿里戰鬪와 「斷腸의 미아리고개」라는 가요로서 널리 알려지게 된, 서울市 내외의 많은 人士들이 이 미아리고개를 통해 이북에 납치되어 갔다는 사실이다. 아래에서 그것을 차례로 소개하기로 한다. 그리고 아래의 소개중에서 「彌阿里戰鬪의 槪況」에

89) 6·25事變 綜合被害報告, 1953년 公報處 발행의 자료에 의함.
90) 서울特別市 市勢一覽, 1952년도판, 「6·25事變綜合被害」에 의함.

관하여는 國防部 戰史편찬위원회가 1977년에 발간한 韓國戰爭史 제1권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임을 밝혀 둔다.

2) 彌阿里 戰鬪의 槪況

(1) 미아리 저지선의 형성

彌阿里 저지선의 右戰線 지휘관이 된 劉載興 준장과 左戰線 지휘관이 된 李應俊 소장은 이곳의 지세로 보아 하루 밤의 지탱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淸涼里－月谷洞－鍾岩洞－彌阿里를 연결하는 선에 소위 彌阿里지구 저지선을 형성하였다.

당시의 미아리는 서울市에 편입된지가 아직 日淺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일대가 共同墓地였으며 電車가 다니고 있었던 敦岩洞과는 고개 하나로 경계되어 있어 속칭 「미아리고개」라 불리었다. 이 고개의 북측에는 北漢山系를 水源으로 하는 貞陵川이 동남으로 흘러 中浪川으로 유입하고 있으며, 이 小川은 30m 폭에 양안이 3～4m의 단애를 이루고 있어 倉洞－彌阿里를 연결하는 吉音橋와 京春街道上의 中浪橋만 폭파한다면 對戰車防壁으로 적격이었으며, 3번 도로가 이 고개를 동서로 갈라 서울로 진입하고 있다.

당초 이 지역의 전투지휘관으로 임명된 李應俊 소장이 議政府地區 전투사령관과 지휘권을 분할하게 된 것은 지역이 넓고 착잡할 뿐만 아니라 통신시설이 없었던 관계로 이곳의 防守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까닭으로 보인다.

12.00가 지나면서 倉洞線에서는 軍人, 피난민들이 앞을 다투어 山으로 들로 밀려들기 시작하고, 敦岩洞 電車終點에는 부인단체에서 만들어낸 주먹밥이 수십개의 책상위에 山더미 처럼 쌓여 있었다.

그리고 彌阿里 저지선에는 헌병사령부의 헌병과 각 사단 헌병으로 된 낙오자 통제선과 수용소가 설치되었으며, 倉洞線에서 철수한 병력은 일단 여기에서 수용되어 취식한 다음 장교 3～4명에 사병 80～90명으로 중대를 임시편성하여 지정된 진지로 재배치하였다. 이렇게 하여 16.00에는 저지선의 윤곽이 잡히게 되었으나, 그 총병력은 제5사단의 2개 대대 및 제8연대의 1개 대대 병력까지 合하여도 3,000명에 미급하였으며, 이를 지원하는 火器로서는 105mm 곡사포 6문, 57mm 對戰車砲 8문, 81mm 박격포 15문이 그 전부였는데, 그중 57mm 대전자포 2문과 81mm 박격포 5문은 중랑교 부근에 배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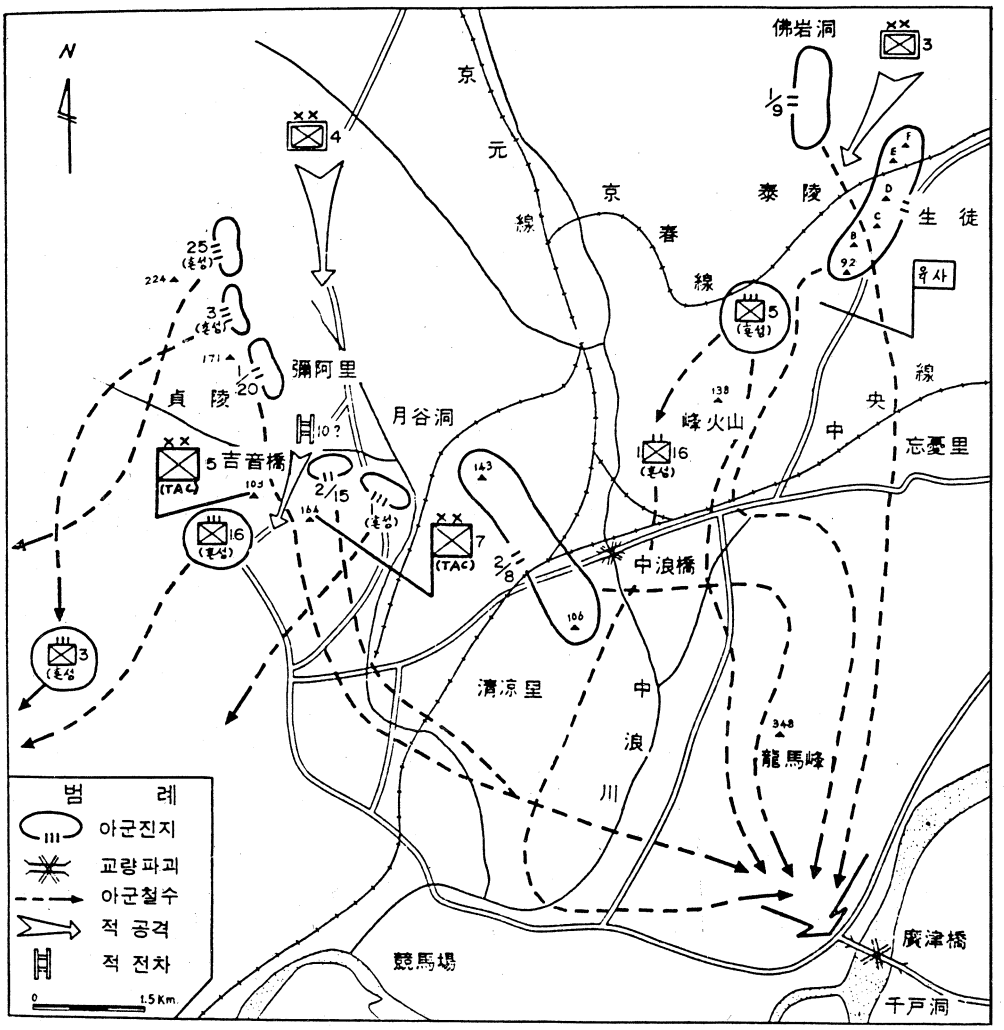
그리고 吉音橋의 폭파에는 宋鍾泰, 康昌祚 중위 등이 지휘하는 공병학교 교도대를 배치하였는데, 이에 앞서 이들은 倉洞線의 교량폭파에 임하였으나 기술 미숙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분산된 것이며 彌阿里에 집결한 工兵部隊 병력은 20여명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倉洞線을 휩쓴 醜敵은 20여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騎馬를 후속시켜 동일 17.00에 彌阿里線으로 육박하였으나, 그 最左戰線을 담당한 제20연대 제1대대(장, 金漢柱 소령)의 일제사

격에 이어 이곳 전 병력의 집중사격으로 그들은 1대의 전차를 유기한 채 도주하고 말았다. 이렇게 제20연대는 서전을 승리로 장식함으로써, 계속 밀리기만 한 이곳 장병에게는 사기와 용기를 불러 일으키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거기에다 金桂元 중령이 지휘하는 6문의 105 mm 곡사포가 계속 그들의 퇴로를 차단하였던 까닭에, 이것이 주효하였음인지 일몰 뒤까지도 그들의 재침을 볼 수 없었다.

이무렵 戰線에 위문차 나온 시민인사들은 확성기를 통하여 『國軍장병 여러분! 서울이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싸워서 적을 물리쳐 주십시오.』하는 내용의 가두방송을 반복하면서 彌阿里街道에서 哀情어린 호소로써 격려하였으며, 어린 女學生들도 위문품을 들고나와 장병을 위문하고 격려하였다. 또한 총참모장은 이 보다 좀 늦은 19.00에 彌阿

◇ 彌阿里－泰陵地區 戰況(6. 27)



里 戰線을 찾아 李應俊 소장과 劉載興 준장에게 『이제는 걱정할 것 없다. 美極東 사령부는 John H. Church 준장으로 하여금 전진지휘소(ADCOM)를 水原에 설치케 하고, 내일부터는 B－29 重爆擊機 100대가 軍을 지원한다. 美軍이 올 때까지 이 선에서 적을 저지하라.』고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그를 수행한 헌병사령관 및 참모들도 밝은 표정으로 낙오병을 수습하여 전력을 보강하는데 박차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이 최후 저지선에서 軍은 首都防守의 최종태세에 임하였으나, 모든 시민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음인지 아니면 18.00부터 방송하기 시작한 『美 極東사령부 전진지휘소 來韓』이라는 내용을 보도하는 都下 각 신문의 호외에 위안이 되었음인지 조용한 가운데 밤은 깊어갔고, 두텁게 깔렸던 구름은 빗 방울이 되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제5사단의 상황 : 사단이 이곳에 출동하기 전까지는 사령부를 光州에 두고 제15연대를 全州에, 제20연대를 松汀里(現 尙武臺 부근)에, 獨立대대(장, 金琮舜 중령)를 咸陽에 두어 智異山 및 白雲山 등지에서 준동하는 공비격멸작전에 임하고 있었는데, 6월 25일 08.00 陸軍本部로부터 『38°선 전역에 北傀軍 침입, 제5사단은 전 병력을 12.00까지 龍山驛에 집결시키라.』는 급전에 따라 각 지역에 분산된 부대를 긴급소집하여 출동시켰던 것이다.

사단장 李應俊 소장은 陸軍本部의 긴급 출동명령에 따라 제15연대(장, 崔榮喜 대령)를 全州에서 서울로 급진토록 부연대장 趙在美 중령에게 이르고, 제20연대(장, 朴基丙 대령)에 대하여는 이날 長城에서 順天地區로 출동한 제3대대(장, 朴熙東 소령)를 順天驛에서 회전케하여 26일 오전에, 또 光陽에서 복귀한 제1대대(장, 金漢柱 소령)를 동일 오후에 각각 출동시켰으나, 白雲山(光陽)에서 토벌중에 있는 제2대대(장, 李昌求 소령)가 당도하지 않아 잔류대장으로 임명한 李承轍 대위에게 『제2대대가 도착 즉시 서울로 출동하도록 조치하라.』라고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이날 야간 특별열차편으로 상경하여 27일 07.00 총참모장에게 도착보고를 하였는데, 총참모장은 이 자리에서 명령하되 『사단장께서 도착하기 전에 휘하의 1개 연대를 汶山 방면에, 또 다른 1개 연대를 議政府 방면에 투입하였는데, 이는 전선상황이 위급하여 취한 조치이니 사단장은 彌阿里로 나가 議政府 정면에서 철수하는 병력을 수습하고, 淸涼里 북방에 배치할 제8연대의 1개 대대도 통합 지휘하여 首都 서울을 防守하라.』는 것이었다.

이때 陸軍本部는 이 사단을 汶山 방면에 투입할 계획으로 먼저 龍山에 도착한 제15연대의 제3대대(장, 崔炳淳 소령)와 제20연대의 제3대대(장, 朴熙東 소령)를, 그때 마침 참모학교 피교육자로서 서울에 머무르고 있던 제15연대장 崔榮喜 대령으로 하여금 지휘케 하여 제1사단(장, 白善燁 대령)에 배속하고, 그 뒤를 이어 도착한 제15연대 제2대대(장, 安光榮 소령)도 제15연대장의 지휘하에 들게 하였다. 그러나 상황은 급변하여 議政府의 失陷을 확인하게 된 陸軍本部는 水色까지 진출한 동 대대를 급 회전케 하여, 그 뒤에 당도한 제20연대 제1대대(장, 金漢柱 소령)와 같이 제20연대장 朴基丙 대령으로 하여금 지휘케하여 彌阿里고개에 배

치하여 倉洞線을 보강케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유로 사단장은 휘하 부대의 소재도 확인하지 못한채 참모장 朴炳權 대령, 정보참모 金容柱 중령, 작전참모 文亨泰 중령을 대동하고 헌병대장 朴昌錄 대위와 함께 10.00에 彌阿里에 당도하여 △103를 전방지휘소로 정하고, 군수참모 徐慶澤 소령에게는 제18연대(현 육군본부)에 설치한 후방지휘소를 지휘케 하였다.

11.00에 사단장은 △103에서 제20연대장으로부터 부대배치 상황을 보고 받았는데, 제15연대 제2대대가 3번 도로 우측의 △132(전 예술고등학교)에, 제20연대 제1대대가 그 좌측의 △171(당시 공동묘지)에, 그리고 제8연대 제2대대(장, 高白圭 소령)가 △143(回基洞)에 각각 배치되었음을 확인하고, 사단 공병대대장 梁宗益 대위에게 인근 주민을 동원하여 각 대대의 진지공사를 지원케 하였다.

제20연대 제1대대의 상황 : 대대장 金漢柱 소령은 倉洞지역 부대의 엄호임무를 띠고 지난밤 △224－△117에 제1중대(장, 金成龍 대위), 제2중대(장, 金周鳴 대위), 제3중대(장, 金昌德 중위), 제4중대(장, 金用琳 대위)를 우로부터 좌로 1선배치 하였으나, 날이 밝은 27일 07.00에 地形偵察을 다시 하여 3번 도로의 瞰制가 용이한 공동묘지인 △117의 동측으로 재배치하였는데, 6정의 水冷式 重機關統은 3번 도로에서 교차사격이 가능하도록 하고, 81mm 박격포 5문은 △171의 남단부에 배치하여 3번도로의 삼거리에서 대대 左前面의 교량간에 탄막을 형성토록 하였다. 이때에 대해 전면에는 小橋粱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工兵이 배치되어 폭파장치를 하고 있고, 그로부터 50m 떨어진 도로의 좌측에는 金明煥 대위가 지휘하는 57mm 對戰車砲 3문이 이 교량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었다.

대대는 그간 共匪擊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重火器중대인 제4중대도 소총으로 장비되어 있었으며, 출동시에 연대兵器庫에 퇴장하였던 81mm 박격포와 기관총, 그리고 2.36″ Rocket 砲 등은 열차에 탑재하고 온데 불과하였다. 그런 까닭으로 대대장 金漢柱 소령은 집결지인 제18연대 막사에서 장비조작에 경험이 있는 자들로 재편성하고, 중대장도 金周鳴 대위에서 보병학교 초급반 교육을 이수한 金用琳 대위로 교체하였다.

그뒤에 대대는 사단 工兵隊와 西北青年團이 동원한 주민의 지원을 받아 △171에 진지 편성을 완료하고, 연대 通信장교 韓泰勳 소위 지휘로 연대와의 通信架設도 끝났는데, 이때 사단장으로부터 『곧 美軍이 오고, 증원부대가 갈터이니 진지를 고수하라.』는 전화에 이어 연대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이날 아침 1대의 L－19 輕飛行機가 『오늘부터 美 공군기가 출격하니 안심하라.』는 空中放送이 있었던 터이므로, 곧 美 폭격기가 출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飛行機의 爆音은 들리지 않고, 12：00가 지나면서 부터는 倉洞線에 배치되었던 병력이 밀리기 시작하여, 헌병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대대 방어지역을 통과하면서 후방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피난민도 철수병력 속에 섞여 나오고 있었다.

我軍의 철수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이는 17：00에 20여대의 戰車와 騎馬隊列이 陣前으로

육박하기 시작하므로 대대장은 이들이 진전으로 다가오는 것을 기다려 교량에 전차가 이르렀을 때 『사격 개시!』 명령을 하달하여 일제 집중사격을 가하게 하였다. 동시에 工兵은 爆藥의 導火線에 점화를 시켰으나 교량에 구멍이 뚫릴 정도로 끝나고, 57mm 對戰車砲도 先導戰車에 側射를 가하였으나 오히려 戰車로부터 반격을 받기만 하여 그중 1문이 파괴되고 그 사격組員 6명이 적탄으로 전몰하고 말았다. 그리고 제4중대장 金用琳 대위가 편성한 2.36″Rocket 砲의 戰車特攻組는 조작 미숙으로 한발도 발사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를 본 연대 정보장교 文鏈燮 중위는 직접 Rocket 砲를 조작하여 先頭戰車 1대를 각좌시켰다. 이로 인하여 길이 막힌 그들은 협로에서 전차를 돌려 되돌아가고 말았는데, 이때 나무와 풀로써 전차를 가장하였던 장갑차와 차량들은 雨注하는 我軍의 포격과 총격으로 박멸되고, 10여대로 보이는 전차만 퇴각하였다.

이때에 여기에서 俘虜한 北傀 戰車兵은 말하기를 『威力偵察중 체포되어서 분하다. 우리 지휘부에서는 초전에 國防軍 보병의 저항이 의외로 완강하였음에 놀랐으나, T－34 전차에 상대하는 화기가 國防軍에 없음을 알게 된 뒤로부터는 보병의 전투를 극력 피하고 전차를 주로 하는 전법으로 전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의 연대장 朴基丙 대령은 『이러한 일이 있은 뒤부터 비가 몹시 오고 적이 접근하는 기색이 없어서, 그들의 재침을 다음날 早朝로 예상하였다.』라고 하였다.

제15연대 제2대대의 상황 : 제15연대 제2대대(장, 安光榮 소령)는 26일 03.00에 全州를 출발하여 同일 11.00에 龍山驛에 도착하였는데, 同 驛에서 『汶山 방면으로 직행하라』는 총참모장의 명령을 받고 곧 水色驛에 이르렀는데, 재차 복귀하라는 陸軍本部의 명령에 따라 대대를 서울市內로 후퇴시켜 제18연대 막사에 수용하였다.

27일 07.00에 제20연대장 朴基丙 대령은 대대장 安光榮 소령에게 『貴 대대는 이제부터 내 지휘를 받을 것이며 彌阿里고개 우측의 △132(전 藝術高等學校 뒤 高地)를 점령한 다음 이를 고수하라.』라고 하였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대대장은 이날 08.00부터 대대를 미아리 고개로 이동시켜, 제7중대(장, 裵益成 대위)를 동 高地의 동록에, 제5중대(장, 金 淳 대위)를 북록에, 제6중대(장, 金國柱 대위)를 서록에 전개하였다. 그리고 제8중대(장, 安政熙 대위)가 보유하는 81mm 迫擊砲와 小銃중대의 60mm 박격포로서는 砲兵火力 계획에 맞추어 삼거리에 火集帶를 형성토록 하였다.

그런데 대대는 이날 14.00를 期하여 제20연대장 朴基丙 대령의 지휘에서 벗어나 우측에 인접한 제1연대(장, 李喜權 중령)의 작전통제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구두상의 지휘권 변경이며, 통신시설이 없었고 부대의 소재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1연대와는 아무런 접촉도 없이 독자적인 부대지휘를 하게 되었다. 대대는 사단 工兵과 인근 주민의 협조를 얻어 진지구축을 완료하고 대대관측소를 △132에 설정하였다.

제8연대 제2대대의 상황 : 제2대대장 高白圭 소령이 27일 08.00에 연대장 徐鐘喆 중령으로

부터 수령한 명령의 요지에 이르기를 『대대는 清涼里 북쪽 요선에 전개하여 서울 東北郊를 방호하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대대장은 노량진에 집결한 부대를 청량리로 이동시켜 동일 10.00에 제5중대(장, 安泰甲 중위)를 右 제1선으로 하여 △106(清涼里 동쪽 1km)에, 제6중대(장, 金福經 대위)를 中央 제1선으로 하여 中浪橋(清涼里 동북쪽 1km)부근에, 제7중대(장, 金鳳俊 대위)를 左 제1선으로 하여 △143(清涼里 북쪽 2.5km)에 각각 전개시켜, 제8중대(장, 鄭昇和 대위)의 機關銃소대는 제5, 제7중대에 각각 1개 소대씩 배속하고 81mm 박격포소대는 △143 동단에 배치하여 대대를 일반지원케 하였다.

이에 앞서 대대장 高白圭 소령은 25일 10.00에 陸軍參謀학교 피교육중 복귀한 연대장 徐鐘喆 중령을 따라 水落山(議政府 남동쪽 5km) 일대의 지형을 정찰하였는데, 재차 육군총참모장으로부터 하달된 연대의 임무는 『加平으로 이동하여 제6, 제7사단간의 노출된 측방을 방호하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대는 연대의 선발대로써 동일 16.00에 加平으로 이동하여 寶納山(加平 북쪽 1km)에 진지편성중 26일 19.00 『漢江南岸으로 철수하라.』는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이날 07.00 노량진에 집결한 것인데, 그 직후에 서울 東北郊의 방어임무를 받고 다시 북상하게 된 것이며, 이때에 제3대대(장, 朴泰云 소령)는 金浦지구 방어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대대는 敵과의 접촉도 없이 세번이나 부대이동만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전투력만을 분산시키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대대가 진지에 진입하여 築城이 완료될 때까지의 敵情에 대하여서는 말할 나위없고 아군의 전반 상황도 杳然한 상태였으며, 다만 병사들의 이목을 통하여 左 인접에 제5사단이 배치되었음을 알았고, 이날 15.00에 제3사단 공병 1개 소대가 中浪橋부근에 나와 있음이 보고되었을 뿐이다.

철수부대의 상황 : 倉洞線에 배치된 부대는 각자 분산으로 그 일부는 泰陵과 구파발의 두 방향으로 철수하였으며, 彌阿里로 철수한 병력만은 대체로 落伍者 收容所에서 소속이나 建制에 구애됨이 없이 80~90명 1개 중대로 편성하여 재배치하였다. 따라서 각 연대는 그 주력의 소재에 따라 제1연대 혹은 제25연대 등으로 호칭되었는데, 제1연대는 3번 도로 우측인 △164의 동단(鍾岩洞)에, 그리고 제3연대는 貞陵에, 제25연대는 미아리 고개에 각각 배치되었으며, 제16연대는 예비로써 敦岩國民學校에 집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이곳에서 며칠만에 처음으로 급식을 받게 되었고, 탄약도 분배되었으나 山을 따라 철수한 부대와 멀리 떨어져 있었던 부대에게는 아무런 후방지원도 없었던 것이다.

陸軍本部의 情況 : 총참모장 蔡秉德 소장은 金鍾泌 중위의 상황보고에 따라 서울 고수에 대한 그의 신념을 번복하고 陸軍本部와 在京부대를 12.30부터 始興으로 철수토록 하여, 15.00에 步兵학교로 이동하였다. 陸軍本部의 뒤를 따라 始興으로 이동한 美 軍事顧問단장 대리 William H.S. Wright 대령은 東京의 MacArthur 元帥로부터 『중대한 결심을 할 단계에 이르렀으니 원 위치로 복귀할 것. 상황을 낙관해도 좋다.』라는 지령을 받고, 이를 총장에게 전하

였다. 이에 따라 총참모장은 그의 결심을 또다시 변경하여 복귀명령을 하달하게 되었고, 이미 철수한 부대들은 17.00를 전후하여 원 위치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각 부대는 철수할 때에 통신시설을 모두 파괴하였기 때문에, 상당 시간 통신의 마비를 면치 못하게 되었으며, 거기에다 軍의 뒤를 따랐던 일부 시민들도 다시 서울로 귀환의 길을 재촉하는 등으로 漢江橋와 龍山 일대는 車輛隊列과 往復人波로써 혼잡의 극을 이루게 되었다.

(2) 彌阿里 저지선의 붕괴

彌阿里에 저지선을 형성한 李應俊소장과 劉載興 준장은 각각의 담당 지역내의 방어진지를 확인하고, 敵 戰車의 진출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헌병으로 하여금 동원케 한 각종 차량 수십대로써 삼거리일대의 大路를 폐쇄케 하는 한편 모든 曲射火器로써 이 일대에 火集帶를 형성케 하였으며, 57mm 대전차포와 2.36″ Rocket포 등 對戰車火器는 이 고개의 좌우측에 배치하여 吉音橋上에 지향케 하고 각종 小火器는 야간에도 최저 표척사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工兵장교 松鍾泰, 姜昌祚의 양 중위가 지휘하는 工兵은 吉音橋에 배치하여 전차가 다리 위에 이르렀을 때 폭파시키도록 그 임무를 부여하고, 이의 실시가능성을 수 3차 점검하고 확인하여 倉洞線에서와 같은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양 지휘관이 방수태세를 굳히고 적의 야습에 대비하였으나, 이들 부대를 통할지휘할 수 있는 통신수단이 없었다. 특히 야간작전에 있어서는 통신의 의존도가 증대되는데 유일한 연락수단인 傳令의 활용도 줄기차게 쏟아지는 폭우와 칠흑같은 夜暗으로 무위하게 되었으며 각 부대를 통제할 길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빗물에 잠긴 散兵壕내의 장병은 호 밖으로 나와있게 되고, 노변에 배치된 병사들은 인근 민가의 처마밑에서 비를 피해야 하는 실정에 있었다.

이때에 여러 지휘관들은 『敵이 야습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단하였다는 것인데 그 까닭은 그들이 38°선을 돌파한 이래로 夜襲이라고는 전혀 없었고, 이날 17.00 한차례 크게 패퇴한데다 폭우로 인하여 機動의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23.00가 지나면서 비는 점차 멎기 시작하였으나 전투위치를 이탈한 자들은 잠이 들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무렵 서울의 곳 곳에서는 총성이 울리면서 曳光彈의 불꽃이 상공을 누볐다. 이는 피난민으로 가장하여 잠입한 것으로 보이는 敵 遊擊隊의 소행으로써 그들의 전투부대와 호응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으나 我軍은 이를 막연히 간과함으로써 江 건너 불 구경과 같이 지나치고 말았다.

한편 汶山 방면으로 侵襲한 敵은 我 제1사단에 의하여 奉日川 북쪽에서 저지되고 있었으나, 倉洞을 침습한 北傀 제4사단은 그 여력으로 서울을 강점하려고 彌阿里를 목표로 육박하였다. 그러나 我軍의 완강한 항거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퇴각한 것으로 보였는데, 그들은 미리 잠입시켰던 遊擊隊의 호응을 받아 24.00를 전후하여 彌阿里를 급습하였다.

이때 이를 목격한 제15연대의 朴東甲 이등상사의 말에 따르면『이들은 삼거리에 설치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偵察兵의 유도를 받으면서 吉音橋로 접근하였다.』고 하였다. 戰車의 폭음에 놀란 병사들은 졸음에서 깨어나 적의 접근을 알리는 총성을 울렸고, 敦岩洞 電車 終點에서 6문의 105mm 곡사포를 지휘한 金漢柱 중위는 이를 확인키 위한 照明彈을 발사하였다. 비와 안개로 인하여 뚜렷하지는 않으나 戰車로 보이는 10여개의 물체가 照明下에 부각되자마자, 고개 좌우측에 배치되었던 57mm 對戰車砲와 2.36″ Rocket砲 및 機關銃 등이 일제 사격을 가하여 이 戰車에 명중시켰으나 오히려 태연하게 고개로 접근하면서 戰車砲와 機關銃을 난사하여 어둠속의 彌阿里 고개를 불바다로 화하게 하였다. 그들은 사격을 가하면서도 유유히 고개를 넘어 서울로 闖入하게 되었는데, 이때가 28일 01.00의 일이었다. 이를 확인한 모든 장병들은 경악한 나머지 각개 분산하고 말았으며, 丘陵지대에 배치된 대부분의 부대들은 날이 밝은 다음 敵 보병부대의 急射를 받고 비로소 서서히 철수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서울의 最終堡壘인 彌阿里 저지선이 허무맹랑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가) 右戰線의 상황 : 彌阿里 저지선의 右戰線을 담당한 劉載興 준장은 △164(彌阿里고개 우측)를 前方指揮所로 하여 同 高地의 서단에 對戰車火器와 병력을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姜文奉 대령으로써 道路障碍物 설치와 吉音橋 폭파장치의 준비상태를 확인 점검케하여 對戰車 방어책을 강구하는 한편, 右戰線에 배치된 부대와는 전령으로써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 제1선의 제8연대 제2대대와는 수차에 걸친 전령의 파견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유지되지 못하고, 그러는 동안 폭우와 함께 밤은 깊어갔다.

劉載興 준장은 敵의 야습은 없을 것으로 보았으나, 날이 밝으면 大攻勢가 예상되는 그들의 戰車와 大兵力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陸軍本部의 계획과 대책을 알아보기 위하여 22.00에 陸軍本部에서 총참모장을 만났다. 그러나 총참모장으로부터 그의 물음에 대한 답은 듣지 못하고『陸軍本部를 漢江이남으로 철수할 것이니, 劉 준장은 빨리 돌아가 李應俊 소장과 상의하여 彌阿里戰線을 고수하라.』는 질책만을 받고 전선으로 돌아갔는데, 총참모장의 복안으로 보아 종국은 서울을 포기하고 陸軍本部를 한강 남쪽으로 철수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처로써 彌阿里 戰線을 형성시켜 엄호임무를 수행케 하였던 것으로 추찰하였다.

戰線으로 복귀한 劉載興 준장은 즉각 군수참모 尹永摸 소령을 전방지휘소로 불러 필요한 지시를 하고 明朝에 감행할 작전에 대비케 하였다.

한편 참모장 金鍾甲 대령은 倉洞線에서 사령부 요원과 같이 철수하여 사단장과는 연락을 유지하지 못한 채, 연락장교단장 李龍文 대령과 함께 철수병력 수습에 임하고 있었던 것이며, 군수참모 尹永摸 소령은 軍需 지원요원들과 같이 敦岩派出所로 철수하였던 것이다.

당시의 군수참모 尹永摸 소령은 그때의 상황을 술회하기를『나는 軍需支援 특별참모들과 倉洞線에서 철수하여 敦岩派出所에 있었는데 23.00에 연락장교로부터 사단장이 찾는다는 말을 듣고, 彌阿里고개 남쪽에 자리한 사단 전방지휘소로 갔다. 사단장은 나에게「明朝를 기하

여 반격할 것이니 탄약과 給食分配를 05.00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되, 제6사단 병력까지도 이에 포함시켜 준비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사령부의 불요불급한 行政要員과 중요서류 등은 곧 鷺梁津으로 철수시키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미 夜深한 때인지라 給食問題는 병참중대장 崔昌燁 대위에게, 兵器 및 彈藥問題는 병기부장 李載龍에게 각각 분담시켜 이를 05.00 이전에 완료하도록 강력히 지시하고, 城北警察署에서 참모장을 만나 사단장의 뜻을 전하였는데, 이 때에 참모장은 경리참모에게 일부 行政要員과 사단 運營資金 및 중요서류 등을 3/4 ton車에 실어 떠나게 하였던 것이다. 그 뒤 그를 만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 漢江橋 폭파시 變을 당한 것이 아닌가 본다. 이와같은 조치를 취하는데 1시간이 경과되었을 무렵 彌阿里고개에서는 교전하는 銃砲聲이 요란하게 메아리쳤다. 나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車를 몰아 지휘부로 달렸으나 敦岩洞 電車길에 이르렀을 때 굉음과 함께 고개를 넘어오는 戰車의 대열과 부딪치게 되었으며, 이에 놀라 차를 급 회전시켜 전투준비에 여념이 없는 軍需지원요원들을 대동하여 西氷庫에서 漢江을 건너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이렇듯 서울 방호를 위하여 지휘관 참모가 동분서주한 보람도 없이 사태가 이미 이에 이르렀으니 또 무엇을 어떻다고 할 것인가. 運이요, 命이라고 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제8연대 제2대대의 상황은 省略)

제1연대(흔성)의 상황 : 제1연대(장, 李喜權 중령)는 △164의 동록에 배치되었으나, 27일 밤의 폭우와 함께 그 일부는 시내로 잠입하여 참모장 金鍾甲 대령에 의하여 城北경찰서에 수용되고, 잔여병력이 정신을 가다듬었을 때에는 이미 敵의 전차가 침입한 뒤였으므로 각개 분산하여 각 渡船場을 찾아 漢江을 건너게 되었다.

제15연대 제2대대의 상황 : 제2대대(장, 安光榮 소령)는 彌阿里 고개 입구에 해당하는 △132에 진지를 편성하고, 敵의 夜襲에 대비하여 주간에 高地에 배치한 기관총이나 2.36″Rocket 砲를 低地로 옮겨 射向을 吉音橋에 지향케 하였다. 그러나 적의 전차가 진전에 육박하였을 때는 대대의 대부분이 잠 들고 있었으니, 당시 吉音橋의 경계임무를 맡고 있던 제5중대원의 목격담에 따르면 한 兵士가 접근하는 敵의 정찰병에게 『停止 누구냐!』고 誰何하자 상대방은 咸鏡道의 사투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그 哨兵의 가슴에 총검을 찌르고, 전차를 유도하며 앞으로 나갔다고 하였으며 또한 附言하기를 『1개 분대로 보이는 정찰병이 전차보다 30～40m 앞을 전진하였는데, 吉音橋에 이르러서는 먼저 교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뒤로 돌아가서 戰車兵에게 이상이 없다고 전달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戰車를 먼저 발견한 제5중대 초병들의 총성이 울리면서 고요했던 彌阿里 고개에는 또 한차례 彈雨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때에 제5중대장 金 淳 대위는 戰車가 눈앞에 다가옴을 목격하자 곧 수류탄을 들고 전차에 뛰어 올랐으나 그들이 발사한 기관총으로 장열하게 전사하였다. 이를 본 선임장교 李昌道 중위는 朴東甲 이등상사와 같이 전차에 뛰어오르려 하였으나 該 戰車群은 이미 고개 중턱을 오르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제6중대장 金國

柱 대위도 2.36″ Rocket砲를 비롯한 全 火器를 전차를 목표로 집중발사케 하였으나, 鐵甲에 맞아 반사를 일으킬 뿐으로 그대로 속력을 가하여 고개 너머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로써 20여분간의 포효도 사라졌고 동 고개는 다시 고요속에 묻히게 되었다.

나) **左 戰線의 상황** : 彌阿里 방어선의 좌 전선을 담당한 李應俊 소장은 △103(彌阿里 고개 左側)를 전방지휘소로 하여 제20연대(－2)를 △171의 동록에 제3연대(－2)를 △224와 △171 간에, 그리고 제25연대(－2)를 △224 동록으로 조정 배치하고, 제16연대(－2)는 이미 말한대로 敦岩國民學校에 집결시켜 예비로 하였다. 對戰車 방어 대비에 있어서는 우 전선과 같이 확인한 바 있거니와 심한 소낙비가 내리기 때문에 敵의 侵襲 예상시기를 다음날 早朝로 보고 있었다.

그런데 22.00가 지나면서 후면의 市街地 곳곳에서 曳光彈이 오르기 시작하고 전방에 배치한 일부 병사들이 동 고지로 몰려들었다. 李應俊 소장은 한 士兵을 붙들고 『왜 후퇴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 兵士는 『후퇴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면서 시내로 들어가 버렸다. 이상히 여긴 동 소장은 연락장교를 보내 상황을 확인해오도록 하였는데, 칠흑같은 夜暗으로 인하여 인접부대를 찾지못하고 돌아왔던 까닭에 다시 사단 참모장 朴炳權 대령과 정보참모 金容柱 중령으로 하여금 육군본부로 가게하여 이 저지선을 고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철수하는 것인지 육군본부의 확고한 방침을 알아 오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朴炳權 대령이 육군본부에 당도하였을 때는 23.30이였다. 狀況室에서 작전국장 張昌國 대령을 만났는데, 동 대령은 『나로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고 하여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정보참모 金容柱 중령과 車를 타고 敦岩洞 電車終點에 닿기도 전에 전방에서 전차의 궤도 소리가 들렸다. light를 끄게 하고 金 중령으로 하여금 확인토록 한 바, 전차임이 분명하였는데 4대를 확인하였다. 車를 돌려 길 가에 세워 놓고 포복을 하다시피 하여 전방지휘소까지 갔을 때에는 이미 李應俊 소장은 보이지 않고 작전참모 文亨泰 중령과 몇몇 장교들이 남아서 철수명령을 하달하고 있었다.

참모장 朴炳權 대령은 工兵대대장 梁宗益 대위에게 『各 부대를 景武臺 뒷 高地로 철수하도록 전달하라.』라고 이르고 參謀要員과 같이 01.30에 △103를 떠나 "아리랑 고개" 경유로 서울 市街地를 횡단, 西氷庫에서 漢江을 건넜으니, 예하 부대에게는 철수명령이 전달되지 않았다.

한편 李應俊 소장은 △103에서 참모장 朴炳權 대령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24.00가 되도록 오지 않았다. 잠시 뒤 전속부관 崔德彬 중위는 『사단장님 벌써 敵 戰車가 통과했습니다.』라고 보고한데 이어 옆에 있던 작전참모 文亨泰 중령도 『이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육군본부의 동정을 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李應俊 소장은 작전참모 文亨泰 중령에게 『28일 00.30를 기하여 현 전선을 철수한다. 전 부대는 노량진으로 집결토록 전달하라.』는 구두명령을 하달하고 △103를 떠났다. 그뒤 文亨泰중령은 철수명령을 전령편으로써 전달케 하였으나 전달이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를 회상하여 李應俊 소장은 말하기를『首都 서울 방수를 위한 최종의 보루를 단 하루도 지탱하지 못하고 물러서야하는 심정은 착잡하기 한이 없었다. 헌병대장 朴昌錄 대위의 호위를 받으면서 육군본부에 당도한 것은 02.00였는데, 나를 본 참모부장 金白一 대령은「이거 어찌된 일이냐」고 당황해 하였다. 그 옆에는 작전국장 張昌國 대령 정보국장 張道英 대령도 있었으나 敵 戰車가 시내로 침입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였다.

한편 사단 후방지휘소에 있던 군수참모 徐慶澤 소령은 이날 밤 雨中임에도 曳光彈이 계속 오르고 있음을 수상히 여기고 戰線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부중대장 崔民壽 중위와 같이 사단 전방지휘소를 방문키로 하였다.

이들이 彌阿里 고개를 오르고 있을때, 고개를 넘어오는 전차와 마주치게 되었다. 車를 세운 徐慶澤 소령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전차에 접근하였는데, 이때 不意에 機關銃射擊을 받은 徐慶澤 소령은 그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를 보고있던 崔民壽 중위는 급히 차를 회전시켜 사단 후방지휘소로 돌아가 철수를 서두르게 하였으나 이미 漢江橋가 폭파되어 西氷庫에서 배편으로 한강을 건너게 되었다.

제25연대(혼성)의 상황 : 연대장 金炳徽 중령은 27일 19.00에 混成兵力 500여명을 수습하여 彌阿里 고개 좌단에 전개시켰으나, 그 뒤 姜文奉 대령의 지시에 따라 부대를 三陽洞으로 이동시켜 배치하였다.

이날 初夜半에 偵察隊로 보이는 1개중대 규모의 敵이 대대 전면에 나타났으나 그들은 전투를 회피하는 듯이 곧 어둠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전선은 소낙비만 내릴뿐 고요하였다.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난 뒤 검은 물체의 대열이 3번 도로를 따라 미아리 고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장병이 졸고 있었던 까닭에 이를 알지 못하였다. 연대장 金炳徽 중령도 그간의 피로가 겹친 탓으로 깜박 잠이 들었는지 東天이 밝았을 때는 敵 전차대열과 보병부대의 대열이 남하중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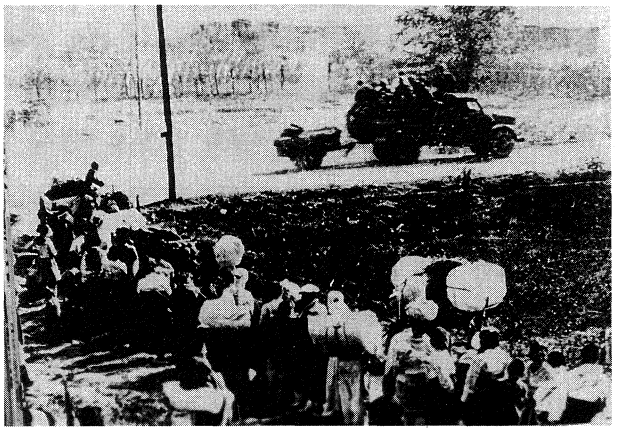
그리하여 연대장은 부대를 永登浦 방면으로 철수시킬 복안으로, 작전주임 曺南喆 소령과 정보주임 姜應燮 대위 등 本部要員을 시켜 부대를 北岳山(中央廳 뒷山)으로 철수 시켰는데, 이곳에 집결한 병력은 300여명이었다. 거기서 내려다 본 서울 시가의 곳 곳에는 이미 北傀旗가 게양되고, 靈泉派出所 앞에는 전차 3대가 보였으며, 西大門 形務所 쪽에서는 萬歲소리가 들려오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해가 진 다음 小集團으로 漢江을 渡江하도록 침투시켰는데, 마지막 남은 50여명은 敵 정찰대에 의해서 발각되어 紫霞門에서 분산되었으며, 연대장 金炳徽 중령은 北漢山에서 2일간을 보낸 뒤 변복하고 피난민 대열에 끼어 廣莊洞에서 漢江을 건넜다.

(제3연대(혼성)의 상황 省略)

제20연대 제1대대의 상황 : 연대장 朴基炳 대령은 서전에서 승리를 거둔바 있는 제1대대(장, 金漢柱 소령)를 격려하면서 연대 군수주임 金瀅栽 대위로 하여금 탄약과 식사를 추진케 하였다. 대대는 그 뒤에도 我軍의 배치상황을 探索하려는 1개 중대 규모의 적 정찰대를 물리쳤으

며, 야간전투에 대비하여 그 右半은 부대대장 吳泰泳 대위가 그 左半은 대대장 金漢柱 소령이 직접 지휘키로 하였다.

그러나 이 대대에서도 밤 사이에 적 전차가 저지선을 뚫고 서울로 침입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8일 날이 밝아서 적의 대부대가 남하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상황이 달라졌음을 알게 되었다. 대대장은 즉시 EE-8 전화기로 연대장과 사단지휘소를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었다.



피난민 행렬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었던 부대들도 보이지 않은 까닭에 전령을 보내어 연대와 사단 지휘부를 확인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찾지 못하였다. 이에 당황한 대대장은 부대대장과 各 중대장을 거느리고 現 진지에서 철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자리에는 지난 밤 탄약과 식사를 운반하고 쏟아지는 비로 인하여 돌아가지 못한 군수주임 金瀅栽 대위도 같이 있었다.

그리하여 대대는 28일 06.00 서울 地理에 밝은 제1중대장 金成龍 대위를 선두로 하여 철수하기 시작하였는데, 선두 부대가 三仙橋 부근에 이르렀을 때 敵 전차가 포격을 가하면서 추격하였다. 이에 당황한 대대는 安岩川으로 뛰어 내려서 개울을 따라 뚝섬으로 빠져 나가게 되었다. 대대가 漢江邊에 와서 나룻배로 한강을 건너기에 앞서 점검한 결과 태반의 병력과 각종 共用火器를 잃게 되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 손실중에는 成鶴喆 대위, 朴淑清 중위, 金淙寬 중위 등을 포함한 2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철수제대의 뒤를 따르던 제4중대(장, 金用琳 대위)와 제3중대(장, 金昌德 중위)는 선두부대가 흩어지는 것을 보고 다시 북상하여 北岳山, 紫霞門 쪽으로 철수하였던 것인데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처럼 많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었던 것이다.

제16연대(혼성)의 상황 : 연대장 文容彩 대령은 27일 19.00에 1개 대대 미달의 混成병력으로써 敦岩國民學校에 집결하여 彌阿里지구 전투사령부의 예비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22.00가 지나면서 부터는 시내의 여러 곳에서 曳光彈이 오르기 시작한 까닭에 전령을 시켜 어느쪽에서 울리는 신호인지를 확인토록 지시하였으나, 보낸 전령은 돌아오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曳光彈의 신호만은 계속 오르고 있었다.

이때에 부연대장 李源長 중령은 연대장에게 의견을 구신하되 『戰線은 조용한데, 지금 曳光彈이 오르고 있는 것은 침투한 敵의 신호로 보이며, 우리는 敵의 포위망 속에 있는지도 모르니 그들에게 전멸을 당하느니 보다 안전한 곳으로 철수하였다가 後圖를 策할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라고 하였으나 연대장은 『상부의 명령없이는 철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완강히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예광탄은 더 심하게 오르는 것 같이 보였고 주위의 조용함은 더욱 더 불안감을 자아내게 하였다. 그리하여 부연대장 李源長 중령은 철수할 것을 재차 건의한 결과 연대장은 이에 동의하고 부대를 漢江 남쪽으로 철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와 같이 되어 연대는 동일 24.00를 기하여 철수를 강행하였으며, 同 대열이 鷺梁津 水源池를 통과할 때에 後方에서 "꽝"하는 폭음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반면에 彌阿里 고개에 분산 배치되었던 연대의 일부 병력은 敵 전차가 서울에 침입한 뒤에도 철수치 않고 항전하여 國軍의 기개를 고양시키기도 하였는데, 그는 동 연대 제3대대장 대리 崔敏燮 대위와 동 대대의 韓金錫 중위 등이다.

崔敏燮 대위는 동 대대 정보관 金熙碩 대위가 지휘하는 혼성 1개 소대와 같이 제25연대 지역에 배치되었는데, 敵의 전차가 방어 정면에 통과하자 철수하려는 소대를 제지시켜 28일 06.00에 후속하는 적 1개 대대 규모와 교전한 결과 30여명을 사살하였다. 그러나 중과부적인 소대는 敵 기관총 사격에 제압당하여 흩어지고 말았으며, 철수시기를 잃은 崔敏燮 대위는 끝내 한강을 건너지 않고 敵 治下의 奉日川, 汶山 등지에서 遊擊戰으로 그들의 치안을 교란시키고 있다가 9.28 수복 이후 그의 공적을 인정받고 軍에 복귀하게 되었다.

또한 韓金錫 중위는 28일 07.00 그의 左右側 인접부대들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도 소대를 昌信洞 돌산(활터)에 배치하고 시내로 침습하는 敵 보병에게 집중사격을 가하게 하여 그들을 분산 지연시키게 하였다.

3) 斷腸의 彌阿里 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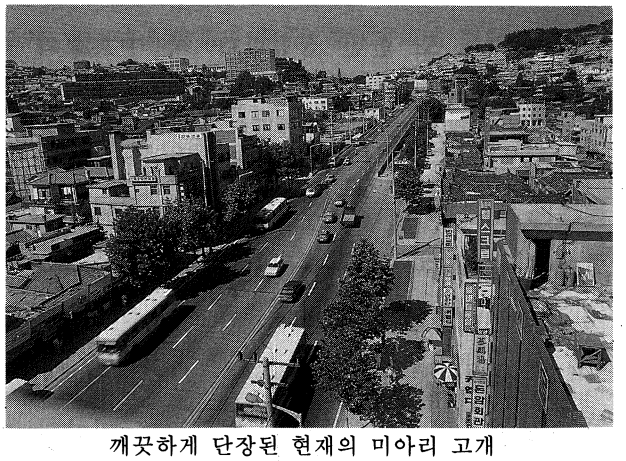
6.25 사변이 일어나서 서울이 적에 의해 점령될 때까지 그 시간이 너무나 짧았기 때문에 대다수 서울市民은 피난을 가지 못하고 그대로 서울에 눌러 앉아 있었다. 서울이 人民軍 治下에 들어가고 中央廳에 人民委員會, 서울市廳에 서울市 人民委員會가 들어 있었던 敵 治下의 생활이 만 3개월간 계속되었다.

그들이 서울을 점령하고 있던 초기에는 미처 피난가지 못한 派出所 소장이나 洞長같은 인물들을 잡아 이른바 人民裁判이란 이름의 直決 死刑執行을 했으나 그 후 약간 질서가 잡히고 부터는 많은 사람들을 구속 수감하게 되었다. 그중에는 韓翼教·方台榮·金思演 등 일제하에서 中樞院參議 등을 지낸 親日派도 있었지만 金奎植·趙素昻·安在鴻·白寬洙·吳夏榮·元世勳·金若水 등등 巨物 政治人들,

崔奎東(당시 서울大學校 총장)·玄相允(당시 高麗大學校 총장) 등과 같은 제1급 교육자, 白麟濟(당시 白病院 원장)와 같은 저명한 의사, 그리고 辯護士 등에서부터 區廳長·구청직원·刑務官·洞長·洞직원, 중앙 각부처 또는 각종 지방청의 간부와 직원, 大韓青年團員, 韓電이나 일반 기업체의 중역과 회사원, 牧師 등의 宗教人, 신문기자, 義勇軍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地下에 숨어 있던 대학생들, 심지어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끌려 갔었다. 서울市內外에서만 1,500명 가까운 인물들이 이때 구속·수감되어 갖은 고초를 겪었다.

당시의 城北區 관내에서만 밝혀진 숫자로 225명이나 되었는데[91] 그중에는 安在鴻·趙素昻과 같은 거물 政治人, 孫晉泰(歷史學者, 당시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學長), 丁奎昶(성균관대학 교수) 등과 같은 學者, 蔡容默 변호사, 洪必求 서울도자기 회사 사장 등 비교적 저명인사도 포함되어 있지만 20세도 안되는 중학생도 있었고 女子大學에 다니는 아리따운 처녀도 있었다. 동직원도 청년단원도 노동자도 섞여 있었다.

그런데 서울市 人民委員會와 人民軍은 이렇게 구속·수감중에 있었던 人士들을 강제로 北送하기 시작한다. UN軍이 仁川에 상륙하고 서울을 향해서 侵功해 온 1950년 9월 중순에서 하순에 걸쳐서였다. 그런데 이들을 拉致해 北으로 끌고 가는 主된 行路를 敦岩洞－미아리고개－우이동－議政府로 잡은 것이다. 이들이 어떤 상태로 끌려갔느냐 하는 것은 필자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6.25 사변이 채 끝나기도 전인 1951～52년 경에 半夜月에 의해 作詞되고 李在鎬에 의해 作曲되었으며 歌手 이해연이 불러 오늘날에도 모든 국민의 心琴을 울리는 「斷腸의 미아리고개」라는 노래말이


깨끗하게 단장된 현재의 미아리 고개

91) 大韓赤十字社 소장 「6.26 被拉致人士 名簿」에 의함.

그 광경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 노래말을 옮기면 아래와 같다.

1. 미아리 눈물고개 임이 떠난 이별 고개
   화약연기 앞을 가려 눈 못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손 꼭 꼭 묶인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절며 끌려가신 그 고개여
   한 많은 미아리 고개

2. 아빠를 기다리다 어린것은 잠이 들고
   동지섣달 기나긴 밤 북풍한설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그 얼마나 고생하오
   십년이 가도 백년이 가도
   살아만 돌아오소 울고 넘던 그 고개여
   한 많은 미아리 고개

4) 被害와 復舊

6.25 사변이 일어나자 서울市內에서 가장 빨리 敵의 유린을 당한 곳이 城北區였고 또 1951년의 1.4 후퇴는 모든 區에 공통된 일이었으나 城北區는 유독 4.25 후퇴라는 것을 또 한번 경험한다. 즉 中共軍의 介入으로 일단 平澤地方까지 내려갔던 UN軍이 平澤阻止線에서 敵의 공격을 격퇴하고 江原道 鐵原·金化地區까지 北上할 수 있었으나 1951년 4월 22일서 30일가지 약 10일간 계속된 敵의 공격이 현 道峰區 牛耳洞까지 내려오자 4월 25일에 城北區 등 서울 北部일대 주민에게 피난령이 하달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피난은 4월말에 敵이 다시 北上 퇴각함으로서 약 10일만에 해제된 것이었다.

6.25 사변으로 彌阿里 전투는 치열하였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미아리 이북지대에는 일반주민의 수가 극히 적었으므로 미아리 전투에 의한 官民의 피해는 별로 대단치가 않았다.

또 美 제5空軍의 폭격으로 서울의 중심부(종로·중구)와 龍山·麻浦 등지는 거의

잿더미가 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다행이 城北區 관내는 공습등이 없어 建物파괴등의 피해는 별로 대단하지가 않았다. 6. 25사변이 거의 끝나가던 1953년에 時事通信社에서 발행한 「서울再建相」이란 책자는 城北區의 被害와 再建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92]


집단학살현장에서 오열하는 여인

城北區廳의 復歸 開廳은 1951년 3월 27일이었으며 당시 선발대로서 區廳 職員 6명이 입경하여 殘留市民의 救護事業에 착수 노력중 4.25 후퇴로 재차 일시 南下하였다가 즉시 廳長 인솔하에 직원 선발대가 입경하여 당시의 殘留區民 1만 5천여명의 구호사업을 전개하며 점차 行政事務를 착수하였는데 本 廳舍의 피해는 다행히 전무하였으나 불행히도 직원중에 行方不明이 5명이나 있었다 하며 備品器具 등은 全失 상태였던 것을 復歸 始務以來 銳意 復舊에 노력한 결과 현재는 종전과 같이 거의 완비되었다 하고 직원도 전부 復職중에 있다고 한다. 주민은 事變前 15만여명에서 현재 6만여명이 복귀하였으며 區民의 生活程度는 戰亂으로 인하여 흩어진 살림살이를 갖추기에 분망할 뿐 아직 확고한 生活對策이 수립되지 못하여 要救護對象者는 유상·무상 受配者를 합하여 약 3분의 2를 점유하고 있다 한다. 同廳의 애로를 보면 첫째 財政의 不圓滑로 (行政)운영상에 지장이 크며 細窮民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관계로 洞政 운영의 困難, 救號對象者數에 비하여 配給量의 부족, 糧穀增産에 있어 가장 緊要한 營農資金의 부족 등이라 하며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은 崇德國民學校 校舍新築期成會를 조직하고 8백여만원 예산으로 石造建物을 신축코저 진행중이고 鍾岩川 堤防 축조공사를 진행중이라 한다.

區廳長 金仁培는 서울 출생으로 당년 48세이며 京畿中學을 졸업후 官界에 투신이래 25년간 서울市에 근속하는 중 東大門区 稅務課長, 서울市衛生課長·司計課長·人事課長을 역임한 후 現 廳長에 부임하였다 한다. 總務課長 李徹珪씨는 清州農業學校 출신으로 在學당시에 普通文官試驗에 합격한 수재이며 일제시대부터 계속 官界에 종사하였고 서울市 司計課長署理를 거쳐 現職에 부임하였다 한다. 社會課長은 申應範, 稅務課長 朴泰俊, 學務課長 全億根, 戶籍兵務課長 李震榮, 建設課長 孫泳學 제씨이고, 洞聯合會長은 서울市軍警援護會 副會

92) 時事通信社 편 서울再建相, 1953년 발행 pp.101~102.

長인 金一씨이며 현재 각 동에서 再建하는데 노력중인 洞會長은 다음과 같다.

城北	제1동 洞會長	趙泰友
〃	2 〃	金一
東小門	〃	許鈺
旭丘西	〃	閔東
〃東	〃	金大元
東仙南	〃	金万？
〃北	〃	權寧基
〃東	〃	柳寅輔
安岩西	〃	高容泰
〃東	〃	申榮喆
貞和	〃	李載根
鍾岩	〃	朴泰俊
貞陵	제1 〃	李順成
〃	2 〃	崔鍾환
彌阿里	제1 〃	鄭星漢
〃	2 〃	金麟基
月谷	〃	李鍾昌
長位	〃	崔鍾욱
樊	〃	金漢植
牛耳	〃	李允植

3. 6.25 事變後의 급격한 변화

1) 급격한 人口增加와 施設의 不足

光復 그리고 大韓民國 政府 수립후 최초로 실시된 1949년 5월 1일 현재의 인구조사에는 城北區의 인구수는 빠져 있다. 城北區가 탄생하기 약 4개월전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의 城北地域 인구수는 일부는 東大門区로, 그리고 나머지는 高陽郡 崇仁面의 인구수로 집계되고 있다.

城北區의 인구수가 처음으로 집계된 것은 1953년 3월 말일 현재의 戶口数 조사

에서였다. 이것은 6.25 사변으로 흩어졌던 서울市가 서울에 수복하여 행정체제가 어느정도 정비된 후 첫번째로 실시한 기본통계 작업이었던 것이다. 이때 城北區內의 家口数는 11,712, 인구는 57,916인이었다.[93] 그러나 이때는 아직도 休戰會談도 이루어지기 전이라서 이 戶口数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1955년 12월말 현재의 호구수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

1955년말 현재 城北區의 家口数는 24,739가구였고 인구수는 131,549명이었다.[94] 그리고 5년후인 1960년 말 현재는 가구수가 48,794에 인구수가 264,981인으로[95] 倍 이상 늘어났고 66년 인구센서스 결과의 인구수는 519,510명,[96] 70년 인구센서스에서는 196,716가구에 인구는 963,692인으로 집계된 것이다.[97] 1955년말 현재와 70년 센서스 결과를 비교할 때 城北區는 실로 15년간에 家口数에 있어 8배가 늘었고 인구수는 7.3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동안의 인구격증현상은 서울市 전역에 걸친 것이었지만 그래도 1955년 센서스 결과의 서울市 총인구수가 1,574,868명 그리고 1970년 센서스 결과의 서울市 총인구수가 5,536,377명으로 56~70년의 15년간에 3.5배의 인구증가였는데 比해 城北區의 7.3배는 엄청난 것이었고 아마도 서울市內 9개 區중에서도 단연코 뛰어난 현상이었다.

이상과 같은 단기간의 인구집중 현상은 그 당연한 결과로 주택, 上·下水道, 敎育 등등에 걸쳐 심각한 施設不足 현상을 초래하였다. 그 단적인 例로 이 당시 城北區 下月谷 1동에 위치한 崇仁國民學校가 학생수와 학급수에 있어 東洋 최대라는 명예롭지 못한 기록을 세운 것이다. 숭인국민학교가 동양 최대의 국민학교라는 기록은 1972년 6월에 바로 이웃하여 숭곡국민학교가 설립되면서 깨어지는데 숭곡국민학교가 설립되므로서 학생을 분리 수용할 당시 崇仁국민학교는 148학급에 학생수가 11,965명이었다고 하며 숭곡국민학교가 설립되므로서 학생수가 6,760명으로 감소되었다는 것이다.[98]

---

93) 서울市 市勢一覽, 단기 4285년도판 p.35.
94) 同上 1955년도판 p.9.
95) 서울 통계연보, 1961년도판 p.13.
96) 1966 人口센서스 報告 12-2 서울特別市 p.34.
97) 1970년 人口센서스 報告.
98) 東亞日報 1972년 6월 21일자 기사.

1956년에서 70년에 걸친 城北區의 인구증가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다. 서울市에 인구증가를 가져온 요인들, 地方으로부터의 거대한 流入人口, 多産多死에서 多産小死로의 전환, 그 결과에 의한 전국적인 인구증가 현상, 교통·통신의 발달 등등의 요인 외에 城北地域에만 해당되는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열거할 수 있다.

첫째 1950년대의 중반에(54~56년) 미아리에 있던 서울市 共同墓地를 폐지하고 이 뒷터에 시내 중심부에 있던 무허가 不良建物 철거민들의 移住定着地를 조성한 사실.

둘째 1963년 1월 1일을 기하여 京畿道 楊州郡 蘆海面 전역(倉洞里·月溪里·孔陵里·下溪里·中溪里·上溪里·道峰里·放鶴里·雙門里)이 서울市에 편입되어 城北區 관할 구역의 일부가 됨으로써 인구수가 크게 늘어났었다.

세째 光復, 大韓民國 政府 수립 그리고 6.25 사변을 거치는 과정에서 국민의 敎育熱·向學熱이 크게 향상되었고 따라서 전국에 걸쳐 많은 中·高等學校 및 大學의 설치, 각급학교의 定員 증가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었다. 그와같은 추세에 따라 1934년에 安岩洞에 입지한 普成專門學校가 高麗大學校로 승격, 크게 확장·발전하였고 1944년에 東仙洞 3가에 입지한 誠信女學校가 1963년에는 성신여자실업초급대학이 되고 이어서 4년제 사범대학, 일반대학교로 확장 발전하였으며 同德女子大學이 1967년 3월에 下月谷洞에 신축교사를 설립 이전해 왔고 1971년에는 國民大學이 貞陵洞에 신축교사를 세워 이전해 오는 등으로 城北區는 현재 서울市內에서 가장 많은 6개의 綜合大學校를 관내에 가지는 敎育地區로 발전하였다. 이와같은 교육기관의 立地는 당연히 大學村을 형성하는 등으로 인구집중에 커다란 波及效果를 나타낸 것이다.

네째 1949년의 구역확장, 1963년의 구역확장으로 엄청나게 그 면적이 넓어진 서울의 東北, 城北區는 당시의 鐘路·中區나 70년대의 江南地域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地價가 낮았으며 따라서 일반 서민들의 집장만하기도 손쉬웠다. 거기다가 서울市에 의한 不良住宅 철거민을 위한 定着地가 上溪洞·中溪洞 등지에 대규모로 조성되었다. 1960년대의 後半이었다. 이러한 要因들이 城北區의 인구수를 엄청나

게 늘어나게 했고 마침내 1973년에 北部地域이 분리되어 道峰區가 되었으며 城北區의 면적은 매우 협소해지게 된다.

2) 區域擴張 및 分區되는 過程

1962년 11월 21일자로 공포된 法律 제1172호는 서울市의 行政區域을 확장하여 京畿道 楊州郡 蘆海面 전역을 城北區에 편입하고 同郡 九里面중 5개里를 東大門區에 편입한다. 城北區의 면적은 종전까지의 45.79km²에서 倍가 넘는 106.49km²로 확장된다. 이 확장으로 城北區의 면적은 당시 서울市 전체면적의 17.6%를 차지하는 큰 區가 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 구역확장의 후속조치로 蘆海出張所가 설치된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10년후인 1973년 3월 12일자 大統領令 제6548호로 그해 7월 1일부터 道峰區가 새로이 탄생, 城北區의 관할구역이 크게 축소된다. 즉 이때 道峰區가 창설됨으로서 城北區의 면적은 종전의 106.49km²에서 23.37km²로 4.6분의 1로 축소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후에도 약간씩의 관할구역 조정이 있었다. 예컨대 1975년 9월 23일자 大統領令 제7816호에 의하여

城北區의 石串洞·鍾岩洞·安岩洞 4가·安岩洞 5가의 각 일부를 東大門區에 편입하고

城北區 貞陵洞·下月谷洞 각 일부를 道峰區에 편입하였으며

東大門区 普門洞 1가~7가 및 新設洞의 각 일부를 城北區에 편입하였고

道峰區 彌阿洞 일부를 城北區에 편입하는 등의 조정이었다.

1990년 현재 城北區의 면적은 24.297km²이며 家口数는 147,209가구, 인구수는 55만 1,34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99]

〈孫 禎 睦〉

99) 제31회 서울통계연보, 서울특별시 1991년 발행.

第3章　政　治

Ⅰ. 日帝强占期

1. 高陽郡時代의 政治

1) 이른바 文化政治의 本質과 內容

1919년 3월에서 12월까지에 걸쳐 모두 463,086명의 군중에 의해 848회나 되풀이된 3·1운동은 日本軍警에 의해 가두에서 학살된 자 7,509명, 부상자 15,961명, 검거된 자 46,948명, 즉결처분 또는 약식재판에 의해 笞刑을 받은 자 2,421명, 起訴된 자 9,441명, 懲役刑 판결을 받은 자 5,156명을 기록하고 일단 끝을 맺는다. 그러나 3·1운동은 朝野를 막론하고 당시의 日本社會를 강타한 일대 경종이었으며 1917년의 러시아 혁명, 1918년의 쌀騷動에 이은 대사건이었다. 그들 日本帝國主義가 3·1운동에 대응한 자세는 크게 두가지였으니 그 하나는 철저한 武力彈壓이었고, 다른 하나는 종래의 통치방식을 약간은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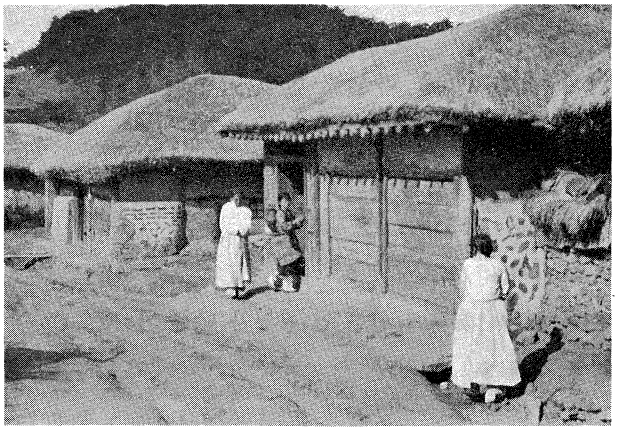
사실상에 있어 그들은 부랴부랴 總督과 政務總監을 바꾸는 한편 아래와 같은 조치를 차례로 취하고 있다.

① 朝鮮總督府官制 개정(1919년 8월 19일자 勅令 제386호)
② 朝鮮總督府警察官署官制 폐지(동일자 勅令 제387호)
③ 朝鮮에 있어서의 憲兵分隊·分遣所 在勤 憲兵의 職務에 관한 건(동일자 勅令 제389호)
④ 朝鮮總督府地方官官制 개정(동일자 勅令 제391호)
⑤ 憲兵條例 개정(동일자 勅令 제397호)

⑥ 陸海軍武官 朝鮮 및 臺灣總督 分限에 관한 건(동일자 勅令 제402호)
⑦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服制 폐지(동일자 勅令 제403호)
⑧ 朝鮮笞刑令 폐지(1920년 3월 31일자 制令 제5호)
⑨ 會社令 폐지(1920년 4월 1일자 制令 제7호)

이른바 文化政治라는 이름아래 이루어진 이상의 조치들을 형식적으로 고찰하면 분명히 큰 變改임에 틀림이 없다. 우선 다른 것은 그만 두고라도 憲兵警察이 普通警察로 바뀌었고 職員服制가 폐지됨으로써 지난날 總督府官吏에서부터 시작하여 鐵道局 직원, 國·公立의 각급학교 교사들, 山林看守나 測量技士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금테 두른 제복에 칼까지 차고 다닌 아니꼬운 꼴이 없어졌으며 사흘이 멀다하고 각급 憲兵警察官署, 심지어는 郡廳·面事務所 뒷마당에 끌고가서 마구 가해졌던 태형도 없어졌으며 조그마한 會社 하나를 설립하는데 憲兵隊의 신원조사, 道長官의 상신을 거쳐 총독의 직접허가를 받아야 했던 회사령도 없어졌으니 분명히 「변개」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 쪽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난날의 武斷政治와 대비하여 齋藤總督의 소위 文化政治를 「新時期를 획한 것이며」「總督政治의 基本을 純然한 文治主義로 한 것」이며 그때의 總督政治 기반을 「文化的 開發」이라고 자찬하고 있다.

원래는 文化政治라는 말은 1919년 8월 12일에 제3대 朝鮮總督으로 임명된 齋藤이 서울에 부임해 온 다음날 즉 9월 3일 아침에 내린 훈시중에서 8월 19일에 있었던 官制改革과 憲兵警察 폐지, 복제폐지 등에 언급하고 「이는 요컨대 文化的 制度의 革新에 의하여 朝鮮人을 誘導 堤撕하고 그로써 그 幸福利益의 증진을 도모하며 장래 文化의 발달과 民力의 충실에 응하여 정치상 사회상의 대우에 있어서도 內地人과 동일한 취급을 할 궁극한 목적을 달하게 할 것을 서기하는 바이다.……」에서 유래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文化政治라는 것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 본질은 무엇인가?


서울근교 농촌마을(1930년대 초)

朝鮮總督府는 1921년 10월에 「朝鮮에 있어서의 新施政」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여 新施政의 방침과 주요한 施設改善事項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발표하고 있다. 이른바 文化政治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었지만 매우 복잡다기하여 일일이 소개할 수 없을 정도에 달하고 있다. 오늘날 그들이 文化政治라고 내세운 대표적 시책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은 대체로 네가지 정도, 즉 ① 總督府官制改革 ② 憲兵警察에서 普通警察로의 개편 ③ 地方制度 특히 府·面 協議會員 選擧 ④ 産業開發 특히 産米增殖計劃과 會社令 철폐로 요약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소리높여 자랑한 이른바 文化政治라는 것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종전까지의 武斷政治와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朝鮮總督府의 官制를 개혁하여 豫備役 大將이나 文官일지라도 朝鮮總督이 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고는 하지만 1945년의 總督政治 마지막까지 단 한사람의 豫備役 大將도 文官도 조선총독에 임명된 사례가 없었다. 憲兵警察을 普通警察로 바꾸기는 하나 경찰관의 정원은 훨씬 더 늘었고 경찰관 1인이 담당하는 지역범위는 훨씬 더 좁아졌었다. 즉 조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감시되고 시달리기는 더 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다. 産米增殖計劃이나 會社令도 마찬가지였다. 産米增殖計劃으로 대다수 朝鮮人 농민은 농토를 빼앗겨 小作으로 전락하거나 고향을 버리고 滿洲·日本으로 가거나 都市 日傭人夫로 전락해야 했다. 會社令의 폐지는 제1차 世界大戰의 결과로 그 세가 크게 신장된 日本 獨占資本力에 대하여 식민지인 朝鮮에 진출할 길을 텄던 것이며 결과적으로 조선인 자본의 日本資本에의 예속화, 값싼 朝鮮人 노동력의 무제한의 驅使등을 기도한 것 밖에 아무것도 아니었었다.

2) 文化政治下의 府·面 協議會制度

허울만은 地方自治制를 표방한 公法人으로서의 「府制」가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1914년 1월 25일자 總督府令 제2호에 의하여 그해 4월 1일부터의 일이며 이때 집행기관인 府尹(市長)은 總督이 임명하게 되었고 各府에 府尹의 자문기관인 府 協議會라는 것을 두었는데 協議會員은 各道長官이 임명하였다. 府 協議會員 定數는 6~16인의 짝수로 하였고 韓日人을 반반씩 임명했으며 協議會 議長은 府尹이었다. 그리고 이때의 府는 京城·仁川·群山·木浦·大邱·釜山·馬山·平壤·鎭南浦·新義州·元山·淸津의 12개였으며 종전의 「日本居留民團 소재지 또는 多數의 日本人 소재지」가 그 선정기

준이었다.

1917년 6월 9일자 制令 제1호로 이른바 「面制」라는 것이 시행된 것은 그해 10월 1일부터의 일이고 이때 전체 2,512개 面의 1%도 안되는 23개 面을 특별히 指定面으로 한다. 그들의 설명에 의하면 ① 韓·日人이 多數集團하여 그 상황이 府에 가까우며 ② 面長은 일본인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③ 면장의 자문기관으로 道長官이 임명하는 相談役이라는 것을 두게 했으며 ④ 지정면에 한하여 財政借款(起債)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때 지정면이 된 23개 面의 선정기준은 일본인 거주자 250호 이상 또는 日本人의 對 한국인 비율 30% 이상이 그 기준이었었다. 즉 日本人이 많이 거주하는 面의 面長을 일본인으로 임명하고 또 日人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니 재정차관의 길을 터 上·下水道 등의 복지시설을 갖출 수 있게 하자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오늘날의 城北區를 형성하는 당시의 高陽郡 崇仁面은 지정면에 속하지 않았다.

이상이 齋藤總督 부임 이전 즉 武斷政治당시의 府制·面制였다.

日本政府는 1919년 8월 19일에 總督府官制를 개정함에 즈음하여 일부러 天皇의 詔書라는 것을 발행하는데 그 詔書의 첫머리는 아래와 같이 시작되고 있다.

「朕은 일찍부터 朝鮮의 康寧을 염려해 왔으며 그 민중을 愛撫함에 一視同仁하여 짐의 臣民으로서 秋毫의 차이도 있을 수 없으며…….」

위의 글을 한마디로 풀이하면 日本人과 韓人을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다루겠다는 뜻이다. 당시의 日本 國務總理 原 敬도 3·1운동 후 입버릇처럼 日本·朝鮮의 一視同仁을 되풀이 했고 또 「朝鮮統治의 종국의 목적은 일본본토와 동일하게」라고 언명하기도 했다. 그리고 일본본토와 동일하게 한다는 취지아래 취해진 조치의 하나가 바로 道 評議會와 府·指定面協議會員의 선거였었다.

斎藤이 京城에 부임해 온 다음날인 1919년 9월 3일에 발포한 施政方針의 훈시중에 「地方에 있어서의 民風의 함양과 民力의 작흥은 지방단체의 힘을 빌리는 것이 편리한 것이기 때문에 장래 시기로 보아 地方自治制度를 시행할 목적으로서 조속히 이의 조사연구에 착수할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으며 이어 같은 달 10일에 발포한 시정방침 유고중에도 「장래 시기를 보아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을 안정케 하고 일반의 복리를 증진할 것을 기한다」라고 선언하여 지방제도에 관해 무엇인가

一大改革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당시 이「地方制度 개정안의 기획 심의에 종시 참여했다」는 古庄逸夫에 의하면「이 방침에 입각하여 당국(總督府 內務局)에서는 각반의 조사연구에 착수하였으며 翌 1920년 3월경에는 대체의 성안을 보았고 5, 6월경에 法制局의 심의를 마쳐 7월 29일부로서 관계법령의 대부분을 발포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 관계법령이란 아래와 같은 것이었다.

① 朝鮮道地方費令(제령 제15호) 동 시행규칙(총독부령 제105호)
② 府制中 개정(제령 제12호) 동 시행규칙중 개정(총독부령 제102호)
③ 面制中 개정(제령 제13호) 동 시행규칙중 개정(총독부령 제103호)
④ 朝鮮學校費令(제령 제14호) 동 시행규칙(총독부령 제104호)

위 법령들 중에서 당시의 高陽郡 崇仁面과 직접 관계되는 面制에 대해서만 고찰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府와 동일하게 面長의 자문기관으로 面 협의회를 두었으며 面長이 당연직 의장이었다. 협의회원은 명예직, 임기 3년이었고 그 정원은 面의 인구규모에 따라 8～14인의 짝수였다.(개정면제 제4조 및 제4조의 3)

둘째, 面 협의회원은 郡守 또는 島司가 임명하였다. 다만 이른바 指定面 협의회원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였다(개정면제 제4조의 3). 선거권·피선거원자의 요건은 府의 경우와 동일하게 1년 이상 그 面에 주소를 가진 獨立生計를 영위하는 男子로서 面賦課金 年額 5원 이상을 납부한 자로 하였다.(개정 시행규칙 제6조의 3)

세째, 協議會員의 선거를 행하는 面은 모두 24개로서 1917년 9월 19일자 총독부령 제67호에서 지정하였던 23개 面에 黃海道 黃州郡 兼二浦面을 더 추가하고 있다.(개정 시행규칙 제6조의 2)

이상이 齋藤總督이「時機를 보아 地方自治를 실시하겠다」고 되풀이해서 공약한 이른바 地方自治의 내용이었으니 羊頭狗肉이란 말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들도 이 내용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는 차마 地方自治란 말을 다시 쓸 자신이 없었던지, 이 개정 지방제도 실시에 한달 앞선 20년 9월 1일에 개최된 道知事 회의에서 행한 훈시중에서 齋藤總督은 지방자치란 말 대신에「道·府·面에 자문기관을 실시하여 民意의 창달과 民情에 적응하는 정치의 실현을 기하고……」라는 말로 바꾸어 버린다.

또 水野 政務總監은「장래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階梯로서 지방의 선각자들을 받들어 지방 공공의 사무에 참여케 하고 그 성실한 노력에 의하여 점차 지방자치의 훈련을 쌓게 할 것을 기하여 이번에 지방제도를 개정하고 道·府·面 행정의 자문기관을 설치하는 제도를 정하여 10월 1일부터 이를 시행코자 한다. 이들은 요컨대 민의를 창달하고 민정에 적응한 정치를 시행하여 地方共同의 복리를 증진케 할 것을 바라는 바인 것 뿐이니 各位는 그 취지의 존재하는 바를 일반 민중에 철저케 하여……」라고 한술 더 뜨고 있다. 이 水野 政務總監의 훈시를 풀이하면「장차는 地方自治를 실시한다. 그러나 아직은 자치를 할만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전 단계로서 자문기관을 설치하여 민의를 창달하고 민정에 부응한 지방행정을 실시해 나가겠다. 그러므로 그 취지를 널리 일반민중에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古庄逸夫는 이렇게 자문기관을 설치하게 된 취지를 더 알기 쉽게 ① 민의의 창달을 도호한다. ② 민도의 발달에 상응한다. ③ 內鮮融和를 조장한다는 세가지 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이른바 文化政治 간판정책의 하나였던 지방제도 개정 특히 소위 자문기관인 協(評)議會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그 특징, 그 허구성을 고찰키로 한다.

첫째 府·面 협의회, 道 평의회의 삼자가 모두 집행기관인 首長(府尹·面長·道知事)의 자문기관이었다는 점.

둘째 府·面 협의회, 道 평의회의 의장이 協(評)議會에서 선출되지 않고 首長이 당연직 의장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의장의 권한이 대단히 컸다는 점이다.

道知事는 中央政府가 天皇의 이름으로 임명하는 勅任官이었으며, 府尹은 총독이 임명하는 고등관(주임관)이었고 그 전원이 일본인이었다. 面長은 원래 公史였으나 1922년 8월 10일자 칙령 제372호로 개정된 朝鮮總督府地方官官制 제25조 제2항에「面에 면장을 둔다. 判任官대우로 한다. 다만 50인에 한하여 이를 주임관 대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서 국가의 대우관리가 된 것이었다(1920년 당시의 지정면 면장은 전원이 日本人이었고 동시에 고등관 대우였었다).

이렇게 국가기관(관리)인 의장이 자문에 부하는 案件提出權을 장악하고 會議召集의 가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졌을 뿐 아니라 議員의 발언금지·발언취소·퇴거명령권, 議員 자격요건 유무 결정권 또는 상부기관에의 상신권, 의원의 직무태만·體面汚損行爲 등을 이유로 하는 해임·상신권 등, 지금의 시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니 각급 협의회와 그 회원의 권능이나 지위는 그만치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세째 자문에 부할 사항이 府 협의회의 경우는 府條例의 설치 또는 改廢, 府責에 관한 사항, 세입·출 예산, 기본재산 기타 재산의 설치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등, 面 협의회·道 평의회에서는 세출·입 예산과 지방세(面은 賦課金)·사용료·수수료 또는 夫役·現品의 부과 징수, 起債(面은 借入金)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극히 한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① 「급시를 요하여 協議會에 자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에 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府制 제12조, 面制 제10조, 道地方費令 제10조)과

② 府와 面의 경우 「……다만 輕易한 사건에 관하여는 회의를 열지 않고 書面으로서 協議會員의 의견을 듣고 그 3분의 2 이상의 同意가 있었을 때에는 이를 협의회의 의견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府制 시행규칙 제2조의 22, 面制 시행규칙 제7조) 등에 의하여 協(評)議會는 사실상 하나의 장식물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急施를 요하는가 않는가, 輕易한 안건인가 아닌가, 회의를 열 수 있느냐 없느냐 등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府尹·面長·道知事 등 首長의 전결사항이었으니 이들 협의회라는 것의 실질은 이른바 文化政治를 장식하는 겉치레에 불과하였다.

네째 이들 자문기관의 설치·운용과 議員선출법이 內鮮融和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철저한 民族差別主義였을 뿐 아니라 특히 조선인은 처음부터 親日人物일 것, 만약에 잘못되어 親日的이 아닐 때는 발언의 봉쇄, 퇴장명령, 의원직 해임까지도 상정했다는 점이다.

그들 당무자가 자문기관 구성에서 의도한 것은 朝鮮에 거주하는 30만 일본인대표의 수가 1,700만 조선인대표의 수보다 약간 많아서 회의운영상 언제나 日人들이 주도하게끔 하되 日人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日人重視, 韓人輕視의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게 한다는 것이었다.

3) 1930년대의 地方制度 改正과 府會·面協議會制度

뒤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으나 1930년대에 개정된 府制, 邑面制 및 道制는 물론 오늘날의 지방자치의 개념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지만 그래도 이른바 文化政治 간판정책의

하나였던 1920년대의 府·面制·道制에 비할 때는 엄청난 진전이었다. 무엇보다도 종전에는 한갓 자문기관에 불과했던 道·府·指定面 協(評)議會가 의결기관인 道·府·邑議會로 바뀐 점이었다. 그렇다면 왜 朝鮮總督府는 1930년대에 들어 府制, 邑面制 및 道制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던가에 관한 시대적 배경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첫째는 齋藤 總督이 1919년에 제1차로 부임해 왔을 때에 약속했던 지방자치제도가 자문기관인 府·面 협의회로 둔갑해버린데 대한 내외로부터의 신랄한 비판이었다. 齋藤은 제1차 부임때 발표한 시정방침에서의 식언에 대한 내외의 비판이 심히 마음에 걸렸던지 제2차 부임때 釜山에서 발포한 유고에서는 간단히 「民度의 향상에 비추어 민의의 창달에 노력하고」 라고만 했으며 9월 9일 總督府 직원을 상대로 한 훈시중에서도 「時運에 응하여, 또 민도에 비추어 보다 적절한 기획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만 하였을 뿐 이 문제에 관해 더 깊은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다시는 말의 책(責)을 잡히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老獪한 그였으므로 1929년에 재차 부임에 앞서서는 지방제도를 개정하여 진일보한 무엇인가를 보여 줄 것을 굳게 다짐했을 것이다.

둘째 府 협의회가 한갓 자문기관임에 대한 불만, 의결기관으로 해 달라는 요청은 협의회 구성초기인 1922년 여름부터 일어나고 있다. 즉 京城府 협의회가 주동이 되어 全鮮 12개 府협의회 대표 간담회를 22년 10월중에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이에 앞선 9월 2일에 京城府會 대표 5명이 政務總監을 찾아가 의결기관화에 대한 강력한 요청을 하고 政務總監 또한 「시기는 밝힐 수 없으나 점차 階梯를 밟아 반드시 지방자치에 도달할 방침임」을 언명한 바 있었다. 또 新聞도 기사와 사설을 통해 이 운동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22년에 시작한 府 議會 의결기관화 운동은 그 후에도 꾸준히 계속된 듯하며 예컨대 24년 5월에도 京城府協議會 주최로 全朝鮮 12개 府 협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기세를 올리고 있다. 이와같은 끈질긴 요구에 총독부도 언제까지나 묵살만 할 수 없음을 절실히 느꼈던 것이다.

세째 道·府·協(評)議會가 비록 자문기관이었기는 하나 10년 가까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議員들의 식견이나 회의운영상의 기술도 크게 향상되어 언제까지나 자문기관으로만 방치해 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네째 總督府 당무자들이 道 평의회, 府·面 협의회를 언제까지나 자문기관인 상태로 끌고 갈 수 없게 되었음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이와같은 자문기관의 상태하

에서 이미 적지않은 의회의 반발·저항이 빈발하였고 앞으로도 꼬리를 물고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리고 이런 반발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총독부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내용으로 지방제도를 개정한 것인가를 고찰키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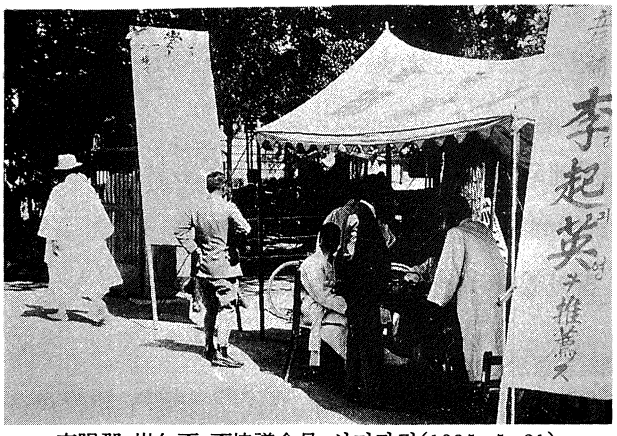
1931년부터 실시된 府·邑·面制와 1933년부터 실시된 道制는 아래와 같이 17개나 되는 엄청난 수의 법령 발포에 의한 것이었다.

- 1930년 11월 29일자 勅令 제234호 朝鮮總督府 地方官官制중 개정
- 1930년 12월 1일자 制令 제 11호 府制 개정
- 1930년 12월 1일자 제령 제 12호 面制를 邑面制로 개정
- 1930년 12월 1일자 제령 제 13호 朝鮮學校費令중 개정
- 1930년 12월 1일자 제령 제 14호 學校組合令중 개정
- 1930년 12월 1일자 제령 제 15호 道制
- 1930년 12월 29일자 總督府令 제103호 邑面 및 邑面長에 관한 규정
- 1930년 12월 29일자 총독부령 제104호 府制施行規則 개정
- 1930년 12월 29일자 총독부령 제105호 面制施行規則을 邑面制施行規則으로 개정
- 1930년 12월 29일자 총독부령 제106호 朝鮮學校費令施行規則중 개정
- 1930년 12월 29일자 총독부령 제107호 學校組合令施行規則중 개정
- 1930년 12월 29일자 총독부령 제108호 府制·學校組合令及朝鮮學校費令改正 경과규정
- 1930년 12월 29일자 총독부령 제109호 面制改正 경과규정
- 1931년 3월 24일자 총독부령 제 21호 地方選擧取締規則중 개정
- 1933년 2월 1일자 총독부령 제 14호 道制施行期日
- 1933년 2월 1일자 총독부령 제 15호 道制施行規則
- 1933년 2월 1일자 총독부령 제 17호 道制施行에 관한 건

위에서 열거한 일련의 법령으로 그들이 개정한 地方·都市制度의 내용을 개괄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종래의 指定面制度 대신에 새로이 邑을 신설하여 府·面制를 府·邑·面制로 바꾸었다.

둘째 府는 이미 1914년 4월 1일부터 公法人이었으나 面과 道는 한갖 지방행정 구역단위에 불과했는데 1930년 12월의 개정에서 邑·面과 道도 法人으로하여 허울만은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그 결과 道地方費라는 개념은 폐지되었다.



高陽郡 崇仁面 面協議會員 선거광경(1935. 5. 21)

세째 종래에는 한갓 자문기관에 불과했던 府·面協議會와 道評議會 대신에 의결기관인 府會·邑會·道會를 설치하였다. 面협의회는 여전히 자문기관으로 존속시켰으나 협의회원은 종전의 임명제 대신에 선거제로 바꾸었다.

네째 府·邑·面 및 道會議員의 임기가 종전의 3년에서 4년으로 1년씩 연장되었다.

다섯째 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學校費와 學校組合을 府에 통합하였으며 종전의 府學校費評議會와 學校組合評議會의 기능을 府會가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韓日人 의원수의 下限(정원의 4분의 1 이상)을 규정하였다.

여섯째 종래와 같이 집행기관의 장인 府尹·邑面長·道知事가 의회의 당연직 의장이 되었으나 府會, 道會는 副議長制를 두어 의원이 선거토록 하였으며 議長 有故時에는 부의장이 의회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의장은 종래와 같이 의원의 발언제지, 발언취소요구권, 발언금지 및 퇴거명령권을 가지도록 규정되었으나 종전에 가졌던 의원 자격요건 유무 결정권은 없어졌으며 동시에 악법중의 악법이었던「의원의 직무태만, 체면오손행위」등을 이유로 하는 道知事(郡守·島司)의 의원해임권에 관한 규정이 없어졌다.

이상의 개정을 그 표면만 보면 대단한 개혁이고 地方民의 자치가 한걸음 앞서 나간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결코 아니었으니 그것은 두가지 점에서 였다.

첫째는 선거권·피선거권자의 자격요건, 즉 ① 25세이상일 것 ②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家口主일 것 ③ 府稅·邑面稅 年額 5원 이상 납부자라는 극단적인 제한을 전혀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점과(府制·邑面制 각 제9호), 道會議員은 여전히 3분의 1은 道知事의 임명, 3분의 2는 府邑面 의원에 의한 간접선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道制 제7·8·10조)

둘째는 府·邑議會 및 道議會에 대한 首長(府尹·邑長·道知事)과 상급관청에 의한

엄격한 감독제도, 다시 말하면 議決權 제한이었다. 즉 개정된 府制·邑面制와 道制는 府·邑議會와 道會를 의결기관으로 한 대신에 엄격한 감독규정 즉 의결권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니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가. 府會(府會내의 敎育部會 포함)와 邑會, 道會에서 행한 의결(의회에서 실시한 각종선거 포함)이 그 권한을 넘거나 법령 또는 회의규칙에 위반하거나 公益을 해하거나 그 集團財政上의 수지에 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급 首長(府尹·邑長·道知事)은 그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거나 직속 상급관청(府尹은 道知事, 邑長은 郡守·島司, 道知事는 總監)의 지휘를 받아 再議(재선거 포함)에 붙일 수 있다. 특히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속 상급관청의 지휘를 받아 그 의결(선거 포함)을 취소할 수 있다(改正府制 제24조 1항, 邑面制 제23조 1항, 道制 제23조 1항).

위의 규정에 의하여 再議(재선거 포함)에 붙인 결과가 다시 같은 결과(권한초월, 법령·규칙위반, 共益을 해하거나 부적당)을 낳았을 때에는 각급 首長들은 다시 상급관청의 지휘를 받아 즉시 그 의결을 취소하거나 再 再議에 붙일 수 있다(改正府制 제23조 2항, 邑面制·道制 제23조 2항).

나. 府會·邑會 또는 道會가 議事定足數(정원의 과반수 출석)을 채우지 못하여 성립하지 않았을 때, 會議召集에 응하지 않았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때 또는 꼭 의결해야 할 사안을 의결하지 않았을 때, 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사유로 의결결과를 취소하였을 때 각급 首長(府尹·邑長·道知事)은 上級官廳의 지휘를 받아 그 사안을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議會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改正府制 제26조, 邑面制·道制 각 제25조). 이 규정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간에 분규가 생기는 등의 이유로 議會議員의 전부 또는 과반수 이상이 회의 개최를 거부하는 등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었던 것 같다.

다.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그 자치단체의 비용으로 부담을 하게끔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상급관청의 직권에 의해서 명령하는 비용을 예산에 등재하지 않았거나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 이를 삭감해 버린 경우 府邑面은 道知事가, 道는 總督이 직권으로서 그 비용을 예산에 추가할 수 있으며 반대로 府邑面·道의 예산중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府邑面은 道知事가, 道는 總督이 직권으로 이를 삭감해 버릴 수 있다.(改正府制 제61조, 邑面制·道制 각 제58조)

상급관청이 직권으로 어떤 비용을 豫算에 얹으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때 직권으로 이미 결정된 예산에 추가할 수 있다든가 반대로 예산에 올라간 어떤 비용을 상급관청이 일방적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그것을 직권으로 삭감해버릴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自治財政權을 무시한 엄청난 독소조항이며 상급관청인 道知事·總督이 可히 무제한의 전권을 휘두를 수 있도록 한 규정이었다.

라. 朝鮮總督의 道會·府邑會·面協議會에 대한 해산명령권을 규정하였다(改正府制 제62조, 邑面制·道制 각 제59조). 이 규정은 정말 어이없는 규정이었다. 朝鮮總督에게 道會는 물론이고 말단 행정조직인 府邑面 의회 해산권까지도 가지도록 규정한 것은 결국 각급 지방의회가 총독통치에 순종할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總督政治는 무제한의 독재권력이었음을 입증하는 규정중의 하나라 아니할 수 없다.

朝鮮總督府는 改正府制 시행규칙, 邑面制 시행규칙을 발포한 1930년 12월 29일의 같은 날짜 총독부령 제103호로 「邑面 및 邑面長에 관한 규정」을 발포하고 그때까지 指定面으로 불리었던 41개의 面을 「邑」으로 한다. 邑制의 신설이었다. 총독부는 1930년 12월 29일자 總督府令 제103호를 발하여 그때까지 指定面이었던 41개의 面을 31년 4월 1일부터 邑으로 하는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邑面制 제8조 2항은 邑協議會員, 面 協議會員의 정원을 각 邑面의 인구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1)]

① 人口 5천미만의 邑面……8인

② 인구 5천이상 1만미만의 邑面……10인

③ 인구 1만이상 2만미만의 邑面……12인

④ 인구 2만이상의 邑面……14인

참고로 1930년 국세조사 당시, 오늘날의 서울市 城北區와 東大門區가 되어 있는 高陽郡 崇仁面의 인구수는 30,895명이었다. 그러므로 당시 崇仁面 協議會員의 정수는 14명이었다. 그리고 이 정원수는 1935년 당시에도 변동이 없었다.

여하튼 훗날 東大門區가 되고 1949년 이후는 그 일부가 城北區로 독립하게 될 高

1) 이상 日帝下 1920년대·30년대의 地方制度와 府·面協議會에 관한 기술은 전적으로 孫禎睦 저, 韓國地方制度·自治史研究(上), pp.171~258에 의하였다.

陽郡 崇仁面은 1931년 4월 1일부터 36년 3월 31일까지의 만 5년간 改正 邑面制에 의한 面 협의회를 갖게 된다. 그리고 面 협의회원의 선거는 1931년 5월 21일과 35년 5월 21일의 두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나 어떤 인물이 입후보하여 몇 표를 얻어서 당선된 것인가에 관해서는 현재의 시점에서 전혀 조사할 수가 없었다. 당시의 高陽郡 崇仁面이 비록 京城府에 바로 붙은 近郊地域이었기는 하나 당시의 신문이 이들 面지역 협의회원 선거상황에 관해서는 일체 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京城府 편입 이후의 政治

1) 1936년의 이른바 追加選擧와 城北지역

1936년 4월 1일을 기하여 京城府는 行政區域을 약 4배로 확장하였다. 이때의 구역 확장으로 京畿道 高陽郡내의 6개면, 始興郡내의 1읍 2개면, 金浦郡내의 1개면 등이 편입되었으며 人口數에 있어서도 확장전의 40만 4,220명이 편입지역내 인구수 23만 2,652명을 합하여 일약 63만 6,854명의 大都市가 되었다.[2)]

이렇게 인구수가 늘었으니 京城府會 議員定數도 늘려야 했다. 이에 대비하여 總督府는 1936년 5월 2일자 總督府令 제32호「府會議員의 增員選擧의 특례에 관한 件」을 발하였으며 이 府令에 의해 그때까지 48명이던 京城府會 의원정수는 63명으로 증가되게 되었고 이른바 增員選擧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었다.

京城府는 이 증원선거에 대비, 1936년 6월 19일자로 京畿道令 제12호라는 것을 발하여 京城府내를 中部(6명), 東部(3명)·西部(3명)·永登浦(3명)의 4개 선거구로 나누었으며 각 區別로 정원을 안배하였고 동년 9월 20일에는 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정하였다.[3)]

제2장 발자취, 제3장 行政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이때 京城의 東部에서 京城府에 편입된 지역은 高陽郡내의 漢之面 전역과 崇仁面의 南쪽 부분이었다.

즉 이때 崇仁面 관내에서 京城府에 편입된 것은 城北·新設·安岩·鍾岩·敦岩·踏十·典農·清涼·回基·徽慶·里門·祭基·龍頭의 13개 洞里이며 그대로 崇仁面으

2) 東亞日報 1936년 4월 1일자 4면 기사.
3) 同上 1936년 6월 28일자 3면 기사.


京城府會 회의광경(1930년대)

로 남게 된 것은 彌阿·貞陵·樊·水踰·牛耳·長位·石串·上月谷·下月谷의 9개 洞이었다.

위와 같이 새로 京城府에 편입된 舊漢芝面과 舊崇仁面 지역은 1936년의 京城府의 추가선거에서는 東部區域이 되었는데 이때 3명의 府議員을 선출하는 東部區域에 해당하는 町名은 다음의 29개였다.[4]

沙斤町·馬場町·杏堂町·往十里町·鷹峰町·金湖町·下往十里町·上往十里町·新堂町·玉水町·梨泰院町·漢江町·普光町·鑄城町·東氷庫町·西氷庫町·芚芝町·(이상 舊 漢芝面 지역)·新設町·龍頭町·安岩町·鍾岩町·城北町·祭基町·清涼里町·回基町·里門町·徽慶町·典農町·踏十里町(이상 舊 崇仁面 지역)

이 선거는 예정대로 9월 20일에 실시되었는데 놀랍게도 棄權率이 53%나 되는 매우 저조한 것이었다. 이 東部지역의 선거는 그 지역이 龍山방면, 新堂洞·往十里방면 그리고 新設洞·清涼里·安岩洞 방면의 3갈래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세방향에서 한 사람씩 선출될 수 밖에 없었다. 이때 東部에서 당선된 세 의원은 龍山쪽에서 漢南洞의 朴元信, 東大門 밖에서 清涼里의 李昌業 그리고 光熙門 밖에서는 上往十里洞에 거주하는 일본인 不破三平이 당선되었다. 위 3인의 人的事項은 아래와 같다.[5]

⊙ 朴元信 1898년 2월 16일 생

徽文中學 졸업후 朝鮮總督府 醫學校(훗날 京城醫學專門) 졸업, 總督府 官費留學生으로 日本 京都帝大 醫學部 選科 수료, 歸鮮후 漢南洞에서 醫師를 개업하면서 漢芝面 協議會員, 同 面長, 私立漢芝學校 교장 등 많은 公職에 종사하였다.

⊙ 李昌業 1896년 3월 27일 생

舊韓國時代 일본의 지휘하에 있던 韓國軍 步兵部隊의 上等兵(현재의 上兵 해당) 이었다가 韓日合邦후 京畿道 경찰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 그후 清涼里青年團長으로서 가장 모범적(즉 親日的) 청년단장으로 자주 日本등지 시찰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1933년에 東部地域 發展會 副會長, 清涼里

4) 東亞日報 1936년 6월 25일자 조간 2면 3단 기사.
5) 大京城公職者名鑑, 京城新聞社, 1936년 11월 발행, pp.7~23.

矯風會長, 직업은 荷牛馬車 운송업이었으며 선거에 당선된 때 淸涼里町荷車運輸組合 대표였다.

⊙ 不破三平 1876년 6월 생

1899년에 日本 橫濱稅關吏가 되고 그후 臺灣稅關에 근무하다가 1907년 韓國統監府 度支部 근무로 度韓해와서 계속 稅關 간부로 있다가 1919년에 退官하여 北鮮開拓(株) 전무, 興業無盡會社 지배인 등 庶民金融業에 종사, 漢芝面이 京城府에 편입되기 전에는 漢芝面 協議會員이었다.

2) 1939년의 府會議員 선거와 城北지역

1939년 5월 20일에 실시된 京城府會 의원 선거때는 府會議員 정원이 69명으로 늘었으며 韓人 30명, 日人 39명이 당선되었다. 이때의 선거도 中央·東部·西部·永登浦의 4개 분구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나 추가선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입후보는 府廳에서 일괄 접수하였으니 4개 분구라는 것은 投票所의 역할 밖에 하지 않았고 府內 어디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어디에 거주하는 입후보자에게 선거하여도 무방하였다. 즉 李昌業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설령 中部投票所에서 투표를 했더라도 李昌業으로 집계되어 高得點者順으로 69명의 당선자가 선출된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선거에서는 36년 추가선거때 東部에 속했던 龍山의 남부지역 즉 梨泰院·漢江·普光·鑄城·東氷庫·西氷庫·芚芝의 각 町은 龍山分區로 분류되었으며(그 결과 朴元信은 龍山分區에서 당선되었다) 東部는 光熙門 밖과 東大門·東小門 밖의, 순전히 東部地域으로 형성되었다.

이때의 선거에서의 69명 당선자중 東部에서 당선된 자는 모두 9명이었으며 그 득표수는 다음과 같다.[6]

任興淳 504표, 植田群治 407표, 村岡木之助 338표, 內田鯤五郎 294표, 國友尙謙 278표, 伊藤奉圭 269표, 李昌業 267표, 不破三平 187표, 韓相喆 164표

위 東部地域에서의 9명의 당선자중 6명이 일본인이고 3명이 조선인이었다. 6명의 일본인 당선자중 植田群治란 자는 신문에 民謠作家라고 소개된 외에는 어떤 인물인가 알 수가 없고 村岡이란 자도 오늘의 시점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당시 下往十里町 山6번지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內田鯤五郎라는 자는 1912년에 東京帝大 鑛山學科를 졸업, 그해 朝鮮總督府 技手로 취직하여 이땅 안 各地 鑛山·炭鑛 발굴의

6) 東亞日報 1939년 5월 24일자 5면 1단 기사.

현장에서 활약했으며 1917년에 퇴관하여 잠시 일본에 돌아갔다가 1922년에 다시 來韓總督府 燃料選鑛研究所에 技師 등으로 재직하다가 1931년에 퇴직, 1934년에 朝鮮黑鉛無煙炭社長, 1937년에 羅南炭鑛社長 등 炭鑛業界의 중진이었다.[7] 또 國友尙謙이란 자는 敦岩洞이 생활의 본거였으며 舊韓國政府 때부터 警察幹部로 활약하다가 1917년 6월에 퇴관할 때에는 總督府 警察局 警察課長이란 요직에 있던 경찰출신의 거물이었다.

문제는 이상의 일본인들 보다도 이 선거에서 京城府 전체를 통하여 최고득표로 당선된 任興淳과 비록 164표 밖에 얻지 못했지만 韓相喆이 東部지역에서 당선되었다는 점이다. 1895년 생인 韓相喆은 이미 1935년 선거에서도 195표로 당선되었는데 39년 선거에서는 주소를 新堂洞등에 옮겼는지 東部分區에서 입후보하여 당선되고 있다. 그는 일찌기 普成專門學校 商科를 졸업한 후 朝鮮火災海上保險(株)의 중역등을 역임한, 당시 서울시내 朝鮮人 사회의 중진이었다.[8]

1895년 생인 任興淳은 이미 1929년에 京城府協議會員에 당선되고 있고 1931년에 京城府會가 생긴 직후의 제1회 선거에서도 296표를 얻어 당선된 바 있다. 이렇게 그가 1929년의 京城府 協議會員이 되고 31년의 제1회 府會의원이 되엇을 때의 그의 선거 기반은 中區 茶洞이었다. 그는 普成高普를 졸업한 후 東亞日報社등에 근무하다가 茶洞에서 料理業을 시작했고 또 金斗漢과 비슷한 어깨패 두목이었다고도 한다.[9]

그런 前歷을 가졌던 그가 39년 선거에서는 東部分區에서 입후보, 그것도 京城府內에서 최고득표를 해 버렸으니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는 1935년부터 新興地域인 新堂洞에서 任家莊이라는 이름의 合資會社를 차려 부동산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3) 太平洋戰爭下 1943년의 희안한 선거와 東部地域

朝鮮總督府는 1931년, 35년, 39년, 이렇게 매 4년마다 5월 21일에 地方選擧를 실시해 왔으니 싫건 좋건간에 43년 5월 21일에도 선거를 실시해야 했다. 그러나 1941년 12월 8일에 美·英 兩國을 상대로 일으킨 太平洋戰爭이 계속되고 있었고 온 나라 안이 징

7) 內田의 人的事項은 京城日報 1943년 5월 2일자 신문에 실린 「京城府議推薦候補者의 橫顔」에 의함.
8) 孫禎睦 저, 韓國地方制度·自治史研究(上), pp.273~277의 〈표 8〉 참조.
9) 孫禎睦 저, 上揭書(上), pp.220~222의 〈표 9〉, pp.273~277의 〈표 8〉 및 p.282 등 참조.

병과 징용으로 인한 人力不足, 物資缺乏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 승용차의 휘발유 사용이 전면 금지된 것은 이미 41년 10월 1일부터의 일이었고 옷을 만드는 천이나 고무신, 운동화 등이 가게에서 사라진지도 오래였다.

創氏改名이다, 紳社參拜다, 방공연습이다, 金屬類 강제회수다 등등 시국은 戰爭遂行 일변도였고 官은 모든 것을 聖戰完遂라는 한가지 목적만을 위해 광분하였고 民도 또한 덩달아 따라가야만 했던, 그런 최악의 상태에 처하고 있을 때였다.

이러한 세태하에서 30년대에 치루었던 지방선거 같은 것을 치루기에는 사실상 곤란하였다. 우선 운동원이 신고 다닐 운동화 류도 없었고 벽보를 붙이려 해도 종이를 구할 수 없었으며 철저한 糧穀配給制下였으니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제공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시대였었다.

당무자들에게 있어 또 하나의 고민은 戰時經濟下에서의 都市人口의 급격한 증가현상이었다. 1938년말 현재로 73만 7천 정도였던 京城府의 인구는 42년말에는 110만을 넘고 있었고 平壤·釜山 등지에서의 인구증가도 현저하였다.

그들 總督府 내부에서는 아마도 상당한 연구와 토론이 되풀이 되었을 것이다. 결국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이른바 推薦選擧라는 해괴한 제도였고 아울러 府制改正에 의한 府會 의원정수의 대폭 감축이었다.

推薦選擧制의 연구와 채택은 극비리에, 또는 철저한 報道管制下에 진행된 듯 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런 豫告도 없이 불쑥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1943년 2월 18일자 경성일보·매일신보 제1면은 그렇게 크지 않은 지면으로 「府邑面議員 選擧 推薦制度를 채용, 本府 總選擧指導要綱 발표」라는 제목하에 이른바 지도요강이라는 것의 요지를 보도하고 있다. 그들의 표면적인 입장에 의하면 이 추천선거는 어디까지나 행정지도이며 결코 강요·강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府制나 邑面制를 개정할 필요도 없었고 따라서 특별히 總督府令을 발포할 필요도 없었다. 이른바 指導要綱이라는 것을 각 道·府·邑·面에 시달하여 이 요강대로 따르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그만이었다. 그들이 발표한 지도요강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大東亞戰爭을 치루기에도 힘겹고 바쁜데 민중들이 실없이 선거운동에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우수한 자질을 지닌 인물을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② 府尹·邑面長이 중심이 되어 상부기관·경찰·검찰 기타 지방유력자의 의견을 들어 공경하고 신망이 두터운 인물들을 규합하여 議員候補者 推薦母體라는 것을 구성한다. 이 추천모체의 인원은 의원정수의 반수 전후 정도로 한다.

③ 이 추천모체가 의원정수와 동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이들이 추천하는 후보자는 愛國心과 奉公心이 투철한 자(韓人의 경우는 철저한 親日人物들)로 한다.

④ 추천모체의 대표자는 선거의 고시가 있은 직후에 개인명의로 이들 후보자를 입후보자로 제출한다.

⑤ 이 추천에서 제외된 인물의 자유입후보를 전적으로 금지시킬 수는 없으되 가급적 없게 하라. 다만 입후보를 못하게 하거나 혹은 입후보한 자를 사퇴시키는 과정에서 일반주민에게 선거간섭을 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라.

⑥ 이렇게 되면「선거는 하나마나」라는 인상을 주어 많은 유권자들이 기권할 염려가 있으니 기권을 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책을 강구하라.

⑦ 이상 일련의 과정에 상부기관(道·郡)의 지시를 잘 따르고 경찰과 검찰이 전적으로 협조하라.

이렇게 43년 2월 18일에 지도요강을 발표하여 다가오는 5월의 지방선거를 추천선거로 할 것을 천명한 총독부는 그 후속조치로 우선 府會議員 정수를 감축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즉 43년 3월 29일자 制令 제4호「府制中改正」이 그것이었다. 이 개정은 단 1개 조문 즉 제8조의 2·3항에 규정된 의원정수의 감축만을 다루었는데 이에 의하여 改正前과 改正後의 府議員 정수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改 正 前	改 正 後
• 인구 3만 미만 ……24	• 인구 5만 미만 ……24
• 3만~5만 미만 ……27	• 5만~10만 미만 ……28
• 5만~10만 미만 ……30	• 10만~10만 미만 ……32
• 10만 이상 ……33	• 20만 이상 ……36
• 10만 이상 5만을 더할 때마다 3인씩 증가	• 20만을 넘는 경우 10만을 더할때마다, • 50만을 넘는 경우 20만을 더할때마다, 각각 4인씩 증가, 60명 定限.

京城府의 추천모체 28명의 위원이 발표된 것은 選擧公告日 1주일 전인 4월 14일이

었는데 韓人 12, 日人 16명으로 구성되었다. 韓人은 교육계(趙東植), 의사(任明宰), 변호사(徐光卨), 금융계(閔奎植·張友植), 실업계(朴興植), 신문사 사장(李星根), 국영기업체 이사(鄭僑源), 전직 일본군인(朴斗榮), 대지주(金思演), 사회사업가(李康赫·太應善) 등이었는데 위 12명중 中樞院參議가 5명, 前職 知事가 2명 등이었으니 모두가 철저한 친일파들이었다.

다음 日人 16인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① 국영기업체, 국책기관의 長 또는 중역 7명(井上·穗積·谷·林·伊達·賀田·失鍋)

② 회사중역 또는 富豪(田川·池田·進)

③ 현 府議員(大梅·國友·杉)

④ 시국 관련단체의 간부(肥塚·新田)

⑤ 공장장(坂區……영등포 소재 기린맥주)

그런데 이들 日人 16명을 좀더 다르게 분석하면 전직 總督府高官(局長 또는 道知事) 출신이 5명, 東京帝國大學 출신이 7명이었다.

그리고 이들 추천모체 구성원 28명은 각각의 生活本據地別로 京城의 동서남북으로 안배를 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總督府와 유착된 인물을 고르다 보니 어차피 中部 또는 永登浦에 본거를 둔 인물들이 대부분 선정되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日人 16명중 東部에 거주한 자는 敦岩洞에 거주한 전직 경찰고관 출신의 國友尙謙 한사람 뿐이었다.

京城府會議員 후보자 추천회가 추천후보자 56명의 명단을 발표한 것은 선거일 고시가 있었던 4월 21일 오후 늦게였고 다음날 아침 일찍 失鍋委員長 개인의 이름으로 京城府 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제출한다.

이때 추천된 56명(韓人 24, 日人 32)의 명단을 일일이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여하튼 당시의 高等警察 및 憲兵隊에 의하여 최고의 親日派로 가려진 인물들이었다. 그런데 東部地域에서는 日人 2명 韓人 4명이 추천되었다. 韓人 4명중에 3명은 新人이었으니 젊은 親日派의 등장이었다. 이때 東部地域에서 추천된 자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 日人……伊藤奉圭·內田鯤五郎

⊙ 韓人……廣山種香(李昌業)·伊東立雄(李璿赫)·安錠遠·新井氷敏(朴永敏)

위의 6명 인물중 日人 伊藤와 內田 그리고 韓人 李昌業에 관해서는 이미 앞절에서

고찰한 바 있다. 李昌業의 創氏名이 廣山種香였다는 것 외에는 흥미를 끄는 점이 없다. 나머지 3명의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 伊東立雄(尹瓚赫) 1914년 생, 往十里 거주.

日本大學 졸, 1932년 中央日報 입사, 33년 퇴사후 往十里에서 裕常精米所와 미곡상, 포목, 잡화상, 우마차업 등 다각경영으로 치부

⊙ 安錠遠 1902년 생, 新堂町 422의 4 거주.

忠南출신, 1921년 韓一銀行 근무, 1930년에 특수광물 개발에 착안하여 일본의 정치인 前 拓務次官 櫻井兵五郎과 줄이 닿아 그의 협력하에 자본금 500만원으로 興亞鑛業會社를 설립하여 사장이 되었다. 在鄕軍人會 分會의 役員등을 하고 있던 친일인물.

⊙ 新井永敏(朴永敏) 1915년 출생, 崇仁洞 72의 47에 거주

大地主 출신, 東亞學院長, 青年團 崇仁分隊長, 警防團 부단장, 貸家組合 理事. 당시 29세밖에 안되었던 朴永敏이라는 인물을 당시의 京城日報는「廣大한 所有土地를 農業(소작인)에 맡기고 자기는 一身을 公務에 바쳤다..... 青年隊 崇仁洞分隊長, 警防團 副團長, 貸家組合 理事, 少年保護司, 日本赤十字社, 分區 副長, 洞 防衛部長, 昌信國民學校 후원회 부회장 등 외에 많은 공직을 과거에도 역임하였다.....」라고 평하고 있다. 同 기사가 이 자에 대해서만은 學校출신도 밝히지 않는 것을 보면 대지주 출신으로 머리가 나빠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속된 출세가 하고 싶어 그저 친일에만 광분한 것 같은 인물이다.

추천되지 않은 자로서 입후보하여 强制 辭退당한 예도 있었고 입후보 준비를 하다가 日警의 강제에 이기지 못하여 입후보 斷念聲明書를 낸 자도 있었다. 또 입후보를 정식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票가 나와 당선권내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사퇴당한 예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당국이 의도한 그대로 미리 추천된 56명의 당선이 확정된 것은 5월 22일이었다.[10]

II. 8·15 光復後

1. 美軍政期의 서울市

1945년 日帝가 패망하여 해방은 되었으나, 서울에서 日人들은 즉시 퇴거하지 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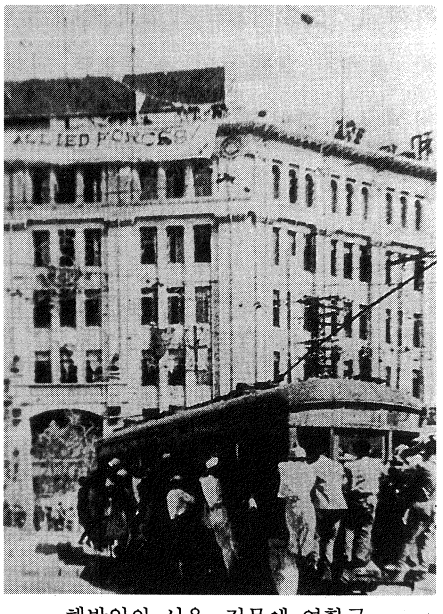
10) 孫禎睦 저, 前揭書, pp.302~332.

府尹이하 모든 행정관들이 계속 존속하였으므로 京城府廳에 근무하던 韓國사람들은 이에 대한 조치로서 각 課의 사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 대표자를 선출하기로 하였다. 즉 순 자치적인 임시조치로서 각 課마다 한국인 직원중에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 대표자를 일본인 과장을 대리하여 課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때 대표자 선출 방법은 韓國人 課長이나 係長이 있는 課에서는 그 과의 한국인 과장이나 계장이 대표자가 되고, 한국인 과장이나 계장이 없는 과에서는 한국인 직원 중에서 대표자를 선출하였다.

해방직후 짧은 기간이나마 일본인들이 그대로 府尹 이하 部長·課長으로 있었고, 또 한국인 대표자가 있는 무질서한 상태였으나 한국인이 능동적으로 그 혼란한 시기에 서울시정을 담당하려 하였던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었다.

1945년 9월 8일 미군들이 서울에 입성하여 軍政을 실시하였는데, 이 때 서울의 책임자는 「킬로프」 少領이였고(京城 府尹), 그는 일단의 미군들과 서울시정을 담당하였다. 「킬로프」 소령은 수인의 보좌관을 거느리고 각 部와 몇 개의 중요한 課에는 尉官級의 군인을 배치하여 한국인 部·課長의 후견인이 되었고 킬로프 이하 각 軍政官들은 한국인 통역을 채용하여 업무를 추진하였다.

이 때 한국인 대표자회의에서는 數人의 전문위원을 선출하여 경성부 기구개편안을 작성토록 하였고, 이들이 작성한 기구개편안을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였으며 府尹·副府尹·總務部長·厚生部長·工營部長 등 중요 간부는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 인사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하려 하였다. 그러나 부윤은 군정당국에서 임명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전형위원회에서는 부윤을 선출하지 못하고 부부윤 이하의 관리만 선출하였다. 이 때 부부윤에 金昌永, 총무부장에 金聖煥, 후생부장에 李允世, 공영부장에 張壽吉을 각각 선임하였다. 이와같이 해방후 서울시정은 미군정의 치하에서나마 민주적 방식에 의하여 행하여졌다.[11]



해방일의 서울. 건물에 연합군 환영 프랭카드가 보인다.

11) 「서울特別市史」 解放後 市政編,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1965, pp.59~62 참조.

해방 1주년을 맞은 미군정 당국에서는 7장 58조로 된「서울市 憲章」을 발표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서울시와 그 산하 각 구청의 施政은 이 헌장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따라서 市廳은 물론 각 區廳도 이 서울시 헌장에 의하여 조직·인사·시정 등 모든 것이 시행되었다.

서울시 헌장의 중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 헌장은 총 58조로 되어 있고, 제1장에서는 市의 명칭과 구역 그리고 市의 권한을 규정하였다. 제2장에서는 選擧와 任命職員에 대한 것으로 市의 간부직원의 종류·자격, 參事會의 인원과 권한, 직원규칙 등을 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입법에 관한 것을 정하였고, 4장에서는 각 위원회와 각 役員 등의 일반 권한·직무를 규정하였다. 제5장에서는 선거위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였고, 제6장에서는 각 區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제7장에서는 각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다.

이와같이 서울시 헌장의 규정에 의하여 경성부를 서울시로 개칭하였다. 서울시는 원래 漢城府라고 하였던 것을 1910년 일본인들이 朝鮮을 합병하면서 京城府라고 하였고, 1945년 해방 후에는 漢陽市·漢城市·경성부 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부르다가 서울시 헌장에 의하여「서울시」로 개칭한 이후부터 서울의 명칭은 공식적으로 서울시로 된 것이다. 이 때까지 京畿道의 소속으로 되어 있던 서울이 이 헌장에 의하여 경기도 소속에서 벗어나서 道와 같은 수준으로 승격하였고, 이에 따라서 각 區의 지위도 승격하게 되었다.

이 헌장에 의하여 각 구청의 기구도 정해졌으니, 이 때 동대문구청은 구청장 밑에 청소사업소, 후생과, 세무과, 호적과, 총무과 등을 두고 구행정을 담당토록 하였다.[12)]

2. 政府樹立과 城北區의 탄생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1월 7일에는 地方行政에 관한 臨時措置法을 公布 施行하였다. 이 때 서울특별시 산하에 있는 각 區에 대한 임시조치법 규정을 보면

제10조 시장은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에게 그 직종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12) 前揭,「서울특별시사」해방후 시정편, pp.103～108 참조.

제12조 市에 區, 道에 府·郡을 둔다.

제14조 區에 구청장, 府에 府尹, 郡에 郡守, 경찰서 및 소방서에 署長 각 1人을 둔다.

제15조 구청장은 시장의……지휘감독을 받아서 법령을 집행하여 管內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상의 法은 地方自治法이 제정될 때까지의 臨時法이었고, 區制에 대한 규정도 종전에 실시한 것과 특별히 다른 점은 없었다.

1949년 8월 15일부터는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었고, 이 법에 규정한 區와 관계되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3]

① 서울특별시에 區를 두고 명칭과 관할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것을 변경하거나 廢置分合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한다.

② 區에는 구청장을 두고, 구청장은 시장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구청장은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소관된 국가와 시의 사무를 담당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서울특별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行政廳에 위임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은 그 위임된 사항을 집행한다.

⑤ 시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직원은 시민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서울특별시 의회를 구성한다.

이상의 지방자치체 규정은 이 때 처음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46년 8월 15일 미군정에서 발표한 서울시 헌장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헌장은 서울시 행정을 자치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미군정 당국의 법령으로써 정부수립이 될 때까지 서울시 행정의 基底가 되었지만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즉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시민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고 官選이었으며, 參事會議도 시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지 못하고 1947년 2월 27일에 法曹界에서 徐光卨, 敎育界에서 趙東植, 洞總代 대표로 朴定根 등 각계에 교섭하여

13) 1949년 7월 4일 제32호,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제158호 참조.

官選參事 8명을 임명하여[14] 同年 4월 10일에는 서울시 예산을 의결하는 등 市의 의결기관으로 운영되었다.[15]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서 이 참사회는 해산되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어 서울특별시는 이 법적 기초위에서 서울특별시 의회를 구성해야 했다. 그리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예비선거를 준비하기 위하여 1949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4개월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유권자를 조사하고, 예비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등 기초조사를 同年 9월 25일까지 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를 실시할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16] 1950년 2월 8일 지방의회 위원선거는 당분간 연기한다는 것을 공포하였고, 그후 6·25동란으로 말미암아 서울특별시 의회의 구성은 장기간 연기되었다. 1952년 5월 10일에는 道議會議員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아직 완전히 수복되지 못한 京畿道·江原道·서울특별시와 全北의 일부는 치안관계상 제외되었고,[17] 휴전이 성립되어 완전히 복구된 후에도 서울특별시 의회의 구성은 계속 미루어졌다.

城北區가 탄생된 것은 大韓民國 정부가 수립된지 1년이 지난 1949년 8월 13일자 大統領令 제159호에서였고 그때까지 東大門區에 소속되어 있던 敦岩洞, 安岩洞 1~5가, 鍾岩洞, 城北洞 등 8개 洞과 그때까지 京畿道 高陽郡 崇仁面으로 남아 있던 9개 洞 즉 貞陵·彌阿·樊·長位·石串·牛耳·水踰·上月谷·下月谷 등 9개 洞이 합하여져 새로이 城北區가 창립된다. 그리고 같은 날자 大統領令 제160호로 西大門區 恩平, 城東區, 蠶島, 城北區 崇仁 등 3개의 출장소가 신설되는데, 高陽郡 崇仁面이었다가 새로이 서울市에 편입하여 城北區의 일부가 된 9개 洞이 城北出張所 관할아래 들어간 것이다.[18]

3. 初代 市議會와 城北區

1956년 지방자치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었고, 이 개정된 법률(법률 제388호)에 따

14) 서울신문 1947년 2월 27일자.
15) 서울신문 1947년 4월 10일자.
16) 서울신문 1949년 9월 25일자.
17) 內務部,「政府樹立 10周年 內務行政治績史」地方行政編, 1958, p.105 참조.
18) 官報 1949년 8월 13일자 제154호.

라서 서울특별시 의회의 성립을 볼 수 있었다. 이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가운데 서울특별시 의회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의 귀국 연설

가.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수는 100만명까지는 35인으로 하고 100만명이 넘을 때에는 5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1인의 의원을 증가한다. 단 각 의원수는 균등하게 배정하되 남은 수는 인구 다수인 區에 배정한다.

나. 지방의회의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① 條例를 개정하거나 개폐하는 것 ② 예산을 정하는 것 ③ 결산보고를 승인하는 것 ④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使用料·手數料·地方稅分擔金·加入金 또는 賦役과 現品의 賦課, 徵收에 관한 것 ⑤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와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것 ⑥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것 ⑦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것 ⑧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것 ⑨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행정쟁의나 소송 또는 화해에 관한 것 ⑩ 법률상 그 업무에 속하는 손해배상과 손실 보상의 액을 결정하는 것 ⑪ 청원의 수리와 처리에 관한 것 ⑫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

라.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마. 民議院과 의원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서 90일 동안 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소속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권을 가진다.

바.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은 각 선거구에서 1인을 선거하며, 서울특별시 선거구는 區의 구역을 분할하되 인구와 지리관계를 참작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이상과 같은 법률에 의하여 내무부는 1956년 8월 중에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실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의

할 것을 서울특별시에 지시하였고, 1956년 7월 10일에는 內務部令 제51호로 「道와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선거구 설치의 건」을 공포하여 선거구를 정하였다.

이 때 정해진 선거구는 종로구 6, 중구 5, 동대문구 5, 성동구 5, 성북구 5, 서대문구 5, 마포구 5, 용산구 5, 영등포구 6, 총 47개구였다. 선거구를 나눈 기준은 당시 서울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1955년 9월 1일 현재 서울의 인구는 1,574,868명이었으며, 이 인구와 비례해서 종로구와 영등포구만 6개의 선거구에 6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고 다른 구는 모두 5개 선거구에 5명만 선출하게 되었다.[19]

1956년 7월 14일부터 24일까지 입후보 등록을 하였는데, 총 302명이 입후보하여 약 6 :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1956년 8월 13일, 554개의 투표소에서 서울특별시 초대시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20]

이때 총인구 1,574,868명에 유권자수는 약 45%인 706,408명이었으며, 유권자의 투표수는 약 75%인 529,208명이었다.[21] 이때 투표상황과 그 결과를 보면 〈표 1〉, 〈표 2〉와 같다.[22]

〈표 1〉 초대 서울特別市議會議員 투표상황

선거구수	인구수 (1955년 9월 1일 현재)	선거인 명부 등재자 수(유권자수)				
		투 표 수			기권자수	계
		유효	무효	계		
47	1,574,868	515,535	13,673	529,208	177,200	706,408

19) 서울특별시, 「조직변천사」, 1986, pp.300~301 참조.
20) 1956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公告 제147호 「서울特別市 議會 議員選擧 實施에 관한 件」.
21) 內務部地方局편, 「地方行政槪要」, 1967, p.167 참조.
22) 서울특별시, 「조직변천사」, 1986, pp.302~303 참조.

〈표 2〉 초대 서울特別市議會 당선의원

선거구	성명	소속	득표수	연령	학력	직 업
○ 종로구						
제1선거구	李重九	無所屬	2,470	51	中卒	洞會長, 회사원
제2선거구	文箕玉	民主黨	4,448	59	醫專卒	치과의사
제3선거구	金瑨鎔	〃	6,970	65	師卒	무직
제4선거구	朴命俊	〃	6,295	60	大中退	회사중역
제5선거구	朴秀衡	〃	6,007	37	大中退	이사장
제6선거구	李源讚	〃	8,219	65	大卒	회사중역
○ 중구						
제1선거구	李甲秀	〃	5,650	45	中卒	동회장, 상업
제2선거구	李柱興	〃	5,213	43	法專卒	운수업, 출판업
제3선거구	金圭源	〃	3,790	53	中卒	동회장
제4선거구	李東律	〃	4,841	53	中卒	운수업
제5선거구	李益烈	〃	5,756	46	中卒	土建業 會社長
○ 동대문구						
제1선거구	曺基沆	〃	7,371	48	專卒	변호사
제2선거구	金壽吉	〃	4,163	29	大卒	군인, 무직
제3선거구	金東淳	〃	5,910	46	中國大卒	경찰관, 무직
제4선거구	崔仁浩	〃	5,553	43	中卒	동장, 무직
제5선거구	金仲男	〃	5,396	39	高卒	동장, 상업
○ 성동구						
제1선거구	張義淳	〃	5,307	43	師卒	공무원, 무직
제2선거구	金濟允	〃	4,043	35	專卒	회사원
제3선거구	李應麟	〃	6,778	49	中卒	공무원, 무직
제4선거구	洪龍駿	〃	5,693	38	中退	동장, 상업
제5선거구	崔奉秀	〃	5,206	35	大卒	축산업
○ 성북구						
제1선거구	洪淳宇	〃	5,737	51	大卒	金聯參事
제2선거구	朴勝穆	〃	4,982	48	中卒	회사원
제3선거구	方銅石	〃	3,442	34	中卒	회사원
제4선거구	金麟基	〃	5,430	39	大卒	동장, 상업
제5선거구	崔鍾旭	農民會	3,294	45	中卒	동회장, 상업
○ 서대문구						
제1선거구	姜乙淳	民主黨	6,321	35	大中退	京電社員, 상업
제2선거구	鄭泰熙	〃	6,435	60	專卒	동회장
제3선거구	金相洽	〃	7,438	52	大卒	동회장
제4선거구	金在光	〃	6,706	35	專卒	소방대장
제5선거구	韓相琦	〃	3,916	61	漢文修學	채석업

선거구	성명	소속	득표수	연령	학력	직 업
○ 마포구						
제1선거구	申士熙	〃	6,713	40	中卒	동회장, 상업
제2선거구	金暻元	〃	5,450	49	中卒	회사중역
제3선거구	李幸得	無所屬	2,615	50	中退	동장, 철공업
제4선거구	盧承煥	民主黨	3,655	30	中卒	동장, 무직
제5선거구	任鍾淳	〃	3,798	39	專卒	회사원
○ 용산구						
제1선거구	李鍾元	〃	5,454	48	中卒	회사원
제2선거구	金恒福	無所屬	3,652	58	大卒	회사원 상업
제3선거구	金駿植	民主黨	5,381	51	大中退	토건업
제4선거구	金錫根	無所屬	3,480	50	中卒	토건업
제5선거구	具喆會	民主黨	7,242	38	中卒	토건업
○ 영등포구						
제1선거구	申琮洙	〃	5,117	46	中退	前 洞長
제2선거구	金在順	〃	5,052	45	中卒	철공업
제3선거구	趙泳錫	〃	4,229	40	中卒	토건업
제4선거구	李源玉	無所屬	3,007	50	中卒	회사원
제5선거구	洪成裕	民主黨	3,086	35	中退	사회사업
제6선거구	李麒煥	自由黨	3,773	48	中卒	동회장, 공업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城北區에서는 초대 시의원 5명을 선출하였는데 이 5명중 당시 집권당이었던 自由黨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 당시의 야당이었던 民主黨이 4명, 準여당인 農民會 소속이 1명이었다. 그들의 人的 事項을 보면 다음과 같다.[23]

○ 洪淳宇◈당시 50세, 敦岩洞 299번지, 日本大學 法科 졸, 金屬組合聯合會 參事, 三和産業○株◎ 理事長 등

○ 朴勝穆 : 당시 46세, 敦岩洞 291번지, 中學 졸업후 다년간 會社員

○ 方銅石 : 당시 33세, 敦岩洞 288번지, 政治大學 法學部 졸업, 新聞記者, 會社員 등 역임

○ 金麟基 : 당시 38세, 彌阿洞 41번지, 國民學校 외에는 獨學, 洞會長 역임

○ 崔鍾旭 : 당시 44세, 長位洞 112번지, 京城農業學校 졸업, 洞會長 역임

1956년 9월 5일 서울特別市 議事堂에 서울특별시 의원들이 집합하여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였는데, 이 때 의장에는 종로 3선거구에서 선출된 민주당의 金璔鎔의원, 부의장에는 마포 제3선거구에서 선출된 무소속의 李幸得의원이 선출되었고, 9월 8일

23) 孫複睦 저, 韓國地方制度. 自治史研究(下), 一志社, 1992, pp.300~303의 표.

에는 常任委員會 委員長 및 委員을 선출하였다. 이로서 초대 서울특별시 의회가 정식으로 발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되었다.

위 5명의 초대 市의원중 朴勝穆 의원은 1958년 1월에 民主黨을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었으며 崔鍾旭 의원은 당선 직후에 自由黨에 입당하였다. 또 朴勝穆 의원은 1958년 5월 2일에 실시 예정이었던 민의원 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그해 2월 24일에 市의원직을 사임하였으니 5월 27일에 실시된 城北 제2구 보궐선거에서 民主黨의 韓鎭漸이 당선되었다.[24]

4. 제2대 市議會와 城北區

초대 서울특별시 의회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1960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의회 제2대 의원을 선출할 선거를 실시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제2대 의원선출은 제1대 의원선출과는 많은 변동이 있었다. 우선 선거인의 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낮추었으며, 시의원 선거구도 47개에서 54개로 증가하였다.

이 때 선거구를 7개나 증설한 것은 1960년 11월 1일에 공포하여 시행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한 것이다. 즉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民議院 선거구 1개구에 市議員은 3명씩 선출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당시 서울특별시 민의원 선거구가 18區였으므로 시의원 선거구는 민의원 선거구의 3배인 54개구로 하였다.

또한 초대 시의원 선거때는 서울특별시 인구가 1,574,868명에 유권자수 706,408명이었음에 비하여 제2대 시의원 선거때는 인구 2,137,787명에 유권자수가 1,117,123명으로 증가하였으니, 선거구를 증설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대 서울특별시 시의원 선거는 1960년 12월 12일에 실시되어 54명의 시의원이 선출되었다. 초대 시의원 선거때는 투표율이 75%에 달하였으나 제2대 시의원 선거에서는 46%에 미치지 못하는 투표율을 나타냈으니, 이것은 서울시민의 시의회에 대한 실망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2,137,787명에 유권자수는 1,117,123명으로 53%였으며,

24) 同上 pp.399~400 참조.

입후보자는 374명으로 약 7 : 1의 경쟁이었다.

제2대 市의원선거에서는 城北區선거구가 1개 더 늘어나 6개의 선거구가 되었으며 선거를 실시한 결과 제1구에서는 무소속의 李海福이, 제2선거구에서는 新民黨의 梁宅永이, 제3선거구에서는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方銅石이, 제4선거구에서는 신민당의 盧明洙, 제5선거구에서도 역시 신민당의 金麟基가, 제6선거구에서는 무소속의 金基元이 당선되었다. 이 제2대 市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城北區에서의 특징은 첫째 方銅石과 金麟基 등 두 의원이 初代에 이어 再選되었다는 것이고, 둘째 당시 中央政府는 民主黨(張勉政權)이 여당이었는데 6명의 당선자중 야당인 新民黨이 셋, 그리고 무소속이 셋 당선되어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한사람도 당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1960년 12월 22일 제2대 서울특별시 의회 開院式을 갖고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하였는데, 의장에는 서대문구 제5선거구의 민주당 소속의 韓相琦 위원이, 부의장에는 성북구 제3선거구의 무소속 方銅石 위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1960년 12월 12일에 실시된 서울특별시 제2대 시의원 선거의 투표상황과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 〈표 4〉와 같다.[25]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의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의회활동을 시도하였으나 開會 처음부터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정을 둘러싸고 民主黨 소속위원들과 無所屬 의원들간에 의견대립이 극심하는 등 의회의 운영이 순조롭지 못하였다.

초대 서울특별시 의회는 당시 집권당이던 自由黨은 단 1명 뿐이고 야당인 민주당이 40명, 무소속 5명, 農民會 1명 등 총 47명이었으므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주도로 의회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내분으로 新民黨이 새로 창당되는 등 정치적 혼란이 거듭되자 서울시민들은 정치에 염증을 느꼈고, 제2대 시의원 선거에서는 투표율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46%의 저조한 상태였다. 그 결과 당선자 54명은 무소속 17명, 민주당 21명, 신민당 15명, 한독당 1명 등의 분포를 나타냈으므로 어느 당도 과반수를 넘지 못하여 처음부터 의회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에서 혼란을 되풀이 하다가 1961년 5·16군사혁명으로 布告令 제4호가 발표되어 제2대 서울특별시 의회는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해산되고 말았다.

25) 서울특별시, 「조직변천사」, pp.306~307 참조.

〈표 3〉 제2대 서울特別市議會議員 투표상황

인구수	유권자수	의원 정수	투표 구역	개표 구수	투표자수			투표율	입후보 자 수
					유효	무효	계		
2,137,787	1,117,123	54	519	16	497,795	18,303	516,068	45.8	374

〈표 4〉 제2대 서울特別市議會 당선의원

선거구	성명	소속	선거구	성명	소속
○ 종로구			○ 성북구		
제1선거구	李重九	무소속	제4선거구	盧明洙	신민당
제2선거구	文學瑀	〃	제5선거구	金麟基	〃
제3선거구	池大源	신민당	제6선거구	金基元	무소속
제4선거구	李學林	〃	○ 서대문구		
제5선거구	金再萬	무소속	제1선거구	姜乙淳	민주당
제6선거구	禹鳳運	민주당	제2선거구	申赫均	신민당
○ 중구			제3선거구	宋致明	무소속
제1선거구	李文植	신민당	제4선거구	金在光	신민당
제2선거구	申井一	신민당	제5선거구	韓相琦	민주당
제3선거구	金濟勳	무소속	제6선거구	金成萬	신민당
제4선거구	李彰燁	민주당	○ 마포구		
제5선거구	李益烈	무소속	제1선거구	明相義	민주당
제6선거구	李武性	〃	제2선거구	申土熙	〃
○ 동대문구			제3선거구	朱楡煥	〃
제1선거구	朴寬緖	신민당	제4선거구	盧承煥	〃
제2선거구	沈相準	〃	제5선거구	柳重久	〃
제3선거구	延濟億	무소속	제6선거구	金南植	무소속
제4선거구	韓昇洙	〃	○ 용산구		
제5선거구	金熙春	신민당	제1선거구	安一平	민주당
제6선거구	姜成國	민주당	제2선거구	河龍先	〃
○ 성동구			제3선거구	李昌九	〃
제1선거구	安虎吉	신민당	제4선거구	金進昌	〃
제2선거구	金濟允	〃	제5선거구	高衡平	신민당
제3선거구	孫鎭泰	민주당	제6선거구	李炳皓	무소속
제4선거구	劉聖範	한독당	○ 영등포구		
제5선거구	朴舞基	무소속	제1선거구	金應濟	민주당
제6선거구	崔德南	민주당	제2선거구	金在順	신민당
○ 성북구			제3선거구	金殷實	민주당
제1선거구	李海福	무소속	제4선거구	張吉孝	〃
제2선거구	梁宅永	신민당	제5선거구	洪成裕	무소속
제3선거구	方銅石	무소속	제6선거구	李吉薰	〃

5. 國會議員 선출

여기서는 各代別 國會議員 선거의 시대적 배경이나 그 방법 등을 상술하지 않겠다. 그것을 상세히 소개하게 되면 바로 우리나라의 政治史 그 자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制憲國會에서 제5대 國會까지 각 代別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당선자와 그 득표수 및 그 인적사항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왜 제5대까지 국한하는가 하면 정치적인 내용의 史的考察은 30년이내의 사실은 기술하지 않는다는 관례에 따른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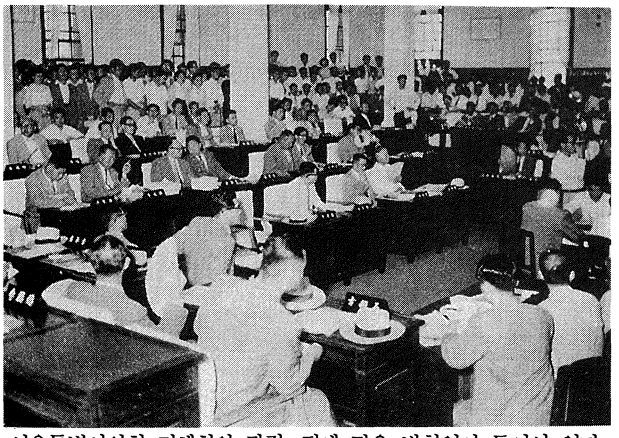
制憲 國會議員 선거는 우리 政府가 수립되기 이전 즉 美 軍政期인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의 정원은 10명이었고 中區, 鐘路 甲·乙區·東大門 甲·乙區, 城東, 西大門, 麻浦, 龍山 및 永登浦에서 각각 1명씩 선출되었다. 이때의 선거에서 오늘날의 城北區가 속했던 東大門 甲區에서는 李承晩이 無投票 당선되었고 同 乙區에서는 李榮俊이 14,695표를 얻어서 당선되었다. 李榮俊(당시 53세)은 세브란스 醫專을 나와 日帝時代 東京帝國大學에서 醫學博士 學位를 받았으며 세브란스 醫專 校長 등을 역임하였다. 制憲議員 입후보 당시 그의 정당소속은 韓民黨이었고 국회의원이 된 후는 文教社會分科委員長 등을 역임한 重鎭이었다.

李承晩이 초대 大統領으로 선출된 때문에 東大門 甲區에서는 보궐선거를 할 필요가 생겼다. 이 보궐선거는 그해(1948년) 10월 30일에 실시되었는데 당시 50세였던 韓民黨의 洪成夏가 당선되었다. 洪成夏는 日本 中央大學 經濟學部를 나와 일제시대 때는 普成專門學校 교수 등을 지낸 經濟·財政分野의 권위자였다. 참고로 1948년 당시 貞陵洞이나 彌阿洞 등 9개 洞은 아직도 高陽郡 崇仁面이었는데 崇仁面이 속한 高陽郡 甲區에서 制憲議員에 당선된 사람은 獨立促成國民會 高陽郡支部長이었던 徐成達이었다. 徐成達(당시 57세)이 얻은 표수는 8,726표였고 그의 住居는 서울의 城北洞이었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는 1950년 5월 30일에 실시되었다. 이때는 서울특별시에 배정된 議員定員이 16명이었고 1949년에 區가 된 城北區에서도 1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었다. 이때 城北區에 입후보한 자는 臨時政府 要員이며 社會黨에 소속하고 있던 趙素昻과 民主國民黨의 重鎭이었던 趙炳玉이었다. 당시 이 나라안 최고의 두 거물이 입후보하였는데 趙素昻은 당시의 大統領 李承晩의 비판세력중 領袖格이었는데다가(金九는 1949년

에 被擊 死亡하였다) 趙炳玉은 美軍政下에 警務部長을 지냈고 새 정부 수립후는 大統領 特使로 UN 등에 파견된, 親 李承晩系 인물이었다.

전국의 모든 시선이 집중된 이 선거에서 趙素昻(당시 63세)이 34,035표를 얻어서 당선되었다. 그러나 그는 아깝게도 6·25事變때 人民軍에 의해 北으로 납치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전체회의 광경, 뒤에 많은 방청인이 들어서 있다.

제3대 국회의원 선거는 1954년 5월 20일에 시행되었는데 이때에도 서울시 국회의원 정원은 제2대 때와 동일하게 16명이었고 城北區도 1인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이때의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自由黨의 金一(당시 53세)이었고 9,838표를 득표하였다. 그의 경력은 滿洲 奉天 三省中學校 졸업, 中國 南京 金陵大學 중퇴, 國民會 宣傳部長, 自由黨 城北區黨委員長이었다. 그의 주소지는 城北區 城北洞 60~8번지였다.

제4대 국회의원 선거는 1958년 5월 2일에 실시되었는데 이때에도 서울시 국회의원 정원은 16명이었고 城北區에서는 1명을 선출하였다. 이때의 선거에서 4만 173표라는 다수표로 당선된 사람은 당시 야당인 民主黨의 중진이었던 徐範錫(당시 55세)이었다. 그의 거처는 貞陵洞 山 1번지, 직업란에는 養鷄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닭을 많이 사육한 것 같다. 그는 일찍이 10代 후반의 나이로 3·1운동에 참가하였으며 1920년에 中國 北京大學 政經科 2년 중퇴, 일제시대에는 朝鮮日報·時代日報·東亞日報 등에서 신문기자 생활을 했으며 1950년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京畿道 옹진군에서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경력의 소유자였다.

제5대 국회의원 선거는 4·19후인 7월 29일에 시행되었는데 이 때의 국회의원 선거는 民議院과 參議院의 兩院制 선거였다. 民議院의 서울시 정원은 16명으로 변함이 없었으며 城北區에서는 여전히 1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이때의 선거에서도 제4대 민의원을 지낸 徐範錫(당시 58세)이 58,586표라는 놀라운 다수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이때 동일자로 시행된 參議院 의원선거는 서울시 전역을 선거구로 하는 廣域선거



1991. 4. 15 초대 성북구 의회 개원식

였고 서울의 정원은 6명이었다. 이때 서울에서 당선된 6명의 參議院은 白樂濬·韓通淑·金東鳴·李仁·高義東·全用淳이었는데 그중 城北區와 직접·간접의 연고를 가진 이는 없었다. 그러나 5대 국회의원은 任期 4년(參議院은 6년 및 3년)을 채우지 못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5·16軍事쿠데타로 해산되고 만다.[26]

〈孫 禎 睦〉

26) 이상 국회의원 선출에 관한 것은 大韓民國選擧史, 中央選擧管理委員會 1968년판에 의함.

第4章　行　政

Ⅰ. 行政組織의 變遷

1. 區制의 沿革

區는 대도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구의 증가와 행정구역의 확대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비능률과 불철저 그리고 각종의 번잡함을 제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市의 구획단위로 행정영역을 공간적으로 분할한 행정단위의 하나이다. 따라서 행정구역으로서의 區와 구단위 행정주체로서의 區廳이 설치되고 구청장을 정점으로 행정조직을 편제하고 있다. 그런데 區에는 行政區와 自治區가 있다. 행정구는 지방공공단체의 일선사무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자치구는 國家 또는 소속 市의 사무가 아닌 區 자체의 고유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한 市의 條例에 의해서 市에서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 그런데 대체로 自治區의 자치단체로서의 지위와 권한은 市·道 등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약하며 소속 市의 조례에 의해 財政·人事상의 각종 통제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自治區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地方議會를 가질 수 있으며[1] 서울특별시의 각 區는 1991년 4월 15일 區議會를 발족시켰다.



구새로 정해진 참새

1) 法律 제4464호 地方自治法 제26조, 1991년 12월 31일.

한편 地方自治法에는 서울특별시가 직할시의 관할구역 안의 區에 한하여 自治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나 폐치·分合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률로 정하고,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2] 그리고 구청장은 위임된 국가사무와 해당 자치구의 사무 및 法令에 의해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3] 그런데 城北區의 자치구로서의 지위는 1988년 5월 1일에 법적으로 확보되었으나 區議會의 발족이 늦어졌으며, 區廳長의 주민에 의한 선거에 따른 선출은 1993년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임명제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城北區의 행정은 自治區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서울특별시의 市政方針을 지표로 하여 本廳의 주요시책사업의 추진 및 자체업무를 수행하며, 區 산하 행정단위인 洞의 행정을 계도하는 등 行政區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城北區의 구단위 행정이 이루어진 것은 1949년 8월 13일 城北區가 설치되면서부터 이다. 그러나 區制는 이미 1943년 6월 10일 京城府의 하부행정단위로 區役所가 설치되면서부터 시행되었다.[4] 그런데 이미 朝鮮時代 漢城府의 행정구역으로 中部·東部·西部·南部·北部의 5部制가 시행되었으며, 區制의 성격상 기원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조선 태조 5년(1396)에 한성부 都城 안을 구획하고 이를 다시 52坊으로 세분하여[5] 오늘날의 區制 및 洞制와의 성격이 일치하는 행정구역 운영을 꾀하였다.



성북구청 청사 전경

2) 法律 제4464호 地方自治法 제3조 및 제4조.
3) 上 同 제92조·제93조·제95조.
4) 이미 1943년 4월 1일에 區制 실시를 전제로 京城府 全域에 事務所를 설치하고, 6월 9일 總督府令 제163호로 出張所制度를 폐지하였으며 6월 10일부터 區制가 정식으로 실시되었다.
5) 太祖實錄 卷9 太祖 5年 4月 丙午條.

이때 中部는 景福宮에서 현재의 광화문 동쪽 낙원동 일대 및 청계천 북쪽 수표교 부근이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구획을 나누었다.[6] 한편 1454년에 간행된《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한성부 관할구역으로 도성 밖 10리를 뜻하는 城底十里를 포함하고 있는데 동쪽은 楊州 松溪院과 大峴까지로 되어 있다.[7] 또 1850년 전후에 발간된《京兆府誌》의 四山禁標條에 보면 그 구역이 大菩洞 시냇물의 흐름에 따라 水踰의 북쪽을 지나 牛耳川 하류를 거쳐 남쪽으로 上伐里·下伐里와 長位의 松溪橋로 이어져 中梁浦에 이르는 하천을 경계로 하고 있으며, 성저의 남쪽은 오늘날 중랑천을 따라 살곶이다리와 新村(응봉동)을 지나 豆毛浦(옥수동)에 이르는 시내를 한계로 삼고 다시 龍山江으로 경계를 잇고 있다. 그리고 북쪽은 大菩洞 서쪽에서 普賢峯을 지나 猪嘴峯에 이르며 한줄기 卯落이 猪嘴峴을 이룬다[8]. 따라서 오늘날의 城北區 지역은 조선시대 한성부의 성저10리 지역에 해당되었다.

한편 部에는 令 1명과 錄事 2명을 두어 관내 坊里居人의 非法事를 다스리며, 교량·도로·頒火·禁火·里門警守·家址打量·檢屍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그 후 성종 5년(1474)에 반포된《經國大典》에는 5部의 長에 主簿(종6품)를 두고 그 아래에는 參奉(종9품)을 두었으며,[9] 영조 18년(1742)에는 주부는 都事로 참봉은 奉事로 개칭되었다. 그 이유는 5部는 長인 主簿가 坊里의 모든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5部 坊民의 사소한 잘못이 있어도 主簿는 이를 다스릴 수가 없었으므로 義禁府의 都事와 같이 사법권을 가질 강력한 책임자를 두어서 5部의 坊民을 관리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이들의 임기를 6개월로 하여 5部에 순환근무를 철저히 시킴으로써 효율적 관리를 꾀하였다.[10] 이어 정조 16년(1792)에는 다시 都事를 領으로 하여 국초 5部의 長의 명칭으로 환원시켰고, 奉事를 都事로 개칭하여 高宗 때까지 이르렀으며 소속 아전으로 書員 4인, 使令 8인, 大廳職 1인, 軍士 2인을 각각 두었다.[11]

---

6) 盧道陽《十五世紀 朝鮮의 産業에 對한 地理的 考察》, 1969, p.20.
7) 世宗實錄 卷148 地理志 京都 漢城府條.
8)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國譯 京兆府誌》, 1992, p.77.
9) 經國大典 卷1 吏典 京官職 從六品 衙門 五部條.
10) 增補文獻備考 卷224 職官考11 五部條.
11) 上 同.

이 5部制는 1894년 甲午改革 때 5署制로 개편되었으며, 1911년 5部 8面制로 개편되었다가, 1914년 京城府 행정구역 축소로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漢城府의 하부행정단위로 실시된 5部制는 한성부의 업무를 지역별로 분장하여 행정책임자를 두어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현행 서울특별시의 區制와 성격상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12] 그후 1943년 京城府의 하부 행정구역으로 區制가 실시되었으며, 이 제도는 광복 후에도 그대로 이어져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즉, 1936년 경성부 관할구역의 확대에 따라 1940년경 경성부는 인구 93만명으로 거의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었고, 종래의 도성 안과 근접지에 주로 거주하던 주민들의 주거지역이 점차 확대되어 永登浦·漢南·新村·敦岩地域 등이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발전 팽창함에 따라 경성부 본청의 행정만으로는 그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중간기구로서 區의 설치가 추진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성부와 주민사이의 중간기구로 區制 실시 이전에 경성부의 출장소가 설치되어 행정분담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출장소제도는 행정구역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고, 단지 행정업무의 지역적 분담으로 설치된 것이었다. 즉, 1914년 4월 1일 5部 8面制가 폐지되고 1914년 9월 27일부터 경성부 직할로 편입된 지역에 東部·西部·北部·龍山의 4개 출장소가 설치되었다.[13] 그리고 都心部와 南部地域은 경성부가 직할하였다. 그러나 1915년 6월 17일에 龍山出張所만 남기고 3개 출장소는 폐지되었으며,[14] 다시 1936년 4월 1일에 영등포 및 동부출장소가 설치되고,[15] 이어 1940년 7월 1일부터 서부출장소가 설치되어 다시 4개 출장소가 되었다.[16]

따라서 都城內의 중심지역은 경성부 본청에서 행정업무를 직할하고 원거리지역에 대해서는 출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출장소는 경성부 전역에 경성부의 하부행정구역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단지 원거리에 있는 일정지역에 한하여 행정의 편의상 설치된 것으로, 1943년에 설치된 區制와는 근본적으로 성격

12) 羅恪淳〈서울特別市 區行政變遷考〉《鄕土서울》46, 1988, p.125.
13) 京城府條例 第8號 1914년 9월 27일자. 京城府《京城府史》第3卷, 1941, p.18.
14) 京城府條例 第6號 1915년 6월 17일자.
15) 京城出場所設置條例 제6호, 1936년 4월 1일자.《京城府例規類集》pp.83~84.
16) 京城府《京城彙報》제260호, 1943, pp.1~6.

이 다른 것이었다. 여하튼 본청의 행정을 지역적으로 나누어 시행한다는 외형적인 형태는 區制의 운영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출장소제도가 실시되어 오던 중 인구증가 및 행정구역 확대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區制 실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1943년 4월 1일 區制 실시를 전제로 경성부 전역을 대상으로 中央·鐘路·東大門·城東·西大門·龍山·永登浦의 7개 사무소가 설치되었다. 이때 城北地域을 관장하는 東大門事務所는 京城府 新設町 87번지에 위치하였다.

이어 1943년 6월 9일 部令 제163호에 의해 출장소제도가 폐지되고 6월 10일 區制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용산출장소 관할구역을 龍山區로 하고, 동부출장소 관할구역을 東大門區와 城東區로, 서부출장소 관할구역을 西大門區로, 영등포출장소 관할구역을 永登浦區로 하였으며 도성 내의 경성부 직할구역에 鐘路區와 中區를 각각 신설하여 모두 7個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區行政機關으로 區役所를 두었으며[17] 그 책임자를 區長이라 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44년 10월 23일 총독부령 제350호로 서대문구 인접지역인 高陽郡 延禧面의 일부를 경성부에 편입하였고, 이 지역과 서대문구와 용산구의 일부를 분할하여 麻浦區를 신설하니 京城府는 8個區의 하부행정구역으로 分定되었다.

광복 후 美軍政이 실시되면서도 종래의 區制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경성부의 행정공백을 막기위해 韓國人 직원들에 의한 代表者制度를 임시 운영하여 區長을 區廳長으로 고치고 구청장을 선출하기도 하였다.[18]

이후 1948년 정부수립 후 11월 17일 法律 제8호 〈地方行政에 관한 臨時措置法〉에 區와 區廳長의 설치 및 관장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다.[19] 그런데 이때의 區는 自治區가 아닌 事務區에 불과하였으며, 區의 사무는 법령에 의해 구청장이 집행하는 사무와 市長의 직권위임에 의해 구청장이 집행하는 업무였다. 이 法은 地方自治法이 제정될 때까지의 臨時法이었지만 區制에 관한 규정으로 대한민국정부에 의해 최초로 마련된 자주적인 법적 장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17) 京城府《京城彙報》제260호, 1943, pp.1~6.
18)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서울六百年史》第5卷, 1983, p.109.
19) 同法 제10조·제12조·제14조·제15조.

이어 이 法의 시행령인 〈地方行政機關職制〉가 1948년 11월 18일 공포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市에서는 1948년 11월 29일 서울市令 제2호 〈서울市 區分課規定〉을 발포하여 區의 직제와 사무분장을 마련하였다.[20] 이에 따르면 區에는 총무과·학무과·사회과·세무과·호적과의 5課를 두었으며, 지방행정기관직제에 따라 課長은 事務官·主事·技士·奬學士로 임명하였으며, 구청장 이외에 主事·技士·奬學士·書記·技員의 직급을 두었다.

한편 1949년 8월 13일 大統領令 제159호〈市·道의 관할구역 및 區·郡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변경의 건〉에 의해 서울市 행정구역이 확대되어 東大門區 일부지역과 새로 편입된 경기도 高陽郡 崇仁面 일대를 관할구역으로 城北區가 비로소 설치되었다. 즉, 성북구는 종래 동대문구의 돈암동, 안암동 1·2·3·4·5가, 종암동, 성북동과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의 장위리, 석관리, 번리, 우이리, 수유리, 상월곡리, 하월곡리, 미아리, 정릉리의 9개리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돈암동에 구청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14일 大統領令 제160호 〈서울特別市 區 出張所 설치에 관한 건〉에 의해 서울市에 편입된 고양군 숭인면 일대를 관할구역으로 성북구 숭인출장소가 설치되었으며 미아리에 구출장소를 마련하였다. 이어 1949년 8월 15일 法律 제32호로 〈地方自治法〉이 제정 실시되고 서울특별시에 區를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21]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區 역시 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행정구



성북구청 구(旧) 청사

20) 官報 제114호, 단기 4282년 6월 18일자.

21) 지방자치법 가운데 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特別市에 區를 두고 區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것을 변경하거나 廢置·分合할 때에는 法律로서 정한다.

－. 區에 區廳長을 두고 區廳長은 市長의 추천으로 內務部長官을 경유하여 大統領이 임명한다.

－. 區廳長은 市長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소관된 국가와 市의 사무를 掌理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區廳長은 서울특별시의 권한에 속하는 일부 사무를 위임받아 그 사항을 집행한다.

역 또는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종전과 변함이 없었다. 즉, 아직 자치단체로의 지위를 갖지 못하였다.

한편 1950년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서울市政이 일시 중단되었으며, 서울특별시는 釜山行政處를 설치하여 避難市政을 운영하였다. 區政 역시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능하였지만, 救護糧穀을 각각 관할 구청별로 각 구청의 査定에 의해 배급함에 따라 남하한 서울시민들이 구청별로 등록함으로써 구호업무에 따른 避難區政을 실시하였다.[22] 서울특별시 行政建設隊가 1951년 5월 22일 入城한 후, 7월 1일경부터는 각 구청이 전부 재개되어 區政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그 정상적인 운영은 還都의 정식 선포가 있은 1953년 8월 1일 전후였다.

한편 1952년 6월 23일에 서울特別市規則 제9호로 〈서울市職制〉가 전면 개정되어 공포됨으로써 정상적인 기구에 의한 區政實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즉, 區에는 총무과·세무과·학무과·사회과·호적병무과·건설과의 6課 체제를 갖추고, 區에 배치되는 공무원은 地方公務員制度가 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분리되어 배치되었다. 그리고 1955년 4월 18일에는 市條例 제66호로 洞制를 실시하게 되어 城北區의 말단 행정조직체제를 23개 行政洞에서 17개 法定洞을 관할하게 하였다.

1962년 1월 27일 法律 제1015호 〈서울特別市에 관한 特別措置法〉이 공포되어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때 서울특별시는 종래 內務部 산하에서 內閣首班(국무총리)의 직속하에 두게 되어 法的地位의 상승과 기구확대를 가져왔으며 區行政에도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즉, 1962년 2월 9일 閣令 제447호로 〈서울特別市區職制〉가 공포되었는데 이는 區의 행정기구를 규정한 것으로 區에 배치되는 國家公務員의 職種·課의 설치·사무분장 등의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 것이었다. 이때 구청에 배치되는 국가공무원은 區廳長·行政書記官 이하 19종으로 하였으며, 이어 1962년 3월 29일 閣令 제1364호에 의해 土木技佐·建築技佐도 배치되었다.

그리고 1963년 1월 1일 法律 제1172호에 의해 서울의 인접지역 일부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어 10개 區出張所가 신설되어 종래 3개 구출장소와 더불어 13개 구

22) 註 18) p.135

출장소가 되었다. 이때 城北區에는 경기도 楊州郡 蘆海面 지역이 편입되어 蘆海出張所가 설치되었으며, 각 출장소에는 총무계·산업계·호적병무계·사회계를 두었다. 이어 1964년 2월 3일 市規則 제368호로 洞職制를 개정하여 종래 洞書記制度를 폐지하고 地方公務員制를 실시하였으며, 1964년 7월 27일 市規則 제420호에 의해 區의 課·係別分掌業務의 전면적인 개정이 있었다.

한편 1968년 3월 21일에 대통령령 제3405호로 區廳長의 직급을 종래 3급갑류 行政書記官에서 2급을류 行政副理事官으로 높였으며, 1971년 8월 26일에는 대통령령 제5768호에 의해 구청에 3급갑류 행정서기관의 副區廳長制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973년 7월 1일 大統領令 제6548호에 의해 道峰區와 冠岳區가 신설되었는데, 종래 城北區에서 도봉구를 분리 신설함과 동시에 崇仁·蘆海出張所가 폐지되었다. 이어 1975년 2월 1일 대통령령 제7531호에 의해 區職制가 개편되면서 副區廳長制가 폐지되고 局制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각 구청은 區廳長-局-課-係의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局制의 실시는 다음과 같은 것이 고려되었다. 즉, 행정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하여는 조직의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했다. 그리고 종래 구청의 副區廳長制는 區廳長의 막중한 업무부담을 분담하고, 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정·보좌의 기능 일부를 맡으며, 3급을류 課長들의 업무수행을 지도 조정하면서, 특히 洞行政의 일선을 지휘 감독하고 있는 總務課長으로 하여금 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배려에서 설치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그 행정실효와 본래의 설치의도에 충실히 기능하였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區勢가 流動的인데다가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區廳長의 하부기관인 課등도 계속 늘어났을 뿐 아니라 行政權限의 하부이양이 증대됨에 따라 區廳의 업무, 나아가 洞을 위시한 일선기관의 업무량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크게 팽창하게 되었다.

또한 시민위주의 착실한 서비스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區廳長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도·건설·보건·세무 등 제반 사무를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여기서 區廳의 조직을 종래보다 더욱 능률적으로 개편하여 시민위주의 봉사행정에 차질없도록 합리적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행정관리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었던 기반

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내부적·외부적인 요구에 따라 時宜適切하게 설치한 것이 區의 局制이다. 따라서 종전의 副區廳長制가 行政需要에 맞추어 발전적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 區廳의 局制 탄생이라 할 수 있다.[23]

그런데 1984년 1월 21일 大統領令 제11335호에 의해 다시 각 구청에 副區廳長制가 9년만에 부활 시행되었다. 즉, 新市街地 조성과 國際行事 등으로 행정수요 및 인구가 급증하는 區의 구청장 직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증가에 다른 행정수요의 급증과 本廳業務의 하부이양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된 區의 일선 행정업무를 위하여 區의 副廳長制가 실시되기에 이른 것이다.

1988년 5월 1일 法律 제4004호 〈地方自治法 改正法律〉에 의해 서울특별시의 區單位 自治制가 실시되었다. 따라서 각 구청은 지금까지의 서울특별시 행정보조기관이었던 위치에서 벗어나 法人格이 부여된 自治團體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140여종의 區自治에 필요한 각종 조례나 규칙을 제정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구청 독자적인 예산을 편성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區條例의 의결·제정과 區豫算의 심의 및 決算 승인 등의 역할을 하는 區議會가 1991년에 출범하였으며, 행정사무의 감사와 조사권을 가지고 집행부의 업무수행을 견제하고 있다. 또한 현행 任命制에 의해 운용되는 區廳長도 머지않은 장래에 주민선거에 의해 선출될 것으로 보아 명실공히 區의 지방자치제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區廳의 職制와 變遷

區制가 처음 실시된 1943년 6월 10일에는 京城府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區役所가 설치되었다. 이 區役所에는 행정책임자로 區長이 두어졌으며, 구장은 경성부 본청의 課長과 같은 직급으로 總督府 理事官 또는 京城府 主事로 임용하였는데, 이들 대부분은 日本人들이었고 西大門區와 東大門區의 구장은 韓國人이 임용되었다.

그리고 區役所의 직제는 區長 예하에 總務課·稅務課·戶籍兵務課를 두었으며,

23) 서울特別市《'76시정개요》pp.653~655.


1991. 4. 15 성북구 의회의원 선서

課 산하에 몇개의 係가 있었다. 區役所의 과장은 본청의 계장과 같은 직급이었다. 당시 한국인이 과장을 맡은 곳은 城東區의 戶籍兵務課를 비롯하여 鐘路區 總務課·西大門區 稅務課·龍山區의 戶籍兵務課의 4課 뿐이었다.[24]

한편 區長의 업무는 法令에 의한 국가적 업무와 府令에 의한 府尹의 위임업무, 그리고 府尹의 내부위임에 의하여 집행하는 국가사무와 단체사무가 있었으며 정부의 보조기관으로서의 區長이 집행하는 국가사무와 단체사무가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법령에 의한 국가적 업무
- 戶籍과 寄留業務
- 地稅令에 의한 각종 업무
- 納稅施設令에 의한 각종 업무
- 매장과 화장에 대한 각종 업무

② 府令에 의한 府尹의 위임업무
- 區 소속원의 지휘 감독
- 國稅·道稅·府稅의 징수사무
- 사용료·수수료·부담금·기타 諸收入의 징수사무
- 각종 증명사무
- 묘지와 화장장의 사용허가
- 영조물의 사용허가
- 府에서 영달한 예산의 집행사업

③ 府尹의 내부위임 국가사무와 단체사무

24)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서울特別市史》解放後 市政篇, 1965, p.105.

- 국민저축에 관한 것
- 양곡배급에 관한 것
- 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관한 것
- 勞務調整令에 관한 것
- 軍事扶助에 관한 것
- 種痘에 관한 것
- 도로점용 관리에 관한 것
- 府의 공용재산 관리에 관한 것
- 물품의 출납보관에 관한 것

④ 政府 보조기관으로서 區長이 집행하는 국가사무와 단체사무

- 總力運動에 관한 것
- 防空防護에 관한 것
- 저축운동과 國債消化에 관한 것
- 金屬回收에 관한 것
- 보건위생에 관한 것
- 상공업의 장려에 관한 것

이상과 같은 區役所의 직제와 업무를 살펴보면 곧 日帝 식민지통치의 區政의 성격을 알 수 있으며, 전쟁 수행을 위한 경제적 수탈과 징병·징용 등 인력자원 징발이 행정업무 수행의 근본목표였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광복 후 한국인 京城府 직원들은 각 部·課의 대표자제도를 마련하여 代表者會議를 구성하고 자치적으로 京城府政을 수행하였는데, 먼저 종래 區長을 區廳長으로 명칭을 고치고 구청장의 선임 또한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였다.[25] 즉, 1945년 9·10월경에 첫 구청장을 선출하였으며, 구청기구는 종래의 기구를 그대로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후 光復 1주년을 맞이하여 美軍政廳은 서울市憲章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市職制의 조직개편이 있었으며 아울러 각 구청의 직제도 새로 마련되었다. 당시

25) 金聖煥〈解放前後의 市政〉《鄕土서울》6, 1959, p.109.

각 구청의 직제는 區廳長 예하에 總務課·戶籍課·稅務課·厚生課와 淸掃事業所를 두었으며, 총무과에 총무계·상공계를 두고 호적과에는 호적계·기류계, 세무과에는 부과계·징수계·정리계를 두었으며 후생과에는 후생계·보건위생계를 두어 4課·9係·1所로 편제되게 되었다.

이상의 1946년에 시행된 구청직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까지의 과도기적인 직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광복직전의 직제와 비교해 보면 厚生課가 신설되고 戶籍兵務課가 戶籍課로 변경되었으며 청소사업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광복 직후의 어지러운 사회현상을 배경으로 복지행정을 추구하고, 식민통치의 전쟁수행에 따른 兵事에 대한 시민의 저항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선포되었다.

이어 자주적인 국가조직과 지방행정조직에 착수하여 같은 해 11월 17일 法律 제8호 〈地方行政에 관한 臨時措置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에 區를 두고 구에 區廳長을 두는 區制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어 同法의 施行令인 大統領令 제32호 〈地方行政機關職制〉가 다음 날인 11월 18일에 공포 시행되어 區의 직제가 마련되었다. 즉, 區에는 課를 두고 課에는 課長 1인을 두는데 과장은 事務官·主事·技士·奬學士를 補하며, 區에는 區廳長 이외에 주사·기사·장학사·서기·기원을 둔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市에서는 1948년 11월 29일 서울市令 제2호 〈서울市 區分課規定〉을 공포 시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區는 총무과·학무과·사회과·세무과·호적과의 5課體制를 갖추었다. 이는 당시 城北區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지만 성북구 신설 당시의 직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최초로 규정된 서울市의 區分課規定을 살펴보기로 한다.

◉ 서울市 區分課規定(1948. 11. 29 서울市令 제2호)

제 1 조 區에 총무과·학무과·사회과·세무과 및 호적과를 둔다.

제 2 조 (총무과 사무분장)

① 官印管守에 관한 사항

② 일반직원의 진퇴 상벌에 관한 意見具申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

③ 포상 및 의식에 관한 사항

④ 機密에 관한 사항

⑤ 廳中 令達에 관한 사항

⑥ 숙직 및 청내 감시에 관한 사항

⑦ 문서의 접수, 발송 및 보존에 관한 사항

⑧ 公告에 관한 사항

⑨ 간행물에 관한 사항

⑩ 통계 기타 諸調査에 관한 사항

⑪ 선거에 관한 사항

⑫ 洞會에 관한 사항

⑬ 公報에 관한 사항

⑭ 토목 및 시가지계획에 관한 사항

⑮ 商工에 관한 사항

⑯ 農林·畜産에 관한 사항

⑰ 도량형에 관한 사항

⑱ 회계에 관한 사항

⑲ 他課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 3 조 (학무과 사무분장)

① 초등교육에 관한 사항

② 성인교육에 관한 사항

③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④ 사회교화에 관한 사항

⑤ 문화에 관한 사항

제 4 조 (사회과 사무분장)

① 후생에 관한 사항

②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③ 노동에 관한 사항

제 5 조 (세무과 사무분장)

① 市稅·稅外諸收入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② 國稅 징수에 관한 사항

③ 稅源 조사에 관한 사항

④ 차량 및 畜犬鑑札 교부에 관한 사항

⑤ 公課 영업 기타 세무에 관한 사항

⑥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⑦ 市金庫에 관한 사항

제 6 조 (호적과 사무분장)

① 호적에 관한 사항

② 寄留에 관한 사항

③ 인구동태에 관한 사항

④ 印鑑에 관한 사항

⑤ 埋·火葬에 관한 사항

제 7 조 본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市長이 이를 정한다.

한편 총무과에는 총무계와 상공계, 학무과에는 교무계와 사회교화계, 사회과에는 후생계와 보건위생계, 세무과에는 부과계·징수계·정리계, 호적과에는 호적계와 기류계가 두어졌으며 係別 事務分掌은 成文化되지 않았다. 종전의 직제와 비교해 보면 4課 9係 1所 체제에서 후생과를 社會課로 개칭하고, 학무과를 신설하여 학무계와 사회교화계를 설치하는 등 5課 11係 체제로 확대되는 변동이 있었다. 즉, 학무과의 신설은 광복 이후 대두된 교육문제의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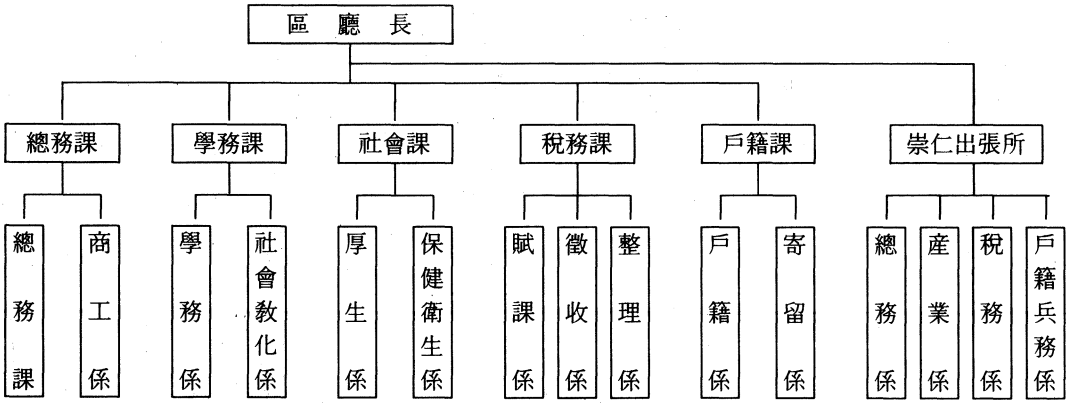
한편 1949년 8월 13일 大統領令 제159호로 城北區가 신설되었다. 이어 다음 날 대통령령 제160호로 城北區 崇仁出張所가 설치되었다. 따라서 城北區廳은 기존 區와 같이 5課 11係의 편제를 갖추었으며 崇仁出張所에는 총무계·산업계·세무계·호적병무계의 4係가 설치되었다. 이를 도식하면 다음 〈表 1〉과 같다.

이어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한 區政의 공백이 휴전의 분위기 가운데 새로운 직제의 마련으로 재개되었다. 즉, 1952년 6월 23일 서울特別市規則 제9호 〈서울特別市 區職制〉가 새로 마련되어 정상적인 기구에 의한 區政 실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때의 구청직제는 종래 5課 11係 체제에서 6課 15係 체제로 확대되었다. 즉, 전쟁상황이 계속되는 여건속에서 戶籍課가 戶籍兵務課로 개칭되면서 兵務係가 신설되어 시대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코자 하였다. 또한 同日字 대통령령 제1329호에 의해 本廳 建設局 관할의 水道事務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區廳에 建設課가 신설되어 그 예하에 管理係·水道係·土木係를 설치하였다. 이를 도식하면 다음 〈表 2〉와 같다.

〈表 1〉 **城北區廳 職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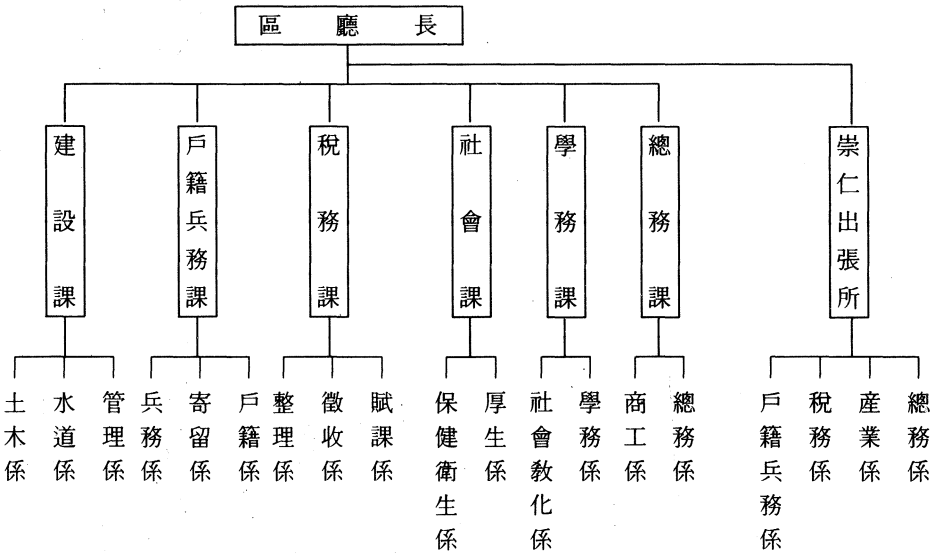
1949. 11. 14



※실제 區出張所職制는 1950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規則 제2호에 의해 시행되었다.

〈表 2〉 **城北區廳 職制**

1952. 6. 23



그리고 區廳에 배치되는 직원은 종전에는 모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였으나 지방공무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國家公務員과 地方公務員을 구분하여 임용 배치하였다. 여기서 1954년 3월 31일 현재 城北區廳의 공무원 직종과 인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공무원으로 區廳長과 事務官 각 1명·主事 22명·技士 5명·奬學士 1명·書記 8명·技員 2명으로 정원 40명에 현원 40명이 배치되었고, 지방공무원으로는 地方參事 5명·地方技佐 1명·地方主事 27명·地方技士 2명·地方書記 26명·地方技員 4명으로 정원 69명에 현원 65명이 배치되어, 총 109명 정원에 현원 105명이 근무하였으며 그외에 國費勞務員 1명과 地方費勞務員 6명 등 노무원 7명이 있었다.[26]

그후 1955년 12월 23일 區廳 총무과에 洞政係를 신설하고, 1956년 1월 31일 서울特別市規則 제85호에 따른 區職制의 개편에 따라 稅務課를 賦課課와 徵收課로 분리하여 부과과에 제1부과계·제2부과계·국채계를 설치하고, 징수과에 제1징수계·제2징수계·제3징수계를 각각 설치하였다. 따라서 城北區廳의 직제는 7課 21係에 崇仁出張所 4係 체제로 이루어졌다. 그럼 여기서 市規則 제85호에 의한 성북구청 직제 및 사무분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特別市 區職制(1956. 1. 31 市規則 제85호)

第1條 서울特別市의 組織과 事務分掌은 法令 또는 條例에 規定이 있는 것을 除外하고 本規則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2條 區에 區廳長以外에 두는 國家公務員은 다음과 같다.

事務官, 主事, 奬學士, 書記, 技員

第3條 區에 두는 地方公務員은 다음과 같다.

地方參事, 地方技佐, 地方主事, 地方技士, 地方書記, 地方技員

第4條 事務官, 地方參事, 主事, 地方主事, 書記, 地方書記는 上司의 命을 받아 一般事務를 處理한다.

第5條 地方技佐, 技士, 地方技士, 技員, 地方技員은 上司의 命을 받아 技術에 關한 事務를 處理한다.

26) 서울特別市《市勢一覽》1953년판, p.137.

第6條 奬學士는 上司의 命을 받아 學事指導 其他 敎育에 關한 事務를 處理한다.

第7條 區에 總務課, 賦課課, 徵收課, 學務課, 社會課, 戶籍兵務課 및 建設課를 둔다. 各課에 課長을 둔다.

課長은 事務官, 地方參事 또는 地方技佐로서 補한다.

課長은 上司의 命을 받아 課務를 處理하며 部下公務員을 指揮 監督한다.

第8條 總務課는 機密, 官印管守, 公務員의 任免, 身分, 賞罰, 服務, 訓練과 厚生, 文書, 樣式, 典禮, 區出張所·洞 其他 公共團體의 指導監督, 區行政區域의 名稱·位置·區域變更, 選擧, 寄付金品統制, 部落組織, 外國人登錄, 行政代書業, 會計, 用度, 公告, 刊行勿, 統計, 公報, 商工, 農林, 畜産, 獸醫, 度量衡, 物資와 物價, 金融, 農地, 其他 産業, 食糧, 燃料 및 他課 主管에 屬하지 않는 事項을 分掌한다.

第9條 賦課課는 稅源調査, 市稅賦課, 稅務에 關한 監札交付, 公債 및 其他稅務에 관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9條의 2 徵收課는 市稅徵收, 國稅委託徵收, 稅外諸收入滯納處分, 納稅施設 및 市金庫出張所에 관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10條 學務課는 初等敎育, 科學, 藝術, 社會敎化, 成人敎育, 文化, 體育, 寺刹, 宗敎, 古蹟, 名勝 및 靑少年指導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11條 社會課는 厚生, 保健, 醫藥, 衛生, 防疫, 救護, 勤勞, 職業指導, 婦女의 指導와 敎養, 軍警援護 및 汚物收去手數料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12條 戶籍兵務課는 戶籍, 寄留, 人口動態, 印鑑, 身分, 其他 諸證明, 埋火改葬의 認許, 墓地火葬場의 使用許可, 徵兵, 一般兵事 및 徵發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13條 建設課는 市街地計劃, 土木, 道路, 河川, 上水道, 公園, 交通, 土地의 使用과 收用, 市街地計劃에 依한 諸計劃線의 明示, 證明, 統制, 建築營繕, 街路燈管理, 水道使用料, 手數料 其他 水道諸收入의 調定과 徵收, 建築代書士, 土木建築業者의 指導助長 및 渡船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附 則

本規則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서울市令 第二號 서울市 區分課規程은 이를 廢止한다.

이어 1958년 1월 1일 大統領令 제1329호에 의해 서울특별시 區職制가 일부 변동되었다. 이는 1957년 9월 5일 서울特別市議會가 발족되고, 같은 해 10월 2일 教育自治制가 실시됨에 따라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가 발족됨으로써 그동안 區廳의 學務課와 본청의 學務局에서 담당하던 제반 교육행정 업무가 교육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구청의 학무과가 폐지되기에 이른 것이다.[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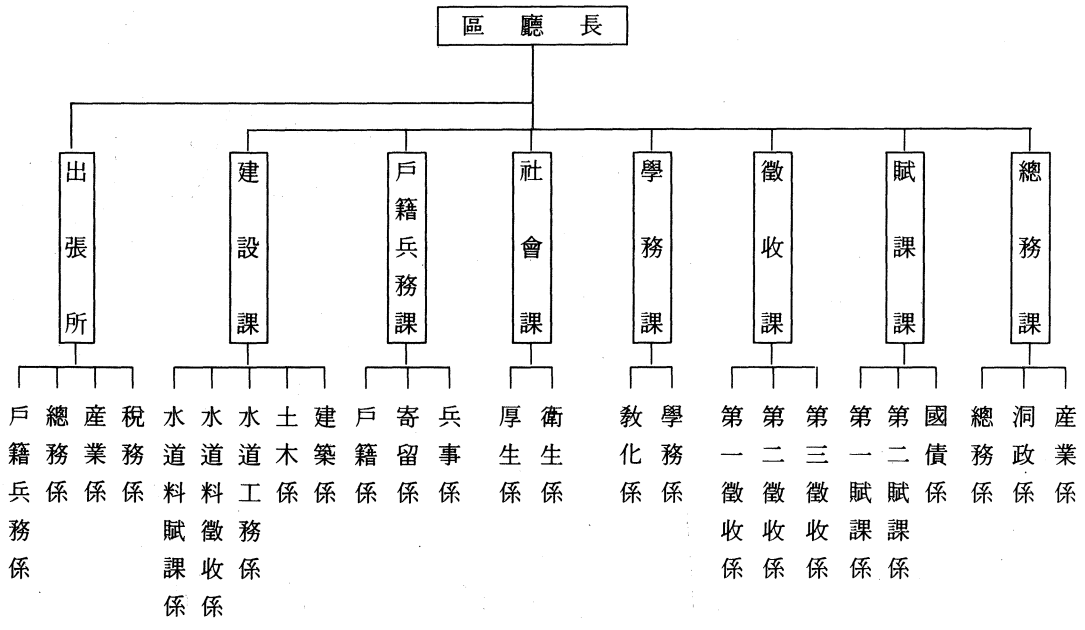
그리고 건설과의 수도료부과계·수도료징수계·수도공무계를 폐지하고 관리계·수납계·수도계를 설치하였으며, 부과과의 국채계를 폐지하고 제3부과계를 설치하였으며, 총무과에 공보계를 신설하였다. 따라서 城北區는 6課 20係의 체제를 갖추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후 1962년 2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는 內務部 산하에서 內閣首班의 직속으로 지위가 상승되었다. 아울러 구청의 직제 및 區에 배치되는 공무원과 사무분장 등의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었다.

즉, 1962년 2월 9일 閣令 제447호에 의해 區에 國家公務員을 직급·직종별로

〈表 3〉 城北區廳 職制

1956. 1. 31



27) 서울特別市《서울特別市組織變遷史》1986, p.214.

배치하고, 1961년 6월 말에 신설된 사회과의 청소계를 淸掃課로 승격 신설함으로써 城北區廳은 총무과·부과과·징수과·사회과·청소과·호적병무과·건설과의 7課體制가 되었다. 그리고 區廳長은 행정서기관으로 임용하였으며, 총무과·청소과·호적병무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참사로 임용하였다. 부과과와 징수과장은 財經事務官 또는 地方司稅參事, 사회과장은 厚生事務官 또는 地方厚生參事, 건설과장은 토목기좌·건축기좌·지방토목기좌 또는 지방건축기좌로 임용하였다.

또한 구청에 배치되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사무관·기좌·주사·기사·서기·기원 등의 직급을 직종별로 구분하고 區廳長·行政書記官 이하 19종의 직급으로 세분하여 임용하였는데 이는 국가공무원의 제도개정에 따른 조치였다. 이어 3월 29일에는 閣令 제1364호로 기좌를 토목기좌·건축기좌로 직종을 분류하여 배치하였다. 그리고 區廳長은 종래에 職位名과 職級名을 같이 사용하였는데, 이때 구청장의 직급을 행정서기관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閣令에 의해 서울특별시에서는 1962년 4월 23일 訓令 제113호로 〈서울特別市 區 各課係別 事務分掌事項〉을 마련하였다. 이는 係單位까지의 사무분장을 成文化한 최초의 규정으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特別市 區 各課係別 事務分掌事項(1962. 4. 23. 訓令 제113호)

○ 총무과

1. 총무계 : ① 人事에 관한 사항 ② 文書에 관한 사항 ③ 官印에 관한 사항 ④ 機密에 관한 사항 ⑤ 當宿直에 관한 사항 ⑥ 賞罰 및 服務紀與에 관한 사항 ⑦ 訓練과 厚生에 관한 사항 ⑧ 儀式 및 典禮에 관한 사항 ⑨ 出張所 및 公共團體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⑩ 外國人登錄에 관한 사항 ⑪ 會計 및 用途에 관한 사항 ⑫ 統計에 관한 사항 ⑬ 圖書에 관한 사항 ⑭ 車輛管理에 관한 사항 ⑮ 公債에 관한 사항 ⑯市有財産 管理에 관한 사항 ⑰ 其他 他課·係 主管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동정계 : ① 區 人事委員會 運營에 관한 사항 ② 洞職員 人事에 관한 사항 ③ 洞財産管理에 관한 사항 ④ 部落組織 및 運營에 관한 사항 ⑤ 洞의 指導 監督에 관한 사항 ⑥ 區行政區域의 名稱·位置·區域變更에 관한 사항 ⑦ 寄附金品 統制에 관한 사항

⑧ 就學 기타 學務에 관한 사항 ⑨ 選擧에 관한 사항 ⑩ 行政代書業 許可 및 紹介營業申告에 관한 사항 ⑪ 國民貯蓄에 관한 사항 ⑫ 國債에 관한 사항

3. 공보계 : ① 公報宣傳에 관한 사항 ② 各種 公告에 관한 사항 ③ 刊行物 發行에 관한 사항 ④ 輿論蒐集에 관한 사항 ⑤ 姉妹結緣 및 文化財 保存管理에 관한 사항

4. 산업계 : ① 商工에 관한 사항 ② 食糧 및 燃料에 관한 사항 ③ 農林에 관한 사항 ④ 畜産에 관한 사항 ⑤ 度量衡에 관한 사항 ⑥ 市場 및 物價에 관한 사항 ⑦ 金融에 관한 사항

○ 부과과

1. 부과제1계 : ① 取得稅 賦課에 관한 사항 ② 自動車稅 부과에 관한 사항 ③ 財産稅 부과에 관한 사항 ④ 農地稅 附加에 관한 사항 ⑤ 目的稅 부가에 관한 사항 ⑥ 其他 課內 他係 主管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부과제2계 : ① 所得稅附加稅 부과에 관한 사항 ② 法人稅附加稅 부과에 관한 사항 ③ 營業稅附加稅 부과에 관한 사항 ④ 遊興飮食稅 부과에 관한 사항 ⑤ 屠畜稅 부과에 관한 사항 ⑥ 馬券稅 부과에 관한 사항 ⑦ 免許稅 부과에 관한 사항

3. 지적계 : ① 土地 및 林業臺帳의 整理保存에 관한 사항 ② 地籍圖 및 林野圖의 整理保存에 관한 사항 ③ 土地 및 林野의 分割, 合併에 관한 사항 ④ 土地 課稅基準 調査에 관한 사항 ⑤ 地籍關係 諸證明 發給에 관한 사항

○ 징수과

1. 징수제1계 : ① 納期內 市稅 徵收에 관한 사항 ② 納期內 國稅委託 징수에 관한 사항 ③ 稅外諸收入에 관한 사항 ④ 市金庫에 관한 사항 ⑤ 納稅施設에 관한 사항 ⑥ 納稅證明發給에 관한 사항 ⑦ 過誤納金 還拂에 관한 사항 ⑧ 納期內 消印事務에 관한 사항 ⑨ 歲入事務에 관한 사항 ⑩ 기타 課內 他係 主管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징수제2계 : ① 督促 手數料 및 督促狀 發給에 관한 사항 ② 滯納處分에 관한 사항 ③ 缺損處分에 관한 사항 ④ 押留財産 公賣에 관한 사항 ⑤ 納期後 徵收 및 收納消印에 관한 사항 ⑥ 公課金 交付請求에 관한 사항

○ 사회과

1. 후생계 : ① 厚生에 관한 사항 ② 救護에 관한 사항 ③ 勤勞 및 勞動에 관한 사항 ④ 職業指導에 관한 사항 ⑤ 婦女와 青少年의 지도 및 교양에 관한 사항 ⑥ 住宅에 관한 사항 ⑦ 老人亭 및 實費食堂에 관한 사항 ⑧ 기타 課內 他系 主管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위생계 : ① 保健에 관한 사항 ② 衛生에 관한 사항 ③ 防疫에 관한 사항 ④ 醫藥에 관한 사항

○ 청소과

1. 청소제1계 : ① 汚物 및 塵芥의 收去 및 處理에 관한 사항 ② 塵芥 車輛의 管理·運營에 관한 사항 ③ 撒水車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④ 清掃人夫 監督에 관한 사항 ⑤ 기타 課內 他係 主管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청소제2계 : ① 糞尿收去 및 處理에 관한 사항 ② 有機肥料工場 施設에 관한 사항 ③ 公衆便所管理에 관한 사항 ④ 糞尿車輛 관리에 관한 사항 ⑤ 糞尿處理代行業者 指導監督에 관한 사항

○ 호적병무과

1. 호적계 : ① 戶籍申告 및 編制에 관한 사항 ② 戶籍謄抄本 발급에 관한 사항 ③ 假戶籍申告 및 編制에 관한 사항 ④ 假戶籍, 謄抄本 발급에 관한 사항 ⑤ 身元 기타 諸證明 발급에 관한 사항 ⑥ 人口動態에 관한 사항 ⑦ 民願案內에 관한 사항 ⑧ 기타 課內 他係 主管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기류계 : ① 寄留申告에 관한 사항 ② 寄留謄抄本 발급에 관한 사항 ③ 住居簿 整理에 관한 사항 ④ 印鑑證明 발급에 관한 사항 ⑤ 埋·火·改葬의 認許에 관한 사항 ⑥ 墓地·火葬場의 使用許可에 관한 사항

3. 병사계 : ① 徵集, 召集에 관한 사항 ② 徵兵檢查에 관한 사항 ③ 國土建設員 編入에 관한 사항 ④ 兵事關係 諸證明 발급에 관한 사항 ⑤ 在鄕軍人에 관한 사항 ⑥歸休兵의 兵籍管理에 관한 사항 ⑦ 기타 一般兵事에 관한 사항

○ 건설과

1. 토목계 : ① 道路, 河川, 溝渠 및 기타 公有地 使用許可와 管理에 관한 사항 ② 土木人事의

設計의 施工監督에 관한 사항 ③ 渡船에 관한 사항 ④ 公園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⑤ 土木業者의 指導助長에 관한 사항 ⑥ 保安燈과 街路燈 관리에 관한 사항 ⑦ 기타 課內 他系 主管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건축계 : ① 市街地計劃에 의한 諸計劃線 및 建築線의 明示에 관한 사항 ② 建築許可 및 統制에 관한 사항 ③ 建築代書業者에 관한 사항 ④ 土地의 使用과 收用에 관한 사항 ⑤ 營繕에 관한 사항 ⑥ 建築改良의 指導에 관한 사항 ⑦ 建築關係 諸證明의 발급에 관한 사항 ⑧ 建築業者의 指導助長에 관한 사항

○ 區의 出張所

1. 총무계 : ① 人事에 관한 사항 ② 文書에 관한 사항 ③ 官印管守에 관한 사항 ④ 儀式·會議·機密에 관한 사항 ⑤ 廳中團束 및 當直에 관한 사항 ⑥ 服務 및 給與에 관한 사항 ⑦ 公報 및 統計에 관한 사항 ⑧ 洞行政 指導·監督에 관한 사항 ⑨ 會計·物品 出納保管에 관한 사항 ⑩ 圖書 및 備品 보관에 관한 사항 ⑪ 厚生·勞務·保健·衛生에 관한 사항 ⑫ 文化財와 成人敎育에 관한 사항 ⑬ 選擧에 관한 사항 ⑭ 土木에 관한 사항 ⑮ 貯蓄에 관한 사항 ⑯ 기타 所內 他係 主管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산업계 : ① 農林에 관한 사항 ② 農地에 관한 사항 ③ 商工 및 度量衡에 관한 사항 ④ 畜産에 관한 사항 ⑤ 穀糧에 관한 사항 ⑥ 農村敎導 및 農藥에 관한 사항 ⑦ 燃料에 관한 사항

3. 세무계 : ① 財産稅·取得稅·自動車稅·目的稅 賦課에 관한 사항 ② 所得稅附加稅·法人稅附加稅·營業稅附加稅·遊興稅附加稅 賦課에 관한 사항 ③ 歲入財産에 관한 사항 ④ 押留諸收入 滯納處分에 관한 사항 ⑤ 稅外諸收入 및 現金出納에 관한 사항 ⑥ 市稅徵收 및 滯納處分에 관한 사항 ⑦ 國稅委託 徵收에 관한 사항

4. 호적계 : ① 戶籍에 관한 사항 ② 假戶籍에 관한 사항 ③ 寄留 및 印鑑에 관한 사항 ④ 兵事에 관한 사항 ⑤ 人口動態에 관한 사항 ⑥ 埋火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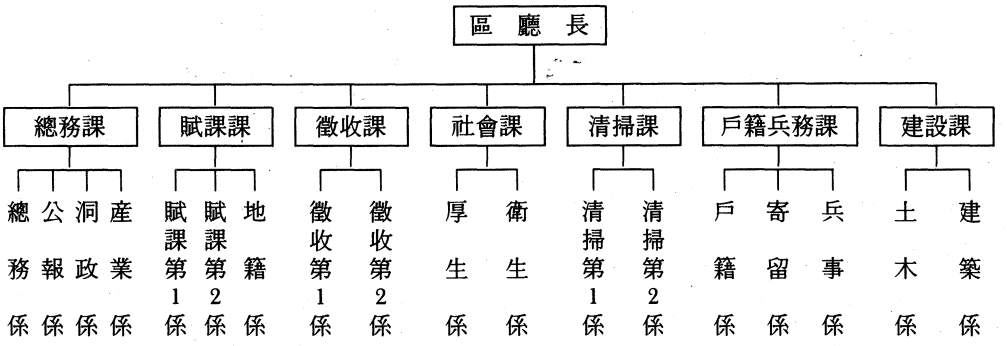
한편 1963년 1월 1일 서울특별시의 市域 확장에 따라 城北區 산하에 노해출장소가 설치되어 종래의 숭인출장소와 더불어 성북구는 2개의 출장소를 관할하게 되었다.

이어 1963년 8월 1일 閣令 제1364호에 의해 各區廳에 産業課가 신설되었으며

城北區는 8課 체제가 되었다. 이는 총무과의 산업계를 업무의 확장에 따라 課로 승격한 것으로 예하에 商工係와 農林係를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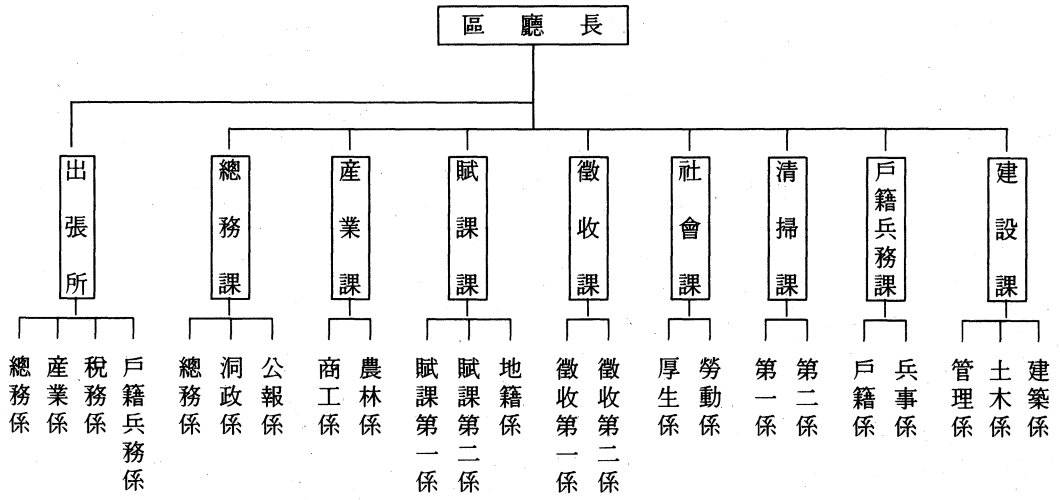
한편 1964년 3월 20일 大統領令 제1734호에 의해 區廳 各課에 두는 係의 명칭·분장사항은 서울特別市規則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1964년 7월 27일 서울特別市規則 제420호 〈서울特別市 區 課係別 事務分掌規則〉이 새로 마련되어 앞의 訓令 제113호 규정을 대신하여 법적 근거에 의한 업무 및 직제 규정으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이때에 社會課 위생계가 폐지되고 노동계가 신설되었으며, 또 호적병무과의 寄留係가 폐지되고, 건설과에 관리계가 신설되었으며 區出張所에 社會係(노해출장소 제외)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市規則 제420호에 의한 城北區의 직제를 도식하면 다음 〈表 5〉와 같다.

〈表 4〉 **城北區廳 職制**(1962. 4. 23 訓令 제113호)



※ 區出張所：總務係·産業係·稅務係·戶籍係

〈表 5〉 **城北區廳 職制**(1964. 7. 27 市規則 제420호)



1965년 2월 1일 市規則 제445호로 각 구청 건설과에 指導係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도시개발이 따른 무허가건물의 처리와 불량건물의 개량을 위한 조처였으며 건설과의 건축계와 더불어 분장사무의 조정이 있었다. 그리고 市規則 제450호에 의해 지도계장은 행정주사·지방행정주사 또는 건축기사·지방건축기사로 임용하게 되었다.

이어 같은 해 10월 1일에는 市規則 제505호로 각 구청별 업무환경에 따라 産業課의 係別 편제를 달리하였는데, 城北區의 산업과는 종전의 농림계를 농정계와 산림계로 분리하여 상공계와 더불어 3係로 편제하였다. 그리고 상공계장은 행정주사·지방행정주사로 보하고, 농정계정은 행정주사·지방행정주사·농업기사·지방농업기사로 보하며, 산림계장은 행정주사·지방행정주사·임업기사·지방임업기사로 보하도록 하였다.

한편 1965년 6월 7일 區廳長會議에서 구청의 인감증명사무를 洞事務所로 이관할 것을 결정하고, 7월 18일부터 洞에서 인감증명사무를 취급함에 따라 同年 11월 23일 市規則 제510호로 총무과 洞政係의 분장사무에 「인감증명사무의 지도감독」을 더했으며, 호적병무과 戶籍係의 분장사무 중 「인감증명 발급」 사항을 삭제하였다.

1966년 2월 16일 市規則 제537호로 산업과 산림계를 녹지계로 개칭하였으며, 총무과 동정계·공보계, 사회과 후생계, 호적병무과 호적계, 건설과 건축계·지도계의 사무분장이 약간 변동되었다. 이어 1966년 5월 20일 市規則 제557호에 의해 城北區의 부과과 예하조직을 直稅係·間稅係·地籍係로 개편하여 間稅係에서 다른 區의 유흥음식세계와 부가세계의 사무를 가름하게 하였다. 그리고 지적계장은 地籍技士로 하고 그외 계장은 地方司稅主事로 임용하였다.

또 1966년 7월 14일 大統領令 제2656호로 區廳에 두어지는 國家公務員의 직급을 행정서기관·행정사무관·토목기좌·지적기사·임업기사보·지적기사보·기계기원·임업기원·지적기원·기계기원보·임업기원보·지적기원보 등으로 정원과 함께 명시하고 각 구청별 배정은 서울특별시장이 하도록 하였다.

1967년 7월 11일 市規則 제651호에 의해 산업과 녹지계에서 공원관리사무를 담당케 하였으며, 사회과 후생계의 주택에 관한 사무분장을 확대하여 건설과에 주택

계를 증설하였다. 아울러 주택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건축기사로 임용하게 하였다. 그리고 숭인출장소의 사회계는 폐지되었다.

이어 1967년 8월 8일 大統領令 제3176호 〈서울특별시 구직제 개정〉 및 1967년 8월 14일 市規則 제657호 〈서울特別市 區 課室係別 事務分掌規則中 改正規則〉에 의해 구청의 직제가 대폭 확대되었다. 이때 城北區廳은 戶籍兵務課가 폐지되고 市民奉仕室을 신설하여 민원1계·민원2계·호적계·병사계를 두었으며, 建設課를 土木課와 建築課로 分課하였다. 그리고 토목과 예하에 토목계와 관리계를 두고, 건축과에는 지도계·건축계·주택계를 두었다. 따라서 城北區廳은 8課 1室 25係 체제를 갖추었다.

그런데 市民奉仕室은 1966년 7월 23일 訓令 제220호로 설치되어 東大門區를 시범구로 하여 운영되었던 것을 민원의 집중관리는 시대적 요청임에 따라 전 구청에 전면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일종의 종합민원센터의 기능을 띄었다. 즉, '시민을 위한 市政'이라는 당면목표에 비추어 시민서비스 향상을 꾀하고, 경제·사회의 성장에 따른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대에 대처하고자 취해진 조치였다.

1968년 1월 10일 市規則 제690호에 의해 총무과 공보계를 기획계로 개칭하였으며, 같은 해 3월 21일 大統領令 제3405호로 구청장의 직급을 종래 3급갑류 행정서기관에서 2급을류 행정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1969년 10월 14일에 大統領令 제4113호에 의해 區職制가 개편되었는데 賦課課와 徵收課를 稅務第1課와 稅務第2課로 개칭하였으며, 서울特別市에서는 그해 12월 3일에 市規則 제865호로 그 업무분장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1970년 10월 6일 市規則 제1105호에 의해 서울特別市 區 事務分掌이 새로 규정되었는데, 이는 1964년 7월 27일의 市規則 제420호를 폐지하고 전면 개정한 것으로, 1971년 8월 28일 市規則 제1177호의 기초직제가 되었다. 시규칙 제1177호는 1971년 8월 26일 大統領令 제5768호에 의해 區廳에 3급갑류 행정서기관의 副區廳長制를 실시하고, 또 구청 총무과장을 국가공무원인 행정사무관에서 다른 과장과 같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용하도록 개정하고, 住宅課의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城北區廳은 住宅課 예하에 주택계·주택관리계·단속계를 설치하여 1室 9課 33係 체제를 갖추었다. 그리고 區出張所長의 직급

을 地方行政參事에서 地方書記官 또는 地方行政事務官으로 승격 임용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대통령령 제5768호에 의한 서울特別市 區職制와 기구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特別市 區職制〉

(1971. 8. 26 대통령령 제5768호)

제1조(기구) 서울特別市의 區(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기구는 이 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공무원 정원) ① 구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전항의 정원의 각 구별 배정은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제3조(구청장 및 부청장) ① 구에 구청장 및 부청장 각 1인을 두되, 구청장은 부이사관으로, 부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구청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부청장은 구청장을 보좌하여 구의 사무를 처리하며,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실·과의 설치) ① 구에 총무과 시민봉사실 산업과(영등포구는 제외한다) 농림과(영등포구에 한한다) 상공과(영등포구에 한한다) 세무제1과, 세무제2과, 사회과, 청소과, 주택과(종로구, 중구, 용산구는 제외한다), 토목과 및 건축과를 둔다.

② 실·과에 계를 두되, 그 명칭 및 분장사항은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

③ 각 과장과 시민봉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토목과장은 토목기좌 또는 지방토목기좌로, 건축과장은 지방건축기좌로 보한다.

제5조(총무과) 총무과는 인사, 기밀, 청내 단속, 회계, 선거, 공보, 공채, 저축, 주민등록, 인구조사 및 출장소와 동의 감독 기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시민봉사실) 시민봉사실은 문서, 관인, 시민상담 및 안내,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 장표 및 자료의 보관과 열람, 제증명발급, 시민의 진정 및 요망의 접수처리, 민원대서 및 용지배부, 호적, 병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산업과) 산업과는 상공, 농림, 농지, 공원, 시량 기타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농림과) 농림과는 농림, 농지, 공원, 시량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 9 조(상공과) 상공과는 상공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세무제1과) 세무제1과는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농지세 및 목적세의 부과·징수와 지방금융 및 지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세무제2과) 세무제2과는 유흥음식세, 도축세, 마권세와 면허세의 부과·징수와 세외수입 및 체납시세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사회과) 사회과는 보건, 후생, 노동, 직업보도, 매장, 화장 및 부녀와 청소년의 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청소과) 청소과는 청소 관념의 계몽앙양, 청소대행업자의 지도감독, 공중변소의 시설관리 기타 청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의 2(주택과) 주택과는 주택에 관한 사항과 무허가건물 및 불량건물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토목과) 토목과는 도시계획, 도로, 하천, 하수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건축과) 건축과는 건축, 주택(종로구, 중구, 용산구는 제외한다) 및 영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출장소) ① 구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② 출장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출장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출장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및 직무범위는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城北區廳 各課室係別 業務分掌(1971. 8. 28 市規則 제1177호)

○ 총무과

1. 총무계 : ① 인사상벌에 관한 사항 ② 문서, 관인 및 기밀에 관한 사항 ③ 복무, 급여 및 후생 ④ 교육 및 훈련 ⑤ 의식 및 회의 ⑥ 공공단체의 지도 감독 ⑦ 회계 및 용도에 관한 사항 ⑧ 도서에 관한 사항 ⑨ 차량관리 ⑩ 청중단속 및 당직에 관한 사항 ⑪ 과내 서무 및 타과·실·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동정계 : ① 출장소 및 동의 지도 감독과 인사제청 ② 구 행정구역의 명칭, 위치, 구역변경 ③ 부락조직 및 운영 ④ 기부금품 및 잡부금품 수집 통계 ⑤ 취학 기타 학무에 관한 사항 ⑥ 선거에 관한 사항 ⑦ 행정대서 허가 및 소개영업 신고 ⑧ 국민저축 및

국채에 관한 사항 ⑨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

3. 기획계 : ① 구정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② 예산과 사업 우선순위 결정 ③ 중요계획 수립에 관한 통제 ④ 구청 종합시책에 필요한 자료수집 간행 ⑤ 구 시책과 기획수행의 심사분석 및 평가 ⑥ 통계 및 업무에 관한 사항 ⑦ 비위공무원(진정, 투서)의 조사 ⑧ 공보 선전 및 각종공고 ⑨ 공연에 관한 사항 ⑩간행물 발행 ⑪ 여론조사 ⑫ 자매결연.
4. 관재계 : ① 시유재산관리 ② 시유재산의 매각 임대 ③ 시유재산의 매각 임대료 수납.
5. 비상계획담당관 : ① 전시운영계획 ② 비상계획 세부집행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③ 예비군 구청중대 운영 ④ 기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시민봉사실

1. 주거계 : ① 민원안내 ② 민원용지 배부 및 대필에 관한 사항 ③ 주거표의 관리 및 작성 ④ 주거표의 호적 및 병적 대조 확인 ⑤ 주민등록지와의 통보에 관한 사항 ⑥ 실내 타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민원처리계 : ① 민원상담 ② 진정서의 접수처리 ③ 민원서류의 접수처리 ④ 외국인 등록.
3. 호적계 : ① 호적신고 및 편제 ② 호적 등·초본의 발급 ③ 신원 기타 제증명 ④ 인구동태에 관한 사항.
4. 병사계 : ① 징집, 소집에 관한 사항 ② 징병검사 ③ 병사관계 제증명발급 ④ 재향군인에 관한 사항 ⑤ 귀휴병 병적관리 ⑥ 기타 일반 병사에 관한 사항.

○ 산업과

1. 상공계 : ① 시장지도육성 ② 계량기 통제 ③ 전기공작물 시설관리 ④ 등화유 배급 ⑤ 주유소 관리 ⑥ 금융 및 물가조절 ⑦ 공장등록과 공장 실태조사 ⑧ 생산신고 ⑨ 염에 관한 사항 ⑩ 연탄공장 지도 육성 ⑪ 중소기업 육성 ⑫ 특화 및 성장산업 육성 ⑬ 수출입사무 ⑭ 과내 타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농정계 : ① 농업증산 및 장려계획 ② 답작 및 전작지도 ③ 특수작물지도 ④ 비료 ⑤ 양정, 수산, 축산 ⑥ 농지분배.
3. 녹지계 : ① 산림녹지와 조림의 장려 ② 임야관리와 임산물 수급 ③ 산림단체 지도 육성 ④ 사방과 양묘 ⑤ 목재, 신탄, 토탄 기타 임산물의 생산유통과 소비개선 ⑥ 공원수,

가로수 기타 공공시설의 식재, 전지, 구충과 보식.

○ 세무1과

1. 징수계 : ① 과 소관 현년도 시세의 징수 결정과 세입금 징수 보고 ② 과 소관 현년도 시세의 가산금 및 독촉 결의 ③ 과 소관 시세 세입금의 출납 ④ 과 소관 현년도 시세 징수부과의 소인과 집계 ⑤ 과 소관 현년도 시세의 과오납금 결의 환부 및 충당 ⑥ 과소관 현년도 시세의 공과금 교부청구에 관한 합의 ⑦ 과 소관 현년도 시세의 납세증명등 시세에 관한 증명서 발급에 관한 합의 ⑧ 과 소관 현년도 시세에 관한 압류 재산의 공매 및 환가 등에 관한 합의 ⑨ 과 소관 현년도 시세의 불납 결손처분 ⑩ 위 각호에 관계되는 공부와 부대문서의 정리보존에 관한 사항 ⑪ 징세장비의 관리 ⑫ 과내 타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직세 제1·2·3·4계 : ①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농지세와 목적세의 세원조사와 부과 및 현년도 분의 징수. 다만 자동차세와 차량취득세의 부과와 세표 및 부과액 집계 사무는 직세 제1계가 전담한다. ② 과 소관 현년도의 시세의 체납에 대한 압류 징수 촉탁 ③ 위 세목에 관한 제신고와 신청 처리 ④ 계 소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취소 변경, 감면과 징수유예 ⑤ 토지 임대가격 비준 설정 및 부동산 등의 시가조사 ⑥ 계 소관 시세에 관한 조세 범칙 사건의 조사 처리 ⑦ 국세 부과세 등 폐지 세목의 부과징수 ⑧ 가옥대장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⑨ 위 각호에 관계되는 공부와 부대 문서의 정리 보존.

3. 지적계 : ① 토지 및 임야대장의 정리 보존 ② 지적도 및 임야도의 정비보존 ③ 토지에 관한 제신고 및 직권처리와 부대문서의 정리보존 ④ 지적관계 제증명 발급과 부대문서의 정리보존.

○ 세무2과

1. 징수계 : ① 과 소관의 현년도 시세의 징수 결정과 징수보고 및 구의 세입금 징수보고(일반회계) ② 과 소관 현년도 시세의 가산금 및 독촉 결의 ③ 과 소관의 세입금 출납 ④ 과 소관 현년도 시세의 징수부과의 소인과 집계 ⑤ 과 소관의 현년도 시세의 과오납금 결의와 환부 ⑥ 과 소관 현년도 시세의 공과금 교부청구 ⑦ 과 소관의

현년도 시세의 납세증명등 시세에 관한 증명서 발급에 관한 합의 ⑧ 납세처분 ⑨ 과 소관 현년도 시세의 불납 결손 처분 ⑩ 현금 영수원부의 수불 ⑪ 재무비 예산 진행 ⑫ 과내 타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징세 장비의 관리.

2. 간세계 : ① 유흥음식세, 도축세, 마권세, 면허세 세원조사 및 부과와 현년도분의 징수 ② 계소관 현년도 체납시세에 대한 압류 및 징수촉탁 ③ 위 세목에 관한 제신고와 신청처리에 관한 사항 ④ 과 소관 시세에 부과징수에 관한 취소, 변경, 감면과 징수유예 ⑤ 과 소관 시세에 관한 부과액 집계 및 세표 ⑥ 과 소관 시세에 관한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처리 ⑦ 위 각호에 관계되는 공부 및 부대문서의 정리 보존.

3. 정리계 : ① 과년도 시세의 징수와 압류 및 징수 촉탁 ② 과년도 시세징수부의 소인, 집계 및 징수보고 ③ 과년도 시세의 과오납금 결의 ④ 압류재산의 관리와 압류재산의 공매 및 부대업무 ⑤ 공과금의 교부 청구와 지방세의 징수촉탁 처리 ⑥ 과년도 시세의 납세증명 등 증명서 발급에 관한 합의 ⑦ 과년도 시세의 불납 결손 처분 ⑧ 체납액 정리카드의 정비 보존 ⑨ 세외 제수입금의 징수(토목과와 청소과 소관 세외수입 제외).

○ 사회과

1. 후생계 : ① 후생에 관한 사항 ② 구호에 관한 사항 ③ 노인정 및 실비식당에 관한 사항 ④ 매장·화장·개장의 허가 ⑤ 묘지 및 화장장의 사용허가 ⑥ 과내 타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노동계 : ①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② 근로기준법 관계 진정서 처리 ③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④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⑤ 실업자 근로구호.

3. 부녀계 : ① 부녀와 청소년 지도교양 ② 부녀자의 권익증진 ③ 건전가정 육성 ④ 불우여성의 보호선도 ⑤ 영세가정 계몽선전 ⑥ 여성단체 지원 육성 ⑦ 부녀지도자 양성 ⑧ 여성의 사회 참여도 증가 및 여성 법적지위 향상과 부녀복지 조장에 관한 사항 ⑨ 부녀 및 아동시설(모자원, 탁아소)에 관한 사항.

○ 청소과

1. 서무계 : ① 오물수거 수수료 조정 및 징수 ② 진개 및 분뇨매각대 결정 징수 ③ 오물수거 수수료 조정에 대한 민원처리 ④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⑤ 청소관계 기계·기구류

의 개량 수선 ⑥ 차량의 유류 불출관리 ⑦ 과내 타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작업1계 : ① 진개 수거지역 책정 및 종합계획 ② 진개 수거운반 처리 ③ 진개 불법처분 감시 ④ 진개취급업 허가 ⑤ 진개수거 인부임용 ⑥ 진개차 사고수리.

3. 작업2계 : ① 분뇨수거지역 책정 및 종합계획 ② 분뇨수거 운반 처리 ③ 분뇨 불법처분 감시 ④ 공중변소 관리 ⑤ 분뇨수거 인부임용 ⑥ 분뇨차 사고수리.

○ 토목과

1. 관리계 : ① 도로, 하천, 구거, 기타 점용지의 사용허가와 관리 ② 도로, 하천부지 점용료의 부과 징수 ③ 도선에 관한 사항 ④ 시가지 계획에 의한 제 계획선·건축선 명시 ⑤ 토지의 사용과 수용 ⑥ 과내 타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토목계 : ① 토목공사의 설계 시공 감독 ② 토목업자의 지도조장 ③ 가로등 관리 ④ 전공기념물 유지관리 ⑤ 수방 치수의 계획 및 시행 ⑥ 하수구조물의 유지관리(뒷골목 제외).

3. 환경계 : ① 뒷골목의 정비와 하수도의 유지관리 ② 보도블록의 포설과 유지관리 ③ 도로상의 장애물(고정성 및 이동성) 정리 ④ 보안등 유지관리 ⑤ 기타 뒷골목의 정리에 관한 사항 ⑥ 도로수익자 부담금, 도로 임시점용허가, 도로복구비의 부과징수.

4. 시설관리계 : ① 지하도 및 지하상도 유지관리 ② 공영주차장 및 주차료의 부과징수 ③ 육교 및 가드레일 유지관리 ④ 입체교차로 유지관리.

○ 건축과

1. 주택계 : ①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 ② 주택건립에 관한 계몽 ③ 불량건물 개량 ④ 시영주택 건립후보지 선정 ⑤ 택지조성에 관한 사항 ⑥ 시영주택의 관리 ⑦ 시영주택에 수반하는 납입금의 징수와 체납액 정리 ⑧ 아파트 입주자의 선정 및 생활지도 ⑨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지도 감독 ⑩ 과내 타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단속계 : ① 무허가건물의 발생방지 ② 무허가건물의 철거단속 ③ 위법건축물의 철거 ④ 무허가건물에 관한 진정처리 ⑤ 철거민의 입주분양에 관한 사항.

3. 건축허가계 : ① 건축허가 ② 착공검사 ③ 건축공사의 준공까지의 공사감독 ④ 허가조건을 위반한 건축에 대한 허가취소 및 고발 ⑤ 건축사 및 건축업자의 지도 감독 ⑥ 과내 타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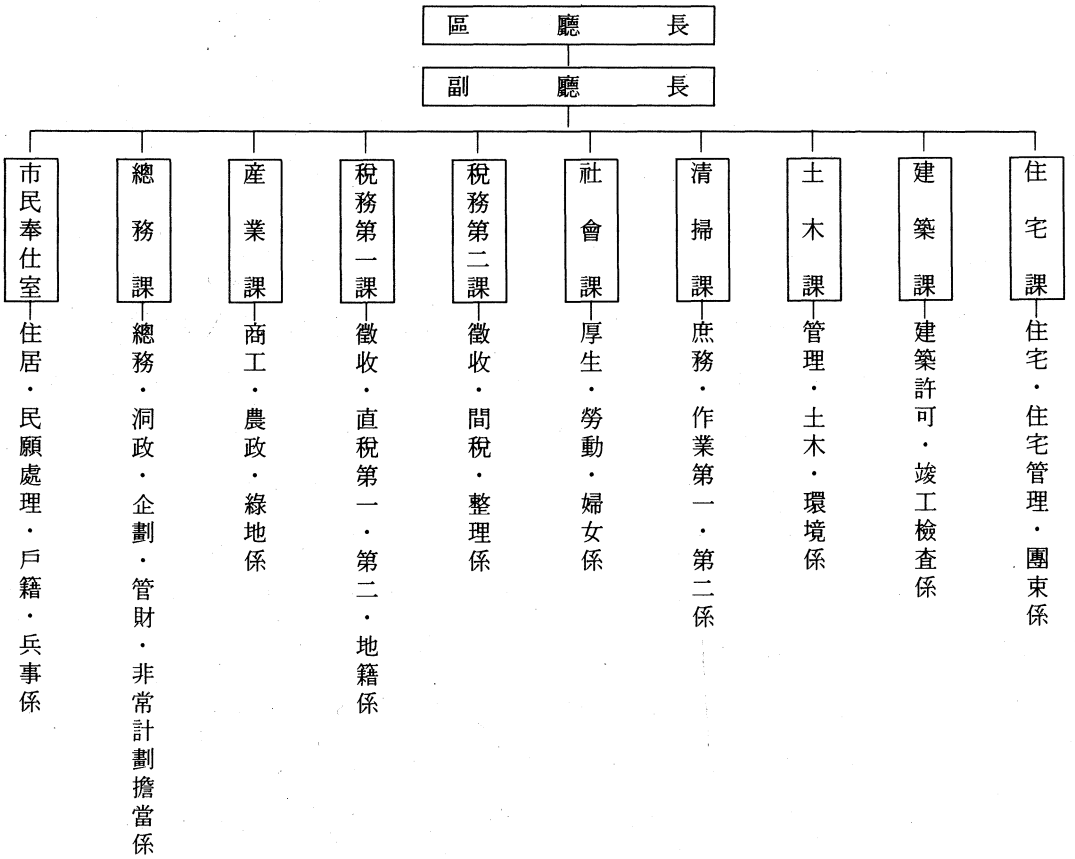
4. 준공검사계 : ① 건축공사의 준공검사 ② 위법건축물에 대한 고발 ③ 축대의 안전도 검사

및 위험축대의 철거 ④ 영선에 관한 사항 ⑤ 시영주택(아파트)의 점검 보수에 관한 사항.

○ 주택과

1. 주택계 : ①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 ② 주택건립에 관한 계몽 ③ 불량건물 개량 ④ 시영주택 건립후보지 선정 ⑤ 택지조성에 관한 사항 ⑥ 과내 타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주택관리계 : ① 시영주택의 관리 ② 시영주택에 수반하는 납입금의 징수와 체납액 정리 ③ 시영주택의 점검 보수에 관한 사항 ④ 아파트 입주자의 선정 및 생활지도 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지도 감독.
3. 단속계 : ① 무허가건물의 발생방지 ② 무허가건물의 철거단속 ③ 위법건축물의 철거 ④ 무허가건물에 대한 진정처리 ⑤ 철거민의 입주 분양에 관한 사항.

〈表 6〉 **城北區廳 職制**(1971. 8. 28 市規則 제1177호)



이어 1973년 7월 1일 大統領令 제6548호에 의해 城北區로부터 道峰區가 분리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特別市에서는 市條例 제780호로 崇仁·蘆海出張所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同年 7월 4일 大統領令 제6725호에 의해 區廳의 직제 개편이 있었는데, 이때 城北區廳에는 綠地課를 신설하여 그 예하에 녹지계와 보호계를 두었다. 즉, 本廳의 綠地局의 신설에 대응하여 녹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종래 産業課에 속해 있던 綠地係를 課단위로 승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城北區廳은 1室 10課 33係 체제가 되었다. 이러한 區職制의 변경에 따라 同日字로 市規則 제1311호가 마련되어 區의 각 課·係別 사무분장을 개정하였다. 그런데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1972년 2월 15일 市規則 제1203호, 3월 28일 제1213호, 1973년 4월 10일 제1297호에 의해 부분적인 직제 및 분장업무의 개정이 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총무과에 새마을지도계와 안전계가 신설되고, 관재계와 비상계획담당관이 폐지되었으며 총무계·동정계·기획계의 분장사무 변경이 있었다. 또 稅務第1課의 직세3·4계가 稅源調査係로 변경되었다가 폐지되었으며, 稅務第2課는 稅外收入係가 증설되었다가 間稅係·세외수입계·정리계가 세무제1계·세무제2계로 통합되었다. 또 社會課의 노동계가 폐지되었으며, 土木課의 환경계·시설관리계가 폐지되고 街路整備係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建築課의 건축허가계와 준공검사계가 건축제1계와 건축제2계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1974년 11월 28일 市規則 제1415호에 의해 稅務第1課와 稅務第2課의 징수계가 수납계로 개칭되었으며, 세무제2과에 정리계를 신설하였다. 또 社會課의 후생계·부녀계를 사회계·부녀아동계로 개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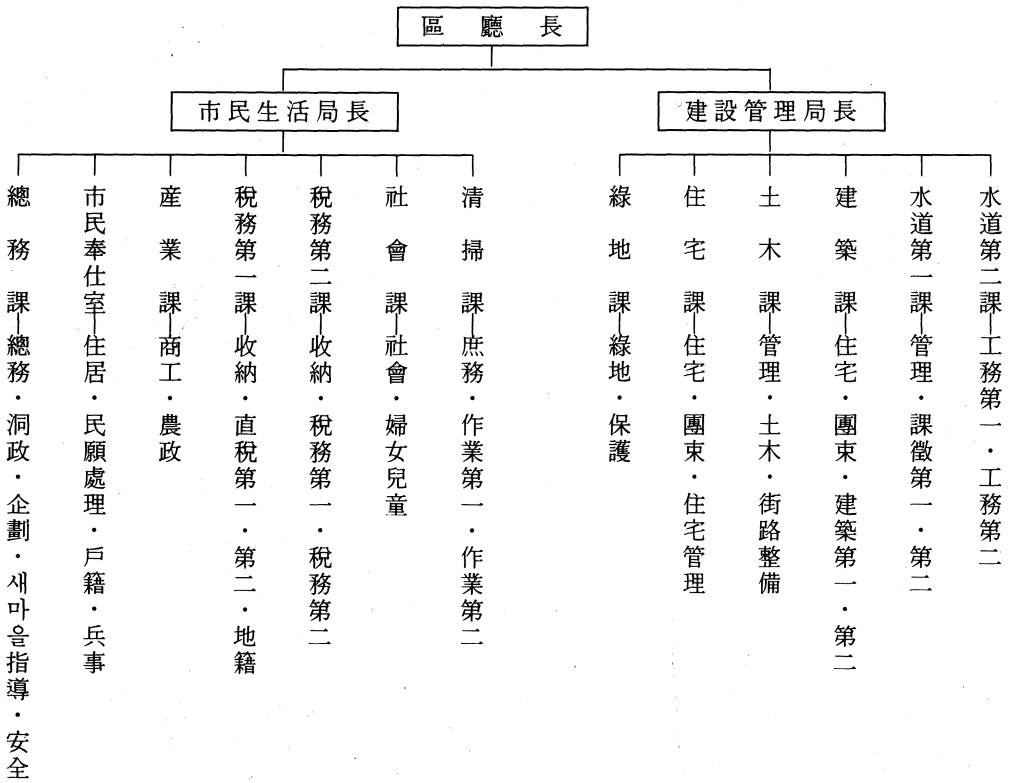
이어 1975년 2월 1일 시행된 大統領令 제7531호에 의해 區職制의 획기적인 개정이 있었다. 이는 1971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 副廳長制가 폐지되고 局制가 실시된 것이다. 또 같은 날짜로 각 구청의 水道事業所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구청에 편입하여 水道第1課·水道第2課를 설치하였다.

따라서 城北區廳은 시민봉사실·총무과·산업과·세무제1과·세무제2과·사회과·청소과를 예하기구로 하여 市民生活局을 두고, 녹지과·주택과·토목과·건축

과·수도제1과·수도제2과를 예하기구로 하여 建設管理局을 설치함으로써 구청직제는 2局 1室 12課 38係 체제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市規則 제1438호에 의해 수도제1과에 관리계·과징제1계·과징제2계를 두었으며, 수도제2과에는 공무제1계·공무제2계를 두었다. 이를 도식하면 다음 〈表 7〉과 같다.

이어 1975년 9월 1일에 大統領令 제7765호와 市規則 第1504호에 의해 구청에 民防衛局을 신설하고 그 예하에 민방위과와 운영과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민방위과 산하에 민방위계·시설계·병사계를 두고, 운영과에 운영계·교육훈련계를 두었다. 그리하여 城北區廳의 직제는 3局 1室 14課 42係의 체제를 갖추었다. 그리고 1976년 2월 7일 大統領令 제7982호 〈서울特別市 區職制〉 개정에 따라 市民生活局 예하에 衛生課를 신설하고, 市規則 제1551호를 마련하여 區事務分掌을 조정하였다. 즉, 衛生課에 식품위생계와 환경위생계를 두고 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로

〈表 7〉 **城北區廳 職制**(1975. 2. 1 市規則 제143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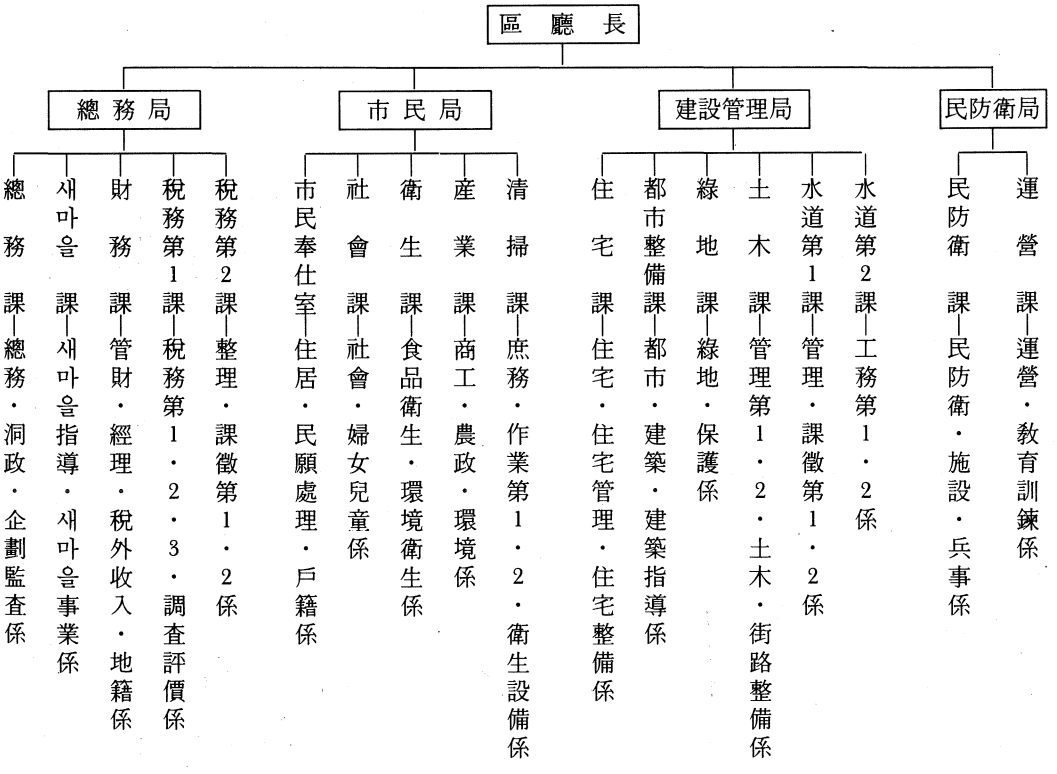


임용하게 하였다. 이어 같은 해 4월 15일 市規則 제1569호에 의해 土木課의 관리계를 관리제1계와 관리제2계로 분리하였다.

그리고 1977년 1월 1일 大統領令 제8329호에 의해 區廳職制의 전면적인 개편이 있었다. 즉, 區廳에 總務局을 신설하고 市民生活局을 市民局으로 개칭하였다. 이때 신설된 총무국 산하에는 새마을課와 財務課를 신설 편제하고 기존의 총무과·세무제1과·세무제2과를 편입시켰다. 아울러 建設管理局 산하에 都市整備課를 신설함으로써 城北區廳은 4局 1室 17課 52係의 직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어서 서울特別市에서는 1977년 7월 7일 市規則 제1708호로 市事務分掌規則을 전면 개정하고 신설된 새마을과에 새마을지도계와 새마을사업계를 두었으며, 재무과에는 관재계·경리계·세외수입계·지적계를 두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는 도시계·건축계·건축지도계를 두었다. 여기서 1977년 7월 7일 市規則 제1708호에 의한 城北區廳의 직제를 도식해 보면 다음 〈表 8〉과 같다.

〈表 8〉 **城北區廳 職制**(1977. 7. 7 市規則 제1708호)



1977년 9월 1일 大統領令 제8663호에 의해 永登浦區에서 江西區를 분리 신설하고 區職制의 개편이 있었다. 이때 각 구청은 종전과 같이 4局 1室 17課를 기본체제로 하였는데, 市規則 제1708호의 區 사무분장 전면 개정에 이어 9월 5일과 10월 16일에 市規則 제1718호와 제1725호로 區 사무분장의 개정이 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總務局

① 총무국에 총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세무제1과 세무제2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는 인사, 기밀, 청내단속, 기획예산, 감사, 선거, 공보, 주민등록, 인구조사 및 출장소와 동의 감독 기타 청내 다른 국 및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 새마을과는 새마을사업 세부계획의 수립, 새마을교육, 마을금고 및 새마을사업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재무과는 회계, 공채, 저축, 세외수입 및 지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세무제1과는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농지세 및 목적세의 부과·징수와 지방금융, 세무조사 및 과세표준액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세무제2과는 유흥음식세, 도축세, 마권세, 면허 및 주민세의 부과·징수와 세외수입 및 체납시세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市民局

① 시민국에 시민봉사실, 사회과, 위생과, 산업과 및 청소과를 두고, 각 과장과 시민봉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시민봉사실은 문서, 관인, 시민상담 및 안내,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 장표 및 자료의 보관과 열람, 제증명발급, 시민의 진정 접수처리, 민원대서 및 용지배부, 호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 사회과는 후생, 노동, 직업보도, 매장, 화장 및 부녀와 청소년의 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위생과는 식품의 위생업무와 숙박영업, 공중목욕탕영업, 이·미용영업 등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산업과는 상공, 농림, 농지, 공원, 식량 기타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녹지과를 두는 구의 산업과에서는 녹지공원 및 산림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⑥ 청소과는 청소관념의 계몽·앙양, 청소대행업자의 지도감독, 공중변소의 시설관리, 기타 청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建設管理局

① 건설관리국에 주택과, 도시정비과, 녹지과(중구, 마포구, 용산구는 제외한다), 토목과, 수도제1과 및 수도제2과를 둔다. ② 주택과장과 수도제1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정비과장은

지방토목기좌 또는 지방건축기좌로, 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림기좌로, 토목과장은 토목기좌 또는 지방토목기좌로, 수도제2과장은 지방토목기좌로 보한다. ③ 주택과는 주택, 무허가건물 및 불량건물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도시정비과는 도시계획, 도시정비사업, 재개발사업, 건축 및 영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녹지과는 녹지공원 및 산림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 토목과는 도로·하천 및 하수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 수도제1과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공업용수 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상수도 시설자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⑧ 수도제2과는 급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급수시설의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民防衛局

① 민방위국에 민방위과 및 운영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민방위과는 비상계획, 민방위계획과 병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 운영과는 민방위대의 조직, 편성, 교육훈련, 홍보 및 동원과 주민통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978년 5월 30일 大統領令 제9035호에 의해 城北區 건설관리국 산하에 建築課가 증설되었다. 즉, 종래의 도시정비과 소속의 건축계가 승격된 것으로, 서울특별시에서는 5월 31일 市規則 제1749호로 건축과 예하에 건축제1계와 건축제2계를 설치하였다. 또 건축과 증설에 따라 도시정비과의 예하조직을 도시정비계와 도시계획계로 조정하였으며, 土木課에 下水係를 水道第2課에는 機電係를 신설하였다. 따라서 城北區廳은 4局 1室 18課 55係의 조직을 갖게 되었다. 이어 1979년 10월 1일 西大門區에서 恩平區가 분리 신설되면서 大統領令 제9632호에 의해 區職制의 개편이 있었다. 이때 城北區廳은 建設管理局을 都市整備局과 建設局으로 분리하였으며, 市規則 제1818호에 따라 그 조직과 사무분장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城北區廳은 도시정비국에 住宅課·都市整備課·建築課를 편제시키고, 건설국에는 建設管理課·土木課·水道第1課·水道第2課·緑地課를 두었는데 종래 건설관리국 예하 조직과 더불어 건설관리과가 증설되었다. 이 건설관리과에는 관리제1계·관리제2계·가로정비계를 두었다. 또 同 市規則에 의해 財務課 지적계가 제1계와 제2계로 나뉘어져 같은 업무를 지역별로 분장하였으며, 社會課의 부녀아동계가 부녀소년계로 개칭되고 복지계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淸掃課의 작업제1계·제2계는 작업계로

통합되고, 都市整備課에 운수계가 신설되었으며, 土木課의 관리제1계·관리제2계·가로정비계는 폐지되었다.

이어 1980년 7월 1일 市規則 제1861호로 구 사무분장의 개정이 있었는데 이때 토목계의 분장사항 변경 및 지적계·주택관리계·건축계·보호계의 분장업무가 신설 또는 개정되었다. 이어 1980년 9월 1일 市規則 제1871호에 의해 시민봉사실의 주거계를 주민계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1981년 1월 19일 대통령령 제10173호에 의해 구청 市民局 산하의 시민봉사실을 區廳長 직속으로 분리 조정하였으며, 시민봉사실장은 종전과 같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였다.

이어 같은 해 11월 9일 大統領令 제10628호에 의해 區職制의 전면 개정이 있었다. 즉, 구청의 재무과를 승격하여 財務局을 신설하였고, 民防衛局은 폐지하여 그 예하에 있던 민방위과와 운영과를 민방위과로 통합하여 총무국 산하에 편제시켰다. 그리고 總務局에 企劃監査課를 신설하였으며 市民局에는 環境課를 신설하였다. 또 녹지과를 公園綠地課로 개칭하였고 수도제1과와 수도제2과를 각각 수도관리과와 수도공사과로 개칭하였다. 또 사회과를 社會福祉課로 개칭하였으며, 각 區의 保健所를 구청장의 직속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는 同日字로 市規則 제1927호를 마련하여 각 室·課·係別 사무분장을 전면개정하였으며 이는 현재의 구청조직과 사무분장의 기초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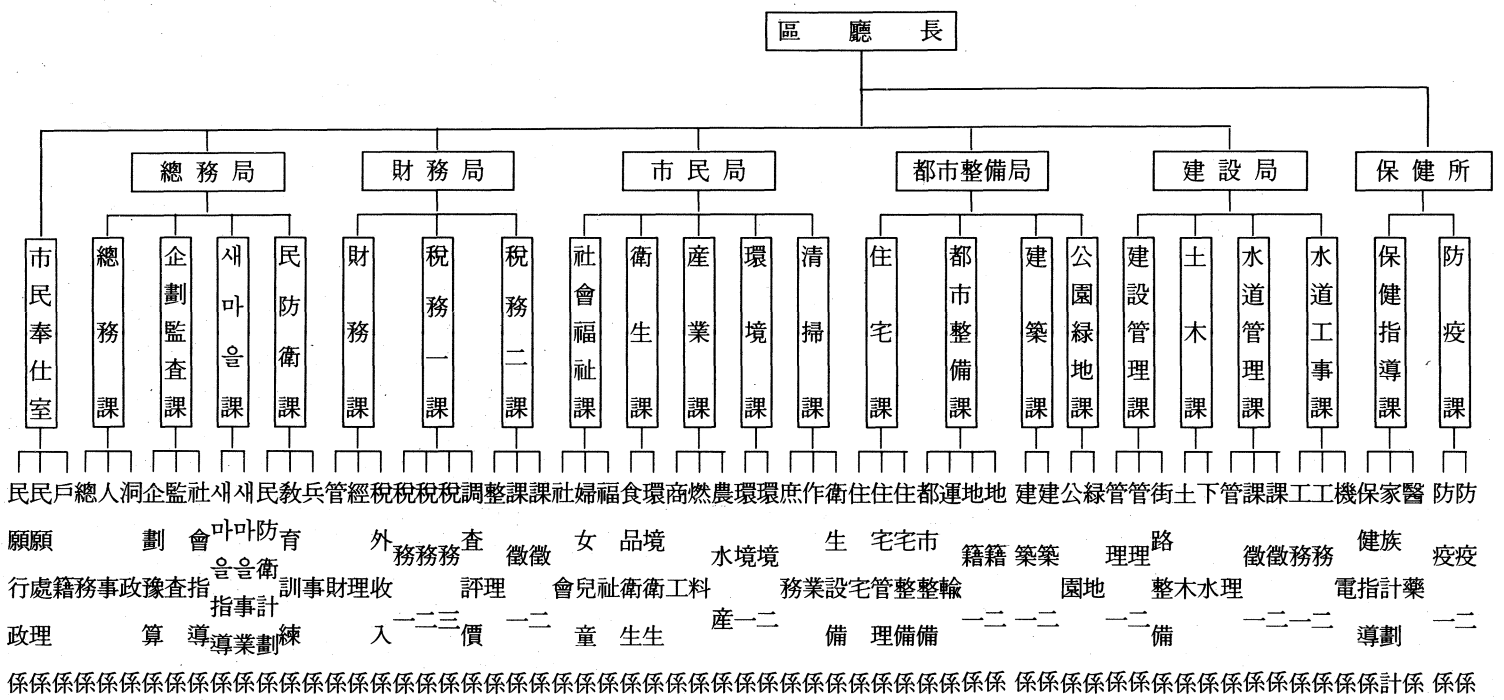
이와같은 市規則 제1927호에 의한 城北區廳의 1室 5局 20課 59係의 직제를 도식하면 다음 〈表 9〉와 같다.

그후 1983년 4월 22일 大統領令 제11109호에 의해 區廳 總務課 업무에 새마을유아원의 지도감독을, 水道管理課의 업무에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를 추가하였다. 이어 같은 해 11월 15일 市規則 제2040호에 의해 城北區廳 産業課에 물가계가 설치되고, 水道管理課의 과징제1계, 제2계를 수도과징계와 하수도과징계로 개칭하였다. 따라서 성북구청은 1室 5局 20課 60係 체제와 보건소 2課 5係 체제로 구성되었다.

1984년 1월 21일 大統領令 제11335호에 의해 다시 각 구청에 副區廳長制를 실시하게 되었고, 또한 종래 구청장의 직급을 副理事官으로 하되 일부 區의 경우만

〈表 9〉

城北區廳 職制(1981. 11. 19 市規則 제1927호)


區廳長
總務局
財務局
市民局
都市整備局
建設局
保健所
市民奉仕室
總務課
企劃監査課
새마을課
民防衛課
財務課
稅務一課
稅務二課
社會福祉課
衛生課
産業課
環境課
淸掃課
住宅課
都市整備課
建築課
公園綠地課
建設管理課
土木課
水道管理課
水道工事課
保健指導課
防疫課
民願行政係
民願處理係
戶籍係
總務係
人事係
洞政係
企劃係
監査係
指導係
새마을指導係
새마을事業計劃係
民防衛訓練係
敎育係
兵事係
管財係
經理係
稅外收入係
稅務一係
稅務二係
稅務三係
調査評價係
整徵一係
課稅二係
社會福祉係
婦女兒童係
福祉係
食品衛生係
環境衛生係
商工係
燃料係
農産係
環境一係
環境二係
淸掃係
作業計劃係
衛生係
住宅一係
住宅二係
住宅管理係
都市整備係
都市運輸係
地籍係
地籍整理係
建築一係
建築二係
公園綠地係
建設管理係
管理一係
管理二係
街路係
土木一係
土木二係
下水道管理係
課長
課長
課長

그 직급을 理事官 또는 副理事官으로 조정하였다.[28]

1984년 10월 2일 市規則 제2078호에 의해 土木課에 機電施設係가 신설되었다. 1986년 3월 17일 市規則 제2131호에 의해 구청 企劃監査課에 조사계를 신설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으며, 1987년 2월 30일 市規則 제2159호에 의해 시민봉사실·총무과·기획감사과·민방위과·위생과·산업과·주택과·도시정비과·건축과·공원녹지과·건설관리과·토목과·수도공사과 등의 분장업무 내용 변경과 신설이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27일 市規則 제2185호로 기획감사과 예하에 환경순찰계가 신설되었다.

한편 1988년은 區政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던 해이다. 즉, 1988년 5월 1일 法律 제4004호 〈地方自治法 改正法律〉에 의해 서울특별시에서는 區單位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 따라서 城北區는 自治區가 되어 독자적인 예산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각종 조례·규칙에 의해 자치행정과 조직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區議會가 구성되지 않았고 구청장도 임명제에 의해 운용되고 있었다.

한편 같은 해 6월 18일 大統領令 제12468호에 의해 구청 市民局에 家庭福祉課, 都市整備局에 地籍課가 신설되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는 7월 16일 市規則 제2254호에 의해 가정복지과 예하에 가정복지계·부녀복지계·청소년계를 설치하고, 지적과 예하에는 지정계·지적1계·지적2계를 두고 업무분장을 조정하였다.


'90. 7 방북 신청자 접수 모습

따라서 사회복지과의 부녀아동계를 폐지하고 복지계를 보험연금계를 개칭하였으며, 도시정비과에서 지적과가 승격 분리됨으로써 운수계를 운수1계와 운수2계를 나누어 부분적으로 분장사무를 조정하였다.

이어 1988년 7월 26일 大統領令 제12495호에 의해 구청健全生

28) 大韓民國官報 제9648호, 1984년 1월 21일자.

活課가 신설되었으며, 8월 19일 市規則 제2260호로 그 예하에 진흥계와 시설계를 설치하였다.

1989년 11월 1일 大統領令 제12834호에 의해 구청에 文化公報室·監査室·下水課가 신설되고, 기획감사과는 企劃豫算課로, 새마을과는 國民運動支援課로, 건전생활과는 生活體育課로 변경되었다. 또, 서울특별시 水道事業本部가 설치되어 상수도 기능을 담당하게 되자 각 구청의 수도관리과와 수도공사과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는 11월 3일 市規則 제2304호에 의해 구청 文化公報室 예하에 공보계와 문화계를 두고, 감사실에는 감사계·조사계·환경순찰계를 두었으며, 하수과에는 하수계·하수기전계·하수과징계를 편제시켰다. 또 기획예산과에는 기획계·예산계·법제계·전산통계계를, 국민운동지원과에는 새마을계와 지도계를, 생활체육과에는 진흥계·관리계·체육공원관리계(성북구 제외)·시설계를 편제시켰으며, 주택과에 주택개량계를 신설하고 기획감사과에 있던 사회지도계는 폐지하였다.

이어 1990년 5월 15일 大統領令 제13006호에 의해 土地管理課가 신설되었고, 5월 21일 市規則 제2337호로 그 예하에 토지관리계와 토지조사계를 두었다. 같은 해 11월 15일 市規則 제2364호로 衛生課의 환경위생계를 공중위생계로 개칭하고 감시계를 신설하였다.

1991년 7월 6일 大統領令 제13405호에 의해 都市整備局 내에 지역교통과를 신설하고 市規則 제2387호에 따라 그 예하에 지역교통계·운수지도계·주차관리계를 두었으며, 도시정비과에 광고물관리계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同日字 市規則 제2388호에 의해 서울特別市議會 구성일(1991. 7. 8)로부터 市規則에 의한 區事務分掌 규정은 폐지되고 自治區의 區規則에 의해 區編制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區議會의 발족과 관련된 것이다.

즉, 1991년 區議會가 발족되었다. 이렇게 自治區 운영과 區議會가 성립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환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區廳은 本廳의 시책과 사업계획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벗어나서 지역단위 주민의 의사와 책임아래 自治事務를 자치구 재원으로 처리하는 地方自治團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城北區廳에서는 1991년 7월 8일 區規則 제93호 〈서울특별시성북구직제규칙〉과 同 제94호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분장규칙〉을 마련하여 城北區 行政組織의 法的 근거를 갖추었다. 이어 1991년 8월 10일에 區規則 제97호와 제98호에 의한 규칙개정이 있었고, 1992년 6월 26일 區規則 제116호와 제117호에 의해 區職制와 事務分掌이 일부 개정되었다. 이어 1992년 8월 10일에 區規則 제122호로 區事務分掌의 개정이 있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城北區 職制(1992. 6. 26 區規則 제116호)

부구청장 : ① 구에 부구청장 1인을 두되,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부구청장은 구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구청장을 보좌한다.

하부조직 : ① 구에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을 둔다.

②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총무국장, 재무국장 및 시민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도시정비국장 및 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기좌로 보한다.

직무대리 :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국의 순위에 따라 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문화공보실 : 문화공보실은 공보, 보도, 문화, 예술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감 사 실 : 감사실은 감사, 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 처리, 주민불편사항의 발굴을 위한 순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시민봉사실 : 시민봉사실은 문서, 관인, 민원상담 및 안내,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 장표 및 자료의 보관과 열람, 제증명발급, 시민의 진정 접수처리, 구·동 민원업무의 지도·감독 및 호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총 무 국 : ① 총무국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및 민방위과를 두되,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는 인사, 보안, 선거, 주민등록·지방의회 관련업무 및 출장소와 동의 감독, 기타 청내 다른 실·국 및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 기획예산과는 기획·조사·심사분석·예산·행정관리·법무·전산 및 통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국민운동지원과는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 기타 국민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생활체육과는 생활체육 및 건전생활 진흥계획 수립, 시행, 생활체육 및 건전생활 관련시설(공원녹지과 관장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 민방위과는 민방위, 비상계획 및 병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재 무 국 : ① 재무국에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및 토지관리과를 두되,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재무과는 회계, 공채, 저축,. 세외수입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과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 세무1과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세 및 목적세의 부과징수와 세무조사 및 과세표준액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세무2과는 자동차세, 자동차취득세, 자동차등록세, 도축세, 마권세, 면허세 및 주민세의 부과·징수와 세무조사 및 과세표준액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토지관리과는 택지소유 상한규제, 개발이익 환수, 지가조사 및 토지거래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시 민 국 : ① 시민국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및 청소과를 두되, 사회복지과장, 위생과장, 산업과장 및 청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가정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화공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보한다.

② 사회복지과는 구호, 근로, 직업안정, 장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 가정복지과는 여성, 청소년, 아동, 유아 및 노인의 복지와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위생과는 식품위생업무와 숙박업, 공중목욕장업, 이·미용업등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산업과는 상공, 농업, 농지, 식량 기타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 환경과는 대기, 수질 및 토양오염의 방지, 소음, 진동, 악취 기타 환경공해의 방지 및 제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 청소과는 청소관념의 계몽·앙양, 청소대행업자의 지도·감독·공중변소의 시설관리 기타 청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도시정비국 : ① 도시정비국에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및 지적과를 두되, 주택과장 및 지역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정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토목기좌 또는 지방건축기좌로, 건축과장은 지방건축기좌로, 지적과장은 지방지적기좌로 보한다.

② 주택과는 주택행정, 시영주택관리, 주택개량 및 무허가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과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 도시정비과는 지역도시계획·도시개발·재개발 및 도시경관개선, 광고물, 간판정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지역교통과는 지역교통대책 수립, 자동차 운수행정지도·감독, 주차장관리, 주·정차 위반차량단속 및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건축과는 건축 및 영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지적과는 지적전산,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정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건 설 국 : ① 건설국에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및 공원녹지과를 두되, 건설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목과장, 하수과장은 지방토목기좌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임업기좌로 보한다.

② 건설관리과는 도로, 지하도, 하천, 구거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 및 관리, 점용료의 부과·징수·토지의 사용 및 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과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 토목과는 도로 등의 토목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하수과는 하수도, 하천 및 유수지의 건설, 유지와 하수도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城北區 事務分掌(1992. 8. 10 區規則 제122호)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 : 문화공보실에 공보계와 문화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감 사 실〉

감 사 실 : 감사실에 감사계, 조사계 및 환경순찰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시민봉사실〉

시민봉사실 : 시민봉사실에 민원행정계, 민원처리계 및 호적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총 무 국〉

총 무 과 : 총무과에 총무계, 인사계, 동정계 및 의회협력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기획예산과 : 기획예산과에 기획계, 예산계, 법제계 및 전산통계계를 두고, 기획계장, 예산계장 및 법제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전산통계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로 보한다.

국민운동지원과 : 국민운동지원과에 새마을계와 지도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생활체육과 : 생활체육과에 진흥계, 관리계 및 시설계를 두고, 진흥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시설계장은 지방임업기사 또는 지방건축기사로 보한다.

민방위과 : 민방위과에 민방위계획계, 교육훈련계 및 병사계를 두고 민방위계획계장과 병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교육훈련계장은 6급상당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재 무 국〉

재 무 과 : 재무과에 관재계, 계약계, 지출계 및 공과금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세무 1 과 : 세무1과에 세무1계, 세무2계, 세무3계, 조사평가제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세무2과 : 세무2과에 정리계, 과징1계 및 과징2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토지관리과 : 토지관리과에 토지관리계와 토지조사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시 민 국〉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에 사회계, 보험연금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가정복지과 : 가정복지과에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및 청소년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위 생 과 : 위생과에 식품위생계, 공중위생계 및 감사계를 두고, 식품위생계장과 공중위생계장은 지방행정주사, 지방수의사 또는 지방보건기사로 감시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산 업 과 : 산업과에 상공계·물가계·연료계·가스계 및 농수산계를 두며, 상공계·물가계 및 연료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가스계장은 지방화공기사·지방기계기사 또는 6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농수산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기사 또는 지방축산기사로 보한다.

환 경 과 : 환경과에 환경관리계·환경지도계 및 생활공해계를 두며, 환경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 지방환경기사, 지방보건기사 또는 지방화공기사로, 환경지도계장 및 생활공해계장은 지방보건기사, 지방화공기사 또는 지방환경기사로 보한다.

청 소 과 : 청소과에 서무계, 작업계 및 위생설비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도시정비국〉

주 택 과 : 주택과에 주택계, 주택관리계, 주택개량계 및 주택정비계를 두며, 주택계장과 주택개량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건축기사로, 주택관리계장과 주택정비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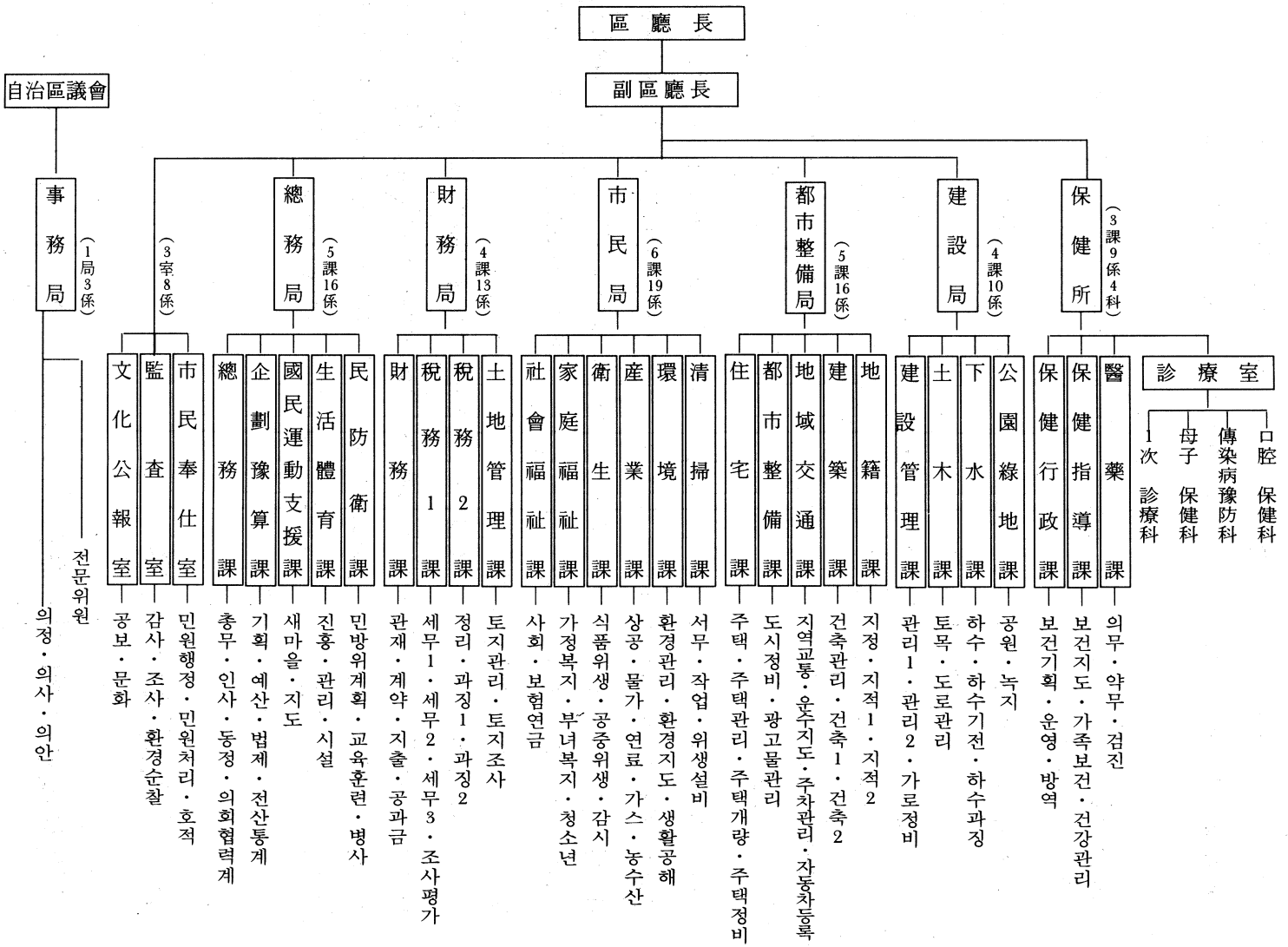
도시정비과 : 도시정비과에 도시정비계와 광고물관리계를 두고, 도시정비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기사로 광고물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지역교통과 : 지역교통과에 지역교통계·운수지도계·주차관리계 및 자동차등록계를 두며, 각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건 축 과 : 건축과에 건축관리계·건축1계 및 건축2계를 두며, 건축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

〈表 10〉

城北區廳 職制(1992. 8. 10 현재)



또는 지방건축기사로, 건축1계장과 건축2계장은 지방건축기사로 보한다.

지 적 과 : 지적과에 지정계, 지적1계 및 지적2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지적기사로 보한다.

〈건 설 국〉

건설관리과 : 건설관리과에 관리1계, 관리2계 및 가로정비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토 목 과 : 토목과에 토목계와 도로관리계를 두고, 토목계장과 도로관리계장은 지방토목기사 또는 지방전기기사로 보한다.

하 수 과 : 하수과에 하수계, 하수기전계 및 하수과징계를 두고, 하수계장은 지방토목기사로, 하수기전계장은 지방전기기사로, 하수과징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공원녹지과 : 공원녹지과에 공원계, 녹지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임업기사로 보한다.

한편 區行政은 인구의 급증과 급격한 유동인구로 인하여 주민의식이 고립·분산되며 지역사회에 대한 연대감이 낮고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증대됨으로써 住民自治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어려운 행정여건에 놓이게 되었다. 이제 自治區의 자율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區政 수행을 위해서는 自治區와 區議會 그리고 住民間의 올바른 관계정립이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주민의식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민조직의 활성화를 모색하여 주민의 행정참여를 확대시키는 自治區의 組織과 奉仕行政体制의 구축이 요망되었다. 따라서 區議會에서는 事務局이 설치되고 그 예하에 전문위원과 의정계·의사계·의안계의 3係가 설치되었다. 여기서 1992년 7월 1일 현재 3室 5局 24課 82係의 성북구청 직제를 도식해 보면 앞의 〈表 10〉과 같다.

II. 行政區域의 變遷

1. 行政區域의 槪念과 意義

行政區域이란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國家目的을 추구하고 自治機能을 구현

시켜 나가면서 國民生活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된 行政의 地域的 구획이다.

따라서 행정구역은 행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國民生活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크게 地方自治區域과 一般行政區域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늦게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라는 개념이 國家의 지방행정구역보다 뒤에 생겼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으로 국가의 지방행정구역을 원용하였기에 地方自治團體의 구역은 국가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편의상 책정된 地方行政區域과 일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그 개념과 성격은 다른 것이다.

地方自治區域은 지역공동체의식을 전제로 그 구역과 주민, 그리고 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구역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필수요소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自治權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한편 一般行政區域은 傳統性이나 共同意識과는 관계없이 단지 행정의 합리화와 능률화를 위하여 설정된 지역단위를 말한다. 즉, 治安行政의 관할구역, 通信行政을 위한 地方通信廳의 관할구역, 租稅行政을 위한 각급 稅務署의 관할구역과 같이 專門行政機能에 따라 선정되기도 하지만, 區·郡·洞과 같이 모든 행정의 포괄적인 단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기준은 ① 면적과 인구 ② 행정수요와 재정능력 ③ 행정의 능률성과 주민의 편익 ④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전통 등이 있지만 행정구역의 속성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대체로 전통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교통·통신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산맥·하천 등 지리적 조건들이 경계설정을 위한 중요기준이 되어왔다. 즉, 지역적 공통체의식과 향토의식이 행정구역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사회·경제의 발달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종래의 행정구역 결정의 절대적 요인은 변하게 되었다. 특히 工業化·産業化에 따른 주민의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행정수요가 급증하게 되자 자연히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생활수단의 발전과 물리적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최소경비

로 최대 효과를 올리고자 하는 經營行政論이 대두되어, 行政이 사회안녕과 질서유지보다 개발과 복지를 지향하는 적극 행정을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행정구역 결정의 요인을 낳게 되었다.

현대 지방행정의 또 하나 추세는 廣域行政이다.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生活圈과 經濟圈이 확대됨으로써 行政單位도 행정구역이라는 지역성을 넘어가고 있다. 또한 경제의 발전에 따라 貧富의 격차와 함께 地域間의 격차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시정하고 住民福利의 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행정의 광역체제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의 經濟性이라는 측면에서도 광역행정이 요청된다. 동일한 성질의 행정을 동일한 행정주체에 의해 보다 넓고 보다 많은 행정객체를 대상으로 하여 수행한다면 單位當 경비가 절약된다는 경제개념이 적용된다. 이렇듯 지방행정에 있어서 광역성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그 결과 지방행정의 중심과제로 地域開發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지방행정구역의 설정과 조정의 필요시 다음과 같은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행정구역의 면적이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이다. 오늘날의 사회적 특징이 動態的이고 流動的이며 行政領域과 住民生活의 폭 또한 광역화되어 가고있다. 그런데 행정구역이 지니고 있는 보수성과 전통성으로 미루어 볼 때 행정구역의 확장은 곧 異質的 요소의 유입을 뜻하는 것으로 효율적 행정수행에도 그만큼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이것은 주민 상호간에 밀착된 유대의식과 같은 폭 넓은 정신적 요소야말로 地方自治 내지 地方行政에 있어서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는 면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행정구역의 설정·조정에 있어서는 현실적 필요와 전통적 질서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친절향상을 위한 주민과 공무원 대담(90. 8)

그리고 행정구역을 개편할 경우 구역개편의 기본목표가 뚜렷

이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그 지역의 人的 物的 社會的 모든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적 개발을 추진하려는 지역개발 촉진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 둘째 주민의 주거지와 행정중심지와의 교통거리 단축, 주민의 감정적 일치화, 원활한 의사소통 및 행정에의 주민참여·통제의 향상을 기하면서 주민의 편익성 제고도 검토되어야 한다. 세째 적정한 능률범위와 업무량 및 구역내 제기능의 유기적 관계성을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려는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한편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으로서의 區는 국가의 지방행정구역으로 먼저 설정된 뒤에, 1988년에 이르러 지방자치구역으로 확정된 상태이다. 즉, 종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서울특별시의 예하조직으로 행정편의상 분할 구획된 一般行政區域으로서의 존재가 區單位 지방자치제를 시행함으로써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행정여건에 따라 分區·統合·市昇格 등 구역설정의 개편 가능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 하겠다. 이렇게 서울특별시의 區는 전통성과 보수성을 강하게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으로서의 성격은 매우 미약한 실정으로 앞으로는 주민의 공동체의식과 주민의 행정참여 등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구역으로서의 區 행정구역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2. 城北區의 行政區域 變遷

城北이란 區의 명칭은 都城의 북쪽에 위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도성은 곧 朝鮮時代 수도 漢城을 에워싼 성곽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권력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실질적인 城北區의 위치는 도성의 東北쪽에 자리잡고 있다.

城北區의 설치 당시 성북구의 지리적 위치는 北漢山의 남쪽에 위치하여 城內의 鐘路區와 都城의 北門인 肅靖門(肅淸門) 및 東大門인 惠化門 그리고 東大門인 興仁之門을 잇는 성곽능선을 경계로 하면서 서남방향으로 인접해 있었다. 동쪽으로는 天藏山과 中浪川을 경계로 東大門區와 인접하여 있었으며, 북쪽으로는 牛耳川을 경계로 현재 道峰區에 편입된 경기도 楊州郡 蘆海面과 高陽郡 神道面과 인접해 있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서울의 東北쪽에 위치한 전원지역이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볼 때 北漢山의 萬景臺·龍岩峰·柴丹峰·普賢峰·兄弟峰을 잇

는 능선과 白岳 줄기의 狗蹲峰·鷹峰을 잇는 커다란 산맥의 남쪽에 위치하여 높고 낮은 산록과 牛耳川·貞陵川·安岩川·城北川 사이에 도시를 형성하고 있다.

城北區 설치 이후 관할구역의 확장과 새로운 區의 분리·신설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여기서 1992년 현재의 城北區 관할구역을 중심으로 그 행정구역의 연혁과 행정구역의 변천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오늘날 城北區 지역은 朝鮮時代 漢城府 東部(城外) 崇信坊과 仁昌坊에 속하였다.

1394년 漢陽으로 도읍을 옮긴 太祖는 1395년 漢陽府를 漢城府로 개칭하고, 1396년 한성부를 5部 52坊으로 구획을 나누고 坊名標를 설치하였는데, 이때부터 東部 崇信坊과 仁昌坊이 보인다.

한편 《世宗實錄》 地理志에 보면 한성부 관할구역으로 都城外 城底十里 지역을 정하고 있다. 이때 동쪽은 楊州 松溪院과 大峴을 연결하는 선이고, 북쪽은 언급이 없으나 북한산을 잇는 능선으로 유추된다.[29]

그런데 英祖 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四山禁標圖〉[30]를 보면, 동쪽이 大菩洞에서 흐르는 磵水로부터 水踰峴 북쪽을 지나서 牛耳川 합류처, 上·下伐里·長位·松溪橋를 지나 中浪浦에 이르는 하천을 경계로 하고 있다. 그리고 북쪽은 大菩洞 서쪽에 普賢峰·峨嵋山·延曙·舊館基里를 지나서 두 하천이 합류하는 곳에 이르는 선으로 경계를 하고 있다. 그러나 四山禁標區域은 한성부의 행정구역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漢城府의 관할구역을 도성 밖 5~10里까지를 城底五里·城底十里로 삼았다면 四山禁標 지역보다 약간 좁은 편이다.[31]

그런데 城底十里에 속하였던 城北區 지역이 언제 東部 崇信坊과 仁昌坊에 속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英祖 27년(1751)에 반포된 《守城册全》의 〈都城三軍門分界總錄〉에 보면 오늘날 도봉구의 우이천과 성동구의 중랑천 서쪽지역이

29) 元永煥《朝鮮時代 漢城府研究》 1990, p.55.

30) 四山禁標圖는 사산금표구역을 표시한 지도로 풍수지리설에 의한 漢城의 地脈과 소나무숲을 보호하기 위해 伐木을 금하고 採石·堀土 등을 못하게 단속하는 한편 이 지역이 명당이므로 偸葬을 엄중 단속하였다.

31) 城北區 貞陵洞 408번지 길가에 城底五里碑가 서 있었다.

漢城府 관할구역으로 坊·契名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東部 崇信坊(城外)에는 崇信坊契·陵洞契·加五里契·長位里契·安岩契·牛耳契·水踰村契·新設契 등의 명칭이 보이고, 仁昌坊에는 仁昌坊契·祭基里契·典農里契·馬場里契·踏十里契·往十里契·私契·伏里契·中梁浦契·沙阿里契·往十里驛契 등의 명칭이 보인다.

또 正祖 13년(1789)에 간행된 《戶口總數》에 보면 漢城府 東部 崇信坊에 崇信洞契·新設契·鍾岩里契·伐里契·加五里契·水踰村契·安岩洞契·陵洞契·沙阿里契·御倉契·牛耳契가 보이며, 仁昌坊에는 仁昌洞契·往十里一契·往十里二契·私契·淸涼里契·踏十里契·祭基里契·長位里契·中浪浦契·典農里契·馬場里契가 있었다.[32] 따라서 18세기 후반 城北區 지역은 漢城府의 城外 지역 가운데 東部 崇信坊의 대부분과 仁昌坊의 일부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高宗 4년(1867)에 반포된 《六典條例》에 보면 漢城府 東部 崇信坊에 崇信洞契·月谷里契·沙阿里契·安岩洞契·鍾岩洞契·長位里契·陵洞契·水逾村契·加五里契·牛耳里契·御倉契·新設契·伐里契가 있었으며, 仁昌坊에는 仁昌洞契·往十里一契·往十里二契·私契·馬場里契·踏十里契·中浪上里契·下里契·淸涼里契·典農里契·祭基里契 등이 있어, 이때 月谷里契가 신설되고 中浪浦契가 上·下契로 나뉘어졌으며 長位里契가 仁昌坊에서 崇信坊으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이어 高宗 31년(1814) 甲午改革 때 漢城府 5部를 5署로 고치고 동시에 契는 줄이고 洞을 새로이 두어 47坊 288契 775洞이 되었는데, 이때 城北區 지역은 東署 崇信坊(城外)과 仁昌坊(城外)에 속하였다. 그 契·洞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3]

東署 崇信坊(城外)

東門外契… 紅樹洞·伏車橋·藍橋·大井洞·片橋·場坪里·米廛里·場巨里·穎眉洞·亭子洞·新里·大鍾岩·新設洞·園里·宮里·上里·下里·雨傘閣里·小鍾岩·敦岩里·三仙坪

32) 《戶口總數》 서울대학교 고전총서, 1972, p.10.
33)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通史》(上), 1972, p.567.

東小門外契… 城北洞・小貞陵洞・孫哥亭・清水洞・彌阿里・樊里・大水踰里・加五里・牛耳里

東署 仁昌坊(城外)

東小門外契… 馬場里・沙斤里・龍頭里・祭基里・踏十里・典農里・清涼里・回基里・徽慶園・里門洞・月谷上里・月谷下里・石串里・長位里

이와 같이 城北區 지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서울 동부의 都城外廓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1911년 京畿道令 제3호로 京城府 5部 8面制를 실시하면서 都城 안은 5部 36坊으로 하고 도성 밖은 8面制를 실시하였는데 이때 崇信坊은 崇信面이 되어 오늘날의 성북동・동소문동・삼선동・돈암동・동선동・안암동・보문동・정릉동・길음동・종암동 등이 이에 속하였으며, 仁昌坊은 仁昌面이 되어 오늘날의 上月谷洞・下月谷洞・石串洞・長位洞은 이에 속하였다.

이어 1913년 12월 29일에 공포되고 1914년 3월 1일에 시행된 朝鮮總督府令 제111호 〈府・郡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의 개정〉으로 5部 8面制의 경성부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8面 가운데 도성근처에 있는 지역을 5部에 편입시켰는데 崇信面 일원과 仁昌面의 많은 지역이 崇仁面으로 개편되면서 京畿道 高陽郡에 편입되었다. 따라서 숭인면의 지명개편과 행정구역의 조정이 있었으며 지금의 城北區 지역은 京城府의 행정구역에서 벗어났다.

그리하여 1914년 4월 1일 5部 8面制와 契・洞의 제도를 폐지하고, 京城府의 행정구역을 186 町・丁目・洞으로 하여 경성부에서 직할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城北區 지역은 京畿道 高陽郡 崇仁面의 일부가 되었다. 여기서 성북구 지역이 포함된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의 당시 소속 里名과 관할구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34]

한편 이와같이 축소된 경성부 관할구역은 1936년 4월 1일 朝鮮總督府令 제8호로 대폭 확장되었다.

---

34)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洞名沿革攷》(Ⅷ) 城北區篇, 1983, pp.8・9.

35) 出張所制度는 이미 1914년 5部 8面制가 폐지되어 同年 9월 27일에 東部・西部・北部・龍山의 4개 출장소가 설치되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17일 龍山出張所만 남기고 폐지되었다가 이때 永登浦와 東部出張所가 재설치되었던 것이며, 1940년 7월 1일에 西部出張所도 재개되었다.

즉, 경기도 高陽郡의 崇仁面·漢芝面·延禧面·龍江面·恩平面과 始興郡의 永登浦邑·北面·東面, 그리고 金浦郡의 陽東面 등 1邑 8面 71個里 전부와 5個里의 일부가 京城府로 편입되었으며, 동시에 東部·永登浦出張所가 신설되었고[35] 洞·町·丁目으로 불리워 오던 이름은 洞을 폐지하고 町·丁目 등 순 日帝式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오늘날 城北區 지역의 일부가 포함되는 崇仁面의 22個里 가운데 安岩里·城北里·新設里·鍾岩里·敦岩里·踏十里·典農里·清涼里·回基里·徽慶里·里門里·祭基里·龍頭里 등 13個里가 京城府 행정구역에 재편입되었으며, 漢芝面 지역에서 편입된 일부지역과 더불어 東部出張所에서 행정업무를 관할하였다.

高陽郡 崇仁面으로 편입된 지역

(1914. 4. 1 현재)

名稱	區域
城北里	京城府 崇仁面 城北洞
新設里	京城府 崇仁面 新設契 塔洞 遇仙里 安岩新里
安岩里	京城府 崇信面 安岩里 剖石洞 宮里 園里
鍾岩里	京城府 崇信面 大鍾岩 小鍾岩
彌阿里	京城府 崇信面 彌阿里 佛堂洞
敦岩里	京城府 崇信面 敦岩里 三仙坪
貞陵里	京城府 崇信面 大貞陵里 小貞陵洞 孫哥亭 清水洞
樊里	京城府 崇信面 樊里
水踰里	京城府 崇信面 大水踰里 小水踰里 加五里 華溪洞
牛耳里	京城府 崇信面 牛耳里
踏十里	京城府 仁昌面 踏十里
典農里	京城府 仁昌面 典農里
清涼里	京城府 仁昌面 清涼里
回基里	京城府 仁昌面 回基洞 餠店里
徽慶里	京城府 仁昌面 徽慶園
里門里	京城府 仁昌面 里門洞
長位里	京城府 仁昌面 長位里
石串里	京城府 仁昌面 石串里
上月谷里	京城府 仁昌面 上月谷
下月谷里	京城府 仁昌面 下月谷
祭基里	京城府 仁昌面 祭基里
龍頭里	京城府 仁昌面 龍頭里

그리고 貞陵洞·彌阿洞·上月谷洞·下月谷洞·長位洞 지역은 그대로 경기도 高陽郡 崇仁面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1943년 6월 9일 府令 제163호에 의해 京城府 出張所制度가 폐지되고 6월 10일에 區制가 실시되자 東部出張所의 관할구역은 東大門區와 城東區로 분리하여 區役所를 설치하였다. 이때 京城府에 편입된 오늘날의 城北區 지역은 東大門區의 관할구역에 속하였는데 당시 동대문구의 관할구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6]

〈東大門區 管轄區域〉(1943. 6. 10)

城北町·敦岩町·昌信町·崇仁町·新設町·龍頭町·安岩町·鍾岩町·祭基町·清涼里町·回基町·里門町·徽慶町·典農町·踏十里町(15個町)

위 15個町 가운데 城北町·敦岩町·安岩町·鍾岩町과 新設町의 일부가 성북구 지역에 해당되었다.

광복 후 1945년 10월 16일 각 區의 區域所를 區廳으로, 區長을 區廳長으로 개칭하였으며, 1946년 10월 1일 종래의 행정구역 명칭을 일제히 개정하였는데, 町은 洞으로, 丁目은 街로, 通은 路로 변경하여 日帝式 동명을 모두 없앴다. 당시 東大門區 관할의 洞名을 살펴보면 돈암동·창신동·숭인동·신설동·용두동·안암동 1가~5가·제기동·청량리동·회기동·이문동·휘경동·전농동·종암동·답십리동·성북동의 19개동으로[37] 이 가운데 돈암동·안암동 1가~5가·종암동·성북동과 신설동의 일부가 당시 서울市 행정구역 범위내의 성북구에 해당되는 지역이었다.

이어 1949년 8월 13일 大統領令 제159호 〈市·道의 관할구역 및 區·郡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변경의 件〉에 의해 서울市의 행정구역 확장이 있었다. 이에 따라 京畿道 高陽郡 崇仁面의 9個里·延禧面 7個里·恩平面 11個里·蠶島面 14個里 등이 서울市에 편입되었다.

이때 고양군 숭인면으로부터 새로 편입된 지역과 東大門區의 일부지역을 합하여 새로이 1區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城北區의 탄생이다.

---

36) 朝鮮總督府官報 1943년 6월 9일자,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서울六百年史》第5卷, 1983, p.319.
37) 註 12) p.142.


성북경찰서

이렇게 서울市에 편입된 지역은 서울市에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대부분이 시내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었다. 즉, 당시 이 지역은 警察行政上 首都廳에서 관할하는 지역이었으며 日帝末期에도 서울에 편입할 계획이 수립되어 이를 추진하던 중에 광복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城北區가 신설되기 5년 전에 이미 城北警察署가 설치되어 있었다.

한편 이 보다 앞서 1915년 종래 京城府 北部警察署의 東大門分署가 東大門警察署로 개편되어 鐘路區 仁義洞에 자리잡고, 현재의 城東區·東大門區·城北區를 관할구역으로 삼아 경찰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다가 인구의 팽창과 市街의 발전에 따라 1943년에는 城東區 전역을 관할하는 城東警察署가 설치되고, 1944년 7월에는 동대문경찰서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城北警察署가 설치되었다. 이때 성북경찰서는 지금 城北區의 중심인 敦岩洞에 자리잡고, 당시 동대문구 관내인 敦岩洞·城北洞·鍾岩洞·安岩洞 및 新設洞의 일부와 高陽郡 崇仁面의 貞陵里·彌阿里·上月谷里·下月谷里 등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敦岩·城北·高沙의 3개 파출소와 貞陵·崇仁의 2개 駐在所를 설치하고 경찰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광복과 더불어 업무량의 증대에 따라 1946년에 鍾岩·吉音·長位·水踰의 4개 支署와 直轄·旭丘·東仙·安岩東部·安岩西部 등 5개 파출소의 증설을 보아 성북 일대의 경찰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38]

그리고 1949년 8월 14일 大統領令 제160호 〈서울市 區出張所設置에 관한 件〉에 의해 편입지역에 城北區 崇仁出張所, 西大門區 恩平出張所, 城東區 蠶島出張所 등 3개 출장소가 설치되었다. 이때의 城北區 관할구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8)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서울特別市史》解放後 市政篇, 1963, pp.36·786·803·804.

그리고 1950년 3월 15일에는 9개 편입지역의 지명을 里에서 다음과 같이 洞으로 개칭하였다.

貞陵洞·彌阿洞·水踰洞·牛耳洞·樊洞·長位洞·石串洞·上月谷洞·下月谷洞

이와 같이 城北區는 종전의 동대문구 관할의 4개동과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의 편입지구 9개동을 합하여 13개동이 되었으며 1개 출장소를 거느리게 되었다. 이때의 성북구의 관할 면적을 洞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9]

한편 1955년 4월 18일 市條例 제66호 〈洞 設置條例〉에 의해 洞長管轄區域인 行政洞制가 실시되었다. 즉, 기존의 주민자치 임의단체였던 洞會制度가 폐지되고 동장관할구역으로서의 행정구역제도가 실시되어 法定洞과 行政洞이라는 2원화된 洞制가 이루어졌다. 이때 城北區는 23개 行政洞에서 17개 法定洞을 분할하여 관할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0]

城北區 管轄區域

(1949. 8. 14)

구 분		관 할 구 역
성 북 구	직 할	安岩洞 城北洞 安岩洞 1가~5가 鍾岩洞
	숭 인 출장소	長位里 石串里 樊里 牛耳里 水踰里 上月谷里 下月谷里 彌阿里 貞陵里

城北區 洞別 土地面積

(1950년)

洞 名	總 面 積	住居可能面積	洞 名	總 面 積	住居可能面積
城北洞	2,732,052m²	460,387m²	長位洞	1,745,000m²	1,535,000m²
敦岩洞	2,747,454	1,718,018	石串洞	1,872,052	1,742,052
安岩洞	1,449,944	912,644	上月谷洞	575,850	392,550
鍾岩洞	1,547,461	1,176,641	下月谷洞	1,724,326	1,502,661
貞陵洞	8,839,013	1,397,348	彌阿洞	5,582,037	3,915,372
樊 洞	2,945,000	2,403,335			
水踰洞	7,495,000	3,152,285	計	45,790,189	20,904,363
牛耳洞	6,535,000	596,050			

39) 서울特別市《市勢一覽》1952년판, p.31, 白南信《서울大觀》, 1955, pp.535~540.
40) 羅恪淳〈서울特別市 洞行政變遷考》(中)《鄕土서울》43, 1985, pp.123~124.

이어 1955년 5월 8일에는 地方自治法의 공포 시행으로 初代 洞長 선거가 실시되었고, 同年 10월 15일에는 告示 제101호에 의해 각 구청의 순위가 정해졌는데 그 순위는 종로구·중구·동대문구·성동구·성북구·서대문구·마포구·용산구

城北區의 行政洞과 管轄區域

(1955. 4. 18)

城北第1洞	城北洞中 雲水橋 道路 東南方地域
城北第2洞	城北洞中 城北第1洞 관할구역 以外地域
東小門洞	敦岩洞 중 三仙橋로부터 敦岩橋에 이르는 城北川 이북의 지역
三仙第1洞	전 敦岩洞 중 敦岩橋 아래 城北川 이남 및 玉女峰 동쪽에서 240, 407번지에 이르는 道路 以東 지역
三仙第2洞	敦岩洞 중 三仙第1洞 경계도로 以西, 山 54, 467의 11, 山 48의 沿道 以東 지역
三仙第3洞	敦岩洞 중 山 54에서 山 48에 이르는 道路以西, 東小門 城壁에서 三仙橋 아래쪽 城北川 以南의 지역
東仙洞	敦岩洞 264의 10에서 153의 1을 경유, 敦岩峴에 이르는 도로 以東의 지역
南仙洞	敦岩洞 중 敦岩橋에서 敦岩峴에 이르는 幹線道路以南 및 敦岩洞 264의 10에서 153의 1을 경유, 敦岩峴에 이르는 도로 西南方의 지역
西仙洞	敦岩洞 중 敦岩橋에서 敦岩峴에 이르는 幹線道路 이북 및 敦岩洞 山 40번지의 東側에서 294번지를 경유, 409번지에 이르는 도로 以西의 지역
北仙洞	敦岩洞 중 敦岩峴 以東의 지역
貞和洞	敦岩洞 중 西仙洞 경계선 이북의 지역
東岩洞	安岩洞 5街 一圓
南岩洞	安岩洞 3·4街 一圓
西岩洞	安岩洞 1·2街 一圓
鍾岩洞	安岩洞 一圓
月谷洞	上月谷洞·下月谷洞 一圓
貞陵第1洞	貞陵洞 중 貞陵川支流 小河川을 경계로 하는 西南方의 지역
貞陵第2洞	貞陵洞 중 貞陵第1洞 이외 지역
彌阿第1洞	彌阿洞 幹線道路 이북 및 彌阿洞 559에서 573에 이르는 道路 西南方 지역
彌阿第2洞	彌阿洞 중 第1洞 경계도로 동북방 및 彌阿洞 落合橋에서 彌阿洞 531번지 丘陵 以西지역
彌阿第3洞	彌阿洞 중 彌阿第1洞·第2洞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長石洞	長位洞, 石串洞 一圓
華溪洞	樊洞·牛耳洞·水踰洞 一圓

·영등포구로 城北區는 9個區 가운데 다섯번째로 되었다.

이 무렵 城北區의 면적은 西大門區·城東區에 다음 가는 제3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구에 있어서도 서울특별시 9個區 중 西大門區(335,593명), 城東區(332,037명), 東大門區(323,017명), 永登浦區(316,346명)에 다음가는 제5위를 차지하고 있었다.[41] 이렇게 제일 늦게 발족한 성북구는 그 동안 장족의 발전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1959년 10월 31일 市條例 제165호로 〈서울특별시 동설치조례 개정의 건〉에 의해 洞 관할구역의 변경과 동사무소의 명칭이 개칭되었다. 이때 城北區에서는 彌阿第1·2·3洞을 吉音洞·仁壽洞·松泉洞·三陽洞의 4개 행정동으로 변경하여 1개 행정동이 증설되고 동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때의 동사무소 신설과 동명개칭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1955년 洞制 실시 당시에 비해 서울특별시의 인구가 6할 이상 증가하였는데, 특히 변두리 지역에 인구가 팽창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洞事務所 만으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洞을 분할하여 6個洞을 신설하였던 것이다. 또한 行政洞을 신설하면서 洞名을 개칭한 까닭은 往十里洞·彌阿洞·弘濟洞·解放洞 등의

城北區 관할구역 변경내용

(1959. 10. 31)

개 정 된 洞 區 域	개정 前의 구역
성북구 미아동 533의 1 落合川과 貞陵川이 합류되는 지점을 기점하여 同527에 이르는 西部와 同地點으로부터 同559-2를 경유하여 同 山66번지에 이르는 細道路 이남의 지역을 吉音同으로 하고, 길음동 경계도로 東北方 및 미아동 산66번지로부터 仙皇堂고개에 이르는 구릉 以西의 지역을 仁壽同으로 하고, 미아동 落合橋에서 議政府에 이르는 國道上 彌阿橋를 중심으로 東은 미아동 산29번지에 이르는 小道路 以南지역과 西로 佛堂谷에 이르는 河川을 沿한 同638번지에서 同 山75번지의 능선을 따라 仙皇堂 고개에 이르는 도로 이남의 지역을 松泉洞으로 하고, 미아동 중 길음동·인수동·송천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全域을 三陽洞으로 함.	미아제1동은 미아동 간선도로 이북 및 미아동 559로부터 573에 이르는 道路 서남방의 지역이었고, 미아제2동은 미아동중 제1동 경계도로 동북방 및 미아동 落合橋로부터 동531번지의 구릉 以西의 지역이었고, 미아제3동은 미아동 중 미아제1·2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全域이었음.

41) 註 43) p.18. 성북구 인구를 보면 1955년 말에는 131,519명, 1956년 6월말 현재 140,186명, 1957년말 164,448명, 1958년말 179,435명, 1959년말 242,289명, 1960년말 264,981명으로 계속 급증하였다.

주민들이 동명을 고치기를 원하였던 때문인데, 이는 洞名이 전쟁의 휴유증 등을 연상하는 등 시민들에게 좋은 느낌을 주지 않은 것이 그 원인이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변경된 성북구 관할구역의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과 같다.

한편 1963년 1월 1일을 기해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城北區의 관할구역 또한 커다란 변모를 가져왔다. 이는 1962년 11월 21일 國家再建最高會議가 제정 공포한 法律 제1172호 〈서울特別市·道·郡·區의 行政區域變更에 관한 法律〉에 의한 것이었다.

이전의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은 1949년 12월에 책정된 인구 200만명 수용을 목표로 하였던 바, 당시 인구 148만 1,025명으로 인구밀도는 5,284명이었다. 따라서 1인당 주거 가능면적의 평균 점유는 120m^2 이상이었다. 그러나 1962년말 현재 인구는 293만명으로 1949년에 비해 거의 2배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구증가는 필연적으로 교통·주택·보건위생 및 公安維持 등 제문제를 누적시켰고 都市의 一般的인 기준 및 産業構成의 비정상적인 발전을 지양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던 것이다.

따라서 인구의 분산, 행정능률 및 산업의 정상적인 종합개발을 주안으로 한 행정구역의 대폭적인 개편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행정구역의 확장 결과 서울특별시는 인구 500만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평균 25만명이 증가되어 가는 國際都市다운 首都建設로의 2차적인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1963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확장은 市條例 제275호 〈서울特別市 洞長定員條例 改正條例〉에 의해 구청별 관할구역이 조정되었다. 먼저 城東區 面牧洞을 東大門區로 편입하고, 서울특별시와 밀접한 地緣的 관련아래 都市化되어가는 주변 경기도 지역의 12個面 90個里 328.15km^{2}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여 10개의 區出張所와 43個洞을 설치하였다.

이때 城北區에 편입된 지역은 楊州郡의 蘆海面에 속한 9個里로써, 이곳에 다시 倉洞·泰陵洞·蘆元洞·道峰洞의 4개 行政洞을 두어 이를 관할하고 이 4개 행정동을 관할구역으로 蘆海出張所를 설치하였다. 이때의 城北區 관할구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2]

42) 註 12) pp.144~146.

城北區 관할구역

(1963. 1. 1)

구분		관할구역		
		行政洞	法定洞	管轄區域
성북구	직할	城北第1洞	城北洞 1街	성북동 중 雲水橋道路 동남방의 지역
		城北第2洞	城北洞 2街	성북동 중 성북제1동 관할지역을 제외한 지역
		東小門洞	東小門洞 1~4街	동소문동 중 1가·2가·3가·4가 일원
		東仙洞	東小門洞 5街	동소문동 5가와 동선동 1가 일원 및 동선동 2가 중 동선동 관할구역은 제외한 지역
			東仙洞 1·2街	
		三仙第1洞	三仙洞 4·5街	삼선동 중 삼선동 4가·5가 일원
		三仙第2洞	三仙洞 2·3街	삼선동 2가 중 삼선 3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全域 및 삼선동 3가 일원
		三仙第3洞	三仙洞 1街	삼선동 1가 일원 및 삼선동 2가 중 25번지로부터 389번지에 이르는 道路 以西의 지역
		東仙洞	東仙洞 3街	동선동 2가 일원 및 3가 중 同 13번지로부터 248번지에 이르는 道路 以東의 지역
		西仙洞	東仙洞 4·5街	동선동 4가 일원 및 5가 중 173번지로부터
			東小門洞 7街	동소문동 7가 7번지 및 同 27번지를 경유 25번지에 이르는 道路 以南의 지역
		北仙洞	敦岩洞	돈암동 중 敦岩峴 以東의 지역
		貞和洞	東小門洞 6·8街	동선동 및 동소문동 6가·8가 중 서선동 경계선 以上의 지역
		東岩洞	安岩洞 5街	안암동 5가 일원
		南岩洞	安岩洞 3·4街	안암동 3가·4가 일원
		西岩洞	安岩洞 1·2街	안암동 1가·2가 일원
		鍾岩洞	鍾岩洞	종암동 일원
	숭인출장소	月谷洞	上月谷洞	상월곡동·하월곡동 일원
			下月谷洞	
		貞陵第1洞	貞陵洞	정릉동 중 貞陵川지류 소하천을 경계로 하는 서남방의 지역
		貞陵第2洞	貞陵洞	정릉동 중 정릉제1동 관할을 제한 구역으로서 城底五里定界表를 기점으로 하여 貞陵市場 앞 도로를 따라 北漢山藝術學校 後側으로 통하는 人道를 거쳐 대박골로 향하는 하천을 중심으로 한 동남방의 지역
		貞陵第3洞	貞陵洞	정릉동 중 제1동 및 제2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全域

구분		관할구역			
		行政洞	法定洞		管轄區域
성북구	숭인출장소	吉音洞	彌阿洞		미아동 533번지의 1 落合橋와 貞陵川이 합류되는 지점을 기점하여 同 567번지의 1에 이르는 西部와 同지점으로부터 同 557번지의 2 경유 同 山66번지에 이르는 細道路 以南의 지역 길음동 경계도로 동북방 및 미아동 落合橋로부터 同531번지 丘陵 以西의 지역
		仁壽洞	彌阿洞		길음동 경계도로 동북방 및 미아동 산66번지로부터 仙皇堂고개에 이르는 丘陵 以西의 지역
		松泉洞	彌阿洞		미아동 落合橋에서 議政府에 이르는 國道上 彌阿橋를 중심으로 東을 미아동 산29번지에 이르는 小道路 以南지역과 西로 佛堂谷에 이르는 하천을 沿한 同 638번지에서 同 산75번지의 능선을 따라 仙皇堂고개에 이르는 도로이남의 지역
		三陽第1洞	彌阿洞		미아동 중 길음·인수·송천동 관할구역을 제한 지역 중 미아동 산109번지 앞 계곡으로부터 彌阿橋까지의 하천을 중심으로 한 동남방의 지역
		三陽第2洞	彌阿洞		미아동 중 길음·인수·송천동 및 삼양제1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全域
		長石洞	長位洞		장위동·석관동 일원
			石串同		
		華溪洞	樊	洞	번동·우이동·수유동 일원
			牛耳洞		
			水踰洞		
	노해출장소	倉洞	倉	洞	창동·월계동·쌍문동 일원
			月溪洞		
			雙門洞		
		泰陵洞	孔陵洞		공릉동·하계동 일원
			下溪洞		
		蘆元洞	中溪洞		중계동·상계동 일원
			上溪洞		
		道峰洞	道峰洞		도봉동·방학동 일원
			放鶴洞		

1970년 5월 18일 市條例 제613호에 따라 每洞을 인구 1만명 내지 1만 5천명 수준으로 洞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洞行政의 균형 및 능률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

시는 56개동을 113개동으로 분할하고, 117개동을 64개동으로 줄이는 등 종래 행정동 302개동을 306개동으로 조정하였다. 또 法定洞과 洞事務所의 명칭 즉 行政洞과의 명칭을 일치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1개의 법정동이 수개의 동사무소로 분할되었을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칭에 1·2·3의 숫자를 붙이었다. 이때 城北區는 30개 행정동에서 45개동으로 증가하였는데, 4개동을 2개동으로 폐합하고 13개동을 30개동으로 分洞하였으며 13개동은 그대로 존속되었다. 즉, 서선동·북선동·정화동·동암동·서암동·남암동의 동명이 폐지되고 동선동 1·2洞, 돈암동 1·2洞, 안암동 1·2洞이 되었으며, 정릉 4동이 신설되고 종암동은 1·2洞으로 分洞되었으며 월곡동도 상월곡동·하월곡 1·2洞으로 분동되었다. 또, 길음동·인수동·송천동·삼양동 등이 법정동의 이름에 따라 미아1동~미아10동으로 명칭 변경과 더불어 분동되었으며, 수유 1·2洞·장위 1·2洞·석관동·창동·쌍문동·공릉동·상계 1·2·3洞·중계동·도봉동 등이 행정동명으로 등장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3]

城北區 관할구역

(1970. 5. 18)

洞 別	面 積 (km^2)	家 口	人 口	統 數	班 數	管 轄
45 洞 2 出張所	106.49	196,794	979,848 (149)	738	6,503	○ 45
城北 第1洞	0.39	1,633	9,492	9	74	○ 城北洞1街 및 城北洞中 雲水橋 東南方地域
城北 第2洞	2.13	3,493	18,254	13	133	○ 城北洞中 城北第1洞 管轄區域을 除外한 地域
東小門洞	0.29	3,290	17,100	18	157	○ 東小門洞1·2·3·4街 및 敦岩洞中 敦岩國民學校 앞을 起點으로 東丘女商에 이르는 小路 以南地域
三仙 第1洞	0.25	1,927	10,011	14	114	○ 三仙洞 4·5街, 東小門洞5街
三仙 第2洞	0.26	2,576	13,165	16	90	○ 三仙洞 3街 및 敦岩洞中 三仙洞 2街 境界地域
三仙 第3洞	0.34	3,375	17,023	18	148	○ 三仙洞 1·2街 및 敦岩洞中 三仙洞 2街境界 以西地域

43) 註 49) pp.145~149.

洞別	面積 (km^2)	家口	人口	統數	班數	管轄
東仙 第1洞	0.48	3,134	16,490	15	118	○ 東仙洞 1·2·3街 및 敦岩洞 中 敦岩洞 以南地域
東仙 第2洞	0.33	2,264	11,875	11	112	○ 東仙洞 4·5街, 東小門洞 6·7街
敦岩 第1洞	0.46	6,145	29,755	25	238	○ 敦岩洞中 敦岩洞 以東을 地域으로 西로는 敦岩洞 45番地와 31番地의 1이 合流되는 地域
敦岩 第2洞	0.36	3,768	18,752	11	125	○ 敦岩洞中 東으로 敦岩第1洞 管轄區域까지 西南으로는 城北第1洞 및 東小門洞 管轄區域까지의 地域
安岩 第1洞	0.40	3,026	16,068	20	168	○ 安岩洞 1·2·3·4街
安岩 第2洞	1.17	2,202	11,624	14	103	○ 安岩洞 5街
貞陵 第1洞	0.34	4,105	21,420	20	173	○ 貞陵洞中 아리랑고갯길 東側 地域과 崇德國民學校 東側道路 以東地域
貞陵 第2洞	1.70	3,576	18,443	13	135	○ 崇德國民學校 東側 道路를 北上 227番地를 經由 410番地 地籍線을 따라 城底五里定界表 및 404番地 앞 道路를 經由 貞陵川을 南下 배밭골로 向하는 河川을 따라 650番地 앞 溝渠에서 산87番地의 3 地籍線과 一直線으로 연하는 地域과 아리랑고갯길 以西地域
貞陵 第3洞	4.12	4,063	20,859	22	162	○ 貞陵洞中 貞陵川 以西地域으로서 東南으로 貞陵第2洞 管轄區域까지의 地域
貞陵 第4洞	3.47	5,159	25,581	18	180	○ 貞陵洞中 貞陵洞第1·2·3洞 管轄區域을 除外한 全域
鍾岩 第1洞	0.86	4,550	22,763	15	162	○ 鍾岩洞中 古山路 以西의 地域
鍾岩 第2洞	0.70	6,045	29,558	23	203	○ 鍾岩洞中 古山路 以東의 地域
△ 崇仁 出張所	22.42	85,004	429,670	304	2,841	
彌阿 第1洞	0.37	4,167	20,624	16	161	○ 彌阿洞中 1076番地에서 1166番地에 이르는 道路 以西地域中 1122番地 및 1190番地에 이르는 道路 以南과 605番地 앞 溝渠에서 貞陵洞에 이르는 道路 以南地域

洞別	面積 (km^2)	家口	人口	統數	班數	管轄
彌阿 第2洞	0.47	5,879	29,475	17	171	○ 彌阿洞中 城隍堂 고개에서 貞陵洞에 이르는 小路 以南地域中 1076番地에서 1166番地에 이르는 道路 以西의 地域으로 彌阿第1洞 管轄區域과의 境界地域
彌阿 第3洞	0.62	6,600	33,927	19	186	○ 彌阿洞中 61番地에서 637番地에 이르는 小路 以南과 彌阿路 以西의 地域中 1076番地 및 637番地에 이르는 道路 以東地域
彌阿 第4洞	0.80	3,330	17,678	11	92	○ 彌阿里洞中 彌阿삼거리를 起點으로 彌阿路 以東 地域中 山25番地의 2號 地籍線에서 314番地에 이르는 道路 以南地域
彌阿 第5洞	0.60	3,452	17,351	10	86	○ 彌阿洞 彌阿路 以西地域中 北으로 山114番地에서 275番地에 이르는 溝渠以南地域과 61番地에서 637番地에 이르는 小路以北地域 및 679에서 山92의3에 이르는 小路 以東과 舊三陽洞地域內 간선도로 以東地域
彌阿 第6洞	0.32	4,912	23,743	13	135	○ 彌阿洞中 北으로는 彌阿川 東으로는 679番地에서 山9의3에 이르는 小路 以西地域과 南으로는 彌阿第2洞 管轄區域과 接하고 西로는 山100番地의 1에서 山75番地의 地籍線까지에 이르는 地域
彌阿 第7洞	0.31	4,283	20,939	15	145	○ 彌阿洞中 彌阿川 以南地域으로 837番地 앞 溝渠에서 貞陵洞境界에 이르는 地域中 東으로 100番地 地籍線까지의 地域
彌阿 第8洞	0.32	3,320	17,200	11	93	○ 彌阿洞中 舊三陽洞中地內 간선도로 以西地域과 彌阿川 以北地域中 北으로 山114番地 앞 溝渠를 따라 836番地 地籍線과 791番地內 小路를 經由 山108의 82, 山82의 5, 山108의 82, 山82의5, 山108의 21, 22 및 19의 地籍線以南地域

洞別	面積 (km^2)	家口	人口	統數	班數	管轄
彌阿 第9洞	0.65	6,418	31,676	20	214	○ 彌阿洞中 水踰國民學校에서 730番地까지 이르는 水踰地區 區劃整理地區 境界線 以西地域으로 南으로 彌阿 第5·8洞 管轄區域과 接하는 地域
彌阿 第10洞	1.10	3,548	17,177	12	86	○ 彌阿洞中 彌阿1·2·3·4·5·6·7·8·9洞 管轄區域을 除外한 全域
樊洞	2.97	3,913	18,616	10	70	○ 樊洞
水踰 第1洞	4.10	7,577	38,640	23	201	○ 水踰洞中 貞陵과 水踰洞 境界地點에서 山125番地 最北端地點을 經由하여 가오천을 따라 252番地 앞 道路를 연하는 以南地域
水踰 第2洞	9.79	5,817	29,512	21	203	○ 水踰洞中 水踰第1洞 管轄區域을 除外한 全域 및 牛耳洞
下月谷 第1洞	0.53	3,811	20,058	13	122	○ 下月谷洞中 長位橋를 北上하여 62番地 앞 道路를 따라 下月谷洞 山2番地와 境界가 되는 道路 以西地域
下月谷 第2洞	1.18	10,189	47,257	28	260	○ 下月谷洞中 下月谷第1洞 管轄區域을 除外한 地域
上月谷洞	0.60	2,845	13,611	11	88	○ 上月谷洞
長位 第1洞	0.62	3,199	16,757	12	123	○ 長位洞中 長位橋를 起點으로 123番地에서 212番地에 이르는 溝渠 以北地域과 236番地 및 237番地 앞 道路를 經由 東邦生命住宅造成地域(238番地 포함)을 옹하고 南下 68番地 앞 道路에서 山3의 北側地籍線과 연결되는 南北地域
長位 第2洞	1.03	4,579	22,843	19	212	○ 長位洞中 長位第1洞 管轄區域을 除外한 地域
石串洞	1.36	6,579	31,492	23	193	○ 石串洞
△ 蘆海出張所	66.02	33,390	153,020	139	1,067	
倉洞	10.36	5,461	26,187	17	108	○ 倉洞
雙門洞	2.87	4,989	24,613	15	135	○ 雙門洞
孔陵洞	12.82	3,491	18,406	14	101	○ 孔陵洞

洞 別	面 積 (km^2)	家 口	人 口	統 數	班 數	管 轄
上溪 第1洞	6.00	3,005	14,246	13	70	○ 上溪洞中 855番地의 8에서 山128앞 구거에 이르는 以北地域과 山123의 南側地籍線에서 山135, 山136, 山143番地의 北側地籍線을 經由 山105, 山95, 山52, 山1番地에 이르는 西北地域
上溪 第2洞	3.12	2,893	14,261	13	125	○ 上溪洞中 855番地의 8에서 山128에 이르는 구거 以南地域과 山133, 山135, 山143, 山144 以南地域中 127番地와 山186番地앞 당현천 西南側地域
上溪 第3洞	5.26	7,235	33,231	24	182	○ 上溪洞中 上溪1·2洞 管轄區域을 除外한 全域
中 溪 洞	4.80	3,909	18,470	18	150	○ 中溪洞
道 峰 洞	15.45	7,062	33,476	22	196	○ 道峰, 放鶴洞

1973년 7월 1일 大統領令 제6548호에 의해 道峰區와 冠岳區가 신설되면서 구청간 관할구역 및 행정동의 일부 개편이 있었다. 이때 城北區 관할구역 가운데 蘆海出張所와 崇仁出張所 관할구역을 중심으로 道峰區가 신설되어 城北區의 區勢가 크게 축소되었다. 즉, 미아동·번동·수유동·우이동·창동·월계동·쌍문동·상계동·중계동·도봉동·방학동·공덕동·하계동이 도봉구 관할구역이 되었으며 城北區는 성북동·돈암동·동소문동·삼선동·동선동·안암동·종암동·장위동·석관동·상월곡동·하월곡동·정릉동 만을 관할하게 되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는 市條例 제780호를 마련하여 城北區의 崇仁·蘆海出張所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市條例 제784호에 의해 上月谷3洞이 신설되어 성북구는 25개 行政洞을 거느리게 되었으며 하월곡 1·2·3洞間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1973년의 행정구역 개편의 특징은 첫째 都市化의 진행에 따라서 市街地가 市界를 넘어 연담화되어 사회·경제·문화활동이 서울과 일체화된 지역을 병합하며, 둘째 인구의 이동결과 기존 區 행정구역간의 행정부담의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분할 균등화시키고, 셋째 구획정리사업 등 공사의 진행으로 지리적 변동

을 가져온 지역의 구역조정이었다.

이어 1975년에 들어 서울특별시는 인구 3만명이 넘는 66個 行政洞을 분동하며, 區는 80만명 이상의 4개구 가운데 우선 인구 100만명이 넘는 城東區의 分區를 추진함으로써 시민역량의 조직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地番을 기준으로 한 현재의 法定洞境界도 街路를 기준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작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1975년 10월 1일 大統領令 제7816호에 의해 城東區에서 江南區가 분리 신설됨으로써 대폭적인 區·洞間의 관할구역 재편성이 있게 되었다. 이때의 城北區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종암동·안암동 4가·안암동 5가·석관동 각 일부가 東大門區에 편입되었다. 즉, 종암동 일부가 淸凉里洞에, 종암동과 안암동 5가 각 일부는 祭基洞에, 안암동 4가·안암동 5가 각 일부는 龍頭洞에, 석관동 일부는 里門洞에 편입되었다. 또 東大門區 가운데 普門洞 1·2·3·4·5·6·7街와 신설동의 각 일부는 城北區에 편입됨에 따라 성북구의 법정동에 普門洞이 편입되었고, 이때 편입된 신설동의 일부는 보문동 6가에 편입되었다. 한편 城北區 가운데 정릉동·하월곡동 각 일부는 道峰區 彌阿洞에 편입되었으며, 도봉구 미아동의 일부는 성북구에 편입되어 길음동이 신설되고 하월곡동의 일부가 되었다. 따라서 법정동의 吉音洞이 탄생되었다.

이와 같이 대폭적인 區·洞間의 구역조정이 있었는데, 이는 모든 경계를 지리적 여건에 맞추어 조성하되 도로·하천·철로·능선의 순서에 따라 分界하고 주민의

下月谷 1·2·3洞 관할구역 조정

(1973. 7. 1)

行政洞	面 積 (km^2)	人 口 (家 口)	管 轄 區 域
下月谷 第1洞	0.53	20,696 (4,096)	하월곡동 중 長月橋를 北上하여 62번지 앞 도로를 따라 하월곡동 산2번지와 경계가 되는 도로 以西地域
下月谷 第2洞	0.78	16,315 (3,266)	하월곡동 중 同德女大 북쪽 지적선과 溝渠를 연하고 57번지 앞 小路를 따라 北上 하월곡제1동장 관할구역과 접한 以南地域
下月谷 第3洞	0.40	37,495 (7,220)	하월곡동 중 하월곡 제1동 관할구역 및 하월곡 제2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일상 생활권을 크게 참작하여 조정된 것이다. 아울러 종래의 區境界 중 불합리한 구역적 일부 경계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부분만 조정한다는 원칙하에 이루어졌으며, 城北區는 그 관할면적이 종래 23.4km²에서 24.8km²로 조정되었다.

그리고 서울特別市에서는 同日字 市條例 제979호 〈洞名稱 및 구역획정조례〉에 의해 신설동 일부를 보문동에 편입하고 미아동 일부를 하월곡동과 길음동에 편입하였다. 또한 市條例 제981호 〈洞長定員 및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조례〉에 의해 석관동을 25m 도로를 경계로 제1동과 제2동으로 분동하였고, 하월곡 제3동을 細路와 稜線을 경계로 제3동과 4동으로 분동하였다. 따라서 城北區는 분동 2개동, 區경계조정에 따른 5개동의 증가로 종래 25개 행정동에서 32개 행정동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1975년 10월 1일 현재 개편 조정된 城北區의 행정구역은 32개 행정동에 39개 법정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면적은 24.83km², 인구 611,738명, 가구 121,000호에 823個統·4,246個班의 주민조직을 갖게 되었다. 여기서 이때의 조정에 따른 城北區의 행정구역 변경내용과 관할 행정동별 행정구역의 現勢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城 北 區

현 재		편 입		제 외		조 정 후
521,459名	+	98,213名	−	7,934名	=	611,738名

〈編入되는 地域〉 (1975, 10. 1)

편 입 되 는 지 역			동수	인 구	경 계
區	地 區	洞			
道峰區	미 아 동 지 구	미아동 一部	1	70,383	장위동 진입로 入口로부터 미아 3거리를 거쳐 북상하다가 숭인출장소 입구에서 정릉동 접경까지 이르는 도로 이남지역
東大門區	보 문 동 지 구	보문동 1~6가 전역 보문동 7가 一部 신설동 一部	7	27,830	보문동 1~6가와 보문 7가 一部 및 신설동 一部
計			8	98,213	

〈除外되는 地域〉

제외되는 지역			동수	인구	편입되는 區	경계
區	地區	洞				
城北區	석관동 지구	석관동 一部	1	2,253	東大門區	이문동 北側의 석관동 일부지역
	종암동 지구	종암동 一部	1	1,225	〃	종암대교(KIST 방면의 도로)와 정릉천을 경계로 한 동남지역
	안암동 지구	안암동 4,5가 一部	2	4,065	〃	대광중고교 앞에서 종암동까지의 안암로 이남지역
	정릉동 지구	정릉동 一部	1	219	道峰區	정릉동지구 새도로 以北지역
	하월곡동 지구	하월곡동 一部	1	172	〃	미아 3거리에서 장위동 진입로 以北
計			6	7,934		

○ 區界調整에 따른 他區 編入洞

調整前			調整後		
區名	洞名	人口	區名	洞名	人口
城北區	종암제2동 일부	400	東大門區	제기제3동	18,561(17,296)
	안암제2동 일부	865	〃	〃	
	종암제2동 일부	825	〃	청량리제2동	23,196(22,371)
	안암제1동 일부	3,200	〃	용두제2동	26,486(23,286)
	석관동 일부	2,253	〃	이문제2동	20,241(17,988)
道峰區	미아제1동	18,319	城北區	길음동	18,319
	〃 제2동	28,539	〃	인수동	28,539
	〃 제3동	22,872	〃	송천동	22,872
	〃 제4동	653	〃	하월곡제1동	21,349(20,696)
東大門區	보문제1동 일부	11,566	城北區	보문제1동	13,416
	신설동 일부	1,850			
	보문제2동	12,243	〃	보문제2동	12,243
城北區	하월곡제1동 일부	172	道峰區	미아제4동	19,219(19,047)
	정릉제4동 일부	219	〃	미아제7동	24,519(24,300)

城北區 行政區域 現勢

(1975. 10. 1)

洞 名	面積 (km^2)	家 口	人 口	統數	班數	管 轄
城北 第1洞	0.39	1,616	8,416	12	59	성북동 1가 일원 및 성북동 운수교 동남지역
城北 第2洞	2.13	3,038	16,259	22	111	성북동중 성북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東小門洞	0.29	3,447	7,104	25	126	동소문동 1,2,3,4가 일원 및 돈암동중 돈암국민학교 앞을 기점으로 동구여상에 이르는 소로 이남지역
三仙 第1洞	0.25	1,697	8,782	12	51	삼선동 4,5가 및 동소문동 5가 일원
三仙 第2洞	0.26	2,318	12,126	18	85	삼선동 3가 일원 및 돈암동중 삼선동 2가 경계 이동지역
三仙 第3洞	0.34	3,516	17,478	22	105	삼선동 1,2가 일원 및 돈암동중 삼선동 2가 경계 이서지역
東仙 第1洞	0.48	2,646	13,836	19	97	동선동 1,2,3가 일원 및 돈암동중 돈암현 이남지역
東仙 第2洞	0.33	2,225	11,479	16	79	동선동 4,5가, 동소문동 6,7가 일원
敦岩 第1洞	0.46	6,331	30,585	39	219	돈암동중 돈암현 이동의 지역으로 서로는 돈암동 45번지와 31번지의 1이 합류되는 지역
敦岩 第2洞	0.36	3,500	17,868	24	111	돈암동중 등으로 돈암 제1동장 관할구역까지, 서남으로는 성북제1동장 및 동소문동장 관할구역까지의 지역
安岩 第1洞	0.31	3,103	15,012	27	153	안암동 1,2,3,4가 일원 및 안암동 5가중 152번지와 산 10의 2번지의 동측지적선 이서지역
安岩 第2洞	1.70	1,901	9,768	9	49	안암동 5가중 안암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貞陵 第1洞	0.34	4,165	20,903	30	153	정릉동중 아리랑고갯길 동측지역과 숭덕국민학교 동측도로 이동지역

洞名	面積 (km^2)	家口	人口	統數	班數	管轄
貞陵 第2洞	1.70	3,889	91,654	28	143	숭덕국민학교 동측도로를 북상 227번지를 경유 410번지 지적선을 따라 성저오리경계표 및 404번지 앞 도로를 경유 정릉천을 남하 배밭골로 향하는 하천을 따라 650번지 앞 구거에서 산 87번지의 3 지적선과 일직선으로 연하는 지역과 아리랑고개길 이서지역
貞陵 第3洞	4.12	4,409	22,226	32	162	정릉동중 정릉천 이서지역으로서 동남으로 정릉 제2동장 관할 구역까지의 지역
貞陵 第4洞	3.47	5,799	29,893	32	213	정릉동중 정릉동 1,2,3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鍾岩 第1洞	0.86	4,510	22,981	32	165	종암동중 고산로 이서지역
鍾岩 第2洞	0.62	5,813	28,379	37	172	종암동중 고산로 이동지역
下月谷 第1洞	0.55	4,185	21,177	28	140	하월곡동중 장월교를 북상하여 62번지 앞 도로를 따라 하월곡동 산 2번지와 경계가 되는 도로를 따라 북상 신장위로를 우회 서진 미아삼거리를 경유 하월곡동 104의 40까지 이르는 미아리 이남지역
下月谷 第2洞	0.78	3,266	16,315	22	114	하월곡동중 동덕여대 북쪽 지적선과 구거를 연하고 57번지 앞 소로를 따라 북상 하월곡제1동장 관할구역과 접한 이남지역
下月谷 第3洞	0.20	3,465	18,294	28	137	하월곡동 76의 1호 앞 복개도로를 따라 77의 1호를 경유, 계곡 도로를 동진 산 2의 36호와 암석계곡을 경유, 산 2의 1 계곡을 따라 동진 상월곡동과 접하는 계곡 이남지역
下月谷 第4洞	0.20	3,755	19,201	25	117	하월곡동중 하월곡 1, 2, 3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전역
上月谷洞	0.60	3,213	15,603	24	118	상월곡동 일원

洞 名	面積 (km^2)	家 口	人 口	統數	班數	管 轄
長位 第1洞	0.62	5,270	27,553	27	195	장위동중 장위교를 기점으로 123번지에서 212번지에 이르는 구거 이북지역과 236번지 및 237번지 앞 도로를 경유, 동방생명택지조성지역(238번지 포함)을 옹하고 남하 68번지 앞 도로에서 산의 4 북측지적선과 연결되는 서북지역
長位 第2洞	1.03	5,672	29,679	42	208	장위동중 장위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石串 第1洞	0.65	4,583	24,189	36	179	석관동중 상월곡동과 접하는 장석로를 기점으로 장석로를 따라 남진 월곡로를 건너 이문로를 따라 남진하여 이문동과 접하는 도로 이동지역
石串 第2洞	0.63	4,537	19,418	27	138	석관동중 석관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구역
吉音洞	0.37	3,599	18,319	26	136	구미아동중 1076번지에서 1166번지에 이르는 도로 이서지역중 1122번지 및 1190번지에 이르는 도로 이남과 60번지앞 구거에서 정릉동에 이르는 도로 이남지역
仁壽洞	0.47	5,577	28,539	37	184	구미아동중 성황당고개에서 정릉동에 이르는 소로 이남지역중 1076번지에서 1166번지에 이르는 도로 이서의 지역으로 길음동장 관할구역과의 경계지역
松泉洞	0.42	5,154	25,043	31	158	구미아동중 미아동 864의 30 앞 미아로를 기점으로 864의 30 앞 소도로를 따라 서진 476의 3, 476의 10, 476의 62, 476의 239를 경유 586의 362 앞 삼양로에 접하는 이남지역
普門 第1洞	0.25	2,387	13,416	17	84	보문동 4,5,6,7가 일원
普門 第2洞	0.21	2,214	12,243	14	76	보문동 1,2,3가 일원

1977년 9월 1일 大統領令 제8666호에 의해 永登浦區에서 江西區를 분리 신설하여 행정여건의 적정화를 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에서는 市條例 제1181호에 따라 洞의 통합과 分洞을 꾀하였다.

따라서 城北區에서는 장위1동과 2동을 분동하여 장위3동을 신설하였으며, 안암1동과 2동을 통폐합하여 안암동으로 개편하여 行政洞은 종전대로 32개동을 유지하였다.

이때의 洞管轄區域 조정은 인구 25,000명을 기준으로 分洞·統合 및 경계조정을 하였다. 분동의 대상은 관할인구 3만명 이상의 洞과, 3만명이 채 안되어도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洞과 관할면적이 과대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지형상 부득이 분동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었다. 한편 통합의 대상은 관할인구 1만명 미만으로써 면적이 좁고 행정수요가 과소한 洞이었다. 또 구획정리사업 등으로 行政圈과 生活圈이 다른 지역도 합리적으로 관할구역을 재조정하였다. 여기서 城北區의 分洞·統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어 1978년 10월 10일 市條例 제1286호에 의해 洞 명칭 및 구역획정이 있었고, 市條例 제1287호에 의해 洞의 통합과 분동이 있었다. 이때 분동대상은 인구 35,000명 이상인 洞과 그 미만 洞 가운데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격증이 확실한 洞이었다. 城北區에서는 석관동과 상월곡동의 각 일부를 장위동에 편입하고,

○ 分洞現況

(1977. 9. 1)

洞 名	人 口	分洞後		境界劃定
		洞 名	人 口	
長位 1 洞	31,976	長位 1 洞	21,459	15m 도로
		長位 2 洞	21,929	
長位 2 洞	33,776	長位 3 洞	22,364	

○ 統廢合洞 現況

(1977. 9. 1)

洞 名	人 口	面積 (km^2)	統廢合後			廢洞名
			洞 名	人 口	面 積	
安岩 1 洞	17,137	0.31	安岩洞	24,136	1.45	安岩2洞
安岩 2 洞	6,999	1.14				

종암동 일부를 하월곡동에 편입하였으며 이러한 법정동 경계조정에 따른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1980년 4월 1일 大統領令 제9630호에 의해 九老區와 銅雀區가 신설되어 洞間 경계조정이 있었으며, 서울특별시에서는 市條例 제1413호를 마련하여 同年 4월 1일과 7월 1일에 상주인구 3만명 이상의 洞을 분동하고 1만명 미만 또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洞을 폐동하였으며 행정동의 경계조정도 있었다. 城北區에서는 7월 1일자로 삼선2동과 3동을 통합하여 삼선2동으로 개편하고 보문1동과 2동을 통합하여 보문동으로 개편하여, 30個의 행정동을 관할하게 되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어 1985년 9월 1일 市條例 제2015호와 제2016호에 따라 인구 35,000명 이상인 洞으로 면적이 넓어 행정수요가 폭주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느끼는 洞을 대상으로 분동하게 되었다. 경계조정은 도로신설·아파트건립 등으로 주민생활권이 불합리하거나 경계가 분명하지 못한 洞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때 城北區에서는 장위동 가운데 花郎路에 의해 분할되는 지역을 성북구 석관동으로 편입시켰다.

1988년 1월 1일 市條例 제2251호에 의해 행정동 명칭의 일부를 변경하였는데 下月谷1·2·3·4洞을 月谷1·2·3·4洞으로 개칭하였다. 아울러 구역획정으로

○ 法定洞 경계조정 내역

(1978. 10. 10)

조 정 지 역	가 구	인 구	편입받는 동	경 계 획 정
석 관 동 일 부	430	2,135	장 위 동	50m 도로
상월곡동 일 부	456	2,229	장 위 동	50m 도로
종 암 동 일 부	246	1,258	하 월 곡 동	50m 도로

○ 폐동 내역

(1980. 7. 1)

調 整 前			調 整 後			廢 洞 名
洞 名	面 積	人 口	洞 名	面 積	人 口	
삼선 2동	0.26	12,092	삼선 2동	0.6	21,459	삼선 3동
삼선 3동	0.34	9,367				
보문 1동	0.25	12,286	보 문 동	0.46	23,436	보문 2동
보문 2동	0.21	11,150				

城北區 돈암동 중 정릉천 이북지역을 길음동에, 정릉천과 삼양로 이동지역을 하월곡동에 편입하고, 길음동 중 삼양로 이동지역을 하월곡동에 편입하였으며, 삼선동 3가 중 경동고등학교 경계 동남지역을 보문동3가에 편입하였다.[44]

한편 1988년 5월 區單位 地方自治制가 시행됨으로써 이제 區條例에 의해 동사무소 설치와 동명칭 및 구역획정이 규정되게 되었다. 따라서 城北區에서는 區條例 제12호 〈서울특별시성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와 同 제13호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를 마련하여 30개 행정동에서 39개 법정동을 관할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5]

성북구 동사무소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1988. 5. 1)

동사무소 명칭	동사무소 소재지	법정동 관할	
		전지역관할	일부지역관할
성북제1동	성북동1가 74번지 1호	성북동 1가	성북동중 운수교 동남지역
성북제2동	성북동 246번지		성북동중 성북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동소문동	동소문동1가 1번지	동소문동 1가 동소문동 2가 동소문동 3가 동소문동 4가	돈암동중 돈암국민학교 앞을 기점으로 동구여상에 이르는 소로 이남지역
삼선제1동	삼선동2가 42번지	삼선동 1가 삼선동 2가	돈암동중 삼선동2가 경계 이서지역
삼선제2동	삼선동4가 349번지 1호	삼선동 3가 삼선동 4가 삼선동 5가 동소문동 5가	돈암동중 삼선동2가 경계 이동지역
동선제1동	동선동3가 226번지 4호	동선동 1가 동선동 2가 동선동 3가	돈암동중 돈암현 이남지역
동선제2동	동소문동7가 10번지 5호	동선동 4가 동선동 5가 동소문동 6가 동소문동 7가	

44) 서울특별시 〈시보〉 제1395호, 1988년 1월 28일자.

45) 서울特別市城北區《現行自治法規集》1991, pp.1100~1105.

동사무소 명칭	동사무소 소재지	법정동 관할	
		전지역관할	일부지역관할
돈암제1동	돈암동 5번지 134, 135호		돈암동중 돈암현 이동지역으로 서로는 돈암동 45번지와 31번지 1호가 합류되는 지역
돈암제2동	돈암동 579번지 1호		돈암동중 동으로 돈암제1동장 관할구역까지 서남으로는 성북제1동장 및 동소문동장 관할구역까지의 지역
안암동	안암동2가 140번지	안암동 1가 안암동 2가 안암동 3가 안암동 4가 안암동 5가	
보문동	보문동7가 108번지 1호	보문동 1가 보문동 2가 보문동 3가 보문동 4가 보문동 5가 보문동 6가 보문동 7가	
정릉제1동	정릉동 966번지 100호		정릉동중 아리랑고개길 동측지역과 숭덕국민학교 동측도로 이동지역
정릉제2동	정릉동 966번지 125호		정릉동중 숭덕국민학교 동측도로를 북상 227번지를 경유 410번지 지적선을 따라 성저오리정계표 및 404번지 앞도로를 경유 정릉천을 남하 배밭골로 향하는 하천을 따라 650번지 앞 구거에서 산87번지 3호 지적선과 일직선으로 연하는 지역과 아리랑고갯길 이서지역
정릉제3동	정릉동 685번지 16호		정릉동중 정릉천 이서지역으로서 동남으로 정릉제2동장 관할구역까지의 지역
정릉제4동	정릉동 293번지 6호		정릉동중 정릉 1·2·3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길음제1동	길음동 877번지		길음동중 1076번지에서 1166번지에 이르는 도로 이서지역중 1122번

동사무소 명칭	동사무소 소재지	법정동 관할	
		전지역관할	일부지역관할
			지 및 1190번지에 이르는 도로 이남과 60번지 앞 구거에서 정릉동에 이르는 도로 이남지역
길음제2동	길음동 875번지 14호		길음동중 성황당고개에서 정릉동에 이르는 소로 이남지역중 1076번지에서 1166번지에 이르는 도로 이서의 지역으로 길음제1동장 관할구역과의 경계지역
길음제3동	길음동 1064번지 1호		길음동중 길음제1·2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종암제1동	종암동 3번지 1284호		종암동중 고산로 이서지역
종암제2동	종암동 16번지 8호		종암동중 고산로 이동지역
월곡제1동	하월곡동 96번지 1호		하월곡동중 장월교를 북상하여 62번지 앞도로를 따라 북상으로 직진 장위로 교차지점에서 미아삼거리를 경유 하월곡동 104의 40호까지 이르는 미아로 이남지역
월곡제2동	하월곡동 35번지 4호		하월곡동중 동덕여대 북쪽 지적선과 구거를 연하여 57번지앞 소로를 따라 북상 하월곡동 제1동장 관할구역과 접한 이남지역
월곡제3동	하월곡동 77번지 64호		하월곡동중 76의1호 앞 복개도로를 따라 77의1호를 경유 계곡도로를 동진 산2의 36호 앞 암석계곡을 경유 산2의1호 계곡을 따라 동진 상월곡동과 접하는 계곡 이북지역
월곡제4동	하월곡동 77번지 65호		하월곡동중 하월곡 제1·2·3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상월곡동	상월곡동 산7번지	상월곡동	
장위제1동	장위동 270번지 214호		장위동중 180번지 1호 도봉구와의 구 경계를 기점으로 197의 12호를 경유 198의 40호에 이르는 소로와 199의 40호에서 238의 199호를 경유 68번지 앞에 이르는 도로와 산 3의 4 북측 지적선과 연결되는 서북지역
장위제2동	장위동 69번지 54호		장위동중 237의 286호를 기점으로 복개도로를 따라 동진하다가 76의

동사무소 명칭	동사무소 소재지	법정동 관할	
		전지역관할	일부지역 관할
			68호를 경유 남하하면서 91의1호와 93의12호 55의27호 경유 45번지 화랑로에 이르는 이서지역과 남으로 화랑로를 경계로 한 이북지역으로서 장위1동장 관할구역 경계선에 이르는 지역
장위제3동	장위동 117번지 5호		장위동중 장위 1·2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석관제1동	석관동 384번지		석관동중 이문로와 화랑로를 경계로 한 동남지역
석관제2동	석관동 341번지 23호		석관동중 석관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城北區管轄 法定洞 名稱

(1988. 5. 1)

구명	동명
성북구 (39개동)	성북동, 성북동1가, 동소문동1가, 동소문동2가, 동소문동3가, 동소문동4가, 동소문동5가, 동소문동6가, 동소문동7가, 삼선동1가, 삼선동2가, 삼선동3가, 삼선동4가, 삼선동5가, 동선동1가, 동선동2가, 동선동3가, 동선동4가, 동선동5가, 돈암동, 안암동1가, 안암동2가, 안암동3가, 안암동4가, 안암동5가, 보문동1가, 보문동2가, 보문동3가, 보문동4가, 보문동5가, 보문동6가, 보문동7가, 정릉동, 길음동, 종암동, 하월곡동, 상월곡동, 장위동, 석관동

이어 1989년 6월 1일 城北區條例 제86호로 구역획정의 변경이 있었는데 성북동과 돈암동의 일부를 정릉동에 편입하였다. 즉, 성북동 1번지 69호~74호를 정릉동에 편입하고, 돈암동 593번지 1호~8호를 정릉동에 편입하였다.

〈羅 恪 淳〉

第 5 章　都市計劃

Ⅰ. 日帝强占期의 都市計劃

1. 市街地計劃令 이전의 움직임

日帝下에 朝鮮總督府가 이 땅안에 도입한 近代的 都市計劃의 시초는 이른바 市區改正事業이라는 것이었으며 종전 道路의 노폭을 넓히고 도로 양쪽에 側溝(下水道)를 개설하고 주요도로는 포장을 하는 사업이었다.

日本에 明治 新政府가 들어선 후 首都 東京에서 도입했던 이 제도는 1918년까지는 오로지 東京에서만 실시되었으며 大阪·京都 등에 실시된 것이 1919년부터의 일이었다. 당시의 일본에서도 이러하였으니 이 땅안에도 市區改正事業이 실시된 것은 서울·釜山·大邱·平壤 등 몇개 주요도시에 불과하였으며 서울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4대문 안에 국한되었고 朝鮮軍司令部와 龍山驛 때문에 남쪽은 漢江通까지, 서쪽은 西大門을 나와서 獨立門까지로 국한되었다. 그러므로 서울의 東部地域 즉 光熙門 밖·東大門 밖, 그리고 北東部地域 즉 東小門(惠化門) 밖은 이 사업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그런데 1923년 9월 1일에 일본의 수도 東京일대를 강타한 이른바 關東大地震이라는 災害는 日本 國內 뿐만이 아니라 植民地였던 朝鮮內 각 大都市·中小都市 그리고 大都市 근교에도 都市施設 재검토·재정비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사실상에 있어 京城府 안팎의 都市問題도 市區改正事業 정도로는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京城府內의 몇몇 유지들이 都市計劃研究會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한 바 있고 또 京城府도 이 연구회와의 협조하에 3차에 걸친 都市計劃案을 成案한 바 있다. 그런데 이상 3차의 計劃案중 1926년 상반기에 성안된 제1차 案은 그 計劃區域 범위를 대단히 넓게 잡았을 뿐 아니라 그 구상도 방대하여 ① 京城은 商業의 중심으로, 仁川은 工業 중심으로 하되, ② 京仁間에 運河를 파고 운하의 양측에 電車를 놓아 運河는 貨物, 전차는 사람의 운반을 담당하고 ③ 京城의 都市計劃 區域은 東의 淸涼里 밖 中浪川에서, 西南은 永登浦 安養川邊까지로 하며, ④ 淸溪川을 복개하여 街路로 하는 등 실로 어마어마한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의욕이 지나쳐 府 都市計劃係의 酒井이라는 技師는 南大門을 헐어버리고 이곳을 거점으로 6개 방향의 放射線道路까지 구상한 바 있었다.

이 計劃案의 구체적인 내용 즉 도면같은 것은 전혀 전해오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城北地域에 어떤 도시계획선이 어떻게 그어졌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 유감이다. 왜냐하면 이 案이 城北地域을 그 계획구역안에 포함시킨 최초의 도시계획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1차 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시로 봐서는 천문학적 액수인 1억 5천만원이 소요되며 가령 매년 60만원씩 투자한다 하더라도 25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다. 그들은 이렇게 큰 계획을 수행한다는 것이 너무나 假想的이라고 생각했던지 그 계획내용 중 우선 京城府 내외에 관한 부분만 잘라 1,750만원을 투자하여 15년 계획사업으로 할 것을 구상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우선 매년 60만원씩 마련할 방안으로 25만원은 道路收益者負擔金 명목으로 주민 일반에 부과하고, 35만원은 國庫(總督府)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案, 京城府 및 高陽郡내에 있는 國公有地 전부를 도시계획 재원으로 이관케 해야 한다는 등의 안이 나왔지만 모두가 탁상공론이었다.

이 제1차 안의 윤곽이 보도되자 당시의 신문은 「幻想의」, 「夢想的」, 「꿈같은」 도시계획이라고 비웃었고 京城府協議會에서는 「탁상공론」이라는 비난이 빗발치는 가운데 당무자들은 우선 제1단계 추진안이라는 제2차 안, 말하자면 實行案을 또 하나 마련하고 있었다.

아마 1926년 하반기 경부터 작업에 들어가서 1927년 말경에는 성안 완료된 것으로 추측되는 제2차 안은 1928년 9월에 「京城都市計劃資料調査書」라는 책자로

발간하고 있다.[1] 1927년을 기준년도로 하고 55년을 목표년도로 한 이 안은 제1안에 비해서 그 구역범위가 훨씬 축소되었고 그 계획내용도 훨씬 빈약하다. 특히 그 구역범위를 漢江 이북으로 국한한 때문에 永登浦 일대는 당연히 제외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렇게 규모가 축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京城의 東南部였던 高陽郡 漢芝面의 전역과 東部 및 東北部에 위치한 崇仁面 22개 洞里중 그 반수인 11개 洞里가 計劃區域 범위내에 들어가 있다. 이때 崇仁面내에서 구역범위내에 들어간 11개 洞里는 아래와 같다.

安岩里·鍾岩里·敦岩里·城北里·新設里·龍頭里·祭基里·清涼里·踏十里·典農里·回基里

당시 이 제2안이 구상한 區域豫定圖는 〈그림 1〉과 같다.

市街地計劃令이 발표되기 이전의 京城府 都市計劃 최종안 즉 제3차 안은 「京城都市計劃書」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제2차 안이 「京城都市計劃調查書」라는 이름이었는데 1930년 3월에 발간된 제3차 안은 처음으로 계획서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1928년의 京城都市計劃資料調查書가 469면일 뿐 아니라 종이질도 두꺼운 것을 써서 비교적 큰 책인데 대하여 30년의 京城都市計劃書는 259면인데다가 종이 질도 두껍지 않아 전자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책자인 것이 특색이다. 또 전자의 발행처가 京城府인데 대해 후자의 발행처는 朝鮮總督府 내무국 토목과로 되어 있다. 불과 1년 6개월의 시차를 두고 발간된 이 두개의 계획서를 두고 일일이 그 異同을 찾으면 대단히 많을 것이나 두드러진 차이는 1930년 案은 그래도 계획서로서의 체제를 갖추어 街路·公園·給水計劃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計劃區域에 있어 전자에 비해 후자의 면적이 약 266만평 정도 더 넓다. 그 결과 1928년 제2차 계획안에 포함되었던 崇仁面內 11개 洞里가 모두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그때는 제외되었던 里門·徽慶의 2개 洞里까지 포함되었다.

둘째, 計劃 目標年度가 전자는 1955년이었는데 대해 후자는 1959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基準年度는 동일하게 1927년이며 目標人口도 70만으로써 거의 동일

1) 京城府, 1928년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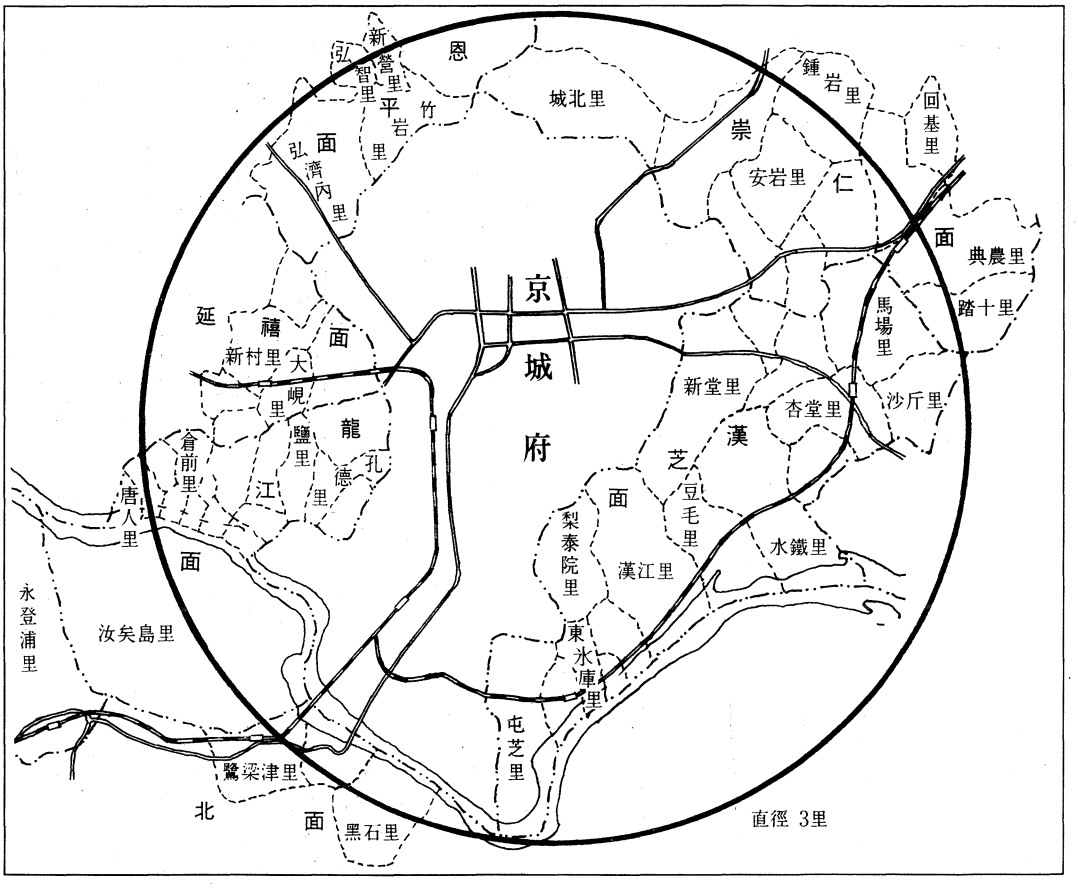
하다.

세째, 전 計劃面積중 住居可能地域 77,752,600m²를 住居·商業·工業·未指定의 4개 地域으로 구분했는데 당시의 城北地域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東部 漢芝面·崇仁面은 중앙에 淸溪川이 관류하여 평탄한 토지를 가졌으며 京元線이 남북으로 종관하여 금후 자연적으로 시가지로 발전할 지대이다. 지역의 구분으로는 東大門밖 및 京城－五里津線, 京城－江陵線의 沿道 양측지대 그리고 淸涼里정거장 부근은 商業地域으로 하고 鐵道線路의 양측은 工業地域으로 하며 淸溪川 右岸인 往十里는 未指定地域으로 한다.

네째, 모두 192개의 街路計劃線을 계획하여 그 가로번호·시종점·통과지·노폭·연장 및 면적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날의 城北區內와 관계되는 노선은 13개에 불과하였으며 3, 4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노폭 15m 또는 11m

〈그림 1〉　　1928년 京城都市計劃(제2차 案) 區域圖



의 支線들 뿐이었다. 그 내역을 소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다섯째, 計劃區域內에 모두 38개 5,528,600m²의 近隣公園·兒童公園을 배치하였는데 오늘날의 城北地域에는 단 한개의 공원도 배치하지 않고 있다. 아마 당시는 오늘날의 城北洞·敦岩洞·安岩洞 등지 일대가 山林이 우거져 그 일대 자체가 자연공원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근린공원이나 아동공원의 설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때문이었던 것 같다.

이상 1920년대 후반기에 京城府와 總督府 土木課는 연거푸 세개의 都市計劃案을 성안·발표하였고 그 3개 案의 계획구역 내에는 오늘날 城北地域중 미아리와 貞陵里를 제외한 나머지의 지역은 예외없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계획안들은 모두 死案이 되어버리고 하나도 실현에 옮겨지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버린 이유는 여러가지로써 매우 복합적이었지만 대체로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당시 日本의 中央政府의 주된 흐름이 農業·農村中心의 정책을 중시하여 都市計劃같은 것은 하나의 사치로운 시책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植民地인 朝鮮의 都市計劃 같은 데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둘째, 總督府 高官들 또한 植民政策 수행의 財源이었던 이른바 國有地를 都市計

〈표 1〉 1930년 都市計劃案 城北地域 街路計劃

路線番號	起 點	通 過 地	終 點	路幅	延長(m)	面積(m²)
31	昌慶苑앞	敦岩里地區	新設里地內	24	4,000	96,000
34	平山牧場부근		敦岩里地內	24	1,100	26,400
37	安岩里地內	祭基里地內	祭基里地內	24	1,450	34,800
62	新設里地內		安岩里地內	20	600	12,000
103	敦岩里地內		安岩里地內	15	1,200	18,000
104	安岩里地內		清涼里地內	15	1,550	23,250
150	惠化洞		城北里地內	11	1,000	11,000
151	城北里地內		敦岩里地內	11	1,050	11,550
152	城北里地內		城北里地內	11	250	2,750
155	敦岩里地內		新設里地內	11	1,050	11,550
156	敦岩里地內		敦岩里地內	11	600	6,600
159	龍頭里地內		安岩里地內	11	150	1,650
160	安岩里地內		安岩里地內	11	300	3,300

劃 재원으로 쓸 의사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는 점.

세째, 都市住民 중 韓人들의 생활은 극도로 빈곤하여 收益者負擔의 능력이 없었다는 점.

네째, 그렇다면 결국 日人들, 韓半島를 지배했던 재력있는 일인들만의 부담으로 돌아가는데 그들 역시 그러한 거액을 부담할 의사까지는 없었을 것임은 분명한 일이었다.

1920년 초부터 일기 시작하여 1926년 경에 절정에 달했고, 1928·29년 경까지 계속된 韓半島 都市計劃의 研究·調査, 法令案 작성, 計劃案 작성 등등의 작업은 이상과 같은 내외의 냉담한 반응 그리고 재원조달의 곤란 등의 벽에 부딪쳐 결국은 좌절되고 말았던 것이다.[2)]

2. 朝鮮市街地計劃令과 京城市街地計劃

1) 京城市街地計劃 告示의 경위

오늘날의 都市計劃法에 해당하는 「朝鮮市街地計劃令」이 제정·발포된 것은 1934년 6월 20일자 總督府 制令 제18호에서 였고, 이어서 동년 7월 27일자 총독부령 제78호로 동령 시행규칙도 발포되고 있다. 이렇게 市街地計劃令이 발포 시행되었으니 그 최초의 적용은 당연히 京城府와 그 근교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했을 것이니 京城이 이 땅안의 首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령이 최초로 시행된 것은 咸鏡北道 羅津邑이라는 소읍이었고 京城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계획령을 발포한 이유자체가 羅津邑의 개발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羅津邑은 1931년에 日本軍隊가 일으킨 이른바 만주사변으로 日本의 사실상 식민지가 된 滿洲땅의 무진장에 가까운 자원을 일본 본토로 실어가고 또 일본의 공업제품을 만주로 가져가서 滿洲人에게 팔아먹기 위한 輸送港口로서 日本에서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良港이었으며 이 이름없는 소읍을 土地補償金을 들이지 않고

2) 이상 日帝下 市街地計劃令 제정·공포 이전의 都市計劃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孫禎睦 저, 日帝强占期 都市計劃研究, 一志社, 1990년, pp.98~176에 의함.

구획정리의 수법에 의해 빠른 시일내에 개발하기 위해서 朝鮮市街地計劃令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朝鮮總督府는 계획령을 발포한지 5개월 후인 1934년 11월 20일자로 羅津市街地計劃에 관하여 하루만에 계획구역 결정, 가로 결정과 토지구획정리지구 결정을 모두 해치웠을 뿐 아니라 그 날짜로 羅津邑長에게 사업시행명령까지 내리고 있다.

市街地計劃令에 의한 京城市街地計劃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36년에 처음으로 공포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도 우선 3월 26일자 總督府 告示 제180호로 계획구역을, 이어 12월 26일자 총독부고시 제722호로 계획가로와 土地區劃整理地區를 고시하였고, 地域制는 3년이 더 지나간 1939년 9월 18일자로, 公園計劃은 1940년 3월 12일자로 고시하는 등으로 늑장을 부리고 있다.

2) 京城市街地計劃區域과 城北地域

朝鮮總督府는 1936년 3월 26일자 고시 제180호로 京城市街地計劃區域을 발포하였다. 그 계획구역 면적은 135,640,000m², 목표년도를 1960년까지의 30년으로 하고 계획인구는 110만이었다.

京城府는 이 市街地計劃區域 발표에 앞선 1936년 2월 14일자 朝鮮總督府令 제18호로 동년 4월 1일부터 행정구역을 대폭 확장 실시키로 결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京城府市街地計劃구역을 「京城府 관할구역 일원」으로 고시하였으니 당연히 高陽郡 漢芝面·崇仁面·龍江面 등 새롭게 경성부에 편입된 지역은 시가지 계획구역내에 포함되었고 蠶島面등 구역확장에서 제외된 지역은 시가지계획구역에서도 제외되었다. 이때 종래의 崇仁面내에서 京城府 市街地計劃 구역내에 포함된 洞里名은 아래와 같다.

城北里·安岩里·敦岩里·鍾岩里·新設里·踏十里·典農里·清涼里·回基里·
祭基里·徽慶里·里門里·龍頭里 이상 13개 里

이렇게 종전 崇仁面내 13개 里洞을 市街地計劃區域내에 포함시켰으나 이 구역 결정 당시에는 아마도 敦岩地區 구획정리사업 등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인지 城北·敦岩 등 東北지역의 지형·지세 등은 전혀 언급함이 없고 東部인 清涼里를 중심으로 그 부근의 지형·지세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地形·地勢중 ① 淸涼里 附近

이 지역은 京城府의 동방에 연결되어 京城 五里津線 道路(춘천가도)에 연하며 京元線 철도의 淸涼里驛이 있다.

京城府廳으로부터 약 6km를 벗어나 십여방간에 긍한 일대의 평지로서 남으로는 청계천을 격하여 往十里에 대하고 동으로는 中浪川을 격하여 楊州郡 九里面과 高陽郡 蠶島面에 대하고 北邊에 丘陵이 있으나 표고 70m 이상의 부분은 그다지 많지 않으며 지역의 北端을 京元線 1등도로가 통과하고 있다. 또 이 지구의 중앙에는 城北里 부근으로부터 유출되는 貞陵川이 있다.

地域內에 포함되고 있는 主要里는 鍾岩里, 祭基里, 龍頭里, 新設里 등으로서 장래 東部市街地의 중심을 이루는데 족하고 居住地域, 商業地域은 일부 工業地域으로서 適好의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장래 京城府市街地計劃 구역이 또다시 狹隘感이 있을 경우 東方 中浪川을 건너서면 中浪川 연안으로부터 忘憂里 嶺下에 연하는 광막한 평지가 있어 여기에 발전의 여지를 가졌다.

또 이 시가지계획 구역의 결정에는 「都心으로부터 1시간 거리내」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당시에 서울市廳 起點 각 洞里의 시간거리에 관한 설명과 崇仁面내 각 洞里의 時間거리 산출결과를 〈표 2〉로 소개키로 한다.

※ 交通連絡時間(설명)

都市의 구역은 交通連絡上 都心으로부터 대체로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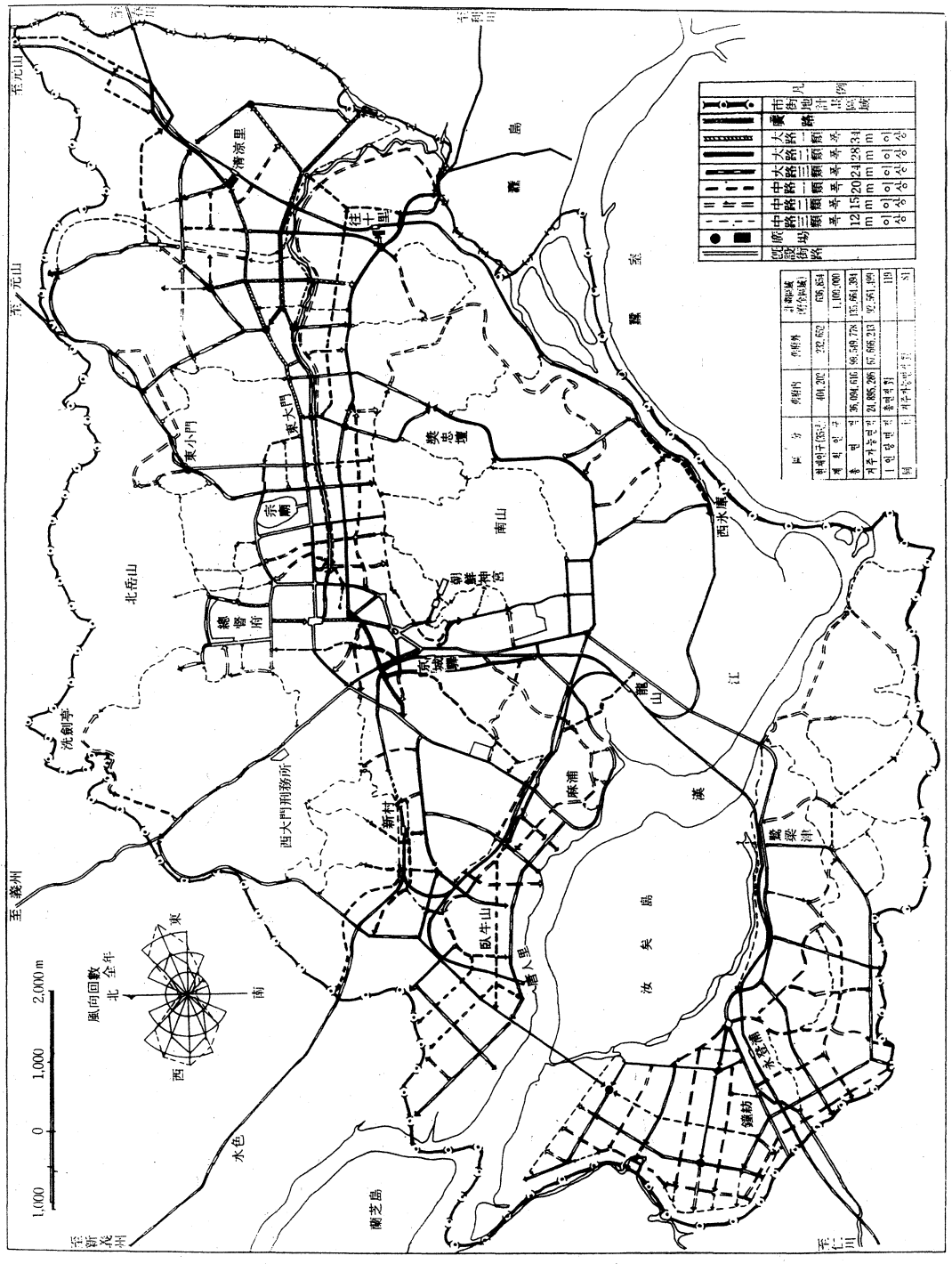
京城府廳 소재지를 都心으로 정하고 여기서부터 현존의 一般 交通機關인 電車, 乘合自動車 및 步行으로 관계 各里에 도달하는 시간을 산출하면 다음 제8표와 같다.

淸涼里方面에 있어서는 가장 먼 里門里가 1시간, 徽慶里·回基里 등이 50분 이내, 往十里方面에 있어서는 가장 먼 沙斤里가 49분, 南山襄面 漢江里가 48분, 北面 鷺梁津里 40분, 北面 銅雀里 1시간 5분, 永登浦里 49분, 그 南方인 道林里가 1시간 20분, 陽東面 楊花里 1시간 29분, 麻浦下流, 延禧面 望遠里 1시간 23분, 新村驛 42분, 弘濟外里 45분, 洗劍亭 1시간으로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중에 道林里, 楊花里, 望遠里 등은 현재 대부분 徒步이기 때문에 1시간 20분 내외를 요하나 市街地 計劃道路의 신설에 수반하여 乘合自動車를 통행시킨다면 1시간 도달가능한 지역으로 할 수 있다. 즉 交通連絡上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前記 市街地 計劃豫定區域은 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街路網計劃과 城北地域

이상과 같이 1936년 3월 26일 京城府 市街地計劃區域을 고시한 總督府는 그로부터 꼭 9개월이 경과한 1936년 12월 26일자 總督府 告示 제722호로 計劃街路網과 土地區劃整理를 결정·고시한다. 計劃街路의 내용은 광로(노폭 53m) 1개, 대로 1류(노폭 35m) 4개, 대로 2류(노폭 30m) 18개, 대로 3류(노폭 25m) 33개, 중로 1류

〈그림 2〉 京城市街地計劃 街路網圖(1936년)



〈표 2〉　　隣接 邑面 各里 京城府廳으로부터의 距離 및 到達時間중 崇仁面 관내

府　郡	邑　面	里	最近距離 (m)	最遠距離 (m)	平均到達時間(時分)	備　考
高陽郡	崇仁面	城北里	3,050	4,400	40	
		新設里	3,800	4,600	25	
		安岩里	4,360	5,850	40	
		鍾岩里	5,400	6,800	51	
		敦岩里	3,200	6,150	30	
		貞陵里	4,200	7,800	1.20	
		焚　里	7,750	9,650	1.28	
		水踰里	6,900	9,800	2.20	
		牛耳里	8,350	12,700	3.00	
		踏十里	6,200	8,050	50	
		典農里	5,830	8,200	45	
		清涼里	6,000	7,100	40	
		回基里	6,000	7,600	51	
		徽慶里	7,100	8,700	58	
		里門里	7,450	9,400	1.00	
		長位里	7,300	9,400	1.20	
		右串里	7,600	9,900	1.00	
		上月谷里	7,300	8,700	1.10	
		下月谷里	6,000	7,700	1.05	
		祭基里	5,000	6,250	38	
		龍頭里	4,500	5,300	30	
		彌阿里	5,600	8,800	1.10	

비고 : (A) 距離는 都心(京城府廳)으로부터 直線距離

(B) 到達時間

電車……시속 13.0km, 步行(평지)……시속 5.5km(山地道 없는 경우)…시속 1.8km

(C) 乘換時間은 各線 發車間隔의 1/2을 채택.

(노폭 20m) 35개, 중로 2류(노폭 15m), 중로 3류(노폭 12m) 70개 노선으로 도합 220개 노선이었는데 그중에서 城北地域을 기점·종점 또는 통과지점으로 하는 노선은 大路 3류(노폭 25m) 4개, 중로 1류(노폭 20m) 1개, 中路 2류(노폭 15m) 5개, 中路 3류(노폭 12m) 2개 등 도합 12개 노선이었다(〈표 3〉). 또 계획구역내에 모두 19개의 광장(면적합계 169,250m²)을 배치하였는데 城北地域에는 安岩町 광장 1개(면적 7,800m²)만이 배치되었는데 불과하다.

〈표 3〉 城北地域의 計劃街路(1936년 12월)

等級	類別	番號	幅員	起點	終點	主經過地
大路	3류	7	25	苑南町	鍾岩町	敦岩町
〃	〃	8	25	新設町	祭基町	安岩町廣場
〃	〃	9	25	安岩町廣場	下往十里町	龍頭町
〃	〃	10	25	祭基町	鍾岩町地內京城府境界	
中路	1류	15	20	鍾岩町	回基町	林業試驗所南方
〃	2류	12	15	惠化町廣場	城北町	
〃	〃	13	15	敦岩町	城北町	
〃	〃	14	15	敦岩町	敦岩町	
〃	〃	15	15	新設町	安岩町	
〃	〃	16	15	安岩町	祭基町	
〃	3류	20	12	安岩町廣場	開運寺前	
〃	〃	21	12	祭基町	鍾岩町	

4) 地域制와 城北地域

朝鮮總督府는 京城府 市街地計劃區域을 결정·고시한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1939년 9월 18일자 총독부 고시 제756호로 계획구역내의 地域制를 고시한다. 全 地域을 住居·商業·工業·未指定의 4개 지역으로 구분한 이 地域制는 地域決定 理由書와 地圖로 되어 있는데 이 지도에 의하면 東小門 밖에서 미아리고개(市界)까지의 일대가 住居地域을 표시하는 黃色으로만 칠해져 있다. 즉 당시의 계획당무자들은 北漢山 南麓일대 즉 西로는 오늘날의 統一路에서 東으로는 中浪川까지에 이르는 서울의 북쪽일대를 閑靜한 주거지역으로 하고 일체의 상업기능·공업기능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린 것이었다. 아래에 당시의 地域制 決定理由書 主文과 地域別 面積對比表를 소개해 두기로 한다.[3]

※ 地域 決定理由

京城府의 地勢는 市의 남부를 漢江이 관통하고 北에는 北岳·仁旺·鞍山의 諸山이, 南에는 南山·鷹峰이 聳立하고 山麓은 서로 相連하여 대개 丘陵을 이룩하고 舊 城壁내의 市街部 및 東方의 淸涼·沙斤·馬場·龍頭 各洞 일대와 南方의 龍山, 永登浦 일대 및 麻布以南의 漢江下流에 비교적 넓은 平坦地를 볼 수 있다.

3) 前揭書, pp.81~83 및 p.82에 붙어 있는 原色地圖 참조.

市街의 舊 市街部分은 이미 飽和狀態가 되었으며 점차 前記한 平坦部를 향하여 발전하고 또 발전하려는 추세에 있는 외에 住宅은 四圍 山麓의 高燥地帶에 현저히 증가되어 가고 있다.

四季의 風向은 春夏節의 西風 및 西南風, 秋季는 東北東, 冬季의 西北西를 最大風向으로 하고 있다.

지금 市街의 상황 및 발전의 추세에 따라 地域을 안배하면 南大門路 및 乙支路를 중심으로 하여 東은 乙支路 5가, 西는 太平路 및 서울驛, 北은 鐘路, 南은 南山麓에 이르는 사이에 현재 銀行, 會社, 商店 등이 連擔櫛比하여 商業이 은성할 뿐만 아니라 장래도 또한 市中의 중추로서 은성을 이루게 될 것이므로 商業地域으로 하는 외에 龍山, 元曉路(彌生町) 및 龍門洞(大島町) 부근, 永登浦驛前 부근, 新設洞의 京城府 東部出張所 부근 및 淸涼里驛前 부근의 각 일대는 현재에 商業이 번성하지 않다 할지라도 장래 발전의 가능이 있으므로 인하여 商業地域으로 한다.

龍山驛 후편의 旭川에 이르는 부분 및 永登浦 堤防內의 平坦地에는 이미 큰 工場이 건설되어 있는 외에 典農洞·沙斤洞의 淸溪川 이북의 地區 및 里門洞, 徽慶洞의 京春道路 以北地帶와 더불어 土地 평탄하며 交通 運輸가 편리하고 用水·風向 등의 관계를 고려컨대 工業의 適地라 인정됨으로 이상의 各 一團地를 工業地域으로 지정한다.

또 이상 工業地域에 접하는 부분 및 麻布 以西의 漢江沿岸 일대는 비교적 경미한 工業用地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됨으로써 未指定地로 하고, 이상의 殘餘部分은 주로 土地가 高燥하고 風光이 비교적 佳良하며 丘陵에 접하는 地帶는 住居地域으로 지정한다.

또한 현재의 情況 및 장래의 발전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각 지역내 主要道路의 양측에 建築物의 一筆地를 商業地域으로 하여 부근 발전의 중심으로서 日常生活의 利便에 대비함이 적당하다.

이와같이 해서 算定된 各種地域의 面積을 比較하면 槪略 다음과 같다.

地域面積對比表

地　域	面　積(m^2)	百分比(%)	備　考
住居地域	92,131,999	68.0	
商業地域	5,991,350	4.4	
工業地域	6,658,075	4.9	
未指定地	30,573,608	22.7	
計	135,355,032	100.0	

그리고 이때의 市街地計劃에서 처음으로 路線商業地域이라는 것이 채택되어 주요 간선도로변이면서 상업지역이 아닌 곳은 그 간선도로에 沿한 양측 대지의 한

필지에 한하여 商業機能을 갖도록 하였다. 당시 城北地域의 路線商業地域은 앞서 街路網계획표에 의한 大路 3류 7번 즉 苑南洞~鍾岩洞까지, 그리고 大路 3류 8번 중 新設洞~安岩洞 광장에서 7번 가로 합치점까지가 지정되어 있다. 오늘날의 街路名에 의하면 東小門路와 普門路의 양측이 노선상가였던 것이다.



현재의 잘 정비된 종암로 일대

5) 公園·風致地區計劃과 城北地域

朝鮮總督府는 1940년 3월 12일자 총독부 고시 제208호로 京城府內의 計劃公園 140개를 고시하고 關係圖面을 京城府廳에 비치하고 일반의 공람에 供하고 있다. 그들이 공원계획을 하는데 있어서는 시가지 계획구역 총면적 약 13,535.5ha(40,945,000평)의 약 10%인 1,353.5ha(4,094,000평)의 기준과 계획인구 110만명의 1인당 소요면적 20m²로 하여 2,200ha(약 6,655,000평)의 기준을 세웠으며 또 그 배치에 있어서는 大公園의 배치간격을 3,600m로 하여 市街地 면적 약 1,300ha 마다에 1개소씩, 近隣公園은 그 간격을 1,800m로 하여 市街地 면적 324ha 마다에 1개소의 배치를 기준으로 연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준은 이상에 끝났고 실제에 있어서는 土地取得의 難易 또는 地形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위의 기준에 합치시킬 수 없었다고 실토하고 있다. 결국 그들이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한 것은 대공원 17개, 근린공원은 독립된 것 23개소와 대공원과 병치된 것 16개를 합하여 합계 39개소, 그리고 아동공원은 독립된 것 86개소 및 대공원·근린공원과 병치된 것 39개소를 합쳐서 계 125개를 배치하고 있다.

이 밖에 道路公園(총면적 1,381.2ha)과 서울運動場, 昌慶苑·德壽宮 등 고궁공원을 합쳐서 모두 140개 총면적 13,807,980m²를 계획하여 계획구역 총면적의 10.2%, 계획인구 1인당 12.55m²를 얻고 있다.

이상 140개의 각급 공원중에서 城北區내에 포함되거나 城北區에 걸치는 것은 3번 駱駝山공원(자연공원, 東崇洞·敦岩洞·昌信洞 면적 55만 3천평)과 20번 敦岩 제1공원(근린공원, 敦岩洞地內, 2만평), 21번 돈암동 제2공원(근린공원, 돈암동지내, 3만 2천평), 22번 開運公園(근린공원, 안암동지내, 23만 4천평)의 4개와 3개의 道路公園이었으니 도로공원 3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129 開運道路公園 (開運公園－敦岩峴, 64,000평)

130 鍾岩道路公園 (敦岩峴－龍頭公園, 202,000평)

131 祭基道路公園 (開運公園－清涼公園, 28,000평)

朝鮮總督府는 1941년 3월 25일자 총독부 고시 제337호로 京城府市街地計劃의 일환으로 風致地區를 고시한다. 朝鮮市街地計劃에 의한 당시의 風致地區는 오늘날의 그것과 달라서 綠地地域 또는 保存綠地地區와 비슷한 성격의 것이었다. 즉 풍치지구로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土地의 형질변경이라든가 建物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土石의 취급 등이 금지되거나 극도로 억제되었다(計劃令 제21조 및 동 시행규칙 제99·106·107). 이때 그들은 風致地區를 지정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都市가 발전함에 따라 近郊地의 田野는 점차 개발되어서 市街地化한다. 地價가 앙등함에 따라 산림의 수목은 벌채되어서 택지로 화하고 私有權이 존재하는 곳도 史蹟 기타 景勝地라 할지라도 점차 그 자취를 잃어 가옥의 밀집지대로 변하여 현저히 도시의 풍치를 汚損하고 空氣의 정화작용상 필요한 綠地는 극도로 부족을 초래하게 한다.

따라서 市民의 위생상은 물론 정서상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산림의 개발은 비록 風致를 해침에만 그치지 않으며 豪雨에 제하여는 土砂崩壞의 원인이 되어 大洪水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또 가옥의 밀집은 空襲時에 있어서 피해를 증대하는 결과도 되며 보안상에 미치는 영향과 원인으로서 市街地計劃令은 시가지계획 구역내에 풍치지구를 지정하여 그 구역내에 있어서 竹木·土石의 채집, 地形의 변경 또는 風致를 해치는 건축물의 축조에 대해서 극도의 제한을 가하게 함으로써 都市의 風致保存에 기여할 수 있게 길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들 風致地區에도 甲種과 乙種의 두가지가 있어 지정의 이유와 범위가 달랐는데 양자의 차이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A. 甲種區域

가. 保護區

ㄱ. 標高 70m 이상을 점하는 토지

ㄴ. 社寺의 境內 및 그 부근지

ㄷ. 寶物·古蹟·名勝·天然紀念物의 부근으로서 風致保存上 필요한 토지

ㄹ. 一定度 이상의 傾斜地(20도 이상)

나. 勝景區

ㄱ. 특히 풍경 佳良한 토지(水面 포함)

ㄴ. 眺望 絶佳한 토지

B. 乙種區域

가. 林野 및 農耕區

ㄱ. 갑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이외의 林野(防風林·防水林 등을 포함)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소

ㄴ. 前項의 구역 및 甲種區域에 관련되는 농경지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소

나. 宅地區

ㄱ. 풍치 가양한 주택지 및 동 예정지

ㄴ. 官公署 會社 등으로서 空地가 많은 곳

다. 修景區

ㄱ. 公園, 準公園 및 그 부근지

ㄴ. 전항의 예정지

이상과 같은 취지아래 그들은 北岳 및 城北風致地區, 貞陵風致地區 등 모두 20개 지구, 총면적 38,562,300m²(甲種 24,101,300m² 乙種 14,461,000m²)를 風致地區로 지정하고 있는데 城北區 관내에 포함되거나 城北區에 걸치는 것은 아래의 〈표 4〉에서와 같은 네개 지역이었다. 城北洞 뒷산에서 敦岩洞－미아리고개－駱駝山 일대에 이르는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 이때에 風致地區로 지정되었으며 그 중의 적지않은 부분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표 4〉　1941년에 지정된 城北區 관내의 風致地區

番號	名稱	位置	區域	指定面積		
				總面積	種別面積	
				(m²)	甲種(m²)	乙種(m²)
1	北岳 및 城北 風致地區	北岳을 中心으로 山林地	清雲洞 宮井洞 嘉會洞 桂洞 苑西洞 惠化洞 明倫洞 1 街 明倫洞 3 街 三清洞의 各 1部 蓮建洞 城北洞	4,548,600	4,529,900	18,700
2	貞陵風致地區	敦岩洞北部山林地	敦岩洞一部	550,600	375,000	175,000
3	改運寺風致地區	安岩洞山林一帶	敦岩洞 鍾岩洞各一部 安岩洞의 大部分	1,518,400	977,000	541,400
4	駱駝山風致地區	駱駝山一帶	東崇洞 梨花洞 忠信洞 昌信洞 崇仁洞 新設洞 敦岩洞의 各 一部	952,800	361,000	591,800

3. 서울 최초의 敦岩地區 區劃整理事業

1) 日本의 土地區劃整理事業과 韓半島에의 導入

日帝下 韓半島 市街地計畫의 주축을 이룬 것은 土地區劃整理事業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土地區劃整理事業 이외에는 市街地計畫事業을 추진하는 수단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추진하는 자체의 비용이 없었고 國庫에서의 보조도 기대할 수 없었으니 土地區劃整理事業에 의존할 수밖에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일본 본토에서도 사정은 동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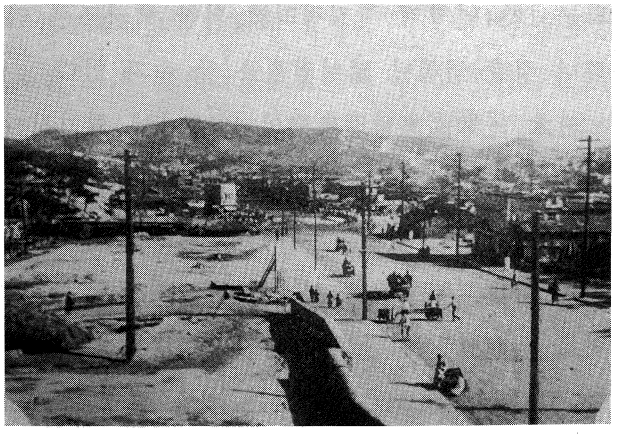
1920~30년대에 걸쳐 日本政府내 일부의 少壯 內務官僚들이 都市計畫에 대단한 熱意를 쏟았으나 政府內의 다른 部處들, 農商務省·國防省·大藏省 등에서는 극히 냉담한 태도를 취했고, 따라서 少壯 內務官僚들의 의도가 좌절되고 벽에 부딪칠 수밖에 방법이 없었다. 문제는 도시계획을 추진할 경비조달이 어려웠던 때문이었던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1919년에 日本 都市計畫法을 제정·발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하는 비용의 뒷받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少壯 內務官僚들이 찾게 된 방법이 土地區劃整理였었다.

이 방법은 「土地의 買收도 없이 關係地域의 地主로부터 토지를 공출케하여 道路用地 등을 취득하려고 하는 값싼 都市改造手法」 또는 「값싼 公共施設 整備手法」이었다.

日本에 있어서의 土地區劃整理는 1897년의 「土地改良에 관한 件」에서 비롯된다고 하며 1909년에 耕地整理法이 제정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한다.

1894년에 일어난 清日戰爭과 1904년에 일어난 露日戰爭으로 일본의 資本主義가 생성·발전함에 따라 工場用地·住宅用地 등의 宅地需要가 증가되면서 원래는 不整形한 농경지의 정리를 목적으로 입법된 耕地整理法이 都市의 宅地整理에 이용되게 된 것이다.



1930년대 말 돈암리 일대

日本에서 土地區劃整理制度가 정식으로 도입된 것은 1919년에 제정된 都市計畫法에서부터였고 그때부터 土地區劃整理는 이제까지의 耕地整理에 의한 단순한 택지조성 수단에 그치지 않고 都市

計畫 수단, 公共施設整備 수단으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土地區劃整理가 정식으로 제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에도 日本의 都市에서는 오래도록 耕地整理法에 의한 택지조성이 더 성행했다고 한다. 이렇게 都市計畫法上의 土地區劃整理에 의하지 않고 耕地整理로 宅地가 조성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區劃整理가 都市計畫法上에 규정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절차규정의 제정이 늦어진 때문이었다. 土地區劃整理를 수행하기 위한 附屬法令이 모두 갖추어진 것은 1925년이었다.

둘째는 都市計畫으로 시행되는 土地區劃整理는 都市計畫이 적용되는 都市여야 하는데 日本政府가 都市計畫法의 적용에 인색하여 1923년까지는 겨우 東京·大阪·京都·名古屋·橫濱·神戶의 6대 都市에만 적용하였고 1923년 7월에 그 適用都市를 크게 늘렸으나 그래도 겨우 25개 都市에만 이를 적용한 데 그쳤으므로 그 밖의 都市에서의 土地區劃정리는 경지정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세번째의 이유가 가장 큰 것이었는데 土地區劃整理에 의하는 것보다 耕地整理에 의한 쪽이 융자·보조금과 減步節次 등이 유리하였다는 점이다. 土地區劃整理에 경지정리와 동일한 低利融資의 길이 열린 것은 1928년부터였다고 한다.

日本의 都市計劃 區域내에서 경지정리의 시행이 금지된 것은 1931년에 耕地整理法이 개정된 이후부터의 일이었고 그때부터는 土地區劃整理事業이 都市整備의 주된 수단으로 정착한다. 그런데 日本에서 도시계획 구역내 경지정리 시행이 금지되는 1931년까지 경지정리에 의한 택지조성 면적은 약 331km^2(1억 평)에 달했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넓이였음을 알 수가 있다.

日本 土地區劃整理事業의 발달에서 획기적인 계기가 된 것은 이른바 帝都復興事業이었다. 1923년 9월 1일에 일어난 關東大震災로 東京을 중심으로 한 日本의 수도권 일대가 잿더미가 되었고 1923년부터 시작하여 1928년까지의 6년간에 대대적인 帝都復興事業을 전개했다. 日本政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적은 경비로 所期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해(1923) 12월 24일자로 全文 12개 조문으로 된 特別都市計畫法이라는 것을 제정·공포하고 기존 密集 市街地내의 일종의 再開發事業을 土地區劃整理로 시행할 것을 결정한다. 이것은 密集 市街地에 있어

서의 土地區劃整理의 一大 실험이었으며 여기서의 경험을 통하여 토지구획정리의 이론과 기술이 정립되었다고 한다. 또 많은 토지구획정리 기술자가 양성되었고 이렇게 양성된 기술자는 사업종료 후에 전국각지로 흩어져 그후 일본 토지구획정리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帝都復興事業에 있어서의 구획정리가 기성 밀집 시가지에서 政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된 土地區劃整理였는데 비하여 기성 시가지 주변의 新開發 택지의 조성, 民間組合 주도의 토지구획정리가 발전한 것은 名古屋市를 중심으로 한 愛知縣에서였었다. 名古屋에서는 1907년의 名古屋 開港, 1911년 중앙선 철도 全線 개통과 보조를 맞추어 이미 1900년대의 초부터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지정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특히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군수산업의 발달로 일본의 자본주의가 크게 신장되면서 선박·차량·자동차산업이 名古屋의 시역 안팎에서 눈부시게 발전되고 그와 더불어 市의 교외부는 급속도로 발전해 갔었고 1921년에는 市域의 대확장이 이루어진다. 名古屋에서는 1926년까지에 이미 25개의 경지정리조합이 설립되어 3,406ha(1,023만 평)가 택지로 조성되었다고 한다.

名古屋 土地區劃整理는 1925년에 八事土地區劃整理組合이 그 제1호였고 1928년에는 名古屋市 구획정리·耕地整理聯合會가 土地博覽會라는 것을 개최할 정도로 성장하여 文字 그대로 「土地區劃整理의 名古屋」이라고 불릴 정도의 위치를 구축했다고 한다. 1945년의 終戰時까지 名古屋市內에서 설립된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수는 101개에 달하였고 그 施行面積은 5,263ha(약 1,580만 평)의 광역이었다고 한다. 名古屋 등지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土地區劃整理事業의 성과는 마침내 「區劃整理는 都市計畫의 어머니이다」라는 신조를 日本 都市計畫家들에게 심어 주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土地區劃整理事業은 日本 都市計畫 사업 수행의 거의 유일한 武器가 되었는데(都市計畫 추진의 현장에서) 그 이론적·실천적 계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名古屋市와 그것이 속하는 愛知縣 都市計畫課의 요원들이었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결성한 區劃整理研究會였다」고 한다.

처음에 名古屋 土地區劃整理를 주도한 것은 일찍이 日本의 區劃整理制度를 理論的으로 체계화하였으며 1910년대에 名古屋市 土木課長으로 재직한 岡崎早太郎

이었고 이 岡崎가 大阪으로 옮겨간 후에 名古屋 土地區劃整理事業을 주도하고 1935년에 區劃整理研究會를 구성·발족케 한 것은 愛知縣 都市計畫課 직원이었던 石川榮耀, 兼岩傳一의 두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石川이란 자는 1920년대 후반부터 제2차 大戰 종전 전까지 日本의 都市計劃·地域計劃의 이론과 실제를 거의 혼자서 이끌어갔던 인물이었고 兼岩은 日本 土地區劃整理事業의 理論面·實踐面에서 제1인자로 성장하고 있다.

프러시아의 Lex Adickes에서 示範을 땄으나 아직도 제도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유치하고 허술했던 土地區劃整理를 日本에 도입하여 당시 日本의 農村에서 시행되었던 耕地整理의 法制와 技法을 바탕에 깔아서 나름대로 체계화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게 한 「區劃整理研究會」는 「區劃整理」라는 이름의 會誌를 月刊으로 발간하여 그 연구결과를 日本全國에 전파하였고 전국 각 縣, 각 市에서 실무에 종사한 자들의 連帶에 큰 공헌을 했으며 또 區劃整理研究會 출신의 기술자들을 전국 각지에 전출 전파해 나갔다고 한다. 最盛期의 발행부수가 2천 부에 달했다고 하는 이 會誌의 머리에 다음과 같은 슬로건이 인쇄되어 있었다.

> 空想과 達辯으로 生活의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은 이제 그만이다. 책(册)을 山더미같이 쌓아두어도, 圖表를 만들고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도 그것은 그것만의 生活이 아닌가? 都市夢遊病患者가 될 수는 없다. 우리는 實現을 전제로 하여 都市計畫을 말한다. 區劃整理의 實務를 연구한다. 技術과 經濟의 理論을 배운다. 計畫에서 實行으로 作業을 통한 勝利에의 길, 雜誌 「區劃整理」가 나아갈 길.

1938년 10월 10일에서 12일까지의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6회 日本 全國都市問題會議에 참석했던 兼岩傳一은 最終日의 要約討議 때에 행한 즉석연설에서,

① 計畫은 실현되지 않으면 안된다(空想性의 배제).

② 計畫은 綜合研究에 의해 수립되지 않으면 안된다(獨斷의 부정).

③ 計畫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悠悠 百年計畫의 배격).

④ 그러므로 계획은 종합적 실현수단인 구획정리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道路至上主義의 배격).

라고 설파하여 區劃整理事業만이 도시계획을 실현하는 수단임을 강조하고 만장의

갈채를 받았다고 한다.

日本本土의 都市計畫事業이 경비 문제 때문에 土地區劃整理事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韓半島의 시가지계획에서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할 수 없었다. 1934년에 발간된 京城府行政區域 擴張調查書에 의하면 調查最終年度인 1932년도의 京城府 歲入決算額은 經常部(일반회계)가 3,958,982원, 臨時部(특별회계)가 3,768,677원으로서 양자를 합하여 7,727,659원이었다. 또 같은 해 京城府내 토지 매매가격은 垈地 상·중·하로 나누어 1평(3.3m²)당 각각 600원, 350원, 100원이었다. 가령 그해 京城府 經常部 歲入總額으로서 都市計劃補償用 토지(대지)만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中等地 기준으로 1만 1,300평밖에 취득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그들이 당시 市區改正事業으로 京城府에 투하한 경비는 연간 약 51만원이었는데 이 금액으로 토지 보상비를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불과 1,500평분도 안 된다는 계산이 되는 것이었다. 사실상 총독부 당무자들은 1912~27년까지 계속한 京城府 市區改正事業費 총합계 1,125만원 중에서 실로 64%에 달하는 717만원을 용지보상비로 소비했다는 쓰라린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韓半島 市街地計畫을 획책할 당초부터 계획의 추진은 용지비가 들지 않는 토지구획정리 위주로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었다.

사실은 土地區劃整理 수법에 의하여 羅津市街地를 조성하기 위해서 「朝鮮市街地計畫令」을 서둘러서 제정 발포한 것이었으니 日帝下의 朝鮮市街地計畫은 土地區劃整理가 主였고 用途地域計畫, 街路計畫 등 그밖의 계획은 從이었던, 그와 같은 출발이었다.

당시 朝鮮總督府의 今井田 정무총감은 시가지계획령의 제정 작업을 하면서 앞서 소개한 日本 구획정리의 선도자였고 名古屋市 토목과장을 지낸 岡崎早太郎을 일부러 초빙해서 市街地計畫令의 초안작성을 의뢰하였다. 일본 구획정리의 발상지인 名古屋에서의 실무경험을 통하여 日本 都市計畫法上의 미비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岡崎는 日本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훨씬 상세하고 집무수행을 쉽게 하는 규정을 市街地計畫令에 담았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당시 일본에서 시행되던 都市計畫法에는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조문이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의 4개

조문, 都市計畫法 시행령에는 제15조에서 20조까지 6개 조문밖에 규정하지 않았는데 비해서 朝鮮市街地計畫令에서는 제3장 전부를 토지구획정리에 충당하여 제42조에서 제50조까지의 9개 조문, 市街地計畫令 시행규칙에서도 제3장 전부, 제139조에서 제150조까지의 12개 조문으로 늘려 놓았으니 토지구획정리가 日本 都市計畫法上에서 점한 비중에 비하여 朝鮮市街地計畫令에서의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岡崎가 計畫令 제정에 주된 역할을 하였고 토지구획정리가 朝鮮市街地計畫의 主宗이 되었으니 새로 발족한 總督府 內務局 土木課 都市計畫係와 京城府 內務局 土木課 都市計畫係(이것은 얼마 안 가서 工營部 都市計畫課로 승격한다) 등에 名古屋에서 토지구획정리에 종사했던 자들 즉 岡崎·石川·兼岩의 부하들이 대거 추천되고 참여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때 名古屋土地區劃整理 실무자 출신으로서 岡崎早太郎 등의 추천·권유로 朝鮮總督府, 京城府 등에 전임해 온 자는 瀧口巖, 木島条太郎, 安藤, 根岸情治 등이었다고 하며 瀧口는 總督府 土木課에 있으면서 전 조선내 각지의 토지구획정리를 지휘하고, 木島·根岸 등은 京城府가 실시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추진주체가 되었으며 羅津府에 있던 中村 技手도 名古屋土地區劃整理 출신이었다. 아마 羅津이나 咸興의 都市計畫을 주도했던 鈴木 正, 中川情照 같은 이도 名古屋 구획정리 출신이 아니었던가 추측된다.

2) 京城市街地計劃 區劃整理의 比重

朝鮮總督府는 京城府의 市街地計畫 區域을 고시한 9개월 후인 1936년 12월 26일자 總督府告示 제722호로 街路網計畫과 더불어 52,266,900m²(약 15,816,800평)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土地區劃整理地區로 확정·발표했다. 그들의 표현을 빌면 이 「土地區劃整理施行區域은 주로 郊外地의 비교적 가옥이 밀집되지 않은 곳이며 장래 시가지 또는 주택지로 이용될 약 1,600만평의 토지를 골라 國策으로써 이를 시행키로 하고 地形 기타의 상황에 따라 대체로 이를 30개 지구로 나누어 비교적 時急을 요하는 부분에서부터 순차로 실시 착공하는 방침으로써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이 때 그들이 정한 30개 지구와 그 사업예정 연도는 〈표 5〉와 같다.[4]

그들이 토지구획정리로 시가지를 조성하겠다던 30개 지구의 합계는 당시 京城

〈표 5〉 京城府市街地計畫 土地區劃整理 施行豫定 年次表

年 次	地區數	施行面積(평)	地 區 別 面 積(평)
1차 연도	3	2,790,300	永登浦 1,577,900 敦岩 713,900 大峴 498,500
2차 연도	3	1,909,500	新堂 426,300 漢南 829,500 龍頭 308,400 淸涼里 345,300
3차 연도	3	1,566,200	馬場 588,800 孔德 198,800 永登浦驛뒤 778,600
4차 연도	5	2,060,000	祭基 722,900 踏十里 775,000 往十里驛뒤 231,700
			新設 166,300 大興 163,600
5차 연도	3	1,950,000	徽慶 515,100 東橋 507,600 番大方 927,300
6차 연도	3	977,300	新村驛뒤 237,800 上水 248,300 番大方 491,200
7차 연도	3	1,238,700	弘濟 409,200 黑石 342,500 上道 487,000
8차 연도	4	2,076,300	里門 537,200 金湖 455,800 延禧 687,200 上道 396,100
9차 연도	2	1,068,700	望遠 789,500 銅雀 270,200
10차 연도	1	180,000	銅雀 180,000
합 계	30	15,817,000	

府 市街地計劃 구역면적 135,355,032m²에 대해 38.6%에 해당하는 광역이었으며 그들이 市區改正으로 가로망을 정비·확장한 舊 京城市域 면적 36,009,616m²의 실로 1.45배에 해당하는 넓이였었다. 즉 그들은 京城府 시가지계획 구역내에 포함된 전 구역중에서 市區改正事業區域(舊 市域)과 산림 또는 하천으로써 住居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의 거의 전역을 토지구획정리로 처리할 구상을 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1937년 3월 24일자 總督府告示 195호로 行政廳인 京城府尹으로 하여금 敦岩·永登浦 兩 地區의 施行命令을 한 것을 시발로 40년 3월까지에 모두 10개 지구의 시행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표 6〉과 같다.

行政區域 확정 전인 1935년 10월 1일 현재의 國勢調査 人口가 444,099인, 행정구역을 확장하고 시가지계획을 고시한 후인 36년 10월 1일 현재가 677,241인이었던 경성부 인구수는 37년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서 40년 10월 1일 현재로 실시한 국세조사 결과는 935,464인으로 껑충 뛰어올랐을 뿐 아니라[5] 그 후에도 계속 상

4) 高木春太郎「京城府に於ける土地區劃整理の狀況」, 都市計劃の基本問題(上), 全國都市問題會議事務局 1938년 발행, pp.355~356.

5) 1935년 國勢調査 人口는 國勢調査結果報告書, 40년의 그것은 41년 4월 18일자 官報 號外에 실린 總督府告示 제555호, 36년 인구수는 統計年報 36년도판에 의함.

〈표 6〉 京城府 土地區劃整理 시행명령 내용

地區名	面積(m²)	施行命令日字	工事完了期限	工事費(圓)	總督府告示號數
永登浦	3,223,000	37. 3. 24	40. 3. 31	3,450,000	제284
敦岩	2,363,000	〃	〃	2,342,000	〃
大峴	1,650,000	37. 11. 10	41. 3. 31	1,086,000	제787
番大方	1,242,320	39. 3. 22	43. 3. 31	840,000	제236
漢南	364,576	〃	〃	654,000	〃
沙斤	1,587,776	〃	〃	652,000	〃
龍頭	1,364,304	〃	44. 3. 31	1,494,000	〃
清涼里	1,105,363	40. 3. 14	45. 3. 31	1,711,000	제221호
新堂	1,501,697	〃	〃	1,891,000	〃
孔德	1,478,190	〃	〃	2,206,000	〃
計	15,880,226			16,326,000	

승하는 추세에 있었으니 宅地造成도 시급하였고 무엇보다도 도로 기타의 공공시설 확보가 급선무였던 것이다.

京城府의 직제는 구역 확장 하루 전날인 1936년 3월 30일자 訓令 제4호로 京城部處務規程을 개정하여 8개의 課로 하고 土木課에 都市計劃係를 신설하여 약 20~30명의 직원이 都市計畫 업무를 보고 있었으나 1937년 이후로 土地區劃整理 업무가 이렇게 폭주하게 되자 직원의 수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1938년에 府 직제가 또 한차례 개편되어 部制가 실시되자 土木課 都市計畫係는 工營部 都市計畫課로 승격되고 都市計畫課 전직원이 350명, 그중에서 土地區劃整理 사무에 종사한 직원이 근 300명이었다고 한다.[6]

1938년 현재 京城府 재정규모는 세입이 1,765만원, 세출이 1,665만원이었고 직원 총수가 3,500명이었다고 한다.[7] 토지구획정리 10개 지구 공사비 규모가 府의 1년간 총 재정규모와 비슷하고 도시계획과 직원의 수가 府 전체 직원수의 10분의 1을 점하고 있었으니 그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얼마나 힘을 기울인 것인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당시의 京城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정을, 그 업무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일본인 직원 하나가 本國에서 발행되던 잡지「區劃整理」에

6) 葱 青公,「區劃整理遍路記(4)」, 잡지 區劃整理, 1939년 9월호, p.70.
7) 大森 茂,「初めて見る京城區劃整理」, 잡지 區劃整理, 1939년 9월호, p.73.

다음과 같이 기고하고 있다.[8]

(前略)……여하튼 상황이 이러하였으니 300인 가까운 직원들도 「官公吏 행세」를 할 수가 없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헐헐거리면서 일과 죽음을 같이할 정도로 바쁘다. 이에 관하여 우스운 이야기 하나가 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일의 분량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미리 생각했던 만큼 일이 진척되지 않는다. 참다 못한 한 상사가 「電氣불 켜고 (밤에도) 측량을 하라」는 명령을 현장주임에게 내렸다는 것이다. 어이없는 이야기이다. 여하튼 京城府의 區劃整理는——朝鮮의 區劃整理라고 訂正해도 좋다——모두가 京城府 (行政廳)施行의 區劃整理이다……(中略)……行政廳이 시행하는 일이니 일일이 土地所有者의 意向에 따를 필요가 없다. (行政廳의) 뜻대로 마구 밀고 나갈 수 있는 뜻이다.……(中略)……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른바 官 獨善으로 우쭐대는 것도 결코 좋은 일이 못된다. 民意에 따르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童話에 지나지 않지 않은가. 몰인정한 일, 몰인정한 일.

이 일에 직접 종사한 일본인 중견직원이 「官獨善으로 우쭐댄다」고 표현한 데 이어 「没人情한 일」이라는 말로 되풀이해서 개탄하고 있으니 당시의 구획정리사업이 얼마나 강제적·강행적이며 官僚獨善이었던가를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그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사업의 성패 특히 整理工事를 마친 후에도 그것이 시내 중심에서 떨어진 郊外地域이기 때문에 入住希望者가 없어서 황무지로 남을까 하는 점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리하여 1939년 4월에는 京城府 都市計劃課 주최로 都市計畫展覽會라는 것을 개최하고 京城市街地計畫의 내용소개 특히 區劃整理事業의 利點, 區劃整理地區의 宅地로서의 매력 등을 선전하고 있다. 이 선전에서는 「大地는 미소짓는다」(大地は微笑む)라는 全 10景의 종이演劇(紙芝居)[9]을 만들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남편들끼리 한 회사의 동료이고 친구사이인 두쌍의 신혼부부중 한쌍은 郊外의 區劃整理地區內의 땅을 싼 값으로 사서 新築移住하여 행복하게 살게 되었고 다른 한쌍은 都心의 셋집에 그대로 남아 부인은 병들고 남편은 술주정뱅이가 되었다고 하는 줄거리였고 10매의 그림은 都市計畫課의 젊은 기술자가 그렸다고 한다.[10]

당시 京城府 都心計畫課의 高木春太郎이 1938년에 京城에서 개최된 全國都市問

8) 前揭, 葱 青公, 「區劃整理遍路記(4)」, pp.71～72.

9) 연극의 줄거리를 그림에 그려서 한장한장 뒤지면서 演士가 말로 설명을 한 것이며 日帝下에서 성행하였다.

10) 葱 青公, 「區劃整理物語——大地は微笑む」, 잡지 「區劃整理 1940년 1월호, pp.50～60.

題會議 제6회 總會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永登浦·敦岩·大峴 등 3개 지구 土地區劃整理事業의 실시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것은 3개 지구내에 도합 4,300동에 달하는 旣存家屋과 墓地·電住·地下埋設物 등 支障物의 이전과 그 補償費의 결정이었으며 특히 보상비를 지급할 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無斷占有 無許可建物 즉 소위 土幕民 部落의 정리를 위해서는 경찰서의 협력을 얻어서 설득했다고 한다.[11]

3) 敦岩地區 區劃整理事業의 추진과정

공사 착수가 빨랐던 敦岩·永登浦의 兩 地區는 공사의 진척도 빨랐다. 정리공사가 거의 70% 정도에 도달했던 1939년 봄부터 양 지구의 지주들은 정지완료된 토지를 매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토지구획정리 자체가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서 토지의 양도·양수측 모두가 부담금을 어떻게 내는 것인지, 減步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淸算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 地主측은 빨리 비싼 값으로 토지를 처분하고 싶어했고 京城府에서는 실 수요자에게 값싸게 공정하게 처분되기를 바랐다.

이 양도·양수에도 官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京城府는 都市計畫課 庶務係에 토지상담소라는 것을 설치하여 오늘날의 복덕방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고 토지의 양도를 희망하는 지주들에게 토지분양조합이라는 것을 구성하게 하였다. 6개 조문으로 된 執務內規까지 갖추어서 발족한 京城府 土地相談所는 우선 永登浦地區 土地分讓組合, 敦岩地區 土地分讓組合 指導造成方針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 방침에 따라 양 지구조합은 27개 조문에 달하는 組合規約을 작성하였다. 相談所와 兩 組合이 처음으로 한 일은 각 筆地마다의 양도가격 협정이었다. 즉 적정한 土地價格이라는 것이 京城府 직원의 지도하에 작성된 것이다. 이른바 협정가격이었다. 이 협정가격은 당시의 市價보다는 훨씬 싼 것이었다고 한다. 여기에도 일종의 官에 의한 강요가 적용된 것이며 大地主들은 거의가 日本人들이었고 또 당시는 中日戰爭이 한창 진행중에 있었으니 시국·국책이라는 口號아래 어느 정도의 강제가

11) 前揭 高木春太郎 論文, pp.363~364 ; 日帝下의 土幕집과 土幕民에 대해서는 孫禎睦, 「日帝下의 都市住宅問題와 그 對策」, 서울市立大學校 都市行政硏究, 1986 참조.

먹혀들었던 것 같다. 물론 府와 分讓組合간에는 3·4차례의 회합이 있었고 그 때마다 쌍방간에 격렬한 토론이 되풀이된 끝에 필지마다의 가격이 정해졌다고 한다. 土地價格 결정기준은 整理前 評價額+減步損+負擔金+利子+一般 地價上昇率 등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각 필지마다의 賣出價格이 결정되자 京城府는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팜플렛·포스터·立看板·신문광고·電車內 광고, 區劃整理展覽會 개최, 종이演劇(紙芝居) 상연, 그리고 당시 都市計畫의 최고 권위자였고 日本 內務省의 기사로 있던 石川 榮耀를 불러 강연회까지 개최하였다. 또 양도·양수자간의 매매계약에는 京城府가 작성한 소정의 계약서가 사용되었으며 「相談所에 있어서 알선에 관한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일일이 都市計劃) 課長까지 경유한 후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매매가 완료된 것은 그 경과를 갖추어 (都市計畫) 課長에게 보고할 것」(執務內規 제6조)으로 되어 있었으니 복덕방치고는 철저하고 면밀·주도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敦岩地區는 永登浦地區에 비해 비교적 빨리 매매가 되었는데 공업지역이었던 영등포지구보다 住宅地域이었던 敦岩地區의 필지의 넓이가 적었던 때문도 있었다. 敦岩地區의 택지분양은 주로 府內의 관청·회사·은행·학교·공장 기타 각종단체의 中流 이상 근무자를 목표로 선전을 전개하여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12]

4) 太平洋戰爭下 敦岩地區 區劃整理事業의 受難과 事業終了

日帝下에 韓半島내에서 실시된 토지구획정리사업중에서 敦岩地區 사업이 가장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왜냐하면 가장 빨리 착수했기 때문에 戰爭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은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敦岩地區 구획정리사업이 무난하게 아무런 곤란도 받지 않고 순탄하게 추진된 것만은 결코 아니었다. 즉 1939년에서 1942년 사이에 土地區劃整理事業 시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니 이

12) 이상 根岸情治, 「京城の區劃整理と土地の處分(1) (2)」, 잡지 區劃整理, 1940년 11, 12월호.

른바 각종 統制令의 제정·시행과 태평양전쟁의 발발이었다.

日本政府는 中日戰爭이 교착상태에 들어가고 국내경제가 점점 어려워진데다가 각종 물가가 급격히 뛰어오르고 심각한 물자 품귀상태를 빚게 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한다.

1939. 10. 18. 勅令 제703호 物價統制令

1939. 10. 18. 勅令 제704호 地代家賃統制令

1939. 10. 18. 勅令 제705호 賃金臨時措置令

1939. 10. 18. 勅令 제706호 會社職員給與臨時措置令

1940. 11. 20. 勅令 제781호 宅地建物等價格統制令

1941. 12. 8. 일본 진주만 기습공격, 태평양전쟁 발발

위에서 소개한 5개의 統制令 중에서 1939년 10월 18일자 勅令 제703~706호에 의한 네개의 統制令은 정부가 지정하는 각종 물자 및 상품의 가격과 땅세·집세(地代·家賃)·임금·급료를 1938년 12월 31일자 기준에서 통제·동결해 버린다는 것이었다. 또 40년 11월 20일자 勅令 제781호 宅地建物等價格統制令은 모든 택지 또는 건물의 가격을 1939년 9월 18일 기준에서 통제·동결해 버린다는 내용이었다. 이와같은 統制令들은 1938년 4월 1일자 법률 제55호 國家總動員法 제19조「政府는 戰時에 際하여 國家總動員上 필요할 때에는 勅令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價格·運送費·保管料·保險料·賃貸料 또는 加工賃에 관하여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宅地建物等價格統制令은 土地區劃整理事業의 시행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것이었다. 즉 이 統制令의 발포·시행과 동시에「土地의 매매가 급격히 정지되어」버렸으니[13] 土地區劃整理地區라 해서 예외일 수 없었다. 朝鮮내 전 시가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던 이 사업은 이 統制令에 부딪쳐 좌초되고 사실상 정지되어 버린 것이다.

우선 土地所有者의 입장에서 볼 때 매각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었던 땅은 최대한의 價値增殖을 목적한 不動産資本이었으니[14] 府가 정하는 저렴한 통제가격으

13) 根岸情治,「土地區劃整理と宅地建物等價格統制令の運用について」잡지 京城彙報, 1941년 11월호, pp.16~17.

14) 前揭 孫禎睦 著, 日帝强占期都市計畫研究, p.295.

로 땅을 처분할 생각이 없었다. 반대로 買收者측 사정은 모든 급료·임금 등이 통제되었는데다가 높은 暗市場 가격으로 생필품을 구입해야 했으므로 그날그날의 생활을 꾸려나가기가 곤란하였으니 집을 세울 땅마련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었다. 그때는 이미 민간에서는 집을 신축하려고 해도 목재·시멘트도 구할 수가 없었고 鐵材는 물론 심지어 못(釘)도 없어서 대(竹)못을 써야 할 형편이었다.[15]

민간인과의 거래가 정지되어 버린 상태하에서 유일한 손님은 1941년 6월에 설립된 朝鮮住宅營團이었으며[16] 營團은 그해 下半期에 番大地區에서 16,513평, 永登浦地區(현 文來洞)에서 22,776평, 敦岩地區에서 13,803평 등 적지 않은 토지를 매입하였다.[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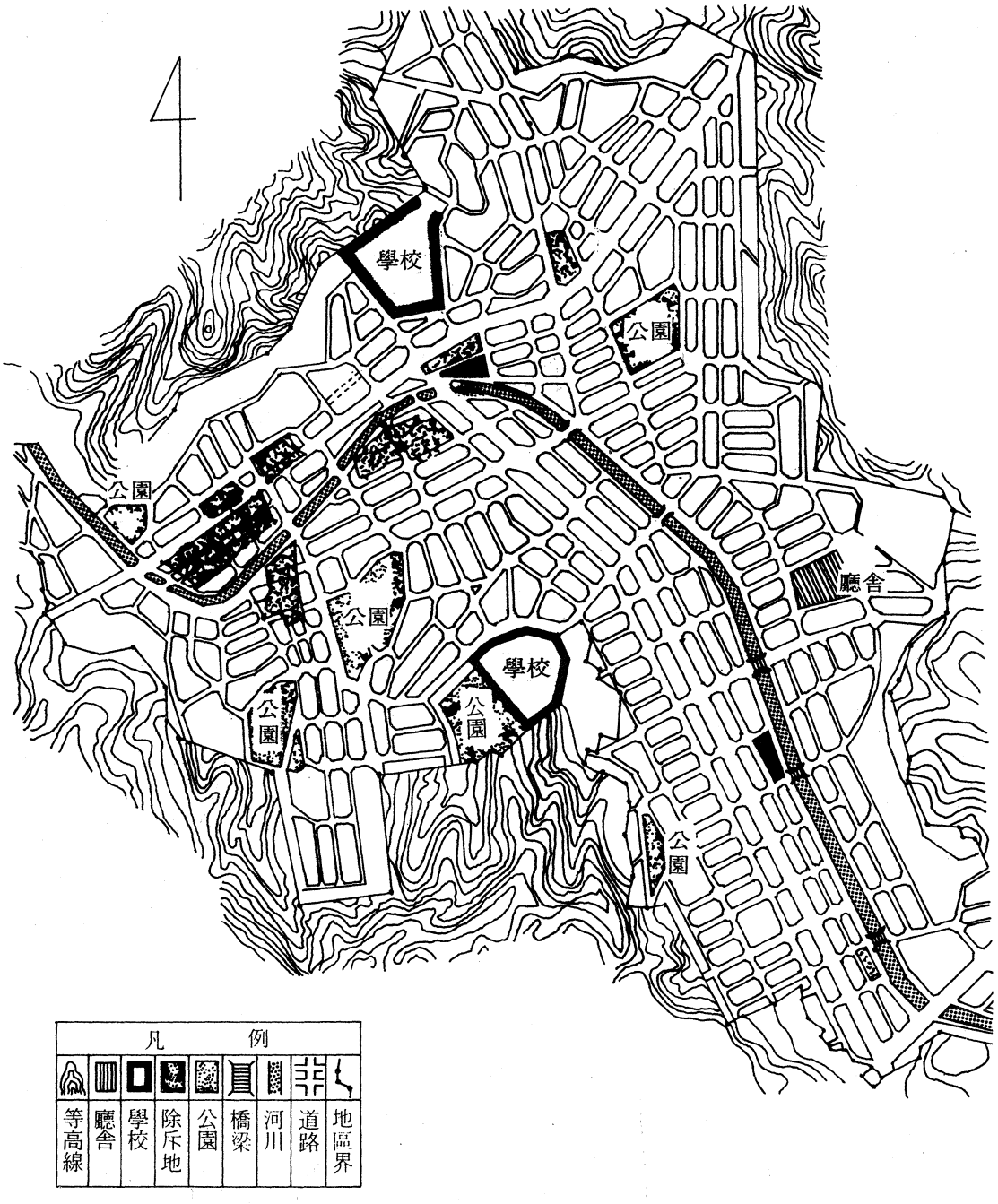
京城府 營繕課의 吉田正夫라는 직원이 잡지「朝鮮と建築」1941년 4월호에 寄稿한「宅地政策에 관한 一考察」이란 글에 1940년 12월말 현재 京城府內 10개 구획정리지구의 공사진척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敦岩地區의 정지공사는 96%로 소개되어 있고 동시에 시작한 永登浦地區의 90%보다 6%나 더 앞서고 있다.[18] 사실상에 있어 敦岩地區 구획정리사업은 日帝下에서 거의 마무리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敦岩地區중의 일부는 광복 다음해인 1946년 8월 16일자 서울市 公告 제49호로 換地處分 公告가 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1949년 5월 13일자 서울市 公告 제34호로 換地處分이 公告되었다.[19] 6·25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환지처분이 완료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었고 日帝下에 시행된 나머지 지역이 1960년대 중반기에 가서야 사업종료된 것과는 크게 차이가 있었다.

오늘날 다행하게도 서울 최초의 구획정리사업인 敦岩地區 계획도면이 原型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이것은 西大門의 大峴地區 도면과 더불어 全國的으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귀중한 것이니 〈그림 3〉으로 소개해 둔다.

---

15) 前揭 孫禎睦,「日帝下의 都市住宅問題와 그 對策」, p.178(주 130) 참조.
16) 同上 pp.182~196.
17) 同上 pp.191~195.
18) 잡지 朝鮮と建築, 1941년 4월호 소재「住宅政策に關する一考察」, p.3. 필자는 京城府 營繕課 吉田正夫.
19) 서울 土地區劃整理沿革誌, 서울특별시 1984년 발행, p.162.

〈그림 3〉　敦岩地區 區劃整理計畫 平面圖



(資料：岡田 貢, 敦岩町 區劃整理地とその今昔, 京城土木建築業協會報,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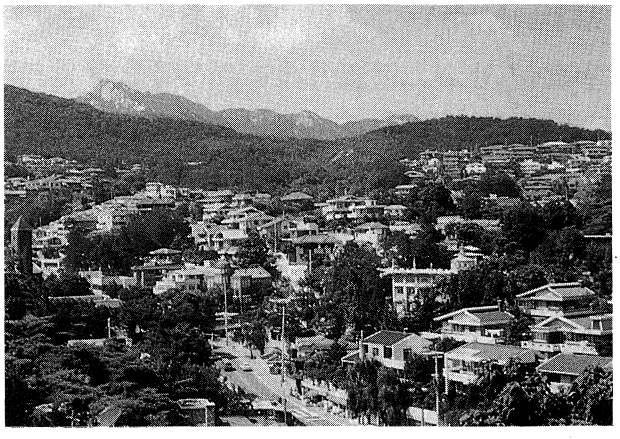
II. 光復 후의 都市計劃

1. 光復후 서울都市計劃과 城北區

광복 후 軍政時代에는 서울의 都市計劃은 日帝下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고 아무런 변동도 없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수립후부터 서울시 도시계획은 수없이 확장·변경되었다. 우선 1949년 8월 13일자 대통령령 제159호에 의해 서울시 관할구역을 변경한 후속조치로, 동년 12월 27일자 내무부 고시 제7호로 134,415,609m²를 신규로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으로 한 것이 효시였다.

그 후 40여년간, 6·25사변 피해복구를 위한 대대적인 도시계획 변경이 있었고 구역확장에 따른 변경이 있었으며 인구증가, 與件의 변동에 따라 구역이 확장되고 地域地區制가 바뀌었으며 街路網과 公園綠地計劃도 변경되었다. 아마도 洋의 東西를 막론하고 지난 半世紀 동안에 서울만큼 크게 변화한 도시는 없을 것이고 서울 도시계획만큼 크게, 그리고 자주 바뀐 도시는 없을 것이다. 서울의 도시계획구역이 가장 넓었던 때는 1970년대였고 그 넓이는 7억 2천만 평방미터가 더 넘었다.

그리고 이 넓이는 1936년에 최초로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할 당초의 135,355천m²의 5.3배가 넘는 넓이였다. 그후 1980년대에 들어와 경기도 光明市 및 富川市 행정구역에 포함된 지역을 해제하여 약간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서울의 행정구역 면적 705평방키로미터보다 약 3평방키로미터가 더 넘는 708평방키로미터에 달하고 있다.



성북동 전경

광복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근 반세기에 걸친 서울 都市計劃 變遷史는 크게 두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하나는 漢江을 중심으로 강북에 있어서도 그 변화가 지대하였으나 강남의 신개발이 현저하였다는 점이다. 日帝時代의 강남은 겨우 오늘날의 銅雀區 일부와 永登浦區 뿐이었는데 1960년대 이후의 高度成長, 이른바 漢江의 기적에 의하여 오늘날의 江西·陽川·冠岳·九老·瑞草·江南·松坡·江東 각 구에 걸친 광활한 지역이 새로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둘째는 서울의 이와같은 눈부신 新市街地 형성에는 여러가지 計劃手法이 동원되었으나 그 개발의 大宗을 이룬 것은 區劃整理事業이었다는 점이다.

1961년에서 1980년대까지의 20년간에 서울시가 실시한 구획정리지구는 27개 지구 9,750만m^2(약 2,954만평)의 광역에 걸쳤으며 여기에다 民間組合이 실시한 3개 지구 591만m^2(1,755,000평), 住宅公社가 실시한 3개 지구 301만m^2(913,500평)을 합하면 모두 33개 지구 1억 630만m^2, 평수로는 3,221만평에 달하여 실로 汝矣島의 38개분을 구획정리로써 新規宅地를 조성한 것이며 이것은 세계의 都市開發史上에 그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아마 미래에도 일어날 수 없는 특기할 사례라고 해야 할 것 같다. 다음 절에서 상세히 설명되겠지만 區劃整理事業에 의한 택지조성은 城東區도 예외일 수 없어 현 城東區 관내 총 면적의 근 3분의 1이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바 있다.

1960～70년대의 宅地造成 사업이 대규모의 구획정리가 주축을 이룬데 대해, 1980년대에 들어서고부터는 1980년 12월 31일자 법률 제3315호「宅地開發促進法」에 의한 宅地造成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江南區 開浦地區, 江東區 高德地區, 道峰區 上溪地區·中溪地區, 陽川區 木洞地區 등은 모두 宅促法에 의한 대규모 택지조성 사업이지만 城北區 관내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상세한 소개는 생략키로 한다.

光復 후의 지난 약 半世紀 동안 서울시 도시계획은 이상과 같이 크게 확장·발전하였다. 상대적으로 봐서는 강북에 비해 강남일대가 더 변했고 특히 鐘路·中區·城北·西大門·龍山 등지와 같이 日帝下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있던 지역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그중에서도 城北區지역은 거의 변화하지 않은 代表例에 속할 것이다. 그것은 光復후 오늘날까지 그렇게 많이 시행된 구획정리사업이 성북구 관내에서는 단 한건도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 地域制, 街路網計劃, 公園綠地計劃, 都市計劃 施設

등으로 나누어 城北區 관내 都市計劃 현황을 고찰하기로 한다.

2. 城北區 都市計劃의 現況

1) 城北區의 地域制

현재 서울의 都市計劃은 아직 22개 自治區別로 확연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즉 서울시내에 商業地域 면적이 얼마 住居지역 면적이 얼마인데 그중 城北區內의 상업지역 면적이 얼마, 주거지역 면적이 얼마인가 하는 식의 區別 분류가 전혀 되지않고 있는 현실에 있다. 그러므로 각 區別 地域地區制는 계획도를 통하여 그 대체적인 윤곽을 더듬을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그러나 다행이 城北區 관내는 현재 城北區 都市基本計劃의 用役業務가 진행중에 있고 그 제2차 中間報告가 제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중간보고와 中央地圖社가 1992년 1월 현재로 발행한 2만5천분의 1 都市計劃 총괄도에 의해 城北區의 地域地區制를 고찰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는 商業地域 면적이 지나치게 작다는 점이다. 현재 城北區 관내는 惠化洞 로타리에서 敦岩洞에 이르는 東小門路 兩側, 그리고 新設洞 로타리에서 城北區廳을 지나 敦岩市場에 이르는 普門路 일부의 양측이 路線商業地域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고 平面으로 된 상업지역은 全無한 상태에 있다. 이들 路線商街의 면적합계는 겨우 6만 3천m^2로서 그것이 區內 市街化 면적 전체에 점하는 비율은 겨우 0.33%에 해당할 뿐이다. 1990년 현재 서울市 전역의 市街化 면적에 점하는 상업지역 면적의 비율은 6.1%이며 그것도 협소하여 시가지의 발전을 크게 阻害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니 城北區 관내에 상업지역이 이렇게 협소하다는 것은 이 지역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둘째로 이렇게 商業地域 면적이 협소한 당연한 결과로 주거지역 면적은 대단히 넓어 그 면적합계가 19,242,000m^2에 달하여 전체 시가화 면적의 99.7%를 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城北區內 市街化區域의 용도지역은 약간의 상업지역 이외에는 모두가 주거지역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한마디로 주거지역이라 해도 그 내용에는 準住居·一般住居·專用住居



잘 보존된 전통 한옥 지구(보문동)

의 세가지로 구분된다. 상업지역 면적이 협소한 대신에 幹線街路邊 등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준주거지역 면적은 280,000m², 시가화 면적 전체의 1.5%를 점하고 있다.

城北區·貞陵洞 등의 山麓을 끼고 있는 자연환경의 아름다움 때문에 住居專用地域 면적이 넓은 것은 이 區가 지닌 특색중의 하나이다. 1992년 말 현재 성북구내 주거전용지역은 935,000m²로써 시가화 면적의 4.9%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성북구내 용도지역제의 大宗을 이루는 것은 일반주거지역이며 1992년 말 현재 일반주거지역 면적은 18,027,000m²로서 시가화 면적 전체의 93.3%를 점하고 있다.

관내에 準工業地域이 전혀 없는 것도 이 區의 특색이다. 아름답고 살기좋은 고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앞으로도 준공업지역은 지정되지 않아야 하고 또 지정될 만한 후보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산허리를 따라 시가지가 조성된 때문에 주거환경이 대단히 良好하고 따라서 城北洞·貞陵 등지에는 1941년 이래의 전통을 지닌 風致地區들이 매우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 이곳 주민들의 民怨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다. 區別 都市基本計畫을 수립 검토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조사와 재검토가 요청되지만, 좋은 風致는 언제까지나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보존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 城北區內의 計劃街路

城北區의 街路사정은 鐘路·中區 또는 江南地域이나 그밖의 新開發地에 비해 매우 빈약한 상태에 있다. 성북구의 街路事情이 이렇게 좋지않은 가장 큰 이유는 區 행정구역내에 北岳山·開運山·北漢山 등 여러개의 山林이 자리하고 있어 格子型의 가로조성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계획적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여러 산비탈에 붙어 주택이 들어서서 이미 市街化가 거의 완료된 후에야 서울市에 의한 개발이 시작된 때문이다. 즉 서울市에 의한 본격적인 도시개발사업은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에 걸쳐서였는데 이미 성북구 관내의 住宅 市街化는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전반기에 거의 끝났던 것이다.

현재 城北區 관내를 始·終點으로 하거나 경유하고 있는 都市計劃 街路는 30개 노선이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大路 1류(폭 35m)	3개
大路 3류(폭 25~30m)	6개
中路 1류(폭 20m)	6개
中路 2류(폭 15m)	9개
中路 3류(폭 12m)	6개

〈표 7〉 성북구 도시계획 가로현황

규모				사용	기능	연장	기점	종점	고시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형태		(m)			결정고시	지적고시
대로	1	8	35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6,100	제기동 (정릉천)	수유동	건고2493호 (66. 6. 21)	좌 동
대로	1	13	35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12,000	용두동	경기도 장지리	서고 856호 (85. 12. 21)	서고 856호 (85. 12. 21)
대로	1	55	35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3,550	혜화동광장	미아삼거리	건고 294호 (78. 10. 2)	서고 336호 (80. 9. 30)
대로	3	27	25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527	고대동북측	임업시험장 입구	건고2906호 (66. 11. 29)	건고2906호 (66. 11. 29)
대로	3	29	25~29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1,560	보문동 139-1	고대앞	서고 922호 (87. 12. 24)	좌 동
대로	3	39	25~30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4,805	미아동 42-13	하계동 184-1	건고 547호 (89. 9. 26)	서고 293호 (77. 8. 23)
대로	3	40	24~38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11,210	군자동 (광로5)	수유동 (중로1-47)	서고 562호 (89. 12. 29)	서고 572호 (88. 6. 29)
대로	3	58	25~40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7,200	정릉동 (대로3-56)	세검정 (대로1-12)	건고 838호 (89. 12. 30)	서고 130호 (77. 4. 28)
대로	3	123	25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120	길음동 507 일대	종암동5번지 (대로3-56)	서고 34호 (78. 2. 8)	서고 34호 (78. 2. 8)
중로	1	9	20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4,000	휘경서 앞 (중로1-8)	번동 98-1 (대 3-39)	서고 635호 (85. 9. 24)	좌 동

규모				사용형태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고시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결정고시	지적고시
중로	1	47	20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5,055	미아동 (대로3-6)	수유동 (대로3-57)	건고 169호 (76. 10. 28)	서고 801호 (76. 11. 10)
중로	1	63	20	일반도로	국지도로	2,250	이문동 255-2	석관동 247-1	건고2493호 (66. 6. 21)	건고 585호 (67. 8. 18)
중로	1	64	20	일반도로	국지도로	630	석관동	석관동	건고2493호 (66. 6. 21)	건고 27호 (72. 12. 12)
중로	1	70	20	일반도로	국지도로	98	삼선교	삼선동2가 42	건고 277호 (68. 5. 6)	좌　동
중로	1	198	20	일반도로	국지도로	1,200	석관동 106	월계동 289	서고 355호 (81. 9. 29)	좌　동
중로	2	15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570	안암동	제기동	서고 107호 (81. 4. 6)	건고 177호 (62. 12. 8)
중로	2	53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450	안암동광장	제기동정릉천변	건고 177호 (62. 12. 8)	서고 444호 (63. 7. 1)
중로	2	65	15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2,000	미아동 712-40전	정릉동 888-2전	서고 694호 (84. 11. 28)	건고 580호 (71. 9. 30)
중로	2	68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515	장위동 (중1-9)	장위동 (대3-40)	건고2493호 (66. 6. 21)	건고2948호 (66. 12. 27)
중로	2	96	15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1,300	동선동	정릉동	서고 428호 (78. 8. 25)	서고 452호 (78. 9. 4)
중로	2	96-1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500	미아동 98-39	미아동 71-1	서고 344호 (77. 9. 26)	서고 251호 (71. 5. 30)
중로	2	127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850	구서울상대 (대로1-8)	종암동 (중로3-12)	서고 150호 (77. 4. 28)	서고 150호 (77. 4. 28)
중로	2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230	돈암교	성북서 뒤	건고 528호 (69. 9. 9)	
중로	2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970	삼선동2가 42	동선동2가 135	총고 756호 (37. 10. 28)	서고 34호 (49. 5. 13)
중로	3	12	12	일반도로	국지도로	740	도봉로	화랑로 (장위교)	서고 25호 (88. 1. 13)	서고 91호 (88. 2. 9)
중로	3	17	12	일반도로	국지도로	1,400	보문동 2가	충신동	건고 177호 (62. 12. 8)	건고 564호 (63. 9. 20)
중로	3	54	12	일반도로	국지도로	1,300	상월곡동	상월곡동	건고2493호 (66. 6. 2)	건고2948호 (66. 12. 17)
중로	3	62	12	일반도로	국지도로	750	미아동	미아동	서고 387호 (78. 8. 3)	서고 673호 (78. 12. 31)
중로	3	89	12	일반도로	국지도로	850	길음교북측 (대로 3-6)	길음동 633-1	건고 25호 (77. 2. 4)	서고 51호 (77. 3. 7)
중로	3	90	12	일반도로	국지도로	210	미아국교 입구	길음동 (중로3-89)	서고 162호 (77. 5. 28)	

3) 城北區 관내의 計劃公園



삼선공원

1992년 현재로 城北區 관내는 他區에 비하여 비교적 넓은 計劃公園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행정구역내에 北漢山·駱山·開運山 등의 山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공원의 내역을 보면 2개의 都市自然公園, 6개의 근린공원(그중 4개는 他區와 共用), 16개의 어린이공원이 있다. 특히 16개의 어린이공원이 이미 모두가 개설되었다는 점은 성북구가 지닌 특색의 하나이다. 計劃公園의 현황을 〈표 8〉로 소개해둔다.

〈표 8〉 城北區 計劃公園 現況

구 별	공원별	공 원 명	위 치	면적(m²)	결정고시 연 월 일	시설구분	시설년도
	합 계		20(4)	4,009,739.7			
성북구	도시자연공원	계	2	2,527,889			
		북한산	정릉동 산87-1 및 성북동 산25-1 일대	2,325,779	건고 273호 82. 7. 19	서고 401호 88. 6. 17	미시설
		정 릉	정릉동 산1-1 일대	202,110			〃
	근린공원	계	2(4)	1,455,514			
		성 북	돈암동 606번지 일대	125,415	건고 176호 82. 4. 29	서고 287호 83. 6. 3	미시설
		개운산	돈암동 산6-1 〃	301,769	건고 138호 77. 7. 9	서고 449호 83. 9. 1	〃
		(청 량)	석관동 산1-5 〃	766,796	건고 82호 76. 6. 11	서고 147호 83. 3. 12	〃
		(월곡대 1)	월곡동 산2-1 〃	247,051	건고 481호 82. 12. 29	서고 699호 89. 8. 15	〃
		(낙 산)	돈암동 618-1 〃	12,026	건고 500호 85. 11. 16		〃
		(숭 인)	보문동 6가 209 〃	2,457	서고 72호 85. 2. 16	서고 214호 85. 3. 29	

구 별	공원별	공 원 명	위　　치	면적(m²)	결정고시 연 월 일	시설구분	시설년도
성북구	어린이 공원	계	16	26,336			
		성 북	동소문동 1가 1-1 일대	4,867	서고 159호 77. 5. 24		시 설
		삼 선	돈암동 512-160-67	10,957			〃
		범바위	안암동 2가 140-3	1,514	서고 932호 87. 12. 26		〃
		보 문	보문동 7가 108-2	1,564	서고 628호 83. 11. 24		〃
		정릉제 1	정릉 3동 916-11	659	서고 693호 83. 12. 23		시 설
		정릉제 2	정릉 3동 895-2	263	〃		〃
		문바위	정릉 4동 산1-1	680	〃		〃
		길음동	길음동 854-34	92	82. 2. 21		〃
		동 산	월곡 1동 96-78	417	83. 12. 23		〃
		밤곡제 1	월곡 4동 77-45	453	81. 4. 28		〃
		밤곡제 2	월곡 4동 산2-87	600	84. 2. 21		〃
		월 곡	상월곡동 산7-3	300	83. 12. 23		〃
		본 심	상월곡동 산1-1	1,000	〃		〃
		동 방	장위 1동 219-223	982	62. 7. 30		〃
		샛 별	석관 1동 168-86	1,638			〃
		석 산	석관 2동 산1-77	350			〃

4) 城北區내의 都市計劃施設

앞서 地域制·計劃街路 등에서 언급한 바대로 城北區 관내에는 他區에 비할 때 각종 都市計劃 시설도 매우 빈약한 실정에 있다.

첫째로 都市計劃 廣場은 安岩洞광장(9,800m²)과 彌阿里광장(7,800m²)의 두개가 있을 뿐이며 모두가 交通廣場이고 일반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둘째 도시계획 시설의 하나인 遊園地가 하나 지정되어 있다. 貞陵洞 829번지 76,768m²의 이른바 정릉유원지이며 벌써 근 100년에 가까운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은 1974년 12월 30일자 서울시 告示 제201호에 의해서였다.

세째 제7장 産業經濟에서 설명이 되겠으나 城北區 관내에는 면적에 비할 때 대

단히 많은 市場을 가지고 있다. 地図上에서 가려낼 수 있는 것만으로 근 20개나 헤아릴 수가 있다. 그러나 1990년 현재로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된 시장은 아래의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겨우 7개에 불과한 실정에 있다.[20]

〈표 9〉 성북구 시장 현황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m^2)	고 시 구 분		비 고
			결정고시	지적고시	
석 관 시 장	성북구 석관동 270	3,666	서고 63 (72. 5.23)	좌 동	
장 위 시 장	장위동 238-401	6,260	서고 65 (72. 5.26)	〃	
장 계 시 장	장위동 150-5외 5필	2,541	서고 176 (72.11.30)	〃	
월 곡 시 장	하월곡동 16-1 부근	4,090	서고 173 (74.11.20)	〃	
청 한 시 장 (종암제일시장)	종암동 3-1342	3,305	서고 441 (79.10.17)	서고 430 (79.10. 6)	
신세계 백화점 (미 아 점)	길음동 25-2	4,916	서고 54 (85. 1.29)	서고 60 (85. 1.31)	
동경프라자 쇼핑 센타 (길음시장)	길음동 540-1	9,093.7	서고 386 (85. 6.13)	서고 418 (85. 6.29)	

〈孫 禎 睦〉

20) 이상중 計劃街路 이하의 기술은 「서울都市計劃沿革」, 서울특별시, 1991년 발행에 의거하였다.

第6章 建 設

Ⅰ. 人口의 集積

1. 人口의 集積推移

人口는 모든 行政需要의 原單位이다. 人口의 增加展望을 하여 物的 施設을 計劃하고 增加된 人口에게 行政供給을 하기 위해 施設을 擴充한다. 그것이 다름 아닌 建設이라 할 수 있다. 이런 意味에서 人口의 集積推移부터 되돌아 보았다.

人口가 一定地域에 集積함에 있어서 그 密度가 아직은 성길 때에는 안정된 生活의 터전을 위한 住宅과 通行을 便利하게 하기 위한 道路의 整備가 고작이지만 人家가 密集하여 都市地域化하고 生活環境이 汚染될 때에는 上水道가 供給되어야 하고 또 下水道施設이 整備되어야 하며, 自然으로부터 火災를 防止하기 위해 河川에 堤防을 築造하는 등의 行政供給을 要한다. 우리는 以上에서 말한 것들을 「建設」이라는 用語로 槪念化하여 使用한다. 그리고 이런 意味에서 建設의 歷史는 人口의 集積에 對應한 物的 施設의 供給史라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지금 城北區의 人口는 55만명을 헤아리고 km^2당 人口密度는 22,689명으로 매우 稠密한 都市地域이다.

그러나 이 地域에 이 많은 人口가 集積하는데에는 오랜 時日이 걸렸다. 지금부터 70여년전만 해도 이 地域의 인구는 고작 3,000명 내외의 완전한 農村地域이었다. 그러던 것이 서울의 都市地域이 擴張을 거듭, 조금씩 조금씩 외곽지역으로 人口가 集積하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人口는 增加만 하는 것은 아니다. 都市의 변두리地域은 어느새 中間地帶로 변하고 地域의 機能도 變化하여 住居地域이 商業業務地域으로 바뀌면서 人口의 減少現像을 가져온다. 城北區도 例外는 아니어서 1976년을 고비로 全體的으로

는 날로 人口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城北區 全地域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地域은 벌써 20여년전부터 줄어들고 있지만 어떤 지역은 아직도 계속하여 증가일로를 달리고 있다.

다음으로 地域別 人口의 集積推移를 되돌아 보기로 한다.

2. 各洞別 人口集積推移

1) 城北洞 地域

城北洞地域의 人口統計로 가장 오래 된 것으로 1915년의 것이 있는데 당시의 人口數는 810명이었다. 그러던 것이 그 후 5년인 1920년에는 5명이 줄어든 805명, 그 후 10년인 1930년에는 1,666명으로 뚜렷한 增加勢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 다음 8·15 光復때까지 記述이 發見되지 않아 引用할 수 없음이 유감이지만 1949년의 통계에 의하면 13,372명이고 6·25 動亂이 勃發한 후 아직 避難地에서 收復하지 않았던 1953년 당시에는 5,546명으로 크게 줄어 들기도 했었다.

다음 1961년에는 1949년 당시의 인구를 훨씬 上廻하는 18,535명으로, 그리고 그 후 10년인 1970년에는 27,746명으로 크게 증가하더니 다음 해인 1971년의 27,988명을 고비로 줄어 들기 시작 1980년에는 22,614명, 1990년에는 20,241명으로 크게 줄어 들었다.

2) 敦岩洞 地域

여기서 돈암동지역이라 함은 돈암동은 물론 동선동, 삼선동을 총망라 한 지역을 말한다. 이미 법정동명까지 달라진 東仙洞, 三仙洞을 敦岩洞으로 묶어 다루는 것은 이들 지역이 地域的으로 近接되어 있고 成長背景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지금부터 57년전만 해도 이들 동의 법정동은 모두 敦岩洞이었기 때문이다.

이 地域의 人口統計로 가장 오래 된 것이 1915년의 것이 있는데 1,138명으로

그 당시만 해도 한가로운 시골의 面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었다. 그러던 것이 그 후 5년인 1920년에는 1,304명으로 약간의 증가를 보였으나 아직은 都市地域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904년경의 돈암동 일대

그 후 19년만인 1949년의 인구가 62,685명인데 언제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는지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알 길이 없다. 6·25 사변을 겪은 1953년 3월 1일 현재의 인구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23,341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그 후 8년만인 1961년에는 100,067명으로 10만명을 돌파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 후에도 증가세는 계속되어 1970년에는 134,171명까지 증가하더니 이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 10년 후인 1980년에는 104,730명, 다시 10년 후인 1990년에는 80,526명으로 크게 줄어 들었다.

역시 성북구에서는 가장 일찍부터 인구가 집적하고 또 가장 번화한 지역으로 성장하더니 주거지역이 점차 상업업무지역으로 바뀌면서 상주인구가 감소한 때문이라 보여지고 최근 동소문동의 재개발사업에 따른 불량건물의 대량철거도 한 원인이다.

3) 安岩洞 地域

안암동 역시 오래전부터 인구가 집적한 지역으로 1915년부터 인구통계가 있는 지역이다. 1915년의 인구는 345명이었고 그 후 5년인 1920년에는 892명, 다시 10년후인 1930년에는 1,718으로 다소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아직은 한적한 농촌지역이었다.

그러던 것이 1949년에는 17,664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1953년에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7,779명으로 줄어 들었으나 1961년에는 14,599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회복하더니 1970년에는 27,69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가장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시기는 1970년대로 1980년에는 46,801명으로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큼 증가하더니 다음해부터 줄어들기 시작, 1990년에는 44,191명으로 크게 줄어 들었는데 역시 안암동 1가에서 4가에 연하는 街路邊의 商業業務機能의 相對的 擴張으로 인한 住居機能의 상대적 감퇴가 원인인 것 같다.

4) 貞陵 地域

정릉지역의 인구통계중 가장 오래 된 것으로 1930년의 것이 있다. 역시 京成都市計劃地域으로 編入을 위해 조사된 것인데 당시 인구는 1,391명으로 역시 한가로운 농촌지역 이었다.

그러던 것이 그 후 19년인 1949년에는 17,62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1953년에는 4,290명으로 크게 줄어 들었다. 9·28 收復以後 계속적인 증가를 거듭 1961년에는 31,46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증가세는 이후에도 계속되어 1970년에는 86,303명으로 10년동안에 배 이상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더니 다소 증가세가 둔화, 1980년에는 88,711명으로 1990년에는 94,302명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아직도 증가세에 있음은 역시 전형적인 주거지역이기 때문이고 북한산을 배경으로 한 변두리 지역이기 때문인 것 같다.

5) 吉音洞 地域

길음동의 인구통계가 작성된 해는 1961년 상주인구통계조사 때부터가 아닌가 한다. 그 까닭은 현재 길음동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상당부분이 1960년대초에 주택지역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전에는 미아리 공동묘지가 있었던 지역으로 1958년 5월 31일자 서울특별시공고 제 212 호는 미아리 제 2 공동묘지의 이장에 관하여 6월 6일부터 7월 5일까지 연기한 바 있는데 바로 이 자리에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다음 1962년판 《시정개요》를 보면 「길음택지조성지구에 일반공영주택 100호를 대충자금 1,400만원으로 7월에 착공하여 9월초에 입주케 하였다」는 기록이 있음을 볼 때 이 지역에 인구가 본격적으로 집적하기 시작한 시기는 이 때부터인 것같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1959년 10월 31일에 동명칭이 미아동에서 길음동으로 변경되고 그 후 1970년에는 다시 미아동으로 변경되어 통계가 작성되었다가 1980년에 와서 길음동으로 되돌아와 통계가 작성되는 등 일관성이 없으나 1970년의 미아 1 동이 대체로 길음동과 일치되므로 미아 1 동의 통계치를 代入하였다.

어쨌든 1970년 당시 20,674명이었던 人口는 1980년에 이르러서는 70,583명으로 크게 증가하더니 1990년에는 63,127명으로 줄어 들었는데 역시 미아 3 거리를 중심으로 한 상업업무지역의 확장으로 주거기능이 상대적으로 감퇴하였기 때문인 것 같다.

6) 鍾岩洞 地域

종암동지역의 인구통계로 가장 오래된 것은 1930년의 것인데 당시 이 지역의 인구는 649명으로 역시 한산한 농촌지역이었다.

이 지역의 인구증가가 언제부터 박차를 가하게 되었는지는 광복이전의 통계가 발견되지 않아 알 수가 없고 우리 정부가 수립된 다음 해인 1949년의 통계에 의하면 6,400명으로 19년간에 거의 10배로 증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6·25 事變으로 인한 人口의 감소는 2,684명까지 줄어 들었다가 1961년에는 21,597명으로 큰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인구증가가 가장 폭발적이라 할만치 큰 폭으로 증가한 시대는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로 1970년에는 52,321명까지 증가하고 그 다음 1974년의 52,585명을 고비로 점차 줄어 들기 시작, 1980년에는 48,991명, 1990년에는 48,871명으로 안정적 감소추세에 있는데 역시 종암로 주변의 노선상가의 확장으로 주거기능의 상대적 감퇴에 인한 것 같다.

7) 月谷洞 地域

上月谷洞, 下月谷洞을 包括하는 지역으로 역시 인구통계가 발견된 것은 1930년부터이다. 당시의 인구는 621명, 한산한 농촌지역이었다.

이후 19년후인 1949년에는 8,251명으로 상당한 증가를 보았으나 1953년에는 2,457명까지 줄어 들었었는데 역시 6·25 事變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 후 1961년에

는 14,246명으로 현저한 증가세를 보이더니 9년 후인 1970년에는 60,869명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10년 후인 1980년에는 86,387명으로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었다.

월곡동지역에 가장 많은 인구가 집적했던 해는 1981년인데 86,442명으로 이 해를 고비로 점차 감소추세를 거듭하더니 1990년에는 79,033명으로 8만명선 아래로 감소추세인데, 그 원인은 근년들어 시민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생활양식이 크게 변동되면서 도로협소로 인한 자동차 통행 및 주차 불편, 가정용 연료현대화에의 상대적 낙후성, 그리고 최근에 대량공급된 임대아파트에의 젊은 부부의 선호 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기피함에 따라 전입기피와 전출경향에 인한 것 같다.

8) 長位洞 地域

이 지역의 인구통계로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역시 1930년의 것이 있는데 1,679명으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의 단계였다.

다음 1949년에는 다음에 기술할 석관동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5,880명이었고 1953년에는 6·25 事變으로 인한 피난으로 石串洞을 합쳐 2,682명으로 감소했다. 그 후 8년인 1961년에는 石串洞을 합쳐 8,215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더니 9년 후인 1970년에는 장위동지역 만으로도 39,600명이나 되는 큰 증가세를 나타냈다. 1970년대에도 증가세는 계속되어 1980년에는 68,505명으로 증가하더니 1988년의 77,190명을 고비로 감소추세로 들어서 1990년에는 76,490명에 이르렀다.

감소 원인은 월곡동지역과 마찬가지로 주거환경의 열악성을 기피함에 따른 전입기피와 임대아파트의 대량공급에 따른 전출촉진에 있는 것 같다.

9) 石串洞 地域

石串洞의 人口統計가 발견된 것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1930년의 것이 있는데 당시의 인구는 551명으로 역시 한적한 농촌지역이었다.

光復以後에는 長位洞 地域과 統合되어 1961년의 통계에도 長石洞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兩地域의 인구가 1949년에는 5,880명, 1953년에는 2,682명, 1961년에는 8,215명이었다.

1970년의 통계는 分洞된대로 나와 있는데 31,49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 추세는 1980년대 초반까지도 계속되어 1980년에는 45,250명으로 증가하더니 1981년의 45,349명을 고비로 감소하기 시작, 1990년에는 44,570명까지 감소하였는데 역시 월곡·장위동지역과 마찬가지로 주거환경의 열악성을 기피하려는 경향과 임대아파트의 대량 공급이 원인인 것 같다.

이상 성북구지역의 지역별 인구 집적추이를 본 바, 이를 개관하면 성북구의 성장은 대체로 光復以後부터 본격화되고 박차를 가하게 된 연대는 1960년대이며, 1970년대는 안정적 성장, 1980년대 후반에 와서는 도심과 변두리의 중간지역답게 점차 감소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연대별 인구집적추이를 표로 보면 〈표-1〉과 같다.

〈표-1〉 성북구지역의 연대별 인구 집적 추이

지역 \ 연도	1915	1930	1949	1953	1961	1970	1980	1990
계	2,293	10,340	149,384	58,565	274,694	553,480	588,572	551,345
성북동	810	1,666	13,372	5,546	18,535	27,746	22,614	20,241
돈암동 (동소문·삼선·동선동 포함)	1,138	2,462	62,685	23,341	128,508	161,917	127,344	100,767
안암동	345	1,817	17,664	7,779	14,599	27,692	22,774	22,254
보문동	—	—	17,510	9,786	21,818	24,859	24,027	21,931
정릉동	—	1,391	17,622	4,290	31,468	86,303	89,711	94,302
길음동	—	—	—	—	15,708	※20,624	70,583	63,127
종암동	—	649	6,400	2,684	21,597	52,321	48,991	42,759
월곡동	—	621	8,251	2,457	14,246	80,926	86,387	79,033
장위동	—	1,679	5,880	2,682	8,215	39,600	68,505	76,490
석관동	—	551				31,492	45,250	44,570

자료 : 1915년은 京城府 發行《京城都市計劃書》, 1930년은 서울특별시 발행《서울都市計劃沿革》, 1949~1953년은 서울특별시발행 各年度《市勢一覽》, 1961년 이후는 서울특별시행정「서울통계연보」에 의함. ※ 미아 1동을 간주 대입시킴

II. 日帝強占期의 建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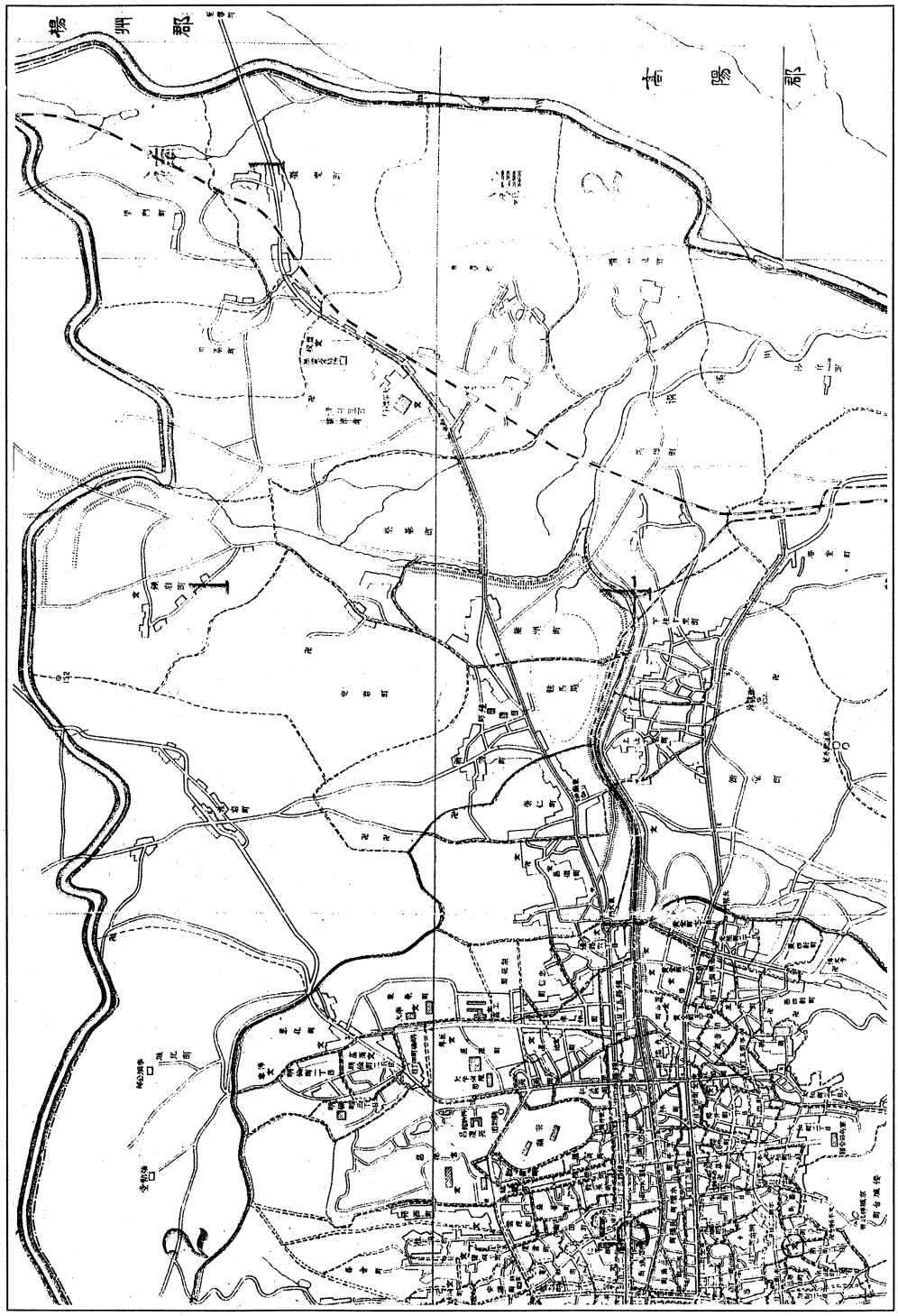
1. 道 路

日帝強占期에 城北區管內에 어느 道路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京城府가 府域을 확장하고 1936년에 제작한《大京城構圖》에 의하면 현재의 성북구 관내로 통하는 당시의 간선도로는 ①종로구 혜화동에서 출발하여 성북동 방면과 정릉동 방면, 그리고 돈암동 방면의 3갈래길이 등재되어 있고, ②東大門에서 淸凉里 方面으로 나오다 창신동과 숭인동 중간쯤에서 돈암동으로 이어지는 길, ③신설동에서 돈암동으로 이어지는 길, ④지금의 大光高等學校에서 종암동, 미아리로 이어지는 길, ⑤종암동 3거리에서 지금의 월곡동, 장위동 방면으로 갈라지는 길, ⑥지금의 城北洞길에 해당하는 길 등이 있었다(〈그림-1〉 참조).

이상이 1936년 당시의 城北區地域의 주요 간선이라 할 수 있는 바, 朝鮮王朝中葉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大東輿地圖에 비추어 볼 때 새로이 신설된 도로는 그 때까지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무리가 없을 듯 하다.

다음 이들 간선도로의 폭과 정비수준에 관한 것으로 道路幅은 7m정도에 道路中央部分을 약간 돋우고 양쪽 가장자리에는 약 1m의 뚝을 파서 排水가 잘되게 하는 정도이다. 다만 日帝末期에 와서는 이른 바「마카담」工法이 시행되어 현대식 포장공법에 의한 도로포장을 하게 되었으나 그렇다고 城北區地域에도 아스팔트 포장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으며, 주로 4大門안의 주요도로에나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1962년에 발행된《市政槪要》에 의하면 당시 서울의 23개 도로에 再鋪裝工事가 시행되었는데 그 중 성북구관내의 간선도로의 경우 돈암동~종로 4가 간은 1959년 기점 23년 전인 1936년에 포장되었고, 안암동~중랑교간은 1959년 기점 22년전인 1937년에 신설동~돈암동간은 1959년 기점 5년 전인



1936년 제작《大京城精圖》의 部分圖

1954년에 포장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1)]

그러면 당시의 도로포장에서 砂利道鋪裝과 아스팔트 鋪裝의 비중은 어떠하였을까에 관한 것으로 1937년용 《日本都市年鑑》에 의하면 高級鋪裝과 簡易鋪裝(砂利鋪裝)으로 구분 기록하고 있는데 서울 一圓의 鋪裝道路延長 363,644m, 2,359,042㎡中 高級鋪裝이 19,710m에 373,508㎡로 面積比 15.89%, 簡易鋪裝이 31,761m에 191,729㎡로 面積比 8.1%정도로 高級·簡易鋪裝을 합쳐도 24%에 지나지 않는 鋪裝率이었던 것이다.

2. 住 宅

1) 住宅事情

日帝強占期 서울의 住宅事情을 알리는 자료로 《京城日報》 발행 《朝鮮年鑑》이 있다. 《朝鮮年鑑》 1934~1944년판에 의하면 1926년부터 1944년까지 11년간의 주택통계가 실려 있는데 이에 의하면 1926년 당시 서울의 家口數는 68,862명이고 住居數는 64,889명으로 住居不足率은 5.77%였다.

그런데 그 후 주택사정은 해가 갈수록 더욱 악화되어 京城府가 행정구역을 확장한 1936년에는 총가구수 138,583에 대하여 住居數는 107,936으로 住居不足率은 22.1%로 악화되었으며, 光復 바로 전해인 1944년에는 총가구수 220,938에 대하여 住居數는 132,000으로 住居不足率은 40.25%까지 악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2〉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住居事情은 市全體的인 통계에서이고 이를 國籍別로 보면 日本人 또는 그 밖의 外國人의 경우 2.75%, 4.1%에 머물고 있어 그만한 差率이 한국인에게 얹혀져 한국인의 住居不足率은 평균치보다 약 4%가 높은 15%를 넘어서는 것이었다(〈표-3〉 참조).

이상 당시의 住居事情을 통계적으로 접근해 보았지만 집이 없는 사람의 住居樣相은 지금 보다도 심각하였다. 그것은 당시만 해도 人權思想이 일반화되기 이전으로 과거의 신분관념이 결부되어 궁색하나마 住居問題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이른

1) 서울特別市 《市政槪要》 1962. pp.210~211.

바 「行廊살이」를 해야 했으며, 그런 기회 조차 얻을 수 없는 사람은 이른 바 「土幕집」에서 살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六百年史》 第四卷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行廊살이

「行廊살이」라고 하는 것은 行廊을 가진 큰 집의 行廊채에 하층 영세민이 無貰로 들어가서 살면서 그 家口主 및 家口員은 주인집에 일이 있을 때 주인집 下令에 따라 무료 또는 약간의 給料와 飮食提供 등으로 노동을 해주고 나머지 시간이 있으면 行商이나 품팔이를 하는, 말하자면 被傭住居制度를 말하는 것으로서 家口員의 최소한도의 住生活이 해결되는 대가로 가구주는 非常時的 머슴살이를 하고 주부는 거의 常時的 家政婦 노릇을 하는 상태였다고 하는데 京城府內 行商人 總

〈표-2〉 日帝下 서울의 住宅事情

(단위 : 명)

年度	人口數	家口數	住居數	住居不足數	住居不足率(%)
1926	306,363	68,862	64,889	3,973	5.77
1931	365,432	77,701	69,453	8,266	10.62
1932	374,909	78,261	57,965	20,296	25.94
1933	382,491	79,519	70,599	7,290	11.22
1934	394,511	80,961	68,186	12,775	15.78
1935	636,955	131,239	101,767	29,472	22.46
1936	677,241	138,583	107,946	30,637	22.11
1938	737,124	148,856	—	—	—
1939	930,547	154,233	—	—	—
1941	974,933	173,162	—	—	—
1944	1,078,178	220,938	132,000	88,938	40.25

자료 : 京城日報社 발행 《朝鮮年鑑》 1934~1944년도 판에 의함. 京城의 行政區域이 확장된 것은 1936년부터였는데 上記 1935년 숫자에는 擴張豫定地域의 統計도 포함되어 있음.

〈표-3〉 1933년 현재 京城府內 國籍別 住居事情

國籍別	人口數	家口數	住居數	住居不足數	住居不足率(%)
韓國人	270,590	54,226	46,012	8,214	15.15
日本人	106,782	24,388	23,719	669	2.75
外國人	5,119	905	868	37	4.1
計	382,491	79,519	70,599	8,290	11.22

자료 : 1935년판 《朝鮮年鑑》 京城府 欄.

數는 44,199인이나 되어 한국인 총 인구의 23%에 이르렀다고 한다.

② 土幕民

「土幕民은 河川敷地나 林野 등 官有地, 私有地를 무단 점거하여 거주하는 者」를 말하는데 그 주거양태는 허술한 움막을 쌓고 그 속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朝鮮總督府가 발행한 雜誌《朝鮮》1932년 10월호에 실린 바에 의하면 1930년에 그 수를 조사한 바가 있는데 용산구 후암동을 비롯 서울에는 5개지역에 416가구 2,290인의 土幕民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住宅事情의 惡化로 土幕民은 그 후에도 계속 늘어나 1939년에는 4,292가구 20,911인에까지 이르렀는데(〈표-4〉) 현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實數는 이보다 훨씬 많아 36,000인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 집단 부락은 서울 교외에 20개 지역이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2) 朝鮮總督府의 住宅政策

土幕民의 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朝鮮總督府도 대책을 서두를 수 밖에 없었는데 그 대책이라는 것은 서울의 郊外에 土幕民 收容地를 설정하여 府內에 산재하는 土幕民을 收容하는 것이었다.

土幕民 集團部落으로는 阿峴洞, 新堂洞, 弘濟洞, 敦岩洞 이외에 東大門 밖 龍頭洞, 新設洞, 祭基洞, 忠信洞, 昌信洞, 金湖洞, 往十里, 清涼里 일대와 彌阿里의 吉音橋 밑, 龍山區 東部二村洞, 西部二村洞 일대, 麻浦區의 孔德洞, 桃花洞, 麻浦區의 山 일대, 그리고 노량진, 영등포동 일대 등 당시의 郊外 全域에 걸쳐 있었다.[2)]

〈표-4〉 京城府內 土幕民 增加狀態

年 度	戶 數	人 口	年 度	戶 數	人 口
1931	1,538	5,092	1936	-	-
1932	-	-	1937	3,248	14,993
1933	2,870	12,478	1938	3,316	16,544
1934	2,902	14,179	1939	4,292	20,911
1935	3,576	17,320			

자료 : 土幕民の生活と衛生 p.62.

2) 서울特別市市史編纂委員會,《서울六百年史》第四卷, 1981, p.1184.

住宅事情이 이러함에도 朝鮮總督府의 住宅政策은 말기에 가서야 住宅營團을 설립하는 등의 시책이 강구되었는데 그 까닭은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당시의 주택사정이 韓國人과 外國人 특히 日本人과는 현격한 차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서울六百年史 第四卷은 기록하고 있다.

늦으나마 朝鮮總督府가 都市의 住宅供給에 본격적인 대책을 강구하게 된 것은 1941년부터이고 이 해에 朝鮮住宅營團을 설립하였다. 住宅營團은 住宅團地의 開發을 위해 서울에서만도 沙斤洞을 비롯 21개 지역에 334,830.03坪을 매입하여 小型聯立住宅과 合宿所 등을 건립, 임대 또는 무주택 영세민을 수용하였는데 서울의 경우 解放前까지의 실적은 4,488戶이다.

한편 당시의 公營住宅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가 《日本都市年鑑》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1937년 당시 京城府에는 公營住宅이 총 120戶가 있었고 그 중 80戶는 府營零細民用長屋으로 月 賃貸料는 50錢이고 일반주택의 賃貸料는 18圓 50錢으로 기록하고 있다.[3)]

3) 城北區 地域의 경우

日帝強占期 城北區地域은 1935년까지는 京畿道 高陽郡 崇仁面이었으나 1936년 京城府가 管轄區域을 확장하면서 京城府域으로 編入되었다. 당시의 지역사정을 概觀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15년의 人口數 2천여명 규모의 한산한 농촌지역이고 1936년에 와서도 1만명을 넘어서는 정도에 불과했다. 물론 농촌이라고 해서 반드시 住宅事情이 어렵지 않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都市地域처럼 住宅을 마련하는 상황이 어려운 것은 아니므로 市內보다는 덜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日帝末期 府內의 住宅事情이 점점 악화되면서 그 영향은 변두리지역으로 확산되었고 그것은 土幕民의 集團收容이라는 시책에 의해 나타났다. 그것이 앞에서 본 바 敦岩洞과 吉音橋 밑 일대에 土幕民集團部落의 形成이다.

다음 住宅營團事業에서도 역시 변두리 地域에서 住宅團地開發을 위한 토지매입

3) 東京市政調査會, 《日本都市年鑑》, 1937年, pp.546~547.

을 함에 있어서 府內一圓에서 총 21地區 334,830.03坪을 사들였는데 城北區의 경우 普門洞에서 311坪, 安岩洞에서 17,521坪, 敦岩洞에서 13,803.07坪, 貞陵洞에서 22,736坪, 計 4地區 54,371.07坪을 買入했다고 記述하고 있다.[4)]

3. 上水道

城北區 地域에 언제부터 上水道가 공급되었을까? 이에 대하여 확실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대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1938년에 京城府가 발행한《京城府上水道槪要》가 있다.

그에 의하면 1935년말 현재 京城府의 給水人口統計가 실려 있는데 給水人口는 府內 265,039명, 府外 11,834명, 計 276,873명이다. 이 資料에 의해 추정해 보면 우선 城北區 地域은 府域外 地域이었으므로 府域外 給水人口 11,834명속에 포함되었을까 하는 것인데, 1936년에 제작된《大京城精圖》를 보면 麻浦, 新村 그리고 永登浦의 일부 지역의 경우 이미 상당한 정도의 시가지화가 진전된 것을 알 수 있는 반면, 城北區 地域은 아직은 人口 15,000 內外의 한산한 변두리 지역이었고 당시의 上水道供給能力에 비추어 城北區 地域까지 給水되었을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다음 1936년 京城府가 行政地域을 크게 확장한 이후에는 언제쯤부터 上水道가 공급되었을까 하는 것인데 前揭《京城府上水道槪要》에 의하면 1945년까지의 예정계획에서 新編入區域의 給水人口로 102,650명을 計劃하고 있어 이만한 人口에 새로이 給水하기 위한 上水道生産量이 어느 시기에 확보되었는가에 달려 있다.

한편 上水道生産施設의 擴張은 第1期인 1922년에 이어 第2期擴張이 1934년에 완료되었고, 第3期擴張이 1945년이므로 이 第3期擴張이 計劃대로 완료되었는가에 달려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第3期擴張計劃은 擴張工事가 반 정도 진행되었을 때 中日 戰爭이 일어나 鐵管 기타의 諸材料費가 暴騰할 뿐 아니라 鐵管의 공급이 통제되어 공급이 부진함에 따라 多少의 차질이 발생하였다. 우선 當初의 豫

4) 서울特別市 市史編纂委員會.《서울市百年史》第四卷 1981 p.1194.

算에 100萬圓이 부족하게 되었고 府에서는 부득이 계획을 수정, 우선 37萬圓을 추가 책정, 총 공사비 272萬圓으로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부족되는 부분은 第2次擴張計劃으로 미뤄 시행키로 했다.

한편《서울特別市史 解放後 市政篇》에 의하면 第3期擴張工事의 마무리 경위가 소개되고 있는데 1936년에는 착공한 九宜水源地新設工事는 1941년에 第1次工事가 준공되고, 第2次工事를 1942년에, 第3期工事를 1944년에 각각 준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일단 1945년에는 新編入地域에 예정대로 給水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城北區 地域에도 1945년을 前後해서는 上水道의 給水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4. 下水道

城北區 地域에 언제부터 下水道가 普及되기 시작하였을까? 日帝 侵略期에도 城北區 地域에 下水道가 普及되었을까? 이에 대하여 우리는 下水道의 槪念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물을 쓰지 않을 수 없고 또 糞尿가 排出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 이들 使用한 물의 排除施設과 糞尿의 處分方法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도 農村에 가면 볼 수 있는 도랑을 하수도로 보아야 하는가에 기준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인공적인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下水道라 할 때에는 人工的인 構造物에 의해 下水를 배제할 때만이 下水道 施設로 간주하는 것이 近代的 意味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下水道管渠의 種類에서는 덮개가 없이 下水를 排除할 수 있는 U型側溝까지 만을 포함하고 있는 까닭이 있다.

다음으로 時代別로 下水道의 普及推移를 더듬어 보기로 한다.

1) 日帝強占期

日帝強占期 서울의 下水道事業은 第1期(1918~1924)부터 第4期(1938~1942)에 걸쳐 施行되었다. 따라서 第1期부터 第4期까지의 사이에 어느 期에 城北區 地

域이 事業計劃에 포함되어 下水道事業이 시행되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第2期(1925~1932)까지는 城北區地域은 京城府의 管轄區域 밖이었으므로 京城府의 下水道改修計劃에는 包含·施行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옳을 것 같다.

다만 《서울特別市史 解放後 市政篇》을 보면 韓日合邦後 共進會[5] 開設을 기해 下水道도 일제히 改修事業이 施行되었는데 우선 京城府, 警務部, 警察署間에 區域擔當制」를 실시, 下水道의 浚渫 및 改修를 하면서 왕십리, 청량리 같은 地區는 京城에 가장 가깝고 관광객도 적지 않으므로 高陽警察署에서 京城과 마찬가지로 浚渫作業을 실시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城北區 地域도 三仙洞, 敦岩洞, 安岩洞 등 京城府域의 인접지역에서는 앞에서 본 地域들과 마찬가지로 浚渫始作程度는 施行되었을 것 같으나 확인할 길이 없다.

다음 城北區가 京城府管轄地域으로 편입된 1936년 이후인데 改修工事實績은 淸溪川排除區域의 종로, 중구와 旭川排除區域의 龍山區 一帶만 기록되어 있을 뿐 다른 지역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城北區 地域에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보여지며 이렇게 볼 때 光復 以前까지의 城北區 地域의 下水道事業은 城北川과 貞陵川의 土砂를 浚渫하는 것을 비롯하여 部分的으로 下水管渠가 普及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III. 光復 以後의 建設

1. 道 路

서울이 600년의 古都라고는 하지만 엄격히 말한다면 600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은 四大門 안을 이름이고 그 밖은 60여년의 역사밖에 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

5) 1904년(光武8)에 조직된 혁신운동단체. 처음에는 褓負商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정부의 지시에 의해 獨立協會와 충돌한 때도 있었으나 뉘우치고 革新運動을 하였는데, 정부에 대해 황실의 권위, 정부의 명령과 국민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하여 건의하는 등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한국사대사전》 교육도서, 1990, p.170).

다. 그것은 서울의 시가지의 확장연혁을 보면 알 수 있다.

성북구의 경우도 都市的인 형태와 생활양식을 영위하게 된 시기는 1936년 성북구지역이 京城府에 편입하게 된 때 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36년 이후 光復때까지는 당시의 재정사정이나 사회사정이 변두리 지역에까지 시설투자를 할 힘이 미치지 못했고, 따라서 성북구 지역에도 이렇다 할 도시시설의 정비를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것이 光復以後 人口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변두리로 증가되는 인구가 集積되면서 도로를 비롯한 上·下水道 등 都市施設의 정비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市街地가 새로이 형성되면서 道路를 새로이 施設하는가 하면 기존 도로도 通行需要가 팽창함에 따라 확장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성북구를 통과하거나 관내 지역간의 도로중 주요 도로의 시설 확장연혁을 기술하기로 한다.

① 東小門路

東小門路는 종로구 혜화동 로터리에서 東小門洞을 거쳐 돈암동에 이르는 폭 25m, 길이 2,350m의 길인데 그 중 성북구 관내 구간은 혜화동 고개에서 미아리 고개까지 2,100m의 구간이다. 이 길은 원래 미아로였는데 1984년 11월 7일 地域性을 감안하여 돈암동 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분리함에 따라 東小門路와 彌阿路로 나뉘었다.

이 길은 朝鮮王朝때에도 주요 간선도로였다. 즉 18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都城大地圖》에 보면 昌慶宮路와 東小門路 및 彌阿路는 都城안의 어느 길보다 넓은 길이었는데 이는 이 도로변에 昌慶宮과 成均館이 있었고 또한 서울의 북동쪽 都城門인 惠化門을 통해 의정부, 포천, 철원 방면으로 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지하철 4호선 개통과 함께 일부구간이 35m로 확장되었으나 1939년경에 충무로 4가에서부터 敦岩洞(현 東仙洞 3가 1번지)까지



동소문동 사거리

車가 개통되면서 도로 폭이 현재와 같이 25m로 확장되었다.[6]

최근의 공사기록으로는 1989년부터 1991년까지 昌慶宮에서 미아 3거리까지 4,370m구간의 폭 25m를 35m로 확장하는 것이 있는데, 1992년 말에 준공되었다.

② 彌阿路

미아로는 돈암동 로터리(돈암동 20-1)를 기점으로 하여 길음동을 동북방향으로 뻗어 미아3거리(하월곡동 133)까지에 이르는 폭 25m, 길이 1,500m의 길이다. 이 길에 대한 공사기록은 1954년부터 발견되는데 1955년에는 폭 25m, 길이 1,500m를 14만환을 들여 개수하였고 그 이후에도 1964년, 1966년에는 확장공사가 시행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1966년판 《시정년사》에 상세한 기록이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이 도로는 서울~의정부간의 주요 방사·간선국도로서 수유동, 창동지구 등의 부심개발에 따른 인구분산책에 부응하여 종전 노폭 10m를 35m로 대폭 확장하고 미아리고개의 경사를 완화하기 위하여 切土하는 사업등으로 1964년과 1965년 2년간에 예산 60,330,000원을 투입하여 연장 1,147m를 완료하고 1966년은 3차년도의 마지막 해로서 총 공사비 6,390,000원과 보상비 22,000,000원의 예산으로 1966년 5월 4일에 착공하여 공사비는 예산액의 98%인 6,268,1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상비는 의외로 예산액의 262%인 57,677,970원을 집행하고 1966년 8월 2일 완료하였다.

본 공사구간내 용지보상 및 건물이전문제가 난관이었으나(보상가옥중 19동의 가옥주는 보상금액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제소까지 하였음) 그 후 보상업무의 적극 추진으로 호전되었다.[7]

年度別 擴張沿革은 〈표-5〉와 같다.

③ 花郎路

화랑로는 종암로와 교차하는 하월곡동 월암교를 기점으로 하여 하월곡동, 상월곡동, 석관동, 월계동, 공릉동을 東西로 횡단하여 泰陵選手村(노원구 공릉동 산 223)

6) 서울특별시, 《서울의 가로명 연혁》, pp.63~64.
7)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66. 시정년사》 1969. 8. 1, p.91.

에 이르는 폭 35m, 길이 8,000m의 구간인데 성북구의 구간은 종암로터리(월암교)에서 화랑고가 즉 노원구계까지의 3,200m이다.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이 도로는 朝鮮王朝時代에도 있었던 도로로 보여지나 현재의 路幅으로 확장된 것은 1967년과 1968년이었다. 연도별 工事內譯은 〈표-6〉과 같다.

④ 鍾岩路, 安岩路

종암로는 종암동 3거리(동대문구 청량리동 136-8)을 기점으로 하여 종암동 하월곡

〈표-5〉 彌阿路 擴張 沿革

施行年度	工事區間	工事槪要(m)	工事費	備考
1954	돈암동~미아리	不詳	20,000(천환)	
1955	〃	B=25 L=1,500	10,000	
1957	〃	B=25 L=2,950	16,000	
1964	돈암동~미아리간 확장	B=25 L=800	20,000(천원)	
1965	〃	B=30 L=300	30,000	
1966	〃	不詳	649	
1966	〃	B=25→35 L=1,500	108,000	
1990	창경궁~미아3거리	B=25→35 L=4,370	2,560,000	
1991-1992	〃		3,470,000	

〈표-6〉 花郎路 擴張 沿革

施行年度	工事區間	工事槪要(m)	工事費(천원)	備考
1967	장위동~하월곡동	B=20→25 L=1,500	54,000	
1968	〃	不詳	4,822	

을 남북으로 뻗어 미아 3거리(하월곡동 181)에 이르는 폭 30m, 길이 2,250m의 길로서 전구간이 성북구관내 도로이다.

안암로는 普門路와 교차하는 대광고등학교앞(동대문구 신설동 58)을 기점으로 하여 高大앞을 지나 회기로와 만나는 지점까지의 구간으로서 전구간이 동대문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들 도로는 성북구관내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도로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金正浩作 19世紀 中葉의 大東輿地圖에도 나타나는데 東大門을 나와 安岩洞 미아리를 거쳐 水踰峴에 이르는 길이였기 때문이다.

이 길의 工事沿革으로 발견된 것은 1958년에 高大앞~미아리간의 도로개수공사를 한 기록이 있고 그 후 1961년에 미아리~제기동간 2,100m를 폭 30m로 확장한 바 있는데 이는 한강을 기점으로 하여 한남동~옥수동~금호동~왕십리~고대앞~미아리~정릉~부암동~홍제동~연희동~마포~원효로 종점에서 다시 한강으로 되돌아오는 循環道路建設工事의 한 부분으로 시행된 것이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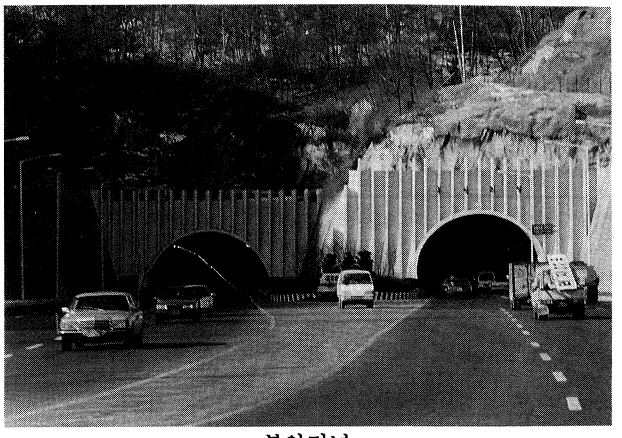
이 도로확장공사는 1962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시행되어 그해 12월 19일에는 미아리~안암동간 3,614m의 확장공사가 완료되었다.[9] 연도별 확장연혁은 〈표-7〉과 같다.

〈표-7〉 鍾岩路, 安岩路 擴張 沿革

施行年度	工事區間	工事概要(m)	工事費(천원)	備考
1958	高大앞~미아리	不詳	34,240	
1961	안암동~미아리	B=35 L=560	50,000	
1961	〃	B=35 L=540	3,884	
1961	제기동~미아리	B=25→30 L=2,130	12,614	
1961	안암동~미아리	不詳	195,000	
1962	제기동~미아리	〃	19,793	

8) 서울특별시, 《市政概要》, 1962, p.207.
9) 《동아일보》, 1962년 12월 20일자.

⑤ 貞陵길


북악터널

정릉길은 북악터널을 기점으로 에 하여 정릉동, 돈암동을 횡단하여 月岩橋까지에 이르는 폭 25m, 길이 4,350m의 길인데 역시 전구간이 성북구관내 도로이다.

이 도로가 언제 개설되었는지 확실한 근거는 없으나 성북구 관내에서는 돈암동지역과 함께 일찍부터 인구가 집적하여 1930년에도 1,300여명의 인구가 살았으니 일찍부터 도로가 있었음은 틀림이 없다. 다만 光復 以後의 공사기록으로는 1970년에 폭 20m에 1,150m의 구간에 걸친 도로확장공사가 시행되었고 1977년에도 돈암동~정릉종점간에 5억원이 투입된 도로공사가 있었다.

연도별 工事內譯은 〈표-8〉과 같다.

〈표-8〉 貞陵길 施設 沿革

施行年度	工事區間	工事概要(m)	工事費(천원)	備考
1970	정릉간선	B=20 L=1,150 보상비	 10,000 10,000	
1971	〃	B=15 L=250 보상비	 7,000 18,000	
1977	돈암동~정릉종점	不詳	500,000	

⑥ 輔國門길

보국문길은 清水橋(정릉동 164-35)를 기점으로 하여 정릉동을 서북방향으로 뻗어 청수장(정릉동 825)에 이르는 폭 15m, 길이 2,250m의 길인데 전구간이 성북구관내이다.

이 길의 工事沿革은 1958년부터 1961년 사이에 폭 8m로 확장한 기록이 있는데

〈표－9〉 輔國門길 擴張 沿革

施行年度	工事區間	工事概要(m)	工事費(천원)	備考
1958	돈암동～정릉동 확장	B＝8 L＝3,209	12,000	
1960	돈암동～정릉동 확장	不詳	4,325	
1961	돈암동～정릉동 확장 및 정릉교차선	B＝8 L＝1,810	2,596	

현재의 路幅대로 확장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으나 1960년대 중반일 것으로 짐작된다. 연도별 공사연혁은 〈표－9〉와 같다.

⑦ 돌곶이길

돌곶이길은 花郎路와 里門路가 교차하는 石串洞 로터리(석관동 349－1)를 기점으로 하여 장위동을 서북방향으로 뻗어 月溪路와의 교차점인 도봉구 번동 98－1에 이르는 폭 20m, 길이 1,440m의 길인데 長石路로도 불리어졌다.

돌곶이길이라는 명칭이 붙게 된 것은 石串洞의 옛 地名인 돌곶이 마을을 따서 인용한 것이다. 이 길이 언제 개설, 확장되었는지 확실한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으나 이 地域의 人口의 集積이 激甚했던 1960년대 후반까지 1970년대 초인 것으로 짐작된다.

⑧ 漢川路

한천로는 典農橋(동대문구 장안동 243)를 기점으로 하여 남북으로 뻗어 도봉로 교차점(수유동 418)에 이르는 폭 25m, 길이 10,300m의 도로인데 성북구 관내구간은 석관동 43번지 동대문구계에서 장위동 165(도봉구계)까지의 2,000m이다.

한천로의 명칭은 漢川을 따로 개설된 도로라는데서 연유된 것으로 이는 중랑천의 옛 이름이 「한내」(즉 시내가 크다는 의미)를 한자로 표기한데서 붙여진 이름이고 한 때는 長水路로 불려지기도 했다.

이 도로가 언제 개설되었는지 확실치는 않으나 서울시의 예산서에 의하면 1962년에 里門洞～水踰洞간의 5,700m구간의 공사시행예산이 책정된 바 있고, 그 이후 1967년과 1969년, 1970년에도 장위동～이문동간 확장공사가 780～1,000m 구간에 걸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60년대 전반기에 개설된 것 같고 1978년

에도 폭 25m, 길이 8,500m에 걸쳐 공사가 시행된 기록이 있음을 볼 때 현재의 노폭으로 확장된 것은 이 때인 것 같다.

⑨ 普門路

보문로는 신설동 로터리(신설동 101)를 기점으로 하여 보문동과 三仙洞을 남북으로 종단하여 東小門路와 교차하는 폭 25~30m, 길이 2,100m의 도로인데 이 길이 언제 개설되었는지 확실치 않으나 1930년 당시에도 돈암동 일대에 4,000여의 인구가 집적되어 있었고 신설동과 돈암동을 잇는 길임을 생각할 때 그 당시에도 도로가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현재의 노폭으로 확장된 연대 역시 확실치 않으나 이 지역일대의 인구집적 추이를 감안할 때 1960년대 전반일 것으로 짐작된다.

⑩ 里門路

이문로는 망우로와 교차하는 동대문구 회기동 67-5를 기점으로 하여 회기동, 이문동, 석관동을 경원선 철도와 나란히 뻗어 화랑로와 교차하는 석관 2동 349-1까지에 이르는 폭 20m, 길이 2,850m의 도로인데 성북구 관내구간은 석관동 331(동대문구계)에서 석관동 349(장석 4거리)까지 900m이다.

이 길의 확장연혁은 1967년부터 1970년 사이로서 연도별 工事內譯은 〈표-10〉과 같다.

⑪ 三仙橋길

삼선교길은 성북동길과 동소문로가 교차하는 삼선교(동소문동 1-1) 4거리를 기점으로 하여 三仙洞을 동북으로 뻗어 「안감내길」과 교차하는 三仙 2橋(동선동 2가1-2)까지에 이르는 폭 15~20m, 길이 1,000m의 支線道路이다.

〈표-10〉 里門路 擴張 沿革

施行年度	工事區間	工事概要(m)	工事費(천원)	備考
1967	장위동~이문동길	B=20→35 L=800	21,000	
1969	〃	B=35 L=780	17,000	
1970	〃	B=20→35	15,000	

이 도로는 원래 성북천이 흐르는 구간이었으나 1967년에 민자사업으로 하천을 복개하면서 도로화된 것으로 짐작된다.

⑫ 안감내길

안감내길은 안암로와 교차하는 대광국민학교앞(안암동 41－27)을 기점으로 하여 돈암 4거리(동소문동 5가 76)에 이르는 폭 15m, 길이 1,670m의 支線道路이다.

이 도로의 이름을 안감내길로 부르게 된 것은 이 길을 따라 흐르는 河川의 명칭이 安甘川인데서 유래된다.

이 길은 원래 성북천 하류구간을 따라 보문로와 평행선을 그으며 형성되어 있는데 언제 개설되었는지 확실치 않으나 성북구청사 바로 뒤이고 번화한 지역임을 감안할 때 1960년대 중반에 개설된 것으로 짐작되며, 특히 1970년대 후반에 와서 복개하기 시작, 현재 나머지 구간인 성북구청사 바로 뒤 일부 구간이 복개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지도상으로는 하천의 표시가 없어질 단계에 있다.

⑬ 月谷洞길

월곡동길은 종암동 26－2를 기점으로 하여 종암동을 지나 화랑로와 교차점인 하월곡동 27－8까지에 이르는 폭 15m, 길이 1,150m의 지선도로이다.

이 길이 언제 개설되고 확장되었는지 확실한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으나 월곡동 일대가 1960년대에 급격한 인구의 격증을 가져온 것을 감안할 때, 1960년대 중반인 것으로 짐작된다.

⑭ 아리랑고개

아리랑고개는 돈암동 4거리(동소문동 5가 76)를 기점으로 하여 동소문동과 돈암동을 지나 정릉길과 교차하는 아리랑시장앞(정릉동 139－7)까지에 이르는 폭 15m, 길이 1,450m의 支線道路이다.

아리랑고개라는 명칭은 돈암동에서 정릉동으로 넘어가는 유서깊은 아리랑고개(일명 정릉고개)가 있으므로 붙여진 것인데 서울의 가로명중 "고개"라는 명칭으로 유일한 것이다.

아리랑고개의 명칭유래는 1935년경에 요리업자들이 정릉일대의 아름다운 경치를 이용하여 고급요정을 꾸미고 손님을 끌기 위하여 이 고개에 길을 닦고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 있는 「아리랑」의 이름을 따서 「아리랑고개」란 표말을 이 고개

마루턱에 세우고 고개너머 좋은 놀이터가 있음을 선전한데서 연유되었다 한다.

이 길이 개설된 연대가 日帝時代인 것은 앞에서 밝힌 바 있으나 光復後의 공사기록으로는 1961년에 2차에 걸쳐 「돈암동~정릉동간 도로확장공사 및 정릉교 가설공사」가 시행된 바 있는데, 폭 8m에 1,810m로 기록되어 있으며[10] 현재의 노폭으로의 확장은 확실치 않으나 1970년대 중반인 것으로 짐작된다.

⑮ 北岳山길

北岳山길은 紫霞門에서 付岩洞을 거쳐 敦岩洞에 이르는 폭 15m, 길이 7,700m의 길인데 성북구내 구간은 아리랑고개에서 종로구계까지 4,700m이다.

이 길은 1968년 1월 21일 북괴무장공비의 침입 이후 수도권의 경비강화와 산책로의 확보를 위해 개설된 것인데 1968년 2월 9일 이른바 「스카이웨이」 건설계획을 서둘러 수립하고 이어 2월 21일 기공식을 올린 후 같은 해 9월 28일에 완공개통하였다. 공사비는 총 182百萬원인데 개통당초부터 有料道路化하여 小型車 50원, 大型車 100원을 받았다.

⑯ 三陽路

삼양로는 정릉길과 교차하는 성북구 돈암동 5-252를 기점으로 하여 吉音洞과 도봉구 미아동을 남북으로 뻗어 수유 1동 한신국민학교앞 華溪寺길과 교차하는 지점을 종점으로 하는 폭 20m, 길이 3,450m의 길인데 성북구관내 구간은 길음동 로터리에서 삼양동 고개(도봉구계)까지 900m이다.

이 도로는 1969년 10월 7일 착공된 기록이 있음[11]을 볼 때 그 해 또는 그 다음해인 1970년쯤에 완공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⑰ 城北洞길

성북동길은 삼청터널을 기점으로 하여 성북동을 西北方向으로 뻗어 東小門路와 교차하는 삼선교(성북구 동소문동 1-1)까지에 이르는 폭 10~15m, 길이 2,950m의 지선도로이다.

이 길의 공사기록으로는 1961년부터 1962년의 것이 있는데 연도별 공사내역은

10)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사 해방후 시정편》, p.616.
11) 조선일보 1969년 10월 7일자.

〈표－11〉 성북동길 施設 沿革

施行年度	工事區間	工事概要(m)	工事費(천원)	備考
1961	삼선교～성북동	B＝15 L＝592	794	
1961	〃	不詳	7,940	
1962	〃	〃	580,000	

〈표－11〉과 같다.

⑱ 貞陵川 都市高速化道路施設

이 도로는 下月谷洞의 종암로와 교차하는 4거리를 기점으로 하여 貞陵川을 따라 下流에서 清溪川을 횡단, 城東橋에 이르는 장장 6,800m 구간인데 성북구관내 구간은 기점에서 종암동 동대문구 구계까지이다.

이 도로는 1991년에 착공, 1993년 12월에 준공예정인데 총 사업비는 1991년 예상 1,302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2. 橋 梁

1992년말 현재 城北區管內에는 17개의 교량이 있다. 청계천이 北漢山에서 發源하여 城北區의 市街地를 貫通하면서 흐름에 따라 갈라 놓은 市街地를 잇기 위한 것이다. 이들 橋梁은 이 地域의 開發趨勢에 따라 시설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이른 것이 1961년에 시설된 安岩 第2橋이고 다음이 1966년에 시설된 普門 第2橋와 安岩橋가 있다.

그렇다고 그 이전에 교량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그 이전에는 現存하는 교량처럼 「슬라브」나 「콘크리트 박스」 또는 鐵骨빔으로 시설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시골에 가면 발견되는 木造橋梁이 있었던 것이다.

光復 以後의 것만 하더라도 1953년 당시에도 吉音橋가 있었으며 1960년 당시에는 敦岩洞에 콘크리트 構造의 新三仙橋가 있었으며 미아동에는 吉音橋 以外에도 落合橋라는 橋梁이 있었던 것이다.

이 밖에 光復 以後의 工事記錄을 보면 1955년부터 1956년까지 사이에 彌阿橋 改修工事가 있었는데 幅 10m에 延長 24.6m의 규모였으며, 1965년에는 吉音橋 擴張工事가 있었는데 幅 13m에 延長 42m였다는 기록을 볼 때 현재의 吉音橋는 그 以後 다시 확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교량도 當該地域은 물론 背後地의 擴大에 따라 여러 차례의 확장을 거듭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전하는 기록이 없어 모두 기술하지 못함이 유감이다.

참고로 1992년말 현재의 성북구관내의 교량현황을 보면 〈표-12〉와 같다.

3. 住 宅

1) 光復以後~1950年代

① 住宅事情의 變遷

36년간의 日帝의 壓制下에서 解放은 되었으나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당시의 경제상황하에서 주택정책을 수립할 여건도 못되었으며, 더구나 太平洋戰爭으로 인한 戰災民의 發生과 海外에서 돌아온 귀국 동포 그리고 북한에서 월남한 피난민으로 서울의 住宅事情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도 無住宅者는 북한에서 월남한 피난민이 가장 많았으니 1947년 4월 26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시내 거주 戰災民 20,844가구 105,626명중 58%가 북한에서 온 피난민이고 다음이 서울, 경기, 경북 순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부족한 주택사정에 많은 人口가 급작스럽게 늘어나니 집세는 폭등을 거듭하여 해방전에는 방 한칸을 얻는데 보증금 1~2만원에 15원이던 것이 해방되던 해 10월에는 30원으로 배로 뛰고, 1947년 7월에는 500원으로 약 2년여만에 33배나 뛰었다고 서울신문은 보도하고 있다.[12]

그런데 주택사정은 집세의 폭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 그 자체에 있어서도 은행이나 고리대금업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이에 대하여 서

12) 서울신문 1947년 7월 19일자.

울신문은 당시 주택으로는 전용주택 총 114,766호중 한국인 소유가옥 89,256호, 前 日本人 소유가옥 25,353호, 외국인 소유가옥 7,703호가 있었고, 상점과 병용가

〈표-12〉 교량 현황

교량명	규모(B×L)	구조			위치	시공년도	시공회사
		상부	하부	경간수			
보문동제2교	15.5×24	T-BEAM	타원형2기	3	삼선 5가 393 ~동선 2가 52	1966	
보문동제2교 (용문교)	15×26	연속 SLAB	타원형1기	2	보문 1가 101 ~안암 2가 1	1989	성보건설
보문동제3교	15.6×26	T-BEAM	타원형2기	3	안암 2가 ~보문 102	1983	하산건업
보문동제4교	10.5×27	T-BEAM	타원형2기	3	보문 4가 1 ~안암 3가 1	1984	
안암교	6.5×27.9	SLAB	D형 2기	3	안암4가 1 ~보문 7가 20	1966	
보문제1교	7.8×28.8	T-BEAM	원형말뚝형 2기	3	안암 4가 14 ~보문 7가 108	1969	
안암제2교	25×32.4	T-BEAM	타원형2기	3	보문 7가 111 ~안암 4가 41	1965	
종월교	6×36	SLAB	타원형2기	3	종암동 3 ~월곡아파트	1971	
장월교	25×47.5	SLAB	콘크리트형 4기	5	종암동 115 ~하월곡동 66	1972	
화랑교	7×20	SLAB	타원형2기	2	종암동 93 ~종암동 105-14	1972	
길음교	35×45	콘크리트 박스	타원형2기	2	돈암동 26 ~길음동 535	1989	(주) 삼호
정릉16교	2.8×10.8	SLAB 라멘	D형 2기	3	정릉동 382~378	1977	
정릉13교	4.3×8.9	SLAB	타원형1기	2	정릉 883~881	1976	
정릉8교	3×9.6	T-BEAM	B형 1기	2	정릉동 880~871	1975	
정릉957-12교	4.5×11.5	T-BEAM 콘크리트 SLAB		1	정릉 954-12~869	1975	
정릉4동 295-11	3.5×13.3	SLAB (박스형)	D형 2기	3	정릉 295-11~296	1972	
청수교	4.5×13.2	SLAB	D형 2기	2	정릉 771-48~767	1975	

자료 : 성북구청 토목과 제공.

옥 157호, 아파트 61호, 계 122,530호가 있었는데 그 중 50%는 전세이고 전 가옥의 80%가 은행이나 고리대금업자의 저당물이었다고 보도하고 있다.[13]

그러나 해방 후 5년만에 발발한 6·25 사변은 이만한 주택사정조차 용납되지 않게 하였으니 3년여의 전란속에서 포격 또는 폭격으로 많은 주택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하여 1953년 3월 31일 현재 조사결과에 의하면 全燒破가 859동, 半燒破가 811동으로 집계되었다.[14]

한편 이와 같은 처참한 상황속에서 서울시는 주택정책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이후 처음으로 주택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중 성북구의 주택총수는 12,396호이고 가구수는 11,801세대로서 통계수자만 봐서는 가구수보다 주택호수가 많은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많은 서울시민이 피난지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표-13〉). 그리고 이 통계속에는 444호의 불량주택과 수용소시설, 그리고 창고등에 거주하는 세대도 포함하고 있어 이 자료는 주택의 부족상황을 파악하는 자료로서 보다는 주택의 보유호수를 파악하는데 더 의미가 있는 통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住宅의 供給

光復은 되었으나 1948년 8월 15일 우리 정부가 구성되기까지는 美軍政期였다.

解放直後, 日本人들은 집을 버리고 속속 귀국하게 되었는데 집에 임자가 없게 되니 이를 먼저 차지하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즉 한국인 한 사람이 다수의 日本人 家屋을 차지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當局은 이를 수습하는 조치가 필요로 되었다. 우선 日本人의 財産은 敵産으로 분류하고 이를 조사하는 일부터 착수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서울 시청에 주택과를 설치하는 계기가 되었다.[15]

전재민대책으로 敵産家屋을 명도하는 예도 있었으나 하루에 수백명씩이나 3·8선을 넘어 오는 북한의 월남민을 수용하기에는 태부족으로 장충단공원등에

13) 서울신문 1947년 9월 28일자.
14) 서울特別市《市勢一覽》1955년판 p.166.
15) 서울신문 1946년 7월 5일자.

임시 수용소를 설치하기도 했는데 매일 150명 이상 입소하는 정도였고[16] 그 결과 1947년말 현재 수용인원은 장충단공원의 수용소 야숙자 5,886명, 구호수용 1,465명이 있었으며, 이를 위해 假住宅 1,150호 3,842명, 料亭(日本人 所有) 10개소, 寺刹 3개소, 學校 2개소에 1,530가구 8,120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對策만으로는 자꾸만 늘어나는 戰災民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비상대책으로 무연고자의 서울거주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는 「중앙전재민대책위원회」가 취한 시책인데 서울에 연고자가 없는 전재민 중 제1차로 1,000명을 1947년 8월 22일부터 전남 광주와 전북 군산에 이주시키

〈표-13〉 住宅實態調査 集計表

1953. 3. 1 현재

類型	住宅種別 (區分)	戶數	建坪	世帶數	人員	備考
合計		12,396	146,823	11,801	57,854	
大住宅	計	71	3,911	105	553	
	韓國式	58	2,759	85	450	
	外來式	13	1,152	20	103	
一般住宅	計	11,817	139,702	11,276	55,386	
	洋式	37	784	42	236	
	日本式	855	15,765	763	3,838	
	在來式瓦家	7,581	94,378	7,393	35,770	
	草家	3,344	28,775	3,078	15,532	
共同住宅	計	3	240	3	124	
	아파트	1	140	2	4	
	收容所施設	2	100	1	120	
不良住宅	計	444	2,424	333	1,475	
	老朽家屋	210	1,298	155	681	
	토담집	53	238	48	202	
	움집	48	137	8	24	
	箱子집	133	751	122	568	
其他	倉庫	61	546	73	316	

자료 : 서울특별시, 《市勢一覽》, p.136.

16) 동아일보 1947년 5월 15일자.

기로 하고 이어서 제2차로 그 해 8월 29일 경에는 대전과 충주지방으로도 각각 500명씩 1,000명을 이주시켰다.[17]

한편 이런 상황속에서도 시간이 감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이 취해졌으니 전재민 주택의 건설이 그것이다. 즉 1947년 11월 11일자 서울신문에 의하면 전재민 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건설이 70% 정도 진척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고, 이어서 마장동과 청량리에도 전재민주택을 건설 분양하였으며, 용산동 2가 일대 이른바 해방촌에는 약 3,500가구 25,000여명의 전재민을 위해 국유림 42정보를 대지로 분양 대부해 주기도 했다.[18]

전재민용 주택건설은 軍에 의해서도 건립되었다. 1952년에는 전재민용 후생주택 16동을 美8軍에서 건축한 바 있고 1955년에는 우리 육군 제1101건설 공병대에 의해 청량리동에 50동, 신설동에 50동 등 동마다 4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2층의 부흥주택이 건립되었다.[19]

한편 성북구지역에 전재민용 주택건축실적을 보면 1954년에 UNKRA 원조로 貞陵洞과 安岩洞에 厚生住宅 100戶를 건립했는데 당시 분양가격은 그 규모에 따라 238,800圓과 255,300圓 2型이 있었고[20] 1957년에는 미아리에 영세민주택 1,000호 건설계획 발표가 있었고[21] 보건사회부는 서울의 신당동, 청량리, 월곡동 소재 부흥주택 600동의 분양가격을 결정 발표하기도 했으며[22] 같은 해 7월 20일 서울시는 제3차 난민정착사업으로 미아리에 350가구를 입주시켰다.[23]

전재민 주택사업은 「歸屬財産積立金」을 재원으로 하여서도 實施되어 1958년에는 서울시내 9個地域에 都市 B型住宅 400戶를 건립 분양한 바 있는데 그 중 월곡동, 돈암동에도 58戶분이 포함되어 있다.[24]

---

17) 경향신문 1947년 7월 9일자.
18) 동아일보 1948년 9월 30일자.
19) 경향신문 1952년 11월 17일자.
20) 동아일보 1955년 12월 18일자.
21) 동아일보 1954년 1월 23일자.
22) 서울신문 1957년 3월 9일자.
23) 서울특별시 서울시보 제50호(1957년 7월 20일).
24)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市史資料》.

2) 1960년대

① 住宅事情의 변천

앞에서 1950년대 후반에 들어 公共部門에서의 住宅供給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음을 기술하였으나 그렇다고 증가하는 가구에 대한 주택의 공급에는 태부족이었다. 이런 상황속에서 1960년에 전국적으로 인구 및 住宅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당시 성북구의 가구수는 50,436세대이고 총 주택호수는 32,162호이므로 부족주택수는 18,274호로 36.2%에 해당했다(〈표-14〉 참조). 한편 所有關係에서 보면 現在 총 48,759호중 自家는 30,485호(62.5%)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貰入者 또는 無貰 未詳이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면서 工業化, 都市化가 촉진되자 인구의 서울집중이 격화된다. 즉 1960년대 중반기에는 서울인구가 260만명에서 1966년까지 6년간에 380만명으로 6.69%가 증가했으나 1966년부터 1970년까지 5년간에는 380만명에서 553만명으로 증가 9.8%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이와 함께 核家族化 現象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주택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더 큰 증가요인으로 작용한 것이었다.

② 住宅의 供給

1961년 軍事革命으로 革命政府가 들어서면서 착수하게 된 經濟開發 5個年計劃에는 주택의 공급도 하나의 정책목표로 책정·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公共部門의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기 위해 종래의 大韓住宅營團을 1962년에는 住宅公社로 개편 설립하고 1969년에는 민간의 주택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住宅銀行이 창설되었다.

〈표-14〉 1960년도 人口 및 住宅 調査結果

집또는 區分 居住 數	住宅數			不足住宅數	不足住宅率	所有關係				
	計	現住自家	空家			計	自家	貰	無貰	未詳
50,436	32,162	30,405	1,677	18,274	36.2	48,759	30,485	16,901	1,325	48

자료 : 1960년도 인구 및 주택조사결과의 수치를 재구성하여 不足住宅率을 算出한 것임.

한편 宅地造成을 목적으로 1950년대 후반에 착수한 미아리공동묘지의 이설은 그동안 이설이 완료되어 그 자리에는 宅地가 造成되어 住宅建設이 착수되었는데, 1962년 2월에는 國庫補助金 1,174,200환이 보조되어 시범주택 7동이 착공되고 그 해 7월에는 일반공영주택 100동이 代充資金 1,400만원으로 착공되었다.

分讓條件은 垈地 50坪에 기와집으로 건축비 호당 142,500원, 垈地費 100,000圓에 공급되었는데 垈地費만 먼저 내고 건축비는 25년간 상환하기로 하여 선착순으로 신청을 접수하였다.[25] 다음 1963년에도 미아동을 포함한 구로동, 오류동에 시영주택 1,040동을 건립키로 결정되었고[26] 1967년 6월에는 성북동 山 25번지 일대가 外人住宅地로 책정되었다.[27]

1960년대 후반기에 들어 金玄玉市長은 道路建設等에 큰 업적을 남기더니 서민주택난의 해결도 重點對策의 하나로 채택, 추진하게 되었는데 「市民아파트」의 건설이 그것이다. 시중심부 주변 산기슭 등의 무허가 건물집단 지역에 5층의 아파트를 건립, 무주택서민 또는 무허가 건물 철거민들을 입주시키게 되었는데 골조공사만 市에서 시행, 장기상환하게 하고 내장공사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시공케 함으로써 대지비와 건축비를 저렴하게 하여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무허가 건물을 정리하는 정책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서 1967년에 서대문구 현저동 금화산 기슭의 금화아파트의 건립을 시작으로 하여 市內 일원의 곳곳에서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성북구에서는 1969년에 月谷洞과 貞陵洞 2個地域에 총 15個棟 759家口分이 建立되었다. 地域別 建立內譯은 〈표－15〉와 같다.

〈표－15〉 성북구 시민아파트 건립 및 철거 현황

아파트명	소재지	동수	입주가구수	건립년도	비고
계		15	759		
월곡시민아파트	월곡동 산 5	6	309	1969	1992년 말 현재 2개동 (110가구) 철거
정릉시민아파트	정릉동 산 87-1	9	450	1969	1992년 말 현재 9개동 (450가구) 철거

자료 : 성북구청 주택과 제공.

25)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서울특별시사 해방후시정편》p.196.
26) 서울신문 1963년 9월 3일자.
27) 동아일보 1967년 6월 26일자.

그러나 市民아파트는 그 地盤이 산비탈의 경사진 곳이 많은데다 공사비를 지나치게 저렴하게 하려는 나머지 기초공사가 부실하여 1970년 4월 8일에는 臥牛아파트의 붕괴사고가 발행, 32명의 死亡者와 38명의 負傷者가 발생하는 慘事가 일어났다.

서울市는 우선 市民아파트 全數에 대한 安全診斷을 실시하고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한편, 위험아파트로 진단된 것은 1970년대 초부터 연차적으로 철거 시작이 추진되었는데 성북구의 경우에도 정릉시민아파트는 1976년과 1985년 2회에 걸쳐 9개동(450가구) 모두가 철거되었고, 月谷市民아파트는 1992년 6월에 2개동(110가구)을 철거하고 아직 4개동(199가구)이 남아 있다.

아파트의 건설과 병행하여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시책도 시행되었다. 국공유지에 건립된 무허가 건물중 장차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에 비추어 변동을 가져올 전망이 거의 희박한 지역은 소요대지를 분양, 무허가 건물을 개축 또는 철거하고 신축하도록 했는데 성북구에서는 동선동 1가 32번지와 삼선동 2가 일대 90,265평의 공원용지를 해제, 양성화지역으로 변경, 분양하였다.[28]

1964년 9월에는 무허가 건물정리시책이 수립, 시행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① 무허가 건물의 등록제 실시, ② 무허가 건물에 대한 수도, 전기시설 일체 불허 ③ 구역책임제 실시 ④ 건축법에 의거 무허가 건물 건축자 처벌 ⑤ 건축법에 의한 무허가 건물건축자 체형제 실시 등 제법 강경한 시책이 수립되었으나 거듭되는 각종 선거때마다 일관성있는 정책이 취해지지 않고 묵인함에 따라 행정에 대한 불신만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3) 1970년대

① 住宅事情의 변천

1960년대 후반에 들어 정말로 파격적이라 할만큼의 주택공급시책이 추진되었으나 서울로 집중하는 인구의 규모는 市의 이와 같은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1970년에 실시한 「전국 인구 및 주택조사」에서 나타났는데 성북구의 가구수

28) 서울신문 1969년 2월 7일자.

는 196,547인데 대하여 주택수는 107,979호에 불과해 주택부족율은 45.1%로 나타났다(〈표-16〉).

그런데 이 주택조사결과보고에서 한가지 눈에 띄는 것은 연립 내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주택조사 항목의 설정에서도 종전의 「所有」중심에서 주택의 종별중심으로 변경을 가져왔으니 이미 주택정책의 방향이 공동주택을 대량 공급함으로써 垈地費의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뒤집어 보면 地價의 폭발적인 앙등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대도시의 한정된 토지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도 기인하는 것이었다.

② 주택의 공급

1970년대 들어 주택공급부문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첫째로, 주택공급이 하나의 産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1960년대 말에 여의도와 서부이촌동에서 아파트단지의 건설로 주택산업화의 가능성이 입증된 터에 서울시의 江南開發, 즉 永東·蠶室地區開發은 주택건설업계에서는 住宅産業化의 好機가 아닐 수 없었다.

둘째, 무허가 건물의 단속 및 철거시책의 강화이다.

먼저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단속방법이 종전의 地上監視體制의 한계를 넘어서는 항공측량방식에 의한 空中監視體制가 확립되었는데 1972년 1월부터이다.

다음 무허가 건물의 철거시책에서는 우선 시내 간선도로에서의 可視圈內에 있는 것부터 철거하게 되었는데 그 철거민은 우선 큰 사업으로 廣州大團地(지금의 城南市)를 조성, 철거민을 이주정착시키는 한편 市의 변두리 지역인 봉천동, 신림동, 시흥동 등 지역으로 대거 이주시키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 중 광주대단지 사업은 당초 1969년에 착수했으나 그 위치가 경기도 관할구역이므로 일단 이주가 상

〈표-16〉 1970년도 인구 및 주택 조사 결과

家口數	住宅數	不足住宅數	不足住宅率	備考
196,547	107,979	88,568	45.1	

자료 : 경제기획원 발행, 「1970년도 인구 및 주택 조사집 계표」에서 작성.

당히 진척된 1971년 10월 정부방침에 따라 경기도로 이관했다.

한편 공공부문에서 건설된 아파트에도 철거민의 입주가 실시되면서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였으니 이른바 「딱지」의 거래이다. 원래의 명칭은 「아파트 입주증」이나 철거민의 대다수가 생업을 영위하던 고장을 떠나기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는 대지만 분양받은 경우 분양된 대지에 집을 지을 능력이 없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을 능력이 부침에 따라 일정액의 「프리미엄」을 붙여 넘기고 부동산 소개업자가 이를 부동산 투기업자에게 소개하여 전매하는 부동산 투기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결과적으로는 有効需要 즉 주택의 구매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非正常的인 去來가 必要惡처럼 인식되기도 했었다.

무허가 건물의 감시체제가 지상감시에서 공중감시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발생은 현저히 줄어 들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연도별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발생추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1971년에 3,241동, 1972년에 268동, 도봉구가 분리된 후인 1973년에는 103동, 1974년에는 49동으로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였다.

세째, 1973년에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으로 불량주택재개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불량주택 재개발조합의 원래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의 부여와 이미 住宅供給이 限界에 다다른 大都市의 住宅供給狀況에서는 再開發에 의하지 않고는 住宅産業의 活路가 막혀 버리게 된 狀況과 맞물려 점차 再開發事業이 活氣를 띠게 되어 市內 住宅産業의 活路가 막혀 버리게 된 狀況과 맞물려 점차 再開發事業이 活氣를 띠게 되어 市內 無許可 建物 集團地域에서는 다투어 不良住宅 再開發地域指定을 추진하게 되었다.


정릉동 양옥 밀집 지역

네째, 초가지붕 개량에 관한 것이다. 초가지붕은 우리나라 일반 서민의 전통적인 지붕양식이었으

나 1970년부터 새마을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그 자재의 부식성으로 늦어도 2~3년에 한번씩은 지붕을 걷어 내고 새로이 이어야 하는 비능률성이 시대조류에 맞지 않게 됨에 따라 기와 또는 「스레이트」 등으로 개량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1971년 1월 1일 현재 성북구관내에 총 643동이 있었던 것이 사업 1차년도인 1971년에 373동의 개량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개량 1975년말 현재 잔여 초가지붕은 35동으로 집계되었으며 나머지 35동도 오래지 않아 모두 개량되어 이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4) 1980년대

① 住宅事情의 變遷

1970년대의 永東·蠶室新市街地開發 붐에 편승한 住宅産業化는 일찍이 없었던 住宅建設實績을 올렸으나 人口의 증가와 核家族化의 진행에 의한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하였다. 그것이 1980년에 조사한 「전국 인구 및 주택조사」결과로 나타났다.

즉 1980년의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성북구분을 보면 家口數는 총 130,119가구인데 주택의 총수는 66,344호이므로 부족주택수는 63,775호가 되어 아직도 부족주택율은 49%에 이른다(〈표-17〉).

② 住宅의 供給

연이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 완수로 국민의 소득은 크게 늘어났으나 대도시 주민의 주택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는데 그 까닭은 소득의 증가추세에 못지 않게 住宅의 價格이 上廻하여 上昇하였기 때문이다.

〈표-17〉 1980년도 인구 및 주택 조사 결과

총 가 구 수	총 주 택 수	부족주택수	부족주택율	비 고
130,119	66,344	63,775	49.0	

자료 : 경제기획원 발행, 「1980년도 인구 및 주택 조사 결과」에서 발췌 작성.



동소문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기공식(90.4)

이에 정부는 住宅難 解決을 위해 연간 주택건립목표를 30만호로 하여 1990년까지 10년만에, 약 500만호를 건립, 1990년의 주택보유율을 90%까지 높이는 야심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의 공급을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으로 나눠 공공부문에서는 25평 이하의 서민주택의 건립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그런데 이 계획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 변경되게 되었으니 그 까닭은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정부 여당의 후보가 1988년부터 1992년까지 5년간에 주택 200만호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부 여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관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계획도 변경을 가져왔는데 이 기간중 서울시는 40만호를 건설하기로 하고 공급주체별 주택공급계획을 〈표-18〉과 같이 책정하였다.

한편 1970년대 상반기부터 착수한 不良住宅 再開發事業은 198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城北區의 경우에도 敦岩洞을 비롯한 東小門洞, 鍾岩洞, 貞陵洞 등에서 再開發區域이 지정되어 事業計劃이 승인되어 일찍 서두른 구역에서는 이미 1991년 6월에 준공되어 組合員들이 현대적 설비를 갖춘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하기도 했는데, 구역별 추진상황을 보면 먼저 이미 준공이 되어 입주가 완료

〈표-18〉 40만호 住宅建設計劃

	계	영구임대	근로복지	사원임대	임대주택	소형분양	민간주택
계	400,000	71,200	24,500	17,200	16,800	51,900	218,400
서 울 시	80,000	30,000	17,000	5,000	8,000	20,000	-
주택공사	64,600	41,200	3,800	4,900	7,800	6,900	-
민 간	255,400	-	3,700	7,300	1,000	25,000	218,400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市政》, 1991, p.151.

된 구역으로 敦岩 2－2區域은 1991년 6월 13일 준공, 家屋主 268, 貰入者 127家口가 입주 완료되었는데 詳細는 〈표－19〉와 같다.

다음 구역지정이 된 지역으로 敦岩 2－1, 東小門, 敦岩 3－2, 敦岩 3－3, 鍾岩, 貞陵 4區域等 6個區域이 있고(〈표－20〉) 上月谷, 吉音, 月谷3, 月谷 4區域등 4個區域의 區域指定이 推進中에 있다. 詳細는 〈표－21〉과 같다.

地域一帶가 不良地域은 아니나 特定建物이 毁損되거나 一部 滅失되어 倒壞 등 安全事故의 우려가 있거나 竣工後 20년이 지난 주택으로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 유지비가 소요되는 건물의 재건축도 1990년대에 들어 활기를 띠었는데 1992년말 현재 총 1,323동이 신청되어 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詳細한 것은 〈표－22〉와 같다.

다음 같은 職場 또는 같은 區에 살고 있는 無住宅者들이 住宅組合을 構成, 아파트의 건립이 가능한 용지를 매입, 아파트를 건축하는 이른바 組合住宅의 건축도 1990년 이후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성북구의 추진상황은 〈표－23〉과 같다.

이상 光復以後 48년간의 城北區의 住宅事情과 供給狀況을 살펴 본 바 결론적으로 말하여 그토록 역동적인 노력이 기울여졌음에도 不足住宅率은 점점 더 심해졌는데 그것은 가구수의 증가에 대하여 住宅數의 증가가 못미쳤기 때문이다. 즉 가구수는 1960년을 100으로 할 때, 30년동안에 291.4로 증가한데 대하여 住宅數는 207.8밖에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표－24〉).

〈표－19〉 不良住宅 再開發事業 完了區域現況

區分名	위치 및 代表者	面積 (m^2)	建物 棟數	家口數	計	建立豫定家口數	告示	決定報告	竣工年月日
					家屋主 貰入者			事業計劃決定 事業(組合)施行	
돈암2-2	돈암동 5	19,977	236	395		619		建設部告示 470 (73. 12. 1)	91. 6. 13
				268				서울市告示 583 (86. 8. 26)	
				127				서울市告示 909 (86. 12. 18)	

자료 : 성북구청 주택과 제공.

〈표－20〉 再開發事業推進現況(1) 〈區域指定이 完了된 區域〉

區分名	위치 및 代表者	面積 (m^2)	建物棟數	家口數	計	家屋主	貰入者	建立豫定家口數	告示	決定報告	事業計劃決定	事業(組合)施行	竣工年月日
돈암2-1	길음동 877 이 승 호	22,761	217	574	209	365		684		건고470('73.12.1)	서고583('86.8.14)	서고784('86.10.2)	• 총공정 99% • 임시사용승인 : '92.8.20
동소문	돈암동 606,616 오 병 천	191,080	1,605	5,010	1,605	3,405		4,294		건고470('73.12.1)	서고12('86.1.10)	서고724('86.10.2) 성북36('91.10.30)	• 제2진입로준공 : '92. 2. 28 • 대지조성 및 지하구조물 총공정 35% • 아파트공정 5%
돈암3-2	돈암동 19 한 우 홍	69,839	559	1,615	559	1,056		2,070		건고470('73.12.1)	서고336('92.10.21)		• 공원,풍치 해제 : '92. 4. 9 • 경관심의 : '92.8.27
돈암3-3	돈암동 80 이 상 학	31,322	186	694	186	508		834		건고470('73.12.1)	서고336('92.10.12)		• 공원,풍치 해제 : '92. 4. 9 • 경관심의 : '92.8.27
종 암	종암동 105 이 수 형	50,187	425	1,039	425	614		1,893		건고67('91.2.11)	서고1992-211 ('92.11.8)		• 경관심의 : '92.6.24 • 교통영향평가 : '92.8.14 • 토목심의 : '92.8.14
정 릉 4	정릉동 236 손 상 호	133,052	1,300	2,262	1,300	962		3,374		건고680('91.11.8)			• 공원풍치해제 : '92.4.9

〈표－21〉 再開發區域事業推進現況(2) 〈區域指定 推進中인 區域〉

區分名	위치 및 代表者	面積 (m^2)	建物棟數	家口數	計	家屋主	貰入者	建立豫定家口數	告示	決定報告	事業計劃決定	事業(組合)施行	竣工年月日
상월곡동	상월곡 산1 민 용 설	56,189	567	1,089	567	522		1,546					• 지구지정요청 : '91.9.10 • 공원용지해제 : '92.4.9
길 음	길음1동 575 한 광 옥	20,025	420	572	305	267		727					• 지구지정신청 : '92.10.22
월 곡 3	월곡동 산2	110,000	495	1,375	495	880		1,400					• 지구지정신청 위한 재개발사업 주민 홍보
월 곡 4	월곡동 77	220,000	1,519	3,307	1,519	1,788		3,416					• 지구지정신청 위한 재개발사업 주민 홍보

〈표－22〉 再建築事業推進現況

구 역 명	위 치 및 대 표 자	면 적 (m^2)	건 물 동 수	건립예정 가 구 수	조합설립 인 가	사 업 추 진 현 황
계		177,607	1,323동	41동 4,994가구		
삼 선 4 가 재 건 축	삼선4가 214 주 무 영	13,428	150동	5동 387가구	'90.11. 6	• 입지심의 : '91. 5. 2 • 건축심의 : '92. 6.25 • 사업승인준비
정 릉 4 주 공 A P T 재 건 축	정릉동 803 박 병 훈	6,991	8동 163가구	2동 245가구	'91. 6.17	• 건축심의 : '92. 5.16
종 암 아 파 트 재 건 축	종암동 34-3 김 영 호	6,906	3동 152가구	2동 238가구	'91. 2. 7	• 건축심의 : '92. 6.25 • 사업승인 : '92.10.26 • 착 공 : '92.10.28
정 릉 · 돈 암 재 건 축	정릉동 45-21 강 동 순	40,142	293동	9동 1,331가구	'91. 6.17	• 입지심의 : '91.12.21 • 건축심의 : '92. 4.9 • 사업승인 신청중
동소문 278 재 건 축	동소문4가278 김 명 원	13,383	126동	2동 345가구	'91. 7.31	• 경관심의 : '92. 8.27 • 입지심의 : '92. 9.4 • 건축심의 : '92.10.28
종 암 54 재 건 축	종암동 54-86 신 태 현	12,879	91동	3동 238가구	'91.10.12	
돈 암 3 , 4 , 6 재 건 축	돈암동 3,4,6 순 남 천	18,287	145동	4동 493가구	'92. 6. 2	• 경관심의 : '92. 9.21
정 릉 1 동 A 지 구 재 건 축	정릉동 6 오 상 곤	22,876	209동	4동 774가구	'92. 3.19	
정릉1동제일 재 건 축	정릉동 7 박 두 원	7,910	78동	1동 200가구	'92. 7.20	• 경관심의 : '92. 6.18 • 입지심의 : '92. 6.24 • 건축심의 : '92.10.28
성 북 아 리 랑 재 건 축	정릉동 587 돈암동 527 최 영 수	34,805	220동	9동 843가구		• 입지심의 : '92. 9.15
석 관 동 재 건 축	석관동 90-27 외 149필지	14,870	147동	4동 498가구		• 군 협 의 : '92. 4.30
정릉동 185 (숭덕국교) 재 건 축	정릉동 185 심 낙 섭	23,000	200동	3동 549가구		• 경관심의 : '92. 8.27
정릉2동 463 재 건 축	정릉동 463 안 광 태	41,785	167동	7동 1,172가구		• 경관심의 : '92. 8.27

자료 : 성북구청 주택과 제공.

〈표-23〉 組合(職場·地域), 民營住宅 事業推進現況

구 역 명	위 치 및 대 표 자 (전 화)	면 적 (m^2)	건 물 동 수	건립예정 가 구 수	조합설립 인 가	사 업 추 진 현 황
돈 암 동 현대아파트	돈암동552-20 김 진 호	7,253	137	2동 141가구	'92. 2.28	• 입지심의 : '90. 5.10 • 건축심의 : '90.12.20 • 사업승인(착공) : '91.4.16 • 총 공 정 : 60%
보 문 동 호웅건설지역	보문6가 442 신 기 오	9,058	213	2동 218가구	'90.11. 8	• 입지심의 : '90.10. 9 • 건축심의 : '90.12. 7 • 사업승인 및 착공 : '91.4.1 • 대지조성공사 완료 : 공정 25%
한국데이타 통신연합APT	정릉동 산72 권 오 기	24,902	572	5동 713가구	'90. 8.25	• 사업변경승인 : '92. 4.29 • 아파트 골조공사 공정 : 10%
석 관 동 지 역 주 택	석관동 110-4 염 영 식	8,779	309	3동 315가구	'91. 8.21	• 사업승인 : '92. 3.16 • 착 공 : '92. 5.27
월 곡 동 지 역 주 택	월곡동 90 진 충 근	4,993	200	1동 200가구		• 입지심의 : '91.10.16
상 월 곡 동 우남아파트	상월곡동 산1외 3필지 정 병 환	9,698	일반분양	2동 225가구	일반분양	• 입지심의 : '91. 5. 6 • 건축심의 : '92. 5.16 • 사업승인 : '92. 6.16 • 분양승인 : '92. 9.19
계 성 제 지 직 장 주 택	정릉 산87-23외 30필지 이 성 범	13,025	235	2동 299가구		• 경관심의 : '92. 7.25
정 릉 3 동 지 역 주 택	정릉2동 산 87외 2필지 김 금 남	9,451	37	2동 298가구	'92.10.29	• 경관심의 : '92.10.29

한편 住宅의 種類別 變動推移를 보면 1980년까지는 單獨住宅이 90.8%로 단연 압도적인 비중을 점했으나 1990년에 와서는 83.8%로 무려 7%나 낮아졌으며, 반

면 聯立住宅이 많이 늘어났고, 1980년대 중반에 와서 多世帶住宅이 새로이 등장하였는데 어려운 住宅事情에 대한 궁색한 대안을 말해 주는 것 같다.

다만 城北區의 경우 新市街地의 開發이 전혀 없음에 따라 아파트의 비중이 현저히 적은 것도 하나의 특색이라 하겠다(〈표-25〉).

〈표-24〉 光復以後 年代別 住宅事情變動推移

年度別	家口數	住宅數	不足住宅數	不足住宅率(%)	備考
1960(B)	50,436	32,162	18,274	36.2	1970년 數値가 큰 것은 道峰區가 分離되기 전의 것이기 때문임
1970	196,547	107,979	88,568	45.1	
1980	130,119	66,344	63,775	49.0	
1990(B)	146,954	66,823	80,131	54.5	
(B)/(A)	291.4	207.8			

자료 : 各年度 人口 및 住宅調査結果値를 再構成한 것임.

〈표-25〉 주택의 종류별 변동 추이

종류별 / 연도별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주거용 건물내주택
1970	107,979	98,162	1,818	6,727	—	1,272
	(100.0)	(90.0)	(1.7)	(6.2)		(1.2)
1980	66,344	60,246	2,761	1,535	—	1,802
	(100.0)	(90.8)	(4.2)	(2.3)		(2.7)
1990	66,823	56,009	3,239	4,701	832	2,042
	(100.0)	(83.8)	(4.8)	(7.0)	(1.2)	(3.1)

자료 : 각년도 인구 및 주택조사결과치를 再構成한 것임.

4. 上水道

1) 光復以後 1950년대까지

光復以後 給水人口統計가 區別로 작성되어 전해진 최초의 해는 1954년부터인데 기록에 의하면 당시의 성북구의 총인구는 112,632명이고 이에 대하여 급수인

구는 16,120명으로 급수보급율은 14.3%에 불과하다.[29]

그런데 그 이후의 급수인구통계는 갑자기 늘었다 줄어든 사례도 있어 이들 불합리한 연도분을 제외하고 통계로 작성하면 〈표-26〉과 같다. 한편 인구증가에 따른 급수수요에 대응하면서 위생관념의 보급이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단위 물사용량 즉 1인 1일 급수량도 증가가 요구되었는데 그 추이를 보면 1946년에 89ℓ였던 것이 1960년대 와서는 180ℓ로 크게 伸張되었다.

2) 1960년대

1960년대에 들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 달성으로 산업화, 도시화는 그 속도를 더하면서 서울은 지방인구의 집중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한다. 그 중에서도 물은 하루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기본적 수요이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상수도 생산량을 늘려 급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더구나 공업화, 도시화의 진전은 지하수의 오염을 가져와 井戶水의 이용도 불가능해져 상수도의 급수는 절대적인 행정수요로 등장한다. 성북구의 1960년대는 서울의 변두리 지역으로 인구가 급격히 집적하는 지역에 해당된다.

서울시는 해마다 격증하는 급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수도 생산량을 크게 늘려야 했고 늘어난 상수도를 변두리의 미급수지역에 송배수관을 부설 급수하는 일에 온 정력을 쏟아야 했다. 1959년과 1960년에는 九宜水源地의 시설을 개량, 80,000m³/일을 증산하게 되고, 1961년에는 3,000m³/일 규모의 「미아리 보조수원

〈표-26〉 1950년대 급수 보급율의 변동 추이

구분 / 연도별	총 인 구	급 수 인 구	급수보급율(%)	비 고
1954	112,632	16,120	14.3	
1959	242,132	53,145	21.9	
1960	264,981	66,850	25.2	

자료 : 각년도판 서울특별시 《시세일람》에서 발췌 작성. 다만 1960년도분은 1961년판 《서울통계연보》에서 발췌.

29) 서울특별시 《시세일람》 1954, p.111.

지」의 시설등이 지역의 급수수요에 대응하였다. 급수보급율의 신장추이를 보면 〈표-27〉과 같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10년간에 3.69배가 늘어난 인구에 대하여 10.56배의 급수인구의 신장을 보였으니 실로 놀라운 신장이 아닐 수 없고 이렇게 많은 급수인구의 신장으로 급수보급율도 25%에서 72.1%로 크게 성장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급수보급율이 그렇게 급신장한 상황속에서도 1인 1일 급수량이 180ℓ에서 234ℓ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실로 力動的인 行政供給이 아닐 수 없다 하겠다.

3) 1970년대

인구의 증가세에 비추어 볼 때 1970년대는 1960년대에 비해서는 다소 그 勢가 수그러들었으나 그 규모는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동안 인구의 팽창에 따라 1973년에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성북구는 미아리 이북이 도봉구로 분할되면서 성북구는 서울의 중간지역구로 바뀌었고 급수 보급율도 중간지역구답게 1975년에 이미 99.5%에 이르고 1980년에는 100%를 달성했다.

한편 1인 1일 급수량도 1970년의 234ℓ에서 1980년에는 395ℓ로 크게 신장되었다. 급수보급율의 신장과 1인 1일 급수량 변동추이를 보면 〈표-28〉과 같다.

〈표-27〉 1960년대 성북구의 급수보급율 추이

구분 / 연도별	총 인 구	급 수 인 구	급수보급율(%)	1인1일급수량ℓ
1960(A)	264,981	66,850	25.2	180
1970(B)	979,848	705,968	72.1	234
(B)/(A)	3.69	10.56		

자료 : 각년도판 《서울통계연보》에서 발췌 작성.

〈표-28〉 1970년대 성북구의 급수보급율 추이

구분 / 연도별	총 인 구	급 수 인 구	급수보급율(%)	1인1일급수량ℓ
1970	979,848	705,968	72.1	234
1975	604,852	601,532	99.5	304
1980	588,572	588,572	100	395

자료 : 각년도판 《서울통계연보》에서 발췌 작성.

4) 1980년대

1980년대에 들어 오면서 인구의 증가세는 현저히 둔화되었으나 국민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소득수준이 향상되자 물소비량도 계속 증가, 상수도 생산량을 계속 확장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한편 한강의 수질이 악화되면서 상수원을 상류로 끌어 올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1979년에는 八當水源地를, 1986년에는 岩寺水源地를 신설「깨끗한 물을 풍족하게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1991년말 현재 1인 1일 급수량은 493ℓ로서 이는 중진국의 수준에 비추어서는 높은 수치이다.

5. 下水道

1) 光復以後~1950년대

光復以後에 城北區地域에 下水道의 정비가 취약했었다는 것은 前節에서 이미 밝힌 바 있으나 이런 상황속에서 맞은 6·25 事變으로 인한 戰亂은 그마저 포격 및 폭격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광복이후 처음으로 발견된 城北區地域에 하수도공사 시행기록은 貞陵洞地內 하수도공사로 1951년 6월부터 1954년까지 사이에 시행하였다.《서울特別市史 解放後 市政篇》에 의하면 1951년 6월부터 1954년 7월까지 사이에 성북구관내에서 시행한 하수도공사는 정릉동지내 하수도공사와 安岩川 浚渫工事가 있는데 前者는 350m의 下水管渠敷設에 149,000환이 투입되고 後者의 경우는 235m 區間의 下水浚渫에 188,000환이 투입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30]

그 후의 기록으로는 各年度豫算書에서 나타나는데 1960년까지 敦岩洞地內 下水道改修, 安岩洞~高大앞 下水道改修, 鍾岩洞地內 下水道改修 등 3件이 발견되는데

30) 서울特別市市史編纂委員會《서울特別市史 解放後 市政篇》pp.533~655.

〈표－29〉 1950년대 下水道 工事 沿革

施行年度	工 事 名	工 事 槪 要	工事費(千원)	備 考
1958	돈암동지내 하수도 개수	토관부설 1,900m	12,500	
	안암동～고대앞 하수도 개수	不 詳	17,240	
1968	종암동지내 하수도 개수	不 詳	25,000	

공사개요가 없는대로 인용하면 〈표－29〉와 같다.

2) 1960년대

1960년대 들어 人口가 늘어나고 市街地가 확장되면서 새로운 지역에 下水管渠가 부설되고 또 管徑의 규모가 큰 幹線下水道의 부설공사가 시행되었는데 三仙洞, 月谷洞, 미아리, 長位洞地內에도 下水道敷設工事가 시행되었다. 工事別 槪要와 사업비 내역은 〈표－30〉과 같다.

3) 1970년대

1970년대 들어 市街地가 확충되면서 石串洞, 吉音洞 등지에도 下水道管渠가 보급되고 下水道工事의 內容도 暗渠工事가 施行되면서 下水道構造物도 幹線은 暗渠(BOX) 내지 大型管徑으로 시행하게 되었는데 대개가 直徑 45cm이상 1.50m까지의 것을 부설하였다. 그런데 흄管인 경우 1,000mm이상은 暗渠보다 오히려 高價이므로 1,000mm 以下는 흄管으로 부설하고 그 이상은 暗渠를 부설하는 것이 장래 유지관리면에서도 유리하였기 때문이다.[31]

다음 그렇다면 당시 城北區地域에 下水管渠施設은 얼마나 있었을까 인데, 마침 1975년에 長期計劃을 수립하면서 下水道管渠施設이 區別로 처음 조사 집계되었는데 성북구 관내의 것도 1972년부터 1975년 10월 1일 현재의 것이 있어 인용하면 〈표－31〉과 같다. 1970년대의 하수도 정비 지역은 장위동, 하월곡동, 종암동, 정릉동, 석관동, 길음동 등 지역인데 연도별 공사개요는 〈표－32〉와 같다.

31) 서울特別市《下水道現況과 將來計劃》1975, p.17.

〈표－30〉 1960년대 下水道 工事 沿革

施行年度	工 事 名	工 事 概 要	工事費(千원)	備 考
1961	안암천준설	2,600m³	6,000	
	복차천 준설	2,800		
	성북천 준설	준설 20,000m	15,000	
	종암동지내 하수도개수	不 詳	10,300	
	종암동지내 하수도개수	토관＝60×105cm	18,000	
1963	성북천외 5개소 준설	不 詳	3,000	
1966	삼선동지내 하수도	L＝3,000,B＝75-15	10,000	
		기 타		
	안암천지내 하수도	암거B＝3, H＝2	9,000	
		L＝170		
	안암천외 4개소 준설	준설＝7,500m³	3,000	
1967	안암천 복개	복개 L＝160	5,000	
		B＝40, H＝2.5		
	월곡천 개수	석축 L＝750	30,000	
		4,500m²		
	동선동～서암동간	복개 L＝500,	15,000	
	하수도 개수	B＝1.5～2.0, H＝1.		
		0～1.8,		
		D＝30～120,L＝200		
1968	안암천 복개	은거 L＝250,B＝6	20,000	
	월곡동지내간선 하수도	옹벽＝800m	30,000	
	종암동지내 간선 하수도	토관＝2,000m	10,000	
	성북천 복개	不 詳	15,000	
1969	월곡동지내 하수도	옹벽 H＝4	30,000	
		L＝480		
	미아3거리지내 하수도	B＝45～100	20,000	
		L＝500, B＝1.2～1.5		
		L＝500		
	안암동지내 하수도	B＝3, L＝200	20,000	
		H＝2.5 침사지1개소		
1970	종암동지내 하수도	토관 200	40,000	
		은거 1,300		
	하월곡동지내 하수도	토관 1,200	30,000	
		은거 850		
	이문～석관동지내 하수도	은거 1,250	25,000	
	정릉동지내 하수도	토관 500	20,000	
		은거 500		
	장위동지내 하수도	은거 700	30,000	

자료 : 각년도판 《서울통계연보》에서 발췌 작성.

〈표－31〉 하수도 시설의 정비 추이

종별 / 연도별	계	암거	관경	개거	U형측구
1972	210,396	33,911	130,366	7,127	5,153
1973	129,468	18,012	97,076	8,083	10,800
1974	140,625	19,252	101,112	9,003	11,258
1975	140,810	19,252	101,297	9,003	11,258

자료：서울特別市《下水道現況과 將來計劃》1975, pp.19～47.

〈표－32〉 1970년대 下水道 工事 沿革

施行年度	工事名	工事概要	工事費(千원)	備考
1971	장위동지내 하수도	은거＝1,100	30,000	
	하월곡동지내 하수도	은거＝900	30,000	
	종암동지내 하수도	은거＝1,000 토관＝400	30,000	
	정릉동지내 하수도	은거＝450 토관＝1,500	30,000	
1972	장위동지내 하수도	암거＝600 토관＝400	20,000	
	정릉동지내 하수도	암거＝400 토관＝300	20,000	
	종암동지내 하수도	암거＝750 토관＝725	30,000	
	석관동지내 하수도	암거＝500 토관＝700	20,000	
1974	장위동지내 하수도	암거＝2.5×3.0 L＝420	53,000	
1976	장위동지역 하수도	BOX(1.5×1.5) L＝600 관경 D＝600 L＝300	50,000	
	하월곡동지역 하수도	BOX(1.5×1.5) L＝700	50,000	
	정화여상앞 하수도	BOX(2.5×2.5) L＝500	70,000	
1977	길음동지내 하수도	不詳	5,547	
1979	석관동～이문동간 하수도	BOX 1련 L＝150	75,000	

4) 1980년대

1980년대에 이르는 城北區는 이미 변두리 區가 아니라 中心地區와 변두리 區의 中間地域區로 되고 市街地區도 거의 완료된 段階로서 下水道施設도 정비가 거의 완료된다.

이와 같은 事實은 1984년 이후 1991년까지 사이의 下水管渠延長의 변동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1982년 당시에 城北區管內의 下水管渠 延長은 434.9km였는데 1991년에 와서도 483km로 9년간에 겨우 48.1km가 증가한데 그쳤음을 보아 알 수 있다.

한편 管渠의 정비가 거의 완료된 만큼 下水道普及率(排水面積基準)도 1980년대에 들어서는 초반부터 90%를 상회하고 1990년에는 99.8%에 이르고 있는데 연도별 추이는 〈표-33〉과 같다.

다음 下水處理로서 城北區地域은 서울의 排水區域中 淸溪排水區域과 中浪排水區域에 속하고 있어 下水處理는 淸溪川 下水處理場이 竣工 運轉開始된 1976년 9월부터 下水處理를 하였다.

處理方法은 活性汚泥法으로서 高級處理이다. 處理效率은 BOD평균 350ppm을 19ppm으로 95%를, SS平均 330ppm을 30ppm으로 90%를 제거하여 中浪川으로 放流한다.

현재 淸溪川 下水處理場의 處理能力은 25만m^3/日이고 城北區를 비롯한 종로,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의 일부지역의 하수전량을 처리하고 있다. 다만 1979년부터 中浪川 下水處理場과 統合運營하고 있어 외부에 알려지기는 中浪川 下水處理場으로 되어 있으나 處理系統은 달리하고 있다.

〈표-33〉 下水道施設 整備 및 普及率 推移

年度別	管渠延長(km)	計劃排水區域面積(km^2)	排水區域面積(km^2)	普及率(%)	備 考
1982	434.9	15.62			
1985	446	15.62	14.89	95.3	
1990	482	15.58	15.55	99.8	

城北區地域의 下水는 各小排區別로 大型管渠로 모아지고 이들 管渠는 城北川과 貞陵川의 兩岸에 묻은 大型 遮集管渠(分流下水管路라고도 한다)에 接續시켜 城東區 君子洞과 松汀洞에 위치한 下水處理場으로 集水되어 일정한 處理過程을 거쳐 中浪川으로 방류된다.

현재 城北川 兩岸에는 11,121m가, 貞陵川 兩岸에는 13,170m가 매설되어 있다. 城北川의 遮集管渠는 1983년부터 1984년까지 7년간에 걸쳐 시설되었고 貞陵川의 것은 1988년부터 1989년까지 2년에 걸쳐 增設되었다. 河川의 兩岸을 따라 매설된 遮集管渠는 下水가 集水되어 下水處理場으로 流入됨에 따라 河川으로 下水가 流入되지 않으므로 河川水는 上流인 北漢山의 溪谷水만 흐르게 됨에 따라 河川의 물이 마르는 문제가 있으나 비라도 와서 물이 많아지면 맑은 물에 惡臭도 없어진 터라 물고기가 올라와 낚시꾼들이 낚시를 한다는 신문기사를 읽으며 30여년전 이들 河川에서 물놀이 하던 시절을 상기한다.

이제 그동안 近接하기조차 꺼려지는 시꺼멓게 썩었던 河川에 송사리떼가 노니는 河川으로 되살아나는 날도 멀지 않았다.

6. 河 川

城北區에는 2個의 河川이 있다. 城北川과 貞陵川이 그것이다. 모두 河川法上 準用河川이다. 그 중 城北川은 城北洞 13－245에서 東大門區 新設洞의 清溪川 합류점까지 7.7km인데 城北區 區間은 4km이고, 貞陵川은 貞陵洞 820, 779－2, 952번지 등 3개의 始點에서 동대문구 용두동 청계천 합류점까지 10.25km인데 성북구 구간은 7.5km이다. 또한 貞陵川의 支流로서 月谷川이 있는데 城北洞 13－245번지를 始點으로 하여 下月谷洞 貞陵川 合流點까지 3.75km이다.

이들 河川의 改修記錄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은 1950년대 초부터이다. 貞陵川邊과 城北川邊에 人口가 集積한 시기는 1920년대 전후로서 여름 장마철이면 겪게 마련인 河川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 堤防을 쌓고 護岸을 정비하는 등 일련의 改修工事가 일찍부터 있었을 것이나 전해지는 기록이 없다.

다음으로 각 하천의 改修沿革을 기술하기로 한다.

① 城北川

조사된 자료중 가장 이른 것은 1952년도 예산서에서인데 청계천과 城北川의 개수공사를 위해 820,000圓이 계상되었고 이후 1954년에도 청계천과 성북천의 개수공사를 위해 1,980,000圓이 계상되어 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개수 공사를 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고 河川改修率關係資料에서는 1970년말 현재 이미 改修計劃延長 8,820m에 대하여 旣改修延長이 8,626m로 改修率은 99.1%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후의 기록으로는 1964년도에 水害復舊工事로 石築復舊工事를 한 기록이 있고 그 以後 1977년과 1985년 2차에 걸쳐 三仙橋 上流를 1億원을 들여 覆蓋하는데 1977년에는 2억 2천 900만원을 투입하고 1985년에는 10億원을 들여 570m를 복개한 것이 전부이다(〈표-34〉).

한편 1966년에 펴낸 《서울 下水道白書》에 의하면 1965년말 현재 城北川은 河川中心延長이 7,450m에 改修計劃延長 14,900m, 旣改修延長 14,900m로 改修가 완료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32] 改修基準에 差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한가지 덧부쳐 두어야 할 것은 民資에 의한 河川覆蓋를 한 것이다. 지금

〈표-34〉 성북천 개수 및 복개 연혁

年度別	工 事 名	工事概要	工 事 費	備 考
1952	청계천 및 성북천 개수	不 詳	820(千환)	
1954	〃	〃	1,980(千환)	
1964	성북천 및 안암천 수해복구	옹벽 20m 석축 1,000m 기 타	1,800(千원)	
1977	성북천 복개	不 詳	229,000(千원)	
1985	성북천복개(삼선교상류)	B=10~15 L=570	1,000,000(千원)	
1985	성북천 복개	不 詳	300,000(千원)	

자료 : 각년도 예산서(민자에 의한 복개 제외).

32) 서울特別市《서울 下水道白書》1966, p.99.

도 복개지상에 존재하는 三仙商街와 城北商街는 1960년대 말에 金玄玉 市長 當時 民資에 의한 건설이 한창 「붐」을 이루던 때에 마침 三仙商街株式會社가 1968년 2월 20일 河川法에 의한 占用許可를 받아 삼선동 1가 13에서 삼선동 2가 4번지까지의 구간 4,747m²를 복개하고 복개지상에 4층 3동, 7층 2동 연건평 18,881m²를 건축, 1층은 상가점포로 2층 이상은 주택으로 사용하게 하고 투자액의 相計條件으로 10년간 河川占用料를 면제하게 하였고, 城北商街는 1968년 5월 28일에 동소문동 3가 1에서 5가 118까지 4,432m²를 복개, 복개지상에 3층 건물 2개동(연건평 13,296m²)를 허가 역시 1층은 상가로 2층 이상은 주택으로 사용하되, 相計條件으로 30년간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한 것인데, 당시 담당직원의 업무처리의 불철저로 유사한 하천복개지상의 민자에 의한 상가아파트의 투자액 상계기간 10년과 달리 30년으로 함께 따라 뒷날 동일하게 10년 동안만 면제하고 점용료를 부과하여 입주자들의 집단소송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서울市가 패소한 사례가 있다.

어찌했던 이로써 성북천의 동소문로 하류, 돈암시장까지의 구간이 민자에 의해 복개됨에 따라 오늘의 시점에서 駐車空間等의 土地資源으로 남겨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하겠다.

② 貞陵川

貞陵川의 改修記錄으로 가장 이른 것은 1954년부터이다. 즉 1954년의 예산서에 의하면 貞陵川堤防石築築堤工事를 위해 59,200千환이 계상되어 있고 이 후 1973년까지 때로는 해마다 또는 몇년 건너서 개수공사가 시행되었다.

그런데 改修率과 관련해서는 前揭《서울 下水道白書》에 의하면 이미 1965년말 현재 改修計劃延長 20,000m가 모두 改修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改修基準에 差가 있었던 것 같다.

어쨌거나 1973년 이후는 改修記錄이 나타나지 않고 이후부터는 覆蓋記錄만 나타나는데 복개기록으로는 1979년에 1,450m를 8억 2천 2백만원을 투입한 이후 1987년까지 13회의 복개공사가 시행되었다. 연대별 改修沿革은 〈표－35～37〉와 같다.

이제 地圖上으로 河川이 表示되어 있는 區間은 종암경찰서 이하 구간만이고 그 上流는 모두 복개되어 地上은 覆蓋道路로 활용되고 있어 河川機能은 상당부분

〈표－35〉 정릉천 개수 연혁

〈1950년대〉

연 도 별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비 (千환)
1954	정릉천제방(석축) 축제	不 詳	59,200
1957	정릉천 축제	〃	42,000
	정릉천 개수	용지보상 4,000평	8,000
	정릉천 개수	지장물이전 3,500평	7,000
1958	정릉천 호안수선	석축 L=500m	10,000
		H=3.0m, A=1,500m^2	
	정릉천 개수	축제 L=1,900m	54,500
		옹벽=1,000m	
	정릉천 개수	不 詳	6,511
	정릉천(월곡) 낙차공	〃	11,000
	정릉천 개수	〃	43,600
	정릉천 석축 및 수해복구	석축 L=30m, A=105m^2	20,000
		보강 L=150m	
	정릉천 개수	석축 L=263m, A=92m^2	12,900
1959	정릉천 개수	不 詳	21,013
	정릉천 수해 복구	〃	1,500
	정릉천 개수	용지 보상	600
		건물 보상	6,000
1960	정릉천 개수(이월)	不 詳	4,137

자료 : 각년도 예산서.

〈표－36〉 정릉천 개수 연혁

〈1960년대〉

연 도 별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비
1961	정릉천 석축호안	석축 L=300m	15,000(千환)
		H=3.5m, A=1,050m^2	
	정릉천 축제	不 詳	115,000(千환)
1962	정릉천 옹벽 및 낙차공	돌망태=1,000m	2,600(千원)
		낙차공 1개소	
1964	정릉천 옹벽 보강	호안 500m^2	600(千원)
	정릉천 수해 복구	옹벽=20m	1,800(千원)
		석축=1,000m, 기타	
1970	정릉천 개수	호안 800m	15,000(千원)
		낙차공 1개소	

자료 : 각년도 예산서.

〈표－37〉 정릉천 개수 연혁

〈1970년대 이후〉

연 도 별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비 (千원)
1971	정릉천 개수	호안축제 400m	20,000
1972	정릉천 개수	호안 L=250m	25,000
1979	정릉천 개수	B=12~27m, L=1,450m	822,000
1980	정릉천 복개	不 詳	700,000
	정릉천 복개(채무)	〃	100,000
1983	정릉천 복개	B=20m, L=50m,	250,000
	정릉입구 청수교~정릉천 상류간	A=1,000m^2	
1984	정릉천 복개	不 詳	1,000,000
1985	정릉천 복개	〃	300,000
1986	정릉천 복개	L=2,250m, B=20~37.2m	400,000
		A=69,600m	
1987	정릉천 복개	不 詳	290,000
1988	정릉천 복개(상류)	B=12~27m, L=240m	210,000
	정릉길 복개(하류)	B=9~14m, L=1,450m	1,288,000
1989	정릉천 복개(월암교~장위동간)	B=10m, L=720m	700,000
	정릉천 복개(수덕교~월암교)	B=4.4~15.9m, L=1,334m	100,000
	정릉천 복개	B=9.8m, L=96.3m	

자료 : 각년도 예산서.

상실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月谷川

月谷川의 改修記錄으로 가장 이른 것은 1958년 부터이다. 1958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호안공사로 張石 30m를 입히기 위하여 400萬환이 계상되고 같은 해 추경예산사업으로도 800m의 호안공사를 위해 500萬환이 계상되었다. 이후에는 1960년에 用地買收, 1961년에 築堤 400m, 護岸 400m를 그 이후 1977년까지 5회에 걸친 개수정비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연도별 사업개요는 〈표－38〉과 같다.

한편 改修率에 관한 자료로는 1965년에 발행된 《서울 下水道白書》에 의하면 1965년말 현재 河川中心延長 5,200m에 改修計劃延長 5,000m, 旣改修延長 400m로 改修率은 8%로 낮았던 것이다.

1977년 이후에는 改修記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때에 이미 改修가 완료된 것으로 보여진다.

〈표－38〉 월곡천 개수 연혁

연 도 별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비 (千환)
1958	월곡천 호안공사	장석 L＝300m B＝5.0m, A＝1,500m^2	4,000
	월곡천 호안공사	장석 L＝800m B＝5.0m, A＝1,500m^2	5,000
1960	월곡천 개수	용지매수	1,500
1961	월곡천 축제	축제 400m, 호안 400	20,000
1970	월곡천 하류개수	호안 1,200m 배수구 1개소	15,000(千원)
1971	월곡천 개수	호안축제 500m	20,000
1973	월곡천 개수	호안 L＝400m	50,000
1977	월곡천 개수	不 詳	160,000
	월곡천 정비	〃	300,000

자료 : 각년도 예산서.

〈尹 哲 煥〉

第 7 章　　産業·經濟

Ⅰ. 前近代社會의 産業·經濟

1. 産業·經濟의 立地條件

城北區는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설치된 행정구역이다. 서울의 區制는 1943년부터 실시되었지만, 당시의 성북구 지역은 동대문구 관내와 경기도 고양군 관내에 포함되어 있었다. 즉 이 지역은 근대에 이르러 서울에 편입된 곳으로서 前近代社會에서는 城外 또는 郊外 지역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서울의 대부분이 경기도에 속하였으나, 城北洞·貞陵洞·彌阿洞·水踰洞·長位洞·安岩洞·鍾岩洞·石串洞·敦岩洞·三仙洞·月谷洞 등은 비록 城 밖에 있었다고 하여도 초기부터 漢城府에 속하였었다. 李成桂가 漢陽으로 도읍을 정한 후 1396년 4월 漢城府의 행정구역을 정하면서 京中五部를 설치하였다.

조선시대의 서울은 협의의 의미로는 都城 안의 京中五部를 일컫지만, 광의의 의미로는 성밖의 10리까지 포함하는 城底十里 또는 城底五里까지가 그 영역이었다. 즉 《續大典》에 의하면, 동쪽으로는 수유리·우이천·장위교·송계교에서 중랑포에 이르며, 남쪽으로는 중랑포에서 살곶이다리: 신촌·두모포에서 용산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마포에서 망원정·성산·사천나루·돌곶이에 이르며, 북쪽으로는 돌곶이에서 대조리·연서역·아미산·보현봉에 이른다고 하였다.[1] 성북구 일대는 도성 밖 동북쪽에 위치하여 東部의 崇信坊·仁昌坊에 속한 城底十里 지역이었으니, 현재 貞陵洞 408번지 길가에 서있는 城底五里定界碑는 이같은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자료이다.

1) 續大典, 卷 5, 形典 禁制.

초기의 성저십리에는 인가가 드물었고, 다만 동대문 밖과 서대문 밖에 약간의 취락이 있었을 뿐이다. 특히 성북구 일대는 서울의 진산인 北漢山의 줄기가 동남쪽으로 뻗치면서 곳곳에 석가봉・형제봉・성덕봉・화룡봉・잠룡봉・거수봉・옥녀봉・일출봉・천장산 등 크고 작은 봉우리가 형성되어 있고, 그 사이로 가파른 계곡이 자리잡아 평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취락이 발달할 소지가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자연조건 때문에 경치가 수려하여 옛부터 도성민들이 이곳을 자주 찾아 소풍하는 명소로 손꼽혔다. 더구나 의정부・포천 방면에서 도성으로 가기 위하여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목이기 때문에 계곡이나 고개마루에는 휴식처가 마련되고 있었다.

산간지대가 대부분인 성북구에 평야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성북천 가의 三仙坪, 안암천 일대, 중랑천・수유천 일대로서 농경지로 일구어지고 있었다. 평야가 일부 있었다고 하지만, 농경생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지형적 조건을 살려 양잠이나 과수가 보다 널리 행해졌다. 현재 성북동 성북국민학교옆 길가에 세워진 先蠶壇址는 이 일대에 뽕나무가 많아 양잠이 발달했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고, 먹골배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배・복숭아・앵두・자두 등이 풍성했던 곳이다. 특히 성북동 일대에는 복숭아 나무가 무성하여 北渚洞이라고 불리우기도 했다.

《漢京識略》에 의하면, 성북동 일대에는 맑은 계곡과 얕은 언덕을 끼고 사람들이 모여사는데, 복숭아를 심어 생업을 삼고 있다고 했다. 그리하여 매년 봄이면 놀이를 나온 사람들이 계곡 사이를 메워 복숭아꽃을 즐기고, 또 여름이면 복숭아를 맛있게 먹었다고 하였다.《東國輿地備考》에 의하면, 그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을 桃花洞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도화동・紅桃洞・복사동이란 자연부락의 이름이 남아있다. 조선후기의 실학자 朴齊家도 이 곳의 복숭아나무를 주제로 시를 읊었는데, 그는 그 재배를 실학적 관점에서 권장하였다.

城北洞 계곡 막바지에는 본래 도성의 4대문 가운데 하나인 肅靖門이 있었다. 속칭 북대문이라고 하는 숙정문은 건립된 지 곧 폐쇄되는데, 그 이유는 풍수지리상으로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지만,[2] 보다 근본적 이유는 도성으로의 출입문으로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도성에서 의정부, 포천, 원산 등으로 가는, 혹은

2) 太宗實錄, 卷 25, 太宗 13年 6月 丙寅.

반대로 경원가도에서 도성으로 들어가는 길로서 숙정문을 통과하려면 성북동 골짜기로 한참 돌아가야 한다. 이에 대하여 혜화동과 삼선동을 잇는 東小門을 이용하면 빠르고 편하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동소문을 주로 이용하였고, 숙정문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 이로 인하여 숙정문이 폐쇄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숙정문이 폐쇄되면서 東小門의 역할이 커졌으니, 동북지방에서 도성으로 출입하는 길목으로서 중요시된 것이다. 동소문이란 惠化門의 속칭으로 19세기에도 東小門外契라는 동리 이름이 있었다. 지금의 東小門洞·東仙洞·三仙洞·敦岩洞 일대를 일컫는데, 그 가운데로 城北川 또는 安岩川이란 개천이 성북동 골짜기에서 흘러 청계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개천이 구비구비 흘러가는 곳 남·북에는 노송이 울창해 산자수려하였고, 그 부근의 저지대는 평평하고 모래사장이 넓게 펼쳐있어 조선시대에는 이곳을 군대의 연병장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3)]

조선말기의 문인 李齊九는 늦은 가을날 이 일대를 지나면서 주변 경치를 시로서 읊었다.

> 小靑門 밖 나서니 城市 티끌 볼 수 없고,
> 나귀 등에선 붉은 夕陽이 이글거린다.
> 들판의 국화 시냇가의 단풍이
> 서로 어울려 한 폭의 그림을 이루었구나.

東小門洞에서 조금 더 밖으로 나가면 三仙洞에 이른다. 삼선동에는 성북천이 이곳에 이르러 평평한 들판을 만들어 예로부터 三仙坪이라 하였는데, 원래 그 이름은 동리 남쪽 옥녀봉 봉우리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세 신선이 玉女와 놀았다는 전설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경개가 수려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신라때 화랑들이 심신을 단련한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 화랑도는 國仙徒라고도 불리웠다. 이 일대는 평평하고 넓어서 조선시대에도 箭串坪과 더불어 군사 훈련장으로 쓰였다.

삼선동 동쪽으로 산비탈에 위치한 동리가 敦岩洞인데, 이곳 역시 조선시대 崇信坊에 속한 성저십리 지역이었다. 돈암동 명칭의 유래가 된 미아리 고개는 본래 되너미고

3)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명소고적》, 1958, p.229.

개로 불리웠는데, 丙子胡亂때 오랑캐, 즉 뙤놈이 서울에 침입할 때 이 고개를 넘어왔기 때문이라 한다. 되너미고개 이름을 한자로 敦岩峴 또는 狄踰嶺이라 하였으며, 그리하여 동리 이름도 돈암동이라 하였다.[4] 이 고개는 여러차례 깎여져 낮아지고 그 폭도 넓어졌지만 본래는 몹시 가파르고 험준한 고개였었다. 지형적으로 볼 때 도성의 범위가 이곳까지임을 분명히 느끼게 하는데, 도성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가자면 이 고개가 마지막 힘든 장애물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평탄하여 끝에 이른 고개, 마지막 고개라는 뜻으로 또는 경사가 몹시 심하여 밥을 되먹는 고개라 하여 되너미고개라고 불렀다고도 한다.[5] 그러나 이 고개를 넘는 길은 도성과 경원가도를 잇는 가까운 길이어서, 사람들은 비교적 평탄한 鍾岩洞 쪽보다는 이 길을 잘 이용하였다. 돈암동 남쪽의 普門洞도 지형적 조건이 취락 형성에 적합하지 않았다. 동쪽의 안암동 산자락, 서쪽에 삼선동 산자락 사이에 있어서 지형이 긴 골짜기로 되어 있어 예로부터 절이나 신당이 자리잡는 곳이었다. 본래 동대문구 신설동에 속해 있었는데, 신설동 역시 조선말기에 그 명칭이 보이는 새로이 설치된 동리였다.

城北區에 취락이 형성될만한 곳은 비교적 평탄한 안암동・종암동 일대였다. 安岩洞은 문헌상 나타나는 서울의 洞名중 가장 오래된 것의 하나이다. 李成桂는 한양으로 천도한 이듬 해인 太祖 4년(1395) 자신의 萬年幽宅을 찾아 果川・廣州 등을 돌아보고 그해 9월 28일에는 安岩洞에 거동하였다. 그 이듬해 여름에도 왕비 神德王后 康氏가 세상을 떠나자 그 陵地를 찾아 안암동에 내왕하였다.[6] 그 지세가 풍수지리상으로 좋았기 때문인데, 그후 이곳은 世宗의 다섯째 아들인 廣平大君의 세거지였으니 명당이었음이 알려졌음에서였다. 실제로 광평대군의 자손은 그후 번창하여 李氏王族 중에서도 후손이 많기로 유명하였다. 이 일대의 농토가 비옥하였음은 태종 때의 제상 朴訔의 일화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인근의 典農洞・祭基洞・龍頭洞 일대에는 조선시대 국왕이 솔선수범하여 농사짓는 모습을 보여주던 籍田과 농사가 잘되기를 국가적으로 기원하던 先農壇이 있었다. 이로써 볼 때도 이 부근에는 농경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4)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 서울편, 1966, p.121.
5)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洞名沿革攷(8)》, 1983, p.141.
6) 太祖實錄 卷 7, 太祖 4年 9月 己未.
太祖實錄 卷 10, 太祖 5年 8月 丙午.

다음 鍾岩洞은 그 서편 산자락에 북처럼 생긴 커다란 바위가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한자로 鍾岩 또는 鼓岩이라 부른데서 연유하였다. 서쪽은 산으로 되어 있어 옛날에는 山林이 울창하였으나, 동쪽 일대는 貞陵川 연변으로 비옥한 농경지가 형성되어 예로부터 소출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東國輿地備攷》에 의하면, 북바위 부근에 있는 논과 밭은 소출이 많기로 유명하여, 농부의 자격을 결정하는 의미로도 쓰여 「북바위 전답을 아느냐?」고 물어서 대답을 못하면 「농군으로서 그것도 모르는 것을 보니 가짜 농군임에 틀림없다」고 하여 동리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도 있다.[7] 조선시대에 이곳에는 慶州金氏와 慶州鄭氏가 집단적으로 集村部落을 이루고 있었다. 농경지는 石串洞·長位洞 일대에 비교적 넓게 펼쳐 있었는데, 벼농사가 주로 행해졌다고 한다.

사람이 모여 생활하기 좋은 立地條件은 食生活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음료수가 풍부해야 하는데, 전근대사회에서는 농업의 가능성이 높은 지형조건이 우선되었다. 그러나 점차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회경제적 조건이 취락의 입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더 큰 영향을 준다. 그 가운데서도 교통의 편리함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을과 마을 사이에 교류를 촉진시키고, 인구의 집중을 유발한다. 따라서 교통조건은 유통경제 발달의 전제조건이었다. 조선시대 성북구 지역에 있었던 樓院, 즉 다락원은 본래 서울 외곽의 한적한 院村이었다. 이곳은 본래 한양에서 강원도나 함경도로 오가는 길손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었으나, 조선후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최대의 소비도시인 한양으로 많은 물화가 공급되면서 그 길목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매우 번창한 위성도시로 성장해 갔다. 더구나 이 지역은 도성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어 市廛들이 특권으로 행사하던 禁亂廛權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私商들의 자유로운 상거래가 이루어졌다. 사상들은 이곳의 입지조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조선을 건국한 李成桂가 풍수지리설에 의거하여 鷄龍山에 도읍을 정하려고 몸소 순행까지 하였다가 이를 그만두고 漢陽으로 도읍을 정한 것도 교통운수가 편리하였기 때문이었다.[8] 한양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였을 뿐 아니라 한강을 끼고 있어서 전국 각지에서 육로·수로가 모두 용이한 지점이었다. 그리하여 교통운수 조직이 모두 한양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역원제와 조운제가 그것이었다. 북에서는 평안도·

7) 東國輿地備攷 卷 2, 田野.
8) 太祖實錄 卷 6, 太祖 3年 8月 庚辰.

함경도에서 남에서는 전라도・경상도에서 출발하는 파발・조선 등이 모두 서울인 한양으로 집결되었다. 더구나 한양은 당시 최대의 소비도시로서 전국의 물화가 이곳으로 공급되었다. 이 시기의 한양 인구는 20만명 내외로서 그 대부분이 소비인구이었다. 함경도의 북어, 제주도의 말총 등이 모두 한양으로 공급되어야 했다. 이를 매개하는 상업은 본래 도성 안의 市廛商人들이 독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르러 그 수요와 공급 물량이 크게 증대하면서 시전상인들이 이를 감당하기에는 벅찼고, 이를 기화로 私商들이 상거래에 참여하였다. 사상인들은 처음에는 七牌・梨峴・龍山 등지를 근거지로 하였으나,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여 松坡・樓院 등 교통의 길목에서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는 물화를 매점매석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어물, 특히 북어의 수요가 증대하였는데, 그 공급로는 경원가도였다. 함경도 元山場에서 수합된 북어는 말 잔등에 바리바리로 실려 철령을 넘어 서남쪽으로 길을 재촉하다가 서울 가까이에 위치한 樓院에 이른다. 이에 사상인들은 누원으로 모여들어 이를 매점하니, 누원은 장사치들과 이에 어울려 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칠패・이현 뿐 아니라 송파의 상인들도 이곳으로 모여 들었다. 누원이 이렇게 성시를 이룬 것은 교통의 길목이었기 때문이다. 누원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면 미아리 삼거리에 이르고, 여기에서 돈암동이나 종암동 두 갈래로 나뉘어 도성에 들어가는데, 상인들은 시전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종암동 쪽으로 가서 동대문의 梨峴 상인과 접촉하거나, 계속 남으로 향하여 뚝섬・송파 상인과 연결하기도 하고, 한강을 경유하여 용산으로 나가기도 하였다.

한편《擇里志》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입지조건으로 地理・生理・人心・山水의 네 가지를 꼽고 있는데, 특히 교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9] 그 조건을 갖춘 곳은 그리 흔하지 않으나, 대체로 계곡이나 강변이 적당하고 해변이나 계곡은 좋지 않다고 하였다. 그 중에서도 한강변과 그에 속한 계곡지대를 구체적으로 주목하였다. 한강변의 용산, 마포, 송파 그리고 누원은 그러한 곳들이었다.

서울 서북쪽 城底十里였던 성북구 일대는 북한산 기슭에 위치한 계곡지대로서 논과 밭이 많은 편은 아니나, 地理・山水 등 취락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서

9) 擇里志, 卜居總論 山水.

울이 조선의 수도로 정해지기 이전부터 취락이 형성되고 있었다. 더구나 京元街道의 길목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였기 때문에 조선후기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는 그 위치의 중요성이 제고되어 위성도시화할 가능성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한천·중랑천·정릉천 주변에는 개활지가 형성되어 농경이 영위되었고, 성북동·정릉동·장위동 등 구릉지대에는 과수 재배의 입지조건도 양호하여 대규모 과수재배단지의 가능성도 지니고 있었다. 요컨대 성북구 일대는 여러가지 면에서 취락의 입지조건이 제공되고 있었으며, 특히 교통의 요충지이어서 18세기 이후로는 위성도시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었던 곳이었다.

2. 農耕生活

1) 농업의 역사

城北區 지역은 지형적으로 구릉과 계곡이 많아 농업에 적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도성에서 좀 떨어진 지역, 예컨대 정릉천·한천 연변에는 크지는 않지만 퇴적평야가 형성되어 일찍부터 농경이 행해졌는데, 북바위 전설에 의하면 곳에 따라서는 비옥한 농토도 있었다.

城北區 지역을 포함한 서울 주변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先史時代부터였다. 뗀석기를 이용하여 동물을 사냥하거나 나무열매를 채집하며 식생활을 해결한 舊石器人들도 이 지역에 거주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 증거는 분명치 않다. 이 지역에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마련된 것은 신석기시대에 이르러 본격화되고 있다. 그것이 분명한 것은 이 곳에서 멀지않은 주변 지역, 예컨대 동대문구 전농동, 성동구의 왕십리, 서대문구의 신촌, 그리고 강동구의 암사동, 하남시 미사동, 양주군의 동막동, 고양시 일산 등지에서 당시의 주거지가 집중적으로 발견되었고, 농기구로 쓰였을 돌괭이, 돌보습 등이 다수 출토되었기 때문이다.[10] 그러나 농경다운 농경은 青銅器時代에 이르러서였다. 신석기시대에는 농경이라고는 하지만 원시적 농경이었는데, 청동기시대에는 농경을 더욱 발전시켜 돌도끼나 홈자귀, 괭이로 땅을 개간하여 곡

10) 한영희, 「한반도 중서부지방의 신석기 문화」(《한국고고학 연보》 5, 1978), p.20.

식을 심고, 가을에는 반달 돌칼로 이삭을 잘라 추수를 하였다. 농업은 종래의 피, 조와 아울러 콩・보리 등 밭농사가 중심이었지만, 저습지에서는 벼농사도 행해졌다.

이 시기의 출토물들은 토기를 비롯하여 도끼, 반달 돌칼, 거울, 칼 등이 중심이었는데, 성북구 일대에서도 직접 출토되었다. 즉 貞陵川 주변에서는 고인돌과 더불어 청동기 유물들이 다수 수집되었다. 서울을 비롯한 한강유역 일대는 확실히 선사시대부터 삶의 터전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 지역은 북한산의 정기와 한강의 힘이 합쳐진 천혜의 분지로서 지형, 기후상으로도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이었다. 한강 하류의 하상은 해발고도가 낮고 토사가 과도하게 퇴적하여 항상 홍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넓은 冲積平野는 생활터전으로서 그 토질이 양호하여 농업에 적합하였고, 그리하여 선사시대 이래로 취락이 발달하였다. 더구나 고대도시의 입지조건인 방어와 교통이 두루 조화된 곳으로서, 북한산・수락산・불암산・도봉산 등 북쪽의 산악들이 방어벽이 되어 주었고, 한강은 내륙과 바다를 연결시켜 주었다.

1977년에 발굴된 여주군 흔암리의 취락지에서는 반달 돌칼과 무문토기 등의 유물과 함께 炭化米가 출토되어 벼농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물론 이 시기에 이르면 조・수수・보리 등의 밭농사는 보다 널리 보급되어 갔다.

그후 철기시대에 이르면 농경이 보다 본격적으로 발달하여 철제의 농기구가 다양하게 개량되었고, 작물의 종류도 다양화되어 갔는데, 그것은 강남구 역삼동의 주거지나, 송파구 풍납동, 양평군 대심리의 冶鐵趾 출토의 유물에서 입증되고 있다. 철기문화가 보급되면서 한강 유역에서는 伯齊라는 새로운 세력이 기존의 馬韓 세력과 각축을 벌이면서 영역을 확장해 갔다. 북방유이민으로서 한강유역에로 남하한 백제는 마침내 전 한강유역의 부족사회를 통일하고, 통일왕국으로서의 百濟를 건국하였다. 한강 하류의 비옥한 평야지대는 백제사회 발전에 있어서 경제적 기반이 된 것이다.


대장간도

한강유역의 개발도 백제사회의 발전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백제

는 이곳을 정치적·사회적 중심지로 삼으면서 토지의 개간과 수리시설의 확충에 힘써 당시 그 수확량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훨씬 다대하였다. 이는《삼국사기》,《일본서기》 등 문헌이나, 부근에서 발굴된 유물·유적에서의 출토품이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 백제가 한강 유역에 나라의 터를 잡은 것은 분명하지만, B.C 1세기 전후 溫祚集團이 처음으로 정착한 곳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기록에 의하면 후일의 백제 도읍이었던 하남위례성에 앞서 한강 북쪽에 잠시 정착했다고 한다. 혹자는 세검정 일대를 비정하고도 있지만, 또다른 의견은 미아리 또는 장안평이라고 한다.[11] 후자의 견해가 근래에는 보다 설득력을 보이고 있는데, 河北慰禮城의 위치가 미아리 일대라고 하면, 성북구 일대는 그 관할이었음이 틀림없다. 지형적 여건이나 교통의 입지에서 볼 때 그것은 충분히 예상된다.

백제는 국가적 성장이 한강 유역의 비옥한 토지에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권농정책에 유의하였다. 溫祚王 이래 역대 국왕은 직접 순행하며 농토를 개간하고 농업기술을 보급하며 농업생산력 증대에 힘썼다. 7세기에 이르러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이 지역은 신라의 관할에 속하였는데, 신라 역시 농업을 중시한 나라였다. 당시의 지명에 제방과 저수지를 뜻하는 이름이 많았으며, 인근의 고분에서는 가래, 쇠시랑, 쟁기 등 철제 농기구가 다수 출토되고 있어서 농경이 자못 성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시대에는 서울에 南京이 설치되니, 성북구 일대는 남경의 관할에 들었다. 이때에는 牛耕에 의한 심경법이 일반적으로 행해져, 이 지역에서도 우경이 널리 행해졌고, 그 결과 생산력이 보다 증대되고 있었다.

2) 農耕의 본격화

농경이 본격화되는 것은 조선왕조가 1394년 漢陽으로 도읍을 정하면서였다. 한양이 수도가 되면서 城北區 일대도 그 관할에 속하였지만, 이 지역은 도시적 성격 보다는 농촌적 성격을 계속 유지하였다. 조선왕조는 한양으로 천도함과 더불어 수도의 행정구역을 漢城府로 승격, 특별시로 삼고, 그 구역을 다시 동·서·남·북·중의 5부 52방으로 나누어 도시 규모를 갖추고 그 둘레에 성곽을 쌓았다. 이를 都城이라 한다.

11) 신형식,《백제사》(이화여대 출판부, 1992), p.47.

그러나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도성안에만 모여 살기에는 비좁았다. 그리하여 벌써 世宗때 도성 주변까지도 한성부의 관할로 설정, 이를 城底十里라 하였다. 성북구 일대는 동부 崇信坊에 속하였다. 그런데 성저십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성 안의 사람들과 달리 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 어찌보면 성저십리는 京中五部의 식량·채소의 기지였다. 그리하여 한성부에서는 성저십리에서의 농경을 권장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勸農官을 파견하였다. 즉 세종 10년 국가는 한성부의 건의에 따라서 성저 각 마을을 재편, 30家를 1里로 하여, 1里마다 권농관 1인을 임명하였다.[12] 권농관의 임명은 농업기술을 보급하여 생산력을 증대시킴에 그 의도가 있었다.

본래 수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주위에는 도시적 요소와 농촌적 요소가 복합되어 있는 環狀의 중간지대가 나타나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郊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郊를 성저십리라고 했던 것이다. 근대화 이전까지 郊 지역은 고유의 지역구조와 기능, 그리고 특색있는 경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도시의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 성북구 일대는 그러한 특성을 특히 잘 보여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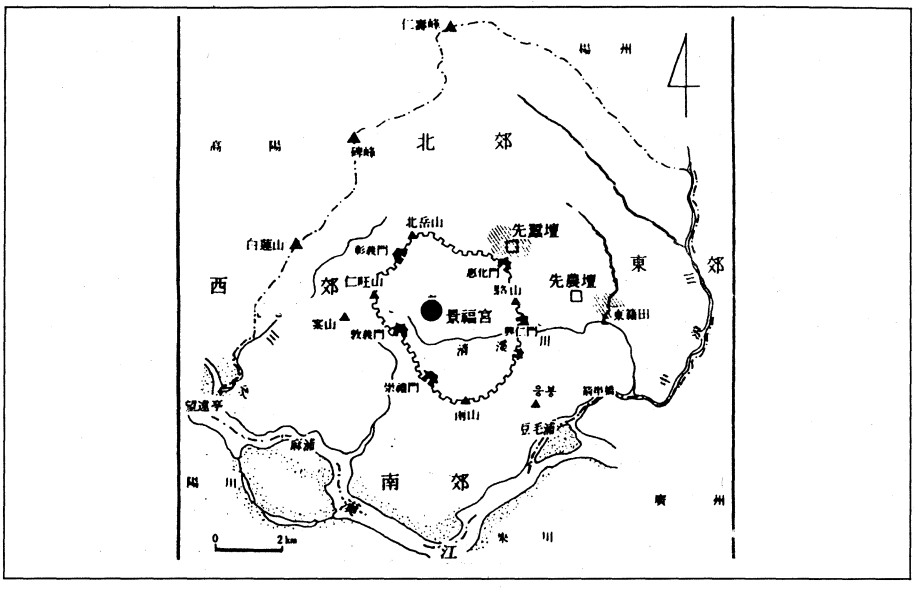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전근대사회에서 도성의 공간구조는 성 안의 시가지 대 성 밖의 전야, 또는 문화경관대 자연경관으로 대비되며, 성곽은 양자의 경계선 역할을 한다.[13] 그런데 조선시대의 서울은 지형 조건과 위치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성 안과 성 밖이 결합되어 조화를 이룬 독특한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즉, 서울이라 하면 흔히 성 안 5부 지역을 일컫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성 밖의 城底十里까지 포함시키고 있었다. 城底十里라고 하여도 엄밀히 10리까지가 아니고, 지형상 때로는 5리까지일 수도 있고, 때로는 20리까지일 수도 있었다. 《大東地志》에 의하면, 동쪽으로는 양주의 경계까지 15리, 동남으로 광주의 경계까지 20리, 남쪽으로 한강까지 5리, 서남으로 시흥의 경계까지 15리, 서쪽으로 양천의 경계까지 15리, 서북으로 고양의 경계까지 20리, 북쪽으로 양주의 경계까지 20리에 이르렀다.[14] 이로써 보면 그 면적은 城內 보다는 城外의 지역, 즉 성저십리가 더 넓었다.

---

12) 世宗實錄 卷 10, 世宗 10年 윤 4月 己丑.

13) 최영준, 「조선시대 한양의 郊地域 연구」(《문화역사지리》 창간호, 1989), p.8.

14) 世宗實錄, 卷 48, 京都 漢城府.
大東地志, 京都 疆域.



그런데 성저십리의 사방 경계에는 각각 四山禁標를 세워 이 지역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첫째, 이 지역에 묘를 만들 수 없고, 둘째, 소나무를 도벌하면 엄벌에 처하고, 세째, 나무뿌리나 토석을 채취할 수 없다고 하였다.[15] 이와같은 규제 조처로 인하여 성저십리에는 큰 취락이 발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농경도 그리 발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르러 한양의 인구가 20만 명을 넘게 되면서 그들을 위한 식량과 연료가 비례적으로 막대하게 공급되어야 했다. 당시 기본적인 식량이었던 쌀·콩 등 곡물은 정부가 농민들에게서 징수한 세곡과 재경지주의 농장에서 올라오는 소작료로 충당하였으나, 그것으로는 부족하였다. 그리하여 일부 양곡은 近郊 지방에서 공급되었으니, 광주·양주·김포·고양 등지는 그러한 곳이었다. 성북구의 종암동·안암동·장위동·석관동·월곡동 등지에는 비옥한 전답이 분포되어 있었다. 《東國輿地備攷》, 《漢京識略》 등에는 종암동의 북바위 전설을 수록하고 있는데, 농토가 매우 비옥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15) 續六典 卷 5, 刑典 禁制.

「조선 후기 太宗 때에 朴㠓이라는 명신이 있었다. 그는 고려 말의 고관이었던 판전교시사 朴尙衷의 아들이요, 牧隱 李穡의 사위로서 학문과 덕행이 높아 유명하였다. 일찌기 태종과 뜻이 맞아 친근하게 지냈으며, 그리하여 벼슬길이 순탄하여 호조·예조·병조 판서를 지내고 우의정에 올랐다. 그러나 그는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고 가산을 돌보지 않아 가난하였는데, 스스로도 조밥과 베옷을 즐겨 하였다.

하루는 태종이 미행을 나섰다가 朴㠓이 사는 곳까지 오게 되었다. 朴㠓은 마침 퇴청하여 늦은 저녁상을 받고 있었는데, 조밥 한 사발과 간장 한 종지가 전부였다. 이때 태종을 수행했던 도승지가 들어와서 태종이 행차하였음을 알렸다. 朴㠓이 황송해 하면서 곧 임금을 맞아들이려 했으나, 너무 급하여 씹지도 않고 삼킨 조밥 덩어리가 속에 걸려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이를 진정시키느라고 태종이 문 밖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좀 지체되었다. 이에 임금은 노하여 朴㠓을 꾸짖자 그는 사실대로 아뢰었으나, 태종은 "한 나라의 재상이 조밥을 먹을 정도로 가난한가?"라고 의심하며 사람을 시켜 들어가 보게 하니 사실이었다. 이에 태종은 그의 청빈함에 놀라고 감탄하여 특별히 명하여 동대문 밖 북바위 전답을 하사하였다. 당시 북바위 부근에 있는 논과 밭은 소출이 많기로 유명하였다.[16]

또 북바위 전답은 농부의 자격을 뜻하는 의미로도 쓰여 "북바위 전답을 아느냐?"고 물어서 대답을 못하면 "농군으로서 그것도 모르는 것을 보니 가짜 농군이로다"고 하여 동리에서 쫓아냈다고 한다. 한편 설렁탕의 유래가 북바위 전답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도 하는데, 임금이 親耕을 하기 위해 직접 행차하여 농부에게 "북바위 전답을 아느냐"고 물어서 안다고 하면 "진정 그대는 농부이구나"하면서 곧 북바위 아래서 잡은 소로 끓인 설렁탕을 수행한 대신은 물론 인근 마을의 모든 농부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17]

또한 안암동에는 학더미라는 옛 지명이 있는데, 옛날 이 곳의 논이 매우 비옥하여 세 마지기에서 나는 쌀로 10여 식구가 충분히 살아 갔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욕심많은 주인이 곡식을 더 많이 거두려고 논 가운데 있는 큰 더미를 파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더미 속에서 학이 나와 날아가고 그 후로는 비옥하던 땅이 박토로 변했다고 한다.

농토가 비옥하고 인근에는 산천경계가 수려한 북한산·도봉산·수락산 등이 있어 조선초기부터 성북구 일대에는 양반들이 정착하였다. 특히 사대부들은 복잡한 도시보다는 한적한 변두리에서 시문을 익히며 산수를 즐겼다. 그러나 벼슬을 단념할 수

16) 東國輿地備攷 卷 2, 田野.
17)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洞名沿革改》(8) 城北區篇, 1983, p.146.

는 없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양반들이 서울 주변에 모여 살았다. 《成宗實錄》에 의하면, 근교에 농장을 가지고 있는 양반이 많았다고 한다.[18] 《擇里志》에 의하면 양주·포천·가평·영평 등을 포함하는 東郊와 고양·적성·파주·교하 등을 포함하는 西郊에 사대부가 많이 거주하였다고 한다. 한양 조씨, 광주 이씨, 양천 허씨, 여흥 민씨, 이천 서씨, 안산 김씨 등이 그들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종암동 안말에는 경주 김씨와 경주 정씨가 집단적으로 모여 살았고, 안암동의 궁말에는 광평대군의 후손들이 세거하였다. 그리고 성북동 골짜기에도 논골이라 하여 전답이 있었는데, 그 부근에는 조선후기 이조판서를 지낸 沈相應의 별장이 있었다. 또 월곡동에는 여흥 민씨가 큰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이웃에 있는 석관동·장위동에는 넓은 벌판에서 벼농사가 잘되었는데, 특히 장위동에서는 대규모의 농장을 갖고 있던 해평 윤씨가 세도를 부리고 있었다.

그런데 성북구를 비롯한 城底十里의 近郊에서는 쌀·보리·콩 등의 주곡 보다는 채소·과일 등 원예농업이 더 발달하였다. 최대의 소비도시 한양에서 대량으로 소비되는 채소·과일 등은 원거리 수송이 불가능하였으므로 땔감과 함께 주로 근교 지방에서 공급되었다. 특히 조선후기에 이르러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채소·과일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간이 가능한 근교의 토지는 거의 菜田으로 바뀌어져 갔고, 성북구 일대와 같은 구릉지대에는 과수 재배 단지가 조성되어 갔다. 채소·과일은 그 수요가 증대하면서 목화, 담배, 약재 등과 함께 상품작물로 주목되었으니, 조선후기에 이르면 여러가지의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농산물의 상품화가 촉진되었고, 그것은 농업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상이었다. 16세기 이후 도처에 생겨난 場市가 농촌경제와 연결되면서 농산물의 상품화가 널리 이루어져 갔다. 농민들은 소득을 보다 높이려고 경영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생산성이 높고 상품성이 높은 작물을 재배하여 그 잉여 생산물을 장시에 내다 팔았다. 상품화를 위한 농작물의 재배는 주로 도시 주변에서 성행하였으며 특히 한양의 교외에서 유행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전주 부근의 생강밭, 평양 부근의 담배밭, 황주 부근의 지황밭, 개성 부근의 인삼밭 등에서는 그 수익이 논농사 上上田에 비하여 10배 이상이 된다고 하였다.[19] 18세기 이후에는 상품작물의 재배가 지역별로 전문화되고 있었다.

18) 成宗實錄 卷 20, 成宗 3年 7月 甲子.
19) 經世遺表 卷 8, 地官修制 田制 11.

한양의 근교에 원예농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은 소비시장이 가깝고, 한강과 그에 이어지는 크고 작은 하천 연변에 넓은 충적지가 많으며 교통이 편하고 인근에 풍부한 비료 공급원이 있으며, 특히 조선후기에는 밭농사에 대한 농업기술이 수리기술과 함께 발달하였기 때문이다.[20] 즉, 시장 조건으로서 한양은 전술한 바와 같이 20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조선시대 제1의 소비도시였으며, 한양 주민의 대부분은 식량, 과일, 채소, 연료 등을 성 밖에서 공급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한 非農民들이었다. 물론 17세기 경에도 한양 성안에는 아직 터밭이 군데군데 있어서 일부 주민들은 채소의 일부를 직접 재배하여 수요에 응하고 있었다. 그리고 관청에서는 주변의 빈터에 채소밭을 마련하여 관청의 하인들에게 가꾸게 하였는데 18세기 이후에도 그러한 현상이 일부 남아 있었으나, 그것은 부분적인 현상이었다. 그리고 한양 부근의 전답은 대부분 한강과 그 지류에 발달한 충적토로서 토양이 비옥하였다. 이 토지의 대부분은 대부분 채소밭으로 이용되었는데, 뚝섬・송파・면목동・연희동 등의 채소밭이 특히 유명하였다. 성북구에서는 중랑천・한천・정릉천・안암천 등에 넓은 충적토가 형성되어 채소가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었다. 한편 원예농업에서 유의할 것은 地力의 유지였다. 여름철 상례적으로 생기는 홍수로 인하여 상류에서 운반되는 비옥한 토양이 하천 연변에 퇴적하였으나, 連作으로 인한 지력의 감퇴를 방지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었다. 한양은 근교의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비료가 산적해 있었다. 원예농업에 쓰이는 주된 비료는 糞尿였으며, 그 공급처는 인구가 조밀한 도시였다. 그러므로 근대화 이전에 있어서의 원예농업지역은 분뇨의 수송권과 그 범위가 일치하였다. 채전이 많았던 왕십리・뚝섬 뿐 아니라 면목동・수유리・장위동・석관동 등지에는 도성에서 운반해 온 거름 구덩이가 도처에 분포되어 있었다.

한양의 외곽지대, 즉 성저십리가 원예농업지대라고 하지만, 지역마다 토지 이용상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채소밭은 동교와 서교에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왕십리・뚝섬 등에서는 배추・무가, 청파동・아현동에서는 미나리가, 청파동・이태원・용산 등에서는 호박・수박・토란이, 송파・양재・탄천 등에서는 오이・호박・무・배추・파 등이, 구파발에서는 시금치・쑥갓・상치 등이, 수유리・장위동・석관동 등에서는 무・배추・미나리 등이 재배되었다. 특히 석관동 천장산 밑 동리는 호박

20) 최영준, 앞의 글, p.11.

의 산지로 유명하였다.

성북구 일대에서는 채소 보다도 과일이 더 많이 생산되고, 과수단지로 유명하였다. 성북동 골짜기에서는 복숭아, 앵두 등이 많이 생산되었는데, 전문적으로 이를 재배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한경식략》에 의하면, 맑은 계곡과 높은 언덕을 끼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복숭아를 심어 생업을 삼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동리 이름도 紅桃洞·桃花洞·복사동이란 곳이 곳곳에 있었다. 성북동 복숭아꽃 꽃구경은 '한양십경' 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길음동의 큰돌산 앞에는 앵두나무가 많아 앵두나무골 또는 含桃里와 하였다. 또 월곡동에서 장위동으로 넘어가는 골짜기에는 밤나무가 무성하여 밤나무골 또는 밤골(栗洞)이라 하였고, 그 이웃에는 배나무가 많아 배나무골 또는 뱃골(梨洞)이라 했었다. 하월곡동에는 율곡시장과 율곡파출소의 이름이 전하는데, 이는 이 골짜기에 밤나무가 많았던 데서 연유한 것이다. 그리고 삼선교 일대에는 능금, 오얏이 많이 재배되었다.

한편 성북동에는 뽕나무도 많이 있었다. 이는 이곳에 설치되었던 先蠶壇과 관계가 깊다. 현재 성북국민학교 옆 길가에는 先蠶壇址라는 표지석이 있다. 사적 제83호로 지정된 선잠단지는 현재 빈터만 남아 보존되고 있지만, 일찌기 조선초기에 국가에서 누에치기를 장려하기 위하여 단을 쌓고 누에신인 西陵氏를 제사지내던 곳이다. 《용재총화》에 의하면, '선잠단은 동소문 밖에 있으며 3월에 풍악을 울리며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고, 《동국여지비고》에는 '선잠단은 동쪽 교외 혜화문 밖에 있는데, 제도가 南壇과 같고 서릉씨를 제사지낸다. 神座가 북에 있어 남향이다. 매년 늦은 봄 길한 己日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선잠단지(先蠶壇址) 조선 성종때 양잠을 장려하기 위해 잠신(蠶神)에 제사드리는 단(壇)을 성북동에 설치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목면·모시와 더불어 비단이 중요한 옷감 재료이다. 비단은 고급의 옷감으로서 그 이전부터 대외수출품으로서도 이름이 나서 그 수요가 컸다. 그런데

비단은 명주실로 짜며, 명주실은 누에고치에서 뽑는다. 누에는 뽕나무 잎을 먹고 산다. 따라서 비단을 제조하기 위하여는 뽕나무 재배가 잘 되어야 한다. 누에를 키우며 뽕나무 재배단지로 유명했던 곳이 蠶室이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조선왕조는 동・서 두곳에 잠실을 설치하고 있었으니, 동잠실은 자양동 일대에 있었고, 서잠실은 연희동 일대에 있었다. 선잠단이 있었던 성북동에도 잠실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 곳에서는 누에를 잘 키우는 것이 그 업무였다.

누에를 잘 키우기 위해 잠실을 설치했지만, 이에 앞서 뽕나무가 잘 가꾸어져야 양잠이 성사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그러나 선초에는 국가에서 심은 뽕나무가 자라나기도 전에 잠실을 서둘러 설치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민간의 뽕나무에서 뽕잎을 채취하여 민원의 소지가 있었다.[21] 이에 국가에서는 뽕나무 재배에 힘을 기울였다. 조선왕조의 역대 국왕들은 農桑은 의식의 근원이라고 하여 이를 국정의 주요 지표로 삼았다. 농경을 통해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서 양잠을%통해 의복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초기부터 뽕나무 재배를 위해 여러가지 조처를 강구하였는데, 태조 때에는 법으로써 가가호호마다 그 가족수에 따라 대호・중호・소호로 구분하고 그에 비례하여 심어야 할 뽕나무 숫자를 정해 놓았다. 태종 때에는 뽕나무를 심지 않는 농가에는 벌과금을 부과시키기도 하였다.

국가에서 누에치기를 장려하고, 그리고 뽕나무 재배를 권장한 것은 매우 오래 전부터 행해진 일이다. 어떠한 일을 장려하고 권장하기 위하여 전근대 사회에서는 먼저 모범을 보여야 했다. 그것이 籍田과 親蠶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신라 때의 길쌈놀이도 그러한 것 중의 하나였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유리왕 때 6부의 여자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 각기 왕녀가 우두머리가 되어 7월 보름부터 날마다 길쌈을 하여 8월 보름에 그 성과가 많고 적음을 심사하여 진 편은 이긴 편에게 술과 음식 그리고 노래를 선사하게 하였다.

그러나 공식적인 先蠶의 의식은 고려시대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초기 정종 3년(1401)에는 선잠단을 만들어 신의 도움을 기원하였다. 전근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신이 좌우한다고 믿어 농사를 지을 때나, 가축을 기를 때나, 심

21) 朴慶龍, 《蠶室考》 (《鄕土서울》 43호, 1985), p.73.

지어 자손을 원할 때는 신에게 보살펴 주기를 기원하였다. 특히 동양사회의 지배층은 그들의 특권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을 믿고, 그들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동양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시된 제사는 하늘과 땅에 대한 제사였다. 하늘과 땅은 농경의 바탕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사는 왕실에서 국가적으로 행하였다.

선잠단도 그러한 의도에서 누에가 잘 자라고 누에고치가 많이 생산되고 나가서 뽕나무가 잘 자라도록 기원하기 위해 세운 제단이었다. 여기에서의 제사 주관은 왕실에서 하는데, 그것은 모범을 보이는 동시에 양잠을 권장하기 위해서였다.

조선시대에는 특히 세종·세조·성종·중종·영조 때에 양잠이 성행하였다. 그것은 국가가 이 시기 적극적으로 장려하였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성종때는 중농정책이 국가의 기간 산업 시책으로 정착되었던 때로서, 성종 9년(1478) 양잠을 국가적으로 권장하기 위해 창덕궁 후원에 제단을 쌓고 왕비가 친히 봉작을 받은 부인들을 거느리고 제사를 지내고, 이어서 친잠의 예를 행하였다. 이때 궁궐 후원에 쌓은 제단의 모습은 사방에 섬돌을 놓고 둘레 2丈 3尺, 높이 2尺 7寸이었다. 그러나 궁중에 설치한 제단과 궁중에서의 친잠례는 민간 사회에 그리 영향을 줄 수 없었다.

이에 왕실에서는 성 밖인 성북동에 선잠단을 설치하고 주변에 뽕나무 밭을 일구어 왕비가 행차하여 선잠례를 거행토록 하였다. 선잠단 남쪽에는 한 단 낮은 댓돌이 있고, 그 앞쪽 뜰에는 상징적인 뽕나무를 심고 궁중의 잠실에서 키우는 누에에게 그 뽕잎을 따다가 먹이게 하였다. 선잠단에서의 先蠶禮는 어찌보면 뽕나무에서 뽕잎을 정성스럽게 따는 예식이며, 궁중에서의 親蠶禮는 뽕잎을 누에에게 먹이는 예식이라 하겠다. 뽕잎을 따거나 그것을 누에에게 먹이는 일은 주로 아녀자들이 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선잠례나 친잠례는 왕비가 주관하여 시범을 보이는 것이 원칙이었다.[22] 물론 잠실을 계속 관리하기 위하여는 소정의 관원이 있었다. 잠실은 그 격에 따라 內蠶室과 外蠶室로 구분되는데, 외잠실이 누에고치 생산을 위해 설치된 실제적 시설임에 대하여 내잠실은 친잠례를 위한 상징적인 시설이었다. 외잠실에는 상의원에서 別座가 파견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내잠실에는 환관이 배치되어 누에를 직접 관리하는 蠶母를 감독하였다. 잠모는 대개 노비들이었다.[23] 친잠례는 양잠에 대한 위정자들의 관심이 많았던 때 주로 이

2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1, 京都 上壇廟.
23) 박경룡, 앞의 글, p.70.

루어지고 있었으니, 성종・중종・영조 때에는 이에 관계된 기록이 많다.

3. 製造業

城北區를 중심으로 서울의 동북 지역 외곽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그리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았다. 전근대사회에서 이 지역은 구릉이 많고 계곡이 깊어 놀이터, 유원지로서 보다 주목되었고, 비교적 평야가 있던 한천・중랑천 등 지역이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었을 뿐이다.

현재 성북구 지역은 주요 도로에 연하여 상가가 발달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장이나 써비스 산업이 존재할 뿐 공업은 매우 부진하다. 규모가 큰 공장은 거의 없다. 안암동・종암동에서는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석재 공업이 활발하였으나, 지금은 모습을 볼 수 없다. 도봉구・노원구 쪽으로 나가면 한천 연변에 미원, 삼양식품, 샘표간장 등의 식품공업 공장과 삼풍제지, 삼양펄프 등 제지 공장, 그리고 쌍용시멘트, 동아콘크리트, 삼화페인트 등 화학 공장들이 있어 준공업지대를 이루고 있는 정도이다. 또 노동력이 풍부한 미아동・상계동 일대에서는 주업 또는 부업으로 잡화, 의류, 가발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가내수공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근대 사회에서는 그러한 공업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따라서 성북구 지역에서는 그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성북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제조업은 포목의 漂白과 메주 쑤는 일, 채석과 그 가공 등이었다. 포목의 표백과 메주 쑤는 일은 성북동 골짜기에서 이루어졌다. 城北洞은 그 위치가 서울의 북동쪽에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북서쪽, 창의문 밖 탕춘대와 함께 북방에서 한양으로 통하는 길목 중에서도 길목이었다. 특히 이곳은 계곡이 깊고 지형이 험하여 도둑이 은거하기가 용이하였다. 그러나 북방에서 외적의 침입을 몇 차례 겪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곳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조선후기에는 이곳에 어영청 군대의 일부를 주둔시켰다.[24] 그리고 조정에서는 이곳에 백성을 이주시켜 살게 함으로써 외곽경비선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성북동 골짜기는 워낙 산속이어서 농토가 적고 인가가 거의 없어서 사람들이 살기에 불편하였고, 그리하여 속

24) 東國輿地備攷 卷 2, 漢城府 關防.

속 떠나갔다. 이에 정부에서는 그들을 안주시킬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영조 41년(1965) 영의정 洪鳳漢은 왕에게 건의하여 서울 각 시장에서 파는 포목의 표백, 즉 마전하는 권리를 이곳 주민들에게 주었다. 성북동 양쪽 골짜기의 물이 합류하는 부근의 냇가를 속칭 마전터라 하는 것은 여기에서 연유한 것이다. 서울에서 소비되는 대다수의 포목을 이곳에서 마전하였다면 그 작업량은 적지않은 것이었고, 따라서 그 잇권도 적지않은 것이었다. 특히 이곳에서 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물이 맑고 수량이 풍부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영조 44년(1768)에는 이와 더불어 창의문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궁중 수요의 메주 공급권을 그 일부를 나누어 이곳 주민들에게 주었다. 이 역시 성북동 주민의 안주를 위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도 간장, 된장, 고추장은 모두 제집에서 만들어 먹는다. 그 밖의 식료품들도 가공품을 사먹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간장, 된장, 고추장의 원료인 메주는 만드는 과정에서 절차가 복잡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조선후기 이래로는 점차 판매를 위해 제조되기도 하였다. 도성 주변에 옛이름으로 남아있는 무쇠막이란 곳은 대개가 무쇠솥을 걸고 전문적으로 메주를 쑤어 이를 판매하던 곳이다. 더구나 궁중에서 소용되던 모든 물품은 백성들이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이 이른바 공납제였다. 이곳에서 제조되는 메주는 궁중에서 소용되었기 때문에 잘 만들어야 했다.

한편, 삼선동·종암동·길음동·노원동 등지에서는 석물을 채취하여 이를 가공하여 수요에 응하고 있었다. 삼선동이나 노원동 등지의 석재는 주로 북한산성을 축성할 때 쓰였다. 도성을 수축할 때도 이곳에서 돌을 채취하여 사용하였다고 본다. 도성은 처음에는 흙으로 쌓은 토성이었으므로 당초에 여름 장마로 무너진 곳이 많아 곧 石城으로 다시 쌓았다. 북한산성은 조선후기에 쌓은 석성으로, 본래는 성이 없었다. 이에 숙종 28년(1700) 우의정 申琓이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북한산성을 수축하게 되었다.



전산업시대의 산업경제(그림)

병자호란때 우리가 패한 것은 서북의 국경을 지키지 못하고 도성을 버린 탓이며, 지금도 사람들은 변란이 일어나면 남한산성이나 강화성으로 피난할 것만 생각하는데, 그러한 곳은 급할 때 믿을 곳이 못된다. 창의문 밖 북한산은 석벽이 솟아있어 그곳의 산세를 이용하여 성을 쌓고 곡식과 무기를 비치하여 도성과 안팎이 되어 서로 힘을 다하여 굳게 지키면 비상시를 당하여 왕이 피난할 필요도 없다.[25]

도성, 북한산성을 쌓으면서 돌을 떠서 갖고 오는 것이 큰 일이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노원동 등지에서 채석하였으나, 민폐가 심하여 삼선동・정릉동 등에서 채석하였다. 이같은 작업은 관아의 일이라서 제조업이라 할 수는 없지만, 석재 채취도 점차 민간인의 수요에 응해서 전문적 직업으로 자리잡아 갔다. 부역제가 무너지면서 양반들이라고 하여서 강제로 백성을 사역할 수는 없었다. 일을 시키거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려면 그 댓가를 지불해야 했다. 일부 양반들은 주택을 호화롭게 짓고자 하였다. 건축 자재로 나무를 쓰기 보다는 석재를 원하였다. 안암동의 진석산이나, 길음동의 큰돌산은 양질의 돌로 이루어진 바위산이었다. 돌의 질이나 빛깔이 매우 좋아 세도 양반이나 돈이 많은 부자들은 이곳의 돌을 이용하여 집을 짓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이곳에서는 일찍부터 채석업과 석재 가공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진석산의 돌은 일제 때 조선총독부를 지을 때에도 사용하였다.

그 밖에 성북구 일대에서는 조선시대 전국 각지에서 생산되던 옹기 같은 것이 제조되었을 것이다. 옹기는 그 만드는 수법이 쉬어서 흙과 물과 햇볕이 좋은 곳이면 어디서나 제작되었다. 수유리・가오리・상계동 등은 그러한 곳이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성북구 일대에서의 제조업은 그 규모가 영성하였고, 그 생산도 많지 않았다

4. 流通經濟

1) 교통・운수의 길목

동소문, 즉 혜화문은 도성에서 동북지방으로, 동북지방에서 도성으로 오가는

25) 肅宗實錄 卷 37, 숙종 28년 8월 庚寅.
肅宗實錄 卷 39, 숙종 30년 3월 甲子.

주된 출입문이었다. 물론 동대문을 통하여 왕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동소문 밖의 성북구 지역은 동북지방과 도성을 연결하는 교통로의 연변에 있어 예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한 길목으로 여겨지고 있다. 도성을 나서서 우선 쉬어가야 하는 곳이 이곳이었고, 함경도·강원도 등 동북지방에서 바쁜 걸음으로 오다가 마지막으로 쉬어가는 곳이 이곳이었다. 따라서 일찍부터 위성도시화할 가능성을 내포한 곳이었다. 조선후기 인마의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樓院이 상업도시로 성장하였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유통·경제는 교통·운수의 입지가 그 첫째 조건이다. 상공업이 발달하기 위하여는 교통수단이나 교통로 등이 편해야 한다. 그런데 중앙집권적 사회에서의 교통 문제는 국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조선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조선왕조는 고려후기의 누적된 대외·대내적 문제를 시정하여 밖으로 국가 역량을 키우고, 안으로 국민 총화를 강화하려는 이념 밑에서 개창되었다. 그것은 고려후기에 권문세족이 발호하는 가운데 중앙집권체제가 약화되고 왕권이 쇠약해진 데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였다. 이에 새로운 집권층인 사대부들은 중앙집권의 강화와 관료 정치의 정비를 추구하게 되니, 왕조 개창을 전후하여 추진된 일련의 개혁은 부국 강병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하여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려는 운동이었다. 그리하여 15세기에는 국력이 크게 신장되었고, 백성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이 커지게 되었다. 중앙집권화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서 통치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통과 통신 그리고 운수 조직이 정비되어 갔다. 보다 강력한 지방 통치를 위해서도 교통망의 정비, 운송망의 정비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교통 문제는 또한 사회가 발달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다. 생산력이 증대되고, 그 잉여생산물이 처분되면서 상공업 활동이 활발해졌다면, 그것을 매개하는 기본적 역할은 교통·운수 체계이다. 교통·운수 체계란 그 의미에서 볼때 문화의 지역간 이동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데, 특히 생산력이 증대되고 있는 사회에서 주목되고 있다. 교통 문제는 생산 능력에서 뿐만아니라 물화의 가치에 있어서도 그 효과를 증대시켜 주고 있다. 왜냐하면 물화의 가치는 장소적 제약을 받는다. 물화로 하여금 이와같은 제약을 벗어나 그 가치 또는 효용을 가능한 한 크게 발휘토록 하는 것이 교통·운수 체계인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물화는 시간적 제약에 의해서도 가치를 제약받는다. 일정 시기에 물화를 매입하여 보관하였다가, 그 물화의 수요가 증대

될 때 처분하면 물화의 가치는 증대된다. 창고업이 그러한 기능을 토대로 하고 있다. 운송업・창고업은 크게 교통의 범주에 속하는데, 조선후기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상인들은 그러한 운송・보관의 기능을 잘 활용하여 자본을 집적하였다.

현재 서울의 지리적 위치를 보면, 남쪽으로는 부산까지 약 450km, 목포까지 약 440km, 북쪽으로 신의주까지 약 500km, 회령까지 약 620km로 되어 대체로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하여 고려시대에도 이곳은 중요시되어 南京이 설치된 바 있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전국의 교통망이 한양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교통로라고 하면 陸路를 생각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동・서・남의 방향으로 고속도로가 시원스럽게 개통되어 있고, 아울러 국도와 지방도가 사면팔방으로 뚫려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그러나 근대화 이전에 있어서는 구릉과 하천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관계로 인하여 도로 사정이 좋지 못하였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토목 기술이나 교통 수단도 그리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육로가 이용되지는 못하였다. 그렇다고 하여도 행정・군사상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驛路와 擺撥이 정비되어 교통・통신망으로서 그 기능을 다 하였다. 조선시대의 교통망은 우선 수도인 한양과 지방 행정 중심지인 감영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는데, 즉 한양을 結節點으로 하는 X字型 간선도로가 형성되고 있었다.[26] 이 도로의 동북쪽에는 함흥・길주・경성・회령, 서북쪽에는 평양・안주・의주, 서남쪽에는 공주・전주・나주・동남쪽에는 충주・상주・동래 등의 주요 도시가 분포하였다. 한양에서 동북쪽으로 뻗은 도로를 북로라고 하고, 서북쪽으로 향한 도로를 서로라 했으며, 서남쪽으로 뻗은 도로를 삼남로, 동남쪽으로 향한 도로를 영남로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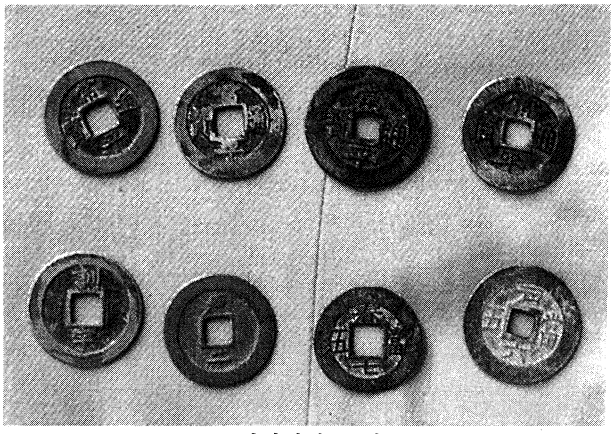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조선시대에는 위와같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전국에 9개의 간선도로가 있었다. 제1로는 서울에서 의주, 제2로는 서울에서 서수라, 제3로는 서울에서 평해, 제4로는 서울에서 동래, 제5로는 서울에서 통영, 제6로도 서울에서 통영(노선이 다름), 제7로는 서울에서 제주, 제8로는 서울에서 보령, 제9로는 서울에서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 간선도로 중에서 성북구를 지나는 길이 제2로로서, 이른바 北路이다. 이 길은 다른 길과 달리 행정・외교적 통로라기 보다는 군사적 도로였다. 북방 여진족의 동태가 심

26) 최영준, 《嶺南大路》(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90), p.130.

상치 않으면 서울로 파발마·역마가 정신없이 달리는 길이었다. 그러나 이 길에는 장애물이 많았으니, 태백산맥의 능선을 가로질러 넘어야 했고, 그 중간에도 추가령 협곡지대를 지나야 했다. 따라서 가장 험준한 철령 고개를 넘어 벼슬살이를 가거나 귀양살이를 가는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도로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시대 한양에서의 일정도 제일 오래 걸렸다. 즉, 남으로 나주까지 8일정, 동래까지 10일정, 북으로 의주까지 10일정임에 대하여 회령까지 21일정이었고, 경흥 서수라까지는 25일정이었으며, 중간의 함흥까지도 10일정이었다.

인마의 왕래도 이와같이 불편하였기 때문에 물화의 운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래 정부가 백성들에게서 징수하는 조세도 함경도·평안도에 한하여는 잉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북지방에서 한양으로 운송되는 물화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함경도 지방은 산악지대이어서 식량사정이 좋지 않았고, 그리하여 흉년 등으로 기근이 잦았는데, 이때에도 중앙에서 진휼을 위한 곡물을 보내기가 쉽지 않아, 정부에서는 경상도 동해안 지방에 비축된 곡물을 해안도로, 또는 연해 해로를 통해 이송토록 조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르러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하면서 상품의 수요가 증대하면서, 특히 북도 지방의 魚物이 한양을 비롯한 남부 지방민에 선호되어 물화의 운송이 촉구되었다.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수요가 증대하자, 이를 계기로 상인들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종래 큰 장애물로 여겼던 험준한 산악도 극복해 나갔다. 그것은 함경도 지방의 北商과 서울 지방의 私商 모두에 의해 추진되었다. 동북쪽 지방의 물화가 서울로 반입되기 위하여는 제2 간선도로, 즉 北路를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그 길은 전술한 바와 같이 험준하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해야 했다. 본래 정부에서는 이 때문에 역원제를 운영하였는데, 대



조선시대의 동전

체로 30리마다 역 또는 원을 설치하여 교통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평지의 도로와 달리 북로에서는 20리 내외에 역·원을 설치하였다. 북로에 설치된 주요 역·원은 樓院·파발막·양문역·풍전역·창도역·신안역·고산역·용지원·남산역·덕원참·고원역·금파원·초원역·함원역 등으로서 철령 이전에만 10개의 역·원 또는 참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성북구 지역에 있었던 樓院은 함경도와 포천 지역에서 진땀 흘리고 찾아 온 사람들의 마지막 쉼터로서, 상인들은 여기에서 물품의 거래를 이모저모로 계산하게 되니, 자연 오랫동안 지체하게 되었다. 상인들은 이곳에 머무르며 한양에서의 가격 동향을 여러 정보를 통해 탐지하기도 하였다. 서울에서도 물건을 미리 받기 위하여 이곳에 모여들었다.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노변취락이 형성되었고, 특히 상거래 활동이 빈번해지면서 상업도시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누원이 발달하자 인근 松隅里에도 그 여파로 취락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두 도시는 한때 서로 상권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누원에서 서울로 진입하기 위하여는 미아리까지 와서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미아리고개를 넘어 돈암동·삼선평을 경유하여 동소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종암동·안암동·숭인동을 통해 동대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인데, 화물의 운송은 주로 후자의 길이 이용되었다.

2) 누원상인의 활동

樓院은 본래 먼 길을 오가는 여행객 또는 공무로 출장가는 관원을 위해 설치한 院이 있던 곳이다. 다락원이라고도 했다. 이 곳은 함경도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일 뿐 아니라 포천·김화·화천 등지로 빠지는 사잇길로도 이어지고 있어 교통의 요충지였다. 원은 조선초기에 많이 설치되고 그 이용이 잘 되었으나, 조선후기에는 국가가 설치한 원보다는 민간에서 사사로이 설치한 주막이 그 기능을 대신하면서 그 역할이 약화되었다.

누원에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조선후기에 이르러서였다.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교통의 요충지인 이곳이 상인들에게 주목되고, 북도의 물화가 이곳에 집산되면서 상업도시로 성장하여 갔다. 본래 누원을 비롯한 성북구의 외곽 지역은 한가한 농촌으로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城底十里라고 하여 한성부의 행정구역에 포함되었다고 하여도 사람들이 거주하던 지역은 동소문 밖의 성북동·돈암동, 그리고 동대문 밖의 숭인동·안암동·종암동 등에 이르는 정도였다. 성북구의 외곽 지역, 즉

지금의 노원구 일대는 농촌으로서 농가가 곳곳에 산재하여 있었을 뿐이었다. 원이라 하여도 주변에는 거의 인가가 없었다. 당시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물자가 자급자족으로 충족되었기 때문에 지역 상호간에 물화가 유통되지 않아도 크게 불편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사람들의 왕래도 빈번하지 않았다. 봉건적인 조선왕조는 중농정책을 내세워 오히려 상업 활동을 통제하였다. 즉, 도시의 상업은 市廛에 한하여 국한시켰고, 지방에서의 행상 활동도 가급적 규제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상황은 16세기 말 이래로 바뀌어 갔다.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수공업 생산이 활기를 띠며, 그리고 정부의 통제 정책이 이완되면서 상업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서 사상들의 활동이 두드러져갔다. 사상의 대두는 한 때 견제를 받기도 하였다. 즉 일찍부터 상업을 독점해 왔던 시전상인들은 정부로부터 禁亂廛權을 얻어 내어 사상들의 활동을 억압하려 하였다. 금난전권은 시전상인들이 가지고 있던 일종의 독점적 전매특권으로서, 그들의 상업 활동과 이익을 침해하는 상행위를 규제할 수 있었다. 예컨대 그들이 판매하는 물품을 일반 상인들이 팔면 난전이 되었다. 그러나 사상들은 서로 연계하여 신속한 정보망과 풍부한 자금을 토대로 이에 대항하여 상행위를 계속하였으니, 초기에는 종루·이현·칠패 등이 사상 활동의 선두 주자였다. 18세기 말 이래로는 정부로서는 더 이상 사상의 성장을 막을 수 없게 되었고, 그리하여 결국 육의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의 금난전권을 철폐하였다. 이로써 사상들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은 이후 어느 정도 보장되었으며, 그들 중의 일부는 도고로 성장해 갔다.

사상들은 각 지방의 장시를 연결하면서 물화를 교역하고, 각지에 지점을 두거나 다른 지역의 상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상권을 확장하여 갔다. 그리하여 사상들의 활동 범위는 점차 넓어져 당초의 종루·이현·칠패 등에서 벗어나 한양의 외곽 지대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상업 기지를 설립하여



동네의 가게

갔으니, 한강 연안, 말죽거리, 송파, 과천, 그리고 누원 등지가 새로운 유통기지로서 대두하였다. 이들 지역은 시전상인의 금난전권 규제 지역에서 벗어나 있을 뿐아니라 도성 안과 밖을 매개시켜 주는 교외 지역으로서 위성도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곳이다. 非農人口가 모여들 수 있는 지역이었던 것이다. 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파탄된 농촌에 살 수 없게 된 이농민들이 대거 도시로 몰려 들었고, 특히 한양으로 집결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도성 안은 비좁아 거주 공간이 보장될 수 없었고, 자연히 그들은 성 밖에 거처를 마련해야 했다. 더구나 맨 몸으로 한양에 온 그들의 살 길은 장사하거나 품팔이 또는 하인노릇 하는 것 뿐이었다. 이에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그 기지로 주목받은 서울 주변의 유통기지에는 사람들이 집중되어 갔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직전의 한양의 인구는 대체로 10만여명에 이르고 있었다. 이는 왕조 초기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이래 사회가 안정되면서 인구의 급격한 증가 현상이 나타나 18세기 초에 이미 20만명 가까이에 이르게 되어, 한양은 당시로서는 세계적인 대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이들 증가된 인구의 태반이 한양의 교외, 즉 용산・마포・뚝섬・두모포 그리고 누원 등 위성도시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정조 31년(1789)의 戶口摠數에 의하면 마포・용산의 인구가 약 1만 5천명, 서빙고가 약 3천여 명, 두모포가 약 4천 5백명, 뚝섬이 약 2천명이었다고 하며, 누원이 말죽거리와 비슷하게 약 3천명이었다고 한다. 이는 종래의 행정 중심지들 보다 많은 인구가 집중되었음을 증거하는데, 실제로 당시 감영이 있었던 원주・춘천・성주・해주 보다 큰 도시였다. 한낱 원의 소재지였던 누원이 교통의 중심지였다는 조건 때문에 상업도시로 성장하여 주목되는 유통기지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에는 두 가지 측면의 원인이 작용하였다. 첫째 타의에 의해 농촌을 쫓겨나야 할만큼 당시의 농촌사회는 분해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조선후기에는 흉년과 재난이 특히 심하였다. 여러 차례 가뭄과 홍수 등에 의한 흉년이 계속되면서 유민이 많이 생겨났다. 게다가 탐관오리의 학정과 양반지주의 착취로 농민들은 견디기가 어려웠고, 여기에 경영 방법의 혁신으로 광작과 임노동의 도입이 확산되면서 부지런한 일부 농민들은 농가 소득을 올렸지만, 대다수의 농민들은 소직지조차 얻기가 힘들게 되어 농촌을 본의아니게 떠나야 하기도 했다. 정치를 비교적 잘했다는 英祖 때의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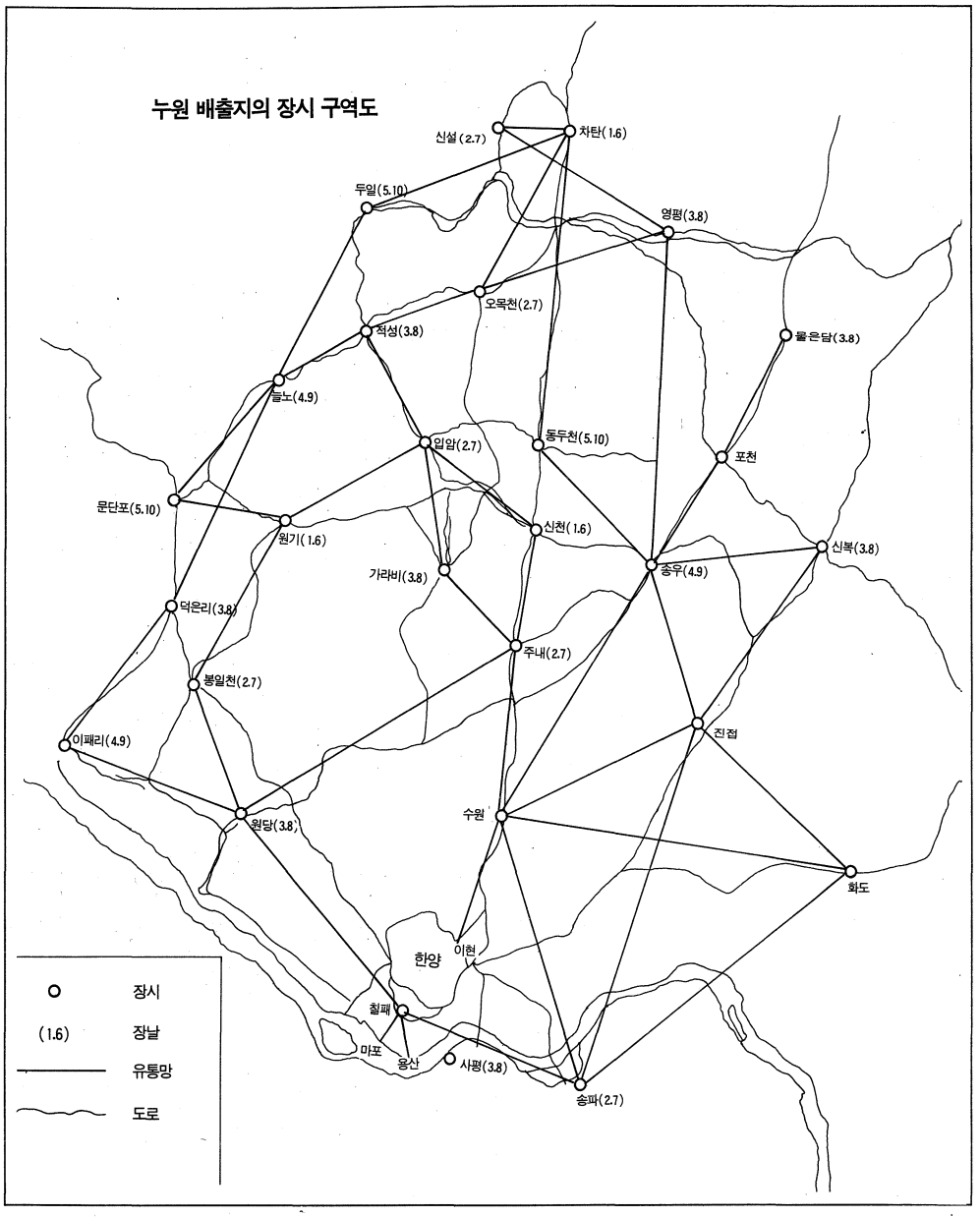
록은 수시로 각도의 유민이 한양으로 모여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27] 한편 상업의 발달도 농촌 인구의 이농을 촉진시켰다. 농업이 1년 내내 힘든 노동을 해도 소득이 별로 없었던 데 대하여 상업은 물건을 단순히 중개만 하면 손쉽게 많은 이득을 취하였다. 이를 인지한 농민의 상인으로의 전화는 자연발생적이었고, 자율적이었다. 도시에서의 상공업의 발달이 농촌인구를 흡인하느냐, 인구의 도시집중이 상공업을 발전시키느냐 하는 논의는 달걀과 닭의 선후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이농민이 상공업에 종사하게 되자 상공업이 발달하였고, 상공업의 발달이 또한 더 많은 농촌 인구를 도시로 흡인하였으니, 조선후기에는 도처에 상업도시가 생겨났다. 특히 한양 주위에는 그 경향이 보다 두드러졌다. 행정도시였던 한양·평양·전주 등은 이제 상업도시로 변모하여 갔다.

조선후기의 일부 상업도시들은 장시를 토대로 성장하기도 하였다. 樓院이나 松隅里 역시 그러한 상업도시들이었다. 장시는 1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전국에 1천여 개소가 개설되었다. 장시는 보통 5일마다 열려서, 인근의 주민들이 농산물과 수공업 제품을 교환하였는데, 일부의 장시는 점차 상설시장으로 되어 갔다. 누원은 18세기 후반 하나의 상설시장이었다. 또 본래 국지적 시장권을 형성하고 있던 장시는 포구 등과 연결되면서 전국적 시장권을 형성, 원격지 교역에도 참여하였다. 여기에서의 상행위의 주체는 특권상인으로서의 공인도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지만, 거의 사상인들이었다. 누원의 사상인들은 관북 지방의 건어물을 주로 취급하였지만, 전국적 시장권에 편입되기도 하였다. 누원 주변에는 마석우장·동두천장·신천장·송우장·차탄장 등이 있었고, 이들은 철원·원산과 연결되었는가 하면, 송파·용산·뚝섬 등과 연결되기도 하였다. 주변의 장시에서는 미곡·약재·건과·면포 등을, 원산에서는 북어가 누원으로 집하되었다.

그런데 장시가 형성되기 이전에도 농민들은 여러가지 형태로 교역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역은 농민 상호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지역간을 이동하면서 상업을 하는 행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때로는 관부와 결탁된 상인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농업 경영에서 자가 소비 이외에 잉여생산을 할 수 있는 계층은 지주들이었다. 따라서 농업 중심 사회에서는 지주들의 잉여생산물이 주로 교역되고 있었다. 15·6세기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렇다고 하여도 이 시기에는 생산력이 점

27) 英祖實錄 卷 53, 英祖 17年 3月 辛卯.
英祖實錄 卷 88, 英祖 32年 11月 丁未.

누원 부근의 장시



진적으로 증대하고 생산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일부 농민층은 어느 정도의 잉여를 축적할 수 있었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농업기술의 보급과 농민의식의 성장을 바탕으로 소생산자인 일반 농민층에서도 市場性을 고려한 이른바 상업적 농업이 영위되고 있었다.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더불어 농촌사회의 사회적 분업도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었다.[28] 원래 중세사회에서는 물품의 교환이 통제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은 공물·진상·부역 등의 방법으로 징발하였다. 따라서 생산 판매를 위한 수공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그들의 물품 수요가 증대하면서 판매를 위한 생산이 이루어져 갔다. 조선후기에는 그러한 경향이 한층 두드러졌다. 도시에서는 사치적 수요를 위한 금은세공품·철물가공업·문방구 생산을 비롯하여 민간의 일상 생활용품들이 생산되었고,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가내부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자기·농기구 등의 생산 비중이 높아져 갔다. 농민들의 가내 수공업도 본래는 자가소비를 위한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잉여생산이 가능해지고 유통이 원활해지면서 특히 장시가 발달하면서 마포·면포·모시·명주 등의 직조업과 종이를 만드는 제지업 등에서는 판매를 위한 가내수공업이 전개되어 갔다.

농민들은 국가의 부세제도 운영, 계속된 흉년 등에 의해서도 유통 경제에 참여하였다. 일반 농민에게 지워진 각종의 전세·공납·군포 등을 부담하기 위하여 자신의 식량곡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생산되지 않는 공물을 납부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갖고 있는 물화를 가지고 생산지로 가서 구입하여 납부해야 했다. 심지어는 전답과 소·말 등을 팔아서 마련하는 경우도 있었다. 농민 간의 이러한 교역은 개인 사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아무데서나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교역이 증대됨에 따라 점차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행하였다. 예컨대 장시가 그러한 곳이었다. 또한 이 지역의 농민들은 그들이 가진 물품을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보다 수요가 많은 서울 등의 대도회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농민들이 행하는 또 하나의 교역 형태는 지역권을 넘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상업을 하는 행상과의 교역이었다. 행상들은 농촌사회에서 공급이 부족한 물품 또는 구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수공업 제품, 그리고 소금·생선 등의 수산물을 농민에게 제공하였다. 농민들은 이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구하기 힘든 물품의 대가로 주로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자료인 곡식이나 옷감을 지불하고 있었는데, 때로는 구입한 물품의 지불능력이 없으면 나중에 추수할 때의 곡물을 지급하기로 하는 외상거래도 행해지

28) 남원우, 《세기 유통 경제와 농민》(《역사와 현실》 5, 1991), p.72.

고 있었다.[29] 행상들의 왕래가 빈번해지자 이들의 숙식을 위한 장소로서 원 또는 주막이 설치되었는데 누원이나 송우참이 그러한 곳이었다. 특히 누원은 교통의 길목이어서 상인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누원에는 본래 장시가 없었다. 시전을 중심으로 특권적 경제질서를 유지하고자한 조선정부는 시전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곳의 장시는 인정하면서도 서울 근처에 장시가 설립되는 것을 규제하였다. 그런데 누원은 함경도 지방에서 생산되는 어물과 포목이 서울로 반입되는 주요한 길목이었기 때문에 상인들은 이곳에 장시를 설립하고자 하였다. 즉 숙종 40년(1714) 이곳의 상인 鄭光載 등이 장시를 설치하려 하였고, 이어서 영조 45년(1769)에도 역시 이곳 상인들이 장시를 설치하려 하였다.[30] 그러나 두 차례의 노력은 서울 시내 시전상인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원의 상인들은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결국 18세기 후반에는 송파, 한강변과 더불어 상업 중심지로 역할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의 누원은 도봉산 기슭에 위치하여 서울 중심부와 가까워서 서울 시전상인들의 상거래에 제일 큰 타격을 주었다. 정조 5년(1781) 서울 종로에서 魚物을 팔던 내어물전인의 고발에 의하면 동북지방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각종 어물을 누원에 사는 崔敬允·嚴次起·李星老 등이 매점해 두었다가 조금씩 칠패와 이현의 난전인들에게 보내면 그들은 값을 올려 팔았고, 이리하여 서울 시내의 魚物 값이 오를뿐 아니라 이 때문에 어물전은 실업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기록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누원에서 상행위를 하는 자들은 中都兒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도아는 본래 시전이 매집한 상품을 소매상이나 소비자에게 전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최소한 辛亥通共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서울에서 유통되는 상품거래는 시전을 중심으로 행해지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즉, 서울에 반입되는 상품은 반드시 시전의 중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매되어야 했다. 그런데 서울에서 유통되는 상품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상품을 매집하고 분산하는 기능을 시전상인이 모두 담당할 수는 없었다. 특히 어염과 같이 부패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유통시키지 않으면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더욱 그러하였다. 따라서 이와같은 상품을 갖고 있던 상인들은 새로운 시전, 즉 공급처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기존의 시전들은 이를 반대하고

29) 남원우, 앞의 글, p.81.
30) 강만길,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려대 출판부, 1970), p.180.

그들이 지정한 비시전계 상인들로 하여금 그 일을 맡게 하였으니, 중도아와 여객주인이 그러한 상인들이었다. 이를테면 중도아는 당초에는 시전에 예속된 하청업체와 같은 존재였다. 그들은 자본 규모가 영세하여 소량의 상품을 행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매하거나, 시전 부근 등에 임시점포를 차려 소매상이나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였다. 그들은 시전에 세금을 바쳐야 하고, 그들이 거래하는 상품은 반드시 시전에서 매입한 것이어야 했다.


잡 화 점

그러나 상품경제가 발달하고 난전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들은 난전과 결탁하여 난전이 매집한 물건을 시중에 판매하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시전이 난전을 제어하고 서울의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 그 상업 활동을 인정한 중도아가 이제는 도리어 난전의 활동을 조장하고, 나아가 시전의 활동에 제약을 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18세기 말에 이르러는 중도아는 본격적으로 난전 활동을 폈다. 이에 난전에 대한 시전과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자 일부 중도아는 시전의 금난전권을 피해 누원·송파와 같은 외곽 지역으로 근거지를 바꿔 그곳에서 서울에 반입하는 상품을 매집하였고, 일부는 서울에 남아 외곽 지역의 중도아가 공급하는 상품을 서울의 소비자에게 유통시켰다. 그들은 이제 시전을 거의 배제하고 상업 활동을 폈는데, 정조 15년(1791) 신해통공이 시행되면서 합법적으로 자유로이 상행위를 전개하였다. 누원의 상인들은 송파 등지의 상인들과 자금을 합자하기도 하고,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면서 대규모로 매점활동을 폈으니, 19세기에 이르면 누원상인들은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상인 중의 하나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

3) 都賈商業의 전개

도봉산 기슭에 자리잡은 누원 상인들이 대규모로 상품을 매점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른바 都賈 행위였다. 도고 행위는 18세기에 누원 상인 뿐만 아니라 시전상인,

경강상인, 공인, 송상 등이 영리의 극대화를 위해 벌인 행위였다.

17세기 후반에 나타난 상업계의 몇 가지 변화는 이후 각 개별 상업자본의 가치액 증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국내에 있어서의 상업인구의 증가는 상인들 사이에 심한 경쟁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일부 상인들은 관권과 결탁하거나 혹은 스스로의 우세한 자본력을 이용하여 독점적 매점상업을 영위하여 상업자본의 집적에 성공하였고, 대외무역이 발전함에 따라 그것에 종사한 의주의 灣商, 동래의 萊商, 개성의 松商 등 역시 자본 집적에 성공하였으며, 이어서 그들은 금속화폐의 전국적 유통으로 인하여 도회지 부근과 농촌사회를 배경으로 고리대자본을 증대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18세기 이래 상업계에 만연하였던 각종 도고 행위는 이와같은 독점적 매점상업이 심화되면서 빚어진 현상이었다.

조선후기에 크게 발달하였던 도고상업은 그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째는 다른 상인과의 경쟁을 배제하기 위하여 관권과 결탁하고 그것을 배경으로 특권적 매점상업을 영위한 경우이니, 주로 시전상인과 공인의 도고상업이 그것이며, 둘째는 민간 상인 가운데 큰 자본을 가진 자들이 스스로의 경제적 실력과 정확한 정보망, 신속한 유통망을 바탕으로 독점적 매점상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니, 난전상인·경강상인·송상 등의 활동이 그것이다. 누원상인은 후자에 속한다고 하겠다.

관권과 결탁하여 특권적 매점상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도로서의 한양과 감영 소재지로서의 營底 등 관아도시를 배경으로 하지만, 교통의 요지를 거점으로 하는 사상인들은 자본력·정보망·유통조직 등 경제적 환경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순수한 상품의 유통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사상도고의 활동은 우선 서울에서 가장 현저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도시 주변의 상업 중심지 또는 새상품의 반입로에서 발달하였다. 예컨대 누원이나 송우점이 그러한 곳이었다. 그리고 상품의 생산지 또는 생산지 주변의 상품집산지도 사상도고의 활동근거지였는데, 예컨대 원산과 같은 곳이다.

특히 서울 주변, 즉 누원 등지에 사상도고의 거점이 마련된 까닭은 첫째, 이곳이 지방 생산품, 예컨대 함경도의 어물 등이 서울로 운반되는 길목이라는 점과, 둘째 이곳은 금난전권이 행사되는 권역 밖이면서도 비교적 서울과 가까와서 서울 시내의 사상도고, 예컨대 칠패 이현 상인들과 연결이 쉬웠고, 또 서울 시내 사상도고가 직

접 이곳에 나와서 상품을 매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31]

서울 근교의 사상도고 근거지 가운데 서울 중심부와 가까와서 시전상인에 제일 큰 타격을 준 곳이 누원이라 함은 전술하였지만, 이와 더불어 주목되는 곳이 용산·마포 등 한강 연변이었다. 한강변이 유통기지로 발돋움해 간 데는 나름대로 조건이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한강변은 전국의 물화가 선박으로 한양에 집중될 때 그 하역처였고, 용산·마포 등지는 당시 가장 큰 소비 시장인 한양과 바로 인접해 있었고,더구나 청파동 북쪽에 칠패 장터가 있어 사상들과 물화를 교역하기가 매우 용이하였다. 한강변 유통기지를 근거로 하여 상업활동을 전개한 상인들을 五江商人이라 하는데, 누원상인들은 이들과도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 왜냐하면 누원상인들의 주된 상품인 어물을 5강상인들도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5강상인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시기도 18세기 후반으로서 누원상인의 대두 시기와 거의 같은 때였다. 5강상인들은 선박이라는 운송수단을 갖고 있어서 선상활동을 주로 하였는데, 때문에 대규모로 도고활동을 펼 수 있었다.

그러나 경강변에는 일찍부터 어물전·염전·미전 등 시전의 분전들이 있어서 그 간섭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5강상인들은 일정한 제약을 받았다. 이에 비하여 한양과 다소 떨어진 누원은 서울에로의 길목이지만, 시전들이 분전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그리하여 중도아에게 상행위의 일부를 위임하였더니, 그들은 누원을 근거지로 오히려 시전상인의 활동을 잠식하고, 독자적 상권을 구축하여 갔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누원상인들은 누원에 독자적인 장시를 설치하고자 했고, 일부 중도아들은 동북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각종 어물을 이곳에 매점해 두었다가 칠패·이현의 사상인들과 연계하여 도고행위를 폈다. 그것은 서울의 시전상인들을 매우 곤경에 빠지게 하였다. 또 칠패에 난전을 차려놓은 무리들이 누원에 사람을 보내어 어물 수천 바리를 통틀어 매점하기도 하였으니, 확실히 이곳은 금난전권의 권역 밖이었음을 알 수 있고 칠패·이현 상인들과 누원상인들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헤아릴 수 있다.

시전상인들이 누원 등의 난전상인들에 의해 큰 타격을 받자, 그들은 이곳까지

31) 강만길, 앞의 책, p.179.

금난전권을 확장시키고자 시도하기도 하였다. 누원은 특히 동북지방, 즉 원산 등지에서 오는 어물과 포목을 매점하는 중심지였다. 이 때문에 시전 중에서도 어물전과 포전인들이 주로 누원을 금난전권 권역 안으로 편입시키고자 하였다. 그 근거로 그들은 이른바 近畿百里之內가 모두 금난전권 권역 안이라는 것을 내세웠다.[32] 이와같은 시전상인의 주장은 곧 특권적 상업권을 넓힘으로써 사상인들의 도전을 배제하려는 노력이었지만, 이 시기의 정치·사회적 분위기는 그것을 무의미하게 하였다.

누원 못지않게 광주의 송파·삼전도 일원도 각 지역에서 서울로 반입되는 상품의 유통로였으므로 일찍부터 장시가 발달하였고, 이 장시를 근거지로 하여 사상인들의 도고 활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송파 장시에서의 사상인의 매점 활동이 시내 시전상인에게 큰 타격을 주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중엽부터였다. 영조 30년(1754)의 기록에 의하면, 서울의 사상인과 송파의 사상인이 서로 결탁하여 삼남지방과 동북지방에서 오는 상인을 유인함으로써 대규모의 장시를 펴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 당국자도 이는 금난전권을 피하여 시전상인의 본업을 빼앗는 것으로서, 서울의 시전상인들이 실업하고 있다고 염려하였다.[33] 당시 송파장시는 5일장이 아닌 상설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런데 송파장시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누원과도 연결되고 있던 칠패 등지의 사상도고였다. 19세기 초 대규모 사상 중의 하나였던 孫道康은 양주·광주 등지의 부호들에게서 자금 수만 냥을 조달하여 직접 원산에 가서 어물 선박 전부를 매점하거나, 혹은 어물이 서울로 반입되는 길목인 누원·송우점 등지를 지켰다가 그것을 모두 매점하는 도고 중의 도고였다. 순조 4년(1804)에도 그는 어물 30여 바리를 매점, 운반하였는데, 이를 안 서울 시내 어물전인들이 취체하려다가 오히려


갓 만드는 장면

32) 各廛記事, 天卷 戊申 5月 日條.
33) 備邊司謄錄 第127冊, 英祖 30年 11月 28日.

그 일당에게 구타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34]

이 시기 누원·송우점·송파 등 서울을 둘러싼 몇 개의 장시를 연결하는 사상도고의 조직은 비교적 규모가 컸다. 앞서의 孫道康은 순조 5년에도 많은 자금을 가지고 원산에 가서 각종 어물을 매점함으로써 시전상인들에게 크게 해를 입혔으며, 같은 해에 시전상인들이 퇴계원에서 삼전도의 상인 20여명이 북어, 대구 등 50여 바리를 싣고 오는 것을 시전에 넘길 것을 요구하였다가 오히려 구타당하기도 하였다.

서울을 둘러싼 사상도고의 활동권의 또하나의 요지는 포천의 송우점이었다. 이곳은 동북지방의 상품이 서울로 운반되는 경우, 누원에 앞서 머무는 곳으로서 이곳도 18세기 후반에는 사상도고의 근거지였다. 정조 12년(1788) 시전 내어물전의 보고에 의하면, 송우점 역시 당시 사상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서, 시전인들이 조사한 이곳의 사상인들은 크게 두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하나는 원산에 사는 상인들이고, 다른 하나는 송우점에 거처를 마련한 상인들이었다. 이들은 또 통천 등 수산물 생산지의 상인들과도 서로 관계를 맺어 매일 60내지 70 바리의 어물을 거래하고 있었다.[35] 즉 누원의 사상인들이 주로 서울 시내의 사상도고와 연결되어 있었던 데 대하여 송우점의 상인들은 주로 생산지의 상인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로써 볼 때 동북지방에서 생산되는 어물 등은 대체로 원산 지역의 사상인들에 의해 수집되어서 송우점 상인들에게 넘겨지고, 다시 누원 상인들을 통하여 서울 시내의 칠패 등 사상인에게 전매되고 있었던 것이다.

시전상인들이 서울에 앉아서 지방의 행상들이 가져오는 상품을 받아 팔았던 것과 비교하면, 누원 등지 상인의 이같은 도고활동은 한층 더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것이었다. 시전상인들이 관부와 결탁하여 금난전권을 행사하고자 하였지만, 18세기 후반이래로는 사상인들의 포위망이 더욱 압축되어 시전상인들의 활동을 제약하였다. 사상인들은 누원과 한강변·칠패 등지를 연결하는 제1선과 송우점·송파·말죽거리를 연결하는 제2선으로 포위망을 구축하여 시전상인을 압박하였으니, 이로 인하여 시전상인들은 때로는 실업하는 사태에 이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17세기까지는 그 위세를 부리던 시전상인들은 차차 경제적 역량이 약화되어 갔고, 그에 대신하여 자본력과 조직력이 우세한 사상인들이 전국적 범위로 대규모의 도고행위를 전개하였던 것이다.

34) 各廛記事, 人卷 嘉慶 9年 2月 日條.
35) 各廛記事, 天卷 戊申 4月 日條.

누원·송파 등의 지역이 상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시전의 특권적 상업 활동에 대항하여 사상인들이 상권을 나름대로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지에서 서울에 반입되는 상품을 이곳에서 매점하는 도고 행위를 전개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들 지역은 사상인들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 준 곳이었다. 따라서 도고상업, 특히 사상인들의 도고상업은 이들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시전의 금난전권이 강화되고 사상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심화되자 그들은 도고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해 특정 시전의 中都兒가 되기도 하였다. 즉 그들은 시전으로부터 약간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시전에 물품의 일부를 공급해 주기도 하고,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물론 중도아는 처음부터 합법적인 존재는 아니었다. 그들은 시전이 인정하지 않았어도 스스로 중도아를 자처하여 시전에 반입되는 물품을 중간에서 매점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전은 물론 소상인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중도아는 곧 山賊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하였다.

여하튼 누원 등지를 거점으로 삼은 중도아들은 초기에는 시전과 일정한 관계를 갖고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나, 도고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 시전을 배제하고, 드디어는 시전을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중도아로 변신한 사상인들이 도고상인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시전과 달리 그들은 금난전권을 소유할 수 없고 시전에 구속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욕구가 더욱 컸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외곽 장시의 성숙이라는 상업적 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前産業時代의 운반수단인 지게

당시 서울에 상품이 반입되는 길목은 육로로는 누원과 송파, 수로로는 한강변의 용산·마포 등지였는데, 어물을 많이 취급하던 칠패 등의 사상인들은 특히 누원에 주목하고, 직접 이곳에 乾房이라는 지점을 설치하여 동북 지방에서 서울에 반입되는 어물을 매점하여 쌓아 두었다가 서서히 서울에 반입시켰다. 칠패의 상인들은 심지어 어물의 생산지인 원산까지 진출하여 상품을 매점하

기도 하였는데, 이때에도 누원이나 송우점 상인들과 정보망이나 자금면에서 연계가 있었을 것이다. 즉 초기의 사상인들은 그들이 매입한 상품을 직접 시전과 관계를 갖고서 시전의 금난전권이 행사되는 서울 도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판매하였으나, 도고상업 단계가 되면 도고상인의 일부는 시전의 금난전권이 행사되는 영역 밖에서, 예컨대 누원이나 송파 등지에서 상품을 매입하여 그곳에 보관하였다가 일정한 시기에 도성 안으로 반입하여 판매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매점한 상품을 반드시 서울에로만 반입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고려하여 지방으로 다시 유출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누원의 경우에는 이들 지역의 상인들이 동북 요로에 거처하면서 서울에로 반입되는 어물을 독점하고 그 이익을 독점하였던 때문에 시전상인의 원성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 해당 지역의 관원에게 도고행위를 엄히 규제하게끔 지시하였으나 그들은 조금도 두려움없이 도고행위를 계속하였다.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은 지방관원들도 그들과 결탁하고서 규제하기는 커녕 그들을 보호해 주고 있었다. 마침내 정부는 정조 6년 누원의 乾房을 혁파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서울 시내 사상인들의 도고행위도 엄금시켰다.[36] 이 시기의 누원상인은 일종의 定住商人으로서 자리잡고 있었다. 정부가 누원상인에 특별히 규제조치를 발동한 것은 누원상인들이 시전 중에서도 어물전의 활동을 압박하였기 때문이다. 시전 중 대표적 6의전 가운데서 유일한 식료품 상점이 어물전이었다. 더구나 어물전은 그 설립의 역사가 다른 시전에 비해 가장 오랠뿐더러 봉건정부에 대한 국역의 부담이 다른 시전에 비해 번다하였으므로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정조 6년 경에는 수산물의 생산이 흉작이어서 공적이건 사적이건 수요에 응할 어물들이 품귀 상태였는데, 이 때문에 봉건정부의 수요를 위해서도 어물을 갖고 도고활동을 하는 불법에 대해서 불가불 관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시전상인의 활동이 위축된 것은 봉건적 특권상인이 갖고 있던 본래적 모순 구조에 기인한다고도 하겠다. 시전상인들은 지나칠 정도로 사상인에 대하여 특권을 행사하였고, 또 收稅權을 남용하여 일반 상인들을 억압하였던 것이다.[37] 예컨대 서울의 내어물전·외어물전에서 취급하는 물화는 주로 말린 생선과 저린 생선이었는데,

36) 備邊司謄錄 第165冊, 正祖 6年 8月 7日.
37) 유원동, 『한국근대경제사 연구』(일지사, 1988), p.227.

저린 생선배가 한강변에 정박하면, 그들 시전상인들이 가서 매입, 시중에 전매하였다. 이때에 내어물전・외어물전 상인들은 수세 명목으로 가령 100同에서 2・30동을 남징할 뿐아니라 헐값으로 억매하는 등 폐단이 많았던 것이다. 이와같은 폐단을 정부가 시정해 주어야 하건만, 오히려 정부는 시전의 편만 들어 주었다. 이에 사상인들은 불법임을 알고도 그들의 생존을 위해 시전과의 관계를 기피하게 되고, 나중에는 보다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상인들끼리 연대하여 자금을 합자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시전을 배제하고 도고행위를 자행하였던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누원상인들이 서울의 어물전으로 가는 어물을 중간에서 모두 매점하여 그것을 서울의 중도아들 그리고 송파의 사상인들과 짜고 서로 전매를 하여 많은 이득을 보면서 어물전에 큰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어물전인들이 국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청원하고 있다. 나아가 사상인들은 각지에 장시를 신설하기까지 하여 상권을 장악하는데 힘썼다.

원래 누원상인들은 서울과 동북지방을 잇는 요충지에 거처하면서 서울로 반입되는 동해안 생산의 어물을 매점, 독점적으로 이익을 챙긴 신흥 도고로서, 일명 鄕民都賈라고도 하였다. 이들은 시전상인에 비하여 각지의 물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자본금도 많아서 물가의 조종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었고 상술에 능하였다. 더구나 인근에 松隅場이라는 장시가 있어 어물의 매점이 매우 용이하였다. 정조 12년(1788) 내어물전・외어물전・포전 등 3개 시전이 경기감영에 낸 소장에 의하면, 즉 함경도 지방의 산물은 松隅場을 경유하여 서울에 이르는데, 누원에는 도고상인들이 많아서 이들이 3개 시전에서 취급하는 北布 또는 어물을 거의 매점하기 때문에 시전에는 물건이 없어 할 일이 없고, 나라에 바칠 進排도 궁핍하니, 이는 공사간에 낭패라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 주변 백리 지역에서는 도고 행위를 언급하고, 발각되면 엄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시전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먼저 원산에 거주한 사람들로는 南大擧・金義敬・金成五・金政煥・金厚若 등이고, 누원에 거주한 사람들에는 金雲敬・朴責宗・李孝白 등이 있어서 서로 主客의 관계를 맺고, 또 통천 포구의 石景洙・許榮端・裵敬和 등과도 연계하여 이익을 독점하였다는 것이다. 그 물량은 소・말 바리로 6・70바리였다고 한다. 사례에서 보듯이 누원의 상인들은 대규모의 자본으로서, 조직적인 상행위를 통하여 원산・통천 등의 생산지 상인과 결탁,

도고 행위를 벌였는데, 이같은 새로운 상업계의 변화는 18세기 이후에는 누원·송우점 뿐아니라 양주·광주·파주·포천 등지의 육상교통로 요충지와 인천을 비롯한 연해안 포구·용산·송파 등 한강변 등 서울로 통하는 주변 각처에서 볼 수 있었다. 확실히 조선후기 특히 18세기 후반 이래 상업계는 변화하고 있었는데, 종래의 관권과 결탁된 특권상인에 대하여 풍부한 자본력과 우월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사상도고의 활동이 보다 두드러졌고, 봉건정부로서도 더 이상 사상인의 성장을 제어할 수 없게 되었다. 통공정책의 시행은 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갓 院村에 불과하던 누원이 도고상업의 중요한 기지로 될 수 있었던 첫째 요건은 이곳이 동북지방과 서울을 잇는 교통로의 요충지였지만, 이와 더불어 이곳은 서울에 가까우면서 서울 市廛의 통제권 밖에 있었다는 점과 18세기 이후에 이르러 전통적 상업계가 변혁되지 않으면 안되게끔 사회·경제적 조건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특히 한양의 인구 증가는 단순한 인구증가가 아니라 그것이 소비인구의 증가라고 했을 때 전국 각지에서 한양으로 물화의 대량 유입이 불가피했고, 이를 종래의 시전상인들이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할 때 그 주변에서 상업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리 중농적 사회라 하여도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다. 하물며 이 시기에는 농촌사회가 그 내적 원인에 의하건, 외적 요인에 의하면 분해가 심화되고 있었고, 그러한 속에서 발생한 이농민의 증가는 대체로 상업인구의 증가를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존의 상업질서를 지키려는 측과 새로운 상업 질서를 수립하려는 측의 갈등과 대립은 자연히 충돌을 일으켰고, 그것은 특권에 의존하려는 측보다는 경제력에 의존하려는 측이 유리하게 판정나게끔 결과되어 갔는데, 이는 역사 발전의 원리에서 볼 때 순리적 현상이었다. 즉, 누원, 송우점, 송파, 그리고 칠패, 이현, 한강변 등의 새로 나타난 사상인들 이른바 乱廛의 도고 행위는 특권에만 의존하려한 시전의 상행위를 여러모로 압도해 갔고, 봉건정부로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시전의 독점적 상업, 체제는 점차 해체되어 갔고,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는 사상도고가 상업계를 주도하였으니, 이러한 상황에서 누원의 상인들 역시 나름대로 역할을 하였으니, 전근대사회 말기에 있어 성북구 일대는 경제적으로 자못 주목받는 곳이었던 것이다.

〈崔 完 基〉

II. 日帝下의 産業經濟

1. 農林業

日帝時代, 오늘날의 城北地域과 그 이북의 일대(道峰區・蘆原區)는 조용한 농촌지역이었다. 오늘날의 농촌처럼 市場에 내놓기 위한 채소같은 것을 가꾼 것도 아니고 花卉를 재배한 것도 아닌 순전한 米穀 單一耕作의 농업경영이었고 겨우 副業이 있었다면 새끼・가미니를 짜서 換金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다행이 정릉천・성북천・중랑천 등의 河川이 흘러 水利는 괜찮은 편이라 水利組合의 필요도 없었지만 低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미나리밭 등도 별로 없었던 것이 특색이었다.

일제시대 성북지역 농업에서 다행이었던 것은 당시의 성동지역이나 동대문지역에 넓은 면적의 東拓 땅이 있어 적지 않는 수의 日本人移住民이 넓은 땅을 개간 또는 매수하여 과수원이나 米作경영을 했는데 대해 城北地域에는 日本人 농업경영 入植者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일본인 入植者가 거의 없었다는 점은 1934년 현재의 學齡兒童調査에서 崇仁面에 일본인 학령아동이 극히 적었다는 점에서 알 수가 있다. 즉 34년 당시 崇仁面內 城北里・貞陵里・水踰里・牛耳里・踏十里・長位里・上月谷里・彌阿里 등지에는 단 한명의 일본인 학령아동도 존재하지 않았고 安岩里・樊里・石串里 등지에는 일본인 학령아동이 있었으나 그 수는 남자 1명 또는 여자 1명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일본인 농업 入植者가 殆無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38]



1920년대 추수를 앞둔 서울 근교 농촌

38) 京城府行政區域擴張調査書, 京城府, 1934년 발행, 제7장 교육 〈표 9〉「學齡兒童一覽表」.

일제하 城北地域 농업에서 다행했던 일의 또 한가지는 洪水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제하에서는 1920년 大洪水와 1925년 乙丑年 大洪水 때문에 城東·東大門·龍山·麻浦·永登浦 등의 지역에 굉장한 洪水被害를 보았고 수십만평의 농토가 매몰 유실되었는데, 城北地域은 中浪川邊의 극히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홍수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지대가 높아 홍수피해는 입지 않았겠지만 반대로 거의 매년 또는 隔年으로 되풀이 되었던 旱災에 의한 피해는 적지않게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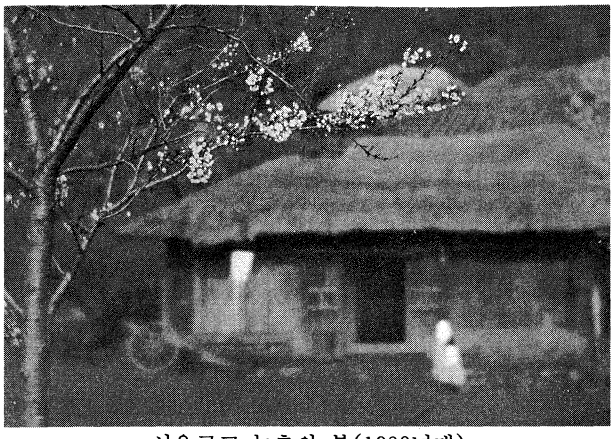
1933년 12월말 현재의 조사에 의하면 당시 城北지역이 속했던 高陽郡 崇仁面내의 戶口数는 7,416호, 36,797호 였는데 그중에서 農林·牧畜業에 종사한 것은 1,431호, 8,489명이었다. 즉 33년말 당시 숭인면내의 농업자수는 戶数에서 19.3%, 인구수에서 23.1%였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위의 숫자는 오늘날의 東大門區 지역을 포함한 숭인면내 전체의 숫자였고 城北지역내만 보면 農業戶口数 비율은 훨씬 더 높아진다. 예컨대 미아리의 경우 총호수 261호중 농업호수가 143호로 54.8%, 長位里의 경우 총 300호중에 농업호수가 208호 69.3%, 鍾岩里의 경우 총 호수 137호중 농업호수 43호로 31.4%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상에 열거한 里洞은 서울의 都心部에서 비교적 거리가 먼 지역들이며 도심에서의 거리가 가까운 里洞들, 예컨대 城北里의 경우 총 호수 589호중 농업호수는 불과 2호로 0.3%에 불과하며 敦岩里의 경우도 총호수 4,199호중 농업호수는 34호로 겨우 0.8% 밖에 되지 않는다.[39]

이상에서 미루어 일제하에서도 1930년대 부터는 서울에서의 거리가 가까운 郊外地도 非農業 인구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土地도 또한 점포·주택·공장 등 非農業的 용도로 전환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상 일제강점기 城北地域의 농업이 비교적 평범하고 별로 특색이 없었지만 그래도 두가지점에서 약간의 특색이 있었다. 그 첫째는 바로 이웃한 崇仁面 龍頭里(현 東大門區 龍頭洞)에 京畿道 農事試驗場이 있었으며 같은 面內의 淸涼里에 조선총독부 農業試驗場이 있었다는 점이다. 龍頭里와 淸涼里에 이와같은 엄청난 기관이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

39) 同上 제3장 戶口중 〈표 6〉, 〈표 7〉, 「職業別 戶口表」에 의함.


서울근교 농촌의 봄(1930년대)

은 조선총독부와 경기도 당국이 서울 東部와 北部 일대의 농업 전반에 관하여 높은 比重과 깊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 또 이들 시험장에서의 여러가지 시험 연구 결과는 바로 이들 시험장이 위치하는 高陽郡 崇仁面에서의 농사지도에 이바지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색의 둘째점은 京畿道 原蠶種製造所가 같은 崇仁面내의 祭基里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예나 지금이나 各道의 原蠶種製造所라는 것은 蠶業이 가장 盛한 곳에 가까이 있기 마련이다. 蠶種의 수송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또 日本 유수의 섬유공업 회사인 鍾淵鉱續의 系列工場이 日帝下 韓半島내 여러곳에 입지하고 있었다. 많은 조선여성들이 이 鍾淵鉱續 공장에서 노동력을 팔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鍾淵鉱續의 한반도내 공장들중에서 가장 최초로 1925년에 진출 입지한 곳이 바로 서울의 東大門밖, 高陽郡 崇仁面 新設里의 製絲工場이었으며 누에실(蠶絲)을 뽑아내는 대규모 근대적 시설이었다.

「뽕나무가 잘 크고 살찐 꼬치가 커서 좋은 실을 얻게 하여지다」하는 기원을 드리고자 先蠶壇을 城北區 城北洞에 설치한 것은 朝鮮王朝 成宗 2년(1471년) 3월의 일이었다. 東小門밖에서 부터 미아리를 넘어 수유리·우이리로 이어지는 城北地域일대와 東小門밖 清涼里·忘憂里로 이어지는 일대의 지역에는 조선왕조시대부터 양잠이 매우 盛한 곳이었고 그것은 日帝時代末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그러므로 경기도 原蠶種製造所가 祭基里에 위치하였고 이 땅안 최초의 근대적 生絲工場이 1925년에 崇仁面 新設里에 입지했던 것이다.

일제강점기, 城北地域 농촌이 한적하고 별로 이렇다할 특색도 없는 일반 농촌지역이었는데 대해 林業에서는 특색이 있었다. 그 첫번째 이유가 北漢山－貞陵을 거쳐 開運山으로 연결되는 일대, 北漢山 아리랑고개에서 城北里 뒤 일대의 山林이 문자

그대로 深山幽谷이었기 때문이다. 1937년 12월에 발간된 「京城府市街地計劃 風致地區指定資料調査書」에 의하면 당시의 城北町·敦岩町·安岩町 일대의 森林상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40]

城北町일대

이 지역은 北岳의 東方에 연속된 山地 및 이것과 漢城城廓과의 사이의 溪谷地帶로서 山腹斜面 및 溪谷間에 繁茂하는 松樹는 樹勢가 왕성하다. 또한 枝葉色澤의 生氣는 三淸洞과 필적되는 것이다.

또 惠化門(東小門)밖 安岩川의 彎曲 東流하는 곳 南北側에 山地가 相通하여 古松이 울창하다.

이 부근의 低地를 三仙坪이라 칭하며 舊 韓國時代의 練兵場이 있던 곳이다.

현재 城北町에는 朝鮮時代의 先蠶壇을 설치하였던 장소가 있어 당시 여기서 蠶神을 모셨다고 한다.

敦岩町 및 安岩町方面

이 지역의 北은 丘陵性山岳(貞陵山)에 의하여 둘러 싸였으며 府域境界에 접하고 東方은 祭基洞과의 중간에 座居한 一塊의 丘陵은 南北에 조금 길게 뻗어있음으로서 이 지역 전체의 地形은 대단히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山勢는 평범하지마는 그 中復 이하에 밀생하는 松樹는 부근의 風致를 佳하게 하여 한층 閑靜한 區域을 이루고 있다.

또한 安岩町 丘陵의 南端에 古木이 울창하여 白晝에 暗黑을 이룩하는 한 구획이 있어 그 동편인 新設町, 龍頭町方面에 對하여 爽快味를 주는 유일하고 중요한 風致林이다.

그 密林의 北東에 따른 南面地에 巨刹 開運寺가 있다.

寺傳에 의하면 李朝太祖의 王師僧 '無學'의 開基라 하며 이 부근 극히 한정하며 또한 風致도 佳良하다.

龍頭洞의 平垣地에 한 小丘가 있다.

이 지구는 현 京畿道農事試驗場 및 總督府原蠶種製造所가 있는 곳으로서 松樹가 많으며 風致가 좋을 뿐 아니라 原蠶種製造所 구내는 朝鮮時代 國王이 親耕의 規範을 보인 '東籍田'이 있던 장소이다.

또 丘上 松林에 에워싸인 곳에 '先農壇址'가 있다. 李朝時代에 農事를 위한 祭祀를 모시던 史蹟址이다.

위의 글로 당시의 城北地域 일대의 森林이 얼마나 우거져 있었고 또 그 범위가 얼마나 넓었던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이 일대의 森林이 이렇게 울창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와 경기도에서도 이 일대 山林의 보호와 육성 그리고 새로운 造林에 역점을 기울이지

40) 京城府市街地計劃 風致地區指定資料調査書, 京城府, 1937년 발행, pp.37~38.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당시의 敦岩里에는 國有森林保護區 사무소가 있었고 鍾岩里에는 京畿道가 직영하는 苗圃場이 있었다. 이 묘포장의 넓이는 9,682평이었다.[41]

2. 商工業

서울에 市街地計劃令이 실시되는 1936년까지 서울 都市計劃의 根幹을 이룬 것은 1912년부터 20년대까지에 실시된 이른바 市區改正事業에 의한 街路網整備와 1913년 2월 25일자 조선총독부령 제11호《市街地建築取締規則》이라는 것이었다. 이 市街地建築取締規則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建築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시는 건축허가 업무가 경찰업무였기 때문에 이 規則도 경찰법령이었다. 그런데 이 규칙 제6조에「惡臭·有毒가스 또는 多量의 媒煙 또는 粉塵을 발사하는 工場 기타 公安衛生上 危害를 미칠 염려가 있는 건물은 제1조의 시가지중 특히 지정한 지역내가 아니면 이를 건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朝鮮總督府는 1913년 7월 17일자 告示 제220호로《市街地建築取締規則》의 대상 市街地를, 京畿道 京城府內 中部·東部·西部·北部의 전역과 龍山面·漢芝面의 전지역 그리고 仁昌面내 일부 및 崇仁面내 일부 지역으로 告示하고, 이어 제6조의 지역(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으로 ① 城壁外의 지역 중 西大門停車場에서 漢江에 이르는 鐵道線路 以東의 지역을 제외한 地域, ② 城壁內 東部 北廟에서 新橋洞 新橋에 이르는 無名川流域, 新橋洞 新橋에서 於義洞 道路를 거쳐 東大門通에 이르는 線의 以東地域 등으로 발표한다.[42]

그러나 이때 결정한 對象 市街地 범위는 너무나 광범하고 동 제6조 대상지역은 너무 細分化되었다고 판단한 것인지 다음해인 1914년 5월 30일자 總督府告示 제89호로써 建築取締規則이 적용되는 市街地의 범위를「京畿道 京城府」로 한정한 데 이어 準工業地域에 해당하는 제6조의 地域을

① 城壁外의 地域. 다만 西大門停車場에서 漢江鐵橋에 이르는 鐵道 本線路 以東

41) 이상 崇仁面내에 위치했던 각종 공공시설, 공장 등에 관해서는 前揭 京城府行政區域擴張調査書, 제8장 諸施設 및 제10장 經濟 5, 工場表에 의하였다.

42) 官報 1913년 7월 17일자 제289호.

의 地域을 제외한다.

② 城壁內 惠化洞·東崇洞·梨花洞·忠信洞·鐘路 六丁目·黃金町(乙支路) 六丁目·동 七丁目. 다만 黃金町(乙支路) 六丁目·七丁目內 電車道路 以南의 地域을 제외한다. 라고 지정한다.[43] 즉 1936년까지 서울에서 工場建設이 허용된 지역은 오늘날의 서울驛을 중심하여 京釜線·京義線 철도의 서쪽 지역 일대와 鐘路·乙支路의 6·7가 以東의 지역, 그리고 惠化洞·東崇洞·梨花洞·忠信洞 등이었으며 그 중 乙支路 6·7가의 電車路線 以南은 당시에 日本人들의 家屋이 신축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이 지역은 工場의 立地가 제한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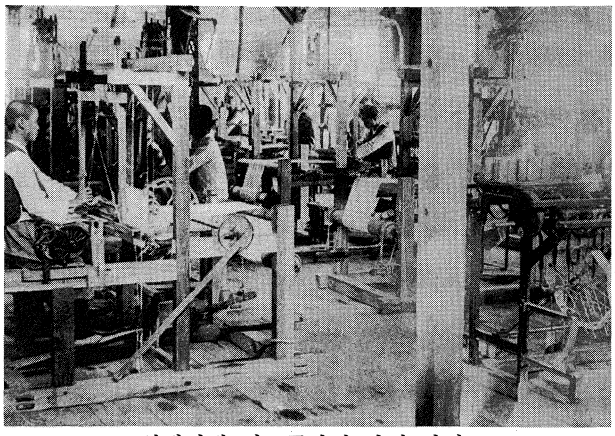
京城市街地計劃令에 의한 地域制가 공포된 것은 1939년 9월 18일이었는데[44] 이 때에는 이미 오늘날의 城北地域일대는 京城府域內에 편입되어 있었다. 그런데 1939년의 地域制에 의하면 里門洞의 中浪川邊 일부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외에는 城北地域 일대에 걸쳐 工業地域은 전혀 지정되지 않았다. 즉 당시의 京城府 당국은 北漢山의 맥을 따른 북부일대의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禁忌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日帝下 城北地域에는 이렇다 할 제조업의 立地가 없었다. 1934년 당시의 조사에 의하여 성북지역에 소재한 공장을 열거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45]

일제하 城北地域의 제조업에 연관하여 부기해 둘 것은 1925년에 같은 崇仁面內 新設洞에 鐘淵紡績株式會社의 東大門工場이 입지했다는 점이다. 이 공장은 누에고치를 풀어서 生絲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당시 이 땅안 屈指의 큰 공장으로서 200명이 넘는 직공을 쓰고 있었다. 이 공장은 鍾岩洞·安岩洞 일대에서는 步行距離내에

〈표 1〉 성북지역 소재 공장(1934)

工場名	所在地	立地年月	工場主姓名	主要製品	職工数
大正콘크리트工場	安岩里	1921. 4	坪川寅次朗	씨멘트製品	5~50
荒井丁型부럭工場	敦岩里	1921. 8	正道善吉	〃	〃
永盛精米所	長位里	1926. 3	崔晩奎	精米·精穀	〃
永元精米所	〃	1927. 4	崔駿永	〃	〃
崇仁釀造場	安岩里	1918. 7	金昌善	막걸리	〃
同增成	敦岩里	1928. 10	同增成	국수	〃

43) 官報 1914년 5월 30일자 제547호.
44) 本書 제5장 都市計劃 참조.
45) 前揭, 京城府區域擴張調査書, 제10장 經濟 5, 工場表에 의함.


일제시대 직조공장의 작업 광경

있었기 때문에 많은 勞務者 특히 17・8세의 젊은 노동층이 女工으로 이 공장에 취업했을 것이다.

제조업이 이상과 같은 상태에 있었으니 商業도 발달할 수 없었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제하의 城北地域에는 단 한개의 市場도 金融機關도 존재하지 않았다. 東大門市場과 新設洞, 惠化洞의 商街나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밖에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1936년 12월말 현재로 京城 商工會議所에서 발간한《朝鮮會社表》라는 큰 책자에는 당시의 全朝鮮內 4,848개의 會社(本社)와 본사는 일본이나 미국 등지에 두고 支店만 조선에 두었던 150개 支店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책자에 수록된 회사중 성북지역에는 아래의 3개밖에 없었다.

(合資) 德興社, 敦岩洞 391～3, 1935년 창립, 會社代表 崔善益, 자본금 15,000원.
(合資) 東村家畜商會, 敦岩洞 248, 1933년 창립, 회사대표 稅所珪介 자본금 5,000원.
(合資) 平山牧場, 敦岩洞, 1929년 창립, 회사대표 香川守行, 자본금 90,000원.

위 3개의 회사중에서 첫번째의 德興社는「穀物・綿絲・綿布・絹布 및 土地의 賣買・金融과 위에 附帶하는 業務」가 회사설립의 목적이었다. 아마 이 회사는 한편은 각종 穀物을 판매하고 한편은 각종 布木・섬유류 등을 판매하면서 金融業도 한 종합적 상업회사였던 것 같다.

다음의 洞村家畜商會라는 것은 種兎 및 토끼가죽을 주로 하면서 돼지・닭 등 각종 家畜의 사육・판매를 業으로 한 회사였고 마지막의 合資會社 平山牧場이라는 것은 젖소(乳牛)의 사육과 牛乳의 판매를 業으로 한 회사였다. 1920년대 및 30・40년대만 하더라도 우유를 마시는 일은 극히 上流層에 국한했고 일반인은 평생 우유 한잔 마시지 못했던 시대였었다.

이렇게 商業面에서도 보잘 것이 없었던 城北地域이 그 모습을 달리해 간 것은 市

內버스가 달리게 되고 마침내는 敦岩洞까지 電車가 달리기 시작한 때 부터의 일이다. 1931년 당시 京城府內의 인구수는 36만 5천이었고 자동차 보유대수는 200대도 안 되었다. 또 1934년 현재로 高陽郡 崇仁面內에는 한대의 자동차도 없었으니 당시의 이곳 주민이 서울市內로 가려면 徒步가 아니면 하루에 한 두번씩 밖에 안오는 市外버스,[46] 그리고 自轉車였다. 1932년 12월말 현재의 자전거 대수는 城北里 45대, 安岩里 75대, 鍾岩里 33대, 敦岩里 112대, 貞陵里 58대, 里門里 14대, 長位里 39대, 石串里 6대, 上月谷 4대, 下月谷 18대였다.[47] 이러한 時代였으니 市內버스가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의 空間革命이었다. 京城 市內버스가 敦岩洞까지 들어간 것은 1933년 3월에 그때까지 京城府營으로 운행되던 市內버스事業을 京城電氣株式會社에서 引受하게 된 후부터의 일이다. 이때부터 京電은 電車가 다니지 않던 곳에 市內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惠化洞에서 敦岩洞 네거리까지 不定期的으로 버스를 운행한다.[48] 그리고 이 버스 승객이 점점 더 늘어가고 敦岩洞에 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어 인구수가 늘자 鐘路 4가에서 昌慶苑을 거쳐 惠化洞 로타리까지 다녔던 電車를 敦岩洞 네거리까지 연장한다. 1941년 7월 12일의 일이었다.[49]

市內버스가 다니고 電車가 다니게 되면서부터 三仙坪, 敦岩洞 네거리 등에 점포가 들어서고 市街地化가 진행되게 된다. 敦岩洞 버스 종점이 있던 네거리옆에 敦岩 公設市場이 설치된 것은 1938년 또는 39년경이었다고 당시의 주민이 전해주고 있다.

그러나 1930년대의 말에서 40년대의 前半期는 1937년의 中日事變 발발, 1941년 12월의 太平洋戰爭 발발로 모든 물자가 결핍되어 기존의 점포도 문을 닫고 轉業을 했던 時代였으니 城北地域의 시가화에도 限界가 있었다. 이 지역의 商街形成, 市街地化는 결국 光復 이후로 넘어가야 했던 것이다.

---

46) 1930년대 京城을 출발하는 市外버스가 華溪寺와 開運寺까지 달리고 있었는데 하루에 2왕복 정도 다니고 있었고 요금은 화계사까지가 56전, 開運寺까지가 20전이었다.

47) 前揭 京城府行政區域擴張調査書, 제4장 交通 4, 陸上運搬具表에 의함.

48) 孫禎睦「日帝强點期 道路와 自動車에 관한 硏究」, 都市行政硏究 제4집, 서울市立大學校 1989.

49) 每日新報, 1941년 7월 12일자 기사.

Ⅲ. 光復後의 産業經濟

1. 農・畜産業

광복후 1960년대까지도 서울市內 변두리에는 많은 農業人口가 있었고 농업경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1961년에 발간된 제1회 서울市 統計年報를 보면 1960년 현재로 城北區 관내에 농가 호수 984, 농가인구 4,725인, 田畓 합계 651정이 집계되고 있다.

또 그렇게 성행하지는 않았지만 畜産業을 경영하는 자도 있어 역시 60년말 현재로 畜牛 78, 馬匹 11, 돼지(豚) 137두, 닭 546首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50] 1950~60년대에 걸쳐 城北區 일대에 養鷄 등이 盛했다는 것은 1958년에 실시된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 城北區에서 입후보하여 당선된 徐範錫의 직업이 養鷄業이었으며 그는 당시 貞陵洞 山 1번지 자택에서 양계를 크게 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51]

그러나 城北區에 農業이 盛했다는 것은 1960년대 말까지, 그것도 道峰・牛耳・樊 등의 각동이 이 區 관내에 포함되어 있을 당시까지만의 일이다. 道峰區가 分區되어 나간 후인 1973년 말 현재의 통계에 의하면 성북구 관내 農家戶数는 불과 22가구 뿐이며 그 22가구도 畓作・田作은 하나도 없고 果樹가 1, 소채가 21로 집계되고 있으며 畜牛・養蠶 등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니[52] 이미 70년대에 들어와서는 城北區 관내의 市街化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었던 것이다.

1980년 이후의 통계에는 성북구 관내에는 단 한개의 과수원도 단 한필지의 소채밭도 집계되지 않고 있으니 城北區의 농・축산업은 1970년대의 중반에서 완전히 종말을 告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다.

---

50) 제1회 서울통계연보, 1961년 발행, p.21 및 p.39.
51) 本書, 제3장 政治 II. 5. 國會議員 選出 참조.
52) 제14회 서울통계연보, 1974년도 발행, p.48.

2. 商　業


보문시장 내부

城北區내 상업의 특징은 인구가 증가하고 주택이 들어서게 되자 市場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다는 점이다. 敦岩洞에는 1930년대 말부터 公設市場이 있었지만 오늘날 城北區 관내에 있는 시장들의 거의가 자연발생적이었다. 安岩洞·普門洞에 다수의 인구가 모이게 되자, 普門市場이 생겼으며 鍾岩洞에도 미아리에도 석관동에도 정릉에도 시장이 생겼다.

1941년 4월 현재로 발간된 城北區 行政區域地圖에 나타난 市場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열해 보았더니 아래와 같다.

石串市場·長石市場·새石串市場·새長位市場·長溪市場·月谷市場·월곡綜合市場 農水産物直販場(월곡 3동)·동신商街·鍾岩市場·미아市場·吉音市場·동경프라자·普門市場·敦岩市場·三仙市場·貞陵市場·貞陵 4동市場·청수시장

현재 城北區 産業課에 등록되어 있는 許可받은 시장은 모두 14개이며 재래시장 12, 백화점 1, 쇼핑센터 1로 되어 있다. 〈표 2〉와 같다.

이 표에 의하면 재래시장 중에서는 면적에 있어서나 점포수에 있어서나 종암시장·보문시장·돈암시장 등이 대규모 시장이고 三仙市場·石串市場·청한상가 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 또 종암 1동의 청한상가와 吉音 1동의 동경유통은 流通業 근대화의 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1963년 11월에 설립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歷史를 지녔고 1985년 8월에 기업을 공개하여 上場法人이 된 新世界百貨店이 미아店을 개설한 것은 1988년 8월 30일의 일이며 그것은 현대적 百貨店 郊外部(혹은 副都心) 開店의 효시가 되었다. **新世界百貨店 미아店**의 개설로 특히 미아리고개 이북 주민들의 高級商品 구매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표 2〉　城北區內 市場 現況

(城北區産業課 1992년 말)

시장명	관리회사 (전화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허가일자	대표자	규 모(m^2)				점포 수	소유 구분
					대지	건물	시장	매장		
보문시장	(주)보문시장 928-3461	보문4가 1-1 136-084	61.12. 4	金種大	4,229	5,500	2,032	1,983	214	분양
석관시장	(주)상길산업 967-5571	석관1동 270 -151	69. 4. 9	李祥春	3,666	3,339	3,339	1,814	104	임대
월곡시장	(주)월곡시장 913-2982	월곡2동 37-1 -132	69. 2.19	李重九	3,735	2,653	2,653	2,597	110	분양
삼선시장	유한회사 영희기업 764-6480	동소문1가 29 -031	74. 5.10	朱南勇	4,903	5,841	2,049	1,640	120	분양
돈암시장	사단법인 돈암시장상우회 926-6122	동소문5가 55-1 136-035	64. 4.27	李源豊	4,253	4,573	4,253	1,845	133	분양
종암시장	사단법인 종암시장운영회 912-5947	종암2동 3-75 -092	61.12.24	張英道	6,184	3,352	3,445	3,369	230	분양
미아시장	사단법인 미아시장운영회 913-5724	월곡1동 88-345 -131	65. 1.21	林東天	3,534	4,862	2,290	1,528	83	분양
장석시장	(주)장희산업 915-1254	장위3동 60-1 -143	68. 8.14	崔善文	4,547	5,049	2,254	2,204	30	임대
장위시장	(주)신아실업 915-8881~4	장위2동 238-496 -142	72. 7. 4	鄭信模	2,927	3,678	1,722	1,335	61	임대
청한상가	(주)청한상가 923-1538	종암1동 3-1342 -091	80. 6.11	尹汝大	3,305	10,250	4,642	4,642	116	분양
정릉시장	정릉시장운영회 914-4851	정릉3동 405-1 -103	70. 2.27	金鍊植	1,156	1,554	1,342	1,290	62	분양
새석관 시장	새석관시장 운영회 962-0580	석관2동 338-18 -152	71. 5.22	李成種	3,600	5,864	2,026	1,311	80	분양
동경유통	(주)동경유통 912-7001~2	길음1동 540-2 -111	88. 8.11	金宰永	4,777	8,427	8,427	6,950	140	직영 65% 임대 35%
신세계 미아점	(주)신세계 984-1234	길음3동 25-2 -113	86. 4. 4 (88.5.13)	李敬相	4,916	19,840	19,840	10,399.6	40	직영

3. 製造業



신세계 백화점 미아점

城北區 관내에는 都市計劃上 準工業地域이 전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動力을 사용하거나 騷音·振動 등을 수반하는 제조업은 입지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성북구 관내에 있는 제조업은 섬유류·被服제조·假髮제조업, 그리고 醫藥品 제조업 등이 주류를 이룬다.

1) 假髮·衣類·被服·紙類 등 製造業

섬유·피복제조·가발업 중에서 규모가 큰 것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순서 없음).

○ (株) **金剛貿易** 安岩洞 4가 23－2

1966년 2월 8일에 설립된 假髮 제조·수출업체로서 1990년 현재 자본금은 5천만원이나 年間 200억원 가까운 수출액을 올리고 있는 가발업계의 중진이다. 주요시설로는 포스타머신 3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종업원은 52명이다.

○ (株) **旭 成** 城北區 貞陵2洞 227－126

旣成服 전문 메이커이며 年間 매출액 84억으로 그중 61억원분을 수출하고 있다. 1978년 3월 7일에 旭成通商(株)으로 설립되었으며 80년 6월 15일에 현 소재지인 성북구 정릉동으로 본사를 이전하였다. 89년 9월에 社號를 (株) 旭成으로 변경,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0년 말 현재 자본금은 10억 4천만원, 종업원은 남여 합해서 120명이다.

○ (株) **內外패션** 長位洞 238－392

Y셔츠, 잠바 등을 위시한 紳士服 전문 제조업체이다. 1985년 3월 15일에 설립되었으며 연간매출액이 35억원 정도, 1990년 말 현재의 자본금은 3억원이며 종업원수는 224명이나 된다.

○ (株) **大光被服**(合資) 普門洞 5가 35

코트를 전문으로 생산하여 수출을 하는 회사이다. 1954년에 中區 筆洞에서 大光被

服合資會社로 法人 설립을 했으니 대단히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종업원수는 약 140명 정도이며 주요시설로는 본봉기 140대, 특종기 130대를 보유하고 있고 연간 매출액 14억원으로 그중 6억원 정도를 수출하고 있다.

○ **(株)泰福産業**　下月谷洞 49－6

각종 의류 특히 메리야스 제품을 제조·수출하는 업체이다. 1957년 10월 16일 자본금 5백만원으로 泰福메리야스工業社를 설립, 65년 7월에 商工部로 부터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로 지정되었다. 85년 7월 1일에 泰福産業(株)으로의 상호변경과 동시에 法人體로 전환하였다. 道峰區 창동에 별도의 공장이 있으며 下月谷洞 본사·공장 종업원은 120명, 년간 매출액 4억 5천만원으로 전량을 수출하고 있다. 1990년 말 현재 자본금은 8억 2천만원이다.

○ **三中交易産業(株)**　貞陵洞 365－2

공업용 필터백, 여과布 및 면벨트 등 産業用 직물을 제조·판매하는 전문업체이다. 1969년 6월 27일에 설립되었으며 90년말 현재 자본금 2억 4천만원, 연간 매출액 30억, 그중 일부는 수출하고 있다. 종업원수 70명이나 京畿道 始興市 大也洞에 별도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성북구 관내에서 종업원이 50명 이상되는 피복·섬유업체는 다음과 같다.

○ **세미상사**　三仙洞 3가 100－5

모피제조·수출업체로서 90년말 현재 종업원 98명 연간생산액 150억원, 거의 全量을 수출하고 있다.

○ **대한섬유**　敦岩洞 186－314

점퍼 전문 제조업체로서 1990년 현재 종업원 57명, 연간생산액 42억원으로 거의 內需用으로 판매되고 있다.

○ **다이아나**　敦岩洞 19－48

여성의류 전문메이커로서 90년 말 현재 종업원 55명, 연간매출액 24억원이며 거의 전량을 내수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 **영보직물**　安岩洞 4가 101－18

옷감제조업체·수출업체로서 1990년 말 현재 종업원 88명, 연간매출액 172억원으로서 거의 전량을 수출하고 있다.

○ **모아방** 貞陵洞 674－3

兒童服 전문메이커로서 1990년 말 현재 종업원 90명, 연간매출액 19억원으로 거의 전량이 내수용으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다.

○ **원용산업** 鍾岩2동 1－6

피복·침구류 제조업체, 종업원 125명, 연간매출액 약 4억원 정도, 그중의 약 90％를 수출하고 있다.

○ **사해무역** 長位洞 36－3

1990년 말 현재 종업원 50명, 의류제조·수출업체이다. 연간매출액 44억원 정도, 그중 2억 5천만원 정도를 수출하고 있다.

○ **월다크**(브랑누아) 下月谷洞 48－73

구두·핸드백 등 皮革類 전문메이커이다. 종업원이 약 240명 정도, 연간매출액이 280억원에 달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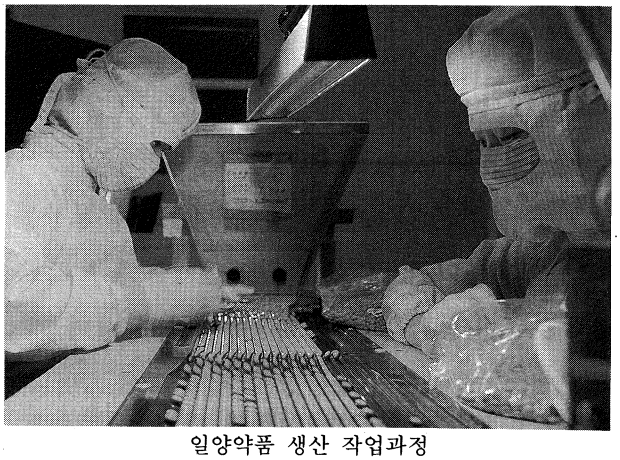
○ **신라산업** 貞陵3동 916－1

앨범제조 전문업체이다. 1990년 말 현재 종업원 50명, 연간매출액 25억원, 그중 약 7억원 정도를 수출한다.

2) 醫藥品製造業

○ **一洋藥品**(株) 下月谷洞 24－5

우리나라 굴지의 大 醫藥品 제조업체이다. 1957년 7월에 鐘路區 敦義洞 60번지에 善林製藥을 창립하여 노루모·하이포酸 등을 생산하다가 1959년 5월에 현 위치인 城北區下 月谷洞에 공장을 이전하고 製酸製 원료인 乾操水酸化 알루미늄 겔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일양약품 생산 작업과정

1960년 8월에 一洋藥品工業社로 상호를 변경, 72년 1월에 株式會社로 法人業體가 되었으며 1974년

6월에 企業을 공개하였다.

1972년 3월에 日本 富士化學(株)과 기술제휴를 한 것을 효시로 일본·오스트리아·프랑스·이태리·스위스 각국의 세계적인 의약품 제조업체들과 기술제휴 또는 기술제공 계약을 맺으면서 제품 및 업종 다변화를 꾸준히 계속해 왔다. 그리하여 현재는 일반 의약품 뿐만이 아니라 食料品·人蔘 제품의 제조·판매, 農藝·家畜 用品의 제조·판매, 醫藥部外品·日用雜貨의 제조·판매, 生藥·特用作物 및 農藝의 재배·판매, 화장품·도료·洗劑類의 제조·판매 등 그 제품과 업종이 매우 다양하다.

本社와 工場을 下月谷洞에 가지는 외에 경기도 용인군 器興邑 下揭里에도 대규모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支店·事業所를 전 국내에 배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N.Y.·홍콩·싱가폴·인도네시아·臺灣 등지에 海外支社 또는 現地法人을 거느리고 있다.

本社·工場을 합해 시설규모는 토지 34,496평 건물 11,567평이나 되며 1990년 말 현재 授權株式数 102억 8천 8백만원, 종업원은 관리직·생산직을 합하여 약 1,500명, 연간매출액은 1,000억원이며 그중 반수는 內需, 나머지 반은 수출하고 있다.

○ **丸仁製藥(株)**　安岩洞 4가 41－1

1957년 7월에 환인제약소로 출반한 洋藥 전문제조업체이다. 82년 12월에 株式會社로 法人體가 되고 87년 12월에는 京畿道 安城郡 대덕면 소현리에 대규모 공장을 신축하였다.

主 생산품은 신경정신질환 치료제, 주사제, 軟膏 및 기타 일반의약품이며 1990년 말 현재 자본금 16억원, 연간 매출액 125억원이고 거의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고 종업원은 152명이다. 부산·대구·광주·대전·전주·마산·서울 등지에 사무소를 개설, 활발히 기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韓和製藥(株)**　石串洞 261

1982년 6월 21일에 설립된 洋藥 전문메이커이다. 1993년 3월까지 東大門區 신설동에 本社·공장이 있었으나 93년 4월에 성북구 석관동의 현 위치로 본거지를 옮겼다.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난곡리에 별도의 공장을 가지며 1990년말 현재 자본금 42억 4천만원, 종업원 수 256명, 연간매출액이 234억원에 달하고 있다. 主 生産品은 안티비오·마베론·가스피로·류테란 등이며 생산품의 거의가 내수용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출시장 개척에도 注力한다는 것이다.

3) 機械·電子·音響器機 製造業

○ **韓國토프론(株)** 下月谷洞 16－7

1986년 3월 26일에 설립된 스피커제작 전문업체이며 1990년 말 현재 자본금 5억, 종업원수는 140명이고 연간매출액 130억, 그중 반은 수출하고 나머지는 內需판매하고 있다.

○ **성원전자** 종암 1동 17－2

音響器機중 보이스코일 전문제조업체이다. 下月谷洞 16－7에도 系列工場을 갖고 있으며 종업원수 85명, 연간매출액은 약 10억원이고 거의가 국내판매를 하고 있다.

○ **광전실업(株)** 普門洞 7가 112－8

택시 미터기 전문제조업체, 1990년 말 현재 종업원 50명, 연간매출액은 11억원이다.

○ **유풍전자** 下月谷洞 46－26

電子部品 전문제조업체, 1990년 말 현재 종업원 70명, 연간매출액 16억에 달하고 있다.

4. 運輸業·土建業

城北區에는 江北의 他區에 비하여 운수업이 많은 것이 특색이다. 아마 泊車場 확보가 용이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 주된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大進運輸(株)** 貞陵 4동 818

1957년에 설립된 市內버스 전문업체이다. 1990년 말 현재 종업원은 300명이며 버스 104대를 운영하고 있다. 자본금은 8억 6백만원이며 연간 매출액은 27억원이다.

○ **道原交通(株)** 貞陵洞 893－1

市內버스 운수업. 1990년 말 현재 市內버스 57대를 운행하고 있고 자본금 5억원, 종업원 수 90명, 연간매출액 30억원이다. 1971년에 설립되었다.

○ **東洋交通(株)** 貞陵 4동 820－17

市內버스운수업. 1966년 5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1990년 말 현재 버스 78대를 운행하고 있고 종업원수 260명, 연간매출액 27억원, 자본금은 4억 3천만원이다.

○ **常進運輸(株)**　石串洞 124－9

市內버스운수업. 1961년 10월 29일에 설립되었으며 1990년 말 현재 시내버스 82대를 운행하고 있다. 종업원 수 249명, 자본금은 4억 6천 5백만원이다.

○ **長安實業(株)**　石串洞 220－1

택시운수업. 1962년 5월 29일에 설립되었으며 1990년 말 현재 자본금 3억 2백만원, 택시 92대, 종업원 290명이다.

○ **大旺企業(株)**

택시운수업. 1969년 12월 4일에 설립되었으며 택시 111대를 운행하고 있고 종업원 수는 210명, 연간 매출액은 25억원이다.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姉妹會社인 大旺運輸(株)가 있으며 역시 택시 53대로 택시운수업을 하고 있으며 연간매출액은 15억원에 달하고 있다.

○ **韓都通商(株)**　貞陵 771－7

택시운수업. 1990년 말 현재 택시 약 50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종업원수 147명, 연간매출액 16억원이다.

○ **瑞光產業(株)**　普門洞 7가 118

1955년 12월에 自由建設(株)로 창립하였으며 1964년 1월에 瑞光産業으로 社號를 바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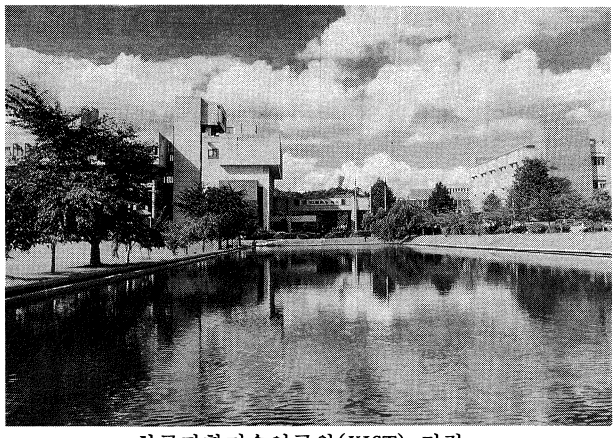
土建·鋪裝·電氣·軍納·消防設備 등의 종합 건설업이며 1980년 8월에 핀작크식 水門 제작 특허를 취득하였고 1989년 10월에 企業을 공개하였다. 1990년 7월에 住宅建設業 지정업체로 등록되었으며 같은 해 9월에 海外建設業體로 등록되었다.

1990년 말 현재로 사무직 117명 기술직 168명 합계 285명이며 자본금은 106억 8천만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有数의 건설업체이다.

5. 韓國科學技術研究院

城北區의 産業·經濟를 다루는데 있어 下月谷洞 39－1에 소재하는 韓國科學技術研究院을 크게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기관은 전국적인 기관이며 결코 서울특별시나 城北區에 국한된 기관이 아니지만 그것이 城北區 관내에서 탄생·성장·발전한 것이

기 때문에 區誌 편집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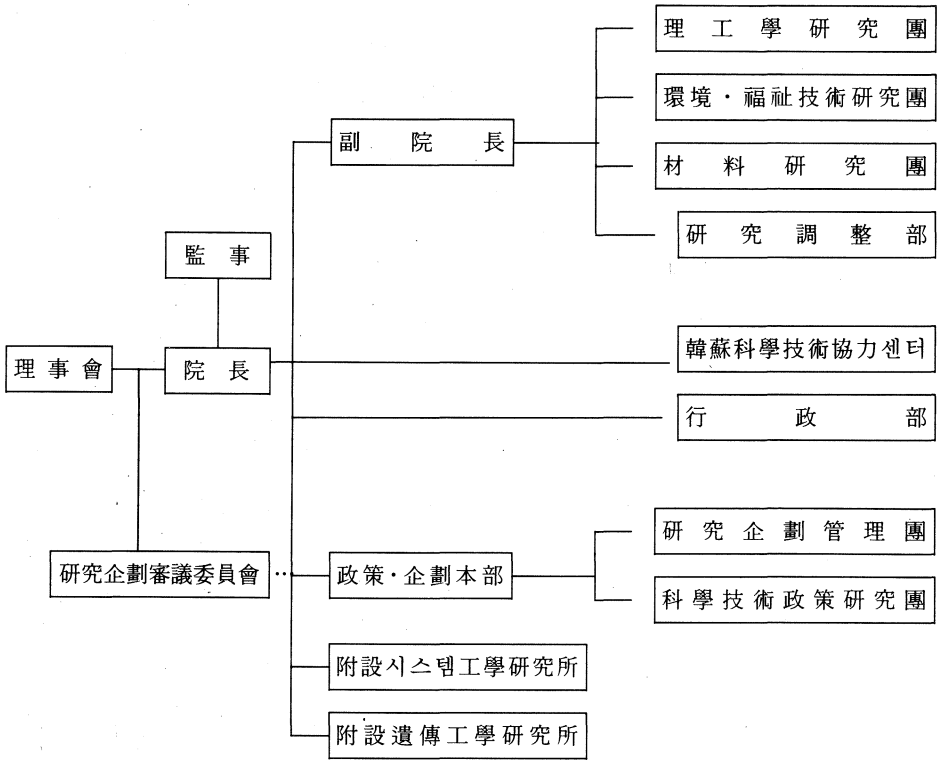
1960年代로 접어들면서 政府는 지난날의 되풀이 되어오던 모든 사회·경제적 악순환을 시정하고 自立經濟達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을 통해 산업구조의 개선과 산업의 근대화를 통한 工業化를 실천하게 되었다. 政府는 공업화 과정에서 科學技術이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저력을 배양하기 위해 경제개발계획과 병행하여 제1차 과학기술진흥5개년계획(1962~1966)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다. 人力開發·技術開發·技術協力을 골자로 하는 이 계획은 과학기술을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직접 연관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로써 政府의 과학정책은 종래의 敎育政策的 차원에서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추진력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1961년 7월 22일 과학기술전담 행정기구로서 經濟企劃院內에 技術管理局을 우선 설치하였고 1964년 2월 1일 정책기구로서 經濟科學審議會를 설치하였으며 다음 단계로 종합공업연구기관의 설립을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1965년 5월 18일에는 科學立國 技術自立을 통한 經濟發展을 주창해 온 朴正熙 대통령이 직접 미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工業發展에 기여할 綜合應用研究機關의 설립에 대한 미국의 협조를 얻어내 이의 설립실현에 한층 다가서게 되었으며, 1년 뒤인 1966년 2월 2일에 朴正熙 대통령이 研究所의 設立 定款에 서명하고 「韓國은 이 研究所의 설립을 계기로 産業經濟擴張에 수반하여 증가일로에 있는 難問題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과학을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등을 제공할 훌륭한 연구 및 기술정보센터를 갖게 될 것이고, 이 研究所는 私企業 및 公企業에 대하여 차별없는 봉사를 하게 될 것이며, 韓國이 필요로 하는 先進技術의 도입과 응용 그리고 과학기술 및 공업경제의 여러 분야에 대한 연구·조사·분석활동을 수행할 것이다」라는 설립의 意義를 밝히면서, 드디어 1966년 2월 1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이후 1981년 1월 한국과학원과 통합하여 그 명칭

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 바뀌었다가 1989년 6월에 다시 오늘날의 명칭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 바뀌면서 국내유일의 종합연구기관이 된 것이다.

현재 이 연구원의 組織과 人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조직



〈표 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원 현황

(92年 1月 現在)

區　　分	K I S T	附　設　機　關		計
		시스템工學硏究所	遺傳工學硏究所	
任　　員	2			2
硏 究 職	510	207	144	861
技 術 職	28	18	16	62
行 政 職	68	32	19	119
機能・事務職	289	135	49	473
合　　計	897	392	228	1,517

※ KIST의 人員은 政策・企業本部를 包含한 人員임.

한편 연구부서는 정밀화학연구부·공정연구부·기전연구부·도핑콘트롤센터·광전기술센터·환경연구센터·CFC대체기술센터·신소재연구사업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부서별 機能을 간단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정밀화학연구부

유기화학연구실·유기합성연구실·의약화학연구실·의약합성연구실·농약화학연구실·천연물화학연구실·무기화학연구실·유기금속화학연구실·고체화학연구실·화학분석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친핵성 비닐 치환 반응, 항바이러스제 신약개발, 천연화학물의 분리 및 구조 규명을 통한 신약 개발, 유기금속계열 신 생리활성 물질 개발, 신무기 소재의 미량분석법 개발 등을 연구하고 있다.

• 공정연구부

공정제어연구실·반응공학연구실·소재화공연구실·에너지공정연구실·전기화학연구실·촉매화학연구실·화학공정연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On-Line 공정 최적 화기법에 관한 연구, CDD 및 박막제조공정기술개발 연구, 휴·폐자원 처리 및 활용기술개발 연구, 전기화학 반응기 설계 및 개발 연구, 신에너지·비료·고분자·촉매공정개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 기전연구부

CAD/CAM 연구실 Tribology 연구실·내연기관연구실·공조 환경제어연구실·로보트 응용 및 유공압연구실·터보기계연구실·제어시스템연구실·공작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CIM 기술개발, Tribo-system 기술개발, Heat Pipe 이용 기술개발, 컴퓨터를 이용한 고급제어기술개발 등에 전념하고 있다.

• 도핑컨트롤센터

'86년 '88년도 양대 경기대회에서의 금지약물 검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도핑콘트롤센터는 생리활성물질의 약리, 대사 및 체내 동태학에 관한 연구와 생체유해물질의 검출기술을 응용하여 환경 보전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물질특허 도입에 따른 신물질 창출이란 국가적 필요성에 부응하여 천연물질에서 생리활성물질의 분리와 동정, 분자 설계법을 이용한 생리활성물질의 디자인, 약리활성의 검색, 대사와 독성연구, 그리고 전임상시험 등 신물질 창출을 위한 기반 기술분야로 그 영역을 넓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광전기술센터

응용광학연구실・응용전자 연구실・집적시스템연구실・광전자연구실・초전도연구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로 정보처리용 광집적회로 기술연구, 초고집적 시스템 구조연구, 소자 실용화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 환경연구센터

수질환경연구실・대기환경연구실・폐기물연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폐하수처리 및 재이용기술개발,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고・액・기상 폐기물 처리장치 개발 등을 연구하고 있다.

• CFC 대체기술센터

공정개발연구실과 분리공정연구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CFC 대체물질합성, CFC 분해기술개발, CFC 대체물질 제조공정개발 등의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신소재연구사업단

이 연구단은 금속재료연구단, 세라믹스재료연구단, 고분자재료연구단, 정보재료연구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금속간 화합물재료연구, 특수강연구, 무기재료연구, 내열세라믹스연구, 고분자복합재료연구, 섬유고분자연구, 반도체재료연구, 전자금속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시스템공학연구소

다양한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 응용 및 시스템엔지니어링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1967년 출범한 이 연구소는 설립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정보화사회 구현에 필수적 요소인 첨단 S/W 기술개발 및 S/W 산업 관련 국책적 대형 연구과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연구전산망 및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사업 등을 통하여 연구기관간 科學技術情報의 상호활용 촉진을 꾀하고 있으며 지난 '88년에는 국내 초유, 최대의 슈퍼컴퓨터 Cray－2S를 도입, 기초과학 분야로부터 산업계 첨단응용기술개발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 발전에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현재 이 연구소는 대전시 유성구의 대덕연구단지내에 소재하고 있다.

• 유전공학연구소

생명공학기술의 개발・보급과 연구지원 기반의 구축을 위해 '85년 2월 유전공학센터로 출발, '90년 6월 대덕연구단지내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명칭을 현재의 유

전공학연구소로 변경하였다. 이 연구소는 생명공학 연구개발 기반의 조기 확립과 발전체제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및 주변기술 개발, 보급과 생명공학 핵심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정책수립의 Think-Tank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KIST는 첨단기술개발의 경험과 축적된 연구 능력을 바탕으로 연구 방향을 신소재, 첨단복합기술, 원천요소기술 그리고 공공복지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이며 이같은 연구 방향에 발맞추어 과감한 우수인력의 확보와 연구시설의 현대화, 그리고 이를 토대로 國際研究協力을 강화하여 명실공히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53]

〈孫 禎 睦〉

53) 이 기술은《한국과학기술연구소 10년사》, 1977년 발행 및 기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각종자료에 의해 작성하였다.

第8章 教 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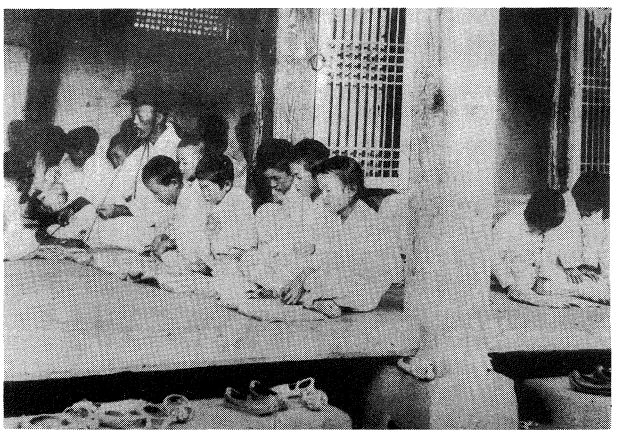
Ⅰ. 教育의 發展과 教育行政 概觀

1. 서울 教育의 發展

서울은 首都로서 모든 면에 중심지가 되어 왔듯이 교육면에서도 中樞的 역활을 수행해 왔다. 서울은 한국 교육발전의 중심지로서 한국교육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1) 朝鮮時代의 서울 教育

서울 교육의 발전은[1]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발전과 마찬가지로 서울이 민족 문화사의 중심이 되었던 조선시대 이후 가속화되었다. 조선왕조는 儒教思想을 통치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모든 생활과 사상 그리고 교육도 유교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 조선시대에 서울에 설치된 교육기관으로는 국립대학격인 成均館이 있어 최고학부의 구실을 하였고, 중등교육기관으로



옛날의 서당 풍경

1) 이하 서울 교육의 발전에 관해서는 孫仁銖《韓國近代教育史》연세대학출판부 1971 및 서울特別市教育廳·서울教育發展委員會《오늘의 서울教育》1991. 金鎬逸「한국교육사」《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pp.347~359 참조.

四學이 있었다.

성균관은 고구려의 太學, 통일신라시대의 國學의 전통을 이어서 고려시대에 國子監·成均監 등으로 불리어지다가 고려말에 成均館으로 이름하였는데 조선왕조가 이를 계승하였다.

四學은 고려의 東西學堂 혹은 五部學堂을 이어받아 세운 中學·東學·西學·南學의 四部學堂을 이른다. 이 四學은 독립된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성균관에 예속된 부속기관의 성격을 띠었으므로 학제나 교육방침에 있어서 성균관과 유사하였다.

書堂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존속되어 초등교육을 담당한 사립교육기관이다. 서당은 고구려의 扃堂이나 고려의 書齋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面·洞·里를 기본단위로 설립되어 선비와 평민의 자제로서 四學이나 鄕校에 입학하지 못한 8~9세부터 15~16세에 이르는 童蒙들에게 유학을 가르쳤다.

그러나 이들 교육기관은 오늘날처럼 계통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독립된 교육기관이었다. 또한 조선시대의 교육은 한국사회에 유교주의적 세계관과 가치관의 전통을 남겼지만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적응시킬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바탕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2) 開化期의 서울 教育

19세기 말 개항과 함께 문호개방이 시작되면서 교육에 있어서도 근대교육사조에 입각한 신교육 실시가 요청되었다. 이런 역할을 담당하면서 등장한 것이 근대교육기관이다. 근대교육기관이란 흔히 말하는 개화교육의 기관으로서 서구의 新文化를 섭취하는 교육이 행하여지는 곳이다.

근대학교의 성립은 우선 政府에서 官學으로 同文學·育英公園을 설립하였고, 1895년 高宗이 「教育詔書」를 내려 教育立國의 뜻을 천명하므로써 시작되었다. 이는 개화를 이루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근대적 교육제도를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제도에 따라 신학제가 제정되었고 1895년의 小學校令, 소학교규칙대강, 1899년의 中學校官制 등이 제정되어 관립 초등교육기관

으로서의 小學校·中學校 등이 설립됨으로써 근대교육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 私學의 설립은 크게 기독교계 학교와 민간인 사학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기독교계 학교는, 19세기 중엽을 지나면서 개신교 종파가 서서히 서울에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선교사업과 아울러 교육사업에 착수하므로써 시작되었다. 그 결과 1885년에 한국 근대학교의 효시라 할 수 있는 廣惠院이, 1886년에 梨花學堂 등이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이들 학교는 우리나라 근대학교의 성립을 위한 선구적 구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신문화 수입의 주요 교육기관으로서 그 기여한 바가 크다.

한편, 당시 사회의 요청에 따라 민간인에 의하여 사립학교가 세워졌다. 이 시기에 설립된 사학은 그 뒤 정부에 의해서 근대학교를 설립하게 하는데 강력한 자극제와 촉진제 구실을 하였다.

3) 民族抗日期의 서울 教育

일본은 우리의 國權을 강탈한 뒤 식민통치기관인 朝鮮總督府로 하여금 親日教育을 강화하게 하였다.

이 시기 학교교육에 관한 방침은 네차례에 걸쳐 教育令이 개정·공포될 때마다 日帝의 식민지 교육정책과 사회정세의 즉각적인 반영이 그때 그때 여실히 드러나 있었다. 식민지 초기의 교육방침은 1911년에 발표된 〈朝鮮教育令〉으로 집약되는데, 우리 민족의식과 문화를 말살하고 일본제국에 절대 복종하도록 하겠다는 뜻이 나타나 있다. 그 뒤 각종 교육법령의 제정에 의해서 교육제도가 정비되어, 보통학교(3·4년)·고등보통학교(4년)·여자고등보통학교(3년)·실업학교(2·3년)·간이실업학교·전문학교(3·4년) 등이 설치되었다.

이 시기 사립학교 교육은 1908년에 공포된 〈私立學校令〉을 개정하여 1911년에 〈私立學校規則〉을 공포함으로써 민족교육의 근거지인 사립학교의 감독과 통제를 시도하였다. 1915년에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改正 私立學校規則〉을 공포하여 학교의 설치 목적, 교장 취임, 교과도서 채택 등을 총독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는 민족교육기관으로서의 私學을 철저히 통제하여 그들의 의도대로 교육을 실

시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의 私學에 큰 압력이 되었다.

그뒤 3·1운동을 계기로 일제의 교육정책에 약간의 수정이 있었다.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하여 1922년에 〈改正 教育令〉을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조선학생들에게 사범학교 및 대학에 진학할 길이 열렸으며 전반적으로 각급 학교교육의 정도가 다소 높아졌다. 또한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폐지되었던 국어를 필수과목으로 하였다. 그 밖에 사범학교와 전문학교 등을 설치하였으며, 당시 민족지도자들에 의해 추진된 민립대학설치운동을 무마하고 대학교육을 官의 통제하에서 실시하고자 1923년 〈경성제국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을 반포하고 이듬해에 개교하였다.

1938년 3월에는 〈제3차 조선교육령〉을 반포하였는데 주요한 것은 보통학교를 심상소학교, 고등보통학교를 중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를 고등여학교라 하여 校名을 일본인 학교와 같게 하였다. 일제는 이 시기에 모든 교육내용에서 일본적인 것을 보다 강화하고 일본어로 수업하는 등 철저한 皇國臣民教育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1941년에는 보통학교였던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1943년에는 제4차 조선교육령인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령〉에 의하여 철저한 戰時教育體制로 바꾸어 학교교육을 전쟁수행의 도구로 만들었다. 특히 일제말기 약 10년간은 私學에 대해 탄압이 더욱 혹심하여져 가장 심한 수난기였다.

이러한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에 대해 우리 민족의 과제는 일제로부터의 국권회복에 집중되었다. 특히 서울의 私學들은 教育救國을 목표로 인재양성에 주력하였으며, 청소년에게는 新知識을 가르쳐 舊習을 개혁하고 민족산업을 일으키는 등 한 국인으로서의 민족적 氣慨를 잃지 않고 독립운동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자주독립의식과 自强革新 사상을 고취하였다.



1920년 무렵의 국민학교 운동회

4) 美 軍政期의 서울 教育

광복 후 정부수립까지 3년간에 걸쳐 실시된 美 軍政의 교육정책은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學制 등 새로운 교육제도를 마련하였다.

우선 교육제도의 민주화로서 종래의 複線型 學制에서 單線型으로 바꾸고, 교육행정의 자치화를 꾀하였으며 문맹퇴치운동·국어의 회복·각급 교육기관의 확충 등 새로운 교육체제의 정비에 주력하였다.

教育審議會는 1946년 6월에 學制를 6·6·4제로 개편하고, 학교교육을 학령전 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특종교육의 5단계로 설정하였다.

초등교육으로는 국민학교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고 전면적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1948년 3월에 국민학교의 수업료를 폐지하였다. 중등교육은 중학교·고등중학교·사범학교·기타 실업계 학교 등으로 이루어졌다. 수업연한은 중학교 3년, 고등중학교 6년, 사범학교 3년으로 하였다. 고등교육은 대학의 수업연한을 4년제로 하고 1946년에 사범대학을 신설하였다.

미 군정하에서의 서울 교육은 초등교육의 경우 학령 초과아동을 수용,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2部制 수업을 하게 되었다. 중등교육 역시 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내용의 개혁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 국민학교 졸업자 중 많은 수가 중학교에 진학하는 등 교육의 양적 팽창을 가져왔다.

5) 政府樹立 이후 1950년대의 서울 教育

1948년 7월 17일에 憲法이 공포되었으며 그 해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었다. 헌법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기회 균등, 초등의무교육과 의무교육의 무상원칙 등이 명시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교육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弘益人間을 교육의 기본이념으로 하는 교육기반이 확립되었다.

학제는 중등학교를 각각 3년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리하여 6-3-3-4제의 單線型 學制를 우리나라 학제의 근간으로 하였다. 또한 公民學校·고등공민학교·기

술학교·고등기술학교제도를 두었다.

1950년 6·25동란으로 교육시설이 거의 50%나 소실·파손되어 그 피해가 많았다. 이로 인해 서울의 학교들은 부산을 비롯한 각지에서 천막학교·노천교실 등 피난지 학교를 운영하였으나,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명맥을 유지하였다.

1953년 7월 휴전협정 체결로 서울의 학교들이 피난학교와 분교를 폐쇄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러나 서울교육은 학교의 복구와, 인구증가에 따르는 교육 수요의 증대로 양적·질적 양면에 걸친 발전을 도모해야 했기 때문에 재원부족 등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정부는 환도 후 의무교육 완성 6개년계획(1954~1959)을 수립·추진함으로써 1960년도에는 취학계획 목표의 90%를 넘어 달성하기도 했으나 2·3부제 수업, 과밀학급 등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속에도 교육제도의 자치화를 의미하는 구체적인 형태로서 1956년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가 발족되는 등 교육자치와 지방행정체제가 정비되기도 하였다.

6) 1960년대 이후의 서울 教育

1960년대는 4·19, 5·16 등 우리 역사에 있어서 격동과 변혁의 시기로 교육도 예외는 아니었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를 계기로 각 시·도교육위원회의 기능이 정지되고 같은 해 9월 〈교육에 관한 임시특별법〉이 공포됨으로써 교육위원회 제도가 폐지되어 市長 산하의 교육국으로 개편되었으나 1963년 교육법의 개정으로 교육자치제가 시·도 단위로 부활되었다.

1960년대 초 서울교육은 국민학교의 경우 취학률이 98.5%(전국 평균 96.1%)에 달하였으며 중·고등학교 역시 교육기회의 확대정책으로 양적 성장을 거듭하게 되었다. 1966년부터 의무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학교 신설 등에 집중 투자하여 수용능력을 대폭 증대함으로써 거의 100%의 취학률에 육박하였으나 2부제 수업, 학급의 과밀화 등의 문제점은 여전하였다. 중학교는 입시제도 개혁으로 1969년부터 無試驗 추첨배정이 시작되어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고등학교 역시 양적으

로 크게 증가하였다.

1970년대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따른 학교수용능력의 부족을 과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학급당 기준 인원을 70명으로 책정하였으며, 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제정하여 일정률을 법정 교부하도록 하였다. 1974년 고등학교도 입시제도를 개혁하여 고등학교 平準化政策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서울 교육은 인구증가에 따른 교육인구의 증가로 각급 학교의 학생 및 학교수가 증가하는 양적 성장이 계속되었다. 또한 서울 교육의 양적 성장에 따른 교육행정 수요를 분담하기 위해 교육위원회 산하에 교육구청을 신설하여 새로운 지방교육행정체제를 취하였다.

1980년대는 경제성장의 지속과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는 전환점의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平生教育의 진흥과 특수교육 및 국민정신교육 강화에 역점을 두었고 취학전 교육의 확대도 추진하였다. 또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해 과외수업을 금지하고 대학 본고사의 폐지, 고등학교 내신성적의 반영, 영재교육의 강화, 과학기술교육 진흥, 교복 자율화 등 활발한 교육시책이 전개되었다.

이에 서울 교육은 교육의 양적 성장과 질적 향상 및 교육여건의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특히 체육교육 진흥에도 힘을 기울여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의 기회 확대에도 역점을 두었으며 우수한 기능인 육성을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의 시설 확충과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컴퓨터교육에도 힘썼다. 교육수요의 급격한 팽창에 따른 뒤떨어진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학교의 신설 등이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교육의 본질추구를 全人教育의 실천에 두었다.

교육자치제는 1964년 시·도 단위의 교육위원회가 부활·구성되어 운영되었으나 1988년 교육법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고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2. 教育行政機關

城北區의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서울特別市教育廳·서울特別市 北部教育廳이 있다.[2)]

教育委員會는 特別市·直轄市·道에 설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체육·기술·예술 등에 관한 교육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심의·의결기관이다.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에 있어서 민주적 지방분권의 원칙 아래 인사와 재정을 분리, 독립시킴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립하는데 그 의의와 목적이 있다.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는 1991년 교육자치제의 본격 시행으로 지금까지 합의제 집행기관이었던 교육위원회를 심의·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분리하면서 구성되었다. 즉 1991년 3월 8일에 공포된 法律 제4347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자치제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교육에 관한 심의·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教育廳(기관장 : 教育監)으로 분리된 것이다. 이어 8월 8일에는 同 法律에 의거하여 서울特別市教育委員 22명이 선출됨으로써 9월 2일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가 구성되었다. 심의·의결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 시의회에 제출할 條例案
- 시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 시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 기본 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請願의 수리와 처리

2) 이하 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서울特別市教育廳·서울教育發展委員會《오늘의 서울教育》1991 및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서울教育史》下 1981 및 金鍾喆《韓國教育行政史研究草》載東文化社 1980 참조.

·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서울特別市教育廳은 1991년 3월까지는 교육행정에 관한 합의제 집행기관인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로 존속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위원회 구성은 1949년 12월에 〈교육법〉과 1952년 4월에 〈교육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는 1956년 10월 2일에 발족되었다. 1961년에는 5·16 혁명으로 교육위원회 기능이 정지 및 해산되었다. 1962년 1월 교육자치제가 폐지됨으로써 교육행정은 일반행정에 흡수되어 서울특별시 교육국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1963년 11월에 개정된 교육법에 의거하여 1964년 1월 교육자치제가 부활됨으로써 市·道 단위의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교육위원회의 기능이 정상화되었다. 이후 1973년 1월에는 부교육감제가 신설되었고, 같은 해 2월에는 하급 집행기관으로 4개의 教育區廳을 신설하였다. 1991년 3월 교육자치제의 본격 실시로 심의·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教育監으로 분리되고 기관명칭이 서울特別市教育廳으로 변경되었다. 교육행정집행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 教育規則의 제정
· 조례안의 작성
·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서 작성
·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 사회교육 기타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 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 교육·학예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特別賦課金,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 起債·借入金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과 적립금에 관한 사항
-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서울특별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등의 설립·폐지의 인가에 관한 사무 등 교육부장관, 체육청소년부장관이 위임하는 사무
- 고등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특수학교의 지도 감독 및 교육·학예활동의 지원

서울特別市北部教育廳(도봉구 미아3동 127-5번지 소재)은 서울특별시 9개 教育廳 중의 하나로 하급 교육행정기관이다. 북부교육청은 1973년 2월 9일 교육위원회의 하부집행기관인 北部教育區廳(기관장 : 區廳長)으로 설립되었는데, 1991년 3월에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분리에 따라 기관명칭이 北部教育廳(기관장 : 教育長)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북부교육청은 성북구와 함께 도봉구·노원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교육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서 북부교육청에서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 管轄區域內 公·私立의 국민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各種學校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 奬學 및 學事지도
  - 교직원 인사관리
  - 재정 및 시설관리
  - 유치원 설립 인가 및 폐지
- 管轄區域內 사회교육기관 설립 인가 및 지도 감독
  - 學院 설립 인가 폐지 및 과외교습소 등록
  - 公益法人의 지도 감독

한편 대학·전문대학에 관한 교육행정은 教育部(1990년 文教部에서 기관명칭 변경)에서 관장하고 있다.

II. 城北區 教育機關 現況

城北區 관내에는 많은 교육기관이 자리하고 있다. 高麗大學校를 비롯한 대학교만도 6개에 달하며, 이하 각급 학교들이 고루 분포하고 있어 서울 시내에서 한 지역에 이처럼 많은 교육기관이 자리잡은 곳도 흔하지 않아 교육중심지역으로서의 성북구의 모습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현재 성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유치원 74, 국민학교 22, 중학교 17, 고등학교 14(일반계 10, 실업계 4), 각종학교 1(대학과정), 전문대학 1, 대학(교) 6, 특수학교 1 및 私設講習所 594개소이다.[3] 각급 학교의 연혁과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

1. 대학(교)·전문대학

1) 高麗大學校

고려대학교는[5] 성북구 안암동5가 1~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립 종합대학교로서 90년 가까이 우리나라 民族教育의 빛난 역사를 계승하고 있는 名門이다.

고려대학교는 1905년 5월 당시 大韓帝國 內藏院卿이던 李容翊이 礪洞(현 종로구 수송동)에 있던 전 俄語學校 건물을 사용하여 설립한 普成專門學校로 출발하였다.

3) 교육기관 현황은 1992년 4월 현재이며, 이중 유치원과 사설강습소는 1991년 4월 현재 현황이다.

4) 이하 각급 학교의 연혁과 현황에 대해서는 특별한 明記가 없는 경우 다음의 자료들을 참조하였다.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서울교육사》下 1980.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서울교육통계연보》1992年版.
城北區廳《성북구통계연보》1991年版.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각학교 항목.

5) 고려대학교《民族과 大學》1973.
고려대학교70년지편찬실《高麗大學校70年誌 -1905~1975》1975.
고려대학교《高麗大學校 一覽》1992.
仁村紀念會《金性洙傳》1976.
孫仁銖《韓國近代教育史》연세대학교출판부 1975.

이때 이용익은 일본에 납치되어 체류하던 중 일본의 근대교육기관을 두루 살펴보고 귀국하여 教育救國의 이념 아래 신교육기관으로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설립 당시 기존의 사립학교들은 대부분 외국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반면, 보성전문학교는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근대적 고등교육기관이었던 것이다.

초대교장은 申海永이었으며 초기에는 수업연한 2년제의 법률학전문과와 理財學專門科를 두었는데, 1905년 9월에 漢城法學校 학생을 인수하여 법률학전문야학과를 신설하였다. 이어 1907년 1월에 법률학전문과·이재학전문과를 각각 법학과·경제과로 개칭하고 수업연한을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2월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용익이 해외로 망명하였다가 1907년 3월에 憤死하자, 그의 손자 李鍾浩가 학교경영을 인수하였으나, 1909년 이종호가 다시 안중근의사사건에 연루되어 구금됨으로써 학교는 경영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1910년 제 1회 졸업생인 尹益善이 孫秉熙와 의논하여 학교경영을 천도교에 인계하였다. 1915년 4월에는 일제의 〈전문학교규칙시행령〉에 따라 재단법인을 조직해야만 전문학교의 인가를 얻을 수 있게 되어 교명을 사립 보성법률상업학교로 격하, 개칭하고 3년제의 법률과와 실업과를 두었다.

3·1운동 직후 손병희가 일본경찰에 피검되어 다시 학교운영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교장 高元勳은 총독부에 전문학교 승격에 관한 타진을 거듭하는 한편, 金炳魯 등이 재단법인 기성회를 조직하여 사회독지가들에게 호소하였다. 이에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의 민간독지가 58명의 공동명의로 1921년 재단법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하여, 1922년 〈조선교육령〉에 의해 정식으로 전문학교 인가를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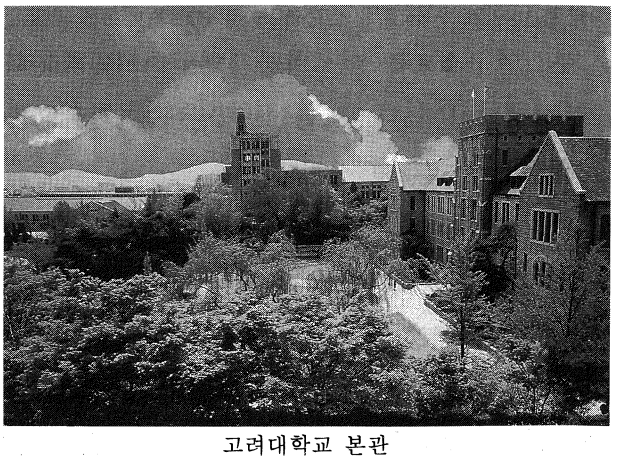
그뒤 총독부의 간섭과 재단 경영의 부진 등으로 학교가 재정난에 빠지게 되자, 1932년 金性洙가 보성전문학교를 재단법인 중앙학원으로 인수하고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이때 김성수는 3·1운동 직후 거족적으로 일어났던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일제의 압력으로 실패하자 자력으로라도 민립대학을 설립하려던 뜻을 가지고 있던 차에, 보성전문학교의 경영난을 보고 사재를 기부하여 인수하게 된 것이다. 곧

이어 1934년에는 안암동 현 위치에 교사를 신축·이전하였고 1937년에는 도서관이 건립되는 등 제반시설이 갖추어져서 민족교육의 대표기관으로서 자리를 굳히는 동시에 본격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하여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총독부의 압력은 가중되어 農科의 신설계획을 거부하는 등 각종 탄압을 가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법과 및 문과교육을 전폐하고 실과교육을 강조하여 1944년 4월에는 학교명을 京城拓殖經濟專門學校로 변경하여 경제과·척식과만을 두게 하는 등의 시련을 겪었으나 민족교육의 맥을 꾸준히 이어왔다.

광복과 더불어 재단이사회가 개최되어 교명과 학사규정을 보성전문학교 당시로 환원시켰다가, 1946년 8월에는 정법·경상·문과의 3개 단과대학 8개 학과로 편성된 종합대학으로 승격, 개편하여 高麗大學校를 창립하게 되었고 초대총장에 玄相允이 취임하였다. 1947년 제1회 고려대학교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대학원을 개설하였다. 곧 이은 6·25동란으로 학교기능을 잠시 잃었으나 1951년 대구에 임시교사를 마련하여 兪鎭午가 총장으로 취임하는 한편, 부총장제도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난중에도 이학계 학과와 농과대학 신설 등 기구를 확장하였고, 환도한 뒤부터는 종합대학으로서의 기구와 내용정비에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학교는 계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으니 1955년과 1959년 두차례에 걸친 단과대학 및 학과의 개편·신설을 통하여 법과·상과·문리과·농과·정경 등 5개 단과대학을 두게 된데 이어 1961년 서관 준공 및 박물관 등 부속건물의 신축·준공, 1963년 이공대학 신설 및 국내 최초로 경영대학원 창설, 1966년 이후 이공대학·농과대학의 학과 증설 및 교육대학원을 개설하였다.


고려대학교 본관

1970년에는 장기발전계획이 시작됨에 따라 1971년 12월에는 학교법인 우석학원을 합병하여 우석대학교 및 부속병설기관을 흡

수하였고, 1972년 사범대학 신설, 1973년 농과대학 캠퍼스 준공, 이어 식량개발대학원 개설, 이공대학을 이과대학·공과대학으로 분리, 1975년 중앙도서관 신관 준공, 1979년 병설 의학기술초급대학을 보건전문대학으로 개편, 1980년 충남 조치원에 지방분교 개설, 1991년 仁村紀念館 건립 등으로 교세가 확장되어 재학생 3만명의 거대한 대학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개교 100주년이 되는 2005년을 목표년도로 삼아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미래지향적이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부속기관으로는 도서관·박물관·출판부·전자계산소 등 16개 기관이 있고, 의료원 산하에 안암병원·구로병원·여주병원·안산병원 등 4개 부속병원이 있다. 이중 도서관은 1937년에 설립되어 우리나라 사학 도서관의 효시이며 110만여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어 장서량과 시설면에서 국내 최고수준을 갖추고 있고, 이중에는 각종 귀중도서와 희귀본 뿐만 아니라 석학과 저명교수들의 기증본이 가득하여 학교의 자랑이 되고 있다. 또한 박물관은 1934년에 설립되어 대학박물관의 효시가 되었으며, 고고·역사·민속 등에 걸쳐 우리 민족문화유산 10만여점을 소장하고 있는데 소장품의 질에 있어서 國寶 등 중요한 자료들로서 국내 최고는 물론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원은 1941년 9월에 개원한 의과대학 부속 혜화병원을 모체로 하여 1983년 9월에 발족한 이래 의과대학과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산하에 안암병원(혜화병원이 1991년 10월 이전·개원)·구로병원·여주병원·안산병원 등 4개 병원 2,000여 병상 규모에 의료진 약 1,100여명을 총괄운영하고 있다.

부설연구소로는 아세아문제연구소·민족문화연구소·기업경영연구소 등 39개소가 상설되어 있다. 또한 1992년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산하 기초과학지원센터 서울분소가 교내에 설치되었다.

학생활동을 살펴보면, 먼저 1919년 3·1운동 때에는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인 교장 崔麟의 지도 아래 대다수 학생간부들이 이 운동의 주도적 구실을 하였고, 이후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제국주의를 탄핵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등 자주독립을 위한 학생활동을 선두에서 이끌어 왔다. 또한 1960년에는 자유당정권의 독재에 항거하여 4월 18일 고려대학생 3천여명이 시위를 감행하여

4·19혁명의 선봉적 구실을 하는 등 고려대학교의 학생활동은 教育救國과 자주독립을 위한 우리나라 학생활동의 커다란 맥을 이루면서 면면히 이어져 왔다.

주요 학교행사를 살펴보면, 매년 5월에 열리는 종합적인 대학축전인 석탑대동제(1985년부터 석탑축전에서 명칭 변경)를 비롯하여 9개 종목에 걸쳐 교내경기를 국내 최초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4월 18일에는 4·19혁명을 선도한 1960년 4월 18일의 고려대학생들의 시위를 기념하기 위해 수유리 4·19기념탑까지 달리는 4·18구국대장정도 실시되고 있다. 또한 194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고·연전은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두 명문사학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친선을 촉진하며 대학스포츠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5개 종목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데 1985년부터는 체육제의 단일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학술·문화교류와 더불어 대동제도 함께 하는 보다 수준 높은 행사로서 정착되고 있어 양교 학생 뿐만 아니라 교우와 일반 시민들까지 동참하는 행사이다.

학교신문으로 1954년에 창간된 《고대신문》과 영자신문 《The Granite Tower》를 비롯하여 경영전문지 《경영신문》 및 《교육신문》 등이 발간되고 있으며, 또한 체육활동으로는 축구부 등 총 18개 운동부가 각 분야에서 활약이 크다.

1992년 4월 현재 12개 단과대학에 85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등 9개 대학원에 120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학생은 1991년 4월 현재 학부 18,548명, 대학원 3,920명이 재학중이며, 교원 653명, 직원 458명이 재직중이다.[6]

2) 國民大學校

국민대학교는[7] 성북구 정릉동 861-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립 종합대학교이다.

국민대학교는 독립운동을 하다 광복 후 귀국한 申翼熙가 민족의식 계몽과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대학 설립을 추진하여 창설된 광복 후 최초의 사립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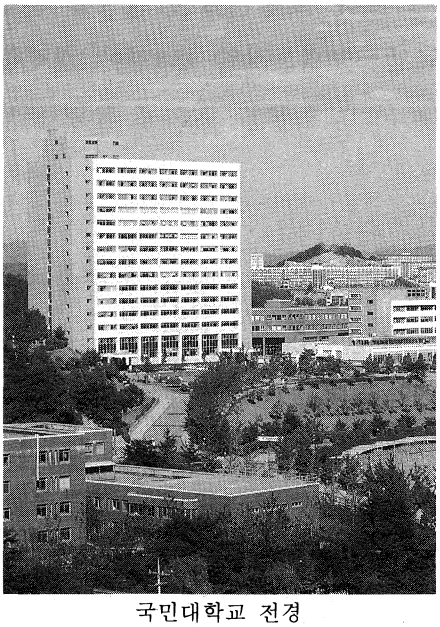
6) 학생수·교직원수는 성북구청 《성북통계연보》 1991년판 참조.
7) 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 요람》 1992 참조.

학이다. 학교 설립을 위해 1946년 3월 國民大學 設立 期成會가 구성되었는데, 여기에는 고문으로 李承晩·金九, 명예회장에 金奎植·趙素昻 등 민족지도자들이 참여하였고 회장은 신익희가 맡았다. 같은 해 9월에 國民大學館(야간)으로 개교하고 12월에 설립인가를 얻어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설립 당시에 校舍는 輔仁商業學校 건물을 사용하였고 학부와 전문부에 각각 법학과·경제학과를 설치하였으며, 초대학장에 신익희가 취임하였다. 이어 1948년 2월에는 교사를 종로구 창성동 117번지로 이전하고, 같은 해 8월에는 주간대학인 國民大學으로 승격함과 동시에 정치학과가 신설되는 등 정규대학으로서 자리잡았다.

그후 1957년 4월에는 야간부가 인가되어 법학과·정치학과·경제학과를 설치하였고 다음해 4월에는 주·야간부에 상학과가 각각 증설되는 등 校勢가 확장되어 갔다.

그러나 당시 학교경영은 심한 재정난으로 침체상태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1959년 10월 교육사업에 뜻을 두고 있던 省谷 金成坤이 財團法人 國民學園을 인수하여 재단과 대학을 새로이 정비하고 교사를 신축하는 등 그 면모를 一新하게 되었다.

이후 학교는 계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으니, 1964년 3월에는 그간 폐지되었던 주간부가 부활되었고, 같은 해 5월에는 私立學校法에 의해 법인이 學校法人 國民學園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1968년 3월 주간부에 8개 학과가 증설된 것을 시작으로 1969년 2월 야간부 폐지, 1971년 9월 현재의 위치인 정릉동에 신축교사를 준공·이전, 1974년 12월 學科制를 學部制로 개편, 1976년 3월 대학원 석사과정 설치, 1979년 3월 야간 2부학부 재설치 및 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등으로 내적 성장을 계속하여 1981년 3월에는 6개 단과대학이 편제된 종합대학으로 승격·개편되기에 이르렀다. 동시에 2부학부는 다시 폐지되었고, 교육대학원


국민대학교 전경

이 신설되었으며, 초대총장에는 鄭範錫이 취임하였다. 그후에도 1982년 3월 경영대학원 신설, 1984년 3월 행정대학원 신설, 1992년 3월 정보과학대학원 신설 등 校勢가 확장되어 왔으며, 1992년으로 개교 45주년을 맞아 名門私學으로서의 알찬 精進을 계속하고 있다.

부속기관으로는 도서관·박물관·민속관·전자계산소 등 12개소가 있다. 이중 도서관은 1946년 개교와 더불어 설립되어 현재 26만여권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박물관은 1973년 발족하여 1983년 정식으로 공개 개관하였으며, 특히 1985년부터는 週中 완전공개(자유관람)를 선도적으로 실시하여 박물관의 교육기능을 제고시키고 있다. 민속관은 민속자료 제7호로 지정된 朝鮮 말기 漢城判尹 韓圭卨의 저택으로 1980년에 교내로 이전해 와 부속기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茶道學習場所로 사용됨과 함께 조선시대 주택에 대한 강의도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전통생활문화의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부설연구소로는 한국학연구소·지역개발연구소·스포츠과학연구소·산림과학연구소 등 14개소가 있다.

학교행사로는 매년 10월에 실시되는 北岳祭典이 대표적이며, 학생활동은 수많은 서클을 통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육상부·농구부·축구부·스키부·유도부 등의 체육활동도 두드러진다. 학교신문으로는 1948년에 창간된《국민대학학보》가《국민대학보》로 개제되어 주간으로 발행되고 있고, 영자신문《The Kookmin Tribune》이 발행되고 있다.

1992년 현재 8개 단과대학에 32개 학과와 야간강좌개설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일반·교육·경영·행정·정보과학의 5개 대학원이 편제되어 있다. 학생은 1991년 4월 현재 학부 9,989명(야간 529명 포함), 대학원 872명이 재학중이며, 교원 222명, 직원 253명이 재직중이다.

3) 同德女子大學校

동덕여자대학교는[8] 성북구 하월곡동 23-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립 여자 종합

8) 同德女學團《同德五十年史》1960,《同德女大三十年史》및《同德七十年史》1980 참조.
同德女子大學校《동덕여자대학교 요람》1992 참조.

대학교이다.

동덕여자대학교는 1950년 5월 學校法人 同德女學團에서 설립한 4년제 초급대학으로 출발하였다. 同德女學團은 당시 趙東植이 운영하던 학교법인으로 1910년에 설립된 동덕여학교를 모체로 하여 산하에 동덕여자중·고등학교를 두고 있었다. 법인의 모체가 되었던 동덕여학교는 1908년 4월 조동식이 東媛女子義塾을 설립하고 1910년 4월 同德女子義塾을 인수·병합하여 설립한 학교로 당시의 초기 사립여학교들이 외국선교사나 왕실에 의하여 세워졌던 것에 반해, 민간인에 의하여 설립된 최초의 여학교라 할 수 있다. 동덕여자대학교는 이러한 전통 위에서 설립된 것이다. 校名인 '同德'은 《論語》에 나오는 〈同門修德〉을 일컫는데, 한 배움의 보금자리에서 덕성과 학문을 연마하여 국가 사회를 위한 유용한 재목이 되자는 뜻이다.

설립 당시에는 초급대학으로서 국문학과·상학과·가정학과만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곧이어 1952년에는 단과대학으로 개편되면서 초대학장에 조동식이 취임하였다. 1954년에는 校舍를 동대문구 창신동으로 이전하였고, 1955년에는 약학과를 신설하였으며, 1957년 2월에는 초급대학 설립 당시 설치되었던 4년제 국문학과·상학과·가정학과를 폐지하고 2년제 초급대학을 부설하였다. 그리고 1961년 9월에는 校舍를 종로구 관훈동으로 이전하였다가 1967년 3월 현재의 위치로 신축·이전함과 동시에 약학과·가정학과·회화과·국어국문학과·경영학과·식품영양학과로 편성하여 학교 발전의 기틀을 다잡았다.


동덕여자대학교 도서관

이후 학교는 발전을 거듭하였으니, 1971년에는 초급대학을 다시 폐지하고 미술교육과·음악교육과·체육교육과를 증설하였으며, 1972년 의상학과 증설, 1973년 국사교육과 증설, 1978년 영어영문학과·경영학과·무역학과·산업미술학과로 편성된 야간 2부 학과 신설, 1979년 2부 일어일문

학과·도서관학과 증설, 1980년 대학원 설치, 1982년 불어불문학과 신설, 1983년 독어독문학과 신설, 1984년 건강관리학과 신설, 1985년 전자계산학과 신설 등으로 校勢가 내외적으로 날로 확장되어 왔다.

이러한 교세 확장을 바탕으로 1987년 10월에는 종합대학으로 승격·개편되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후에도 1988년 약학대학 신설, 1991년 3월 여성사회교육원 설립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1990년 9월로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창립 80주년 및 동덕여자대학교 개교 40주년을 기념하고 그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사학으로서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부속기관으로는 도서관·박물관·동덕미술관·생활문화관 등이 있으며, 부설연구소로는 한국학연구소·산업디자인연구소·천연약품자원연구소 등이 있다. 이중 박물관은 1977년 5월에 설립되어 춘강 조동식박사의 유품을 위시하여 죽조칠제품 등 많은 유품을 소장하고 있고, 동덕미술관(종로구 관훈동 소재)은 1979년 5월에 개관한 이래 저명한 미술평론가와 교수, 작가들을 주축으로 대학미술교류전 등 매년 중요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학교행사로는 매년 5월에 개최되는 '목화축전'이 대표적이며, 학생활동은 각 서클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신문으로는 1963년에 창간된 대학신문《동덕여대학보》가 주간으로 발간되고 있으며,《한국학연구》·《경영연구》등의 학술연구지도 정기적으로 간행되고 있다. 한편,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에서는 1960년에《同德五十年史》, 1980년에《同德七十年史》와《同德女大三十年史》를 각각 간행한 바 있다.

1992년 현재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약학·예술 등 5개 단과대학에 24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대학원은 일반대학원·산업대학원·정보과학대학원의 3개 대학원에 19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학생은 1991년 4월 현재 학부 3,871명, 대학원 91명이 재학중이며, 교원 108명, 직원 87명이 재직중이다.

4) 西京大學校

서경대학교는 성북구 정릉동 16-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립 종합대학교로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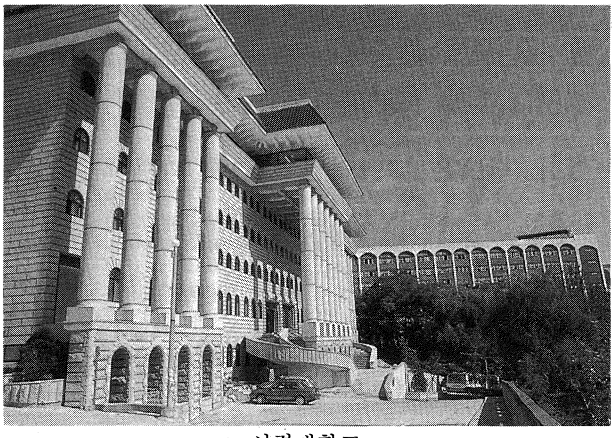
유일의 4년제 야간대학이다.

서경대학교는 1947년 10월 財團法人 韓國學園에서 설립한 韓國大學으로 출발하였다. 설립 당시에 교사는 중구 장충동2가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법정학부·문리학부의 2개 학부에 법률·정경·영문·수물·화학과의 5개 학과를 설치하였고 초대학장에는 재단법인 이사장인 韓觀燮이 취임하였다.

그뒤 1955년 3월에는 재단법인 國際學園에서 한국대학을 인수하여 성동구 신당동 교사에서 國際大學으로 새롭게 개교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9월에는 학교운영을 文教部에서 관리하게 되었고, 다음해 4월에 재단법인 監理學園에서 인수·운영하다가, 1958년 4월에는 다시 학교법인 梨花學堂에서 인수하여 1960년 4월에 교사를 서대문구 충정로2가로 신축·이전하게 되었다.

이처럼 운영 법인이 여러번 바뀌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1956년 화학과를 국문학과로 개편, 1959년 수물학과를 가정학과로 개편, 1961년 가정학과 폐지, 1962년 법정학부의 법경학부로의 개편과 경영학과 신설 및 문리학부에 일어일문학과 신설과 가정학과 부활, 1972년 경영대학원 설립, 1978년 가정학과의 무역학과로의 개편 등 학교 발전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1980년 2월에는 경영대학원이 폐지되는 등 학교경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 11월에 학교법인 三文學園에서 인수하게 되었고, 3월에는 마포구 공덕동의 마포교사를 병용하게 되었다. 이듬해에는 법경학부를 법학부와 경상학부로 개편하고 행정학과·전자통계학과가 신설되기도 하였다. 1984년 2월에는 또다시 학교법인 明知學園에서 인수하여 다음해 3월 교사를 서대문구 남가좌동으로 이전하였다.


서경대학교

1987년 4월에는 학교법인 聖韓學園에서 인수하여 이듬해 3월 교사를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으며, 1989년 11월 법인명칭을 학교법인 國際學園으로 바꾸고 학교운영을 정비하여 새롭게 발

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1987년 회계학과 신설, 1990년 사회교육원 설립 및 이공학부 산업공학과·응용통계학과·정보처리과 신설과 경영행정대학원 설치, 1991년 어문학부 노어노문학과·중어중문학과, 이공학부 응용수학과·화학과, 예술학부 산업디자인학과 신설 등 校勢가 확장되어 왔다. 이를 바탕으로 1992년 4월에는 종합대학교로 승격 개편되었으며, 7월에 일반대학원 신설과 1993학년도에 컴퓨터공학과·생물공학과 등이 주간으로 신설되는 등 학교 발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1992년 9월에 교명을 西京大學校로 바꾸고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학생 전형에 있어서 학과별 모집정원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을 산업체 근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전형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체 근로자와 직장인 및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가 요청하는 유용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목적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다.

부속기관으로 도서관 등이 있으며, 부설연구소로는 인문과학연구소·한일문화연구소 등이 있다. 연구논문집으로 《인문과학연구》·《산업경영논총》 등이 발간되고 있다.

1992년 현재 인문계열·자연계열·예체능계열의 3개 계열에 20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일반대학원·경영행정대학원·사회교육원에 5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학생은 1991년 현재 학부 2,952명이 재학중이며, 교원 39명, 직원 51명이 재직중이다.

5) 誠信女子大學校

성신여자대학교는[9] 성북구 동선동3가 249-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립 여자 종합대학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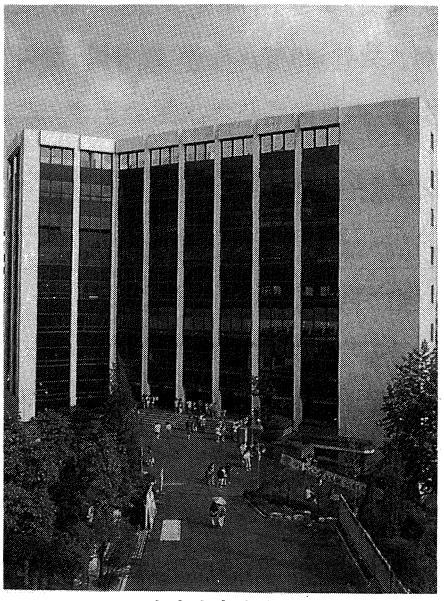
성신여자대학교는 1963년에 설립된 성신여자실업초급대학으로 출발하였는데, 이때의 초급대학 설치 이전의 학교연혁을 살펴보면, 1936년 4월 李淑鍾이 당시 경운

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안내》 1992 참조.
학교법인 성신학원 《성신 50년사》 1989 참조.

동에 있는 태화관에 설립한 성신여학교로부터 비롯된다고 하겠다. 성신여학교는 1944년 현재의 위치로 校舍를 이전하였으며, 1945년 3월에는 재단법인 康濟學園을 설립하고 日帝의 강요에 의하여 성신여자상업학교로 변경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광복과 함께 교명을 성신여학교로 환원하고 1948년 6월에는 재단 명칭을 誠信學園으로 변경하였다.

그후 1963년 1월에 성신여자실업초급대학을 설립하여 큰 전환점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초급대학 설립 당시에는 가정과·경영학과·공예미술과·피복학과의 4개 학과가 설치되어 2년제 단기 고등교육을 실시하였고, 초대학장에는 이숙종이 취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곧이어 1965년 1월에는 4년제 성신여자사범대학으로 승격·개편되어 오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범대학으로의 개편 당시에는 가정교육과·미술교육과·초등교육과·외국어교육과의 4개 과로 재출발하였으나, 이후 학교는 발전을 거듭하였으니 학과의 계속적인 증설과 모집정원의 증원이 잇따랐고, 1972년에는 대학원이 설립되었다. 1979년 10월에는 학교의 확대·개편으로 사범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되어 교명을 성신여자대학으로 변경하였으며, 동시에 산업대학원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校勢의 계속적인 확장에 따라 1981년 7월에는 종합대학교인 성신여자대학교로 승격·개편되기에 이르렀다.


성신여자대학교

이후에도 1983년 12월 교육대학원 신설 등 학교 발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명문 사립대학교로서의 자리를 굳혀 나가고 있다.

부속기관으로는 도서관·박물관 등 9개소가 있으며, 부설연구소로는 인문과학연구소·산업미술연구소·한국지리연구소 등 9개소가 있다. 이중 도서관은 이숙종선생이 기증한 운정문고를 근간으로 30여만권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박물관은 1966년 9월 생활과학박물관으로 설립되어 현재 2,000여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데, 주로 여성생활과 관련되는 민속품을

수집하였으며, 특히 경대류가 특색을 이루고 있다.

주요 학교행사로는 매년 5월에 개최되는 '난의 잔치'와 10월에 개최되는 '학예술제'가 대표적이며, 학생활동은 각 서클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신문으로 1965년에 창간된《誠信學報》가 격주로 발간되고 있으며, 영자신문인《The Sungshin Mirror》가 1972년 창간 이래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992년 현재 인문과학 등 7개 단과대학에 35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대학원은 일반·산업·교육대학원의 3개 대학원에 31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학생은 1991년 4월 현재 학부 5,810명, 대학원 618명이 재학중이며, 교원 71명, 직원 153명이 재직중이다.

6) 漢城大學校

한성대학교는[10] 성북구 삼선동2가 389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립 대학교이다.

한성대학교는 1972년에 金義衡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漢城學園에서 설립한 漢城女子大學으로 출발하였다. 학교법인 한성학원은 광복 직후인 1945년 10월에 金義衡이 돈암동에 소재하고 있던 기존 京城女子技藝學校를 인수하여 이듬해 7월 6년제로 개편한 漢城女學校에서부터 교육사업을 출발하여, 1953년 1월에는 재단법인 漢城學園이 설립 인가를 받았고, 1964년 1월에 재단법인을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였다. 설립 당시 한성여자대학은 국어국문학과 등 6개 학과 학생 150명의 야간대학으로 출범하였고, 초대 학장에 김의형이 취임하였다.

이후 1973년과 1976년에 학과의 조정·증설이 이루어져 9개 학과로 편제되는 등 校勢가 확장되어 1978년 1월에는 교명을 한성여자대학에서 한성대학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주·야간 남녀공학으로 전환함으로써 학교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어 1980년 10월에는 11개 학과로 증과 조정되었고 전일제 수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1986년 7월에는 현재의 위치로 校舍를 확장·이전하여 대학의 발전은 본궤도에 들어서게 되었다. 또한 부설연구소들이 각각 설립되었으며, 1987년에는

10) 한성대학교《한성대학교요람》1992 참조.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校舍

전산통계학과 등 4개 학과가 신설되고, 경영행정대학원이 설립되는 등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곧이어 1988년에는 경영행정대학원이 경영대학원과 행정대학원으로 분리되었고, 일반대학원도 설립되어 대학원체제도 확립되었으며, 대학의 장기발전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종합대학으로의 승격과 지속적인 학교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부속기관으로는 중앙도서관 등 9개가 있으며, 부설연구소로는 민족문화연구소·북방문제연구소 등 4개가 있다. 이중 민족문화연구소는 1982년에 설립되었던 민족사상연구소와 한국전통예술연구소가 1984년에 발전적 통합을 이루었고, 특히 1991년에는 '농경생활사전시관'을 개관하여 농촌의 어제와 오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각종 농기구와 민속자료들을 소장·전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농경생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행사로는 매년 5월에 열리는 '낙산축전'과 10월에 열리는 '낙산체전'이 대표적이며, 학생활동은 30여개의 서클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1976년에 창단된 탁구부와 1985년에 창단된 축구부도 대학 체육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신문으로는 《한성대학보》가 1976년에 창간된 이래 격주간 발행되고 있으며, 영자신문 《The Hansung Times》도 1989년 창간되어 월간으로 발간되고 있다.

1992년 현재 인문과학부·사회과학부·예술학부·자연과학부 등의 5개 학부에 15개 학과와 4개의 야간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대학원은 일반·경영·행정 등 3개 대학원에 7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학생은 1991년 4월 현재 학부 2,773명, 대학원 143명이 재학중이며, 교원 84명, 직원 69명이 재직중이다.

7) 高麗大學校 併設 保健專門大學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전문대학은[11] 성북구 정릉동 산 1-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립 전문대학으로, 보건전문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서울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다.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전문대학은 1963년 1월에 首都醫科大學 병설 의학기술초급대학으로 종로구 명륜동2가에서 설립되었다. 이는 임상의학을 뒷받침하고 지원해야 할 의학기술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이며 유일한 초급대학 과정의 의학기술교육기관으로 발족한 것이며, 의료기사 및 보건위생요원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교육하여 당시 각종 의료기사 및 위생사 등의 제도를 법제화하는데 기여하게 된 것이다. 설립 당시에는 임상병리과 등 6개 학과로 편제되었고, 초대학장에 朱仁鎬가 취임하였다.

이어 1966년 12월에는 학교법인 又石學園과의 병합으로 교명을 우석대학교 병설 의학기술초급대학으로 변경하였고, 1970년에는 치기공과가 신설되었으며, 1971년 12월에는 다시 학교법인 高麗中央學園에 병합되어 교명을 고려대학교 병설 의학기술초급대학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1975년 3월에는 校舍를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학교 발전의 기틀을 다잡았다.

1979년 3월에는 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명을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전문대학으로 개칭하였다. 1991년 3월에는 임상병리과·방사선과·물리치료과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야간부의 증원이 이루어지는 등 양적·질적 발전을 계속적으로 이루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학교는 보건의료 기술요원의 정예화를 목표로 전인적 의료기술인을 교육·양성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은 안암병원 등 4개 부속병원으로 이루어진 고려대학교의료원을 비롯한 각종 보건의료기관에서 산학연계를 통한 실기능력과 경험을 쌓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사를 비롯한 각종 면허와 자격취득에서 항상 높은 합격율을 보이고 있으며, 졸업생은 각급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연구소에서 활약하고 있다.

부속기관으로 보건도서실이 있고, 학교행사로는 매년 5월 '虎林體典'과 '虎林

11)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전문대학《고려대학교 보건전문대학 일람》1992 참조.

祝典'이 개최되고 있으며, 가을에는 각과별 학술대회도 실시하고 있다. 학생활동은 8개 동아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신문으로《高大保健學報》가 발행되고 있다.

1992년 2월 현재 임상병리과·방사선과·물리치료과·식품영양과·위생과·보건행정과·치기공과의 7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1991년 4월 현재 학생 713명이 재학중이며, 교원 18명, 직원 13명이 재직중이다.

2. 고등학교

1) 京東高等學校

경동고등학교는 성북구 삼선동3가 5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공립 일반계 남자 고등학교이다.

이 학교는 1940년 3월에 朝鮮公立中學校官制에 의해 설립된 旭丘公立中學校로 출발하였다. 설립 당시에는 龍山公立中學校의 校舍 일부를 빌려 한국인과 일본인 共學制로 개교하였다. 곧 이어 1941년 4월에는 교사를 현재의 위치로 옮겼으며, 1945년 3월에 제1회(5년제) 및 제2회(4년제) 졸업식을 동시에 거행하여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광복과 더불어 일시 휴교하였다가, 1945년 9월에 校名을 京東公立中學校로 개칭하고 10월에 재개교하였다. 1951년 9월에 學制 변경으로 경동공립중학교는 경동고등학교와 돈암중학교(1953년에 경동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가, 1972년 중학교 입시 개혁에 따라 폐교됨)로 분리·개편되어 오늘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1974년 3월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1992년에 제48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1992년 4월 현재 학급수 34학급, 학생수 1,774명이며, 교원 80명, 사무직원 8명이 재직중이다.

2) 高麗高等學校

고려고등학교는 성북구 정릉동 산 1-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립 일반계 남자

고등학교이다.

이 학교는 1967년 12월에 학교법인 又石學園에서 우석상업고등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아 이듬해 3월 개교하였다. 1971년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 학교법인 우석학원이 학교법인 高麗中央學園에 병합됨에 따라 고려중앙상업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이어 1973년 11월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개편되고 교명을 고려고등학교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른다. 1992년에 제22회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핸드볼 부문에서 전국 중고교 핸드볼대회 우승 등 활약이 두드러졌다.

1992년 4월 현재 학급수 30학급, 학생수 1,535명이며, 교원 64명, 사무직원 9명이 재직중이다.

3) 高明商業高等學校

고명상업고등학교는 성북구 돈암동 45-88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립 실업계 남녀공학 고등학교이다.

이 학교는 1956년 2월에 재단법인 高明學園에서 설립하였다. 재단법인 고명학원은 고등학교 설립 이전에 종로구 연건동에 1939년에 홍아실무학원, 1946년에 서울고등학원을 각각 설립하여 교육사업을 시작하였고, 1950년 5월에 재단설립 인가를 받았다. 그후 6·25동란으로 인하여 중단된 교육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학교부지 물색 등 노력하다가 1954년 3월에 현위치로 校地를 이전하고 1955년 3월에 고명중학교 설립에 이어 이때 고명상업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이어 1964년 1월에 학교법인 고명학원으로 조직변경을 하였고, 1969년 1월에는 정부방침에 따라 중·고등학교를 분리하였다. 또한 1983년 10월에는 남녀공학 인가를 얻어 오늘에 이른다.

1992년 4월 현재 학급수(상과·회계과 포함) 36학급, 학생수 1,827명이 재학중이며, 교원 67명, 사무직원 6명이 재직중이다.

4) 大一外國語高等學校

대일외국어고등학교는 성북구 정릉동 산 17-18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계(특

수목적－외국어) 남녀공학 고등학교이다.

이 학교는 학교법인 大一學園이 급변하는 국제화시대에 대비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 양성을 위해 1983년 12월 대일외국어학교의 설립 인가를 받아 1984년 3월에 개교하였다. 당시 대일외국어학교는 각종학교로 설립되었으며, 한국 최초로 고등학교 과정의 외국어학교로 출발하여 불어·독어·서반아어·일본어과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1987년 2월에는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같은 해 3월에는 중국어과가 신설되었다. 이어 1992년 3월에는 각종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승격·개편되었으며, 동시에 러시아어과가 증설되었고, 1993년 3월에는 영어과도 증설될 예정이다. 이 학교에서의 외국어교육은 Native-speaker가 직접 지도하는 회화수업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학습을 통하여 영어는 물론 2개 이상의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1992년 4월 현재 학급수 43학급, 학생수 2,279명이 재학중이며, 교원 91명, 사무직원 9명이 재직중이다. .

5) 서라벌高等學校

서라벌고등학교는 성북구 돈암동 7-6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립 일반계 남자 고등학교이다.

이 학교는 1956년 3월 재단법인 서라벌藝術學園에서 용산구 후암동에 설립한 서라벌중·고등학교로 출발하였다. 설립 당시에는 각학년 주간 2학급, 야간 1학급으로 운영하였다. 이어 1957년 7월에는 법인 명칭을 서라벌학원으로 변경하였으며, 1958년 4월에는 校舍를 현 위치로 옮겼다. 1964년에는 학교법인 서라벌학원으로 법인조직이 변경되었고, 1969년 3월부터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 운영하게 되었다. 1972년 12월에는 같은 부지내에 있던 서라벌예술대학이 흑석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그 시설을 인수하여 주간 고등학교 전용 교사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그간 학급수의 계속적인 증설 등 교세가 확장되어 오늘에 이른다.

1992년 4월 현재 학급수 66학급(주·야간 포함), 학생수 3,387명이 재학중이며, 교원 122명, 사무직원 11명이 재직중이다.

6)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附屬 高等學校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는 성북구 종암동 19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 일반계 남녀공학 고등학교이다.

이 학교는 1946년 8월 〈국립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의하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 설치됨에 따라 같은 해 9월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로 설립되었다. 이때 부속중학교는 京城師範學校 豫科(을지로5가－현재 헌법재판소 자리)를 남자부로, 京城女子師範學校 尋常科(용두동－현재 선농단 주변)를 여자부로 하여 합한 것이었으나, 곧이어 1947년 10월에 남자부가 여자부의 용두동 교사로 이전하여 옴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남녀공학이 되었고, 1949년 6월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1951년 9월에 학제 변경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리·개편되었고, 고등학교는 1954년 12월에 校舍를 을지로5가로 이전하였다. 1967년 5월에는 다시 청량리 구 京城帝大 예과 자리(현재 미주아파트)로 교사를 이전하였다가, 1971년 현재의 위치(구 서울상대 자리)로 이전하여 오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 학교는 국립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로서의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반고등학교로서의 성격 외에 교육실습학교·연구실험학교로서의 성격 등을 가진다. 개교 이래 매년 서울사범대학의 실습생을 수용하여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실습학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고,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로서 교육연구와 실험을 계속하여 교육과정 개편 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972년부터는 재외국민 모국수학생과정을 두어 교포 자녀의 교육을 위탁받아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럭비부·유도부·레슬링부·수영부·빙상부 등 체육활동을 비롯한 학생들의 대외활동도 두드러진다.

1992년 4월 현재 제44회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학급수 24학급, 학생수 1,263명이 재학중이며, 교원 60명, 사무직원 8명이 재직중이다.

7) 서울北工業高等學校

서울북공업고등학교는[12] 성북구 하월곡동 9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공립 실업계 남녀공학 고등학교이다.

이 학교는 1964년 3월 崇仁工業高等學校로 출발하였다. 설립 당시에는 판금용접과·화공과로 편성되어 공업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1967년 1월 교명을 서울북공업고등학교로 변경하고 판금용접과도 기계과로 과명을 변경하였다. 이어 1973년 12월에는 2부 설립인가를 얻어 주·야간으로 편성되었으며, 1984년 7월에는 남녀공학 인가를 얻어 개편됨과 동시에 통신과·디자인과·전자과가 신설되는 등 교세가 확장되어 사회변화에 맞는 공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기계과·화공과·전기과·전자과·통신과·토목과·건축과·인쇄과·디자인과로 편제되어 유능한 기술인을 양성하고 있으며, 技能올림픽大會에서 종합 1위를 하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1992년 4월 현재 학급수 63학급, 학생수 3,297명, 교원 165명, 사무직원 30명이 재직중이다.

8) 石串高等學校

석관고등학교는 성북구 석관동 77-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공립 일반계 남녀공학 고등학교이다.

이 학교는 성북구 관내 고등학교 중에서는 신설학교로 1982년 11월에 학교 설립인가를 얻어 1983년 3월에 개교하였다. 개교 당시에는 여학생만 10학급으로 편성되었는데, 1984년부터 남녀공학으로 개편되어 1992년 2월 제7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1992년 4월 현재 학급수 31학급, 학생수 1,613명, 교원 73명, 사무직원 7명이 재직중이다.

---

12) 서울북공업고등학교《北斗》제16호 1992 참조.

9) 龍文高等學校

용문고등학교는 성북구 안암동2가 96-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립 일반계 남자 고등학교이다.

이 학교는 1946년 11월에 창신동에 설립된 城都中學校로 출발하였다. 1949년 4월에 재단법인 兼山學園이 설립인가를 얻어 학교경영을 책임지게 되었고, 1952년 학제 변경에 따라 康文高等學校로 개편되었다. 이어 1953년 8월에는 겸산학원을 해산하고 재단법인 강문학원으로 변경되었으며, 1964년 4월에 현재의 위치로 교사를 이전하였다.

1967년에는 2부를 신설하였고, 1970년 3월 1일에는 학교법인 용문학원으로 변경 인가를 받아 교명도 용문고등학교로 변경하였으며, 1974년에 2부를 폐지하여 오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오랜 전통을 지닌 축구부와 육상부문 등에서의 활동도 두드러진다.

1992년 4월 현재 학급수 43학급, 학생수 2,217명이 재학중이며, 교원 89명, 사무직원 7명이 재직중이다.

10) 弘益大學校 師範大學 附屬 高等學校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는 성북구 성북동 15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립 일반계 남자 고등학교이다.

이 학교는 1931년 6월 李基潤이 외국에 가서 조국 독립에 공헌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종로 기독교전도관에 세운 당시의 유일한 외국어 교육기관인 京城外國語學院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후 중구 삼각동과 종로구 수은동으로 교사를 이전하여 다니다가, 1939년 3월에 현재의 위치에 교사를 마련하여 이전하였다. 1943년 9월에는 日帝가 영어 교육을 강제 폐쇄시킴에 따라 城北中學園으로 변경하였다가 12월에는 다시 京北中學園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광복 후 일시 休園되었다가 1949년 9월에 성북중학원으로 다시 개원하였다가, 1954년 4월 재단법인 繼遠學園을 설립하여 성북중학원을 토대로 성북중학교와 성북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어 1964년 1월에 재단법인을 학교법인으로 조직

변경하였는데, 1970년 9월에 학교법인 계원학원을 학교법인 弘益學園에서 흡수·합병하고 1972년 6월에 교명을 홍익고등학교로 변경하였다. 1977년 3월에 교명을 다시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른다.

1992년 4월 현재 학급수 36학급, 학생수 1,837명이 재학중이며, 교원 74명, 사무직원 8명이 재직중이다.

11) 東丘女子商業高等學校

동구여자상업고등학교는[13] 성북구 성북동 168-274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립 실업계 여자 고등학교이다.

이 학교는 1942년 6월 趙錫鳳이 종로6가에 설립한 3년제 東丘家政實修女學校로 출발하였다. 교명인 '東丘'는 東國·青丘·檀國 등과 같이 우리나라의 옛이름으로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민족의 얼을 되살리고자 하는 창립정신을 담고 있으나 설립 당시에는 동대문 위의 언덕에 있다는 의미로 핑계를 대 인가를 얻을 수 있었다. 1944년 1월에는 교명을 東丘女子商業專修學校로 변경하였다가, 1945년 10월에 東丘女子商業學校로 다시 변경하였으며, 동시에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받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광복 후 최초로 야간부를 병설하였다. 이어 1950년 2월에는 재단법인 東丘學園이 설립인가를 얻었으며, 같은 해 4월에는 동구여자상업중학교로 인가를 받게 되었다. 1954년 1월에는 동구여자중학교·동구여자상업고등학교로 분리·개편되었고, 1961년 3월에 현 위치로 校舍를 이전하여 오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1964년 학교법인 동구학원으로 법인조직이 변경되었고, 1969년 3월부터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 운영하게 되었으며, 1992년 6월에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東丘五十年史》를 발간하는 등 학교발전의 역사를 대내외에 알렸다.

1992년 4월 현재 학급수 51학급(상과 39, 정보처리과 12), 학생수 2,682명, 교원 96명, 사무직원 8명이 재직중이다.

---

13) 학교법인 동구학원《동구오십년사》1992 참조.

12) 誠信女子高等學校

성신여자고등학교는[14] 성북구 돈암동 산 11-269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립 일반계 여자 고등학교이다.

이 학교는 1936년 4월 李淑鍾이 당시 경운동에 있는 태화관에 설립한 誠信女學校로부터 출발하였다. 성신여학교는 당시 일제치하에 강요된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 위기에 있던 기독교 태화여학교를 여성교육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인수하여 개교하게 된 것이다. 설립 당시에는 수업연한 3년의 본과 이외에 고등과와 보수과를 두었는데, 고등과는 2년제의 중학교 속성과정으로 편성하였고, 보수과는 초등교육을 실시하였다. 당시 학생들은 대부분이 부인들이었고, 학생수가 늘어남에 따라 1937년 8월에는 학교를 견지동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1939년 3월에는 수업연한 3년의 성신가정여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았고, 1942년까지 고등과·보수과의 별과과정을 끝내고 3년제 정규 가정학교 과정만으로 정비되어 1944년 6월에는 돈암동 173-1번지에 교사를 신축하고 이전하였다. 1945년 3월에는 재단법인 康濟學園을 설립하고 日帝의 강요에 의하여 성신여자상업학교로 변경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광복과 함께 1945년 11월에 인문계로 개편하여 교명을 성신고등여학교로 하였으며, 1946년 9월에는 학제 변경에 따라 성신여자중학교로 개편되었다. 1948년 6월에는 재단 명칭을 성신학원으로 변경하였으며, 1951년 8월 교육법 개정에 따라 성신여자중학교와 성신여자고등학교로 분리·개편되었다. 이후 1964년 학교법인 성신학원으로 법인조직이 개편되었고, 1981년 2월에는 동선동2가 옛 성신여자사범대학 부속 여자고등학교가 있던 자리로 교사를 이전하였다가[15] 1984년 8월 현재의 위치로 교사를 이전하여 오늘에 이른다.

1992년 4월 현재 학급수 30학급, 학생수 1,570명, 교원 58명, 사무직원 9명이 재직중이다.

---

14) 성신여자고등학교《성신50년사》1986 참조.

15) 성신여자사범대학 부속 여자고등학교는 1969년 3월에 개교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1980년 2월 폐교되었다.

13) 貞陵女子商業高等學校

정릉여자상업고등학교는 성북구 정릉동 산 17-6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립 실업계 여자 고등학교이다.

이 학교는 1981년 3월 대일고등학교[16]의 2부에 여자상과 6학급을 편성한 것으로 출발하였다. 이어 1982년 12월에는 정릉여자상업고등학교로 정식 설립되었고, 1987년 3월에는 2부가 신설되었다. 현재는 상과·정보처리과·회계과·무역과로 편제되어 상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사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1992년 4월 현재 학급수 83학급, 학생수 4,266명이 재학중이며, 교원 93명, 사무직원 13명이 재직중이다.

14) 漢城女子高等學校

한성여자고등학교는 성북구 삼선동2가 392-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립 일반계 여자 고등학교이다.

이 학교는 광복 직후인 1945년 10월에 金義衡이 돈암동(현재 삼선동2가)에 소재하고 있던 기존 京城女子技藝學校를 인수하여 1946년 7월에 6년제 고등중학교인 漢城女學校로 출발하였다. 1951년 학제 변경에 따라 한성여자중학교와 한성여자고등학교로 분리되었다. 1953년 1월에는 재단법인 한성학원이 설립 인가를 받았고, 1964년 1월에 재단법인을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였다. 1986년 7월에 학칙 변경으로 현 건물로 교사를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개교와 동시에 취주악을 편성하여 교내외 행사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탁구와 연식정구 등의 체육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1992년 4월 현재 학급수 24학급, 학생수 1,253명이 재학중이며, 교원 45명, 사무직원 4명이 재직중이다.

16) 대일고등학교는 정릉동 16-1번지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강서구 등촌동으로 이전하였다.

3. 중 학 교

성북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는 1992년 4월 현재 17개교이며, 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4. 各種學校－中央僧伽大學

각종학교는 교육법 제81조에서 규정한 제1호 내지 제7호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정규학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력도 동일하게 인정받으나 정규학교와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17] 성북구 관내에는 각종학교로서 중앙승가대학이 위치하고 있다

〈표 1〉 성북구 관내 중학교 현황

학 교 명	소 재 지	설립별	성별	설 립 일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사 대 부 중	종암2동 19	국립	남	1946. 9. 1	24	1,276	50
삼 선 중 학	동소문동1가 140-1	공립	〃	1960. 12. 19	43	2,120	84
북 악 중 학	정릉동 640-3	〃	공학	1984. 1. 30	25	1,306	48
석 관 중 학	석관동 88-2	〃	〃	1982. 12. 9	43	2,172	81
월 곡 중 학	상월곡동 35-1	〃	〃	1986. 1. 17	27	1,436	52
장 위 중 학	장위동 산 3-86	〃	〃	1984. 12. 8	35	1,843	63
종 암 여 중	종암동 산 10	〃	여	1980. 4. 9	38	1,870	68
고 명 중 학	돈암동 45	사립	남	1955. 3. 15	18	938	32
남대문 중학	장위동 222	〃	〃	1934. 5. 10	30	1,579	52
서라벌 중학	돈암동 7	〃	〃	1956. 3. 5	32	1,691	57
용 문 중 학	안암동2가 96-1	〃	〃	1946. 11. 9	20	1,053	34
홍 대 부 중	성북동 150	〃	〃	1970. 9. 19	30	1,568	52
고 려 중 학	정릉동 산 1	〃	공학	1968. 3. 11	36	1,893	64
동 구 여 중	성북동 168-275	〃	여	1942. 6. 17	21	1,101	37
성 신 여 중	돈암동 173-1	〃	〃	1936. 4. 28	36	1,897	61
은 주 여 중	정릉동 산 17	〃	〃	1980. 12. 27	15	748	22
한 성 여 중	삼선동2가 389	〃	〃	1945. 9. 25	30	1,551	51

※ 사대부중＝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홍대부중＝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17) 서울特別市教育廳・서울教育發展委員會《오늘의 서울 教育》1991 p.68.

中央僧伽大學은[18] 성북구 안암동5가 15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4년제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로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승려전문교육기관이다. 따라서 부처님의 정신에 입각하여 僧伽의 화합정신을 體得하고 불교 및 관련분야의 깊은 修學과 실천방법을 教授研究하여 한국 불교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며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을 치유하고 教授할 善知識을 양성함을 설립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 학교는 1979년 2월 경기도 의정부시의 쌍룡사에서 성문스님 등이 중앙승가학원 설립을 발기하여, 3월에 돈암동 소재 보현사를 學舍로 하여 연수부 30명, 교양부 30명을 모집하여 개교하였다. 이어 1980년 1월에는 학교명을 중앙승가대학으로 개칭하고 2년제 과정으로 개편하였으며, 연수부와 교양부를 폐지하고 종교학과를 설치하였으며, 초대학장에 姜昔珠스님이 취임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성동구 구의동 영화사를 인수하여 기숙사로 사용하였으며, 1981년 3월에 開運寺로 이전하고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동시에 종교학과를 불교학과로 개편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총회에서 '종립중앙승가대학설치령'이 발효되어 종립학교로 지정된 후 운영권이 종단에 이양되었다. 1982년 2월에는 한국비구니대학을 흡수 병합하였고, 이해 12월에는 2년제를 4년제로 연장함과 동시에 사회복지과를 증설하였다. 1984년 1월 개운사와 보타사를 학교 부속사찰로 귀속, 1985년 11월 개운학사 준공, 1988년 6월에 학교 재정지원 사찰로 봉은사 지정 등 학교 발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989년 7월에는 학교법인 승가학원의 설립이 인가되었고, 1990년 2에 문교부로부터 4년제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았으며, 이어 1991년 3월에는 교육부로부터 4년제 대학학력을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현재 불교학과와 사회복지학과로 편제되어 있으며, 부속기관으로 기숙사·학보사·불교중앙도서관·전산교육원·보육사교육원·행원문화재단 등이 있으며, 송파구 소재 삼전종합사회복지관도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1992년 4월 현재 제10회까지 졸업생 총 379명을 배출하였으며, 300여 학승들이 학문탐구와 함께 수행 정진중이다.

---

18) 중앙승가대학《중앙승가대학요람》1992 참조.

5. 국민학교

성북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민학교는 1992년 4월 현재 22개교이며, 그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6. 특수학교－서울명수학교

특수학교는 심신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알맞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

〈표 2〉 성북구 관내 국민학교 현황

학 교 명	소 재 지	설립별	설 립 일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길 음 국 교	길음2동 산 66-10	공립	1985. 3. 5	29	1,151	35
돈 암 국 교	동소문동6가 27-1	〃	1944. 9. 30	36	1,524	43
동 신 국 교	보문동3가 산 11	〃	1948. 11. 1	42	1,818	50
미 아 국 교	길음동 1168	〃	1962. 3. 28	64	2,966	77
삼 선 국 교	삼선동3가 30-4	〃	1949. 9. 1	47	2,015	58
석 관 국 교	석관동 205	〃	1971. 12. 3	67	3,412	78
성 북 국 교	성북동 66	〃	1946. 9. 9	29	1,177	35
숭 곡 국 교	하월곡동 87-1	〃	1972. 6. 20	51	2,234	63
숭 덕 국 교	정릉동 173	〃	1945. 5. 14	68	3,164	79
숭 례 국 교	종암동 22	〃	1922. 6. 8	69	3,484	82
숭 인 국 교	하월곡동 87	〃	1937. 4. 1	57	2,634	70
안 암 국 교	안암동2가 93	〃	1956. 3. 24	28	1,106	33
월 곡 국 교	장위동 264	〃	1972. 7. 14	57	2,605	68
장 곡 국 교	장위동 235	〃	1978. 3. 21	60	2,967	71
장 위 국 교	장위동 68-2	〃	1946. 12. 11	70	3,360	86
정 덕 국 교	동소문동7가 118-1	〃	1946. 11. 1	21	915	24
정 릉 국 교	정릉동 798	〃	1985. 7. 10	25	1,181	30
정 수 국 교	정릉동 431-62	〃	1986. 1. 17	23	881	28
청 덕 국 교	정릉동 산 1-69	〃	1967. 11. 30	49	2,227	59
광 운 국 교	장위동 124	사립	1965. 3. 5	24	1,142	26
대 광 국 교	보문동7가 111	〃	1965. 12. 1	18	893	22
매 원 국 교	돈암동 45	〃	1963. 12. 5	16	755	19
성 신 부 국	돈암동 산 11-268	〃	1965. 3. 8	18	889	22
우 촌 국 교	돈암동 606-49	〃	1965. 3. 24	18	819	21

※ 성신부국＝성신여대 사범대학 부속 국민학교.

하여 설립한 盲學校·聾學校·精神遲滯學校·肢體障碍學校·情緖障碍學校 등 특수교육기관을 말한다. 심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보호 위주의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다가 1949년 교육법의 제정·공포로 법적인 교육대책이 마련된 것이다.[19] 성북구 관내에는 특수학교로서 서울명수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서울명수학교는[20] 성북구 성북동 226-223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정신지체아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로 지능이 낮아 일반학교에서 수학이 어렵고, 사회적응능력이 낮은 어린이들을 헌신적인 사랑과 교육을 통해 이들의 잠재능력을 최대로 신장시켜 사회에 복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교는 1968년 3월에 최경순이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에는 3학급 45명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학급 증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1974년에는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1982년 4월에는 현 위치로 교사를 신축·이전하였고, 1988년 3월에는 서울시교육위원회로부터 특수교육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1992년 4월 현재 학생수 157명(남 99, 여 58)이며, 교직원 19명이 재직중이다.

7. 유 치 원

유치원은 만 4세부터 국민학교 취학 이전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으로 서울에는 1910년 이후에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유아교육 및 조기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일반화됨에 따라 많은 유아들이 유치원 교육을 받고 있다. 특히 1980년초 이후 유치원의 양적 팽창과 就園率의 급격한 상승으로 유아교육은 이제 보편화 되고 있다.

〈표 3〉 성북구 관내 유치원 현황

학교수			학급	원아수			교원수	기타 직원수	입원자수			수료자수			교실수
계	공립	사립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74	3	71	125	4,299	2,336	1,963	204	77	3,113	1,684	1,429	3,379	1,797	1,582	196

※資料 : 성북구청《성북통계연보》1991年版.

19) 앞책《오늘의 서울 教育》p.76.

20) 서울명수학교 1992년도 학교교육계획 참조.

성북구 관내에도 삼선국민학교 병설 유치원을 비롯한 공립유치원과 많은 수의 사립 유치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참고로 1991년 4월 현재 성북구 관내 유치원 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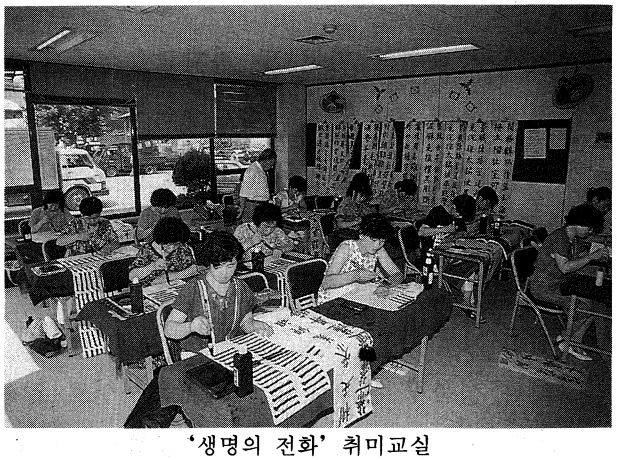
8. 사회교육시설

사회교육은 건전한 국민으로서의 자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교육과 교양교육, 직업·기술 및 전문교육 등의 영역을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학교교육과는 달리 실시 주체와 대상, 교육목적과 내용, 교육과정, 방법 등이 매우 다양하다. 특히 학교교육의 제한점을 보완·확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지식과 기능의 폭발적인 증대로 급변하는 현사회에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회교육시설은 크게 일반사회교육시설·학교형태 사회교육시설·종합사회교육시설·사설학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사회교육시설은 학습비가 무료이거나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교실, 주부교실 등이 이에 해당된다.[21]

학교형태 사회교육시설은 교육과정 및 시설·설비 등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로, 설립자의 대부분은 개인이며 불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생명의 전화' 취미교실

종합사회교육시설은 대규모 사회교육시설로 직업교육, 위탁교육, 연수교육 등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교육시설을 말한다. 이처럼 시설을 통한 사회

21) 이에 대해서는 第9章 2. 社會福祉의 청소년·부녀·노인복지 부분 참조.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는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각종 회관 등이 있다.[22]

사설학원 및 과외교습소는 사회교육시설 중 절대적인 수를 차지한다.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同 施行令에 의거 私人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사설학원은 일제 말기에 처음 생긴 것으로 행정당국의 인가에 의한 지도·감독을 받게 된 것은 1957년 '사설 강습소 규칙'이 제정된 이후부터이다. 원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중도 퇴학한 사람들에게 학교교육을 보충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 배출의 일익을 담당하는 사회교육기관으로 보급되었지만 시대조류에 따른 사회교육적 요구의 증대로 학원의 종류도 다양해졌고 학원의 수나 수강생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考試·入試 등 文理系列, 기계·전기 등의 技術系列, 미술·음악 등의 藝能系列, 조리·꽃꽂이 등의 家庭系列, 경리·타자 등의 事務系列, 독서 등의 계열이 있다.

과외교습소는 기술·예능 등 국민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을 학원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하는 곳이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신고절차를 거쳐 과외교습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강사를 따로 둘 수 없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이 10인 미만(피아노-4인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학원 및 과외교습소에서 인가 외의 교습과정으로 운영하거나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여 교습수준의 질적 저하를 가져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성북구 관내에는 사회교육시설로 학교형태 사회교육시설이나 종합사회교육시설은 소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교육시설의 확충이 요청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 등의 종합사회교육시설의 설립이 지역사회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성북구 관내에도 사회교육시설로 많은 사설학원과 과외교습소가 설립되어 있다. 참고로 성북구 관내 사설학원 및 과외교습소 현황을 살펴보면 〈표 4〉

22) 서울特別市教育廳·서울教育發展委員會《오늘의 서울 教育》1991 pp.72-74.

와 같다.

〈표 4〉 성북구 관내 사설학원 및 과외교습소 현황

	강습 소수	수강자수		이수자수		강 사 수		직 원 수		수강기간		월수강료(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최장	최단	최 고	최 저
계	594	32,991	15,409	58,028	34,008	587	415	561	332	12	1	100,000	10,000
문 리 계	5	3,220	1,380	15,600	6,340	36	6	23	12	12	1	100,000	10,000
기 술 계	52	2,704	910	4,056	2,570	60	38	40	20	12	1	68,700	16,800
예 능 계	97	3,880	2,376	3,977	2,522	106	93	29	26	12	1	100,000	15,000
사 무 계	322	18,711	9,382	34,395	22,576	385	278	212	156	12	1	70,000	15,000
기 타 (독서실)	118	4,476	1,361	—	—	—	—	257	118	12	1	70,000	35,000

※ 資料 : 성북구청《성북통계연보》1991年版 참조.

〈鄭 希 仙〉

第9章　社會·文化

Ⅰ. 社　會

1. 人口動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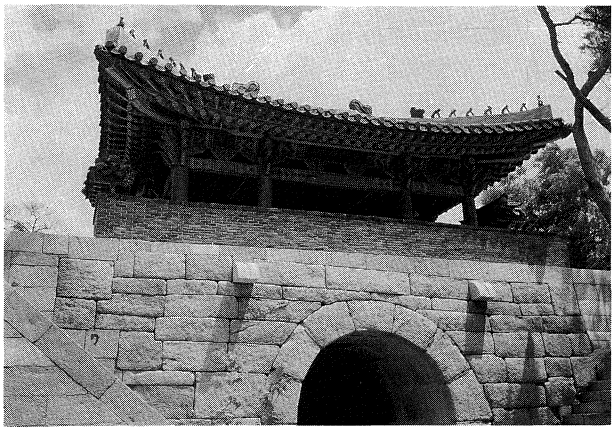
城北區는 1949년 8월 13일자 大統領令 제159호에 의해 설치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성북구를 이루고 있는 지역은 옛날부터 서울의 城外地域으로 포함되어 왔다. 즉 朝鮮 太祖 5년(1396)에 漢城府의 5部 坊里名을 정하여 境界標石을 세울 때부터 東部의 崇信坊·仁昌坊에 속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서울의 번영이 都城 안에서만 머물렀던 까닭에 인구는 비교적 희소하였던 곳이다.[1] 이 곳에 인구가 많지 않았던 것은 이 지역이 서울의 4大門의 하나인 北門(肅靖門)의 바깥쪽에 위치하였던 것과도 관련이 된다. 숙정문은 이 문을 열어두면 임금의 거처인 景福宮의 팔을 자르는 것이 되며, 장안의 여자들이 음란해진다는 風水說과 俗說로 인해 거의 閉門되다시피 하였기 때문에,[2] 다른 대문 바깥에는 마을과 저자가 생겨 사람들의 움직임이 활발했어도, 이 곳은 한적한 곳으로 남아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지역은 그 地形이 北漢山·貞陵山·駱山·開運山 등의 산과 지금 아리랑고개·미아리고개라 불리우는 구릉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사이 城北川·貞陵川邊 등의 低地帶가 형성되어 있어서 자연풍광은 매우 아름다운 곳으

1) 참고로 世宗年間의 漢城府 인구통계를 보면 도성 안은 103,328명인데 비해 도성으로부터 10里 내외의 城底十里의 인구는 겨우 6,044명 밖에 되지 않았음을 볼 때 도성 밖의 지역은 少數의 주민들이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世宗實錄 卷40, 世宗 10年 閏4月 己丑條 참조.

2)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文化史蹟篇, 1987, p.439.



북문에 해당하는 숙정문

로 아낌을 받아왔으나, 저지대를 제외하고는 험한 지역으로 사람이 살기에 적당치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이 지역의 토양은 전형적인 花崗岩 風化地形으로 인해 생긴 '마사'라고 불리는 모래흙으로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 마을이 형성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조선시대에는 암자와 산도둑의 소굴이 뜸뜸이 있는 바위와 구릉과 산으로 오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이 곳에 御營廳의 北屯을 설치하여 군인들과 이와 관련된 민간인들을 살게 하였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삼선교·종암동 일대의 평지가 1884년경까지 新兵 練兵場으로 남아 있었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인구가 많은 지역은 아니었던 것이다.[3]

이후 日帝强占期에는 이 지역은 高陽郡 崇仁面[4]으로 편제되어 京畿道 관할이 되었고, 日帝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하여 인구가 점차 늘어났다. 일제 때의 이 지역 인구는 京城府 행정구역 확장을 위한 사전조사자료[5]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1916년의 숭인면 중 신설리·용두리·안암리·제기리·청량리·전농리·답십리·종암리·돈암리·성북리·정릉리만의 인구규모를 살펴보면 戶口 1,745호, 인구 7,547명으로 이때 京城府 전체의 호구수가 58,082호, 인구가 253,068명임을 감안하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숭인면 전체의 인구규모는 1928년에 4,593호, 22,185명이던 것이 1933년에는 7,416호, 36,797명으로, 1928년을 기준(=100)으로 할 때 인구증가지수가 165.8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경성부의 인구

3) 建設部 國立地理院, 『韓國地誌』 地方篇 1(서울·仁川·京畿), 1984, pp.295~297.
뿌리깊은나무, 『한국의 발견』 1 서울편, 1983, pp.226~230.

4) 崇仁面에는 성북리·신설리·안암리·종암리·미아리·돈암리·정릉리·번리·수유리·우이리·답십리·전농리·청량리·회기리·휘경리·이문리·장위리·석관리·상월곡리·하월곡리·제기리·용두리가 편제되어 오늘날의 성북구·도봉구와 동대문구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5) 京城府, 『京城都市計劃資料調査書』, 1932 및 『京城府行政區域擴張調査書』, 1934 참조.

증가지수가 118.8, 高陽郡內 龍江面이 159.9, 延禧面이 137.7이었던 것과 견주어 볼 때 이 지역의 인구증가추세가 컸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앞서 1916년의 인구규모를 살펴본 숭인면 중 신설리·용두리·안암리·제기리·청량리·전농리·답십리·종암리·돈암리·성북리·정릉리 등의 인구는 숭인면 전체인구의 절반을 늘 웃돌아 서울에 보다 근접한 지역적 특성과 함께 인구규모면에서도 서울에의 편입대상으로 두드러져 보였던 것이다.

따라서 1936년 경성부 구역확장에 따라 숭인면 중 안암리·성북리·신설리·종암리·돈암리·답십리·전농리·청량리·회기리·휘경리·이문리·제기리·용두리 지역은 다시 서울로 먼저 편입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 먼저 서울로 재편입된 지역을 중심으로 근대적 도시로의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1934년에 제정 공포된 朝鮮市街地計劃令으로 1939년에 京城府 전역에 걸쳐 都市計劃이 시행되었는데, 이때 이 지역에는 「敦岩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이 실시되어 주택지 개발·공공시설 확보·도로 개설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 돈암지구는 삼선동·동소문동·돈암동·안암동 일대의 저지대를 구획하여 완전한 住居地區로 정리되어[6] 日帝强占期 말까지 정연한 中上流의 住宅區를 이루어 인구증가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이와 동시에 도로를 확장하여 電車路線을 돈암동까지 연장하여 교통이 편리해진 것도 경성부 도심과 가까운 위치라는 장점과 함께 인구증가의 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성북구 지역에 본격적인 인구증가가 이루어진 것은 광복 이후이다. 광복 이후 이 지역은 서울의 팽창을 막바로 받아들이는 주택지역으로서, 1949년 8월 서울의 행정구역 확장에 따라 1936년에 먼저 편입되어 있던 지역과 고양군 숭인면의 새로 편입된 지역을 합하여 새로이 城北區로 설치되었던 것이다. 설립 직후인 1949년 9월말 현재 성북구의 인구는 144,647명(남 72,091, 여 72,556)으로 서울의 9개 區 중 인구가 가장 적은 동대문구에 이어 두번째로 작은 구였다.[7]

곧이은 6·25동란으로 주민들이 피난하는 등 인구가 격감하였다가 휴전 성립 후에야 정상적인 규모를 살필 수 있는데, 성북구는 1956년까지는 서울 9개 구 중

6) 建設部 國立地理院 앞의 책 p.297 및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계획연혁』, 1991, pp.126~129 참조.
7) 서울特別市, 『市勢一覽』, 1950年版.

인구규모가 8, 9위에 머무르다가 1957년과 1958년에 7위로 오른 후부터 1962년까지 인구규모 5위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차츰 인구가 증가되어가는 양상을 보였다.[8] 이는 인구증감율에서도 확인되는 바 〈표 5〉에서 이 기간의 성북구 인구증감율은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서울시 전체 평균증가율을 항상 웃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1950년대 후반의 성북구의 인구증가는 6・25동란 후에 전반적인 서울인구의 증가와 함께 이 지역—특히 돈암동에서 미아리 일대・삼양동에서 수유리에 이르는 북한산 동쪽 구릉지대와 하월곡동 등 성북천・정릉천변—에 피난민을 비롯한 이주민들이 잡다한 무허가건물을 집단으로 짓고 들어서 이른바 不法定着地區(squatterd area)를 곳곳에 형성하였던 것도 한 요인으로 생각된다.[9] 반면 인구밀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성북구의 면적은 서울 9개 구 중에서 서대문구—성동구에 이어서 3번째로 컸기 때문에, 이 기간의 m^2당 인구밀도는 늘 서울시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10]

이어 1963년 1월에는 서울시 행정구역이 다시 크게 확장되었는데 이때 京畿道 楊州郡 蘆海面의 창동리・월계리・공릉리・하계리・중계리・상계리・도봉리・방학리・쌍문리가 성북구에 편입되어 蘆海出張所 관할로 편제되었다. 따라서 성북구는 이 구역확장으로 지금의 도봉구・노원구의 구역까지를 포함하게 된 것이다. 구역확장 후의 성북구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이후 넓어진 성북구 지역에 인구유입이 계속 되었다. 이는 1960년대 이후 이 지역이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본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즉 성낙원 언저리의 주택단지, 대교단지 등 성북동・정릉동・동선동 일대는 1960년대 現代 都市化過程에서 중・상류 주택지화 하였고 이 시기에 미아지구와 종암동 일대에도 주택지가 형성되었으며, 1966년부터는 장위동 일대도 택지가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니 1980년까지의 성북구 주택건축의 44%가 1960～1969년에 이

8) 서울特別市, 『市勢一覽』, 1950～1956, 1958～1960年版 및 서울特別市, 『서울통계연보』, 1961～1963年版 참조.

9) 뿌리깊은나무 앞의 책 p.228 및 건설부 국립지리원 앞의 책 p.297.

10) 註 9)와 同.
1962년의 경우를 예로 하면 m^2당 서울시 평균 인구밀도는 5,001명인데 비해 성동구 평균 인구밀도는 3,713.9명으로 성동구・영등포구와 함께 인구밀도가 낮은 구였다.

〈표 1〉 1963년말 현재 성북구 인구현황

區分 / 地域名	人口 計	男	女	家口	區分 / 地域名	人口 計	男	女	家口
계	386,364	191,054	195,310	70,283	安岩洞三街	4,867	2,422	2,445	876
城北洞	19,303	9,557	9,746	3,374	安岩洞四街	2,362	1,169	1,193	398
城北洞一街	2,652	1,201	1,451	430	安岩洞五街	1,188	5,748	6,140	2,147
敦岩洞	42,517	1,260	21,257	8,026	鍾岩洞	25,284	12,733	12,551	4,768
三仙洞一街	6,181	2,926	3,255	1,133	貞陵洞	43,208	21,124	22,084	7,863
三仙洞二街	4,888	2,374	2,514	860	彌阿洞	88,911	44,648	44,263	16,799
三仙洞三街	11,122	5,562	5,560	1,946	下月谷洞	15,658	7,819	7,839	2,874
三仙洞四街	3,036	1,349	1,687	504	上月谷洞	1,764	884	880	319
三仙洞五街	4,668	2,181	2,487	757	石串洞	2,528	1,291	1,237	421
東小門洞一街	1,763	838	930	309	長位洞	9,222	4,539	4,683	1,608
東小門洞二街	1,555	735	820	304	牛耳洞	1,582	766	816	286
東小門洞三街	751	363	388	138	水踰洞	10,057	4,883	5,174	1,774
東小門洞四街	1,794	860	934	333	樊洞	2,843	1,403	1,440	529
東小門洞五街	1,960	918	1,042	337	倉洞	3,312	1,653	1,659	593
東小門洞六街	3,950	1,959	1,991	707	月溪洞	2,282	1,194	1,088	404
東小門洞七街	3,267	1,573	1,694	544	双門洞	4,145	2,079	2,066	748
東仙洞一街	4,001	1,933	2,068	678	孔陵洞	6,012	3,097	2,915	921
東仙洞二街	4,760	2,198	2,562	827	上溪洞	1,434	725	709	247
東仙洞三街	3,742	1,717	2,025	639	下溪洞	2,978	1,518	1,460	508
東仙洞四街	3,406	1,631	1,775	604	中溪洞	1,410	733	677	240
東仙洞五街	4,230	2,041	2,189	768	道溪洞	3,610	1,815	1,795	665
安岩洞一街	3,804	1,860	1,944	685	放鶴洞	1,406	737	669	240
安岩洞二街	6,244	3,038	3,206	1,152					

(資料) 서울특별시, 『서울통계연보』, 1964年版.

루어졌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주택지의 개발과 함께 한편으로는 1960년경부터 시작된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강제 철거를 당한 주민들이 집단으로 현재의 미아동 거의 전부와 상계동·중계동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어[11] 이도 인구증가를 가져왔다. 따라서 성북구의 인구는 서울시 전체 인구증가율을 항상 웃돌아 1960년에 대비해서 1966년에는 2배로 급증하였고, 1970년에는 거의 4배에 가까운 인구증가를 보였다(〈표 5〉 참조).

11) 건설부 국립지리원 앞의 책 p.298 및 뿌리깊은나무 앞의 책 p.228 참조.

이어 1970년대 전기 江南地域 개발이 본격화 되었을 무렵, 江北에서는 계속해서 수유동 방면에서 장위동・석관동 방면으로 시가지가 크게 확장되어 북쪽으로 창동・도봉동으로, 남쪽으로는 상월곡동・하월곡동・석관동 등이 택지화되어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었다.[12] 이 시기 성북구의 인구는 서울 9개 區 중 영등포구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으며, 도심의 종로구・중구의 5, 6배에 달하게 되었다. 특히 수유동・우이동・도봉동 등 지역의 인구가 급증하고 개발도 진행중이어서 계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어 分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1973년 7월에 성북구에서 도봉구가 분리・독립하기에 이르렀다. 분리되어 나간 도봉구는 면적이나 인구면에서 本區인 성북구보다 규모가 커서 성북구는 이 때의 조정으로 크게 축소되어 서울 11개 區 중 면적과 인구규모 모두 7번째가 되었다. 분구 전후의 성북구 인구규모를 살펴보면 다음 〈표 2〉 〈표 3〉과 같다.

또 1975년 10월에는 성북구와 인근 동대문구・도봉구와의 사이에 區域 변경이 있었다. 이것은 대개 지리적 관계에 의한 것인데, 모든 경계를 지리적 여건에 맞추어 조성하되 區域的 주민의 일상생활권을 크게 참작하여 종래의 區境界 중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한 것이다.[13] 따라서 이 때의 구역조정으로 성북구는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에 의해 동대문구・도봉구와의 구역이 확정되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 조정 후의 성북구 인구규모를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이후의 성북구의 인구동태 추이를 〈표 5〉의 對前年比를 통해서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 증가율을 밑돌고 있음은 물론, 1977년을 경계로 완만하게 계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먼저 강북에 위치한 대부분의 區와 마찬가지로 1970년대 후반 이후 서울시의 도시개발 방향이 강남지역 개발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에 따라 인구이동의 방향도 江北에서 江南으로 급속도로 진행되어 강북에서 강남으로 인구집중이 일어났던 점과 관련된다.

두번째로는 이 지역이 도심과 변두리 사이에 낀 중간지역으로서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인구성장이 끝난 안정된 주거지역으로서의 성격이 정착된 점과 관련된

12) 건설부 국립지리원 앞의 책 p.298.
13) 羅恪淳,「서울特別市 洞行政變遷考(中)」,『鄕土서울』, 제43호, 1985, p.165.

〈표 2〉 1972년 현재 성북구 인구현황

동 명	인 구			가구수	동 명	인 구			가구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109,850	553,583	556,267	219,645	미아제5동	20,441	10,828	9,613	4,013
성북제1동	8,796	4,110	4,686	1,578	미아제6동	25,346	12,673	12,673	5,072
성북제2동	16,556	8,277	8,279	3,061	미아제7동	23,115	11,796	11,319	4,466
동소문동	17,988	8,750	9,238	3,478	미아제8동	19,399	9,852	9,547	3,829
삼선제1동	9,433	4,406	5,027	1,792	미아제9동	36,539	18,080	18,459	6,694
삼선제2동	12,668	6,283	6,385	2,334	미아제10동	20,664	9,990	10,674	4,023
삼선제3동	17,211	8,425	8,786	3,351	번 동	25,697	12,873	12,824	5,475
동선제1동	14,733	6,912	7,821	2,612	수유제1동	51,665	26,177	25,488	10,193
동선제2동	11,569	5,373	6,196	2,180	수유제2동	37,031	18,716	18,315	7,046
돈암제1동	31,595	15,925	15,670	6,398	하월곡제1동	21,221	10,094	11,127	4,251
돈암제2동	18,836	9,403	9,433	3,653	하월곡제2동	53,153	27,853	25,300	10,967
안암제1동	16,860	8,122	8,746	3,284	상월곡동	15,226	7,409	7,817	2,987
안암제2동	12,418	6,153	6,265	2,357	장위제1동	23,444	10,901	12,543	4,691
정능제1동	22,267	10,808	11,459	4,496	장위제2동	27,356	13,192	14,164	5,287
정능제2동	19,571	9,429	10,142	3,681	석관동	37,543	18,419	19,124	8,355
정능제3동	22,645	11,146	11,499	4,265	창 동	36,552	19,810	16,742	7,649
정능제4동	29,707	14,756	14,951	5,825	쌍문동	31,858	15,556	16,302	6,220
종암제1동	23,095	11,232	11,863	4,619	공릉동	21,305	10,866	10,439	3,983
종암제2동	28,431	13,979	14,452	5,671	상계제1동	17,262	8,795	8,467	3,542
미아제1동	21,007	10,128	10,879	4,243	상계제2동	19,933	9,867	10,066	4,213
미아제2동	31,071	15,531	15,540	6,094	상계제3동	42,768	22,248	20,520	8,940
미아제3동	34,579	16,999	17,580	6,737	중계동	23,724	12,101	11,623	4,761
미아제4동	18,548	8,910	9,638	3,594	도봉동	39,016	20,430	18,586	7,685

(資料) 서울特別市, 『서울통계연보』, 1973年版.

다 하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북구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전반기에 가장 활발하게 개발되었고,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부터는 주택건축 등 개발이 위축되기 시작하여 더 이상의 인구증가 요소는 없었던 것이다. 반면 인근의 도봉구와 노원구는 계속적인 개발로 강북에서의 인구이동을 주도하였던 것과 대조되는 사실이다. 주거지역으로서 성북구가 갖는 또 하나의 특색은 강남의 주거지역과는 달리 단독주택을 단위로 성장하였다는 점이다. 최근 아파트가 散在的으로 들어서고 있으나 강남지역과 같이 大團地化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서 대량의 인구유입도 없었다. 이러한 점이 성북구 인구동태가 안정되게 된 요인들이라 생각된다.

〈표 3〉 1973년 10월 현재 성북구 인구현황

동 명	인 구			가구수	동 명	인 구			가구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516,671	253,157	263,514	100,384	정 능 제 1 동	22,456	11,009	11,447	4,495
성 북 제 1 동	8,550	3,999	4,551	1,557	정 능 제 2 동	20,081	9,804	10,277	3,730
성 북 제 2 동	16,837	8,389	8,448	3,082	정 능 제 3 동	22,835	11,409	11,426	4,388
동 소 문 동	17,759	8,633	9,126	3,475	정 능 제 4 동	29,911	14,784	15,127	5,787
삼 선 제 1 동	9,289	4,334	4,955	1,739	종 암 제 1 동	22,661	11,079	11,582	4,471
삼 선 제 2 동	12,053	5,939	6,114	2,185	종 암 제 2 동	28,437	14,005	14,432	5,761
삼 선 제 3 동	17,282	8,405	8,877	3,397	하월곡제1동	19,743	9,518	10,225	4,063
동 선 제 1 동	13,588	6,462	7,126	2,556	하월곡제2동	16,021	8,040	7,981	3,108
동 선 제 2 동	11,030	5,211	5,819	2,171	하월곡제3동	37,348	19,011	18,337	6,823
돈 암 제 1 동	30,928	15,373	15,555	6,056	상 월 곡 동	15,363	7,547	7,816	3,116
돈 암 제 2 동	18,683	9,334	9,349	3,626	장 위 제 1 동	25,091	11,871	13,220	4,830
안 암 제 1 동	18,446	8,875	9,571	3,720	장 위 제 2 동	28,707	13,750	14,957	5,533
안 암 제 2 동	10,593	5,256	5,337	1,956	석 관 동	42,979	21,120	21,859	8,759

(資料) 서울特別市, 『서울통계연보』, 1974年版

그리고 이는 轉入과 轉出 관계를 살펴보면 보다 분명하게 이해되는데 1991년의 경우 성북구의 1일 평균 전출 : 전입의 비는 397명 : 352명으로 전출이 전입을 앞지르고 있어 완만한 인구감소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인구밀도에 있어서는, 성북구는 1960년대에 주거지역으로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졌던 것과 관련하여 1960년대 말까지는 서울시 평균 인구밀도를 밑돌아 인구밀도가 그리 높지 않은 지역이었으나, 개발의 진행과 아울러 인구유입이 이루어져 인구밀도도 높아져 1970년을 경계로 서울시 평균 인구밀도를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이어 1973년에는 성북구에서 도봉구가 분리되어 나가면서 면적이 대폭 축소되어 인구밀도는 더욱 높아져 m^2당 22,108명으로 서울시 평균 인구밀도 10,030명의 두배를 넘어섰으며, 마포구-동대문구에 이어 세번째로 인구밀도가 높은 구였다. 또 1975년에는 인접구와의 구역 조정으로 인구밀도가 24,360명으로 더욱 높아져 중구에 이어 두번째로 인구밀도가 높은 구가 되었다. 이후 성북구는 구역 조정도 없었고, 1970년대 후반 이후 인구수가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임에 따라 인구밀도도 점차 낮아져 1991년 현재는 22,326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는 서울시 평균 18,014명을 上廻하여 서울시 22개 區 중 8위로서, 성북구는 아직도 인구밀도가 높

〈표 4〉 1975년 현재 성북구 인구현황

동 명	인 구			가구수	동 명	인 구			가구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604,852	299,319	305,533	124,004	종암제1동	23,670	11,921	11,749	4,721
성북제1동	8,457	4,220	4,237	1,586	종암제2동	25,975	12,793	13,182	5,346
성북제2동	15,942	7,854	8,088	3,064	하월곡제1동	20,933	10,149	10,784	4,281
동소문동	16,740	8,225	8,515	3,453	하월곡제2동	15,583	7,819	7,764	3,307
삼선제1동	9,687	4,837	4,850	1,926	하월곡제3동	18,146	9,280	8,866	3,770
삼선제2동	12,301	6,135	6,166	2,429	하월곡제4동	18,062	9,340	8,722	3,613
삼선제3동	17,171	8,387	8,784	3,556	상월곡동	16,040	8,062	7,978	3,290
동선제1동	13,199	6,369	6,830	2,642	장위제1동	30,096	14,822	15,274	6,019
동선제2동	11,149	5,202	5,947	2,342	장위제2동	31,589	15,418	16,171	6,494
돈암제1동	27,818	14,109	13,709	5,773	석관제1동	27,628	13,787	13,841	5,771
돈암제2동	18,077	9,051	9,026	3,601	석관제2동	17,140	8,283	8,857	3,767
안암제1동	17,243	8,541	8,702	3,679	길음동	16,481	7,935	8,546	3,842
안암제2동	7,179	3,635	3,544	1,480	인수동	29,210	14,467	14,743	6,028
정능제1동	21,825	11,100	10,725	4,522	송천동	22,782	11,139	11,643	4,594
정능제2동	19,965	9,647	10,318	4,128	보문제1동	11,300	5,556	5,744	2,376
정능제3동	21,957	10,789	11,168	4,326	보문제2동	11,666	5,586	6,080	2,335
정능제4동	29,806	14,826	14,980	5,943					

(資料) 서울特別市, 『서울통계연보』, 1976年版

은 편에 속한다고 하겠다.[14]

한편 성북구 관내의 인구밀도 상황은, 성북구에 대해 '서울의 주거지역의 다양성을 축소시켜 보여주는 진열장'이라[15] 비유하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즉 성북구 관내에서 중·상류 주택가를 형성하고 있는 성북2동·정릉3동·정릉4동 등은 m^2당 인구밀도가 1만명 이하로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반면, 6·25동란 이후 무허가건물이 집단으로 들어서 서울의 문제성 많은 주거지역으로 손꼽혀왔던 길음1·2·3동과 월곡3·4동, 장위3동 등은 인구밀도가 5만명 내외로 아주 높은 지역으로 구별되고 있는 것이다.[16] 특히 월곡3동과 장위3동은 m^2당 인구밀도 6만명을 넘는 고밀도지역에 속하고 있다. 참고로 1991년 현재 성북구 각 동별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14) 서울特別市, 『서울통계연보』, 1961~1992年版 참조.

15) 뿌리깊은나무 앞의 책 p.228.

〈표 5〉　1950~1991년의 성북구 인구추이

구 분	성북구				서울시	
	계	남	여	前年比	계	前年比
1950	151,386			104.5	1,693,224	103.9
1951	51,840			34.2	648,432	38.2
1952	55,710	25,099	30,611	107.4	716,865	110.5
1953	57,984	26,088	31,896	104.0	757,380	105.6
1954	92,317	43,570	48,747	159.2	1,242,880	164.1
1955	131,549	62,694	68,855	142.4	1,428,060	114.8
1956	140,614	67,807	72,807	106.8	1,509,289	105.6
1957	164,448	79,799	84,649	116.9	1,671,563	110.7
1958	179,435	87,498	91,937	109.1	1,762,129	105.4
1959	242,289	119,178	123,109	135.0	2,100,054	119.1
1960	264,981	132,511	132,470	109.3	2,444,883	116.4
1961	288,212	141,656	146,556	108.7	2,577,018	105.4
1962	341,902	169,625	172,277	118.6	2,983,324	115.7
1963	386,364	191,054	195,310	113.0	3,254,630	109.0
1964	421,719	208,459	213,260	109.1	3,424,385	105.2
1965	441,075	217,157	223,918	104.5	3,470,880	101.3
1966	520,303	259,136	261,167	117.9	3,793,280	109.2
1967	570,378	280,930	289,448	109.6	3,969,218	104.6
1968	688,998	340,766	348,232	120.7	4,334,973	109.2
1969	791,885			114.9	4,776,928	110.2
1970	979,584	489,608	489,976	123.7	5,433,198	115.6
1971	1,062,696	530,320	532,376	108.4	5,850,925	105.8
1972	1,109,850	553,583	556,267	104.4	6,076,143	103.8
1973	516,671	253,157	263,514	46.5	6,289,556	103.5
1974	521,459	256,123	265,336	100.9	6,541,550	104.0
1975	604,732	299,534	305,198	115.9	6,889,502	105.3
1976	613,619	302,475	311,144	101.4	7,254,958	105.5
1977	595,917	293,855	302,062	97.1	7,525,629	103.7
1978	593,275	293,313	299,962	99.5	7,823,195	103.9
1979	592,026	293,465	298,561	99.7	8,114,021	103.7
1980	588,572	291,906	296,666	99.4	8,364,379	103.0
1981	589,534	290,031	299,503	100.1	8,676,037	103.7
1982	587,878	290,603	297,275	99.7	8,916,481	102.7
1983	589,356	294,580	294,776	100.2	9,204,344	103.2
1984	586,718	294,110	292,608	99.5	9,501,413	103.2

구 분	성 북 구				서 울 시	
	계	남	여	前年比	계	前年比
1985	583,993	291,380	292,613	99.5	9,639,110	101.4
1986	583,272	292,435	290,890	99.8	9,798,542	101.6
1987	580,272	291,739	288,533	99.4	9,991,089	101.0
1988	572,665	288,512	284,153	98.6	10,286,503	100.0
1989	563,308	283,926	279,382	98.3	10,576,794	102.8
1990	551,345	277,943	273,402	97.8	10,627,790	100.4
1991	542,532	273,509	269,023	98.4	10,904,527	102.6

(資料) 서울特別市, 『市勢一覽』, 1952～1956, 1958～1960年版
서울特別市, 『서울통계연보』, 1961～1992年版 참조.

〈표 6〉 1991년 현재 성북구 각 동별 인구현황

동 명	인 구			가구수	동 명	인 구			가구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542,532	273,509	269,023	165,634	길 음 1 동	13,858	6,940	6,918	4,458
성 북 1 동	8,035	3,987	4,048	2,562	길 음 2 동	25,212	12,878	12,334	7,169
성 북 2 동	12,214	6,114	6,100	3,879	길 음 3 동	21,033	10,613	10,420	6,058
동 소 문 동	7,053	3,447	3,606	2,413	종 암 1 동	26,194	13,221	12,973	8,075
삼 선 1 동	15,633	7,836	7,797	4,618	종 암 2 동	21,640	11,149	10,491	6,794
삼 선 2 동	17,792	8,949	8,843	5,610	월 곡 1 동	18,489	9,418	9,071	5,754
동 선 1 동	8,821	4,298	4,523	2,926	월 곡 2 동	15,071	7,731	7,340	4,608
동 선 2 동	10,358	5,097	5,261	3,302	월 곡 3 동	11,742	5,966	5,776	3,363
돈 암 1 동	15,509	7,860	7,649	4,926	월 곡 4 동	11,995	6,184	5,811	3,340
돈 암 2 동	7,642	3,834	3,808	2,404	상 월 곡 동	12,647	6,398	6,249	3,782
안 암 동	21,295	10,700	10,595	6,978	장 위 1 동	28,727	14,163	14,564	8,345
보 문 동	20,861	10,448	10,413	6,640	장 위 2 동	28,986	14,724	14,262	8,576
정 릉 1 동	22,638	11,122	11,516	6,842	장 위 3 동	20,924	10,715	10,209	6,264
정 릉 2 동	23,937	12,001	11,936	7,297	석 관 1 동	26,366	13,528	12,838	8,036
정 릉 3 동	25,326	12,677	11,649	7,684	석 관 2 동	16,829	8,553	8,276	5,107
정 릉 4 동	25,705	12,958	12,747	7,824					

(資料) 서울特別市, 『서울통계연보』, 1992年版

16) 서울特別市, 『서울통계연보』, 1992年版 및 성북구청, 『성북통계연보』, 1991年版을 참조하여 1991년 현재 해당지역의 면적 : 인구수 : m^2당 인구밀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 명	면 적	인구수	m^2당 인구밀도	동 명	면 적	인구수	m^2당 인구밀도
성북2동	2.21m^2	12,214명	5,526명	길음3동	0.44m^2	21,033명	47,802명
정릉3동	3.58	25,326	7,074	월곡3동	0.18	11,742	65,230
정릉4동	3.18	25,705	8,083	월곡4동	0.22	11,995	54,522
길음1동	0.29	13,858	47,786	장위3동	0.31	20,924	67,496
길음2동	0.45	25,212	56,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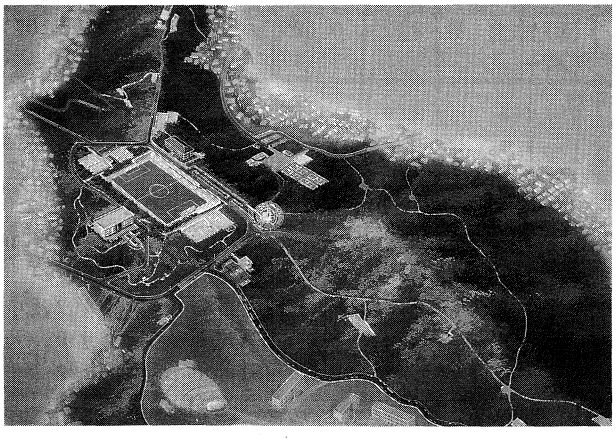
2. 社會福祉

1) 社會福祉의 意義와 社會福祉行政

사회복지라 함은 국민의 생활안정 및 교육・직업・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인간의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을 말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의 사회적 方策을 총칭한다. 좁은 의미로는 아동・노인・장애자 등에 대하여 金錢給付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의 의미로 쓰인다. 또 여기에다 생활곤궁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自力調査를 매개로 하여 행하는 경제적 扶助인 公的 扶助를 덧붙인 사회복지사업과 같은 의미로도 쓰인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먼저 憲法에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또한 광복 이후 아동복리법(1961)・생활보호법(1961)・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사회복지사업법(1970) 등으로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활동하고 있다.

한편 행정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시작한 것은 日帝 때부터이다.



개운산 근린공원 조감도

일제의 정치・외교・경제적 지배하에서 우리나라는 대량의 사회적 빈곤을 낳게 되어 일반의 생활난은 심각하였고, 총독부는 뒤늦게야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여 1932년 6월에는 京城府에 社會課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1944년 3월에는 朝鮮救護令을 공포・실

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식민지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회악을 최소한 축소·호도하려는 미봉책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하려는데 불과하였다.[17]

區 行政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업무는 1946년 美軍政廳이 발표한 서울市憲章에 따른 區 職制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때에 厚生課가 설치되어 광복 직후의 어지러운 사회현상을 배경으로 福祉行政을 추구한 것이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48년 11월 29일에 최초의 서울市 區分課規程(서울市令 제2호)에 의해 區에 社會課를 두고 후생·보건위생·노동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게 하였다. 1962년 4월 23일에는 서울特別市訓令 제113호 서울特別市 區 課係別 事務分掌 사항이 정해져 최초로 係 단위까지 분장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 때 사회과에는 후생계와 위생계가 설치되었다.

그후 1964년 7월에 위생계 폐지 및 노동계 신설, 1966년 2월과 1967년 7월의 후생계 사무분장 조정, 1971년 8월의 부녀계 신설, 1973년 7월 노동계 폐지, 1974년 11월의 후생계를 사회계로, 부녀계를 부녀아동계로의 개칭, 같은 해 12월 사회과의 市民生活局 예하 편제 등의 변동이 있었다.

또 1976년 2월 大統領令 제7982호에 의해 시민생활국 예하에 위생과가 신설되므로써 사회과에서 함께 맡고 있던 보건·위생행정업무를 분리하게 되었다. 이어 1977년 1월 시민생활국의 시민국으로의 개칭, 1979년 10월 부녀아동계의 부녀소년계로의 개칭 및 복지계 신설 등의 변동이 있었다. 1981년 11월 9일에는 大統領令 제10628호에 의한 區 職制 개정으로 사회과는 사회복지과로 개편되었으며 사회계·부녀아동계·복지계를 두었다.[18]

이후 1988년 7월 16일에는 서울特別市規則 제2254호에 의해 가정복지과가 신설되면서 가정복지과에 가정복지계·부녀복지계·청소년계, 사회복지과에 사회계·보험연금계를 두었다. 그리고 1991년 7월 8일에는 사회복지과에 노정계를 신설하여 오늘에 이른다.

이같은 區 職制 안에서의 사회복지행정 업무에 관한 변동은 시대의 흐름과 함

17)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通史』(下), 1973, p.432.
18) 이상은 羅恪淳, 「서울特別市 區 行政變遷考」, 『鄕土서울』 제46호, 1988 참조.

께 복지행정의 중요성 증대와 세분화·전문화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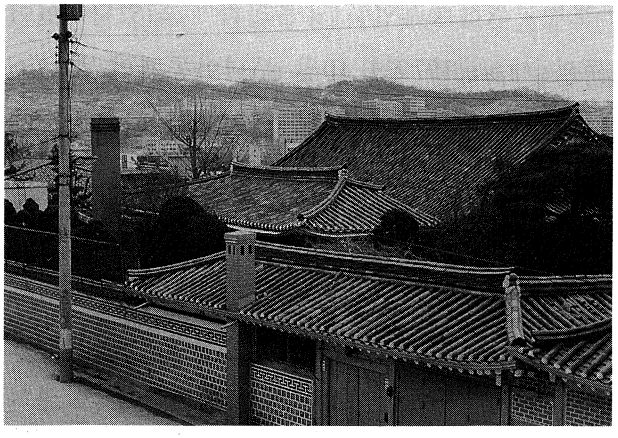
2) 구호사업과 저소득층 복지

구호사업은 극빈자 또는 자연적·인위적 재해에 의하여 발생한 이재민을 구제하기 위해 벌이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의 가장 주요한 부분이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고구려의 賑貸法 제정, 고려의 濟危寶, 조선시대의 각종 倉의 운영 등에서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다.

① 普濟院·東活人院의 賑濟場

조선시대에 행하여졌던 구호사업 중 지금의 성북구 지역과 관련하여 볼 때 普濟院과 東活人院에 설치되었던 賑濟場을 들 수 있다.

普濟院은 조선시대에 교통·통신의 필요에 의해 각 要路에 설치되었던 驛院의 하나이다. 그 위치는 '興仁門(東大門) 밖 3里 지점에 있어 조선시대에 이 곳을 가자면 흥인문을 벗어나 東廟에 이르면 이 곳에서 길이 둘로 갈라지는데 동북쪽 길을 따라 조금 더 가면 보제원에 닿게 되고, 이곳에서 安巖洞川·祭基峴·鼓巖을 거쳐 水踰里를 지나 蘆原驛에 이른다'고 한 것으로[19] 미루어 오늘날의 안암동 사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 구호시설인 동활인서가 있던 곳

東活人院은 조선시대에 都城 내의 병자를 救療하는 임무를 맡던 의료기관으로서, 東小門 밖 즉 지금의 성북구 동소문동4가 103번지에 위치하였다.[20]

이 보제원과 동활인원에는 賑濟場이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진제장은 漢城府에서 설치한 飢餓者의 응급구제기관이었으며, 서울

19)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제2권, 1978, p.489 참조.

20)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문화사적편, 1987, p.581
동활인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 保健衛生－2) 의료기관 참조.

의 상설 진제장으로는 보제원·동활인원 외에도 弘濟院·梨泰院·西活人院 등이 있었다. 홍제·보제의 字意가 이미 救濟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들 진제장은 饑流民이 생기면 施食하는 것이 임무였고, 또한 救饑 뿐만 아니라 병자가 생기면 치료하는 일도 맡아 보았다. 조선시대 서울의 각 院에는 진제장이 설치·운영되었는데 이후 가설되는 진제장의 考察하는 관리의 支待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은 모두 보제원·이태원 두 진제장의 예에 따르도록 하였다. 또한 중종 20년(1525)에는 일시적으로 救民하는 것은 도리어 폐가 있다 하여 飢餓民이 보제원과 홍제원에 고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하기도 하였다.[21]

② 日帝 때의 구호사업

일제 때의 구호사업은 바로 식민정책의 소산이었다. 즉 그들의 식민지 정책을 합리화하고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日帝에의 복종을 유도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먼저 1927년에는 이른바 方面委員制度를 실시하였다. 이는 각 구역내의 시민의 생활상태를 정밀 조사하여 要救護者를 파악한 뒤 이들에게 생활개선책과 직업알선 등의 상담을 하였다. 방면위원제는 京城府를 5개 방면으로 나누어 250명의 위원을 두었다. 그후 1936년의 京城府의 행정구역 확장과 관련해서, 1938년에는 기존의 5개 방면 외에 城東方面區와 永登浦方面區가 증설되었다. 이때 高陽郡 崇仁面에 속했다 먼저 다시 서울에 편입되었던 지역인 성북동·돈암동·안암동 등은 각기 동부방면구와 성동방면구에 속하였다.[22]

또 中日戰爭 후에는 隣保相扶相助와 국민자각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隣保館을 개설하였는데 이는 영세민의 생활향상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꾀한다고 하였으나 그 역할은 미미하였다.

이후 일제는 1944년 3월에 극빈계층의 구호를 위해 「朝鮮救護令」을 공포·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또한 조사·처분에 대한 불복종자를 구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일부 한국인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었다.[23]

---

21) 앞의 『서울六百年史』 제2권, p.490, 491.

22) 愼英弘, 『近代朝鮮社會事業史研究－京城における方面委員制度の歷史的展開－』 綠蔭書房(東京) 1984, pp.349~354.

23)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제4권, 1981, pp.1150~1152.

③ 生活保護法 제정과 저소득층 복지

광복 후에는 국외로부터 一般戰災者・강제징용노무자 등 동포가 다수 귀환하여 이들에 대한 구호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다. 그러나 당시 美 軍政下에서는 확고한 방침을 세우기에는 여러 어려운 점이 따랐기 때문에 임시적 구호사업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정부수립 후에도 빈약한 국가재정으로 인하여 응급구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게다가 곧 이은 6・25동란으로 인한 요구호대상자가 전쟁중은 물론 휴전 후에도 범람하여 이들에 대한 구호와 보호문제가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다. 당시 성북구에도 많은 戰災民과 貧民들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성북구의 구호상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1954년에는 성북구의 안암동・정릉동과 서대문구 대현동에 戰・罹災民을 위한 厚生住宅 200여호가 건설되어 입주하기도 하였다.[24]

한편, 6・25동란 중에는 釜山에서 避難市政을 운영하였던 바 이때 구호양곡을 각 관할 구청별로 각 구청의 査定에 의해 배급함에 따라 南下한 시민들이 구청별로 등록함으로써 구호업무를 실시하기도 하였다.[25]

이처럼 임시적인 응급구호에 급급했던 구호사업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 국가중심의 체계적인 정책과 제도의 수립에 의해 촉진되었다. 이에 따라 1961년에 生活保護法, 1962년에 災害救護法이 제정되어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公的 扶助

〈표 7〉　　1953・1954년의 성북구 구호상황

구　　분		避 難 民	戰 災 民	原住貧民	合　　計
1953년	總　　數	4,126	53,858		57,984
	要 救 護 對 象 者	3,844	46,118		49,962
	實 際 救 護 者	1,670	26,146		27,816
1954년	總　　數	4,639	51,597	22,728	78,964
	要 救 護 對 象 者	4,622	21,063		
	實 際 救 護 者	4,495	14,716	7,501	26,712

(資料) 서울특별시, 『市勢一覽』, 1952・1953年版 참조.
각 연도 3월 1일 현재 상황임.

24) 서울特別市, 『市勢一覽』, 1953年版, p.102.
25)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제5권, 1983, p.135.

事業의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생활보호법은 정부의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전면 실시되지 못하고 일부 생계구호에 그쳐왔다. 그후 1968년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1974년부터 취로사업을 시행하였다. 또 1978년에 「醫療保護法」이 제정되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가 실시되었고 1979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 중학교과정 수업료 지원규정」 제정으로 생활보호자 자녀의 중학교 수업료가 전액 지원되었다. 1981년에는 영세민의 자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직업훈련을 시키는 〈취업훈련지원사업〉이 실시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분출된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욕구 문제가 대두됨으로써 1982년도에는 「영세민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생업자금융자제도·직업훈련지원 확대·대도시 영세민 지방이주지원 등의 영세민 자활지원책이 보완·확대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같은 해 12월 生活保護法 개정에 반영되어 그 체제가 확립되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시설보호·자활보호로 구분하고 있다. **居宅保護** 대상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 등으로 구성되어 정상적인 근로능력자가 없는 세대이다. **自活保護**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세대원 중 근로능력자가 있는 세대이다. **施設保護** 대상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수용된 자를 말한다. 여기에 의료보호를 받는 **醫療扶助者**는 자활보호자와 그 생활실태가 유사한 자로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다. 이 각 대상자별로 보호의 종류와 내용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매년 9월에 실시하는 일제조사에 의해 선정되어 왔으나,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없이 보호받던 사람을 계속 보호하는 것을 지양하고 어려운 사람이 빠짐없이 보호를 받고, 개개인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 위해 1990년부터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보호신청을 하는 申請保護制度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특히 1987년 7월에 수립된 국민복지증진대책에 의해 생활보호대상자를 방문·상담하여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여부를 결정하는

社會福祉專門職公務員을 1988년 2월부터 각 구청과 일선 洞에 배치하였다. 이 사회복지사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80가구[26] 이상인 洞에 배치되고 있는데 1991년 12월 현재 서울市에 32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중 성북구에는 1992년 12월 현재 총 20명이 구청 사회복지과를 비롯하여 관내 돈암1동·안암동·보문동·정릉1동·정릉3동·정릉4동·길음1동·길음2동·길음3동·종암1동·종암2동·월곡1동·월곡3동·월곡4동·장위2동·장위3동·석관1동에 각각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27]

한편 1989년에 서울市에서 생활보호대상자와 일반 저소득층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조사하여 시내 105개 지역을 집계하였다. 이때 성북구 관내에서는 정릉3동 산 1, 92번지·정릉4동 236번지·하월곡3동 산 2번지·하월곡4동 77번지 일대 등 4개 지역이 포함되었다.[28]

또한 성북구청에서도 저소득층 집단지역 현황을 집계하고 있는데, 해당지역으로는 정릉3동 삼태기마을(정릉동 759번지 일대), 정릉4동 문바위골(정릉동 236번지 일대), 길음3동 송천마을(길음동 910번지 일대), 월곡3동 산동네(월곡동 산 2번지 일대), 월곡4동 밤나무골(월곡동 77번지 일대)의 5개 지역 1,824가구 6,513명이다. 이 지역은 앞서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洞과도 일치하고, 1989년의 서울市 집계지역과도 일치하는 곳으로 관내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수립 등의 배려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성북구청에서는 이들 저소득층 집단지역의 기본 생활여건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즉 1991년에는 이 지역에의 보안등 신설, 하수도관 개설 등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힘썼고, 1992년에는 진입로 개설 등 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복지관 건립사업을[29] 실시한 것 등이 그 결실인 것이다.

---

26) 이 사회복지전문직공무원 배치기준은 1988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200가구 이상인 동에 1명씩을 배치하였고, 1991년에는 100~300가구 이상인 동에 1명씩 배치하고 300가구 초과마다 1명씩 증원 배치하도록 되었고, 1992년 현재는 80가구 이상인 동에 1명씩 배치하고 200가구 초과마다 1명씩 증원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27) 이상은 서울特別市, 『'91 서울市政』, 1991 및 성북구청 사회복지과 자료제공.

28) 서울特別市·韓國産業經濟研究院, 『서울市 低所得層 實態把握과 對策樹立에 관한 研究』, 1989 참조.

29) 복지관에 대해서는 5) 종합복지시설 참조.

아울러 서울市에서는 저소득 시민의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소득을 증대시키고, 자립능력을 개발하고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북구에는 하월곡동 아파트형 공장이 시범적으로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월곡동 아파트형 공장

하월곡동 아파트형 공장은 하월곡동 96-11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9년 12월 2일에 착공하여 1990년 12월 30일에 준공하였다. 규모는 대지 451평, 건평 585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다. 이 아파트형 공장에는 봉제·완구·전자 및 전기부품 조립업 등 도시형 업종이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1991년 3월 1일부터 실입주가 이루어져 1992년 12월 현재 로얄니트 등 5개 업체가 입주·조업중이다.[30]

또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자와 기타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도시환경정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就勞事業(저소득층 노임소득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이 사업 내용은 도시토목·하천정비·공원녹지 환경개선사업 등이다.

참고로 성북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현황과 영세민 취로구호사업 현황은 다음 〈표 8〉 〈표 9〉와 같다.

3) 아동·청소년·부녀·노인복지

① 아동복지

아동복지는 아동의 心身 발달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환경조건의 장애를 제거하고 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영양·교육·보호의 과정을 통하여 적절한 신체적·정신적 및 도덕적 발전을 기하는 것이다.

30) 이상은 성북구청 사회복지과 자료제공.

〈표 8〉 1980～1990년 성북구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계		거택보호		자활보호	
	가 구	가구원수	가 구	가구원수	가 구	가구원수
1980	4,247	16,627	556	924	3,691	15,703
1981	4,754	18,675	680	1,257	4,074	17,418
1982	4,453	16,435	642	993	3,811	15,442
1983	7,729	29,313	759	1,132	6,970	28,181
1984	5,531	20,269	688	1,037	4,843	19,232
1985	5,101	17,879	769	1,116	4,332	16,763
1986	5,065	17,623	839	1,218	4,226	16,405
1987	5,457	18,113	1,066	1,466	4,391	16,647
1988	5,519	18,218	1,075	1,476	4,444	16,742
1989	5,977	18,676	1,159	1,523	4,818	17,153
1990	4,819	11,886	1,105	1,439	3,714	10,447

(資料) 성북구, 『성북통계연보』, 1986～1991年版

〈표 9〉 1981～1990년 성북구 저소득층 노임소득사업 현황

(단위 : 개소, 명, 100만원)

구 분	사업장수	취로가구수	취로연인원	사 업 비
1981	145	7,688	162,000	518
1982	77	8,976	172,000	602
1983	10	8,023	114,000	592
1984	16	2,225	90,000	348
1985	23	4,033	65,000	372
1986	27	3,857	117,000	638
1987	40	5,966	170,000	920
1988	41	6,039	166,000	862
1989	22		218,000	1,419
1990	8		249,000	1,998

(資料) 성북구청, 『성북통계연보』, 1986～1991年版 참조.

단, 1986～1988년의 취로가구수는 서울特別市, 『서울통계연보』, 1987～1989年版에서 보완.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아동복지사업이 시작된 것은 개항 이후 1888년에 프랑스인에 의해서 서울 명동에 천주교회 고아원이 설립되면서부터이다. 이후 일제강점기까지의 아동복지사업은 조선총독부에서 운영한 濟生院을 비롯한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아동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한 매우 제한적이며 초보적인 救貧事業에 머물렀다.

이러한 사정은 광복 후에도 계속되어졌고, 더욱이 6·25동란으로 戰災孤兒 등 대량의 要救護 아동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동복지의 방향은 이들의 施設 수용문제에 집중되었고, 당시의 응급구호사태에 직면하여 외국원조에 의한 민간시설의 아동보호사업이 크게 늘어났다. 이 당시 성북구 관내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서 설립·운영하던 아동복지시설은 다음 〈표 10〉과 같다.

이처럼 정부수립 후 1960년에 이르기까지의 아동복지는 전쟁으로 인한 要保護 아동의 수용보호에 급급한 나머지 보다 폭넓은 문제에는 깊이 관여할 수 없었다.

이후 정부는 아동복지에 필요한 시책과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하여, 1961년 12월에 현대적 의미의 아동복지를 지향하는 기본법령인 〈아동복리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어 1961년에 〈고아입양특례법〉 마련·1962년 아동복리위원회 설치·1969년 〈아동복리시설 설치기준령〉 제정·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아동복지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 자리잡았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아동복지에 있어 외국원조에의 의존도를 줄여갔는데, 특히 1976년에는 〈고아입양특례법〉이 폐지되고 〈입양특례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고아들의 해외입양을 국내입양으로 유도하기 시작하였고 「불우아동결연사업」 등을 적극 전개하였다. 또한 1981년에는 종전의 〈아동복리법〉을 시대의 변천에 맞추어 요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복지도 함께 규정하는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31]

〈표 10〉 1960년 이전 설립된 성북구 관내 아동복지시설 현황

명 칭	소 재 지	구 분	설립일자	인가일자	수용정원
中央培英園	성북동 289	육아	1953. 8.15	1954. 8.13	150
北漢山教養院	정릉동 371	〃	1934. 8.20	1946. 5.28	159
三省學院	돈암동 4－75	〃		1946. 3. 7	100
新星育兒院		〃			100
圓佛教普和園	정릉동 385	〃		1945.12.10	217
서울育兒院	우이동 533	〃			354

(資料) 서울特別市, 『市勢一覽』, 1952～1958年版.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通史』 下, 1973, p.446, 450 참조.

31) 張仁協, 『兒童福祉』, 1983 및 金泳謨(外), 『韓國兒童福祉研究』, 韓國福祉政策研究所, 1983 참조.



'어린이집'의 즐거운 어린이들

그리고 아동복지사업의 범위가 일반아동의 복지에까지 넓혀졌고, 또 시대변화에 따라 기혼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핵가족화 현상으로 가정에서의 유아교육 및 보호기능이 약화되어 幼・託兒事業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 저소득 맞벌이부부가정의 자녀양육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서울市에서는 저소득시민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 영세 맞벌이가정의 생업을 지원하고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탁아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즉 1988년 8월부터 탁아원을 저소득집단지역부터 기존 유아원 및 종교・공공시설에 병설하거나 신축하여 개원하였다. 이 탁아원은 그간 분리되어 운영되어 오던 유아원과 통합하여 1991년부터는 명칭을 '어린이집'이라 하여 운영되고 있고, 區立 어린이집은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1960년대의 어린이집・1980년대의 새마을유아원의 기능을 잇는 것이지만, 1960년대의 어린이집이 교육기능보다 보호기능을 강조했고, 1980년대의 유아원이 보호기능보다 교육기능에 치중했던 것을 경험삼아 교육과 보호기능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저소득지역 이외의 일반지역은 1990년 3월부터 개인이 신고만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정탁아(놀이방)가 있어 지역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1991년 〈영유아보육법〉 시행으로 시설의 규모확대・시설수 증가 등이 예상되고 있다.[32] 1992년 12월 현재 성북구 관내에는 어린이집 38개소(區立 19, 私立 19), 놀이방 2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어린이집의 현황은 다음 〈표 11〉과 같다.

한편 성북구를 비롯한 각구에는 아동에 대한 상담・아동지도에 필요한 조사 등을 직무로 하는 아동복지지도원이 배치되어 있고,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兒童委員協議會가 구성되어 있다.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관할구역내의

32) 서울特別市, 『1989 서울市政』, 1989, 『1990 서울市政』, 1990, 『1991 서울市政』, 1991 참조.

〈표 11〉 성북구 관내 어린이집 현황

시 설 명	위 치	원아수	위 탁 업 체	개 원 일	구분
안암어린이집	안암동2가 140-4	102	경진염직(주)	'81. 3.10	구립
마야어린이집	정릉동 266-11	66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	'89. 9. 7	〃
매봉어린이집	돈암동 19-67	110	동광물산(주)	'83. 9. 3	〃
목화어린이집	월곡동 39-45	101	태화사회복지관	'83.12.23	〃
삼선어린이집	돈암동 512-160	95	곰표사(주)	'85. 2. 8	〃
종암어린이집	종암동 79-236	110	재단법인 동성학원	'85.12.12	〃
큰나무어린이집	상월곡동 산8-10	86	국제문예(주)	'86.12. 6	〃
하월곡어린이집	월곡동 77-37	49	한국어린이육영회	'82. 9.24	〃
북악어린이집	정릉동 685-16	97	삼중장학(주)	'82.12.29	〃
웅지어린이집	길음동 877-255	67	사회복지법인 상록원	'91. 1.18	〃
정릉4동어린이집	정릉동 244-4	64	삼보금속공업(주)	'82. 6.29	〃
인수어린이집	길음동 1270-196	44	서울코피아(주)	'92. 4.15	〃
본심어린이집	상월곡동 산1-1	64	대한불교진각종	'82.12.31	〃
명신어린이집	석관동 384-1	49	개-인	'90. 1.23	〃
성북어린이집	동소문동1가-1	44	삼선감리교회	'81. 1. 7	〃
월곡어린이집	월곡동 77-53	30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반야회	'89. 1.13	〃
석관제일어린이집	석관동 336-15	58	삼보금속공업(주)	'91. 9. 1	〃
동선어린이집	동선동7가 10-5	47	사회복지법인 정우원	'92. 3.10	〃
예영어린이집	삼선동3가 68-2	59	사회복지법인 에덴원	'92. 6. 8	〃
월곡사회복지관	하월곡1동 96-155	80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		사립
길음사회복지관	길음3동 905	90	사회복지법인 성나원	'92. 4. 1	〃
애일어린이집	종암동 28-30	44		'82. 7. 1	〃
해바라기어린이집	정릉동 686-15	9		'73.12.12	〃
길음어린이집	길음동 616-49	37		'74. 2.26	〃
성원어린이집	정릉동 16-90	37		'83.12.21	〃
별하나어린이집	동선동5가 141-4	40		'90. 2.21	〃
153어린이집	삼선1동1가 89	20		'90. 7. 4	〃
예은어린이집	상월곡동 29-51	12		'90. 9.12	〃
동산어린이집	돈암동 186-315	20		'90. 9.19	〃
라이락어린이집	정릉동 산1-1	20		'91.11. 8	〃
무지개어린이집	정릉동 760-44	13		'91. 5. 1	〃
두리두리어린이집	장위1동 214-50	12		'90. 6.19	〃
실로암어린이집	보문동1가 102-25	19		'91. 5. 7	〃
룡어린이집	정릉2동 506-71	15		'91. 7.15	〃
밝은어린이집	정릉4동 236-858	11		'91. 7.16	〃
샛별어린이집	돈암1동 2-77	17		'90.12.19	〃
덕수어린이집	성북2동 243-3	30		'92. 2.21	〃
성신어린이집	길음1동 877-137	20		'92.11. 3	〃

(資料) 성북구청 가정복지과.

아동에 대하여 항시 그 생활상태 또는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와 지도를 행하도록 위촉하였다. **성북구 아동위원협의회**는 洞別 2명씩 총 57명으로 구성되어 아동캠프 등 어린이 관련행사 지원·청소년선도 캠페인·충효아동 표창 등의 활동과 불우아동과 무의탁노인들과의 결연사업인 '성북구 사랑의 한가족되기' 등의 행사도 벌이고 있다.[33]

②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는[34]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리법〉 제1조 1항에 아동의 연령범위를 만 18세 미만으로 하여 아동복지대상에 포함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 시대 변화와 함께 도시화·핵가족화 등에 따라 청소년문제가 중요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주요 정책과제가 되어왔다. 여기에 맞추어 1987년 11월에 〈青少年育成法〉이 제정되어 청소년 문제에 관한 기본법이 되었다. 청소년육성법상의 청소년 연령범위는 9세~24세까지를 말한다. 또한 이 분야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1988년에는 市 가정복지국 청소년과의 승격·신설 등으로 청소년업무 전담부서도 생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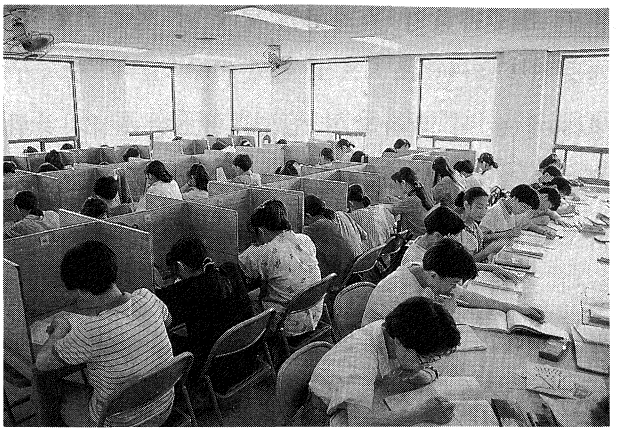
청소년 문제는 이들이 아직 신체적인 면에서 성장과정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미성숙하기 때문에 지도와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라는 점과, 이들의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짐을 생각할 때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이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은 먼저 이들이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청소년 이용시설을 확충하였다. 이는 이미 1970년대에 변두리 저소득층 영세민 거주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독서지도를 위해 각 구청별로 운영하였던 陽地文庫로부터 출발하였다. 성북구에도 당시 안암양지문고(안암동 104-36 동사무소)·정릉양지문고(정릉아파트 2동 지층) 등 2개소를 설치·운영하였다.[35] 현재는 동소문동1가 1번지에 양지문고 1개소가 열람좌석수 50석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1985년부터는 영세민 밀집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소규모의 지역공부방·청소년

33) 성북구청 가정복지과 자료제공.
34) 이하 청소년복지에 관해서는 서울特別市, 『市政』, 1970~1992 각년도판 참조 및 성북구청 자료제공.
35) 서울特別市, 『'74 시정개요』, 1974, p.568.

독서실 등이 세워졌다. 성북구에는 현재 3개의 지역공부방과 2개의 청소년독서실이 설치·운영되고 있어, 학습공간으로서의 기능은 물론 건전한 사회교육의 場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청소년공부방은 향후 성북2동 등에도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청소년 이용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북구 관내 청소년공부방·독서실 현황은 다음 〈표 12〉와 같다.



지역 공부방의 청소년들

또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단체의 활용으로 선도활동을 강화하였다. 청소년 관련단체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소년문제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청소년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청소년육성법〉 시행으로 이는 青少年育成地方委員會로 市와 各區에 개편·조직되었고, 각 洞別로는 青

〈표 12〉 성북구 관내 청소년 공부방 및 독서실 현황

시 설 명	월곡청소년센타	정릉청소년독서실	월곡4동 공부방	동선2동 공부방	삼선1동 공부방
소 재 지	월곡3동 산2-1	정릉4동 244-6	월곡4동 77-960	동소문동6가 239	돈암동 602-3
규 모	대지 : 660(m²) 건물 : 1,085.76 1층 363.60 2층 361.20 지하 310.8 옥탑 50.16	대지 : 615.7(m²) 건물 : 907 1층 377.36 2층 264.82 지하 264.82	대지 : 452(m²) 중 116 건물 : 1,364.22 중 115.99	대지 : 131.6(m²) 건물 : 259.65 중 149.75 1층 노인정 76.13 2층 공부방 74.88 3층 공부방 74.87	대지 : 210(m²) 건물 : 264 중 99 1층 노인정 99 2층 공부방 99 지하중대본부 66
개 관 일	87. 6. 26	88. 5. 7	89. 7. 28	89. 12. 28	89. 3. 10
좌 석 수	270	312	60	102	60
위탁운영체	대한불교조계종	한국기독교장로회 성 암 교 회	대한불교조계종	서울카톨릭 사회복지회	도 원 교 통
직 원 수	8	7	3	3	3

(資料) 성북구청 가정복지과.

少年 指導委員이 위촉되어 기존의 아동위원회와 함께 청소년의 선도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성북구에는 洞別로 동청소년지도위원 531명(30개 동)이 위촉되어 있고,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11명(당연직 1, 위촉직 10)이 구성되어 있다. 이 청소년단체들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계획의 심의, 관계 기관의 시책조정과 상호협조 심의, 기타 청소년시설·단체의 설치·지원 등에 관한 심의를 맡는 등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 청소년단체들이 동·하절기 및 연말연시에 청소년지도반을 구성·운영하여 관내 청소년 다중집합지역을 중심으로 선도캠페인을 통해 직접 청소년을 선도하는 한편,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계몽과 기타 봉사활동 등으로 사회적인 청소년 선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을 사전 예방하고 그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청소년을 위한 상담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성북구 관내에는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광아동가정상담원**[36]에서 청소년 및 가정문제에 관한 상담지도를 해주고 있다.

또한 불우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 가고 있다. 지역사회주민·각 기업체 등과 이들의 결연사업, 성장고아 직장알선 등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특히 少年少女家長에 대해서는 기본생계비·학자금 등의 지원과 함께 결연·상담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1988년부터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조성되어 무직·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청소년에게 학자금 지원·직업훈련 등이 실시되고 있다. 성북구 관내에는 1992년 12월 현재 소년소녀가장 21세대 36명이 자매결연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확충·지원사업 외에도 청소년들이 젊음을 발산할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는 각종 청소년 건전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다. 1989년부터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서울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여 성북구를 비롯한 각 구청과 단체에서 디스코경연·사물놀이 등의 '청소년광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 청소년의 달인 매년 5월의 어린이날, 성년의 날 기념식 외에도 불우청소년 문화유적순례 등도 확대 실시되고 있다. 성북구에서도 성북구민회관·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36) 이에 대해서는 5) 복지관련시설 참조.

청소년어울마당(연 8회 이상 실시), 문화유적지순례(여름방학중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층 자녀 대상 문화유적지·안보현장 및 명승지 순례), 청소년등산강좌(도봉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실시), 청소년하계캠프, 청소년환경교육, 아동미술대회(매년 가을 정릉에서 실시), 건전가요부르기, 크레이사격 교육, 산악스키강좌, 근로·모범청소년 위안잔치 등 청소년을 위한 건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③ 부녀복지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녀복지사업은 조선시대·일제강점기까지는 별도의 사업은 없었고, 단지 구호사업의 하나로 국가에서 구제해주는 것으로 그쳤다.

광복 후에는 서울시 내무국에 부녀과가 창설되어 비로소 부녀복지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부녀복지의 법적 기반은 1944년에 공포된 〈조선 구호령〉과 광복 이후에 제정된 단행법에 의거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1950년대부터 要保護 여성들이 公的 扶助事業의 대상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1950년대는 6·25동란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되었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 것은 전쟁미망인과 그 자녀들에 대한 보호문제였다. 또 전쟁과 社會道義의 퇴폐로 말미암아 윤락여성의 수가 증가일로에 있었다. 또한 가정경제의 빈곤으로 여성들이 직장으로 진출하는 수도 격증함에 따라 부녀복지문제는 사회적 요구로 등장하였다.

이에 부녀복지문제는 전쟁미망인의 수용보호와 윤락여성의 선도와 기술보도에 역점을 두고, 한편으로 시민생활개선과 사회도의 확립을 위한 여성활동을 전개하였다. 전쟁미망인의 수용보호를 위해서는 公·私設 母子院이 설립되었고, 윤락여성의 정신교도와 직업보도를 위해서는 姉妹院 등이 설립되었다. 이 당시 성북구 관내에는 다비다母子院(돈암동 261번지 소재)·聖香園(돈암동 산 48번지 소재)이 설립되어 있었다.[37]

이 부녀수용시설은 1960년대에 法人化 하는 과정에서 시설정비 등으로 내실을 기하면서 수용과 아울러 직업보도 등으로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이 수용시설의 입소대상은 〈모자복지법〉에 의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서울시 전입기간

37)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通史』(下), 1973, p.461.

2년 경과된 무주택 母子家庭으로, 부녀상담소의 상담을 거쳐 모자복지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관할 보호기관의 지시를 받아 입소하게 되며 보호기간은 3년 이내이다. 현재 성북구 관내에는 2개소의 부녀수용시설이 소재하고 있다. **영락모자원**은 정릉동 721-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57년 10월 1일에 설립되어 현재 103명을 수용하고 있다. **성가정입양원**은 정릉동 900-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9년 5월 11일에 설립되어 현재 30명을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는 산업화와 전반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이혼・산업재해・미혼모・가출 등과 같은 새로운 원인들에 의한 모자가족과 요보호여성들이 발생함으로써 부녀복지사업에 질적 변화가 요구되었다. 이 무렵은 도시화・공업화・서비스산업화 등 급변하는 사회에 따라 가치관이나 가족구조・기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 1960년대에는 가출여성과 근로여성문제, 1970년대에는 불우가정여성문제, 1980년대 이후에는 미혼모문제와 윤락여성의 문제가 주보호대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부녀복지사업이 내실을 기해 윤락여성의 선도와 모자세대보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종래의 시설수용 위주에서 기술습득을 통한 자립갱생의 능력을 길러주고,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부녀직업보도소・부녀상담소 등이 설치되어 부녀직업보도와 상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영세근로여성을 위해 아동부녀복지의 일환으로 탁아사업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성북구 관내에서 요보호여성의 직업보도와 상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으로서는 성북부녀상담소가 있다. **城北婦女相談所**는 현재 월곡1동 90-73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1983년 11월 18일에 개소하여 오늘에 이른다. 부녀상담소는 윤락행위자・미혼모・가출여성・저소득여성・학대 받는 여성 등 요보호 여성의 발생 예방을 위한 상담사업을 통하여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따라서 부녀상담소에서는 요보호자의 신상・기타 문제에 대한 상담, 요보호자의 특수여건에 따라 임시수용보호조치, 요보호자의 발생예방을 위한 문제가정에 대한 상담 및 가출여성의 보호선도, 윤락행위자 선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성북부녀상담소에서는 현재 1명의 상담원이 상근하면서 전화・서

신·방문·내방을 통해 상담해 주고 있다. 특히 성북부녀상담소에서는 윤락여성의 보호 선도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38] 이는 속칭 '팔팔번지'·'텍사스촌'·'여자들만 사는 거리'로 불려왔던 하월곡동 88번지 일대가[39] 서울에서 손꼽히는 윤락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대와 사회변화에 따라 요보호여성문제와 함께 일반여성들의 복지에 대한 인식도 확대되어 왔다. 여성들의 교육수준의 향상, 경제적·사회적 여유, 少子女化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서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점차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은 물론 사회활동에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참여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일반여성들에 대한 복지문제는 이러한 사실에 그 인식기반을 두었다.

먼저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여러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어져 왔다. 1960년대부터 각 洞을 순회하면서 주부 대상 교양강좌가 개설되어 왔고, 부녀자 지도자 양성을 위한 지도자 양성 강습회도 각 區·洞別로 실시되어 왔다. 1970년대부터는 市 教育委員會와 공동으로 각급 학교에 어머니교실을 운영하여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교육의 場으로 연결시켰다. 또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아파트집단지역에는 副業과 간이 기술 및 취미교육을 위해 부녀교실이 설치·운영되었다.

성북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북부녀교실**(삼선동2가 42번지)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부녀자에게 기술, 취미교육 및 부업지도로 가정경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이 부녀교실은 3개월 과정으로 연 4회(1회 교육정원 210명, 연간 840명) 실시되고 있으며, 성북구 관내 거주 18세 이상 주부를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미용·피부미용·홈패션·오븐세라믹·꽃꽂이 등 손쉽게 익혀 부업이나 여가선용에 활용 가능한 교과목이 중심이 되고 있다.

또한 1989년부터는 증대되는 여성의 자기실현 욕구를 선도하고 보다 나은 삶을

38) 성북부녀상담소의 1992년 상담실적은 총 1,010명인데 이중 일반상담이 69명, 윤락상담이 941명으로 윤락여성에 대한 상담과 선도가 사업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39) 뿌리깊은나무, 『한국의 발견』 서울편, 1983, p.228.



여성교양강좌－꽃꽂이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갈 수 있도록 각 구청 단위로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와 함께 여성교양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성북구도 **여성교양대학 성북구교실**을 관내 거주 20～6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성북구민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개설과목으로는 일본어·가요가곡 등 노래부르기·생활원예·사진·생활영어·교양한문 등이며 3개월 과정으로 연 2회(1기 교육정원 400명, 연간 800명) 실시되고 있다. 이 외에 성북구에서는 성북구 주부백일장대회를 연 1회 개최하여 여성들의 문화시민으로서의 의식함양과 구민 화합의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종 여성단체들이 조직되었고, 이들을 활용하여 區·洞 단위 시민알뜰장 개최·환경보호사업, 隣保사업 등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유도해 왔다. 성북구에도 여성관련 단체들이 조직되어 있는데, 1992년 12월 현재 새마을부녀회(區－1개 조직, 洞－30개 조직)·성북구 여약사회·미용사협회 성북구지부·바르게살기 성북구협의회 여성분과회·전국주부교실중앙회 성북지부·중앙부인회·대한적십자사 성북구 부녀봉사회·한국자유총연맹 성북구지부·평화통일자문회의 성북구협의회 여성지부·대한간호협회 서울지부 성북구회·한국여성연맹 성북구지부·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부인회 성북구지부 등 12개 단체 2,528명이 등록되어 **성북구 여성단체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다.[40]

④ 노인복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경로사상이 투철하여 노인을 공경하고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왔다. 노인문제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로써 규정한 것은 1944년

40) 이상 부녀복지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市政』, 1970～1992 각 연도판 참조 및 성북구청 가정복지과 자료제공.

조선구호령, 1961년의 생활보호법에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의 최저생활 유지라는 보호측면에 머물렀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발달과 경제수준 향상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는 증가추세에 있고,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사회문제화 되어 왔다. 여기에 최근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福祉觀이 확립되면서 지난날의 단순한 보호의 차원에서, 이제는 복지의 차원으로 향상되어 1981년 老人福祉法이 제정·공포되기에 이르렀다.

노인복지 증진의 내용으로는[41] 먼저 경로주간(5월 8일부터 1주간)·어버이날 등을 설정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효친의 사상을 높이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는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노인복지상담원을 두고 있다.

노인들의 건강유지를 위해 65세 이상 희망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在家 不遇老人을 위해 의료진과 가정봉사원이 대상가정을 방문하여 가사보조·상담·병원안내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센터 운영사업도 실시되고 있다.

경로우대의 제도화로서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경로승차권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70세 이상 居宅保護 노인에게는 敬老手當이 지급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역할로부터 소외되어가고 있는 노인들에게 사회참여와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통할아버지·골목할아버지·할머니봉사단사업·할아버지선생님사업 등이 1990년 2월 할아버지봉사단 발족을 계기로 각 구청별로 실시되고 있다.[42]

성북구의 경우, 교통할아버지는 어린이보호·교통안내·거리질서를 위해 1개 洞에 4명씩 총 120명이 주2회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고, 골목할아버지는 관내 정릉유원지 등 지역순회를 통해 청소년 선도 및 자연보호, 거리질서운동 등 지역자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1개 洞에 4명씩 총 120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할머니봉

41) 이하 노인복지에 관해서는 서울特別市, 『市政』, 1970~1992 각 연도판 참조 및 성북구청 가정복지과 자료제공.

42) 朝鮮日報 1990年 2月 15日字.

사단은 소년가장·노인단독세대 등에 바느질·장 담궈주기 등 옛 솜씨로 봉사하는데, 성북구에서는 조직과 사업대상을 계획중에 있다. 할아버지선생님사업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지역노인이 국민학교·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토요서당〉을 열어 한문과 전통예절을 가르치는 것으로 성북구에서는 현재 관내 3개소에서 1년에 4회 운영중이다.

또한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소득증대를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1982년부터 각 구별로 노인능력은행이 설치되어 있는데, 성북구에는 대한노인회 성북구지부(안암동5가 104-37번지 소재)에 개설되어 있는 노인능력은행에서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취업보도와 정보제공을 하고 있으며, 관내 노인정에 노인공동작업장도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노인들의 취업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992년 7월부터 **고령자취업알선센타**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고령자취업알선센타는 서울시청 외에 시내 22개 구를 2·3개 구 단위로 묶어 1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1993년 1월 30일을 기해서는 온라인 전산망이 개통되어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 설치된 중앙센터를 통해 취업정보가 수집·제공되게 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43] 성북구의 경우 서대문구·은평구와 함께(쎈타 사무실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 전화 734－0065, 739－0065) 운영하고 있다.



어버이날 기념 경로위안잔치

한편,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우리 전래의 경로효친에 바탕을 둔 가족생활로 인해 다른 나라의 양로시설사업처럼 활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핵가족화 등 가족구성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노인들의 소외 등이 문제가 되어 이들을 위한 복지시설의 증대가

43) 한국일보 1993年 1月 31日字.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성북구청에서는 缺食老人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 경로식당은 **성북노인의 집**(하월곡동 산 2-11)으로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월곡근린공원에 점심 결식노인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경로사상 고취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설립 목적이 있다. 운영은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1일 90~110명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교육·문화·오락의 기회충족에 대한 욕구가 커짐에 따라 노인정·노인교실 등의 시설도 늘어나고 있다. 노인교실의 경우 그 교육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1990년 11월부터 〈老人教室 운영지침〉에 의해 등록제가 실시되고 있다.[44] 성북구 관내에는 1992년 12월 현재 노인정 52개소(區立 31, 私立 21), 노인교실 8개소가 있는데 그 현황은 다음 〈표 13〉 〈표 14〉와 같다.

4) 의료보장

의료보장은[45] 질병·부상·분만·사망 등 의료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보장이다. 우리나라 의료보장방법은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와 보험료 부담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보호제도가 있다.

의료보험제는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이래 1977년 직장의료보험,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직원의료보험, 1988년 농어촌지역의료보험, 1989년 도시지역의료보험의 실시로 모든 국민이 의료보장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의료보호제도는 1977년 의료보호법 제정에 의해 시작되어 저소득시민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되었다.

① 지역의료보험

---

44) 朝鮮日報 1990年 11月 23日字, 서울신문 1992年 11月 19日字.
노인교실의 등록을 위해서는 강의실 10평 이상과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고, 60세 이상 노인 50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45) 이하 의료보장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89 서울市政』, 1989, 『'91 서울市政』, 1991 참조 및 성북구청 사회복지과 자료제공.

지역의료보험은 지역주민의 의료보장을 위하여 自治區 관할별로 의료보험조합이 1989년 4월 17일 설립되어 조합별 獨立採算制로 운영되고 있다. 가입대상자는 직장・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 가입자와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지역주민이 해당된다.

〈표 13〉 성북구 관내 노인정(區立) 현황

노인정 명칭	소 재 지	성별	회원수	노인정 명칭	소 재 지	성별	회원수
성북2동분회	성북동 6-6	공	74	동선2동분회	동소문동6가 239	남	50
동소문동노인정	동소문동4가 278-124	남	50	안암동분회	안암동5가 104-37	공	65
삼선1동분회	삼선동1가 274-3	남	60	구립안암노인정	안암동2가 141-7	공	45
한성노인정	돈암동 620-3	공	40	보문동분회	보문동1가 73	공	100
삼선2동분회	삼선동3가 68-3	공	100	정릉1동분회	정릉동 43-19	공	80
동선1동분회	동선동3가 40-4	공	40	장수노인정	정릉동 607-39	공	45
구립정릉2동노인정	정릉동 223-12	공	17	정릉3동분회	정릉동 710-81	공	36
북악노인정	정릉동 891-1	공	70	정릉4동분회(뒷골)	정릉동 299-2	공	45
청수노인정	정릉동 966-24	공	90	인수노인정	길음동 875-16	공	120
구립인영노인정	길음동 601-11	남	60	종암1동분회	종암동 3-72	공	80
월곡1동노인정	월곡동 96-178	공	96	월곡2동노인정	월곡동 96-175	공	60
목화노인정	월곡동 39-45	공	70	월곡3동노인정	월곡동 77-27	공	50
월곡4동노인정	월곡동 산 2-87	공	120	상월곡동노인정	상월곡동 97-23	남	54
장위1동노인정	장위동 산 3-101	남	65	장위2동노인정	장위동 68-1055	공	75
장위3동노인정	장위동 135-5	남	46	석관1동노인정	석관동 168-49	공	100
석관2동노인정	석관동 338-9	공	80				

(資料) 성북구청 가정복지과.

〈표 14〉 성북구청 노인교실 등록 현황

명 칭	소 재 지	이용 노인수
일화계 체육교실	안암동5가 159-2	60
정릉노인교실	정릉동 139-2	450
덕수노인교실	성북동 243-1	80
성 빠드리시오 노인교실	동선동2가 1-2	136
돈암노인교실	동소문동5가 54	80
석관노인교실	장위동 60-300	70
평생노인교실	안암동5가 104-37	60
신장위노인교실	장위동 237-274	60

(資料) 성북구청 가정복지과.

성북구 의료보험조합은 하월곡동 196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1989년 4월 17일 조합설립에 관한 인가를 받고 7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은 조합원들에 의해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의료보험조합의 예산, 결산 및 조합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조합에서는 의료보험증 발급,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대상자 자격관리, 홍보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각 동사무소에 의료보험조합지소를 설치하고 조합직원을 배치하여 의료보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 성북구의 의료보험조합 관련 위원회로 조합업무를 지원하는 동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각 統 1명), 보험료 이의·조정을 맡는 통보험료자문위원회(각 班 1명), 동보험료조정위원회(구성원 統長) 등이 구성되어 있다.

지역의료보험 가입세대는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기본부담액(세대당 기본액+가족수당 기본액)과 능력비례부담액(소득+재산)을 합하여 산정하며, 능력비례부담액은 피보험세대의 소득, 재산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부과된다.

성북구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는 1992년 12월 현재 92,329세대 290,647명이다.

② 의료보호

의료보호는 公的 扶助의 일종으로 생활무능력자와 저소득자가 질병이 생겼을 경우 국가에서 그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로서 1977년부터 시행되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보호내용의 정도에 따라서 1種·2種 및 醫療扶助者로 나누어진다. 1종 대상자는 거택보호자·시설보호자·인간문화재·국가유공자·이재민이 책정되며 외래·입원치료 전액 무료이다. 2종 대상자는 자활보호자로 선정된 자로 외래치료는 전액 무료이나 입원치료는 60%만 국가에서 부담한다. 의료부조자는 자활보호대상자와 유사한 자로서 보호기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책정되며, 외래치료는 1/3만 국가부담, 입원치료는 50% 국가부담이다.

성북구의 의료보호대상자는 1992년 12월 현재 총 3,413세대 7,515명이다. 이중 1종 보호대상자는 1,278세대 2,115명(거택보호자-916세대 1,151명, 국가유공자 등-362세대 964명), 2종 보호대상자는 1,629세대 3,998명, 3종 의료부조 대상자는 506세대 1,402명이다.



구민회관 내부

5) 복지관련시설

① 城北區民會館

성북구민회관은 돈암동 606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성북구민을 위한 종합복지시설이다. 성북구민회관은 대지 13,690m²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1990년 5월 13일에 개관하였다. 구민회관 내에는 대강당・취미강좌 강의실・회의실・독서실・마을문고・식당・샤워실・전산실 등 주민편의시설과 복지 관련시설들이 갖추어져 있고, 區議會 본회의장을 비롯한 구의회 관련시설이 들어서 있다.

이 성북구민회관에서는 시민교양강좌, 여성교양대학 운영, 취미강좌 등이 연간 행해지고 있고, 대강당은 구민들을 위해 결혼식, 교육, 강좌, 행사, 공연 등에 무료로 대관해 주고 있다. 특히 그간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상설영화관 무료 운영, 성북문화예술제 등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과 유치,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어 성북구 지역주민들의 종합복지시설로서는 물론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으로도 기여하고 있다.

② 생명의 전화 綜合社會福祉館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은 월곡동 96-155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복지시설로 사회복지법인 생명의 전화에서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생명의 전화는 1976년 9월 1일 상담전화 생명의 전화를 개통함으로 복지사업을 시작하여 1978년 3월 8일에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인가받아 1986년 6월 28일에 이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하였다.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대지면적 601.82평에 건물 연면적 1,148.20평이며,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이다. 내부시설로는 사회교육실・어린이교육실・어린이공부방・주민교육실・새싹유아방・노인작업실・놀이활동실・자료실・사무실・면접상담

실·자원봉사자실·어린이도서관·전화상담실·건강상담실·상담검사실·자립작업장·독서방·강당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개관 이래 상담사업은 물론 직업안내·부업기능훈련·주말진료·청소년프로그램 개설·노인급식·재가복지봉사센터 개설 등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상담·부녀·지역복지·기타 등 사회복지 관계 8개 분야에 58개 단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1일 평균 약 800명이 이용하고 있어, 성북구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③ 길음종합사회복지관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길음동 90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북구청에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복지시설로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성나원에서 맡고 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1992년 3월 31일에 개관하였고, 대지 233평, 연건평 453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다. 주요시설로는 강당·노인정·직업훈련실·탁아실·유아교육실·식당·독서실·열람실·상담실·집단지도실 등을 갖추고 있다. 1일 약 400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 복지관은 주민들에게 편의시설 제공은 물론 상담과 교육을 통하여 길음동·돈암동·정릉동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④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은 월곡동 77-4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길음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성북구청에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복지시설로 1993년 3월 개관 예정(1992년 11월 준공)이다.

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한국어린이재단에서 맡았고, 대지 271평, 연건평 45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다. 주요시설로는 강당·탁아원·독서실·직업훈련원·프로그램실·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다. 복지관이 개관되면 편의시설 제공과 아울러 각종 복지사업과 후원사업의 실시로 월곡동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⑤ 자광아동가정상담원

자광아동가정상담원은 길음동 937번지(국민빌딩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회복

지법인 자광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로 1977년 5월 25일에 설립되었다.

이 상담원에는 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가가 상근하면서 아동 및 가정문제 상담 지도,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사회복지 조사 연구사업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참여하고 있다.

⑥ 성북점자도서관

성북점자도서관은 동선동4가 279-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대한맹인역리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이다.

성북점자도서관은 맹인들이 읽고 쓸 수 있는 점자도서를 제작・보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1992년 7월 3일에 개관하였다. 이 도서관은 39.5평 규모에 점자도서 2,000여종, 녹음도서 200여종을 소장하여 맹인들의 편의를 돕고 있는데, 1일 평균 35명이 이용하고 있다.

⑦ 사회복지법인 성가복지병원

성가복지병원은 하월곡동 88-52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서울성가소비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복지시설이다.

서울聖家小卑女會는[46] 1943년 12월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신부 생제르(Singer, P.)에 의하여 서울에서 창설된 邦人修女會로, 빈자・병자・장애자・무의탁자를 위한 사업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교육 및 의료사업에 2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성가소비녀회는 의료사업의 일환으로 1958년 8월 서울 미아리성당 내에 성가의원을 개원했다가, 1969년 7월 현재의 장소로 이전하고 성가병원으로 개원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돌보아 왔다. 이후 1990년 7월에는 성가복지병원으로 다시 업무를 개시하였고, 8월에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가를 받았다.



성가복지병원 전경

46) 성가수녀원, 『수녀원 창립 40주년』 참조.

성가복지병원은 대지 1,520m², 연건평 5,912m²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에 병실 49실, 병상 79개를 갖추고 있다. 병원 운영은 자원봉사체제로 유지되어 전담요원 30명과 자원봉사자 805명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일반 진료는 물론, 지역사회 의료봉사·임종환자 간호·노인요양환자 간호·가정방문 간호·행려자와 무의탁자 숙박 등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3. 保健衛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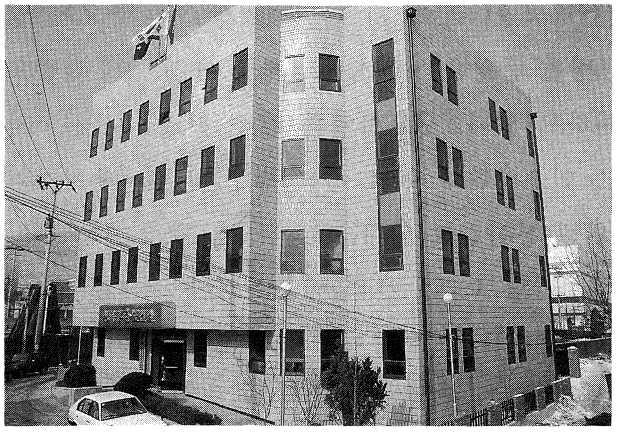
1) 보건위생행정

우리나라에서의 보건위생사업은 광복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19세기 후반까지는 질병의 원인 등을 과학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건위생사업이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日帝 때에는 警務局에 衛生課를 두어 보건위생 관계업무를 경찰행정 안에서 일원화하고, 강력한 규제 위주의 식민지 보건위생정책이 실시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보건위생상태는 매우 비참하였고, 이에 광복 후 미군정하에서 보건위생문제가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 衛生局 설치 등 제도정비가 서둘러졌다.[47]

區 行政에 있어서 위생업무는 1946년 8월에 신설된 厚生課 保健衛生係에서 맡았다. 그뒤 1948년 11월 최초의 區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社會課에서 보건위생업무를 관할하였다. 그뒤 1976년 2월에 衛生課가 신설되고 식품위생계·환경위생계가 설치됨으로써 區의 위생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이다. 위생과에서 전담하고 있는 위생업무를 보면, 식품위생계에서는 유흥음식점·전문음식점·대중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허가·신고·지도단속 등을 맡고, 환경위생계에서는 숙박영업·목욕장업·이미용소·유기장·식품제조업소 등 환경위생관계업소의 허가·지도감독을 맡고 있다.[48]

區의 보건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은 **城北區保健所**(종암동 28-358번지 소재)

47)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通史』 下, 1973, p.474.
48) 羅恪淳, 「서울特別市 區行政變遷考」, 『鄕土서울』 제46호, 1988 참조.



성북구보건소

이다. 보건소는 1956년 5월 22일에 공포된 서울特別市條例 제88호 「서울特別市立保健所 設置條例」와 같은 해 12월 31일 공포된 法律 제406호 保健所法에 의하여 법적인 보장을 받아 일정한 지역내의 질병예방과 공중위생을 보장하는 담당기구로 출발하게 되었다. 성북구보건소는 1951년 성북구보건진료소로 발족하였다. 보건진료소는 6·25동란 중에 정부에서 배치하였던 것이며 당시 보건소의 명칭은 보건진료소와 보건소의 2가지 형태로 되어 각구에 분포되어 있었는데, 1957년 3월 보건진료소가 해체됨을 계기로 1959년에 이르러서는 보건진료소가 완전히 없어지고 보건소만이 보건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49] 따라서 1959년 6월 19일에 성북구보건소가 시립보건소로 설치되게 되었다. 이어 1961년 3월에는 구청으로부터 防疫事業 전반을 인수받았으며, 1962년부터는 본연의 임무인 예방의료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1963년 4월에는 구청 사회과에서 관장하던 보건업무 및 의약사무를 이관받아 보건행정이 일원화되면서 지역보건사업을 확충, 본궤도에 올랐다. 1975년 12월에는 위생·청소·환경업무 일부를 구청에 이관하였고, 1981년 11월에 보건소의 지휘감독권이 서울特別市長에서 區廳長으로 이양되었으며 1989년 5월에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보건소가 市 사업소에서 區 사업소로 편입되므로써 지역보건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더욱 굳혔다.

성북구보건소는 1990년 12월 區廳舍에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고, 모자보건사업·가족계획사업·저소득가정 방문간호·전염병예방·부정의료센터 운영 등 지역주민의 보건관리를 위해 만전을 다하고 있다. 성북구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건사업을 업무분장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0]

49)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通史』 下, 1973, p.481, 482.
同 委員會, 『서울六百年史』 제5권, 1983, p.561, 562.

50) 성북구규칙 제83호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직제규칙 및 제84호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사무분장규칙(1991. 3. 15. 개정) 참조.

〈성북구보건소 업무분장〉

課	係	業 務 分 掌
보건행정과	보건기획계 운 영 계 방 역 계	지역보건기획, 진료비 징수 및 진단서 등 민원처리, 방역대책 및 급성 전염병 예방
보건지도과	보건지도계 가족보건계 건강관리계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교육·계몽, 모자보건, 가족계획 및 성인병 예방, 만성 전염병 예방, 예방접종계획 수립, 주민영양개선사업
의 약 과	의 무 계 약 무 계 검 진 계	의료법·의료기사법·약사법에 관한 사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사무, 보건에 관한 실험 및 검사업무
진 료 실	1차 진료과 모자보건과 전염병예방과 구강보건과	

2) 의료기관

우리나라에 있어서 近代醫學의 導入과 위생관념의 혁신은 무엇보다 西洋宣教師의 入國活動을 들 수 있고, 甲午改革(1894) 때에 이르러 위생제도를 실시한 것은 틀림없다.

이후 日帝 때에는 朝鮮醫藥令에 의해 국민의 보건관리가 되어 왔으나 그 상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수도 적었다. 이는 광복 직전인 1943년 당시 京畿道 전체의 병원수가 53개소 뿐이었음을 볼 때도 크게 부족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광복 이후에는 보건위생문제의 해결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의료요원의 양성·의료시설의 증가 및 향상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국공립 의료기관이 들어서고 보건소도 잇달아 설립되었으며, 사립병원의 수와 의료인 숫자도 크게 늘어나 지역의료상황이 숫적·질적으로 개선·향상되어 왔다.[51]

성북구의 의료기관으로는 먼저 조선시대에 이 지역에 소재했던 동활인서에서부터 그 맥을 잇는다고 하겠다. **東活人署**는 조선시대 都城 내의 병자를 救療하는 임

51)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通史』 下, 1973, pp.474~478.

무를 관장하던 관서로 지금의 성북구 동소문동4가 103번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활인서는 태조 1년(1392) 고려 때의 제도를 본받아서 東西大悲院을 두어 병자와 갈 곳이 없는 사람을 수용하여 치료하고 衣食을 지급하는 등 구활하였는데, 태종 14년(1414) 崇儒抑佛 정책에 따라 불교식 명칭을 벗고 東西活人院으로 개칭하였다. 그 위치를 보면 동활인원은 동소문 밖에, 서활인원은 서소문 밖에 두었다고 했다. 이어 세조 12년(1466)에는 동활인원과 서활인원을 통합하여 活人署로 고쳤다. 활인서는 주로 전염성 환자들을 취급하는데, 병의 유행이 심할 때에는 활인서 주위에 病幕을 만들어 환자들을 수용하였으며, 한편으로는 巫覡을 專屬시켜 전염병 유행에 대한 疫鬼의 退治術을 강구케 하고 때로는 의료 이외의 구호사업을 겸행하기도 하였다. 이 활인서는 임진왜란 때 일시 중절되었으며, 고종 19년(1882)에 폐지되었다.[52]

성북구 지역에는 현재 관내 유일한 종합병원인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안암동5가 126-1번지)과 준종합병원인 우신향병원(안암동5가 85-9번지)·한양성심병원(하월곡동 29-110번지) 등 병원 7개소가 위치하여 지역의료활동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중 **高麗大學校 醫療院 安岩病院**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모체로 1941년 9월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의 부속병원으로 종로구 혜화동에서 개원하였다. 그뒤 30여년간 學校法人 又石學園에서 경영해 왔는데, 그 사이 병원의 명칭은 1948년 서울여자의과대학 부속병원, 1957년 수도의과대학 부속병원, 1967년 우석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바뀌었고, 1971년 12월 현 학교법인 高麗中央學園에 합병됨에 따라 병원의 명칭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바뀌었다. 1983년 9월에는 부속병원을 총괄·운영하는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 전경

52)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제1권, 1977, p.656, 657 및 『서울六百年史』 文化史蹟篇, 1987, p.581.

의료원이 발족됨에 따라 후에 설립된 구로병원·여주병원·안산병원과 함께 의료원 산하가 됨과 동시에 병원명칭을 부속 혜화병원으로 고쳤다. 이어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내에 부속병원을 신축하여 1991년 10월 8일 이전·개원하면서 병원명칭도 부속 안암병원으로 고쳤다. 안암병원은 임상 29개과 750병상을 갖추고 의료진 570여명을 포함한 1,100여명의 교직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명실상부한 종합의료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우수한 의료진이 깊이 있는 의학이론을 바탕으로 의과대학 학생 및 전공의 교육과 임상의학연구를 증진시키며, 최신 의료장비와 고도의 의술로써 환자 진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성북구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외 성북구 관내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분포상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5〉 〈표 16〉과 같다.

3) 청 소

서울에 있어서 도시위생이라는 시점에서 청소사업이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日帝强占 직전의 일이다. 이 당시 漢城府 市街는 상하수도가 완전치 못할 뿐 아니라 각 가옥들의 변소의 구조가 완비되지 못해 도로변에 汚水가 흐르고 쓰레기가 쌓여 있어 시민의 보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光武 8년(1904)에 衛生淸潔所를 세우고 한성부 내에 '衛生淸潔法'을 실시케 하였다. 위생청결소는 공중변소 설치, 분뇨통 分給, 쓰레기·오물의 운반 등을 하였다.[53] 光武 11년(1907)에는 大韓醫院 衛生部 사업의 하나로서 漢城衛生會를 설치하고 서울의 각종 청소를 담당케 하니,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업무이었다.

이 청소업무는 府制 실시 후에 京城府 衛生係에 인계되어 일제 때의 청소업무는 京城府의 재정부담하에 시행되었다. 이때 집집마다 쓰레기통을 비치하도록 감독과 순시를 하고 구간을 정해 쓰레기를 수거한 뒤 都城 밖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하였다. 지금의 서울운동장 부근에 쓰레기 假集荷場을 설치한 다음 光熙門과 독립문 밖 편리한 장소에 쓰레기를 매립하였다. 분뇨처리는 근교농민들이 비료로 수

53)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 제3권, 1979, p.442.

거해 가기도 했으나 그 처리시기가 불규칙해 변소가 넘쳐 흘러 도시위생의 큰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공동변소 설치・변소개량 권장 등을 하였고 그후 서울 근교에 분뇨처리장을 설치한 뒤 각 가정의 분뇨를 수거하여 저장해 놓는 방법도 사용하였다. 또한 京城府에서는 1935년 6월부터 戶別稅 부과 때 분뇨취급수수료를 징

〈표 15〉 성북구 의료기관 분포현황

	종합병원		병 원		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조산소	보건소	기타
	개소	병상수	개소	병상수						
1981	1	150	3	125	162	56	68	12	1	—
1982	1	150	4	169	156	57	63	13	1	—
1983	1	80	4	146	154	48	62	13	1	—
1984	1	80	5	159	156	55	63	12	1	10
1985	—	—	—	298	162	60	56	13	1	9
1986	—	—	7	277	167	62	56	12	1	10
1987	—	—	5	220	173	63	58	10	1	11
1988	—	—	7	277	177	63	64	9	1	11
1989	—	—	7	277	174	69	68	8	1	9
1990	—	—	7	293	179	75	66	5	1	9
1991	1	1,050	7	293	186	88	66	5	1	7

〈표 16〉 성북구 의료인 분포현황

	계	의사	치과 의사	약사	한의사	조산원	간호사	간호 조무사	의료 기사
1981	611	166	57	…	67	12	10		299
1982	986	205	59	342	63	16	136		—
1983	718	179	49	340	66	21	61		—
1984	781	185	54	345	63	18	60		54
1985	1,316	191	60	362	56	8	61	519	59
1986	1,432	199	63	361	56	9	72	565	107
1987	1,318	200	64	355	58	10	65	540	26
1988	1,499	218	64	372	64	20	74	588	99
1989	1,475	213	70	361	68	10	74	581	98
1990	1,508	228	75	367	66	10	61	588	113
1991	2,004	295	92	371	66	9	344	651	176

(資料) 성북구청, 『성북구통계연보』, 1986～1991年版
서울特別市, 『서울통계연보』, 1992年版 참조.

수하여 오물처리 등에 사용하였다. 이는 재산세 부과시에 오물세를 함께 징수한 셈이다.[54]

광복 이후 청소사업은 서울市 관하로 옮겨져, 서울市는 日帝 때의 청소시설 장비를 물려받아 1일 평균 약 30만貫의 쓰레기와 3,000석의 분뇨를 처리해 왔다. 당시의 청소사업은 서울市 保健衛生局 衛生課 소관으로 直營制로 운영되었다.

1948년 10월부터는 예산절약과 官營事業의 비능률적 경향을 民營으로 이양하였다. 즉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청소사업이 市 직영제에서 특정업자에게 위탁하는 대행제로 전환되었다. 쓰레기 수거는 각 구마다 대행자 1명씩을 선정, 대행시켰으며, 분뇨수거는 용산구·중구·종로구·동대문구에만 위탁 대행자를 선정하고 기타 주변 각 구는 농촌의 실수요자가 임의 수거 처리토록 하였다.

1953년 12월을 기해서는 청소업무가 보건위생국 소관에서 市 警察局으로 이관되어 쓰레기 수거를 경찰국 직영으로 하였다. 1954년에 서울시는 쓰레기 수거를 위해 洞마다 청소봉사반을 조직하였고, 1955년에는 분뇨수거에 있어서 성북구 등 나머지 구에도 대행업자를 선정하였다. 1960년에 이르러 청소업무는 다시 市 사회국 위생과로 넘어왔다.

5·16혁명 후 청소사업은 중요한 전환을 이루었다. 1961년 12월 30일에 〈오물청소법〉이 제정·공포되어 오물의 위생적 수집과 처리에 관한 국민의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위반행위를 강력 단속하는 벌칙을 법령상 제정하였다. 또 1962년에는 서울특별시에 清掃局을 신설하고, 각 구에도 清掃課가 신설되어 청소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1963년에는 쓰레기 수거업무가 직영제에서 다시 대행제로 처리되었다가 1966년 6월에 또다시 직영제로 환원되었다. 그리고 洞 단위로 일정에 따라 차량을 고정 배차하여 定日定時 수거원칙이 확립되었다. 분뇨수거는 1969년 1월부터 대행제에서 다시 직영제로 전환되었다.

이후 청소사업은 강화된 청소행정기구를 중심으로 장비의 개선과 현대화가 추진되었으며, 오물의 위생적 처리의 철저와 시민의 청소의욕이 앙양되어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55] 1970년대 이후에는 쓰레기 격증현상 등으로 청소사업의 중요

54) 上揭『서울六百年史』제4권, pp.1101~1103.
55) 上揭『서울六百年史』제5권, pp.567~570.

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시설투자 등 해결과제도 많아졌다.

먼저 수거된 분뇨의 처리방법에 있어서 농촌으로 환원 처리하는 원시적 방법에 한계가 있어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분뇨종말처리장이 건설되었다. 1974년부터 청소업자 등록제가 실시되어 책임있는 청소사업을 추구하였으며, 분뇨수거에 있어서 人頭에 의한 수거계획량을 책정하던 종전의 계획수거량책임제를 차량별 수거능력의 기준을 제시해서 책임수거케 하는 등 운영의 합리화도 도모하였다. 그리고 변소개량사업을 각 구청별로 적극 추진하여 수거식 변소를 淨化槽化하여 1975년부터 수거식 변소의 감소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1977년에는 쓰레기 수거에 있어 幹線邊 적환장을 모두 없애고 콘테이너 시스템 방식을 실시하여 위생적 가로환경 조성에 힘썼다. 이때에 수거된 쓰레기는 低濕地・구획정리사업지에 매립 처분하였는데 1977년 3월에 蘭芝島處理場이 개장되었다.

1978년에는 청소사업의 운영방식에 또다시 변화가 있었다. 쓰레기 수거에 있어 지금까지 구청에서 관장하던 것을 지역여건에 맞는 수거업무 수행을 위해 洞事務所에 이양되었고 동시에 옥내수거방식에서 격일 定時門前 수거방식을 실시, 확립하였다. 또한 직영제이던 쓰레기 수거를 영업오물・다량오물 배출지역과 10억 이상의 마을금고자금을 가진 지역부터 민간대행제를 실시하는 병행제를 실시하였다. 또 분뇨수거에 있어서도 이해 7월 1일 서대문구・마포구, 9월 1일 성동구・동대문구, 1979년 4월 1일 성북・도봉・영등포・은평・강동구부터 民營化를 시범 실시하여 예산절감과 수거율 제고의 효과가 있자 1980년 5월 市 전역에 전면 실시하였다. 이로써 쓰레기 수거의 직영・민간대행 병행제와 분뇨의 민영수거제가 확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 오물수거제도 변천과정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17〉과 같다.



시민대청소의 날 미아로 청소작업

1980년대에는 청소사업에 있어

〈표 17〉 서울의 오물수거제도 변천과정

年 度	쓰 레 기	糞 尿	機 構
'45～'47	직 영	직 영	보건위생국 위생과
'48～'53	대 행	대 행	〃
'54～'60	직 영	〃	사회국 위생과 청소계
'62～'63	〃	〃	청소국 청소 1·2과
'64～'66	대 행	〃	〃
'67～'68	직영(일부 대행병행)	〃	〃
'69～'73	〃	직 영	〃
'73～'78	〃	〃	환경국 청소 1·2과
'78. 7. 1	〃	일부(2區) 대행	〃
'78. 9. 1	〃	일부(4區) 대행	〃
'79. 4. 1	〃	일부(9區) 대행	〃
'79. 10. 1	〃	〃	환경국 청소과
'80. 5. 1	〃	완전 민영화	〃
'81. 11. 1	〃	〃	환경녹지국 청소과

서 수거장비의 현대화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처리방법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잇따랐다. 1981년 12월부터는 쓰레기의 분리수거제를 적극 추진해왔다. 초기에는 區別로 시범동을 선정 실시하다가 1987년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市 전역에 실시하였고, 1988년에 쓰레기 분리보관 의무화를 條例로 규정, 1991년에는 공동주택에도 적용되었다. 방법에 있어서도 연탄재와 잡쓰레기로 구분하여 연탄재는 한강종합개발사업의 고수부지 盛土用으로 활용하였고 점차 가연성·불연성·대형·위험쓰레기 등으로 분류종류도 세분화되었다.

한편, 1982년 8월 1일부터는 수하차에 의한 쓰레기 수거방식을 소형 압축차로 대체하는 등 기계화를 추진하였다. 또 정화조설계시공업체 등록을 개방하고, 오물청소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오수정화시설 의무화, 분뇨정화조 청소의무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도 계속 이루어졌다. 한편으로는 이때부터 '86아시안게임·'88올림픽대회 등에 대비해서 공중변소 증설, 다중이용 공중변소 시설 확대 및 개방도 이루어졌다.

1984년부터 쓰레기 등 오물의 과학적 처리에 주력하여 分別 回收再活用 방식의 난지도쓰레기처리공장 등 서울에 4大 圈域別 쓰레기처리공장의 건설이 추진되었

다. 난지도쓰레기처리장의 평면매립이 완료되어 그 높이가 계속 상승되는 한계에 이르자 김포해안매립지를 건설하는 등 과학적이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청소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는 쓰레기청소에 있어서 지역청소는 하절기 1일·동절기 2일내 수거 원칙하에 시행되고 있으며, 분뇨는 완전대행제로 일반분뇨는 구청별로 1개 업체가 책임수거 하고 있고, 정화조청소는 1개 구역에 3~4개 업체가 자유경쟁하에 책임수거 하고 있다.

앞으로는 청소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 쓰레기 감량운동 등 시민의 호응이 더욱 요청되는 분야이고, 행정적 측면에서는 區 단위 중간집하장 설치, 中繼處理場(노원중계처리장-성북구·도봉구·노원구 관할로 1993년 완공 예정) 설치 등 계속적인 개선과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56] 참고로 성북구의 청소사업실적을 살펴보면 다음 〈표 18〉 〈표 19〉와 같다.

4. 生活體育

근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소득의 증대에 따라 여가시간의 증가로 건강증진과 보다 나은 여가생활을 위한 자각 및 욕구가 각 계층에서 일고 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재인식과 아울러 여가생활의 효율적 이용이 국민복지의 핵심적 요소로 부각되었다. 특히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더욱 높아졌다.

이와 같은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건강한 시민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1988년에 市·區에 健全生活課가 설치되었다. 건전생활과는 1989년에 生活體育課로 확대 개편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공간을 확보·관리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참여기회 제공 및 민간체육시설의 보호 육성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56) 서울特別市, 『市政』, 1970~1992 각년도판 참조.

1991년에는 체육법인·단체 등에 관한 업무를 市教育廳으로부터 移讓받아 명실상부한 생활체육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57]

〈표 18〉 성북구 쓰레기 수거실적

(단위 : t)

연 도	청소구역내 가구수	청소구역내 인 구	배출량	수 거 량		수거율 (%)	수거차보유대수	
				시 수 거	대행업소		자동차	수하차
1981	130,148	588,572	542,507	421,402	—	77.6	46	499
1982	130,209	589,534	471,246	386,619	—	82.0	46	497
1983	131,664	587,878	412,706	373,878	38,828	100.0	50	508
1984	134,530	589,356	411,065	363,229	47,836	100.0	50	508
1985	136,909	583,993	404,851	358,149	46,702	100.0	48	502
1986	140,754	583,325	463,173	409,205	53,968	100.0	51	592
1987	145,409	580,272	479,596	418,261	61,335	100.0	51	587
1988	147,658	572,665	480,531	412,276	68,225	100.0	52	534
1989	150,649	563,308	504,420	442,966	61,454	100.0	54	609
1990	147,209	551,345	536,646	476,599	60,047	100.0	62	655

〈표 19〉 성북구 분뇨 수거실적

(단위 : kℓ)

연도	수거구역내 가 구	수거구역내 인 구	배출량	비수거량	자연처리	수거량	수거율 (%)	수거차보유대		연수거회수	
								재래식	흡인식	재래식	흡인식
1981	130,148	588,572	69,021	9,520	7,657	67,157	97.3	3	14	—	23,692
1982	130,209	589,534	65,620	—	3,603	65,851	105.8	3	14	2,613	20,680
1983	131,664	587,878	67,849	—	4,068	61,554	96.7	2	15	2,016	19,125
1984	132,000	587,000	63,800	—	3,800	56,142	94.0	2	15	1,065	18,028
1985	141,523	583,509	55,120	—	3,120	51,370	98.9	2	14	961	17,659
1986	137,100	580,000	51,950	—	2,950	48,390	98.8	2	14	7,597	77,342
1987	145,409	580,272	42,000	—	4,200	43,282	113.1	2	12	6,491	68,616
1988	147,658	572,665	—	—	—	37,128	—	2	9	4,748	55,422
1989	150,649	563,308	—	—	—	34,396	—	1	9	2,910	51,023
1990	147,209	551,345	—	—	—	31,568	—	1	8	1,181	44,775

(資料) 성북구청, 『성북구통계연보』, 1986~1991年版.

57) 이하 생활체육에 관해서는 서울特別市, 『市政』, 1989~1992年版 참조 및 성북구청 생활체육과 자료 제공.

먼저 시민들이 이용할 생활체육공간의 확보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 관할구역의 동네 뒷산의 체육시설을 정비하였다. 동네 뒷산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동네 뒷산을 일제 조사하여 각종 시설을 정비하였다. 성북구에서는 개운산・북한산・월곡산 등이 정비되어 성북구민의 생활체육공간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성북구 동네 뒷산 체육시설 현황은 다음 〈표 20〉과 같다.

또 동네 뒷산에는 약수터를 중심으로 모여 서로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약수터 애호회들이 조직되어 있다. 성북구 관내 약수터 애호회와 그 이용현황은 다음 〈표 21〉과 같다.

그러나 성북구 관내 생활체육공간의 중심이 되는 것은 북한산국립공원을 손꼽지 않을 수 없다. **北漢山國立公園**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고양군의 경계에 있어 서울에 근접한데다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北漢山城 등 많은 유물・유적・사찰들이 위치하고 있어 사계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울의 自然公園이다. 이처럼 자연경관이 빼어난 북한산 경관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3년 4월에 道峰山 일대와 함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1987년 8월 5일에는 공원관리가 서울시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다. 공원 내에는 등산코스가 여러곳 잘 정비되어 있어 정상에 오르면 서울 시가지는 물론 멀리 西海까지 보이고, 계곡에 물이 많고 산림이 우거져 있어 야영지로도 적당하며, 적당한 장소마다 체육시설과 휴식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계곡을 따라서는 정릉유원지 등 유원지도 정비되어 있어 성북구민은 물론 서울시민 모두의 휴식과 체육공간으로서 널리 이용되고 사랑받고 있다.

그리고 성북구에서는 구민에게 건전한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민체육센터를 건립중에 있다. **성북구민체육센터**는 월곡동 산 2-1번지 월곡근린공원 내에 위치하며 1992년 12월 19일에 착공하였고, 1993년 6월말 완공예정이다. 이 구민체육센터는 대지 1,200평에 연건평 600평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가 총 12억 2,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구민체육센터 안에는 농구・배구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경기장, 무대, 방송실, 대기실, 기구실, 계단식 관람석(508석 규모) 등과 함께 헬스클럽과 취미교실의 강의실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는 다

〈표 20〉 성북구 동네 뒷산 체육시설 현황

(1992. 12. 31. 현재)

위치 / 시설물 종류별		계	개운산	북한산	월곡산	기타지역
계		1,435	597	528	246	64
운동장	소계	146	60	53	24	9
	배구장	1				1
	농구장	2	1		1	
	테니스장	8	3	2	3	
	게이트볼장	3	1	1	1	
	베드민턴장	123	48	49	18	8
	간이운동장	1	1			
	그네장	1	1			
	기타	7	5	1	1	
운동기구	소계	616	254	230	108	24
	철봉	64	28	22	11	3
	평행봉	52	20	21	8	3
	역기	30	25	2	3	
	팔굽혀펴기	47	12	21	12	2
	윗몸일으키기	114	67	27	19	1
	허리돌리기	89	40	30	16	3
	오금당기기	65	3	46	12	4
	가슴펴기	7		7		
	장애물건너뛰기	1	1			
	다리들어올리기	33	2	20	9	2
	누워팔굽혀펴기	18	2	8	7	1
	몸옆으로굽히기	1	1			
	매달려건너기	10	2	7	1	
	온몸펴기	1	1			
	몸통들어올리기	1	1			
	발목들어내리기	1	1			
	매달려무릎올리기	11	2	9		
	오르내리기	2	2			
	허리꺾기	54	40	4	10	
	허리펴기	7		6		1
	기타	8	4			4

시설물 종류별 \ 위치		계	개운산	북한산	월곡산	기타지역
편익시설	소계	515	238	169	85	23
	의자	476	220	156	79	21
	화장실	10	2	7	1	
	음수대	6	4		2	
	옹달샘	6		5	1	
	심판대	2	2			
	기타	15	10	1	2	2
관리시설	소계	152	40	76	29	7
	안내판	126	24	71	28	3
	휴지통	13	8	3		2
	대피소	3		1	1	1
	창고	1				1
	기타	9	8	1		
조경및기타	소계	6	5			1
	파고라	3	2			1
	산책로	2	2			
	조경및기타	1	1			

〈표 21〉 성북구 약수터 애호회 및 이용현황

(1992. 12. 31. 현재)

명칭	소재지	회원수	1일 이용인원
서례천	정릉동 산 87-1	150	200
주봉천	〃	60	300
전곡천	〃	120	150
녹산조기회	성북동 산 25	30	300
새북악	정릉동 산 87-1	30	500
동덕여대뒤	월곡동 산 2-1	30	250

※ 이외에 성북구 관내에는 문화재관리국 관리 6개소,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 관리 9개소의 약수터가 있다.

목적 강당 등이 들어서게 되어, 개관 후 지역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여가선용 및 주민화합의 기틀 마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하는데 행정적 차원만으로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민간자본에 의한 체육시

설 확보가 불가피하다. 체육시설업은 그동안 공중위생법 등의 규제를 받아 오거나, 적용 법규 없이 自由業으로 存置되어 시설면이나 운영면에서 시민들의 생활체육활동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體育施設 설치·이용에 관한 法律」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 시행에 따라 기존의 체육시설업에 대해 등록 및 신고 접수를 받아 업소를 지도하고 있다. 성북구 관내 체육시설업 현황은 다음 〈표 22〉와 같다.

그리고 시민들이 생활체육 현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체육공간의 확보와 함께 각종 스포츠에 대한 규칙, 기술 등을 습득하여야 하며, 動機賦與가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청별로 1988년부터 각종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성북구에서도 구민을 위한 **성북구 생활체육교실**을 월곡근린공원 등 구내 생활체육공간에서 아침체조교실·볼링교실·수영교실·게이트볼교실·베드민턴교실·에어로빅 등의 종목을 운영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성북구에서는 퇴폐향락적으로 흐르는 사회 분위기를 선도하고, 바른 생활의 여가시간을 유도하여 건전하고도 여유있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으로 **성북 주부 취미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성북구 거주 주부를 대상으로 구민회관 등지에서 포크댄스·주부합창·생활꽃꽂이 등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성북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과 취미교실 현황은 다음 〈표 23〉과 같다.

생활체육은 시민이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自生的으로 조직된 同好人 조직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생활체육 참여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이들 동호인 조직의 자발적인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중점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동호인 조직 중 지도자를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의뢰하여 체육지도자 육성도 꾀하고 있다. 성북구의 체육동호인 조직 현황은 다음 〈표 24〉와 같다.

〈표 22〉 성북구 체육시설업 현황

(1992. 12.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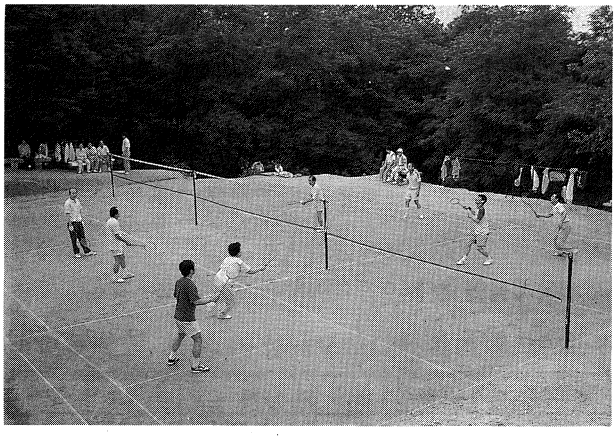
업 종	당구장	미용체조장	체력단련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체육도장	수영장	총계
업소수	267	17	15	10	3	5	52	4	373

〈표 23〉 성북구 생활체육교실 및 취미교실 현황

사 업 명	종 목	운 영 장 소	운영회수 / 참여인원
생활체육교실	아 침 체 조	개 운 산 운 동 장 월 곡 근 린 공 원	260 / 80,626
	볼 링	뱅 텐 볼 링 장 금 강 볼 링 장	96 / 4,536
	수 영	에 덴 수 영 장	48 / 2,993
	에 어 로 빅 스	대 한 합 기 도 장 성신여자대학교체육관	132 / 12,779
	배 드 민 턴	코 스 모 스 클 럽 새 북 악 클 럽 스 마 일 클 럽	95 / 2,884
	게 이 트 볼	개 운 산 운 동 장 매 봉 게 이 트 장 월 곡 게 이 트 장	367 / 11,533
취 미 교 실	생 활 꽃 꽂 이	구 청 지 하 회 의 실	23 / 887
	주 부 합 창	구 민 회 관	31 / 1,520
	포 크 댄 스	개 운 산 운 동 장	42 / 7,771

※ 운영회수 및 참여인원은 1992년 11월말까지의 실적임.

또한 시민들의 생활체육에의 참여 유도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각종 생활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성북구에서는 우선 同好人 간의 定期對抗戰을 개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동호인간 정기대항전은 축구·테니스·베드민턴·게이트볼 종목 대회가 각기 열리고 있다. 이외에 전 구민이 참여하는 향토문화행사와 체육대회를 겸하는 축제로서 **성북구민 체육대회**와 성북구민 걷기대회가 매년 개최되어 구민 화합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1989년부터 격년제로 열리고 있는 各區 대항 서울시민체육대회에도 줄다리기, 씨름, 육상, 그네, 가장행렬 입장, 응원경연에 참가하고 있다.



월곡산 생활체육시설

그리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관련단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함께 협조해나가

〈표 24〉 성북구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현황(1992. 10. 20. 현재)

種目	合計						地域						職場					
	團體數			同好人數			團體數			同好人數			團體數			同好人數		
	計	登錄	非登錄	計	登錄	非登錄	計	登錄	非登錄	計	登錄	非登錄	計	登錄	非登錄	計	登錄	非登錄
總計	232	137	95	9,669	6,518	3,151	156	114	42	6,541	4,901	1,640	76	23	53	3,128	1,617	1,511
축구	38	30	8	1,577	1,311	266	26	24	2	1,162	1,046	116	12	6	6	415	265	150
배드민턴	49	37	12	2,092	1,782	310	47	37	10	2,065	1,782	283	2		2	27		27
테니스	20	8	12	748	356	392	9	4	5	216	109	107	11	4	7	532	247	285
게이트볼	11	10	1	218	212	6	11	10	1	218	212	6						
싸이클	10	5	5	236	150	86	10	5	5	237	150	96						
배구	11	9	2	229	189	40	9	9		189	189		2		2	40		40
육상	7	3	4	170	119	51	7	3	4	170	119	51						
등산	26	10	16	1,274	810	464	9	5	4	245	174	71	17	5	12	1,029	636	393
낚시	12	8	4	685	576	109	7	5	2	386	327	59	5	3	2	299	249	50
볼링	12	1	11	350	50	300							12	1	11	350	50	300
탁구	10	1	9	260	62	198							10	1	9	260	62	198
야구	3	3		108	108								3	3		108	108	
에어로빅	3	1	2	350	150	200	3	1	2	350	150	200						
체조	8	2	6	786	325	461	8	2	6	786	325	461						
국궁	1	1		100	100		1	1		100	100							
수영	1		1	48		48							1		1	48		48
윈드써핑	1	1		23	23		1	1		23	23							
농구	1		1	20		20							1		1	20		20
축구	2	2		44	44		2	2		44	44							
헬스	3	2	1	280	80	200	3	2	1	280	80	200						
롤러	3	3		71	71		3	3		71	71							

고 있다. 이는 1991년에 市 教育廳으로부터 체육법인과 단체에 관한 업무를 이양 받으므로써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성북구의 체육관련 단체로는 城北區體育會가 생활체육의 기본방향 설정 등의 자문 기능을 하고 있고, 城北區 生活體育協議會가 종목별 회원단체 관리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가고 있다. 그리고 城北區 體育振興協議會가 구민 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한 지원과 계획을 수립, 활용하는 등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

〈鄭 希 仙〉

II. 文 化

성북구는 문화로 충만한 고장답게 구내 소재하는 문화단체·문화시설도 많으며 대내·외적 활동도 활발하다. 여기서는 그중 몇개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그 외 구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러 문화단체들의 명칭과 대표적 활동 내용을 언급하는 정도로 그치겠다.

1. 김중자여성국악단

김중자여성국악단은 현재 20여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1979년 김중자무용단의 창단으로 시작된다. 성북구 길음3동 919-8에 소재하고 있다. 창단 이후의 주요 공연 경력을 간단히 살펴보면,

1979. 김중자무용단 창단 이후 KBS 국악순례와 MBC 우리춤 우리가락에 고정출연하고 있다.

1984. MBC 창사기념공연 출연

재일동포 일본 순회공연

1984. 85. 86. 87. 조선일보 국악대공연(세종문화회관 대강당)

1984. 6월부터 KBS 주최 천하장사 씨름대회 출연 시작~93년 현재까지 고정출연

1984. 전주대사습놀이 특별공연 출연 시작~현재까지 고정출연

1985. 서울 국제배구대회 식전 행사(잠실체육관 실내)
1986. 10. 아시안게임 전야제 및 선수촌 위문공연(잠실 선수촌)
1986. 11. 미국 L.A. 한국의 날 행사 초청공연(디즈니랜드) KBS 주최
1987. 올림픽 1년 전야제, 100일·30일 전야제 공연
1987. 국제가요제 특별출연
1987. 8. 일본 오사까 1개월 공연
1988. 서울올림픽 전야제 공연(고수부지 특별무대) MBC 주최
1988. 서울올림픽 기간내 40회 공연
1988. 장애자올림픽 개막식 공연
1988. 한민족 체육대회 축하공연
1989. 서울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KBS 주최)
1989. 8·15 특집공연(독립기념관)
1990. 제2회 농어민 후계자 대회 특별출연
1991. 9. 28. 세계정구대회 식전행사 참여(잠실펜싱경기장)
1992. 1. 한국 전통음악 캐나다 공연
1992. 6. 전주대사습놀이 축하공연
1992. 10. 경찰의 날 축하공연(서울운동장)
1992. 10. 일본 NHK 방송 위성중계 생방송(올림픽공원) 특집 '한국의 일본여성'에 출연

등 화려한 활동을 하며, '세계는 하나'라는 국제화 시대에 국악을 통해 우리 얼과 정신을 국내·외에 심어주는 민간외교 사절 역할을 하고 있다.


김중자여성국악단의 공연모습(부채춤)

공연내용은 화관무, 부채춤, 오고무, 화용월태, 살풀이, 태극무, 설장고, 사물놀이, 승무, 어우동, 봄맞이 처녀 등 다채롭다. 김중자

무용단은 총 20명의 단원과 근자에 5명의 타악기 그룹으로 구성된 「각시패」를 만들어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

무용단의 리더 김중자는 1945년 충남 천안 출생이다. 모친 李弄珠는 원래 충청도 지방에서 명창으로 이름을 얻었고 가야금병창과 창극에도 능해 조선창극단·고려창극단을 거쳐 후일 아리랑 여성국극단을 조직했다. 그 어머니의 藝人의 피를 이어받아 김중자도 참으로 다재다능하여 현란한 꽹과리 솜씨와 함께 가야금, 장고, 북 솜씨 역시 빼어나, 우리 국악 가운데 가장 생동감 있는 음률로 어쩌면 남성들만의 예술이라고 여겨져왔던 농악을 여자의 몸으로 잘 승화시켜 오묘한 쇠가락과 북, 징, 장고, 그리고 춤사위가 각기 어우러져 멋진 조화를 이뤄내는 안무가이며, 천하장사씨름대회를 비롯한 각종 공연을 통해 사랑과 인기를 받고 있다. 단원 가운데 장고를 치는 김영희는 친동생이며 송경희는 친딸로 많은 국악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3대 국악가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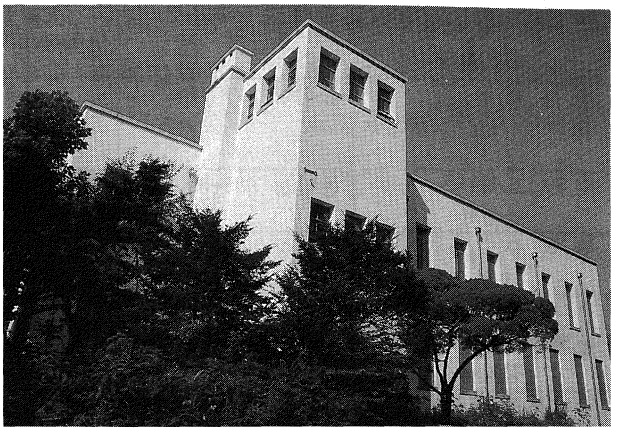
2. 윤철섭악극단

성북구 정릉동 712-26에 소재하는 윤철섭악극단은 1992년도 창단된 문화단체로 비록 그 기간은 짧고 아직 과시할만한 해외공연이나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지만 그 창단동기와 활동모습이 아름답다. 이 악극단은 각 지방의 노인을 위한 공연을 하고자 창단되어 1년에 5~6회씩 私費로 지방순회공연을 갖고 있는데 무료입장이다. 주로 장화홍련전 홍부전 등의 무료공연을 통해 잊혀져가는 우리의 고전을 보급시키고 되살리며, 우리것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대를 주고 있다. 대표자는 윤철섭이며, 단원수는 24명이다.

3. 澗松美術館

성북동 97-1 城北國民學校 정문 옆 도시속에 있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주위가 한적하고 조용한 4,000여평의 대지 위에는 故 金鎣弼 선생의 호를 따서 1938년에 설립된 간송미술관이 자리하고 있어 성북구를 문화의 고장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

을 하고 있다. 이곳 葆華閣에는 전형필 선생이 평생동안 수집한 文化財가 소장되어 있는데 간송미술관은 우리나라 제일의 古書畫 소장처로서 1966년 4월 「韓國民族美術研究所」로 발족한 이래 1971년 10월부터 매년 5월과 10월에 소장문화재를 전시하고 있으며 「澗松文華」라는 圖錄과 논문집을 내고 있다.



澗松美術館

澗松은 일본 早稻田大學을 졸업하고 1930년 귀국한 후 민족문화재를 수호하려는 사명감에 韓國文化財의 수집에 착수하여 가산을 탕진한다는 비난을 들어가면서도 조금도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한 열성을 가지고 많은 문화재를 수집하여, 현재 이곳에는 국보 및 보물급의 문화재가 다수 소장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문화재·미술품들이 있어,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미술사 연구인의 성지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다.

알려진 바로는 이곳에는 훈민정음(국보 70호), 동국정운 권1, 6(71호), 금동계미명삼존불(72호) 등 국보 9점과 백자박산향로(보물 238호), 금동여래입상(284호), 청화백자철사진사국화문병(376호) 등 보물 12점이 소장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지정 유형문화재 4점이 간송미술관 정원에 세워져 있다.

4. 기타 문화단체 현황

문화단체및 대표자명	소 재 지	단원수	활 동 내 역	전화번호
근화무용단 김공자	동소문동 4가 1	10	고전무용(국내활동무)－ 해외공연수시(4～5회)	924－0156
성화민속무용예술단 안금순	동소문동 1가 30	12	국내공연(호텔) 외국(말레이지아) 공연	762－9658
전인권기획 전인권	동선동 1가 243 동진빌딩 305호	6	롯데크리스탈볼륨 라이브 콘서트	927－9861

문화단체및 대표자명	소 재 지	단원수	활 동 내 역	전화번호
황 복 희	동선동 4가 179	2	92. 1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오페라 '환향녀' 공연 *2인 음악회	
키포인트악단 유상봉	돈암동 538-89 1/7	7	전국을 공연구역으로 활동 내역은 연주(가요, 팝송)임	927－3446
이 연 수	정릉동 508-74 파크빌리지 102호	15	현대무용	915－4453
현 경 채	정릉동 670-7	3	중국악기 독주회	914－1364
동화기획 김영숙	정릉동 865-105	20	서울청소년 연주회 (매월 정기공연)	919－5955
김기종과 그의악단	정릉동 산16	6	주 3회 활동중	914－8387
이동극단파라솔 김지훈	길음1동 541-40	20	92. 4월 영동백화점 92. 6월 구미공단 아동극 '구두쇠영감과 머슴' 공연	913－6811
고려민속무용연구소 정명숙	길음2동 629-154	5	민속무용연구 정명숙춤판(진흥원대극장)	912－2508
여정태가무단 여정태	길음2동 853-42 바동 202호	30	가요연주 및 쇼연출	912－7680
구일권가무단 구일권	길음3동 1263-295	6	실내악, 경음악 연주	988－3746
금강극장 임봉수	종암2동 3-1237		영화상영	914－9681
서울새울 가야금삼중주단 김해숙	장위1동	3	공연일시 : 92. 9. 23 공연장소 : 국립국악원소극장 공연내용 : 가야금3중주연주 외 다수	915－2160
화랑소극장 유복래	석관1동 173-1		영화상영	964－2238
김근희가무단	보문7가 120-1	13	고전무용(살풀이춤)	923－0465
진소영연예기획	보문1가 118	8	북장구, 사물놀이, 살풀이	926－3710
김숙자무용단	삼선2가 389	25	민간 대중	760－4107
한울무용단 김숙자	삼선2가 389	25	문없는 방, 나팔꽃	760－4107 760－4101
서울페라토리앙상블 신영섭	삼선2가 241	10	· 남자는 남자다 · 코뿔소	762－5387
금호현악4중주단 현순이	성북2동 114-7	4	· 92. 4월 호암아트홀 공연 · 91년 일본 공연 · 92. 11월 한미친선협회공연	741－2277
한마루2000 임수택	성북2동 254-6	8	· 91. 11월 즉흥곡 공연 (혜화동 한마당극장) · 92. 1월 국립극장 워크샵 공연 참가 · 92. 6월 연극제 참가 · 92. 8월 춘천문화회관 공연	762－5220

〈成 禹 慶〉

第 10 章　交通·通信

Ⅰ. 交　通

1. 道　路

서울의 도로망은 조선왕조의 개국으로 한양이 수도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건설·정비되었다. 그에 따라 종래의 개성 중심의 도로망 구성도 한양 중심으로 개편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태조때에 新都宮闕造成都監이 설치되어 도성내의 도로설비와 전국의 도로망 재정비를 관장하였다. 세종 8년(1426년)에는 성내의 종별 도로폭이 규정되었으며 이후 《경국대전》의 편찬으로 조선초기의 한성과 전국의 도로망 정비는 일단락되어 개항기까지 그 체제가 유지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도성내의 도로망은 길의 너비에 따라 대·중·소로의 세 종류로 나뉘었고 처음부터 평직선으로 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잘 설계·건설되었다. 당시의 주요 도로망은 경복궁과 종묘·사직단·4대문·4소문을 가로 세로로 연결하고 있었으며 도성내의 도로의 총 길이는 9,775보(약 17km)였다고 전한다. 한편 한성부의 관할구역은 도성밖 10리까지였는데 그 구역 내의 도로관리는 한성부가 주관하였으며 수도라는 중요성으로 인하여 兵曹와 戶曹도 직접 간여하였고 관리규칙도 매우 엄했다.[1)]

도성내의 도로는 성문을 통하여 성 밖의 도로망과 연결되어 있었다. 전국도로망과의 연결점은 다음과 같다.

· 서북방면 : 숭례문－경기감영－영은문－무악재－홍제원

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600년사》, 1978, pp.476-474.

· 남쪽방면 : 숭례문－이문동┌청파역－와요현－동작진
　　　　　　　　　　　　　└남묘－이태원－서빙고나루
　　　　　　　　　　　　　└청파역－당고개－습진터－노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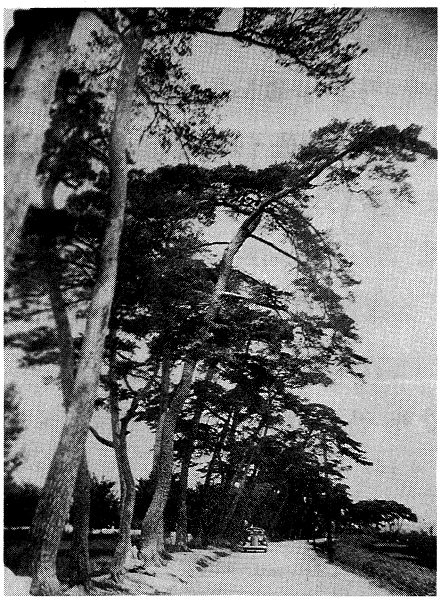
· 서쪽방면 : 숭례문┌약전현－아현－노고산－창천┌양화도
　　　　　　　　　　　　　　　　　　　　　　└광흥창－서강나루－밤섬
　　　　　　　　　　　　　　　　　　　　　　　－여의도－영등포
　　　　　　　　　└만리재－마포나루

· 동쪽방면 : 홍인문－동묘┌안암동천－제기현－북바위┌무너미고개
　　　　　　　　　　　　　　　　　　　　　　└안락재－중랑포
　　　　　　　　　　　└영도교－왕십리－차현－살곶이－송파

이중 동쪽방면의 도로 중 무너미고개(수유치)방면의 도로가 현재의 성북구 지역을 통과하고 있었다.

《증보문헌비고》에 따르면 당시 전국의 주요도로망은 대체로 9개로 나뉘었으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제1로는 서울에서 의주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홍제원을 거쳐 고양 파주 개성을 거쳐가는 1,086리의 거리였다. 이 길은 燕行路 또는 使行路라고 불리웠으며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신들이 오가는 도로였다.


현 종암동 일대의 소나무 길(1939. 8)

제2로는 홍인문 즉 동대문에서 수유치를 넘어 동북쪽으로 서수라로 가는 길이다. 김화, 금성, 철령, 안변, 원산, 영흥, 함흥, 함관령, 북청, 길주, 명천, 경성, 무산, 회령, 종성, 온성, 경원을 거쳤다. 關北路라고 불렀으며 거리는 2,459리이다.

제3로는 홍인문을 통과하여 중랑포·망우리를 지나 원주·대관령·강릉·삼척을 거쳐 동쪽으로 평해군에 이르는 길인데, 거리는 880리

이며 關東路라고 했다.

제4로는 서울에서 부산을 잇는 간선도로로서 숭례문을 나가 판교, 용인, 충주, 문경, 유곡역, 대구, 밀양 등을 거친다. 거리는 960리이며 左路·中路로 불리우기도 한다. 일본사신이 서울을 왕래하는 길로 낙동강과 한강의 내륙수로와도 연결되었던 길이었다.

제5·6로는 서울에서 고성의 통제사영(통영)을 잇는 도로이다. 모두 숭례문으로 나간다. 제5로는 서울에서 유곡역까지 제4로와 같은 노선이며, 이어 함창, 상주, 성주, 칠원, 함안, 진해, 고성을 거친다. 유곡에서 통영까지는 530리이다. 제6로는 과천, 수원을 거쳐 성환, 진위, 공주, 여산, 삼례, 전주, 오수, 남원, 함양, 진주, 사천을 거쳐 통영에 이른다. 연장길이는 986리이다.

제7로는 숭례문에서 제주도에 이르는 길이다. 삼례까지는 제6로와 같으며 금구, 태인, 정읍, 나주, 영암, 해남, 관두량을 거쳐 수로를 통해 제주에 이른다. 길이는 970리이다.

제8로는 서울에서 忠淸水營에 이르는 길이다. 진위까지는 제6로와 같으며 소사, 평택, 요로원, 신창, 신례원을 거친다.

제9로는 돈의문으로 나가 서쪽으로 강화부에 이르는 길인데 양화진을 건너 양천·김포·통진을 거쳤다.

이중 제2로는 동대문을 거쳐 현재의 성북구지역을 통과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간선도로는 지선도로와 함께 광범한 도로망을 형성하였고 오늘날 도로망의 근간이 되었다.

한편 1876년의 개항을 계기로 근대화가 추진되면서 도로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도로망은 법제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도로의 실제 상태는 매우 협소하고 불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시기 외국인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도로의 사정이 매우 나빴다고 한다. 알렌은 "…한국인들에게 거리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는 단지 길에 불과하다. 비가 오물을 씻어버리기 때문에 청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쓸 필요가 없는 것 같다.…"[2]

2) 알렌《조선견문기》신복룡 역, 평민사, 1986, p.54.

이라 하였고 묄렌도르프는 "길은 조악하고 교량은 드물다"고 하였다. 김옥균이 일본문물 시찰 후 발표한 治道略論에도 "…외국사람이 우리나라를 유람하고 돌아가서는 …거리에는 똥과 오줌을 누는 사람과 가축이 길을 메울 정도로 많다고 하니 어찌 차마 들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治道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3]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당시 근대화를 추진하던 개화파들은 새로운 개혁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1876년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김기수는 《日東記遊》에서 일본의 근대화된 도로를 소개하였다. 김옥균은 1882년 일본에 다녀온 뒤 "나라를 부강시키려면 산업을 개발해야 하고, 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治道를 먼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漢城旬報에 〈治道略論〉으로 발표하였다. 그 주요골자는 부국강병의 기본으로 치도를 강조한 것이었다.[4]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열강의 이권개입과 일제의 국권강탈로 인하여 주체적인 도로의 근대화에는 실패하였으며 일제의 식민지지배정책 속에서 도로의 修治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하여 이른바 통감정치를 실시하였는데 가장 우선시하였던 사업의 하나가 도로개수였다. 도로개수의 중점은 주로 내륙과 항구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와 농산물이 풍부한 지역의 지방도를 개수하는 것이었다. 1906년 3월 7개년사업으로 도로개수계획이 세워졌으며 그해 4월에 내부 산하에 治道局을 설치 그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이 사업은 1911년에 일단 끝났고 이때 개수되거나 신설된 도로를 흔히 新作路라고 불렀는데 곧 근대적 도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신작로개설에 소요된 토지는 '임의의 기부'에 의하여, 노동력은 '관행'에 의하여 충당되었는데 이는 조선인의 토지와 노동력의 강제약탈에 다름이 아니었다.[5]

1911년 총독부는 「도로규칙」을 공포·시행했으며, 1911년~1915년을 제1기 치도사업5개년계획기간으로 정하고 1917년~1922년을 제2기치도사업6개년계획으로 정하여 사업에 착수하였다. 서울의 가로망은 1912년 일제가 47개 노선을 개수한

3) 漢城旬報 제26호 甲申(1884), 윤 5월 11일.
4) 위와 같음.
5) 손정목, 「日帝强占期 道路와 自動車에 관한 연구」, 《都市行政研究》 제4집, 서울시립대학교, 1989.

것이 그 시초이다. 적극적인 계획은 1936년 조선총독부 고시 제722호로 확정된 220개의 노선과 19개의 광장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현재의 도심부와 영등포의 가로망은 이때 구성된 것이 대부분으로 개설되지 않았던 가로망도 지금까지 효력이 살아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1939년 작성된 計劃街路網一覽에 나타나는 성북구지역의 도로망은 다음의 〈표 1〉과 같다.[6)]

이러한 도로개설 및 그 계획은 당시 경성부 인구의 증가추세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다. 한편 일제에 의한 근대적 도로망의 건설은 그 일차적인 목표가 식민지의 경영과 대륙진출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으로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해방 후 미군정통치, 남북분단, 한국전쟁 등의 정치, 사회혼란으로 도로개발은 제대로 수행될 수 없었다. 1960년대에 들어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본격적인 도로건설사업이 추진되었다. 1962년 현재 서울의 도로 총면적은 100만 m^2 정도이고 총길이는 103만 1,811m에 달하였다. 이것은 당시 서울시의 총면적

〈표 1〉 1939년도 성북구 지역의 도로망

등급	유별	번호	로폭	연장	기점 중요경유지 및 종점
대로	3	5	25	3,050	신설동－돈암동
		6	25	4,800	원남동－돈암동－종암동
		7	25	1,140	신설동－안암동광장－제기동
		8	25	1,890	안암동광장－용두동－하왕십리동
		10	25	2,000	제기동－종암동지내 시경계
중로	1	9	20	450	안암동광장－제기동
		15	20	1,750	종암동－임업시험장 남쪽－회기동
	2	12	15	860	혜화동광장－성북동
		13	15	950	돈암동－성북동
		14	15	1,850	돈암동－돈암동
		15	15	1,220	신설동－안암동
	3	15	12	1,920	창신동－신설동－돈암동
		17	12	1,130	돈암동－돈암동
		20	12	720	안암동 광장－개운사앞
		21	12	2,120	제기동－종암동

6) 경성부, 《京城府 土木事業概要》, 1938, pp.23-28.


하월곡동에서 태릉 선수촌을 지나는 화랑로

270km²에 비해 너무 협소하였으며 현대도시로서의 양상을 갖추기에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당시 서울시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시세팽창으로 인한 교통량 소화를 위해 1958년부터 외곽순환도로 조성사업을 1962년에 완공할 목적으로 적극 추진하였다. 이 순환도로는 한강을 기점으로 하여 한남동－옥수동－금호동－왕십리－고려대학 앞－미아리－정릉－부암동－홍제동－마포－원효로 종점－한강의 노선이었다.[7)]

이후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경제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수립, 시행되면서 경제규모도 비약적으로 확장되었고 또한 차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를 수용하기 위한 도로건설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성북구 지역 또한 이러한 추세와 발맞추어 계속적인 도로건설과 확장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92년 12월 현재 성북구관내의 도로 및 시설물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8)]

성북구 관내 주요 시설물 현황

교량	보도육교	지하보도	지하차도	고가차도	차도육교	지하상가	터널	입체시설
17	14	2			2		1	1

성북구 관내 도로현황(단위 : m)

도로연장	포장연장	비포장연장	광　로	대　로	중　로	소　로
585,793	453,992	131,801		19,298	32,537	533,958

마지막으로 성북구 관내의 도로망을 보면 다음과 같다.[9)]

화랑로 : 폭 35m 길이 8,000m 하월곡동－화랑대역－태릉선수촌 시계를 지난다.

종암로 : 폭 30m 길이 2,250m 종암동3거리－월곡동－미아3거리를 지난다.

7) 서울특별시, 《市政槪要》, 1962.
8) 성북구청, 《성북통계연보》, 1992, pp.66-69.
9) 서울특별시, 《서울의 街路名 沿革》, 1986, pp.218-241.

안암로 : 폭 25m 길이 1,700m 대광고교－안암동－종암동3거리를 지난다.
무학로 : 폭 25m 길이 2,000m 안암동4거리－시립동부병원－무학국교를 지난다.
미아로 : 폭 25m 길이 1,500m 돈암동－길음동－미아3거리를 지난다.
정릉길 : 폭 25m 길이 4,350m 북악터널－길음교－월암교를 지난다.
삼양로 : 폭 20m 길이 3,450m 길음1동－삼양시장－한신국교를 지난다.
회기로 : 폭 20m 길이 1,750m 종암동3거리－회기동－휘경동4거리를 지난다.
돌곶이길 : 폭 20m 길이 1,440m 석관동로타리－염광상고－장위동을 지난다.
삼선교길 : 폭 15－20m 길이 1,000m 삼선교－삼선2동－삼선2교를 지난다.
안감내길 : 폭 15m 길이 1,670m 대광국교－성북구청뒤－돈암4거리를 지난다.
아리랑고개 : 폭 15m 길이 1,450m 돈암4거리－전병원앞－아리랑시장을 지난다.
보국문길 : 폭 15m 길이 2,250m 청수교－정릉4동－청수장을 지난다.
월곡동길 : 폭 15m 길이 1,150m 종암동－서울사대부중－하월곡동을 지난다.
장위동길 : 폭 12m 길이 1,900m 창문여중－신장위시장－장위3동을 지난다.
성북동길 : 폭 10～15m 길이 2,950m 삼청터널－성북2동－삼선교를 지난다.
인촌로 : 폭 15～20m 길이 1,050m 보문사 사거리－고대병원을 지난다.[10]

2. 電 車

전차란 전기의 힘을 동력으로 하여 궤도위를 달리는 차량이다. 우리나라의 전차 사업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은 미국인 콜브란(Collbran, H)과 보스트윅였으며 그들은 舊韓國 高宗皇帝로부터 전기사업경영권을 따내었으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전차가 가설된 것이다. 자본금 150만원의 한성전기회사를 설립, 전차·전등·전화의 독점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출자의 반을 고종이 담당키로 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서울의 첫 전차는 1899년 10월 18일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12월 25일에는 서대문－청량리의 1단계공사가 완공되었고, 1899년 음력 4월 초파일(양력 5월 18일)에 전차개통식이 거행되었다. 완공에 비해 개통이 늦었던 것은 전차의 동력이 되는 발전시설의 공사가 늦었기 때문이었으며 1899년에 75kw 600V의 직

10) 성북구청 토목과 자료제공.

류발전기 1대를 도입하여 동대문에 발전소를 세우고 나서야 전차는 운행에 들어갈 수 있었다. 차량은 40명이 앉을 수 있는 개방식 8대를 수입하였고 황실 전용으로 고급 차량 1대를 들여왔다. 운전사는 일본인을 고용하였고 차장은 한국인이 맡았다.

전선을 탈취당하거나 어린이를 치어 군중의 습격을 받는 등의 갖은 우여곡절속에서도 전차의 이용승객은 계속 늘어났으며 1898년에 이미 종로4거리-남대문구간이 완성되었으며 다음 해에는 구용산까지 연장되어 1900년부터 이용되었다.[11]

전차와 전기사업을 벌였던 漢城電氣會社는 위와 같은 사업의 호조를 계속 보였으나 전등사업 등에 무리한 시설확장을 하는 등으로 자금난에 빠지자 미국의 Empire Trust Co.와 합자, 1904년 부터 韓美電氣會社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경영난은 계속되어 마침내 일본인이 설립한 日韓瓦斯株式會社에 1909년 6월 23일 일화 120만원에 매도되었다.[12]

이 회사는 한일합방이후 계속 전차노선을 확대하는 등의 성장을 계속하면서 1915년 9월에 사호를 京城電氣株式會社로 바꾸고 일제강점기 내내 전차가 가장 중요한 시내 교통수단이 됨에 따라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했다. 당시 성북구 지역을 통과하던 전차노선은 서대문-청량리 노선의 지선이었다. 이 노선은 돈암동에서 출발하여 삼선동, 창경원, 원서동을 거쳐 종로4가에서 본선과 만나고 있었다.[13]

경성전기주식회사가 종로 4가-창경원-혜화동까지 운행하던 전차노선을 돈암동 버스종점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것은 1937년 11월 중순이었다. 즉 종로 4가에서 창경원까지 운행하던 전차노선을 혜화동을 거쳐 돈암동까지 연장 운행하겠다는 것이었고, 돈암동 구획 정리사업에 맞추어 준공이 될 수 있게 1938년 3월에 착공하겠다는 것이었다.[14]

전차부설공사는 1939년 3월 8일에 시작하였으며 4월 15일에는 이미 동소문로터리까지는 개통되었다. 이후 돈암동버스종점까지의 공사가 쉽게 진행되지 않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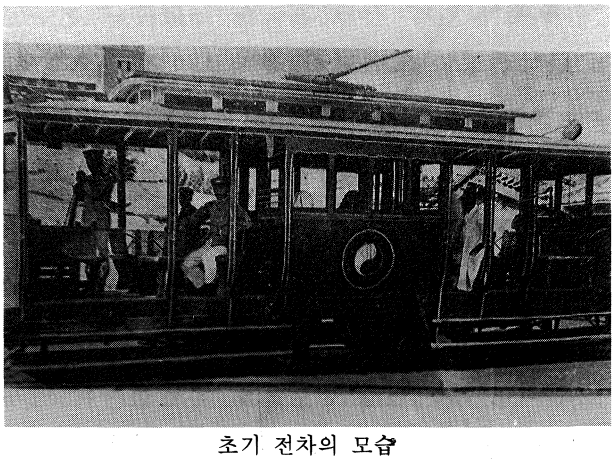
11) 손정목, 「일제하의 서울 전차에 관한 연구」, 《용암 차문섭 박사 회갑기념 사학논총》, 1989.
12) 손정목, 위의 논문.
13)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六百年史》 4권, p.974.
14) 동아일보 1937년 11월 19일.

그것은 중일전쟁의 발발로 인한 물자부족과 노동력 부족때문이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공사가 끝나 돈암동에 전차가 들어간 것은 1941년 7월 12일이었다.[15] 이 전차개통을 보도한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16]

> "금 12일부터 돈암정버스종점까지 전차가 개통되게 되어 그 부근일대의 교통은 상당히 편하게 되었다. 고양군 숭인면은 호수가 5천에 인구가 3만이나 되며 또 그 주민의 대부분이 시내에 있는 관청 회사 등에 통근하는 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버스가 매일 6회 밖에 다니지 아니하여 교통상 많은 곤란을 받았다. 이에 面民일동은 면협의회원을 대표로 하여 京電 당국에 전차선 개통으로 여유가 있게 되는 버스를 우이동까지 운행하고 운행회수를 늘려달라고 진정하였다."

전차는 1920년 이전까지는 이용승객의 부족으로 적자를 내기도 하였으나 점차 비약적인 신장을 기록하게 되었다. 1909년에서 1945년까지 전차노선의 길이는 1.8배, 차량수는 7배가 느는데 그쳤으나 승차인원수는 연인원 54배, 일평균 68.4배가 늘었고 수지총계에서는 107배라는 엄청난 신장을 기록했던 것이다. 이러한 신장과 함께 러시아워의 만원현상 등의 문제가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정차·급행전차의 신설, 학생걷기운동 전개, 도보일 지정 등의 시책들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전차가 당시의 가장 중요한 시내대중교통수단이었다는 중요성에서 그 운영을 경성부에서 해야 한다는 '府營化'가 주장되었다. 1931년 경성전기회사의 면허갱신을 앞두고 이 문제는 경성부 의회에 상정되어 48명중 47명의 찬성으로 가결되기까지도 하였다. 그러나 府營化는 전력회사를 철저하게 통제하고자했던 총독부의 반대로 좌절되었으며, 대신 경성전기회사



초기 전차의 모습

15) 매일신보 1941년 7월 12일.
16) 동아일보 1939년 4월 14일.

가 경성부에 100만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이 돈은 府民病院(현재의 메디칼센터)과 府民館을 짓는데 쓰여졌다.[17]

전차의 요금은 처음에는 1구역에 5전이었으며 1911년부터는 3전으로 인하되었다. 그후 1921년 승차구역이 개정되면서 1구역에 5전으로 다시 올려받았다. 그러나 구역제의 폐지요구가 계속되면서 부민대회가 열리기까지 하였다. 한편 일제의 전쟁수행으로 계속되었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전차의 요금은 점차 올라 해방당시에는 보통승차권이 1회 편도에 15전이었다.[18]

해방이 되자 경성전기회사의 운영권은 한국인의 손으로 돌아와 자주적인 영업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방당시의 혼란으로 인하여 전차는 제대로 운임도 받지 못하고 운행하게 되어 해방 당시 101대가 출고되었던 전차가 9월에는 57대로 줄어들었고 1947년 7월에는 겨우 27대에 불과하였다. 반면 서울의 인구는 급증하여 해방 당시 90만이던 것이 1946년에는 126만명, 1947년에는 164만명에 이르러 교통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결국 노후전차의 정비불량과 무리한 운행, 그리고 종사원의 사상적 갈등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빈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난국의 타개를 위하여 경성전기주식회사는 운수부의 적극적 협력하에서 비상대책을 수립, 1950년 5월에는 167대가 운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차이외의 교통수단이 달리 없던 시기에 교통량은 폭주하였으므로 초만원상태의 무리한 운행이 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전차 104대가 소실되고 전차노선은 거의 파괴되었다. 이에 경성전기회사는 9・28수복이후 11월부터 동대문－광화문간을 운행하면서 선로의 보수가설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휴전이 될 무렵에는 선로가 거의 복구되었고, 파손된 전차를 수리하고 미제 전차 20대를 도입하여 점증하는 시내교통에 대비하였다. 1953년에는 120대의 전차가 1일 평균 24만명을 수송하게 되었고 이듬해에는 같은 대수를 운행하여 1일 평균 318,492명을 수송하였다.[19]

그러나 1957년을 중심으로 노면전차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어 전차철거론이 대

17) 손정목, 위의 논문.
18)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9) 서울시사편찬위원회,《서울六百年史》5, 1983.

두되었다. 이는 변동되어 가는 교통권과 관계없이 노선이 고정되어 있어 공간적으로 불편이 많았고 저속이었으며 승하차시의 위험이 따르기도 했던 전차의 문제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한편 시내버스 등 자동차의 증가와 전차폐지론의 대두로 1968년 11월 30일에 서울시는 전차철거를 단행하였다. 당시의 전차수는 모두 204대였는데 이중 101대는 이미 운휴되었고 이날 나머지 103대까지 전면 운휴되었다.[20] 이로써 약 70여년간 서울시민의 발이 되었던 전차가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다.

3. 自動車

이땅에 자동차가 처음 들어온 것은 1911년 왕실에 한대, 총독용 한대 이렇게 두대의 리무진승용차가 들어온 것이 처음이었다.[21] 그러나 그 두대는 모두 관용으로만 쓰였으며 일반인이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1912년 4월 일본인 近藤三千三, 織居嘉一 조선인 李鳳來 등이 20만원을 공동 출자하여 織居自動車商會를 발족시킨 것이 효시가 되었다. 이들은 포드 T형차 2대를 도입하여 서울에서 시간당 5원의 시간대로 임대영업을 하였다.[22] 이후 자동차는 총독부의 고관, 고급군인, 외교관 일부, 구왕실, 친일 귀족 등 사이에서 늘어나기 시작했으나 1920년대 말까지는 아직 그 비중이 미미했다. 그 이후부터 자동차는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 현대에 와서는 가장 주된 교통수단이 되었다.

여기에서는 버스와 승용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버 스

자동차운행 초기에는 버스(승합자동차)와 택시(임대자동차)를 구분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전자는 정기노선을 시간을 정하여 운행하는 차량으로 후자는 일정한 노

20) 동아일보, 1968년 11월 29일.
21)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로와 자동차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연구》 4, 1989, pp.55-57.
22) 손정목, 위의 논문.

선이 없이 승객의 요구가 있으면 운행하는 차량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서울 시내의 버스 운행의 시초는 아마 승용차가 전차가 다니지 않는 노선을 시간을 정하여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내에서 버스의 운행이 본격화된 것은 府營버스의 운행에서 비롯하였다. 승합자동차가 버스라고 불리우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일 것이다. 府營버스는 1928년 2월 그 운행계획이 결정되어 대체로 서울역을 기점으로 하는 4개 노선이 결정되었다. 요금은 구간당 5전을 원칙으로 하되 형편에 따라 7전으로 올려받고 교외선은 1구역에 10전을 받기로 하였다. 운행은 그해 4월 20일부터 노선을 조정하여 시작하였는데 정류소는 다음과 같았다.[23]

◉ 러시아워선

제1구 : 경성역－남대문5정목－태평통2정목－부청앞－광화문통－체신국앞－총독부앞

제2구 : 총독부앞－안국동－견지동－종로1정목－종로2정목－파고다공원앞－종로3정목－관수교－황금정3정목(약초정)－본정4정목－대화정1정목(헌병사령부앞)

◉ 임시운전선

· 고등상업학교(옛 고려대 병원)

제1구 : 경성역앞－남대문5정목－남대문－미창정(남·북창동)－조선은행앞－명치정(명동)－황금정입구－황금정2정목－영락정－황금정3정목

제2구 : 약초정－황금관앞－황금정4정목－주교정－종로4정목－황교－총독부병원앞－창경원앞－경학원(성균관)입구－고등상업학교앞

· 경성운동장행

제1구 : 경성역앞－남대문5정목－남대문－미창동(조선은행앞)－명치정－황금정입구－황금정2정목－영락정－황금정3정목

제2구 : 약초정－황금관앞－화원정－경성사범학교앞－차고앞－황금정7정목－동서헌정－장충단－경성운동장

시내버스는 예상보다 운행실적이 좋아 1928년 5월 한달 동안 순이익이 1,600원

23)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600년사》 4, 1981, p.982.

이나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노선이 증설되었으며 버스를 100대까지 늘리는 일도 계획되었다.

한편 이때의 버스노선은 관청이 있는 곳이나 일본인 거주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차츰 전차와 노선을 같이 하는 곳이 생김에 따라 본격적인 승객유치경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30여년간 시민교통의 대종을 이루었던 전차와의 경쟁은 무리였다. 과열경쟁의 여파로 버스 영업은 부진해졌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순회선을 개설하는 등의 노력이 경주되었다. 나중에는 府營 시내버스의 존폐론까지 나왔으나 차량을 늘리고 노선을 재조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기로 하였다. 1930년 4월 7일에 조정된 새 노선은 다음과 같다.[24]

- 제1노선 : 경성역전－남대문통－황금정통－영락정통－일출소학교앞－대화정헌병사령부앞－약초정통－창덕궁앞－안국동－총독부앞－광화문통－경성부청앞－장곡천정(소공동)－조선은행앞－남대문통－경성역앞
- 제2노선 : 제1노선의 역노선
- 제3노선 : 노량진수원지앞－한강교－경성역앞－남대문통－황금정통－황금정4정목－종로4정목－동물원앞－경성고등상업학교앞－동소문경찰파출소앞
- 제4노선 : 노량진수원지앞－(3노선과 동일)－남대문통－종로통－종로4정목－(제3노선과 동일)
- 제5노선 : 노량진수원지앞－한강교－한강통－경성역전－남대문－황금정통－경성운동장앞－동대문－종로통－남대문통－경성역앞－한강통－한강교－노량진수원지앞
- 제6노선 : 제5노선의 역노선
- 제7노선 : 노량진수원지앞－한강교－한강통－경성역앞－남대문－황금정통－황금정7정목－장춘단
- 제8노선 : 영천입구－서대문우편국－서대문통－광화문통－종로통－경성운동장앞－황금정7정목－황금정통－황금정입구－남대문－종로－광화문

24) 위의 책, pp.983-984.

통－서대문통－서대문우편국－영천

· 제9노선 : 영천입구－서대문우편국－서대문통－광화문통－종로－남대문－황금정입구－황금정통－황금정7정목－경성운동장앞－동대문－종로통－광화문통－서대문통－서대문우편국－영천

이러한 노력으로 경영은 일시 호전되는 기미를 보였으나 누적된 적자와 '府營'의 불합리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였다. 결국 1932년 12월 부영버스를 경성전기주식회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다음해 3월 31일 매각하였다. 이로써 시내에서의 버스와 전차의 경쟁은 멈추고 전차는 시내, 버스는 주로 교외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 뒤 경성전기주식회사에서는 1939년 2월 1일 오성자동차부에서 전부터 서울 근교를 운행하던 아래 노선의 자동차사업을 인계받아 운영하기도 했다. 아래의 노선중 처음 것과 마지막이 현재의 성북구지역을 통과한다.[25]

종로3가－수유리	9,500m
수유리－화계사	1,200m
수유리－우이동	3,000m
돈암동－정릉리	2,000m

1931년 당시 경성부내의 인구수는 36만 5천명이었고 자동차 보유대수는 200만대도 안되었다. 또 1934년 현재로 고양군 숭인면내에는 한대의 자동차도 없었으니, 당시 이곳 주민이 서울로 들어오려면 하루에 한두번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다닐 수밖에 없었다. 1930년대 전반기 경성을 출발하는 시외버스가 화계사와 안암동의 개운사까지 달리고 있었는데, 하루에 두번 정도 왕복 운행하였다. 요금은 화계사까지는 56전, 개운사까지는 20전이었다.[26]

당시에 있어서 가장 손쉬운 교통수단은 자전거였는데, 1932년 12월말 현재의 자전거 보유대수는 성북리 45대, 안암리 75대, 종암리 33대, 돈암리 112대, 정릉리 58대, 이문리 14대, 장위리 39대, 서관리 6대, 상월곡 4대, 하월곡 18대였다.[27] 그

25) 위의 책, p.985.
26) 《승합자동차운전상황》 총독부 경무국.
27) 《경성부 행정구역 확장조사서》 제4장 교통.

러나 당시에 있어서 자전거를 갖는다는 것은 일반대중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았다.

시내버스가 돈암동까지, 안암동을 거쳐 종암동까지 들어간 것은 1935년과 1936년에 걸쳐서이다. 이때 이와같이 시내버스 노선이 들어가게 된 것은 우선 인구증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928년 현재 4,593호 22,185명이었던 숭인면의 인구수는 1933년에는 7,416호 36,797명으로 늘어 戶數에 있어서 61.4%, 인구수에 있어서 65.8%의 증가를 보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돈암리의 경우 1928년의 406호 2,059명이 1933년에는 861호 4,199명으로 증가하여 호수에 있어서 112%, 인구수에 있어서 103.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28]

두번째 이유로는 1934년에 보성전문학교가 안암동 1번지에 입지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어 1939년에는 종전까지 명륜동에 있던 경성고등상업학교(훗날 서울대학교 상과대학)도 종암동으로 이전 입지한 사실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세째는 서울의 행정구역 확장과 시가지계획령의 시행이었다. 서울의 구역확장으로 새롭게 경성부에 편입된 지역 주민의 교통문제는 경성부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어야 할 과제였던 것이다. 이때 경성부시가지계획에는 돈암지구 구획정리사업이 포함되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문제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던데 그 원인이 있다.

네째는 시내버스의 운영권이 경성부에서 경성전기주식회사로 이양되었다는 점이다. 즉 시내버스를 경성부가 운영할 때에는 그 노선이나 운영방법이 관료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차와의 경쟁을 의식하여 전차가 다니던 길을 중복하여 버스도 운행하였으므로 경쟁이 치열하여 결국 전차시내버스 모두의 영업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부영버스의 경우 1930년도 收支決



소형 버스의 모습

28) 《경성부 행정구역 확장조사서》 3장 호구.

算이 겨우 1원 48전, 1931년에는 14원 63전이 되어 사실상 缺損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29]

이후 시내버스를 인수한 경성전기주식회사는 전차 및 버스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버스노선을 전차노선과 병행시키지 않았으며 원칙적으로 전차가 다니지 않는 구간을 택함으로서 버스를 전차의 보조수단으로 하였다. 즉 전차를 내리면 버스를 탈 수 있게 하여 하나의 표로서 전차와 버스의 승환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요금은 종전대로 5전으로 하였다.[30]

이때 돈암동 종암동 등에 京電이 운영하는 시내버스가 들어간 정확한 일자는 확인할 수가 없으나 아마도 1934년 1935년경이었으리라 추측한다.

한편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유류와 고무·부속품의 조달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목탄을 유류의 대체품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결국 해방때까지 자동차의 운행은 거의 마비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해방후 연료와 부품을 보조받아 버스의 운행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아직 버스는 전차의 보조역할에 머물렀으며, 연료공급도 순조롭지 못하여 운휴되기가 일쑤였다.

한국전쟁 발발전인 1949년 말 서울에는 전국 차량의 40%에 달하는 6,512대의 차량이 있었으나 전쟁으로 70%이상이 피해를 입고 일부만이 남하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기간중에 자동차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어 수복후 서울의 자동차 수는 가속적으로 증가하여 1955년에는 6435대로 전쟁 전의 수준에 도달하였다.

환도이후 서울은 다시 교통의 중심이 되었고 이에 따라 교통부는 버스업자들에게 1953년 8월 말까지 300대를 복귀시킬 것을 명령하였다. 또 서울의 인구도 1953년경에는 100만을 넘어서게 되어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전차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시내버스의 운행은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이로써 전차중심의 교통체제가 전차와 시내버스의 이원체제로 변천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버스회사는 매우 영세하였고 그나마 보유차량의 70% 이상이 持入한 의탁차여서 차량정비 소홀과 과다

29) 동아일보 1931년 1월 31일자.
30) 손정목, 위의 논문 pp.75-76.

경쟁으로 운행 지연, 사고 빈발 등의 문제가 심각하였다.[31]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수도권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집중으로 인하여 도심지와 주변지역간의 수송수요증가가 초래되었으며, 이에 따라 버스의 이용도 늘어났다. 1962년에 21업체에 면허대수 806대였던 것이 이듬해에는 945대로, 1965년에는 1084대, 66년에는 26개 업체에 1083대로 계속 증가하였다. 1967년 12월 현재 37개 노선 1218대가 가동되었으며 당시 380만이었던 서울시민 1인당 하루 1회의 이용률을 보였다. 한편 당시까지는 미군정기에 불하된 부속으로 조립한 노후차량이 상당수를 차지해 완전한 차량으로의 교체가 문제로 등장하였다.[32]

한편 당시에는 일반 시내버스이외에도 급행좌석버스, 완행좌석버스, 시영버스가 운행되고 있었다. 이중 급행좌석버스는 교통수단을 다원화함으로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1965년 11월 24일 처음으로 운행되었다. 정원은 50명을 초과할 수 없었으며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의 배를 받았는데 출퇴근시 샐러리맨이 주로 이용하였다.[33] 완행좌석버스는 1966년 이전 운행하던 마이크로버스가 대량수송을 위해 완행좌석버스로 대체된 것이다.[34]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市營버스는 격증하는 서울시내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 1967년 3월초에 등장하였다. 시영버스는 처음부터 적자운영을 각오하고 외곽지역 교통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변두리 지역의 교통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운행대수는 처음에 100대의 규모로 시작되었는데, 그중 좌석 8개 노선(화곡동, 시흥, 동대문 방면), 입석 4개 노선(개화동, 상계동, 송파, 신장동)이 각각 운행되었다.[35]

70~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그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과 수도권 인구집중, 자가용 승용차의 폭발적 증가 등으로 서울시민의 교통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 비하여 교통시설은 부족하여 교통혼잡이

31)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六百年史》 5, pp.808-809.
32) 교통행정협회, 《자동차연감》, 1968, p.303.
33) 교통행정협회, 위의 책, p.310.
34) 위의 책, p.313.
35) 위의 책, p.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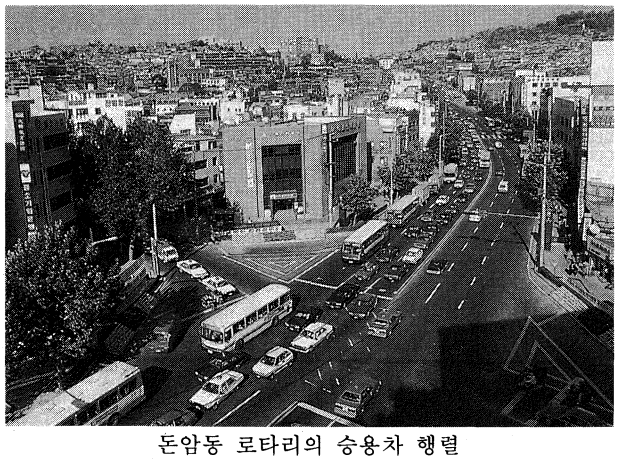
더욱 심해지는 실정이다.

1990년 현재 서울시내 버스의 수송분담율은 43.3%로서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1985년의 58.0%에 비하면 급속히 낮아진 것이다.[36] 그것은 80년대 이후 자가용승용차의 폭발적 증가와 이로 인한 도로소통난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버스 이용율이 낮아진 때문이며, 아울러 지하철의 수송능력 증가에서도 기인한다고 보여진다.[37]

2) 승용차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승용차는 1911년에 처음 도입이 되어 점차 이용이 확대되었다. 영업용 승용차를 지금처럼 택시라고 부른 것은 1920년대 중반부터였다. 이후 택시는 그 이용자가 늘고 운행대수도 증가하였다. 요금도 1928년에는 서울 어디에서나 4인기준 1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아직 일부 부유층이나 특수 직업을 가진 사람 이외에 일반 시민은 이용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서울·부산·대구 등의 대도시에서 인기를 끌어왔던 택시영업은 1933년 이후 본궤도에 올랐다. 그해의 전국 택시업자 수는 261개이며 운행대수는 360여대였다.[38]


돈암동 로타리의 승용차 행렬

해방이후 택시영업은 활발해져 한국전쟁 이전에는 전국적으로 1,312대의 택시가 운행되었다.

한국전쟁은 도로와 차량을 파괴시키고 모든 차량이 군사작전에 수용되어 자동차 교통은 마비되었다. 도로는 1,656개소나 파괴되었고 자동차는 보유대수의 75%에 이르는 12,000대의 피해

36) 서울특별시, 《서울시정》, 1991, p.62.
37) 위의 책, p.65.
38) 교통행정협회, 앞의 책, p.87.

를 입었다. 그러나 9·28수복이후 자동차산업은 부분적으로 부활하기 시작하여 곧 활기를 띄었다. 철도가 군수용으로 총동원되어 민간교통수단이 없었던 것이 그 이유였다. 이때 군용으로 징발된 자동차가 풀리고 차량의 수리 및 도입으로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점차 복구되었다. 택시의 경우에도 곧 복구되어 1959년에는 전쟁전의 3배이상의 택시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산택시인 「시발」차가 보급이 되어 점차 시민교통수단으로 전화하게 되었다.[39]

한편 1960년대이후 사회·경제의 안정으로 인하여 승용차 보유대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당시의 서울시내의 인구증가에 비하면 아직은 미미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40]

위의 표에 의하면 승용차의 증가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인구증가율에 비하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택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1966년의 경우 150개 업체에 4637대의 택시가 운행되었으나 1000명에 대한 택시 보유는 6.8대로 아직도 부족한 상태였다.

승용차의 연도별 추세

	인 구	승용차 대수	1000명에 대한 비율
1961	2,577,018	4,199	1.6
1962	2,983,324	4,903	1.6
1963	3,254,640	5,476	1.7
1964	3,424,385	6,365	1.9
1965	3,484,018	7,612	2.2
1966	3,740,000	11,029	2.9

영업용 택시의 연도별 추세

	가 구 수	택 시 수	1000가구에 대한 택시수
1961	485,129	2,811	5.8
1962	554,136	2,922	5.3
1963	597,132	2,983	5.0
1964	633,026	3,004	4.7
1965	649,290	3,336	5.1
1966	676,966	4,637	6.8

39) 시사편찬위원회, 《서울六百年史》 5, pp.810-811.
40) 교통행정협회, 《한국자동차연감》, 1968, p.87.

1970·1980년대를 거치면서 경제의 높은 성장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승용차 소유내용이 예전과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즉 자가용승용차의 비중이 영업용보다 더욱 높아진 것이다.

1992년도 12월 현재 성북구 관내 자동차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41]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계
자 가	영 업				
36,307	3,420	5,281	8,746	68	53,552

4. 地下鐵

우리나라에서 지하철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이미 전차의 철거논의가 있던 때부터이다. 1968년에는 서울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하철 1~4호선 건설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다. 1974년에는 인천·수원-서울-의정부를 잇는 수도권 전철 및 지하철이 개통되었으며 1984년에는 시청에서 강남역을 경유하여 다시 시청으로 돌아오는 2호선이, 그리고 1985년에는 구파발에서 양재를 잇는 3호선과 상계동에서 사당동을 잇는 4호선이 각각 개통되었다. 한편 현재는 200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하철 5~9호선이 건설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성북구 지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4호선을 중심으로 지하철의 건설과정과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원래 1971년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가 발족한 후 구상했던 지하철 노선은 제1호선에서 5호선까지의 5개노선 133.04km였고, 이는 일본에서 파견된 교통조사단의 조사에서도 타당하게 보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42]

- 1호선 : 서울역-종로-청량리(9.14km)
- 2호선 : 강남구 삼성동-성수동 경마장-왕십리-을지로-마포-여의도-김포 (35.5km)

41) 성북구청 세무과 자료제공.

42)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3·4호선 건설지』상, 1987, pp.16-27.
이하의 설명은 별도의 주가 없는 한 이 책에 의거한다.

- 3호선 : 성북구 미아동－혜화동－퇴계로－영천－갈현동(21.5km)
- 4호선 : 경부고속도로 입구－율곡로－대림동－사당동(34.5km)
- 5호선 : 천호동－신설동－종로－신촌(32km)



지하철 4호선 길음역

그해 12월에는 위 2·3·4호선의 도심반경 5km를 통과하는 37.8km에 대한 측량을 마치고 계획을 확정하였다. 그런데 실제의 2·3·4호선은 원래의 계획과는 관계없는 새로운 노선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까지의 서울은 모든 기능이 도심에 집중된 單核都市였기때문에 교통은 혼잡과 마비를 초래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영동·잠실을 하나의 핵으로 개발하고 영등포지역을 또하나의 핵으로 개발하여 서울을 3개의 핵을 가진 「多核都市」화해야한다는 다핵도시론이 도입되었다. 1975년 5월에 제출된 「지하철 순환선(강남－강북)건설을 위한 기술 및 경제성 조사」라는 용역보고서는 당시 650만의 인구중 72%가 강북에 밀집되었던 상황을 순환 지하철의 건설을 통해서 1980년대를 기하여 강남·강북의 인구비를 50 : 50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로 2호선의 노선은 재조정되었고 그에 따라 3·4호선의 노선도 재조정되었다.

한편 多核都市化는 긴 시일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2호선이 도심부를 통과하여 많은 도심부 유출입 승객을 수송하기는 하였지만 서울시의 특수한 放射環狀的 가로망과 도시발전형태로 인하여 많은 한계가 있었다. 특히 사당, 봉천, 신림동이나 역삼, 서초, 양재동에서는 도심유출입을 위하여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그것은 2호선이 많이 우회하게 되어있기 때문이었다. 또 구파발·불광동과 수유·상계동 등지의 도심유출입이나 방사선형 상호유출입은 도심과밀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므로 2호선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특수한 가로망과 방사선형태의 도시인 서울의 균형있는 발전과 근본적인 도시교통의 개편을 위해서는 도심을 방사선형으로 관통하는 지하철 3·4호선의 건설은 필연적이었으며 이는 이미 2호선 건설시부터 예정된 것이었다.

구체적인 건설계획의 추진은 1978년 서울시가 민자건설계획을 발표하고 2호선 시공업체에게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비롯되었다. 그후 계획의 검토와 경제장관협의회의 결정을 거쳐 1979년 2월 19일 지하철 3·4호선 민자건설계획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민자건설에 대한 종합적 분석결과 지하철의 조기완공과 정부의 자금지원등에 문제가 생겨 다수의 건설업체가 공동참여하도록 했다. 이에 국내 23개 우수건설업체가 공동출자하여 지하철 3·4호선 전담 건설업체인 「서울지하철주식회사」가 1980년 3월 11일 설립되었다. 이보다 앞선 2월 29일에는 지하철 3·4호선이 구파발3거리와 수유3거리에서 기공되었다. 한편 주주와 시공주가 동일한 관계로 철저한 감리가 곤란하였고 또 건설업체의 출자능력에도 한계가 있어 서울시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1981년 8월 31일 자본금 500억원으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를 설립하여 9월 1일 발족하게 되었다.

기공이후 5년 8개월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4호선의 경우는 1985년 4월 20일 상계동에서 한성대 입구역(삼선교)의 11.7km 구간이 1차로 개통되었다. 나머지 구간은 1985년 7월 16일부터 시운전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마치고 8월 18일부터 시운전에 들어가 1985년 10월 18일 전구간이 개통되었다.

지하철 4호선의 총연장은 30.3km로 역의 수는 24개이며 갈아탈 수 있는 역은 창동역을 포함하여 7개이다. 90년 현재 298대가 운행되며 운행소요시간은 약 47분으로 1일 402회 운행되어 표준속도는 35km/h이다. 성북구 관내에는 한성대입구역, 성신여대입구역, 길음역 등이 있다.

1990년도 지하철 4호선의 수송인원은 2억 1449만 729명으로 서울시 지하철의 여객수송인원 11억 6994만 6667명의 약 1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액은 411억 3,487만 6,670원으로 전체 수입액 1,947억 5,385만 1,440원의 약 21.12%를 차지하고 있다. 하루평균 52만 2,016명이 이용하며 정기 여객수는 33.2%를 차지한다.

여객1인당 평균승차거리는 16.2km이다.[43] 성북구 지역 지하철역의 시간대별 승차인원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이표에서 보듯이 이용객의 대부분이 출퇴근시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오전 출근 시간인 08 : 00~09 : 00의 혼잡도가 길음역은 232%, 성신여대입구역은 무려 263%에 달한다. 성북구 관내 지하철 2호선의 시간대별 승차인원 현황은 〈표 2〉와 같다.[44]

〈표 2〉 지하철2호선(성북구 관내) 시간대별 승차인원 현황

역 명	길 음	성신여대입구	한성대입구
계	10,090	31,549	18,618
05 : 00~06 : 00	76	155	282
~07 : 00	98	281	615
~08 : 00	888	1415	2390
~09 : 00	923	2938	2280
~10 : 00	461	2338	1181
~11 : 00	313	1716	851
~12 : 00	243	1228	686
~13 : 00	251	1037	601
~14 : 00	242	1084	573
~15 : 00	272	1109	570
~16 : 00	356	1055	685
~17 : 00	460	1245	637
~18 : 00	671	1748	842
~19 : 00	644	2264	1040
~20 : 00	1102	3775	1527
~21 : 00	984	2976	1133
~22 : 00	784	2147	1010
~23 : 00	791	1862	857
~24 : 00	466	1057	551

4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89, p.887.
44)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90 지하철 교통량조사》, 1990.

II. 通　信

1. 開港 以前의 通信

근대적 통신 수단이 도입되기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통신의 기능을 담당했던 것으로 驛院制, 烽燧制, 擺撥制 등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들을 순서대로 살펴 뒤에 다루어질 근대통신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1) 驛院制

驛院은 국가의 명령과 공문서의 전달, 변경의 중요한 군사정보, 사신왕래에 따른 영송과 접대 등을 위하여 마련된 교통통신기관이었던 驛과 공적인 임무로 여행하는 사람에게 숙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 要路에 설치된 일종의 숙박기관이었던 院을 통칭하는 말이다. 원은 대개 역과 같은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합쳐서 불렀다.

驛은 신라 소지왕 9년(487년)에 설치된 기록이 있고, 고%시대에 와서 더욱 제도적으로 정비되었다. 조선시대의 역은 고려의 것을 계승하여 관리체계등이 경국대전의 편찬으로 완비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역은 대개 30리마다 설치하였고 역마를 배치, 공문을 전달하며, 공무수행자에게 역마를 제공하고, 그 밖에 진상이나 공납의 수송 등을 담당하였다. 역은 전국적으로 540여개가 있었으며 서울에는 홍인문 밖 4리 지점에 蘆原驛이 있어 동북방면의 역로와 연결되었고, 숭례문 밖 3리 지점에 靑坡驛이 있어 남부지역의 역로와 연결되었다.[45]

院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역과 같은 장소에 설치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원은 이용자가 극히 국한되어 점차로 폐지되는 곳이 많았고,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각 역・관 혹은 민간 업자에게 숙박하게 되었다. 일반 여행자의 경우 사설의

45) 漢京識略 卷之二 驛院條, 蘆原驛 在興仁門外四里 靑坡驛 在崇禮門外三里…

店(站店, 酒店, 酒幕) 등에서 숙식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에 따라서 원은 점차 없어지고 원이라는 글자가 붙은 지명만 남아 전하게 되었다. 서울의 경우 서대문밖 弘濟院, 동대문밖 普濟院, 남대문밖 梨泰院, 광희문밖 箭串院이 있었다.[46]

한편 조선시대 서울의 각 원에는 賑濟場이 설치 운영되었는데, 이는 한성부에서 설치한 飢餓者의 구제기관이었다. 즉 지방의 기민들을 구제하여 그들의 도성내 진출을 막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와 아울러 병자의 치료를 맡거나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만들어주는 등의 다양한 구제활동을 펼쳤다.

역원은 임진왜란을 맞이하여 驛戶의 流離, 말값의 앙등 등으로 기능이 거의 마비가 되었다. 이에 따라서 역원제의 기능을 대신할 파발제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역원을 중심으로 지방 촌락이 형성되고 나아가 교통의 요지에는 지방도시가 발달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전통아래서 현대의 도로교통체제등이 성립했다는 역사적인 의미 또한 중요하다.

2) 烽 燧

봉수는 봉(烽 : 횃불)과 수(燧 : 연기)로써 급한 소식을 전하던 전통시대의 통신방법이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불을 피워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하였다. 역마나 인편보다 신속하여 지방의 급변하는 민정상황이나 국경의 적의 동태 등을 상급기관인 중앙의 兵曹에 연락했다. 일반 국민의 개인적 의사표시나 서신은 전달할 수 없었으며 역이 주로 중앙의 공문을 지방으로 전달하던 것과 달리, 봉수는 변경의 정보를 중앙으로 전달하는 것이 주임무였다.

봉수제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기록상 확실한 출발은 高麗時代이다. 1123년(인종 1)에 고려에 사신으로 왔던 송나라의 서긍은 그의 견문록인 《高麗圖經》에 흑산도에서 서울까지의 봉수망과 사신의 입국에도 봉수를 켰던 사실을 적고 있다. 또 1149년(毅宗 3)에는 봉수의 擧火數를 정하고 감독자를 배치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47] 고려말에는 왜구를 방어할 목적으로 봉수제를

46)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서울六百年史》 1.
4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89.

강화하였으며 이는 조선시대에도 이어졌다. 세종대에 이르러 거화거수등의 관계규칙을 새로 제정하고 변방의 煙臺를 새로 축조하며, 봉수선로를 일제히 확정하는 등 그 면모를 새롭게 하였다.

봉수는 중앙의 경우 兵曹의 武備司가, 지방의 경우는 그 지방 군사책임자가 책임을 관장하였다. 거화법은 정세의 완급에 따라 擧의 수로 구분이 되었다. 세종대 이후에는 해상과 육지를 구분하여 5거의 체계를 갖추었다. 해상체계로는 무사시에 1거, 왜적이 해중에 나타나면 2거, 해안에 상륙하면 3거, 우리 兵船과 접전시에는 4거, 왜적 상륙시에는 5거로 하였다. 육지에서는 적이 국경밖에 나타나면 2거, 변경에 가까이 오면 3거, 국경을 침범하면 4거, 우리 군사와 접전하면 5거를 올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국대전에는 이와 같은 구분이 없다.[48]

봉수의 주요선은 直烽이라 하여 동북쪽은 경흥, 동남쪽은 동래, 서북쪽은 강계와 의주, 서남쪽은 순천 등의 5개처를 기점으로 하여 모두 서울의 남산에 집결하였다. 이외에 間烽이라하는 보조망이 있었다. 서울에는 남산에 5개 무악산에 2개의 봉수대가 각각 있었다.

봉수제는 임진왜란 이전부터 이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유로는 봉화군의 고역으로 인한 도산과 근무태만, 시설미비, 자연조건 등을 들 수 있다. 삼포왜란이 일어났을 때나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도 봉화는 올라가지 않음으로써 봉수제는 이미 제기능을 상실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봉수의 신속성에 비해 5거로만 이어지는 통신방법은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임진왜란이후부터는 파발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봉수에 대한 개혁이나 복구가 계속 시도되다가 마침내 1894년 근대적인 통신체계로 전환하였다.[49]

3) 擺　撥

역과 봉수가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자 새로운 통신수단으로 파발이 시행되었다. 1583년(선조 16)부터 急走인 步撥이 시행되었으며,

48) 위의 책.
49)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六百年史》, 3권.

1592년에는 이원익의 주장에 따라 경상도지방에 撥馬인 騎撥이 실시되었다. 파발은 송나라때 금나라의 침입에 대비해 세운 첩보기관인 '파발'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람이 전달하는 보체(步遞), 급각제(急脚遞)와 말을 타고 전달하는 마체(馬遞)로 구분되었다. 그뒤 원과 명을 거치면서 더욱 발달하여 임진왜란중 명나라의 군대도 이것을 이용하자 필요성을 느낀 조정에서는 1597년 한준겸의 건의에 따라 파발을 설치하였다. 그 뒤 인조때에는 서발·북발·남발의 3대로를 근간으로 하는 파발제가 완성되었다.

서발은 서울-의주간 1050리였으며, 북발은 서울-경흥간 2300리, 남발은 서울-동래간 920리였다. 이중 서발은 기발을 쓰고 나머지는 보발이었다.

파발 역시 1894년 갑오경장을 계기로 폐지되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의 전통적 통신체계였던 전령제도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2. 郵 便

우편은 서신과 일정한 물건을 일정한 조직에 의해 규칙적으로 송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신라시대 이래로 역이 마련되어 국가의 우편을 취급해왔으나, 민간에 의한 우편제도는 발달을 보지 못하고 개인간의 인편에 의한 우편이 행해졌을 뿐이다.

1876년의 개항은 근대적 우편제도 도입의 계기가 되었다. 1876년 일본과의 조일수호조규의 부록에는 우편이용에 관한 조항이 제기되어 있었다. 우편제도가 국교 개시의 선결조건이었던 것이다. 한편 실제적인 우편제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나라에 전한 사람은 김홍집이다. 그는 《朝鮮策略》《易言》 등의 책을 도입, 소개하였다. 그뒤 신사유람단은 일본의 통신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소개하였는데 이 중에는 일본 우편제도의 관제·규칙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조사가 들어있었다.[50]

근대적 우편제도가 국내에 도입되고 구미 각국과 외교의 길이 트이자 우편의 실시가 절실히 요청되어 구체적 조처가 세워졌다. 1882년 12월 5일에 개설된 통

5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89.

리교섭통상아문에 우정사가 분치되어 우편·전신사무를 담당할 기구가 생긴 것이다. 홍영식이 협판에 임명되어 우정사를 담당했다. 이어 1884년 3월 27일에 칙유로서 우정총국이 설립되었다. 1984년 11월 17일에는 근대적 우편제도가 드디어 서울총국과 인천분국에서 실시되었다. 다음은 이때 취급한 우편물의 종류와 요금이다.[51]

- 우편물의 종류 : 서간·관보 및 서적류의 두 종류로 대별하였다.
- 우편요금 : 거리에 상관없는 균일요금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한성내의 상호간에는 반액요금을 적용하였다.
- 특수취급 : 別分傳(特使配達)
  제1등 우정국지 20문, 제2등 우정국지 10문, 제3등 우정국지 5문, 단 우정국 설치지역 외에는 매 10리마다 30문을 더 징수함.
- 요금의 납부방법 : 郵征抄票(郵票)로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미납·부족에 대해서는%수취인에게 정료의 2배를 현금으로 더 징수하였다.
- 우편 : 우정초표는 우정본국에서 발행한다.

이중에서 우표는 일본 대장성 인쇄국에 주문하여 5문·10문·25문·100문의 5가지를 제조하였다.[52]

그러나 근대적 우정사업은 우정총국 총판 홍영식이 갑신정변에 참가하여 3일천하로 실패면서 중단되었다. 1884년 10월 17일 우정국 개설연에서 갑신정변이 발발하나 혁명기도는 실패로 돌아가 10월 21일 우정총국은 폐지되었던 것이다. 이 짧은 기간동안 얼마나 우편제도가 실시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고 단지 그때 쓰여진 우표가 15장 가량 남아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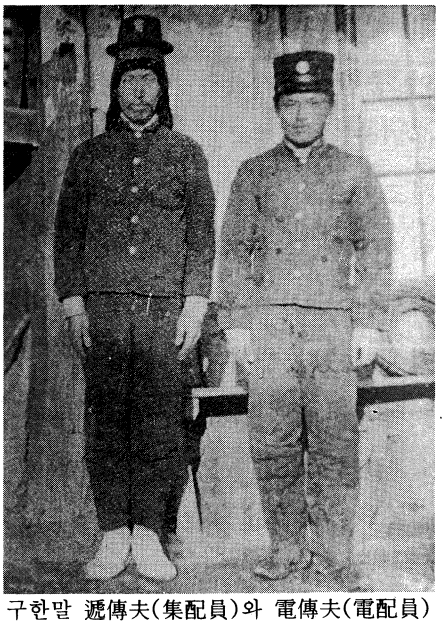
그뒤 10여년 후 1895년 칙령 제124호「國內郵便規則」과 125호「郵遞司官制」등에 의해 같은 해 6월 1일 서울과 인천에 郵遞司가 설치되었다. 이때 사용된 우표는 태극우표로 5분, 1전, 2전5분, 5전의 4종류가 사용되었는데 미국에서 제조한 것이다. 1900년에는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하여 외국우편도 시작했다.

5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서울六百年史》3, 1981, pp.1040~1041.
52)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한편 당시에는 일본의 우체국도 설치되어 있었는데 우편제도의 완비에 따른 철수요구에도 불구하고 무력을 배경으로 더욱 확장에 광분하여 1905년 3월말 현재 60여개의 우체국을 전국의 중요 도시에 설치하여 우편권이 이원화되는 괴이한 현상이 계속되었다. 아울러 러일전쟁을 계기로 우편·전신을 강점하는 계획을 세워, 1905년 4월 1일로 외부대신 이하영과 일본공사 하야시간의 통신기관합동에 관한 협정서가 체결되어 통신기관을 일제에 강탈당하게 되었다. 1905년 5월 18일~7월 2일 사이에 한국의 각 우체사·전보사 등은 일제의 의도대로 일본식 우편국·출장소 제도로 흡수되어 버렸다.

합방이후 통신관서제도는 1912년 3월 27일 칙령 30호로 조선총독부체신관서관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종래 통신이라는 명칭이 체신으로 개칭되었고 직원수에도 변동이 생겼다. 그리고 1911년 2월 9일에 총독부령 9호로 우편규칙이 시행되었으며 이후 국소의 자연증가와 이용의 편의를 위해 청사가 신·증축되었다. 그리고 집배의 정확을 위해 종래의 촉탁집배방식에서 직접적인 용인집배의 방법으로 개정되어 직용인집배로 변화하였다. 한편 일반의 우편물 발송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우편국소의 소재지와 주요지점에 점차 우편함을 설치하였다.

1931년 만주사변 발발후 우정사업도 그 영향으로 전시체제로 개편되었다. 뒤이어 태평양전쟁이 터지게 되자 우정업무도 축소되어 방위체제로 축소되었으며, 한글사용금지·통신시설의 공출·통신의 취급제한 등 각종의 조치가 취해졌다. 축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별배달 우편취급의 폐지, 시외행 소포의 배달 정지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강제로 징집되었거나 징용된 사람들과 가족간의 연락으로 우편물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일제가 이때 강요한 행위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다음과 같다.


구한말 遞傳夫(集配員)와 電傳夫(電配員)

· 우편물에 의한 식량의 해외반출금지

· 대동아전쟁 국고채권의 買上

· 대동아전쟁기념 國防獻金附 우편엽서의 발행[53]

해방이후 1945년 8월 16일에 한국인 직원들은 在京韓人遞信從業員大會를 열어 업무수행에 전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때 한국인 직원들은 소속기관을 지키면서 통일된 행동을 취하였다. 이때에는 사회정세의 불안과 급변으로 주소변경이 심하여 우편물의 집배·송달에 어려움이 많았다.

1946년을 계기로 우편업무에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본부기구를 확장·개편하였으며 4월에는 체신국을 체신부로, 과를 국으로, 계를 과로 승격시켰다. 또 46년에서 47년에 걸쳐 일본식 우편국명을 우리 식으로 고쳤다. 아울러 각 우편국을 5등급으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아울러 현업우편국의 폐지와 조정이 있었다.

1948년의 정부수립과 함께 우편업무도 군정청에서 인수되었다. 당시에 보고된 38선이남의 체신업무중 우편쪽을 들어보면 우체국수는 623국으로 3개 면에 평균 1개국이었고, 1년간의 취급수량은 통상우편이 약 1억2,200만통, 즉 1인당 평균 6통이고 소포우편은 307,000건이며 남북간의 우편물 교환상태는 매주 1회씩 북행이 약 6,000통, 남행이 약 3,000통이었다. 또 중단되었던 국제우편도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각국과 통상우편은 물론, 항공우편도 개시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한편 체신본부기구의 개편도 진행되었다. 1949년에는 지방체신관서설치법을 공포하여 중간감독기관인 체신청의 기능을 강화하고 현업기관의 개편을 꾀하였다. 이때 우편국은 우체국으로 개칭하였으며 우체국의 등급을 폐지하였다. 한편 1905년 을사조약으로 회원권을 상실하였던 만국우편연합(U.P.U)에도 정부 수립과 동시에 가입자격을 얻게 되었다. 1952년 1월 19일 만국우편연합으로부터 1949년 12월 17일자로 소급하여 가입이 제확인되었음을 통고받았다.[54] 당시 성북구에는 돈암동에 서울 돈암동우체국이 있었다.

한국전쟁으로 우편사업도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점차 복구가 되어 새로운 발전의 길로 접어 들었다. 1952년 6월 15일 광화문우체국이 업무를 개시하였고 이후 계속 업무를 확장해갔다. 1957년에는 연하우편 외에 성탄우편이 시작되었으며 시

5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六百年史》 4권, pp.1028~1031.
54) 위의 책.

외소포우편물배달이 부활되었다. 아울러 같은 해에 모든 遞信官署와 遞信具에 색채를 선명히 하여 표식을 사용했는데 우편취급상 많은 편익과 시민의 이해를 얻게 되었다. 1959년에는 통화등기와 물품등기 우편물제도가 취급개시되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다. 아울러 같은 해에는 속달소포우편제와 요금별납우편제가 실시되면서 우정사업은 이용제도의 확립을 보게 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취급중지 되었던 모든 업무가 완전히 부활되었으며, 새로 보충창설된 업무취급까지 하게 되면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게 되었다.

1962년도부터 우정사업은 제1차 체신사업5개년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기간의 정부목표는 1면 1국 설치방침에 의한 우체기관의 확장에 주력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61년에는 전국 1382면에 771개의 우체국이 있어 2.5개면당 1개의 우체국이 있었으나 1966년에는 1372개의 우체국이 설치되었다.

이어 1967년부터 1971년까지의 제2차 통신사업 5개년개획에서는 통신수요가 높은 농촌·도서지방이나 도시에 우체국을 계속 신설하고 기존 우체국에 대해서는 증축을 단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이 기간중인 1970년 7월 1일에는 전

〈표 3〉 성북구 관내 우편관서 현황

	계	일 반	분 국
1986	9	6	3
1987	9	6	3
1987	11	6	5
1988	11	6	5
1989	12	7	5
1990	12	7	5
1991	12	7	5
동소문동	1	1	
삼선동	1	1	
동선동	1		1
안암동	1		1
정릉동	1		1
종암동	1		
월곡동	3	1	2
장위동	2	2	

국적으로 우편번호제가 실시되었다. 이는 당시 경제의 발전으로 우편량이 급격히 증가, 신속하고 확실한 우편 서비스를 위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편번호제의 실시로 우편물 폭주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우편번호제는 처음에는 3자리의 머리번호와 두자리의 꼬리번호로 이루어졌었는데 1988년에 전체 6자리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 3〉은 현재 성북구 관내의 우편관서 현황이다.[55]

3. 電氣通信

1) 電 信

개항 이후 근대문명이 수용되면서 전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1881년 신사유람단에 의해 일본의 전신이 소개되었고, 같은 해 영선사에 인솔된 유학생들이 중국 천진의 전기창에 배속되어 전신의 실기를 습득하고 국내에 들어올 때 전화기 2대등 통신기재도 도입하여 전신 개설의 분위기가 성숙되었다. 1882년에는 우정사가 설립되어 전신사무를 다루고자 했고, 이듬해 홍영식은 전신8좌를 미국에 주문하여 전신가설을 시도하였으나 갑신정변의 실패로 허사가 되었다. 1884년에는 부산과 나가사키간의 해저 전선이 부설되었다. 이렇게 해서 부산에 설치된 일본전신선을 통하여 세계각국과의 전신이 개통되었으나 순전한 외국선이고 일본거류민의 이용을 위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한국전신의 시작은 이듬해의 서로 전신선의 개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56]

전신은 1885년에 최초로 도입·가설되었는데 이해 8월에 서울－인천간의 전신가설공사가 착공되어 9월 28일에 개통이 되었다. 전신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漢城電報總局이 8월 20일에 개통되었고 이어 10월 18일에는 인천－서울－의주를 잇는 西路電信線이 개통되면서 국제전신과도 연결이 되었다.[57] 한편 계속 지방과의 전

55) 성북구청, 《성북구 통계연보》, 1992, p.71.
5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89, p.230.
57) 체신부, 《한국전기통신100년사》 상, 1985.

신선을 개설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었으나 일본 및 청과 체결된 전신관계조약에 구애되어 논쟁이 거듭되었다. 그러다가 1887년 3월 13일 朝鮮電報總局이 개설되고 동시에 공사를 추진하여 南路電線이 개통되었다. 이어 북로전선·청주지선·동칠릉선 등의 선이 계속 개통되었다. 조선전보총국은 우정사업을 같이 하기 위한 조처로 1893년 8월 電郵總局으로 개편되었다.[58]

1894년의 청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은 서·북로전신선을 강점하여 통신을 장악하고자 했으나 열강의 압력으로 1896년 반환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은 다시 통신선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독자적인 통신망도 구성하였다. 이후 1905년 한일통신기관협동에 관한 협정을 강제로 체결하여 통신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한편 일본에 대항한 의병활동에서 전선의 절단·탈취 등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일제의 전신망은 일본거류민의 편의제공·한국민 탄압의 수단·대륙진출의 중계역할·전쟁수단의 도구 등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1905년에서 1943년까지 우리나라에는 1,087개소의 전신취급소가 설치되었다. 일제시대 성북구 지역에는 돈암동에 전신취급소가 있어 당시의 전보를 취급했다.

해방이후 국토분단으로 전산망 또한 양분되었으며 한국전쟁으로 80%이상의 시설이 파괴되었다. 이후 전란의 복구작업은 활발히 진행되어 각종 방송이 재개되었으며 1957년에는 서울-부산간의 텔레타이프 통신이 개시되었다.

60·70년대의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텔렉스전신의 개통등으로 전신분야의 비약적 발전이 있었고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데이터 통신과 컴퓨터 통신 등으로 발달하였다.

2) 電 話

전화의 도입은 1882년 천진의 전기창에 유학한 유학생들에 의한 것이 처음이며 이후 1896년 10월 2일에 宮內部에 전화가 가설되어 실제로 이용되었다.

일반 대중이 전화를 이용하게 된 것은 1902년 서울-인천간의 전화가 개통되면

58) 위의 책.


성북전화국 청사

서부터이다. 서울전화소가 전보총사 구내에 설치되어 시내의 전화업무를 관장하였다. 당시의 전화사업은 시외전화망이 먼저 개설되고 다음에 시내교환전화가 개설되었다. 그러나 1902년에서 1904년까지의 전화가입자가 50명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아 당시의 전화사정은 열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역시 1905년의 한일통신기관협동에 관한 협정으로 일본에게 통신권이 강탈당했으며, 식민지시대에는 식민정책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당시 전화교환가입자의 8할이 일본인이었으며, 주요업무도 일본인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던 것이다.[59]

해방후 한국전쟁전까지는 어려운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전화사업도 그리 활발하지는 못했다. 한국전쟁이후 80% 이상의 참담한 피해가 있었는데 전후복구사업으로 어느정도 회복되었다. 여기에는 1945년부터 시작된 ICA원조가 큰 도움을 주었으며 이에 부응하여 자체예산을 편성, 전화복구사업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1959년 현재 시내교환시설은 자동식·공전식·자석식을 합쳐 모두 84,519단자를 복구하여 전쟁전의 시설을 웃돌게 되었다.[60] 1960·70년대의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수요가 급증하게 되어 전화국과 회선이 계속 증설되었다. 성북전화국도 1964년 3월 12일 준공되어 업무에 들어갔다.[61] 전화적체현상이 일어나 청백색 전화가 등장하기도 했다.

80년대에 들어서는 전자교환과 광통신시대가 도래하여 혁신적 진보가 이루어졌다. 1982년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족하여 전기통신사업은 공영화하였고 연간 100만회선 이상의 신규 전화를 계속 공급하여 극심한 전화적체를 해소하였다.

현재 성북구 관할구역의 전화업무는 성북·미아·청량리·혜화전화국에서 담당

59) 체신부, 《전기통신사업80년사》, 1966~8, p.5.
60)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六百年史》 5, p.870.
61) 체신부, 위의 책, p.1149.

하고 있다. 성북구 관내의 전화보유현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전화기보유 및 전화가입자 현황[62]

	가입자수			공중전화 설치대수
	계	업무용	주택용	
1986	116,202	11,691	104,511	1,998
1987	123,236	12,047	111,189	2,045
1988	137,253	14,424	122,829	2,151
1989	144,176	13,237	130,939	2,091
1990	157,320	15,857	141,463	2,357
1991	167,270	16,888	150,382	2,452
성북1동	2,878	498	2,380	6
성북2동	3,392	215	3,177	50
동소문동	2,820	736	2,084	65
삼선1동	4,484	558	3,926	57
삼선2동	6,303	1,074	5,229	101
동선1동	3,478	557	2,921	196
동선2동	3,797	465	3,332	74
돈암1동	3,908	350	3,558	42
돈암2동	2,483	104	2,379	45
안암동	7,233	1,206	6,027	215
보문동	7,709	1,141	6,568	117
정릉1동	6,308	771	5,537	55
정릉2동	6,646	445	6,201	82
정릉3동	6,550	420	6,130	107
정릉4동	7,161	319	6,842	80
길음1동	5,122	502	4,620	79
길음2동	6,306	210	6,096	48
길음3동	6,933	499	6,434	80
종암1동	7,691	659	7,032	115
종암2동	7,114	813	6,301	102
월곡1동	6,549	1,080	5,469	137
월곡2동	5,604	639	4,965	104
월곡3동	3,484	210	3,274	33
월곡4동	3,408	130	3,278	21
상월곡동	3,631	219	3,412	32
장위1동	7,673	520	7,153	74
장위2동	8,552	1,050	7,502	113
장위3동	6,615	411	6,204	62
석관1동	8,110	650	7,460	117
석관2동	5,328	437	4,891	43

〈朴 銀 淑〉

62) 성북구청, 앞의 책.

第 11 章　　宗教와 民俗

Ⅰ. 宗　　教

1. 佛　　教

1) 大韓佛教曹溪宗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일천육백여년전으로 전해온다. 이는 한반도에 우리민족이 씨족사회에서 고대국가를 성립하는 때와 같은 시기이며 역사에 기록된 민족문화의 최초 형성기이다. 그러므로 불교는 우리민족의 형성과 함께 해온 종교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전하고 있는 전통문화유산이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총망라하여 거의가 불교문화재라는 점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불교의 영향은 우리민족의 언어·풍습·건축·미술·음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민족의 토속문화와 결합, 새로운 한국불교문화를 창조하였고 그 문화는 우리 민족의 생활과 정신을 이끌어 주었던 것이다.

근대화의 물결속에 서구 산업화의 문화가 들어와 근 백년동안 산업자본주의 사회로 형성되어온 우리나라는 유구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지 못하고 선진산업사회의 문화를 쫓아가기에 바빴고, 무작정 수용해 우리사회에 범람하고 있다.

이런 사회 분위기속에서 성장한 후세들은 가치관의 혼돈과 방황속에서 날로 황폐해져 이제는 국적없는 젊은이의 문화가 대중문화로 유통되고 그 문화를 이끌고 선도할 문화가 없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국가관, 민족관, 역사관의 부재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뜻하는데 즉 민족의 생명과도 같은 민족정기가 없다는 말과 통한다.

민족문화를 올바로 계승·발전시키려 기성세대들의 노력이 없었던 결과가 현재

우리사회를 가치관이 없는 혼돈된 사회로 만든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민족의 정신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는 단연 불교문화의 복원과 그 문화속에 면면히 이어져 오는 정신을 이해하고 계승하는 일이 중요하다.

불교문화나 불교라는 종교가 지금의 경쟁사회, 물질만능사회와 화합할 수 없는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인간의 삶이 물질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정신생활, 즉 정신문화의 형성과 발전이 뒤따라야 한다고 할 때 불교는 바로 도덕적, 정신적 가치관이 부재한 이 사회를 이끌 풍부한 정신문화를 담고 있다. 바로 이것이 불교가 이시대 우리민족과 함께 살아나가야 될 임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대한 이해가 미천하고 기껏 이해라 봤자 타종교에서 불교를 비방하는 내용정도로 알고 있거나 기복적인 토속신앙과 구별을 못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불교와 더욱 친숙해지길 바라는 뜻에서 우리민족과 불교의 역사를 살펴보고 성북구에 있는 전통사찰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① 한국불교의 역사적 성격

인도문화권을 넘어서 중앙아시아 사막지대에 전파된 불교는 또다시 동으로 흘러 중국에 전래되기에 이르렀다. 중국에는 원래 고대로부터 중국 문화가 형성되어 유교나 노장사상 등 고유의 사상이 깊게 사람들의 정신생활을 지배하고 있었다. 외래종교인 불교는 이들 고유의 사상과 잘 융합해 가면서 중국 독자적인 불교를 형성했다. 중국불교는 드디어 동아시아 전지역 한국·일본·베트남 등으로 전파되어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했다. 한국 불교는 진정한 동아시아 불교권 속의 하나라고 하겠다.

동아시아 불교권의 공통점은 한역대장경에 의존하고 있는 점이다. 한역대장경을 근본경전으로 삼고 교리의 연구나 발달도 한역경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한국·일본불교가 공통적이다. 그러나 한국불교는 한역대장경에 의존하면서도 중국·일본불교와는 전혀 다른 불교를 한국인의 주체성에 맞게 창조하였다.

• 한국불교 제 1 의 특성－호국불교

신라 진평왕 23년(552)에 시작한 법회의 종류에는 백고좌강회(百高座講會)와 팔관재회(八關齋會)가 있다. 백고좌강회는 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의 설을 따라 내란과 외환 등의 악운을 물리치고 왕실과 국가안전을 기원하기 위하여 행한 법회였다. 팔관재회는 8계를 호지하여 전사한 병사들의 명복을 빌기 위한 것이었다.

신라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한국불교를 시종 일관한 전통은 이 호국불교의 정신이다. 이러한 이념이 강하게 나타난 것은 신라의 원광법사의 세속오계(世俗五戒)이다. 5계 가운데 제 1 조는 '나라에 충성할 것'이며, 제 4 조는 '싸움터에서 물러서지 말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원광의 임전무퇴의 계율이 고구려 백제와의 싸움에 큰 힘이 되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정신적 힘이 되었던 것이다.

또 적국의 항복을 발원한 황룡사 9층탑의 건립이라든가 왜인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동해를 바라보고 있는 석굴암의 불상, 그리고 '죽어서 호국의 혼이 되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해저왕릉을 부탁한 무열왕 등도 강렬한 국가의식을 상징한 것이라 하겠다.

고려시대에는 무력으로 유린해 온 몽고(元나라)에 대해 적국항복의 비원(悲願)이 담긴 대장경이 조판되었다. 부처님의 가호를 기원하며 조판된 고려대장경은 세계문화의 역사상에 있어서 불멸의 광명을 발산한 문화유산이다.

조선시대의 임진왜란때 서산·사명대사 등 의승이 무기를 들고 의군으로 전투에 참가하여 조국방위를 위해 피를 흘렸다. 이러한 신라불교의 호국정신은 조선조에 이르도록 그 맥을 생생히 이어온 것이다.

• 두번째 특징－종합불교

한국불교의 사상적 특징은 종합불교라 할 수 있다. 신라 원효의 불교사상은 화엄·법상·삼론·정토가 찬란하게 융합된 것이라 하겠다. 8종(宗)을 모두 겸학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당시의 모든 교학을 융합하여 하나로 만들었다.

원효는 '백가(百家)의 이쟁(異諍)을 화합하여 한 맛의 불교로 귀착시키는 것'을 목적에 두었다. 이 같은 원효의 종합적 불교는 후일 한국불교의 전통이 되었다.

고려시대의 보조국사 지눌스님은 "제불(諸佛)은 이를 입으로 설하여 '교(敎)'라 하고 祖師는 이것을 마음으로 전하여 '선(禪)'이라 한다." 이와같은 입장에서 敎禪일치의 종풍을 수립하고 교학과 좌선을 하나로 종합시켰다.

조선조에 있어서 전 불교의 종파는 교종과 선종으로 통합시켜 종합불교를 만들었다. 이처럼 한국불교는 정치적 사회적인 면에서는 호국불교로서 그 역할을 담당했으며 교리적인 특질로 말한다면 종합불교라 하겠다. 이 같은 불교는 일본불교나 중국불교에서는 볼 수 없는 독자적인 성격이다.

• 한국불교의 복잡성

종래 한국불교는 중국불교의 모방 내지는 이식된 것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단순한 이식이나 모방은 아니다. 물론 중국불교가 전래됨으로써 시작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한민족은 중국불교를 수용하면서 스스로가 독자적인 불교와 불교문화를 창조했다. 더우기 한국불교에는 중국불교 뿐만 아니라 다른 불교의 영향도 인정되고 있다.

한 예를 든다면 백제나 가락국의 불교는 인도불교나 남해로 경유한 불교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또 원의 영향을 받은 고려불교는 티벳 계통의 불교 영향도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든다면 충목왕 2년(1346)에 만든 演伏寺銅鍾에는 佛頂尊勝陀羅尼가 란치야문자나 티벳문자로 씌어진 것이라고 한다. 또 조선금석총람에 수록된 용천 해주 개성의 大佛頂陀羅尼탁복 등에서도 티벳계통의 불교의 영향을 찾아 볼 수 있다.

한국불교의 복합성은 사찰에 삼신각을 모셨다고 하는 것도 그렇다. '三神閣'이란 '獨聖閣'과 '山神閣' 그리고 '七星閣'을 말한다. 이 중 독성각은 독각을 모셨다는 점에서는 불교적인 것이지만 칠성각과 산신각은 불교가 아니다.

칠성각의 주신은 북두칠성이다. 북두칠성을 모시고 壽福息災를 축원하는 것이 칠성신앙이기 때문에 이는 도교의 신앙이 불교속에 깊숙이 스며든 것이다. 산신각의 산신이란 고조선(王儉朝鮮)시대 箕子가 조선을 봉쇄하였을 때 단군이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이 되었다고 하는 신화의 원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고려시대에는 현세이익의 신으로서 신앙한 것이 지금에 이르렀다. 또한 사

찰의 신중단에는 팔대금강·사대보살·십대명왕·제석천 등이 있다. 그밖에도 일월신·칠성·이십팔수·용안·삼신·조왕신 등 104위의 호법신을 모셨고 이들 속에는 불·보살 뿐만 아니라 도교의 신들도 있다.

그 이외에도 고려 초기 도선의 풍수신앙도 불교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동북아시아에 근저한 무속신앙이 깊게 민중속에 침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불교는 샤머니즘과 결합된 민중신앙으로서 역할이 조선조에 와서 특히 현저하게 나타났다.

② 한국불교의 역사적 의의

한국불교가 중국불교의 단순한 모방도 아니며 중국불교를 일본에 전하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한국불교의 역사적 의의도 자연적으로 밝혀진다.

일본 고대불교가 한국 및 중국대륙에서 전래된 것으로서 중국 및 한국불교와의 관계교섭을 고려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에 최초로 전래된 것은 백제불교이지만, 잇달아 고구려 불교가 들어 오고 다시 한고조말기에 이르러 신라와의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신라불교가 들어 왔으며 이어 수나라와 당나라에 파견한 학승들의 귀국과 함께 중국의 불교가 들어왔다.

이와 같이 백제→고구려→신라→대륙불교의 순서에서 다시 상호간에 중층적으로 얽힌 불교가 일본에 전래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고대불교는 직접적인 면에서는 한국불교권 속에서 싹튼 것이라고 하겠다.

되돌아 가서 중국불교와의 관계를 고찰해 보면 원효의 교학이나 주석서가 당의 화엄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등 한국불교의 독창적인 교학이 대륙에 역수입되었다. 또한 원측을 비롯한 많은 신라승려가 중국에서 활약한 것도 사실이었다. 또는 고려 의천이 중국본토에서 회창의 폐불에 따라 잃어버린 불교전적을 보충하기 위하여 많은 한국 불교의 전적을 송에 보낸 사실도 특수하다. 더우기 한국불교가 중국불교전에서 이탈하여 독자적인 불교를 창조한 것은 고려시대이다.

신라불교와는 상당히 성격이 다른 고려불교의 전체상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한국불교의 특질을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

③ 불교의 한국전래

• 고구려 불교전래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의하면 고구려의 불교는 372년－소수림왕 2년, 전진(前秦)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順道를 통해 불상과 불경을 보냄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374년, 阿道가 東晋에서 오자, 이듬해 성문사와 이불란사를 지어 두 사람을 각각 머물게 하였다(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

그러나 梁高僧傳과 海東高僧傳에 동진의 고승 도림이 고구려 승려에게 당시 중국을 휩쓸고 있던 淸淡格義불교의 대표자인 범심을 소개하는 서신을 보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372년 이전에 민간경로를 통해 고구려에 불교가 들어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도림과 같은 당대의 중국고승과 교분을 나눌만한 실력 있는 승려층이 상당한 기반을 이루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372년에 불교를 받아들인 사실은 이미 중국 남북조와 고구려사이의 민간 문화교류를 통해 들어와 상당한 기반을 이루고 있던 불교를 왕실에서 공인한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372년 왕실의 불교 수용 또는 공인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당시 소수림왕은 태학(太學)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하는 등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정비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까지 고구려에서는 국왕의 조상신을 숭배대상으로 삼아 국왕의 지위와 지배를 신성화하였다. 조상신에 대한 국가적 숭배를 통해 국왕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의식을 심어 온 것이다.

그러나 거듭되는 전쟁과 가혹한 조세수탈로 사회적 모순이 날로 격화되어 도저히 그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된 백성의 유랑과 저항이 일어나는 가운데 종전의 소박한 조상신앙이나 자연신앙으로는 더이상 동요하는 민심을 무마할 수 없게 되었다.

중앙집권체제의 강화와 더불어 백성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종교사상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때 이미 들어와 뿌리내리고 있는 불교의 공인을 원하는 세력의 요구가 점차 상승해 가고, 때마침 전진 왕이 공식적으로 사신을 보내 불교를 전하자, 이것이 고구려 왕권의 요구에 부합되어

불교가 공식 수용되었다.

• 백제의 불교전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의하면 백제에서는 384년－침류왕 원년 동진에서 온 인도 승려 마라난타를 왕이 궁궐안으로 맞아들여 예경함으로써 불교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듬해 백제는 한산(지금의 光州)에 절을 짓고 열 사람을 출가시켜 승려가 되게 하였다(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

또한 해동고승전에 의하면, 마라난타는 신통한 이적을 나타내는 인도 승려로서 그가 동진으로부터 오자 백제왕은 교외에까지 나가 맞아들였다. 그리하여 궁중에 모시고서 받들고 공양하면서 그의 설법을 들었는데 위에서 임금이 좋아하고 아래서 깨우쳐 불사를 크게 일으키고 다같이 받들어 행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봄 한산에 절을 짓고 열 사람을 출가시켜 마라난타를 받들게 했다.

마라난타의 사람됨과 왕실의 예우로 미루어 볼 때 왕실의 입장에서는 그의 신통력과 주술에 의지하여 왕실의 안녕을 빌고자 했을 것이다. 아울러 재래신앙을 대신하여 전란기의 동요하는 백성에게 새로운 이념을 불어넣어 국가의 번성과 백성의 단결을 도모했던 것이다.

• 신라의 불교수용

신라의 불교 공인은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150년 가량이나 늦다. 兵部 창설과 율령 반포 등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강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법흥왕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공인된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상당히 많은 전교의 노력이 있었음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보통 최초의 전교자로 묵호자를 드는 설은 김대문의 「계림잡전」을 인용한 삼국사기의 기사와 그것을 재인용한 삼국유사의 기사이다. 눌지마립간 때(417~458) 묵호자라는 승려가 고구려에서 일선군으로 들어왔다. 그 고을 사람 毛禮가 집안에 굴을 파서 방을 만들고 그를 모셨다(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삼국유사에 의하면 梁나라에서 사신이 향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도 그것이 무엇이며 어디에 쓰는건지 몰랐다. 모례집에 살던 묵호자만이 그것을 알아보고 "이것은 향이라는 것이오. 태우면 향기가 풍겨 신성에게 이른다오. 그런데 삼보(三寶 : 불·법·승)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소. 만일 이것을 태우며 發願하면 반드시 영험이

있을 것이오."라고 말했다. 때마침 공주가 중병에 걸렸는데 묵호자를 불러다 향을 사르며 발원하니 곧 나았다. 왕이 기뻐하며 예물을 후하게 주었는데 갑자기 간 곳을 알 수 없게 되었다(삼국유사 권3, 흥법).

위의 이야기는 향의 전래를 계기로 불교가 소개되었음을 보여주는데 병 치료와 같은 영험을 비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고구려나 백제에서와 같은 수용 및 공인을 받지 못하고 다시 잠적하고 말았다. 눌지마립간 다음다음 대인 비처마립간(소지왕 : 476~500)때에 이르러서도 불교는 여전히 공인받지 못하고 숨어있는 지역에서 은밀한 포교를 하는데 그쳤다.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된 것은 법흥왕 때인데 삼국중 제일 늦게 불교를 받아들인 신라의 불교는 중국불교가 직수입되는게 아니라 고구려를 거치면서 한층 더 토착화되고 숱한 시련과 수난을 겪으면서 민간에 잠복하여 꾸준히 기반을 잡고 뿌리내림으로써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어느 정도 백성과의 밀착이 있었다.

또 한가지 신라의 불교수용상 특징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고구려·백제와는 대조적으로 불교 수용·공인을 둘러싸고 지배층 내부에서도 이해관계를 달리하여 갈등이 치열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여, 다른나라들에 비해 전제적 결정이 아니라 민주적 합의에 의해 외래종교가 받아들여졌다는 식의 종래의 견해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법흥왕은 귀족대신들의 하나같은 반대에 부딪혀 한때 불교 받아들이기를 망설이기도 하지만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에는 권위와 위력으로 그들을 누르고 이차돈의 죽음으로써 그들을 완전히 제압한다. 삼국유사는 그와 같은 사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마침내 대왕은 일부러 위의를 차리고서 사방에 바람같은 칼과 서릿발 같은 몽둥이를 늘어놓고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다.

"경들은 내가 절을 지으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는가?"

그러자 신하들은 두려워 벌벌 떨며 모두 손을 내저었다(삼국유사 권3, 흥법).

이상으로 길게 삼국의 불교수용과정을 살펴보았다. 정리해 보면 삼국에 받아들여진 불교는 고구려·백제왕의 '崇佛 求福' 교령, 신라왕실의 병 치료 등의 사

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개 영험과 복을 비는 현실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왕권 및 지배질서의 안녕을 옹호받고자 하는 왕실의 요구에 따라 호국불교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게다가 각종 재래신앙과 결합하여 민족적 신앙으로 뿌리내렸다.

오늘날 우리나라 불교가 지니고 있는 주요한 성격의 뿌리를 우리는 찾을 수 있다.

④ 삼국시대의 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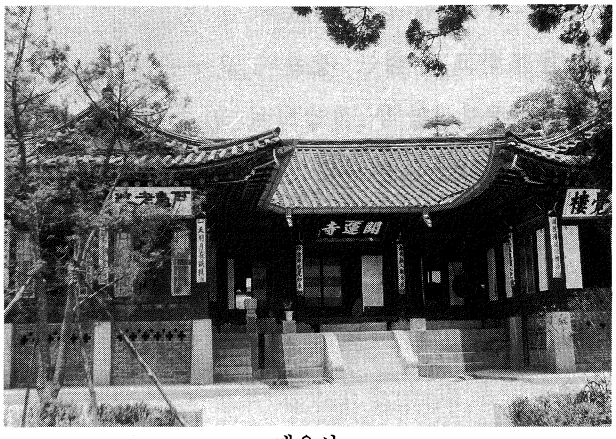
• 고구려 호국불교의 전개

고구려 왕권이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삼국의 통합을 꾀하는 남진정책을 본격화함으로써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던 시기에, 불교는 고구려 왕권에 의해 백성에게 권장되었다. 고구려 왕은 백성들에게 "불교를 받들어 복을 구하라"고 하교하였다. 곧이어 392년에 광개토왕은 평양에 절 아홉군데를 세웠다. 백제와의 전쟁이 치열하게 계속되던 때였다.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는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공방전이 거듭되고 있었다. 당시 평양은 비록 수도는 아니었으나 고구려로서는 남진정책에서 중요한 전략적 요충이었고 이미 고국원왕과 소수림왕 이래 백제로부터 끊임없는 위협과 침공을 받던 곳이었다. 이 지역에 광개토왕이 아홉 개의 절을 지은 것은, 불교의 힘을 빌어 백제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무운을 기원하고자 함이었다.

고구려 불교가 호국의 성격을 띤 예는 무수히 많이 전한다. 그중 하나를 예로 들면 東國輿地勝覽에 실려 있는 安州 칠불사에 얽힌 사화는 저 유명한 수나라 군대의 침략에 대해 고구려 승리에 불교승려들의 역할을 그리고 있다.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전해 내려온다. 수나라 군대가 강을 건너려는 데 배가 없었다. 그때 홀연히 승려 7인이 강가에 오더니 옷을 걷어붙이고 강을 건너 갔다. 수나라 군사들이 그것을 보고 물이 얕은가 보다 생각하고 다투어 건너다 강에 빠져 죽었다. 시체가 강에 가득하여 물이 흐르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런 연유로 절을 세우고 '칠불사'라 이름하였다. 불상 일곱을 나란히 모셨는데 바로 일곱 승려를 나타낸 것이다(동국여지승람, 안주목, 칠불사).


개운사

이렇게 외세의 침략에 승려가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나라를 지켰다는 것은 불교가 국가의 존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고구려에는 외세에 대항한 승려의 활약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오고 있으며 고구려 승려들의 중국과 일본에서의 활약이야말로 고구려 불교의 학문적 선진성과 주체성이 높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 백제 불교의 계율연구와 미륵신앙

백제에서는 특히 계율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였다. 《미륵불상과 사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한다.

> 백제 성왕 7년 병오년(526년)에 승려 겸익이 율장을 구하기 위해 항해하여 중인도까지 갔다. 그곳의 상가나 대율사에서 5년간 인도글을 배워 능통하게 되자, 율장을 깊이 공부하며 계율에 통달하였다. 그리하여 인도 승려 배달다 삼장과 함께 범어원전 논장과 5부 율장을 가지고 귀국했다.
>
> 백제 왕은 우보 고취로 하여금 교외까지 나가 맞이하게 한 뒤 흥륜사에 살게 했다. 그 후 나라 안의 명승 28인을 소집하여 겸익법사와 함께 율장 72권을 번역하게 하였다. 이것이 백제 율종의 시조이다. 이어 담욱, 혜인 두 법사가 율장의 주석서 36권을 지어 왕에게 바쳤다.
>
> 왕은 논장과 새 율장의 서문을 써서 태요전에 이 책들을 보관했다. 장차 판각하여 널리 배포하고자 했는데 미처 겨를을 내지 못하고 서거하였다.

이와같이 백제의 불교는 주로 계율을 중시하는 율종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고 백제는 고구려와 달리 도교가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불교가 성행하여 승려와 사탑이 매우 많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불교가 그만큼 백성들의 생활에 깊이 뿌리내렸던 것을 알게 한다. 그러기에 599년(법왕 원년)의 '살생금지령' 등을 통한 국민적 계율 실천이 가능했던 것이다.

계율과 함께 백제는 미륵신앙이 성행하였다. 백제의 미륵반가사유상과 서산 마애미륵 3 존불, 태안 마애 3 존불, 익산 연동리 석불좌상 등은 백제의 뛰어난 조각예술 수준을 보여줌과 아울러 백제 미륵신앙의 깊이를 보여준다.

법왕은 왕위에 오른 해에(599년) 조서를 내려 살생을 금지하였다. 민가에서 기르는 사냥매 따위를 놓아주게 하고 고기 잡는 도구를 불사르는 등 사냥이나 천렵을 일체 금지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당시 서울인 사비성(지금의 부여)에 왕흥사를 창건하려고 터를 닦았다. 이 일은 무왕이 이어받아 완성시켰는데 이 절을 미륵사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 신라의 왕실호국불교와 불교의 융성

불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법흥왕에 뒤이어 왕위에 오른 진흥왕은 왕권의 신장과 국토의 확장에 힘쓰는 한편, 불교의 국교화를 통해 지배질서의 확립과 민심의 통합을 꾀하였다. 또한 진흥왕은 옛부터 내려오던 부족 축제를 불교의식인 팔관회의 형식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승관제를 확립하여 불교의 국교화 및 제도화에 주력하였다. 전국의 승려를 통제하는 최고 승관인 국통아래 도유나랑 1인과 대도유나 1인, 대서성 1인을 두었다.

17년만에 완성한 황룡사의 엄청난 역사는 진흥왕의 불교 국교화정책의 절정이자 백제, 가야, 고구려를 차례로 제압하던 당시 신라 국력의 과시였다.

진흥왕은 귀족 청소년 교육과 지도자 양성을 위해 風流道를 장려하고 화랑 즉 國仙을 선발한 이래 많은 승려들이 화랑의 무리속에 들어가 정신적 윤리적인 영향을 끼쳤다.

풍류도는 특히 미륵신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 같다. 이는 화랑의 수련장이었던 단석산 신선사 벼랑에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더라도 풍류도와 미륵신앙의 결합을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진흥왕에 뒤이은 진지왕때 흥륜사 승려 진자가 미륵상 앞에서 미륵이 화랑으로 출현해 주기를 기원했다든지, 김유신이 화랑 시절 거느렸던 무리를 '용화향도'라 일컬었다든지 하는 고사도 풍류도와 미륵신앙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 준다.

신라 왕실호국불교를 정립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승려로서는 자장율사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문무왕 때에 가서 왕실호국불교가 더욱 홍성하였는데 문무왕은

이와 같은 호국불교를 국가적 이념으로 활용하여 민심을 통합하는 한편 신혜, 의안, 명랑, 의상 등 고승들에게 국정을 자문하였다. 명랑이 당나라 침략군 퇴치를 기원하는 의식을 베풀었던 신유림에 사천왕사를 세우고 왜병이 출몰하는 동해변에 부석사, 진국사를 세운 것도 다 이러한 의도에서였다.

문무왕은 임종에 즈음하여, 전란의 시대에 강역을 통일하고 "병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어" 평화를 정착시키고 백성의 과세부담과 노역을 덜어 민생이 안정된데 대하여 만족해 하면서 자신이 죽으면 불교식으로 화장하여 동해변의 바위에 장사지내 달라고 유언한다. 그런데 이러한 유언도 그가 평소에 지의법사에게 했다는 말 "짐은 죽은 뒤 나라를 지키는 큰 용이 되어 불법을 받들며 나라를 수호하고 싶다"는 호국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도 당시 왕권이 호국불교를 삼국통일과 통치의 지배적 이념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⑤ 통일신라의 불교

8세기 후반 이른바 신라 하대에 접어들면서 불교는 귀족적 승관계 및 각종 호국기도법회 등에 의해 왕실권력과 더욱 밀착되었다. 경덕왕때 재상 김대성이 불국사와 석굴암을 창건하여 왕실의 권위를 과시하였고 왕도 대현을 초빙하여 호국경전인 금광명경을 강의하게 하는가 하면 황룡사 종과 '성덕대왕신종'을 주조하고 분황사 약사여래불상을 조성하였다.

이 시기에 불교는 이와같이 대규모의 사찰·탑·불상·종을 지어 호사한 왕실의 권위를 드러내보이고 왕실 귀족의 안녕과 복을 기원해 주었다. 그리고 왕실귀족으로부터 그 대가로 엄청난 땅과 노비 등을 기부 받았다. 경덕왕 때 信忠이 왕을 위해 단속사를 세우고 거기서 왕의 초상을 모시고 평생 왕의 복을 빌며 살았던 사실은 그 좋은 예라 하겠다.

왕실과 귀족들의 호사스런 불사가 극에 달하자 왕권으로서도 통제를 할 정도였는데 806년에 애장왕은 사찰을 새로 세우는 것을 금지하고 금수나 금은을 사용한 불사를 금지하는 영을 내렸다. 이 때 지방의 호족세력은 왕권 및 중앙 귀족세력의 골품제적 권력 독점과 토지 지배에 반대하여 私兵의 힘으로 지방의 행정과 토지를 장악해 나갔다.

중앙의 귀족세력은 혜공왕 이래 150여년간 20여명의 왕을 바꿀 정도로 권력다

툼에 힘을 탕진한 나머지 지방 호족세력의 분리 독립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지방호족의 성장과 함께 그들의 지원 아래 지방의 새로운 불교 종파인 선종이 성장해 갔다. 선종은 교리와 권위를 중시해온 귀족불교에 반대하여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각자가 스스로 깨달을 것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것은 골품제의 해체와 지방세력의 정치경제적 자립을 꾀하는 호족세력의 환영을 받았다. 그리하여 선종은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각 지방을 근거지로 호족세력의 후원을 받아 급속히 성장하였다. 禪宗은 통일신라에 받아들여지기 까지 숱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혁신적인 기운은 타락한 귀족불교와 관념화된 교종을 뒤흔들어 놓았다.

한편 백성들 사이에서는 미륵신앙에 기초한 신앙운동과 변혁운동이 있었는데 후삼국의 견훤과 궁예가 그 대표적 인물이다.

⑥ 고려와 조선시대의 불교

고려의 태조는 불교 숭봉정책과 불교세력 희유책을 썼다. 이는 동요하는 민심을 수습하고 새로 건국한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정이었다. 이후 고려불교도 철저한 왕권의 통제하에 있는 호국기복왕실불교로서 왕실과 귀족의 힘을 빌어 융성하였으나 불교가 부패하고 타락한다. 그러나 국교로서 불교의 영향은 귀족에서부터 평민까지 상당하였다.

고려의 불교는 고려 국운의 쇠퇴와 함께 쇠퇴의 길을 걸었고, 유교를 믿는 신진사대부들에 의한 조선의 건국은 불교탄압과 말살정책의 시작을 뜻했다. 조선의 건국부터 핍박 받아온 불교는 주로 궁중의 아녀자와 사대부 집안의 아녀자 그리고 평민들에 의해 그 명맥이 이어져 왔다. 그리고 왕조의 명복을 비는 제사 담당쯤으로 승려의 역할이 한정되었다. 이런 조선시대의 불교말살정책은 천여년의 고유한 정신문화인 불교의 파괴 뿐아니라 민족정기를 꺾게 되는 악영향을 가져온다.

유교가 불교를 대체한 정신적 지도를 하지만 그래도 불교의 명맥은 많은 이들의 가슴속에 살아남아 후세에 전하여 졌다.

⑦ 성북구와 사찰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불교는 호국불교로서 국가의 안녕과 백성의

편안함을 그 실천목표로 하는 종교이다. 그리고 천여년동안 우리민족의 모든 문화를 이끌었고, 조선조의 말살정책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대다수 국민에 의해 민족종교로서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성북구에는 북한산을 중심으로 많은 사찰들이 있는데 이곳의 사찰은 거개가 조선시대 즉 서울이 도읍으로 정해지고 난 후부터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태민안과 왕실가족의 제사를 돌보는 일을 맡아 하던 곳들이 대부분이다.

서울의 북쪽에 위치해 한편은 경기도 고양군과 경계되어 있고 한편은 서울의 종로구, 성북구, 도봉구에 걸쳐 있는 북한산은 최고봉인 백운대와 그 동쪽의 인수봉, 남쪽의 만경대의 세 봉우리로 구성되어 삼각산이라고도 불린다.

세 산봉의 정상부는 모두 암봉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기상이 충천하는 명산으로 알려져 있다. 즉 산봉이 높고 화강암으로 된 산용이 웅장하여 예로부터 서울의 진산으로 추앙되어 왔다.

북한산에는 1711년(숙종 37)에 축조한 길이 8km, 평균높이 7m의 북한산성이 남아 있고, 14개의 성문 중 대남문·대성문·보국문·용암문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밖에 산중에는 유명한 北漢離宮址와 文殊庵·太古寺·元曉庵·祥雲寺·道詵寺 등 사찰과 문화유적이 많다.

성북구에 있는 사찰들도 이 북한산의 줄기에 자리하며 그 지맥에 영향을 받고 있다. 성북구에는 보문사를 비롯해 여러 사찰이 있는데 그 중 전통사찰로서 깊은 역사를 갖고 있는 사찰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사찰들 하나하나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기술될 수 없고 자료정리가 되어 있는 몇 사찰에 한해서만 간략히 소개해 보고자 한다.



보문사

• 경국사

고려말기에 삼각산 푸른 봉우

리 밑에 청암사라는 이름으로 자정국존에 의해 창건되었다가 조선 현종때에 이름이 경국사로 바뀌면서 현재의 사원규모를 갖추었다. 영조 13년에 洛庵義訥선사가 절을 보전하였고, 정조 17년에 天峯泰屹선사가 주석하였으며 고종 5년에 금고를 조성하며 삼성전과 칠성전, 산신각을 창건하였다.

1915년 극락전을 중수하고 1921년 불교예식에 정통하고 화승이자 선지식이었던 寶鏡普賢화상이 주지로 부임하였고, 현재의 극락전, 명부전, 관음전, 영산전에 봉안된 탱화, 벽화 등의 대부분이 이 보경화상의 작품이다. 현재는 지관선사가 보경화상을 이어 1979년부터 경국사를 맡아보고 있다.

• 보문사

보문사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는 연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 16 대	예종 10년(1115년) 담진국사 창건
	비구니 상주하이 국태민안 성수만세를 기원
	염불 독경으로 선업을 행함
조선 19 대	숙종 18년(1692년) 비구니 묘첨스님 중건
21 대	영조 33년(1757년) 비구니 보찬스님, 유봉스님 대웅전 수축
24 대	헌종 3년(1837년) 비구니 정운스님 좌·우승당 개축
	헌종 8년(1842년) 비구니 영전스님등 삼인이 만세루 신축
26 대	고종 9년(1872년) 비구니 금훈스님이 좌·우승당 수축
1930년	비구니 긍탄스님이 관음전 신축, 대웅전 좌·우승당 수축
1945년	삼성각 대지 매입축장(송은영 주지스님 이후)
1958년	선불장 신축
1962년	산령각 신축
1969년	범종각 신축, 대종신조
1970년	극락전, 보광전, 호지문, 시왕전 신축
1971년	시자원 신축
1971.8. 5.	재단법인 대한불교 보문원 설립
1972.4.20.	대한불교 보문종 창립

1972.6.16. 석굴암 조성

1978.9.22(음력) 사리탑 건립

1986.9.18. 비구니 황법준 주지 대웅전 좌승당 개축 묘승전으로 명명

1987.5. 7. 비구니 황법준 주지 석굴암 수축

• 開運寺

안암동 소재의 개운사는 1396년(태조 5)에 無學大師가 동대문에서 5리 되는 安岩山 기슭에 절을 창건하고 이름을 永導寺라 하였다. 그 뒤 1779년(정조 3)에 洪嬪의 明仁園을 절 곁에 써서, 절을 동쪽으로 2리쯤 되는 곳에 옮겨 짓고 개운사라고 고쳤다.

創建主는 仁坡竺洪이며, 여러번 重建되었다.

• 彌陀寺

보문동의 보문사와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미타사는 고려 광종 원년(서기 950)에 慧居국사가 본사를 창건하고 미타사라 이름하였다. 그 후 고려 문종 원년(1047)에 석탑을 조성·봉안 하였는데 이로 인해 일명 탑골僧房이라 불리게 되었다.

고려 忠肅王 원년(1315) 慧鑑국사가 제 2 차 중수하였고 단종대왕(1459)에 왕비 송씨와 민씨가 3차 중수하였으며 순조 원년(1801)에 4차 중수하였다. 헌종 2년 병갑년(1836)에 證師震虛堂인일선사가 주지하였으며 비구니 常心師가 5차 중수하였다. 1969년에는 證師 古峰대선사께서 주지하였으며 비구니 宋季珠師가 6차 중수하였다.

〈성북구 사암 연합회〉

2) 韓國佛教太古宗

韓國佛教太古宗은 석가세존의 自覺覺他한 覺行圓滿의 근본정신을 봉체하고, 신라 헌덕왕대의 道義국사가 개산한 가지산문을 기원으로 하고 太古宗祖의 종풍을 선양하며 전법도생에 힘쓰는 전통 대승교화종단이다.

본래 한국불교 선교양종을 완전히 통합시켜 통불교의 전통을 이어온 太古普愚 국사를 종조로 하여 조계종 종명을 가지고 활동해왔으나, 불교계의 분열을

노리는 이승만 정권과 이에 편승한 일부 가장 비구들의 준동으로 발생한 불교 분규에 의해 조계종의 종명을 사용하지 못하고 원융총화의 종풍을 선양한 태고 보우국사의 법맥과 정신을 계승한 의미에서 태고종으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국 2,500여 사암에 5,000여 승려가 수행과 교화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전국을 13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시도에 교구종무원을 설치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일본과 미국에도 포교당을 개설하여 해외포교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태고종에서는 대승불교사상을 찬양하고 남북평화통일을 성취하여 민족중흥을 이룩하기 위해 남북평화통일기원 수륙방생대법회, 호국영령 위령천도법회, 남북불교 교류제의, 재일교포 고국방문초청, 한민족통일기원 한강영등영산대재, 열반재일 기념 민족대각성법회 등의 대행 법회를 봉행하며 종교의 社會的 역할을 다하고 있다.

태고종 총무원에서는 傳法度生을 위해 도제양성과 사회참여를 최대 宗教指標로 삼아 이의 실현을 위해 동방불교대학, 교계유일의 불교전통강원, 선원 등의 도제양성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독서실, 무료직업안내소, 보건공제회, 신용협동조합, 상조회, 유치원, 유아원, 양로원, 어린이집 등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태고종의 유일한 총림인 승주 仙岩寺는 신라시대에 阿道화상이 창건하고, 고려시대 大覺國師가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講院, 禪院 등을 갖춘 종합 수도도량이다.

本 宗團의 근대적 교육기관인 종립 동방불교대학은 포교학과, 불교음악을 가르치는 범패과, 불교미술을 가르치는 佛畫科, 아동교육법을 연마하는 유아교육학과 등 4개과를 개설하여 도제양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대학과정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더 깊은 학문의 세계를 맛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대학원에 해당하는 연구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총무원에서는 졸업시험에 합격하고 제출한 논문이 통과된 자에게 포교사 자격을 주어 활동하게 하고 있다.

태고종의 산하기관은 매우 다양하다. 종단 내외의 소식을 신속하게 전하는 대중매체인 한국불교신문이 격주간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일제시대 만해 한용운 스님에 의해 창간된 우리나라 최장수 잡지「佛教」는 교계 최대 부수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태고종만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전통불교예술인 영산재를 오늘에 되살리고 후손들에게 전하는 영산재보존회는 인간문화재 제 50 호인 박송암 스님, 장벽응 스님, 이일웅 스님, 정지광 스님 등이 후진 양성에 열중하고 있으며, 단청과 탱화의 기능보유자인 인간문화재 48호인 이만봉 스님과 그 문하생이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사찰을 창건하여 신행활동을 하고 있는 제가불자들의 모임인 전국교임협의회는 창립 1년만에 그들의 대표 1인이 宗團의 중앙총회의원에 뽑힐 정도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교계에서 제일 오래된 신도단체인 전국신도회는 전국 13개 지부에 2,500여 단체에 410만의 회원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매월「부처님의 말씀」을 발간하고 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이 창립하여 오늘에 이른 한국불교 청년회는 5만의 정예회원이 태고보우국사의 얼을 오늘에 정진하며, 청소년단체 협의회와 이사단체로서 맹활약하고 있다. 태고종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단체로서 승려부인들의 모임인 한국불교태고종부인회가 창립되어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종도들의 해외견문에 대한 욕구가 커짐에 따라 전국 성지순례 단체인 한불국제여행사를 설립하여 해외성지를 참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한편 城北區 관내에는 本 宗團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는 寺刹이 太古寺・般若寺・三弘寺・誠心寺・石佛寺・普門精舍・上院寺・奉皇寺・觀音精舍・金剛寺・天中寺・大圓寺・修德庵・龍萃精舍・惠德寺・長安寺・海元寺・觀音庵・仙龍寺・成願寺・正明寺・東園庵・松雲精舍・成佛寺布教院・般若寺・萬德寺・法輪精舍・積善庵・紅蓮寺・大興寺・善行庵・祈禱寺・大佛精舍・蓮萃寺・大願寺・月光寺・白蓮寺・練修寺 등 총 38개에 이르며, 僧侶數는 100여명, 信徒數는 30,250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 비교적 역사가 오래되고 宗團 総務院이 입주해 있는 太古寺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太古寺

1700년(숙종 26년)에 미륵불사라는 명칭으로 창건되었는데 1983～1985년 사이에 전국 500만 종도의 성원을 모아 호국삼천불전, 설법전을 보유한 사찰을 건립하고 1987년에 寺刹名을 太古寺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僧侶數는 6명, 信徒數는 5,000명에 이른다. 특히 이 사찰은 1986년에 西大門區의 奉元寺에 있던 宗團 總務院이 옮겨오면서 많은 발전과 폭 넓은 布敎活動을 펼치게 되는데 주된 포교·법회활동상으로는 i) 정부의 북방정책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교류 등 화해기류를 맞이하여 民族和合과 祖國의 平和統一을 기원하고 신성한 종교교화활동을 통하여 민주화과정에서 파생되고 있는 각종 사회적 갈등을 부처님의 자비광명에 의해 순화함으로써 국민화합에 기여코자, 종단 간부와 승려 및 신도 1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민족화합 남북평화통일 기원 수륙방생대법회. ii) 북녘의 동포들과 전방의 군인들에게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전하며 북녘의 동포들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남한사회의 여유있음에 대한 믿음을, 전방의 군인들에게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통일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1991년 5월 중부전선 월정리역 오피에서 개최한 전방고지 광명 등탑 점등법회. iii)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산화한 국군장병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들의 호국정신을 한층 앙양시켜 조국의 평화적 통일 분위기를 형성케 하고 꽃다운 나이에 숨져간 고혼을 천도, 위령하여 사회안정과 남북통일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원혼들의 작희를 안정시킴으로써 사회를 안정시키고 통일의 장애요소를 제거, 평화통일 분위기를 형성하며 또한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41주년을 맞아 국민의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고양시켜 국가안보를 한층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1990년 6월에 중부·서부전선에서 개최한 6·25 호국전몰영령 합동위령제 봉행 등을 비롯, 기타 정기적인 행사로 개최되는 成道紀念法會, 槃節, 孟蘭盆節, 宗敎誕生紀念法會 등을 들 수 있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자료제공〉

2. 天主教

1) 신자 집단의 형성

지금의 성북구 일대에 천주교 신앙이 전파된 시기는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늦은 편이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서울 북쪽 지역이 초기의 신앙 전파 경로에서 비껴나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1784년에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후 그 신앙이 주로 서울 중심부에서 한강 남쪽이나 동쪽의 경기도 방향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 100여년 동안 진행된 천주교 박해의 기록에서도 지금의 성북구 북쪽 지역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훗날의 기록에 따르면 일제 치하인 1930년대 후반에서야 미아리 지역에 처음으로 신자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1] 그때까지 이 일대의 신앙중심지는 1927년 10월에 설립된 혜화동 본당(당시의 이름은 栢洞本堂)이었으며, 이 지역의 신자들도 이 본당의 사목(司牧) 관할• 아래에 있었다.[2]

물론 1938년경에 이룩된 미아리(지금의 吉音洞)의 신자 집단은 다른 예와 마찬가지로 주목받을 만한 것이 아니었다. 신자 집도 4세대에 지나지 않았고, 정식 공소(公所 : 본당보다 작은 신자 집회소)로 인정된 것도 아니었다.[3]

한편 이 무렵에는 서울의 城北洞・敦岩洞과 고양군의 水踰里・牛耳里・貞陵里 등에도 몇몇 신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지만,[4] 이들과 미아리의 신자 집단이 하나의 모임을 형성한 것 같지는 않다.

미아리의 신자들은 이후 혜화동 본당으로 다니면서 미사에 참례하고, 이웃에게 신앙을 전파하며, 새로 이주해 오는 신자들과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지켜 나갔다.

---

1) 天主教 서울大教區, 教區總覽, 가톨릭출판사, 1984, p.280.
2) 天主教惠化洞教會, 柏洞半世紀, 1977, pp.121~122 참조.
3)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吉音洞本堂 약사 보고서(필사본), 1983 참조.
4) 天主教惠化洞教會, 앞의 책, pp.120~121. 한편 당시의 城北洞 지역은 혜화동과 함께 본당의 직속 관할 구역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성북동에는 이미 여러 신자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리라 생각되지만, 현재 그 신자 집단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 결과 2, 3년이 지나면서는 그 신자 집단이 본당에서 주시할 정도로 확대되어 나갔다. 이 무렵 혜화동 본당에는 파리외방전교회(M.E.P) 출신의 싱거(Singer, 成載德) 신부가 제 4대 주임 신부로 있었고, 그의 보좌는 장금구(莊金龜, 크리소스토모) 신부였는데, 이들이 가끔 미아리 일대의 신자들을 방문하였다.[5]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곳 신자들은 본당 신부와 신자들의 도움을 얻어 공소의 설립을 꾀하게 되었다.

2) 미아리 본당의 설립

초창기 미아리의 신자들이 모이던 곳은 정금성(암브로시오)의 집(현 길음동 537번지)이었다. 비록 정식 공소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이곳을 신앙의 터전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므로 본당의 싱거 신부는 장차 이곳 부근에 하나의 본당을 설립할 생각을 갖고 신자들의 도움을 얻어 기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6]

그러나 공소 설립은 이후에도 2, 3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곳 신자들이 스스로 공소 經堂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여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또 매입하기에 적당한 집도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던 중 1942년에 이르러 공소로 쓰기에 적당한 집(정금성 집의 뒷편)이 매물로 나오게 도었다. 그러자 싱거 신부는 우선 이곳에 공소를 두기로 결정하고, 본당 설립을 위해 모아 두었던 기금으로 그 집을 매입한 뒤 주보(主保 : 수호 성인)를 '聖母七苦'로 정하니, 이것이 곧 미아리 공소의 시작이었다. 공소 설립 당시 이곳에 나오는 신자들은 약 60명 정도였다고 한다.[7]

싱거 신부가 이곳의 건물을 매입하고 공소로 설정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이곳이 장차 서울 북부의 새 신앙 중심지가 될 것으로 생각한 때문이었고, 장차 이곳에 성당을 건립하여 성모 순례 성당으로 삼고자 한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선 혜화동에 살던 여성신자 김명환

5) 天主教 서울大教區, 앞의 책, p.280.
6) 앞의 吉音洞本堂 약사보고서 참조.
7) 天主教惠化洞教會, 앞의 책, p.143.

(마리아)을 전교 회장으로 임명하고, 이곳으로 이주토록 하여 공소 건물을 돌보도록 하였다.[8]

미아리의 신자들은 공소 설립 후 본격적으로 신앙을 전파하는데 노력하였다. 그 결과 미아리 일대는 물론 정릉·月谷里·長位里 등과 멀리는 수유리·우이리 등까지 신앙이 전파되어 나갔으며, 공소 설립 후 2년여가 지나면서는 이 일대에 약 200명 정도의 신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9] 아마도 이와 같은 신자 수의 증가는 본당의 싱거 신부로 하여금 새 본당 창설의 결정을 앞당기게 해 주었던 것 같다.

싱거 신부의 건의가 있자, 당시 서울교구의 교구장으로 재임하던 盧基南(바오로) 주교는 1945년 5월에 신학교(정식 명칭은 京城天主公教神學校) 교장으로 있던 申仁植(바오로) 신부를 미아리 공소로 전임시켜 주었다.[10] 이 사실은 바로 미아리 본당(지금의 길음동 본당)[11]의 설립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로써 미아리 본당은 서울에서 일곱번째로 설립된 본당이 되었으며, 母本堂인 혜화동 본당의 子本堂으로는 1938년에 설립된 제기동 본당에 이어 두번째가 되었다.

설립 당시 이 본당의 관할구역은 지금의 성북구 대부분과 도봉구 지역으로, 멀리는 의정부 경계 지역까지를 사목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본당의 教籍에 나타난 신자 수는 모두 280명 가량이었고, 미사에 참여하는 수는 많을 때가 60~70명 정도였다.[12]

3) 본당의 확대와 분할

미아리 본당은 이후 이 지역의 신앙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설립 초기에는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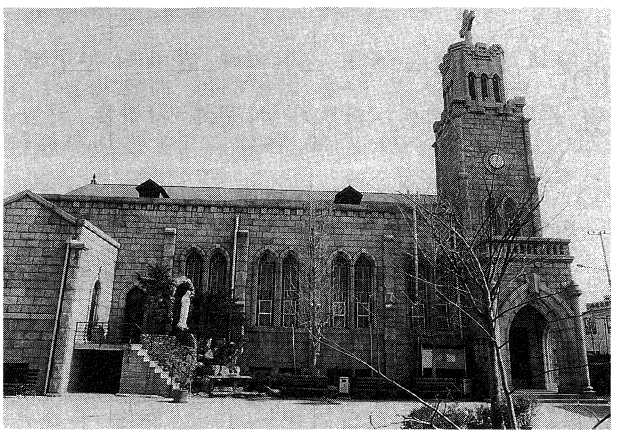
8) 앞의 吉音洞本堂 약사보고서 및 앞의 책, p.143.
9) 天主教 서울大教區, p.281.
10) 京鄕雜誌 제 39 권 제 976 호, 1945. 5. 12.
11) 행정 구역상 미아 1동이 길음동으로 변경된 것은 1959년이었지만, '미아리 본당'의 명칭이 '길음동 본당'으로 변경된 것은 이보다 훨씬 뒤인 1982년 9월 9일이었다.
12) 앞의 吉音洞本堂 약사보고서 참조.

대로 된 성당 건물도 없었으므로 신자들은 두 차례나 성당을 옮겨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였다.[13] 그러므로 당시 신자들에게는 새 聖堂 건립이 언제나 커다란 숙제로 남아 있었다.

이곳 신자들이 새 성당을 건립한 것은 그후 6·25사변을 겪고 난 뒤인 1958년이었다. 1955년에 이미 신자 수 494명을 기록할 정도로 교세가 날로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 성당 건립이 급박해졌고,[14] 이에 신자들은 1957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년 만에 성당을 완공하고 그 축성식을 갖게 된 것이다.[15]

이 무렵 이 지역 일대는 서울시로 편입되어 신설된 성북구 지역이 되어 있었으며 주민 수가 증가하면서 천주교 신자들도 여기 저기에 산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또 하나의 본당 신설이 요구되고 있었는데,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돈암동 본당의 설립이었다.

돈암동 본당은 다른 경우와 달리 1955년 10월 18일 성당의 건립과 동시에 본당이 이루어지고, 아울러 신부가 파견된 특이한 경우였다. 아마도 그 이유는 성골롬바노전교회에서 성당을 건립하고, 그 초대 신부로 동 전교회의 도슨(Rev. Patrick Dawson, 孫) 신부를 임명한 때문이었을 것이다.[16]


천주교 성당(동선동)

설립 당시 이 본당은 혜화동 본당으로부터 三仙洞·安岩洞·普

13) 처음 공소 자리에 있던 미아리 성당은 이미 신인식 신부 재임 시절에 지금의 길음동 536의 8번지로 옮겼으며, 제 4 대 吳然喜(마티아) 신부 부임 후인 1950년 5월에 다시 길음동 557번지에 있던 기와집 두 채를 매입하여 이전하였다. 한편 오 신부는 미래를 위해 이곳 이웃에 1,000평의 대지도 매입해 두었는데, 이곳이 바로 현재의 성당 터가 되었다(天主教 서울大教區편, 앞의 책, 281쪽).

14) 京鄕雜誌 제 47 권 제 1043 호, 1955. 2. 1.

15) 天主教 서울大教區, 앞의 책, p.281.

16) 京鄕雜誌 제 47 권 제 1052 호, 1955. 11. 1.

門洞과 돈암동 일대를 관할구역으로 인계받았으므로 신자 수가 이미 900여명에 이르고 있었다.[17]

이후 성북구 지역에는 오랫동안 새 본당이 설립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1960년대에 들어 곳곳에 새 주택 단지가 조성되고 도로가 신설되면서 미아동 본당의 교세는 급격히 확대되어 1967년 말에 이르러 총 2,952세대에 8,333명의 신자 수를 기록하게 되었다.[18] 그러므로 서울대교구[19]에서는 이해 4월에 미아동 본당으로부터 수유동 본당을 분리 독립시켜 지금의 도봉구 일대를 사목하도록 하였고, 이어 다음해에도 다시 여러 본당을 분리하였다.

미아리 본당의 분할 계획에 따라 신설된 본당들은 1968년 10월 18일자로 인가된 성북구의 長位洞 本堂, 10월 24일자로 인가된 貞陵 本堂, 月谷洞 本堂, 도봉구의 三陽洞 本堂(지금의 미아 3동) 등이었다.[20] 이에 따라 성북구 지역에는 모두 5개의 본당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중 정릉 본당(초대 신부 : 兪鳳俊, 토마스)의 경우는 1968년 2월에 이미 미아동 본당에서 정릉동 378－6번지에 대지를 구입해 놓은 상태였으며, 본당의 보좌로 있던 李鍾煥(미카엘) 신부가 이곳에 천막을 치고 미사를 드려오던 중 본당으로 승격되었다.

반면에 월곡동 본당(초대 신부 : 李思應, 안토니오)은 대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신자들은 하월곡동 82번지 소재의 가옥을 전세내어 생활하면서 이웃 9번지(현위치)에 새 대지를 마련해야만 하였다. 그리고 성 골롬바노회에서 사목을 맡게 된 장위동 본당은 신자들이 吳錫根(바오로)을 중심으로 대지를 매입한 뒤, 훗날 초대 신부로 부임한 게라티(Brial. Geraghty, 池) 신부와 함께 개인 집에서 미사를 드려 오던 중 본당으로 승격되었다.[21]

17) 天主教서울大教區, 앞의 책, p.334.

18) 위의 책, p.281.

19) 한국 교회에서 教區(교회 행정상의 지역 구분)나 서울大教區란 명칭이 정식으로 사용된 것은 1962년부터였다. 즉 한국 교회에 教階制度가 설립됨으로써 기존의 代牧區란 명칭 대신에 교구란 명칭이 사용되었고, 서울대목구는 이때부터 하나의 管區로서 대교구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20) 「가톨릭사보」 제 637 호, 1968. 9. 29. ; 「서울대교구 공문」 제 13－68 호, 1968. 10. 18.

21) 天主教 서울大教區, 앞의 책, p.589, p.631, p.646 참조.

4) 교세의 확대와 현세

본당이 확대됨에 따라 성북구 지역의 전교 활동도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다. 그 결과 1968년 당시에는 5개 본당의 총 신자 수가 1만 명 정도였지만, 1975년 무렵에는 1만 8천 명 정도로 증가하였다.[22]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모두 서울대교구의 제 9 지구로서 신심 단체나 본당의 활동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신자들 사이의 교류도 활발하였다.

한편, 이 무렵부터 각 본당에서는 현실 참여에도 적극성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해마다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불우이웃돕기 운동, 종교와 사회와의 유대를 위한 갖가지 노력 등이 바로 그 예였다. 다만 교회의 사회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1970년대의 유신체제 아래에서는 성직자와 일부 신자들이 탄압을 받기도 했으며, 장위동 본당 같은 경우에는 본당의 週報가 불법간행물로 인정되어 일시 정간되기도 하였다.[23]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성북구의 천주교회는 1978년에 들어 현재와 같은 본당 구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그 이전까지는 이 지역에 살던 신자들 가운데서도 석관동과 성북동 일대의 신자들이 이문동 본당이나 혜화동 본당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새 본당의 신설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된 것이다.

이때 먼저 신설된 본당은 1975년 5월 9일에 인가된 성북동 본당(초대 신부 : 朴貴勳, 요한)이었다.[24] 이 지역은 당시 혜화동 본당의 관할구역 안에서도 가장 먼 곳이었으므로 본당 신부나 신자들이 독립을 원해 오던 곳이었는데, 신자 수가 늘어나면서 본당 설립의 꿈을 이루고, 348세대 1,025명의 신자들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25]

성북동 본당에 이어 1978년 3월 15일에는 石串洞 本堂이 분리 신설되었다.[26]

---

2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한국 천주교 교세 통계표(팜플릿), 1968년도 및 1975년도 참조.
23) 天主教 서울大教區, 앞의 책, pp.634~635 참조.
24) 「가톨릭사보」 제 962 호, 1975. 5. 18.
25) 天主教惠化洞教會, 앞의 책, p.236 ; 天主教 서울大教區, 앞의 책, p.457.
26) 「가톨릭사보」 제 1099 호, 1978. 4. 2.

본래 이곳은 성 골롬바노회에서 신부 파견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본당 설립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교구에서도 본당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1977년에는 새 부지를 매입하고 이어 다음해에는 朴魯憲(요한금구) 신부를 초대 본당 신부로 임명하였다.[27]

〈표 1〉 성북구 안의 본당과 신자 현황

본당 / 연도	길음동	돈암동	정릉동	월곡동	장위동	성북동	석관동	계
1984년	5,600	3,800	4,200	4,200	4,100	1,500	3,000	26,400명
1992년	6,300	4,500	6,500	6,300	5,400	1,600	8,400	39,000명

자료 : 한국 천주교 교세통계표, 1984 및 1992.

위와 같이 새 본당이 신설됨으로써 성북구에는 모두 7개 본당이 자리잡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세도 계속 확대되어 1984년 무렵에는 26,400명의 신자를 기록하게 되었고, 이것이 1992년 말 현재 39,000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 보면, 1980년대 말부터는 예전에 비해 신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주로 지역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새 신자들이 탄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발전의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사 연구소 차기진 연구원〉

3. 改新教

1) 한국 개신교의 수용과정

한국땅에서의 개신교 선교과정은 지리적으로 볼 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 중국과 만주를 통한 선교이며, 둘째는 일본과 미국을 통한 선교이다.

전자의 경우는 중국과 민주에서 활동하던 서구계통의 선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832년 충청도 홍주만 고대도에 상륙한 독일출신의 귀즐 라프는 우리나라에

27) 天主教 서울大教區, 앞의 책, p.451.

들어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알려져 있다. 1866년에는 미국인 선교사 토마스목사가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에서 복음전도를 시도하다가 27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하였고, 만주 목단 주재의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와 맥킨타이어는 만주에서 성서를 한글로 번역하였다.

후자의 경우는 개화파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수정이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는 1882년 9월 수신사 박영효의 비공식 수행원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전에도 이미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이수정은 일본 방문을 통하여 기독교의 실체에 접근하게 되었고, 마침내 도일 7개월 만에 세례를 받고 성서번역과 동경한인교회 설립에 큰 공을 세웠다. 또한 그는 미국에 선교사 파송을 강력하게 요청함으로 미국선교사들의 한국선교를 위한 다리역할을 하였다.

한국에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한 개신교회는 미국의 북장로회와 감리회였다. 그중에서 북장로회는 중국에 있던 알렌을 선교사로 임명하여 1884년 9월에 입국하도록 하였다. 알렌은 定住 선교사로서는 최초의 인물이다. 그는 마침 그 해 일어났던 갑신정변시 큰 상해를 당한 민영익을 치료하여 생명을 구해준 덕분에 왕실의 주치의가 되어 개신교 선교에 서광이 비치게 되었다. 같은해 6월에 미국 선교사 매클레이는 한국을 방문하여 고종으로부터 의료, 교육 사업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그 결과 이듬해인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미국 북장로교회 교육 선교사로 언더우드와, 미국 감리회의 의료 선교사로 아펜젤러와 스크렌튼(M. F. Scranton)이 제물포항에 도착하였다. 이들의 도착과 함께 한국 개신교의 선교활동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 한국개신교 선교의 특징

한국땅에 기독교 선교가 시작된 1800년대 말은 외형적인 종교의 부재와 국내외의 정치적 혼란기가 겹친 시기였다. 따라서 한국민들의 정신적인 공허 상태와 민생의 피폐라는 이중고에 처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스크랜튼목사에게 보낸 수신사 박영효의 편지속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다. "우리 재래 종교는

지금 기운이 쇠하였습니다. 이 백성이 기독교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길은 지금 환히 열려 있습니다. 기독교 교사들과 사업인들의 일군은 우리나라 어느 모퉁이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합헌적인 개혁을 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과 기독교화를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선교에 대한 요청과, 그 요청에 대한 선교사와 한국 기독교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인하여 한국에서의 개신교 선교는 영혼구원뿐만이 아니라 육영사업과 의료사업의 실시, 조국애의 실천, 정의의 구현, 새로운 민족기강 확립 등의 운동으로 출발했던 것이다.

그 결과 근대조선에서 기독교는 먼저 선교자유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살고 사랑해서 무엇인가를 남김으로써 그 선교자유가 부여된 것이다. 이러한 한국개신교 선교의 특징은 한국기독교 100년 역사동안 계속 이어져 온 것이다.

3) 한국개신교의 선교과정

미국 북장로교회와 감리교의 선교사가 1885년 입국한 이후로 여타의 개신교 선교부들이 연이어 입국하였다. 1889년에는 호주 장로교, 1890년에는 영국 성공회, 1892년에는 미국 남장로교회, 1898년에는 캐나다 장로교, 1904년에는 안식교, 1907년에는 성결교회의 전신인 복음 전도관, 1908년에는 구세군 등이 선교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선교초기의 개신교회 성장은 부진하였으나, 1896년부터 1907년에 걸쳐서 급성장을 이룩하였다. 그 사이에 교세도 530명에서 26,057명으로 급증하였고 성서의 보급도 급증하였다. 초기의 선교활동은 의료와 교육선교가 중심을 이루었다.

1885년 설립된 광혜원을 출발로 의료기관이 설립되었고, 1886년 아펜젤러에 의하여 한국 근대교육의 효시인 배재학당이 설립된 이후 많은 교육기관들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는 1884년 서상륜에 의하여 황해도 장연의 솔내(송천)에 세워진 솔내(송천)교회였다. 그 이후 각 교파별 교회가 잇달아 세워졌는데 그 중에

서 서울에 세워진 초기 교회는 다음과 같다.

① 새문안교회　　－1887년 7월 (장로교)
② 정동 제일교회　　－1887년 10월 (감리교)
③ 아현교회　　－1892년　　(감리교)
④ 동대문교회　　－1892년　　(감리교)
⑤ 연동교회　　－1894년　　(장로교)
⑥ 상동교회　　－1890년　　(감리교)
⑦ 남대문교회　　－1899년　　(장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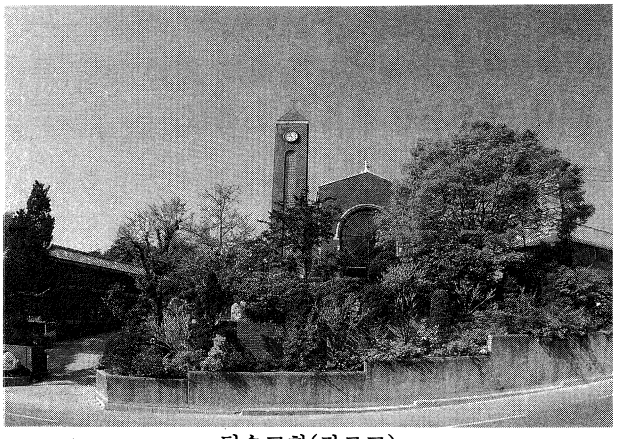
초기 교회의 설립과 더불어 1900년대 초에 이르러 개신교는 급성장을 이룩하였다. 을사조약 체결(1905년), 고종황제 폐위, 한국군대의 해산, 그리고 한일협약 체결 등으로 인하여 1900년대 초기의 국가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은 급박한 상황이었다. 일본 군국주의에 의하여 4천년간 이어져온 사직이 일본인들에게 힘없이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안타까움과 통분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들의 비통한 마음을 마침내 하나님께 토로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가 우리민족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었던 것이다. 20세기초의 역사의 대변혁이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세계에 대한 대각성을 일으키게 하였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게 되었다. 기독교는 이 민족이 걸어갔던 형극의 역사와 함께 함으로써 또한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민족의 고난을 발견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 부흥을 이루게 된 것이다.

4) 성북지역 선교의 과정과 현황

1900년대의 서울지역 교회가 부흥하여 각처에 교회가 설립될 때 성북지역에도 최초로 미아리교회(현 돈암감리교회)가 1905년 동대문 교회의 기도처로 시작되어 1908년 교회가 설립되었고 1937년에는 신암교회(장로교)가 1938년에는 삼선그리스도 교회가 설립되었다.

이전까지 완만한 발전을 계속하다 1904년에 들어와 더욱 많은 교회가 설립되어


덕수교회(장로교)

15개 교회로 증가되었는데 이때 성결교단의 돈암성결교회(1946년)가 설립되는 등 각 개신교단들이 지역선교를 위한 교회를 설립하였다.

도시의 인구증가와 더불어 성북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설립되어 왔는데 1992년 말 개신교수가 249개 교회에 교인이 130,170명이 되어 성북구 인구의 24%나 차지하고 있다. 성북지역의 교회들은 열정적인 선교활동을 통하여 많은 주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90여년의 선교역사를 통하여 성북지역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인구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다. 양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복음의 근본정신인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성북지역의 교회들은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의 양자는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선교가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이요, 이웃사랑의 실천이 바로 선교임을 고백하면서 이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해 왔다.

주민의식개혁, 육영사업, 공공기관활동 협력지원,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금도 여러 교회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러한 활동들은 앞으로 더욱더 확

〈표 2〉 성북지역에서의 개신교 발전 현황

○ 년도별 교회설립 현황 1992. 12. 31. 현재

계	1910 년이전	1920 년대	1930 년대	1940 년대	195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49	1	1	2	11	15	38	45	115	21

○ 교파별 현황

계	장 로	감 리	성 결	침 례	하나님성회	기 타
249	181	28	20	11	6	3

(130,170명)

장될 전망이다. 성북지역에서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때 지역사회와 더불어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어 갈 것이라 믿는다.

○ 교회별 설립년도

- 1910년 이전
  - (감리) 돈암감리교회 1908
- 1920년대
  - (감리) 보문제일교회 1925
- 1930년대
  - (장로) 신암교회 1937
  - (그리스도) 삼선그리스도교회 1938
- 1950년대
  - (장로) 정릉교회 1942
  - (장로) 영암교회 1945
  - (감리) 미아감리교회 1946
  - (성결) 돈암성결교회 1946
  - (장로) 덕수교회 1946
  - (감리) 경동교회 1946
  - (장로) 양광교회 1947
  - (성결) 성북성결교회 1947
  - (장로) 미암교회 1948
  - (장로) 성북교회 1949
  - (장로) 안암교회 1949
- 1950년대
  - (성결) 혜화교회 1953
  - (장로) 광선교회 1953
  - (장로) 삼선감리교회 1954
  - (장로) 영암교회 1954
  - (감리) 정릉감리교회 1954
  - (장로) 성암교회 1954
  - (장로) 종암교회 1955
  - (장로) 돈암교회(암암동) 1955
  - (감리) 안암감리교회 1955
  - (장로) 월곡교회 1955
  - (장로) 국제평화교회 1955
  - (장로) 동암교회 1957
  - (장로) 성일교회 1958
  - (장로) 송천미아리고개 1958
  - (장로) 삼선교회 1959

〈덕수교회 손인웅 목사〉

4. 巫俗信仰

1) 巫俗의 特徵

서울지방 巫俗의 특징이 降神巫이듯이 城北區의 鍾岩洞, 敦岩洞, 東小門洞, 下月谷洞 등지에 散在해 있는 巫堂은 모두 降神巫이다. 즉, 무당을 대분하면 世襲巫와 降神巫로 볼 수 있다.

世襲巫란 代代로 이어오는 무당으로 특히 영남 동해안 지방의 무당이 세습무이다. 이에 비해 서울지방 특히 中部地域의 무당은 대부분 降神巫이다. 강신무란 무당이 入巫 과정에서 巫病이라는 降神病을 앓음으로써 시작된다. 그러나 巫病 때문에 마지못해 巫堂이 되었다는 것 보다는 巫病 그 자체가 降神의 징조가 된다는 것이다.

巫病을 앓는 기간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 정도까지 앓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들 말에 의하면 현대의학이나 洋藥으로서는 治愈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降神은 神의 뜻에 따라 내려지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내릴 수 있어 "양반집에 무당 난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降神이 내리는 사람은 巫系의 가정이나 先代에 巫堂이 있었던 집에 降神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神의 뜻에 의해 무당이 되어야 할 운명에 놓인 사람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巫業에 종사해야 한다고 한다. 만약 巫業을 하지 않으면 병을 얻어 죽게 된다고 한다. 그 때문에 降神된 사람은 巫業을 배우기 위해 신어머니(神母)를 찾아 巫術을 배운다.

어느정도 배우게 되면 내림굿(降神굿)을 하며 무당이 된다. 즉, 영검은 神에게 받고 巫術은 신어머니에게 배운다. 降神되는 神은 하나인 경우도 있고 또 여럿인 경우도 있다. 이런 神을 '몸주'라고 부르며 새롭게 巫女가 된 사람은 방안에 巫堂을 꾸미고 몸주신을 모셔 놓는다. 주로 몸주신의 神格은 神將이나 帝釋神 등이다.

2) 城北區 巫俗의 樣相


굿하는 광경

城北區 내에 散在해서 현재 巫業을 하고 있는 무당 가운데 그중 몇몇 巫가 받들고 있는 神像과 樂器, 巫具 그리고 굿에 관한 儀式節次를 간략하게 기술해 보자.

현재 鍾岩洞 28－252에서 巫業을 하고 있는 윤길례(女, 63세)의 例를 들어보면 神壇 위 벽에 가로×세로 약 50cm×80cm 가량의 채색된 巫神圖가 서쪽벽에 5장북쪽벽에 4장이 붙어 있다. 神格을 보면 창부신·별상·오방신장·장군·관운상·산신할아버지·부처와 칠성, 삼불제석, 대신할머니 등이며 그리고 북쪽벽의 각목 위에는 가로×세로 약 8cm×25cm 정도되는 백지에 신의 이름을 써 붙였는데 모두 12장으로 이를 왼쪽부터 보면 ① 팔만신장님 ② 산신할아버지 ③ 장군님 ④ 천하장군님 ⑤ 산신도사님 ⑥ 약사보살님 ⑦ 구름성관님 ⑧ 월광님 ⑨ 일광님 ⑩ 옥황상제님 ⑪ 지하대신 ⑫ 천하대신 등이다.

巫樂器는 장고·징·제금이 주가 되며 巫具로는 방울·부채·삼지창·신장칼·언월도·작두 등을 사용하고 점을 칠 때에는 쌀과 엽전을 사용한다. 의상은 고사나 치성을 할 때에는 치마와 저고리를 입으며, 굿을 할 때에는 巫服을 입는다. 굿의 순서는 ① 부정거리 ② 불사거리 ③ 호구거리 ④ 대신·말명거리 ⑤ 산거리 ⑥ 신장거리 ⑦ 대감거리 ⑧ 조상거리 ⑨ 나라굿거리 ⑩ 장군거리 ⑪ 별상거리 ⑫ 신장거리 ⑬ 대감거리 ⑭ 성주거리 ⑮ 창부거리 ⑯ 뒷전 순이다.

鍾岩洞 92－170에서 巫業을 하고 있는 유성렬(여, 72세)의 예를 들어보면 神壇 앞 벽에 가로×세로 약 70cm×80cm 정도의 채색된 巫神圖 7장이 붙어 있는데 1장에 巫神圖 한분의 神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1장에 여러 神이 그려져 있는 巫神圖도 있다. 차례대로 보면 ① 창부신·오방신장님·임금님·백마장군 ② 일월성신·옥황상제·용장군님 ③ 제석님(세분) 칠성님(일곱분) ④ 도사님 ⑤ 산신님 ⑥ 약사여래님, 석가모니불 약사보살 ⑦ 조장군·장장군·관우장군님·왕장군

·최일장군·별상님·호구장군 등이다.

巫樂器는 제금·징·장고를 주로 쓰며 그 밖에 피리·해금·대금 등을 쓰며 巫具는 방울·신장칼·언월도·삼지창·작두를 썼는데 특히 방울은 가지고 다닌다고 한다. 굿의 절차를 보면 ① 부정거리 ② 불사거리 ③ 산거리 ④ 가망거리 ⑤ 조상거리 ⑥ 장군거리 ⑦ 신장거리 ⑧ 대감거리 ⑨ 성주거리 ⑩ 창부거리 ⑪ 귀면말명거리 ⑫ 뒷전거리 순이다.

敦岩洞 186-302에서 巫業을 하고 있는 한길순(여, 70세)의 예를 들어보면 한길순은 巫神圖 대신 巫壇 윗쪽 벽에 가로 10cm, 세로 40cm 정도의 흰 종이에 붉은색으로 세로로 써서 붙여 놓았다. 이 종이는 神壇 서쪽 벽에 한장, 북쪽 벽에 12장을 붙여 놓았는데 각 神의 명칭은 열다섯으로 모두 漢字로 썼다. 이들을 왼쪽부터 보면 ① 三佛帝釋 ② 日月星辰 ③ 玉皇上帝 ④ 七星 ⑤ 仙官道士 ⑥ 八道名山山神 ⑦ 門入門雷聖神將軍 ⑧ 天門神將 ⑨ 五方神將 ⑩ 別上님 등이다.

巫樂器는 장고·징·제금 등이며 때에 따라 피리 또는 대금과 해금도 사용한다. 대금과 해금 등 큰 굿을 할 때 악사를 부를 경우에 사용한다. 굿의 순서는 ① 부정거리 ② 불사거리 ③ 칠성거리 ④ 제석망거리 ⑤ 신중거리(중생거리) ⑥ 산신거리 ⑦ 대신거리·장군거리 ⑧ 별상거리 ⑨ 신장거리 ⑩ 대감거리 ⑪ 성주거리 ⑫ 창부거리 순이다.

東小門洞 3가 77에서 巫業을 하고 있는 성옥례(여, 37세)의 예를 들어보면 神壇 윗쪽에 巫神圖 9장이 걸려 있는데 정면으로 보이는 서쪽벽에 6장, 왼쪽벽에 2장, 오른쪽 벽에 1장이 걸려 있다. 이를 왼쪽부터 차례로 적어보면 ① 관세음보살상 ② 삼불제석 ③ 칠성님 ④ 용왕님 ⑤ 산신할아버지 ⑥ 신장님 ⑦ 대신할머니 ⑧ 장군할아버지 ⑨ 단군할아버지 순이다.

巫樂器는 장고·징·제금 등이며 큰 굿을 할 때에는 잽이를 부르는데 피리·해금·대금 등을 사용하며 巫具는 방울·부채·신장말·삼지창·언월도 등을 사용하며 작두는 타지 않는다. 피리는 남편이 담당한다. 굿의 순서는 ① 부정거리 ② 불사거리 ③ 칠성거리 ④ 제석거리 ⑤ 신중거리 ⑥ 산신거리 ⑦ 대신거리·장군거리 ⑧ 별상거리 ⑨ 신장거리 ⑩ 대감거리 ⑪ 성주거리 ⑫ 창부거리 순이다.

三仙洞 1가 274-56에서 巫業을 하고 있는 송영수(남, 43세)의 예를 들어보면 巫

神像은 神壇위에 가로×세로 약 40cm×80cm의 크기의 巫神圖 9장이 걸려 있는데 巫神像을 보면 ① 오방신장님 ② 백마장군님 ③ 용궁할아버지 ④ 글문도사님 ⑤ 후불신령님 ⑥ 산신할아버지 ⑦ 칠성님 ⑧ 삼불제석 ⑨ 대신할머니 등이다.

오방신장님 옆에는 붉은색으로 一心奉請宋氏諸宗神將大敢之位라고 쓴 가로×세로 약 10cm×80cm의 종이가 붙어 있다. 이것은 신장대감으로 오신 송씨의 부친을 모신 것인데, 돌아가신 부친이 수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巫神圖를 모시지 못하고 글자로 써서 모신 것이라고 한다. 巫樂器는 북·징고·장고 등을 사용한다. 巫服은 별도로 갖추어 입지 않고 흰색 한복을 주로 입는다. 굿의 종류는 치성제수굿·병굿·진적굿 등을 주로 한다.

3) 組織과 神觀 그리고 宗教的 性格

이들 降神巫 계통은 成巫 과정은 그 당사자에게 神이 내리면 巫堂을 초빙하여 내림굿(降神굿)을 하여 神을 맞아 神壇을 만들어 神을 모셔놓고 무당을 따라 다니며 굿하는 일을 배우게 되는데, 굿의 祭儀機能을 가르쳐 준 무당을 女巫일 경우는 「신어머니」라고 부르고 배우는 사람을 「神딸」 또는 「神아들」이라 부른다. 이들은 神어머니를 중심으로 5~6명 또는 10여명이 뭉쳐서 굿을 함께 하는 굿패가 조직되는데 이것을 神계통중심이라 하여 神系組織이라고 한다.

이들의 神觀은 하나같이 神의 뜻을 거스리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神의 뜻을 거스르면 벌을 받게 되며 죽은 뒤 영혼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좋은 곳으로 가기도 하지만 지옥으로 가기도 한다고 한다. 만약 죽은 사람의 영혼이 저승으로 가는데 이 세상에 한을 품었을 경우는 저승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허공으로 떠돈다고 한다. 그런 경우는 굿을 하여 한을 풀어야 한다고 한다.

巫女 한길순의 경우는 매일 아침 5시면 일어나 세수하고 神壇에 옥수를 바친다음 자녀와 손주를 위해 기도하며 인등을 바친 신도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등 이들은 神을 매우 신성시하고 있다.

巫俗이 原始時代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면서도 아직까지 원시적인 종교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그러나 종교로서의 요소는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살아있는 신앙으로 민간층에 뿌리깊이 파고들어 폭 넓은 종교적 기반을 갖고 있음은 사실이다.

4) 巫俗音樂

서울지방 巫儀式에서 쓰이는 이른바 巫俗音樂은 西北地方과 같은 降神巫의 음악으로 嶺南 등 漢江以南의 世襲巫의 음악과는 다르다. 한강이북은 西北地方 巫俗音樂型에 속하면서 黃海道地方과 다른 점이 있고 開城, 長湍, 楊州, 金化地方 巫俗音樂과 같다. 즉, 巫歌의 많은 거리에서 만수받이, 노래가락, 타령으로 된 경우가 많고 부정거리에서 부정청배, 사제거리에서 바리공주와 같은 것은 長編 朗頌調인데 드문 형태이다.

만수받이는 자진굿거리 장단으로 되었는데 主巫가 한장단을 부르면 제대가 한장단을 그대로 받는다. 선율은 京畿목으로 되어 있다. 노래가락은 5박 8박으로 時調장단과 같이 짜여진 章節形式이다. 사설도 時調詩이다. 타령은 제석타령, 대감타령, 창부타령과 같이 많은 거리에서 쓰인다. 장단은 굿거리이고 〈얼시구 좋다 절시구 좋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하는 뒷소리가 붙는 章節形式이다. 부정청배와 중디박산은 5박장단으로 엇모리장단이며 通節形式이다. 그리고 바리공주는 자유리듬의 通節形式이다.

춤의 伴奏音樂으로는 반염불, 굿거리, 허튼타령, 당악이 연주되는데 이것들은 장구, 바리, 피리, 젓대, 해금으로 편성되며, 그 밖에 儀式의 부대음악으로 삼현도드리, 긴염불, 타령, 군악, 취타, 길군악, 별우조타령이 三絃六角으로 연주된다.

構成에 있어서 주당은 장구로 굿거리와 당악장단만 친다. 부정거리는 무당이 손수 장구를 느린 엇모리와 비슷한 5박인 부정장단을 치며 부정청배를 부른다. 가망은 공수를 주고 부정장단으로 청배를 부른 뒤 굿거리로 가망타령을 부르고 진적으로 반염불 굿거리 당악장단으로 춤추고 노래가락을 부른다.

별상거리는 염불장단 굿거리, 타령 당악장단에 춤을 추고 취타 길군악 별우조타령을 삼현육각이 연주하는 가운데 의식을 행하고 도드리 장단에 춤을 추고 별상

타령을 부른다.

불사굿은 호구거리로 만수받이를 부른 뒤 굿거리와 당악장단에 춤을 추고 불사가 창부로 굿거리 당악으로 춤을 추고 불사창부로 바라를 파는데 불사타령을 부르고 당악으로 춤추다 노래가락을 부르고 공수를 준다.

삼산거리는 唐樂장단에 춤을 추고 공수를 하고 삼산타령을 부른 뒤 이것을 반복하고 노래가락과 대감타령을 부른다. 倡夫, 大監, 帝釋, 成乇, 뒷전도 비슷하다.[28]

II. 民　俗

1. 傳說과 民譚

傳說은 傳承者가 神聖하다고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으나 진실되다고 믿고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전설의 세계는 日常的 경험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성은 끊임없이 의심이 되고 있다. 여기서 얼버무린 말이 "어디까지나 사실이 아니고 전설일 따름이다"라는 말이다. 그러나 전설은 사실로서의 근거를 부인할 수 없도록 그 증거물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은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반면 民譚인 경우는 傳承者가 神聖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진실되다고도 생각하지도 않는 꾸며낸 이야기로, 즉 神聖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실의 전달을 위해서도 아니고 흥미를 주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 민담이다.

本稿에서는 城北區 관내에 해당되는 전설 몇편과 그리고 民譚 몇가지를 소개해 보기로 한다. 전설은 내용상 여러 類型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筆者가 本誌에서 登載하고자 한 내용을 보면 地名傳說, 岩石傳說, 孝女傳說, 烈婦傳說 그리고 米穴傳說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8) 李輔享, 民俗藝術「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서울편), 1979. pp.352~354.

1) 傳　　說

① 안감내 다리

安岩洞은 옛날 채소를 심어 문안(시내)에 갔다 파는 사람들이 많았다.

안암동 남쪽에 안감내라는 개천이 흐르고 거기에 안감내라는 다리가 있었다. 옛날 이 마을에 안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 사람이 채소를 문안으로 가져가 다 팔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東大門밖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어떤 점잖은 영감이 술을 마신다음 술값을 치르려고 하였으나 돈이 없었다. 영감이 술집 주인에게

「내가 문 밖에 소풍 나왔다가 그만 돈을 안가지고 나왔으니 내일 술값을 갔다 주겠소」

하였다. 주인이

「아니, 당신이 누군줄 알고 외상술을 주겠소. 어서 술값을 내고 가시오」

하면서 욕지거리까지 하였다. 안감은 몇푼 안되는 술값 때문에 노인이 야단맞는 것을 보고

「그 술값 내가 낼테니 그 노인 그만 보내시오」

하고 술값을 치렀다. 노인은 안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채소 팔러 문안에 들어오거든 자기집을 찾아 달라하고 자기집의 위치를 가르쳐 주었다.

며칠 후 안감이 문안에 들어가 채소를 다 팔고 영감이 사는 집에 찾아갔다. 솟을 대문이 있는 큰 집으로 꽤 잘 사는 사람인가 보다하고 주인을 찾았다. 그 영감이 나와서 반가히 맞으면서 주안상까지 차려 대접하고 전날에 고마웠다는 인사를 한 다음 나에게 베푼 은공을 갚겠으니 소원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였다.

「그까짓 것이 무슨 은공입니까. 그러실 것 없습니다」

하였다. 영감은 소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들어줄 터이니 말해보라고 하였다.

안감이 사양을 해도 영감이 계속 다그치니까 안감이 안암동은 서쪽으로는 城北洞에서 흐르는 개천이 있고 동쪽으로는 永導寺(지금의 開運寺)에서 흘러내리는 개천이 있는데, 비만 오면 두 개천의 물이 흘러 안암동은 섬같이 되서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 이 개천에 다리나 하나 놔 주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대부분 사람들이 소원이라면 자기의 이익추구에만 집착하는데 이 사람은 채소장수로서 동네 일을 말하는데 감동하였던지 영감은 쾌히 승락하고 동네 앞에 다리를 놓고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안감내다리라 이름 붙이고 이 개천을 안감내라고 부르도록 했다고 한다.[29]

② 거북바위

彌阿洞 山 108번지에 있는 거북바위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오랜 옛날 하느님께서 아름다운 北漢山과 道峰山을 빚어 만든지도 많은 세월이 지났을때 크나큰 거북이가 黃海에서 漢江을 타고 올라와 그 큰 몸으로 漢陽 長安을 엉금엉금 기어다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에 일반 시민들과 군사들이 총동원되어 漢江으로 쫓아 보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큰 거북이는 이에 아랑곳 없이 仁旺山을 거쳐 北漢山으로 기어 오르므로 아름다운 景觀이 크게 훼손 당하였다.

이를 바라본 仁旺山, 三角山, 北漢山, 道峰山의 四神靈이 놀라 힘을 합쳐 上溪洞쪽 水落山으로 쫓아 보내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큰 거북이가 완강히 버티는 바람에 山神靈과 서로 밀고 당기다가 끝내 山 108번지에 이르러서는 서로 치고 받고 피를 흘리는 격심한 싸움으로 변하였다.

이 싸움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던 하느님은 이를 보다못해 난폭한 거북이는 커다란 바위로, 창피하게 싸움을 벌린 산신령들은 단풍나무로 만들었다.

이리하여 매년 가을철이 되면 거북바위는 단풍속에 둘러싸여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하늘의 神仙들이 내려와 이 바위 위에서 장기를 두는 등 놀이터가 되었다고 하며, 그 이후 이곳은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장소가 되었다고 한다.[30]

③ 孝女 都里莊

三仙洞의 서쪽과 남쪽의 경계를 이루는 서울성곽이 史蹟 10호로 지정된 바 있는데, 이 성곽은 太祖 5년(1396) 1월부터 축조하기 시작한 것으로서, 이 성을 쌓을 때 都里莊이란 孝女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

29) 任晳宰全集 5. 韓國口傳說話 (京畿道篇), 1989. pp.40～41.

30)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洞名沿革攷」(Ⅸ) 道峰區篇, 1984. p.46.

都里莊의 아버지는 전라도 長城에서 都城을 쌓으려 서울에 올라와 그만 병이 들어 板橋院의 구호소에 있게 되었다. 板橋院은 일종의 구호소로 宗林이란 스님이 前判尹 尹安弼과 都城 축조공사에 동원된 民丁들이 질병으로 쓰러져 죽는 것을 보다 못해 이 판교원을 지어 환자를 수용하고 약과 음식을 제공하였으며 또 完治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에게도 行糧을 주어 돌려 보냈기 때문에 칭송을 자자하게 받았다.

이 소식을 들은 都里莊은 아버지가 객지에서 혼자 고생한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통곡하다가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하였다. 주위의 만류도 뿌리치고 都里莊은 男裝을 하고 서울을 떠났다. 연약한 처녀의 몸으로 추운 날씨에 천리길을 떠난다는 것만해도 효성이 지극하지 않고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다. 都里莊은 서울로 올라오는 도중에 병으로 누운 사람이 있으면 아버지가 아닌가 반드시 확인해 보았다. 겨우 판교원을 찾아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거의 운명 직전이었다. 도리장이 정성을 다해 간호하자 얼마 후 차도가 있었는데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부친을 부축해 고향에 돌아오니 인근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하였다.

이 이야기가 太祖에게 알려지자 왕은 특별히 都里莊에게 옷감을 賞으로 내려 都里莊의 효성을 포상하였다.[31]

④ 東望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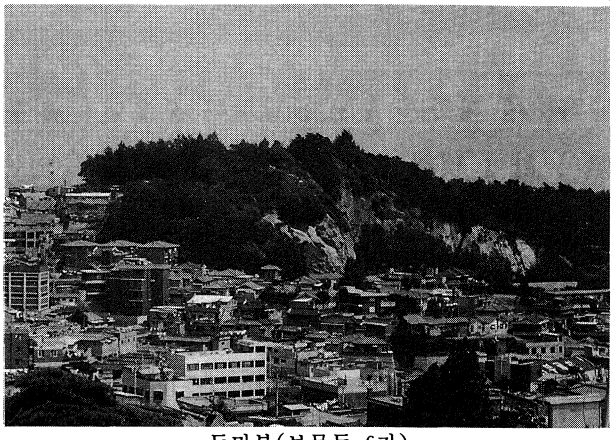
城北區 普門洞과 鐘路區 崇仁洞 사이에 東望峰이라는 산봉우리가 있다. 조선초에 端宗王妃 貞純王后 宋氏는 端宗이 어린 나이로 숙부인 世祖에게 쫓겨 강원도 영월로 귀양갈 때 동대문 밖에서 눈물로 생이별을 하고 영월쪽을 바라볼 수 있는 青龍寺 정문 옆에 작은 초가를 지어 淨業院이라 하고 희안·지심·계지의 세 시녀를 데리고 거처하였다. 왕비는 날마다 이 봉우리에 올라가서 동쪽의 영월을 바라보며 단종의 명복을 빌었으므로 이곳을 東望峰이라 하였다고 한다.

당시 조정에서는 그 정경을 가엾게 여기고 근처에 영빈정을 지어 주었으나 왕비 송씨는 그 집에는 한번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이 초가 암자에서 18세부터

31) 上揭書(Ⅷ) 城北區編, 1983, pp.70~71.

80세까지 한결같이 지냈다.

그후 英祖 47년에 왕이 이곳에 거동하여 「淨業院 舊基」라는 비를 세우고 이 봉우리의 바위에 「東望峰」이라는 석자를 친필로 새겼다[33]고 한다.


동망봉(보문동 6가)

일설에는 왕비 宋氏가 귀양길에 오른 魯山君과 함께 靑龍寺에 들려 청룡사 안에 있는 雨花樓에 잠시 머물면서 宋妃와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을 하였다. 이 우화루에서 마지막 이별을 하였다고 하여 사람들은 우화루를 永離亭이라 불렀는데 와전되어 영미정이 되었다고 한다. 宋妃는 단종의 뒤를 따라 영리다리까지 나가서 마지막 작별을 하였으며 이 뒤부터 永離橋라 하였는데 와전되어 「영미다리」라 불리워 오고 있다고 한다.

송비가 靑龍寺로 올 때 함께 나온 일행 5명은 모두 스님이었는데 그 가운데 시녀 세사람은 法名을 각각 希安, 智心, 戒智라고 하여 송씨의 상좌가 되었으며 후궁 김씨는 법명을 圓鏡이라 하였고 후궁 권씨는 慧鏡이라 하였고 송비는 虛鏡이라고 하여 靑龍寺에서 나이 높은 智直비구니를 스님으로 정하고 원경, 혜경 두 비구니는 상제로 삼았다.

宋妃는 청룡사에서 나온 이후 바깥 세상과는 인연을 끊고 일념으로 단종을 위해 기도하고 사중의 어려운 일을 돕기 위해 자주물을 들여서 댕기, 저고리, 고름, 끝동 등을 만들었다. 이렇게 자주물을 들여서 바위위에 널어 말리론 하였으므로 이 바위를 「자주바위」라 하고 바위 밑에 있는 샘물을 「자주우물」이라 하며 마을 이름을 자주동이라 부르게까지 하였다.

송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청룡사 앞에 있는 산봉에 올라가서 동쪽을 바라보고 단종의 귀양살이를 비통해 하였으므로 그 산봉 이름을 東望

32)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民俗편), 1990. p.1115.

峰이라 이름지었으며 후일 英祖는 「東望峰」이라는 御筆을 하사하여 標石에 새겨 세우게 하고 그 애달픈 사연을 길이 위로하게 하였다.

野史에 의하면 宋妃가 날마다 오르던 동망봉의 풀들은 5백여년이 지나도록 宋妃의 한이 맺혀 모두 동쪽으로만 고개 숙였는데 이것은 송비가 단종을 그리던 애달픈 한이 동망봉 기슭에 뻗쳐 남아 동쪽으로만 고개 숙이게 된 것이라고 한다.[33]

⑤ 安岩洞 학더미

학더미라는 地名은 북바위(鼓岩) 부근 논 가운데 있던 더미에서 유래된 것이라 한다. 즉, 옛날 이곳의 논이 매우 비옥하여 세마지기에서 나는 쌀로 10여식구가 살아갈 수 있었는데 어느날 욕심많은 주인이 곡식을 더 많이 내어 먹으려고 논 가운데 있는 큰 더미를 파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더미를 파 들어가자 속에서 학이 나와 날아가고 그 뒤로는 비옥했던 땅이 薄土로 변하였다고 전해온다.[34]

⑥ 쌀바위(米岩)

城北洞 肅靖門 밖에 「쌀바위」, 즉 米岩이라는 바위가 있었는데 이 바위 틈에서 쌀이 나왔다. 기이한 것은 아침, 점심, 저녁 세차례에 걸쳐 꼭 한되 가량의 쌀이 나왔다.

처음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나뭇꾼 노인이었는데 그는 매일 여기에서 쌀을 가져가서 걱정없이 지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날이 지나자 나무꾼 노인에게는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쌀을 더 많이 가져갈 양으로 쌀자루를 가지고 쌀바위에 가서 지키고 앉아 나온 쌀을 담고 얼마간 기다렸다가 쌀이 나오면 또 담아 쌀자루에 가득 채웠을 때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한달을 계속했던 어느날 쌀이 나오던 바위틈에서 쌀은 나오지 않고 대신 끈적끈적한 물이 흘러 나왔다. 이 일로 해서 이 바위를 쌀바위(米岩)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35]

---

33) 青龍寺, 「青龍寺誌」, 1972. pp.65~68.
34) 前揭書(Ⅷ) 城北區編, 1983. p.38.
35) 上揭書(Ⅷ) p.38.

⑦ 鼓岩田 이야기

鼓岩田이란 북바위밭을 가리키는데 지금의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뒤쪽 산아래 있는 지역으로 지금은 주택가이지만 옛날은 논과 밭이 있어 채소가 잘 되었다고 한다. 이 밭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太宗이 미행을 나갔는데 右議政 朴訔이 사는 곳까지 오게 되었다. 朴訔은 퇴청하여 늦은 저녁상을 받고 있었는데 간장그릇 하나와 조밥이 한사발 담긴 것이 전부였다. 이 때 都承旨가 와서 太宗의 행차가 있음을 알렸다. 朴訔이 황송해 하면서 곧 임금을 맞아들이려 했으나 너무 급해 씹지도 않고 삼킨 좁쌀이 목에 걸려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임금이 문 밖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좀 지체되었다.

이에 임금이 노하여 박은을 꾸짖자 박은은 사실대로 아뢰었으나 왕이 「한나라의 宰相으로 조밥을 먹을 정도로 가난한가」라고 의심하여 사람을 시켜 들어가 보게 하니 사실이었다. 이에 왕은 그의 청빈함에 놀라고 감탄하면서 특별히 靑明(동대문) 밖 鼓岩田을 하사하였다. 왕의 이같은 은혜에 박은은 너무나 고맙고 놀라와서 더욱 나라에 충성하였는데 柳寬과 더불어 청빈한 宰相으로 꼽는다.[36]

2) 民　　譚

① 강감찬 장군 이야기

고려 현종은 지금의 서울에 별관을 짓고 가끔 와서 지방행정을 잘 다스리려 힘썼다. 서울 산골엔 범이 많았다. 배우개(백고개, 지금의 종로 4 가)는 백명이 모여 함께 징을 두드리며 떠들면서야 넘을 수 있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강감찬에게 범 퇴치의 진정이 전해졌다. 서울로 부임한 그는 사람을 시켜 인왕산 늙은 중에게 어떤 부적을 보냈다. 그 중이 호랑이로 변해 나타나자 강감찬은 며칠 안으로 일족을 거느리고 이 땅을 떠나라고 명령했다. 이 때 호랑이의 일족이 떠나 한반도에는 호랑이가 많이 없어졌다. 이 때 임신한 호랑이만은 힘이 들 것이니 그냥 있어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그 때 임신한 호랑이만이 남아 퍼져 호랑

36) 上揭書(Ⅷ) p.146.

이가 있게 되었다고 한다.[37]

② 옹기 값을 물어준 사공들

한 옹기장수가 있었다. 어느날 옹기를 팔러 나갔다가 지게 작대기를 버티어 놓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서 지게가 넘어지면서 옹기가 전부 깨졌다. 어디에 가서 얘기할 수가 없어서 고을 원님에게 억울한 사정을 얘기했다. 얘기를 듣고난 원님도 회오리 바람이 옹기 짐을 쓰러뜨린지라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 어려운 옹기장수가 이제 장사 밑천도 없어졌다고 생각한 원님은 곰곰히 생각하였다.

원님은 생각 끝에 뱃사람들을 불렀다. 원님은 뱃사람들을 불러 놓고 옹기장수의 얘기를 하니까 한 사람은 동풍이 불라고 축원하고 또 한 사람은 남풍이 불라고 축원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서풍이 불라고 축원하고 또 다른 사람은 북풍이 불라고 축원하였다. 이것을 본 원님은

「이놈들! 네놈들이 제가끔 동서남북으로 바람을 불라고 하니까 하느님이 가만히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동풍으로 서풍으로 하다가 그만 뺑뺑도니까 결국은 회오리 바람이 되어서 저 사람의 옹기짐을 메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여러명이 추렴해서 옹기값을 물어주어라」

하였다. 그래서 옹기장수는 옹기 값을 받게 되었다.[38]

③ 孝 婦

옛날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눈먼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집은 가난해서 朝飯多粥도 못할 지경이여서 어머니 봉양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먼데 가서 품팔이라도 해서 돈이나 벌어오겠다 하고 집을 떠나려고 했다. 떠나면서 아내보고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올 때까지 고생스럽겠지만 어머니를 굶기지 말고 잘 받들어 달라고 했다.

남편이 집을 떠난 후에 이 여자는 부지런히 일을 해서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려는데 너무 가난해서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 식량이 없어서 끼니가 없을 때에 길가의 개의 보리밥똥을 주어다가 깨끗이 씻고 씻어서 보리밥을 지어 죄스러워서

37) 김호근 · 윤열수 엮음, 한국호랑이. 1986. p.86.
38) 「서울六百年史」(民俗篇), 1990. p.1155.

자기가 한술 먹고 시어머니께 드려 굶지 않게 하고 또 시어머니가 고기가 먹고 싶다하면 지렁이를 잡아 볶아 드리곤 하였다. 시어머니는 앞을 못보기 때문에 지렁이 볶은 것을 맛있는 고기로 알았다.

이런 생활을 하며 눈먼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몇 달이 지났다. 남편은 돈좀 벌었다 하고 돌아와서 어머니를 뵈오니 자기가 집에 있을때 보다 살도 찌시고 근력도 훨씬 좋았다. 어찌된 노릇이냐고 물으니 며느리가 잘 봉양해서 그렇다고 하고 며느리가 이런 고기를 늘 먹여 주었는데 이 고기가 너무 맛이 있어서 너를 먹이려고 이렇게 두었다 하면서 지렁이 볶은 것을 내보였다. 아들이 보고 어머니 그것은 고기가 아니고 지렁이예요 하였다. 이 때 어머니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데보자 하면서 보는데 그만 감겼던 눈이 번쩍 뜨였다. 아들은 어머니가 눈을 뜬 것을 보고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기뻐하였다.

이때 갑자기 뇌성벽력이 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며느리는 자기가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개똥을 먹이고 지렁이를 먹여서 하늘이 노해서 벌을 주는 것으로 알고 마당으로 내려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저는 시어머니께 죄를 많이 졌사오니 천벌을 내려 죽여 주십시요 하고 빌고 있었다.

그런데 벼락이 내려쳐서 마당에 구멍을 파 놨다. 비가 갠 뒤 마당에 구멍이 패인 곳을 보니 금은보화가 가득 있었다. 이것은 며느리가 없는 살림에 눈먼 시어머니에게 지극한 효도를 했기 때문에 하늘이 감동해서 내린 보화였다고 한다.[39]

④ 나비의 유래

옛날에 한 여자아이가 남복을 하고 서당에서 글공부를 하게 되었다. 유숙하는 집에도 동갑내기의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아무리 보아도 같이 있는 아이가 여자였다. 열일곱이 되던 해에 여자네 집에서 올라오라는 편지가 와서 집에 돌아간 후에 자기집 주소와 함께 한번 찾아오라는 편지를 도령에게 보냈다.

편지를 받은 도령은 궁금해서 공부도 안되고 드디어 병을 앓게 되었는데 열아홉살 나던 해에 처녀를 찾아 나섰다. 둘이 만나게 되니 처녀는 그때에 자기 때문

39) 任晳宰, 前揭書, pp.291～292.

에 고생이 많았다고 하면서 자기는 부모가 정해준 데로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너는 나 때문에 어느 날 몇 시에 죽을 거라고 얘기하였다. 그러니 집 근처에 무슨 삼거리가 있으니 죽은 후에 부모보고 거기다가 묻어 달라고 부탁을 하라는 것이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도령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다.

처녀가 시집가는 날 도령에게 얘기해준 그 삼거리에 다다르니 문득 가마를 멈추라 하였다. 처녀는 미리 준비한 소복을 입고 산소 앞에다 주안을 차려놓고 절을 세번 하면서 팻말을 빼가지고 아무개 너 혼이 있으면…… 하고 세번을 딱 때리니 갑자기 무덤이 두 조각으로 벌어졌다. 그러자 처녀가 그 앞에 넘어지니까 뒤에 있던 사람들이 처녀의 치마를 잡아 다녔다. 그런데 새치마가 문질문질하게 변해 있었다. 그리고 이내 그 처녀는 무덤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나비는 바로 거기서 생겨난 것이라고 한다.[40]

⑤ 五代째 내려온 불씨

옛날 어떤 곳에 五代째 불씨를 끊이지 않고 이어오는 집이 있었다. 이 집에서 새며느리를 맞아 들인 다음 새며느리에게 우리집 불씨는 5대째 이어내려온 불씨인데 이것을 오늘부터 네가 맡아서 이어가도록 잘 간수하라 만일 이 불을 죽이든지 하면 쫓겨날 줄 알아라 하고 단단히 일러 주었다.

새며느리는 불씨를 받아서 잘 간수해 불을 죽이지 않고 이어갔다. 그런데 3일만에 보니 불이 뒤적거려져 꺼져 있었다. 깜짝 놀라서 신랑에게 그 말을 하였다. 신랑은 아무 말도 않고 부시돌을 주면서 이 부시돌로 불을 일궈놓으라고 하였다. 며느리는 불을 새로 일궈서 화로에 담아 두었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또 불이 꺼져 있었다. 누가 날 이집에서 못살게 심사 부리는 것이라고 중얼대고 남편보고 누가 불을 죽이나 지킬 터이니 나를 찾지 말라고 일러두고 밤에 부엌에 들어가서 물독뒤에 은신하고 지켜보고 있었다.

새벽이 되자 약 세살쯤 된 빨가벗은 동자 하나가 어디서 오더니 아궁이 불을 헤쳐 끄고 또 화로불도 헤쳐서 끄고 있었다. 신부는 물독 뒤에서 뛰어나와서 그 동자를 잡으려고 하니 동자는 잡힐 듯 잡힐 듯 하면서 달아났다. 신부는 저놈

40) 서울六百年史(民俗篇), 1990, pp.1176~1177.

놓칠세라 하고 뒤쫓는데 어느만큼 갔을 때 동자는 어느 산꼭대기로 올라가 돌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 때 먼동이 틀때였다. 신부 얼른 동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서 땅바닥에 서너번 태질을 친다음 머리에다 이고 산을 내려왔다.

집에서는 불은 다 꺼지고 며느리는 없고 해서 야단이 났다. 사방으로 며느리를 찾았으며 친정에도 기별해서 물어보았다. 그래도 며느리가 없어 혹 虎食이나 하지 않았나 하고 걱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온 집안 식구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먼 산에서 어떤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이고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차차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 바로 며느리였다. 모두 마음을 놓고 있는데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와 머리에 이은 것을 마루위에 대질치듯이 내려놓고 그만 넘어졌다. 사람들은 색시를 방으로 떼며다 놓고 주무르고 미움을 쑤어 먹이고 해서 정신을 차리게 했다.

시아버지는 마루에다 내버린 동자를 안고 보더니 며느리보고 이제는 불 간수를 그만 해도 좋다고 하였다. 이 집에서는 5대나 지성으로 불 간수를 잘 했기 때문에 하늘이 감동해서 그만 불을 이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童蔘을 童子로 변하게 하여 이 집에 보내서 불을 끄게 했으며 그 동자가 바로 동삼이었다.

이 동삼을 大國에 가지고 가서 값을 많이 받고 팔아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41]

2. 民間信仰

1) 石串洞 都堂

石串洞 340번지에 都堂이 있다. 원래 天藏山에 있었으나 懿陵이 들어오자 주민들이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함께 받들고 와서 현재 위치에 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약 5~6평의 堂內에 畫像 또는 神主대신 항아리에 벼를 가득 넣고 짚으로 땋은

41) 任晳宰, 前揭書, pp.162~164.

주저리로 덮어 두었다. 즉 항아리를 主神으로 받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主神이 女神임을 알 수 있다(男神인 경우는 항아리 대신 木巫을 숭배한다). 또 벼를 넣은 것으로 보아 당시 이 마을의 主業은 農業으로써 豊農의 祈願에 목적을 두었을 것이다. 언제부터 유래되었는지는 모르나 이 마을이 형성될 당시 守護神으로 숭배되어 왔고 또 숭배되어 오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都堂神 양조분이 있는데 현재 中和洞 烽火山神은 都堂할아버지이며 天藏山神은 都堂 할머니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石串洞에서는 都堂할머니神을 위한다고 한다. 王陵이 들어오기 전에는 天藏山 아래 있으면서 山神으로 받들다가 이주하면서 洞神으로 받든 것이라고 한다. 主神의 호칭은 都堂 할머니라 부르며 祝文의 表記는 土地之神으로 되어 있다.

이 마을 堂祭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은 祭官選定이라고 한다. 석관 1·2洞 중 대부분 土着人들이 이 堂을 모시는데 얼마 전까지는 7명으로 祭官 3명(都家 1, 소임 2) 주비 4명을 뽑았으나 선출에 애로점이 많아 1980년부터는 都家 1, 소임 2, 주비 2명 모두 5명으로 祭官을 줄였다고 한다.

祭官選出方法 : 선정의 대상자와 그날(제사일)의 日辰과 生氣福德이 맞아야 한다. 또 맞는 사람이 있어도 예를 들어 解産을 했다든가 初喪이 났다든가 집안의 不淨이 있으면 선출되지 못한다. 選出日은 祭日 10일전에 선출하며 선출된 제관은 선출된 그날부터 출입을 삼가고 매일 목욕재계를 해야 하며 內外를 禁함은 물론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해야 한다. 또 堂 주위에는 왼색이기 창호지를 끼워 주위에 금줄을 두르고 출입을 금한다.

옛날 天藏山에서 받들때는 산길목 요소 요소에 금줄을 쳐서 출입을 금했으며 산 중턱에서 솟아나는 天然水로 음식을 만들었다 한다. 祭日은 매년 10월 초하루日沒이 되면 致祭하는데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라 한다.

床차림 : 黃牛, 수탉, 3색과실(대추·밤·감), 祭酒(獨酒), 콩(白豆), 팥(赤豆), 소적, 시루떡, 백설기, 건대구, 후추 등이다. 특히 黃牛는 숫놈으로 흰점이 있거나 검은 점이 있어도 쓰지 못하며, 시장에서 소를 살 때는 祭官이 직접 흥정을 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제관이 아닌 사람을 넣어 흥정을 한다. 소·닭 등 숫놈으로 쓰는 것으로 보아 洞神이 女神임을 짐작케 한다. 또 祭酒를 빚는데도 큰 항아리 두개를

마련하고 그 중 한 항아리에는 벼를 넣고 나머지 항아리에는 누룩을 빚어 넣은 다음 堂內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祭酒를 마련한다. 이 모든 祭需는 都家에서 준비한다.

祭儀節次 : 焚香, 再拜, 祝, 燒紙 순으로 진행한다. 소지의 순은 부락전체, 제관, 마을 年老順이며 儒禮式 祭儀로 시종된다. 儒禮風의 洞祭는 家禮祭祀法과 비슷하다. 즉 祭官은 祭主, 부락민은 친척, 洞神은 神主와 같다. 제사 지내는 방법도 비슷하나 다만 燒紙가 더 첨가될 뿐이다. 또 祝文의 내용은 대부분 所願成就를 기원하는 것이나 문장에 있어서는 통일되지 못하고 모두 조금씩 다르다.

祝文의 내용을 보자.

石串洞 山神祭 祝文

維歲次 干支 都家某敢昭告于

土地之神 令為 서울市 城北區 石串洞 男女老少 自今年 至明年 憂患疾痼 永爲消滅 六畜蕃盛生衰 祗薦于神尙 饗.

〈올해에도 몇월 몇일 도가 아무는 감히 밝게 고하나이다.
토지신이시여 지금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남여 늙은이 어린이는 금년부터 내년에 이르기까지 우환질고를 소멸하여 주시고 모든 동물이 번성하게 해 주시길 바라옵니다. 삼가 신을 받드오니 많이 잡수십시오.〉

특히 祭需 중 쇠고기는 전부 꼬지에 꿴다. 즉 내장은 내장대로, 껍질은 껍질대로 꾀어 짚으로 엮은 다음 제관 5명이 집집마다(洞神을 信奉하는 집) 돌린다. 각 가정에서는 그날 祭需를 받기 위해 깨끗하게 마련한 쟁반을 준비해서 기다린다.

祭費는 都家에서 준비한 다음 제사가 끝나면 洞民이 모여 경비 일체를 공동부담한다.[42]

42)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洞名沿革攷」(Ⅷ)(城北區篇), 1983. pp.166~168.

2) 敦岩洞 山神堂

돈암동 606의 56에 山神堂이 있다. 堂의 구조는 벽돌로 쌓았으며 지붕은 슬레트로 덮었고 당의 둘레에는 왼새끼로 꼰 금줄이 쳐져 있다. 堂의 크기는 매우 작은데 가로 2m, 세로 2.5cm 정도 된다. 堂 안에는 前面에 山神의 화상이 걸려 있고 祭壇이 마련되어 있다. 옛날에는 기와를 얹은 1칸 크기의 堂이었다고 하나 퇴락해서 새로 지은 것으로 보인다. 堂의 유래는 알 수 없다. 山을 끼고 있는 마을에는 대부분 山神堂이 있었다고 볼 때 매우 오래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堂에는 山神의 神像이 그려져 있다. 가운데에 붉은색 관복을 입고 수염과 눈썹이 흰 山神이 앉아 있다. 오른손에는 긴 지팡이를 짚고 있으며 왼손은 무릎 위에 올려 놓고 있다. 山神 앞에는 호랑이 한 마리가 그려져 있는데 山神 무릎 위에서 뛰어 내리는 형상이다. 山神의 뒤에는 거대한 고목이 그려져 있으며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시중을 드는 童子인 듯한 인물이 한사람씩 앉아 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붉은색 과일을 손에 받쳐 들고 山神 쪽을 향해 앉아 있다.

堂 내의 祭壇에는 흰 종이로 덮었으며 祭壇 앞에는 작은 床이 있고 약간의 향이 있으며 堂 입구에는 佛床이 놓여 있다. 祭日은 음력 10월 1일이다. 祭主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祭堂에 모여 儒禮式으로 致祭한다. 祭需는 牛頭와 三色果實, 포 그리고 시루떡을 쓰며 생선 종류는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祭主의 選定은 매년 統長이 정결하고 신수가 좋은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옛날에는 마을에서 年老한 분을 祭主로 선정했다고 한다. 선정된 祭主는 祭費를 추렴하고 祭物 구입을 지시하는 등 마을 土着人과 함께 祭를 주관한다.

祭日이 다가오면 山神堂 주위에 禁줄을 쳐서 雜人의 출입을 통제하며 특히 住民 중 不淨한 사람은 참가할 수 없다. 祭의 목적은 마을의 편안함과 주민의 無病長壽에 그 뜻을 두고 있다.

洞神 信仰은 逐災招福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각종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려는 종교적인 呪術行爲로서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않는 사고나 어떤 災難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극복하기 위해 마을 단위로 그들 스스로의 祭儀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고 있다.

洞神을 信奉하는 주민들 사이는 一心同體가 되어 祭堂을 비롯한 그 주위와 마을 청소를 공동으로 하고 謹身한다. 致祭하는 신성기간 동안에는 엄격한 禁忌 가 따르며 선정된 祭官은 행동 일체가 규제되는 규범도 부여된다. 이 기간 동안은 외부인의 출입도 통제되고 不淨한 일을 보지 않는 등 自律的인 禁忌가 그들 스스로 지켜지고 있다. 이러한 엄숙성과 정결성은 기성종교의 聖職者나 信徒 이상으로 신성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43]

3. 民俗놀이

민속놀이란 민간에서 傳承되어 오는 놀이로 그 지방의 鄕土의 風土와 생활에 알맞게 구성되어 주민의 共感을 지니고 있는 놀이이기 때문에 鄕土性이 짙게 깔려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國土가 좁고 또 오래도록 中央執權體制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민속놀이는 사실상 전국적인 傳播作用을 일으켜 한 지역만의 固有한 민속놀이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서울지방의 경우 踏橋놀이, 石戰, 投壺놀이, 陞卿圖(從卿圖) 등이 뛰어나고 있으나 다른 지방에도 있으며 이 중 投壺놀이는 조선시대 주로 上流層에서 즐겼으며 妓生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축하를 해 주었으며 이때에는 노래와 춤이 있었다.

城北區는 조선시대 城外地城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였으며 비교적 평범한 생활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城北區에서 발생한 민속놀이는 아직 발굴되지 않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널리 행해진 연날리기, 널뛰기, 그네뛰기, 씨름, 달맞이, 줄다리기 등이 일반적으로 널리 유행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1) 연날리기

연날리기는 개인놀이로 年末무렵부터 소년들 사이에서 시작되어 정월 上元날에

43) 서울特別市,「서울民俗大觀」1 民間信仰編, 1990. pp.215~218.


연날리기

는 연에 厄을 실어 날려 보내는 놀이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옛날 淸溪川과 水標橋 근처에서 많이 했다는 기록이 있다.

연은 한지와 竹木으로 만든다. 대나무 5本을 가늘게 깎아 임의의 크기의 종이에 대로 풀을 붙여 중앙에는 方이라해서 구멍을 뚫어 놓는다. 연에는 명주와 무명으로 실을 해서 묶고 실을 연자세에 감아 두었다가 연이 바람을 타고 솟아 날으면 실을 풀어주고 연을 공중에 날리면서 논다. 연은 크기가 다양하나 보통 40×60 cm 정도로 아래위로 길죽하게 만들며 연에다 그림을 그리거나 먹칠을 해서 圖案을 하거나 꼬리처럼 종이를 그려서 길게 달아매 바람에 나부끼도록 하는 수도 있다. 연은 바람에 잘 날리도록 考案해야 한다.

三國史記 金庾信傳에 연날리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우 오래된 놀이로써 액을 때우기도 하고 승부를 내는 시합을 하는 수도 있다. 즉 연실끊기 시합에는 유리를 깨어 밥풀에 으깨어 연실에 발라 말린 다음 상대편 연실을 끊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상대편 연실과 交叉되게 하고 실을 잡아 당겼다 늦추었다 하면 유리가루에 닿아서 실은 끊어지게 되고 시합에 이기게 된다.

연의 종류로는 직사각형 모양의 「방패연」이 大宗을 이루며, 그 밖에 어린이들이 많이 날리는 「가오리연」 그리고 동물등 여러가지 형태의 「창작연」을 들 수 있으나 시대의 변천과 연 만드는 사람의 창의성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그 종류만을 들어보면 꼭지연, 반달연, 치마연, 동이연, 초연, 박이연, 발연, 나비연, 바둑판연 등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44]

44) 沈雨晟, 韓國의 民俗놀이, 1975. pp.216～231 參照.

2) 踏橋놀이

음력 정월 대보름날 밤에 男女老少가 거리로 나와 다리를 밟아 건너갔다 건너왔다 하는 것을 踏橋놀이 또는 다리밟기라고 한다. 다리밟기는 서울이나 시골에서 모두 하였는데 마을에 다리가 있으면 그 다리를 밟고 다리가 없으면 이웃 마을에 가서 밟는 일도 있었다. 마을에 큰 다리가 없을 때에는 비올 때나 물이 내려가고 평상시에는 물이 없는 다리라도 다리란 이름만 붙어 있으면 이날 밤에는 다리로 여기고 밟았다.

서울에는 長安의 남녀노소가 초저녁부터 거리로 나와 다리를 밟기 시작하였는데 清溪川이 長安의 한복판에 흐르고 있어서 鐘路에서 가까운 廣橋, 水標橋, 觀水橋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들었다. 지금 이 다리들은 1958년 清溪川 복계공사로 인해 남아있지 않다.

金邁淳(1776~1840)의 洌陽歲時記에 의하면

「정월 보름날 저녁에 열두다리(橋)를 건너면 열두 달 동안의 액을 막는 것이라 하여 宰相과 貴人으로부터 촌의 서민에 이르기까지 늙고 병든 사람 외에는 나오지 않는 이가 없다.」 한 것으로 보아 다리를 밟으면 사람 다리에 병이 나지 않고 1년 동안의 액막이를 한다는 呪術的 俗信이 이 놀이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리를 건너는 방법은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서울과 같이 있는 다리를 모두 건너기도 하고 열두다리를 건너기도 한다. 다리 셋을 건너면 되는 지방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방은 제일 큰 다리나 가장 오래된 다리를 자기의 나이 수대로 왕복하는 수도 있다. 이 때 또 지방에 따라 왕복을 1회로 치는 곳도 있고 왕복을 2회로 간주하고 奇數의 연령일 때에는 나머지 1회를 다리 아래로 해서 돌아오는 곳도 있다. 이 밖에 다리를 건너는 동안 횃불을 들고 다니다가 그 횃불이 나이 수를 채울 때까지 꺼지지 않으면 행운이 오고 만약 불이 꺼지면 불길하다고 생각하는 지방도 있다.

다리밟기를 할 때에 서울 인근에서는 農樂을 치면서 즐기고 다리 옆에 酒案을 벌이기도 한다. 餘興으로 舞童을 청하기도 하고 저고리 동정을 뜯어 葉錢을 쌓아서 다리 밑에 던져버리면 1년동안 탈이 없이 무사태평하게 지낸다고 전한다.

끝으로 老稼齊 金昌業의 踏橋曲이란 詩 한수를 보자.

長安何喧喧　　今夜踏橋遊
月出大道上　　歌吹自相求
明月映何限　　靑樓夾廣川
上有歌舞人　　何有踏橋人
長安水東西　　明月光俳回
笙歌不相識　　齊向橋上來

長安이 어이 소란스러운가 했더니 오늘 밤 踏橋놀이 있구나
길 위로 달이 떠오르니 노래가락과 부는 소리 저절로 흥겨웁네
밝은 달 드림자는 넓은 시냇가 푸른 누각에 드리웠고
누 위에는 노래와 춤이 한창이고 다리 위에는 답교놀이가 벌어졌네
長安의 냇물은 東西로 흐르는데 밝은 달 아래 여기저기 배회하니
생황과 노래소리 흥겹게 들리는데 공손히 다리 위를 걷다 돌아오네.[45]

3) 그네뛰기(鞦韆)

단오날의 여성의 놀이로서 짚으로 굵고 단단하게 꼰 동아줄이나 밧줄을 가로로 뻗은 큰 나뭇가지나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가로로 댄 나무에 양끝을 매고 그네를 뛰는데, 녹음이 짙은 5월의 거목 아래서 울긋불긋 곱게 차려 입은 소녀들이 치마폭을 바람에 날리며 하늘로 치솟는 모습은 그대로 한폭의 그림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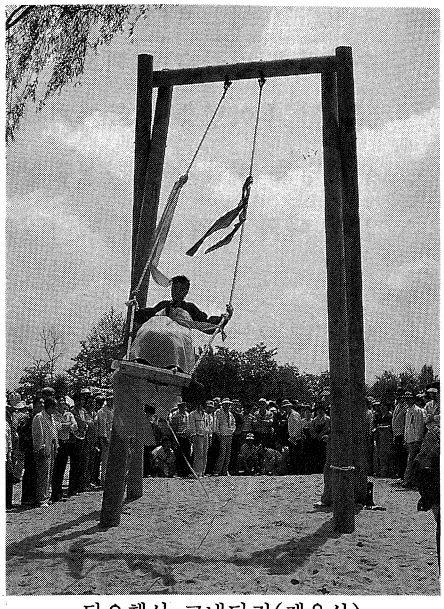
그네는 한 사람이 뛰는 「외그네뛰기」와 두 사람이 함께 마주 서서 뛰는 「쌍그네뛰기」가 있다. 그네를 허공높이 구르기 위해서는 온몸의 彈力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특히 팔 다리의 힘이 뛰어나야 한다.

그네의 유래에 대해서 중국 문헌인 荊楚歲時記에서는

「北方 塞外民族이 寒食날 그네뛰기를 하여 가볍고 날랜 몸가짐을 익혔으며 그

45) 沈雨晟「上揭書」pp.142～146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서울편) 1979. pp.425～426 參照.

이후 중국 여인들이 배웠다. 나무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나무가지를 가로 질러 맨 다음 물감들인 줄을 그 곳에 매달고 선비와 부인들이 줄 위에 앉거나 서서 밀고 잡아 당기며 놀았다. 이 놀이를 鞦韆(추천)이라고 일컬었다.」


단오행사 그네타기(개운산)

일설에는 齊나라 桓公이 북방 새외민족을 정벌한 후부터 戎狄의 놀이인 그네뛰기가 중국에 전하여져 清明節을 전후하여 성행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그네뛰기에 관한 기록은 高麗史에 처음 보인다.

단오날 권신 崔忠獻이 栢井洞宮에서 그네뛰기를 베풀고 文武 4品 이상의 선비를 초청하여 3일동안 놀았다고 하였으며 또 崔怡는 宗室 및 司空 이상의 선비들을 초청하여 彩棚을 設하여 산과 같이 만들고 그 둘레에 갖가지 繡를 놓은 장막과 휘장을 둘러치고 그 안 가운데에는 비단과 꽃으로 꾸민 그네를 매달았다. 또 銀과 자개로 무늬를 놓은 큰 동이 4개에는 얼음덩이를 담고 큰 술잔 4개에 꽃 10여송이를 꽂아 사람들의 눈을 현란하게 하였다. 伶官과 妓生과 才人에게도 금과 비단을 내리고 그네뛰기를 하였다.

朝鮮王朝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네뛰기가 일반에게 보급되면서 단오놀이로 그 자리를 굳히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京都雜誌의 端午條에 의하면 「항간에 부녀들이 秋午戱(그네뛰기)를 매우 성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고 洌陽歲時記 端午條에도 「나이 적은 남여들이 그네뛰기를 좋아한다. 서울이나 지방이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평안도지방에서 성행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부녀자들의 외출이 억제되었던 옛날에도 단오날만은 그네뛰는 것이 허용되어 일년동안 억눌렸던 몸과 마음을 펴볼 수 있는 유일한(?) 놀이였다. 그래서 춘향전을 비롯한 우리의 고대소설이나 民譚에도 그네를 뛰다가 인연을 맺게 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지금도 단오날에 전국에서 지방에 따라 그네뛰기를 하는 곳을 볼 수 있다. 끝으로 〈그네뛰기〉를 내용으로 한 민요 한 편을 소개해 보자.

오월이라 단오날은 천중가절 아니냐
수양청청 버들숲에 꾀꼬리는 노래하네
(후렴) 후여넝층 버들가지 저 가지름 툭툭 차자.
후여넝출 버들가지 청실홍실 그네 매고
임과 나와 올려 뛰니 떨어질까 염려로다.

한번 굴러 앞이 솟고 두번 굴러 뒷이 솟아
허공중층 높이 뜨니 청산녹수 어른어른
(후렴)
어찌 보면 훨씬 멀고 얼른보면 가까운듯
올라갔다 내려온양 신선선녀 하강일세
(후렴)
난초같은 고운머리 금박댕기 너울너울
외씨같은 두발길로 반공중에 노닌다.
(후렴)
요문갑사 다홍치마 자락들어 꽃을 매고
초록적삼 반호장에 자색고름도 너울너울[46]
(후렴)

이상의 그네뛰기를 내용으로 한 이 민요는 어느 지방의 것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이 밖에도 황해도 海州, 경북 義城 지방에 그네뛰기를 내용으로 한 端午謠가 전해지고 있다.

〈李　在　崑〉

46) 沈雨晟「上揭書」pp.26～36.

第 12 章　文化遺蹟 및 名勝

Ⅰ. 國寶 및 寶物

1. 國　寶

① 靑磁麒麟鈕蓋香爐

高麗時代(12세기)의 청자향로. 높이 20cm. 국보 제 65 호로 지정, 澗松美術館에 소장되어 있다.

턱이 넓고 세개의 다리가 붙은 火舍 위에 뚜껑으로 상상의 동물인 기린을 상형하여 붙인 향로로, 화사를 받치는 다리는 獸面의 형상을 하고 있고, 爐身에는 음각의 구름무늬가 장식되었다. 턱받침 위에도 세 곳에 구름무늬가 배치되었고 그 위에 뚜껑을 덮도록 되어 있다. 뚜껑 부분은 기린이 臺 위에 꿇어앉아 고개를 뒤로 하고 돌아다보는 모습인데, 대좌의 옆면에는 雷文과 靈芝雲文이 돌아가며 음각되었다. 기린의 머리에는 뿔이 돋아 있으나 현재는 부러져 있는 상태이고, 목뒤의 갈기·꼬리털 등은 곱슬곱슬하게 표현하였으며 기린의 눈만을 철사로 검게 점을 찍었다.


靑磁麒麟鈕蓋香爐(국보 제 65 호)

유색은 맑고 은은한 비취색을 띠며 약간의 氷裂이 보이고, 구조상 화사에서 지펴진 향 연기가 벌린 기린의 입을 통하여 뿜어 나오도록 만들어졌다.

이런 상형향로의 파편들이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요지에서 채집되고 있다.

② 靑磁象嵌柳竹蓮蘆鴛鴦文淨甁

높이 37cm, 밑지름 8.9cm의 고려 전기의 청자정병으로 국보 제 66 호로 지정되어 간송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정병은 원래 중국을 통하여 전해진 西來樣式인데 고려에 와서 가장 세련을 보였다. 徐兢의《宣和奉使高麗圖經》권31 기명2 정병조에 보면 貴人·國官·觀寺·民舍 모두 정병을 쓰며 물을 담는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불교에서는 비구가 지녀야 하는 18물 중의 하나로써 정병을 들고 있으며, 해인사의 보물대장에 灌浴器라고 한 기명조항에 정병에 관한 설명이 있고 실제로 銀入絲된 아름다운 정병이 보관되어 오고 있어, 고려시대부터 불사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병이란 명칭은 원래 淨水를 담는 여러 형태의 물병을 모두 포함한다.

이 정병은 목과 어깨의 선이 부드럽고 병입의 뚜껑은 결실된 상태이나 세련된 형태를 보인다. 문양은 모두 백상감 기법으로 평화로운 연못가의 정경이 회화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청자상감기법과 청동기의 은입사 기법의 관련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되며, 특히 단색으로 이루어진 상감의장은 釉胎가 정선되고 유빙렬이 거의 없는 점 등이 특색인, 초기 청자상감의 하나이다.

담녹회청책의 맑고 고른 유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굽 밑에는 硅砂를 받쳐 번조하였다. 전라남도 강진요지에서 비슷한 파편이 수집된다.

③ 靑磁象嵌雲鶴文梅甁

높이 42.1cm, 입지름 6.2cm, 배지름 24.5cm, 밑지름 17cm의 고려(12세기경)의 청자매병으로 국보 제 68 호로 지정,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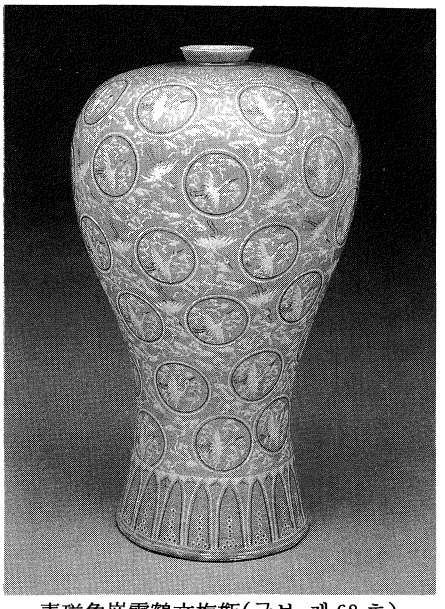
아가리는 작고 낮게 밖으로 벌어져 있으며, 어깨는 넓고 당당하게 발달되었고 몸 아래쪽으로 가면서 미끈하게 줄어들었다가, 바닥에 이르면 다시 밖으로 벌어져 안정감이 있다.

아가리 바로 아래 두겹의 원을 두르고 거기에 잇대어 여의두문을 그렸으며, 몸체 전면에는 雲鶴文을 새겨넣었다. 운학문은 두 종류로 하나는 어깨에서 굽까지 몸체 위에 6단으로 어긋나게 배치한 두겹의 흑백상감한 원 안에 넣은 경우이고, 또 하나는 그 바깥쪽 빈 공간에 메워넣은 경우이다. 원 안의 학은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는 모습이고, 원 바깥의 학은 아래쪽을 향하여 내려가는 모습이다. 학의 진행방향을 이처럼 아래위로 각각 다르게 표현한 것은 흥미로운 착상으로, 도자기의 표면이라는 일정한 제약을 넘어 사방으로 공간을 확산시켜 줌으로써 動感과 아울러 짜여진 구획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추구한 듯하다.

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는 공예 의장화된 구름무늬로 장식하였다.

이같은 표현상의 변화추구와 함께 문양 처리의 능숙함 등에서 고려 창자매병 가운데도 전형이라 할만하며, 고려인의 창의력과 고려도자기의 우수함을 엿볼 수 있다.



青磁象嵌雲鶴文梅甁(국보 제 68 호)

④ 訓民正音

새로 창제된 훈민정음을 1446년(세종 28) 鄭麟趾 등이 세종의 명으로 설명한 전권 33장 1책의 한문해설서. 국보 제 70 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간송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훈민정음'이란 책 이름을 解例가 붙어 있어서 '훈민정음 해례본' 또는 '훈민정음 원본'이라고도 한다.

내용은 世宗御製 서문과 훈민정음(새 글자)의 音價 및 運用法을 밝힌 例義篇이 본문처럼 되어 있고, 이를 해설한 해례편이 制字解·終聲解·合字解·用字例의 순으로 나누어져 기술되고 있으며, 책 끝에 정인지의 서문이 실려 있다. 집필자들은 鄭麟趾·申叔舟·成三問·崔恒·朴彭年·姜希顔·李塏·李善老 등 집현전의 8학자이다. 현존본은 1940년경 경상북도 안동 어느 고가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현 간송미술관 소장본이며 전권 33장 1책의 목판본인데, 아직까지는 국내 유일본으로서 匡郭은 가로 16.8cm, 세로 23.3cm이다.

예의 부분은 1면이 7행에 매행 11자, 해례 부분은 8행에 매행 13자이며, 정인지의 서문은 한 자씩 낮추어서 매행 12자로 되었다. 이 책도 발견 당시 완전한 것은 아니고, 처음 2장이 빠져 있던 것을 나중에 붓글씨로 적어 넣었던 것인데, 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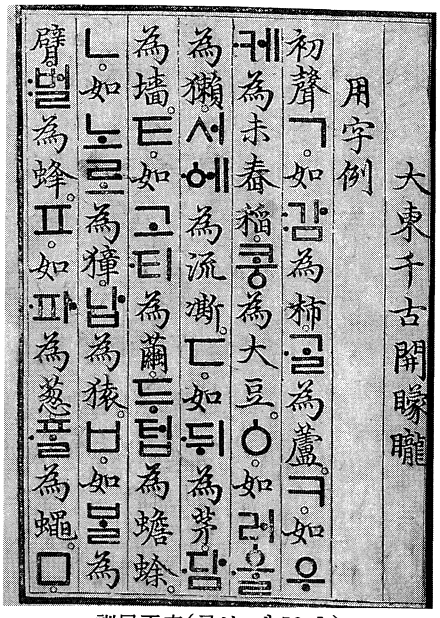
때의 실수로 세종 어제서문의 끝 자 '耳'가 '矣'로 되는 등 오자가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문은 세종어제 서문과 예의편으로 되어 있는데, 세종어제 서문에서는 표기수단을 가지지 못한 비지식층 백성들에게 표기수단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세종이 친히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고 창제목적이 밝혀져 있다. 이어 중국 36자모표에 나오는 한자를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외래어인 한자어의 傳來字音을 이용하여 새로 만든 훈민정음(글자)의 음가를 설명하였다. 이 중에서 초성 23자모체계는, 비록 전래자음을 가지고 음가를 설명하기는 하였으나 중국 36자모체계의 영향을 받은 체계였으며, 인위적인 改新의도를 가지고 정리하였던《東國正韻》23자모체계와도 일치하여, 15세기 중세국어의 초성체계와 부합되지 않는 면도 조금 있다.

해례편은 새로 만든 글자의 제자원리를 주로 밝히고, 그 음가·운용법 , 이 문자가 표시하는 음운체계 등을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다. 제자해에서는《太極圖》·《易學啓蒙》·《皇極經世書》등 宋學계통의 서적에서 이론을 섭취하여, 제자해의 첫머리부터 태극·음양·오행과 결부된 언어관을 제시하고, 훈민정음의 창제도 聲音에 따라 음양의 이치를 다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훈민정음의 제자원리가 象形에 있음을 말하고, 子音字의 제자에 있어서는 먼저 調音位置別로 기본이 되는 初聲字를 정하고, 이 기본자들은 각각 그 조음방식 또는 조음위치를 상형하여 제자된 것임을 말하였다. 계속하여 오행설을 가지고 각 자음을 오행·계절·音階·方位 등과 결부시켜 설명하고, 오행과 결부된 오성의 音相을 발음기관 및 오행의 특질과 연관시켜서 설명한 다음, 중국의 전통적인 語頭字音 분류 법인 36자모표의 분류방식에 따라 훈민정음의 자음자를 분류 설명하였다. 그리고 오행과 결부된 오성의 음상을 발음기관 및 오행의 특질과 연관시켜서 설명하였다. 초성해에서는, 초성이란 운서의 자모에 해당한다고 하고 한자음을 가지고 다시 설명하였다. 중성해에서도 중성이란 한자음의 介音+韻腹音임을 역시 한자음을 가지고 설명하였는데, 중국 음운학에서 음절말음(韻尾)으로 다루는 반모음〔j〕까지도 중성에 포함시켜, 제자해에서 설명한 11자 이외에도 여러 모음자가 합용되어 중모음으로 쓰일 수 있음을 말하였다. 종성해에서는 종성이란 자음으로 끝

나는 음절말음임을 역시 한자음을 가지고 다시 설명하고, 중세국어의 성조를 우선 종성만 가지고 설명하였다. 합자해에서는, 초성·중성·종성 글자를 字素처럼 인식하여 이들 3요소를 좌로부터 우로, 위로부터 아래로 써서 음절단위로 쓸 것을 규정하였고, 合用並書·각자병서의 書法을 초성·중성·종성에 걸쳐 설명하였다. 이어 당시의 국어성조를 다시 설명하여, 입성은 중세국어의 성조단위가 아님을 말하였다. 용자례에서는 중세국어에서 90단어의 예를 들어, 그 표기법을 보였다.


訓民正音(국보 제70호)

정인지의 서문에서는 제 말의 소리는 있어도 글자가 없어서 한자를 빌려 씀이 아무래도 어거지라는 것, 한문으로는 의사소통이 힘들다는 것, 吏讀 사용이 불편하다는 것 등을 훈민정음 창제의 이유로 들었고, 이어 세종이 1443년(세종 25) 겨울에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는 것, 훈민정음은 간단하고 깨치기 쉬운 글자이면서 여러가지로 응용이 가능하여 대개의 음(음악·한자음·연음까지)을 표기할 수 있고 이 글자의 창제로 한문책의 해석도 쉬워졌으며 의사소통도 가능해졌다는 등의 우수성을 가졌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해례본의 저술자가 정인지·최항·박팽년·신숙주·성삼문·강희안·이개·이선로 등 8명이라고 하였다. 이 서문을 쓴 날이 1446년 9월 상한이므로 이 책의 완성일을 아는데도 이 서문의 가치가 있다.

세종 때에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우리 것을 존중하고 밝혀보려는 기운이 충만, 이러한 기운이 국어의 문자화를 위한 훈민정음 창제로 나아갔고 《훈민정음》 같은 서적을 펴내게 되었는 바, 이 책은 문화사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⑤ 東國正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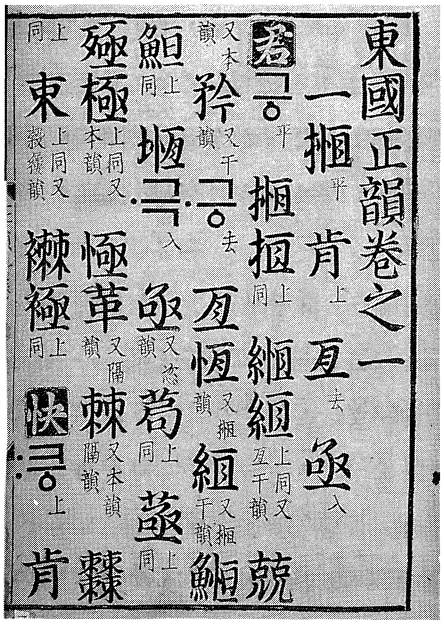
朝鮮 世宗 때 申叔舟·崔恒·朴彭年 등이 왕명으로 편찬하여 1448년에 간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韻書로 활자본의 6권 6책인데 그중 권1·6은 국보 제71호로 지

정되어 간송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고 건국대학교 도서관에도 국보 제142호로 지정된 완질이 보관되어 있다.

《동국정운》은 중국의 운서인《洪武正韻》에 대비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바른 음'이란 듯이다.

이 책은 세종의 언어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혼란상태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한자음을 바로잡아 통일된 표준음을 정하려는 목적으로 편찬, 간행되었다. 세종은 1443년 12월 훈민정음을 완성하고, 이듬해 2월 議事廳에 물어 훈민정음으로써『韻會』를 번역하게 했다.『운회』는 元나라의 熊忠이 개찬한『古今韻會擧要』를 뜻하는데, 이 번역본이 나왔다는 기록은 없다.《동국정운》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운회』의 번역본을 탈바꿈시킨 것이《동국정운》일 가능성이 있다. 즉『운회』의 반절음을 우리나라 음으로 번역하여 훈민정음으로 표음하고, 훈민정음의 초성 차례에 따라 자류의 배열을 바꾸어 놓은 것이《동국정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배열 순서는《동국정운》이 作詩 위주의 운서가 아니라 審音 위주의 운서라는 것을 말해 준다.

《동국정운》의 편찬에 참여한 사람은 申叔舟·崔恒·朴彭年·成三問·李塏·姜希顔·李賢老·曺變安·金曾 등 9인인데, 이들의 분담업무는 監掌는 東宮, 그 보좌로는 晉陽大君과 安平大君, 主務는 신숙주와 성삼문, 우리나라 한자음의 사정은 최항과 박팽년, 중국음에 대한 자문은 조변안과 김증, 교정과 정리는 강희안이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東國正韻(국보 제71호)

《동국정운》은 신숙주가 쓴 서문만이 전해오다가 1940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지금 간송문고에 있는 첫째 권과 여섯째 권의 두 책이 발견되었다. 이 간송문고본은 전 6권 가운데 두책만이긴 하지만, 권수에 宣賜之記가 날인되어 있고 표지의 題簽도 본래의 것으로서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版心題는 '正韻'이라고 되어 있다. 활자 중 본문의 한글과 한자 大字

는 木活字이고, 小字와 서문의 대자는 初鑄 甲寅字이다. 字體는 본문 대자가 수양대군의 글씨와 비슷하고, 墨蓋의 陰文이 안평대군의 글씨와 비슷하나 편찬자의 한 사람인 강희안의 필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동국정운》의 체제는 권1의 권두에 신숙주의 '東國正韻序'와 '東國正韻目錄'이 있고 그 다음에 본문이 있다. 이 본문은 권6에까지 이어지는데 각 권은 26韻目의 배열 차례에 따라 분권되어 있다. 본문은 먼저 운목을 운류별로 표시한 뒤 행을 바꾸어 字母를 음각으로써 표기하였고, 자모 바로 밑에는 훈민정음으로 음을 표시하였다. 한 자모 아래에는 平·上·去·入聲의 순서로 그 자모에 속하는 한자들을 배열하였다. 각 글자의 뜻은 풀이하지 않았으며, 한 글자가 여러 음을 가질 경우 그 글자 바로 밑에 細註를 붙였다.

편운체계는 신숙주가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91운 23자모로 되어 있다. 이 편운체계는 운서의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골격이 되는 동시에 당시의 국어 음운체계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체계는 당시의 우리나라 한자음을 명확히 구현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宋氏 等韻學派들의 이론체계나 明代 《홍무정운》의 언어정책을 지나치게 중시한 결과, 다분히 현실과 맞지 않은 인위적인 요소가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동국정운》의 한자음은 주로 佛經顔解에서만 注音으로 사용되어오다가 16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그 사용이 전면 폐지되었다.

그러나 《동국정운》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자음을 우리의 음으로 표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국어연구자료로서의 중요성도 《훈민정음》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 책은 한자음의 음운체계 연구 뿐만 아니라 훈민정음 制字 배경이나 음운체계, 그리고 각 자모의 음가연구에 있어서 기본자료의 성격을 지닌다. 이 간송문고본은 1958년 通文館에서 영인하였다(건국대 소장본은 건국대 출판부에서 1973년 영인했음).

⑥ 金銅癸未銘三尊佛

높이 17.5cm짜리 삼국시대의 금동삼존불입상이 국보 제72호로 지정되어 간송미술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높다란 원통형 연화좌 위에 광배와 삼존불을 한 틀로 주조한 一光三尊式의 형


金銅癸未銘三尊佛(국보 제 72 호)

식을 취하고 있다. 중앙에 배치한 본존불은 素髮의 머리에 크고 높은 肉髻, 타원형의 얼굴에 번져 있는 정신성이 강한 고졸한 미소, 약간 좁은 듯하지만 둥글고 강인하게 처리한 어깨와 가슴, 두꺼운 옷 속에 나타난 역강한 원통형의 체구, 좌우로 넓게 퍼진 새깃 같은 옷자락과 오른쪽으로 휘어져 내린 U字形의 옷주름 등 전형적인 고구려의 불상양식 또는 6세기 중엽경의 조각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좌우의 협시보살은 광배의 양쪽 끝에 매달린 것처럼 서 있는데 세 가닥으로 올라간 寶冠, 본존불과 비슷한 얼굴형태, 원통형의 체구, X字形의 옷주름 등 6세기 불상의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삼존불의 양식은 고구려 연가칠년명금동여래입상(국보 제 119 호)과 매우 비슷하며, 중국의 경우 520년경 내지 530년경의 불상인 定光三年銘금동불상이나 정관육년명삼존불입상과 같은 이른바 남북절충식(華化樣式)의 불상들과 비견되므로 20～30년 뒤에 이런 양식이 고구려에 유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연가칠년명금동여래입상의 양식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새로운 기법을 묘사하고 있고, 기교면에서도 퍽 세련되었으므로 다소 새로운 양식을 받아들인 조각가가 정성들여 만든 뛰어난 금동불상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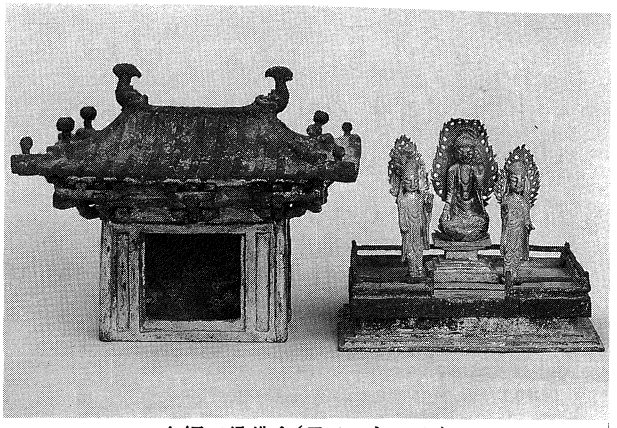
이 불상은 출토지가 분명하지 않고 제작연대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설이 있으나, 우선은 고구려의·연가칠년명금동여래입상 양식에 중국의 남북절충식 양식을 가미한 고구려식 불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광배 뒤에 새겨진 '癸未'라는 기년명으로 보아 563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세련된 작품으로써, 6세기 중엽경의 조각양식을 대변해주는 기념비적 작품으로 높이 평가된다.

⑦ 金銅三尊佛龕

高麗時代의 불감. 높이 18cm. 국보 제 73 호로 간송미술관 소장.

佛閣의 형식을 취한 龕 내부에 금동의 삼존불을 봉안한 것으로, 고려시대 또는

그 이전의 목조건축 양식과 조각 수법을 보여주는 귀중한 예이다.


金銅三尊佛龕(국보 제 73 호)

불감의 형식은 난간을 돌린 기단 위에 따로 불당의 모형을 만들어 얹은 것으로 불당의 네 귀퉁이에 배흘림(엔타시스 : 기둥의 중간부분이 아래·윗부분보다 약간 부푼 형태) 기둥을 세우고 정면과 양측면을 개방하여 안이 잘 보이도록 하였다. 기둥 위에는 2단의 栱包가 있고, 기둥 사이에도 空間包가 하나 놓여 있다. 지붕은 우진각형식으로 기왓골이 표현되었으며, 용마루 양쪽에는 鴟尾가 있고 네 귀마루에도 棒頭같은 장식이 있다.

불감내의 삼존불은 본존불좌상을 두 협시보살입상이 시립한 것으로 수법은 서로 같다. 본존은 높은 방형 대좌 위에 결가부좌하였는데, 대좌 밑에 따로 연꽃잎을 끼워놓았다. 머리는 螺髮로 얼굴을 약간 숙였는데, 이목구비의 표현수법이 치졸하다. 두꺼운 通肩의 법의는 옷주름이 형식적으로 묘사되었다. 손모양은 오른손이 施無畏印을 취하고 왼손은 무릎 위에 대고 있다. 광배는 頭光과 身光으로 되었는데, 透刻의 불꽃무늬로 가장자리를 장식하고 있다. 좌우 보살상은 형식이나 표현수법에서 같다. 머리에는 三面寶冠을 썼으며 구슬장식이 선각으로 표시되었는데, 그 양쪽에서 늘어진 머리카락이 어깨를 덮고 있다. 天衣와 裳衣는 두꺼우며 옷주름이 투박하고 형식적으로 묘사되었다. 본존 쪽으로 향한 손은 두 보살 모두 시무외인을 취하였고 다른 손은 아래로 내려뜨리고 있다. 발은 매우 작으며 蓮花臺坐 위에 서 있는데, 광배는 본존과 같은 형식이다.

불감 자체에는 아직도 도금색이 찬란하며, 지붕에는 녹청계의 색채가 남아 있는 등, 전체적인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이 불감이 보여주는 불당의 형식은 매우 고식으로, 특히 지붕부분은 신라 말엽 또는 고려 초기의 건축양식을 보여 주고 있다. 건축기단부의 단순하고 고졸한 형태, 단칸의 柱心包 집 모양이면서 가운데 공간포 하나씩을 배열한 多包系 구조, 배흘림기둥이 있는 우진각 지붕, 용마루 양끝에 있

는 중국 五代·北宋風의 치미, 그리고 네 귀마루의 봉두형 장식 등이 고식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불감에 비하여 삼존불의 조각수법은 매우 치졸하고 서툰 편이다.

본존불의 허리가 길어지고 하체는 짧아졌으며, 옷주름이 불규칙한 점이라든지 보살상의 특이한 보관과 목걸이의 형식 등은 중국 북송과 遼時代 불상양식의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불감과 불상의 양식 등으로 미루어볼 때 대체로 11~12세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⑧ 靑磁鴨形水滴

높이 8cm, 너비 12.5cm의 高麗時代 청자연적. 국보 제74호로 간송미술관 소장.

물 위에 뜬 오리가 꼬인 연꽃대를 입에 물고 있으며, 이 연줄기에 달린 연잎과 봉오리를 오리의 등 위에 자연스럽게 붙였다. 오리의 등 중앙에 붙어 있는 연잎에는 안으로 뚫린 구멍이 있어서 이곳으로 물을 넣게 되어 있고, 연꽃봉오리 모양의 작은 마개를 꽂아서 덮고 있다. 물을 따르는 구멍은 오리 주둥이의 바른편에 붙어 있으나 그 부분이 파손되어 원형을 확실히 알 수 없다. 오리는 거의 정확한 사실기법으로 깃털까지 세밀하게 음각으로 표현되었으며, 연한 녹색의 맑은 유약이 전면에 고르게 칠해져 있다.

알맞은 크기와 세련된 조각기법, 翡色의 은은한 색 등으로 보아 고려시대 귀족사회에서 향유한 문방구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釉色·胎土의 질과 세련된 상형기법으로 보아 12세기 전반경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⑨ 蕙園風俗圖

朝鮮 후기 화가 申潤福의 대표적인 풍속화첩. 종이 바탕에 담채색의 세로 28.2cm, 가로 35.2cm. 국보 제135호로 간송미술관 소장.

화첩에는 〈聽琴賞蓮〉·〈妓房無事〉·〈靑樓消日〉·〈月下情人〉·〈月夜密會〉·〈春色滿園〉·〈少年剪紅〉·〈舟遊淸江〉·〈年小踏靑〉·〈賞春夜興〉·〈路上托鉢〉·〈納涼漫興〉·〈林下投壺〉·〈巫女神舞〉·〈酒幕〉·〈雙劒對舞〉·〈携妓踏風〉·〈雙六三昧〉·〈聞鐘尋寺〉·〈路中相逢〉·〈溪邊佳話〉·〈井邊夜話〉·〈三秋佳緣〉·〈漂母逢尋〉·〈夜禁冒行〉·〈遊廓爭雄〉·〈尼僧迎妓〉·〈端年風情〉·〈紅樓待酒〉·〈蔘婦耽春〉 등 30점

이 실려 있다.


申潤福 聽琴賞蓮(국보 제 135 호)

대부분 기생과 한량을 중심으로 한 남녀간의 행락이나 情念 또는 양반사회의 풍류를 소재로 그려진 것으로, 공금횡령 등의 방법으로 치부하였던 京衙前들에 의하여 조성되었던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의 서울 市井의 유흥적·향락적 분위기를 짙게 반영하고 있다.

등장인물들은 남녀 모두 대체로 갸름한 얼굴에 눈꼬리가 치켜 올라간 선정적인 모습에 맵시와 멋이 넘치는 자태로 그려져 있어 도시적인 세련미와 함께 낭만적이고 색정적인 정취를 자아낸다. 각 인물들의 몸동작과 표정을 비롯한 각종 배경들을 뛰어난 소묘력을 바탕으로 사실적으로 나타냈으며, 특히 가늘고 유연한 필선과 한복의 아름다운 색감 등을 최대한으로 살린 색채의 효과적인 사용 등을 통하여 당시의 풍속상과 풍류생활의 멋과 운치를 실감나게 전해주고 있다.

18세기 후반 金弘道 풍속화의 성향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소재의 선정이나 구성법, 인물들의 표현기법 등 전반에 걸쳐 신윤복의 독보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화풍은 조선말기 劉運弘·劉淑 등을 거쳐 1930년대 李用雨의 인물화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와같이 남녀간의 春意나 色態를 자유롭게 부각시키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경향은 조선 후기 풍속화의 새로운 흐름으로서 당시의 시대조류의 사회적 분위기를 짙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 작품은 일본으로 유출되었던 것을 1930년 全鎣弼이 大阪의 고미술상에서 구입해와 새로 표구하였으며, 이때 吳世昌이 표제와 발문을 썼다.

⑩ 粉青沙器印花文胎壺(內外壺)

높이 42.8cm, 입지름 26.5cm, 밑지름 27.6cm짜리(外壺)와 높이 26.7cm, 입지름 8.7cm, 밑지름 9.5cm(內壺)짜리 朝鮮 전기 15세기 인화문분청사기의 가장 세련된

작품인 태항아리가 국보 제177호로 지정, 高麗大學校 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태호는 주로 왕실에서 태를 담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內壺와 外壺로 되어 있다. 胎誌石과 함께 나지막한 산봉우리에 안치되며 겉에 작은 胎碑가 세워진다.

이와같이 태호는 지석과 태비를 동반하므로 陶磁史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태호는 고려대학교 경내에서 발견되었는데, 발견 당시 내호는 짚망태기에 넣어져 외호에 담겨져 있었으며 고운 흙이 3분의 2쯤 차 있었다고 한다.

外壺는 口部가 넓고 口緣은 전을 이루며, 肩部에서 서서히 벌어져 풍만한 胴體를 이루다 좁혀져 세워진 안정감 있는 항아리로 접시모양의 뚜껑이 있다. 문양은 象嵌과 印花技法으로 전면에 촘촘히 시문하였는데, 항아리의 어깨에는 雷文帶와 큼직한 蓮瓣文帶와 菊花文帶를 돌리고 동체 전면에는 국화문대로 꽉차게 시문하고, 위에는 雨點文이 들은 袱紗文을 黑象嵌으로 장식하고 있으며, 저부에는 큼직하게 重蓮瓣文帶를 촘촘히 돌리고 있다. 특히 袱紗文의 흑상감문양이 강조하는 듯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기벽은 두꺼우며, 저부 일부에 도막으로 때린 繩蓆문양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釉色은 淡青을 머금은 灰白色으로 전면에 곱게 시유되어 있다. 뚜껑에는 4개의 구멍이 뚫린 연봉형의 낮은 꼭지가 중앙에 부착되어 있고 꼭지를 중심으로 小菊花文帶, 波濤文帶, 雷文帶가 차례로 口緣까지 배치되어 있다. 굽다리는 平底이며, 가는 모래받침으로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뚜껑의 꼭지 일부에 흠이 나 있고 동체에 일부 잡물이 스며있어 갈색을 띠며 內底에 균열자국이 나 있다.

이 항아리는 1969년 9월 高麗大學校 理工大學 부근 〈애기능〉 옆에서 내호와 함께 발견된 것으로 胎誌石과 胎碑는 발견되지 않았다. 특이한 항아리의 전과 풍만한 둥근 몸체와 뚜껑 그리고 시문된 菊花文樣 등으로 보아 15세기 중엽경의 전라남도 光州市 忠孝洞 요지에서 발견된 비슷한 항아리 조각이 있어 전라도 지방에서 제작되어 王家의 胎壺로 사용된 것 같다.

內壺는 구부는 넓고 약간 벌어져 말린 구연에 筒形과 같은 몸체를 지닌 長身의 항아리로 외호에 비해 훌쭉하다. 뚜껑은 접시모양으로 중앙에 구멍이 없는 둥근 꼭지가 붙어 있다. 문양은 胴體 전면에 성글은 小菊花文이 집단으로 꽉차게 시

문되어 있으며 뚜껑에는 꼭지 주변으로 2중의 연판문이 촘촘히 印花되어 있으나 희미하다. 유색은 淡青을 머금은 회백식으로 은은한 광택이 있으며 굽다리는 안바닥을 깎아 세우고 모래받침으로 받쳐 구워냈다. 발견 당시 외호에 담겨 있었으며, 부식되어 알 수 없는 銅錢(常平通寶) 1점이 출토되었으나 胎誌石은 발견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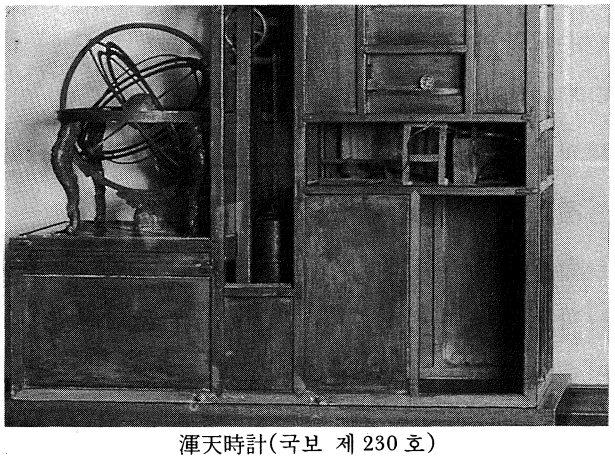
외호와 함께 내호에 있는 명주조각과 망태기의 조각으로 胎를 담는 습속의 한 면을 알 수 있으며, 印花文으로 보아 전라도 지방에서 15세기 후반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⑪ 渾天時計

길이 120cm, 높이 98cm, 폭 52.3cm짜리 천문시계 1基가 국보 제 230 호로 지정되어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다. 재료는 놋쇠 시계장치와 혼천의 및 나무궤로 되어 있으며, 제작년대는 朝鮮 顯宗 10년(1669)이다.

渾天儀는 크게 천체 관측용 측각기와 天文時計로서의 기능을 갖는 2가지가 만들어졌다. 혼천의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세종실록》 15년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세종 19년(1437)에 일련의 天文儀象 제작이 완성되었음을 말하는 기사에도 나타난다. 이 혼천의가 天文時計, 즉 渾天時計를 만든 것이다. 이런 천문의상을 만들기 위해 세종은 蔣英實을 중국에 연구차 보내기도 했었다.

渾天時計 제작의 전통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한동안 끊어졌다가, 효종 때 歷法을 時憲歷으로 바꾸게 되면서 다시 이어지게 되었다. 崔攸之에게 제작케 하여 효종 8년(1657)에 완성한 水激式 동력장치의 혼천시계, 璿璣玉衡이라 부른 그것이었다. 최유지의 모델은 觀象監에서 그대로 본떠 만들어 그후 조선조 혼천시계의 전통을 이어나간 것이 되었다.


渾天時計(국보 제 230 호)

高麗大 소장의 혼천시계는 최유지의 모델을 李敏哲과 宋以穎이 수리 개조할 때 떠오른 것으로, 1666년(현종 10) 아주 새로운 모델로 제작했다. 이는 종래의 水

激式, 즉 물레바퀴를 돌려 동력으로 삼은 장치가 아니고, 이른바 西洋式 自鳴鐘의 원리를 이용한 천문시계를 만들어낸 것으로, 《증보문헌비고》에 비교적 자세히 그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金錫胄가 上言하기를, "이민철이 만든 渾天儀에 있어서, 물의 힘으로 돌아가게 하는 법과 六合儀·三辰儀·黑雙環·黃道·赤道·白道 등의 環의 제도는 그 대략이 모두 《書傳》의 璿璣玉衡 章의 蔡沈의 註에서 인용한 渾天儀說을 모방하여 차례를 만든 것입니다. 혼천의의 옛 제도는 三辰儀의 속에다 또 四游儀를 두고서, 거기에 玉衡을 만들어, 이것을 좌우상하로 돌려가며 七政(日月과 五星)을 窺測하는데 쓰이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옛사람들은 이미 窺衡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높은 臺 위에 설치해야지 밀실속에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 만든 혼천의에다 사유 옥형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그 옥형이 重儀의 속에 있기 때문에 실제 관측에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삼신의 속에 白單環의 장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새기계는 소위 白單環으로 인하여 약간 變通시켜서 달이 운행하던 軌道를 만들어 삼신의 제도를 갖추게 한 것인데 이는 물항아리(水壺)를 널빤지의 뚜껑 위에다 안전하게 설치하고 물이 구멍을 통해 흘러내려 통 안에 있는 작은 항아리에 흘러 들어가 번갈아 채워져 바퀴를 쳐서 돌리게 됩니다. 여러 날에 걸쳐 물을 채워서 법식에 따라 시험하여 보면 삼신의의 환이 아울러 일제히 움직이며, 또 각각 그 기본 운행의 길을 따라 느리고 빠른 도수가 조금도 차질이 없습니다. 또 그 옆에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겸하여 방울이 굴러내리는 길을 만들어서 아울러 시간을 알리고 종을 치는 機關이 되게 하였습니다.…

또 송이영이 만든 혼천의도 모양이 역시 같으나 물항아리를 쓰지 않고 서양의 自鳴鐘의 톱니바퀴가 서로 물고 돌아가는 제도를 가지고 그 격식대로 확대한 것으로서 해와 달의 운행과 시간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였다.

송이영의 혼천시계는 길이 120cm, 주요 부분의 높이 96cm, 폭 52.3cm 크기의 나무궤 속에 들어 있으며, 혼천의의 직경은 약 40cm이고 그 중심에 위치한 지구의의 직경은 약 8.9cm이다. 이 천문시계는 시계장치와 혼천의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계장치는 2개의 錘의 운동에 의하여 움직인다. 하나는 시각을 위한 바퀴와 톱니바퀴들을 회전시킨다. 그것은 단순 탈진장치(Simple escapement)가 붙어 있는 흔들이에 의하여 조절케 했고, 시각은 원반(disc)에 붙은 수직축의 바퀴가 회전하는 것을 시계의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했다. 바퀴에는 12時牌가 붙어 있어서 이 시

이 시패가 시각마다 창문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다른 하나의 추는 종을 치는 장치를 위한 것으로, 여러개의 쇠공(金鈴)이 홈통안을 굴러 내려감으로써 종 치는 망치가 걸리면서 종을 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작동은 회전 바퀴 살에 붙은 주걱들에 의하여 쇠공들이 들어올려지게 됨으로써 반복하게 된다.

시계장치의 톱니바퀴들은 모두 놋쇠로 정교하게 깎았는데 주물로 부어내서 물레와 줄칼을 써서 다듬었다.

이 시계장치와 여러개의 톱니바퀴에 의해서 연결된 혼천의는 六合儀·三辰儀 그리고 地球儀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六合儀는 24向의 글자가 새겨진 地平環의 수직으로 周天度(360의 눈금)가 새겨져 있는 天經黑雙環과 地平環을 위로 36度點의 북극(北極出地 36도)과 아래로 36도점인 남극(南極入地 36도)에 걸쳐 周天度가 새겨진 天緯赤單環으로 되어 있어 6방위의 基點 즉 수평면의 동서남북·天頂·天底를 정하는 것이다. 六合儀 안에 있는 三辰儀는 三辰儀黑雙環·赤道單環·黃道單環, 그 안에 白道單環, 제일 안에 양극의 축에 걸쳐 있는 黑單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黃道單環에는 12宮 24氣와 28宿가 양면에 각각 새겨지고 360으로 분할되었으며 白道單環에는 27개의 못으로 분할하여 28宿를 나타냈다. 지구의는 남북극을 축으로 하여 시계장치에 연결되어 1일 1회전하게 하였다.

이 천문시계는 弘文館에 설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渾天時計 중 남아있는 유일한 유물이다. 그것이 동아시아의 독특한 水激式 시계장치의 전통을 계승하고 서양식 기계시계와 조화시켜 전혀 새로운 천문시계 모델을 만들어 냈다는 데서 세계 시계제작 기술사에서 독특한 천문시계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⑫ 東闕圖

우리나라의 궁궐도 중에서 규모, 내용의 복합성, 작품의 수준 등 모든 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 東闕圖는 本宮인 景福宮의 동쪽에 위치한 昌德宮과 昌慶宮을 함께 그린 그림을 수록한 책으로 현재 高麗大學校 博物館과 東亞大學校 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高麗大 박물관 소장의 작품(국보 제239호)은 16개의 畫帖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各幅은 종으로 5折6面으로 되어 있는데, 各幅의 표면에는 赤色紙로 외곽을 두른

조그마한 장방형의 白絹에 '東闕圖 人"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을 보아 같은 내용의 「東闕圖」 天과 地가 있었을 것으로 믿어지며, 이렇게 볼 때 동궐도는 본래 天·地·人 3本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현재의 高麗大本과 東亞大本(보물 제 596 호) 이외에 적어도 한질이 더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다.

高麗大本 16개의 畫帖 하나하나는 각각 접어서 畫册의 형태를 갖출 때의 크기는 45.5(縱)×36.5(橫)cm이며 완전히 폈을 때의 크기는 273×36.5cm이다. 그러므로 16개의 화첩을 오른편으로부터 왼편으로 모두 펼쳐 이어 놓았을 때의 크기는 273×584cm로 상당히 큰 작품이다.

畫帖의 표면은 청색의 絹으로 표구되어 있고 왼편 왼쪽에 "東闕圖 人一", "東闕圖 人十六" 등으로 표기된 題簽이 붙어 있다. 16개의 화첩은 맨 우측의 것이 첫번째 것으로, 맨끝의 것이 열여섯번째 것으로 되어 있어 오른편으로부터 왼편으로 얘기가 전개되도록, 또는 그 순서에 따라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東闕圖」는 비단에 먹과 채색을 써서 山水를 배경으로 하여 昌德宮과 昌慶宮의 여러 수많은 殿閣·齋室·樓亭·廊房·堂廳·宮墻을 비롯한 건축물과 池塘·造苑 그밖의 시설물들을 자세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넓은 면적과 수많은 궁궐의 시설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俯瞰法을 써서 표현한 점이 또한 괄목할 만 하다.

회화사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우수하고 중요할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궁궐의 배치와 짜임새, 아름다움과 웅장함, 건축과 조경의 양태, 기타 시설물의 설치상태 등을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파악하는데 생생한 자료가 되어 준다. 또한 파괴되거나 회진되어 없어진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19세기 경의 원형대로 복원함에 있어서도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제공해 주는 역할도 해 줄 수 있는 등 「東闕圖」의 가치와 중요성은 더없이 크다.


東闕圖중 大造殿 부근(국보 제 249 호)

畫風上의 특징을 보면, 왼쪽에 昌德宮 오른쪽에 昌慶宮을 배치하고 그 주변의 자연환경을 배경

으로 하여 俯瞰法을 써서 조망한 모습을 담아 그렸는데 모든 것을 平行斜線構圖에 따라서 포치했다. 細筆과 아름다운 채색을 써서 매우 정교하고 정확하게 표현했으며, 버드나무의 순이 돋아나고 봄꽃이 한창 피어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봄경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건물과 시설물에 이름을 써 넣어 확인을 용이하게 해 놓은 점도 괄목할 만 하다.

그런데 이 「東闕圖」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宮闕圖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제작연대와 작가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으니, 대략 1824~1827년 사이에 제작에 착수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화가가 과연 누구일지 한사람이 이 「東闕圖」 전체를 그렸는지 아니면 여러 사람의 합작인지도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 동궐도는 특색이 적은 儀軌圖의 일종으로서 그 기법·화풍 그리고 儀軌圖는 圖畫署 畫員이 그리는 점 등으로 미루어 역시 도화서 화원의 소작으로 보인다.

2. 寶　　物

① 白磁博山香爐

高麗時代의 백자향로. 높이 8.5cm, 지름 8.1cm. 보물 제238호로 간송미술관 소장.

개성부근의 고려시대 고분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한다. 몸체는 전체적으로 球形을 이루었는데, 蓋部와 火舍로 분리, 구성되어 있으며 경쾌하게 外反된 다리 3개가 부착되어 화사를 받치고 있다. 중첩된 산악의 형성을 이룬 半球形 뚜껑의 정상에는 다각형의 큰 氣孔이 있으며 그 밑에 다시 돌아가면서 7개의 雙葉形 風穴을 배치하여 이를 통하여 연기가 발산되도록 하였다. 유약은 청백색을 띠는 백자유가 두껍게 施釉되었고 빙렬이 거의 없으며 투명하고 광택이 있는 깨끗한 釉調를 지니고 있다.

이 향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여 볼 때 12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적과 窯地를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다. 형태는 중국 漢代의 박산향로를 단순화·양식화시킨 것으로서 西晉때의 越州窯靑磁에도 이와 비슷한 형태를 갖춘 예가 보이고 있는데, 월주요청자향로의 경우 뚜껑의 꼭대기에 새를 조각하여 장식하였다. 또 이 향로와 같이 구형을 이룬 몸체에 뚜껑의 윗면을 透刻하는 양식은

宋代의 청백자향로 중에 더러 보이고 있다.

고려시대의 경우 12세기 중엽경에는 전라북도 부안에서 고려적으로 세련된 양질의 백자가 많이 생산되었으며, 양은 적지만 전라남도 강진의 窯에서도 양질의 백자가 제작되었다. 이러한 점들로 보아 이 향로는 12세기 고려백자와 남송 초엽경의 청백자의 성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작품으로 여겨진다.

② 青華白磁鐵砂辰砂菊花文甁

朝鮮 18세기 초의 높이 42.1cm 청자병. 보물 제241호. 간송미술관 소장.

하나의 작품에 辰砂·鐵砂·靑華를 함께 곁들여서 장식한 도자기의 遺例로 거의 유일한 작품이다. 온아한 백자 바탕에 투명한 유약을 약간 두껍게 씌워서 전신에 온건한 釉裂이 있으며, 색감도 부드럽게 초화되어 있다. 이 종류의 조선시대 병 가운데서는 최대급의 작품이며, 簡明素直하게 끊어낸 병 입의 마무리와 가늘고 긴 병 목의 비례도 보기 좋다. 병의 앞뒤 양면에 회화적으로 구성된 菊花蜂蝶 무늬를 돋을무늬로 나타내고, 그 돋을무늬의 국화는 진사로, 국화 줄거리와 잎은 철사로, 난초는 청화로, 벌과 나비는 철사 또는 진사로 채색했으며, 그 發色 효과도 매우 순조롭다.

굽다리에 약간 耐火土가 묻었을 뿐 전신이 완전하게 보존된 傳世品이며, 開城지방에서 온 것이라고 전재지고 있으나 그 釉胎의 질과 빈틈없는 조형의 격조 등으로 보아 中央官窯産으로 추정된다.

③ 琴　譜

거문고 악보로, 玄琴譜의 줄임말이다. 현재까지 발굴된 약 70여종의 古樂譜중에서 40여종이 거문고보인데, 이 중에서 '금보'라는 表紙題名으로 된 거문고 악보가 24종으로 가장 많은 수효를 차지하고 있다. 樂師 또는 文人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이들 금보는 民撰樂譜로서 1책으로 되어 있다. 간송미술관의 금보는 梁琴新譜(1610년 刊)보다 38년이나 앞서 작성된 현재까지 발견된 24종의 금보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금합자보》는 1572년 安瑞이 편찬한 거문고 악보로 《안상금보》라고도 한다. 1책 88장의 목판본으로 출간되었으며 표지는 '琴譜'라고 되어 있다. 28.5cm×21cm. 보물 제283호로 지정,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青華白磁辰砂鐵砂蘭菊草蟲文甁
(보물 제 241 호)

隆慶 壬申(157)에 쓴 安瑞의 서문에 의하면, 안상이 1561년 장악원의 첨정으로 일하게 된 뒤 악공을 시험하는 譜册을 보니 예전의 합리적인 합자보를 버리고 상하괘의 次序만 있을 뿐 손가락 쓰는 법과 술대 쓰는 법이 없어 거문고를 처음 배우려는 사람들이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충하여 완벽하게 기보하기 위해 악사 洪善終에게 합자보를 개수하게 하고, 악공 許億鳳에게 笛譜를, 악공 李無金에게 장구보를 만들게 하여 이 악보를 편찬하였다. 거문고 악곡들은 합자보·五音略譜·肉譜의 세가지 기보법으로 기보되었고, 적보는 오음약보로 기보되었고, 장구 및 북의 악보는 그림으로 기보되어 총보의 형식으로 적혀 있으며, 노래의 가사는 거문고 합자보와 적보 사이에 기록되어 있다. 악보는 1행 16井間 6大綱으로 되는데 예외로 〈여민락〉과 〈보허자〉가 있다.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첫째 부분은 저자의 서문에 이어서 琴圖와 낙시조평조·우조평조·평조계면조·우조계면조·청풍체·최자조의 散形 및 執匙圖·按絃法·拍譜·장구보·鼓譜·按孔法·琴合字解·調絃法(평조·평조계면조)의 그림과 설명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부분은 〈平調慢大葉〉·〈鄭石歌〉·〈한림별곡〉·〈感君恩〉·〈平調北殿〉·〈羽調北殿〉·〈與民樂〉·〈步虛子〉·〈사모곡〉 등 9곡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부분은 唐琵琶圖·평조산형·계면조산형·비파탄법·비파보합자해·指法·彈法·조현법의 도설 및 〈비파만대엽〉의 악보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琴線과 音程의 위치를 도표로 나타냈으며 손가락을 쓰는 방법을 위시하여 거문고를 다루는 전체과정을 그림으로 그리고 상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1945년 처음으로 햇빛을 보게 된 뒤 필사본으로 소수의 음악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 오다가 1974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연구회에 의하여 《한국음악자료총서》 제 7 집으로 영인, 출간됨으로써 널리 소개되었다. 이 거문고보는 임진왜

란 이전에 간행된 금보로는 유일한 진본으로 임진왜란 이전의 여러가지 악곡을 전해주기 때문에, 《시용향악보》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악보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 또한, 당비파 음악의 옛모습을 악보로 전하는 유일의 악보라는 점에서도 중요시되고 있다.

④ 金銅如來立像

높이 38.2cm의 통일신라시대 금동여래입상 1점이 보물 제 284 호로 지정,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출토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 금동불상으로서는 비교적 큰 편이며, 일부 도금이 떨어진 부분도 있으나 肉髻부터 대좌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다. 불상은 八角蓮花臺座 위에 배를 약간 내밀고 자연스러우면서도 당당한 자세로 서 있다. 머리는 螺髮인데 많이 마멸되었고, 그 위에 육계가 약간 뾰족하고 높게 솟아 있다. 얼굴은 통통한 편이나 이마가 유난이 좁다. 눈은 크고 옆으로 길게 찢어진 것 같은 모습이며, 코와 입은 작은 편이다. 입가에는 은은한 미소를 띠었고, 얼굴 전체에서 매우 친근한 인상을 풍긴다. 목이 약간 굵고 짧은 편이어서 조금은 답답한 느낌을 주며, 三道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의상이 보여주는 특이한 양상은 大衣를 오른쪽 어깨에서 약간 벗겨질 듯이 걸쳤고 주름을 허리 아래에서부터 표현하여 가슴과 배가 유난히 많이 드러나 보인다. 허리 부분에 있는 띠 매듭 모양의 표시가 裙衣라기보다는 대의 속에 대각선으로 입었던 내의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 밑에 U字形의 주름이 여러번 계단식으로 겹쳐져 늘어졌고, 그 밑의 군의자락은 곧게 늘어진 여러 주름으로 드리워져 있는데, 발목이 많이 드러나 보일 만큼 위로 치켜올려져 있다.


金銅如來立像(보물 제 284 호)

전반적으로 옷의 연결부분이 명확하게 처리되지 못하여 형식이 모호하고, 주름도 대체로 굵고 투박하여 예리한 맛이 덜하다. 한편, 불상

의 자세는 몸 전체를 정면에서 볼 때 얼굴부분, 목에서 허리, 그리고 허리 이하의 삼단으로 가볍게 꺾여 있어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손의 모습(手印)은 일반적인 형식과 달리 오른손은 與願印을 취하고, 왼손은 손가락을 앞쪽으로 내밀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 있다. 대좌는 單瓣仰蓮과 複瓣覆蓮이 한데 붙어 있고, 그 밑에 眼象이 각 면에 투각된 팔각의 받침이 있는데, 이러한 대좌형식은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의 것이다.

이 불상은 양식상으로 보아 대략 7세기말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⑤ 金銅菩薩立像

높이 18.8cm. 보물 제285호. 간송미술관 소장.

경상남도 거창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는 이 불상은 광배는 결실되고 원형의 복판연화대좌 위에 똑바로 선 자세를 취하고 있다. 원래 정면 위주의 불상으로 뒷면이 납작한 편이며 머리 뒤에는 두광을 꽂았던 고리가 있다. 머리에는 忍冬文과 비슷한 장식이 있는 寶冠을 쓰고 있으며, 관 양끝에서 매어진 가는 술이 고사리모양으로 매듭을 지며 어깨 위로 내려지고 조그마한 원형의 긴 連珠文이 관과 술을 장식하고 있다. 얼굴의 표현은 매우 특징이 있어 가늘게 옆으로 찢어진 눈과 앞으로 내민 입 및 툭 튀어나온 광대뼈가 어울려서 한국적인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완만하게 처리된 둥근 어깨는 三道의 표현이 없는 굵은 목과 연결되어 있다. 목걸이는 두 줄로 표현되어 밑으로 각이지게 드리워졌고, 가슴 위의 대각선은 등 뒤에도 보이고 있어, 얇은 내의가 아닌가 생각된다.

천의는 상의 양쪽에 대칭으로 뻗쳐서 4단의 지느러미처럼 표현되었는데 매우 인위적이고 도식화되어서 사실적인 감이 없다. 양팔 밑으로 내려뜨려진 천의는 무릎부분에서 엇갈려 교차되었고 상 뒤에서는 길게 허리 밑에까지 늘어졌다. 또한, 양 어깨에 걸쳐져서 내려오는 큼직한 구슬장식은 허리 밑부분의 둥근 원형장식을 중심으로 교차되었다. 裳衣의 앞부분은 두 손에 가리워서 허리선이 잘 보이지 않으며, 양다리 위로 주름이 없이 밋밋하게 내려오고 몸 뒤에 허리부분에서는 두 줄의 선으로 뚜렷이 표시되어 있다.

원형의 큼직한 대좌는 부식이 심하여 그 질감이 불신과는 매우 다른 느낌을 주며 홑겹(單瓣)의 내림연꽃받침으로 되어 있다. 寶珠를 두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은

충청남도 서산의 마애삼존불상의 오른쪽 협시보살, 부여 정림사지 출토 塑造보살상 조각을 비롯하여 몇 예의 금동보살상에서도 보이는데, 특히 옛 백제땅에서 유행하였던 형식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상과 비슷하게 捧珠하고 있는 모습이나 천의가 양쪽으로 뻗친 모습은 일본의 호류사 夢殿의 주존불인 구세관음과 일본의 초기 불상의 대표적인 四十八體佛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일본의 초기 불상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양식상으로 미루어보아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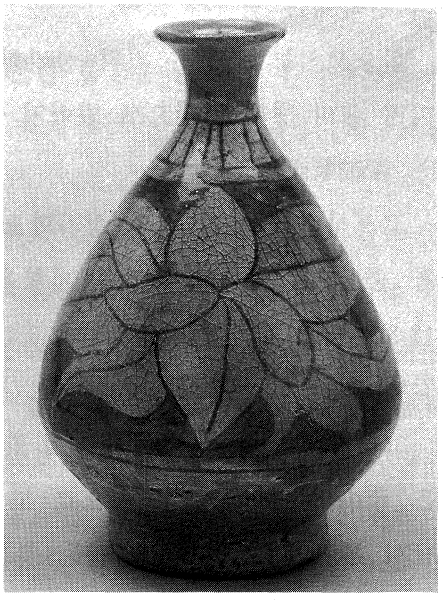
⑥ 靑磁象嵌葡萄童子文梅甁

높이 41.5cm, 입지름 7.5cm, 밑지름 15.8cm의 고려시대 청자상감매병. 보물 제 286 호. 간송미술관 소장.

중국에서 전래된 매병은 고려에 와서 세련을 보이며 매우 활발하게 제작된다. 매병의 용도는 酒器로써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매병은 전성기의 청자매병에 비하여 다리가 길어지고 廣口形 구연부의 형태에 무딘 감이 있으나, 유존되는 완형의 청자상감 매병 중에서는 드물게 보이는 큰 것이다. 문양은 병입 주위에 비교적 큰 如意頭文帶를 상감하고 동하부에는 雷文帶와 重蓮瓣文帶를 둘렀으며, 이들 종속문양을 제외한 넓은 몸체의 전면에 덩굴진 포도잎과 열매를 가득 시문하였다. 이들 문양은 모두 백상감인데, 포도 열매만은 동그란 무늬 도장을 찍고 백상감과 그 안에 검은 점을 하나씩 상감하여 포도알을 표현하였다. 포도덩굴 잎새의 백토상감 부분은 두껍게 두드러져 마치 白堆花文처럼 보이는 특이한 상감효과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동하부가 길어지고 어깨의 여의두문이 다소 커지며 그 주연이 겹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점 등은 대체로 12세기 후반~13세기 전반의 청자상감 매병에서 보이는 양식적인 특징인 듯하다. 정선되지 않은 태토의 질이나 깨끗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굽다리 등은 이 매병이 고려청자의 전성기에서 다소 벗어난 시기에 제작되었으리라는 추정을 뒷바침해준다. 엷은 녹색이 감도는 회청색의 유가 약간 두껍게 施釉되었으며, 網狀의 빙렬이 있고 유약이 충분히 용해되지 않아 투명도가 적으며 흘러내리거나 두껍게 몰린 부분이 있는 등 유약의 분포가 고르지 않다. 굽 밑바닥에는 6개의 비짐돌 받침을 고여 번조하였다. 이러한 유태와 문양을 지닌 파편은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요지에서 수집된 바 있다.


粉靑磁剝地黑彩草花文甁
(보물 제 287 호)

⑦ 粉靑剝地花文甁

조선초기 분청사기 병이다. 높이 20.4cm, 입지름 5.2cm, 밑지름 8cm의 보물 제 287 호. 간송미술관 소장.

회색의 태토 위에 白土로 분장을 하여 무늬를 그리고 그 이외의 배경을 긁어낸뒤, 긁어낸 부분에 다시 철재를 입혀서 어두운 녹색의 배경과 흰 무늬와의 대조가 선명하게 잘 어울리고 있다. 무늬는 변형된 모란무늬로 간주되며 격식에 매이지 않은 자유스럽고 활달한 감각을 나타내어 조선시대 圖工들이 재구성한 뛰어난 도안의 표현력을 엿볼 수 있다. 병의 목 주변에는 수직선으로 변형된 蓮瓣文樣帶가 있고 병의 아랫부분에는 백토 분장이 시유되지 않고 태토가 그대로 보이고 있어 신선한 맛을 풍겨준다. 유약은 투명한 회청색이며 일부 연한 갈색을 띤 곳이 있다.

만듦새가 매끈하지는 않아도 생김새와 도안 의장법에서 친근하고 구수한 멋을 나타내고 있다.

⑧ 粉靑砂器牧丹文飯盒

높이 16cm, 입지름 15.3cm, 밑지름 7.8cm의 조선전기 15세기 분청사기 합. 보물 제 348 호. 간송미술관 소장.

회색 태토에 백토로 面象嵌한 뒤 연한 청색을 띤 회백색의 투명한 유약을 얇게 골고루 칠하였으며 광택이 있다. 무늬는 도식화되었으며, 主文樣인 모란무늬가 활달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이로 큰 줄기를 율동감있게 두르고 있다. 盒身의 구연부에는 草花文樣帶를 둘렀으며 그 아래 두줄의 선을 긋고 그 안에 한정시켜 모란무늬를 상감하였다. 뚜껑 아가리 역시 초화문양대를 두고 위로 두줄의 선 안에 모란을 배치한 뒤 다시 위로 가지를 뻗어 모란 한송이를 윗면에 상감하고 있다. 뚜껑

의 안쪽에는 무늬가 없다.

합으로서는 조선 초기의 풍만한 양감이 있는 형태를 잘 반영한 대표적인 기형이며 굽의 형태도 밑으로 벌어져 있어 안정감을 주고 있다.

⑨ 靑磁象嵌母子盒

고려시대 12세기 경의 청자합으로, 큼직한 원형의 모합 안에 국화형 자합 하나를 중심으로 4개의 송엽형 자합을 배치한 모자합이다. 모합은 높이 8.4cm, 지름 18.8cm이고 菊形 子盒은 높이 3.1cm, 지름 7.9cm이며 松葉形 子盒은 높이 3.0cm, 길이 7.8cm이다. 보물 제 349 호. 간송미술관 소장.

고려시대에는 모자합 혹은 합형의 그릇들이 다수 전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형은 금속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고려시대의 나전칠기에도 그 예가 보이고 있으며, 당시 부인들의 화장품을 담는 용기로서 제작·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모합 뚜껑의 윗면 중심에는 그 안에 菊瓣 하나가 백상감된 四菱形文을 두고 이를 원심으로 국화·연화·모란당초문대를 흑백상감하였다. 이 뚜껑의 구연에는 백상감 雷文帶를 둘렀고 뚜껑을 얹으면 이와 맞대어지는 밑짝의 외연에는 역시 백상감된 당초문대를 포치하여 문양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자합은 뚜껑 윗면의 주연에 흑백 겹선으로 윤곽을 두고 이 안에 모란 折枝를 각기 하나씩 상감하였다.

정연한 구성 안에서 다양하고 변화있는 문양표현이 모색되어 있으며 부인 용기에 걸맞는 아기자기하고 섬세한 면모가 엿보인다. 釉調는 녹색을 띤 회청색으로 맑고 투명하며 부분적으로 성긴 빙렬이 보인다. 모합 뚜껑의 안쪽과 밑짝의 굽 밑에 硅砂 받침자국이 5개씩 있으며 자합 굽에도 각기 세곳에 규사를 받쳐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다.



靑磁象嵌母子盒(보물 제 349 호)

고분출토의 자합이 들어 있던 청자상자 안에는 장방형의 銅鏡과 銀製 針筒이 함께 들어 있었다고 한다.

⑩ 洪武正韻譯訓

한자의 중국음을 정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편찬한 중국음에 대한 한글주음운서. 원래 16권 8책인데 2卷(권1, 2) 1册이 낙질되어 현재 전하는 것은 14권 7책, 보물 제 417 호로 지정되어 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다음 이것을 가지고 한국의 漢字音을 바로잡고자 세종 29년 『동국정운』을 완성했다. 다시 한자의 中國音을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 당시 明朝에서 새로이 엮은 『홍무정운』의 음을 한글로 나타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端宗때에 비로소 출판되었다. 한글과 한자 큰 글자는 목활자를 사용하고 작은 글자는 갑인자로 간행되었으며,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이 현전 유일판본이다. 이 책은 그 서문만이 申叔舟의 『保閑斎集』 권 15와 『동문선』 등에 전하여 오다가, 1959년 『진단학보』 제 20 호에 발표된 李崇寧의 〈洪武正韻譯訓의 연구〉에 의하여 처음으로 그 전래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각권 表題·韻目·字母·譯音·字韻 등은 大字로 표시되어 있고, 反切·俗音·발음설명·釋義 등은 소자로 표시되어 있다. 편찬목적은, 첫째 정확한 중국발음을 쉽게 습득하고, 둘째 속음의 현실성을 불가부지한 것으로 보고 이를 표시하였으며, 셋째 『홍무정운』을 중국표준음으로 정하고자 한 것이며, 넷째 世宗의 어문정책 전반에 관한 소망성취 등이다. 참여한 인물은 監掌者로 首陽大君·桂陽君이며, 편찬자는 申叔舟·成三問·曺變安·金曾·孫壽山이며, 讎校者는 魯參·權引·任元濬이다. 간행시기는 신숙주의 서문에 '景泰六年仲春旣望'이라 하여 端宗 3년(1455)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간행시기로 볼 수 있고, 서문 중간에 '凡謄十餘藁 辛勤反復 竟八載之久'라 하였으므로 세종 30년(1448)경에 착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시, 『홍무정운』은 明太祖 때에 中華雅音을 밝히기 위하여 편찬된 것이라 하나 재래부터 써내려온 『禮部韻略』이 韻書를 대표하였기 때문에 『홍무정운』은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하였고 그러므로 세종이 시도한 譯訓도 初刊本 이외에는 重刊을 하지 않아서 재판이 없는 세종의 큰 업적이며 유일한 珍本이다.

이 책은 보존상태가 매우 좋아서 장정·표지 모두가 최초의 모습 그대로 간직되었고, 卷首에는 「雪筠」, 「仲信」, 「張有誠」 등의 印記가 있다.

⑪ 自治通鑑綱目

보물 제 552 호. 38.5×22.5㎝ 크기의 朝鮮時代(1438년) 木板本으로 城北區內 개인 소장.

『自治通鑑綱目』은 宋의 朱熹가 司馬光이 지은 『자치통감』에 대하여, 『春秋』의 체제를 따라 史實에 대하여 큰 제목으로 「綱」을 따로 세우고, 사실의 기사는 「目」으로 구별하여 판찬한 책이다. 중간 글자와 작은 글자는 甲寅字를 사용하고, 「綱」에 사용된 大字는 首陽大君(뒤의 世祖)에게 명하여 글씨를 써서 鑄字를 만들어서 쓰게 하였다. 이것이 丙辰字이다. 그러나 뒤에 간행된 책들은 丙辰字의 原活字를 쓴 것이 없고 거의 木刻으로 바뀌었는데, 이 책은 그 唯一本으로 남아 있다.

책 첫장에 「校正」印이 있으며 첫장 아래와 책 맨 끝장에 「玉淵墨藏」이라는 印記가 있다. 玉淵斎는 慶北 安東 河回마을에 있는 柳成龍의 서재이므로, 그곳에 간수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연대를 표시하는 干支는 上欄 위에 따로 란을 설정하였고 특히 「甲」이 들어 있는 곳에는 「甲」字만은 陰刻으로 하여 十干中 첫번째임을 나타냈다. 표지는 뒷장은 없어진 것을 改裝하였고 앞장은 원형대로 보존되었는데, 表題는 따로 인쇄한 종이를 붙여서 4周의 쌍선을 긋고 「通鑑綱目」이라고 쓴 卷數의 표시는 墨書로 되어 있다. 장마다 뒷면 欄外에는 내용에 해당되는 왕조의 임금인 「晋成帝」라는 3자가 인쇄되어 있다.

大字인 丙辰字의 크기는 종횡 지름 2cm이다. 『世宗實錄』 18년 7월 壬戌條에는 이 책을 印刊한 사실이 기록되었고, 아울러 柳義孫의 序가 실려 있다.

⑫ 安重根義士遺墨

伊藤博文을 사살하고 旅順監獄에서 최후의 殉國을 할 때까지 옥중에서 揮毫한 안중근의사의 유묵들 20여점이 일괄하여 보물 제 569 호로 지정되었는데, 소재와 소유자가 서로 다르며 형식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중 성북구내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보기로 한다.

제 569 호의 1號

百忍堂中有泰和

庚戌二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根書

(掌印)

규모양식은 137.4×33.2cm의 簇子이며 시대는 1910년 2월이다. 성북구내 개인 소유이고, 安重根義士記念館에 보관중이다.

제 569 호의 19호

極 樂

庚戌三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中根書

(掌印)

규모양식은 67×33.3cm의 橫額, 시대는 1910년 3월이다. 성북구내 개인소장.

⑬ 槐山 外沙里 石造浮屠

높이 350cm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이 浮屠는 원래 忠北 槐山君 七星面 外沙里 三省마을의 고려시대 초기로 추정되는 절터에 있었던 것을 일제시대 때 옮겨온 것으로, 1974년 10월 2일 보물 제 579 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성북동 간송미술관 뜰에 보존되어 있다.

이 부도는 화강석의 전형적인 八角圓堂形 浮屠인데 그 구성은 네장의 장방형 板石으로 짜여진 地臺石 위에 下臺石과 中臺石, 上臺石 그리고 身部와 屋蓋石, 相輪이 차례로 짜여져 있다.

八角에는 귀꽃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8각의 각 면에 二軀씩의 眼象이 새겨져 있으며, 내부에 귀꽃이 새겨져 있는 하대석은 위에 複瓣이 覆蓮紋이 둘러져 있고 상대석에는 내부에 꽃잎이 장식된 重瓣의 仰蓮紋이 매우 유려하게 彫飾되어 있다. 중대석은 아래쪽에 13.6cm 높이의 구름무늬를 새긴 한 段이 마련됐을 뿐 각 면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이 윗부분보다 아랫부분이 더 넓은 엔타시스(배흘림) 양식만이 엿보이고 있다. 3단의 받침위에 塔身이 있다.


전괴산 팔각당형 부도(보물 제 579 호)

8각의 身部 각 면에는 23.5cm×45cm 크기의

틀(額)이 표현되어 있고 남쪽과 북쪽면에는 안쪽에 자물쇠가 양각되어 있는 門扉形이 彫飾되어 있는데 이 身部도 엔타시스 양식이 엿보이고 있다. 서까래 구조가 없는 屋蓋石은 추녀가 약간 높아졌고 또 轉角의 反轉도 완만하여 각 隅角마다 새겨진 큼직한 귀꽃과 잘 어울리어 雄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옥개 받침은 3단으로 되어 있다. 맨 윗부분 相輪은 현재 鼓腹形의 覆鉢과 寶珠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아랫부분에는 蓮瓣紋이 새겨져 있고 배부분에는 二條의 선을 둘린 다음 그 중간 네곳에는 葉花紋이 彫飾되어 있다. 그러나 寶珠의 윗면은 마손이 심하여 어떠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

고려시대 중기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부도는 1964년 복원된 것으로 본래의 완전한 모습에는 다소 미흡한 느낌이 들지만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과 眼象 및 蓮花紋, 귀꽃의 조각솜씨, 그리고 身部와 屋蓋石 등 각 部에서 고려시대 부도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 석조부도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⑭ 傳聞慶五層石塔

고려시대의 화강암으로 된 3.92m 높이의 탑이 성북구 간송미술관 뜰에 세워져 있다. 보물 제580호.

원래 慶北 聞慶郡 聞慶面 觀音里에 있었는데, 日帝 때 다른 곳으로 옮겨 가려는 것을 故 全鎣弼氏가 수습하여 현재의 위치에 세워 놓았다.

中形의 규모로 整齊된 탑이며, 各部가 완전한데 5층 屋蓋石만은 다른 탑의 것을 얹어 놓은 듯하다. 탑은 2층 기단 위에 세워진 일반형이다. 地臺石 위에 아래층 기단이 놓여 있는데, 面石 4면에는 각 면 3區씩의 眼象이 음각되어 있으며, 22장의 돌로 結構된 甲石 위에는 위층 기단을 받치기 위한 괌이 마련되어 있다. 위층 기단은 각 면에 두 우주와 탱주 하나가 새겨져 있다. 갑석은 밑면에 副椽이 없으나, 윗면에는 3단의 괌을 새겨 탑신부를 받치고 있다. 탑신부는 屋身과 屋蓋石이 각각 한 돌로 조성되어 있는데, 각 층 옥신에는 두 우주가 새겨져 있으며, 특히 1층 옥신 남쪽 면에는 열쇠形을 새겨 놓았다. 2층 이상의 옥신은 체감은 심하지 않으나, 1·2층의 감축률이 심한 편이다. 옥개석바침은 1~4층까지는 4단씩이고 5층만은 3단이다. 落水面은 짧고 경사가 급한 듯하나, 실제로는 옥개받침에 비하여

두꺼운 편이 아니다. 相輪部는 露盤과 覆鉢이 한 돌로 조성되어 있으며, 귀꽃이 장식되어 있다.

탑신부에서 체감이 심하지 않아 안정감이 있으며, 특히 아래층 기단 면석에 안상이 선명하게 조각되어 있어, 高麗 석탑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석탑 바로 앞에는 拜禮石이 놓여져 있는 제대로 격식을 갖추고 있는 석탑이다.

⑮ 中庸朱子或問

1371년(공민왕 20) 元나라 倪士毅가 輯釋하고 朱平仲이 교정한 『중용주자혹문』 원판본을 번각한 1册의 목판본. 현재 보물 제706호(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707호(서울의 趙炳舜 소장)가 전래되고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은 29.8×18.5cm 크기로 宋의 朱熹가 『중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설문해답식으로 서술한 책이다. 이것이 元으로부터 수입되어 고려 말기에 腹刻된 것이다 책 끝에

洪虎四年 辛亥七月日 晋州牧開刊

이라는 刊記가 있어 고려 공민왕 20년(1371) 7월 晋州牧에서 開板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洪虎는 곧 洪武이다. 홍호의 '虎'를 제2대왕 혜종의 휘인 '武'의 글자 사용을 피하여 글자 뜻이 같은 다른 글자로 바꾸어 쓴 것이다. 이런 예는 高麗刊本에서 흔히 볼 수 있다. 元本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으며, 새김이 비교적 정교하여 인쇄가 깨끗한 편이다. 고려시대의 지방관판본으로서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⑯ 東人之文四六

고려말 문신 崔瀣가 신리와 고려 명현의 시문집 중에서 사륙변려문만을 모아 간행한 목판본의 시문선집으로, 전 15권이다. 일설에는 『동인지문사륙』을 『동인지문』이라고도 하지만 그 관계는 확실치 않으며, 다만 『동인지문사륙』의 완질본이 15권이나 되는 것으로 보아 『동인지문사륙』은 『동인지문』 중에서 사륙문(四六文, 駢儷文)을 모아 증보한 別帙本인 듯하다.

『동인지문』의 편찬연대와 수록범위 및 내용을 짐작하게 하는 자료로는, 최해의 문집인 『拙藁千百』과 『졸고천백』에 수록되어 있는 〈東人之文序〉 및 李穀이 쓴 〈崔君墓誌〉(稼亭集 권 11) 등이다.

위 자료에 의하면 『동인지문』의 완성시기는 1336년(충숙왕 복위 5)이며 전질 25권으로 신라 崔致遠에서부터 충렬왕 때까지가 수록범위로 여겨진다. 〈동인지문서〉의 편찬동기는 그가 1321년(충숙왕 8) 원나라 制科에 합격하였을 때, 우리나라 시문에 대해 물어왔으나 시문선집이 없어 보여주지 못한 수치를 당하였으므로 이때에 우리나라 시문선집을 찬집할 뜻을 가졌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에 『동인지문사륙』은 『동인지문』이 간행된 1336년에서 최해가 사망한 1340년 사이에 증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은 고려대학교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李謙魯 등이 소장하고 있으며 각각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바,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은 12권 4책(권 1~6, 권 10~15)이 보물 제710호로, 6권 2책(권 1~6)은 보물 제711호로, 3권 1책(권 7~9)은 보물 제714호로 각각 지정되었고,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3권 1책(권 10~12)은 보물 제712호로, 이겸로 소장 본 3권 1책(권 13~15)은 보물 제713호로 지정되었다.

성북구내에 있는 것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東人之文四六(卷 1~6, 10~15)

寶物 제710호, 高麗大學校 圖書館 소장. 34.5×21cm 크기이며, 高麗 恭愍王 4년(1355)에 새긴 木板에서 朝鮮初期에 찍어 낸 後刷本으로 보임.

이 책은 四周單邊이고 界線이 없다. 다만 卷5 끝장에 선이 있는데 이것은 補刻임을 알 수 있다. 卷12의 끝에 「至正十五年 乙未八月日 福州開板」의 刊記가 있다. 福州牧은 忠烈王 3년에 개칭되어 恭愍王 10년(1361)에 安東大都護府로 다시 堅格될 때까지 사용되었던 安東府의 舊稱이다.

이 책의 다른 간기를 종합해 보면 이 開板은 당시의 福州牧使인 崔宰가 주관하였고, 按廉副使 安宋源·鄭光復이 관여하였으며, 書寫者는 進士 金成富로 표시되어 있으나 卷6 이상은 書風이 달라 같은 사람의 글씨로 볼 수 없다. 開板 시기는 卷12를 판각한 것이 공민왕 4년 正月이고, 卷15의 간기는 동년 8월로 되어 있다.

卷5의 마지막 한 장은 界線이 들어 있는 補板이다. 이 刊本에 고려의 역대 王諱인 建·武·欽·運·堯·治 등의 글자는 缺劃 또는 代字를 쓰고 있는 바, 이는 高

麗本의 공통된 특징이다.

東人之文四六(卷 1~6)

보물 제711호.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32×19cm 크기인데, 高麗(1355) 刻 朝鮮初期 後刷한 것으로 보이는 木板本이다.

보물 제710호와 같지만 그 보다는 책의 외형이 약간 작은 편이다. 卷1의 서문 및 목차, 제1~2張의 오른쪽 위끝 일부가 훼손되었다.

東人之文四六(卷 7~9)

보물 제715호.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31.8×19.7cm 크기이며, 高麗(공민왕 초기) 刻 後刷한 木板本이다.

이 책의 내용은 보물 제710호와 같으나, 다른 『東人之文』이 福州板인데 비하여 이 책은 晋州板으로서 유일한 孤本이다. 福州板과는 板式에도 다소 다른 것이 있으며, 또 卷7 마지막에 「晋州牧開板」이라는 刊記가 있어 그 刊行地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마지막 권에는 跋文이나 또 상세한 刊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 책밖에는 남아 있는 것이 없어서 상고할 길이 없다. 다만 『東人之文』의 편자인 崔瀣의 문집 『拙藁千百』의 간기를 보면 「至正十四年甲午 八月日 晋州開板」이라 하였고, 이어서 邑戶長·刻手(正連·行明·思遠·高清烈) 및 관여한 사람의 관직과 이름이 列記되어 있다.

그 『拙藁千百』과 이 책의 板式이 일치하며, 또 이 책의 刻手 이름이 「正」「高」로 魚尾에 음각되어 있으니, 正은 곧 正連, 高는 高清烈임을 바로 알 수 있어 이것이 『拙藁千百』을 開板할 때에 같은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⑰ 慶國寺木刻幀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경국사 극락전에 봉안된 세로 177cm, 가로 176cm의 조선시대 목각탱화. 보물 제748호. 너비 약 30cm 정도되는 판목 5매를 잇대어, 중앙의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모두 13구의 불·보살을 高浮彫로 새겼다.

본존은 커다란 광배를 배경으로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하였고, 광배 위로 뻗은 광선 위에 모두 7구의 化佛이 조각되어 있는데, 아마도 過去七佛을 나타낸 듯

하다. 사각형에 가까운 넓적한 얼굴에 가늘고 긴 눈, 넓적하고 평평한 코 등 양감이 결여된 본존의 얼굴모습은 형식화가 정착된 조선 후기 불상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얼굴에 비해 왜소하고 위축된 신체에는 通肩의 법의를 걸치고 있는데 두꺼워서 신체의 윤곽이 거의 드러나지 않으며, 옷자락이 裳懸座를 이루며 대좌 아래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광배는 舟形의 擧身光으로, 윗부분에는 唐草紋을 화려하게 조각하고 아래는 중첩된 산 모습을 조각한 특이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광배 주의에는 도식화된 연꽃잎을 두르고 주위에 화염문을 배열하였는데 역시 형식화되었다.

본존의 좌우에는 觀音菩薩과 大勢至菩薩이 협시하고, 그 주위를 여섯명의 보살과 阿難·迦葉·增長天·持國天 등이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위쪽의 좌우에는 연화좌 위에 北方毘沙門天王·西方廣目天王이라고 쓴 표지판을 올려놓아 像을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배치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팔보살을 배열한 아미타팔대보살화의 구성을 이룬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천 용문사목각탱과 동일한 형식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조각수법이 둔중하고 양감이 결여되어 있어 형식화된 면이 많이 보이고 있으나, 고부조로 조각되어 圓刻像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또, 인물의 구성에 있어서 횡적 혹은 종적으로 질서정연하고 단순하게 인물들을 배열한 다른 목각탱화들과 달리, 본존을 중심으로 권속들이 둥글게 둘러싸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단조로움을 피하고 있다.

조각수법이나 형식 등으로 보아 19세기 후반에 조성된 작품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몇 예에 불과한 조선 후기 목각탱화의 하나로서 당시 아미타신앙의 일면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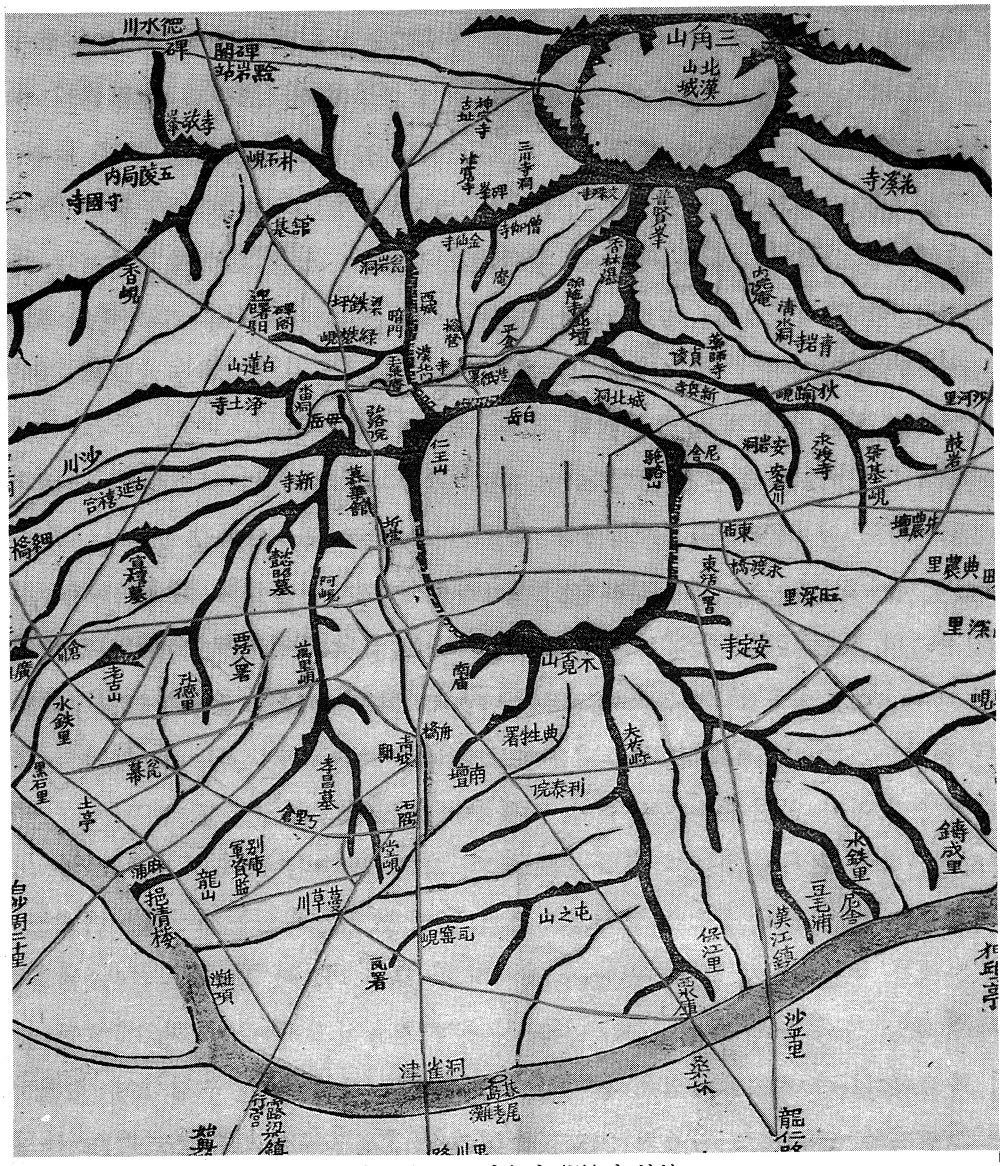
⑱ 大東輿地圖

1861년(철종 12) 金正浩가 제작한 分帖折疊式 우리나라 전국지도로, 축적은 약 16만분의 1로서 남북 22층으로 되어 있고, 각 층은 세로 30.2cm, 가로 20.1cm 크기의 8폭으로 접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목판본이다. 보물 제 850 호가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잘 보존되고 채색도 훌륭하다.

각 층을 책의 크기로 접은 판의 크기는 실제거리가 동서 80리, 남북 120리가 되

도록 만든 것인데, 이 22층을 순서대로 접합하면 세로 7m, 가로 3m에 달하는 커다란 한 장의 한국전도가 된다.

지도 첫머리인 제 1 층에는 좌표와 地圖標, 地圖類說, 서울의 都城圖, 京兆玉部圖 등이 실려 있다. 지도에 따른 축적표시는 되어 있지 않으나, 좌표에 方眼을 그리고 '每方十里'라 표시하여 사실상 축적이 표시된 셈이며, 읍과 읍 사이의 도로에



大東輿地圖중 서울의 都城안 부분

10리마다 눈금을 표시하여 거리와 축적을 알기 쉽도록 표시하였다. 서문의 성격을 지닌 〈지도유설〉에는 지도제작의 경위와 지도의 중요성, 지도의 도법, 지도의 실용가치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끝으로 전국 해안선의 길이와 6대 간선도로의 총길이를 기록하였다.

지도유설에서 김정호는 먼저 地圖와 地誌의 기원을 말하고, 그것들이 가지는 중요성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정치·경제·국방·학문연구의 모든 분야에서 地圖와 地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그 편찬목적을 밝혔는데, 지도제작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리는 중국인 裵秀(224~271년)의 6體가 정확히 측정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그 내용을 보면,

① 分率, 즉 지형의 넓고 둥근 도수를 나누는 것이며

② 准望, 즉 이곳과 저곳의 형체를 바로잡는 것이며

③ 道里, 즉 거리의 수를 정하는 것이며

④ 高下의 측정이며

⑤ 모나고 비뚤어진 것의 측정이며

⑥ 둘린 것과 곧은 것의 측정이다.

〈대동여지도〉의 제도원리는 『청구도』와 같다 하더라도 그 표현형식과 내용 등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청구도』에서의 미비점이었던 圖式이나 지점의 명시, 산맥의 표현, 註記 등이 새롭게 바뀌었고, 기입된 내용으로는 산과 산줄기·하천·바다·섬·마을을 비롯하여 역참·창고·營衙·烽燧·陵墓·坊里·牧所·鎭堡·邑治·城址·古山城·古縣·온천·도로 등으로 『청구도』와 큰 차이는 없지만 지형의 표시와 하천·교통로 등이 자세하고 정밀하다.

특히, 산맥의 표시방법은 이전의 지도들과 많은 차이가 있어, 『청구도』나 이전의 지도들은 산을 연속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산맥을 표현하였는데 『대동여지도』에서는 산맥을 추상화하여 선과 면에서 표시하고 있는 바, 이 방법은 선의 넓고 좁음과 형태로 산의 모양과 크기 및 분수령과 하천유역을 뚜렷이 파악할 수 있는 점이 특색이다. 이 지형표시법은 산지를 약 45°각도로 위에서 투영하여 얻을 수 있는 그림자의 모양으로 일종의 山岳投影法이다. 『대동여지도』의 또 다른 특징은 이전의 지도에서 즐겨 사용하던 설명식의 註記를 모두 없애고 지도의 1층에 범례

로서 지도표를 제시하여 지도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도식화하여 기호식으로 표현한 점으로, 지금까지의 주기를 중시하던 지도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근대적 면모로의 획기적인 진전이다. 지도표의 제시항목은 모두 14개항인데, 각 항목을 다시 1~3으로 세분하여 전부 23개항을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대동여지도』의 정확성을 현재의 지도와 비교하면, 서해안과 남해안의 해안선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동북부지방의 압록강 상류지방, 그리고 동해안의 울진 부근이 현재의 지도와 차이를 나타내며, 위도상 차이보다 경도상의 차이가 많다. 이것은 당시 정확한 천문시계가 없었고, 우리나라의 교통로가 남북방향으로 발달되어 동서방향의 도로가 적었으며, 남북으로 발달된 산지관계로 동서거리의 측정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지도 가운데 가장 정밀한 세밀도로서, 전체적으로는 이전의 지도보다 발전하여 현재의 지도와 근사할 정도로 정확하다. 또한 지도에 표기된 지명의 총수가 1만 2천으로 행정적인 내용이나 자료도 풍부하며 역참·진보·성지·고산성·관읍 등 군사적인 측면에도 긴요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김정호는 『地球前後圖』(1834)의 판각 등을 통하여 서양식의 경위도식 지도제작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방안조직(grid system)을 이용한 전통적인 동양의 지도제작방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동서양의 지도를 참고하고, 간이측량 및 관측을 통하여 독창성을 지닌 지도를 완성한 것이다. 그리하여 지도학상으로는 물론 민족문화에 깊이 빛나는 걸작을 만든 것이다.

『대동여지도』의 板本 중 1매가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목판본 지도는 국립중앙도서관에, 필사본은 규장각도서관 등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다. 1936년 경성제국대학에서 축소판 영인본이 나왔고, 광복 후 2차에 걸쳐 영인되었다. 1980년 경희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에서 축소, 영인하였다.

⑲ 首善全圖

首善은 首善之地 즉, 나라 안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땅을 이름이니 首善全圖는 곧 1824년(순조 24) 경에 金正浩가 제작한 것으로 전하는 서울시가도이다. 세로 25.4cm, 가로 22.2cm이며 부분채색한 한장의 목판인쇄본 지도이다.

이 지도는 남쪽으로 한강을 한계로 하여, 북쪽으로 도봉산, 서쪽으로 마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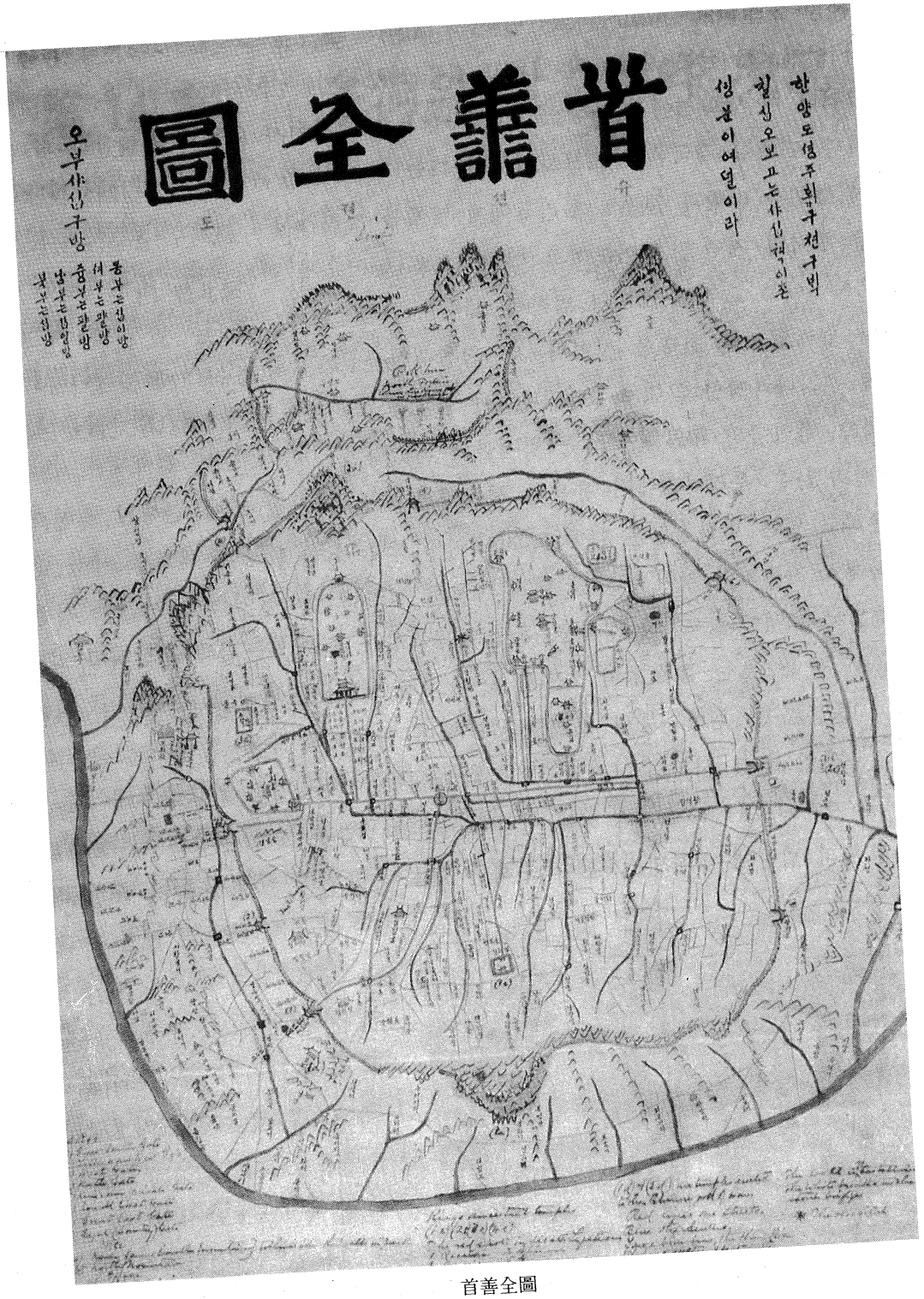
산리, 동쪽으로 안암동·답십리까지 포함하고 있다. 실측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선이 곱고 산세가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으며, 다른 지도들보다 필법이 매우 섬세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도성을 비롯하여 주요한 도로·절·시설, 그리고 성곽주위의 동리 이름과 산까지 기록되어 있다. 시가지구획은 물론 골목길까지 그려져 있는 상세한 시가지도이다.

김정호는 이밖에도 靑丘圖를 비롯하여 大東輿地圖, 大東地誌, 地球圖 등을 집필 제작하였으며, 이중에서 특히 대동여지도 2첩은 우리나라 初有의 정밀, 방대한 지도로서 이를 완성하여 나라에 바치자 당시 쇄국정책을 고집하던 興宣大院君은 국가의 기밀을 누설한다는 罪目으로 그를 獄死케 하고 刻板은 모조리 불태워 버렸는데 수선전도는 그러한 시대적 禍를 모면한 유일한 刻板으로 현재 그 원판은 高麗大學校 博物館에 收藏되어 판각인쇄기술을 고증해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보물 제853호로 지정되어 있다.

⑳ 妙法蓮華經

불경의 하나로 '법화경'이라 약칭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天台宗의 근본경전이며, 현재 한국불교 근본경전의 하나로서 불교전문강원의 隨意科 과목으로 채택되고 있다. 7권 28품. 『華嚴經』과 함께 한국불교사상의 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경전이다. 예로부터 모든 경전들 중의 왕으로 인정받았고, 초기 대승경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불경인 이 경은 기원 전후에 신앙심이 강하고 진보적인 사람들에 의하여 서북인도에서 최초로 小部의 것이 만들어졌고, 2차에 걸쳐 증보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종류의 한역본 중 鳩摩羅什이 번역한 『묘법연화경』 8권이 가장 널리 보급, 유통되었다. 28품으로 된 이 경은 그 전체가 귀중한 교훈으로 되어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제25품 〈觀世音菩薩普門品〉이 관음신앙의 근거가 되어 특별히 존숭을 받아왔고, 제11품 〈見寶塔品〉은 보살 집단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불탑숭배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다보탑과 석가탑 조성에 모체가 되기도 하였다. 제15품 〈從地涌出品〉에서는 大地下의 허공 속에 살고 있던 보살이 대지의 틈바구니로부터 솟아오르듯이 나타나 허공에 서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 광경을 오랫동안 표면에 나타나지 못했던 보살집단이 강력한 세력으로 출현하게 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首善全圖

또 제 16 품 〈如來壽量品〉은 영원한 생명, 근원적인 생명으로서의 부처를 體證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보살들의 새롭고 깊은 佛陀觀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화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으로 평가되고 전승된 것은 會三歸一思想이다. 三乘이 결국은 一乘으로 歸一한다는 이 사상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여 聲聞과 緣覺과 菩薩의 무리들에게 맞게끔 가지가지의 法을 설했지만, 그것이 모두 부처의 지견을 열어보이고 깨달음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十方佛土에는 오직 一佛乘의 법만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이 회삼귀일사상은 『화엄경』의 圓融無碍思想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꽃을 피워서 한국불교의 전통을 會通的 歸一佛教로 이끌었고, 한민족의 和思想에도 큰 밑거름이 되었다.

『법화경』은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불교경전 가운데 가장 많이 간행된 경전으로 현존하고 있는 법화경판은 34종 3,036매이며 또한 같은 내용의 책으로 가장 많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1989년 현재 국보로 지정된 법화경이 3개, 보물로 지정된 법화경이 22개인데, 그 중 성북구 내에 있는 3개가 동일인에 의해 소장되고 있다.

보물 제 962 호는 木板本의 2권(권 6~7) 1책으로 권말에 '施主前晉陽板官金○○'·'居昌郡夫人劉氏' 등의 墨書識記가 있어 이들의 시주에 의하여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시기는 고려말경으로 추정된다. 지정명칭은 妙法蓮華經이다.

보물 제 960 호는 1382(우왕 8)에 판각된 小字本 『법화경』의 후쇄본 및 覆刻本이다. 李穡의 발문에 의하면, 계환이 주해한 舊本이 글씨가 커서 志禪이 다시 작은 글씨로 써서 壽延君 王珪와 壽寧翁主 王氏 등의 시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7권 1책의 이 판본은 권4~7이 후쇄본이고 권 1~3이 복각본이며, 지정명칭은 妙法蓮華經이다.



妙法蓮華經 卷 4의 卷首와 表紙(보물 제 961 호)

보물 제 961 호는 4권(권4~7) 1책의 1405년 안심사에서 간행한 妙法蓮華經이다. 권말의 權近의

발문에 의하면, 조계종 大選인 信希 등이 耆老를 위해 보기에 편리하도록 中字로 간행하기를 원하였는데, 성달생·成槪 형제가 상중에 이를 듣고 선친의 追福을 위하여 필사한 것을 信文이 안심사에 가지고 가서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包背裝의 청색명주로 된 표지가 남아 있고, 그 위에 '妙法蓮華經 卷 第四之七'이라는 朱絲 바탕에 金泥로 쓴 제첨이 붙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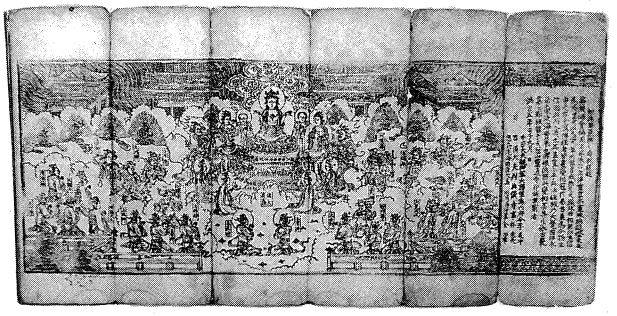
㉑ 大方廣圓覺略疏注經「卷下」

1988년 12월 28일 보물 제963호로 지정. 성북구내 개인소장. 세로 34.2cm, 가로 19cm의 1卷 1册. 楮紙, 형식 包背裝, 제작년대 고려말~조선초. 現狀은 木板本, 四周單邊, 全郭 22×56cm, 有界, 全葉 20행 13자, 註 雙行. 板首題는 下一, 卷子本形式의 板式에서 10行씩 찍어내어 包背裝으로 製册되었다. 상단에 墨書頭注가 있다.

이 책은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을 唐나라 宗密이 간략하게 注疏한 것이다. 판각기법이 宋板本을 飜刻한 續藏系列의 高麗板木으로 다소 後刷의 기미가 있다. 보물 893호, 938호와 동일한 판본이다.

㉒ 大方廣佛華嚴經疏「卷 四十一」

1988년 12월 28일 보물 제964호로 지정. 성북구내 개인소장. 세로 31.8cm, 가로 10.7cm 1卷 1帖. 지질 楮紙, 帖裝형식이다. 당나라 澄觀述, 송나라 淨源 錄疏注經. 現狀은 木板本, 上下單邊, 上下間 23cm, 有界, 全葉 20행 15자. 張크기 31.8×52.7cm(26丈 연결). 앞 표지는 紺紙인데 題簽양식의 長方形 金泥雙線안에 「大方廣佛華嚴經疏 卷第四十一」의 經名이 금니로 쓰여져 있다. 뒷 표지와 권말 第26丈 13行 이후는 缺落되어 있다. 卷首에 23×10.7cm 크기의 四周雙邊 안에 「刻注華嚴經都變相緣起」가 나오고 이어서 23×51.6cm 크기의 經變相圖가 묘사되어 있다.



大方廣佛華嚴經疏 緣起銘 및 變相圖
(보물 제964호)

이 화엄경소는 大覺國師 義天(1055~1101)과 친교가 있었던 宋나라 淨源(1011~1088)이 註解한 120卷本가운데 제 41권이다. 卷首에 실린 「刻注華嚴經都變相緣起」를 보면 고려 恭愍王 21년(1372)에 五冠山靈通寺에서 印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注華嚴經板은 대각국사가 入宋求法時에 가져온 것이라 하였다. 이를 보면 이 화엄경소는 대각국사와 宋의 淨源과의 친교에 의해서 가져온 宋板에서 印出한 것임을 알 수 있고 卷首의 변상도는 고려 공민왕 21년에 새긴 것임을 알게 한다.

또한 이 책은 보물 890호, 891호와 인쇄상태등 모든 조건이 비슷하여 이들의 간행년도를 확실히 알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卷首의 華嚴經都變相이 처음 등장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㉓ 六經合部

1988년 12월 28일 보물 제 965 호 지정. 성북구내 개인소장. 가로 29cm, 세로 17.4cm 1册. 지질 楮紙, 형식 線裝. 編者 미상. 現狀은 木板本, 四周單邊, 半郭 19.8×13cm, 無界, 半葉 8행 17자. 金剛經末에 "正統五年庚申(1440) 華岳山永濟庵開板 施主定菴"이라고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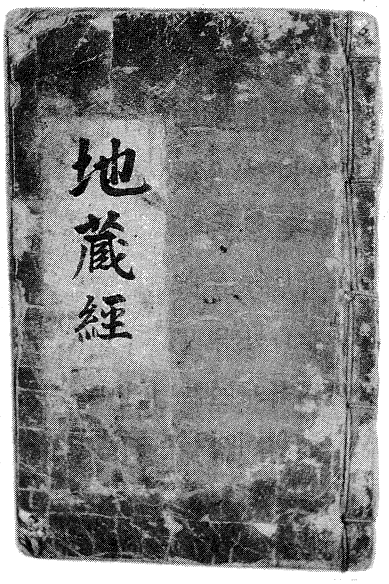
이 책은 권말에 甲寅小字의 成化 8년(1472)에 쓴 金守溫의 印成跋文이 있어 仁粹王妃에 의해 대대적으로 印出한 것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조선 초기에 널리 유통되었던 金剛般若波羅密經, 普賢行願品, 大佛頂首楞嚴神呪, 阿彌陀經, 法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觀世音菩薩禮文 등 6個經을 合刊한 책인데 이중 금강경 권말에 世宗 22년(1440) 華岳山 永濟菴에서 定菴의 시주로 開板되었음이 표시되어 있다. 金守溫이 跋文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존 經板에서 印出해 낸 것인데 인쇄상태가 매우 깨끗하다.

㉔ 地藏菩薩本願經「卷上·中·下」

1988년 12월 28일 보물 제 966 호로 지정. 성부국내 개인소장. 가로 31.8cm, 세로 20.5cm 3卷 1册. 지질 楮紙, 형식 線裝. 저자 唐나라 法燈 譯. 現狀은 木板本, 四周雙邊, 半郭 23.7×15.5cm, 有界, 半葉 7행 15자. 卷首에 經變相圖 祝願牌 神衆像이 묘사되어 있고 표지에는 黑書의 「地藏經」이라 쓴 題簽이 붙어 있다.

이 經은 世宗의 둘째딸 貞懿公主가 돌아간 남편 安孟聃(1415~1462)의 명복을 빌

기위해 睿宗 원년(1469) 6월에 水陸儀文 結手文 小彌陀懺 妙法蓮華經과 地藏經을 간행하여 그의 願刹인 三角山道成菴에 留置하였는데 이 傳本은 그중 지장경에 해당한다. 跋文은 金守溫이 筆書하였고 刻手는 당시 이름이 알려진 權頓一, 史富貴, 高末終 등 8명이 관여하였다. 그런 까닭에 卷首의 변상도와 본문 글씨의 판각솜씨가 뛰어나서 돋보이며 一流刻手임을 알 수 있다. 이 刊本은 조선조 왕실의 불교신앙의 한 유형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地藏菩薩本願經 表紙(보물 제966호)

㉕ 詳說古文眞寶大全前集「卷 七～八」

1988년 12월 28일 보물 제967호로 지정. 성북구내 개인소장. 세로 28.5cm, 가로 20cm 2卷 1冊. 지질 楮紙, 형식 線裝. 저자 黃堅(宋～元) 編. 現狀은 庚午字本, 四周單邊, 半郭 21.7×15.2cm, 有界, 半葉 9행 15자. 註 雙行, 內向黑魚尾. 板心題 眞寶大全. 卷8 第22丈이후 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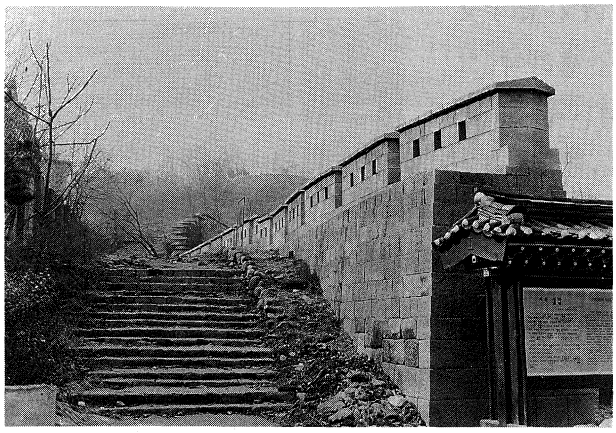
이 책은 文宗 즉위년(1450)에 당대의 명필가인 安平大君 瑢의 글씨를 바탕글자로 삼고 銅으로 鑄成한 활자인 庚午字로 찍은 것이다. 이 활자는 안평대군이 世祖의 찬탈을 반대하다 賜死된 뒤 바로 녹여 乙亥字를 주조하였기 때문에 그 印本이 매우 희귀하다.

Ⅱ. 史蹟 및 有·無形文化財

1. 史　　蹟

① 서울城廓

鐘路區·中區·城北區·龍山區·西大門區 일부를 지나며 서울의 주위를 둘러싸


서울성곽(三仙地區)

고 있는 연장 약 17km에 달하는 조선시대의 석축도성. 1963년 1월 2일 사적 제 10 호로 지정되었다. 성북구에는 돈암동에서 성북동에 걸쳐 소재하고 있으며 국유이다. 현재 남대문·동대문 등의 성문과 暗門·水門·女墻·甕城 등의 방어시설을 갖추고 있다.

건국초 太祖는 한양천도를 결정하고 1395년 궁궐과 종묘를 지은 뒤에 都城築造都監을 설치하고 鄭道傳에게 성터를 측정·조사케 하여 城廓築城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이듬해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 1 단계 공사가, 그 해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제 2 단계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연인원 197,470명의 民丁을 동원, 성벽은 白岳·駱山·南山·仁旺山의 능선을 따라 600尺을 한 단위씩으로 축성구역을 97區로 나누어 정하였는데, 白岳의 동쪽으로부터 천자문의 千字로 시작하여 白岳 서쪽의 弔字區城으로 막음하였다.

工事는 每字區間 600尺을 6등분하여 每工區에 判事·副判事·使·副使·判官 등 12명을 임명하고 民丁을 독려하여 견고하게 축성하는 책임을 부가시켜, 책임진 부분에 해당하는 城壁石에 官職과 郡名을 새기도록 해서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였다. 높고 험한 산에는 15尺 높이의 돌로 쌓게 하였는데 총석축길이는 1만 9,200尺이었다. 평지는 흙으로 쌓았는데 너비는 아랫부분이 25尺, 윗부분이 18尺, 높이 25尺이며 그 단면은 사다리꼴을 이루는 盛土版築을 하였는데 토축의 둘레는 4만 3,000尺이었다. 동대문 부근 청계천에 있는 水口에는 虹蜺(雲梯)를 쌓고 그 좌우에는 석성을 축조하였다. 홍예의 높이는 16척, 석성등을 포함한 길이는 1,050尺이었다.

城에는 4대문과 4소문을 내었으니, 4대문은 東의 興仁之門, 西의 敦義門, 南의 崇禮門, 北의 肅淸門을 말하고, 4소문은 東北의 弘化門, 東南의 光熙門, 西北의 彰義門, 西南의 昭德門을 말한다. 그런데 동대문(興仁之門)에만 옹성을 쌓았고 숙청문은 暗門으로 하여 門樓를 세우지 않았다. 대략의 공사는 이렇게 끝났지만 남대문은 1396년에, 동대문의 옹성은 이듬해 4월에야 완성을 보았다.

1422년(세종 4)에 이 성을 대대적으로 수축하여 토축부분을 모두 석축으로 바꾸어 높여 쌓고 석재를 약 2:1 길이 비율의 장방향으로 많이 다듬어 쌓았으며, 여장도 쌓았고 수문도 2개 더 만들었다. 이 役事에 동원된 인원은 전국에서 약 322,000여명이었다. 이 때의 개축으로 도성은 둘레 8만 9,610尺, 높이 40척 2촌, 여장 4,664堞, 稚城 6군데로 되었으며, 曲城 1군데, 城廓 15군데를 만들었다.

그 후 1426년(세종 8) 修城禁火都監을 두어 성문과 성벽을 보호하게 하였고, 1447년 남대문을 다시 세웠고 1479년(성종 10) 남대문을 중수하였다. 또한 1451년(문종 1) 1월부터 경기·충청의 水軍 3,000명으로 성벽을 수축하였으나 임진왜란의 참변을 당한 뒤 1616년(광해군 8) 부분적인 수축을 하였고, 1704년(숙종 30) 3월부터 약 5년에 걸쳐 五軍營에 분담하여 둘레 9,975보, 城堞 7,081개의 대대적인 수축을 하였다. 또한 1743년(영조 19) 부분보수를 하였고 성첩도 灰粉으로 단장하였으나 1869년(고종 6) 동대문의 개축을 마지막으로 도성의 수명이 다하였다.

그러다가 日人들이 관여하면서 소위 京城市區域改修計劃을 만들고 성문과 성벽 일부를 헐어 南大門, 東大門과 肅淸門, 虹蜺門이 남았었고 성벽은 三淸·城北·獎忠洞 일대가 남았었으나 서울시 주관으로 1963년, 1972년, 1976년에 걸쳐 홍예문에 문루(光熙門)를 세우고 성벽도 거의 보수개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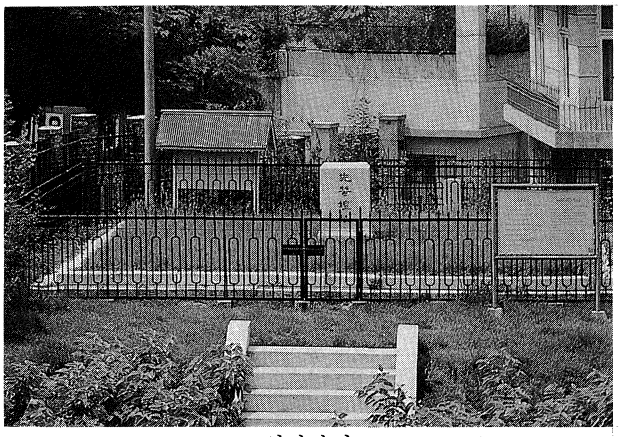
이처럼 서울성곽은 태조 때 창축되어 세종 때 개축되고 숙종 때의 수축을 거쳐 오늘에 이른 것인데, 축조방법과 돌의 모양이 각기 달라 세 시기의 성벽은 쉽게 구분되는 바, 조선시대의 태조·세종·숙종으로 이어지는 축성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② 先蠶壇址

先蠶의 儀는 우리나라에서는 高麗 초기에 시작되었고 朝鮮朝에 들어와서도 親蠶禮는 왕비 所任中의 하나였으며 世宗도 양잠을 크게 장려하였다. 각 道마다 適地를 골라 뽕나무를 심게 하였으며 蠶室을 지어 누에를 키우게 하였다.

城北洞 64번지에는 先蠶壇이 있었다. 규모는 538坪 면적에 2丈 3寸의 크기, 2尺 7寸의 높이이다. 사적 제 83 호로 보존되고 있다.

선잠단은 조선시대 역대왕비가 누에를 길러 명주를 생산하기 위하여 蠶神으로 알려진 중국 황제의 왕비였던 西陵氏를 배향하는 壇을 쌓고 제사지내던 곳이다.


선잠단지

성북동에 있었던 선잠단은 成宗 2년(1471) 3월에 初創하였고 成宗 8년에는 昌德宮苑에 採桑壇을 신축하여 왕비의 親蠶禮를 거행하였으며 中宗 원년(1506)에는 여러 道의 蠶室을 서울로 집결토록 하였다.

현재 강남의 蠶室洞은 그런 잠실이 있었던 지역이며 韓末까지 樹齡이 3～400년 되는 뽕나무가 살아 있었는데 현재는 枯死되어 밑둥부분만 남아 있으며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 1 호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선잠단을 쌓은 방법은 社稷壇과 같게 하였으나 단의 남쪽에는 한 段 낮은 댓돌이 있고 그 앞쪽 뜰에 상징적인 뽕나무를 심고 궁중의 잠실에서 키우는 누에를 먹이게 하였다. 이 의식은 매년 3월에 거행하다가 1908년 7월 선잠단은 先農壇의 신위와 함께 社稷壇으로 옮겨 배향되면서 여기는 遺址로 남게 되었으며 현재는 城北國民學校 옆 길거리 여러 집들에 둘러싸인 그 위치의 터에 '先蠶壇址'라 쓴 팻말을 세우고 주변을 철책으로 쌓아 보존하고 있다.

③ 懿　　陵

1970년 5월 26일 사적 제 204 호로 지정하였으며 陵域 114,658坪으로 성북구 석관동에 있다. 朝鮮 제 20 대 景宗과 同繼妃 宣懿王后 魚氏의 陵이며, 寧陵式의 雙陵制度로 배치되어 있다.

경종은 肅宗과 禧嬪 張氏의 소생으로 숙종 14년(1688) 10월 28일 昌慶宮 就善堂에서 탄생하여 숙종 46년(1720) 慶熙宮 崇政門에서 즉위하였고, 경종 4년(1724) 8월 25일 창경궁 環翠亭에서 승하하여 동년 12월 16일 東部 仁昌坊 石串里(현 石串洞)에 葬于本陵하였다.

선의왕후 魚氏는 咸原府院郡 領敦寧府事 有龜의 딸로서 숙종 31년(1705) 10월 29일 탄생, 숙종 44년 15세로 世子嬪이 되었고 경종 즉위와 더불어 왕비로 進封되었으며 英祖 6년(1730) 6월 29일 慶熙宮 魚藻堂에서 26세의 나이로 소생없이 돌아

가자 同年 10월 19일 景宗과 같은 장소에 陵域을 조성하였다.

陵은 서울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陵基中 유일하게 왕릉과 왕비릉이 같은 언덕에 앞뒤 서로 엇갈리는 雙陵의 制로 陵域을 조성하였다. 즉 왕릉과 왕비릉이 각각 單陵의 象設을 모두 갖추었으나 뒤에 있는 왕릉에만 曲墻이 있어 雙陵임을 나타낸 배치이다. 이러한 前後陵設制度는 顯宗 14년(1673)에 東九陵域內 元陵(英祖·繼妃 貞純王后 金氏, 1776년 조성) 자리에 있던 왕릉을 英陵(世宗·昭憲王后 沈氏, 1469년 조성) 옆에 모신 寧陵(孝宗·仁宣王后 張氏)에서 처음 나타난다.

앞뒤로 배치하면서 쌍릉 형식을 취한 것은 兩陵을 나란히 놓을 적에 어느 한쪽이 風水地理에서 말하는 이른바 生氣가 왕성한 正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우려하여 先後로 배치하여 양자를 모두 正穴에 있게 하고자 한 것이다.

陵石物의 배치며 전체적인 石物樣式은 明陵(肅宗·第1繼妃 仁顯王后 閔氏·第2繼妃 仁元王后 金氏, 1720~1757년 조성)과 같이 규모가 작고 간소한 厚陵制度를 택함으로서 續五禮儀에 따른 듯 하다. 王(后)陵 봉분 아래의 屛風石이 寧陵 이후 폐지되었음을 그대로 반영시키고 있으며 象設制度는 왕릉에는 曲墻 3面·欄干石 12間·魂遊石 1·明燈石 1·望柱石 1쌍·文石 1쌍·武石 1쌍·馬石 2쌍·羊石 2쌍·虎石 2쌍이며, 왕후릉의 象設은 丁字閣·水刺廳·望燎位·表石 1·紅箭門·齋室이 있다. 특히 왕후릉은 曲墻만 설치하지 않았을 뿐 石物은 왕릉의 象設과 동일하다.

表石에는 다음과 같이 陰記되어 있다.

景宗德文翼武純仁宣孝大王 崇禎紀元後 六十一年戊辰十月二十八日誕生 庚子即位甲辰八月二十五日 昇遐十二月十六日 葬于楊州南中梁浦天藏山申坐之原在位四年 壽三十七

繼妃敬純孝仁惠穆宣懿王后魚氏 乙酉十月二十九日誕生 戊戌册世子嬪庚子進封王妃 庚戌六月二十九日昇遐十月十九日 祔葬在下壽二十六

④ 貞　　陵

朝鮮 太祖의 繼妃인 神德王后 康氏(?~태조 5년)의 單陵이 지금도 성북구 정릉동에 있어 사적 제208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데 陵域面積은 90,621坪이다.

처음 능지를 정한 곳은 안암동이었으나 산역을 시작할 때 물이 솟아나와 지금의 중구 貞洞에 자리를 정하게 되었다. 그 뒤 태조가 돌아감에 제3대 太宗은 기


정 릉

왕부터 강비에게 지녔던 감정상 성안에는 능을 두지 않는 법이라 하여 그의 9년(1409)에 성밖의 沙乙閑 곧 지금의 성북구 정릉동 정릉자리로 능을 옮기었다.

신덕왕후는 黃海道 谷山府 출신인 康允成(判三司事贈象山府院君)의 따님으로 태조가 새 나라를 세우던 태조 원년(1392)에 顯妃로 책봉되었으며 태조 7년 8월 13일 判內侍府事 李得芬의 집에서 승하하였다. 태조는 능역을 皇華坊 北原(현 貞洞)에 奉陵하고 그 동편에다 齋宮으로 興德寺를 세우고 자주 行幸하였다.

遷陵前의 石物은 屛風石·欄干石·魂遊石·羊石·虎石·馬石·文人石·武人石·長明燈·望柱石 등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현재의 석물은 많이 생략된 曲墻 3면·魂遊石 1·明燈石 1·望柱石 1쌍·文石 1쌍·馬石 1쌍·羊石 1쌍·虎石 1쌍·丁字閣·水刺廳·望燎位·表石 1·紅箭門·齋室 등을 상설하였다.

表石의 陰記는 다음과 같다.

順元顯敬神德高皇后康氏 太祖高皇帝繼后 六月十四日 誕生壬申開國册封 顯妃丙子 八月十三日昇遐丁丑五月葬于漢城皇華坊 太宗己丑二月二十三日移葬于 楊州南沙阿里庚坐之原 顯宗己酉追祔太祖追上徽號順元顯敬光武三年己亥十一月追尊恭上 謚號曰 高皇后敬書前面與陰記庸伸小子之微忱焉

光武四年庚子(開國五百九年) 月 日

舊 貞陵의 석물 중 일부인 병풍석은 太宗 10년3(1410) 廣通橋(현 廣橋)로 사용하였으며 그 밖의 石材나 목재들은 太平館 건립시 부속재로 사용하였다.

太宗 9년(1409) 현 위치인 楊州 沙乙閑麓(현 貞陵)으로 천릉하였으나 宗廟에 祔廟하지 않아 존재조차 인식치 못하여 왕후의 능이라기보다 주인 없는 무덤에 불과하였다가 宣祖時 신덕왕후의 친정 후손이 國墓奉祀者의 軍役 면제에 따른 혜택을 보고자 貞陵의 소재파악을 시작, 이에 卞季良의 移葬祝文에서 그 위치를 겨우

찾아 寒食節 제사만 지내오다가 顯宗 10년(1669) 宋時烈의 계청으로 비로소 신덕왕후의 太廟配享을 하게 되었으며 본격적인 복구작업과 이에 따른 守護軍과 모든 象設을 구비하게 되었다. 이때에 현종은 10월 2일 敎書를 발포하고 科擧를 특별히 설정하여 성대하게 경축하였다. 封陵 設齋하던 날에는 비가 정릉동 일대에만 많이 쏟아졌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은 이 큰 비를 가리켜 억울한 원을 씻는 비라 해서 「洗寃之雨」라 하였다고 전한다.

貞陵의 願刹인 興天寺는 170여간으로 태조 6년 陵을 造營하고 그 동쪽에 세워 曹溪宗의 本山으로 삼았다. 이를 태종 9년 정릉의 천릉과 동시에 陵傍에 小菴을 만들고 新興寺라 개칭했으나 현종 10년에 이 절이 너무 陵寢과 가깝다 하여 다시 石門밖 含翠亭 遺址에 이건하였다가 正祖 18년(1794)에 현재의 장소인 敦岩洞으로 이건하였으며, 高宗 2년(1865)에 다시 興天寺라 하였다. 이 절에는 정면 3間, 측면 3間 多包系의 팔작지붕인 極樂寶殿을 위시해 冥府殿, 龍花殿, 七星閣, 獨聖閣, 萬歲樓, 僧房, 蓮花臺, 大房, 一柱門, 鐘閣 등의 건물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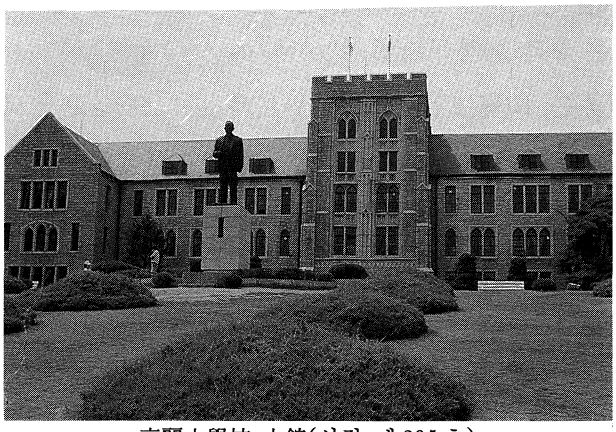
願刹이란 王(后)이 승하하면 능의 가까운 곳에 있는 사찰을 정하여 王(后)의 명복을 기원하는 願堂으로 域內外의 관리, 祭享時 두부공급을 하므로 일명 豆泡寺라고도 한다.

⑤ 高麗大學校 本館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내에 있는 이 건물의 규모는 연건평 3,223㎡(975坪), 지상 6층 石造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었으며 1981년 9월 25일 사적 제285호로 지정되었다.

이 건물은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普成專門學校의 본관으로서 1932년 당시 京城府 境外인 安岩里에 터를 잡아 1933년 9월에 착공하여 1934년 9월에 완공하였는데 당시 금액으로 19만원이 들었다. 본래 보성전문학교는 1905년(光武 9) 4월 당시 內藏院卿이었던 李容翊이 礪洞 지금의 수송동에 있던 露語學校 자리에 법률과 실업교육을 목적으로 개교하였으나, 그후 1910년 天道敎에서 인수, 안국동에서 두채의 목조 2층교사로 法科와 商科 전문과정을 교육하였다.

1932년 중앙고등보통학교 교주였던 金性洙선생이 인수, 현 안암동의 교지를 사들여 본관과 중앙도서관을 새로 짓고 오늘의 고려대학교 기틀을 마련하였던 것


高麗大學校 本館(사적 제 285 호)

이다. 이 건물의 설계자는 일제시대 창의적인 작품을 많이 발표한 바 있는 한국인 건축계의 개척자의 한 사람인 朴東鎭(1899~1981)이었고, 시공자는 일본인 후지따 고오지로오(藤田幸二郎)가 맡아 하였다.

평면은 H자(⊢⊣⊢)형으로 중앙부에는 5층으로 보이는 Gothic 城館과 같은 모습의 탑부를 두고 이의 1층을 현관과 현관홀로 하였으며, 이 탑의 전후로 주 출입구와 후면 출입구를 두었다. 金性洙의 착안으로 본관 현관 좌우 문설주에 호랑이의 頭像을, 그 후문 입구 좌우에는 무궁화를 새겨서 民族敎育機關으로서의 기상을 은연중에 나타내었다. 북측에 편복도를 두고, 복도의 남측에 큰 방들을 배치, 총장실을 비롯한 대학행정부서의 사무실로 사용한다. 또 평면의 좌우 돌출된 곳에는 큰 방을 두어 대회의실로 사용하고 있고, 복도의 동서 양 끝단에서는 계단과 화장실이 뒷쪽으로 붙게 되었다. 중앙 출입구와 중앙탑 최상층의 창문들은 첨두아취(Pointed arch)로 고딕양식을 취하고 또 이 건물 2층의 창호를 대부분은 첨두아취로 처리하였으나, 나머지 창문들은 수평아취(Flat arch)로 마무리하여 변화를 얻고 있다. 중앙탑 네 모서리는 후랫 버트레스(Flat buttress)를 붙여 고딕적인 성격을 더하였고 탑 꼭대기는 中世城館의 女牆과 같이 마무리 하였다. 지붕은 박공지붕이고 삼각형 도머(Dormer)를 두었고, 스레이트로 마감하였었으나 최근의 보수공사때 동판마감으로 하였다. 내부시설로 증기난방과 수세식화장실을 두어 당시로서는 최신식 건물이었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에 민족자본에 의하여, 또한 한국의 기술자에 의하여 세워진 최초의 교육기관으로서도 의의가 깊은 건물이다.

⑥ 高麗大學校 舊圖書館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내에 있는 연건평 4,089㎡(1,236坪), 지상 5층 규모의 石造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건물로 1981년 9월 25일 사적 제 286 호로 지정

받아 오늘에 이른다.

이 건물은 본관건축을 끝낸 이듬해인 1935년 6월에 착공하여 1937년 9월에 준공된, 현 고려대학교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중앙도서관이다. 설계자는 본관을 설계한 한국인 건축가 朴東鎭이었으며, 시공자는 미상인데 당시 금액으로 22만원의 공사비가 들었다고 한다.

평면은 L자형으로 남서 모서리에 고딕성관 모양의 탑부를 두고 이 곳에 주 출입구를 두었으며, 준공당시 1층에는 교수연구실 32개, 2층에는 250석의 대열람실을 배치하고 각 좌석마다 전기스탠드와 가죽을 씌운 회전의자들을 마련하였으며 3층에는 20만권의 장서를 보관할 수 있게 하였으며 3층 이상은 민속자료, 미술품 진열실로 꾸몄다. 출입구와 탑부의 창호들과 그리고 남측의 창호들은 첨두아취(Pointed arch)를 쌓았고 나머지 서측 창호들은 수평아취(Flat arch)를 튼 창문들이다. 특히 동남측 끝단에는 남측과 북측으로 돌출된 네 모서리에 고딕식 튜렛(Turret)들을 세웠고, 남측 창들 사이에는 후랫 버트레스(Flat buttress)를 세워 고딕성관풍의 탑과 더불어 기품있는 고딕양식의 풍취를 더해주고 있다. 설계에 참고로 한 것은 당시의 교수 吳天錫의 모교인 美國 듀크大學 圖書館 외관이었다고 한다.

현재 고려대학교는 중앙도서관 건물을 신축하고, 이 건물은 대학원동과 교수연구실로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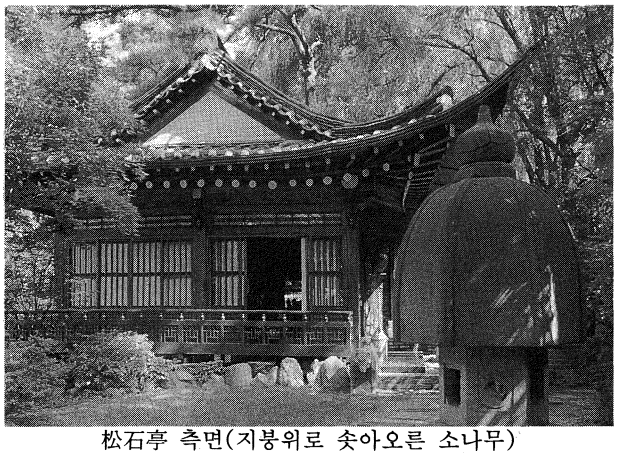
⑦ 城樂園

성북동 2번지 일대에 위치한 성락원 4천 3백여평이 1992년 12월 24일자로 사적 제 378 호로 지정되었다. 이곳 연혁에 대해 그 입구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本園은 哲宗 때(1849~1863) 吏曹判書 沈相應 별장이던 것을 義親王 李堈公이 別宮으로 사용하다가 그 후 아들 李鍵公이 살던 곳이다. 그 후 조상의 얼을 이으려는 沈氏의 후손들이 현재까지 보존하기에 이르렀다.

본래에는 약 6만평의 동쪽에는 藥圃·藥田·果樹園이 있었다. 狗蹲峰에서 發源한 玉水溪谷을 줄기 삼아 雙流洞天·龍頭假山·本齋·影池·心庭·松石池·茶庭·藥水泉으로 이어진다.

본원은 거의 원형으로 보존된 전통적인 私邸로서 都心 속의 幽谷清流와 太古風을 자랑한다. 東北間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두 갈래 개울물이 암벽사이에서 합류되는 雙龍洞天치란 岩刻된 것을 正門으로 삼아 左青龍 右白虎의 풍수지리도 선명하다. 입구의 다리를 건너면 깊숙한 內園이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人造동산인 龍頭假山을 쌓았다.


松石亭 측면(지붕위로 솟아오른 소나무)

漸入佳景인데서 자연과 평화를 사랑하는 조상의 슬기가 간직된 곳이다.

위와같이 한글과 영문으로 쓰인 게시문은 이곳을 처음 찾는 이에게 큰 도움을 준다. 이곳에는 소나무·참나무·다래나무·등나무 등 우리 고유의 조경수가 연못가 및 산비탈에 우거져 암벽과 폭포, 수석과 더불어 조화의 극치를 이루는데 이곳은 일본식이나 서구식의 정원수가 전혀 없는 것이 특색이다.

또 이곳에는 암반을 막아 만든 연못이 있다. 이 연못에는 잉어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그 연못가에는 정자각형태의 11칸 짜리 건물인 松石亭이 높다랗게 앉아있어 아름다움을 더해주는데 이 송석정은 옛날에는 선비들의 연회장으로 사용되었었으며, 일제 말기에 불탄 것을 1953년에 복원하였다.

그런데 이 송석정 방 안에는 1백년 묵은 소나무가 자리를 하여 기와지붕을 뚫고 나와 신비감을 주고 있다.

한편 이곳에는 여성교육의 전당 禮智院이 자리잡고 있다가 1986년 마포구 서교동으로 옮겨갔다. 또한 이 城樂園에는 옆의 山麓일대 고급주택가도 포함하고 있으며 濠洲大使官邸가 있다.

2. 重要 無形文化財

① 판소리

판소리는 1964년 12월 24일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었으며 기능보유자는 金順玉·丁榕薰·朴奉述·朴東鎭·韓甲珠가 있다. 성북구 정릉 2동에 살고 있는 韓甲珠의 보유종별은 판소리중 적벽가이며 1976년 6월 30일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판소리는 한 사람의 唱者가 한 鼓手의 북장단에 맞추어 긴 서사적인 이야기를 소리(唱, 노래)와 아니리(白, 말)로 엮어 발림(몸짓)을 곁들이며 口演하는 창악적 口碑敍事詩이다. 판소리는 전통적으로 광대라고 불려진 하층계급의 예능인들에 의하여 가창·전송되어 왔다.

판소리가 언제부터 불려왔는지를 아는데는 最古의 문헌이 朝鮮 英祖 30년 柳振漢의 『晩華集』의 〈춘향가〉를 넘지 못하지만, 판소리가 재인 광대들이 벌이는 판놀음에서 여러 놀음 틈에 끼여 한 놀이로 구실을 하던 것은 훨씬 거슬러올라갈 것으로 짐작되어, 어쩌면 조선 전기 문헌에 보이는 〈廣大笑謔之戱〉가 판소리의 모태가 되었을 것으로 봐서 조선 전기에 원초 판소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기도 하며 판소리를 부르던 倡優들이 신라 때부터 八關會나 儺禮에서 歌舞百戱를 벌렸던 것을 두고 신라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신라의 仙樂이나 倡樂에 판소리의 근원을 대기도 하나 분명히 밝혀진 바는 없다. 판소리는 마을굿에 딸린 판놀음에서 생겨나서 여러 놀이 틈에 끼여 놀이구실을 하다가 판놀음이 마을굿과 떨어져 따로 벌이는 놀음으로 발전하면서 순조때 송만재의 『관우희』에 보이듯이 열두마당이나 생겨 다른 놀음보다 가장 인기있는 놀이로 자란 것으로 생각된다.

판소리가 사대부들로부터도 인기를 얻게되자 민중의 판놀음 뿐만 아니라 사대부의 방안놀음으로도 끼이게 되었다. 또 여러가지 판소리 가운데 〈강릉매화가〉·〈변강쇠타령〉과 같은 서민적인 재담으로 된 것은 도태되고 〈적벽가〉·〈심청가〉·〈춘향가〉와 같이 사대부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진 것은 계속 발달하여 오늘날과 같이 방대한 모습으로 된 것이라 하겠다.

판소리 最古 명창으로 이름이 전하여지는 이는 영조~정조 때 原初 판소리를 부른 것으로 보이는 禹春大 및 河殷譚·崔先達인데 이들의 판소리 음악사 자료는 전하여지는 것이 없다. 순조 무렵에는 權三得·宋興綠·牟興甲·廉季達·朴裕全과 같은 명창들이 나와서 판소리 調와 長短을 오늘날 판소리와 같은 모습으로 구성하여 판소리의 음악적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哲宗 때에는 朴萬順·李揆致·金世宗·丁昌業·宋雨龍과 같은 명창들에 의하여 판소리는 크게 확장되었으며 高宗 때 金昌煥·李東伯·宋萬甲·丁貞烈과 같은 많은 명창들이 나와서 판소리의 전성기를 이루었으니 그들의 판소리는 오늘날과 같은 밀도있는 음악성을 갖은 것

으로 보인다.

한말에 나라가 기울어지면서 판소리 또한 내리막길을 걸었다. 한말과 일제시대에 판소리를 이어놓은 명창들로는 張判介·朴重根·朴奉來·金正文·孔昌植·金奉鶴·정응민 등이 있었으며 林芳蔚·金演洙·姜章浣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광복 뒤에는 한때 여성창극이 성행하여 판소리는 더욱 쇠미하게 되고 1960년대에는 창극도 기울어졌다. 1960년대에는 판소리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朴東鎭이 판소리 다섯마당의 전판 공연을 시도한 것을 계기로 박초월·吳貞淑·成又香 등이 판소리 전판 공연을 가진 바 있으며, 1960년대 판소리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뒤 丁珖秀·박초월·鄭權鎭·朴奉述·韓承鎬 등이 보유자로 인정되어 사라져가는 판소리 전수에 진력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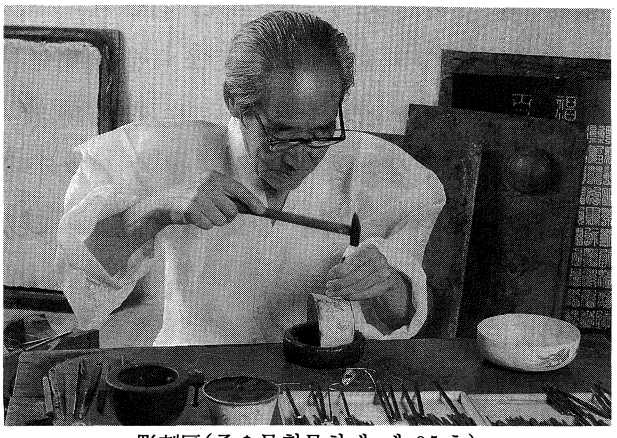
판소리가 발생할 당시에는 한마당의 길이가 그리 길지 않아서 한 歌客이 많은 종류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부를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판소리의 종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 가운데 春香歌·沈清歌·水宮歌·興甫歌·赤壁歌·裵裨將打令·변강쇠타령·장기타령·옹고집·무숙이타령·江陵梅花打令·신선타령 등 열두가지를 「판소리 열두마당」이라 일렀으나 판소리의 길이가 매우 길어지면서 한 歌客이 많은 소리를 부르기에 벅차게 되어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판소리 다섯마당」이라 하여 춘향가·심청가·수궁가·흥보가·적벽가만이 전승되고 있다.

판소리는 鼓手 한 사람이 북장단을 쳐 반주하는데 느린 진양, 중모리, 보통 빠른 중중모리, 빠른 잦은모리, 휘모리, 그밖에 엇중모리, 엇모리가 있어서 판소리의 극적내용의 緊迫과 弛緩에 따라 느리고 빠른 장단을 가려 짜며, 슬픈 界面調, 화평스러운 平調, 웅장한 羽調, 그밖에 씩씩한 설렁제(드렁조), 경쾌한 경드름(京調) 등이 있어서 판소리의 극적내용의 喜怒哀樂에 따라 슬프고 기쁜 調를 가려 짜서 음악이 辭說의 극적내용과 융합되는 훌륭한 극음악으로 되어 있다.

② 彫刻匠

금속세공을 담당하던 장인의 일종으로 1970년 7월 22일 중요무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기능보유자 金喆周(보유종별 彫刻)가 성북구 종암동 35번지에 거주하고 있다.

금속기의 표면에 平刻·透刻·高刻·肉刻·象嵌 등의 기법으로 문양을 새기는


彫刻匠(중요무형문화재 제 35 호)

조각장은 彫伊匠(또는 쪼이장)으로 불리는 것이 더욱 일반적이다. 조각 일은 入絲와 더불어 청동기시대 이후 우리나라 금속공예 의장기술의 중심을 이루어 온 대표적인 기술로서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칼자루에 조각과 입사기법이 병용된 청동기시대의 鐶頭太刀를 비롯하여 삼국과 통일신라의 고분에서 출토된 각종 금속장신구들은 조각기술의 전통과 우수성을 뒷받침해주는 좋은 예이다. 조각은 주로 고급기물에 쓰였기 때문에 그 수요층 또한 왕실·귀족 등 특수한 신분을 지닌 계층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조각장은 관청수공업체에 소속되어 제작활동을 전개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은을 다룬다 하여 銀匠의 명칭으로, 白銅匠·赤銅匠·生鐵匠 등 재료별로 분류된 다른 장인들과 함께 擧治署에 소속되었으며, 조선시대 이후에는 기술의 성격에 따라 보다 세분화된 조각장의 명칭으로 工曹의 本曹와 繕工監 등에 분속되었다. 근세 조선왕조에 있어서 「大典會通」에 따르면 京工匠 가운데 工曹에 매어 있던 장인수는 55種에 255명이며 그중 금속공예관계는 12종 80명으로써 약 3할을 차지하고 있다.

京工匠 체제가 붕괴되고, 개화의 추진과정에서 조각기술의 전통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1900년대초에 경공장의 체제를 일부 계승한 美術品製作所가 李王職의 직영으로 설립되면서 기술전통을 앞시기의 수준으로 복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는 바, 조각장 분야의 첫 기능보유자였던 金鼎燮도 이곳에서 기술을 배양하였으며 현재는 그의 아들 金喆周가 새로 기능보유자로 인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白金·金·銀·鐵·鉛·錫·亞鉛·알루미늄 등의 금속을 한 가지나 또는 합금한 것을 素材로 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금속면에 조각을 하는데는 강쇠로 만들어진 5센티미터 내외의 자그마한 정을 쓴다. 정에는 촛정·공군정·다질정·평다질정·비늘정·누깔정·움푹정·운풍정·갈기정이 있고 이 밖에 광을 낼 때 쓰이는

광치기와 콤퍼스의 구실을 하는 거름쇠와 소도리, 조이틀 등이 갖추어져야 하는 등 도구만도 수백점에 이른다. 조이질을 하는 무늬에는 壽福紋·草籠紋·蝙 紋·唐草紋·欄杆紋·四君子紋·十長生紋·山水紋·花鳥紋 등이 있는데 조선 말기 이후에는 특히 길상적 상징의미를 지닌 문양이 주류를 이룬다.

개화기 이후에는 서울 종로 廣橋川邊에 銀房都家가 집중해 있어서 金銀細工의 중심이 되었다.

③ 丹靑匠

단청일을 잘하는 장인을 말하며 1972년 8월 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되어 현재 기능보유자로는 李致虎와 元德文이 있는데 元德文(보유종별 丹靑)이 성북구 돈암동에 소재하는 신흥사에 거주하고 있다.

丹靑은 목조건물에 鑛物性顔料인 眞彩로 채색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예품과 조각물 등 모든 意匠에다 오색의 안료를 칠하여 화려하게 꾸미는 일과 건물 벽체에 그리는 장식화라든가 별도의 탱화(幀畫)까지 포괄한다. 丹護·丹碧·丹綠·眞彩·唐彩·五彩·畫彩·丹漆 등의 별칭이 있고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畫師·畫員·畫工·假漆匠·塗彩匠이라 했으며 승려인 경우에는 金魚 또는 畫僧으로 불렀다. 우리나라 丹靑은 삼국시대 高句麗 古墳등에서 이미 遺例를 찾을 수가 있다. 신라의 率居, 백제의 白加, 고구려의 曇徵이 모두 사찰에 벽화를 그린 畫僧이었고, 조선시대의 궁실·관아의 役事에도 圖畫署의 畫員이 종사하였다.

丹靑을 하면 목재의 보존에 유리하고 또 목재부분의 粗惡한 것을 가릴 수가 있으며 건물을 장엄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 丹靑에 쓰이는 안료로는 장단·石靑·三靑·石碌·荷葉·朱砂·石雄黃·胡粉·松烟·燕脂·磊碌·丁粉·群靑·乳金이 있으며 이 밖에 阿膠와 法油를 갖추어야 한다. 丹靑의 채색에는 猪筆을 쓰되 먼저 바탕에 假漆을 하고 그 다음에 草像을 그리고 彩畫를 한 다음에 本部에는 法油를 바르거나 漆을 올린다. 草像이란 毛面紙나 粉唐紙, 또는 楮壯紙에 墨線으로 무늬를 그려넣고 그 무늬에 따라 돋바늘로 구멍을 뚫어 그것을 假漆한 바탕에 대고 胡粉을 싼 성긴 천으로 두들겨 打粉을 하면 무늬가 옮는다. 이 공정을 草像이라 일컫는다.

丹靑의 무늬에는 긋기단청, 모루단청, 錦단청, 모루긋기단청, 금모루단청, 갖은

錦단청으로 나뉘어진다. 무늬의 종류에는 華紋·琯紋·飛仙紋·走獸紋·雲紋·暈紋으로 구분할 수가 있으며 이를 세분하면, 華紋類에는 海石榴華·寶相華·蓮華·圈頭合子·豹脚合暈·瑪瑙地·魚鱗旗脚·圈頭柿 등이 있고 琯紋類에는 琯子·簟紋·羅地龜紋·四出紋·劒環紋·曲水紋 등이 있고 飛仙紋에는 飛元紋·飛仙紋·가릉頻伽 등이 있고 飛禽紋에는 鳳凰紋·鸚鵡紋·鴛鴦紋 등이 있고 走獸紋에는 獅子紋·天馬紋·羚羊紋·白象 등이 있고 雲紋에는 吳雲·曹雲 등이 있는데, 이들 무늬들에는 또 제가끔의 변화에 따라서 千變萬化의 묘를 보여주는 바, 단청장의 최고의 경지는 여러가지 무늬를 초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別畫와 탱화 등을 주로 出草하고 설채하는 것을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

④ 小木匠

목제의 세간들을 만드는 기능자를 말하며 1988년 4월 2일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로 지정되었다. 지정된 기능보유자는 宋樞萬·千相源·姜大圭 등인데 강대규는 성북구 정릉3동 396－19에 거주하고 있다.

장롱과 궤함 등을 비롯하여 문방구 등의 세간들과 때로는 각종 木物, 즉 가마·수레·농기구·기타 도구류를 포함하며, 건축상으로는 大木에 대칭되는 용어로 쓰인다. 건축상 소목의 구실은 창호와 난간·닫집 등 건물에 부착되는 작은 시설물의 제작을 말한다. 고대에는 목수를 梓人·梓匠·輪輿라 했으며, 이는 수레에서 생긴 중국식 명칭이다. 신라에서는 재장이 속해 있는 관서를 磨典이라 했고, 대목에 해당하는 木尺은 별도의 典邑署에 속하였다.

소목장이라는 명칭은 고려 때부터 나타나며 조각장·나전장과 더불어 中尙署에 예속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에서는 일괄하여 木匠이라 하였는데, 대신 세분화한 車匠·船匠·桶匠·表筒匠·磨造匠·風物匠·鞍子匠·木 匠·木櫻匠을 두었다. 목장 중 소목에 대해서는 『고려사』와 조선초 세조 때의 기록에도 보이므로 대목과는 구분하여던 것 같다.

소목장의 기능은 목가구의 제작과 건축상의 소목 일을 포괄하고 있다. 조선 초기까지는 목가구가 주로 왕실과 상류계층의 소용으로 제작되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민간에 널리 보급되고 종류도 잡다해져 지역적인 특성이 현저해졌다. 더구나 지방에서는 목수를 초치해서 필요한 기물을 제작하는 자급자족 형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목가구는 일정한 규격품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 반면 건축의 소목 일이 급격히 줄어든 최근세 이후에는 수레나 가구의 제작에까지 자연히 확대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왕실이나 상류계층의 가구는 옻칠과 密陀繪·자개·대모 등 좋은 치레방법이 구사되었지만 서민사회는 제약이 많았고, 특히 선비들이 문방구의 과다한 겉치레를 기피하는 풍조로 말미암아 나무 자체의 재질을 살리려는 생각이 뚜렷하게 격조를 이루어 내었다. 南道가구가 紋木을 귀하게 여기는 점이라든가, 문목판의 가장자리에다 回裝기법으로 뇌문을 돌리는 섬세한 솜씨 등은 모두 그에 연유한다.

⑤ 針線匠

바느질로 옷을 만들던 장인을 말하며 1988년 8월 10일 중요무형문화재 제89호로 지정되었다. 그 첫 지정자는 鄭貞婉인데 현재 동소문 6가 6-2에 거주하고 있다.

전통사회구조 속에서 옷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족과 자신을 위해 직접 지어 입었지만, 왕실과 사대부를 비롯한 특수층의 경우에는 그들 스스로 제작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솜씨가 뛰어난 장인을 官匠 또는 私匠의 형태로 고용하여 조달하였으며, 서민층의 옷이라 하더라도 평상복이 아닌 관혼상제 등에 필요한 특수복은 솜씨있는 사람에게 의존하였다.

조선시대 京工匠에는 10명의 침선장이 工曹에 소속되었고, 外工匠에도 2개소에 64명이 소속되어 제작활동을 전개하였다. 옷을 제작하는 데는 바느질 기술은 물론 실을 만드는 制絲匠, 실이나 천에 물을 들이는 靑染匠·紅染匠, 옷감을 짜는 織造匠·綾羅匠, 천을 다듬고 손질하는 擣練匠, 옷감을 재단하는 裁作匠, 금박이나 자수 등 무늬를 놓는 金箔匠·刺繡匠 등의 협업에 의해서 비로소 완성된다. 그러나 옷의 맵시나 품위, 효용성 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침선장이다.

궁중에서는 왕실복식의 주달을 전담하던 尙衣院에 경공장 가운데 8명을 분속시켜 각종 궁중복식을 제작하도록 하였고, 부족한 일손은 妓女의 신분인 針線婢로 하여금 거들도록 하였다.

바느질의 기본공구로는 옷감과 실·자·가위·바늘·바늘집·골무·인두·다리

미·누비밀대·실패·실고리·받침고리 등이 필요하다. 바느질기법은 감칠질·홈질·박음질·상침뜨기·휘갑치기·사뜨기·시침질·공그르기·솔기질 등을 기본으로 하여 이음새나 옷의 종류, 위치에 따라 적절히 사용한다. 옷감은 여름에는 홑으로, 봄·가을에는 겹으로, 겨울에는 밀도 높은 비단을 사용하되 안팎 사이에 솜을 두어 보온효과를 놓였으며, 그에 따라 바느질도 홑바느질·겹바느질·누비바느질로 나뉘었다.

근대 이후 복식의 서구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침선기술의 전통이 단절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뒤늦게지만 다행히 몇 사람의 전승자가 현재는 쓰이지 않는 옛 침선기술을 계승하고 있다.

⑥ 大笒散調

大笒散調는 大笒으로 연주되도록 만들어진 散調를 말하며 1965년 중요무형문화제 제 45 호로 지정되었다. 성북구 삼선1가 11－71에 기능보유자(1992년 말 지정) 李生剛이 거주하고 있다.

大笒은 대나무로 만들어진 橫으로 부는 피리의 하나로 그 기원이 新羅時代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韓國古有의 대표적인 樂器의 하나이다. 大笒은 옛부터 오랫동안 쓸 수 있는 黃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으나 최근에는 雙骨竹으로 만들어진 것을 最高로 친다. 즉 대나무의 양쪽 옆 위에서 밑에까지 도랑이 패어있는 대나무로, 속이 비어 있지 않고 살이 두터워 거의 속이 차 있어 그 살을 패어내 뚫지 않으면 안된다. 피리의 左上에 吹孔이 있고 밑에 淸孔이 있는데 여기에 갈대 속에 있는 엷은 膜을 붙여 진동시킴에 따라 大笒의 맑은 音色을 助長시킬 수가 있다. 그 밑에는 指孔이 6개, 그 밑에는 高音과는 관계가 없는 虛孔이 5개 있다. 大笒의 부는 법에는 底吹·平吹·力吹 3종류가 있고 底吹法은 부드러우며 平吹法은 곧고 굳게 그리고 가장 높은 音을 내는 力吹法은 청월한



大笒散調 예능보유자 李生剛의 연주장면

音色을 낸다.

散調란 全羅道地方에 巫俗音樂과 관련이 있는 시나위(일명 心方曲 또는 神房曲)를 基調로 해서 여기에 판소리의 영향을 받아 정립한 民俗樂의 器樂獨奏曲이다. 19세기경 가야금의 名人 金昌祖(1865~1920)에 의해 처음 창조된 가야금산조가 散調의 시작인데, 그 후 가야금산조 뿐만 아니라 玄琴散調, 大笒散調의 순서로 차례차례로 각 악기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법이나 특색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散調音樂을 파생시키는데 기본이 되었다.

大笒散調는 大笒으로 연주되도록 만들어진 散調를 말한다. 보통 판소리에 사용되는 長短과 旋律로 되어 있으나 느린 長短에서 빠른 長短으로 4~6개의 樂章으로 구성되는 樂音形이다. 大笒散調에는 반드시 散調大笒이 쓰여지지만 散調大笒은 正樂大笒보다 그 기장이 조금 짧고 吹孔이 크고 音이 長 2度 가량 높다. 散調외에도 民俗樂을 연주하는데는 지극히 便利하게 되어 있다.

大笒散調는 20세기초에 朴種基에 의하여 처음 만들어졌다고 하며, 그의 가락을 韓周煥이 이어받아 이생강에게로 전승시켰다. 대금산조는 크게 두가지로 음악적 특징을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大笒散調의 창시자인 朴種基(1879~1939) 類의 "소리더늠 大笒散調"이며 또 하나는 姜白川(1898~1982) 類의 "시나위더늠 大笒散調"이다. "소리더늠 대금산조"란 소리 즉 판소리의 가락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것을 "시나위더늠 대금산조"란 시나위 가락을 써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

大笒散調의 특징은 音의 장식적인 弄音(비브라토와 같은 것)을 (形成) 즉흥성 등을 들 수가 있다. 散調에서 보여주고 있는 調는 流派에 의해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략 진양조는 羽調·平調·界面調로 구성하며, 중모리에서는 京調와 界面調가 주류를 이루고, 중중모리에서는 界面調가 일반적이고, 자진모리에서도 界面調가 中心을 이룬다. 散調의 長短에는 보통 진양·중모리·자진모리가 큰 柱로 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중중모리와 엇모리가 들어가는 일도 있다. 빠르게 연주하는 일이 가능한 絃樂器의 경우에는 휘모리가 들어가는 일도 있다.

가락의 붙임새(선율과 선율의 사이에 들여보내는 장식음)에는 붙임·엇붙임·완자걸이·잉여걸이·괴쪽뛰기 등이 있는데, 이들 용어는 가락의 장식적 방법을 形容한 일종의 리듬기교를 이르는 것이다.

대금산조의 명인으로는 이생강외에도 片在俊·金光植·金東植·金東烈·金永東 등이 있다.

3. 重要 民俗資料

① 思穎 金炳冀 一家 옷

조선시대 말기의 문신·학자인 김병기와 그 일가가 입던 옷이 중요민속자료 제 6 호로 지정되어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김병기는 1847년(헌종 13)에 문과에 급제하여 참판 등을 역임하고 안동김씨의 세도정치 밑에서 판돈녕부사까지 지낸 관료이다.

유물에는 김병기의 조복의 일부인 적초의·후수·훈상 각 1점과 구군복 2착·전복 2착·제복 1착이 있으며 부인 송씨의 원삼 1착, 아들 金龍圭의 관복 1착, 장손 金升鎭의 관복 1착이 있다.

적초의는 홍색무문 숙수로 지었는데 폐슬이 부착되어 있다. 후수는 紅緞에 청·황·청·백의 순으로 4쌍의 학과 구름, 작은 꽃이 수놓여 있으며 금환 1쌍이 부착되어 있다. 대와 소수는 백색, 纓子는 청색으로 되어 있다. 구군복중 동다리 2점은 길은 주황색, 소매는 홍색, 안은 남색 양태문갑사로 된 겹옷이다. 전복은 4점인데 흑색과 남색의 겹전복 2점, 옥색 홑전복 2점이다. 자색운문사 관복 1점은 소매가 좁은 소례복이며, 흑색빙사의 제복일습 중에 중단을 제외한 黑團領 훈상·후수 등이 있는데 후수에는 청·황·백 3쌍의 학이 수놓여 있다. 이밖에 무명아청색 배자 1점이 있다. 현록색 운문사 관복은 김승진의 것으로 단학흉배가 부착된 대례복이다. 김병기 부인 송씨의 원삼은 정부인 加資를 받으면서 하사받은 대례복이라고 하는데 녹색 漢緞으로 홍·황색의 색동과 한삼이 달려 있다.

이 유물들은 착용자의 신분과 연대가 확실하며 대례복·소례복·평상복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한 시대의 제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귀한 자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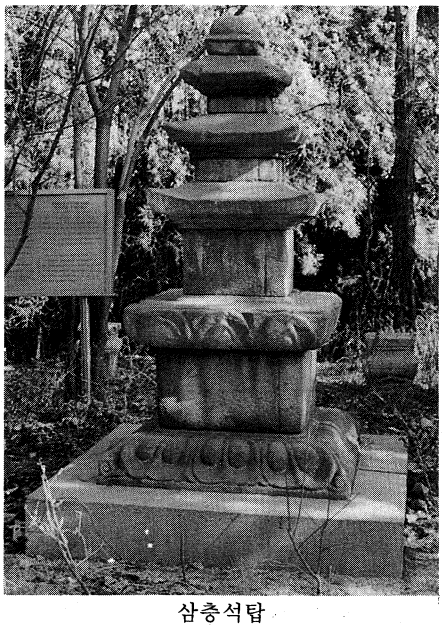
② 高大博物館所藏 洪鎭宗衣服

조선시대의 문신 洪鎭宗의 의복이 중요민속자료 제 113 호로 지정되어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968년 경기도 오산읍에서 移葬할 때 출토된 것으로서 남자바지 3점, 氅衣 9점, 中致莫 1점, 深衣 1점, 褡護 1점 등이 출토되었다.

남자바지 3점 중 1점은 마루폭을 이중으로 붙여서 만든 무명의 누비바지이고, 2점은 겉과 속이 모두 고운 명주로 만든 바지로 얇게 솜을 두고 1.5cm 너비로 누벼서 만든 것과 솜을 두껍게 두고 6cm 너비로 누빈 동절용 바지이다. 창의 9점 중에 2점은 소창의이고 나머지 7점은 모두 대창의이다. 소창의들은 소매통이 좁은 窄袖의 창의로, 모두 누볐으며 소매통은 廣袖에 비하여 좁으나 진동은 큰 차이가 없다. 대창의는 모두 고운 명주에 솜을 얇게 두고 전체를 곱게 누빈 것들로, 깃의 모양은 반달깃이며 소매는 두리소매이고 옷자락의 끝이 모두 당코형인 것이 특징이다. 중치막은 단 하나뿐인데 솜을 두껍게 두고 누빈 것으로, 窄袖에 뒤가 터져 있으며 양 옆은 막혀 있다. 보통 중치막이라고 하면 소매가 넓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중치막은 좁은 소매이다. 심의는 흰색 苧布로 되어 있으며 襟·裾·手口에 전부 黑襈이 둘러져 있다. 답호는 앞이 뒤보다 30cm정도 긴 누비답호인 점이 독특하다.

이들 의복은 숙종 때의 것으로 당시의 복식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삼층석탑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 28 호)

4. 서울特別市 有形文化財

① 三層石塔

성북동 97－1의 간송미술관 경내에 高麗時代의 높이 220cm되는 화강석 3층석탑이 옮겨져 있어서 1974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 28 호로 지정되었다.

下層基壇은 근래에 만들어 끼운 것이지만 이 기단 위에 놓여진 탑은 조각한 장식이 매우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塔身部의 짜임새가 간결하고도 바르고 아담한 소형의 탑으로 고려중기 이전의 작품으로 추정되는데, 이 탑의 下臺石

에는 覆蓮紋이 양각되었고 上臺 甲石에는 仰蓮紋이 양각되어 있다. 上臺의 中石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고 다만 隅柱만이 표현되어 있으며, 상대의 중석과 마찬가지로 隅柱가 새겨져 있는 塔身은 2층과 3층 탑신이 1층 탑신에 비해서 체감률이 심하여 비례가 원만치 못하고, 屋蓋石은 탑신에 비해 둔중한 느낌을 주며 3단의 층급받침이 있다. 그리고 옥개석 부분의 네 귀퉁이는 모두 약간씩 反轉되어 있고, 3층 옥개석 위의 相輪部는 露盤과 覆鉢만이 남아있다.

이 탑은 아담하고 보기드문 小塔으로서 고려시대의 탑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② 石造 八角浮屠

성북동의 간송미술관 뜰에 봉안되어 있는 花崗石製의 전형적인 八角圓堂形 僧塔이다. 1974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제 제 29 호로 지정, 높이 1.6m에 달하며 건립연대는 新羅時代로 추정된다.

下臺石·中臺石·塔身과 屋蓋石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부도는 하대석에 覆蓮紋이 양각되어 있고, 모서리에는 귀꽃이 돌출되어 있으나 지금은 그 귀꽃이 많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 중대석은 身部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무늬가 없어 단조로운 느낌을 주고 있다. 身部 위에 얹혀져 있는 육중하고 추녀가 약간 反轉되어 있는 옥개석은 층급받침이 2단으로 되어 있으며 八角에는 각기 커다란 귀꽃이 달려있고, 落水面은 배가 불러서 마치 우산을 펼쳐 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이 승탑의 相輪인 옥개석 맨 꼭대기에는 사발을 엎어 놓은 것 같은 鼓腹形의 覆鉢이 장식되어 있는데, 중간 부분에는 2줄의 선이 둘러진 다음 꽃무늬가 彫飾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아주 간결하고 바르고 아름다우며 육중한 기품을 풍기고 있는 이 石造 八角僧塔은 탑파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③ 石造 彌勒佛立像

성북동 97번지 간송미술관 경내 뜰에 高麗時代 중기 이후의 것으로 추정되는 높이 2.1cm의 화강석불 입상이 옮겨 놓여 있어서 1974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 30 호로 지정되었다.

이 불상은 돌기둥 같은 체구의 장대한 石佛立像인데 얼굴은 신체에 비해서 큼


석조미륵불입상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 30 호)

직하고 상체는 짧은데 하체는 기다란 다소 그로테스크한 불상이다. 이 불상은 머리에 肉髻가 있고 귀는 길게 늘어져 있으며 눈과 입이 마멸되어 희미하지만 코가 우뚝한 중에 목에는 三道가 있다. 육계는 꽤 큼직하며 머리칼은 素髮의 민머리칼이고, 얼굴은 사각형으로 넓직한 편인데 이마는 유난히 좁고 눈·코·입이 큼직하며 빰이나 턱 등을 완강하면서도 요철있게 표현하여 질박하면서도 박력있게 나타내었는데 이런 얼굴은 高麗石佛에 나타나는 특유한 특징이다.

상체는 사각형이고, 어깨까지 직각으로 처리되어 기하학적 구조를 보여주는데 가슴 전체 또한 평판적이어서 이런 점이 더욱 돋보이고 있다. 하체 역시 사각형의 돌기둥이 서 있는 것처럼 나타내었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다소 굵어지고 있다. 여기에 가슴에 모아진 두 손과 팔목은 신체에 비해서 눈에 띄게 큼직하며, 그 대신 윗팔뚝은 유난히 가늘어 전반적으로 불균형스럽게 표현되었다. 通肩의 法衣는 右肩偏袒으로 衣文은 왼쪽 어깨에서 발목께까지 왼쪽에서 바른쪽으로 비스듬한 斜線을 나타내고 있어 역시 투박하면서도 기하학적인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이 석불상은 세련된 형태나 구도의 아름다움은 없지만, 얼굴의 표현이라든지 양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유연하게 서 있는 모습에는 마음속에 간직한 內的性情이 아무런 과장없이 나타나 있고 조각의 수법에 古拙한 풍이 있어 토속적인 기품을 풍긴다.

⑤ 石造 昆盧舍那佛座像

原 소재지는 분명치 않으나 忠北의 어느 절터에서 간송미술관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진 높이 1.5cm의 이 화강석 불상은 高麗時代의 것으로 추정되며, 1974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 31 호로 지정되었다.

螺髮의 머리에 肉髻가 있고 목에는 三道가 있는 이 佛像은 사각형 臺座 위에

결가부좌로 앉아있는데 구수한 土俗美를 느끼게 하면서도 박력있는 高麗 佛像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육계는 얕고 작아서 거의 무시되고 있으며 나발의 머리칼은 촘촘한 편이다.

얼굴은 方形이면서도 투실하고 원만한 중에 두 귀는 크게 늘어졌고 이마는 좁고 코 위로 눈썹이 반월형으로 분명하며 눈시울은 통통한데 눈은 아래를 보고 있고 코는 길지만 작고 다문 작은 입술이 도톰하여 悟道의 미소를 머금은 듯한 인상을 풍긴다. 뺨이나 턱도 양감이 풍부하여 박력 넘치게 보이고 있는 바, 이런 얼굴은 순박하고 질박한 韓國的인 모습으로 이를 佛顔으로 썩 잘 승화시키고 있다. 지금 상태는 코 끝이 파손되어 있다.

상체는 무릎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편인데 어깨는 좁고 움츠린 듯하며 신체의 양감도 거의 없다. 따라서 가슴에 모아 智拳印을 짓고 있는 손과 팔은 신체에 비해서 월등히 큼직하게 표현되었다. 결가부좌한 하체 역시 상당히 큼직한데 무릎이 넓고 높직한 편이다.

法衣는 通肩으로 다소 두꺼워진 편인데 돌출 옷주름이 平行階段式으로 촘촘하게 주름져 있어 다분히 형식에 흐르는 衣文이지만, 얼굴과 함께 투박하면서도 박력있게 보인다.

이 불상은 臺座가 갖추어져 있는데 사각형을 기본형으로 하는 上臺·中臺·下臺 등 3단대좌이며 상단 맨 위에 불상이 높여 있다. 하대는 覆蓮이 새겨졌고 중대 역시 사각형인데 各面에는 책상다리를 하고 앉은 佛像이 돋을새김으로 새겨져 있으며 상대에는 역시 투박한 覆瓣蓮花紋이 새겨져 있다.

이처럼 사각형의 투박한 臺座와 형식적이면서도 친근감 넘치는 佛像이 조화되어 박력있고 정감있는 高麗的인 佛像美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이러한 특징은 高麗 중엽 전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여겨지며 잘된 가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⑤ 三軍府 總武堂

성북구 돈암동 삼성공원 안에 있는 건평 72.1坪, 地籍 2,609평, 정면 7間, 측면 4間짜리 한말 三軍府의 청사건물이 1978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 37 호로 지정되었다.

이 건물은 1868년(高宗 5)에 건립된 義興三軍府의 武略을 총찰하는 主堂이었던


三軍府 總武堂(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 51 호)

總武堂으로서 당초 光化門 앞 서쪽 지금의 정부종합청사 자리에 세워져 있었으나, 1930년에 현재 자리로 移築된 것이다.

건축양식은 朝鮮朝 말기의 전형적인 관아건물로, 長臺石으로 基壇을 돌렸는데 건물은 동쪽에서 보면 5벌대 높은 기단 위에 二高柱七樑이고 팔작지붕에 한식기와를 얹었으며 막새기와를 썼고 용마루 끝과 내림마루 끝에는 龍頭를 얹었고 사래 끝에는 吐首를 끼웠다. 처마는 겹처마이다. 평면은 정면 7칸, 측면 4칸으로 중앙 정면 3칸, 측면 2칸을 대청으로 하고 좌우에 정면 1칸, 측면 2칸의 온돌방을 두고 그 옆에 정면 1칸, 측면 2칸의 광을 두었다. 珙包는 二翼工으로 모두 垂舌로 되어 있다. 중앙 御間 창방에는 '總武堂'이라는 현판이 있고, 앞면 여덟개 기둥에도 각각 柱聯이 붙어 있다.

總武堂은 義興三軍府의 主堂으로 그 좌우에 淸憲堂과 德義堂이 있었는데 德義堂은 그 흔적조차 없어졌고 淸憲堂은 원위치에 남아 있다가 1967년 道峰區 孔陵洞 陸軍士官學校내로 이축,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제 제 16 호 「三軍府淸憲堂」으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어쨌든 이 건물 중앙에 걸려있는 '總武堂'이란 懸額에는 朝鮮朝 말기의 정치가인 申櫶(舊名：觀浩)의 글씨로 '上將之印', '申觀浩印'이라 각인한 낙관이 선명하다. 낙관에 보이는 신관호는 뒷날 신헌으로 개명하기 전의 이름으로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 「琴堂初藁」에 그가 지은 〈三軍府總武堂上樑文〉이 실려 있어 高宗 5년(1868)에 건립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곳으로 移建된 總武堂은 1942년 京畿道 公務員 練成場으로 사용되다가 서울市 職業訓練院 사무실로도 사용되어 오던중 건물이 낡고 퇴락되어 서울시에서 1979년 8월 17일 補修復元工事에 착수하여 동년 12월 20일 옛 모습대로 복원하였

다. 정면의 8개 기둥에 붙어 있는 목판의 柱聯은 대략 아래와 같다.

○ 從新耳目名倣三衙
　이목 또한 새롭구나 그 이름 三衙와 나란히
○ 遂道九八化貢懷來
　九夷八蠻 외교 갖고 덕화로 승복시키니
○ 儀同相府東西向廳
　규모는 상부(議政府) 같아 동서로 청이 마주 향했고
○ 象取天垣左右執法
　모양은 천원(吏曹) 본 받아 좌우로 법을 지켰네
○ 董勵群士任天下重
　뭇 옥관 독려하에 천하의 무거운 책임 맡았고
○ 謀斷庶務酌時中宜
　온갖 사무 결단해라 시중의 적절함 헤아려
○ 文武吉甫爲憲萬邦
　문무 대신 만국에 모범될지라
○ 協恭和衷得與共理
　화합과 충성으로 이 나라 함께 다스리세

⑥ 興天寺 極樂寶殿

興天寺는 성북구 돈암2동 595번지에 위치해 있다. 1397년(太祖 6)에 태조가 神德王后 康氏를 위하여 현 중구 정동에 창건한 願刹로 曹溪宗의 本寺로 삼았던 170여간의 大寺刹이었다. 당시 極樂寶殿에는 太祖 왕실의 宮中願佛인 明國普陀落伽山의 42수 觀世音菩薩像을 봉안하고 國泰民安을 기원하였다. 神德王后陵을 성북구 정릉동으로 옮겨 모시던 1409년(太宗 9)에 興天寺도 陵傍의 小菴으로 이전하고 寺號를 新興寺라 하였다.

極樂寶殿은 정면 3間, 측면 3間의 單層 八作 木造瓦家로, 1853년(哲宗 4) 啓壯스님에 의해 重修된 것이며 1985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66호로 지정되었다. 돌층계를 정면에 두고 기둥은 昌防과 平防으로 結構하고 기둥사이에도 전·후면에서는 각 2구, 측면에서는 각 1구의 空間包를 둔 多包式 건물이다. 栱包는 外二出目, 內三出目으로 仰舌로 되고 안에서는 根形으로 된 蓮峰조각이 있다.

정면 3間에는 꽃살 窓戶를 달고 左·右 背面은 板壁이다. 내부 바닥은 우물마루이고 天井은 빗천정 가운데 우물천정을 두었다. 이러한 구조와 형태는 朝鮮朝 말의 전형적인 건축양식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 시대 건축의 모범이 될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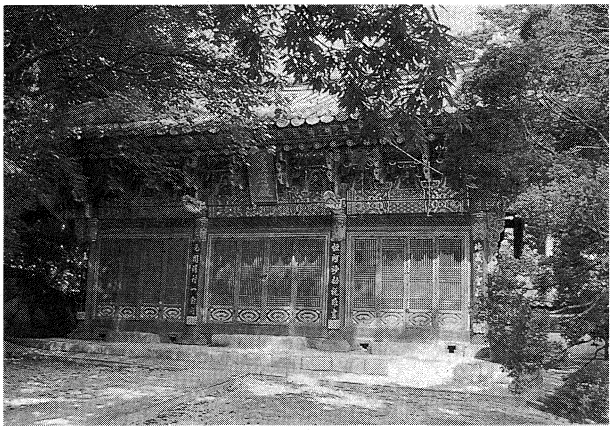
極樂寶殿이란 十劫 이전에 成佛하고 지금은 서방 극락세계에서 大衆을 위하여 說法하고 계신 阿彌陀佛을 모신 전각이다. 아미타부처님은 극락세계에 往生하기를 원하는 중생이 염불을 하고 一念이라도 至心廻向하면 곧 왕생할 수 있게 해주는 부처님으로서, 그 때 西方에서 聖衆이 와서 그 사람을 맞이해 간다고 한다. 그 세계에 살게 되면 다시는 轉生하지 않으므로 생사의 輪廻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극락보전에는 현세의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하고 살기좋은 극락의 淨土世界로 이끌어 주는 아미타불상과 그 뒷면벽에 아미타불화가 배치된다.

홍천사 극락보전은 19세기 寺刹→法堂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화려한 목조건축으로 뛰어난 건축기술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희귀한 사찰건축 예로 매우 귀중하게 평가받고 있다.

⑦ 興天寺 冥府殿

太祖 6년(1397)에 神德王后 康氏의 願堂으로 창건한 興天寺는 太宗 9년(1409)에 신덕왕후의 陵이 현재의 위치인 성북구 정릉으로 이전될 때 같이 이전되고 절 이름이 新興寺로 바뀌었지만 朝鮮朝 최대의 名刹이다.

1985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 67 호로 지정된 冥府殿은 主佛殿 앞 왼쪽에 있는데 哲宗 6년(1855)에 舜麒스님이 건립한 정면 3間, 측면 2間의 單層 목조의 맞배기와집으로 左·右에 風板을 달았다.


興天寺 冥府殿(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 67 호)

栱包는 外一出目, 內二出目으로 柱頭위에 仰舌 두개를 놓은 翼工系 栱包로서 柱間의 도리밑에는 雲工을 2구씩 받쳐 놓았다. 내부에서는 살미檐遮가 版型으로 雲峰을 조각하였으나 檐遮는 翹頭形을 이루고 있다. 柱上에는 밖으

로 龍頭를 모양있게 장식하였고 안으로 龍尾를 새겨 놓아 건물의 격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이 건물은 옛 목조건물의 전통을 이어 받으면서도 단순 소박하게 꾸미고 있어서 朝鮮朝 말기인 19세기말 내지 20세기초 佛寺建築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冥府殿이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해 주는 地藏菩薩을 冥府(저승)의 主尊으로 모신 곳이다. 이곳에는 十王을 거느린 지장보살상이 배치되고 그 뒷면 벽에 地藏菩薩後拂幀畫를 중심으로 좌·우에 十王圖가 봉안된다. 또한 지장보살은 안락한 淨土世界로 이끌어 주는 아미타부처님의 脇侍菩薩이기도 하다. 지장신앙은 신라시대부터 성행하기 시작하였고 조선시대에는 특히 아미타신앙의 유행과 함께 더욱 발전하여 가장 인기있던 민간신앙이 되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선조 사찰에는 명부전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흥천사 명부전은 19세기 후반기의 殿閣모습을 갖춘 단아한 건물로 서울시내에서는 희귀한 불교사찰 건물로 그 의의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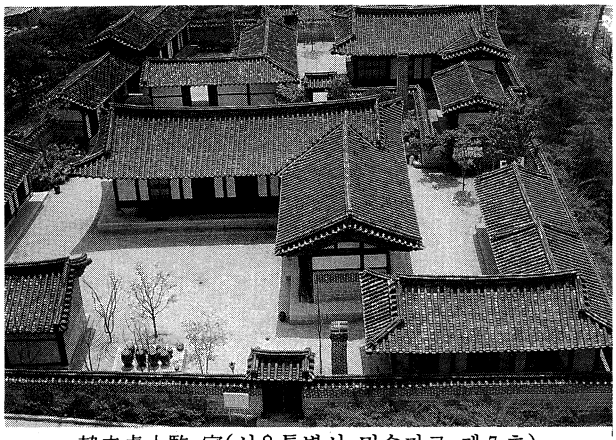
5. 서울특별시 民俗資料

① 長橋洞 韓圭卨大監 家

城北區 貞陵洞 國民大學校 내에는 朝鮮 말 漢城判尹을 지낸 韓圭卨대감이 살던 건평 61.58평, 대지 412평에 달하는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제 7 호로 지정된(1977년 3월 17일) 집이 中區 長橋洞에서부터 옮겨와 1980년 12월 20일 완공하여 1981년 3월 9일 國民大學校로 등기 이전되어 있다.

한규설은 光武 9년(1905) 議政府 參政으로 內閣을 조직하여 동년 11월 17일 乙巳保護條約이 체결될 때 극구반대하다가 파직되고 고향에 은거하다가 후일 中樞院顧問宮內府 特進官을 역임하였고 韓日合併時 男爵을 주었으나 거절한 사람이다.

이 가옥은 1890년대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장교동에 있을 때에는 소슬대문·사랑채·안채·사당·광채가 넓은 대지위에 있었는데 현 위치로 이축하면서 없어졌던 소슬대문 좌·우의 행랑채를 복원하였고 본래는 있었으나 철거된 중문間 행랑채와 사잇담도 복원하였다.


韓圭卨大監 家(서울특별시 민속자료 제7호)

안채는 정면 5間, 측면 2間에 4間이 덧붙여져 돌출되었다. 西南向한 안채의 서측에는 정면 1間, 측면 3間의 안방이 있고 동쪽으로 정면 3間, 측면 2間의 대청과 이의 동쪽으로 정면 1間, 측면 2間의 건넌방이 있다. 안방 뒷쪽에 부엌이 돌출되어 있는데 정면 2間, 측면 1間 半이며, 이의 북쪽에 정면 1間 半의 방이 붙어 있다. 서울에서 흔히 나타나는 안채의 평면은 부엌이 안방의 정면인 남쪽에 붙어 동·서로 面하는데 비하여 이 안채는 안방 뒷쪽으로 배치되어 안방이 남쪽으로 배치되게 한 점이 특이하다.

사랑채는 정면 4間, 측면 2間 半, 다른쪽 측면은 3間 半인 L字形으로 西南向인데 침방, 사랑방, 사랑마루로 구성되고 사랑방 前面에는 褓間이 있다. 祠堂채는 西南向하여 안채의 광채 사이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3間, 1間에 褓間을 둔 다른 祠堂채와는 달리 정면 2間, 측면 1間이다. 별채는 ㄱ자형으로 안채의 서북쪽 안쪽에 있는데 부엌, 안방, 대청, 건넌방으로 구성, 광채와 연결되었으며 광채는 정면 4間, 측면 1間이고 부엌은 1間이고 부엌 북쪽에는 西方 1間의 방이 있고 이의 동측에 마루가 있다.

건물은 花崗石 基壇(높이 48cm)과 화강석 육모뿔 초석위에 기둥을 세웠고 안채, 사랑채, 뒷채의 마루는 모두 우물마루이며 대부분의 窓戶는 현대식으로 개조되어 있다. 안채와 사랑채는 모두 겹처마이며 전면은 굴도리이나 후면은 납도리이고 전후면 모두 소로받침을 하고 있다. 안채의 구조는 五樑架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다.

이 가옥은 현재 국민대학교내 새로 조성된 1,359평 규모의 대지 위에 원형 그대로 이건하여 학교의 生活館으로 사용하고 있다.

② 城北洞 李載濬 家

城北區 城北洞 243－4호에는 1900년경에 건립된 李載濬家가 있어 1977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제10호로 지정되었다. 건평은 29.8평, 대지 183평의

이 건물은 사랑채 비슷한 별채의 안채와 이에 부속된 행랑채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북쪽에는 안채와 북쪽에는 행랑채가 있다.

안채는 정면 6間, 측면 3間인 ㄹ字모양의 평면으로서 남향집이다. 안채는 중앙에 2間 크기의 대청을 두고 그 왼쪽에 2間 크기의 안방을 두었으며 안방앞에 툇마루를 두는 기본형에 부속방을 붙이고 있다. 대청 우측에는 3間 크기의 누마루를 붙이고 안방의 좌측에는 찬방과 찬방 앞에 조그만 방, 그리고 찬방과 안방 뒤에 각각 2間 크기의 뒷방을 덧붙이고 있다. 찬방 왼쪽에는 부엌을 두고 뒷방 뒷쪽에는 욕실과 화장실을 덧붙이고 있으나 이것은 후에 증축한것 같다.

안채에는 담장을 따로 두르고 안채의 바깥에 다시 담장을 둘러서 ㄱ字 모양의 행랑채를 두었는데 경기지방에서 많이 보는 ㄱ字 모양이다. 즉 중앙에 한칸 크기의 대청을 두고 그 서쪽에 ㄱ字로 꺾어져서 두칸크기의 안방을 두었으며 안방 앞에는 반칸크기의 부엌을 두었다.

대청 동쪽에는 한칸 크기의 건넌방이 마련되고 대청과 안방의 앞에는 쪽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이의 서쪽 側壁은 바깥마당에 연결되어 있고 바깥마당에는 우물이 시설되어 있다. 대청 中央間은 長樑五樑으로 처리하고 기타는 一高柱五樑으로 하였으며 동쪽 누마루 上部와 행랑채는 세마루構造로 하였고 겹처마집이다.

이 집의 누마루에는 一觀亭이라는 현판이 붙어있고 추녀 끝에는 풍경이 달려있어 이색적이며 정원도 자연스럽게 심은 나무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가옥의 안채는 朝鮮朝 말기에 麻浦 새우젓 장사로 부자가 된 이종석이 지은 별장이라 口傳되는 집으로 당시 豪商들의 生活相을 알아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집이다. 특히 집주변의 조경은 韓式 멋이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경관이다.

③ 城北洞 이태현 家

城北洞 248번지에는 1900년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측되는 건평 23.2평, 대지 120평 규모의 韓式 주택이 있어 1977년 3월 17일에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제 11 호로 지정되었다.

趙來赫씨 소유로 되어 있는 이 건물은 西南向의 工字形 집으로 평면의 간살이는 보통 ㄱ字形 집과 비슷한데 다만 부엌이 뒷쪽으로 붙어 있어 앞쪽에 누마루를 설치한 것이 다르다. 즉 중앙 2間을 대청으로 하고 대청의 남쪽에는 한칸 크기의

안방을 만들고 안방 앞에는 작은 한칸 크기의 누마루가 놓였으며 뒤에는 칸반 크기의 부엌이 있다. 대청의 북쪽에는 한칸 크기의 건너방이 배치되고 대청과 건너방 앞에는 툇마루가 길게 놓였고 건너방 뒤에는 한칸 크기의 뒷방이 있다. 뒷방과 건너방 外側 벽에는 처마밑을 내 쌓아서 벽장을 만들었고 대청뒤의 쪽마루 역시 처마를 내 달아서 뒷방과 부엌 변소를 연결하는 복도로 삼고 있다. 건너방 앞에 있는 돌마루를 亞字문양의 난간이 설치되고 밑으로 아궁이가 있다.

基壇은 다듬돌로 줄을 맞춰 쌓은 네벌대이고 礎石은 긴 육면체로서 위가 약간 좁은 네모뿔대 모양인데 면을 접었다. 기둥은 약간 흘림을 가진 角柱로 면을 접었으며 도리는 납도리로서 역시 면을 접었다. 처마도리와 중도리는 사괴맞춤을 하였으며 종도리는 장혀를 덧붙이고 헛창방을 보내서 그 사이에 소로를 끼웠다. 구조는 中央間을 一高柱五王樑形式으로 처리하였고 양측면 끝은 間은 맞거리三樑形式으로 처리하였다. 보머리는 간결하게 처리하였고 대공은 板臺工으로 하였으며 홑처마집이다.

이 집은 규모가 작은 別莊形 주택을 살림집으로 축조한 듯하다. 작은 집이면서도 알차고 예쁘장하게 意匠이 되어 있으며 감나무, 사철나무를 主流로 한 庭園은 民家庭園의 맛을 듬뿍 느끼게 한다. 뒷쪽을 약간 덧 달아서 개축한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원형이 잘 보존된 집이다.

朝鮮時代의 韓屋은 사랑채와 안채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 집은 규모는 작지만 사랑채와 안채를 한채에 집약시킨 집으로 1900년대의 改良韓屋이 갖는 요소들을 잘 지니고 있는 중요한 민속자료이다.

④ 長位洞 金鎭興 家

長位洞 76번지 59호에 있는 건평 107평, 대지 759평의 韓屋이 1977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제25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이 한옥은 朝鮮時代 말 純宗의 駙馬가 거처하기 위하여 지은 집이라고 전하며 사랑채 중앙에 「南寧齋」라는 현판이 걸려있고, 사랑채 대청에 따로 보관하고 있는 上樑文에 의하면 乙丑年에 건축했다고 되어 있어 1925년에 건축된 것으로 믿어진다.

현재 金鎭興 소유로 되어 있는 이 건물의 형태는 口字 2개가 합쳐진 모양인데 사랑채 뒤에 있는 집은 더 늦게 지어진 집으로 생각되어 원래는 9字形집(안채를 口

字로 앉히고 거기에 사랑채를 안채 대청과 나란히 一字形으로 배치하므로서 옆으로 누운 9자 모양을 이룬 집)이었으리라 여겨진다. 雙口字의 서쪽은 큰 집을 배치하고 동쪽은 뒤쪽으로 작은 집을, 앞쪽으로는 사랑채를 앉히고 있다.

안채는 뒤쪽 중앙에 3間 크기로 대청을 놓고 京畿地方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서쪽에 골방·안방·부엌·찬마루를 곱은字로 놓고 있다. 안마당 앞쪽에 있는 행랑은 서쪽에서 2間이 더 나아가서 안마당이 ㄱ字 모양이 되도록 하였으며 사랑채는 행랑에서 3間 정도 뒤로 들어가서 南道형식을 따라 부엌·큰사랑·대청·작은사랑이 一字로 앉혀지고 앞에는 ㄱ字 모양의 담장을 둘러서 사랑마당을 따로 만들고 있다. 사랑채 뒤에는 다시 안채모양의 집이 있는데 건너방쪽으로 행랑방들을 덧붙여서 사랑뒷마당을 口字모양으로 만들고 있다. 안채의 안방 서쪽에는 큰 3間 크기의 亭子가 있는데 「珊瑚碧樓」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안채 뒤에는 後庭이 시설되고 문간채 앞에는 바깥마당이 있다.

地臺石은 花崗石 두벌대이고 礎石은 네모뿔형 높은 초석이다. 도리는 상도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납도리이며 장혀로 받치고 있고 처마도리에서는 장혀에 바로 홈을 파서 문울거미로 쓰는 수법을 보이고 있다. 臺工은 사다리꼴이며 처마는 홑처마이다.

이 건물은 공간배치에 있어서 안마당을 ㄱ字로 꺾고 마당내부 구석의 各室들을 들쑥날쑥하게 처리해서 큰 공간에 변화를 주고 있으며 시선의 방향에 따른 공간의 분위기를 안정감있게 하였다.

6. 서울특별시 記念物

① 萬海 韓龍雲 尋牛莊

성북구 성북동 222－1, 2에는 3·1운동 때 33인중의 한사람이요 「佛教維新論」을 쓴 바도 있는 佛家詩人 萬海 韓龍雲이 晩年을 보낸 尋牛莊이 112.99평의 대지에 17.8평의 건평 규모로 있어 1984년 7월 5일 서울특별시 記念物 제 7 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소유자는 그의 딸 韓英淑이다.

韓龍雲은 1879년에 태어나 1944년 6월 29일 세상을 떠났는데 본관은 淸州이고


尋牛莊(서울특별시 기념물 제7호)

俗名은 奉玩, 龍雲은 法名이며 萬海는 雅號이다. 1894년 東學革命에 가담하였고 설악산의 五歲菴 百潭寺에서 수도하였으며 1910년 한일합방 후 중국에 망명하였다가 1913년 귀국, 불교학원에서 교편을 잡았다. 1919년 3월 1일 33인의 한 사람으로 선언서의 公約三章을 집필하였으며 1926년 "님의 침묵"을 발표하였고, 1934년 이 곳 심우장에서 처녀 장편소설 『黑風』을 집필하여 朝鮮日報에 연재하였고, 1937년 불교계통의 항일단체인 만당사건(卍黨事件)의 배후자로 검거되었다. 그 후에도 불교의 혁신과 작품활동을 계속하다 城北洞에서 중풍으로 죽었다.

尋牛莊을 짓게 된 경위를 보면 그가 3·1운동으로 3년동안의 獄苦 끝에 출옥하여 夫人 兪氏와 어린 딸(英淑)과 함께 성북동(당시 城北町) 골짜기 셋방에서 빈한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金碧山스님이 자기가 草堂을 지으려고 松林속에 사둔 52평을 드리겠으니 몇칸 집을 지어 보라고 권유하여 집을 지을 계획을 세웠지만 자금이 없었는데 1933년 朝鮮日報社 方應模 사장을 위시한 몇몇 유지들의 도움으로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萬海는 南向의 집터를 마다하고 그 반대편 산비탈 北向之地 즉 日帝의 總督府와 등진 곳에 자리를 정하여 집을 지었다. 응달이고 길도 물도 없는 北向 산비탈에 집을 짓고 그 이름을 「尋牛莊」이라고 하였으니 그것은 그가 萬海라는 號 외에 筆名으로 五歲人·城北學人·牧夫·失牛 등의 이름을 가끔 썼는데 牧夫란 소를 키운다는 뜻인 바 내 마음 속의 소를 키움은 우리 모두가 가야할 往生의 그 길을 멈출 수 없음을 나타낸 말로 의미심장한 뜻을 갖고 있다. 즉 尋牛莊이란 佛教의 無常大道를 깨우치기 위한 공부하는 집, 공부하는 人生을 의미한 것이다.

잃을 소 없건마는 찾을 소 우습도다.
만일 잃을시 분명하다면 찾은들 지닐소냐
차라리 찾지 말면 또 잃지나 않으리라.

이것은 韓龍雲의 尋牛莊詩이다. 그의 수양의 경지를 말하여 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萬海는 그 후 이 성북동 심우장에서 貧窮 抵抗의 생애를 계속하였으며 日帝의 감시와 유혹에도 굽히지 않고 조국의 광복을 빌고 또 믿었으나 광복 1년 전 이곳에서 운명하였다. 尋牛莊 뜰 앞에는 萬海가 손수 심은 향나무 한 그루가 오늘도 높이 서 있어 옛 주인의 높은 節義를 말해 주는 듯 하다.

7. 기 타

① 東活人署址

東活人署는 東小門 밖 燕喜坊. 현재 성북구 東小門洞 4가 103번지(전일의 敦岩莊 자리)에 있었다. 東國輿地勝覽에 "東署在東小門外燕喜坊 西署在龍山"이라 하였고 漢京識略에는 "活人署 有兩署 東署在東小門外燕喜坊 今盡頹廢 西署在南大門外龍山江 掌救活都民病 國初因麗制 置東西大悲院 後改稱東西活人署 城中患疫者 改就治療"라고 되어 있다. 英祖와 正祖年間에 그려진 「都城大地圖」에 보면 東活人署 위치가 현재의 동소문동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高宗 초에 된 것으로 여겨지는 「首善全圖」에는 東活人署가 지금 城東區 新堂洞에 표기되어 있음으로 보아 本署가 東小門洞에서 新堂洞 쪽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여진다.

活人署는 都城內의 疾患, 특히 전염성 질환을 주로 救治하였던 의료기관으로 東西 두 곳에 설치하였다.

朝鮮 太祖는 高麗時代의 제도를 따라서 그 원년(1392)에 東·西大悲院을 두었었고, 그 후 제3대 太宗 14년(1414) 9월에 排佛政策에 따라 佛敎의 大慈大悲란 이름에서 나온 大悲院이란 명칭을 活人院으로 고치고, 世祖 12년(1466)에 活人署로 개칭했는데 壬辰倭亂 때 폐지되었다. 光海君 4년(1662) 禮曹의 건의로 다시 부활했고 仁祖 22년(1644)과 24년에 전염병이 크게 만연하였을 때 그 활동이 눈부셔 인

조 24년에는 活人署에 수용된 환자가 699명에 이르렀다. 그 뒤 活人署는 유명무실하다가 英祖 때 다시 그 역할이 증대되었으나 高宗 19년(1882)에 결국 폐지되었고 活人署의 사업은 惠民署의 업무와 통합되어 濟衆院·大韓赤十字病院으로 이어져 갔다.

활인서의 기능을 보면 병을 치료하는 것 외에 미음을 급식하기도 하고 무당을 배치해서 환자들중 의지할 곳이 없는 환자들을 약과 정신적으로 구휼·보호하게 하였다. 世宗은 그 11년(1429)에 환자들이 정신적인 안정을 요구하는 심리와 또 그 때만 해도 무당에게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상이 깊었던 실정 등을 참작해서 활인서에 무당을 분속시키고, 병자에게 봉사를 잘해서 효과를 많이 거두는 무당에게는 바치는 세금을 감면하여 주기까지 하였다. 또 世祖는 5년 6월에 전염병이 심하였을 때 병자들을 활인서에 수용하고 무당을 동원시켜서 치료케 하였다. 즉 활인서는 상당한 의료시설을 갖춘 公共醫療機關이었으며 貧民들을 돕는 救恤기관이기도 했고, 무당 등을 단속하는 기관으로도 되어 무당들을 관리하고 이들에게서 세금을 거두기도 했다.

活人署의 역할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世宗 18년(1436) 8월에 王이 漢城府에 傳旨한 기록을 보면

> 京中 및 城底의 飢民을 모두 活人院으로 보내 구호하고, 또 流離飢民이 너무 많아서 수용할 수가 없으면 普濟院과 梨泰院에 별도의 賑濟場을 설치, 운영하되 漢城府와 五部의 관원이 함께 檢察하라.

고 하였다. 이렇게 활인서는 驛·院 등과 함께 국가에서 직영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서 굶주린 사람들의 구호에 큰 역할을 하였다.

活人署의 관원은 別提(從 6 品)·參奉(從 9 品) 등이 있었으며 東活人署는 濟生院, 西活人署는 惠民署가 나누어 救療케 했다.

東活人署가 있던 곳에 지금은 다음과 같은 석조표석이 있다.

동활인서(東活人署)터 전염병자를 격리 치료하던 의료 기관이 있었던 곳

② 敦岩莊

東活人署가 있었던 동소문 4가 103번지에는 敦岩莊도 함께 있다. 이 집은 초대 대통령이었던 李承晩 대통령이 1945년 10월 16일 33년만에 미국에서 귀국하여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2년간 유숙하던 곡이었다. 돈암동 인근에 있다 하여 '돈암장'이라 하였다.



敦 岩 莊

이 집은 당시 조선타이어주식회사 사장이었던 張震英으로부터 빌린 집으로써, 강진영은 연건평 약 150평의 3채 중 1채만을 쓰고 안채인 54평과 또다른 1채를 빌려주었다. 약 700평의 정원에 뛰어난 美觀을 지녔다.

당시 이곳은 대소 政客들이 이곳에 운집하여 날마다 문정성시를 이루었는데 이곳의 각 방에는 각 당파 인사들이 모여 앉아 政見을 피력해 열기가 가득했다 한다. 이곳에서 尹致映·李起鵬·尹錫五·宋必滿 등이 보필하였고 와병중에는 任永信이 간병하였다.

이승만은 돈암장에서 미군정청으로부터 추대되었던 민주의원 의장직을 버리고, 공산계열의 민주주의 민족전선과 대결을 하면서 신탁통치반대운동에 열중하였다. 광복 후 미군정하에 혼돈된 정국의 안정을 위해 하루의 일과는 바빴지만 이승만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돈암장 뒷 뜰에서 장작패는 일을 쉬지 않았다 한다. 2년간 이곳에 머물던 이승만은 장진영으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통고를 받고 이화장으로 옮겨 갔다가 그후 얼마 안되어 경무대로 이전하였다.

현재 돈암장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103번지의 1호 및 2호로 분할되어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한 채 3명의 소유자에게 나뉘어 있다.

③ 城底五里定界碑

朝鮮 초기에 관할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세운 높이 76cm, 너비 42cm, 두께 24cm의 비석이 성북구 정릉동 403번지 6호에 있었다.

건립연대는 미상이나 경계석표 정면에 지금은 많이 마모되어 눈으로 읽기 곤란하지만 '城底五里 定界立標 庚寅三月日"이라고 새겨져 있어 太宗 10년(1410)으로 추정할 수 있다.

朝鮮 초기에 漢城府의 관할지역은 都城 즉 성안과 城底 10리되는 지역 일원이었다. 世宗 때 편찬된 世宗地理誌에 의하면 城底10里는 동으로는 楊州의 松溪院과 大峴에 이르기까지였고 서로는 楊花渡 및 高陽의 德水院에 이르기까지였으며 남으로는 漢江과 露渡에 이르기까지였다. 太祖는 서울의 성안과 城底10리 전역을 五部로 나누어서 한성부를 다스리게 하였는데 태조 5년(1396) 4월 19일에는 漢城府에 명해서 도성으로부터 5리 되는 지점에 五部의 坊名標를 세우게 하였으나, 현재 다른곳의 표석은 모두 없어지고 오직 이 碑만이 남아 있다.

이 碑는 1970년 문화재관리국에서 경복궁 근정전회랑으로 옮겼고, 그 자리에는 시멘트로 된 遺址標를 세웠었는데, 현재는 유지표도 없어져 성저오리정계석표가 있던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④ 靈星壇

성북동 75번지에는 별에게 제사를 드리던 영성단이 있었다.

靈星壇은 일명 星壇이라고 불렀으며, 祈雨를 할 때는 龍壇이라고도 지칭되었다. 새해 농사가 잘되도록 곡식을 맡은 별과 농사를 맡은 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만든 제단으로 風雲雷雨와 雩祀 등을 지내는 단과 같이 서울의 南郊에 있었는데 다시 혜화문 밖에 설치하였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지금은 이 터에 프란체스코 수도원이 들어서고 단은 폐지된지 오래되어 정확한 위치조차 알 수 없다.

문헌에 의하면 삼국시대부터 해마다 영성제를 지내온 기록이 있다. 영성단의 설치는 고려 때 처음 시작된 것이며 조선에서도 한양천도 후에 남교에 설치하고 立秋 후에 辰日을 정일로 하여 제사를 지냈다.

단의 규모는 정사각형이며 한변의 길이가 6.3m 정도이고 단의 높이는 0.75m 정도이다. 주위는 한 변이 15.6m이고 사면으로 담을 쌓아 출입을 통제하였다. 단의 남쪽 6m쯤에 燎壇이 있는데 한 변의 길이는 1.5m쯤 된다. 출입문은 단의 남쪽으로 나 있는데, 너비는 0.6m쯤 되며 위로 열고 드나들도록 되어 있다. 단 위에는 영성의 神座와 龍의 왼쪽 뿔이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안치되어 있다. 용의 왼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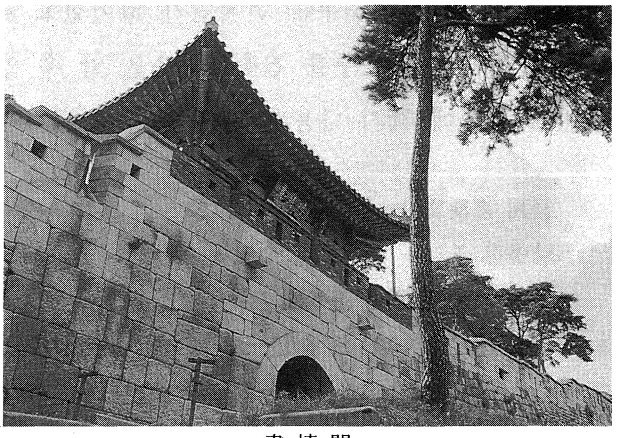
뿔은 하늘의 農地와 主穀을 상징하는 것으로 지상에서도 풍년이 들도록 기원하는 뜻에서 숭배한다.

⑤ 肅靖門

성북동 계곡 막바지에서 능선을 따라 올라가면 都城 四大門(東大門, 崇禮門, 西大門, 肅靖門)의 하나인 속칭 北門이라 하는 숙정문이 있다. 서울의 正北에 위치한 이 문은 처음에는 肅淸門이었는데 무슨 까닭인지 肅靖門으로 개칭되어 中宗 이후의 역대 王朝實錄에 모두 肅靖門으로 기록되고 있다. 四小門의 하나인 彰義門과 함께 楊州와 高陽으로 왕래하는 통로로 이용되기도 한 이 문은 다른 도성의 문과 같이 太祖 5년(1396)에 창건되었다.

太宗實錄 13년 6월조에 의하면 "地理상으로 보아서 國都의 藏義洞門(彰義門)은 觀光坊 東嶺(肅靖門)의 길과 함께 景福宮의 좌·우쪽 팔이니 길을 열지 말아서 地脈을 완전히 보존해야 된다"는 풍수학자 崔揚善의 건의에 따라서 이 두 문을 닫고 통행을 금지하였다. 다만 旱災가 심할 때는 肅靖門을 열고 崇禮門을 닫았으며 장마가 심하면 이 문을 닫고 崇禮門을 여는 풍속이 전하였으니 그것은 太宗 16년(1416) 禮曹에서 마련한 祈雨節目에 의하여 시작된 것으로서, 旱災가 심하면 먼저 宗廟·社稷과 名山·大川에 기우제를 거행하고 그래도 비가 오지 아니하면 숭례문을 닫고 숙정문을 열어 市場을 옮기고 人定과 罷漏를 알리는 鐘樓의 종을 치지 않고 錚을 치고, 비가 오면 숭례문을 열고 숙정문을 닫으며 그 외의 모든 것을 환원하였다. 이것은 북은 陰이요 남은 陽인 까닭에 旱災 때 陽을 억제하고 陰을 부양하는 陰陽五行思想에서 나온 것이다.

한편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에 따르면, 숙정문을 열어 놓으면 長安의 여자가 음란해지므로 항상 문을 닫아 두게 되었다는 俗說이 있는데 이것도 숙정문이 陰方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이 있었던 듯하다.



肅 靖 門

이 숙정문은 燕山君 10년(1504)에 원래의 위치에서 약간 동쪽인 지금 자리로 移建하였는데 이 때는 石門만 세우고 門樓는 세우지 아니한 듯하다. 1975년 서울특별시에서 門樓를 복원할 때에 虹霓로 된 石門만 있었느냐 아니면 門樓도 있었느냐 하는 문제로 수차례의 토론을 거친 후, 太祖 때 건축할 때는 있었다는 점에 의하여 門樓를 복원하고 肅靖門이라는 현판을 걸었다.

⑥ 惠化門

惠化門은 都城의 동북쪽에 위치한 도성 四小門(혜화문, 광희문, 창의문, 소의문) 중의 하나로서 太祖 5년(1396) 9월 都城의 創築과 함께 건설되었는데 이 때의 門名은 弘化門이었다. 그 후 成宗 15년(1484)에 昌慶宮을 건축하고, 그 東門(지금의 昌慶苑 정문)을 弘化門이라 하여 門名의 혼동이 일어나므로, 中宗 6년(1511)에 이르러 東小門을 惠化門으로 개칭하였다.

이 惠化門은 都城의 小門중의 하나이지만 大門에 못지 않는 기능을 갖고 있었으니 그것은 京元街道가 이 문과 연결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으로 통행했으며 또한 北大門인 肅靖門이 항상 폐문되어 있었으므로 東小門인 惠化門이 北大門의 역할까지 하였다. 현재의 위치로는 惠化洞 로터리에서 城北洞으로 넘어가는 언덕에 있었다.

東小門은 文宗 원년에 京畿·忠清·全羅道의 當領 水軍을 동원하여 都城을 수축할 때 약간 수리한 듯 하며, 英祖實錄 20년(1744) 8월 庚戌條에는 「惠化門은 전에는 門樓가 없었는데 御營廳에 命하여 건립하였다」라고 한 것이 있어 惠化門도 처음 건립 당시의 문루는 언제인가 없어졌고 石門만 남았던 것을 英祖 20년에 어영청에 하명하여 문루를 건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京城府史 제 1 권에 惠化門額의 후면과 측면에 각기 다음과 같은 문자가 새겨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後面 嘉慶二十一年丙子初一日重修
監督官 千起一 冶金直員 金成翊
計士 李浩豐 庫直 金光福
側面 己巳四月初一日 營建一坊 縣口所 金道鍾彩

嘉慶 21년은 純祖 16년(1816), 己巳는 高宗 6년(1869)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東小

門은 순조 16년에 중수하고, 고종 6년에 보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제가 조선을 합병한 후 일체 보수를 하지 않다가 1928년에 都市計劃이라는 명목으로 門樓가 헐리고 1939년에는 돈암동까지 전차노선을 연장한다고 하여 虹霓로 된 石門마저 헐려버려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이 동소문고개라는 고개 이름만 남아 있다. 서울특별시에서 이 문을 곧 복원할 계획이다.

⑦ 東望峯과 산신각

성북구 보문동 6가와 종로구 숭인동 사이 靑龍寺 앞에 우뚝 솟은 큰 봉우리를 「東望峰」이라 부른다. 朝鮮時代 端宗이 어린 나이로 숙부인 世祖에게 몰려 江原道 寧越로 귀양가 있을 때, 端宗王妃 宋氏가 그 서쪽 山麓 靑龍寺(淨業院)에 寓居하면서 매일 이 봉우리에 올라 동쪽으로 단종이 있는 영월을 바라다 보았다 하여 峯 이름을 東望峰이라 하였다.

英祖 47년(1771) 6월에 왕이 이곳에 거동하여 親筆로 쓴 「淨業院舊基」라는 碑를 세우고 이 東望峰上의 바위에도 「東望峰」 3자를 친필로 써서 새기게 하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동망봉의 동쪽 普門洞 6가 지역에는 「洞望山神閣」이 있어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가 되면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모아 마을의 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제사를 드린다. 산신각이 있는 곳은 단종이 영월로 귀양 가 있을 때 단종의 대비마마인 顯德王后 權氏(단종왕비 定順王后 宋氏의 誤傳인 듯)가 단종의 無事歸還을 기원하던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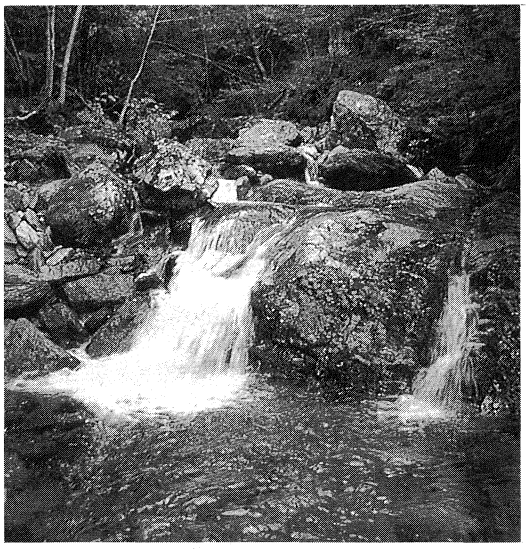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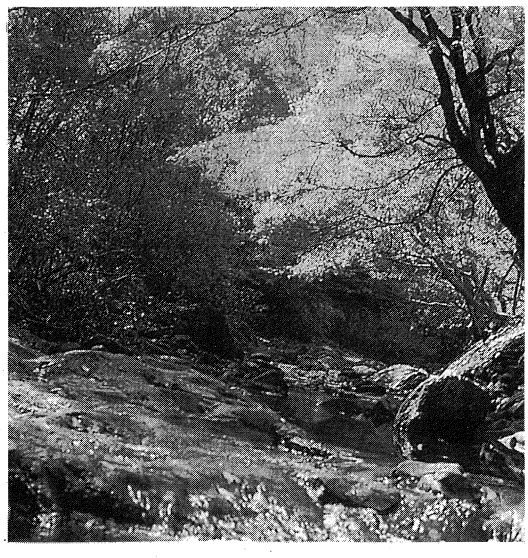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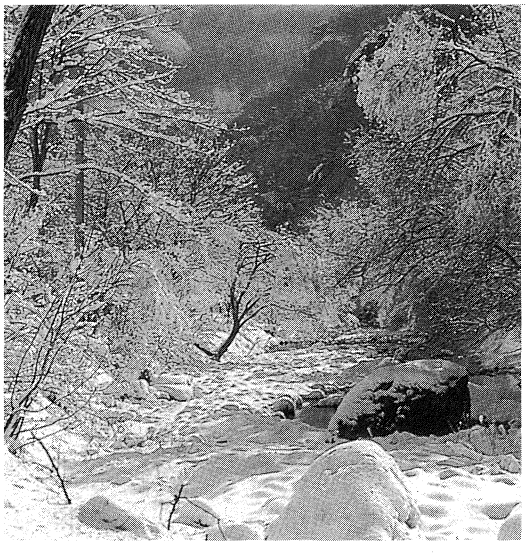
III. 名　　勝

1. 北漢山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경기도 고양시의 경계에 있는 높이 836m의 산으로 道峯山과 산세가 이어져서 종로구·성북구·서대문구·은평구·도봉구 경기도 고양시·의정부시에 걸쳐 있다. 최고봉인 白雲臺를 중심으로 북쪽에 仁壽峯, 남쪽에

萬景臺(國望峯)가 있어 三角山이라고도 한다.「新增東國輿地勝覽」漢城府條에는 이 산을 三角山으로 표기한 다음

楊州 경계에 있는데 華山이라고도 하며 新羅 때에는 負兒岳이라고도 하였다. 平康縣의 분수령에서 잇달은 봉우리와 첩첩한 산봉이 굴곡을 이루면서 구불구불 돌아 楊州 서남쪽에 와서 道峰山이 되고 또 三角山이 되니 실은 京城의 鎭山이다. 高句麗 東明王의 아들 沸流·溫祚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漢山에 이르러 負兒岳에 올라 살만한 땅을 찾은 곳이 바로 이 산이다.

北漢山의 四季

하였다. 이에 의하면 北漢山은 三角山으로만이 아니라 華山 또는 負兒岳으로 불리어졌으며 漢山은 山名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地名으로도 불리어졌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산은 깎아지른 듯 경사가 급하다. 산세가 웅장하고 기암 기봉이 솟아 일대에는 백운대·인수봉·만경대를 비롯하여 노적봉·상장봉 등 20여개의 높은 봉우리로 되어 있다. 또 계곡은 깊고 그윽하고 水石 또한 깨끗하여 洗劒亭계곡·三淸洞계곡·貞陵계곡·송추계곡·우이계곡 등 10여개의 계곡이 흐르는 勝景을 낳았다. 따라서 新羅·高麗·朝鮮 역대왕조를 거치는 동안 유서깊은 古刹이 곳곳에 들어섰으니 승려들은 조용히 塵世를 떠나 修道에, 뜻있는 志士와 선비들은 이곳에 은거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독서하는 생활에, 힘을 기울였다. 高麗 말기의 문호로 이름높은 牧隱 李穡의 三角山詩는 그러한 경지의 일면을 말하여 준다.

> 少年時節에 册을 끼고 절간 찾아 거처하는데,
> 돌 다리에 뿌리는 샘물소리 조용히 듣곤했다.
> 멀리 바라보니 서쪽 벼랑에 風光이 하도 밝은데,
> 두어마디 鐘 소리가 석양녘에 들려온다.

이 산의 지질은 중생대 말에 관입한 화강암이 지반의 상승과 침식작용으로 지표에 노출된 뒤 절리와 표면의 풍화작용으로 현재와 같이 산세가 험준하고 경사가 심한 암벽 봉우리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세 봉우리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上將峯, 남쪽으로는 釋迦峯·普賢峯·文殊峯 등이 있으며, 다시 문수봉에서 북서쪽으로 뻗은 羅漢峯·鷹峯 등의 줄기가 백운대 서쪽 줄기인 元曉峯 줄기와 만난다. 식생과 동물로는 미선나무군락·나도국선나무·백선나무 등 희귀식물이 분포하고 삵괭이·오소리·흰족제비 등 20여종의 포유동물과 홍방울새·찌르레기·쇠딱다구리 등 50여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북한산에는 나한봉에서 원효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에 숙종 37년(1711)에 축조된 연장 8km, 평균높이 713m의 石城인 北漢山城이 있다. 성 주위에 지리적 형편에 따라 크고 작은 14개의 문을 설치하였는데 성북구 정릉동의 북쪽으로 있던 대성문·보국문·청수동 암문중 大成門은 大西門·大南門·輔國門·龍岩門과 함께 지

금도 남아 있어 비록 옛 모습을 그대로 찾아볼 수는 없을지라도 그 옛날의 위용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북한산에는 많은 유물·유적지가 있어 碑峯 꼭대기에 北漢山新羅眞興王巡狩碑(국보 제3호)가 세워져 있고 그 밖에 북한산구기리마애석가여래좌상(보물 제215호)·太古寺圓證國師塔碑(보물 제611호)·태고사원증국사탑(보물 제749호)·東將臺址·重興寺址 등과, 사찰도 祥雲寺·元曉庵·津寬寺·僧伽寺·回龍寺·廣法寺·文殊寺·圓通寺·華溪寺·道詵寺 등 30여개나 있다.

북한산은 서울에 근접해 있으면서 자연경관이 뛰어나 1983년 4월 경관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道峰山 일대와 함께 약 40,000,000㎡에 걸쳐 北漢山國立公園으로 지정되었다. 교통이 편리하여 서울시민의 등산코스로 많이 이용되며, 특히 계곡에 물이 많고 산림이 우거져 야영지로 적당하다. 北漢山莊·牛耳山莊·道峰山莊·白雲山莊 등이 있어 등반객들의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고, 등산가들의 암벽등반 훈련장으로도 이용되고, 쾌적한 산책로를 갖추고 있다.

공원시설물로는 廣場 5개소 18,700㎡, 道路 4개소 2,200㎡, 등산로·산책로 29개로 102.1㎡ 야영장 32개소 88,100㎡, 정자·산장·대피소 9동 743㎡, 야외탁자 68개, 벤취 834개, 평면운동장 2개소 100㎡, 간이운동장 1개소 240㎡, 풀장 6개소, 탑·기념비 2개, 주차장 5개소 18,700㎡, 매점·식당 166개소, 화장실 19개소, 간이화장실 141개소, 공중전화 8개소, 飮水臺 水道栓 3개, 옹달샘 73개소, 관리사무소 7동, 펜스 철조망 2,575㎡, 公園燈 41개, 표지판 430개, 쓰레기 소각장 117개, 휴지통 633개 등을 갖추고 있다.

2. 貞陵溪谷

北漢山 連峰의 남쪽에 위치한 山水 풍경 좋은 「貞陵洞」은 그 남쪽 山麓에 朝鮮太祖의 繼妃인 神德王后의 陵인 貞陵이 있음으로 불리워진 이름이다. 卞季良이 貞陵 告遷祭文에서

> 물은 가늘게 흘러내려 커지고 山은 줄을 이어와서 감쌌읍니다.
> (水涓涓而演漾兮 山靡靡而盤紆)

라고 정릉의 위치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아늑한 境內에 山水가 回抱하여 風光이 明媚하며 일대에는 수림이 잘 조성되어 도성 士民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되었다.

貞陵에서 동북쪽으로 돌아 올라가면 奉國寺·慶國寺 등의 큰 고찰이 있어 깊고 그윽한 山谷門의 자연 풍경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데 돈암동 막바지에 있는 興天寺와 함께 모두 정릉의 願刹로 되어 있다.

慶國寺 입구 시내의 서쪽에는 오른쪽으로부터 崔遵禮先生之墓·郭夏園先生之墓·金仁先生之墓의 초라한 短碣이 서 있는 3位 묘소가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金九主席의 부인·어머니·장남의 묘소로서 광복후 임시정부의 환국과 함께 중국에서 移葬, 뜻있는 인사들의 참배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봉국사·경국사가 있는 곳을 지나서는 白岳과 白雲臺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기도 하지만 깊고 긴 溪谷을 따라 물은 맑고 돌은 희어 水石 좋기로 알려졌다. 더구나 北漢山城의 輔國門을 지나 白雲臺까지 등산로가 이어지는 오른쪽 골짜기에는 樹林이 우거지고 溪谷이 깊어 굽이굽이 들어가는 곳마다 돌이 패어 못을 이루고 넓은 바위 臺를 이루니, 어딜 가나 自然의 勝景이 아닌 곳 없는 天惠의 놀이터가 펼쳐져 여름철의 피서·목욕, 봄 가을의 登山·探勝하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지금은 서울 인구가 많고 이곳에 料亭·수영장 등 현대시설이 갖추어짐과 함께 유흥의 물결이 골짜기를 메워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손상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

偶丁 林圭의 「夏日貞陵途中」 詩는 도로가 불편한 당시의 이 명승지를 찾아가던 모습의 일면을 말하여 준다.

한 발걸음 옮길 때마다 긴 숨 한번씩 쉬는데,
가자고 독촉하니 가슴이 답답해진다.

땀은 줄줄 흘러 온 몸을 적시고,
몰려오는 티끌에 두 눈은 어두워진다.

한 그릇 물 마시며 童子의 예절 생각하고,
나무 그늘에 앉아 옛 사람 은혜 감사한다.

간신히 걸어서 貞陵 골짜기에 이르니,
숲 속에서 서늘한 바람 불어 정신을 맑게 한다.

※ 참고 및 인용 문헌

서울육백년사 1~5권. 문화사적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궐도, 문화재관리국, 1991.
문화유적총람 上, 문화재관리국, 197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27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울의 전통문화 1·2권, 서울특별시, 1982.
서울의 문화재, 서울특별시, 1980.
서울 명소고적, 김영상, 1958.
서울문화재대관, 서울특별시 올림픽준비단, 1987.
동명연혁고(Ⅷ) 성북구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3.
한국인명사전
국사대사전
서울문화,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1.
성북의 옛터와 명소, 성북구청, 1988.
내고향 城北, 성북구청, 1991.
공원현황, 서울특별시, 1991.
文化財大觀 史蹟편(增補), 문화재관리국, 1976.
澗松文華 31, 韓國民族美術研究所, 1986.
澗松文華 41, 韓國民族美術研究所, 1991.
文化財大觀 국보 1~2. 보물 1~6, 韓國文化財保護協會 編.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1988·90·91 지정편), 문화재관리국.
조선일보 10월 26일자 신문.

第13章 人 物

◎ **惠 居** ?~974(광종 25)

高麗 초기의 고승. 성은 朴氏, 초명은 智回. 16세에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그의 도가 높아지자 태조가 여러번 청하여 법문 듣기를 원하였으나 응하지 않다가 947년(정종 2) 왕사가 되었고 968년에는 국사가 되었다.

성북구 普門洞 3-51에 女僧房이 있는데 彌陀寺라고 한다. 彌陀寺記에 의하면 光宗 元年(950) 惠居大師가 창건하여 彌陀寺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그후 文宗 원년(1047) 石塔을 造成 奉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탑골승방」이라고도 불리어졌다. 다시 忠肅王 원년(1314)에 彗鑑國師에 의해 重建되었다. 朝鮮時代에는 端宗 때(1459년) 왕비 宋氏에 의해 중수되었고 純祖 원년(1801)과 憲宗 2년(1836)에도 중수하였다. 1969년 古峯禪師가 6차로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래는 지금의 경동고등학교 자리에 있었는데 日帝 때에 그 자리가 강제 헌납되어 현재의 위치로 절을 옮겼다. 주요건물로서 大雄殿·不二門·三聖閣·丹霞閣·石塔이 있다.

◎ **曇 眞** 생몰년 미상

高麗 睿宗 때의 國師. 성은 申氏, 자는 子正, 담진은 법명이다.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났으며 어려서 출가하여 爛圓의 제자가 되었다. 1068년(문종 22) 大選場에 응시하여 大德의 법계를 받았고, 난원이 입적한 뒤 역시 난원의 제자였던 義天의 법맥을 이었다. 숙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청하여 講主로 삼아 백일대회를 베풀었는데, 당시 청중이 수백명에 이르러 명성을 크게 떨쳤다. 1085년(선종 2) 왕명으로 의천을 수행, 宋나라로 가서 고승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으며, 귀국하여 의천이 續藏經을 판각할 때 그 교정을 맡아보았다. 1107년(예종 2)에 예종의 王師가 되었고, 1114년 왕이 奉恩寺에 행차했을 때 國師가 되었으며, 1116년 普濟寺로 행차한 왕에게 설법하고 상을 받았다.

華嚴學의 대가로서 一乘法을 선양하여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였다.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般若寺址에 元景王師碑가 현존하고 있으나 마멸이 심하여 판독하기 어렵다.

서울 城北區 普門洞 3-168에 普門寺가 있다. 고려 예종 10년(1115)에 담진국사가 창건한 比丘尼의 수련도장인 소규모의 암자였다. 이후 여러차례 重築 또는 改修가 있었다고 하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가, 朝鮮朝 肅宗 18년(1692)에 묘첨스님이 重建, 英祖 33년(1757)에 보찬·유봉스님이 大雄殿 修築, 純祖 26년(1826)에 정운스님이 左右僧堂을 改築, 憲宗 8년(1872)에 영전스님이 다시 大雄殿 수축·萬歲樓 건립, 高宗 9년(1872)에 금훈스님이 左右僧堂 수축, 1930년에 긍탄스님이 左右僧堂 수축·觀音殿 신축하였다. 그후 1945년 광복과 더불어 주지를 맡은 宋恩榮스님이 사찰을 크게 확장하여 三聖閣·選佛場·山靈閣·大鐘 및 梵鐘閣·極樂殿·普光殿·十王殿 등이 1970년까지 25년에 걸쳐 신축되었다.

비구니사찰로 꾸준히 발전한 보문사는 1972년 宗祖를 佛陀의 姨母 大愛道尼로, 所依經典을 觀音經으로 하여 '多聞에 의하여 지혜를 밝히고, 思惟에 입각해서 모든 事理를 바르게 簡擇決了하며 實踐躬行에 따라 佛性을 陶冶함'을 宗旨로 삼고 大韓佛教 普門宗을 창립, 오늘에 이르고 있다.

◎ **萬 恒** 1249(고종 36)~1319(충숙왕 5)

고려말의 고승. 조계산 修禪社 제10세 국사이다. 성은 朴, 본관은 態津, 進士 景升의 아들로 儒家의 집안에 태어나 어려서 중이 되어, 九山選에 응시 장원하였으나 名利를 버리고 금강산·지리산으로 다니면서 한벌의 옷만을 갖추고 하루 한끼를 먹으면서 눕지도 않고 수도에 전념하였다. 충렬왕의 명을 받고 三藏社에 머물렀고 후에 朗月社·雲興社·禪源社의 주지를 역임하면서 經文을 지도하고 교수하였는데, 제자가 700인에 이르렀고 사대부로서 진사가 되어 入社한 자도 많았다. 吳나라의 화상 德異는 만항의 글과 偈頌을 칭찬하여 古潭이라는 호를 주었으며, 수십차례 서간과 게송을 주고 받았다. 1313년(충선왕 5) 왕이 永安宮에 고승들을 모아 날마다 불법을 강론하게 하였을 때, 그를 극진한 정성으로 초빙하여 禪法을 강설하게 했으며, 충숙왕으로부터 '別傳宗主重續祖燈妙明尊者'의 법호를 하사받았

다. 그리고 가사와 의복, 銀 50근을 보시받았으나 松廣寺로 돌아와서 모두 절에다 내놓았다. 1319년 8월 18일 대중이 보는 앞에서 禪床에 올라 臨終偈를 남기고 두 손을 마주잡은 채 미소하며 입적하였다. 이때 나이는 71세, 법랍 58세였다. 왕이 그의 부음을 듣고 慧鑑國師라는 시호를 내리고 塔號를 廣照라 하였다.

성북구 보문동 3-51에 위치한 彌陀寺는 1047넌 惠居國師에 의해 창건되었는데, 1314년(충숙왕 원년) 慧鑑國師가 2차로 重修하였다. 이절은 현재 比丘尼들만의 수련도장으로 되어 있다.

◎ **懶 翁** 1320(충숙왕 7)~1376(우왕 2)

高麗 말의 고승. 彗勤이라고도 쓴다. 성은 牙氏, 속명은 元惠, 호는 懶翁 또는 江月軒이며 善官署令 瑞具의 아들이다.

21세 때 공덕산 妙寂庵에 있는 了然禪師를 찾아가 출가, 그뒤 전국의 이름있는 사찰을 편력하면서 정진하다가 1344년(충혜왕 5) 양주 천보산 檜巖寺에서 大悟하였다. 1347년(충목왕 3) 元나라로 건너가서 燕京 法源寺에 머물면서 4년 동안 인도승 指空의 지도를 받으며 지내다가 1350년(충정왕 2)에 그의 곁을 떠나 平江府 休休庵에서 한철을 보냈고, 다시 慈禪寺의 處林을 參見하여 그의 법을 이었다. 이듬해 溟州의 補陀洛伽山에서 관음보살을 친견하고 育王寺에서 석가모니상을 예배하였다. 1352년에는 伏龍山의 千巖長을 찾았다. 그의 소문을 들은 원나라 順帝는 연경의 廣濟禪寺 주지로 임명하였고, 1356년 10월 15일에는 開堂法會를 가졌다. 순제는 金襴袈裟를 하사하고 지극한 예우로써 우대하였으나 순제의 만류를 무릅쓰고 주지직을 내놓은 뒤 다시 지공을 찾아갔다가 공민왕 7년(1358) 귀국하였다.


懶翁 진영

귀국 후 오대산 象頭庵에 은신하였으나 공민왕과 태후의 간곡한 청에 의하여 잠시 神光寺에 머물면서 설법과 참선으로 후학들을

지도하였다. 그뒤 功夫選의 試官이 되었고, 1361년부터 용문산·원적산·금강산 등지를 순력한 뒤 회암사의 주지가 되었다. 1371년 왕으로부터 금란가사와 內外法服·바리를 하사받고 王師大曹溪宗師禪敎都摠攝勤修本智重興祖風福國祐世普濟尊者에 봉해졌다. 1373년 無學에게 法을 이어 주었으며, 1376년(우왕 3)에는 文殊會를 열어 크게 법명을 떨쳤다.

나옹은 正道가 혼침된 고려말의 불교계에 習定均慧와 勤修·지혜로써 성불의 가능성을 보여준 고승으로서, 철저한 不二思想의 토대 위에서 禪을 이해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그의 〈歸依自心三寶〉의 주장과 "염불은 곧 참선"이라고 한 것은 이후의 우리나라 선종에서 계속 전승되었다. 戒律觀에서도 三歸依가 아닌 四歸依를 주장하고 있는 바, 戒目으로는 ① 受淨信四歸依, ② 懺除諸三業罪, ③ 發弘誓六大願, ④ 最上乘無生戒로 나누어져 있다.

나옹은 고려말 普愚와 함께 조선시대 불교의 초석을 세운 위대한 고승으로 평가받고 있다. 왕명으로 密陽 瑩源寺로 옮기던 중 5월 15일 나이 56세, 법랍 37세로 여주 신륵사에서 입적하였다. 李穡이 글을 지어 세운 비와 부도가 회암사와 신륵사에 있다. 제자로는 自超·智泉 등 2,000여명이 있으며, 저서로는 《懶翁和尙語錄》 1권과 《歌頌》 1권이 전한다. 시호는 禪覺이다.

한편 나옹이 신이 도운 인물이라고 하는 說話가 있는데, 문헌설화는 〈나옹화상행장〉에 부분적으로 언급이 있고, 출생에 관한 부분은 《영해군읍지》에 자세히 실려 있다. 나옹의 행장에서는 나옹이 태어날 때 상서로운 기운이 있었다고만 했는데, 출생지인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현지의 구전에 의하면 가난해서 나라에 세금을 바치지 못해 어머니가 관가에 잡혀가는 도중에 태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무도한 관속들이 계속 어머니를 끌고 가자 핏덩이인 채로 거기 버림받았던 아이를 날짐승이 날개로 덮어 주어 살아났다. 열살쯤 되었을 때, 외를 동냥하러 온 스님을 따라 나서서 출가를 했다. 득도해서 자기 고장을 떠나면서 지팡이를 꽂고, 지팡이가 나무로 자라나 가지가 무성하면 자기가 살아 있는 줄 알라고 하였다. 그 나무가 지금 영덕군 창수면 신기리에서 반송으로 크게 자랐는데, 최근에는 시들기 시작해서 나옹이 이제 죽었다고들 한다.

성북구 貞陵 2동에는 奉國寺가 있다. 이 절은 고려 恭愍王 3년(1354)에 왕사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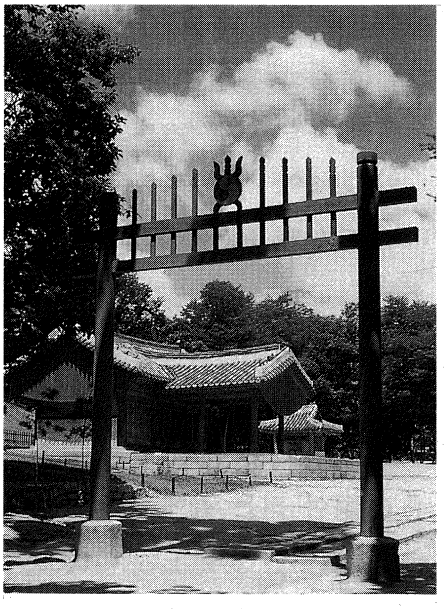
옹대사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法殿의 12大願을 안에 藥師如來像을 봉안하였음으로 하여 藥師寺로 이름하였는데, 조선 顯宗 10년(1669)에 절 남쪽에 있는 神德王后의 貞陵을 修封하고 제사드리면서 이 절을 願刹로 하고 이름을 奉國寺로 고쳤다.

◎ **神德王后** ?～1396(太祖 5)

城北區 貞陵洞은 朝鮮 太祖 李成桂의 제2왕비 神德王后 康氏의 陵인 貞陵(사적 제208호)이 있으므로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神德王后의 貞陵은 처음에는 都城 안인 지금의 중구 貞洞에 있었으나 太宗 9년(1409)에 이곳으로 이장하였다. 그러므로 貞洞의 지명도 貞陵이 있다하여 貞陵洞이었으나 후에 貞洞으로 약칭된 것이라고 한다.

神德王后는 본관이 黃海道 谷山 判三司使 康允成의 딸이다. 신덕왕후 康氏는 어려서부터 비범하고 정숙하며 지혜가 있었다. 康氏에 대한 일화로 다음과 같은 것이 전해온다.

집이 谷山郡의 深山中인 雲中面의 龍峰洞이었는데, 왕비 康氏가 처녀시절에 집 앞 龍淵물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청년장군 李成桂를 만나게 되었다. 말을 달리며 사냥을 하던 李成桂가 목이 말라서 못가를 찾아 물을 먹으려고 하자 康氏는 바가지에 깨끗한 물을 떠서 버들잎을 띄워 올렸다. 李成桂가 이상히 여겨 그 이유를 물으니, 康氏의 말이「보아하니 口渴이 심한 것 같은데, 급히 물을 마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버들잎을 불면서 천천히 마십시오.」하는 것이었다. 李成桂가 처녀의 예지에 감동하여 그 집을 찾게 되었으며 아내로 맞이하게 되니 그가 곧 太祖의 제2왕비인 神德王后였다. 후에 雲中面 林溪里 왕후의 집 옛 터에는 正祖御筆의「聖后私第舊基」6자를 새긴 碑石을 세우기도 하였다.



貞 陵

이러한 신덕왕후가 집권거사에 참여하여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뒤 계비가 된 배경에는 신천강씨의 권문세족으로서의 위치도 컸다고 하겠다. 아버지 允成과 작은

아버지 允忠·允暉 형제들은 충혜왕·공민왕 때 재상권문가로서 세도를 떨쳤다. 한편, 윤휘의 아들인 上將軍 祐는 李成桂의 큰아버지인 雙城摠管府의 쌍성만호 子興의 사위로서 두 집안은 겹사돈관계에 있었다. 고려 말기 권문세족의 배경을 가진 康妃는 李成桂의 둘째 부인으로, 위화도회군을 할 당시에는 포천 鐵峴의 田莊을 맡아 살림을 따로하고 있었다. 이때 변고에 대비하여 일가족과 함께 동북면으로 피하여 이천에 있는 韓忠의 집에서 머물렀다.

李成桂가 위화도회군한 후 朝鮮이 개국되자 1392년 8월에 顯妃로 책봉되었는데, 새 왕조를 개창할 무렵 제1왕비인 神懿王后 韓氏는 이미 세상을 떠났던 때이라 重臣과 太祖와의 사이에서 開國 始政의 일을 하는데에 신덕왕후가 교량의 역할을 하여 太祖의 신임은 말할 것도 없고 중신들도 높이 받들었다.

신덕왕후는 太祖 5년 8월 13일 判內侍府事 李得芬의 집에서 승하하였는데, 太祖는 매우 슬퍼하여 朝會와 市廛을 10일간 정지하고 白衣로 친히 나가 陵地까지 구하였으며, 康妃의 존호를 神德王后, 능호를 貞陵이라 정하였다. 陵地는 처음 安岩洞으로 정하였다가 지금의 貞洞에 정하였다. 개국공신들의 헌의로 국모를 높이는 뜻의 功臣守陵制를 채용하여 조선의 恒式으로 삼았고, 개국공신 李舒로 하여금 수릉직을 맡게 하였다. 그런 뒤 忌祭를 맞아 경복궁 내에 康妃의 처소를 仁安殿으로 정하고 영정을 봉안하였다가 이듬해 9월 정릉에 影閣을 지어 옮겼다. 1399년(定宗 1) 기일에 興天寺를 願堂으로 삼아 제사할 때 太祖도 참례하였고 그 후에는 자주 行幸하였다.

이 貞陵이 지금의 성북구 정릉동으로 옮겨진 것은 태상왕(태조)이 사망한 후 1409년(태종 9) 2월의 일로, 遷陵의 이유로는 議政府에서 올린 상소에

> 옛날의 帝王 陵墳이 모두 都城 밖에 있는데 지금 貞陵은 유독 城內에 있으니 未便합니다. 이곳은 또한 중국의 사신이 머무는 太平館(지금의 西小門洞에 소재)이 가까우니 城外 沙乙閑里로 옮김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여 의논 끝에 실천한 것이라고 太宗實錄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는 太祖의 제1비인 神懿王后 韓氏 소생의 왕자가 6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인 神德王后 康氏 소생의 제8왕자 芳碩을 세자로 책봉한데(제1차 王子의 亂의 원인) 대한

靖安君 芳遠의 私感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뒤 다시 한강 남쪽 鞏縣의 뒤에 이장하여 왕비의 제례를 폐하고, 봄·가을 中月祭로 격하시켰으며, 1412년 기제는 서모나 형수의 忌辰祭의 예에 따라 3품관으로 제사를 대행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 존재조차 인식치 못하던 중 宣祖 때에 이르러 國墓奉祀者의 軍役 면제에 따른 혜택을 보고자 하는 친정후손에 의해 소재파악이 시작되어 卞季良의 移葬祝文에서 그 위치를 겨우 찾아내 寒食節 제사만 지내오다가 顯宗 10년(1669) 판중추부사 宋時烈 등의 啓請에 의해 神德王后를 宗廟에 배향하고 본격적인 陵墓의 복구작업을 하게 되었다. 沙乙閑里 遷移 후 260여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본연의 面貌와 禮遇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神德王后는 소생으로 왕자 芳蕃·芳碩과 敬順公主를 두었다.

◎ **自 超** 1327(충숙왕 14)~1405(태종 5)

高麗말 朝鮮초의 중. 호는 無學·溪月軒, 성은 朴. 추증된 崇政大夫 門下侍郎 仁一의 아들이다. 1327년(忠肅王 14) 경상도 三岐(陜川郡)에서 태어나서 18세 때 小止禪師에게 중이 되어 具足戒를 받고 慧明國師에게서 불법을 배운 뒤 鎭州의 吉祥寺, 妙香山의 金剛窟에서 수도한 다음 1353년(恭愍王 2)에 元나라 燕京에 유학하였다. 이때 연경에는 고려 말엽의 명승인 懶翁이 가 있던 중이어서 대사는 指空禪師와 나옹에게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1356년 귀국했다. 그후 1373년(공민왕 23) 왕사가 된 나옹의 法을 이어 받았고 1376년(禑王 3)에는 나옹이 그를 왕사로 추천하였으나 이를 사양하였다.

朝鮮 太祖인 李成桂가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 安邊 釋王寺절에 묵었는데 꿈에 한 노인이 쇠지팡이로 태조의 머리와 허리와 발 세곳을 찔러 꿰뚫는 것이었다. 또 거울이 깨지고 꽃이 떨어지는 꿈도 꾸었다. 그가 몹시 괴이적게 여겨서 강원도 伊川에서 토굴을 파고 수도하고 있는 무학대사를 찾아가 그 꿈의 길흉에 대한 해몽을 청함에, 일어나 크게 절하며 고려에 이어서 조선의 임금이 될 꿈이라고 하였다. 이에 태조가 대사와 함께 가기를 청하니 대사는 이천 토굴에서 나와서 태조와 함께 일단 석왕사에 이른 다음 文川 永興 咸興 등지를 두루 돌며 名山 吉地를 얻어 조상을 親山에 緬禮하여 모셨다.

1392년 朝鮮 開國 후 王師가 되어 大曹溪宗師禪敎都摠攝 傳佛心印辯智無碍扶宗樹敎弘利普濟都大禪師 妙嚴尊者의 호를 받고 檜巖寺에 눌러 있었으며, 그 다음해에 수도를 옮기려는 태조를 따라 鷄龍山 및 漢陽을 돌아다니며 마침내 漢陽으로 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397년(태조 6) 왕명으로 그의 壽塔이 회암사 북쪽에 세워지고, 1402년(태종 2) 회암사 監主가 되었으나 이듬해 사직하고 금강산 金藏菴에 가 있다가 죽었다.

朝鮮王朝實錄의 太祖實錄 2년 1월 21일조에 「上 發松京 欲親見 鷄龍山形勢 將定都令三司事 安宗源……從之」「過檜岩寺 請王師自超以行」이라고 되어 있으며 2월 11일조에 「駕登 新都中心高阜 周覽形勢 問王師自超 以不能知對」라고 되어 있는바, 이때 대사는 "알지 못하므로 능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대답함으로써 그곳이 도읍터가 될 만한 곳이 못된다는 것을 완곡히 일깨워 준 것이다.

그리하여 태조는 한양 北岳 아래 두곳에 마음을 두고 이를 친히 살피려 할 때 먼저 대사와 함께 도읍터를 살폈는데, 태조의 "북악 아래를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사면이 높고 빼어났으며 그 한가운데가 평퍼짐하니 도읍이 될 만한다. 그러나 중의에 따라 정하라"고 대답함으로써 계룡산 때와는 달리 은근한 중에 한양 북악을 적극 추천하였다. 이 의견에 좇아 그날로 무악을 주장하는 河崙을 제외한 모든 신하들이 찬성을 표하는 가운데 한양정도는 결정을 보았다.

城北區 安岩洞 5가 157번지에 太祖 5년(1396) 王師 無學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 大韓佛敎 曹溪宗의 開運寺가 있다. 大雄殿을 중심으로 앞의 開運寺 현판이 걸린 큰 방과 大賢樓를 위시하여 應眞殿·山靈閣·鍾閣 등의 많은 건물이 있어 앞의 총총히 들어 선 民家와 경계를 連接한 곳에 一境의 佛家 道場을 이루었다. 無學은 安岩山 기슭 지금의 高麗大 理工大 부근에 이절을 창건하고 寺號를 永導라 하였는데 正祖 3년(1779) 5월에 元嬪 洪氏가 세상을 떠나자 그 부근에 묘소를 정하고 이름을 永明園이라 함에, 절이 園墓에서 가깝다 하여 현재의 곳으로 옮겨 짓고 이름도 開運寺로 바꾸었다.

한편 성북구 안암 5동 34-5의 안암동 4거리를 기점으로 하여 제기동·용두동·상왕십리동을 남북으로 종단, 왕십리길과의 교차점인 성동구 무학국민학교 앞까지에 폭 25m, 길이 2,000m에 달하는 도로가 있는데 이는 조선 개국초에 이 도로의

종점지역인 왕심벌지역에 도읍지를 물색하려고 地相을 보러 다니던 무학대사를 인용하여 도로명을 붙인 것이다.

「漢京識略」에 "남산 꼭대기에 國師堂이 있는데 이것이 곧 木覓神祠인 것이다. 사당 안에 畫像이 있는바 일반이 전하여 이르기를 神僧 無學像이라 한다. 목멱신사에서는 해마다 봄·가을 두차례 醮祭(星辰祭)를 지내는데 그때 사당안에 뫼시어 있는 화상은 그 옆 池閣으로 옮기어 놓는다"라고 하였고 「朝鮮人物古今誌」에도 "지금도 서울 木覓山 위에 당을 설치하고 無學을 모시고 國師堂이라 한다. 많은 서울 사람들이 날마다 사당을 찾아가서 복을 빈다"고 되어 있어 서울 장안 사람들이 오랜동안 무학대사를 끔찍이 여겨 왔음을 알 수 있다.

저서에 《印空吟》이 전한다.

◎ 朴 訔 1370(공민왕 19)~1422(세종 4)

고려말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潘南. 자를 仰之, 호를 釣隱이라 한다. 고려조 말기의 학자인 判典校寺事 尙衷의 아들이며 牧隱 李穡의 사위로서 학문과 덕행 있는 인물로 널리 알리어졌다.

門蔭으로 判崇福都監事를 받은 뒤, 1385년(우왕 11) 16세의 나이로 內科에 급제하여 權知典校寺校勘·厚德府丞을 거쳐 1391년(공양왕 3)에 通禮門副使, 이듬해 開城府少尹에 이르렀다.

조선왕조 개국후 知錦州事·左輔闕·知永州事·司憲侍史·知春州府事·司憲中丞·判司水監事를 지내고 1400년(정종 2)에는 知刑曹事를 지냈는데, 태종의 潛邸시절에 서로 의기가 통하여 친근하게 지냈으며 태종조에는 순조롭게 벼슬길을 달렸으니, 1394년 지영주사로 있을 때 太祖의 다섯째아들 芳遠에게 충성할 것을 약속, 1398년의 戊寅靖社, 즉 제1차 왕자의 난 때에는 지춘주사로서 방원의 집권을 위하여 지방군사를 동원하였고 1400년의 제2차 왕자의 난에서도 역시 방원을 도와 공을 세워 그해 방원이 왕세자가 됨에 世子左輔德으로 그를 보필하고 左散騎常侍에 오른다. 1401년 太宗 즉위 후 중용되어 형조·호조·병조·이조의 典書를 두루 역임하고 佐命功臣 3등으로 潘南君에 봉해졌다.

그뒤 江原道都觀察黜陟使·漢城府尹·承樞府提學을 역임하고, 1406년(태종 6) 전

라도관찰사로 있을 때는 제주도의 銅佛을 구하러 온 明使를 예의로 잘 접대하여 칭송을 받았으며, 이듬해에 進香使로서 명나라에 다녀온 뒤 參知議政府事 겸 대사헌을 거쳐 이어 형조판서에 옮겼다가 1409년에는 西北面都巡問察理使 겸 평양부윤으로 평양성 축성을 마쳤다. 이어 知議政府事·병조판서·대사헌·호조판서를 역임하고 1412년에는 관향인 반남이 나주에 속하게 되어 錦川君으로 개봉되었으며, 兼判義勇巡禁司事가 되었는데 이때 訊杖의 定數가 없음을 보고 왕께 말하여 1차에 30으로 정하여 합리적인 형정제도를 시행하였고, 1414년 이조판서 때에는 考功 행정제도를 개선하였고 이듬해에는 47세의 나이로 우의정이 되어 少年入閣의 예에 들게 되었으며 이어 1416년(태종 16) 우의정 겸 修文館大提學으로 錦川府院君에 진봉되고 좌의정 겸 判吏曹事에 올랐다.

忠寧大君이 세자로 책봉될 무렵부터 沈溫과 대립, 1418년(세종 즉위년) 심온의 옥사 때에는 심온의 반대되는 입장에서 관여하였다는 세평을 듣고 있다. 1421년 병으로 좌의정을 사직하고 이듬해 죽었다. 문과 초시에서 講經을 채택하도록 강력히 주장 시행하도록 하였으니, 초시에 製述을 주장하는 權近·卞季良의 학통과 다르다. 시호는 平度.

이토록 內外 高位職을 많이 역임하였음에도 그는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고 家産을 생각하지 않아 자신도 조밥과 거친 옷으로 自足하는 생활을 하였다. 하루는 太宗이 私服 차림으로 그의 집을 찾았는데 마침 조밥 식사를 하다가 재채기가 나서 곧 나와 손님을 맞이하지 못함에 오랫동안 문 밖에 서 있던 태종의 안색이 자연 좋지 않았다. 이를 송구스러워 하며 사실을 말하자 태종은 놀라 믿지못하고 「경이 재상의 지위에 있으면서 조밥을 먹는다니 말이 되는냐?」면서 사람을 시켜 안으로 들어가 알아보게 하였는데 사실이어서 이때 태종은 감탄하며 특별히 명하여 동대문 밖의 북바위 부근의 논·밭(鼓岩田) 몇 마지기를 주게 하였다고 한다. 이 鼓岩田은 현재 성북구 안암동 1번지 부근에 있었다.

◎ **定順王后** 1440(세종 22)~1521(중종 16)

朝鮮 제6대왕 端宗의 정비. 礪山 宋氏, 부사 繼生의 증손녀이고 知中樞院事 復元의 손녀이며 判敦寧府事 玹壽의 딸이다. 성품이 공손하고 검소하며 孝友가 있어

가히 종묘를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인물이라 하여 1453년(단종 1) 간택되어 이듬해 정월 22일 왕비에 책봉되었다.

1455년 세조가 즉위함에 따라 懿德王大妃에 봉해졌으나 이듬해 成三門·朴彭年·河緯地 등 사육신의 단종복위운동으로 1457년 단종이 魯山君으로 강봉되어 영월에 유배되자 夫人으로 강등되어 현재의 성북구 보문동 6가와 종로구 숭인동 사이 青龍寺(淨業院)에 우거하면서 매일 그 앞의 우뚝 솟은 산봉우리에 올라 동쪽 단종이 있는 寧越을 바라 보았다 한다. 그리하여 이 봉우리 이름을 東望峯이라 한다. 世祖實錄에 의하면 단종은 세조 3년(1457)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고 간단히 기록되어 있다. 1771년(영조 47) 6월 왕이 이곳에 거동하여 단종비 宋氏가 머물렀던 동망봉 밑의 僧房에 친필로 쓴 「淨業院舊基」라는 비를 세우고 동망봉 위의 바위에도 「東望峯」이란 3자를 친필로 새겼다고 한다. 지금 동망봉 글자의 흔적은 찾을 수 없지만 보문동 6가의 주민들은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에 東望山神閣에서 마을의 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제사를 지내고 있다. 송씨는 1521년 6월 4일 82세로 작고할 때까지 동망봉 밑 정업원에서 지냈고 승하하자 大君夫人의 예우로 양주에 初葬하였다.

1698년(숙종 24) 노산군이 단종으로 追復되자 다시 정순왕후로 추복되고 그 신위가 창경궁에 옮겨졌다. 능은 思陵이며 楊州 남쪽 군장리에 있다. 사적 제209호이다.

◎ **吳泰周** 1668(현종 9)~1716(숙종 42)

朝鮮 후기의 문신·서예가. 본관은 海州, 자는 道長, 호는 醉夢軒. 판서 斗寅의 아들이다. 1679년(숙종 5) 12세의 나이로 현종의 딸인 明安公主와 결혼하여 海昌尉에 봉해졌고 明德大夫의 위계를 받았다. 그뒤 光德大夫로 進階되었고, 오위도총부 도총관·造紙署 提調·歸厚署 提調 등을 역임하기도 하였으나 1689년 禧嬪 張氏의 아들을 世子(뒤에 景宗)로 책봉하려는 숙종과 남인에 대하여 노론의 宋時烈 등과 반대운동을 일으키다가 일시 삭탈관직되었으며, 얼마 후 왕명에 의해 직첩이 환급되었지만 그뒤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서예를 즐겼다.

글씨를 잘 썼는데, 특히 예서에 능하여 1712년에는 청나라 사신이 국왕과 대신

의 시가 담긴 병풍을 원하자 그것을 書寫하기도 하였고, 왕실의 玉册과 神板·幽誌 등을 많이 썼다. 또한 시문에도 능하여 숙종의 많은 총애를 받았다. 전하는 묵적으로는 행서체의 간찰이 다소 있고 금석문으로 吳斗寅石碑 등이 있다. 시호는 文孝이다.

城北區 鍾岩1동에 그의 묘와 부인 明安公主의 묘가 있다. 이곳을 지금의 숭례국민학교를 분기점으로 하여 학교의 앞쪽을 「큰해창」, 뒤쪽을 「작은 해창」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吳泰周가 明安公主와 결혼하여 海昌尉에 봉해졌음에 그의 묘가 있다하여 불리는 이름이다.

◎ **景 宗** 1688(숙종 14)~1724(경종 4)

朝鮮 제20대 왕. 재위기간 1720~1724. 이름은 昀, 자는 輝瑞. 숙종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禧嬪 張氏이고, 妃는 沈浩의 딸 端懿王后, 계비는 魚有龜의 딸 宣懿王后이다.

1688년 10월 28일 昌慶宮 就善堂에서 숙종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희빈 장씨에게서 태어나 1689년(숙종 15) 元子로 정호됨에 노론인 영수 宋時烈이 그 尙早論을 주장하다가 사사되고, 숙종의 정비로 희빈 장씨를 추천했던 閔妃는 폐출되었다. 이듬해 세자로 책봉되고, 생모 희빈 장씨는 왕비로 책봉되었으나 1694년 다시 희빈으로 격하되었다가 1701년 사사되었다. 이때부터 세자는 질환이 있었으며, 1717년 숙종은 세자의 多病無子를 걱정하여 몰래 李頤命을 불러 세자의 이복동생인 延祁君(뒤의 영조)을 후사로 정할 것을 부탁하였다. 또한 그해에 世子 代理聽政을 명받자 소론측에서는 이를 세자의 흠을 잡아 바꾸려 하는 것이라 하여 반대, 이로부터 그를 지지하는 소론과 연잉군을 지지하는 노론간에 당쟁이 격화되었다.


懿 陵

즉위한 이듬해인 1721년(경종 1) 그의 多病無子함을 이유로 建儲의 논의가 일어, 앞서 숙종으로

부터 연잉군을 부탁받은 영중추부사 이이명과 더불어 영의정 金昌集, 좌의정 李健命, 판중추부사 趙泰采 등 노론측은 연잉군을 世弟로 책봉하도록 하였고, 이어서 집의 趙聖復으로 하여금 세제에게 대리청정하게 하는 疏를 올리게 하자 소론측에서는 왕의 보호를 명분으로 크게 반발, 철회시켰다. 그해 12월 金一鏡 등은 세제 대리청정을 제기한 조성복과 이를 봉행하고자 한 이이명·김창집·이건명·조태채 등 노론4대신을 왕권교체를 기도한다고 모함하여 축출하고, 소론정권을 수립하는 환국을 단행하였다. 이어 1722년 3월에는 노론일파가 왕을 시해하고자 모의하였다는 睦虎龍의 告變으로 소론일파의 의도대로 노론4대신을 비롯한 관련자 50여명을 처형하고, 그밖에 170여명의 유배 또는 연좌되어 처벌을 받았다. 이 신임사화로 노론을 일망타진한 소론은 그의 재위기간에 정권을 전횡하였다.

소론이 집권하자 1722년 金壽龜·黃昱 등의 상소에 따라 1717년에 관작을 추탈당한 소론의 영수 尹拯과 그의 아버지 尹宣擧의 官職贈諡를 회복시키고, 그해의 흉작으로 각도의 年分事目을 개정하여 전세율을 낮추었으며, 3남지방의 量田에 民怨이 있다하여 시정하였다. 1723년에는 긴급한 일이 있어 왕이 중신을 부를 때 발급하는 命召通符를 개조하였고, 서양의 水銃器(消火器)를 모방하여 제작하게 하였다. 또, 관상감에 명하여 서양의 問辰鐘을 제작하게 하고 獨島가 우리의 영토임을 밝혀주는 내용을 담은 南九萬의 《藥泉集》을 간행하였다. 1724년에는 서원에 급여한 田結의 환수를 의논하였다.

1724년 8월 25일 昌慶宮 環翠亭에서 승하하였는데, 세자 때부터 신변상으로나 정치상으로 많은 수난과 곤욕을 겪었으며 재위 4년간 당쟁이 절정을 이룬 가운데, 신병과 당쟁의 와중에서 불운한 일생을 마친 것이다. 그해 12월 16일 東部 仁昌坊 石串里, 현재의 성북구 석관동에 葬于本陵하였다. 懿陵으로 사적 제204호이다.

◎ **宣懿王后** 1705(숙종 31)~1730(영조 6)

宣懿王后 魚氏는 朝鮮 景宗의 繼妃로 본관은 咸從이며 咸原府院君 領敦寧府事 有龜의 딸로서 肅宗 31년 10월 29일 탄생하였다.

1718년(숙종 44) 14세의 나이로 世子嬪에 책봉되어 嘉禮를 올렸고, 1720년 경종

이 즉위하자 왕비가 되었다. 1722년(경종 2) 왕비책봉에 백관의 축하를 받았으며, 1726년(영조 2) 敬純王大妃라는 존호를 받았다. 英祖 6년 6월 29일 26세의 나이로 慶熙宮 魚藻堂에서 승하하자 시호를 宣懿라 하고 휘호를 孝仁惠穆이라 하였으며, 10월 19일 景宗과 같은 장소에 陵域을 조성하였다.

매사에 익숙하였고 온유하였으며 소생은 없다. 誌文은 판부사 李宜顯이 짓고 능은 懿陵이다. 의릉은 史蹟 제204호이며 城北區 石串洞 산 1-5에 소재하는, 조선 제20대 왕인 景宗과 계비 宣懿王后 魚氏를 모신 雙陵이다.

◎ **尹用求** 1853(철종 4)~1939

문신이며 서화가이다. 본관은 海平. 자를 周賓, 호를 石村·海觀·睡幹·獐位山人이라 했으며, 府使 會善의 아들로 태어나 南寧尉 宜善에게 입양되었다.

1871(고종 8) 直長으로 庭試文科에 丙科로 급제한 다음 檢閱을 지내고, 禮曹·吏曹判書에 이른 다음, 1895년 을미사변 이후로 法部·度支部·內部 등의 大臣으로 10여회 拜命받았지만 모두 거절하고 獐位山 밑에 은거하며 '장위산인'이라 자호하였다. 韓日合邦 후에 日帝가 男爵을 수여했으나 거절하였다. 서화와 거문고, 바둑으로 自誤하며 두문불출, 세사를 멀리하였다. 글씨는 해서·행서를 많이 썼으며 그림은 난과 대를 잘 그렸다. 금석문으로 과천의 〈文簡公韓章錫神道碑〉와 廣州의 〈宣城君茂生李公神道碑〉가 있으며 전라남도 선암사 입구의 降仙樓 현판 등을 남겼고, 한편 그림으로는 〈竹圖〉(개인소장)와 〈墨竹〉(간송미술관 소장) 등이 있다.

城北區 長位洞의 농토는 대부분 尹判書(石村 尹容永)와 그 친척들의 소유였는데 1960년경부터 尹氏家에서 매도하고 또 개척되어 현재는 주택가로 밀집되었다. 장위동 주민들은 石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즉 尹判書가 南寧齋에 은거해 있을 때 현 장위동 91번지에 동구다리가, 현 76번지에는 징검다리가, 또 南寧齋 문밖에는 큰 섬돌이 하나 있었는데 이 다리는 당시 官職의 高下에 따라 下馬하는 곳이었으며, 또 죄인이 장위동에 잠입했을 경우나 장위동 사람을 잡으러 왔을 경우 尹判書의 허락없이는 체포할 수 없었다 한다.

南寧齋는 장위동 76번지 59호에 있는 건평 107평, 대지 759평의 韓屋이다. 이 한옥은 조선시대 말 純宗의 부마가 거처하기 위해 지은 집이라고 전하며 사랑채

중앙에 南寧齊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이 집은 현재 金鎭興家로 1977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民俗資料 제25호에 지정되었다.

◎ **李承晩** 1875(고종 12)~1965

독립운동가·정치가·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초명은 承龍, 호는 雩南. 본관은 全州, 황해도 平山에서 가난한 선비 敬善의 외아들로 태어나 3세 때 부모와 함께 서울로 이주, 1894년(고종 31) 申肯雨의 권유로 培材學堂에 입학, 미국인에게 우리말을 가르쳐 주고 그 대가로 가계를 도우며 이듬해 졸업, 모교의 英語교사가 되었다. 그해 10월 일제가 明成皇后를 시해하자, 국모살해한 원수를 갚고 국왕을 구출하여 친일적인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시위운동을 벌이다가 지명수배를 당하였으나 미국인 여의사의 도움으로 관헌의 눈을 피하는데 성공하고 위기를 모면, 이 무렵 개화사상에 심취하고 그리스도교에 입교하였다. 1896년 徐載弼이 미국에서 돌아와 協成會·독립협회 등을 조직하자 이에 가담하여 개화·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서재필이 미국으로 추방당한 뒤 협성회 기관지 《협성회보》와 《매일신문》의 주필로 활약하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는 등 독립사상 고취와 민중계몽에 앞장섰다. 또한, 부패·무능한 정부를 비판하고 민주적 자문기관으로 中樞院의 설치를 주장하다가 1898년(광무 2) 政府타도를 획책했다는 황국협회의 무고로 독립협회의 간부들과 함께 투옥, 동지 한사람과 탈옥을 꾀하다가 붙들려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뒤에 종신징역으로 감형되어 복역중, 1904년 閔泳煥의 주선으로 7년만에 석방되었다.

이해 겨울 고종의 밀서를 가지고 루즈벨트 미국대통령을 만나 한국에서 일본의 침략을 퇴치하는데 협조하여 줄것을 호소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미국에 머물면서 수학하기로 결심하고 조지워싱턴대학에 입학하여 1907년 졸업하고, 1908년 하버드대학에서 석사학위를, 1910년에는 프린스턴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해 8월 한일합방이 이루어지자 귀국하여 조선기독교청년회연합회(YMCA)를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1912년 일제가 조작한 이른바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피체되었으나, 미국 선교사들의 주선으로 석방된다. 1912년 미국에서 열린 世界監理教大會에 한국대표로 참가하였다. 1913년 하와이로 건너가 韓人學院을 운영하

고, 1914년 朴容萬의 초청으로 하와이에서 잡지《韓國 太平洋》을 창간, 한국이 독립하려면 서구 열강 특히 미국정부와 미국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외교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펴며 교포사회에 독립정신을 고취하기도 했으나, 헤게모니 싸움을 벌여 이미 조직되어 있던 國民會를 분열시키고 따로 좌파세력을 규합, 同志會를 결성하여 무장투쟁론을 주장한 박용만 등과 대립하였으며 하와이한인사회에서 한인학교·교회 등의 경영권 논란과 공금유용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1917년에는 安昌浩 등과 협의하여 뉴욕에서 열린 세계약소민족대회에 대표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1919년 3·1운동 후 본국에서 조직된 한성 임시정부와 상하이에서 선포된 임시정부에서 각각 최고 책임자인 執政官總裁와 國務總理로 추대되었으나 대통령제를 주장, 미국 워싱턴에 歐美委員部를 설치하고 위원장이 되어 스스로 대통령으로 행세하여 임시정부내에 논란이 되었으나, 결국 임시정부의 직제를 대통령제로 고치게 되었다.

1920년 12월 상해로 건너가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나, 워싱턴군축회의에 대비하기 위하여 1921년 5월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상해로 돌아오지 않고 미국에 머물러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서의 직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여 임시정부의 활동에 제약을 주었고, 위임통치안 제출성 등으로 임시정부 내에서 계속 논란이 되면서 불신을 당하자 급히 상해로 달려 갔으나 1922년 6월 대한민국임시정부 議政院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불신임안을 결의하고 이어 탄핵안을 상정·통과시켰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임시정부의 모든 결정을 무시하고 구미위원부를 통하여 독립을 위한 활동을 독단을 계속 하였으니, 1933년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연맹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였으며, 워싱턴·하와이 등지에서 항일투쟁과 외교활동을 계속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의 독립을 호소했으나 기대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또한 하와이와 워싱턴 등지의 재



李承晩의 귀국연설(광복직후)

미교포 사회에서 자신을 따르는 雩南派와 안창호를 지지하는 島山派의 대립의 핵심이 되기도 했으며, 1934년에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프란체스카와 결혼했다.

1945년 광복을 맞아 10월에 귀국, 민주진영의 지도자로 獨立促成中央協議會 총재, 대한국민대표, 민주의원의장, 민족통일총본부 총재 등을 역임하면서 좌익세력과 투쟁. 1946년 6월 남한 단독정부 수립계획을 발표, 그해 한국의 독립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에 다녀왔다. 그리고 좌우합작 반대, 미소공동위원회 참가거부, 金九의 남북협상 거부 등의 정치적 반탁, 반공 및 단독정부의 즉각적인 수립을 주장하였고 미군정의 용공정책에 반대하였다. 1948년 제헌국회의원에 무투표당선되어 초대국회의장에 선출되고, 대통령 중심제 헌법을 제정·공포하고 그해 7월 초대대통령에 당선되어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함께 취임하였다. 그뒤 강력한 반공·排日주의자로서 국내의 공산주의운동을 분쇄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외교를 견지하였다. 6·25때에는 미국과 유엔의 도움으로 공산군을 격퇴하는데 성공하였으나 1953년 미국의 전쟁처리 방법에 반대, 국토가 분단된 상태에서의 휴전을 반대하다가 휴전성립 직전인 6월 남한 각지에 수용되어 있던 반공 애국포로 2만7000여명을 유엔군의 양해없이 단독으로 석방,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되자, 한미양국은 휴전 후에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였다.

6·25로 정부가 부산에 피난해 있던 다음 해의 제2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야당세력이 우세한 국회에서 자신의 대통령 재선이 어렵게되자, 1951년 12월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하여 自由黨을 창설하고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회의원을 감금하는 등 정치파동을 일으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강압적으로 통과시키고 4년임기의 대통령직에 재선되었다. 또한 1954년에는 자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종신 대통령제 개헌안을 내어 일단 국회에서 부결되었으나 四捨五入의 논리를 변칙으로 적용하여 번복 통과시켜 그에게 대통령 3선금지를 면제해준다. 그리하여 1956년 민주당 대통령후보 申翼熙가 투표 며칠 전에 사망하자 투표권자 56%의 지지로 대통령에 3선되었다. 1958년 12월 차기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국가보안법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경제시책의 빈곤으로 인한 특정재벌에 대한 특혜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기도 하였다. 1960년 3·15 정·부통령선거에서 대대적인 부정을 감행

하고 대통령에 4선되었으나 4·19혁명으로 실각, 그해 5월 하와이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죽었다. 유해는 하와이에서 국내로 옮겨와 가족장으로 장례지내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저서에 《獨立精神》《日本暴露記》(英文) 등이 있다.

성북구 동소문동 4가 103번지 東活人署가 있었던 곳에 敦岩莊이 있다. 이 집은 雩南이 1945년 10월 16일 33년만에 미국에서 귀국하여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2년간 유숙한 곳이다. 그가 귀국하여 조선호텔에 여장을 풀고 각 정당대표들을 모아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이 會가 구성된 다음 雪山 張德秀가 이곳 이송래씨집을 물색해 놓고 나서 雩南에게 옮기도록 권유하여 入住하였다. 그후 이곳은 대소 政客들이 운집하여 날마다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한다. 그후 2년간 돈암장에 머물다가 梨花莊(종로구 이화동 1번지)으로 옮겨가 初代 內閣을 구성한 産室이 되었으며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景武臺로 이전했다.

◎ **韓龍雲** 1879(고종 16)~1944

시인·승려·독립운동가. 본명은 貞玉, 아명은 裕天. 법명은 용운, 법호는 만해(萬海, 卍海). 충청남도 홍성에서 應俊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6세 때부터 향리 서당에서 漢學을 익혔고 14세에 성혼의 예식을 올렸다. 16세 되던 해 東學亂과 갑오경장이 일어났다. 세상에 대한 관심과 생활의 방편으로 집을 떠나 설악산 五歲庵에 입산, 불교의 기초지식을 섭렵하면서 禪을 닦은 후 세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블라디보스톡등 시베리아와 만주 등을 순력하고, 27세 때 다시 설악산 百潭寺로 입산하여 連谷의 지도아래 정식으로 得度하였다. 불교에 입문한 뒤로는 주로 教學的 관심을 가지고 대장경을 열람하였으며 특히 한문으로 된 불경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 즉 불교의 대중화작업에 주력하였다. 1910년 불교의 유신을 주장하는 《조선불교유신론》을 저술하였고, 36세때 《佛教大典》과 함께 청나라 승려 來琳의 증보본에 의거하여 《採根譚》 주해본을 저술하였다.

30세 때 安重根의 장거가 있었는데, 그해 6개월간 일본을 방문하여 주로 東京과 京都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물을 익히고 일본의 풍물을 몸소 체험하였으며, 3·1운동 때의 동지가 된 崔麟 등과 교유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됨에 국치의 슬픔을 이기지 못한 채 중국 東北三省으로 가서, 만주지방 여러 곳에 있던 우리 독립군의

훈련장을 순방하면서 그들에게 독립정신과 민족혼을 심어주는 일에 전력하였다. 40세 되던 해에 불교의 홍포와 민족정신의 고취를 목적으로 월간《惟心》이라는 불교잡지를 간행하였는데, 이 잡지는 비록 3호를 끝으로 폐간되었지만 뒷날 그가 관계한《불교》잡지와 함께 가장 괄목할만한 문화사업의 하나인, 불교에 관한 가장 종합적인 잡지였다. 3·1독립운동 때에는 白龍城등과 함께 불교계를 대표하여 참여하였는데, 내용을 좀더 과감하고 현실적으로 하자고 생각하여 崔南善과 의견충돌도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의 행동강령인 공약3장만을 삽입시키는데 그쳤다. 이듬해 그 만세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재판을 받고 3년 동안 옥살이를 하였다.


韓 龍 雲

47세인 1926년 근대한국시의 기념비적 작품으로 88편의 시가 수록된 시집《님의 침묵》을 발간, 이 시들은 대체로 민족의 독립에 대한 신념과 희망을 사랑의 노래로서 형상화한 것들이다. 그 중 대표적인 시인 "님의 침묵'을 옮겨 적어 본다.

님의 침묵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줌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源泉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1928년 일제에 대항하는 단체로 후에 광주학생의거등 전국적인 민족운동으로 전개·추진된 新幹會를 결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맡아 중앙집행위원과 京城支會長 자리를 겸직하였다. 1932년 52세 때에는 權相老가 맡아오던《불교》잡지를 인수하여 사장에 취임, 불교의 홍포에 온 정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고루한 전통에 안주하는 불교를 통렬히 비판하였고, 승려의 자질향상·기강확립·생활불교 등을 제창하였다. 55세 때 부인 兪氏와 다시 결합하였고, 57세 때《조선일보》에 장편소설〈黑風〉을 이듬해에는《조선중앙일보》에 장편〈後悔〉를 연재하였다. 60세 때 그가 직접 지도해오던 불교계통의 민족투쟁비밀결사단체인 卍黨事件이 일어났고, 많은 후배동지들과 자신이 검거되어 고초를 겪었다.

1944년 5월 9일 현재 성북구 성북동의 尋牛莊에서 중풍으로 죽었다. 동지들에 의하여 미아리 사설 화장장에서 다비된 뒤 망우리 공동묘지에 유골이 안치되었다. 친하던 벗으로 李始榮·申采浩·鄭寅普·洪命熹·崔凡述·朴珖·宋月面·金東三 등이 있었으며, 신채호의 비문은 그가 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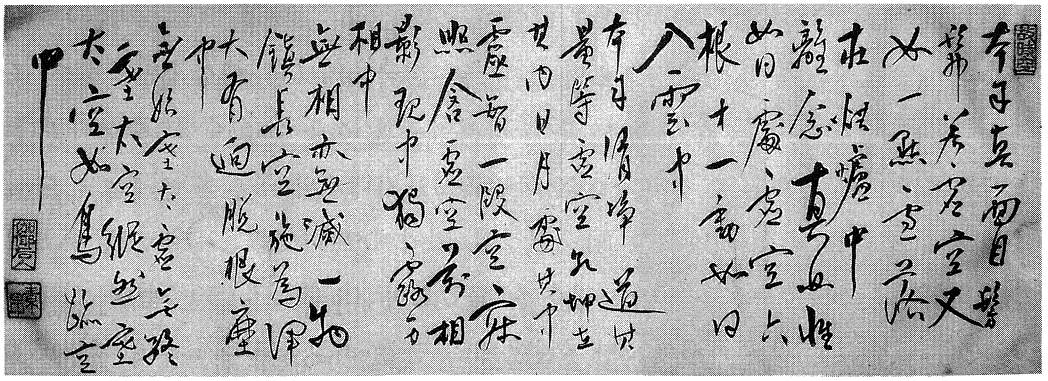
성북구 성북동 222번지에 있는「尋牛莊」은 그가 晩年을 보낸 집이다. 이 집은 그가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루고 출옥하여 夫人 兪氏와 어린 딸 英淑과 함께 갈 곳이 마땅치 않아 곤란에 처했을 때 金鐵中씨가 그의 형 廷國이 東亞日報 大阪支局長으로 떠났으므로 형의 집에 萬海를 모시게 되었는데 그때 金碧山스님이 자기가 草堂을 지으려고 松林 속에 사둔 52평을 드려 집 지을 것을 권유하매 부인 유씨의 소지금 약간과 당시 朝鮮日報社 方應謨사장 외 여러명의 도움으로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는 南向의 좋은 집터를 마다하고 그 반대편 산비탈 北向터에 집터를 정하였으니 그것은 日帝의 總督府가 보기 싫어서 등을 지고 집을 지은 것이다. 이 집을 尋牛莊이라고 이름한 것은 그가 萬海라는 號 이외에 筆名으로 五歲人·城北學人·牧夫·失牛 등을 가끔 썼는데 소를 키운다는 뜻인 牧夫는 내 마음 속의 소를 키움은 우리 모두가 가야할 往生의 그 길을 멈출 수 없음을 나타낸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있다. 즉 尋牛莊이란 불교의 無常大道를 깨우치기 위해 공부하는

집, 공부하는 인생을 의미한 것이다.

◎ **趙素昻** 1887(고종 24)～1959

독립운동가・정치사상가. 본명은 鏞殷, 자는 敬仲, 素昻은 호이다. 본관은 咸安. 경기도 파주에서 아버지 禎奎와 어머니 朴必陽에게서 태어났다. 6세부터 통정대부인 祖父 成龍으로부터 한문을 수학, 1902년 성균관에 입학, 1904년 성균관을 수료하고 황실유학생에 선발되어 일본 동경부립제1중학에 들어갔다. 1906년 日本 明治大學 法學部에 입학하였으며, 1909년 동경에 있는 조선인의 각 단체를 통합한 大韓興學會를 창립하여 회지《대한흥학회보》의 주필이 되었다. 경술국치 때는 '한일합방 성토문'을 작성하고 비상대회 소집을 꾀하려다 발각되어 고초를 겪었다. 1911년 조선 유학생친목회를 창립하고 회장이 되었다. 1912년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경신학교・양정의숙・대동법률전문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1913년 중국에 망명, 申圭植・朴殷植・申采浩・鄭寅普 등과 同濟社를 博達学園으로 개편한 뒤 중국혁명가 陳果夫・黃覺과 함께 항일단체 大同黨을 조직하였다.

30세 전후에는 민족대동단결의 정신적・종교적 통일을 위하여 六聖教를 제창하고, '主權不滅論'・'民權民有論'의 취지를 1917년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개최된 국제사회당대회에 한국문제의 의제로 제출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1918년 만주 吉林에서 무장항쟁노선이 집약된 무오독립선언서를 기초하여, 독립운동 지도급인



趙素昻 詩稿・行書・紙本黑書(76.0×28.0cm)

사 39인의 공동성명으로 발표, 내외에 그 영향력을 크게 떨쳤다. 1919년 3·1민족항쟁에 즈음하여 大韓獨立義軍府를 조직, 부주석으로 선출되고, 漢城政府 교통부장에 추대되었다. 4월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민주공화제헌법의 기초를 비롯한 임정의 국체와 정체의 이론정립 및 임정 대외홍보 전반에 걸쳐 주역을 맡았다. 6월에는 파리에 도착, 김규식과 외교면에서 괄목할 성과를 올렸다. 만국평화회의 대표단 지원을 비롯하여 만국사회당대회와 국제사회당집행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또 네덜란드로 다니면서 한국의 자주독립과 그 당위성을 역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당 지도층 인사들과의 폭넓은 교유로 영국 하원에도 한국문제를 정식 제기하도록 활약하였다. 유럽 순방에 이어 1921년 국제사회당 대표단으로 러시아 각지를 시찰한 뒤 모스크바를 경유, 5월 北京에 와서 공산주의 비판인 '滿洲里宣言'을 발표하고 상해로 돌아와 이듬해 임시정부 외무총장·의정원의장이 되고, 세계한인동맹회장에 취임하는 한편 金相玉을 국내에 밀파하여 의거하도록 하였다.

1929년 李東寧·李始榮·金九·安昌浩 등과 韓國獨立黨을 창당, 독자적 이념체계인 三均主義에 입각한 정강·정책의 '태극기 민족혁명론'을 제창하였는데, 삼균주의는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골자로 한다. 1934년 삼균주의를 국시로 한 '대한민국임시정부건국강령'을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채택하게 하였다. 1937년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결성, 1940년 한국독립당 부위원장으로서 창당선언에서 삼균주의를 다시 확립하고, 1942년 한중문화협회를 창설하여 중국 외교부장 孫科와 손잡고 김규식과 공동 부회장으로 활약하였다. 1943년 한국독립당 집행위원장, 1945년에는 重慶 임시정부 외무부장이 되었다.

광복이 되자 12월 1일 임시정부요인 2진으로 환국, 1946년 비상국민회의를 조직하여 그 의장이 되어 김구주석과 함께 임시정부의 정통성 고수를 주장하였다. 비상국민회의가 국민회의로 개편되고 한국민족대표자대회와 통합을 이룰 때 다시 의장에 선출되었으며, 1948년 4월 남북협상차 평양에 다녀왔고, 12월 方應謨·白泓均·趙時元 등과 社會黨을 결성, 당수가 되었으며 1950년 5·30총선에 사회당으로 서울 城北區에서 출마하여 3만 4천여표로 전국 최고득표자가 되어 2대民議員에 당선되었으나 6·25동란 때 서울에서 강제 납북되어 1958년경 사망한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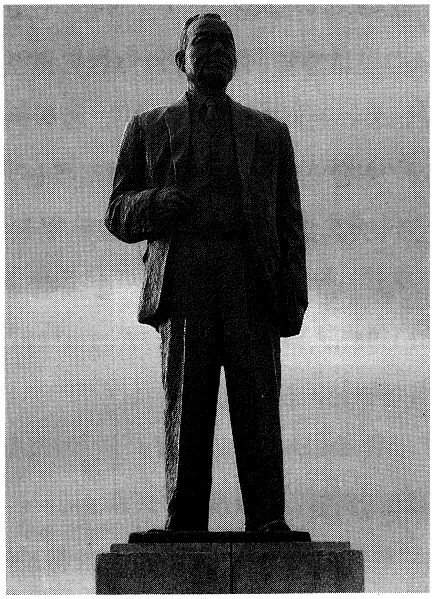
로 전하여진다.

저서로 《韓國文苑》《素昻集》《遺芳集》이 있으며, 1970년 三均學會에서 《素昻文集》 상·하권을 간행하였다. 198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 **金性洙** 1891~1955

교육가·언론인·정치가. 호는 仁村. 본관은 울산, 전라북도 고창에서 호남의 거부였던 暻中의 넷째아들로 태어나 큰아버지 棋中의 양자가 되었으며 13세 때 高光錫과 혼인하였다.

1906년 전남 창평에서 宋鎭禹와 함께 영어를 공부하였고 1908년 18세 때에 군산의 錦湖學校를 다니다 그해 10월 새 학문을 배우기 위해 송진우와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正則英語學校와 錦城中學校를 거쳐 1910년 早稻田大學의 정경학부에 입학, 1914년 졸업한다. '내 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민족의 교육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1915년 4월 中央學校를 인수 1917년 中央學校長에 취임하였으며 京城織紐株式會社를 맡아 경영하였다. 1919년 1월부터 송진우·玄相允 등과 함께 중앙학교 숙직실을 근거지로 독립운동을 펼 방책을 꾸몄고, 그해 10월 민족의 산업을 일으키는 바탕으로 京城紡織株式會社를 설립하였으며 이듬해 4월 東亞日報社를 창립하였다. 《동아일보》를 통해 1922년에는 物産奬勵運動을 폈으며, 1923년 民立大學設立運動을 펴서 민족의식을 불러일으키고자 힘썼다. 1929년 2월 재단법인 中央學院을 설립했다. 유럽·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의 문물과 교육실태를 두루 살피고 돌아와 1932년 3월에는 普成專門學校를 인수, 교장이 되었다. 사립 보성전문학교는 1905년 대한제국의 내장원경이던 이용익이 설립한 민간에 의한 유일한 민족의 고등교육기관으로 그 후 천도교측의 의암 손병희의 은고와 많은 선각 유지들의 공로로 험난한 길을 헤치며 유지되었고 1919년


仁村 金性洙 동상

3·1독립운동에서는 항일독립운동의 큰 힘이 되었지만 운영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던 것을 1932년 인촌이 인수, 민립대학의 꿈을 펴기 위해 북악산 기슭 안암의 언덕에 새 교사를 세웠고 1937년에는 민족의 성원과 정성을 모아 개교 30주년 기념사업으로 석탑의 미려한 도서관을 건립하여 영원히 뻗어나갈 민족사학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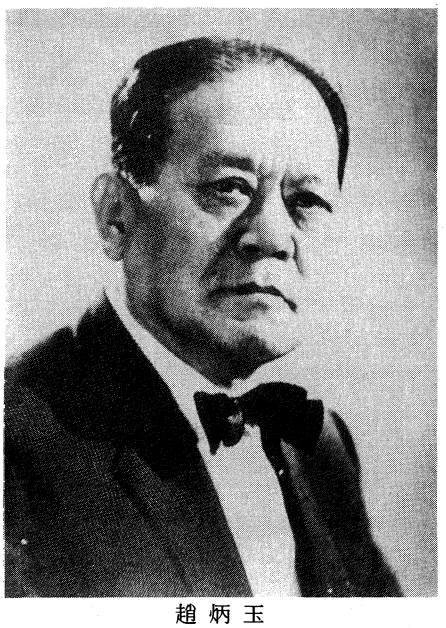
그는 1945년 10월 미군정청 고문회의 의장에 취임, 1946년 1월에는 복간된 《동아일보》의 사장을 다시 맡았고(제9대) 송진우의 뒤를 이어 韓國民主黨의 수석총무(당수)가 되었으며 4월에는 大韓獨立促成國民會 부회장이 되었고, 8월에는 보성전문학교를 기초로 종합대학인 고려대학교를 창립, 민족을 위한 민족의 대학을 설립한다는 꿈을 실현하였다. 1947년 反託獨立鬪爭委員會의 부위원장, 1949년 2월 한국민주당과 대한국민당이 통합되어 民主國民黨이 창당되자 그 최고위원이 되었다. 1951년 5월 대한민국 제2대 부통령에 당선, 취임하였으나 정부의 국회탄압사건에 대하여 李承晩정권에 항거 이듬해 5월 사임하였다. 1953년 11월 民主國民黨 고문이 되어 護憲勢力의 단결을 호소하다가 1955년 2월 18일 병으로 죽었다. 그해 2월 24일 국민장으로 고려대학교 경내에 안장되었으나 지금은 경기도 남양주군으로 이장하였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複章을 받았다.

고려대학교는 1991년 8월 학교 경내에 인촌탄생 100주년을 맞아 인촌의 建學理念을 새롭게 되살리기 위한 學術·文化의 종합센타인 仁村紀念館을 설립하였다. 그 자리는 1930년대 말 仁村이 舍宅을 지으려 설계까지 마쳤으나 전쟁의 와중에서 중단되었고 인촌 서거후에는 한동안 그의 幽宅이었다. 인촌기념관은 國際會議室·大講堂·常設展示室 등 학문·문화공간을 중심으로 휴게실·식당 등의 편의시설 및 高麗中央學院·會議室 등을 갖추고 있는 부지 150,186m^2, 건축면적 2,461.98m^2, 연면적 7,177.07m^{2}의 지하 1층·지상 4층·옥탑 2층의 철근 콘크리트 라멘즈 구조의 건물이다.

◎ **趙炳玉** 1894(고종 31)~1960

독립운동가·정치가. 초명은 炳甲. 호는 維石. 충청남도 木川(지금의 천안)출생. 仁元의 아들이다. 공주소학교를 거쳐 1909년 평양숭실중학교와 1914년 연희전문

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뒤 1918년 미국 와이오밍대학을 졸업하고, 1925년 컬럼비아대학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를 받은 그해 귀국하여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新幹會 등에 깊이 관여하였다. 광주학생운동·신간회사건·수양동우회사건 등 항일운동에 연루되어 5년에 걸치는 옥중생활을 하였으며, 1931년에는 조선일보사 경영에도 한때 가담하였다. 그뒤 광복이 되기까지 야인생활을 하였다. 광복 후 한국민주당 창당에 참가하였으나 미군정청 경무부장으로 혼란기의 치안을 맞게 되자 철저한 南勞黨 숙청으로 首都警察廳長 張澤相과 더불어 그 이름을 전국에 떨쳤다.


趙 炳 玉

1948년에 새 政府가 들어서자 희망했던 閣僚자리(內務部長官)에 들어가지 못해 李承晩대통령에게 강하게 반발하였으나 李대통령의 설득으로 大統領 特使가 되어 여러 友邦을 순방하고 UN총회에도 참석하여 신생 大韓民國의 국제적 신임을 얻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950년 5월 30일에 치루어졌던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자신의 本宅(敦岩洞 89-7)이 있던 城北區에서 입후보, 社會黨의 趙素昻과 치열한 선거전을 전개하여 서울市民은 물론 전 국민의 뜨거운 시선을 집중시켰으나 패배의 쓰라림을 맛보아야 했다.

6·25사변이 터져 政府가 大田에 내려가 있고 전국이 거의 無政府상태나 다름없던 1950년 7월 14일에 內務部長官으로 임명되었다. 전투가 점점 불리해지고 마침내 戰線이 洛東江邊에서 大邱 북방의 八公山까지 밀려나자 UN軍을 비롯한 政府의 모든 주장이 大邱를 포기하고 淸道의 팔조령까지 후퇴하자고 했을 때 趙 내무부장관이 大邱死守를 완강하게 고집함으로서 결국 大邱는 후퇴하지 않았고 敵의 유린을 받지 않게 되었다. 大邱방위에 결정적인 功을 세운 것이다. 다음해(1951년) 5월 7일 독재화되어가는 李承晩에 실망하고 대통령 이승만에게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 탄생하였으므로 반드시 민주국가로 발전, 성장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낸 뒤 물러났다. 1953년에는 반공포로석방에 반대하는 견해를 취하다가 테러를 당하고 잠시 투옥되는 변을 당하였다.

1954년 5월 20일에 시행된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 大邱 乙區에서 당시 최대 야당이었던 民國黨으로 입후보, 官權에 의한 갖은 탄압과 간섭을 받았으나 29,805표라는 압도적인 다수표로 당선되었다. 大邱死守에 대한 그의 功을 大邱市民은 票로서 보답한 것이다.

1955년 민주당 조직에 참여하여 최고위원, 民主黨 舊派의 首領格이 되었으며 1958년 5월 2일에 실시된 제4대 국회의원선거에 이번에는 전연 연고가 없던 城東乙區에서 입후보, 27,428표로 당선되었다. 이 선거가 끝난 후 民主黨 대표 최고위원으로 추대되면서 自由黨 독재정치에 항거하는 反獨裁鬪爭을 先導하였다.

1960년 민주당대통령후보로 출마하였으나 선거를 1개월 앞두고 미국의 월터리드육군병원에서 수술 끝의 심장마비로 죽었다. 결국 그는 끝내 本據地인 城北에서는 한번도 국회의원을 해보지 못한 城北 最高의 政治人이었다. 그의 정치관은 매우 폭이 넓고 거시적이었다는 평을 듣고 있다. 四捨五入개헌으로 이승만정권의 독재화가 노골화되자 민주당을 이끌어 반독재투쟁을 전개하면서도 "빈대를 잡기 위하여 草家三間을 태울 수는 없다."고 하는 국가관과 정당관을 남겼다.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저서로 《민주주의와 나》·《나의 회고록》이 있다.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

◎ **全鎣弼** 1906~1962

본관 旌善. 자는 天賚, 호는 澗松·芝山·翠雪齋·玉井研齋. 서울 출생. 中軍(西班, 정3품) 啓勳의 증손, 武科출신으로 通政大夫中樞院議官을 지낸 泳基의 2남4녀 중 막내아들로 태어나 內部主事를 거쳐 정3품 宮內部參書官을 지낸 숙부 命基에게 入後된다.

간송의 집안은 증조부 啓勳 때에 이르러 배우개(현 종로4가) 상권을 거의 장악, 그 이득으로 왕십리·답십리·청량리·송파 가락동 일대와 노해면 창동 일대 등 서울 주변을 비롯해서 황해도 연안, 충청도 공주·서산 등 각처의 농지를 구입,

수만석 대지주로 부상한다.


澗松遺影

간송은 그런 부호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10세되는 때부터 생가 양가 조부모와 양부를 여의고 14세의 나이에 유일한 친형이요 본생가의 계승자인 鎏卨이 불과 28세의 청년으로 후사없이 급서하자 이제 생가나 양가를 통틀어 배우개집에서는 간송이 유일한 嫡孫이 되어, 생가 양가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생가 부모와 양모가 엄존하여 당장 집안살림 걱정까지 해야 할 절박한 상황은 아니어서 於義洞公立普通學校를 졸업하자마자 徽文高等普通學校를 거쳐 이어 일본 와세다대학 법과에 입학한다. 대학시절 간송은 가장 문화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문화적 우수성을 증명하자는 야망에 불탔고 그 방법을 그의 취미이기도 하였던 藏書의 수집에서 찾으려 하여, 틈만 나면 인근 고서점에 돌아 다니면서 묵은 잡지나 古本을 뒤적였다. 그러면서 이 시기 민족문화재의 수호를 평생 사업으로 하리라 결심한다.

그리하여 졸업 후에 일제 식민통치 아래 말살되어가는 민족정기를 되살리기 위하여 우리 민족문화 전통을 단절시키지 말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문화의 결정체인 미술품을 인멸되지 않게 一堂에 모아 보호하여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葦滄 吳世昌을 자주 찾아 다니며 민족문화재 수집보호에 심혈을 기울였다. 1934년 甲戌年 드디어 간송은 문화재 수집을 본격화하면서 그것을 保藏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만한 적당한 장소를 마련하였으니, 고양군 숭인면 성북리 즉 지금의 성북동 정중앙 요지 만여평을 구입하게 된 것이다. 이에 그 계획을 대강 짐작하던 위창은 그곳이 옛 先蠶壇 舊址 부근임을 상기하고 北壇莊이란 이름을 지어준다. 간송은 북단장을 개설하고 나서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문화재 수집에 몰두하게 된다.

그런데 일본은 1938년 2월 조선육군특별지원병제도를 창설하여 젊은이들의 지원입대를 강요하고 3월에는 朝鮮教育令을 개정 공포하여 중등학교에서 조선어 과

목을 폐지하는 등 철저하게 우리 문화를 말살하는 강압정치를 진행하고, 간송은 이에 맞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북단장안에 사립박물관을 세워 이제까지 수집해 온 문화재의 精髓를 보관 전시하며 그 연구를 통해 우리 문화의 단절을 막고 우리 민족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 주자는 것이었다. 이 일을 진행하는 동안 위창과 春谷 高義東, 穎雲 金容鎭 등 당대 서화계 원로들의 자문을 수시로 구하고 그외 젊은 화가들과도 자주 만나 의논하였다. 드디어 1938년 7월 일제의 강력한 물자통제령에도 불구하고 북단장 내에 葆華閣을 건축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박물관을 설립하니, 위창은 다음과 같은 定礎銘을 지어 돌에 새겨 놓는다.

「때는 戊寅年 윤 7월 5일 澗松 全君의 葆華閣 상량식이 끝났다. 내가 복받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 이에 銘을 지어 축하한다. 우뚝 솟아 화려하니, 北郭을 굽어본다. 萬品이 뒤섞이어, 새집을 채웠구나. 書畫 심히 아름답고, 古董은 자랑할만. 一家에 모인 것이, 千秋의 精華로다. 槿域의 남은 丹橋로, 攷究 검토할 수 있네. 세상 함께 보배하고, 자손 길이 보존하세.
葦滄 吳世昌」

그는 10만석 가산을 탕진한다는 비방을 들을 정도로 오직 문화재 수집에만 혼신의 힘을 기울여, 그 결과 우리 미술사에서 書聖·畫聖으로 높이 추앙할 수 있는 金正喜와 鄭敾의 작품이 집중적으로 수집되어 그에 대한 올바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沈師正·金弘道·張承業 등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 화적·서예작품을 총망라하였고, 고려 및 조선의 자기와 불상·불구·와전 등에 이르는 문화재들을 방대하게 수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미술사 연구를 위한 인접자료인 중국 역대미술품의 수집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문헌자료의 구비를 위하여 1940년부터는 관훈동 소재 翰南書林을 경영하면서 문화사 연구에 필요한 전적을 수집, 漢籍으로 1만권의 장서와, 장차의 연구에 대비하여 당시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문화사관계 서적들도 가능한한 수집하였다. 그리고 그해 6월에는 재단법인 東成學園을 설립하여 재정난에 허덕이는 普成高等普通學校를 인수하여 인재양성을 위한 육영사업에 착수, 광복 후에는 잠시 보성중학교장직을 역임하기도 하고(1945. 10~1946. 10), 문화재보존위원회의 제1분과 제2분과 위원을 겸임하기도 하였으나, 그 외의 공직생활은 없었고 공식석상에도 참석하지 않으며 市隱을 자처하였다.

1960년 8월 金庠基·金元龍·秦弘燮·崔淳雨·黃壽永 등과 같이 考古美術同人會를 발기하여 同人誌《考古美術》을 책으로 냈고 그외 1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1962년 1월 26일 급성 腎盂炎으로 세상을 떠났다.

간송이 죽자 국가에서는 간송의 문화재 수호와 육영공적을 기리기 위해 그해 8월 15일에 大韓民國文化褒章을 追敍하고 1964년 11월 13일에는 大韓民國文化勳章 國民章을 추서한다. 그뒤 1965년 그의 미망인과 자제와 간송측근의 고고미술동인들인 金庠基·李弘稙·崔淳雨·黃壽永·秦弘燮·金元龍 등이 발기인이 되어 북단장에 韓國民族美術研究所를 설립하여 그가 마련해 놓은 연구자료를 토대로 미술사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감으로써 그 유지를 계승하고 있고, 보화각을 澗松美術館으로 개칭, 연구소의 부속박물관으로 하였다. 한국민족미술연구소에서는 1968년 6월《澗松文庫 漢籍目錄》을 출간하고 1971년 10월부터는 매년 1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전시회를 개최하고《澗松文華》를 펴내고 있다.

※ 참고 및 인용문헌

한국인명사전, 한국인명사전편찬실, 1967
國史大辭典, 李弘稙 編, 知文閣, 1962
서울六百年史 文化史蹟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7
동명연혁고 성북구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3
서울의 전통문화 1·2, 서울특별시, 198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27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歷代의 인물, 韓國政經社, 1971
서울金石文大觀, 서울특별시, 1987
澗松文華 제41호, 한국민족미술연구소, 1991
高麗大學校 1992~1993, 고려대학교
仁村紀念館, 고려대학교

第 14 章　各洞의 발자취와 現況

1）城北洞
①〈城北第1洞〉
②〈城北第2洞〉
2）東小門洞
③〈東小門洞〉
3）三仙洞
④〈三仙第1洞〉
⑤〈三仙第2洞〉
4）東仙洞
⑥〈東仙第1洞〉
⑦〈東仙第2洞〉
5）敦岩洞
⑧〈敦岩第1洞〉
⑨〈敦岩第2洞〉
6）安岩洞
⑩〈安岩洞〉
7）普門洞
⑪〈普門洞〉
8）貞陵洞
⑫〈貞陵第1洞〉
⑬〈貞陵第2洞〉
⑭〈貞陵第3洞〉
⑮〈貞陵第4洞〉
9）吉音洞
⑯〈吉音第1洞〉
⑰〈吉音第2洞〉
⑱〈吉音第3洞〉
10）鍾岩洞
⑲〈鍾岩第1洞〉
⑳〈鍾岩第2洞〉
11）下月谷洞
㉑〈月谷第1洞〉
㉒〈月谷第2洞〉
㉓〈月谷第3洞〉
㉔〈月谷第4洞〉
12）上月谷洞
㉕〈上月谷洞〉
13）長位洞
㉖〈長位第1洞〉
㉗〈長位第2洞〉
㉘〈長位第3洞〉
14）石串洞
㉙〈石串第1洞〉
㉚〈石串第2洞〉

城 北 洞

惠化門과 肅靖門 사이의 서울성곽이 부채꼴 모양으로 감싼 城北洞은 조선시대에 都城 수비를 담당했던 御營廳의 北屯이 영조 41년(1765)에 설치되었으므로[1] 洞名이 붙여졌다.

城北洞은 朝鮮初부터 漢城府에 속했는데 갑오개혁(1894)때, 행정구역 개편으로 한성부 東署 崇信坊(城外) 東小門外契 城北洞이라 하였다. 그런데 한일합방 후 日帝는 1911년 4월 1일(京畿道令 제3호) 5部 8面制를 실시함에 따라 이곳을 京畿道 京城府 崇信面 城北洞[2]으로 칭하였고, 1914년 4월 1일(京畿道令 제1호) 경성부를 축소함으로써 경기도 고양군 崇仁面 城北里로 되었다. 그 후 1936년 4월 1일(總督府令 제8호) 경성부 관할구역의 확장에 따라 경성부 城北町으로 되었으며 1943년 6월 10일(府令 제163호) 區制를 처음 실시함에 따라 東大門區에 속하였다.

광복이 되자 그 이듬해 1946년 10월 1일 日帝式 洞名을 고치면서 城北町은 城北洞으로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이어서 1949년 8월 15일(大統領令 제159호) 城北區가 새로 설치됨으로 城北洞은 이에 속하였다. 이 때 城北川에 놓인 雲水橋를 중심으로 도로 남동쪽은城北洞 1街, 도로 서쪽은 城北洞 2街로 나뉘었다. 그 뒤 성북동 2가는 성북동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렀다.



성북동 전경

都城 4小門의 하나인 惠化門을 나서서 왼쪽 일대의 계곡마을인 城北洞은 옛부터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水石이 어울린 山紫水明한 마을로 복숭아, 앵두나무가 많았다. 그래서 이 洞의 자연촌락명으로 紅桃洞, 桃花洞, 복사동이 남아있다.

조선후기 순조 때 지은 『漢京

1) 『漢京識略』 卷2 名勝條 北寺洞. 『東國輿地備考』 卷2 漢城府 關防條.

2) 越智唯七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7, p.54.

識略』에 보면

「맑은 계곡과 언덕을 끼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복숭아를 심어 생업을 삼고 있다. 매년 늦은 봄이면 놀이를 나온 사람들과 車馬가 두 줄을 지어 가득하게 山溪谷 사이를 메우고 깨끗한 초가집이 많다.」[3]

고 소개하고, 서울 사람들은 봄이면 仁王山 아래 살구꽃, 서대문 밖 西池의 연꽃, 동대문밖 수양버드나무꽃, 세검정 부근의 水石 등과 함께 성북동의 복숭아꽃 구경을 찾아 나섰다고 하였다.

성북동은 북절골(北寺洞), 北渚洞, 桃花洞, 北屯, 北倉洞 등 옛부터 많은 이름으로 불리었다. 이 곳을 北寺洞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전에 절이 있었거나 먹을 제조하는 관아인 墨寺가 있었던 데에서 命名된 것으로 추측되고,[4] 北倉洞이라고 칭하게 된 것은 조선시대 후기의 御營廳의 北倉[5]이 성북동 260번지 水月庵 남쪽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 北渚洞은 『東國輿地備攷』 卷2 漢城府 名勝條에 소개되어 있으나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성북동의 자연촌락명으로는 노구멧골, 도둑굴, 雲水洞, 논골 등이 있다. 노구멧골은 옛날 이 마을에 사는 한 여인이 집을 나간 남편을 위해 아침 저녁으로 노구메(밥)를 떠놓고 山川 신령에게 제사를 지냈더니 그 정성으로 결국 남편이 돌아와서 잘 살았기 때문에 붙여 졌으며, 도둑굴은 성북동의 북동쪽의 계곡이 깊고 지형이 험준하여 도둑이 은거하기가 용이하였으므로 불리었다.[6] 그래서 조선후기에는 어영청의 北屯을 두어 군대를 주둔시켰고, 朝廷에서는 이곳에 백성들을 이주시켜 살게 하였으나 워낙 산 속이라 농토가 적고 市場이 멀어서 생활곤란으로 속속 떠나가자 英祖 41년(1765) 鰲興府院君 金漢耆와 영의정 洪鳳漢이 王에게 건의하여 서울 각 市場에서 파는 布木의 漂白 즉 마전하는 권리를 이 곳 주민들에게 주고, 3년 뒤 英祖 44년(1768)에는 彰義門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궁중에 바치는 메주 쑤는 권리를 일부 이 곳 주민들에게 주었다[7]고 한다. 얼마 전까지도 城北洞

3) 註 1)과 同一.
4)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洞名沿革攷』III, 1983, p.31.
5) 註 1)과 同一.
6) 한글학회『한국지명총람』1, (서울편), 1966 p.124.
7) 上 同.

양쪽 골짜기의 물이 合流되는 부근의 냇가를 마전터라고 칭하였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雲水洞은 성북동 60번지 부근의 마을로 바위에 刻字가 되어 있는데 이 곳을 논골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이 깊은 산속인 이곳에 논다랑이를 조금 풀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근래에 와서 붙여진 마을 이름으로는 城樂園, 꿩의 바다마을도 있다.

성북동 2번지의 계곡을 끼고 있는 성락원은 조선말 철종때 이조판서 沈相應의 별장이 던 것을 義親王 李堈公이 別宮으로 쓰다가 그 아들 李鍵公이 살았는데 그 후 沈氏 후손들의 소유로 되었다. 이 곳은 수려한 자연경관에 어울리게 한옥과 정자, 石像들을 배치해 놓았으며 얼마전까지 국내외 여성교육을 하던 禮智院이 사용했다. 4,300여평의 성락원은 1992년 12월 24일 문화부에서 史蹟 제378호로 지정했다.

성락원 서쪽 언덕의 3형제 우물이란 약수터가 있었던 곳에는 꿩의 바다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이름 그대로 꿩과 비둘기, 산새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었으므로 詩人 金珖燮은 「성북동 비둘기」라는 詩를 지었는데 이곳에는 주택들이 들어섰고, 꿩의 바다마을 서쪽에는 日本大使館 官邸 등이 자리잡은 고급 주택가인 大教團地(일명 三清 주택단지)가 있다.

성북동의 문화유적으로는 肅淸門과 先蠶壇이 있다. 삼청터널 위쪽에 위치한 숙정문은 서울성곽의 4大門의 하나로 北門이라 하는데 中宗 이후에는 肅靖門으로 기록되고 있다. 肅靖門은 건립된지 18년 후 太宗 13년(1413)에 風水地理學上 景福宮의 양팔이 되는 彰義門과 肅靖門을 통행하는 것은 地脈을 손상시킨다는 上書가 있자, 마침내 이 門을 폐쇄하고 길에 소나무를 심어 사람의 통행을 금지하였다.[8] 太宗 16년(1416)부터 가뭄이 심하면 肅靖門을 열고 南大門을 닫는 풍속이 있었으니[9] 이는 北은 陰이요 南은 陽인 까닭에 가뭄 때 陽을 억제하고 陰을 부양하는 陰陽五行說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리하여 「五洲衍文長箋散稿」(卷6)에 보면 서울의 肅靖門을 항상 닫아두는 것은 이 門을 열어 놓으면 長安의 婦女子가 淫亂해지므로 항상 門을 닫아 두었다는 俗說도 있다. 이것은 肅靖門이 陰方 즉 女子의 方位

8) 太宗實錄 卷25 太宗 13년 6월 丙寅條.
9) 太宗實錄 卷37 太宗 16년 6월 己丑條.

에 있는 까닭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東國歲時記』에 보면 上元(음력 정월 대보름) 전에 民家의 부녀자들이 세번 肅靖門에 가서 놀면 그 해의 災厄을 면할 수 있다는 말이 전해 온다고 하였다.[10] 이는 肅靖門 부근의 자연풍경이 아름다워 都城의 士女들이 자주 이곳을 찾아와 놀던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또 오래도록 비가 오면 崇禮, 興仁, 敦義, 肅靖 4門에 나가서 榮祭라는 비 개이기를 비는 제사를 거행하였다.

朝鮮時代 宣祖 때 이수광의 『芝峰類說』 災異部에 보면 肅靖門 밖 한 바위틈에서 액체가 흘러 나오는데 맑을 때는 마치 막걸리빛 같고 진할 때는 떡과 같아서 사람들이 다투어 먹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숙정문 밖의 쌀바위(米岩) 전설이 남아있다.[11] 이 전설에 의하면 옛날 하루 세차례씩 1되 가량의 쌀이 나왔는데 나뭇군노인이 욕심이 생겨 이 바위에 지키고 앉아 쌀이 나오는 대로 자루에 담아 가득 채워 가지고 한 달 가량 계속 했더니 쌀대신 끈적끈적한 물이 나왔다는 것이다.

현재 성북국민학교 옆(성북동 64-1)에는 史蹟 제83호로 지정된 先蠶壇址가 있다. 이 壇은 조선초 성종 2년(1471)에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양잠을 장려하기 위해 蠶神(西陵氏)에게 매년 늦은 봄 吉한 巳日에 풍악을 써서 제사를 지냈다. 선잠단 남쪽에는 한 단 낮은 댓돌이 있고 그 앞쪽 뜰에는 뽕나무를 심고 宮中에서 키우는 누에를 먹이게 했다. 大韓帝國 때인 1908년 7월에 先農壇의 神位와 함께 선잠단은 社稷壇으로 옮겨 配享되면서 터만 남고 史蹟으로 지정되어 1961년 11월 10일에 先蠶壇址라고 표시되었다.[12] 금년 5월 16일 성북구청에서는 先蠶祭를 지내고 이날을 區民의 날로 정했다.

성북동에는 3.1운동 때 33인의 한사람인 萬海 韓龍雲이 살던 尋牛莊(성북동 222번지, 서울시 記念物 제7호)이 있다. 이 집은 3.1운동 후 한용운 선생이 총독부를 등지고 일부러 北向해서 지었는데 吳世昌 선생이 尋牛莊이라고 문패를 써주었다.[13] 한용운 선생은 1944년 6월 29일, 광복을 1년 앞두고 이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현

10) 『東國歲時記』 正月 上元條.
11)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鄕土서울』 제38호, p.122.
12)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洞名沿革攷』 Ⅷ, 1983, p.41.
13) 서울특별시 『서울의 전통문화』 제2권, 1986, p.622.

재 이 집에는 외동딸인 韓英淑씨 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선생의 유품이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성북국민학교 옆에는 故 全鎣弼 선생이 평생 수집한 문화재가 소장된 澗松 美術館(한국 민족미술연구소)이 자리잡고 있다. 이 미술관은 우리나라 제1의 古書畫 소장처로써 1938년 전형필 선생의 아호를 따서 개설되었다. 국보 및 보물, 지방 유형문화재 등을 다수 소장하고 있으므로 1971년 10월부터 매년 5월과 10월 두차례 소장품의 전시회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 洞에는 지방 민속자료 제10호의 李載濬家(성북동 243-4)와 제11호의 李太賢家의 한식 주택이 있다.

한편 종교기관으로는 조계종 星羅庵자리(성북동 284번지)에는 比丘尼 大學과 韓國比丘尼會 총본부가 들어서 있고, 그 건너편에는 三角山 水月庵(성북동 274-2)이 1968년에 세워져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고등학교(성북동 150번지), 東丘女子中商業高等學校(성북동 1가 168-275), 정신박약아 특수학교로 서울 명수학교(성북동 226-91)와 성북국민학교(성북동 60번지)가 있다.

성북동은 1949년에 정부에서 風致地區로 지정해 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한남동, 돈암동, 응봉동 지구와 함께 해제되어 주택지구로 변경되었다.[14]

그 밖에도 프란체스코 수도원(성북동 75번지)이 위치한 곳에는 조선 중기의 中宗 2년(1507)에 별에게 제사를 지내던 성단터, 즉 靈星壇이 있었다.[15]

이 洞의 북쪽은 북한산이 있고 이 산 봉우리 중에는 마치 개가 걸터 앉은 모양이라하여 狗蹲峰이라 하고 이 봉우리 남쪽에는 산 모습이 마치 머리를 들고 사방을 바라보는 것 같다해서 擧首峰이라 칭한다. 구준봉 뒤쪽의 잘룩한 고개를 補土峴 즉 「보토고개」라고 하는데 이는 서울의 入首목이 되어 잘룩하므로 風水地理說에 따라 그 약한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 매년 흙을 메우고 떼를 입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름이 전해온다. 『東國輿地備攷』 卷2에 「普賢峰의 곁가지 산발이 곧 都

14) 서울특별시 『서울都市計劃』, 1965, p.355.
15) 『東國輿地備考』 卷1 京都 壇廟條.

城의 主脈이기 때문에 摠戎廳에서 '補土處'를 설치하고 주관해서 補築하였다」고 하였다.[16]

전에는 성북동의 교통이 불편했지만 1968년 이후 「北岳山 길」의 개통과 최근에 삼청터널이 뚫리어 「삼청동길」(동십자각~삼청공원~삼청터널)과 「성북동길」(삼청터널~성북2동~삼선교)이 만남으로써 교통이 원활해졌다.

현재 城北洞 1街와 城北洞지역은 성북제1동사무소와 성북제2동사무소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城北 第1洞〉

城北 第1洞은 城北洞 1街와 城北洞 일부의 행정을 담당하는 洞長 管轄區域 명칭이다. 서울의 行政洞 설치는 日帝가 1916년 9월 28일(京城府 告示 제19호) 경성부 주민과 행정관서와의 연락업무를 담당할 總代를 두고 洞政을 실시하던 것이 효시로서 1933년 10월 3일(京城府 告示 제127호)에 町會를 설치하고 1943년에 태평양전쟁 수행을 위해 町會에 有給(또는 명예직)의 書記를 두었다.

1943년 區制를 실시할 때 東大門區에 속하였고 이 해 8월 1일에 城北1, 2町會를 두었는데[17] 광복이 되자 1946년 10월 1일 町會는 洞會로, 町總代는 洞會長으로 개칭함에 따라 城北 第1洞會와 第2洞會로 바뀌었다.

그 후 1955년 4월 18일(市條例 제66호) 「洞制」를 실시할 때 城北 第1洞은 성북동 중 雲水橋 도로 동남방의 지역, 城北 第2洞은 성북제1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으로 정해졌다.

이 洞의 남북으로는 「성북동길」(삼청터널~성북2동~삼선교)이 관통하고, 남쪽은 「東小門路」가 지나고 있으며 그 밑으로는 지하철 4호선이 통과하여 한성대 입구역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北漢山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城北川이 되어 「성북동길」 밑으로 흘러 동소문동과 안암동을 거쳐 청계천에 합류되는데 현재 성북제1동 지역부터 동소문동 5가까지는 복개되어 개천의 모습은 찾아 볼수 없다.

광복 당시부터 1990년까지 성북 제1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6) 上揭書 卷2 山川條.

17)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前揭書, p.28.

연 도	면적(km²)	가 구	인 구	통 수	반 수
1947	—	1,171	7,458	—	—
1953	—	541	2,688	—	—
1970	0.39	1,633	9,492	9	74
1990	0.49	2,337	8,102	12	109

※資料 : 서울特別市『市勢一覽』各年度版, 內務部『地方行政區域要覽』, 1990 p.62.

〈城北 第2洞〉

城北 第2洞은 北漢山 밑의 城北洞 대부분의 행정을 담당하는 洞長管轄區域 명칭이다. 이 洞의 연혁은 앞의 성북 제1동과 같이 1943년 6월 10일(府令 제163호)에 區制를 실시할때 東大門區에 속하고 이어서 8월 1일에 城北2町會가 설치되었다.[18] 그 후 광복으로 1946년 10월 1일(美軍政廳 法令 제106호) 町會는 洞會로, 町總代는 洞會長으로 개칭함에 따라 城北 第2洞會로 개칭되었다.

그 후 1955년 4월 18일(市條例 제66호)에 「洞制」를 실시할 때 城北 第2洞은 성북동 중 雲水橋 동남방 지역을 제외한 성북동 전지역을 관할구역으로 정해졌다. 성북 제2동은 제1동보다 면적이 5배나 넓고, 주민 수효도 많은데 대부분 山地로 되어 있다. 이 洞의 남쪽은 史蹟 제10호로 지정된 서울 성곽이 복원되어 있어서 종로구와 경계가 되며, 북동쪽은 「北岳山길」이 지나고 있다. 이 길은 자하문~부암동~돈암동(7.7km)에 이르는 북한산 능선을 따라 만든 길로써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 침입 이후로 수도권 경비 강화와 산책로를 위해 이 해 9월 28일에 완공되었다. 이 길은 처음에 有料도로였으나 최근에 와서 철폐했으며 겨울철에 조금만 눈이 와도 통행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성북2동 사무소

그리고 이 洞의 주요도로인 「성북동길」은 삼청터널을 지나 삼청

18) 同 上.

동으로 통하기도 하고「북악산길」,「우암길」과도 연결된다.

여기서 광복 당시부터 1990년까지 성북 제2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 도	면적(km²)	가 구	인 구	통 수	반 수
1947	—	1,093	6,283	—	—
1953	—	512	2,858	—	—
1970	2.13	3,493	18,254	13	133
1990	2.21	3,400	13,319	22	167

※資料：서울特別市『市勢一覽』各年度版, 內務部『地方行政區域要覽』, 1990 p.63.

東小門洞

한성대 입구역부터 성신여대 입구역 사이의「東小門路」좌우에 위치한 東小門洞은 1街부터 7街까지 구분되어 있는데, 동소문동이란 洞名은 서울 성곽의 4小門의 하나인 東小門의 이름을 딴 것이다.

동소문은 惠化門의 속칭으로 동소문동은 조선 초부터 漢城府에 속하였는데 조선말 갑오개혁 때에는 한성부 東署 崇信坊(城外) 東門外契 敦岩里[19]라고 칭하였다. 그런데 한일합방으로 日帝가 1911년 4월 1일(京畿道令 제3호) 漢城府를 京城府로 개칭하고 경기도에 편입시켜 경기도 경성부 崇信面 敦岩里 三仙坪으로 칭하다가[20] 1914년 4월 1일(京畿道令 제1호) 경기도 高陽郡 崇仁面 敦岩里로 하였다. 다시 1936년 4월 1일(總督府令 제8호) 경성부 관할구역 확장에 따라 경성부에 편입되어 京城府 敦岩町으로 되었으며 1943년6월 10일(府令 제163호) 區制 실시에 따라 東大門區에 속했다.

광복 후 1946년 10월 1일 日帝式 洞名을 고치면서 敦岩町은 敦岩洞으로 되었다. 돈암동지역은 매우 넓은데다가 광복 후에 인구가 집중되기 시작하여 分洞이 불가피했다. 그리하여 1949년 8월 15일(大統領令 제159호) 東大門區에서 城北區가 分區될 때 東小門洞은 1~7街로 세분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 洞의 명칭이 된 東小門, 즉 惠化門은 자취조차 남아있지 않지만 朝鮮初 太祖 5년(1396)에 都城을 쌓으면서 城門을 낼 때 弘化門이라고 지었다. 그 후 成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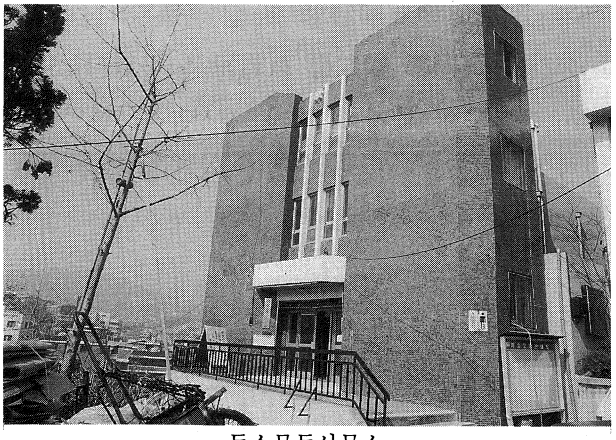
19) 京城府『京城府史』第2卷, 1936, p.446.
20) 越智唯七 前揭書, p.54.

15년(1484)에 昌慶宮을 신축하고 그 동쪽 門(現 昌慶苑 正門)을 弘化門이라고 한 까닭에 中宗 6년(1511)에 두 門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 東小門을 惠化門으로 고쳤다.[21]

이 문은 영조 20년(1744) 御營廳에 명하여 수축했고, 일제 때 도시계획이라는 명목으로 1928년에 門樓를 헐어내고 1939년에 電車 선로를 개설할 때 虹霓마저 헐어 버렸다. 한편 이 문은 小青門으로도 불렸는데 서울 성곽의 4大門은 아니지만 숙정문 대신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과 같이 正門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22]

동소문 밖에는 성북동에서 내려오는 성북천 또는 安岩川이 흘러 내려 가는데 이 개천이 구부러져 동쪽으로 흘러가는 곳의 남쪽과 북쪽에 山地가 서로 통해 古松이 울창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 부근의 底地를 三仙坪이라고 칭했다. 전에는 평평한 모래사장같은 개울바닥이었기 때문에 朝鮮時代에는 軍隊의 연병장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현재 城北川은 三仙橋와 敦岩橋 부근 일부가 각각 覆蓋되어 商街 아파트 등이 세워져 있다.

동소문동 4가 103번지(전일 돈암동 421번지)에는 敦岩莊이 있는데 이 곳은 조선시대에 東活人署가 자리했던 곳이다. 활인서는 서울 사람들 중의 질병에 걸린 빈민, 특히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치료하던 국립의료기관이다. 조선시대에는 東, 西 두 곳에 활인서를 두었는데 이 곳에 있던 동활인서는 조선 말기에 이르러 성동구 신당동 쪽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23]


동소문동사무소

活人署의 기능을 보면 醫員 외에 巫堂을 배치해서 都城內에 의

21)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서울六百年史』(文化史蹟篇), 1987, p.442.
22)『東國輿地備考』卷1 京都篇 城郭篇.
23) 正祖때 그린「都城大地圖」에는 이곳에 위치한 것으로 표기되었는데 古山子 金正浩가 그린「首善全圖」에 보면 신당동 236, 304번지 일대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할 곳이 없는 환자들을 藥과 미음으로 구휼, 보호하게 했다. 전염병이 크게 돌면 活人署 주위에 病幕을 만들어 환자들을 수용했는데 巫堂을 전속으로 배치한 이유는 전염병 유행에 대한 疫鬼의 퇴치술을 강구하게 하고, 때로는 치료 이외의 구호사업도 겸하게 했다. 活人署는 驛, 院 등과 함께 국가에서 直轄하는 사회기관으로서 飢民救護에도 큰 구실을 했다. 이 活人署에는 汗蒸湯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世宗 때 기록에 땀내고 찜질하고 목욕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그 후 이 곳은 日帝 때 平山牧場이 만들어져 젖소 등을 키우기도 했는데 이송래씨가 넓은 정원에 청기와의 韓屋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광복 직후 1945년 10월 16일에 귀국한 李承晩이 조선호텔에서 여장을 풀었다가 이곳으로 옮겨 왔다. 2년간 이곳에 머물던 이승만은 麻浦莊으로 잠시 옮겼다가 梨花莊으로 간 뒤에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景武臺(현 청와대)로 이전했다.

三仙中學校와 東小門洞事務所 사이 언덕 위에는 青龍庵(1街 45)이 있다. 이 절은 원래 城北洞 狗蹲峰 아래에 있었는데 政府의 山地開發計劃에 따라 절터를 매각하고 그 代金으로 1969년 5월 현 위치에 절을 세웠다. 옛 문헌에는 哲宗 때 領議政 金左根이 1853년에 창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옛부터 彌勒石像이 露天에 있었으므로 彌勒堂이라고도 칭했다.

한편 東小門洞 4街 북쪽에 있는 치마바위는 옛날 三仙洞 3街에 있는 玉女峰에서 玉女가 세 神仙과 함께 놀다가 치마를 벗어서 이 바위에 널었다고 해서 얻어진 이름이다.

현재 城北區廳은 「普門路」변의 삼선동 5가 411번지에 자리잡고 있지만 1950년 3월 30일에 성북구가 신설될 때 1950년 3월 30일 동소문동 3가 29번지의 3층 석조 건물(경기 학원 건너편)을 청사로 삼아 開廳式을 가졌다. 그 후 1957년에 현재 건물을 짓고 이전했다.

동소문동 1가~7가까지의 지역은 성북구에서는 가장 번화가로서 商街와 주택가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동소문로」와 복개된 城北川 지역은 삼선시장과 돈암시장이 연결되어 있어 人波와 차량으로 혼잡하다. 「동소문로」에는 지하철 4호선이 지나고 있지만 도로 확장이 추진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해질 것이다. 이 길에는 1968년 11월 29일까지 電車가 운행되기도 했다.

현재 동소문동 1가~4가 지역은 동소문동사무소, 동소문동 5가지역은 삼선 제2동사무소, 동소문동 6가, 7가 지역은 동선 제2동사무소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東小門洞〉

東小門洞은 法定洞名이자 東小門洞 1街, 2街, 3街, 4街 지역 및 성북구민회관 남쪽 지역의 敦岩洞 일부지역 행정을 담당하는 洞長管轄區域 명칭이다. 동소문동이란 명칭은 法定洞 명칭보다 동장관할구역 명칭으로 먼저 사용되었다. 『市勢一覽』에 의하면 1947년 말에 東小門洞會가 敦岩洞 일부의 행정을 관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돈암동 지역은 동소문동회, 東仙南部洞會, 東仙北部洞會, 貞和洞會, 旭丘東部洞會, 旭丘西部洞會 등 6개 동회가 행정을 담당했다.

그 후 1955년 4월 18일(市條例 제66호) 「洞制」를 실시할 때 東小門洞事務所는 돈암동 중 三仙橋로부터 敦岩橋에 이르는 城北川 이북의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는데, 1970년 5월 18일(市條例 제613호)에 동소문동 1, 2, 3, 4가 및 돈암동 중 돈암국민학교 앞을 기점으로 東丘女商에 이르는 小路 이남 지역으로 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동소문동사무소는 동소문동 1가 1번지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데 1981년 6월에 신축해서 이전해 왔다. 이 옆에는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운영하는 城北어린이집이 세워져 있다.

광복 당시부터 1990년까지 동소문동사무소의 현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연 도	면적(km²)	가 구	인 구	통 수	반 수	비 고
1947	—	1,477	9,171	—	—	돈암동 일부지역
1953	—	588	2,572	—	—	〃
1970	0.29	3,290	17,100	18	157	동소문 1,2,3,4가 돈암동 일부지역
1990	0.29	2,550	8,864	22	153	〃

※資料 : 서울特別市 『市勢一覽』 各年度版, 內務部 『地方行政區域要覽』, 1990 p.65.

三 仙 洞

城北川 남서쪽의 서울 성곽을 끼고 있는 三仙洞은 조선시대에 혜화문 밖의 동소문동, 동선동 일대의 평평한 들판을 三仙坪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연유된 이름인데 三仙坪은 이 洞 남쪽의 玉女峰에서 玉女가 하늘에서 내려온 세 神仙과 놀았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24]

한편 三仙坪은 평평하고 넓어서 大韓帝國時代까지 乙支路 6街의 訓練院과 함께 武場으로 살곶이들(箭串坪)과 같이 閱武場으로 쓰이기도 했다.[25] 三仙洞은 朝鮮時代 초부터 漢城府 東部 崇信坊(城外)에 속해 있었으나 마을 명칭은 나타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朝鮮末 甲午改革(1894) 때 기록에 보면 漢城府 東署 崇信坊(城外) 東門外契 三仙坪이라 하였다.[26]

그 뒤 한일합방으로 日帝가 1911년 4월 1일(京畿道令 제3호) 경기도 京城府 崇信面 三仙坪이라 하고,[27] 1914년 4월 1일(京畿道令 제1호) 경기도 高陽郡 崇仁面 敦岩里로 하였다.

1936년 4월 1일(總督府令 제8호) 日帝가 京城府 구역을 확장할 때 경성부에 다시 편입되어 敦岩町이란 日本式 洞名을 붙였다. 1943년 6월 10일(府令 제163호) 서울에 區制를 실시함으로써 이 洞은 東大門區에 속하였다.

光復을 맞은 후 서울의 洞, 街는 우리 고유의 명칭으로 고쳐지게 되었으므로 1946년 10월 1일 敦岩町은 敦岩洞으로 改稱되었고, 1949년 8월 15일(大統領令 제159호) 城北區가 신설되기 이전인 같은해 5월 13일(서울市 告示 제34호)에 三仙洞 1, 2, 3街로 되었으며, 그 후 5개洞으로 분할되어 三仙洞 1, 2, 3, 4, 5街로 되었다.

이 洞의 서쪽과 남쪽의 경계를 이루는 서울 城廓은 史蹟 제10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성곽은 총 연장 18,127m로서 北岳山, 仁王山, 南山, 駱山을 잇고 있다. 이 성곽은 태조 이성계가 漢陽에 천도한 지 2년 뒤인 太祖 5년(1396) 1월 9일부터

24) 한글학회『한국지명총람』1 (서울편), 1966, p.123.
25)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서울명소고적』, 1958 pp.229~230.
白成基 解放記念『서울案內』, 1947 p.78.
26) 註) 19와 同一.
27) 註) 20과 同一.

2월 28일까지 49일간 118,070명을 동원하여 축조하였다.이 때 2/3 이상은 土城으로 쌓았으므로 그 해 여름에 장마로 무너지자 태조는 2차로 9월 1일부터 49일간 79,400명을 동원해서 돌로 쌓고 8개의 門樓를 건축했다.

그 후 20여년이 지나서 무너진 곳이 많게 되자 世宗 4년(1422) 1월 15일부터 40일간 322,640명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했다. 이 당시 872명이 사망했는데 부상자 수효는 알 수없다.

世宗 때 축성된 도성은 모두 石城으로 자연석이 아닌 직사각형으로 다듬어 쌓은 것이 특색이며, 太祖 때보다 1尺씩 높게 쌓은 외에 城牒을 쌓아 군사들이 전투 때 이 城牒에 의지해 싸울 수 있도록 했다. 또 城 안팎에 15尺의 도로를 내어 순찰에 편하도록 하였으므로 都城의 위용은 世宗 때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또 도성의 관리를 위해 城門都監을 설치하고 右議政을 책임자로 8인의 실무진을 두어 10일마다 1번씩 도성 내외를 순찰하고 보고를 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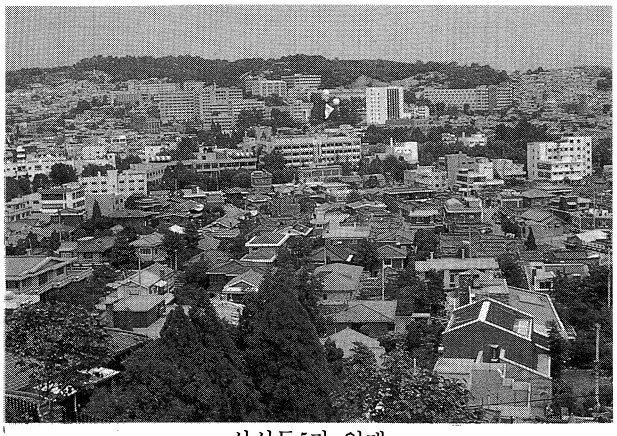
임진왜란 후 肅宗 30년(1704) 3월 25일부터 수축공사를 하다가 중지하고 이듬해 6월부터 시작하여 숙종 35년(1709)에 완료했다. 肅宗 때 수축된 도성의 특색은 上下 모두 약2尺의 方形이고 돌과 돌 사이의 간격이 없이 수직으로 쌓았는데 東大門, 白岳 동쪽, 光熙門 부근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삼선동에서도 간혹 볼 수 있다.

그 후에도 이 성곽은 英祖 때와 高宗 때도 보수공사를 했지만 日帝에 의하여 光武 2년(1898) 10월부터 훼손되기 시작하여 1915년에 京城市區域改修計劃에 따라 많은 부분이 철거되었다. 이에 1975년부터 서울市에서 서울성곽 복원계획을 세워 총연장 18,127m 중에서 滅失된 6,703m 외에 복원 가능한 11,424m를 1979년까지 단계적으로 복원했다.

이 洞의 남쪽 玉女峰 부근의 오똑한 곳은 옛날 軍人의 死刑場으로 쓰였다고 구전되어 온다. 또 惠化門 밖에는 새의 피해를 막기 위해 惠化門 門樓에 鳳凰을 그렸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이 곳에 鳳凰亭이란 정자가 지어졌다고 하며 亭子 이름을 따서 鳳凰洞이란 마을 이름도 있었다.

三仙橋는 三仙坪의 이름을 따서 城北川에 놓여진 다리이름으로 동소문동과 성북동, 삼선동의 경계가 되는 「동소문로」에 놓여진 다리와 그 남쪽에 人道橋가 각각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는 城北川 일부가 覆蓋되어 三仙市場과 商街

아파트가 들어 섰으므로 눈에 뜨이지 않는다.


삼선동5가 일대

三仙洞 1街의 史蹟으로는 漢城女高 옆의 三仙公園(512-160) 내에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7호로 지정된 三軍府 總武堂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은 조선말 高宗 3년 대원군이 軍務를 통할하는 관아로서 비변사 대신 訓練都監의 新營, 南營, 馬兵所를 설치하여 삼군부라 했다. 이 건물은 2년 뒤인 高宗 5년(1868)부터 현재 정부종합청사 자리에 三軍府가 사용하던 것을 高宗 19년(1882)에 폐지하고 統理機務衙門과 統理軍國事務衙門의 청사로 쓰이다가 갑오개혁 후 侍衛隊청사가 되었다. 한일합방 후 일제는 朝鮮步兵司令部로 사용하다가 1930년대에 3개건물 중 統武堂만을 이곳으로 옮기고 경기도 公務員練成場으로 사용했다. 6·25동란 후에는 고아원과 서울시 직업훈련원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淸憲堂 건물은 1967년에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내로 이전했다.

현재 三仙洞 1가~5가 지역은 삼선 제1, 제2동사무소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三仙 第1洞〉

三仙 第1洞은 삼선동 1가, 2가 지역과 駱山(125m) 밑의 敦岩洞 일부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洞長管轄區域 명칭이다. 앞서 성북제1동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日帝 때인 1933년 10월 3일에 서울에 町會가 설치되었지만 이곳은 1936년 4월 1일 이후에 京城府에 편입되었으므로 이 때 旭丘東部洞會가 설치되었으리라고 추측된다. 그 후 1955년 4월 18일 (市條例 제66호) 「洞制」실시 때 일제식 명칭인 旭丘 대신 三仙이라 하고 1, 2, 3洞으로 分洞되면서 旭丘東部洞會는 三仙 第1洞事務所로 개칭하는 외에 旭丘西部洞會는 三仙 第3洞事務所로 바꾸었다.

이 洞 남쪽의 駱山은 서울 內四山의 하나로서 산모습이 낙타와 같으므로 駱駝山 또는 駝駱山이라고도 칭하였다. 이 산은 서울의 左靑龍에 해당되는 산으로 화

강암으로 이루어지고 전에는 숲이 우거지고 깨끗한 水石과 약수터가 있어서 산책로로 많이 이용되었는데 현재는 산중턱까지 아파트가 들어서서 옛자취를 찾기 어렵고, 서울성곽만이 옛모습을 지니고 있다.[28]

조선초 명종 때 학자 南師古가 동으로 낙산, 서로 鞍峴을 가리키며 반드시 朋黨이 생길것인데, "駱이란 것은 各馬이니, 동을 주장하는 당은 각기 나눠질 것이요, 鞍은 革安이니, 서를 주장하는 당은 혁명한 후에 안정되리라" 하였는데 과연 東人은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西人은 인조반정 후에 안정되었다.[29]

삼선제1동사무소 관내인 삼선동 1가 북쪽으로는 城北川이 복개되어 있고, 「동소문로」에는 지하철 4호선의 한성대 입구역이 있다.

삼선동 1가와 삼선동 2가 남쪽은 山地로서 지대가 높은데 삼선동 2가 392번지에는 漢城大學이 자리잡고 있고, 그 서쪽에는 한성여자중고등학교가 있다.

한성대학은 金義衡이 1972년에 私立 한성여자대학을 세운 뒤 1978년 1월에 남녀공학으로 바꾸면서 현재와 같은 명칭으로 되었다. 한성여자고등학교는 1945년 10월에 金義衡이 세운 뒤 1950년에 학제 변경으로 중고등학교가 분리되었다.

광복 당시부터 1990년까지 삼선제1동사무소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 도	면적(km^2)	가 구	인 구	통 수	반 수	비 고
1947	—	2,172	13,144	—	—	旭丘東部洞會
1953	—	1,036	4,992	—	—	〃
1970	0.25	1,927	10,011	14	114	三仙第1洞
1990	0.42	4,132	15,082	23	169	〃

※資料 : 서울特別市『市勢一覽』各年度版, 內務部『地方行政區域要覽』, 1990, p.65.

〈三仙 第2洞〉

三仙 第2洞은 三仙洞 3, 4, 5街와 東小門洞 5街 및 敦岩洞 일부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洞長管轄區域 명칭이다. 삼선 제1동과 같이 삼선 제2동은 1936년 4월 1일 京城府에 편입된후 旭丘西部洞會가 설치된 것으로 추측된다. 광복 후까지도 이와같이 불리우다가 1955년 4월 18일(市條例 제66호) 「洞制」 실시 때 三仙 第1, 2, 3洞으로

28)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5권, 1989, p.280.
29) 종로구『종로의 명소와 지리』, 1990, p.27.

分洞되면서 이 곳은 三仙 第2, 3洞 지역이 되었다. 이 당시 삼선제2동은 돈암동 중 제1동 경계도로 以西, 山 54,467의 11, 山 48의 沿道 以東의 지역을 관할했고, 삼선제3동은 돈암동 중 山 54로부터 山 48에 이르는 도로 以西, 동소문 성벽 以東, 三仙橋 下 성북천 以南의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다. 그 후 1980년 7월 1일(市條例 제1413호) 常住人口 1만 미만의 洞은 통폐합하게 됨에 따라 삼선제3동을 삼선제2동사무소 관할구역에 통합하였다. 이 당시 조정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삼선2동사무소

조 정 전			조 정 후		
洞 名	면적(km²)	인 구	洞 名	면적(km²)	인 구
삼선2동	0.26	12,092	삼선2동	0.6	21,459
삼선3동	0.34	9,367			

이 洞 북쪽으로는 성북천이 복개되어 있고 「보문로」(신설동~성북구청~돈암시장)가 남북으로 지나고 있으며 동서로는 「삼선교길」(삼선교~삼선2동~삼선2교)이 통해 있다.

그리고 이 동 관내 「보문로」변에는 城北區廳(삼선동 5가 411번지)이 있고 그 옆에는 성북경찰서가 위치하고 있다. 성북구청은 1949년 8월 13일(大統領令 제159호) 東大門區의 일부 지역과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의 일부를 합하여 서울특별시의 9번째 區로 출발한 후 1950년 3월 30일 「동소문로」변의 동소문동 3가 29번지의 3층 석조건물에서 행정업무를 보다가 1957년에 현재 위치로 이전했다.

전일 삼선제3동 지역에는 鳳凰亭이 세워져 있었는데 전에 三仙坪 일대에 새의 폐해가 많았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惠化門 門樓에다 鳳凰을 그려놓고 이곳에 정자를 세웠다는 것이다.[30] 그리고 삼선동 3가 남쪽의 玉女峰은 옛날 玉女가 세 신선과 더불어 놀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30) 한글학회 前揭書 p.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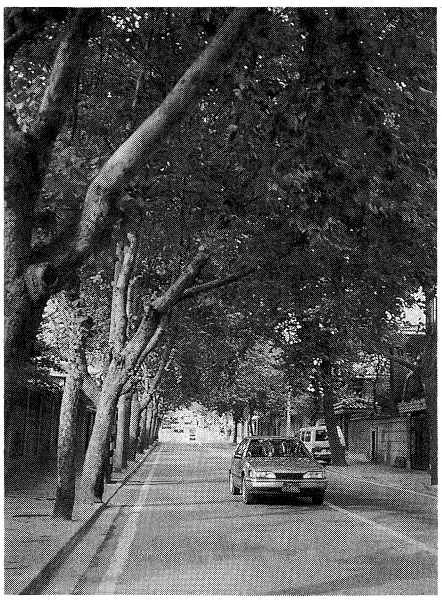
지금 지하철 한성대 입구역이 있는 城北川에 놓였던 三仙橋는 복개되어 그 모습이 사라졌으나 이 다리 이름은 전에 동소문동 2가와 삼선동 1가 지역을 대표하는 명칭이었다. 30여년 전까지도 이 다리 밑에서 세탁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삼선동 3가에는 京東高等學校(50번지), 三仙國民學校(30번지의 4)가 위치하고 있다.

東 仙 洞

「彌阿路」변 양쪽에 위치한 東仙洞은 1949년에 敦岩洞에서 분리될 때 東小門洞과 三仙洞에서 각각 첫글자를 따서 洞名이 제정되었다.

동선동 지역은 앞의 동소문동, 삼선동 지역과 같이 조선초부터 漢城府에 속했으며 1894년 갑오개혁 때에는 漢城府 東署 崇信坊(城外) 東門外契 敦岩里였다.[31] 한일합방으로 日帝가 1911년 4월 1일(京畿道令 제3호) 경기도 京城府 崇信面 敦岩里로 하고[32] 1914년 4월 1일(京畿道令 제1호) 경기도 高陽郡 崇仁面 敦岩里로 하였다.


동선동 가로수 거리

그 후 1936년 4월 1일(總督府令 제8호) 경성부 확장 때 京城府에 편입되어 敦岩町이 되었고, 1943년 6월 10일(府令 제163호) 區制 실시로 東大門區 敦岩町이 되었다.

광복 후 1946년 10월 1일 敦岩町은 敦岩洞으로 개칭되고, 1949년 8월 15일 城北區의 新設로 城北區 敦岩洞으로 될 때 敦岩洞의 지역이 넓은 관계로 東小門洞, 三仙洞, 東仙洞, 敦岩洞으로 분할하면서 東仙洞이 되고 1, 2, 3, 4, 5街로 세분되었다.[33]

31) 註) 19와 同一.
32) 註) 20과 同一.
33) 한글학회 前揭書, p.122.

한편 동선동의 북쪽에 敦岩峴, 狄踰峴 등으로 불러오고, 또 彌阿里로 넘어가는 嶺路라 하여 속칭 미아리고개로 통하는 고갯길은 옛날부터 胡賊의 침입로가 되었다 하여 狄踰嶺 즉 「되너미고개」로 불리어지기도 하였지만 최근 6·25 동란 중에는 「되」아닌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넘는 고개가 되었다.

지금도 들을 수 있는 「斷腸의 미아리고개」라는 노래는 6.25 동란시 아군의 반격으로 미처 달아나지 못했던 수많은 애국인사와 선량한 국민들을 공산당이 묶어서[34] 이 고개를 넘어 북으로 도망치는 장면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다.

이러한 불행한 운명의 사실을 傍證이라도 하여 주듯이, 돈암동 큰 거리에서 미아리고개로 올라가는 길 가에는 수많은 占術家의 간판이 눈 길을 끈다.

현재 東仙洞 1가~5가 지역은 동선제1동, 제2동사무소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東仙 第1洞〉

東仙 第1洞은 「彌阿路」 남동쪽 일대의 동선동 1가~3가, 돈암동 일부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洞長管轄區域 명칭이다.

日帝 때인 1936년 4월 1일에 京城府에 편입된 동선동 지역은 이 당시 東仙南部町會, 東仙北部町會가 설치되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東仙 第1洞 지역은 東仙南部町會로 호칭되었을 것이다. 광복 후 1946년 10월 1일에 東仙南部町會는 東仙南部洞會로 개칭되었는데 1947년 말까지는 돈암동 구역내에 東小門洞, 東仙南部洞, 東仙北部洞, 貞和洞, 旭丘東部洞, 旭丘西部洞의 6個 洞會가 있었다. 이 중 東仙南部洞과 東仙北部洞은 6,140세대 36,019명의 인구가 거주하여 6個洞의 전체인구 72,780명[35]의 절반가량이나 된다.

1951년 11월 29일(市告示 제5호) 동선남부동회에서 동선동부동회를 분동시켰다.[36] 이어서 1955년 4월 18일(市條例 제66호) 「洞制」를 실시할 때 東仙洞 지역은 東仙洞, 南仙洞, 西仙洞, 北仙洞事務所 등 4개 행정동이 설치되었다. 이 당시 동선동 사무

34) 希望出版社 『解放二十年史』, 1965, pp.420~421, pp.432~433, pp.450~451.
35) 서울市 『市勢一覽』, 1948, p.22~23.
36)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洞名沿革攷』 Ⅷ, 1983, p.83.

소는 동선동 2가 및 3가의 13번지~248번지에 이르는 도로 동쪽지역, 남선동사무소는 동선동 1가, 3가 일부와 동소문동 5가 지역, 서선동사무소는 동선동 4가 및 5가의 일부 지역, 북선동사무소는 돈암동 중의 敦岩峴 동쪽 지역을 관할하게 했다. 따라서 동선동, 남선동사무소 관할지역이 오늘날 동선 제1동사무소 관할구역에 해당되었다. 이어서 1970년 5월 18일(市條例 제613호) 4개 동사무소를 통폐합하여 東仙 第1洞과 第2洞을 설치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1970년 당시의 동선 제1동의 현황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동 명	면적(km^2)	가 구	인 구	통 수	반 수	관 할
동선제1동	0.48	3,134	16,490	15	118	동선동1,2,3가 및 돈암동 중 돈암동 以南지역

동선 제1동의 북쪽으로는 「미아로」가 지나고 그 밑으로는 지하철 4호선이 지나면서 성신여대 입구역이 있으며, 동쪽으로는 「안감내길」(대광국교~성북구청~돈암4거리)이 성북천을 따라서 나 있다. 안감내는 성북천 또는 안암천의 옛이름으로 한자로는 安甘川이라 표기했다. 현재 지하철 성신여대 입구역 부근은 商街로서 성북구의 가장 번화가로 손꼽힌다.

이 洞의 관내에는 사립 誠信女子大學校(동선동 3가 249-1)와 성신여자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李淑鍾이 1963년 성신여자초급대학을 설립한 후 1965년에 4년제 사범대학, 1979년 성신여자대학, 1983년에 종합대학인 성신여자대학교로 되었다. 성신여자고등학교는 李淑鍾이 1936년 4월에 경운동의 천도교기념관을 이용해서 성신여학교를 설립하고 이어서 1939년 성신가정여학교로 바꾼 뒤 1944년 6월에 현재 위치로 이전해 왔다.

〈東仙 第2洞〉

東仙 第2洞은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 북쪽의 「아리랑고개길」 좌우의 동선동 4가, 5가와 동소문동 6가, 7가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洞長管轄區域 名稱이다.

앞의 동선 제1동과 같이 1936년 4월 1일 이 지역이 京城府에 편입된 후 東仙北

部町會로 호칭되었을 것이다. 광복 후 1946년 10월 1일 東仙北部洞會로 바뀌고, 1955년 4월 18일(市條例 제66호) 「洞制」를 실시할 때 東仙, 南仙, 西仙, 北仙洞事務所 등 4개 동사무소가 설치되었는데 西仙洞事務所로 호칭되었다. 이어서 1970년 5월 18일(市條例 제613호) 4개 동사무소를 통폐합하여 東仙第2洞事務所로 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동선 제2동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아리랑고개길」(돈암4거리~전병원앞~아리랑시장)은 폭 15m, 길이 1,450m의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다. 이 길이름은 1984년에 제정된 것인데 그 이유는 아리랑고개가 있기 때문이다. 이 고개이름은 우리민족의 대표적 민요인 아리랑 노래를 붙인 것이다. 고개이름의 유래는 1935년경에 일본인들이 貞陵 일대를 개발하고 요정을 꾸민 다음 이곳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개 위에 아리랑고개라고 푯말을 세운 것이라는 설[37]이 있고, 1929년에 홍봉진씨가 가정교사를 할 때 그 집주인이 정릉에 상춘원이라는 요리집을 내면서 선전광고문을 부탁했으므로 이를 써주면서 고개 마루턱 老松 가지에다 「아리랑고개」라고 써서 매달았기 때문에 연유되었다는 것이다.[38] 「아리랑고개길」은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신흥사 부근의 대형음식점을 찾아 회갑연에 참석하려는 사람으로 교통혼잡이 심하다.

여기서 광복 당시부터 1990년까지 동선 제2동사무소의 현황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연 도	면적(km²)	가 구	인 구	통 수	반 수	비 고
1947	—	2,182	12,767	—	—	동선북부동회
1953	—	1,013	4,748	—	—	〃
1970	0.33	2,264	11,875	11	112	동선제2동
1990	0.33	2,893	10,679	16	148	〃

※資料 : 서울特別市『市勢一覽』各年度版, 內務部『地方行政區域要覽』, 1990, p.66.

37) 한글학회 前揭書, pp.121~122.
38) 「서울시보」 1989년 7월 21일자 '서울史話' 223회.

敦岩洞

아리랑고개와 미아리고개에 걸쳐서 高地帶에 위치한 敦岩洞은 되너미고개, 즉 敦岩峴이란 고개이름에서 洞名이 유래되었다. 되너미고개는 병자호란 때 오랑캐, 즉 되놈이 서울에 침입할 때 넘어왔으므로 되너미재 또는 한자로 狄踰峴이라고 칭하였다.[39]

그 외에도 의정부까지 가는데 마지막 고개라는 뜻에서 되너미, 전일에 고개가 높았으므로 이 고개에서 밥을 되먹는 고개라고 하던 것이 敦岩峴이라 하다가 미아리고개로 불리우게 되었다.

돈암동은 조선초부터 한성부에 속하였는데 조선말 甲午改革 때 漢城府 東署 崇信坊(城外) 東門外契 敦岩里[40]로 호칭했다. 한일합방 후 日帝는 1911년 4월 1일(京畿道令 제3호) 경기도 京城府 崇信面 敦岩里로 하고, 1914년 4월 1일(京畿道令 제1호) 경성부 축소 때 京畿道 高陽郡 崇仁面 敦岩里라 하였다.

그 후 1936년 4월 1일(總督府令 제8호) 京城府 확장 때 편입되어 京城府 敦岩町이라 하였다. 1943년 6월 10일 東大門區에 속했으나 광복 후 1946년 10월 1일 敦岩町은 敦岩洞으로 바뀌고 1949년 8월 15일 城北區에 속하면서 그 지역이 넓었으므로 동소문동, 삼선동, 동선동으로 分洞됨으로써 현재와 같이 아리랑고개와 미아리고개에 걸친 山麓의 대부분 지역만 敦岩洞으로 되었다.

돈암동의 史蹟으로는 興天寺, 또는 새절, 新興寺가 있다. 원래 이 절은 조선초에 덕수궁 부근에 세워져 있었던 것을 정조 18년(1794) 9월에 이곳에 이전해 왔다. 興天寺는 太祖妃 康氏가 묻힌 貞陵의 願刹로서 170間 규모의 曹溪宗 本山으로 승려 120여명이 거처했다. 貞陵이 정릉동으로 이전된 후에는 관청 건물로 사용되었다가 中宗 5년(1510)에 中學의 유생들이 放火해서 소실되었다. 조선말 高宗 2년(1865)에 흥선대원군이 이 절을 重建하고 신흥사라는 이름을 고쳐 興天寺라는 휘호를 써 주었다.[41]

---

39) 拙著『서울史話』, 1986, p.147.

40) 註) 19와 同一.

41)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서울명소고적』, 1958, pp.234~235.

그리고 태조는 신덕왕후 康氏 소생 慶順公主가 王子의 난으로 남편 李濟가 살해되자 공주를 삭발시켜 홍천사의 중이 되게 했다는 것이다.

요즈음의 신흥사는 寺刹보다 그 밑의 宴會場이 밀집해 있어 서울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현재 돈암동 지역은 돈암동 제1동사무소, 돈암 제2동사무소 그리고 동소문동사무소가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敦岩 第1洞〉

敦岩 第1洞은 高明中·商業高等學校와「미아로」서쪽 敦岩洞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洞長管轄區域 명칭이다.

돈암제1동사무소 관할구역은 일제 때인 1936년 4월 1일 경성부에 편입된 후 東仙北部町會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광복 후 1946년 10월 1일 東仙北部洞會로 바뀌고 이어서 1955년 4월 18일(市條例 제66호)「洞制」실시 때는 北仙洞事務所 관할구역이었다. 이 당시 北仙洞事務所 관할구역은 敦岩洞 중 敦岩峴 以東의 지역이었다.

그 뒤 1970년 5월 18일(市條例 제613호) 法定洞과 동사무소 명칭을 일치시키면서 여러개로 분할되었을 때 행정구역 명칭에 1, 2, 3의 숫자를 붙였으므로 北仙洞事務所는 敦岩第1洞, 貞和洞事務所는 敦岩第2洞으로 호칭하게 되었다.

이 洞 관내에는 남북으로「미아로」(돈암동~길음동~미아삼거리)가 지나고 있고, 북쪽에는 貞陵川을 복개해서 도로로 사용하는「정릉길」(북악터널~길음교~월암교)이 지나고 있다. 미아리고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洞 일대는 6·25동란 직후인 6월 27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북한 공산군의 침입으로부터 서울 死守를 위해 한국군이 배치되어 戰線을 형성하였던 곳


돈암2동사무소

이다. 6월 27일 밤에 폭우를 뚫고 공산군의 탱크 10여대가 넘어오자 한국군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포격과 집중사격을 가했지만 6월 28일 새벽 1시에 미아리고개를 돌파당해 서울 死守에 실패했다.

미아리고개 서쪽에는 1950년에 商業高等學校(돈암동 45-88)가 있고 그 옆에는 이 학원에서 1963년 세운 梅園國民學校가 있으며 「정릉길」 변에는 서라벌중고등학교(돈암동 7번지)가 있다. 이 학교는 1956년에 후암동에서 이전해 왔는데 전일에는 이곳에 서라벌예술대학이 자리했으나 中央大學校에 병합되었다. 현재 「정릉길」 주변은 아파트가 계속 세워지고 있다.

여기서 광복 당시부터 1990년까지의 돈암제1동사무소의 현황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연　도	면적(km²)	가　구	인　구	통　수	반　수	비　　고
1947	—	2,182	12,767	—	—	동선북부동회
1970	0.46	6,145	29,755	25	238	돈암제1동사무소
1990	0.49	3,629	13,123	26	158	〃

※資料 : 서울特別市『市勢一覽』各年度版, 內務部『地方行政區域要覽』, 1990, p.66.

〈敦岩 第2洞〉

敦岩 第2洞은 아리랑고개 동서편 山麓의 敦岩洞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洞長管轄區域명칭이다.

이 지역은 日帝 때인 1936년 4월 1일 京城府에 편입된 후 貞和町會가 설치되었으며 광복 후 1946년 10월 1일 貞和洞會로 바뀌고 이어서 1955년 4월 18일(市條例 제66호) 「洞制」실시 때 貞和洞會의 관할구역은 돈암동 중 西仙洞 경계선 以北의 지역으로 정해졌다. 그 뒤 1970년 5월 18일(市條例 제613호) 敦岩第2洞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 洞 관내에는 1965년에 설립된 友村國民學校(돈암동 606-490)가 자리하고 있다.

여기서 광복 당시부터 1990년까지 돈암제2동사무소의 현황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연　도	면적(km²)	가　구	인　구	통　수	반　수	비　　고
1947	—	1,033	5,524	—	—	정화동회
1953	—	358	1,923	—	—	〃
1970	0.36	3,768	18,752	11	125	돈암제2동사무소
1990	0.41	2,810	10,139	24	160	〃

※資料 : 서울特別市『市勢一覽』各年度版, 內務部『地方行政區域要覽』, 1990, p.66.

安 岩 洞

安岩川과 「安岩路」를 끼고 있는 安岩洞은 전에 安岩洞 3街의 大光아파트團地 가운데에 큰 바위가 있어 20여명이 앉아 편히 쉴만 하므로 그 바위 이름을 「앉일 바위」라 하던 것을 漢字로 옮겨 쓴 것이 洞名의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42]

안암동은 조선초부터 漢城府에 속해 있었으며 조선말 高宗 4년(1867)에 발간된 『六典條例』에는 한성부 東部 崇信坊(城外) 安岩契로 되었고 甲午改革 때에는 한성부 東署 崇信坊(城外) 東門外契 宮里, 園里로 칭하였다.

한일합방 후 日帝는 1911년 4월 1일(京畿道令 제3호) 경기도 京城府 崇信面 安岩里로 되고, 1914년 4월 1일(京畿道令 제1호)에 安岩里, 剖石洞, 宮里, 園里를 경기도 崇仁面 安岩里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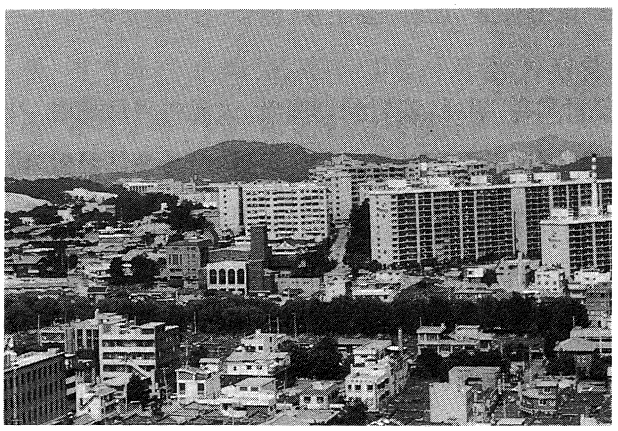
그 후 1936년 4월 1일(總督府令 제8호) 京城府 확장 때 편입되어 京城府 安岩町이라 하였다. 1943년 6월 10일 東大門區에 속했고 광복 후 1946년 10월 1일 安岩町은 安岩洞으로 바뀌었다. 이어서 1949년 8월 15일 城北區의 신설로 이에 속했으며 安岩洞은 1, 2, 3, 4, 5街로 구분되었다.

1975년 10월 1일(市條例 제979호) 安岩橋에서 高麗大學校 理工大 앞에 이르는 안암동 동남지역 일대의 安岩洞 4, 5街의 일부가 東大門區의 龍頭洞과 祭基洞으로 개편되었다.

고려대학교 뒷산에서부터 開運寺를 돌아 남쪽으로 뻗어온 安岩山麓을 중심으로 한 덤바위, 북바위 등의 바위는 鐘岩, 鼓岩 등의 地名, 洞名을 남겨 전한다. 북바위(鼓岩)는 고려대학교 구내에 있었던 북같은 모양의 바위라고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다.[43] 이 북바위부근을 학더미라고 했는데 그 유래는 옛날 이곳의 논이 매우 肥沃하여 세 마지기(3斗落)에서 나는 쌀로 10여 식구가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어느날 욕심많은 주인이 곡식을 더 많이 내어 먹으려고 논 가운데 있는 큰 더미를 파들어가자 속에서 학이 나와 날아가고, 그 후로는 비옥하던 땅이 薄土로 변하였다

42)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洞名沿革攷』, 1983, p.101.

43) 한글학회 前揭書, p.35, 125.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洞名沿革攷』 東大門區篇, pp.40~41.


안암3·4가 전경

고 전해온다.[44]

이 북바위 부근의 논은 조선초 太宗이 예조판서 등을 지낸 朴訔에게 하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5]

이 洞의 史蹟으로는 開運寺와 이 절의 암자인 普陀寺 내에 磨崖白佛이 있다. 개운사는 현재 조계종이지만 최근까지 太古宗에서 관리하여 1955년에 帶妻僧 주최로 全國布教師大會를 이 절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이 절은 조선초 태조 5년(1396) 無學大師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며 처음에는 高麗大 理工大學 부근에 절을 짓고 永導寺라고 했는데 正祖3년(1779) 5월에 후궁 元嬪 洪氏가 세상을 떠나자 영도사 자리에 묘소를 정했으므로 이곳으로 이전하여 開運寺로 개칭했다.[46] 이 절은 현재 대대적인 重建計劃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경내에는 洋式 건물로 지은 僧伽大學이 있다.

이 절 동쪽 골짜기에는 大園庵과 普陀寺(안암동 5가 157)가 있는데 보타사 대웅전 뒤의 암벽에는 5m 크기의 磨崖白佛이 있어서 1992년 6월에 「서울 鄕土史學會」에서 확인, 고증해서 서울특별시와 문화재 관리국에 문화재 지정을 요청했다.

1914년에 安岩里로 칭할때 宮里(궁말), 園里, 剖石里까지 포함시켰는데 宮里는 世宗의 5男인 廣平大君과 그의 아들 永順君이 거주했기 때문이고, 園里는 元嬪 洪氏의 묘소인 永明園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安岩洞 1, 2, 3, 4, 5街의 행정은 安岩洞事務所에서 담당하고 있다.

---

44) 한글학회 前揭書, p.125.

45) 『東國輿地備考』 卷2 田野條.

46)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명소고적』, 1958, pp.232~233.
한글학회 前揭書, p.125.

〈安岩洞〉

安岩洞은 安岩洞 1, 2, 3, 4, 5街의 행정을 담당하는 洞長管轄區域 명칭이다.

이 洞은 1936년 4월 1일 京城府에 편입되고 나서 安岩東部町會와 安岩西部町會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광복 후 1946년 10월 1일 安岩東部洞會와 安岩西部洞會로 바뀌었다.

이 당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1947年末			1949年 6月末		
	住 居	世 帶	人 口	住 居	世 帶	人 口
安岩東部洞(安岩洞104)	566	1,220	7,327	801	1,436	7,468
安岩東部洞(安岩洞183)	1,100	2,184	13,041	1,125	1,769	10,196

※資料：서울特別市『市勢一覽』, 1948, 1950年.

그 후 1955년 4월 18일(市條例 제66호)「洞制」실시에 따라 안암동 5가 일원을 東岩洞事務所, 안암동 3, 4가 일원을 南岩洞事務所, 安岩洞 1, 2가 일원을 西岩洞事務所 관할구역으로 정했다. 이어서 1970년 5월 18일(市條例 제613호)에 안암동 1, 2, 3, 4가를 安岩第1洞事務所, 안암동 5가를 安岩第2洞事務所로 정했으며 1977년 9월 1일(市條例 제1185호) 안암동 1, 2, 3, 4, 5가를 安岩洞事務所로 통폐합했다.

이 洞 관내의 안암동 5가는 안암동 지역의 2/3를 점유하는데 대부분 고려대학교와 이공대학 및 의대 부속병원이 들어서 있고 나머지 1/3지역은 주택가이다.

이 洞 남쪽은「안암로」(대광고교~안암동~종암동3거리)가 지나고 서쪽은 안암천을 끼고「안감내길」이 있으며 동서로 관통하는「仁村路」가 있다.

우리나라 私學의 名門인 高麗大學校(안암동 5가 1)는 光武 9년(1905) 李容翊에 의해 普成專門學校로 출발해서 孫秉熙 등 민족지도자에 의해 운영되다가 1932년 仁村 金性洙가 운영을 맡아 1934년에 이곳에 校舍를 건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本館과 舊圖書館은 史蹟 제285호와 제286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 후 1946년에 高麗大學校로 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그 밖에도 龍門中高等學校(안암동 2가 96), 安岩國民學校(안암동 2가 93)가 자리잡고 있다.

여기서 1970년 이후의 안암동사무소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 도	동 명	면적(km²)	가 구	인 구	통 수	반 수
1970	안암제1동	0.4	3,026	16,068	20	168
	안암제2동	1.17	2,202	11,624	14	103
1977	안암동	1.45	—	24,136	—	—
1990	〃	1.32	6,145	22,834	32	256

※資料 : 內務部『地方行政區域要覽』, 1990, p.67.

普 門 洞

安岩川 서쪽지역 일대에 위치한 普門洞은 보문동 3가 168번지에 위치한 普門寺의 이름을 딴 것이다.[47]

조선초부터 이 곳은 漢城府에 속하였는데 조선말 高宗 4년(1867)에 발간된『六典條例』에 보면 한성부 東部 崇信坊(城外) 新設契로 칭하였고, 甲午改革 때에는 한성부 東署 崇信坊(城外) 東門外契 新設洞이라고 했다.[48]

한일합방 후 日帝는 1911년 4월 1일(京畿道令 제3호) 경기도 京城府 崇信面 新設契 塔洞, 遇仙里로 칭하다가[49] 1914년 4월 1일(京畿道令 제1호) 경기도 高陽郡 崇仁面 新設里로 명명했다. 그 후 1936년 4월 1일(總督府令 제8호) 日帝가 京城府 구역을 확장할 때 京城府에 편입되어 新設町이 되었는데 1943년 6월 10일(府令 제163호) 區制 실시로 東大門區에 속하였다.


보문동 전경

광복 후 1946년 10월 1일 新設町은 新設洞으로 개칭되었다. 이어서 1955년 4월 18일(市條例 제66호)「洞制」실시 때 신설동에서 보문동을 분리하여 普門洞 1, 2, 3,

47) 한글학회 前揭書, p.32.
48) 京城府 前揭書, p.446.
49) 註) 20과 同一.

4, 5, 6, 7街로 구분하였는데 1975년 10월 1일(大統領令 제7816호) 區, 洞의 관할구역을 재편성할 때 신설동 일부를 보문동 6가에 편입시키고 普門洞 1가~7가를 성북구에 소속시켜 현재에 이르렀다.

이 洞의 명칭이된 普門寺는 탑골(塔洞)에 있었으므로 「탑골 僧房」이라고 불리우던 절로서 比丘尼 즉 女僧들이 거처하는 조용한 암자이다. 大韓佛教 普門宗으로 등록된 보문사는 처음 高麗 叡宗 10년(1115) 曇眞國師에 의하여 창건되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重修되었다. 옛날 건물로는 英祖朝(1721~1776)에 건축된 대웅전이 남아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절이 황폐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광복과 함께 住持 宋恩榮이 취임하면서 30여년간을 佛事中興과 건물중창에 전심노력하여 현재에는 많은 건물이 세워졌는데 경주 석굴암을 모방한 石窟庵과 舍利塔, 큰 梵鍾을 주조해 놓았다.

그런데 탑골 승방은 보문사보다 이 절 좌측의 彌陀寺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50] 이 절 대웅전 뒤에는 6층 石塔이 세워져 있는데 아래쪽 3층은 고려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절은 고려 光宗 원년(950)에 惠居國師가 창건하여 미타사라고 명명하고 문종 원년(1047)에 석탑을 쌓아 탑골 승방이라고 칭하게 되었다.

보문동은 동쪽에는 안암동 山麓, 서쪽은 삼선동 山麓 사이에 있어서 지형이 긴 골짜기로 되어 있고, 큰 도로도 신설동에서 돈암교로 나가는 「보문로」가 있을 뿐 사통팔달의 시가지로서의 교통조건은 갖추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안암로」를 연장하여 보문동 7가와 종로구 숭인동의 「芝峰路」와 연결하는 터널을 개통할 계획이므로 교통이 원할해질 것이다.

보문동 6가와 종로구 숭인동 사이 青龍寺 앞에 우뚝 솟은 큰 봉우리가 있는데 이름하여 「東望峰」이라 한다. 조선시대 端宗이 어린 나이로 숙부인 世祖에게 몰려 멀리 강원도 영월로 귀양 가 있을 때, 端宗王妃 宋氏가 그 서쪽 山麓 청룡사(淨業院)에 寓居하면서 매일 이 봉우리에 올라 동쪽으로 단종이 계신 영월을 바라보았다 하여 봉우리 이름을 東望峰이라 하였다. 英祖 47년(1771) 6월에 왕이 이곳에 거동하여 친필로 쓴 「淨業院 舊基」라는 비를 세우고 바위에도 「東望峰」이란 3字

50)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洞名沿革攷』Ⅷ (城北區篇), 1983 p.113.

를 친필로 써서 새기게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 동망봉의 동쪽 보문동 6가 지역에는 「東望山神閣」이 있는데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가 되면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모아, 마을의 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제사를 드린다. 산신각이 있는 곳은 일찌기 端宗이 영월로 귀양 가 있을 때 단종의 모친 현덕왕후가 아들의 無事歸還을 기원하던 곳이라고 주민들이 말하는데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은 뒤 바로 세상을 떠났으므로 端宗妃 宋氏가 기원하던 곳이라고 할 수 있다.[51]

현재 普門洞 1가~7가까지의 행정은 普門洞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普門洞〉

普門洞은 普門洞 1街~7街 일대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洞長管轄區域 명칭이다.

이 洞은 1936년 4월 1일 京城府에 편입되고 나서 高砂南部町會와 高砂北部町會로 불리워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1946년 10월 1일 高砂北部洞會와 高砂南部洞會로 나타나기 때문이다.[52] 그 후 1955년 4월 18일(市條例 제66호) 「洞制」실시로 東大門區 普門第1洞과 普門第2洞事務所로 개칭되었다. 이 당시 보문제1동은 보문동 4, 5, 6, 7가 일원, 보문제2동은 보문동 1, 2, 3가 일원을 관할하였다. 1975년 10월 1일에는 城北區에 편입되었으며 1980년 7월 1일(市條例 제1413호) 서울市가 인구 감소추세에 있는 洞을 통폐합함에 따라 普門第1, 2洞은 普門洞事務所로 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현재 이 洞의 남북으로는 「普門路」가 지나고 있고 동서로는 「仁村路」가 「보문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보문로」 도로변은 상가를 이루고 있지만 대부분 주택가이다.

공공시설로는 교육기관으로 大光國民學校(7가 111번지), 東信國民學校(3가 산 11)가 있고, 동대문세무서, 성북전화국 외에 普門市場이 자리하고 있다.

51) 上揭書, pp.117~118.
52) 서울市 前揭書, p.22.

여기서 광복 당시부터 1990년까지 普門洞事務所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 도	동 명	면적(km²)	가 구	인 구	통 수	반 수
1947	高砂南部洞	—	1,453	9,286	—	—
	高砂北部洞	—	2,149	12,830	—	—
1980	普門第1洞	0.25	—	12,286	—	—
	普門第2洞	0.21	—	11,250	—	—
1990	普 門 洞	0.55	6,379	23,847	31	272

貞 陵 洞

北漢山城 南將臺 남쪽 일대에 위치한 貞陵洞은 李成桂의 繼妃 康氏의 정릉이 있으므로 洞名이 유래되었다. 원래 정릉동의 처음 地名은 沙乙閑里로 「살한리」를 한자음으로 옮긴 것이고 沙阿里로 줄여서 칭하기도 했다.

이 곳은 조선초부터 漢城府에 속했던 것은 정릉동 408번지, 清水莊유원지 入口에 城底五里碑(史蹟 제110호)가 세워져 있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53] 조선말 高宗 4년(1867)에 발간된 『六典條例』에는 漢城府 東部 崇信坊(城外) 陵洞契로 나타나고 갑오개혁 때에는 한성부 東署 崇信坊(城外) 東小門外契의 小貞陵洞, 清水洞, 孫哥亭 지역으로 칭했다.[54]

한일합방 후 日帝는 1911년 4월 1일(京畿道令 제3호) 京城府 崇信面 大貞陵洞, 小貞陵洞, 清水洞, 孫哥亭으로 칭하고, 이어서 1914년 4월 1일(京畿道令 제1호) 京畿道에 속하여 高陽郡 崇仁面 貞陵里로 되었다.

그 후 1949년 8월 13일(大統領令 제159호) 서울市 확장으로 편입되어 城北區 貞陵里로 칭하게 되다가 이듬해 3월(市條例 제10호) 貞陵洞으로 고쳐졌다.[55] 1975년 10월 1일(市條例 제981호) 貞陵洞 236의 482, 235번지의 동북쪽 지역을 도봉구 미아동에 편입하였다.

貞陵洞에는 이 洞의 명칭이된 貞陵 외에도 많은 史蹟이 있다. 우선 貞陵은 조선을 건국한 太祖의 繼妃인 神德王后 康氏의 陵이다. 미모를 갖추고 재주가 뛰어난 康氏가 太祖5년(1396) 8월 13일에 세상을 떠나자 태조는 너무 상심하여 슬퍼하다

53)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서울명소고적』, 1958, p.240.

54) 註) 19와 同一.

55)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서울特別市史』(解放後 市政篇), 1965, pp.36~37, 40.

가 陵地를 친히 찾은 끝에 聚賢坊 북쪽 언덕, 현재 중구 貞洞 4번지 부근으로 정했다.[56] 그 뒤 이 곳으로 陵을 이전한 것은 太宗 9년(1409) 2월에 議政府에서 貞陵이 유독 城內에 있어서 未便하고 中國 사신이 머무는 太平館이 가까우니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상소를 올렸기 때문이다.[57]

그 후 貞陵은 기억 속에 잊혀져 있다가 170여년이 지난 宣祖 14년(1581)에 그 위치를 찾게 되어 陵寢을 修封하고 寒食에 제사하는 것만으로 그쳤다.[58] 이어서 顯宗 10년(1669) 신덕왕후를 宗廟에 배향하고 陵의 면모를 갖추게 되니 260여년만의 예우를 갖추게 된 셈이다. 封陵設祭하는 날 貞陵 일대에 비가 흡족히 내리자 사람들은 이 비를 洗寃하는 비라 하였다.[59]

貞陵의 願刹로는 앞서 돈암동의 新興寺가 있었지만 정릉동에도 奉國寺(정릉동 637번지)와 慶國寺(정릉동 754번지)가 있다. 봉국사는 「貞陵길」 변에 있는데 高麗 恭愍王 3년(1354)에 懶翁大師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일명 藥師寺로 칭하다가 현종 10년에 정릉을 修封하면서 이 절을 奉國寺로 고치고 願刹로 삼았다. 조선말 임오군란 때 소실된 것을 이듬해에 重建했다. 경국사는 청수장 올라가는 중간에 있는데 이 절은 高麗 때 창건한 절로 원래는 靑岩寺였다. 역시 이 절도 현종 때 貞陵을 修封하면서 願刹로 삼게 되었다.[60]

청수장 유원지로 가는 「輔國路」는 북한산으로 오르는 등산로인데 大成門, 輔國門, 南將臺를 지나 白雲臺에 오르게 된다.

北漢山은 白雲臺, 仁壽峰, 萬景臺의 세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으므로 흔히 三角山이라고 칭하며, 서울의 主山으로서 祖宗山이라고도 하는데 조선 중기 肅宗 37년(1711)에 수도 방어를 위해 20여里의 北漢山城을 쌓았다.

貞陵 북쪽의 貞陵 藥水는 일명 環壁泉으로써 위장병과 피부병에 약효가 있다고 해서 유명하며 현재는 正心藥水로 불리운다.

그리고 國民大學校 내에는 조선말의 議政府 參政으로 內閣을 조직한 韓圭卨의

56) 太祖實錄 卷10 太祖 5년 8月 甲午, 戊戌, 庚子, 丁未, 戊申條.
57) 太宗實錄 卷17 太宗 9년 2월 丙申條.
58) 『燃藜室記述』 卷1 太祖朝 貞陵廢復.
59) 同　上.
60)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洞名沿革攷』 Ⅷ (城北區篇), 1983, pp.128～129.

가옥이 있다. 서울지방민속자료 제7호로 지정된 韓圭卨大監 집은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가옥으로 중구 장교동에서 이곳으로 옮겨 1980년 12월 20일에 완공되었다.

현재 貞陵洞의 행정은 貞陵 제 1, 2, 3, 4洞에서 담당하고 있다.

〈貞陵 第1洞〉

貞陵第1洞은 貞陵洞의 동쪽편, 즉 아리랑고개와 숭덕국민학교 동쪽 일대의 정릉동의 행정을 담당하는 洞長管轄區域 명칭이다.

貞陵洞은 1949년 8월 13일 서울市에 편입된 후 貞陵第1洞會와 第2洞會로 구분되어 행정을 담당했다. 1953년 당시 정릉제1동회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61]

연 도	동 명	주 거	가 구	인 구
1953	정릉제1동	596	596	3,005

1955년 4월 18일(市條例 제66호)에 정해진 정릉제1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은 정릉동 중 정릉천 支流 小河川을 경계로 하는 서남방의 지역으로 했다. 이어서 1970년 5월 18일(市條例 제613호)에 정릉동이 4개 洞事務所로 나뉘어질 때 정릉제1동은 정릉동 중 아리랑 고갯길 동측지역과 숭덕국민학교 동측도로 以東 지역으로 정해져 현재에 이르렀다.

이 洞 남서쪽으로는 「아리랑고갯길」이 지나고 동서로는 貞陵川을 복개해서 확장된 「정릉길」(북악터널~길음교~월암교)이 있어서 북악터널을 지나 세검정으로 통한다.

1990년 현재 정릉제1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 도	면적(km^2)	가 구	인 구	통 수	반 수
1990	0.49	6,152	21,680	31	270

※資料 : 內務部『地方行政區域要覽』, 1990, p.67.

〈貞陵 第2洞〉

貞陵 第2洞은 「정릉길」 남쪽과 북쪽의 숭덕국민학교 뒷쪽 일대의 貞陵洞의 행

61) 서울市『市勢一覽』, 1948, p.64.


정능2동사무소

정을 담당하는 洞長管轄區域 명칭이다.

정릉 제2동은 제1동과 같이 1949년 8월 13일에 서울市에 편입된 후 설치되었는데 1953년 당시 정릉 제2동회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62]

연 도	동 명	주 거	가 구	인 구
1953	정릉제2동	272	272	1,285

이어서 1955년 4월 18일(市條例 제66호)에는 정릉 제2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을 정릉동 중의 정릉 제1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으로 정해졌다. 또한 1970년 5월 18일(市條例 제613호)에 정릉동 지역은 종전의 정릉 제1동, 제2동에서 제3동, 제4동으로 증설되어 4개의 동사무소가 설치될 때 정릉 제2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은 숭덕국민학교 동쪽 길을 북상, 227번지를 경유 410번지 地籍線을 따라 城底 5里 경계비 및 404 앞 도로를 경유 貞陵川을 남하, 배밭골로 향하는 하천을 따라 650 앞 溝渠에서 山 87의 3 地籍線과 일직선을 連하는 지역과 「아리랑고갯길」 以西地域으로 정해져 오늘에 이르렀다.

이 洞의 동서로는 「정릉길」이 지나고 남북으로는 「輔國門길」(청수교~정릉4동~청수장)이 뚫려 「貞陵길」에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洞에는 貞陵이 위치하고 있어서 부근의 마을 이름을 능말이라고 칭한다.

1990년 현재 정릉 제2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 도	면적(km^2)	가 구	인 구	통 수	반 수
1990	1.25	5,921	21,525	33	253

※資料 : 內務部『地方行政區域要覽』, 1990, p.68.

62) 同 上.

〈貞陵 第3洞〉

貞陵 第3洞은 정릉동의 서쪽편, 즉「보국문길」서쪽 일대의 정릉동의 행정을 담당하는 洞長管轄區域 명칭이다.

정릉 제3동은 1970년 5월 18일(市條例 제613호)에 정릉 제1동, 제2동에서 分洞되어 설치되었다. 이 당시 정릉제3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은 정릉동 중 정릉천 이서지역으로 동남은 정릉 2동과 경계를 이루는 것으로 정해져 오늘에 이른다.

이 洞의 동서로는「정릉길」이 관통하고 있어서 양분되고 있는 형편이며「세검정길」과연결되는 北岳터널이 있다. 810m의 이 터널은 1971년 7월에 개설되었으나 최근 쌍굴이 개통됨으로써 4차선 도로의 병목현상이 사라졌다. 북한산 기슭에 위치한 까닭에 서북쪽은 크고 작은 산봉우리가 솟아 있고 능선사이의 깊은 계곡으로 맑은 물이 흐른다. 이에 따라 清水라는 마을이름이 유래되어 清水莊이 있고 부근에는 유원지가 개발되어 있다.

清水洞 맞은편에는 고려 때 귀양 온 孫氏가 많이 살았다해서 孫哥亭이 있으며, 洞口에 바위가 문설주처럼 서 있다 하여 바위를 문바위, 마을을 문바위굴(골), 배같이 생긴 모양의 바위가 있다 하여 배바위라 하고 이 바위가 있는 마을을 배바윗골(船岩洞)로 불러 오기도 한다. 또 옛날부터 소나무와 시냇물이 어울려 좋은 경치를 이룬 것을 사랑하여 찾아 노는 사람들이「松溪洞天」4글자를 바위에 새겨 전한데서 이름을 얻은 松溪洞이 있다.

이 洞에는 교육기관이 많아서 국민대학교(정릉동 861-1)를 위시하여 고려대학교 병설 전문대학, 고려중고등학교, 북악중학교, 청덕국민학교가 자리잡고 있다. 국민대학교는 1946년 3월, 申翼熙先生을 초대 학장으로 모시고 출발한 사립 종합대학교이다. 이 학교 내에는 지방민속자료 제7호인 韓圭卨大監家가 있다.

정릉 제3동이 分洞될 당시의 1970년과 1990년 현재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 도	면적(km^2)	가 구	인 구	통 수	반 수
1970	4.12	4,063	20,859	22	162
1990	3.58	6,501	24,246	31	256

※資料：內務部『地方行政區域要覽』, 1990, p.69.

〈貞陵 第4洞〉

貞陵 第4洞은 정릉동의 북쪽지역, 즉「보국문길」북쪽 일대의 정릉동의 행정을 담당하는 洞長管轄區域 명칭이다.

앞의 정릉 제3동과 같이 1970년 5월 18일(市條例 제613호)에 정릉 제1동, 제2동에서 分洞되어 설치되었다. 이 당시 정릉 제4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은 정릉 제1, 2, 3동을 제외한 지역이었다.

이 洞의「輔國門길」은 北漢山으로 오르는 등산로이고「보국문길」이 끝나는 곳에는 淸水莊과 유원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봄, 가을이면 등산객들이 줄을 이으며 여름철이면 피서나 淸遊를 위해 찾아드는 人波가 계곡을 가득 메운다.

또 淸水洞 위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등산로가 북한산성의 大成門, 輔國門을 지나 북한산 정상인 白雲臺까지 이어지는데, 보국문을 넘어서면 동북쪽으로 露積峰, 萬景臺, 白雲臺, 仁壽峰 등 북한산의 웅장하고 기묘한 봉우리들을 한 눈에 바라 볼 수 있다.

북한산은 峰巒, 계곡이 수려하여 風光으로도 유명하지만, 주위 20여리에 달하는 石城이 있어 더욱 널리 알려졌다. 大一파출소 입구에는 문설주처럼 서 있어 문바위로 불리어진 큰 바위가 있어서 그 안쪽에 있는 마을을「문바위굴(골)」로도 불러왔는데 이 곳 주민들은 오랜 옛날부터 이 바위를 다치거나 깨면 큰 재앙을 받는다고 하여 감히 건드리지 못하였으며, 또 바위의 魂을 달랜다고 하여 해마다 음력 10월 초가 되면 洞民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며 神靈視하여 왔다. 그러나 1972년 5월에는 주민들이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도로를 크게 넓히면서, 마을입구를 막은 이 문바위를 깨고 길을 넓혔기 때문에 지금은 문바위의 밑부분만이 남아서 옛날 일을 회상하게 한다.[63]

이 洞의 관내에는 야간대학으로 유명한 서경대학(전일 국제대학, 정릉동 16-1) 외에 大一外國語高等學校, 大一高等學校, 정릉여자상업고등학교, 은주중학교, 정릉국민학교 등교육기관이 자리잡고 있으며 북쪽 山麓에는 많은 사찰이 세워져 있고 정릉4동시장, 청수시장 등이 있다.

63)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洞名沿革攷』Ⅷ (城北區篇), 1983, pp.133～134.

이 洞이 分洞될 당시와 1990년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 도	면적(km²)	가 구	인 구	통 수	반 수
1970	3.47	5,159	25,581	18	180
1990	3.18	6,604	26,113	35	330

※資料：內務部『地方行政區域要覽』, 1990, p.70.

吉 音 洞

「三陽路」 좌우편에 위치한 吉音洞의 洞名은 貞陵川의 골짜기가 길게 놓여져 있으므로 기리묵골이라 하던 것을 한자음으로 고쳐 쓴 것이다. 그리고 이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가 맑고 고와서 기분이 맑아지므로 좋은 노래소리가 들리는 동네라는 뜻에서 吉音洞이라 하였다는 것이다.[64]

길음동은 조선초부터 漢城府에 속하였으며 高宗 4년(1867)에 편찬된 『六典條例』에 의하면 漢城府 東部 崇信坊(城外) 彌阿里契에 속하였다. 甲午改革 때에는 漢城府 東署 崇信坊(城外) 東小門外契 彌阿里로 칭하였다. 한일합방 후 日帝는 1911년 4월 1일(京畿道令 제3호) 京畿道 京城府 崇信面 彌阿里로 칭하다가 1914년 4월 1일(京畿道令 제1호) 경기도에 속하여 高陽郡 崇仁面 彌阿里가 되었다.

광복 후 1949년 8월 13일(大統領令 제159호) 서울市 확장으로 편입되어 城北區 彌阿里로 불리우다가 1950년 3월 15일(市條例 제10호) 彌阿洞으로 개칭되었으며 崇仁出張所에서 행정을 담당했다. 그 후 1959년 10월 31일(市條例 제165호)에는 前 미아제1동 지역을 吉音洞으로 하였다. 이 때 吉音洞은 미아동 533-1번지의 落合橋와 정릉천이 합류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하여 同 567-1에 이르는 西部와, 同 지점으로부터 同 559-2번지를 경유하여 山 66번지에 이르



길음동 전경

64) 上揭書, p.137.

는 細道路 이남의 지역을 경계로 한 도로 동북방 및 미아동 落合橋로부터 同 531 번지의 구릉 이서지역의 전 미아1동 지역으로 정했다. 그리고 1975년 10월 1일(市條例 제979호)에 도봉구 미아동 일부가 길음동으로 편입되었다.

이 洞은 산으로 둘러싸인 盆地形이므로 大氣 오염도가 높은 편이고[65] 「三陽路」(길음제1동~삼양시장~한신국교) 동쪽지역은 미아리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1957년 12월 8일 이후 고양군 벽제리로 이장하고 이 곳에 宅地를 조성해서 판자집 철거민을 이주시키는 한편 일반에게도 분양하였다.[66]

현재 길음동의 행정은 吉音 第1洞, 第2洞, 第3洞에서 담당하고 있다.

〈吉音 第1洞〉

吉音 第1洞은 吉音洞의 남쪽, 즉 「정릉길」과 「미아로」, 「삼양로」를 끼고 있는 洞長管轄區域 명칭이다.

길음제1동은 1949년 8월 13일 서울市에 편입된 후 彌阿 第1洞이라 칭하였다. 1953년 당시 미아제1동회의 현황을 『市勢一覽』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 도	동 명	주 거	가 구	인 구
1953	미아제1동	482	614	3,063


길음1동사무소

그리고 1955년 4월 18일(市條例 제66호) 「洞制」 실시때 미아 제1동의 관할구역은 미아동 간선도로 이북 및 미아동 559로부터 573에 이르는 도로 서남방의 지역으로 정했다. 이어서 1959년 10월 31일(市條例 제165호) 미아 제1동사무소를 吉音洞事務所로 개칭하고, 1970년 5월 18일(市條例 제

65)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前揭書, p.140.

66) 서울特別市 『서울의 街路名 沿革』, 1986, p.226.

613호) 미아동 지역을 미아 제1동에서 미아 제10동으로 정할때 다시 미아 제1동으로 칭하였다. 다시 1975년 10월 1일(市條例 제981호) 미아 제1동을 吉音洞으로 바꾸고, 1977년 9월 1일(市條例 제1185호) 吉音洞事務所를 吉音 第1洞事務所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길음제1동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위치하고 3개 도로를 끼고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며 길음시장이 있는 관계로 상업이 발달된 번화가를 이루고 있다.

1975년 이후 길음제1동의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 도	면적(km²)	가 구	인 구	통 수	반 수	비 고
1975	0.37	3,599	18,319	26	136	길음동사무소
1990	0.29	4,470	15,600	28	234	길음제1동사무소

※資料：內務部『地方行政區域要覽』, 1990, p.70.

〈吉音 제2洞〉

吉音 第2洞은 吉音洞의 서쪽, 즉「삼양로」변의 미아국민학교 서쪽 일대 지역의 洞長管轄區域 명칭이다.

길음제2동은 1949년 8월 13일 서울市에 편입된 후 彌阿第2洞이라 칭하였다. 1953년 당시 미아제2동회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 도	동 명	주 거	가 구	인 구
1953	미아제2동	1,361	685	3,245

그 뒤 1955년 4월 18일(市條例 제66호)「洞制」실시 때 미아제2동의 관할구역은 미아동 중 제1동 경계도로 동북방 및 미아동 落合橋로부터 同 531번지 丘稜 以西의 지역으로 정했다. 이어서 1959년 10월 31일(市條例 제165호)에는 미아 제2동사무소를 仁壽洞事務所로 개칭했다. 仁壽洞이란 洞名은 북한산의 仁壽峰에서 이름을 붙였다고 하고, 지금의 길음시장이 있는 골목에서 吉音2洞으로 올라가는 길이 원래는 仁壽川이 흐르고 있었으므로 이 개울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고 한다. 인수천은 큰 돌산이라 불리우고 있는 이 마을 뒷산의 국도채석장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개천으로 정릉천과 합류되나 지금은 복개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1977년 9월 1일(市條例 제1185호) 仁壽洞은 吉音 第2洞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

른다.

길음제2동은 주택가로서 도심의 철거민들이 정착한 곳으로 이 洞의 큰 돌산은 採石場으로 사용되었다. 이 산 아래에는 앵두나무 과수원이 있었기 때문에 근처의 마을을 앵두나무골 또는 한자로 舍桃里라고도 부른다. 앵두나무골에는 앵두물 혹은 두꺼비우물이라 불리우는 우물이 있었다. 이 물은 앵두나무 뿌리가 빨아들인 물이 고여서 물 맛이 달아 마치 앵두로 빚은 술을 먹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멀리 시내에서 온 사람도 이 물을 떠 마셨다고 한다. 또 水量이 워낙 풍부하였으므로 도심의 철거민들이 집단이주되어 왔어도 식수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점차 수질이 변해 사용하지 못하다가 매립되어 주택이 들어섰다.[67]

이 洞의 교육기관으로는 미아국민학교와 길음국민학교가 있다.

1970년 이후 길음제2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　도	면적(km²)	가　구	인　구	통　수	반　수	비　고
1970	0.47	5,879	29,475	17	171	미아제2동사무소
1975	0.47	5,577	28,539	37	184	인수동사무소
1990	0.45	7,074	27,568	40	291	길음제2동사무소

※資料：內務部『地方行政區域要覽』, 1990, p.70.

〈吉音 第3洞〉

吉音 第3洞은 「삼양로」와 「미아로」를 끼고 있는 吉音洞 동쪽 지역의 洞長管轄 區域 명칭이다.

길음제3동은 1949년 8월 13일 서울市에 편입된 후 앞의 길음제2동과 같이 미아제2동회라고 칭하였다. 그 뒤 1955년 4월 18일(市條例 제66호) 「洞制」 실시 때 미아제3동이라 하였는데 이 때 관할구역은 미아동 중 미아제1, 제2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이었다. 이어서 1959년 10월 31일(市條例 제165호)에는 미아제3동사무소를 松泉洞, 三陽洞事務所로 개칭할 때 송천동사무소라고 했는데 그 관할구역은 미아제3동중에서 落合橋로부터 議政府에 이르는 국도 중에서 彌阿橋를 중심으로 하여, 동은 미아동 산 29번지에 이르는 小道路 이남지역과, 서로는 佛堂谷에 이르는 하천을 연한 同 638번지에서 산 75번지의 능선을 따라 仙皇堂 고개에 이르는 도로

67)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前揭書, p.141.

를 기점으로 한 이남지역이었다.

松泉洞이란 명칭은 길음동 911번지 일대의 큰 소나무 아래에 약수터가 있기 때문에 제정된 것이다.[68] 1977년 9월 1일(市條例 제1185호) 송천동사무소는 吉音 第3洞事務所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길음 제3동지역은 주택가이지만 1958년 이전까지는 미아리 공동묘지로서 사용되었으나 도심지의 철거민들이 집단이주한 관계로 인구밀집지역이다.

길음제3동의 「미아로」 변은 상가를 이루고 지하철 4호선 길음역과 미아삼거리역이 양쪽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며, 「미아로」와 「월계로」, 「종암로」가 접하는 이른바 미아삼거리는 교통의 요지이고 번화가이다.

이 洞에는 성북등기소 외에 신세계백화점 미아점이 최근 개점하였다.

1970년 이후 길음 제3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 도	면적(km²)	가 구	인 구	통 수	반 수	비 고
1970	0.62	6,600	33,972	19	186	미아제3동사무소
1975	0.42	5,154	25,043	31	158	송천동사무소
1990	0.44	6,354	22,902	31	258	길음제3동사무소

※資料 : 內務部『地方行政區域要覽』, 1990, p.72.

〈鍾岩路〉

「鍾岩路」를 끼고 있는 鍾岩洞은 고려대학교 구내에 鍾 또는 북(鼓)처럼 생긴 큰 바위가 있었기 때문에 마을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었다.[69]

종암동은 조선초부터 漢城府에 속했는데 조선말 高宗 4년(1867)에 발간된『육전조례』에 의하면 漢城府 東部 崇信坊(城外) 鍾岩洞契로 되었고, 甲午改革 때에는 漢城府 東署仁昌坊(城外) 東門外契 大鍾岩, 小鍾岩으로 칭하였다.

그러나 한일합방 후 日帝는 1911년 4월 1일(京畿道令 제3호) 京城府 崇信面 大鍾岩, 小鍾岩으로 개편하더니 다시 1914년 4월 1일 京畿道 崇仁面 鍾岩里로 하였다. 이어서 1936년 4월 1일(總督府令 제8호) 경성부 확장으로 편입되어 京城府 鍾岩町으로 개칭되었고 1943년 6월 1일 區制 실시 때 東大門區에 속하게 되었다.

68) 한글학회 前揭書, p.135.

69) 註) 43과 同一.

광복 후 1946년 10월 1일 鍾岩町이란 이름 대신 鍾岩洞으로 바뀌었고 다시 1949년 8월 15일 城北區의 신설로 성북구에 속해 현재에 이르렀다. 1978년 10월 10일(市條例 제1286호)에 종암동 일부가 50m도로를 경계로 하월곡동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이 洞은 축소되었다.

종암동의 서쪽지역(종암제1동 지역)은 日出峰과 채석장으로 사용한 陳石山이 있고 그밑에 주택가를 이루고 있다. 이 산은 광복 전까지 나무가 울창했으나 광복 후 越南民들이 정착하면서 벌목하고 6·25동란 때 전투로 나무가 타버려 민둥산이 되었다. 陳石山은 陳氏가 이 산을 소유하여 이름이 붙여졌는데 1960년경까지도 石質이 좋아 고급주택을 지을 때 이 돌을 사용하였고 국립박물관을 건축할 때도 일부 사용되었다.

북바위 밑의 밭은 鼓岩田으로서 기름져서 소출이 많이 나기로 유명한데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뒤편 아랫쪽의 주택가에 해당된다. 이 땅은 조선초 朴訔에게 하사된 토지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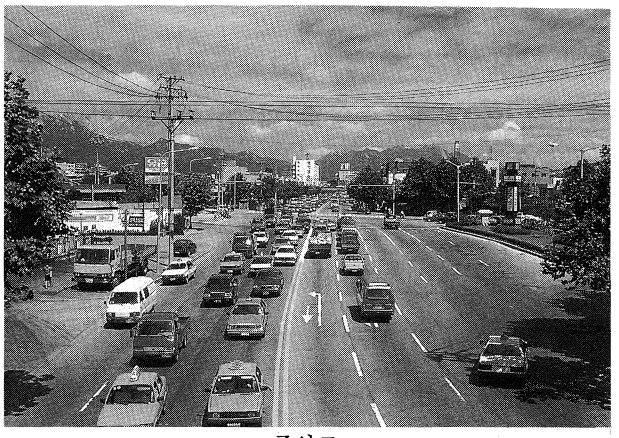
하루는 太宗이 私服 차림으로 옛 친구이자 대신인 박은의 집을 찾아갔는데, 마침 조밥식사를 하다가 재채기가 나서 곧 나와서 손님을 맞이하지 못하였다. 태종이 오랫동안 문 밖에 서 있다가 주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니 자연 안색이 좋지 않았다. 주인인 박은이 송구스러워 하며 사실을 말하니 태종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경이 재상의 지위에 있으면서 조밥을 먹는다니 말이 되느냐?」고 하며 사람을 시켜 안으로 들어가서 알아보게 하였는데 과연 사실이었다. 이에 태종은 감탄하며 특별히 명하여 동대문 밖의 鼓岩田 몇 마지기를 주게 하였다는 것이다.[70]

또 북바위 전답은 농부의 자격을 결정하는 의미로도 쓰여 「북바위 전답을 아느냐?」고 물어서 대답을 못하면 「농군으로서 그것도 모르는 것을 보니 가짜 농군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여 동리에서 쫓겨났다고 전해온다.

한편 설렁탕의 유래가 북바위 전답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도 하는데 국왕이 親耕을 하기 위해 직접 행차하여 농부에게 「북바위 전답을 아느냐」고 물어서 안다고 하면 「진정 그대는 농부이구나」라고 흡족해 하며 곧 북바위 아래에서 잡은 소로 끓인 설렁탕을 수행한 대신은 물론 인근 마을의 주민들에게까지 주도록 했다

70) 『東國輿地勝備考』 卷2 田野條.

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종암로

북바위 밑은 근처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 모두 이곳에 피신해 있다가 날이 개인 후에 다시 일을 계속 하는데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소나 돼지를 잡아서 북바위에 제사를 드렸다. 만약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물난리를 당한다는 말이 전해져 왔기 때문이다.[71]

또한 李東亮이 지은 『寄齋雜記』에 보면 조선초의 韓繼禧는 한명회의 재종형으로 청렴해서 조석으로 나물밥을 먹을 정도로 빈한했다. 어느날 한명회의 집에서 門中會를 열었을 때 그를 모두 도와줄 수 없느냐고 말하자 한명회가 「이것은 나의 책임이다」하고 종이와 먹과 붓을 가지고 오게 해서 책을 만들어서 일족들의 이름을 쓰고 한 門中이 구조하지 못한 실책을 쓴 뒤에 鍾岩 밑의 벼논 10石지기를 준다고 썼다. 이에 모였던 老少가 일어나 춤을 추고 술에 취해 돌아갔다[72]고 하였다.

현재 종암동은 종암 제1동과 종암 제2동사무소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鍾岩 第1洞〉

鍾岩 第1洞은 「鍾岩路」(종암동3거리~월곡동~미아3거리) 동쪽 일대 鍾岩洞 지역의 洞長管轄區域 명칭이다.

종암 제1동은 1936년 4월 1일 京城府에 편입된 후 鍾岩町會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광복 후 1946년 10월 1일 鍾岩洞會로 바뀌었다. 1955년 4월 18일부터는 鍾岩洞事務所로 칭하게 되었는데 1970년 5월 18일(市條例 제613호) 「동장정원 및 명칭과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鍾岩洞은 鍾岩1洞과 鍾岩2洞으로 분동되

71)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前揭書, pp.146~147.
72) 『漢京識略』 卷2 各洞條.

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 당시 종암 제1동의 관할구역은 종암동 중 「古山路」 以西의 지역으로 정했다. 「古山路」는 현재 「종암로」의 전 가로명이다.

이 洞의 옛이름은 안말로서 慶州金氏와 鄭氏의 集姓村落이었는데 사이가 좋지 않아 전일에는 서로 通婚조차 하지 않았다.[73] 안말은 숭례국민학교 앞쪽을 큰 해창, 뒤쪽은 작은 해창이라고 칭했는데 해창이란 명칭은 조선 중기의 顯宗의 세째 딸인 明安公主와 남편인 海昌尉 吳泰周의 묘가 있었기 때문이다.[74]

종암 제1, 2동을 나누는 「종암로」는 말행길, 또는 큰 길이라고 했다. 옛날에 의정부 방면에서 서울로 들어오려면 미아3거리에서 길음교를 건너 미아리고개를 넘어 혜화문을 통해야 하거나 다른 하나는 미아3거리에서 「종암로」를 지나 마장동을 거쳐 동대문을 통해 도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미아로」는 좁고 고개가 높아 도보로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종암로」는 말을 이용하거나 달구지 등이 다닐 수 있어서 말행길이라고 했지만 貞陵川이 범람하면 물에 잠겨서 강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 하여 水路라고도 칭했다.

이 洞 관내에는 종암경찰서와 성북소방서가 위치하고 교육기관으로는 종암여자중학교와 숭례국민학교가 있다.

광복 당시부터 1990년까지의 종암 제1동의 현황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연　도	면적(km^2)	가　구	인　구	통　수	반　수	비　고
1947	−	1,278	7,112	−	−	종암동회
1970	0.86	4,550	22,763	15	162	종암제1동사무소
1990	0.86	7,060	26,068	38	298	〃

※資料 : 서울特別市 『市勢一覽』, 1948, p.22.
內務部 『地方行政區域要覽』, 1990, p.73.

〈鍾岩 第2洞〉

鍾岩 第2洞은 「鍾岩路」 서쪽 鍾岩洞 지역의 洞長管轄區域 명칭이다.

종암 제2동은 1955년까지는 앞의 제1동과 같으므로 중복을 피하고 1970년 5월

73)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前揭書, p.147.
74) 한글학회 前揭書, p.128.

18일(市條例 제613호)에 鍾岩洞事務所가 鍾岩 第1, 第2洞事務所로 分洞되면서 설치되었다. 이 당시 종암 제2동의 관할구역은 종암동 중「古山路」以東의 지역으로 정해졌다.

종암 제2동은 전에 모랫말이라고 칭했다. 그 이유는 月谷洞과 경계가 되는 貞陵川의 물이 맑아 빨래터로 사용되었는데 상류쪽에서 내려온 모래가 쌓여 정릉천 주변은 언제나 모래밭으로 변해 모랫말 혹은 모랫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곳의 모래는 良質의 모래여서 下水溝管이나 전봇대 등을 만들었다. 현재 종암제1동의 종암여자중학교 자리에는 中央産業이 건축자재 등을 생산하였다.

이 洞에는 서울師大부속중·고등학교(종암동 19번지)가 자리하고 있는데 전일의 이 곳에는 서울大學校 商科大學이 위치하고 있다가 신림동으로 옮겼다. 그리고 공공기관으로는 종암우체국과 국민은행 직원합숙소, 고려시장 등이 있다.

참고로 1970년, 1990년의 종암제2동의 현황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연 도	면적(km^2)	가 구	인 구	통 수	반 수
1970	0.7	6,045	29,558	23	203
1990	0.6	6,083	23.412	31	271

※資料：內務部『地方行政區域要覽』, 1990, p.75.

下月谷洞

경희대학교 뒷산인 天藏山 서쪽의「장위동길」과「미아로」, 貞陵川을 끼고 있는 下月谷洞은 천장산의 모습이 마치 반달처럼 생겼기 때문에 月谷이란 이름을 붙였다는 說과, 다른 하나는 조선 후기 미아삼거리에는 신근솔이라는 솔밭이 많아 풍치가 수려했기 때문에 당시 이곳에 酒幕이 밀집하여 지방에서 소를 몰고 서울로 들어올 때에는 신근솔에서 숙박을 하고 소를 매어 놓았다가 장위동 路邊 屠殺場에서 소를 팔고 돌아가거나 소장사들이 달밤에 도착하여 殘月 아침에 흥정했기 때문에 月谷이라는 동명이 생겼다고 한다. 전자는 風水地形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고, 후자는 人工 즉 생활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다.[75]

하월곡동은 조선 초에 漢城府에 속하였는데 英祖 27년(1751)에 刊行된『守城

75)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前揭書, p.154.


월곡동 삼거리

册全』 중의 『都城三軍分界總錄』에 東部 仁昌坊 彌阿里契 내에 소속되어 다릿굴 또는 橋谷이라 부르기도 했다. 그 뒤 甲午改革(1894) 때에는 漢城府 東署 仁昌坊(城外) 東小門外契의 月谷下里로 되어 있다.

韓日合邦이 강행된 이듬해인 1911년 4월 1일(京畿道令 제3호)에는 月谷里를 京城府 仁昌面에 소속시켰다가 1914년 4월 1일(京畿道令 제1호) 京畿道 高陽郡 崇仁面에 편입시키고 종전의 月谷上里,月谷下里를 병합하여 月谷里로 하였다.

광복 후 1949년 8월 13일(大統領令 제159호) 서울市에 편입되면서 城北區에 속하게 될 때 上, 下月谷里로 분리되어 下月谷里로 칭하다가 1950년 3월 15일(市條例 제10호) 下月谷洞으로 개칭했으며 崇仁出張所에서 행정을 담당했다. 1975년 10월 1일(市條例 제981호)에 하월곡동의 일부를 도봉구 미아제4동에 편입시켰고, 1978년 10월 10일(市條例제1286호) 50m 도로를 경계로 종암동 일부가 하월곡동에 편입되었다.

이 洞의 史蹟으로는 애기릉터와 貴人墓터가 있다. 애기릉은 조선말 高宗의 장남 完王의 묘터로서 長子墓址라고 칭하는데 전에는 松林이 우거지고 風致가 뛰어났다. 고종 5년(1868)에 貴人 李氏에서 태어난 그는 完和君으로 봉해졌다가 고종 17년(1880)에 12세로 세상을 떠나자 현재 천장산 아래 동덕여자대학교 자리에 묘소를 만들었다. 完王은 閔妃의 질투로 毒殺되었다는 說이 있다. 長子墓는 西五陵으로 이장했다.[76]

한편 貴人墓터는 高宗의 후궁이며 完王의 생모인 貴人 李氏와 역시 후궁인 內安堂 貴人 李氏, 福寧堂 貴人 梁氏의 묘소 터로서 애기릉터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

76)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서울六百年史』(文化史蹟篇), 1987, p.807.

으나 西三陵내의 귀인, 숙의묘역에 이장되었다.[77]

이 洞은 조선 시대에는 산비탈에 띄엄띄엄 人家가 몇가구씩 있었으며 당시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었다. 특히 정릉천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맑고 깨끗하여 인근 마을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으며 물이 맑았기 때문에 콩나물 재배를 주로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960년 이후부터 농업은 사라지고 이 정릉천변에는 염색공장, 피혁공장들이 물을 따라 들어서므로서 오염되기 시작했다.[78] 현재는 도로변에 群小商街가 들어섰고 그 밖의 지역은 주택이 밀집해 있다.

그리고 동덕여자대학교 입구에는 大韓佛教 眞覺宗 統理院(하월곡동 22번지)이 1966년 1월 17일부터 이곳에 자리잡고 있다. 진각종은 1947년에 孫珪祥이 경상북도 달성군 성서면 농림촌에서 創教한 佛教 중의 한 宗派로서 秘密佛教 즉 密教로 불리운다. 밀교는 신라 선덕여왕 때 明郎法師가 四天王寺를 짓고 처음 개창한 불교 종파로서 비로자나불을 教主로 삼고 三密修行을 주로 한다.

하월곡동의 행정은 월곡 제1동, 제2동, 제3동, 제4동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月谷 第1洞〉

月谷 第1洞은 下月谷洞 중의 서쪽지역, 즉 미아사거리 부근 일대의 행정을 담당하는 洞長管轄區域 명칭이다.

하월곡 제1동은 1949년 8월 13일 서울市에 편입된 후 月谷洞會라고 하여 下月谷洞과 上月谷洞의 행정을 담당하였다.[79] 그 뒤 인구증가로 1970년 5월 18일(市條例 제613호)에 月谷洞事務所는 下月谷 第1洞, 第2洞과 上月谷洞事務所 등의 3개로 나뉘었다.

이 당시 하월곡 제1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은 하월곡동 중 장월교를 북상하여 62번지 앞도로를 따라 하월곡동 山 2번지와 경계가 되는 도로 以西 지역으로 정했다. 이어서 1973년 7월 1일(市條例 제748호)에 下月谷 第3洞事務所가 신설되었으며 1975년 10월 1일(市條例 제981호) 下月谷 第3洞에서 第4洞이 分洞되었다. 그리고

77) 上揭書, p.875.
78)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洞名沿革攷』Ⅷ (城北區篇), 1983, pp.157~158.
79) 서울市『市勢一覽』, 1948, p.64.

1988년 1월 1일(市條例 제2251호) 행정동 명칭에 따라 下月谷 第1洞이 月谷 第1洞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이 洞 관내는 「미아로」, 「정릉길」, 「종암로」 외에 「정릉길」과 「월계로」를 잇는 도로가 뚫려있어 교통의 요지이므로 商街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洞은 종암제2동과 같이 예전에 모래마을, 또는 모랫말, 바닥마을이라고 칭했다. 이것은 정릉천에서 내려오는 모래가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 모래마을이라고도 불렀다. 또 사방이 산능선으로 둘러쌓였고 그 바닥에 평지를 이루었으므로 바닥마을이라고도 불렀다. 이 마을은 정릉천의 흐르는 물이 맑았기 때문에 콩나물공장의 주산지로도 유명하였다. 그 뒤 콩나물공장 대신 염색, 피혁공장이 들어서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거의 논밭으로 농업이 주가 되었으므로 주택은 미아리공동묘지 근처에서부터 이 마을에 이르기까지 약 100호가 채 되지 않았다고 한다.[80] 현재 숭곡국민학교 동쪽에는 다릿굴내(月谷川)이 흘렀는데 복개되어 도로가 되었다.

이 洞 관내의 공공기관으로 성북전화국 월곡분국, 성북우체국, 성가병원 외에 서울北工業高等學校, 숭인국민학교, 숭곡국민학교 등 교육기관과 월곡시장, 미아시장이 있으며 정릉천 복개한 곳에 북부 견인이동차량보관소가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미아시장 뒤 편의 정릉천 변에는 美姬를 둔 많은 酒店이 들어서 있어 속칭 텍사스촌이라고 부른다.

1970년부터 1990년까지 하월곡 제1동의 현황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연 도	면적(km^2)	가 구	인 구	통 수	반 수	비 고
1970	0.53	3,811	20,058	13	122	하월곡제1동사무소
1973	0.53	4,096	20,696	—	—	〃
1990	0.57	5,307	19,543	30	240	월곡제1동사무소

※資料 : 內務部『地方行政區域要覽』, 1990, p.75.

〈月谷 第2洞〉

月谷 第2洞은 월곡동 중의 남쪽, 정릉천 동쪽 일대의 행정을 담당하는 洞長管轄區域 명칭이다.

80)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洞名沿革攷』Ⅷ (城北區篇), 1983 p.156.

이 洞은 앞의 월곡 제1동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月谷洞會라 칭하다가 1970년 5월 18일(市條例 제613호)에 下月谷 第2洞이 설치되었다. 이 당시 하월곡 제2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은 하월곡동 중 하월곡 제1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정했다.

이어서 1973년 7월 1일(市條例 제784호)에 이 洞에서 下月谷 第3洞이 分洞되었다. 당시의 관할구역은 하월곡동 중 同德女大 북쪽 지적선과 溝渠를 연하고 57번지 앞 小路를 따라 北上, 하월곡 제1동장 관할구역과 접한 以南 지역으로 정했다.

이어서 1988년 1월 1일(市條例 제2251호) 행정동 명칭변경에 따라 下月谷 第2洞이 月谷 第2洞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 洞 관내에는 애기릉터와 貴人墓址가 있으며 애기릉터에는 同德女子大學校(하월곡동 23-1)가 위치하고 있다. 이 대학교는 대한제국말 국권이 日帝의 毒牙에 잠식당해 가자 春江 趙東植이 민족정신의 기초 위에 國運을 만회하려는 숭고한 목표 아래 1908년 同德女子義塾을 설립한 것이 현재 同德女大의 모체이다.

道義, 眞理, 和協을 學訓으로 하는 同德女大는 1950년 5월에 창설, 개교했으며 1952년에 4년제 단과대학으로 개편하여 종로구 관훈동 15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가 1967년 3월 18일 현재의 하월곡동에 이전하여 오늘에 이른다.[81]

이 洞에는 「花郎路」(하월곡동~화랑대역~태릉선수촌시계)가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관통함에 따라 양분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으로는 韓國科學技術研究院(KIST, 하월곡동 39-1), 국민은행 월곡지점, 강북성모병원, 한양성심병원이 자리하고 있으며 정릉천변에는 1963년부터 공장이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韓國科學技術院이 천장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大田市 구성동으로 이전해 갔으며 동덕여자대학교 서쪽에는 一洋藥品이 세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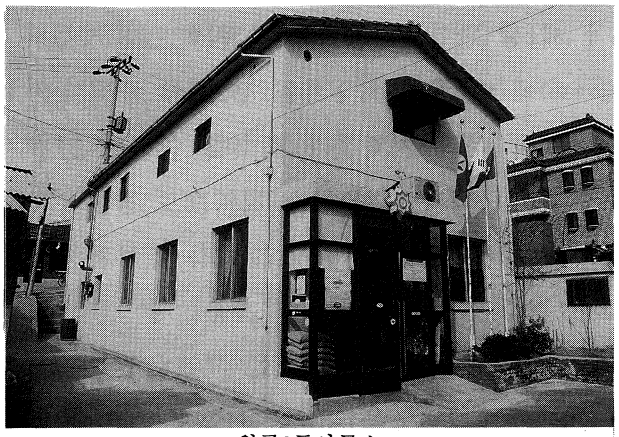
1970년부터 1990년까지 월곡제2동사무소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 도	면적(km²)	가 구	인 구	통 수	반 수	비 고
1970	1.18	10,189	47,257	28	260	하월곡제2동사무소
1973	0.78	3,266	16,315	—	—	〃
1990	0.85	4,209	16,902	26	170	월곡제2동사무소

※資料 : 內務部『地方行政區域要覽』, 1990, p.76.

81) 同德女子大學『同德女大 30年史』 참조.

〈月谷 第3洞〉



월곡3동사무소

月谷 第3洞은 월곡동의 북동쪽, 「月溪路」(미아삼거리～창문여중～하계동)변 일대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洞長管轄區域 명칭이다.

이 洞은 月谷洞會로 칭했다가 下月谷 第2洞事務所로 되었으나 1973년 7월 1일(市條例 제784호)에는 하월곡 제2동에서 分洞되어 下月谷 第3洞이 되었다. 그 후 1975년 10월 1일(市條例 제981호) 인구증가로 인하여 하월곡 제4동이 이 洞에서 분동되었다.

이 당시 하월곡 제3동의 인구는 37,495명이었는데 관할구역은 하월곡동 76의 1호 앞 복개도로를 따라 77의 1호를 경유, 계곡 도로를 동진, 산 2의 1계곡을 따라 동진, 상월곡동과 접하는 계곡 이남 지역으로 정했다. 이어서 1988년 1월 1일(市條例 제2251호) 행정동명칭변경에 따라 下月谷 第3洞은 月谷 第3洞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 洞과 월곡 제4동 지역은 대부분 산기슭으로 밤나무골 또는 밤골(栗谷)이라 불렀는데 그 이유는 이 계곡에 밤나무가 많은데서 붙여진 것이다.[82]

1973년부터 1990년까지 월곡 제3동사무소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　도	면적(km^2)	가　구	인　구	통　수	반　수	비　고
1973	0.4	7,220	37,495	－	－	하월곡제3동사무소
1975	0.2	3,465	18,294	28	137	〃
1990	0.18	3,538	15,449	28	157	월곡제3동사무소

※資料：內務部, 『地方行政區域要覽』, 1990, p.76.

〈月谷 第4洞〉

月谷 第4洞은 동덕여자대학교 뒤쪽, 즉 월곡제2동과 제3동 사이의 월곡동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洞長管轄區域 명칭이다.

82)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前揭書, p.156.

월곡 제4동의 연혁은 앞의 월곡제3동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月谷洞會, 下月谷第2洞, 下月谷 第3洞으로 호칭되다가 인구증가로 1975년 10월 1일(市條例 제981호) 하월곡 제3동에서 分洞되었고, 1988년 1월 1일(市條例 제2251호) 행정동 명칭변경에 따라 下月谷 第4洞은 月谷 第4洞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렀다.

이 당시 하월곡제4동은 하월곡동 중 하월곡 제1, 2, 3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게되었다. 이 洞은 월곡 제3동과 같이 전에 밤나무가 많아 밤나무골, 밤골(栗谷)이라고 칭했다.

1975년과 1990년의 월곡 제4동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연 도	면적(km^2)	가 구	인 구	통 수	반 수
1975	0.2	3,755	19,201	25	117
1990	0.22	3,493	14,504	25	154

※資料：內務部『地方行政區域要覽』, 1990, p.76.

上月谷洞

하월곡동 동쪽,「花郎路」양쪽에 위치한 上月谷洞은 천장산의 모습이 마치 반달과 같다하여 그 산에 連해 있는 마을을 다릿굴(골)이라 부르는데서 연유되었다. 이 중 높은 지대에 위치한 지역을 웃다릿골(上月谷里), 아래지역을 아랫다릿골(下月谷里)이라 불렀다.[83]

상월곡동은 朝鮮 英祖 때까지는 漢城府 東部 崇信坊의 城外地域으로 있었는데 高宗 4년(1867)에 발간된『六典條例』에 의하면 漢城府 東部 崇信坊(城外)의 月谷里契로 되어있다. 甲午改革 때에는 漢城府 東署 仁昌坊(城外) 東小門外契의 月谷上里로 되었는데 한일합방에 따라 日帝는 1911년 4월 1일(京畿道令 제3호) 京畿道 京城府 仁昌面 上月谷里로 하고, 이어서 1914년 4월 1일(京畿道令 제1호) 京畿道 高陽郡 崇仁面 月谷里로 하였다.

광복 후 1949년 8월 13일 서울市에 편입되면서 성북구가 신설될 때 이에 속하게 되고 동시에 月谷里는 上, 下月谷里로 분리되었다. 이에 따라 城北區 崇仁出張所에서 행정을 담당했는데 이듬해 1950년 3월 15일(市條例 제10호) 上月谷洞

83) 한글학회 前揭書, p.135.

으로 개칭했다. 그 후 1978년 10월 10일(市條例 제1286호) 50m 도로를 경계로 상월곡동 일부를 長位洞에 편입시켜 축소되었다.

이 洞은 경기도에 편입되어 있을 당시까지는 주민들은 농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서울市에 편입되면서 人口가 늘기 시작하여 농토가 주택지로 바뀌었고, 1960년 이후에는 도심지의 철거민들이 집단 이주하여 변모했다.

상월곡동은 동대문 밖을 나와서 城北驛을 거쳐 元山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옛날에는 아침 일찍 동대문을 나선 길손이 이 洞이 있는 곳에 이르면 대개 점심 때가 되므로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주는 주막이 많이 생겨났다. 경원선 철도가 부설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洞의 일대는 주막거리로서 옛 길손들의 애환을 그대로 담았던 곳이다.[84]

상월곡동의 행정은 현재 上月谷洞事務所에서 담당하고 있다.

〈上月谷洞〉

上月谷洞은 法定洞인 上月谷洞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洞長管轄區域 명칭이다.

이 洞은 1949년 8월 13일 서울市에 편입된 후 月谷洞會로 호칭되었다가 인구증가로 1970년 5월 18일(市條例 제613호)에 上月谷洞事務所를 분동하므로써 신설되었다. 그 후 1978년 10월 10일(市條例 제1286호)에 이 洞의 일부가 장위동으로 편입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이 洞에서 「화랑로」를 따라 장위동으로 가는 고개를 마른대미고개라고 칭했는데 그 이유는 이 고개를 넘으면 평지가 되므로 고개가 바로 끝난다는 뜻으로 바로 대미고개라고 하던 것이 변음되어 이와 같이 불리어 졌다는 것이다. 이 고개 마루턱의 큰 소나무를 마을의 守護神인 성황당나무(일명 서낭나무)로 부르는데 이 나무에 아들을 낳도록 빌기도 했다고 전한다. 이 고개를 푸석산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소나무가 크고 사철 푸르기 때문에 산 전체가 푸르러 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85]

84)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前揭書, pp.152~153.
85) 上揭書, p.153.

다릿굴고개는 長位洞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하며 長位峴, 雨藏峴이라고도 칭했고, 또 밤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곳이라 해서 밤나무골 혹은 밤골(栗洞)이라고 부른다. 그 이웃에는 배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마을이라해서 배나무골, 배골(梨洞)이라는 마을의 이름이 붙여진 곳도 있으나 지금은 모두가 주택지화되어 배나무나 밤나무를 심었던 흔적은 찾을 수가 없다.

이 洞에는 月谷中學校, 月谷國民學校가 위치하고 있다.

1970년과 1990년의 상월곡동 현황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연 도	면적(km²)	가 구	인 구	통 수	반 수
1970	0.6	2,845	13,611	11	88
1990	0.49	3,421	13,064	22	146

※資料 : 內務部『地方行政區域要覽』, 1990, p.76.

長 位 洞

牛耳川의 서쪽과 서울 드림랜드 남쪽 일대의 위치한 長位洞은 朝鮮時代初에도 長位里라 불리어 온 것으로 보아 高麗朝 때 名臣이 이 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추측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마을 뒤에 獐位山이 있으므로 이 산의 이름을 따서 長位洞이 되었다는 추측을 하고 있다.[86]

長位洞은 조선초부터 漢城府에 속했는데 英祖 27년(1751)에 간행된『守成册全』중의「都城三軍門分界總錄」에 보면 漢城府 東部 仁昌坊(城外) 長位里契로 되었고 甲午改革 때는 漢城府 東署 仁昌坊(城外) 東小門外契의 長位里가 되었다. 그 후 한일합방에 따라 日帝는 1911년 4월 1일(京畿道令 제3호) 京城府 仁昌面 長位里로 칭했으며 이어서 1914년 4월 1일(京畿道令 제1호) 京畿道 高陽郡 崇仁面 長位里가 되었다.

광복 후 1949년 8월 13일(大統領令 제159호) 서울市에 편입되면서 城北區의 신설로 이에 속하고 崇仁出張所에서 행정을 담당하였다. 이듬해 1950년 3월 15일(市條例 제10호) 長位里는 장위동으로 개칭되었다. 그 뒤 1978년 10월 10일(市條例 제1286호)에 50m 도로를 경계로 석관동 일부(주민 2, 135명)가 이 洞에 편입, 확장되어 오

86) 上揭書, p.171,『新增 東國輿地勝覽』漢城府 建置 沿革條.

늘에 이르렀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長位洞 사람들 사이에는 「양주밥 먹고 고양굿 한다」는 말이 널리 유행되었는데 이 말은 농토는 楊州에 두었고 高陽에서 거주하므로 食生活은 楊州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는데서 생겼다. 이와 같이 朝鮮시대의 이 곳 주민들은 대부분 농민이었으며 벼농사와 조, 수수, 고추 등만 재배되어 특산물은 없었다고 한다. 당시 장위동의 농토는 대부분 尹判書(石村 尹容求)와 그 친척들의 땅이었는데 1960년경부터 尹氏家에서 매도하고 또 택지로 바뀌어 현재 주택이 밀집되었다.

현재 장위동에는 민속자료 제25호로 지정된 金鎭興家(장위동 76-59)가 있다. 이 집은 南寧齋로 불리는데 조선말 純祖의 駙馬인 南寧尉 尹宜善이 거처해서 南寧尉宮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건평 107평, 대지 759평의 이 주택은 高宗 2년(1865)에 지은 것으로 추정하는데 많은 부분이 개축, 개수되었다. 이 집은 尹宜善에 入養한 石村 尹容求(1853~1939)가 大臣을 내놓고 隱居했으므로 잘 알려져 있다.[87] 윤용구는 아호를 石村, 海觀이라 하고 獐位山人이라 했으므로 장위동을 藏位라고 썼다. 이것은 尹判書가 모든 벼슬을 거절하고 은거했다는 뜻으로서 상통하는 점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윤판서의 雅號가 獐位인 것, 즉 獐位라 쓴 것을 誤識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윤용구는 고종 8년(1871)에 直長으로 庭試文科에 丙科로 及第한 다음 檢閱을 지내고 여러 벼슬을 거쳐 禮曹, 兵曹判書를 역임한 다음 乙未改革(1895) 이후 法部, 度支部, 內部의 대신으로 10여회나 임명되었으나 모두 거절하고 獐位山 밑에 은거하였다. 글씨와 그림에 모두 뛰어났는데 특히 楷書와 行書 그리고 金石文을 많이 썼으며 竹蘭을 잘 그렸다. 韓日合邦 후에 日帝가 男


장위동 전경

87) 서울특별시『서울의 전통문화』제2권, 1986, pp.1012~1013.

爵을 수여했으나 거절하였다.[88]

그의 일화로는 南寧齋에 은거해 있을 때 현 장위동 91번지 장호다방 자리에 동구다리가 있었고 또 현 76번지에는 징검다리가 놓여 있었으며, 南寧齋 문밖에 큰 섬돌이 하나 있었는데 이 다리는 당시 관직의 고하에 따라 下馬하는 곳이었다고 한다. 또 長位洞 사람을 잡으러 왔을 경우나 죄인이 장위동으로 잠입했을 경우에도 尹判書의 허락없이는 체포할 수 없었다 한다.[89]

장위동은 1960년대에 구획정리가 되어 개발되면서 洋屋이 많이 들어선 주택가이지만 도로변은 商街가 형성되어 있고 土着住民이 많은 편이다.

현재 장위동은 長位 第1, 2, 3洞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長位 第1洞〉

長位 第1洞은 「月溪路」(미아삼거리~창문여중~하계동) 변에 위치한 장위동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洞長管轄區域 명칭이다.

이 洞은 1949년 8월 13일 서울市에 편입된 후에 洞會 名稱은 알 수 없으나 1953년 초에는 長位洞會로 호칭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90] 이 당시 長位洞會는 장위동과 석관동 일대를 관할하고 있었다. 그러나 1955년 4월 18일(市條例 제66호) 「洞制」 실시 때 長石洞事務所라고 개칭해서 행정을 담당했다.

그 뒤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서울特別市條例 제274호 「서울特別市 洞名稱 및 區域制定」으로 앞서 長石洞을 長位洞, 石串洞으로 분리시켰으며, 1970년 5월 18일(市條例 제613호) 長位洞을 1, 2동으로 분동했다. 1977년 9월 1일(市條例 제1181호) 인구 확장에 따라 종전의 1, 2洞에서 3洞으로 分洞, 현재에 이른다.

앞서 1970년 5월 18일 分洞될 때 장위제1동의 관할구역은 장위동 중 長位橋를 기점으로 123번지에서 212번지에 이르는 溝渠 이북지역과 236번지 및 237번지 앞 도로를 경유, 동방생명주택 조성지역(238번지 포함)을 옹하고 南下, 68번지 앞 도로에서 山 3의 북측 地籍線과 연결되는 西北 지역으로 정했다.

8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7, 1990, pp.300~301.
89)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前揭書, p.174.
90) 서울市 『市勢一覽』, 1948, p.64.

원래 장위동 지역은 웃말, 아랫말, 명덕굴, 간대마을, 활량리 등 5개의 자연 촌락이 합쳐진 것으로 장위제1동의 옛 영광중학교 자리(장곡국민학교 위치)에 명덕굴이 있었다. 명덕굴은 明德고을의 와전된 말로 주민의 말에 의하면 獐位山人 尹容求의 형이 이 곳에 살았고 또 그 윗대부터 이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91]

이 洞의 북쪽으로는 「月溪路」가 지나고, 동쪽으로는 「돌곶이길」이 지나며 이 두 길을 연결하는 「長位洞길」이 있으므로 교통이 원활하다. 현재 이 洞 관내에는 한국상업은행 장위동지점과 장위중학교, 장위국민학교 등의 공공기관이 자리하고 있다.

1970년부터 1990년까지 장위제1동의 현황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연　도	면적(km^2)	가　구	인　구	통　수	반　수	비　고
1970	0.62	3,199	16,757	12	123	장위제1동사무소
1975	0.62	5,270	27,553	27	195	〃
1990	0.72	6,717	25,179	31	301	〃

※資料 : 內務部『地方行政區域要覽』, 1990, p.77.

〈長位 第2洞〉

長位 第2洞은 「花郎路」 북쪽 일대 장위동 일부의 행정을 담당하는 洞長管轄區域 명칭이다.

이 洞은 앞의 장위제1동과 같이 1949년 8월 13일 서울市에 편입된 후 長位洞會로 호칭된 것으로 추정되며 1955년 4월 18일(市條例 제66호) 長石洞事務所로 되었다. 이어서 1963년 1월 1일(市條例 제274호) 長石洞이 長位洞事務所와 石串洞事務所 관할구역으로 나뉠 때 長位洞事務所에서 이 洞의 행정을 담당했다. 1970년 5월 18일(市條例 제613호) 長位洞事務所 관할구역을 長位 第1洞과 長位 第2洞으로 分洞함으로써 설치되었다.

그 뒤 1977년 9월 1일(市條例 제1181호) 15m 도로를 경계로 장위 제1동과 제2동 관할구역에서 장위 제3동을 分洞함으로써 축소되었다. 分洞되기 전의 장위제2동

91)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前揭書, p.173.

의 인구는 33,776명이었는데 第3洞으로 분동되면서 21,926명으로 줄어 들었다.


장위2동사무소

이 洞의 자연촌락 이름은 웃말과 활량리가 있었다. 웃말은 아마을 위에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윗마을이란 뜻이다. 현재 長位 3洞 일부와 2洞 일부로서 南寧齋가 있는 마을로 1930년경에는 약 80호의 民家가 살고 있었다 한다.[92] 또한 현재 장위제2동사무소 부근은 활량리로 칭했던 마을인데 활량리는 閑良里의 와전된 음으로 조선시대 이 마을에 술집이 많아 都城 한량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던데서 비롯된 이름이다.

이 洞의 남쪽으로는 「화랑로」가 지나고, 「돌곶이길」이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다.그리고이 洞 관내에는 장위동우체국, 석관동우체국, 중소기업은행 장위동지점, 국민은행 장위동지점 외에 장석국민학교, 상업은행 합숙소, 장위쇼핑 등이 자리하고 있다.

1970년부터 1990년까지 장위제2동사무소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연 도	면적(km²)	가 구	인 구	통 수	반 수	비 고
1970	1.03	4,579	22,843	19	212	장위제2동사무소
1975	1.03	5,672	29,679	42	208	〃
1990	0.82	7,846	28,516	41	287	〃

※資料 : 內務部『地方行政區域要覽』, 1990, p.78.

〈長位 第3洞〉

長位 第3洞은 牛耳川邊 장위동 일부의 행정을 담당하는 洞長管轄區域 명칭이다.

이 洞은 앞의 장위제1, 2동과 같이 1949년 8월 13일 서울市에 편입된 후에는 長位洞會, 1955년 4월 18일 이후 長石洞事務所, 1963년 1월 1일 다시 長位洞事務所, 1970년 5월 18일 長位 第1, 2洞事務所, 1977년 9월 1일(市條例 제1181호) 장위

92) 上揭書, p.172.

제 1, 2동의 인구가 25,000명 이상이 되므로 15m 도로를 경계로 分洞할 때 장위제 3동(인구 22,3654명)이 신설되어 현재에 이른 것이다.

이 洞 일부에는 웃말과 아랫말, 간대말이란 자연 촌락이 있었다. 웃말은 장위제2동과 이 洞에 걸쳐있던 마을로 이 지역 위에 있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아랫말은 이 지역 아래에 있다해서 붙여진 것으로 현재 長石市場이 위치한 마을이름이다. 간대말은 이 지역 가운데에 있다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현재 제일은행 장위동지점과 장위제3동사무소 일대가 해당된다.[93]

이 洞의 관내로는 「漢川路」(전농교~중랑교~석관동~도봉구청 입구)가 牛耳川과 나란히 지나고 있고 남쪽으로는 「花郎路」가 뚫려져 있는데다가 동쪽으로는 電鐵 石溪驛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그리고 이 洞에는 남대문중학교, 광운국민학교가 있으며 북부소방서, 제일은행 장위동지점, 장석시장 등이 자리하고 있다.

1990년 현재 장위 제3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 도	면적(km^2)	가 구	인 구	통 수	반 수
1990	0.31	5,837	22,293	27	218

※資料 : 內務部『地方行政區域要覽』, 1990, p.78.

石 串 洞

中浪川과 「花郎路」를 끼고 있는 石串洞은 마을 남서쪽의 天藏山의 支脈이 검정돌을 꽂아 놓은 즉, 수수팥떡이나 경단을 꽂이에 꿰어 놓은 것 같아 돌곶이마을이 되었다는 說[94]과 이곳 지형이 곶이로 되었으므로 돌곶이라 하였다[95]는 說이 있는데 돌곶이 이름을 한자로 표기해서 石串이라고 붙인 것이다.

石串洞은 앞의 長位洞과 같이 조선초부터 漢城府에 속했으며 英祖 27년(1751)에는 漢城府 東部 仁昌坊(城外) 長位里로 칭하다가 甲午改革 때에는 漢城府 東署 仁昌坊(城外) 東小門外契 石串里로 되었다.

그 후 한일합방에 따라 日帝가 1911년 4월 1일(京畿道令 제3호) 京城府 仁昌面 石串里로 칭하다가 1914년 4월 1일(京畿道令 제1호) 京畿道 高陽郡 崇仁面 石串里

93) 註) 91과 同一.
94) 上揭書, p.162.
95) 한글학회 前揭書, p.135.

로 되었다.

광복 후 1949년 8월 13일(大統領令 제159호) 서울市에 편입되면서 城北區의 신설로 이에 속하고 崇仁出張所에서 행정을 담당했다. 이듬해 1950년 3월 15일(市條例 제10호) 石串里는 石串洞으로 개칭되었다. 그 후 1975년 10월 1일(大統領令 제7816호)에 區, 洞의 관할구역 재편성이 있을 때 이문동 북쪽의 석관동 일부 지역(주민수 2,253명)이 동대문구 이문동에 편입되므로서 축소되었다.

조선시대 중기까지 이 洞의 원주민들은 天藏山 아래 거주했는데 懿陵이 석관동 산 1~5번지에 조성되면서 이곳으로 집단 이주시켰다. 당시에는 벌판에서 벼농사를 주로 했는데 물색이 좋아 생활이 윤택했다는 것이다.[96] 1960년 이후부터 이 洞에는 인구가 집중되어 농업은 점차 사라지고 도로변에는 商街가 형성되었으며 주택들이 밀집해 있다.

석관동 산 1~5번지에는 史蹟 제204호로 지정된 懿陵이 있다. 이 왕릉은 조선 20대 왕인 景宗과 繼妃 宣懿王后 魚氏의 릉으로 雙陵이다. 경종은 숙종의 長子로 숙종 14년 당시 3세로 세자가 되었고 숙종 43년에 세자로서 대리청정을 하기도 하였다. 숙종이 승하한 뒤 즉위하였으나 病弱하여 원년 8월에 이복동생(숙종의 4子) 延仍君을 世弟로 봉하였으며 재위 4년만에 37세를 일기로 승하하였다.

繼妃 宣懿王后는 咸原府院君 魚有龜의 女로 숙종 44년 15세로 세자빈이 되었고 경종 즉위와 함께 왕비로 進封되었으며 英祖 6년에 26세로 所生없이 타계하였다.

追尊된 純祖의 아들 翼宗의 陵도 純祖 31년(1831) 8월 4일에 이곳 懿陵 左岡에 모시고 延慶墓라 하다가 헌종 즉위년에 추존하여 綏陵으로 높인 뒤 哲宗 6년(1855)에 楊州郡 九里面 仁倉里(東九陵)로 遷奉하였다.[97]

또 석관동 340번지에는 都堂이 있다. 의릉이 조성되기 전에는 천장산 아래에 山神으로서 이 동네의 수호신으로 모시다가 이전해 온 것이다. 이 도당의 主神은 都堂 할머니라고 부르며 神主 대신 항아리에 벼를 가득 넣고 짚으로 땋은 주저리로 덮어 놓았으므로 女神을 모시고 豊農을 기원한 것이 틀림없다.[98]

---

96)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前揭書, p.164.

97)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서울六百年史』(文化史蹟篇), 1987, p.802, 827.

98)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洞名沿革攷』Ⅷ (城北區篇), 1983, p.166.

이 洞의 서쪽을 흐르는 中浪川은 경기도 楊州에서 발원하여 의정부시를 거쳐 「화랑로」에 놓인 월릉교 부근까지는 한내(漢川)라고 칭하다가, 월릉교에서 牛耳川, 墨洞川이 합류하면서 중랑개(中浪川)로 칭하며 면목동, 중곡동을 지나 살곶이다리에서 청계천과 합류해서 한강으로 들어간다.

중랑천은 전에 松溪川, 또는 涑溪로 불리었는데[99] 이는 松溪院이 있었기 때문이며 중랑천이란 이름은 하류에 中梁浦가 있었으므로 연유되었다. 중랑천은 1970년대까지 매년 여름이면 水位가 높아져 저지대의 주택은 水害를 겪었으며 주택의 하수와 공장의 폐수로 1960년대부터 오염되기 시작했다.

현재 석관동의 행정은 石串 第1洞과 第2洞에서 담당하고 있다.

〈石串 第1洞〉

石串 第1洞은 「이문로」 동쪽 일대의 석관동의 행정을 담당하는 洞長管轄區域 명칭이다.

이 洞은 장위제1동과 같이 1949년 8월 13일 서울市에 편입되었을 때 洞會가 설치되었지만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1953년 초에 長位洞會[100]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서울市에 편입될 때도 동일했으리라고 본다.

이 당시의 장위동회는 장위동과 석관동 일대를 관할하고 있었으며, 그 후 1955년 4월 18일(市條例 제66호) 「洞制」 실시 때 長石洞事務所로 바뀌었다. 이어서 1963년 1월 1일(市條例 제274호) 長石洞을 長位洞事務所와 石串洞事務所로 분리시킬 때 石串洞事務所에 속했으며 1975년 10월 1일(市條例 제981호) 석관동 중 상월곡동과 접하는 「장석로」를 따라 남진, 월곡로를 건


화랑로(석관지역)

99) 『大東地誌』 卷3 楊州 山水 橋梁篇.
100) 註) 90과 同一.

너 이문로를 따라 남진하여 이문동과 접하는 도로 이동지역을 石串第1洞으로 하고 그 이외의 지역을 石串 第2洞으로 정했다.

이 洞의 북쪽으로는 「화랑로」, 남북으로는 「里門路」(시조사~외대앞~석관국교), 「漢川路」가 지나고 있는데다가 남쪽과 북쪽 경계선 부근에 경원선 電鐵 新里門驛과 石溪驛이 자리잡고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다.

신이문역과 석계역 사이의 철로 동쪽에는 동원연탄, 삼표연탄, 삼천리연탄, 정원연탄, 칠표연탄 등의 연탄 생산공장이 1962년부터 들어서 있었다. 이 공장에서는 하루 150만개를 생산해서 서울시내의 연탄공급량의 1/2을 공급했으나 주택 난방연료가 油類로 바뀌는데다가 이 공장에서 나오는 粉塵이 인근 주택가의 公害를 자아내어 民怨이 일어나므로 점차 市外로 이전해 가고 있다. 「한국일보」('93.1.8)에 의하면 이곳의 정원연탄은 이미 폐쇄되고, 1993년 1월 7일자로 삼표, 칠표 연탄공장이 폐쇄되므로서 16개소가 7개로 줄어들고 생산량도 30%가 축소되었는데 나머지 9개소도 서울市에서 연차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1975년과 1990년의 석관제1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 도	면적(km^2)	가 구	인 구	통 수	반 수
1975	0.65	4,583	24,189	36	179
1990	0.96	7,294	27,751	35	268

※資料 : 內務部『地方行政區域要覽』, 1990, p.78.

〈石串 第2洞〉

石串 第2洞은 「里門路」 서쪽 일대의 석관동의 행정을 담당하는 洞長管轄區域 명칭이다.

이 洞은 앞의 석관제1동의 沿革과 같으므로 1975년 10월 이전은 생략하고 1975년 10월 1일(市條例 제981호) 석관동 중 석관 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을 石串 第2洞의 관할구역으로 정해서 현재에 이르렀다.

「화랑로」 변의 이 洞과 상월곡동 경계지역을 푸석골 또는 돌곶이말이라고 한다. 전에 성황당나무가 있는 고개를 푸석산이라 했기 때문에 푸석골이라고 칭했던 것으로 이 마을은 驪興(지금의 京畿道 驪州)閔氏들의 集姓마을로서 동네의 평안과 발

전을 위해 푸석산에서 1년에 한번씩은 山祭를 지내고, 3년에 한번 큰굿을 하였다. 그러나 6.25동란 이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점차 모여 살게되므로서 驪興閔氏들의 集姓村落的인 성격도 차츰 퇴색되어졌고 山祭나 洞祭의 풍속도 사라졌다.[101]

이 洞의 관내에는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석관동 261-1)가 있다. 1960년 5월 13일에 설립인가를 받아 1970년 8월 25일에 현재 위치로 이전했고 그 이듬해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가되었다. 그리고 국민은행 석관동지점, 새소망예식장, 새석관시장 등이 자리잡고 있다.

1975년과 1990년의 석관 제2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　도	면적(km^2)	가　구	인　구	통　수	반　수
1975	0.63	4,537	19,418	27	138
1990	0.7	4,536	16,940	25	187

※資料：內務部『地方行政區域要覽』, 1990, p.79.

〈朴　慶　龍〉

101)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前揭書, p.153.

歷代 國會議員 名單

제 헌		제 8 대	趙 尹 衡 · 徐 範 錫 · 高 興 門
제 2 대	趙 素 昻	제 9 대	丁 來 赫 · 高 興 門
제 3 대	金 一	제10대	丁 來 赫 · 趙 世 衡
제 4 대	徐 範 錫	제11대	金 正 禮 · 趙 舜 衡
제 5 대	徐 範 錫	제12대	李 哲 · 金 正 禮
제 6 대	趙 尹 衡 · 徐 範 錫	제13대	李 哲 · 趙 尹 衡
제 7 대	趙 尹 衡 · 徐 範 錫	제14대	李 哲 · 申 溪 輪

現 서울市議會 議員

갑 선거구	尹 寬 炳	朴 別 根	金 鍾 源
을 선거구	李 文 光	具 濟 南	朴 善 童

歷代 城北區廳長 名單

區分	姓 名	在 任 期 間	在職期間	區分	姓 名	在 任 期 間	在職期間
1	?	49. 8. ~ ?		18	鞠應好	74.11.16~75.10. 1	11월
2	愼鏞奭	57.12. 2~59. 8.23	1년10월	19	盧健一	75.10. 2~76. 5.18	8월
3	金尙鎭	59. 8.24~60. 5.12	9월	20	姜炳壽	76. 5.19~77. 9.11	15월
4	崔良振	60. 5.13~60. 7. 7	2월	21	延基鎬	77. 9. 2~78. 5.30	9월
5	李宗彦	60. 7. 8~61. 6.25	1년	22	朴順哲	78. 5.31~79. 6.22	1년 1월
6	李元宰	61. 6.26~62. 2.22	8월	23	鄭永燮	79. 6.23~81. 9.11	1년 2월
7	金漢相	62. 2.23~63. 5.28	1년 3월	24	金振浩	81. 9.12~82. 9.10	1년
8	李元宰	63. 5.29~64. 1.16	8월	25	李忠雨	82. 8.11~84. 1.14	1년 5월
9	朴有緖	64. 1.17~65. 4.26	1년 3월	26	李泳和	84. 1.15~84.10.23	9월
10	林鍾元	65. 4.27~68. 5.21	3년 1월	27	白相承	84.10.24~85. 3.14	5월
11	沈 倫	68. 5.22~69. 1.10	8월	28	許載九	85. 3.15~87. 1.23	1년11월
12	李雨榮	69. 1.11~69.11.20	11월	29	李元鍾	87. 1.24~88. 5.12	1년 3월
13	李相德	69.11.21~70.10.15	11월	30	金義在	88. 5.13~89. 9. 8	1년 4월
14	安瓚熙	70.10.16~71. 8.29	11월	31	潘忠男	89. 9. 9~91. 7.25	1년11월
15	盧利植	71. 8.30~72. 7. 8	10월	32	金炳龍	91. 7.26~93. 3.17	1년 8월
16	朴容熙	72. 7. 9~73. 7. 1	12월	33	曺三燮	93. 3.18~93. 6. 9	3월
17	金垓洙	73. 7. 2~74.11.15	1년 4월	34	田燦明	93. 6.10~	

城北區 議會 議員

議長	李	敏	衡	副議長	吳	采	泳
議員	崔	哲	模	議員	徐	化	錫
	鄭	喆	植		金	甲	濟
	申	晋	玉		兪	鎭	武
	申	宗	鉉		朴	德	基
	卜	定	安		徐	海	善
	金	吉	泰		金	知	雲
	金	光	鎬		李	鍊	坰
	金	炯	九		千	福	成
	韓	春	子		柳	成	烈
	李	萬	載		羅	光	洙
	蘇	正	煥		趙	基	燦
	李	天	浩		閔	應	說
	權	赫	騏		洪	清	一
	安	敦	洙		李	三	田
	申	夬	浩		安	傑	瑢
	黃	義	揮		金	鍾	煥
	金	榮	植		金	承	泰
	崔	相	烈		崔	桂	洛
	李	明	煥		鄭	昌	萬
	金	德	守		金	正	圭
	朴	演	洙		黃	鎬	山

城北區廳 幹部 名單

區廳長	田	燦	明	生活體育課長	李	昌	泰
副區廳長	鄭	東	洙	振興係長	具	平	春
總務局長	李	榮	宰	管理係長	金	基	煥
財務局長	朴	洙	徹	施設係長	朴	瑕	圭
市民局長	金	文	洙	民防衛課長	朴	聖	百
都市整備局長	全	熙	庠	民防衛計劃係長	房	日	範
建設局長	金	濟	煉	教育訓練係長	崔	南	秀
區議會事務局長	朴	承	萬	兵事係長	張	必	永
保健所長	李	澄	淵	財務課長	金	明	鎬
文化公報室長	金	敏	九	管財係長	尹	勳	均
公報係長	金	重	鉉	契約係長	李	基	宅
文化係長	鄭		鎬	支出係長	崔	炳	默
監查室長	趙	學	來	公課金係長	鮮于	京	鎬
監查係長	朴	慶	浩	稅務1課長	朴	容	浩
調查係長	裵	京	喆	稅務1係長			
環境巡察係長	權	泰	五	稅務2係長	溫	圭	德
市民奉仕室長	孫	聖	浩	稅務3係長	金	聖	會
民願行政係長	黃	鍾	洙	調查評價係長	李	學	得
民願處理係長	李	裕	澤	稅務2課長	張	富	次
戶籍係長	崔	錫	柱	整理係長	林	峯	涉
總務課長	金	昊	鎭	課徵1係長	姜	賢	求
總務係長	申	聖	撤	課徵2係長	鄭	池	龍
人事係長	河	正	守	土地管理課長	丁	興	鎭
洞政係長	徐	文	錫	土地管理係長	河	在	浩
議會協力係長	金	錫	珍	土地調查係長	金	永	富
企劃豫算課長	李	鍾	淳	社會福祉課長	金	慶	烈
企劃係長	安	明	佑	社會係長	高	海	鎭
豫算係長	金	瓚	植	保險年金係長	裵	雨	錫
法制係長	金	東	吉	家庭福祉課長	金	容	根
電算統計係長	朴	義	權	家庭福祉係長	金	鎭	永
國民運動支援課長	金	淳	哲	婦女福祉係長			
새마을係長	卞	昌	培	青少年係長			
指導係長	尹	相	昱	衛生課長	趙	漢	石

食品衛生係長	洪	世	杓	地政係長	崔	允	久
公衆衛生係長	金	龍	鎬	地籍1係長	成	德	洙
監視係長				地籍2係長	李	永	濟
産業課長	丁	奎	允	建設管理課長	姜	錫	泰
商工係長	崔	承	君	管理1係長	姜	鎬	榮
物價係長	李	東	萬	管理2係長	李	慶	換
然料係長				街路整備係長	崔	石	根
가스係長	鄭	三	翼	土木課長	李	鍾	一
農水産係長				土木係長	河	在	權
環境課長	梁	洪	錫	道路管理係長	金	永	煥
環境管理係長	李	成	海	道路照明係長	姜	道	錫
環境指導係長	朴	熙	善	下水課長	李	性	浩
生活公害係長	李	魯	成	下水係長	金	丁	來
清掃課長	柳	相	坤	下水機電係長	朴	正	九
庶務係長	梁	聖	旭	下水課徵係長			
作業係長	金	正	宣	公園綠地課長	金	一	根
衛生設備係長	姜	命	求	公園係長	魚	泳	遇
裝備管理係長	柳	承	春	綠地係長	文	玄	植
住宅課長	金	正	培	保健行政課長	金	鍾	翰
住宅係長	崔	善	炅	保健企劃係長	金	鍾	弼
住宅管理係長	崔	泰	榮	運營係長	洪	基	榮
住宅整備係長	金	炯	植	防疫係長	尹	漢	炳
住宅改良係長	崔	學	哲	保健指導課長	黃	寅	攝
都市整備課長	金	雲	熙	保健指導係長	崔	英	子
都市整備係長	卞	寧	均	家族保健係長	方	英	順
廣告物管理係長	李	仁	哲	健康管理係長	朴	光	錫
地域交通課長	金	永	洙	醫藥課長	康	順	玉
地域交通係長	金	連	萬	醫務係長	白	燃	善
運輸指導係長	安	銀	植	藥務係長	丁	基	聲
駐車管理係長	宋	芳	伸	檢診係長	辛	慶	德
自動車登錄係長				區議會專門委員	宋	坪	炷
建築課長	朴	隆	聖	〃	宋		鍊
建築管理係長	張	壽	吉	議政係長	李	錫	基
建築1係長	金	棟	柱	議事係長	林	洛	吉
建築2係長	朴	龍	牛	議案係長	南宮	東	均
地籍課長	文	連	松				

各 洞長 및 事務長 名單

洞名	洞長	事務長
城北 1	全永植	朴升年
城北 2	金垣集	權光秀
東小門	劉寅根	許鈺
三仙 1	李相斗	金炯圭
三仙 2	李康壽	金赫
東仙 1	金應淳	李在根
東仙 2	李熙相	咸光男
敦岩 1	李昌文	張用元
敦岩 2	李宅旼	崔相潤
安岩	金渙模	
普門	許潤	韓永洙
貞陵 1	李俊宰	柳慶相
貞陵 2	尹弘老	張琲燮
貞陵 3	具本庠	權益壽
貞陵 4	權壽榮	
吉音 1	金學培	
吉音 2	張明德	蔡義錫
吉音 3	鄭東和	朱應植
鍾岩 1	金壽榮	
鍾岩 2	朴時俊	李炳澤
月谷 1	金洪德	崔燉梧
月谷 2	柳世桓	朴鏞茂
月谷 3	林炳圭	張碩基
月谷 4	朴景錫	洪秀烈
上月谷	朴錫元	崔弘治
長位 1	李正南	鄭基元
長位 2	韓洛圭	金玉榮
長位 3	申熙哲	趙敏煥
石串 1	具敬模	金慶贊
石串 2	金永出	朴來烈

原 橋 執 筆 者

總　　括	孫 禎 睦	서울市立大 教授
제 1 장	孫 禎 睦	
	金 周 煥	東國大學校 教授
제 2 장	羅 恪 淳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研究員
	孫 禎 睦	
제 3 장	孫 禎 睦	
제 4 장	羅 恪 淳	
제 5 장	孫 禎 睦	
제 6 장	尹 哲 煥	東大門區議會 事務局長
제 7 장	崔 完 基	梨花女子大學校 教授
	孫 禎 睦	
제 8 장	鄭 希 仙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研究員
	成 禹 慶	서울市立大學校 都市行政研究室
제 9 장	鄭 希 仙	
제 10 장	朴 銀 淑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研究員
제 11 장	각 教團 관계자(종교)	
	李 在 崑	(민속) 歷史·民俗學者
제 12 장		既存 各 資料 引用
제 13 장	成 禹 慶	
제 14 장	朴 慶 龍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研究幹事
補　　助	姜 喆 求	서울市立大學校 都市行政學科 助教
	李 哲 虎	서울市立大學校 都市行政研究室
	李 淑 瑛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 主管 城北區 文化公報室(室長 金敏九, 公報係長 金重鉉, 담당자 任光淳
사진촬영 李潤漢)

城北區誌

1993年 8月 10日 發行

發行處：서울特別市 城北區

印刷處：印刷製版 藝文社

〈非賣品〉